룻기 원문 주석

A Commentary on the Book of Ruth

이 창배 지음

פָּקַד יְהוָה אֶת־עַמּוֹ לָתֵת לָהֶם לָחֶם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יְשַׁלֵּם יְהוָה פָּעֳלֵךְ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מֵעִם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אֲשֶׁר־בָּאת לַחֲסוֹת תַּחַת־כְּנָפָיו

וַיִּתֵּן יְהוָה לָהּ הֵרָיוֹן וַתֵּלֶד בֵּן

יֶלֶד־בֵּן לְנָעֳמִי וַתִּקְרֶאנָה שְׁמוֹ עוֹבֵד הוּא אֲבִי־יִשַׁי אֲבִי דָוִד

2009

키드바로 주경연구소

글 저작권ⓒ 2009 이 창배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책을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셨던 김주락 목사님(1931-2007)과
나오미처럼 남을 항상 먼저 배려하시는 정여화 사모님(1934-2021)과
룻같이 헌신적인 돕는 배필 김성혜에게
감사하며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 112:1-2)

차례

머리말
I. 룻기 서론
1. 명칭 *1*
2. 정경성과 정경상의 위치 *2*
3. 본문 *13*
4. 인물 룻 *13*
5. 저자 *17*
6. 저작 시기 *18*
7. 저작 목적과 시대 배경 *24*
8. 장르 *27*
9. 구조 *30*
10. 줄거리 *34*
11. 주제 *40*
12. 신학 (하나님) *41*
13. 신앙과 행위 (하나님의 백성) *47*
14. 한결같은 인애(헤쎄드)의 삶 *51*
15. 역사적 내러티브로서 룻기의 해석 원리 *54*
16. 룻기의 정경적 맥락 *56*
II. 룻기 주석
1 서막 (1:1-5) *57-90*
본문, 번역, 본문 비평 *57*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60*
각 절 주석 *61*
서막(1:1-5) 해설 *80*
2 제 1 막 (1:6-22) *84-175*
① 1 막 1 장 (1:6-18) *84-151*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84*
(1)1 막 1 장 A (1:6-10)
본문, 번역, 본문 비평 *88*
각 절 주석 *91*
(2)1 막 1 장 B (1:11-14)
본문, 번역, 본문 비평 *108*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10*
각 절 주석 *111*
(3)1 막 1 장 C (1:15-18)
본문, 번역, 본문 비평 *126*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28*
각 절 주석 *130*
1 막 1 장(1:6-18) 해설 *141*
② 1 막 2 장 (1:19-22) *152-175*
본문, 번역, 본문 비평 *152*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53*
각 절 주석 *155*
1 막 2 장(1:19-22) 해설 *170*
3 제 2 막 (룻 2:1-23) *176-329*
① 2 막 1 장 (2:1-3) *179-206*
본문, 번역, 본문 비평 *179*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80*
각 절 주석 *181*
2 막 1 장(2:1-3) 해설 *201*
② 2 막 2 장 (2:4-17) *207-297*
(1) 2 막 2 장 A (2:4-7)
본문, 번역, 본문 비평 *208*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210*
각 절 주석 *210*
(2) 2 막 2 장 B (2:8-13)
본문, 번역, 본문 비평 *239*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241*
각 절 주석 *243*
(3) 2 막 2 장 C (2:14-17)
본문, 번역, 본문 비평 *271*
각 절 주석 *272*
2 막 2 장(2:4-17) 해설 *286*
③ 2 막 3 장 (2:18-23) *298-329*
본문, 번역, 본문 비평 *298*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301*
각 절 주석 *302*
2 막 3 장(2:18-23) 해설 *326*
4 제 3 막 (3:1-18) *330-431*
① 3 막 1 장 (3:1-5) *332-358*
본문, 번역, 본문 비평 *332*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334*
각 절 주석 *335*

3 막 1 장(3:1-5) 해설 *355*
② 3 막 2 장 (3:6-15) *359-416*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359*
(1) 3 막 2 장 A (3:6-9)
본문, 번역, 본문 비평 *362*
각 절 주석 *364*
(2) 3 막 2 장 B (3:10-15)
본문, 번역, 본문 비평 *375*
각 절 주석 *379*
3 막 2 장(3:6-15) 해설 *403*
③ 3 막 3 장 (3:16-18) *417-431*
본문, 번역, 본문 비평 *417*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418*
각 절 주석 *419*
3 막 3 장(3:16-18) 해설 *429*
5 제 4 막 (4:1-12) *432-526*
① 4 막 1 장 (4:1-8) *433-497*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433*
(1) 4 막 1 장 A (4:1-2)
본문, 번역, 본문 비평 *436*
각 절 주석 *437*
(2) 4 막 1 장 B (4:3-8)
본문, 번역, 본문 비평 *433*
각 절 주석 *437*
4 막 1 장(4:1-8) 해설 *490*
② 4 막 2 장 (4:9-12) *498-526*
본문, 번역, 본문 비평 *498*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500*
각 절 주석 *502*
4 막 2 장(4:9-12) 해설 *522*
6 종막 (4:13-17) *527-558*
본문, 번역, 본문 비평 *527*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529*
각 절 주석 *531*
종막(4:13-17) 해설 *549*
7 코다 (4:18-22) *559-582*
본문, 번역, 본문 비평 *559*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562*
각 절 주석 *567*
코다(4:18-22) 해설 *574*
참고문헌 *583*
부록
1. 룻기 원문 *595*
2. 룻기 원문 음역 *599*
3. 룻기 원문 번역 *604*
4. 히브리어 음역 유의 사항 *609*
5. 히브리어 알파벳과 모음 기호 *611*
6. 히브리어 문법을 위한 노래들 *613*
7. 룻기_원문_개역개정_번역 대조 *617*
8. 룻기 정독을 위한 문제 *632*

머리말

구약 성경의 첫 주석으로 룻기 원문 주석을 내 놓는다. 룻기와의 씨름은 풀러(Fuller)신학교의 개블라인(Paul Gaebelein) 박사의 히브리어 강독 강좌와 부시(Frederic W. Bush) 박사의 고급 히브리어 강좌에서 비롯되었다. 개블라인 박사는 룻기를 원문으로 읽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해 주셨고 부시 박사는 룻기 원문에 대한 음운론적, 형태론적, 구문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문제들을 통하여 원문에 대한 문법적-역사적-신학적 주석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해 주셨다.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Th.M.)학위를 얻고 UCLA 에서 고대 근동의 언어들과 문화(Near Eastern Languages & Cultures)를 전공하고 철학박사(Ph.D.)학위를 얻은 후 여러 해 동안 히브리어 강독, 고급 히브리어, 혹은 구약 석의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룻기 원문을 다루어 왔다.

룻기 원문 주석을 쓰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연구하여 남긴 많은 학자들의 책들에 진 빚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BDB, KB, TWOT, NIDOTTE 등의 사전, GKC, GBH, IBHS, WHS 등의 히브리어 문법서, 블락(Block), 부시(Bush), 허버드(Hubbard), 캠벨(Campbell) 등의 주석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캠벨은 본문 비평과 고대 근동의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허버드는 저자의 문예적 창작성을 맛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부시는 원문의 구문 분석과 해석 그리고 문학적 분석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블락은 신학적 메시지를 찾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퍼거슨(Ferguson)과 울리치(Ulrich)는 룻기의 신학 메시지를 신약과 연결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브로츠만(Brotzman)은 본문 비평에 좋은 참고 자료를 주었고 벌린(Berlin)과 스튜아트(Stuart)와 바-에프랏(Bar-Efrat)은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룻기 원문 주석은 장면들로 이루어진 내러티브의 특성에 따라 막들과 장면들로 나누고 각 막 혹은 각 장면에 대한 **본문 번역–문학적 분석–각 절 주석–해설**을 하였다. 첫째, 본문 번역 부분에는 원문(WLC)과 ESV 와 한글 개역개정의 번역에 이어서 저자 자신의 번역과 본문 비평이 들어 있다. 둘째, 문학적 분석 부분에는 문학적 구조와 문예적 기교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셋째, 각 절 주석 부분에는 각 절의 원문에 대한 문법적 문제와 각 절에 대한 자세한 주석이 들어 있다. 넷째, 해설 부분에는 각 절에서 다룬 것을 각 막 혹은 장면들에 따라 요약 정리한 후 삶에 적용하는 해설이 들어 있다. 원어를 모르는 독자를 위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는 [ ] 안에 음역을 제시하였다. 각 절 주석 부분에 나오는 원문에 대한 논의가 이해하기 힘든 독자들의 경우 첫 번째 본문 번역 부분의 저자의 번역과 네 번째 해설 부분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룻기 원문 주석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강독 혹은 고급 히브리어 혹은 구약 석의 시간에 원문을 다룰 때 교재 혹은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구약의 40%를 차지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의 원리와 실제를 다룰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룻기 원문 주석은 원문과 진지하게 씨름하며 석의하고 오늘의 청중을 위해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것이고 본문의 뜻을 보다 상세하게 살피려고 하는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다. 신앙생활의 표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룻기 원문 주석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기도한다.

I. 룻기 서론

1. 명칭

히브리 성경	헬라어역 (Septuagint)	라틴어역 (Vulgate)	영어역	한글역
רוּת	Ρουθ	Ruth	Ruth	룻기

1)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를 나오미의 며느리요 보아스의 아내가 된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라 רוּת[루트]라고 부른다.[1] 모든 번역 성경들도 히브리어 성경 명칭을 따라서 룻이라고 부른다.[2]

① 룻이란 이름은 본서에 12 번 나오고 나머지 성경에서 마 1:5 에 한 번 더 나온다.

② 구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따라 책명이 지어진 것은 룻기와 에스더서뿐이다. 에스더는 이방 땅에 사는 포로민 유대인으로 이방인 페르시아 제국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으나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과 결혼하였고 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다.

③ 신약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사람 누가를 따라 이름 지어진 누가 복음처럼 룻기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룻을 따라 책명이 지어졌다.

2) 룻기가 이방 여인 룻을 따라 책명을 삼은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① 룻기에서 룻은 여러 차례 이방 여인으로 명시되고 있다. 내레이터와 보아스에 의해 "모압 여인 룻 רוּת הַמּוֹאֲבִיָּה[루트 하모아비야]"이라고 5 번 언급된다(룻 1:22; 2:2; 2:21; 4:5; 4:10). 보아스의 사환에 의해 "모압 여자 נַעֲרָה מוֹאֲבִיָּה[나아라 모아비야]"라고 보아스에게 소개된다(2:6). 룻 자신도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 נָכְרִיָּה[노흐리야]"이라고 말한다(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 책명을 삼은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다.

② 룻기가 일차적으로 룻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렇다.

- 첫째로, 플롯(plot)을 고려하면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이므로 "나오미기"라 해야 옳다.[3] 이야기가 텅텅 비어 가는 나오미 가문의 멸절 위기로 시작(1:3-5)되어 오벳의 탄생으로 인해 그 가문이 채워지는 결말(4:13-17)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1] 히브리어 성경의 책명은 룻기처럼 등장 인물(보기: 수, 삼, 욥, 에, 삿 שֹׁפְטִים, 왕 מלכים 등)이나 저자의 이름(보기: 저술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지은 선지서들: 사 יְשַׁעְיָהוּ, 렘 יִרְמְיָהוּ)을 따라 부르는 것도 있고, 책의 첫 단어(보기: 창 בְּרֵאשִׁית, 레 וַיִּקְרָא , 잠 מִשְׁלֵי , 애 אֵיכָה)나 책의 첫 절의 어떤 단어(들)(보기: 출 שְׁמוֹת, 민 בְּמִדְבַּר, 신 דְּבָרִים, 전 קֹהֶלֶת, 아 שִׁיר הַשִּׁירִים)이나 책 안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보기: 시 תְּהִלִּים [< תְּהִלָּה 시 145], 대 דִּבְרֵי הַיָּמִים[대상 27:24])을 따라 부르는 것도 있다.

[2] 헬라어역 Ρουθ[루스]의 θ[세타]와 라틴어역/영어역의 Ruth 의 th 는 브가드크파트(בגדכפת) 문자 중의 하나인 ת[타브]가 가운데 점을 갖지 않으므로 폐쇄음이 아니라 마찰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브가드크파트 문자를 음역할 때 점이 없으면 전에는 h 를 첨가해서 bh, dh, gh, kh, ph, th 로 나타냈으나 지금은 대개 한 문자만을 써서 b̲(v) ḡ ḏ(ð) k̲ p̄ (f) t̲ 등으로 나타낸다. 한글역 "룻"은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잘못된 음역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오는 모음 우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ת[타브]가 마찰음(θ 스)으로 발음되든 폐쇄음(t 트)으로 발음되든 받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사실은 "루스 혹은 루트"라고 표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와서 이미 통용되어 널리 사용된 이름 "룻"을 굳이 고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Adele Berlin(*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1983], 83-87)의 말대로 룻기의 중심 인물(main character)은 나오미이다. 다른 인물들은 (1:2 에서 나오미와 아들들이 엘리멜렉과의 관계로 소개된

- 둘째로, 마지막 부분과 족보 그리고 룻기의 저술 목적 등을 고려하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의 이야기이므로 "오벳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셋째로, 룻기는 총 85 절 중 55 절—구체적으로 말하면, 총 1294 단어 중 678 단어 [52.4%]—이 등장 인물의 대화이다. 모든 내러티브에서 대화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룻기의 세 주요 등장 인물 중에서 보아스가 가장 자주 이야기하며(보아스: 14 번; 나오미 12 번; 룻 10 번),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보아스[총 단어/평균 단어]: 281/20; 나오미: 225/19; 룻 120/12) 것에 유의하면 "보아스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4]

③ 이처럼 룻이 모압 출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룻이 관심의 관점에서 주인공이긴 하지만 인식의 관점에서 이야기 전체의 중심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룻의 이름을 따라 책명을 삼은 것은 내레이터와 독자들이 룻의 성품에 매료되어 룻을 칭송한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경성과 정경상의 위치

1) 정경성

① 룻기의 정경성(canonicity)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5]

것을 제외하고)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언급된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고(1:3) 말론과 기룐도 나오미의 아들로 언급된다(1:3, 5). 룻과 오르바도 나오미의 며느리이다. 4:10 에서 법적으로 룻이 말론의 아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중요한 관계는 그들의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오미와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2:1 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족으로 묘사되고, 2:20 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의 일가붙이, 우리의 기업 무를 자중의 하나"라고 한다. 룻과 보아스에게 태어난 아들도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언급된다(4:17). 룻과 오르바의 "시어머니/시모"라고 하는 것 이외에 나오미는 항상 고유명사로 독립적으로 언급된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를 중심인물 나오미의 인식의 관점(perceptual point of view)에서 본 것을 드러낸다. 인식의 관점과 구별되는 것은 이해/이익/흥미/관심의 관점(interest point of view)이다. 저자의 탁월한 문예적 기술로 인해 독자는 나오미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보다는 룻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관심의 관점의 초점, 즉 나오미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고 독자들의 관심의 초점이다. 룻은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의 만남의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에 있거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독자들은 항상 룻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룻의 설명을 통해서이다. 사건들이 나오미의 인식의 관점에서 묘사되지만 룻이 나오미의 문제 해결을 돕듯이 룻은 나오미의 인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룻은 나오미처럼 중심 인물(main character)이라고 할 수 없지만 주인공(hero)이라고 부를 수 있다.

[4] Daniel I. Block,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1999), 588.

[5] 룻기의 정경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엿볼 수 있는 글로 지적되는 것은 주후 2 세기의 Rabbi Simeon ben Yohai 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바벨론 탈무드(Meg. 7a)에 나오는 글은 Ecclesiastes is among the matters on which the School of Shammai was more lenient and the School of Hillel more stringent, but [all agreed that] Ruth, Song of Songs, and Esther make the hands unclean [i.e., are canonical] (R. Beckwith,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London: SPCK, 1985)] 304). 전도서는 샴마이 학파가 더 관대하고 힐렐 학파가 더 엄격한 입장을 보이는 것들 중에 속하지만 룻기, 아가서, 에스더서가 손을 부정하게 하는 것, 즉 정경임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였다."이다. 이 글에 대하여 상반된 해석이 있다. 부시(Bush Frederic W. Bush, *Ruth*, *Esther*, WBC 9 [Dallas: Word, 1996], 5)는 랍비 시므온이 룻기의 정경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고서 함께

② 주후 1 세기 유대인 작가나 기독교인 작가들은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룻기의 내용을 주저 없이 거룩한 역사의 기록으로 받아들였다(참고, 마 1:5; 눅 3:32; 요세푸스, *Ant*. v. 9:1-4).

③ 가장 이른 시기의 유대교 정경 목록(T. B. *B. Bat.* 14b, 주후 2 세기)과 기독교 정경 목록(Melito of Sardis, 주후 2 세기)에 룻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 정경 목록(Origen, 주후 3 세기 말; Jerome 주후 4 세기말)에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2) 가장 이른 시기의 정경(구약 성경)의 목록

① 가장 이른 시기의 유대인 정경 목록은 주후 1-2 세기에 활동한 타나임 학파의 랍비들의 말을 인용한 바라이타(baraita)에 나오는데 주후 6 세기 초에 완성된 바벨론 탈무드 바바 바스라(Baba Bathra) 14b 에 들어 있다.

-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선지서의 순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12(=소선지서)이다. 성문서의 순서는 **룻**, 시편, 욥, 잠언, 전도서, 아가, 애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역대기이다. 누가 이 책들을 썼는가? 모세가 모세오경과 발람에 관한 일부 그리고 욥기를 썼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와 오경의 마지막 8 절을 썼다.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썼다. 다윗은 10 명의 조상, 즉 아담(시 139:16; 시 92?), 멜기세덱(시 110), 아브라함(시 89), 모세(시 90-100), 헤만(시 88), 여두둔(시 62, 시 77?), 아삽(시 50, 73-83), 고라의 세 아들(시 42, 49, 78, 84, 85, 88)의 영향을 받아 시편을 썼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와 애가를 썼다. 히스기야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사야서와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를 썼다. 대 회당의 사람들이 에스겔서와 12 선지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서를 썼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와 역대기서의 그의 당대까지의 족보를 썼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완성하였다.[6]

언급된 아가서와 에스더서와 같이 룻기의 정경성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버드(Robert L. Hubbard,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5)는 랍비들 사이의 논쟁이 있는 책은 룻기가 아니라 전도서이며 룻기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룻기가 이미 정경으로 인정된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랍비 시므온(Simeon)이 룻기의 정경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은 랍비들 사이의 논쟁 때문이 아니고 룻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 모세의 법과 상반되는 듯한—예: 모압 여인과의 결혼, 룻 1:4 과 신 23:3-6; 수혼(嫂婚: 兄死取嫂, 繼代結婚)과 기업 무름, 룻 3-4 장과 신 25:5-10/레 25:23-55—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6] Harrison, *Introduction*, 271: "The order of the prophets is Joshua, Judges, Samuel, Kings, Jeremiah, Ezekiel, Isaiah, the Twelve (Minor Prophets). That of the Kethubhim is **Ruth**, Psalms, Job,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lomon, Lamentations, Daniel, the roll of Esther, Ezra, Chronicles. Who wrote the books? Moses wrote his book, the section about Balaam, and Job; Joshua wrote his book and the last eight verses of the Torah; Samuel wrote his book, Judges, and Ruth. David wrote the Psalms at the direction of the Ten Ancients, namely through Adam [Ps. 139:16; Ps. 92?], Melchizedek [Ps. 110], Abraham [Ps. 89], Moses [Pss. 90-100], Heman [Ps. 88], Jeduthun [Ps. 62, Ps. 77?], Asaph [Pss. 50, 73-83], and the three sons of Korah [Pss. 42, 49, 78, 84, 85, 88]. Jeremiah wrote his book, the Book of Kings, and Lamentations; king Hezekiah and his council wrote Isaiah, Proverbs, Song of Solomon, and Ecclesiastes; the men of the Great Synagogue wrote Ezekiel, the Twelve

- 이 목록에서 룻기는 히브리 정경의 셋째 부분인 성문서의 목록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시편 앞에 온다.

② 가장 이른 시기의 기독교 정경 목록은 사데(Sardis)의 주교 멜리토(Melito)가 주후 170 년경에 쓴 글에 나온다.

- 다음은 키르솝 레이크(Kirsopp Lake)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Ecclesiastical History*) 4.26.14 에 있는 멜리토의 글이다.

> 내가 동방에 와서 이러한 것들이 설교되고 행해지는 곳에 이르러 구약의 책들을 정확하게 배울 때 그 사실들을 적어서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 책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4 왕국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과 그의 지혜[=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사야, 예레미야, 단권의 12(소)선지서,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에스라-느헤미야].[7]

- 이 목록에서 룻기는 사사기와 분리된 채로 사사기 다음에 나오며 에스더서는 빠져 있고[8] 총 25 권이다.

③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장 이른 주후 1-2 세기 경의 유대인 정경 목록과 가장 이른 주후 2 세기의 기독교 정경 목록은 룻기의 정경상의 위치에 대한 두 가지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룻기를 세 번째 부분에 둔 유대인 정경 목록(24 권)은 맛소라(히브리어) 본문 전통을 반영하고 있고, 룻기를 역사서 가운데 사사기 뒤에 둔 기독교 정경 목록(39 권)은 칠십인역(헬라어) 본문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3) 히브리어 정경(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교 전통의 삼분법

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경(히브리어 성경 =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תּוֹרָה([토라] 율법서), נְבִיאִים([느비임] 선지서), כְּתוּבִים([크투빔]성문서)이라고 불렀다. 히브리 성경을 편의상 TaNaK[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은 3 부분의 첫 글자 ת([타브] T), נ([눈] N), כ([카프] K)에 모음 a 를 넣어 읽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② 히브리 성경(구약 성경)의 3 구분에 대한 증거는 신약의 유일한 증거인 눅 24:44(율법, 선지자, 시편)[9] 그리고 주전 2 세기의 벤 시라(Ben Sira)의 집회서(*Ecclesiasticus*) 서문에 나오는 "law and

---

Prophets, Daniel, and Esther. Ezra wrote his book and the genealogy of Chronicles down to his own period. Nehemiah completed it (bold and underline added)."

[7] Kirsopp Lake,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two vols. (London: Heinemann; and Cambridge, Mass.: Harvard, 1975), 1: 383: "When I came to the east and reached the place where these things were preached and done, and learnt accurately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I set down the facts and sent them to you. These are their names: five books of Moses, Genesis, Exodus, Numbers, Leviticus, Deuteronomy, Joshua the son of Nun, Judges, **Ruth**, four books of Kingdoms [i.e., 1 Samuel, 2 Samuel, 1 Kings, and 2 Kings], two books of Chronicles, the Psalms of David, the Proverbs of Solomon and his Wisdom [= Proverbs], Ecclesiastes, the Song of Songs, Job, the prophets Isaiah, Jeremiah, the Twelve in a single book, Daniel, Ezekiel, Ezra [= Ezra-Nehemiah] (bold and underline and bracketed comments added)." 멜리토에 대하여 Beckwith, *Canon*, 183-185 도 참고하라.

[8] 이 목록에 빠져 있는 에스더서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에 대한 논의를 위해 Beckwith, *Canon*, 288-97 을 보라.

the prophets and the other books of the fathers, 율법서와 선지서와 조상들의 다른 책들"라는 표현과 주후 1 세기 말의 요세푸스의 콘트라 아피오넴(*Contra Apionem*) I. 8 에 나오는 "5 Pentateuch, 13 Prophets, 4 hymns to God and precepts for conduct of human life, 5 권의 모세오경, 13 권의 선지서, 4 권의 하나님 찬양시와 인간 행위의 지침서"라는 표현 등이다.[10]

4) 삼분법에 의한 히브리 성경의 권수는 24 권으로 계산되기도 하고 히브리어 알파벳 수와 일치하는 22 권으로 계산되기도 한다. 룻기의 정경상 위치는 이 두 가지 계산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룻기를 정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에서 시편 앞에 놓은 탈무드(T. B. *B. Bat.* 14b)와 주전 100 년경의 외경 에스드라 2 서(2 Esdras 14:44-46)는 24 권을 말한다.[11]

---

[9] Geisler and Nix, *Introduction*, 80-82. 신약에서 구약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나 어구가 쓰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성경, 경 (Scripture(s), 약 50 회)": 마 21:42; 22:29; 26:54, 56; 눅 24:27, 32; 요 2:22; 5:39; 7:38, 42; 19:36; 20:9; 10:35; 행 17:2, 11; 18:24, 28; 롬 1;2; 4:3; 9:17; 10:11; 11:2; 15:4; 16:26; 고전 15:3-4; 갈 3:8, 22; 4:30; 딤전 5:18; 딤후 3:15-17; 벧후 1:20-21; 3:16 등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92회)": 막 9:12; 14:21; 눅 18:31; 21:22; 24:44; 요 1:45 등

"이루어지기 위해 (that it may be fulfilled, 33회)": 마 5:17; 눅 4:21; 24:44; 21:22 등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막 7:13; 요 10:35; 롬 9:6; 고후 4:2; 히 4:12; 계 1:2 등

"하나님의 말씀 (the oracles of God)": 롬 3:2; 히 5:12 등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from Abel to Zechariah)": 마 23:35; 눅 11:51 (참고, 창 4:8; 대하 24:20-22)

"율법": 원래 모세의 율법, 즉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눅 24:44; 히 10:28), 그 범위가 확장되어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면서 율법이라고 하거나(시편을 인용하며 율법이라고 한 구절들: 요 10:34 [←시 82:6]; 요 12:34; 15:25; 18:31; 선지서를 인용하며 율법이라고 한 구절: 고전 14:21 [←사 28:11-12]), 구약 전체를 지칭하면서 율법(마 5:18; 행 25:8; 롬 2:14; 7:22)이라고도 하였다.

"율법과 선지자" (7x): 마 5:17, 7:12; 24:40; 눅 16:16; 행 13:15; 24:14; 롬 3:21

"모든 선지자와 율법" (1x): 마 11:13

"모세와 선지자" (4x): 눅 16:29, 31; 24:27; 행 26:22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1x): 눅 24:44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할 때 대개 율법과 선지자로 언급한 것은 세 번째 부분을 지칭하는 데 오늘날 통용되는 ἁγιογραφα([하기오그라파] Hagiographa, Holy Writings, 성문서)와 같은 전문 용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눅 24:44 에서 세 번째 부분을 시편이라고 부른 것은 세 번째 성문서 배열에 시편이 첫 번째 자리에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270.

[11] 에스라-느헤미야서와 에스드라서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	헬라어 성경
에스라	Ezra	Esdras I	Esdras B(Beta)
느헤미야	Nehemiah	Esdras II	Esdras C(Gamma)
(외경: 에스드라 1 서)	1 Esdras	Esdras III	Esdras A(Alpha)
(외경: 에스드라 2 서)	2 Esdras	Esdras IV	-

외경 에스드라 1 서는 역대하 35-36 장, 에스라서 전체, 그리고 느헤미야 7:38-8:12(에스라의 개혁에 관한 문단의 중간에서 끊어짐)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요시야, 스룹바벨, 에스라가 이스라엘 예배의 개혁에

②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후 1 세기 말의 요세푸스는 **아피온 반박문**(*Contra Apionem*) I, 7-8, 38-42 에서 정경의 실질적인 목록은 말하지 않지만 5 권의 모세오경, 13 권의 선지서, 4 권의 하나님 찬양시와 인간 행위의 지침서라는 언급을 통해 22 권을 이야기한다. 이 요세푸스의 말로부터 (탈무드에 언급된 것처럼 사사기가 시편에 부속되어 한 권으로 간주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룻기가 사사기에 부속되어 사사기와 함께 한 권으로 간주되고 애가가 예레미야와 함께 한 권으로 계산된 것으로 가정한다.[12] 주후 3 세기 말의 오리겐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다고 하면서 22 권의 히브리 정경을 말한다.[13]

③ 랍비들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워 라틴어(벌게이트)역을 만든 4 세기 말의 제롬은 열왕기(= 사무엘 상하 + 열왕기 상하)의 **서문**(*Prologus Galeatus*)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룻기와 애가를 성문서 가운데 두며 따로 계산하여 24 권의 정경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14]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제롬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가 22 이기 때문에 구약의 책도 22 권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정경을 세 구분하는 것을 따라서 책을 열거한다. 22 권은 바로 룻기를 사사기와 함께 한 권으로 계산하고 애가를 예레미야와 함께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는 룻기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은 사사기를 더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기에 룻기를 포함시키는데

공헌할 일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에스드라 1 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총 9 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자료를 복제하고 있지만 수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에스드라 1 서의 대본이 되는 히브리어나 혹은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은 맛소라 본문과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에스드라 1 서는 에스라-느헤미야의 고대 헬라어 역본(칠십인역)을 복제한 것이 아니다. 성경 자료의 재배열, 성경에 없는 다리오의 궁정에서의 세 청년의 이야기(3:1-5:6)의 추가 등을 포함한 수많은 차이점들이 외경 에스드라 1 서와 정경 에스라-느헤미야 사이에 존재한다.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 에스라-느헤미야의 고대 헬라어 역본(칠십인역)을 따르지 않고 외경 에스드라 1 서를 따랐다. 라틴 벌게이트역에서 에스드라 1 서는 Esdras III 라고 부르며 칠십인역에서 Esdras Alpha 라고 부른다. 외경 에스드라 1 서는 정경 에스라-느헤미야와 구별하기 위하여 "헬라어 에스라 Greek Ezra"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스드라 1 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Harrison, *IOT*, 1194-1199 를 참조하라.

외경 에스드라 2 서는 매우 다른 유형의 책이며 외경에서 유일한 묵시 책이다. 로마("바벨론")의 악을 비난하며 신정론의 문제를 다룬다. 원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 졌고 헬라어로 번역된 것처럼 보인다. 헬라어 번역의 단편들만 남아 있다. 현존하는 역본들은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이디오피아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야어(Georgian)로 된 것들이다. 외경 에스드라 2 서는 벌게이트역에서 Esdras IV 라고 부르고 "에스라의 묵시록 Apocalypse of Ezra"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에스드라 2 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Harrison, *IOT*, 1200-1207 을 참조하라.

[12] Hubbard(*Ruth*, 6, n. 6)는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의 일들을 기록했다"는 요세푸스의 진술에 근거하여 13 권의 선지서는 아마도 욥, 수, 삿(+ 룻?), 삼, 왕, 사, 렘(+ 애?), 겔, 12[=소선지서], 단, 대, 스-느, 에이고 4 권의 다른 책은 시(+ 룻?), 잠, 전, 아일 것으로 보았다. 만일 마지막 두 권(전, 아) 중 한 권이 생략되었다면 그 대신에 애가가 올 것이라도 하였다. cf. Beckwith, *Canon*, 119.

[13] Beckwith, *Canon*, 185-87.

[14] Beckwith, *Canon*, 120.

그것은 룻기에 언급된 사건들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15] 여기서 룻기는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에 있지 않고 두 번째 부분인 선지서 중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한다.

④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주후 4 세기 말 제롬의 때까지 선지서와 성문서의 책 배열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록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6] 24 권의 목록(탈무드, 제롬)과 22 권의 목록(요세푸스, 제롬) 중 어느 것이 먼저이며 어느 것이 원래의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줄 자료가 없다. 다만 제롬의 말대로 정경의 수를 알파벳 문자의 수에 맞추기 위해 24 권의 배열에서 룻기를 사사기에 붙이고 애가를 예레미야에 붙여 22 권으로 배열했다면 탈무드의 목록이 더 이른 시기의 것이고 원래의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레닌그라드 사본과 출판된 히브리 성경

①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모든 구약 성경의 부분들을 갖고 있고 주전 3-1 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 사본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은 모두 주후 시대의 것이다. 1947 년에 발견된 사해 사본의 연구 결과로 주전 300 년에서 주후 100 년 사이에 적어도 3 가지 유형의 본문들, 즉 맛소라 본문 계통의 본문, 칠십인역의 대본이 된 본문, 사마리아 오경 계통의 본문이 나란히 존재했던 것이 밝혀졌다.

② 주후 100 년경에 가장 권위있고 표준적인 단일한 모 맛소라 본문(Proto-Masoretic Text)이 형성되었다. 이 본문의 전승을 위해 주후 100 년에서 500 년 사이에 탄나임,[17] 아모라임[18] 학자들이

---

[15] Beckwith, *Canon*, 120.

[16] 부시(Bush, *Ruth*, 7-9)는 기독교 정경의 발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이며 18 세기에 제기된 이래 최근까지 학자들의 큰 지지를 받던 소위 알렉산드리아 정경 가설이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는 이론(Pfeiffer [1941], Bentzen [1948], Soggin [1987³]의 총론 등에 소개됨)이라고 한다. 알렉산드리아 정경 가설이란 헬라화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는 아무런 연관됨이 없이 별도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히브리어 정경과는 다르게 순서도 바꾸고 더 나아가 많은 책(외경)을 첨가하여 기독교의 정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공동체 사이에 언어와 사상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Beckwith, *Canon*, 30-31), 사해 사본이 확인해 주듯이 Tobit, Judith, Baruch, I Maccabees, Additions to Daniel 등을 포함한 외경들이 원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 의해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사실과 상반된다. 따라서 W. Rudolf [*Das Buch Ruth*, *Das Hohe Lied*, *Die Klagelieder*, KAT 17 (Gütersloh: Mohn, 1962), 23-24]처럼 룻기가 사사기 뒤에 오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정경에 근거한 것이며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히브리어 정경과는 다르므로 2 차적인 것이고 원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7] 탄나임(תַּנָּאִים, tannaim, repeaters, teachers) 학파는 힐렐 사후부터 유다 하나시(Judah Hanasi)까지로 주후 70 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 약 150 년 동안 주로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였다. 유명한 탄나임으로는 Akiba, Eliezer ben Hyrcanus, Meir, Judah Hanasi 등이 있다. 이들의 전통은 미시나(Mishna), 토셉타(Tosefta), 미드라시 할라카(Midrashei Halakha), 탈무드 바라이토트(Talmudic Baraitot) 등에 기록되어 있다.

[18] 아모라임(אֲמוֹרַיִם, amoraim, speakers, explainers, interpreters) 학파는 주후 200 년에서 500 년경까지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에서 활동하였다. 주후 400 년경 팔레스타인이 주요 활동 무대로서 사라지고 바벨론이 중심 활동 무대가 되었다. 이 학파는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에서 각각 히브리어로 기록된 미시나에 대하여 문단에 따라 아람어로 주석을 한 게마라(Gemara, גְּמָרָא[그마라], "what is completed")를 만들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활동하였고 500 년에서 1000 년 사이에 맛소라[19] 학자들이 활동하였다. 구약 성경 전부를 담고 있는 맛소라 본문의 사본은 주후 1008 년의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출판된 BHK [R. Kittel ed., *Biblia Hebraica*, 3rd ed.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37)]과 BHS [Karl Elliger and Wilhelm Rudolf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csche Bibelgeselschaft, 1977)]의 대본으로 사용되었다.

③ BHK 와 BHS 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20]

- 토라(תּוֹרָה 율법서): 5 권

  브레시트(=창), 시모트(=출), 바이크라(=레), 브미드바르(=민), 드바림(=신)

- 느비임(נְבִיאִים 선지서): 8 권

  전선지서(רִאשׁוֹנִים נְבִיאִים 느비임 리숀님)

  여호슈아(=수), 쇼프팀(=삿), 시무엘(=삼), 믈라힘(=왕),

  후선지서(נְבִיאִים אַחֲרוֹנִים 느비임 아하로님)

  여샤야후(=사), 이르므야후(=렘), 여헤즈켈(=겔), 트레-아싸르(=12 소선지서)

- 크투빔(כְּתוּבִים 성문서): 11 권[21]

미시나와 이를 아람어로 해설한 게마라를 합하여 탈무드(Talmud, תַּלְמוּד[탈무드] "instruction")를 편찬하였다. 팔레스타인에서 주후 400 년경에 완성된 탈무드는 "Talmud of the Land of Israel, Jerusalem Talmud, הַיְרוּשַׁלְמִי[하여루샬미], T.P." 라고 하며, 주후 600 년경에 바벨론에서 완성된 탈무드는 "Talmud of Babylonia, הַבָּבְלִי[하바블리], T.B."라고 한다.

[19] 맛소라 학자들(בַּעֲלֵי הַמַּסֹּרָה [바알레 하마쏘라], Masoretes, masters of the tradition)은 주후 500 년에서 1000 년 사이에 활동하며 최종적 히브리성경 본문을 전해준 학자들이다. 맛소라 학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정확한 모음과 악센트에 관한 구두 전통(oral tradition, massorah)과 독특한 철자를 지닌 희귀한 단어의 수를 기록하여 보존하였기 때문이다. 맛소라 학자들은 각 단어에 정확한 발음과 문법적 형태를 제시하는 모음 기호를 고안하여 붙이고, 강음절(强音節)을 밝히고 구두점을 표시하며 낭송의 음률을 나타내기 위해 악센트를 붙였다.

[20] 한 세대 전의 구약총론 저자들(영, 해리슨, 엉거 등)과 차일즈(**구약총론**)와 하우스(**구약신학**) 그리고 현대 유대인 영어 성경(NJPS, Tanakh)은 히브리어 성경의 삼분법에 따라 구약을 배열하고 있다. 영[E. J.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9)]과 해리슨[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과 엉거[M. F. Unger, *Introductory Guide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51)] 그리고 유대인 영어 성경은 두루마리서의 경우 절기상 빠른 순서를 따른 아-룻-애-전-에의 순서를 갖고 있다. 차일즈[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와 하우스[Paul R. House,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8)]는 레닌그라드 사본(BHS)의 순서와 같이 룻-아-전-애-에의 순서를 따라 논의한다. 이에 비하여 최근의 구약 총론 저자들은 한글 개역과 같은 영어역의 순서를 따라 논하고 있다[예: R. B. Dillard and T.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A. E. Hill and J. H. Walton, *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참고로 아처의 구약총론[G. L. Archer,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Chicago: Moody, 1964)]은 유대교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을 따르지 않고 저자 나름대로의 순서를 갖고 있다.

시가서(סִפְרֵי אֱמֶת 쎄페르 에메트)

트힐림(=**시**), 이요브(=욥), 미실레(=**잠**)

두루마리서(מְגִלּוֹת 므길로트)

루트(=**룻**), 시르 하시림(=**아**), 코헬레트(=전), 에하(=애), 에스테르(=에)

역사서

다니엘(=단), 에즈라-느헴야(=스-느), 디브레 하야밈(=대)

④ BHS 에서 룻기는 성문서중 (시가서로 분류되는) 세 권의 책인 시편, 욥, 잠언 다음, 곧 네 번째 자리에 나온다. 이렇게 룻기가 잠언 뒤에 오는 것은 알파벳시로 된 잠언 31:10-31 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룻(3:11)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잠언 31 장, 룻기, 아가서는 모두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

⑤ 위의 목록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정경의 수를 계산할 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상권, 하권의 구별 없이 각각 한 권으로 계산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계산하고, 소선지서 12 권을 תְּרֵי־עָשָׂר([트레-아싸르] 아람어 "12")이란 이름으로 한 권으로 계산한다. 이같은 계산을 고려하면 유대인의 희브리어 정경 24 권(예, BHS, NJPS 영어역)과 기독교인의 구약성경 39 권(예, KJV, 한글개역)은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다.

6) 유대교 전통에 따른 두루마리서의 순서에 유의하며 보면 룻기의 정경상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탈무드**의 목록(**룻, 시**, 욥, 잠, **전, 아, 애**, 단, **에**, 스, 대)에는 룻기가 시편 앞에 오며 다른 두루마리서들이 흩어져 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다윗의 조상을 소개하는 족보이며 이 족보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라는 사실과 시편에 다윗이 지은 많은 시가 들어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룻기가 시편의 저자 다윗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룻기가 시편 앞에 오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② **레닌그라드 사본**(**시**, 욥, **잠, 룻, 아**, 전, 애, 에, 단, 스-느, 대)의 목록에는 시편, 욥, 잠언 다음에 룻기가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두루마리서 4 권(아, 전, 애, 에)이 뒤따라 나온다. 이것은 주후 6-10 세기 사이에 점점 유행하게 된 유대인의 절기 때 두루마리서들을 읽는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그라드 사본**의 두루마리서 5 권의 배열 순서(**룻, 아, 전, 애, 에**)는 아마도 다루어진 **사건이나 저자의 시대를 감안한 연대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22] 두루마리서의 첫 번째 책인

---

[21] 욥(איוב), 잠(משלי), 시(תהלים)의 첫 글자를 모으면 אֱמֶת[에메트] "진리"가 되는데 이 세 권을 סִפְרֵי אֱמֶת [씨프레 에메트]라 한다. 유대인의 절기 때 읽는 룻, 아, 전, 애, 에를 두루마리서(מְגִלּוֹת[므길로트])라고 한다. 성문서의 마지막 세 권의 책 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의 순서는 사건의 연대순을 따른 것이 아니다. Victor P. Hamilton(*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2001], 503-504)이 지적한 대로 부정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 13 장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창세기에서 열왕기서(전선지서의 끝)에 이르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가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나 귀빈 대접받는 사건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으로 끝난 것처럼 역대기에 다룬 또 하나의 역사, 즉 아담에서 고레스칙령까지의 역사가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미래의 밝은 전망을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역대기가 성문서의 마지막 자리에 오도록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22] Hamilton, *Historical Books*, 188.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가와 세 번째 전도서는 각각 솔로몬의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의 작품으로 보았고, 네 번째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고, 다섯번째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BHK[BH[3] 1937 년에 출판됨] 이전에 출판되었던 히브리어 성경들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다른 두루마리서의 배열 순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8 년)보다 **늦은 시기의 중세기 사본**에 근거한 것인데 그 순서는 **아, 룻, 애, 전, 에**이다. 이것은 **달력상 절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아가서는 유월절(아빕월, 니산월, 구약의 정월 — 지금의 3/4 월) 여섯째 날에, 룻기는 오순절(시완월, 구약의 3 월 — 지금의 5/6 월)에,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념하는 아브월(구약의 5 월 — 지금의 7/8 월) 아홉째 날에, 전도서는 장막절(티시리월, 구약의 7 월 — 지금의 9/10 월) 셋째 날에, 에스더서는 부림절(아달월, 구약의 12 월 — 지금의 2/3 월)에 각각 읽혀진다.[23] 유대교출판협회(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8)에서 번역한 Tanakh(NJPS) 그리고

---

[23]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의 나팔절(7 월 1 일 = 티시리월 1 일; 지금의 9/10 월)을 새해의 첫 날(רֹאשׁ הַשָּׁנָה [로시 하샤나])로 지킨다. 로시 하샤나 후 10 일째 되는 날에 오는 속죄일(יוֹם כִּפֻּר [욤 키푸르])과 15 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간 장막절(חַג סֻכּוֹת [하그 쑤코트])도 그대로 지킨다. 수전절(חֲנֻכָּה[하누카])은 주전 168/167 년에 안디오커스 4 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우상의 중심지로 바꾼데 대하여 마카비 저항을 통해 2/3 년후에 기슬래월(=구약의 9 월, 지금의 11/12 월) 25 일에 유다와 그 추종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새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8 일간 지킨다(1 마카비서 4:36-61; 2 마카비서 10:1-8).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는 다음과 같다.

절기	히브리어 명칭	날짜	관련 성경 본문	두루마리서 낭독	기념 내용
유월절 무교절	פֶּסַח חַג הַמַּצּוֹת	니산(=아빕) 14[-21]	출 12:3-20; 레 23:4-6; 신 16:1-8	아가서	출애굽, 구속
오순절	חַג שָׁבֻעוֹת	시완 6	신 16:9-12 레 23:9-14 출 23:16; 34:22 민 28:26	룻기	추수 감사
?	תִּשְׁעָה בְּאָב	아브 9	없음	애가	성전 파괴 주전 586 주후 70
나팔절	יוֹם תְּרוּעָה	티시리(=에다님) 1	민 29:1 레 23:16		새해 시작
속죄일	יוֹם כִּפֻּר	티시리 10	레 16 장 레 23:26-31 출 30:10		속죄 제사

영과 해리슨과 엉거의 구약 총론도 절기 순서를 따른 두루마리서 배열(**아, 룻, 애, 전, 에**)을 보이고 있다.

④ 히브리어 정경을 24 권 대신 알파벳 수를 따라 22 권으로 계산할 때 룻기는 사사기에 붙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에 붙여진다. 룻기와 애가가 성문서에서 선지서 자리로 옮겨지는 셈이다. 캠벨(Campbell)은 룻기가 사사기 뒤에 오도록 배열한 것은 룻 1:1 에 언급된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19-21 장)와 룻기의 대조된 시대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기브아에 우거하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의 집에서 윤간을 당해 죽자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 도막내어 각 지파들에게 보냄으로써 베냐민 지파와 연합된 다른 지파들간의 전쟁이 일어나 동족이 상잔되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생긴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처녀 400 인을 얻었으나 부족하여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한 실로의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가도록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사라짐을 막는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 속에서 여호와는 그 백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삿 20:44, 46 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אַנְשֵׁי־חַיִל([안셰 하일] 용사들)로 언급된 것과 룻 2:1 에서 보아스가 גִּבּוֹר חַיִל([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 유지, 덕망있는 사람)로 언급되고 룻 3:11 에서 룻이 אֵשֶׁת חַיִל([에셰트 하일] 현숙한 여인, 덕망있는 여인)로 언급된 것이 대조된다. 레위인과 첩을 잘 대접한 사람이 오직 기브아에 우거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삿 19:16)인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의 난맥상과 대조적으로 룻기는 폭풍 속의 고요처럼 착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시하며 그들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음을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정경 배열에 있어서 선지서에 있던 룻기를 성문서로 옮긴 것보다 성문서에 있던 룻기를 선지서로 옮긴 것을 설명하기가 더 쉽다.

⑤ 히브리어 성경 본문 전통상의 룻기의 위치는 위에서 인용한 바벨론 탈무드(T. B. *B. Bat.* 14b: 주후 1-2 세기 랍비의 말 인용)에 나오는 성문서 가운데 두루마리서가 모여 있지 않고 룻기가 시편보다 앞선 것이 제일 이른 것이다. 성문서 가운데 두루마리서가 묶여져 있는 것은 주후 6-10 세기에 일어난 것으로 그 중 책의 연대적 순서를 고려한 룻(다윗과 관련), 아(솔로몬 전기), 전(솔로몬 후기), 애(포로기), 에(포로후기)의 배열(레닌그라드 사본, BHS)이 달력상의 절기의 순서를 고려한

장막절	חַג סֻכּוֹת	티시리 15-21	레 26:33-36 민 29:12-38 출 23:16; 34:22 신 16:13 느 8 장	전도서	광야 생활
수전절	חֲנֻכָּה	기슬래 25-30 데벳 1-2	요 10:22		성전 청결 주전 164
부림절	פּוּרִים	아달 13-14	에 9 장	에스더서	하만 음모로부터 구원

아(지금의 3-4 월, 유월절), 룻(5-6 월, 오순절), 애(8-9 월, 성전 파괴), 전(9-10 월, 장막절), 에(2-3 월, 부림절)의 배열(중세 사본, BHK/BHS 이전의 출판 성경)보다 더 이른 전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⑥ 룻기가 오순절에 읽히는 것은 오순절(레 23:15-21)과 룻기 1:22 의 보리 추수 시작(4 월말-5 월초)에 대한 언급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룻기가 오순절에 읽히는 이유에 대한 다른 전통들에 대한 설명들도 있다. 오순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을 축하하는 전통이 있다(Midr. Zuta on Ruth 1:1). 오순절에 룻기가 읽히는 것은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호를 찾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을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찾은 것으로 보는 풍유적인 해석에 근거했다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룻기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았던 등장 인물들이 보인 도덕적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읽힌다는 설명도 있다. 다윗이 오순절의 안식일에 죽었다는 것과 룻기가 오순절에 읽히는 것을 연결하는 랍비 전통도 있다(Ruth Rab. 3.3; cf. b. Šabb. 30b; y. Beṣah 2.4).[24]

7) 헬라어역/라틴역/영어역/한글역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율법서: 창, 출, 레, 민, 신 (5)
역사서: 수, 삿, 룻,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 느, 에 (12)
시가서: 욥, 시, 잠, 전, 아 (5)
선지서: (대) 사, 렘, 애, 겔, 단 (5)
(소) 호, 욜, 암, 오, 욘, 미, 나, 합, 습, 학, 슥, 학, 말 (12)

① 헬라어역(칠십인역)은 유대인의 정경의 순서를 바꾸고 더 나아가 많은 책(외경)을 첨가하였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정경의 순서는 창, 출, 레, 민, 신 (이상 율법서); 수, 삿, 룻, 왕 I, II, III, IV (=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 II[베타]-III[감마] (=스-느; cf. 스 I[알파]은 외경 에스드라 1 서),[25] 에 (이상 역사서); 욥, 시, 잠, 전, 아 (이상 시가서); 12 소선지서 (호, 암, 미, 욜, 옵, 욘, 나, 합, 습, 학, 슥, 말), 사, 렘, 애, 겔, 단 (이상 선지서)이다. 칠십인역에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제롬의 말대로 룻기에 언급된 사건들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고 캠벨의 지적대로 사사기(19-21 장)와 룻기의 시대 묘사가 대조되고 룻기가 다윗의 등장에 대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룻기를 선지서인 사사기에 포함시키고 (애가를 예레미야에 포함시켜서) 알파벳 문자의 수 22 와 일치한 정경 22 권을 만들었던 유대인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라틴역도 외경을 첨가하였고 정경의 순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배열된 12 소선지서가 다니엘 뒤로 배열된 것을 제외하고 칠십인역의 순서를 따랐다. 종교개혁기의 기독교회는 전체적으로 라틴역의 순서를 받아들였고 영어역과 한글역도 라틴역의 순서를 따랐다.

③ 칠십인역과 기독교 정경 목록에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온 것은 룻기가 다윗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강화시켜 준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은 모두 왕권에 대한 언급으로 끝이 난다.

---

[24] Daniel I. Block, *Ruth* ZECOT (Zondervan, 2015), 46-47.

[25] 정경 에스라-느헤미야와 외경 에스드라서와 관계 그리고 역본상의 명칭에 대하여 위의 각주 11 을 참조하라.

- 사사기는 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묘사로 끝난다: "삿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구약에서 유일하게 고유명사로 끝나는 책인 룻기는 다윗이 바로 사사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을 암시한다: "룻 4:22 하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원문: וְיִשַׁי הוֹלִיד אֶת־דָּוִד [브이샤이 홀리드 에트-다비드] 직역: 그리고-이새(는)-낳았다-다윗(을)]."
- 사무엘상(31:1-13)은 사울의 죽음과 장사가 일시적 왕정의 막을 내리게 하고 영원한 다윗 왕조의 등장을 위한 길을 열게 한다. 룻기는 사무엘서 앞에 오면서 사무엘상과 역사적으로 병행을 이룬다. 룻기와 사무엘상은 다루는 시대의 양극이 똑같다. 다시 말하면, 두 책의 시작은 사사 시대이고 그 끝은 다윗의 등장이다. 룻기: 사사 시대 <룻> 다윗 = 사무엘상: 사사 시대 <사무엘과 사울> 다윗.[26]

3. 본문

1) 본 주석의 본문은 1008 년의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삼은 WLC 의 맛소라 본문(Masoretic Text = MT)이다.[27]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룻기의 MT 는 매우 우수하다.
2) 최근의 복음적인 주석가들은 MT 의 몇 가지 독법이 히브리어 사본들이나 MT 의 크티브(K)/크레(Q) 혹은 번역본(칠십인역, 탈굼역, 페시타역)에 의해 개선될 수 있으나 오직 룻 2:7 의 마지막 부분([제시브타흐 하바이트 므아트]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의 적절한 독법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28]
3) 사해 사본의 4 가지 단편도 대체적으로 MT 를 지지해 주지만 룻 3:14 에 나오는 *mrgltyw*(מרגלתיו[마르글로타브] "place of his feet")는 MT 의 *mrgltw*(מרגלתו[마르글라토] "place of his foot" cf. Q *mrgltyw*)보다 더 나은 독법을 보인다.

4. 인물 룻

1)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 여인이다(창 19:36-38; 룻 1:22).

   롯 + 롯의 맏딸 → 모압 → ... → 룻

2) 룻은 유다 지파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고 말론의 죽은 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음으로써 다윗의 조상으로서 역사에 빛난다(룻 1:1-5; 4:10, 17).

   유다 → ... → 엘리멜렉 (+ 나오미) → 말론 (+ 룻)
   유다 → ... → 보아스 (+ 룻) → 오벳 → 이새 → 다윗

---

[26] Hamilton, *Historical Books*, 188.

[27] 룻기 히브리어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는 웹싸이트는 http://biblehub.com/wlc/ruth/1.htm 이다.

[28] Bush, *Ruth*, 9-10; Hubbard, *Ruth*, 2-5; Howard, *Ruth*, 589-90. Bush 는 번역본에 의존하여 1:13; 4:4; 4:5 의 자음을 바꾸었고, MT 의 크티브/크레와 다른 사본에 의존하여 2:1; 3:12; 3:14; 4:4 의 자음 선택을 논하였다. Hubbard 는 룻 3:14, 17; 4:4, 5 에서 크레를 따라 4 곳의 자음을 바꾸고 번역본을 따라 2 곳의 자음을 바꾸었으나 크티브가 아닌 크레 3:5 을 포함하여 2:1; 3:3, 4; 4:4 에서는 크레보다는 크티브가 더 좋은 독법이라고 하였다.

3) 룻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처럼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는 5 명의 여인 중의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마 1:1-16).

아브라함 → ... → 유다 (+ 다말) → 베레스 → ... → 살몬 (+ 라합) →
보아스 (+ 룻) → ... → 다윗 (+ 우리아의 아내 = 밧세바) →
솔로몬 → ... → (마리아의 남편 요셉 +) 마리아 → 예수님

4) 룻에 대한 칭호

① 룻의 긴 이름 "רוּת הַמּוֹאֲבִיָּה [루트 하모아비야] 모압 여인 룻"은 종족을 밝힌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 조상의 이름을 밝힌 것과 비슷하며 완전한 성명(full name)이다.

-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인과 비이스라엘인의 구별은 성명을 밝히는 방법을 쓰는데 전자는 조상(과/혹은 고향 patronymic)을 밝히고 후자는 종족(gentilic)을 밝힌다. 이스라엘인에게 비이스라엘인의 종족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의 조상을 밝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삼하 11 장의 비이스라엘인 "헷사람 우리아"는 렘 26:20-23 의 이스라엘인 "기럇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와 비교된다.[29]
- 그리고 삼하 15:19-22; 18:2-12 의 비이스라엘인 "가드사람 잇대"도 삼하 23:29 의 이스라엘인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잇대"와 비교된다.

② 룻기의 각 장에서 짧은 이름 "룻"과 긴 이름 "모압 여인 룻"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 1 장에서 내레이터는 나오미의 아들들이 결혼한 모압 여자들(נָשִׁים מֹאֲבִיּוֹת [나심 모아비요트]) 중 하나가 "룻(רוּת [루트] 1:4)"이라고 소개한다. 그 후 내레이터는 룻을 언급할 때 짧게 "룻(רוּת [루트] 1:14, 16)"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길게 "모압 여인 룻(רוּת הַמּוֹאֲבִיָּה [루트 하모아비야] 1:22)"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2 장에서 내레이터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할 때 2:2, 21 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르고,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 2:8, 22 에서 "룻"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환은 룻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נַעֲרָה מוֹאֲבִיָּה [나아라 모아비야] 2:6)"라고 보아스에게 소개하고, 룻은 보아스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 자신을 "이방 여인(נָכְרִיָּה[노흐리야] 2:10)"이라 한다.
- 3 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당신의 시녀 룻(רוּת אֲמָתֶךָ [루트 아마테하] 3:9)"이라고 부른다.
- 4 장에서 보아스는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룻을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루트 하모아비야 에셰트-하메트]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4:5)"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루트 하모아비야 에셰트 마흘론] רוּת הַמֹּאֲבִיָּה אֵשֶׁת מַחְלוֹן 4:10)"이라 부르고 내레이터는 법적인

[29] 히스기야왕의 히브리어 표기는 חִזְקִיָּה([히즈키야] 왕하 18:1)나 חִזְקִיָּהוּ([히즈키야후] 왕하 18:9)이다. 동일한 이름인 삼하 11 장의 אוּרִיָּה [우리야]와 렘 26 장의 אוּרִיָּהוּ[우리야후]에 대하여 개역은 전자를 "우리아"로, 후자를 "우리야"로 번역하였으나 NIV 는 똑같이 Uriah 로 번역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을 때 짧게 "룻(רוּת[루트] 4:13)"이라고 부른다.

③ 룻의 이름을 밝혀 사용한 사람은 내레이터와 룻과 보아스이다.

- 내레이터는 짧게 "룻(6 번: 1:4, 14, 16; 2:8, 22; 4:13)"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길게 "모압 여인 룻(3 번: 1:22; 2:2, 21)"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룻은 자신을 밝힐 때 짧게 "룻(1 번: 3:9)"이라고 한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2 번: 4:5, 10)"을 사용한다.
- 회수를 종합하면 짧은 이름 "룻"은 7 번 사용되고 긴 이름 "모압 여인 룻"은 5 번 사용되었다.

④ 짧은 이름 "룻" 대신 종족을 밝힌 긴 이름 "모압 여인 룻"이 5 번 사용된 것은 단순히 문체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 먼저 보아스가 4 장에서 "모압 여인 룻"을 두 번 사용한 경우를 보자. 여기서 보아스는 과부가 된 룻을 아내로 맞아 고인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는 법적인 일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4:5),"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4:10)"이라는 성명(full name)을 써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압 여인 룻"이란 긴 이름은 그녀의 성명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었다.
- 다음으로 내레이터가 "모압 여인 룻"을 3 번 사용한 경우를 보자.

  ⑴내레이터는 1:22 에서 나오미의 말과는 달리 나오미가 돌아올 때 텅 비어 돌아온 것이 아니고 룻이 함께 있었음을 역설할 때 긴 이름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여 룻이 민족적으로 이방인(ethnic outsider)인 것을 보이며 나오미가 돌아온 것보다 "모압 여인 룻"이 돌아온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1:22 의 경우 "모압 여인 룻"이란 성명은 저자의 분명한 의도에서 선택된 것이다.

  ⑵내레이터는 2:2(서두)와 2:21(말미)에서도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한다. 부시(138)는 앞서 살핀 대로 1:22; 4:5, 10 의 세 경우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두 경우(2:2, 21)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 없이 짧은 이름 "룻" 대신 긴 이름을 쓴 것뿐이라며 저자의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버드(137, 190)와 블락(652, 676)은 1:22; 4:5, 10 의 세 경우처럼 이 두 경우도 저자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⑶허버드(137)는 2:2 의 "모압 여인 룻"이란 긴 이름이 독자들에게 룻이 이방 여인이기에 겪을지도 모를 적대감과 위험을 암시하며 룻과 더 큰 사회 집단 사이에 민족적인 벽이 있음을 느끼게 해 주려고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 장에서 민족적인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룻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 느끼는 것(2:10)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보호하려는 것(2:8, 15, 16, 22)을 들었다. 블락(652)은 2:2 의 "모압 여인 룻"이란 이름은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룻의 비범한 행동을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⑷허버드(190)는 2:21 에서 "모압 여인 룻"이란 이름은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을 상기시키며 다음 몇 가지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므로 룻의 성취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부각시키며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암시한다. 룻의 성명에서 드러나는 이방적인 요소는 그녀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영입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룻의 칭찬받을 만한 (정말

이상적인 이스라엘인다운) 행위와 독자들의 모압인들에 대한 혐오 사이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허버드(182, n. 7)는 2:2(서두)와 2:21(말미)에 사용된 긴 이름 "모압 여인 룻"이 정체 확인의 수미쌍관법(inclusio of identity)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블락(676)은 2:21 의 "모압 여인 룻"이란 이름은 문화적인 충돌(clash of cultures)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까운 일가붙이, 기업 무를 분"이라고 말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운 일가붙이(קָרוֹב [카로브])란 말을 듣고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라."는 보아스의 말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룻기에서 긴 이름 "모압 여인 룻"이 5 번 사용된 것은 모두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아스는 4:5, 10 에서 룻의 법적 신분의 정확성을 위해 성명을 사용하였다. 내레이터는 1:22 에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부각시키려고 사용하였고, 2:2, 21 에서 서로 "정체의 수미쌍관법"을 이루며 이방 여인 룻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족적인 벽과 긴장이 있음을 상기시키려고 사용하였다.

5) 룻의 칭호 변화

①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2:10 에서 "이방 여인 foreign woman נָכְרִיָּה[노흐리야]"이라 부르고, 2:13 에서 "하녀 your maidservant, שִׁפְחָתֶיךָ[시프하테하]"라고 부르며 3:9 에서 "시녀 your maid, marriageable female, אֲמָתֶךָ [아마테하]"라고 부른다.[30]

② 보아스와 백성과 장로들은 룻을 "여인"이라 부른다.

- 3:11 에서 보아스가 전하는 성읍 사람들의 룻에 대한 "덕망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woman of noble character, אֵשֶׁת חַיִל [에셰트 하일]"이란 평가는 잠 31:10-31 의 알파벳시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게 해 준다.
- 백성과 장로들도 4:11 에서 "여인 הָאִשָּׁה[하이샤]"이라고 부른다.

③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하며 룻을 보아스의 "4:13 아내 wife, אִשָּׁה[이샤]"로 부른다.

④ 이렇게 룻은 이방 여인([노흐리야] 2:10)에서 종인 하녀([시프하] 2:13) 그리고 결혼할 만한 시녀([아마] 3:9)를 거쳐 여인([이샤] 4:11)으로서 당당히 보아스의 아내([이샤] 4:13)가 된다.[31]

---

[30] 2:13 의 שִׁפְחָה[시프하]는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의미하고, 3:9 의 אָמָה[아마]는 아내나 첩이 될 수 있는 여종을 뜻하는 것(Sasson, 53)을 고려하여 전자는 하녀(=계집종: 남의 종이 된 여자)로 번역하고 후자는 시녀(지체 높은 사람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던 여자)로 번역하고 3:2 의 "소녀,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נַעֲרָה[나아라]는 "젊은 여자일꾼"으로 번역하였다. 개역은 이 세 단어를 구별없이 시녀(시프하 2:13)-시녀(나아라 3:2)-시녀(아마 3:9)라고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하녀(시프하 2:13)-하녀(나아라 3:2)-여종(아마 3:9)이라고 번역하였다. 아비가일이 삼상 25:41 에 한 말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에서 "여종"은 אָמָה[아마]이고 "종"은 שִׁפְחָה[시프하]이다.

[31] Hubbard, *Ruth*, 64.

⑤ 더 나아가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오벳에 대하여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토바 라흐 미시브아 바님]가 낳은 자]"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은 아들을 선호했던 사회에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여자로 극찬을 받았다.

6) 룻이란 이름이 갖는 뜻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뒤 캠벨과 허버드는 어근이 rwh/rwy 이고 "신선, 만족, 위로"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을 받아들인다.[32]

5. 저자

1)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문헌들과[33] 마찬가지로 룻기는 책의 저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2) 탈무드는 사무엘을 룻기의 저자로 보지만[34] 오늘날 이를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다.

① 룻 1:1 은 룻기가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그 시대가 이미 끝난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더욱이 룻 4:17 의 짧은 족보와 4:18-22 의 긴 족보는 다윗 왕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은 사무엘이 룻기를 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② 룻 4:7 에서 신을 벗어주는 관습을 오래 전의 관습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은 기록된 법률 문서가 보편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시대적으로 사무엘이 살아 있었던 시기와 맞지 않는다.

3) 룻기는 뛰어난 문학적 우수성을 통하여 저자가 최고의 문학가였다는 것을 짐작하도록 해 준다. 다윗을 모압 여인 룻과 연결시킨 것은 저자가 구전이든 글이든 다윗 가문에 대한 전승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법적인 관습(4:7)이나 족보(4:18-22)를 언급한 것은 저자가 예루살렘 왕궁에 보관된 기록들을 접할 수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그렇다면 저자가 궁중의 관리(아마도 서기관)이었는지도 모른다. 고우(Murray D. Gow)는 내레이터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 여성에 대한 민감한 성향, 가문 전승에 대한 접근성, 열렬한 여호와 신앙, 책의 문학적 통일성 등을 근거로 나단이 저자일 것이라고 추론한다.[35] 그러나 궁중 관리 혹은 궁중 서기관 혹은 나단을 저자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낱같은 내증에 의한 추론일 뿐이다.[36]

4) 블레드슈타인(A. J. Bledstein)은 룻기가 여성의 관점에서 동정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경험을 제시한다고 말하며 룻기의 여성 저자 가능성을 옹호하고 다윗의 딸 다말을 저자로 생각한다.[39]

① 룻기의 저자가 여성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큰 것이 아니다. 룻기의 여성 저자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해 볼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룻기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곤경에 처한 두

---

[32] Hubbard, *Ruth*, 94; 94, n. 15; Campbell, *Ruth*, 56.

[33] Bush, *Ruth, Esther*, 17 그리고 Block, *Judges, Ruth*, 590 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헌 중에서 저자를 밝힌 작품이 3-4 개에 불과하다는 설명과 함께 W. H. Hallo, "New Viewpoints on Cuneiform Literature," *IEJ* (1962) 13-26; W. G. Lambert, "A Catalogue of Texts and Authors," *JCS* 16 (1962) 59-81 이 인용되어 있다.

[34] T. B. *Baba Bathra* 14b-15a: "Samuel wrote the book which bears his name and the Book of Judges and Ruth."

[35] Block, *Ruth* ZECOT (Zondervan, 2015), 30 에는 Murray D. Gow, *The Book of Ruth: Its Structure, Theme and Purpose* (Leicester: Apollos, 1992), 207-210 이 인용되어 있다.

[36] Hubbard, *Ruth*, 23.

[39] A. J. Bledstein, "Female Companionships: If the Book of Ruth Were Written by a Woman . . .," in *A Feminist Companion to Ruth*, ed. A. Brenner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16-135; Block, *Judges, Ruth*, 593.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로, 이야기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성의 단호함이고 궁극적인 성공은 룻과 나오미의 주도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두 여인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남성 등장 인물에 대한 비판을 넌지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다.[40]

② 그러나 여성 저자뿐만 아니라 남성 저자도 두 여인에 대하여 동정적인 관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아울러 룻기의 시작하는 문단,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와 족보는 전통적인 남성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서 여성 저작 활동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여성 저작설은 아마도 여성론자들의 환상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③ 마이어스(C. Meyers)는 성경의 기록과 전승이 남자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여성 저작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여성 저작설의 불가능함을 피력하고 저자의 성보다는 책이 보이는 성에 대한 관점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41]

5) 결론적으로 말하면 룻기 저자는 내증에 의한 추론을 하지만 추론일 뿐 단정지어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인물로서의 룻기 저자는 알 수 없다.

6. 저작 시기

1) 저작 시기에 대하여 학자들이 고심하며 씨름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① 우선 마지막 부분(4:17, 22)에 다윗에 대한 언급에 비추어 가장 빠른 가능한 저작 시기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약 주전 1000 년경)일 것이다. 사사들에 대한 언급(1:1)은 사사 시대가 이미 끝났고 내레이터의 시대와 떨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발을 벗는 관습에 대한 삽입적인 언급(4:7)도 비슷한 시대적인 거리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어느 경우도 얼마만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룻기의 저작 시기는 룻기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시기, 즉 가장 늦게 잡더라도 주전 164 년보다 더 늦을 수는 없을 것이다.

② (가장 빠른) 주전 1000 년에서 (가장 늦은) 주전 164 년 사이에서 학자들이 제시하는 저작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하여 두 시대, 즉 포로전 시대와 포로후 시대 중 어느 하나로 묶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저작 시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제시하는 내증들이 다양하고 동일한 내증을 가지고도 추정하는 저작 시기도 다른 것이 문제이다.

2) 허버드(23-30)는 학자들이 룻기의 저작 시기를 포로후 시대로 추정하는 데 제시하는 내증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평가한다.

① 룻기에서 아람어나 늦은 시기의 히브리어를 반영하는 것들이 지적되지만(Hubbard, *Ruth*, 24, n. 9) 아람어 영향을 운운하며 저작 시기를 포로후로 보는 논증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

[40] Hubbard, *Ruth*, 24.

[41] C. Meyers, "Returning Home: Ruth 1.8 and the Gendering of the Book of Ruth," in *A Feminist Companion to Ruth*, ed. A. Brenner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85-114; Block, *Judges, Ruth*, 593.

② 룻기에는 신발 벗는 관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혼에 대한 폭넓은 적용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법적 관습이 반영된 것을 통해 포로 후 저작을 주장하지만 법적 관습의 비교를 통하여 포로 후 저작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③ 포로 후 저작을 지지하는 문예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과 알렉산더 대왕 통치 사이를 반영하는 듯한 룻기의 비교적 평화롭고 목가적인 내용, 욥의 불평과 비슷한 나오미의 불평, 요셉이나 욥이나 에스더나 요나나 다니엘의 이야기와 비슷한 룻의 이야기, 포로 후 신명기 사가의 사사기 저작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는 사사들에 대한 언급, 에스라-느헤미야의 폐쇄적 민족주의와 균형을 이루는 요나서와 전도서의 개방적인 보편주의가 룻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예적 특징을 통한 포로 후 저작 주장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④ 유대인 정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선지서가 종결된 후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가 집성되었다고 가정하며 룻기가 성문서에 들어 있는 것은 포로 후 저작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베크위스(Beckwith, *Canon*, 138-153)는 선지서와 성문서가 단일의 집합체로 모세 오경과 구분되는 정경들을 모아 놓은 것이었고 주전 164 년에 이르러 선지서와 다른 책들로 세분되었다고 반박한다.

3) 허버드(30-34)는 최근의 연구들이 설득력이 부족한 포로 후 저작 대신 포로 전 저작을 선호하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42] 많은 경우 솔로몬 시대를 지지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포로 전 저작을 추정하는 데 제시되는 내증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평가한다.

① 룻기에는 이른 시기의 히브리어 어형, 특히 고전적인 히브리어를 반영하는 것들이[43]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어형을 반영하는 요소가[44] 들어 있다.

② 신 25:9 의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신명기 저작(Fichtner, Reinach, Burrows, Richter: 주전 7 세기경으로 봄) 이전임을 보여주고 룻 4:7 의 신발 벗는 관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상징적 동작을 문서가 대신하게 된 시기(Weinfeld 는 초기 왕정 시대로 보고, Rudolf 는 주전 700 년경으로 보고, 허버드는 사 10:1 를 근거로 주전 9 세기로 보고 있음) 이전임을 반영한다.

---

[42] Hubbard, *Ruth*, 30, n. 43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열거한다. 1) Solomon's reign: G. von Rad; R. Hals; Gerlman; D. R. G. Beatie; Gottwald; Campbell; 2) David's reign: Young; Archer; Keil-Delitzsch; 3) early monarchy: Morris; Reinach; 4) middle monarchy: Harrison; Weinfeld; Hertzberg; 5) late monarchy: Cannon; B. Vellas; 6) Josiah's reign: Sasson

[43] Hubbard, *Ruth*, 30, n. 44 에서 S. 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454 에 나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 oath formula (1:17; cf. 1 Sam 3:17; 14:44); 2) וַתֵּהֹם כָּל־הָעִיר (1:19; cf. I K 1:45); 3) עַד אִם (2:21; only in Gen 24:19; Isa 30:17); 4) אֶגְלֶה אָזְנְךָ (4:4; cf. I Sam 9:15; 20:2, 13); 5) כֹּה meaning "here" (2:8; cf. Gen 22:5; 31:37; 2 Sam 18:30); 6) suffix נָה with an infinitive (1:19; cf. Gen 21:29; 42:36)

[44] Hubbard, *Ruth*, 30, n. 45 에서 Myers, *Literary Form*, 20 에 나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predominance of אָנֹכִי(2:10, 13; 3:9, 12, 13; 4:4 [twice] over אֲנִי (only 1:20; 4:4); 2) confusion of gender; 3) vebal forms with paragogic nun (2:8, 9, 10; 3:4, 18); 4) 2nd-person sing. verb endings with yodh (3:3, 4; 4:5); 5) frequent omission of the accusative particle אֵת with prepositions.

이러한 법적인 관습의 비교를 통하여 저작 시기를 포로 후나 포로 전으로 언급하는 논증은 근거가 뚜렷하지 못하고 불확실하여 문제가 많다.

③ 룻기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인간의 삶 배후에 무소부재하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와 비슷한 신학을 반영하는 작품이 나왔던 솔로몬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린다(Hals).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윗의 궁정이야기(삼하 9-20; 왕상 1-2)에서도 볼 수 있다. 포로후의 에스더서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묘사하지만 룻기와 에스더서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나오미의 소망 없던 디아스포라 삶은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에 거주했던 요셉의 삶과 대조되고, 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포로 후에 쓰였을 주제가 아니며 여러 신학적 주제들이 포로전 시대에 적합하다(Meinhold). 에스라-느헤미야의 이방인 분리 정책에 비추어 이방 여인 룻의 긍정적인 용납은 포로 후보다는 포로 전 시대에 더 잘 어울린다. 그렇다면 신학적 논증은 포로 후보다는 포로 전 저작시기를 더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룻기의 문학적인 특징들, 즉 다윗이 사실적으로 소개되는 것(Gerleman), 모압에 대한 멸시나 증오가 없고 공평한 태도가 보이는 것(Lamparter), 평온한 분위기 묘사 등은 포로전 시대를 지지해 준다.

⑤ 결론적으로 허버드(35)는 룻기의 저작 연대를 해결해 줄 결정적인 내증이 없으므로 그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포로 전 저작을 배제할 결정적인 내증이 없고 여러 측면의 논증이 포로 후보다는 포로 전 저작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4) 부시(20-22)는 저작 시기를 결정하는 데 다른 내증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적 내증을 길게 논의한다.

① 언어는 시대를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이 놀라운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른 언어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특징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에 기초하여 성경 히브리어의 시기를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대별할 수 있다(Driver, *ILOT* 473-75, 484-85, 504-8, 535-40, 553; *BDB*; *GKC* 21 m, t-v; *GBH* 3b; Bauer & Neander 2q).

② 포로 전 성경 히브리어를 표준 성경 히브리어(SBH Standard Biblical Hebrew)라고 부르고, 포로 후 성경 히브리어를 후기 성경 히브리어(LBH Late Biblical Hebrew)라고 부른다.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에스더 등은 LBH 에 속한다.

③ SBH 와 LBH 사이의 과도기가 있었는데 에스겔서는 과도기의 히브리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④ 언어적 논증에 있어서 유의할 점으로 책의 분량을 고려해야 한다. 룻기의 히브리어를 논의할 때 책의 분량(총 85 절과 총 1294 단어 [4:18-22 의 족보를 제외하면 총 80 절과 총 1252 단어]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조그만 분량의 책에 나오는 단어의 빈도에 근거하여 내리는 결론에 들어 있을 불확실성을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

5) 부시(22-30)는 몇 가지 문헌에[45] 근거하여 룻기가 SBH 의 특징을 보이는 것과 LBH 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룻기의 SBH 적인 특징들

- ⑴1 인칭 단수 대명사로 אָנֹכִי[아노히](7x)가 אֲנִי[아니](2x)보다 더 많이 쓰였다.
- ⑵(וַיְהִי[바이히] / וְהָיָה[브하야]를 포함하여) 바브 계속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바브 접속사 + 완료는 4:7 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됨]
- ⑶바브 계속법 וַיְהִי[바이히]/ וְהָיָה[브하야] 다음에 전치사(특히 בְּ[브]/כְּ[크]) + 부정사/명사를 통해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절이 사용되었다(4x 1:9; 3:4, 8, 13).
- ⑷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LBH 처럼 אֲשֶׁר[아셰르]가 쓰이지 않고 כִּי[키](6x 1:6, 18; 2:22; 3:11, 14; 4:9)만 사용되었다.
- ⑸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כִּי[키]가 이끄는 명사문의 어순이 LBH 처럼 주어+술어로 나오지 않고 술어+주어(2x 1:18, 3:11)로 나왔다.
- ⑹동사의 한정된 직접 목적어 표시로 אֵת[에트] 대신 לְ[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⑺다윗의 표기가 불완전 철자법(דָּוִד[다비드])으로 표기되었다(2x 4:17, 22).

[삼, 왕, 사, 렘, 시:	דָּוִד	780x,	דָּוִיד	4x
겔:	דָּוִד	3x,	דָּוִיד	1x
스-느, 대:	דָּוִד	0x,	דָּוִיד	271x]

- ⑻"A 와 B 사이에"를 표현하는 전치사로 SBH בֵּין . . . וּבֵין [벤 ... 우벤]을 많이 쓰고, LBH 는 בֵּין . . . לְ [벤 ... 르]를 더 빈번하게 썼는데 1:17 에 사용된 것은 בֵּין . . . וּבֵין [벤 ... 우벤]이 쓰였다.
- ⑼관사 없는 명사 앞에서 전치사 מִן[민]의 눈이 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SBH 에는 드물게 나타나고 LBH 에는 빈번히 나타나는데 룻기에서는 14 개의 다른 명사 앞에 21 번 쓰인 מִן[민]이 1:1 의 מִבֵּית לֶחֶם[미베트 레헴]처럼 모두 명사에 접두되어 눈이 동화된 것을 나타낸다.
- ⑽LBH 에는 사용되지 않은 2/3 인칭 양수 공성의 접미대명사가 7 번 사용되었다. (어형이 2/3 인칭 남성 복수 접미대명사와 똑같지만 두 여성을 가리키고 있음)
  עִמָּכֶם[이마헴](1:8); עֲשֹׂתֶם[아씨템](1:8); לָכֶם[라헴](1:9, 11)
  מִכֶּם[미켐](1:13); שְׂתֵיהֶם[시테헴](1:19; 4:11)

② 룻기의 LBH 적인 특징들

- ⑴정형 동사의 목적어로 대명사가 쓰일 때 목적어가 강조되는 경우 동사 앞에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 אוֹת־[오트]/אֶת־[에트]에 접미대명사를 붙는 형을 쓴다. 그러나 동사 뒤에 올 때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에 접미대명사를 붙여 목적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사에 직접 접미대명사를 붙여 나타내기도 한다. 동사 뒤에 대명사 목적어가 오는 경우 SBH 에서는 동사에 직접 붙이는 것과 불변화사에 붙이는 것의 비율이 2:1 이지만 LBH 에서는 17:1 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해 사본에서는 동사에 직접 붙인 것이 250 번 나오고 불변화사에 붙인 것은 11 번 나온다. 룻기에는

[45] Bergey, "Book of Esther" Diss., Dropsie; Guenther, "Diachronic Study" Diss., University of Toronto; Hurvitz,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Hurvitz, *Shnaton* 1 (1975) 45-49; Polzin, *Late Biblical Hebrew*; Rooker, *Biblical Hebrew in Transition.*

동사에 직접 붙여 나타내는 것이 9 번(1:21; 2:4, 13, 15; 3:13, 13; 4:15, 15, 16) 나오지만[46]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에 붙여 나타낸 것은 하나도 없다.

- (2)동사가 어미에 -*ū*를 갖는 복수형이고 목적어로 쓰인 대명사가 3 인칭 단수 남성이나 여성이면 SBH 에서는 동사에 직접 붙이지 않고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에 붙여 썼지만 LBH 에서는 תַּכְלִימוּהָ [타흘리무하](2:15)처럼 거의 항상 동사에 직적 붙여 썼다.
- (3)동사 אָמַר[아마르] 다음에 SBH 에서는 אֶל־[엘]이 많이 쓰였으나 LBH 에서는 לְ[르]가 많이 쓰였다. 룻 2:20 קָרוֹב לָנוּ [카로브 라누]도 위의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룻기에서 אֶל־[엘]이 8 번 쓰이고, לְ[르]가 15 번 쓰였다(비율 1.9:1).
- (4)"아내를 취하다, 결혼하다"는 관용구에 쓰이는 동사로 1:4 에는 נשׂא[나싸]가 쓰이고, 4:13 에는 לקח[라카흐]가 쓰였다. SBH 에서 거의 항상 לקח[라카흐]가 쓰였고 LBH 에서는 두 동사가 거의 비슷하게 쓰였다. Kutscher(*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123, 82-83)는 동사 לקח[라카흐]가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취하다 take"의 의미로 쓰였지만 미시나 히브리어(MH)에서 "사다 buy"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고 지적하면서 이 변화가 이미 LBH 때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לקח[라카흐] 대신 נשׂא[나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SBH לקח 예: 창세기에서만도 34 번이나 쓰임

  נשׂא 사사기에 단 1 번 (삿 21:23)

  LBH לקח 스-느 3x(스 2:61 = 느 7:63; 느 6:18; 10:31)

  (삼-왕과 비병행적인) 대 6x(대상 2:19; 21; 4:18; 7;15; 대하 11:18, 20)

  נשׂא 스-느 4x(스 9:2, 12; 10:44; 느 13:25)

  (삼-왕과 비병행적인) 대 4x(대상 23:22; 대하 11:21; 13;21; 24:3)]
- (5)동사 어근 קוּם[쿰]의 사역능동(hiphil) 부정사는 הָקִים[하킴]이고 강세능동(piel) 부정사는 קַיֵּם[카옘]이다. 룻기에서 4:5, 10 에서 לְהָקִים[르하킴]이 쓰이고 4:7 에서 לְקַיֵּם[르카옘]이 쓰였다. קַיֵּם[키옘]은 LBH(에 7x, 겔 1x, 시 119 2x)에만 나온다. 그리고 미시나 히브리어에서는 강세 능동 קַיֵּם[키옘]을 제외하고 어근 קוּם[쿰]이 사용되지 않았다. LBH 에는 사역 능동형(הֵקִים[헤킴] 단 9:12; 느 5:13; 대하 33:3)과 강세 능동형(קִיֵּם[키옘])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 과정을 알게 해 준다. LBH 와 MH 에서 강세 능동형이 점점 많이 쓰인 것은 아람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 (6)LBH 에서 바브 계속법의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cf. 왕하 23:26 וַיָּדֶק[바야데크] //대하 34:4 וְהֵדַק[브헤다크] [아세라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사해 사본에도 계속 감소되었으며 미시나 히브리어에는 바브 계속법의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것도 바브 계속법이 없는 아람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룻 4:7 에도 바브 계속법 וַיִּתֵּן[바이텐] 대신 접속사 + 완료형으로 된 וְנָתַן [브나탄]이 한번 쓰였다.
- (7)신발(נַעַל[나알])을 "벗다"는 동사로 חלץ[할라츠](신 25:9, 10; 사 20:2)나 נשל[나샬](출 3:5; 수 5:15)이 쓰였고 שלף[샬라프]는 쓰이지 않았다. שׁלף[샬라프]는 칼(חֶרֶב[헤레브])을 "빼다"는

---

[46] Bush(25)는 총 10 번이라 언급하고 3 장에 나오는 것으로 3:16, 13, 13 이라고 표시했지만 3:13 에는 두 번(יִגְאָלֵךְ와 וּגְאַלְתִּיךְ) 나오지만 3:16 에는 나오지 않는다. 3:13 에는 부정사에 목적어가 붙어 있는 לְגָאֲלֵךְ도 나온다.

의미로만 15 번 쓰였다. 팔레스타인 타르굼 출 3:5; 신 25:9; 사 20:2 에서 아람어 동사 שׁלף[실라프]는 히브리어 동사 חלץ[할라츠]와 נשל[나샬]을 번역하는데 사용되었다. 룻 4:7, 8 에 "신발을 벗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שׁלף[샬라프]와 נעל[나알]이 결합된 것은 아람어 영향으로 인한 신조어(neologism)로 보인다.

- ⑻룻 1:13 에 나오는 שׂבר[싸바르]도 아람어의 영향 아래서 히브리어에 들어온 LBH 의 특징을 보이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희망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는 동사로 미 5:6; 사 51:15; 욥 30:2 에 병행구에 동의어로 나오는 קִוָּה[키바](SBH 창 49:18; 호 12:7; 미 5:6; 사 5:2, 4, 7; 렘 13:16; 14:22 //LBH 애 2:16; 시 119:95)와 יִחֵל[이헬](SBH 삼상 13:8; 미 5:6 //LBH 겔 13:6; 시 119:43, 49, 74, 81, 114, 147)이 사용되었다. 룻기를 제외하고 שׂבר[싸바르]는 이른 시기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용되지 않고 다만 늦은 시기의 본문에 3 번 즉 시 119:116; 146:15; 에 9:1 에만 나오고 시기 결정이 쉽지 않은 본문에 2 번 즉 시 104:27; 사 38:18 에 나온다. 그리고 명사형 שׂבר[싸바르]가 늦은 시기의 본문 즉 시 119:116; 146:5 에 나온다. 아람어에서 어근 שׂבר[스바르]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로 매우 흔하게 쓰이고 미시나 히브리어에서도 아람어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사용되었다. 비슷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이른 시기의 본문 창 49:18(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לִישׁוּעָתְךָ קִוִּיתִי יְהוָה[리슈아트하 키비티 아도나이])와 늦은 시기의 본문 시 119:166(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שִׂבַּרְתִּי לִישׁוּעָתְךָ יְהוָה[씨바르티 리슈아트하 아도나이])를 비교하면 늦은 시기에 שׂבר[싸바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처럼 룻기의 언어적 특징을 SBH 의 특징 그리고 LBH 의 특징과 비교하면서 부시는 룻기의 저자가 SBH 와 LBH 의 과도기를 반영하는 에스겔보다 더 일찍 살았을 수 없다고 하였다. 부시(30)는 룻기가 빨라야 늦은 포로 전 시대나 이른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4:7 이 후대에 가필된 것이 아니고 원 저자가 쓴 것이라면 이 절의 3 가지 LBH 의 특징과 아람어의 영향으로 보아 이른 포로 후 시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6) 와인펠트(M. Weinfeld, "Ruth, Book of," *EncJud* 5.518-22)는 룻기의 언어적인 증거가 엘리사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것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는 엘리사 시대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는(즉 초기 이스라엘 문헌에서 많이 사용된), 판에 박은 문구나 구들을 길게 언급하였다. 그는 소위 아람어풍의 표현과 후기 히브리어 특징을 북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방언에 있는 특징으로 해석하였다.

7) 언어적 논증이 다른 논증보다 객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적 논증도 다른 논증처럼 결정적인 저작 시기를 주지 못한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포로 후 저작이 확실시되는 것도 있지만 비교되는 다른 책들의 저작 연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언어의 변화에 대한 논의 배경에 있는 가정들의 정확성 여부, 지역간의 방언의 차이, 제한된 분량의 정경 안에 나오는 단어의 빈도에 의한 결론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8) 블락(595-598)은 부시가 이른 포로 후기(early postexilic period)로 결론지었지만 늦은 포로 전기(late preexilic period)의 가능성도 언급한 것과 와인펠트가 룻기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합하여 룻기는 요시야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언어적 사실들과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

① 정치적으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이전의 북 왕국까지 확대하였고(왕하 23:19), 이 과정에서 북쪽 거주민들이 남 유다의 문화를 다시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시대로부터 다윗 가문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왔을 것이고 룻기 저자는 베들레헴에 근거를 둔 전통에 의존하여 자기의 동료 북쪽 거주민들을 위해 북쪽 방언으로 그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② 사사기가 므낫세 시기에 기록되었고 룻기가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요시야 시대만이 다윗 왕조의 중흥의 후보 시대가 될 수 있다. 룻기와 요시야를 연결시켜 주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⑴열왕기 저자는 다윗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보다 요시야를 더 부각시킨다(왕하 22:2). 그의 평가에 있어서 요시야는 다윗을 능가한다(왕하 23:25). ⑵종교 개혁을 옛 북왕국까지 확대하는 것은 왕국분열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전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왕권을 주장하였던 것을 보인다(왕하 23:15-20). ⑶요시야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을 제거한 것(왕하 23:13)은 다윗 왕조 후손에게 흐르는 모압의 피에 대한 문제를 떠오르게 하였을 것이다. 모압 여인 룻의 여호와에 대한 개인적이고 영적인 순수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저자가 모압의 피를 거론하며 다윗 왕조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였을 것이다. ⑷신발 벗는 관습을 모르는 독자를 위해 저자가 해설한 것(4:7)은 4 장에 언급된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독자의 시기 사이의 문화적인 간격과 시대적인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시야 시대가 이러한 해설이 필요한 시기의 후보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9) 룻기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시가 언어적 논증에 의하여 룻기가 빨라야 늦은 포로 전 시대나 이른 포로 시대에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② 허버드와 블락이 룻기의 저작 목적으로 다윗 왕조 옹호를 든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③ 블락이 부시의 언어적 논증에 의한 늦은 포로 전 시대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다윗 왕조 옹호와 이방인 포용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한 시대 배경으로 요시야 시대를 지적한 것은 허버드의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7. 저작 목적과 시대 배경 (Hubbard, 35-42; Block, 595-598)

1) 룻기는 누가복음(1:3-4)이나 요한복음(20:31)과 달리 기록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룻기의 저작 목적에 대해서도 저작 시기에 대한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룻기의 목적으로 제시된 학자들의 주장은 논박(polemic), 교도(edification), 여흥(entertainment), 혹은 선전(propaganda) 등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다.

2) 최근까지 학자들은 룻기가 에스라-느헤미야의 국제 결혼 반대 정책(스 10; 느 13:23-27)을 논박(polemic)하기 위해 포로후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박들은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① 룻기에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논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 이방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백성과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을 언급한다(1:16-17). 이처럼 에스라-느헤미야가 직면한 상황과 룻기의 배경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룻기는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없다.

③ 플롯 진행에 있어서 룻의 출신 종족이 부분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룻의 종족 문제보다는 다른 관심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에스라-느헤미야서와 상반되게 그 정책을 논박하는 것이 룻기의 목적이라면 룻기가 에스라-느헤미야서와 함께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잘 설명할 길이 없다.

3) 룻기는 국제 결혼 반대 정책에 대한 논박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온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룻기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흥(entertainment)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① 이 입장은 책들이 기록 보관하는 사람들(archivists)뿐만 아니라 독자들(audiences)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룻기 저작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도 책이 여러 가지 수준의 의미들 그리고 독자에게 주는 즐거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② 그러나 옛 이야기들, 특히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그저 독자를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어떤 학자들은 룻기가 교도(edification)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룻기는 한결같은 인애, 관대함, 전통적인 가족 의무 이행, 이방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과 같은 등장 인물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행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② 룻기는 포로기에 포로 해방을 약속하거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③ 룻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에 대한 교훈을 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멸시받는 자를 사용하시어 구원을 가져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과부들을 도우시어 죽은 남편들 뒤에 남아 생존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 등을 보여 주려고 기록되었다.

④ 이러한 교훈들이 룻기에 들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하나가 저작의 중심 목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어떤 학자들은 룻기의 저작 목적을 여러 가지 종류의 이해 관계를 증진시킬 선전(propaganda)의 관점에서 본다.

① 사회적 의무들(특히 수혼이나 기업 무르는 일)을 잘 이행하도록 권면하는 것, 이방인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권장하는 것, 다윗의 경건한 조상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비 이스라엘인 즉 모압 여인의 피를 설명함으로써 다윗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등과 같은 목적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책의 기록 목적이 될 만큼 중요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② 허바드와 블락을 포함한 다른 학자들은 룻기가 다윗과 관계된 보다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 즉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한 지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룻기의 저작 목적으로 다윗과 관련된 정치적 목적이 가장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허버드(39-42)는 두 가지 중심 주제와 세 가지 추가 관찰 사항을 근거로 삼고 룻기가 다윗과 관련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룻기의 두 가지 중심 주제는 전편에 걸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후사를 주심으로써 엘리멜렉 가문의 멸절 위기를 구해 주신 것(1:5, 20-21 vs. 4:17 a)과 마지막 부분에서 멸절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 가문이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적 운명(후사 오벳 = 다윗의 할아버지, 1:2[! 5]; 4:11-12, 15b 등의 암시; 4:17b, 22)이다. 이 중심 주제들은 룻기가 다윗이 잘 알려진 후, 아마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된 이후에 기록되었고 룻기의 저술 목적이 어떻게든 다윗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② 다음 세 가지 관찰 사항도 룻기가 다윗 왕조를 지지를 위해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

- 내레이터는 이스라엘의 영예로운 조상들을 회상하도록 하는 문예적 장치들(4:11-12; 18-22)을 사용하여 족장들과 다윗의 조상들 그리고 다윗 자신 사이에 역사적, 신학적 계속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인도하셨던 똑같은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고 있다.
- 장로들과 여인들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4:11, 14)가 오벳에게 기원된 명성을 알게 될 것을 언급함으로써 룻기가 다윗의 유다 지파 조상(4:12; 18-22)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목표로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인 것을 보여준다.
- 룻의 사회적, 종교적 신분 변화 즉 여호와를 믿기로 한 이방(모압) 여인(1:16-17)에서 하녀(2:13), 결혼할 만한 시녀(3:9), 여인(4:11)을 거쳐 부인(4:13)이 된 것은 룻처럼 이방인들이 그들의 과거의 끈을 청산하고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백성으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회에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스라엘인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결같은 인애의 삶을 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이렇게 룻기의 두 가지 중심 주제와 세 가지 추가 관찰 사항은 정치적인 목적을 뒷받침해 준다.

- 룻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암시적 교훈을 줄 의도로 기록되었다.
- 룻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가 다윗을 준비시켰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룻기는 다윗의 통치 아래 이방인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룻과 같이 여호와의 날개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환영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④ 허버드(42-46)는 룻기의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잘 맞아떨어지는 시대 배경에 대하여 포로 후 시대, 르호보암,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솔로몬 시대 등을 들고 평가한 후 솔로몬 시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대로 보았다.

7) 블락(595-598)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며 앗수르의 침략과 강제 추방(deportation)의 와중에 살아남은 한 북쪽 이스라엘인이 요시야의 개혁을 지지하며 다윗 왕조를 옹호하고자 룻기를 썼다고 주장한다.

① 룻기는 요시야의 피에 흐르는 모압과의 연계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인품인 것을 보게 함으로써 요시야의 몸에 흐르는 것은 모압의 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께 대한 룻의 신앙과 한결같은 인애의 삶의 유산도 있음을 인식시킨다.

② 룻기는 여호와께서 사사 시대라는 암흑 시기에도 다윗의 가계를 보존되게 하셨듯이 앗수르의 악몽 같은 지배 시기에도 북왕국의 거주민들이 보존되게 하시고 다윗 왕조에 요시야 같은 인물을 일으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시고 저자 자신이 속해 있는 북쪽 지역이 이제 정통성 있는 다윗 왕조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쪽 주민들로 요시야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격려한다.

③ 룻기는 룻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로 와서 한결 같은 인애를 보이는 삶을 살았듯이 앗수르의 정책에 의해 북쪽에 오게 된 이방 백성들에게도 룻과 같은 신앙과 행위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받을 수 있음을 증거한다.

8. 장르 (Block, 599-603; Bush, 30-47)

1) 최근의 주석가들은 룻기의 장르를 3 개의 문학적 용어, 즉 사건 이야기(tale), 단편 이야기(short story), 중편 이야기(novella)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 이 용어들을 블락과 부시는

코우츠(Coats[47])와 험프리스(Humphreys[48])의 논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tale[테일]은 산문이나 운문으로 말하거나 쓰여 진 짧은 내러티브(a short narrative written or spoken in prose or verse)이다. 일반적으로 tale 의 플롯은 간단하다. 문제로부터 갈등이나 분규(complication)없이 바로 해결로 나아간다. tale 은 등장 인물의 묘사보다 사건의 제시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② novella[노벨라]는 단일한 사건에 국한하여 플롯을 전개하며 사건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등장 인물의 변화를 묘사하는 상당한 분량의 내러티브(a narrative of intermediate length describing not only the evolution of a single event but also the evolution of the characters)이다. 험프리스는 성경에서 novella 의 예로 삼손이야기(삿 13-16), 요셉 이야기(창 37-50), 에스더와 모르드개 이야기(에 1-10) 등을 들었다.

③ short story[쇼트 스토리]는 길이에 있어서 tale[테일]과 novella[노벨라]의 중간에 위치하는 내러티브(a narrative falling between the tale and the novella)이다. short story 가 100m 나 200m 달리기라면 novella 는 중거리 달리기에 비유될 수 있다. short story 는 novella 에 비하여 짧으며 플롯의 전개가 더 간단하고 등장 인물의 수도 더 적다. 험프리스는 성경에서 short story 의 예로 창 24 장, 룻기, 다니엘 1-6 장 그리고 요나서 등을 들었다.

④ 성경의 short story[쇼트 스토리]와 novella[노벨라]에는 길이와 플롯 전개의 복잡성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일반 문학의 short story 와 novel/novella 의 핵심 차이와 똑같다. 등장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 short story 는 등장 인물을 드러내는(reveal) 반면 novella 는 등장 인물을 발전시킨다(develop). short story 의 중심 문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과 상황이 어떻게 등장 인물들의 참된 성격을 드러내는가에 있다. 요나, 룻,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야기의 시작이나 끝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들은 독자 앞에 자라거나 발전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그들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뿐이다. 이것은 short story 가 갖는 공현성(公顯性 epiphany quality)이다.[49]

---

[47] G. W. Coats, "Tale," in *Saga, Legend, Tale, Novella, Fable: Narrative Forms in Old Testament*, ed. G. Coats, JSOTSup 35 (Sheffield: JSOT, 1985), 63-70.

[48] W. Humphreys, "Novella," in *Saga, Legend, Tale, Novella, Fable: Narrative Forms in Old Testament*, ed. G. Coats, JSOTSup 35 (Sheffield: JSOT, 1985), 82-96.

[49] Humphreys, "Novella," 84-85 (quoted in Bush, *Ruth*, 41): The [modern] short story *reveals* the nature of a character or situation while a novel[/novella] *develops* characters or situations. James Joyce speaks the "epiphany quality" of the short story, its quality of revelation. Through a compact series of events or stress situations a character is made clear and distinct to the reader or a situation's true quality is revealed. By contrast, over a much wider range of events and situations the characters of a novel[/novella] grow and/or deteriorate; they are seen to evolve as they shape and are shaped by events and situations. ... The [Old Testament] short story reveals the quality of a situation and/or character. Jonah, Ruth, and even Daniel and his

2) 부시(41-42)는 룻기를 그 길이와 플롯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코우츠가 정의한 tale[테일]과 험프리스가 정의한 novella[노벨라]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3 명의 주요 등장 인물인 나오미, 보아스, 룻의 인물 묘사를 살피며 험프리스가 말한 공현성(公顯性 epiphany quality)을 보이는 short story[쇼트 스토리]로 보았다. 이것은 나오미의 성격에 변화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자의 인물 묘사의 초점이 나오미, 룻, 보아스의 성품을 밝히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련의 장면들의 묘사를 통하여 세 등장 인물의 한결같은 인애, 즉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헌신과 양선이 밝히 드러난다. 블락(602)도 부시와 같이 룻기를 short story[쇼트 스토리]로 분류하였다.

3) 블락은 룻기를 tale[테일]이나 novella[노벨라]라기보다는 short story[쇼트 스토리]로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로 룻기의 역사적 성격을 들었다. 그는 룻기의 역사성을 입증하려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였다.

① 룻기는 분명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야기가 한 특정 시대, 즉 사사 시대에 근거를 둔 것(1: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을 말한다.

② 룻기 끝의 족보는 이야기를 한 특정 가문과 연결시키는데 이 가문의 존재와 그 역사는 다른 곳에서도(대상 2:1-17) 확인된다. 역대기의 족보들은 공적 궁중 기록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인정된다(참고, 대상 9:1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③ 룻기에는 허구적인 이야기로 몰고 갈 문학적 혹은 언어적 특징들이 들어 있지 않다.

④ 룻기에 기적이나 초자연적 현상 등이 없는 것은 전설이나 상상의 산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등장 인물들의 삶은 매우 사실적이고 주전 2 천년기 후반 팔레스타인에서의 알려진 삶과 일치한다. 기근과 이주(1:1), 장례 방법 암시(1:17), 성문이 있고 성밖에 타작 마당이 있는 베들레헴 묘사(4 장), 추수하는 일꾼들(2 장), 등장 인물의 희노애락의 감정 묘사, 사회적인 관계(고부, 주인과 일꾼, 시민과 시민들, 남편과 아내, 할머니와 손자), 법적인 절차 진행(4:1-12), 역사적 문화적 상황으로 인한 신발 벗는 관습에 대한 해설의 필요(4:7)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⑤ 룻기가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저자는 다윗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여인인 것을 언급한다.[50]

⑥ 신약의 증거는 룻기의 역사성을 확인해 준다. 마태는 메시아의 족보(1:1-17)를 전하면서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룻기의 마지막 족보에 룻의 이름이 없으며 룻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왕직을 높여 줄 요소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언급한다. 룻기 이외에는 룻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마태가 룻기로부터 룻의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companions are essentially the same at the end of each story as at the outset; they do not grow or develop before us. We just recognize with greater clarity the character of each as the story progress. They share in the "epiphany quality" of which Joyce spoke.

[50] Cf. Young, *IOT*, 340; Hubbard, *Ruth*, 48.

⑦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면 룻기는 실제의 유다 땅에서 실제의 사사 시대에 살았던 실제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만일 룻기를 허구적인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다면 다윗 가문의 역사상 훌륭한 조상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영화롭게 하려는 책의 주된 목적을 놓치게 된다. 블락(603)은 룻기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독자적인 단편 an independent historiographic short story"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9. 구조

1) 영거(K. Lawson Younger Jr.)[51]

① 룻기는 **6** 개의 **막**(1:1-4:17)과 **코다**(4:18-22)로 이루어져 있다. 6 개의 막은 서막(1:1-5)과 종막(4:13-17) 그리고 서막과 종막 사이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4 개의 균형 잡힌 막(1:6-4:12)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막(1:6-22)과 제 4 막(4:1-12)은 각각 2 개의 장면을 가지며 이 두 막은 서로 놀랄 만한 병행 구조를 보인다. 제 2 막(2:1-23)과 제 3 막(3:1-18)은 각각 3 개의 장면을 가지며 이 두 막 역시 서로 두드러진 병행 구조를 보인다. 이야기의 전환점은 룻기의 중간 지점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를 기업을 무를 일가붙이로 소개하는 2:20 이다.

② **서막**(1:1-5)은 배경과 문제를 제시한다.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모압에서 죽으므로 여인 나오미는 자신을 돌보아줄 남자가 없이 홀로 남게 된다.

③ **제 1 막**(1:6-22)은 나오미의 텅빈 삶이란 주제를 전개하며 그녀의 베들레헴 귀향을 이야기한다. 1 막은 두 개의 장면을 갖는다. 제 1 장면(1:6-18)은 베들레헴 귀향 노상에서 나오미와 며느리의 대화를 보여주고, 제 2 장면(1:19-22)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을 보여준다.

④ **제 2 막**(2:1-23)은 룻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며 밭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다. 제 2 막은 3 개의 장면을 갖는다. 제 1 장면(2:1-3)은 이삭 주우러 나선 룻이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을 보여주고, 제 2 장면(2:4-17)은 보아스가 룻을 추수 밭에서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며, 제 3 장면(2:18-23)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평가하며 보아스를 기업 무를 일가붙이로 언급하는 것을 보여준다.

⑤ **제 3 막**(3:1-18)은 나오미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며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제 3 막도 제 2 막처럼 3 개의 장면을 갖는데 제 1 장면(3:1-5)은 나오미가 룻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것을 보여주고, 제 2 장면(3:6-15)은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실행하고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며, 제 3 장면(3:16-18)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평가하며 보아스가 약속대로 행동할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여준다.

⑥ 제 2 막과 제 3 막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 ⑴두 막 모두 세 장면, 즉 집-밭-집(2 막), 집-타작 마당-집(3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⑵두 막 모두 첫 장면(제 1 장면)과 마지막 장면(제 3 장면)은 집에서 나오미와 룻이 나눈 대화를 보여주고 중간 장면(제 2 장면)은 보아스와 룻이 나눈 긴 대화를 보여준다.

---

[51] K. Lawason Younger Jr., *Judges/Ruth*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2), 397-399.

- ⑶두 막 모두 첫 장면의 첫 묘사(2:1 엘리멜렉의 친지, 덕망있는 사람인 보아스; 3:1 룻을 위한 남편이 있는 가정 구하는 일)는 각 막의 전개될 일을 암시한다.
- ⑷두 막 모두 첫 장면은 나오미와 룻이 나오고 룻이 출발하는 것을 묘사한다(2:1-3; 3:1-5).
- ⑸두 막 모두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문(2:23 룻이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 줍고 시모와 함께 거함; 3:18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임)은 다음에 전개될 사건의 전환점이 된다.
- ⑹두 막 모두 등장 인물의 성품에 초점이 있으며 2 막은 보아스를 "덕망있는 사람, 유지 [이시 기볼 하일](2:1)"라고 하고 3 막은 룻을 "덕망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3:10)"이라고 묘사한다.
- ⑺두 막 모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길게 다룬다(2:4-17; 3:6-15).
- ⑻두 막 모두 보아스가 룻의 정체를 묻는 질문을 한다(2:5; 3:9).

⑦ **제 4 막**(4:1-12)은 보아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며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이야기한다. 4 막은 2 개의 장면을 갖는다. 제 1 장면(4:1-8)은 보아스와 무명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보여주고, 제 2 장면(4:9-12)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 무를 자의 권한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⑧ 1 막 1 장(1:6-18)과 4 막(4:1-12)은 병행을 이룬다.

- ⑴1 막 1 장(1:6-18)에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오르바가 사라지듯이, 4 막(4:1-12)에서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 그리고 백성과 장로가 대화를 주고받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사라진다.
- ⑵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권한을 얻게 되었을 때 1 막 1 장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문제이며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포기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 즉 남편이 있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⑨ **종막**(4:13-17)은 중심 인물 나오미의 문제 해결, 즉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그녀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아들이 태어나 텅 비었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1 막 2 장(1:19-22)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비참했던 삶을 토로했던 대상이 베들레헴 여인들이었듯이 종막(4:13-17)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울 후사인 것을 축하하는 대상이 베들레헴 여인들이었다.

⑩ **코다**(4:18-22)는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10 대를 추적하는 족보를 제시한다. 코다는 서막과 두드러진 병행과 대조를 보인다. 서막의 모압 거주 10 년과 코다의 다윗의 가계를 설명하는 10 대는 병행을 이룬다. 서막이 비극과 연관된 이름들로 시작하지만 코다는 승리와 연관된 이름들로 마감한다. 서막이 사사 시대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엘리멜렉으로 시작하지만 코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 다윗으로 끝난다. 이렇게 코다는 이야기의 직접적인 시대를 뛰어넘는 미래를 내다본다.

2) 하워드(David M. Howard Jr.)

서두: 텅 비게 된 한 경건한 가족(1 장)

비극적인 가족 이야기(1:1-5)

귀향(1:6-22)

전개(A): 룻과 보아스의 만남(2 장)

전개(B): 룻과 보아스의 약속(3 장)

절정과 결말: 채워진 한 경건한 가족(4 장)

새로운 가족 형성(4:1-10)

새로운 가족의 역사(4:11-22)[52]

3) 루터(A. Boyd Luter)

장면 1 (1:1-5) 죽음으로 인하여 가족의 미래에 소망이 텅빔

장면 2 (1:6-22) 헌신과 정직을 통한 소망을 위한 첫 단계들

장면 3 (2:1-23) 은혜로운 기업 무를 자의

즉각적인 배려와 보호

장면 4 (3:1-18) 기꺼이 기업 무르려는 자에게 제안된

계속적인 배려와 보호

장면 5 (4:1-12) 헌신과 재치를 통한 희망찬 미래를 위한 마지막 단계들

장면 6 (4:13-17) 탄생으로 인하여 가족의 미래에 대한 기쁨으로 다시 채워짐

결어 (4:18-22) 왕에게 적합한 한 가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53]

4) 리나펠트(Tod Linafelt)

A) 1:1-5사적인 가족 역사 (지파와 친족 중심)

B) 1:6-18 여인들 사이의 사적인 친족 관계

---

[52] David M. Howard Jr., *An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Moody: Chicago, 1993), 139.

Introduction: A Godly Family Emptied (Ruth 1)

A Tragic Family History (1:1-5)

The Return Home (1:6-22)

Development (A): Ruth and Boaz Meet (Ruth 2)

Development (B): Ruth and Boaz Engage (Ruth 3)

Climax and Resolution: A Godly Family Filled (Ruth 4)

A New Home Established (4:1-10)

A New Family History (4:11-22)

[53] A. Boyd Luter & Barry C. Davis, *Ruth & Esther* (Grand Rapids: Baker, 1995), 21

Scene 1 (1:1-5) Emptied of hope for the family's future, through death

Scene 2 (1:6-22) First steps toward hope through commitment and honesty

Scene 3 (2;1-23) Immediate provision and protection by a gracious goel

Scene 4 (3:1-18) Ongoing provision and protection “proposed" to a willing goel

Scene 5 (4:1-12) Final steps toward a hopeful future through shrewdness and commitment

Scene 6 (4:13-17) Refilled with joy at the family's future, through birth

Epilogue (4:18-22) A family's past, present, and future fit for a king

1:19-22 나오미와 예루살렘의 여인들

C) 2:1-23 밭에서의 룻과 보아스

a. 룻과 나오미의 대화

b. 룻이 밭으로 가다

c. 보아스가 룻의 정체를 묻다

d.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다

그리고 음식과 보호를 주다

e. 룻이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고하다

C') 3:1-18 타작 마당에서의 룻과 보아스

a. 룻과 나오미의 대화

b. 룻이 타작 마당으로 가다

c. 보아스가 룻의 정체를 묻다

d.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다

그리고 음식과 보호를 주다

e. 룻이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고하다

B') 4:1-13 남자들 사이의 공적인 친족관계

4:14-17 나오미와 예루살렘의 여인들

A') 4:18-22 공적인 가족 역사 (왕정 중심) [54]

---

[54] Tod Linafelt, "Ruth" in *Berit Olam*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9), xxi.

A) 1:1-5 Informal family history (oriented around the tribe and the clan)

B) 1:6-18 Informal kinship ties among women

1:19-22 Naomi and the women of Jerusalem

C) 2:1-23 Ruth and Boaz in the field

a. Exchange between Ruth and Naomi

b. Ruth goes to the field

c. Boaz seeks identity of Ruth

d. Boaz deems Ruth worthy,

gives her food and protection

e. Ruth returns and reports to Naomi

C') 3:1-18 Ruth and Boaz at the threshing floor

a. Exchange between Ruth and Naomi

b. Ruth goes to the threshing floor

c. Boaz seeks identity of Ruth

d. Boaz deems Ruth worthy,

gives her food and protection

10. 줄거리

1) 룻기는 룻이 시집가게 된 가정에 대한 빠른 개관으로 시작한다. **룻기 1 장**은 한 가정의 멸절 위기(1:3-5)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나오미의 해석(1:20-21)으로 둘러싸여 있다.

①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1:1; cf. 4:11)의 어떤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우거하러 갔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이고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룐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1:2; cf. 4:11) 사람들이었다. 얼마 후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만 남는다(1:3). 그 후 말론과 기룐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만 후사 없이 죽고 만다. 그래서 모압 거주 10 년쯤 나오미는 **그[녀]의** 두 자식(**I: [엘레드]**, 1:5; cf. 4:16)과 그녀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는 생과부("그 여인")가 된다(1:1-5).

② 나오미는 "여호와(**II: [아도나이]**, 1:6 내레이터 사용 1; cf. 4:13]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선다(1:6-7). 노상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죽은 자와 자기에게 베푼 한결같은 인애(**III: [헤쎄드]**, 1:8; cf. 2:20; 3:10)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풀어 주시길 빌면서 각자의 어미 집으로 돌아가 좋은 남편을 만나 "평안"(**IV: [므누하]**, 1:9; cf. 3:1)을 누리며 살라고 작별 인사를 한다. 그렇지만 두 며느리는 울며 이구동성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말한다(1:8-10).

③ 다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재혼의 소망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치신 그녀의 삶은 함께 나누기에 너무 비참한 것이니 돌아가라고 설득한다(1:10-13). 이에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바싹 달라붙는다(**V: [다바크 브]**, 1:14; cf. 2:8, 21, 23).

④ 이 때 다시 나오미는 룻에게 그녀의 백성(모압)과 신(그모스)에게로 돌아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권면한다(1:15).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더러 떠나라는 말씀하지 말라고 하며(A), 살아서 {가는 곳, 묵는[**VI: 린**, 1:16; cf. 3:13] 곳}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고(B), 오르바와는 달리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백성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으니(X), 죽어서도 나오미와 함께 장사될 것이고(B'), 죽음이외에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A')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1:16-17).[55]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1:18).

⑤ 베들레헴 여인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한다(1:19). 그러나 나오미는 전능자(C)가 자기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D)가 풍족하게 나갔던 자기를 빈 손으로(**VII: [레캄]**, 1:21; cf. 3:17) 돌아오게(**VIII:**

---

e. Ruth returns and reports to Naomi

B') 4:1-13 Formal kinship ties among men

4:14-17 Naomi and the women of Jerusalem

A') 4:18-22 Formal family history (oriented around the monarchy)

[55] A-B-X-B'-A'로 되어 있는 교차 대구의 중앙에 오는 "[아메흐 아미, 벨로하이흐 엘로하이]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강조되는 부분이며 동서처럼 그 백성과 그 신[아마흐, 엘로헤하]에게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대한 룻의 대답이다.

[**헤시바니** H10s4], 1:21; cf. 4:15 [메시브 네페시]) 하셨으며, 여호와(D')가 자기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C')가 자기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이란 나오미 대신 '쓰라림'이란 마라로 부르라고 한다(1:20-21). [56]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이었다(1:22).[57]

2) **룻기 2 장**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는 것으로 끝난다.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2 장은 보아스를 소개하는 설명(2:1)과 룻의 보아스와의 첫 대면을 포함한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나오미의 해석(2:20-22)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① 룻은 텅 빈 삶,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 우연히[58] 룻이 가게 된 밭은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지(**IX: [므유다**, ? 모다, 2:1; cf. 3:2])요 덕망있는 사람(**X**: [이시 기보르 **하일**], 2:1; cf. 3:11; 4:11)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2:1-3).

②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이르러 추수하는 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추수를 감독하는 종에게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 대하여 묻는다. 그 종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라고 하면서 이삭 줍는 것을 요구하기에 허락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다고 말한다(2:4-7). 여기서 처음으로 룻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③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이삭 주우러 가지 말고 절대로 자기 밭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추수하는 여자들 가까이에 붙어서(**V': [다바크 임]**, 2:8; cf. 1:14; 2:21, 23) 이삭을 주우라고 한다. 그리고 룻이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 이삭 주울 때 남자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했다면서 목마르거든 남자들이 길러 온 물을 마셔도 좋다고 한다. 룻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노흐리야] 2:10 자기 인식 1)인 줄 알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는(**XI: [르하키레니]**, 2:10; cf. 2:19) 이유에 대하여 의아해할 때 보아스는 룻이 시모에게 베푼 선행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과 함께 살려고 온 것을 안다면서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XII: [카나프]**, 2:12; cf. 3:9)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타인의 평가 1]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한다. 룻은 하녀([시프하] 2:13 자기 인식 2)만도 못한 자신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 준 것을 감사드린다(2:8-13).

---

[56] 1:20-21 의 나오미의 말은 가문의 멸절 위기(1:3-5)에 대한 해석이며 서두의 언급과 함께 1 장을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나오미는 교차 대구 형식으로 전능자[샤다이]-여호와[아도나이]-여호와[아도나이]-전능자[샤다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

[57] 며느리들의 장래 걱정을 먼저 하던 시어머니도 자신의 쓰라린 현실 앞에서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란 긴 주어를 써 나오미와 함께 있었음을 설명하며 나오미가 빈 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른 시기가 보리 추수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텅 빈 삶이 채워질 소망을 암시한다.

[58] "우연히"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룻이 세운 어떤 계획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서 이삭을 주우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바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저자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은밀하게 역설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④ 보아스는 식사 때 룻을 초대하여 떡을 먹으라고 하며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은 볶은 곡식을 준다. 식사 후에 보아스는 추수하는 자들에게 룻으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하라고 하며 일부러 곡식을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며 줍게 하라고 명령한다(2:14-16). 룻은 이삭 줍기를 통하여 얻은 한 에바가[59] 되는(2:17) 보리와 식사 때 먹고 남긴 볶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준다.

⑤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룻을 돌아본 자(**XI': [마키레흐]**, 2:19; cf. 2:10)를 축복하는데 룻은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린다. 나오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한결같은 인애(**III': [헤쎄드]**, 2:20; cf. 1:8; 3:10)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일가붙이로 기업 무를 자(**XIII: [고엘]**, 2:20; cf. 3:9, 12; 4:14)중 하나인 것을 말하자 룻은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 추수하는 자들 가까이에 붙어(**V'': [다바크 임]**, 2:21; cf. 1:14; 2:8, 23)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을 알린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에게 바싹 붙어 있고(**V''': [다바크 브]**, 2:23; cf. 1:14; 2:8, 23) 다른 밭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리하여 룻은 보아스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웠고 그 후 나오미와 함께 살았다(2:18-23).

3) **룻기 3 장**은 "안식"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끝난다.[60]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 장은 [2:20 에서 보아스를 기업무를 일가붙이로 언급했던] 나오미가 문제 해결을 위해 룻에게 하는 두 번의 말(3:1-4, 18)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① 이삭 줍는 것으로 생활 안정을 누릴 수가 없고 더구나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위해 안식(**IV': [마노아흐]**, 3:1; cf. 1:9 [므누하]), 즉 집과 남편을 구해 주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나오미는 룻에게 과부의 옷을 벗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가서 우리의 친척(**IX': [모다타누]**, 3:2; cf. 2:1)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하면서 그 후에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한다(3:1-5).

② 룻은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더미 맨 끝에 눕는 것을 보고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 밤중에 놀라 잠을 깬 보아스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는다. 이에 룻은 자신을 밝히고 보아스에게 "어르신은 기업 무를 자(**XIII': [고엘]**, 3:9; cf. 2:20; 3:12; 4:14)이니 어르신의 옷자락(**XII': [카나프],** 3:9; cf. 2:12)으로 시녀([아마] 3:9 자기 인식 3)를 덮으라"면서 청혼을

---

[59] 에바는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인 호멜의 십분의 일로 30-50 파운드 정도가 된다. 고대 바벨론 시대의 마리 지역에서 남자 일꾼이 하루 품삯으로 받은 것이 1-2 파운드인 것과 비교하면 룻이 하루에 이삭 주운 것은 15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양으로 매우 많은 것이다(Sasson, 57; Hubbard, 179; Bush, 133).

[60] 3:1 의 "안식"은 명사(מָנוֹחַ[마노아흐])로 결혼하여 남편이 제공해 줌으로써 여인이 누리는 안정을 말하며, 3:18 의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로 이시코트]"는 일이 성취되기까지 보아스가 안식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나타낸다. 1:9 의 "평안(מְנוּחָה[므누하])"과 3:1 의 "안식(מָנוֹחַ[마노아흐])"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들이다. "여호와께서 땅를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יְנַחֲמֵנוּ[여나하메누)]"며 라멕이 지은 노아(נֹחַ[노아흐])라는 이름도 같은 어근에서 왔다(창 5:29).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 "평안"을 찾으라고 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룻을 위해 "안식"을 찾아주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다(3:6-9).[61] 보아스는 룻을 위해 복을 빌며 룻이 젊은 자를 구하지 않고 나오미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를 위해 나이가 든 자신을 선택한 인애(**III'': [헤쎄드]**, 3:10; cf. 1:8; 2:20)가[62] 이전 것보다 더 크다고 칭찬하며 성읍 백성이 덕망있는 여인(**X':** [에셰트 **하일**], 3:11 타인의 평가 2; cf. 2:1; 4:11)인 줄 아는 룻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XIII'': [고엘]**, 3:12; cf. 2:20; 3:9; 4:14)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기업 무를 자가 책임을 이행한다면 그가 이행하도록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보아스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며 룻에게 이 밤에 여기 묵으며(**VI': [린]**, 3:13; cf. 1:16)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한다(3:10-13).

③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룻은 일어나 보아스가 여섯 번 되어 준 보리를 갖고서 집으로 온다. 나오미가 궁금해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을 때 룻은 보아스가 빈 손으로(**VII': [레캄]**, 3:17; cf. 1:21)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한 말을 전하면서 보아스가 여섯 번 되어 준 보리를 보인다. 보리가 상징해 주는 안식을 확신하며[63]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며 룻에게 기다리라고 한다(3:14-18).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것인가 하는 긴장은 마지막 장면까지 계속된다.

4) **룻기 4 장**은 기업무름에 관한 법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보아스와 룻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이 탄생되고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것을 밝히고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제공한다. 구조적으로 4 장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보아스의 언급으로 시작하여 나오미 품에 안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해설로 끝나는 틀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보아스, 베들레헴 백성과 장로, 베들레헴 여인의 말이 나온다.

①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그 기업 무를 자를 보고 앉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 인을 청하여 앉도록 한다(4:1-2). 보아스는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친족에게 나오미가 관할하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무르라고 한다. 그가 무르겠다고 했을 때 보아스는 그에게 (모세의 율법에 비록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혼(嫂婚) 제도가 보여 주는 것과 같이 기업을 이을 후사가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당시 이스라엘 법이나 관습으로 인정되었던) 고인의 아내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고인의 기업을 잇게 하라고 제의한다. 그러자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친히 무를 수 없겠다면서 보아스더러 직접 나서서 자기가 무를 것을 대신 무르라([그알 르하 아타 에트 그울라티] 4:6)고 한다(4:3-8).

②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 소유지를 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이샤])로 취해 고인의 기업을 잇게 하는 일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한다. 백성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증인이

---

[61] 여기 3:9 의 "옷자락"과 2;12 의 "날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다.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는 일을 기도한 대로 보아스 자신이 옷자락으로 덮는 일을 하는 남편이 되어 보호해 줄 것을 룻이 요청한 것이다.

[62] 개역 개정 3:10 에 "인애"라고 번역된 חֶסֶד[헤쎄드]는 1:8 에서 동사와 함께 "선대하다"로 번역되었고 2:20 에서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줄거리에서는 모두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다)"라고 번역하였다.

[63] 보리는 여호와께서 빈 손으로(רֵיקָם[레캄] 1:21) 돌아오게 하셨다고 절규한 나오미의 텅 빈 상태가 빈 손으로(רֵיקָם[레캄] 3:17) 시모에게 가지 말라는 보아스에 의해 채워질 것을 상징한다.

된 것을 말하고,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샤] 4:11 타인의 평가 3)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고 보아스가 에브랏(4:11; cf. 1:2)에서 번창하고(**X'':** [아싸 **하일**], 4:11; cf. 2:1; 3:11) 베들레헴(4:11; cf. 1:1, 2)에서 유명하게 되며, 룻에게 후사를 주사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 같이 되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한다(4:9-12).

③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오고 그녀는 그의 아내([이샤])가 되고 그는 그녀와 동침한다. 그랬더니 여호와([**II': 아도나이**, 4:13 내레이터 사용 2; cf. 1:6]께서 그녀로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녀는 **아들**을 낳는다(4:13).[64]

④ [1 장에서 나오미의 귀환을 즐거워하던] 여인들이 또 여기 4 장에서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후사(**XIII''': [고엘]**, 4:14; cf. 2:20; 3:9, 12)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태어난 아이가 유명하게 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칼라테흐 토바 미시브아 바님] 타인의 평가 4)가 낳은 아들이므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VIII':** [**메시브** 네페시] 4:15; cf. 1:21)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을 노래한다(4:14-15). 나오미는 아기(**I': [옐레드]**, 4:16; cf. 1:5)를 취해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65]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면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었다(4:16-17).

⑤ 이 짧은 족보(4:17d)를 더 올라가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면 "베레스(1)-헤스론-람-암미나답-나손-살몬-보아스(7)-오벳-이새-다윗(10)"이라는 베레스의 계보가 된다(4:18-22). 이러한 긴 족보(4:18-22)는 7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보아스에게 영예를 주고[66] 다윗 왕의 혈통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조상들을 통해 태어난 10 번째 다윗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선물이고 이상적

---

[64] 룻기의 총 85 절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23 번 사용되는데 내레이터는 룻기의 서두와 결미에 각각 한 번씩 두 번만 사용한다. Hubbard(69)는 이것을 theological inclusio(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수미상응구조/수미쌍관법/포괄법)라고 부른다. 저자는 이 기교를 통해 책의 처음과 끝에서 양식 주시고 아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그 중간에 일어난 모든 좋은 것들도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것을 독자로 알게 한다.

[65] 1:5 에서 장성하여 결혼한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녀(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뒤에 남았다고 말할 때 흔히 쓰는 벤(בֵּן)을 쓰지 않고 옐레드(יֶלֶד)를 썼는데 4:16 에서 후사인 "아기"를 말할 때 또 옐레드가 쓰였다. 1 장 서두의 가문의 멸절 위기가 4 장 말미에서 나오미가 취하여 품에 안고 양육하는 아기에 의해 해결된 것을 보도록 한다(주제적 수미쌍관법, thematic inclusio).

[66] 창세기 5 장의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에서 에녹이 7 번째 자리에 오는 것과 같이 4:18-22 의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에서 보아스가 7 번째 자리에 온다. 이 영광스러운 7 번째 자리를 차지한 두 인물의 삶에 대한 언급을 비교한다면 창세기 5 장은 족보 내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창 5:22, 24)고 간단히 언급한 반면 룻기는 족보 앞에 나오는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던 보아스의 경건한 삶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 족보가 없었다면 경건하게 산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상에 대한 언급이 빠져 버렸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보아스와는 달리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러섰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이름 없이 사라졌다. 그가 손가락질 받지는 않았더라도 보아스에 의해 불리었을 이름 대신 저자에 의해 아무개 씨(4:1 פְּלֹנִי אַלְמֹנִי[플로니 알모니], Mr. So-and-So)로 소개된다. 족보의 7 번째 자리를 차지한 보아스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더 가까운 무를 자는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

왕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67] 룻기 원문은 마지막 자리에 다윗을 두면서 꾸준하신 여호와께서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에도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5) 위의 줄거리 본문과 각주에 음역을 달고 밝혀 놓은 히브리어 단어는 룻의 칭호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과 룻기 저자가 반복하여 사용한 핵심 단어들의 일부이다.

① 어떤 단어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핵심 단어의 첫 번째 사용은 두 번째 출현을 예기한다. 핵심 단어들의 반복은 원거리 언어유희(long-range word-play)를 통한 포괄법(inclusio)으로서 장면들을 연결하고 주제를 드러내고 발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핵심 단어의 반복은 장면들의 연결 고리로서 플롯의 문제들이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지고 극복될 난관에서 그 난관의 해결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준다.

② 캠벨(13-14)이 플롯 진행을 돕는 주목할 만한 핵심 단어로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단어 번역은 본 주석의 번역이고 [ ]의 번역은 개역 개정의 번역이다.

	핵심 단어	1 장	2 장	3 장	4 장
1	옐레드 יֶלֶד	1:5 **자식** [아들]	-	-	4:16 **자식** [아기]
2	카나프 כָּנָף	-	2:12 (여호와) **날개**	3:9 (보아스) **옷자락**	-
3	슈브 שׁוּב (사역 능동)	1:21 돌아오게 하셨다 הֶשִׁיבַנִי H10s4	-	-	4:15 생명의 회복자 מֵשִׁיב נֶפֶשׁ H52
4	레캄 רֵיקָם	1:21 빈 손으로 [비어]	-	3:17 빈 손으로	-
5	누흐 נוּחַ	1:9 평안함 [위로] מְנוּחָה 므누하	-	3:1 평안한 보금자리 [안식할 곳] מָנוֹחַ 마노아흐	-
6	헤쎄드 חֶסֶד	1:8 한결같은 인애 [선대하다 + עָשָׂה]	2:20 한결같은 인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다 + לֹא עָזַב]	3:10 한결같은 인애 [인애 베풀다 + הֵיטִיב]	-
7	다바크	1:14 달라붙다	2:8 붙어있다	-	-

[67] 룻 4:11-12 의 백성의 축복, 4:17 의 짧은 족보, 4:18-22 의 긴 족보는 나오미-룻-보아스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족장시대부터 다윗 왕정 시대에 이르는 위대한 가문 그리고 위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볼 것을 일러준다.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가정뿐만 아니라 전 민족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דָּבַק	[붙좇다]	[함께 있다] 2:21, 23 붙어있다 [가까이 있다]		
8	린 לִין	1:16 묵다 [유숙하다]	-	3:13 묵다 [머무르다]	-
9	야다 יָדַע	-	2:1 친지 [친족] מֹידַע מְיֻדָּע	3:2 친척 [친족] מֹדַעְתָּנוּ	-
10	하일 חַיִל	-	2:1 덕망 [유력] [있는 사람 + גִּבּוֹר]	3:11 덕망 [현숙] (있는 여인 + אֵשֶׁת)	4:11 번창 [유력] (하고 + עָשָׂה)
11	나하르 נָכַר (사역능동)	-	2:10 돌아보다 לְהַכִּירֵנִי H65s4 2:19 돌아본 자 מַכִּירֵךְ H52s3	-	-

11. 주제

1) 중심 인물 나오미 그리고 주인공 룻과 보아스에 유념하고, 두드러진 문제(즉 양식이 없어 이방 땅 모압에 우거하다가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들과 함께 남은 나오미의 텅 빈 삶)와 그 문제의 해결(즉 룻과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 오벳이란 후사를 얻게 된 나오미의 채워진 삶)에 유의하면 룻기의 주제는 나오미의 "텅텅 빔에서 가득 참(from emptiness to fullness)"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 엘리멜렉 가문을 멸절로부터 구출해 주셨다. 이 엘리멜렉 가문 구출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양식(1:6) 주시고 아들(4:13)을 주시며 [이 둘 사이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3) 룻과 보아스의 헌신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아니 하신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합창(4:14)은 내레이터에 의해 엘리멜렉 가문의 구출이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는 짧은 족보(4:17)로 이어진다. 이리하여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진 것은 엘리멜렉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일이었음이 밝혀진다.

4)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셨다. 이 짧은 족보를 통하여 룻기 저자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나오미의 시대를 넘어 이야기를 듣는/읽는 원래의 청중/독자의 시대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짧은 족보 다음에 나오는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긴 족보는 7 번째 자리에 보아스를 놓음으로써 영예를 주고 보아스(-룻-나오미)가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5)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대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엘리멜렉 가문을 멸망으로부터 구하시고 (아브라함-이삭-야곱-)유다-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룻과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신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 태어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마 1:1)를 통하여 우리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의와 영생과 천국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68]

12. 신학 (하나님)

1) 룻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등장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명시적인 언급들이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69]

2) 나오미는 대화하는 중에 "여호와"란 이름을 네 번(1:8, 21[2 번]; 2:20) 사용하고, "전능자"란 이름을 두 번(1:20-21) 사용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이름이다. "전능자"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악을 벌하고 선을 상주시면서 도덕적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70]

---

[68] Archer(308-309)는 기업 무를 자(보아스)가 메시아(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서 룻기가 메시아의 중보 사역에 대한 가장 좋은 교훈을 주는 책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Kisman-Redeemer As a Messianic Type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기업 무를 자	
Requirement 요건	Fulfillment in Christ 그리스도의 성취
Be a blood relative (친족)	Christ born of a woman (동정녀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됨)
Be able to purchase forfeited inheritance (기업 무를 능력)	Christ had the merit to pay the price for sinners (십자가 대속의 공로)
Be willing to buy back the forfeited inheritance (기꺼이 기업을 무름)	Christ willingly laid down his life (기꺼이 목숨을 버림)
Be willing to marry the wife of the diseased kinsman (기업 잇기 위한 결혼 의사)	The Church as the bride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69] Block, *Judges, Ruth*, 605.

[70] 히브리어로 שַׁדַּי[샤다이]인데 אֵל שַׁדַּי([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줄인 형이고 칠십인역에서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로 번역되고 벌게이트역에서 omnipotens[옴니포텐스]로 번역되고 영어역에서 Almighty[올마이티]로 번역되었다. 전능자란 칭호는 왕정시대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욥기와 선지서의 몇몇 구절에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 시기에 관한 한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적절하다. 전능자/전능하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구절(예, 창 17:1; 28:3; 35:11; 민 24:16), 심판(사 13:6; 욜 1:15; 욥 5:17), 그리고 능력(겔 1:24; 10:5; 시 68:15; 91:1)을 표현하는 구절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주전 7 세기 초 데이르 알라 발람 문헌에 천상 회의를 하는 신들을 지칭하는데 *šdyn* 과 *'lhn* 이 번갈아 사용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J. A. Hackett(*The Balaam Text from Deir 'Allah*, HSM 31 [Chico, CA: Scholars Press, 1989], 87)는 샤다이가 그 회의의 의장인 엘의 칭호라고 제의한다.

① 나오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분이다. 삶의 역경 가운데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그 삶을 룻과 오르바가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비참하다고 한다(1:13). 베들레헴 귀향을 여인들이 환영할 때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비참하게 하고 여호와가 비어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가 자신을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가 불행하게 하셨다고 탄식 불평한다(1:20-21). 나오미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역경에만 시선을 집중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 못한다.[71]

② 나오미의 신관이 유일신론(monotheism)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1:15 에서 오르바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입다(삿 11:24)처럼 각 민족이 민족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③ 나오미의 처음 말(1:8) 가운데 룻기의 신학적 핵심 단어인 "한결같은 인애"라는 의미의 헤쎄드(חֶסֶד)가 나온다. 1:8 에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가 죽은 자와 자기에게 베푼 인애대로 그들이 모압으로 돌아가 남편을 만나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애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고 며느리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인애를 구했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자신의 역경에만 시선을 집중할 때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헌신을 통하여 자신이 텅빈 삶이 가득 채워지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한결같은 인애를 다시 보게 된다. 2:20 에서 나오미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인애를 베푼 보아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빈다.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인애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1:8 의 축복의 말대로 여호와의 인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다.

---

[71] 룻기 저자는 엘리멜렉 가문에 닥친 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다만 나오미의 말을 빌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표현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흑인 영가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처럼 그리고 다음의 구약 구절들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이다.

(사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애 3:37-38)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암 3:6-8)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3) 룻의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책에 기록된 그녀의 처음 말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다.[72]

① 룻은 1:16-17 에서 비 이스라엘인으로서 일반적인 하나님(엘로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나오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고백한 뒤 자신이 택한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 저주적 맹세를 한다.

② 여기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교차대구 형식의 중앙/축에 오게 한 것은[73] 룻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룻과 오르바의 갈림길은 결국 백성과 신 선택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신이 아닌 바알을 택하고 무익한 우상들을 택한 것에 대하여 "깃딤 섬과 게달에 가서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살펴보라. 세상의 어느 나라가 너희처럼 신을 바꾼 일 있느냐(렘 2:10-11)?"라고 말한 고소에 비추어 보면 룻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를 택한 것은 위대한 결단이었다.

③ 보아스의 말대로 룻의 행동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에 룻기는 룻의 이러한 행동이 여호와의 복(보아스를 만남, 아들을 낳음, 다윗의 할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됨)을 가져 온 것을 증거하고 있다.

4) 보아스는 "여호와"란 칭호를 5 번 사용하고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2:12) 말한다. 보아스는 축복(2:4, 12a, 12b; 3:10)과 맹세(3:13)에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한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2:4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의 헌신과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2:11, 12) 하나님이시다.[74]

① 보아스가 2:12 에서 모압 여인에게 말하며 '여호와'와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덧붙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아스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으로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든 자에게 보호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한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라고 복을 빈다. 룻이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스라엘 사람의 과분한 호의가 주어지는 이유를

---

[72] Block, *Judges, Ruth*, 606.

[73] 룻 1:16-17(개역개정)의 중앙집중적 역순대구 구조

A: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B: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X: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B':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A':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74] Block, *Judges, Ruth*, 607.

궁금해할 때 보아스가 한 이 말은 룻으로 "내가 나오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한 것은 너무 너무 잘한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을 것이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밭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였던 것처럼 격려하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처음 나온 분들이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성도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너무 잘 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② 보아스는 3:10 에서 여호와가 모든 복의 근원인 줄 믿고 나오미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젊은한 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 많은 자신에게 청혼을 한 룻이 여호와에 의해 복받기를 빈다.

③ 보아스는 3:13 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이행할 것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비록 정해진 형식의 맹세이긴 하지만 보아스는 [나무와 돌로 만든, 생명이 없는, 무익한, 신이 아닌] 우상들과 달리 여호와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

5)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해당하는 등장 인물들의 말도 역시 그들의 신관을 반영하고 있다.[75]

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인사하는 보아스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응답한다(2:4). 그들의 인사는 여호와가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백성과 장로들은 4:11 에서 여호와께서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도록 빌고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후사를 주셔서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길 비는데 이것도 그들이 여호와가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시 127:3)"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③ 베들레헴 여인들은 4:14 에서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후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다.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다(cf. 대상 29:10-14).

6) 이처럼 룻기의 등장 인물들은 모두 신전(神前 before God, Coram Deo)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빈번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들은 앞을 바라보며 소원(1:8-9; 2:12; 4:11-12), 인사(2:4), 맹세(1:17; 3:13)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뒤를 돌아보며 지금 누리는 복(2:19-20; 4:14)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탄식(1:13, 20-21) 가운데서도 재난에 (그리고 암시적으로 장차 있게 될 바람직한 해결에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있다. 등장 인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현존하며 마치 나오미나 보아스처럼 실질적인 등장 인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7)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레이터는 두 곳(1:6; 4:13)에서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을 돌보사 아들을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풍요(곧 양식과 출산 둘 모두)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소관임을 밝히고 있다.

---

[75] Block, *Judges, Ruth*, 607.

이렇게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을 언급하는 수미쌍관법(theological inclusio)을[76] 통하여 저자는 룻기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책이 아니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① 내레이터가 하나님에 대해 두 번만 언급하였다고 하여 룻기에 신학이 없다(Sasson, 249)고 하거나 룻기를 세속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저자가 사건의 여러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인도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행간을 읽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의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문예적 장치로서 고도로 억제된 언급이 도리어 크게 말하는 효과적인 선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호와가 참으로 활동하고 계심을 강조한 것이다.

② 이것은 룻기의 모든 기도(1:8-9; 2:12, 19-20; 3:10; 4:11-12, 14)가 플롯이 진행되는 동안 응답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여호와만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은 여호와의 활동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 뒤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지만 꾸준히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8) 룻기에는 창 39:2-6; 21-23; 삼하 11:27; 삿 14:4 에서처럼[77] 사건을 평가하는 어떤 명시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따라서 룻기를 읽을 때 명시적인 언급보다 오히려 더 크게 말하도록 의도된 암시적인 것을 찾아 사건의 배후에서 진행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78] 이제 그것들을 찾아볼 차례가 되었다.

① 여호와의 손길은 외견상 자연적 사건(흉년, 죽음, 재난), 외견상 우연적 사건(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름), 사람의 위험스러운 계획(타작 마당으로 룻을 보냄), 법적 문제 처리 과정(기업 무를 자의 마음 변화)에도 있었다. 저자는 흉년이 들고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무자한 과부 나오미의 재난의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 그것들이 여호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그러나 흉년든 것이 언약의 저주에 해당되고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이 믿음 부족으로 가나안을 떠남과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침묵과는 맞지 않으며) 지나친 해석이다. 나오미의 말을 빌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 저자의 해석에 만족하며 재난의 이유를 더 묻지 않고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76] Hubbard, *Ruth*, 69.

[77] (삿 14:4) 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개역과 개역 개정에서 "삼손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오역이므로 "여호와께서"라고 고쳐 번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삼손이지만 그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빌미를 찾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앞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하 17: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78] Block, *Judges, Ruth*, 608-609.

② 저자가 "우연히" 룻이 (호의를 베풀어 주고 기업 무를 자가 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잠 16:33)."라는 말씀과 같이 제비도 여호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순간에 그녀와 그녀의 자손에게 닥칠 운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룻의 움직임이 더더욱 여호와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것을 더 크게 말하고 있는 효과를 준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룻의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목적(4:17) 아래 등장 인물의 개인적인 일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③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밤에 타작 마당에서 만나도록 한 것은 미묘하고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이 섬약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에도 여호와의 손길이 있었다. 보아스가 타작한 곡식으로 인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곡식더미 맨 끝—(참고: 개역 성경에는 '곁'으로 번역되어 있음)—에 누움으로써 룻은 남에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고상한 인격의 보아스가 밤에 찾아온 룻을 창녀 취급하여 돌려보내지 않았다. 관습의 관점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인에게, 여인이 남자에게, 젊은이가 늙은이에게, 이삭 줍는 자가 밭의 주인에게 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보아스에 의해 거절되지 않았다. 룻의 행동과 청혼의 말에 대하여 보아스는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혀를 지키며 상대방 룻을 먼저 배려하고 "내 딸아 두려워말라."고 안심시키고 그녀가 요구한 것을 다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를 덕망있는 여인이라고 칭찬하였다.

④ 여호와의 손길은 법적 문제 처리 과정에도 있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기다릴 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인 아무개 씨가 지나가도록 한 것은 여호와의 손길이었다. 룻이 성문에서 법적 문제 해결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아무개 씨의 응낙과 거절의 말에 따라 희비가 오락가락하였을 것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마음의 변화를 듣고서 바로 보아스가 자신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권리와 의무를 얻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공증 받는다. 이것이 쉽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레이터는 전하고 있다.

⑤ 룻기는 외견상 세속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볼 때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룻기의 모든 사건에는 사사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깔려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은 사사기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거물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배 계급을 통해 출현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위대한 왕조의 씨앗들이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족에게 뿌려졌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에 가장 거리가 먼 후보들, 즉 남편과 두 아들들 뒤에 남은 과부 나오미,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거주자 모압 여인 룻, 보잘 것 없는 작은 촌 베들레헴의 노인 보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닿을 때 이들은 구속사의 위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13. 신앙과 행위 (하나님의 백성)

1)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 내레이터와 등장 인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독특한 공동체로 언급된다.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5 번(2:12; 4:7[2 번]; 4:11; 4:14) 나온다.[79]

① 내레이터가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독특한 백성이다(4:7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외인(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다.

②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의 친정으로 돌아가 재가하여 행복을 찾을 것을 말할 때 그들은 나오미와 함께 "당신[어머니]의 백성(1:10)"에게로 가겠다고 한다. 오르바가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고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은 나오미를 붙좇으며 "당신[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1:16)."라고 고백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다.

③ 이것을 보아스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2:11)"에게로 온 일이라고 하고 칭찬하며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2:12)"고 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권고하사(1:6)" 양식을 주셨듯이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4:13). 이에 대하여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4:14)."고 말한다.

④ 이렇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모압과 구별되었고, 또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그모스를 따르는 모압과 구별되었다. 룻은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이요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요 새로운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땅의 주인이신 것과 기업 무르는 관습을 배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온 자기들의 독특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⑤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하여 장로들과 백성은 자기들이 이에 대한 증인이라면서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4:12)."고 복을 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던 라헬과 그렇지 못한 레아를 잘 알고 있었고, 언급이 생략된 빌하와 실바의 이차적인 역할도 알고 있었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우고 창세기 38 장에서 도덕적으로 유다와 다말이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베레스를 낳은

[79] Block, *Judges, Ruth*, 610-611.

다말처럼 그 가계를 세우기를 빌고 있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독특한 백성이었다.

2) 이렇게 독특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에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제시되고 있다. 배교와 부도덕이 만연한 불신실하던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고 베들레헴은 예외적으로 그 경건함이 뛰어난 성읍이었음을 보여 준다. 룻 2:22 에 이삭을 남겨 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베들레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이 일관되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사기의 등장 인물들은 영적으로 좋게 말하더라도 타협적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사고방식과 행위에 있어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았지만 룻기의 등장 인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징적인 성품, 곧 호의, 친절, 양선, 충성, 성실, 헌신, 인자, 자애, 자비, 한결같은 인애 등의 의미를 갖는 헤쎄드를 가지고 있었다.

3) 룻기는 헤쎄드(한결같은 인애)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의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한다.

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섭리적인 돌보심이 내레이터의 첫 번째 관심사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개인 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공동체/사회생활에서의 인애의 삶이 두 번째 관심사이다.

②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거나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요청하거나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어떤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랑의 실천을 하였다. 이것이 헤쎄드의 삶을 산 그들의 모습이었다.

③ 진정한 믿음의 삶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그 사랑은 이웃의 행복을 위한 기도로써 표현되고 이웃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동으로써 표현된다. 남의 행복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먼저 배려하며(빌 2:3 cf. 개역: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헤쎄드 = 한결같은 인애]를 사랑하는(미 6:8)" 삶이다.

4)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 말로 남을 위해 복을 빌며 헤쎄드를 표현한다.[80]

① 총 85 절중에 55 절이 대화인데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등장 인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자동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은 불평(1:13, 20-21), 맹세(3:13), 그리고 특별히 축복(1:8-9; 2:4a, 4b, 12, 19[여호와의 언급은 없음]; 2:20; 3:10; 4:11-12, 14a, 14b, 15)에서 나온다.

② 축복의 경우 "축복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 5 번(2:4b, 19, 20; 3:10; 4:14a)이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5 번(1:8-9; 2:4a, 12; 4:11-12; 14b-15)이다. "축복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경우 한 번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데,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고(4:14a), 나머지 4 번(2:4b, 19, 20; 3:10)은 다른 사람을 위해 특정한 복을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주시길 비는 데 쓰였다. "축복하다"라는

[80] Block, *Judges, Ruth*, 612.

동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은택이 주어지길 바라는 소원을 표현한다. 그 특별한 은택들은 하나님의 인애, 특히 남편 집에서의 안정(1:8-9), 하나님의 함께 하심(2:4a),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상(2:12), 출산(4:11-12),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는 것(4:14b), 노년의 삶과 안정(4:15)이다.

③ 등장 인물마다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고 있다. 이것이 헤쎄드의 표시이다.

5)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 말로 남을 위해 복을 빌며 헤쎄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헤쎄드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81]

① 나오미의 헤쎄드

- ⑴나오미는 큰 환난을 당할 때(1:8-9, 13, 20-21)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1:6; 2:19-20)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뜻을 찾는다.
- ⑵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다정하게 "나의 딸"이라고 부른다(1:11-13; 2:2, 22; 3:1, 16, 18).
- ⑶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함께 나누려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행복의 삶을 찾으라고 설득한다(1:8-14).
- ⑷나오미는 재차 룻을 설득하나 룻의 결심을 보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1:15-18).
- ⑸나오미는 룻으로 이삭 줍도록 허락하며(2:2) 룻에게 관대했던 사람을 위해 복을 빈다(2:19-20).
- ⑹나오미는 이삭 주우러 가는 룻의 안전을 염려하며 보아스의 밭에만 있으라고 말한다(2:22).
- ⑺나오미는 룻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식할 곳을 찾아 주려고 계획하고 룻에게 지시내린다(3:1-4).
- ⑻나오미는 룻과 함께 초조해하면서도 룻에게 참고 기다리라며 안심시킨다(3:16-18).
- ⑼나오미는 룻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양육한다(4:16).
- ⑽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모압인들에 대한 적대심의 배경에서 고려되면 나오미의 헤쎄드가 더욱 드러나게 한다.

② 룻의 헤쎄드

- ⑴룻은 남성 주도의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다(1:15-18 cf. 보아스의 증거: 2:11-12; 3:10).
- ⑵룻은 이방인이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시어머니께 허락을 구한다(2:2).
- ⑶룻은 보아스의 호의에 대하여 공손하게 깊이 감사 표시를 한다(2:10, 13).
- ⑷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다(2:17-18, 23).
- ⑸룻은 시모의 지시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 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간다(3:6-13).
- ⑹룻은 보아스의 말을 경청하며 법적 해결을 위해 묵묵히 기다린다(3:14-18).

---

[81] Block, *Judges, Ruth*, 613-614.

- ⑺룻은 자기의 아들을 나오미로 하여금 양육하도록 한다(4:16).

③ 보아스의 헤쎄드

- ⑴보아스에 대한 내레이터의 존경은 그를 "유력한 자, 덕망있는 사람, 유지"로 소개하는데서 엿볼 수 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2:4a)" 바란다고 인사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2:4b)" 바란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보아스의 인품이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룻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매우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2:8-16).
- ⑵보아스는 다정하게 룻을 "나의 딸(2:8)"이라고 부르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의 일하는 여자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한다(2:8-9).
- ⑶보아스는 자기의 일하는 남자들로부터 룻을 보호하고(2:9, 15), 그의 일꾼들과 똑같이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고 한다(2:9).
- ⑷보아스는 공개적으로 룻을 칭찬하고 여호와께 복을 빌며(2:11-12), 자신과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룻을 초대하고 마음껏 먹고 남을 만큼 많은 볶은 곡식을 준다(2:14).
- ⑸보아스는 남자들로 하여금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으로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한다(2:15-16).
- ⑹보아스는 타작 마당에서 룻이 그녀의 명예와 행복을 걸고 모험을 무릅쓸 때에 룻의 복을 빌고, 다시 칭찬하며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맹세로 약속하고, 새벽 전에 돌려보낼 때 있을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룻을 새벽까지 머물게 하고, 새벽에 많은 보리를 주어 룻을 돌려보낸다(3:6-16).
- ⑺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사양하였을 때 공개적으로 희생을 무릅쓰고 기업 무를 일을 할 것이고 룻과 결혼하여 낳은 후사를 통하여 그의 죽은 친족의 이름을 이어지게 하여 고인의 기업이 그 후사의 이름으로 보존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4:1-10).
- ⑻보아스는 이스라엘의 모압에 대한 전통적인 증오와 룻의 가련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룻이 모압 여인임을 개의치 않으며 처음에는 밭에서 이삭 줍는 자로서, 후에는 밤에 찾아온 손님으로서, 마지막에는 아내로서 룻을 맞이한다.

④ 다른 등장 인물들의 헤쎄드

- ⑴보아스의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한다(2:4). 보아스가 도착하기 전에도 그들은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밭에 머물게 하였다.
- ⑵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한 후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축복함으로써, 곧 여호와께서 룻을 족장시대의 라헬, 레아, 다말과 같이 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관대함을 표시한다(4:11-12).
- ⑶오벳의 탄생후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은혜에 대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며 오벳을 위한 복을 빌며 나오미를 격려한다(4:14-15).

14. 한결같은 인애(헤쎄드)의 삶

1) 온 이스라엘, 대부분의 중심 인물들이 언행심사에 있어서 가나안화되어 버린 것을 묘사한 사사기와는 달리, 룻기는 윤리적인 황무지 가운데 베들레헴이란 오아시스를 묘사하며 나오미의 세심한 배려, 룻의 헌신, 보아스의 관대, 마을 사람들의 룻의 용인 등에 나타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헤쎄드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그의 통치를 행사해 나가시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등장 인물의 헤쎄드의 행동를 통하여 행동하신다.

①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위한 남편이 주는 평안에 대한 간구(1:8-9)와 보아스의 룻을 위한 온전한 상과 복에 대한 간구(2:12; 3;10)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호와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룻이 평안을 얻고 남편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룻의 주도적 헌신(2 장), 나오미의 위험천만한 계획(3 장), 보아스의 영리한 흥정(4 장) 등을 통해 일어난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빌었던 온전한 상은 룻의 보호를 위한 여호와의 날개(카나프)가 바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옷자락(카나프)으로 나타났을 때 주어질 수 있었다.

② 그러나 책의 처음과 끝에서 양식(1:6) 주시고 아들(4:13)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저자는 그 중간에 일어난 모든 좋은 것들도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것을 독자로 알게 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 첫째로, 저자는 책 서두의 비극의 반전이 양식을 주신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이것은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암시이다. 풍요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후의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둘째로, 저자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말하며 출산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밝히 말한다. 이야기의 궁극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에 달려 있었다. 다시 또 풍요는 여호와만이 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전의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은 이 출산을 위한 준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

③ 이렇게 룻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혀 주고 또 제한은 있지만 사람들의 헤쎄드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밝혀 준다. 여호와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행위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행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헤쎄드의 삶을 서로 서로에게 실천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행동하신다. 그러한 행위 가운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마 6:10)" 것이다.

2)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고전 13:5)" "남을 먼저 배려하고(빌 2:3)"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요일 3:16-18)"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골 3:23)"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하는 삶이 한결같은 인애의 삶이다. 이러한 인애의 삶은 보통 사람이 보통 하는 일과 의무를 넘어서 특별하게 헌신하는 것,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담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 손해가 있을지라도 질서를 어기지

않고 적법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룻기는 룻과 오르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 아무개 씨와 보아스의 대조를 통하여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좋은 남편 만나 새로운 삶을 찾아 모압으로 돌아갔다. 오르바는 합리성과 가능성과 상식에 따라 보통 사람이 하는 대로 처신하였다. 그녀의 행동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룻의 저자도 그녀의 선택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는다. 오르바에게 없는 것은 다만 헤쎄드이다. 대조적으로 룻은 기대되지 않고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녀는 모압에 돌아가 재혼하여 행복을 찾는 대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죽을 때까지(1:17) 헌신하고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였다.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젊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3:10).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를 찾아가 청혼을 하였다. 보아스는 이것을 나오미의 유익을 위하여, 시집을 온 엘리멜렉 가문을 위하여, 룻이 선호하는 것을 접어두고 오직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나이 많은 보아스를 배우자 후보로 선호한 것으로 해석하며 룻의 헤쎄드라고 평가했다.

②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보통 사람처럼 별 손해 볼 일도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되고 좋은 일 했다고 박수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였을 때 달려들려고 했다가 그것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곧바로 물러서 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고 경제적인 이익이 없을 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넘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헤쎄드가 없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해가 있을 것임을 알고서도 곤경에 빠진 친족의 과부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특별한 헌신을 하였다. 이것이 보아스의 헤쎄드이다.

3)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특별한 헌신에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 들어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곤란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면서도,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면서도, 이제까지 쌓아 온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면서도, 룻과 보아스는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하였다.

①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으로서 개 취급을 받고 추방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할 수도 있는데도 가족의 양식 문제 해결을 위해 베들레헴 밭으로 이삭 주우러 혼자 나갔다.

② 추수하는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호의 베푼 것이 사실이지만 밤에 타작 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가 청혼하는 것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분노, 당황, 어색함, 수용—을 룻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⑴고상한 인격의 보아스가 밤에 찾아온 룻을 창녀 취급하여 돌려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⑵관습의 관점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인에게, 여인이 남자에게, 젊은이가 늙은이에게, 이삭 줍는 자가 밭의 주인에게 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⑶보아스의 인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보아스가 밤에 찾아온 여인을 성적으로 즐기고 누명을 씌워 매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⑷룻이 보아스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면 둘이 지금까지 쌓아 온 명예도 잃고

새로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밤에 타작 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 갔다.

③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일에도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었다. 이 법적인 문제가 성문에서 다루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 보아스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보아스가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아스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보아스가 친족의 가문의 멸절을 막는 것에는 상당한 모험들을 감수해야 하지만 인애의 삶이 요구하는 것이기에 보아스는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였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이다.

4) 룻과 보아스가 한 가문의 보전을 위한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헌신을 하고 위험도 무릅쓰고 실행하면서 헤쎄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제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며 질서를 지킴으로써 헤쎄드를 보였다.

① 룻과 보아스는 타작 마당의 곡식더미 맨 끝,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한밤중에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3:4, 7) 자제하고 절제하며 청혼과 기업 무를 일을 논의하였다.

② 보아스가 질서를 존중하며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존재와 그의 우선권을 알게 했을 때(3:12)에도 룻은 어떤 책략도 꾸미지 않고 결혼 상대자로서 보아스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접어두고 헤쎄드가 요구하는 적법한 순서를 받아들이고 성문에서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4 장) 누가 자기의 남편이 될 것인가를 나오미와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다(3:18).

5) 비록 특별하여 드물고, 모험이 따르고, 질서의 통제를 받지만, 충실하고 자비로운 헌신, 즉 헤쎄드(한결같은 인애)의 실천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다(1:8; 3:10). 그러한 보상은 인간의 헤쎄드를 은혜롭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관대하게 베푸시는 선물이다. 헤쎄드를 실천한 자만이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있다.

① 보아스는 헤쎄드를 실천함으로써 룻과 같은 현숙한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족보에서 7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주도적인 가문을 세웠듯이 보아스는 왕조를 이루게 될 가문을 세웠다. 보아스가 받은 이와 같은 상은 한결같은 인애가 없었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아무개 씨로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간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② 룻은 나오미에게 헌신하며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되었고 여호와의 섭리적 보호를 받으며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출산하였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러한 상급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한결같은 인애 없이 그 백성 그리고 그 신에게로 돌아갔던 오르바가 결코 누릴 수 없었으며 오직 헤쎄드를 실천한 룻만이 누릴 수 있었다.

15. 역사적 내러티브로서 룻기의 해석 원리[82]

1) 구약의 내러티브는 단순히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모든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공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선 하나님에 관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2) 내러티브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고 있지 않다. 저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선별되고 강조되어 있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내러티브에 나오는 것은 저자의 생각에 독자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한다.
3) 내러티브는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에서 어떤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하는 풍유가 아니며 모든 개별 설화, 모든 진술, 모든 묘사, 모든 사건이 제각기 독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 중의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지나치게 찾아 매사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본문에 없는 것을 억지로 넣는 결과를 낳고 역사적인 서술을 풍유로 만들어 버린다. 내러티브를 이루는 부분 부분들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러티브 전체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므로 매 사건, 매 진술, 매 묘사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하지 말고 내러티브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
4) 내러티브는 직접적으로 어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 부분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교리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살인/간음하지 말라는 교훈은 출 20 과 신 5 장의 십계명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 이야기(삼하 11 장)는 간음과 살인을 하지 말라는 명백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간음과 살인이 다윗 개인의 삶과 왕으로서 그의 통치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례로 보여 준다.
5) 내러티브에 묘사된 등장 인물들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도 역시 그렇다. 내러티브의 등장 인물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내러티브에서 등장 인물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악하거나 선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성경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훈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내러티브는 독자가 등장 인물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들을 통해 어떤 도덕적인 원리를 끌어내도록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 내러티브는 요셉의 이야기(창 37, 39-50 장)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교훈을 밝히기도 하지만 대개 룻기처럼 실제로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암시적으로 교훈을 준다. 암시적인 교훈이란 하나님께서 내러티브에 숨겨 놓으신 비밀스러운 교훈이 아니라 비록 여러 말로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 진술된 내용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암시적인 교훈을 찾는다는 것은 내러티브 안에

---

[82] Cf. Gordon Fee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Grand Rapids: Zondervan, 1982), 78-93. Grant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9), 153-173.

뚜렷하게 교훈으로 담겨 있는 것을 분별하여 내라는 것이지 내러티브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다.

7) 요셉 내러티브와는 달리 룻기는 대부분의 내러티브처럼 암시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 룻기는 ⑴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⑵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특히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⑶룻기는 개개인의 신앙적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저자가 사건을 선별하여 해석하는 이야기에 사용한 단어와 구문에 유의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의미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①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내레이터는 룻기에 나오는 23 번의 하나님 언급 중 이야기의 초두(1:6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와 결미(4:13 "여호와께서 그녀로 잉태케 하시므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에서만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중간에 일어난 일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언급을 통한 수미쌍관법(theological inclusio)을 보인다

② 룻기는 암시적으로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의 표준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 룻의 회심을 볼 수 있고 "만일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법대로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③ 그 때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보아스가 모세의 율법을 그 정신까지 잘 지켰던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룻 2:3-13; 3:10-12; 4:9-10 등은 보아스가 여호와께 충실하며 그 권위아래 있음을 잘 보여 주며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줍도록 남기라는 율법(레 19:9-10)—룻 2:22 에 의하면 이삭을 남겨 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대조됨—을 지키고, 기업 무를 자에 관한 법률(레 25:23-24)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룻의 이야기가 다윗 왕(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 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준다.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기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호와께 신실하고 헌신한 룻이나 보아스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다윗의 조상,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⑤ 배교와 부도덕이 만연한 불신실하던 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고 베들레헴은 예외적으로 그 경건함이 뛰어난 성읍이었음을 보여 준다. 룻 2:22 에 이삭을 남겨 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베들레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이 일관되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룻과 오르바를 제외하고 모두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큰 환난을 당하거나(1:8-9, 13, 20-21), 기쁜 일이 있거나(1:6; 2:19-20) 나오미는 여호와의 뜻을 찾으며 순종한다. 보아스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해야 할 말(2:11-12; 3:10; 13)과 행동을 보인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말(2:4), 결혼하는 부부와 자손에 대하여 복을 비는 말(4:11-12), 성읍의 여인들의 아기 탄생 축하의 말(4:14) 등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을 엿볼 수 있다.

16. 룻기의 정경적 맥락[83]

1) 룻기는 창세기를 반영하거나 생각나게 한다.

① 룻 1:1 과 창 12:10; 26:1 (그 땅에 흉년이 있음)

② 룻 2:11 과 창 2:24; 12:1(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떠남)

③ 룻 2:20 과 창 24:27(여호와의 섭리 찬양)

④ 룻 3:1-9 과 창 19:30-38(밤에 있었던 일: 보아스와 룻, 롯과 두 딸)

⑤ 룻 1:20-21 과 창 17:1; 28:3; 35:11; 43:14; 48:3; 49:25 (엘 샤다이, 출산을 비롯한 우주 통치)

⑥ 룻 1:6; 4:13 과 창 3:16, 19(여호와께서 양식[레헴]과 출산[헤라욘 < 하라]을 주심)

⑦ 룻 4:18a 와 창 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2 + 민 3:1(이것이 누구의 계보[엘레 톨(레)도트]이다.)

⑧ 룻 4:18-22 과 창 5:1-32; 11:10-26(7 대: 보아스, 에녹, 벨렉; 10 대: 다윗, 노아, 아브람)

⑨ 룻기와 창세기에 언급된 인명과 지명: 라헬과 레아와 이스라엘(룻 4:11; 창 29:31-30:24; 35:16-20),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룻 4:12, 18; 창 38 장), 헤스론(룻 4:18; 창 46:12) 에브랏/에브라다, 베들레헴(룻 1:2; 4:11; 창 35:16, 19; 48:7; cf. 미 5:2)

2) 룻기는 레위기(17-26 장)와 신명기의 율법과 그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이삭 줍기(룻 2:1-7, 15-16; 레 19:9-10; 신 24:9)

② 수혼 혹은 수혼적 결혼(룻 1:15; 4:7-10; 신 25:5-10; cf. 창 38:8)

③ 토지와 과부에 대한 기업무름(룻 3:9, 12-13; 4:3-6, 9-10; 레 25:25-28, 47-50; cf. 사 54:5, 8)

④ 모압인(1:4, 22; 2:2, 6, 21; 4:5, 10; 신 23:3-5; cf. 신 7:3-4[가나안인])

⑤ 보아스의 의로운 삶(신 16:20 모든 이스라엘인의 모토 = 공의 추구; 신 17:18-20 왕의 공의 추구; 신 17:18-20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닮기)

3)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와 미가서에서의 왕직과 유다 베들레헴

① 왕: 사사기—왕이 없음; 룻기—오고 있는 왕; 사무엘서—다윗 왕 등극; 미가—다윗의 자손 메시아

② 유다 베들레헴(룻 1:1-2; 삿 17:7-8; 19:1, 18; 삼상 17:12; 미 5:1-4)

4) 룻기와 지혜서(욥기와 잠언)

① 현숙한 여인(룻 3:9; 잠 31:10-31)

② 나오미(남편과 두 아들 잃었다가 일곱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얻음) = 여성 욥(가출한 아내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잃었다가 다시 얻음)

---

[83] Block, *Ruth* ZECOT, 43-46.

II. 룻기 주석

1 서막 (1:1-5)

서막(1:1-5)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에 우거하러 갔다가 겪은 비극을 보여주며 거기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된 것을 묘사한다.

본문

[WLC: 1 רות]

1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וַיְהִי רָעָב בָּאָרֶץ וַיֵּלֶךְ אִישׁ מִבֵּית לֶחֶם יְהוּדָה לָגוּר בִּשְׂדֵי מוֹאָב הוּא וְאִשְׁתּוֹ
וּשְׁנֵי בָנָיו׃ 2 וְשֵׁם הָאִישׁ אֱלִימֶלֶךְ וְשֵׁם אִשְׁתּוֹ נָעֳמִי וְשֵׁם שְׁנֵי־בָנָיו מַחְלוֹן וְכִלְיוֹן אֶפְרָתִים מִבֵּית לֶחֶם
יְהוּדָה וַיָּבֹאוּ שְׂדֵי־מוֹאָב וַיִּהְיוּ־שָׁם׃ 3 וַיָּמָת אֱלִימֶלֶךְ אִישׁ נָעֳמִי וַתִּשָּׁאֵר הִיא וּשְׁנֵי בָנֶיהָ׃ 4 וַיִּשְׂאוּ לָהֶם
נָשִׁים מֹאֲבִיּוֹת שֵׁם הָאַחַת עָרְפָּה וְשֵׁם הַשֵּׁנִית רוּת וַיֵּשְׁבוּ שָׁם כְּעֶשֶׂר שָׁנִים׃ 5 וַיָּמוּתוּ גַם־שְׁנֵיהֶם מַחְלוֹן
וְכִלְיוֹן וַתִּשָּׁאֵר הָאִשָּׁה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

[ESV: Ruth 1:1-5] **Naomi Widowed**

1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 man of Bethlehem in Judah went to sojourn in the country of Moab, he and his wife and his two sons. 2 The name of the man was Elimelech and the name of his wife Naomi, and the names of his two sons were Mahlon and Chilion. They were Ephrathites from Bethlehem in Judah. They went into the country of Moab and remained there. 3 But Elimelech, the husband of Naomi, died, and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 4 These took Moabite wives; the name of the one was Orpah and the name of the other Ruth. They lived there about ten years, 5 and both Mahlon and Chilion died, so that the woman was lef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개역개정: 룻 1:1-5]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5 말론과 기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번역 (룻 1:1-5)

룻 1:1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1]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2] 두[3] 아들과 함께[4]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갔다.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5]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노오미]이고,[6]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마흘론]과 기룐[킬욘]이며,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 3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고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되었다. 4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십 년쯤 살았다. 5 그러다가 말론과 기룐 그 둘마저 죽으니 그 여인은[7] 그녀의 두 자식과[8] (그녀의) 남편을[9] [다]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본문 비평

[1] BHS 룻 1:1 본문에 반복된 위첨자 a-a 에 의해 표시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두 단어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주며 하단 비평자료는 한 변형(이문)과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MT(맛소라 본문)	[a]בִּימֵי שְׁפֹט[a]	in the days of judging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LXX(칠십인역)	ἐν τῷ κρίνειν = בִּשְׁפֹּט	in judging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Syriac(페시타역)	שְׁפֹט 생략	in the days	(사사들의) 시대에

여기 맛소라 본문의 구문은 번역본들보다 더 복잡하다.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이 각각 맛소라 본문과 다른 히브리어 대본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다 더 정상적인 히브리어 구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맛소라 본문이 "더 어려운" 독법이고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이 맛소라 본문의 구문을 쉽게 고친 것으로 보인다. 필사자의 실수로 맛소라 본문에 단어가 삽입된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맛소라 본문이 최선의 독법을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의 대본이 되었던 히브리어 본문들이 맛소라 본문과 다르다면 필사자들이 맛소라 본문을 매끄럽게 한 결과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번역자가 직접 매끄럽게 했거나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의 후기 개역본들이 매끄럽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맛소라 본문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지만 어느 이문을 선택하여도 본질적인 의미 변화는 없다. 본문의 변형들이 본문 전승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것이지만 다만 구문적 관습과 관계가 있을 뿐이고 석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 )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원문에 있으나 우리말 번역에서 생략해도 무방한 것을 표시한다.

[3] BHS 룻 1:1 의 문자 b 에 의해 표시된 두 번째 각주는 다음과 같은 변형과 번역을 제시한다.

MT	וּשְׁנֵי[b] בָנָיו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

LXX (Syriac) καὶ οἱ υἱοὶ αὐτοῦ = וּבָנָיו 그리고 그의 아들들

페시타역은 칠십인역과 일치하므로 비평 자료에 별도의 번역을 실어 놓지 않고 있다. 맛소라 본문과 번역본들의 차이는 히브리어 본문 전승의 어느 시점에서 필사자가 다음 절의 영향을 받아 단어 שְׁנֵי [시네]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조화를 위한 첨가일 것이다. 한편 칠십인역이나 페시타역의 번역 혹은 개역의 어느 시점에서 שְׁנֵי[시네]가 무심코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룻 1:1 안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שְׁנֵי[시네]의 유무가 룻 1:1-5 이란 한 단락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4] וַיֵּלֶךְ **אִישׁ** מִבֵּית לֶחֶם יְהוּדָה לָגוּר בִּשְׂדֵי מוֹאָב **הוּא** וְאִשְׁתּוֹ וּשְׁנֵי בָנָיו에서 명사 주어(אִישׁ[이시] 두 번째 단어)와 이를 받는 대명사 주어(**הוּא**[후] 끝에서 다섯 번째 단어)및 뒤따르는 다른 주어들(וְאִשְׁתּוֹ וּשְׁנֵי בָנָיו [브이시토 우시네 바나브])은 중간에 오는 여러 단어에 의해 서로 떨어져 있다. 이 대명사 주어는 강조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번 소개된 명사 주어가 다른 단어에 의해 끊기고 또 다른 주어들과 함께 써야하는 경우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하는 재개 대명사(resumptive pronoun: Joüon-Muraoka, *GBH* 146.c.2; Waltke & O'Connor, *IBHS* 16.3.2.c.) 주어이다. 이러한 문 구조는 "어떤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갔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과 함께** 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5] MT 는 엘리멜렉("my God is king; God of the king")이지만 LXX(룻 1:2, 3; 2:1; 4:3, 9)에는 아비멜렉("my father is king; father of the king")으로 나온다.

[6] [ ]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문맥상 첨가하거나 대명사의 선행 명사를 밝히거나 원문의 단어에 대한 올바른 발음을 제시한 것이다.

[7] 번역에서 "그녀"는 인칭 대명사(הִיא[히])를 나타내고 "그녀의"는 접미대명사(ָהּ [아흐] / ֶיהָ [예하])를 나타내며, "여인, 아내"는 אִשָּׁה[이샤]를 나타낸다. 우리말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그이'를 쓰는데 개역개정은 이를 따랐다. 개역개정 1:3 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에서 "**그**"는 나오미를 받는 것이지 엘리멜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는 '그미'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본 주석에서는 3 인칭 여성 자립/접미대명사를 번역할 경우 남성을 받는 '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녀'로 번역할 것이다.

[8] 개역개정처럼 "아들"로 번역하지 않고 "자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1:5 의 이 단어(יֶלֶד [옐레드])가 개역개정 4:16 에서 "아기"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서두와 말미에서 후사 여부의 문제와 해결을 보이는 주제적 수미쌍관법(thematic inclusio)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9] 맛소라 본문은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의 순서이지만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은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두 자식"의 순서이다. 역본들은 일어난 사건의 순서를 따라 남편을 여의고 두 자식을 잃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룻기에서 교차대구법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남편의 죽음(A)—두 아들의 죽음(B)—두 아들[을 잃음](B')—남편[을 여읨](A')이란 배열을 통하여 문예적 효과를 주는 맛소라 본문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Campbell, 56-57). 한글 성경(개역/개역개정/새번역/우리말성경)은 자식과 남편에 붙어 있는 원문의 속격("그녀의")을 밝히지 않고 "두 아들과 남편"으로 번역하고 있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1-5)

1. 룻기 1 장은 배경과 문제를 제시하는 서막(1:1-5)과 제 1 막(1:6-22)으로 이루어져 있다. 룻기 1 장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이다. 룻기 2 장, 3 장, 4 장은 룻, 나오미, 보아스가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서막(1:1-5)은 모압에 우거하러 갔던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 가족의 남자들이 모압에서 다 죽어 나오미는 자신을 돌보아줄 남자 없이 홀로 남게 된 것을 묘사한다. 제 1 막(1:6-22)은 나오미의 텅빈 삶이란 주제를 전개하며 그녀의 베들레헴 귀향을 이야기한다. 1 막은 두 개의 장면을 갖는데 제 1 장면(1:6-18)은 베들레헴 귀향 노상에서 나오미와 며느리의 대화를 보여주고 제 2 장면(1:19-22)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을 보여준다.
2. 서막(1:1-5)은 시대적 상황, 등장 인물의 이름과 종족,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이주 등을 설명하는 배경(1:1-2)과 두 번의 사별—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로 인해 모압 땅에 홀로 남게 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설명하는 위기(1:3-5)로 이루어져 있다.
   1) 서막의 배경 진술(1:1-2)은 1 절의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갔다."와 2 절 마지막의 요약적 진술인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대조에 의해 틀이 형성되어 있다.
   2) 1:2 에는 세 번 반복적으로 사용된 שֵׁם([셈] "이름")과 끝 단어 שָׁם([샴] "거기서") 사이에 유운(類韻 assonance)이 있다.
   3) מַחְלוֹן וְכִלְיוֹן([마흘론 브힐욘] 말론과 기룐)은 내러티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름들의 각운(脚韻 rhyme)을 보인다.[1]
   4) 서막의 위기진술(1:3-5)은 교차대구법(chiasm)과 병행적 수미쌍관법(identically parallel inclusio)을 통하여 틀을 형성하고 있다(Bush, 60).

      A 3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וַיָּמָת [바야모트])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되었다(וַתִּשָּׁאֵר [바티샤에르]).
      B 4 상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וַיִּשְׂאוּ [바이스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

[1] Cf. 창 4:20-22 (라멕+야다) 야발, 유발; (라멕+씰라) 두발(가인); 창 22:21 (나홀+밀가) 우스와 부스; 창 36:26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 중 하나인 디손의 자녀) 헴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 창 46:21 (베냐민의 아들) 뭅빔과 훕빔; 민 11:26-27 엘닷과 메닷; 민 36:11 (슬로브핫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B' 4 하 그들은 거기서 십 년쯤 살았다(וַיֵּשְׁבוּ [바예시부]).

A' 5 그러다가 말론과 기룐 그 둘마저 **죽으니**(וַיָּמוּתוּ [바야모투])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잃은 채 **남게** 되었다(וַתִּשָּׁאֵר [바티샤에르]).

① 3 절의 동사 "죽다/남다(A)"와 5 절의 "죽다/남다(A')"는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② 1:3-5 의 동사에 유의하면 죽다/남다(A)—취하다(B)-거주하다(B')—죽다/남다(A')의 순서는 교차대구이다.

③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언급(3, 5 절)과 아들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는 언급(5 절)에서 남편[이 죽음](A)—두 아들[이 죽음](B)—두 아들[을 잃음](B')—남편[을 여읨](A')의 순서도 교차대구이다.

각 절 주석 (룻 1:1-5)

1. 룻 1:1

1) 원문 문제

(룻 1:1)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וַיְהִי רָעָב בָּאָרֶץ

וַיֵּלֶךְ אִישׁ מִבֵּית לֶחֶם יְהוּדָה לָגוּר בִּשְׂדֵי מוֹאָב הוּא וְאִשְׁתּוֹ וּשְׁנֵי בָנָיו׃

① 첫 단어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은 룻기의 다른 책들에의 종속을 말해 주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룻기가 독립된 책임을 말해 주는가?

② 룻 1:1 에서 주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Gesenius-Kautzsch-Cowley, GKC 111g)? (cf. 에 1:1; 수 1;1; 삿 1:1; 삼하 1:1; 느 1:1; 겔 1:1)

③ 본문 하단에 있는 비평자료에 의하면 בִּימֵי שְׁפֹט에 대한 헬라어 번역과 시리아어역은 맛소라 본문과 어떻게 다른가?

④ וַיְהִי רָעָב בָּאָרֶץ란 동일한 표현이 창 12:10 과 창 26:1 에만 나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절이 암시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⑤ 전명구(전치사+명사) מִבֵּית לֶחֶם יְהוּדָה는 명사 אִישׁ를 수식하는가(Anderson, SBH 5.5.2; 삿 17:1; Hubbard, 85; Bush, 63)? 아니면 동사 וַיֵּלֶךְ를 수식하는가(Morris, 248; Campbell, 50)?

⑥ בֵּית לֶחֶם은 "house of food/bread, granary, storehouse"를 의미하는가(Morris, 248) 아니면 "house/temple of Laḫ(a)mu"를 의미하는가(cf. Sasson, 15-16; Morris, 248, n. 1; *ANET* 489: Amarna Letter # 290 'a town of the land of Jerusalem, Bit-Lahmi by name')?

⑦ 부정사구 לָגוּר בִּשְׂדֵי מוֹאָב의 용법과 의미는(Williams-Beckman, WHS 197, 277)?

⑧ בִּשְׂדֵי 에 나오는 שְׂדֵי(룻 1:1, 2, 6a, 22; cf. שְׂדֵה 룻 1:6b; 2:6; 4:3; pl שָׂדוֹת 출 8:9; 삼상 22:7; 렘 6:12; cf. שָׂדַי 렘 4:17; 호 10:4)의 성수형(GNS)과 의미는(GKC 93ll, BDB 961)?

⑨ הוּא וְאִשְׁתּוֹ וּשְׁנֵי בָנָיוהוּא에서 הוּא는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인가(Joüon-Muraoka, GBH 146.c.2; Waltke & O'Connor, IBHS 16.3.2.c.)?

2) 주석

룻 1:1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갔다.

① 룻기는 전형적인 내러티브의 시작 형식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건의 시대 배경을 일러주는 부사절에 해당하는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 + 시간 표시의 부사어(**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바이히 비메 시포트 하쇼프팀]) 그리고 주절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 + 주어(**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וַיְהִי רָעָב בָּאָרֶץ [바이히 라아브 바아레츠])로 되어 있다.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하, 에스겔, 요나,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하도 룻기처럼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으로 시작된다. 레위기, 민수기, 열왕기하, 역대하의 경우 연속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에스겔과 요나와 에스더는 각각 그 자체로 독립된 책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느헤미야는 확실하지 않다. 히브리어의 경우 바브 없이 글을 시작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데이비슨(Davidson)의 제안은[2] 실제로 바브 없이 시작하는 글(예: 학개, 스가랴)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룻기가 바브 계속법으로 시작한 것은 커다란 작품속의 연속된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고 에스겔이나 요나나 에스더처럼 하나의 독립된 책이지만 구문적으로 바브 계속법이 매우 흔히 쓰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처음일지라도 본능적으로 바브 계속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Morris, 245, n. 1; Bush, 62).[3]

② 저자는 이야기의 시대 배경이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사 시대인 것을 말한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저자/독자의 시대와 이야기의 배경 시대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이야기의 시대 배경이 어두운 시대인 것을 보여준다. 삼하 7:11; 왕하 23:22; 대상 17:6, 10 그리고

---

[2] A. B. Davidson, *Hebrew Syntax* 3d ed. (Edinburgh: T. & T. Clark, 1901), 136 R1.

[3] 김희보(**요나.나훔.오바댜 주해**, 34)는 요나서를 시작하는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에 대하여 "한국역에는 빠져 있으나 히브리 원문은 본서의 첫말이 접속사 waw(또, and)로 시작된다. 서책의 첫 시작하는 말이 '또'라는 접속사로 기록된다고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호 1:1; 욜 1:1; 미 1:1 등), '또'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이다(느 1:1; 겔 1:1)."라고 설명하였다. 김희보의 지적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고 요엘에게 임했고 미가에게 임했고 요나에게 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호세아나 요엘이나 미가는 "호세아/요엘/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시작하지만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동사문으로 시작한다. 요나서가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시작하지 않고 소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바브 계속법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모아 놓은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요나서는 요나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나 룻기처럼 내러티브에서 흔히 쓰이는 바브 계속법을 책의 서두에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요나서의 서두의 바브를 "또"라는 의미로 보고 다른 선지자들에게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요나서가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으로 시작하였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 13:20 등에서[4] 사사 시대는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특정 시대로 언급된다. 여호수아의 죽음(삿 1:1)과 사울의 등극(삼상 10) 사이의 기간인 사사 시대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퇴폐한 정말 암울한 시대로 기억된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죽음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삿 2:10)"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시대였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주변 나라 신들을 섬기다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후 그들은 다시 배역하였다. 이러한 "범죄-진노-압제-부르짖음-구원-재범죄"의 과정이 연속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하강(나선적 하강)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이다.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던(삿 17:6; 18:1; 19:1; 21:25)" 시대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곧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17:6; 21:25)" 시대였다.[5] 룻기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사사 시대의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허버드(84)의 추측대로 에글론의 시대를 제외하고 에훗과 입다 사이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배하던 어느 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라는 절의 기능은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를 제공하려는 연대적 측면보다 왕이 없어서 다스리던 사사들을 언급하는 1:1 과 이상적인 왕 다윗을 언급하는 4:17b 간의 수미쌍관법을 이루게 하는 문학적 측면이 더

---

[4] [삼하 7:11]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왕하 23:22]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대상 17:6, 10]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행 13:20-21]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5]사사기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상적인 사사인 유다 지파의 옷니엘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장 문제가 많은 사사인 단 지파의 삼손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삼손은 나실인임을 망각하고 딤나의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딸을 좋아한다며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한다. 개역개정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삿 14:3)."라고 번역된 원문 הִיא יָשְׁרָה בְעֵינָי [히 야시라 브에나이]를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내 소견에 옳다/좋다."가 된다. 사사인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을진대 백성들이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אִישׁ הַיָּשָׁר בְּעֵינָיו יַעֲשֶׂה [이시 하야샤르 브에나브 야아쎄])것은 이해할 만하다. 사사 시대는 바로 그런 혼란의 시대였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없어서 공백이 생긴 리더십에 대한 저자의 주제적 답이기 때문이다.[6]

③ 이러한 비극적인 시대 배경에 덧붙여 저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한다. "**그 땅**"은 구약 다른 곳(예: 삿 18:2; 삼상 14:29)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주셨던 가나안 땅(Cisjordan, the land of Israel proper)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1:6 에 비추어 "**흉년, 기근**"은 가뭄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다. 부시(62)는 암 4:7-8 의 언급, 현대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지역에 따라 다른 사실(Baly, *Geography*, 69-76), 그리고 1931-32 년에 베들레헴보다 모압 남부 지방에 더 많은 비가 온 일(Scott, *IDB* 3:622) 등을 지적하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내렸던 비의 양과 모압에 내렸던 비의 양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7] 성경은 흉년이 여러 가지 원인—가뭄(창 41:27; 왕상 18:2; 왕하 8:1; 행 11:28); 질병, 메뚜기 재앙(암 4:9-10); 가축의 손실(왕상 18:5); 전쟁(왕하 7:24-25; 사 1:7)—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다.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주 간주되었지만(왕하 8:1; 사 3:1; 렘 14;13-18; 암 4:6; 막 13:8; cf. 학 1:10-11) 룻기 저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허버드(85)는 저자가 흉년/기근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주제적 목적 때문이라고 하였다. 첫째, 흉년의 언급은 비극적인 외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이 실행되도록 진전시켰던 성경적 패턴을 회상하도록 해 준다. 둘째, "그 땅에 흉년/기근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오직 창 12:10 과 26:1 에만 동일하게 사용된 것은[8] 룻기의 이야기와 족장들 사이에 어떤 주제적 연결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④ 저자는 흉년으로 인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갔다**."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1:3, 5 에 언급될 사건을 예기하면서 그 가족이 가장과 그의 부인과 그의 두 아들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구문론적으로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 명사 "**어떤 사람**"을 수식하며 그 사람이 유다베들레헴 출신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동사 "**갔다**"를 수식하며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지 확실하지 않다. 구문론적으로는 사실상 둘 다 가능하다.

---

[6] Hubbard, *Ruth*, 84.

[7] 왕하 8:1-3 은 한 여인이 기근으로 인해 (룻기의 모압으로의 이동과는 반대 방향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 년을 우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8] 개역개정에서 וַיְהִי רָעָב בָּאָרֶץ [바이히 라아브 바아레츠]를 창 12:10 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창 26:1 은 룻 1:1 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번역하였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창 41:54("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41:56("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42:5("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에 나온다. רָעָב[라아브]의 일관된 번역을 위해 해가 표시된 창 41:54 를 제외하고 창 26:1 과 룻 1:1 도 "흉년" 대신 "기근"으로 번역하거나 모든 경우를 "흉년"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앤더슨은 사람과 그의 사는 마을을 연결시켜 정체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았고[9] 허버드(83, n. 2)도 이를 따랐다. 부시(62-63, 67)도 유다 베들레헴이 "어떤 사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며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근이 한 가족을 모압으로 가게 했다고만 언급하고 모압의 어느 지역으로 간 것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둘째, 1 절에서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고 2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인 것을 밝힌 것, 즉 이처럼 두 번 반복하여 출신을 밝힌 것은 독자들이 이야기를 가장 유명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 이새의 아들 다윗(삼상 17:12)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캠벨(50)은 2 절의 초점이 장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았고 모리스(248)는 1 절이 이동을 나타내고 2 절이 출신지를 밝힌다고 하였다. 두 가지 입장이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취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주석은 전자의 입장을 취해 출신을 밝히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⑤ 사사기와 룻기가 나란히 오는 정경의 배열을 고려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란 지명이 사사기의 끝 두 이야기, 즉 삿 17:8-9(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간 레위인 이야기)와 삿 19:1-2(에브라임에서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레위인 이야기)에 나오고, 또 룻 1:1-2 에 나온다. 이 세 이야기를 병행하여 읽으면 사사기의 두 이야기와 룻기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시대상을 보여 준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

⑥ 베들레헴 뒤에 유다가 나오는 원문 즉 בֵּית לֶחֶם יְהוּדָה([베트 레헴 여후다] "**유다 베들레헴**")은 부시(63)의 해석대로 두 이름이 나란히 놓여 합성된 이름(Bethlehem-Judah)으로 보거나 의존형과 자립형으로 구성된 명명구(Bethlehem of Judah)로 볼 수 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한 것은 [유다 지파의] 잘 알려진 베들레헴(삿 17:7-9; 19:1, 2, 18; 삼상 17:12)과 [스불론 지파의] 잘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수 19:15)을 구별하기 위함인 것 같다.[10]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며 해발 2,350m 이다. 베들레헴(בֵּית לֶחֶם[베트

---

[9] F. I. Andersen, *The Sentence in Biblical Hebrew*, Janua Linguarum series Practica 231 (The Hague: Mouton, 1974), 90.

[10] Younger(*Judges, Ruth*, 276)에 의하면 삿 12:8-10 에 나오는 사사 입산과 관련하여 언급된 베들레헴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개 수 19:15 의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으로 간주된다. Cf. Block 은 그의 책(*Judges, Ruth*) 388-389 쪽에서 삿 12:8-10 에 사사 입산과 관련지어 나오는 베들레헴이 Boling, Soggin 등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스불론의 베들레헴으로 간주되지만 "유다"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더 잘 알려진 유다 베들레헴으로 보는 것이 좋다("Although most scholars favors the former identification[= one in Zebulun], the omission of a tribal reference favors the better known Judean city.")고 설명하였지만, 같은 책 624 쪽에서는 룻 1:1-2 에서 베들레헴에 붙은 "유다"라는 수식어가 "삿 12:8-10 에 입산이 살다가 장사된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구별되게 한다("The qualifier 'of Juda' distinguishes this Bethlehem from the Zebulunite town where Ibzan lived and was buried according to Judg 12:8-10.")고 설명한다.

레헴])이란 문자적으로 "house of food/bread, granary, storehouse, 떡집, 곡창"을 의미한다. 이것은 밀, 보리, 올리브, 아몬드, 포도 등이 풍부하게 생산되었기 때문에 얻은 통속적인 어원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인다.[11] "떡집, 곡창"인 베들레헴이 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⑦ 일가족 네 명은 소낙비를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갔다**." שְׂדֵי מוֹאָב([스데 모아브] 모압 땅)이란[12] 명명구에 나오는 남성 명사 שָׂדֶה[싸데]는 מוֹשָׁב([모샤브] "주거지")에 대비되는 "비주거지" 혹은 벽으로 둘러 싸여 있는 עִיר([이르] "도시")에 대비되는 "그 도시 주변 지역" 혹은 בַּיִת([바이트] "집")에 대비되는 "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שָׂדֶה[싸데]가 단독으로 영토를 의미하는데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창 36:35=대상 1:46; 민 21:20; 신 34:6; 대상 8:8 등에 나오는 명명구 שְׂדֵה מוֹאָב [스데 모아브]는 신 1:5; 28:69; 삿 11:15, 18a, 18b; 렘 48:24, 33 등에 나오는 אֶרֶץ מוֹאָב [에레츠 모아브]("모압 땅/영토")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Block, 626). 룻기에서 모압을 말할 때 אֶרֶץ[에레츠] 대신 שָׂדֶה[싸데]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양식 주신 것을 보이는 추수할 밭과 보아스가 무르려고 애쓰는 나오미 소유의 밭에 대한 저자의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⑧ "**우거하다**"는 동사는 모압 땅에서 기근을 피하며 지내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말이다. 모압인들은 태생에 있어서 롯과 그의 큰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후예들이다(창 19:30-38). 모압인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했었다(민 22-24 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준 꾀로 인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고 바알 브올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어 벌을 받았다(민

---

[11] Jack M. Sasson(*Ruth*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14-15)은 베들레헴이 "house/temple of (the god) Laḫ(a)mu"라는 H. G. Tomkins 의 제안과 앗수르의 신 Assur 와 Laḫ(a)mu 가 원래 서부 셈족의 신들이라고 하는 Lewy 의 주장, 그리고 Bethlehem, Lakhmu, 골리앗의 형제 Laḥmî(대상 20:5)를 관련시켜 해석하는 (메소포타미아 문헌의 빛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범 바벨론주의(pan-Babylonian) 시대의 논의 등을 소개하면서 라흐무 신에 대한 문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Morris, 248, n. 1 도 *ANET* 489: Amarna Letter # 290 'a town of the land of Jerusalem, Bit-Lahmi by name'를 지적하면서 아마르나 서신의 Jerusalem, Bit-Lahmi 가 성경의 예루살렘과 같은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라흐무의 신전으로 베들레헴을 보도록 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12] שָׂדֶה[싸데]의 복수형으로 שָׂדוֹת([싸도트] 출 8:9; 삼상 22:7; 렘 6:12) 혹은 שְׂדוֹת([스도트] 느 12:29)가 쓰인다. 그리고 시에서 남성 단수 자립형으로 שָׂדַי([싸다이] 렘 4:17; 호 10:4)가 주로 쓰인다. 이러한 용례에 유념하면 1:1, 2, 6a, 22 에 쓰인 שְׂדֵי[스데]는 남성 복수 의존형이 아니라 1:6b; 2:6; 4:3 에 쓰인 정상적인 남성 단수 의존형 שְׂדֵה[스데]의 보다 더 오래된 철자법을 반영하거나 방언을 반영하는 변형(archaic variant spelling/older orthographic variant or dialectical variation)으로 볼 수 있다(Bush, 63; Campbell, 50; cf. GKC 93ll; BDB 961).

25:1-9; 민 31:16). 모세는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였다(신 23:3-6). 사사 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18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삿 3:15-20).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하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엘리멜렉 가족은 기근 때문에 모압에 잠시 머무려고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우거하다"라는 동사는 내국인 신분과 외국인 신분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타국에 머무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 동사 자체로는 잠시 머물려는 것인지 영구히 머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간 것이라고 본다면 영구적인 이주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⑨ 독자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창 12:10), 그랄로 갔던 이삭(창 26:3),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야곱(창 47:4)에 대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사사 시대에 역시 땅에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 절에서 먼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출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2. 룻 1:2

1) 원문 문제

(룻 1:2) וְשֵׁם הָאִישׁ אֱלִימֶלֶךְ וְשֵׁם אִשְׁתּוֹ נָעֳמִי וְשֵׁם שְׁנֵי־בָנָיו מַחְלוֹן וְכִלְיוֹן
אֶפְרָתִים מִבֵּית לֶחֶם יְהוּדָה וַיָּבֹאוּ שְׂדֵי־מוֹאָב וַיִּהְיוּ־שָׁם׃

① 명사문의 시작과 끝은?

② 이 명사문은 주절로서 중문(compound sentence)을 이루는 대등절(co-ordinate clause)인가 아니면 부사절로서 상황절(circumstantial clause)인가(WHS 494, 582; GKC 156 a, b)?

③ אֱלִימֶלֶךְ은 칠십인역에서 αβιμελεχ(= אֲבִימֶלֶךְ)으로 나온다. 두 이름의 뜻은?

④ נָעֳמִי의 발음과 뜻은?

⑤ אֶפְרָתִים은 에브라임과 관련이 있는가(삿 12:5; 삼상 1:1; 왕상 11:26) 아니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와 관련이 있는가(삼상 17:12; 룻 4:11)? 베들레헴과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와의 관계는(룻 4:11; 창 35:16-19; 48:7; 시 132:6; 미 5:2)? 여기 에브랏 사람은 족속에서 유래한 것인가(삼상 17:12; 대상 2:19, 50-51; 4:4) 아니면 지명에서 유래한 것인가(룻 4:11; 미 5:2)?

⑥ 두 이름 מַחְלוֹן וְכִלְיוֹן에 나오는 어미 ־וֹן의 기능은(GKC 86g)? 이 두 이름처럼 각운(脚韻)이 같은 이름들이 열거된 것을 들면(창 4:20-22; 22:21; 36:28; 46:21; 민 11:26-27)?

⑦ וַיִּהְיוּ־שָׁם에서 היה의 의미는(BDB, 226 III. 2; 출 24:18; 34:28; 삿 17:4, 12)?

2) 주석

룻 1: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노오미]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마흘론]과 기룐[킬욘]이며,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

① 저자는 2 절에서 וְשֵׁם . . . יְהוּדָה [브셈 ... 여후다]라는 긴 명사문으로 된 상황절을 통하여 이름과 출신을 설명하고 두 동사 וַיָּבֹאוּ . . . וַיִּהְיוּ [바야보후 ... 바이흐유]를 통하여 1 절의 동사의 동작에 이어지는 동작을 언급한다. 이러한 명사문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의 용법을 Williams(WHS 436)는 "accompaniment 수반, 동반" 용법이라고 하였다.

② 저자는 모압으로 우거하러 간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이고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룐**이라고 소개한다. 저자는 나중에(1:20) 네 명의 이름 가운데 오직 나오미에 대하여만 어원적인 설명을 한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나오미를 제외한 나머지 이름들에 대해서도 (어원적 설명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어원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13] 이 이름들이 풍요 의식과 관련된 상징적인 이름으로 보는 학자(Staples, *AJSL* 53 [1936-37]: 145-57)도 있고, 말론과 기룐이 이야기 가운데서 그들이 맡은 역할에 맡도록 고안된 허구적인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Pfeiffer, *IOT*, 718)도 있으며, 전조적인 이름(nomen omen, ominous name)으로 나오미에게 임할 위기를 강화해 주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Block, 625)도 있다. 이 이름들이 허구적인 이름이라는 주장은 고대 근동 문헌에 고증되는 이름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반박된다. 부시(64)가 지적한 대로 자세한 어원적 설명을 하거나 어원 설명을 통하여 상징적 혹은 허구적 혹은 전조적 이름으로 보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는 관계없다. 따라서 이 이름들에 대하여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이 이름들에 대한 어원과 문헌 고증에 대하여 허버드, 캠벨, 새슨, 블락 등의 주석을 참고하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1 장 20 절에 나오므로 거기서 논의할 것이다. 다만 본문 비평상 칠십인역에 "**엘리멜렉**" 대신에 "아비멜렉"이라 한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아비멜렉이 성경에 흔히 쓰인 이름(창 20:2; 26:1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의 그랄 왕; 삿 8:31 기드온의 아들; 대상 18:16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 같다.

③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의 어원적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가족들의 출신 족속이다. 이 가족들은 אֶפְרָתִים מִבֵּית לֶחֶם יְהוּדָה [에프라팀 미베트 레헴 여후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에브랏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אֶפְרָתִים[에프라팀]은 종족 이름을 나타내는 어미(ִי 히릭 요드)를 지니고 있는 אֶפְרָתִי[에프라티]의 복수형이다. 삼상

[13] 문맥과 관련 없는 어원 설명의 불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생기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Walter C. Kaiser, Jr. and Moisés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54-57 을 보라.

17:12 은 다윗을 소개할 때 단수 אֶפְרָתִי[에프라티]란 형용사를 사용하여 "[브다비드 벤-이시 에프라티 하제 미베트 레헴 여후다] וְדָוִד בֶּן־אִישׁ אֶפְרָתִי הַזֶּה מִבֵּית לֶחֶם יְהוּדָה וּשְׁמוֹ יִשַׁי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1 장 2 절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란 어구는 삼상 17:12 의 다윗을 소개하는 어구를 생각나게 해 준다. 저자는 1 절에서 등장 인물이 (단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하고 2 절에서 그들이 (단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러한 반복된 세부 사항은 원 독자들의 마음에 룻기가 가장 유명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곧 이새의 아들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도록 해 준다(Bush, 67)). 다윗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 4 장 17 절 하반절의 짧은 족보에서 오벳의 손자로 언급되고 4:18-22 의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긴 족보의 열 번째 자리에 언급되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저자는 배경을 설명하는 서두의 절들과 마지막의 족보들이 잘 짜여지게 하여 이야기의 결말이 이미 예기된 것처럼 만들었다. 룻 1:2 과 삼상 17:12 에 사용된 אֶפְרָתִי([에프라티] 에브랏 사람)은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족속/종족(מִשְׁפָּחָה[미시파하] clan)을[14] 나타내는 용어로 보인다.[15] 만일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

[14] 민족(עַם[암]) > 지파(מַטֶּה[마테], שֵׁבֶט[셰베트]) > 족속/종족(מִשְׁפָּחָה[미시파하], אֶלֶף[엘레프]) > 가족(בֵּית־אָב[베트-아브], בַּיִת[바이트])의 순서로 좁아진다. 이러한 용어들이 시민적으로, 사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적 (civil designation):

수 7:14-18 유다지파(שֵׁבֶט)-세라 족속(מִשְׁפָּחָה)-삽디 가족(בַּיִת)-각 남자-아간

삼상 10:20-21 베냐민 지파(שֵׁבֶט)-마드리가족(מִשְׁפָּחָה)-기스의 아들 사울

사법적 (judicial contingents):

출 18:21; 신 1:15 천부장(שָׂרֵי אֲלָפִים)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군사적 (military contingents):

민 1:2, 4 가족과 종족(בְּנֵי־יִשְׂרָאֵל לְמִשְׁפְּחֹתָם לְבֵית אֲבֹתָם), 지파(לַמַּטֶּה)

민 26:2 조상의 집(לְבֵית אֲבֹתָם),

20 유다의 자손(בְּנֵי־יְהוּדָה) 종족(לְמִשְׁפְּחֹתָם), 셀라 가족(לְשֵׁלָה מִשְׁפַּחַת הַשֵּׁלָנִי)

족속/종족/친족(מִשְׁפָּחָ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2:1 을 참고하라.

[15] 룻 1:2 과 삼상 17:12 에서처럼 에브랏 사람을 나타내는 데 쓰였던 אֶפְרָתִי[에프라티]가 명사로서 삿 12:5 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에게 에브라임 사람임을 묻는 질문에 사용되었고, 삼상 1:1 에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숩의 현손이라고 말한 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데 사용되었고, 왕상 11:26 에서 여로보암을 "느밧의 아들 스레다 출신 에브라임 사람" וְיָרָבְעָם בֶּן־נְבָט אֶפְרָתִי מִן־הַצְּרֵדָה([브야로브암 벤-느밧 에프라티 민하츠레다])이라고 소개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 단어가 어떻게 에브랏 사람도 나타내고 에브라임 사람도 나타내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모두 에브랏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 무를 자의 역할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만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를 자로 언급되는 것(룻 4:4)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일부만이 엘리멜렉이 속한 에브랏 족속/종족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④ 등장 인물의 이름과 종족을 밝히는 명사문 다음에 1 절의 동사의 동작에 이어지는 동작을 두 동사 וַיִּהְיוּ. . . וַיָּבֹאוּ [바야보후 ... 바이흐유]를 통하여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는 배경이 계속 설명된다. 2 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 그 아내의 "이름",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세 번 반복되는 "이름"이란 단어 שֵׁם[셈]과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할 때 나오는 "거기에"라는 단어 שָׁם[샴] 사이에 유운(assonance)이 있다. 두 번째 동사 וַיִּהְיוּ[바이흐유]는 (영어의 be 동사와 같이 "-이다; -있다"의 의미를 갖는 היה[하야]에서 온 것이지만) 장소나 시간의 부사어구를 동반하는 출 24:18; 34:28; 삿 17:4, 12 에서처럼 여기에서 "머무르다, 체재하다 to stay, remain"의 의미로 쓰였다.[16]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어구에 시간을 나타내는 어구가 동반되는 것이 보통인데(출 24:18; 34:28) 여기에 시간 어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저자가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우거가 정해지지 않은 기간의 일인 것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압 거주의 정확한 기간을 모르지만 1 절은 한 가족의 모압에로의 출발을 말하고 있고 2 절은 그 가족의 모압 도착과 정착을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흉년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이방 땅에 간 엘리멜렉의 가족(아니면 그 후손)이 얼마나 빨리 이방 땅 모압에서 나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다음 절들이 답을 주고 있다.

---

(1) 인명으로서 에브랏/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아버지 훌을 낳은 갈렙의 아내에게 사용되었다(대상 4:4; cf. 2:19; 2:50-51).

(2) 미 5:2 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בֵּית־לֶחֶם אֶפְרָתָה) 너는 유다 족속 중에(בְּאַלְפֵי יְהוּדָ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에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나란히 나온다. 여기에 "족속"으로 번역된 단어는 אֶלֶף[엘레프]인데 מִשְׁפָּחָה[미시파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룻 4:11 의 "당신[=보아스]이 에브라다(אֶפְרָתָה [에프라타], 개역: 에브랏)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בֵּית לָחֶם)에서 유명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했던 장로들의 축복에 의하면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이 병행어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3) 지명으로서 에브랏/에브라다는 원래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한 마을을 지칭했던 이름으로 보이며 갈렙과의 관련(대상 2:19, 24, 50-51; 4:4)을 근거로 드고아 방향 남동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Bush, 64-65). 창 35:16-19; 48:7 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과 동일시되는데 그 가는 길에 라헬이 죽어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고, 시 132:6 의 말씀(הִנֵּה־שְׁמַעְנוּהָ בְּאֶפְרָתָה מְצָאנוּהָ בִּשְׂדֵי־יָעַר)에서 [에프라타](에브라다)는 기럇여아림(Kiriath-Jearim)이라고 간주되는 [스데-야아르](NIV: fields of Jaar; 개역: 나무 밭)와 병행어로 쓰였다.

[16] *BDB*, 226-227, III. 2.

3. 룻 1:3

1) 원문 문제

וַיָּמָת אֱלִימֶלֶךְ אִישׁ נָעֳמִי וַתִּשָּׁאֵר הִיא וּשְׁנֵי בָנֶיהָ׃ (룻 1:3)

① וַיָּמָת의 악센트(메르하) 위치에 유의하여 발음하면?

② 이 이야기의 관심이 엘리멜렉에게보다는 나오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은?

③ 절을 논리적으로 2 분하는 악센트 아트나흐가 붙어 있는 단어는?

④ 마지막 단어에 붙어 있는 악센트의 이름은?

⑤ 인칭대명사 הִיא의 용법은(GBH 146.c.3; IBHS 16.3.2.c.)? 다음 대명사들 중 어느 것과 비슷한 용법으로 쓰인 것인가?[17]

- בֹּא־אַתָּה וְכָל־בֵּיתְךָ אֶל־הַתֵּבָה(1)

  창 7:1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representing the referent of the pronoun as the chief actor among other actors]

- וַיַּעַל אַבְרָם מִמִּצְרַיִם הוּא וְאִשְׁתּוֹ(2)

  창 13:1 아브람이 그 아내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왔다[resumptive]

- כָּזֹאת וְכָזֹאת יָעַץ אֲחִיתֹפֶל אֶת־אַבְשָׁלֹם וְאֵת זִקְנֵי יִשְׂרָאֵל וְכָזֹאת וְכָזֹאת יָעַצְתִּי אָנִי(3)

  삼하 17:15 아히도벨이 .....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다[logical structure: explicit antithesis]

- כִּי־הִיא יָשְׁרָה בְעֵינָי(4)

  삿 14:3 [다른 여자가 아니라] 그녀가 내 보기에 좋습니다

  cf. 개역개정: 내가 그녀를 좋아합니다[logical structure: implicit antithesis]

- אָנֹכִי לַיהוָה אָנֹכִי אָשִׁירָה(5)

  삿 5:3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psychological focus]

2) 주석

룻 1:3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고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되었다.

---

[17] GBH 는 명사 주어 뿐 아니라 동사에 들어있는 대명사 주어 다음에 독립 인칭 대명사가 쓰인 것을 재개 대명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IBHS 는 동사 다음에 독립 인칭 대명사 주어와 다른 주어가 나란히 오는 경우 동사 주어와 일치하는 독립 대명사가 다른 행위자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요 행위자를 나타낸다고 하고 명사 주어가 다른 말에 의하여 끊긴 후 다른 주어와 함께 와야 하는 경우 재개 대명사가 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IBHS 는 룻 1:6 의 대명사를 주요 행위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는데 룻 1:3 도 동일한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GBH 는 룻 1:3, 6 의 대명사를 재개 대명사고 보았는데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①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내레이터의 진술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한 가족이 당했던 경험이 그들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사태는 그들이 기대한 대로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엘리멜렉은 다른 탈출, 즉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엘리멜렉은 라아브(רָעָב)라는 흉년(cf. 신 28:48)을 피하려다가 모트(מוֹת)라는 죽음(cf. 호 13:14)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1 절에서 흉년이 사람과 땅의 유대를 깨어버렸다면 3 절에서 죽음은 남편과 아내의 결속을 파괴해 버렸다.

② 내레이터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이렇게 감정 없이 간결하게 전한다. 암 7:17 의 표현을 빌리면 엘리멜렉은 이방 땅, 즉 "더러운 땅에서 죽었다." 내레이터는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죽음의 시기, 장소, 상황, 원인을 밝혀 말하면 마치 죽음의 충격이 줄어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여 저자는 성공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그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한다. 저자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듣고 놀란 독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도록 내버려둔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 보았을지도 모른다. "엘리멜렉은 왜 죽었는가? 그의 죽음은 그의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는가?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는 사람, 엘리멜렉이 죽다니! 멀지도 않은 이방 땅에 우거하러 간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을 살도록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면 여호와는 과연 어떤 신이시란 말인가? 여호와는 우주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③ 내레이터는 엘리멜렉이 죽은 사실을 전하고 그 죽음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언급해 간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으므로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았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아내를 과부로 만들었고 두 아들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었다. "남았다"라고 번역된 동사(שׁאר[샤아르]의 니프알/기본재귀)가 다른 곳에서 사별하고 남는 것(창 7:23; 14:10; 42:38; 출 14:28)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뒤에 남는 것(레 26:36, 39; 신 4:27; 28:62; 대하 34:21; 겔 6:12; 9:8; 슥 11:9)을 묘사하는 데 쓰인 것을 고려하면 이 동사는 엘리멜렉의 죽음의 진술에 찌르는 아픔을 더해 주고 있다.

④ 엘리멜렉이 살아 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로 묘사되었지만(1-2 절),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둘의 관계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으로 묘사된다(3 절). 여자가 흔히 남자와 관련하여 "누구의 아내"라고 언급되는 성경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엘리멜렉이 여자와 관련하여 "나오미의 남편"으로 언급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삿 20: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 마 1:16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의 인식의 초점이 나오미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18] 다시 말하면 이것은

[18] 보다 자세한 것은 Adele Berlin, *Poetics*, 83-87 에 논의된 인식의 관점과 흥미의 관점을 참고하라.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나오미인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남편이 죽었지만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나오미에게 남편의 아들들(1-2 절), 아니 이제는 **"그녀의" 아들들**로 칭호가 바뀐 두 아들들이 함께 남아 있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남은 두 아들들로 인하여 어떤 탈출구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

4. 룻 1:4

1) 원문 문제

(룻 1:4) וַיִּשְׂאוּ לָהֶם נָשִׁים מֹאֲבִיּוֹת שֵׁם הָאַחַת עָרְפָּה וְשֵׁם הַשֵּׁנִית רוּת
וַיֵּשְׁבוּ שָׁם כְּעֶשֶׂר שָׁנִים׃

① וַיִּשְׂאוּ의 동사 어근은?

② "아내를 취하다, 결혼하다(to take a wife)"는 의미로 נָשָׂא אִשָּׁה(룻 1:4)와 לָקַח אִשָּׁה(룻 4:13)가 쓰인다. (SBH: לקח 대부분[예, 창세기에만 34x] vs. נשׂא 1x[삿 21:23]; LBH: 비슷한 횟수 לקח 스-느 3x[스 2:61=느 7:63; 느 6:18; 10:31]; 역대기 6x[대상 2:19, 21; 4:18; 7:15; 대하 11:18, 20] vs. נשׂא 스-느 4x[스 9:2, 12; 10:44; 느 13:25]; 역대기 4x[대상 23:22; 대하 11:21; 13:21; 24:3]). לקח에서 נשׂא 로 바뀌게 된 이유는(Kutscher,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123, 82-83; Bush, 26)?

③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신 7:3; 23:3)?

④ 명사문의 시작과 끝은? 이 명사문의 역할은(WHS 494, 582; GKC 156 a, b)?

⑤ הָאַחַת. . .הַשֵּׁנִית 는 one . . . the other 인가 아니면 the first . . . the second 인가?

⑥ ... וַיִּשְׂאוּ ... וַיֵּשְׁבוּ에서 두 동사는 동시적인가(comtemporaneous: 모압의 전체 거주 기간이 10 년인가? Joüon, 34 [E 33]; Bush, 65; Morris, 251) 아니면 전후 연속인가(sequential: 결혼 후 10 년이 지난 것인가? Hubbard, 91, n. 2; Campbell, 58; cf. 창 16:3 의 사건)?

⑦ כְּעֶשֶׂר שָׁנִים에서 כְּ의 용법은(WHS 257)?

⑧ 나오미가 플롯의 중심 인물이기에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에 더 관심이 있다. 룻 4:10 에 의해 밝혀진 대로 부부사이를 연결하면 (1:2)말론(A)-기룐(B) 대 (1:4)오르바(B')-룻(A')의 배열이 되는데 이 문예적 기교의 이름은?

2) 주석

룻 1:4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십 년쯤 살았다.

① 희미하게 펄럭이던 소망의 불빛이 아들들의 결혼이란 즐거운 사건으로 인해 더 반짝이게 되었다.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19]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창 2:24) 주님의 소명을 실천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말 3:15) 가족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결혼은 그 때나 지금이나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일이다.

② 내레이터는 이 결혼에 대하여도 어떻게 만나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혼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인의 모압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승인하는 것인지, 승인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결혼한 모압 여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라고 말한 뿐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밝히지도 않는다. 이것은 나오미의 인식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

[19] 룻기에서 "아내를 취하다, 결혼하다(to take a wife)"라는 의미로 נָשָׂא אִשָּׁה([나싸 이샤] 1:4)와 לָקַח אִשָּׁה([라카흐 이샤] 4:13)가 쓰인다. Bush(26)는 표준 히브리어(SBH)에서 לָקַח[라카흐]가 주로 쓰이고(창세기에서만도 34 번이나 쓰임) נָשָׂא[나싸]는 삿 21:23 에서 한번 쓰였고 후기 히브리어(LBH)에서 두 동사가 비슷한 횟수로 쓰였다고 하였다(참고: לָקַח[라카흐] 스-느 3x: 스 2:61=느 7:63; 느 6:18; 10:31; 역대기 6x: 대상 2:19, 21; 4:18; 7:15; 대하 11:18, 20 vs. נָשָׂא[나싸] 스-느 4x: 스 9:2, 12; 10:44; 느 13:25; 역대기 4x: 대상 23:22; 대하 11:21; 13:21; 24:3).

(1) Kutscher,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123, 82-83 은 לָקַח[라카흐]가 성경 히브리어에서 주로 "to take 취하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미시나 히브리어(MH)에서 주로 "to buy 사다"의 의미로 쓰였다고 지적하면서 후기 히브리어에서 "취하다"라는 의미로 לָקַח[라카흐]대신 נָשָׂא[나싸]를 점점 쓰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2) Bush 는 נָשָׂא אִשָּׁה [나싸 이샤]가 룻기에 쓰인 것을 후기 히브리어에 속하는 증거 중의 하나로 삼고 저작시기를 포로전 왕정 말기나 포로기 초기로 보았다. 그러나 Hubbard(93, n. 9)는 נָשָׂא[나싸]라는 동사가 셈족어에서 흔하게 쓰이는 동사이고 לָקַח[라카흐]대신 נָשָׂא[나싸]가 쓰인 것은 단지 문체적 변화를 위한 것이고 1:10, 14 에 두 번 더 쓰인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며 Sasson(20)의 지적대로 주전 1800-1775 경의 마리 문서에 나오는 아카드어 단어들과 표현이 12 세기가 지난 후바벨론어(Late Babylonian)에만 다시 나오는 사실에 비추어 어휘를 저작 연대의 길잡이로 삼는 것을 의문시하였다. Block(629, n. 32)도 Bush 의 해석을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M. D. Gow, *The Book of Ruth: Its Structure, Theme, and Purpose* (Leister: Apollos, 1992), 186-93 을 보라.

(3) Block(628-9)은 נָשָׂא אִשָּׁה[나싸 이샤]가 구약에서 9 번(삿 21:23; 룻 1:4; 스 10:44; 대하 11:21; 13:21; 24:3; (אִשָּׁה[이샤]가 없지만 같은 의미로) 스 9:2, 12; 느 13:25; [대상 23:22 누락: 10 번!)]) 사용되었으며 삿 21:23 에서 납치에 의한 결혼, 대하 11:21(르호보암)과 대하 13:21(아비야)에서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 대하 24:3 에서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한 것, 스 9:2, 12; 10:44; 느 13:25 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를 아내와 며느리 삼은 것에 대하여 쓰인 것을 열거하며 룻 1:4 의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의 즉각적인 상선벌악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 처첩을 많이 두어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저주보다는 복으로 여긴 것을 알 수 있고(R. Dillard, *II Chronicles*, WBC, 78), 다른 곳에서 부정적으로 쓰였다고 하여 룻기의 경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말하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사실만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룻이 말론의 아내라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4:10) 밝혀진다. 룻이 말론의 아내인 것에 비추어 2 절과 4 절에 언급된 이름들의 순서를 고려하면 말론(A)—기룐(B)—오르바(B')—룻(A')의 순서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20]

---

[20] 오르바와 룻 중 누가 손윗동서인가? 다시 말하면 말론과 기룐 중 누가 형인가? 이 문제는 저자의 관심사 밖의 문제이다. 그러나 오르바가 며느리 중에서 먼저 언급된 것에 비추어 손윗동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1) 형제나 동서나 자매인 두 사람을 언급하는 룻기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①내레이터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었다(1:2) . . . **말론과 기룐**, 그 둘마저 죽었다(1:5)"라고 하면서 말론을 먼저 언급한다. ②내레이터는 결혼한 모압 여자를 밝히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1:4)"라고 하면서 오르바를 먼저 언급한다. ③내레이터는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권면을 듣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1:14)"고 말하며 오르바를 먼저 언급한다. ④보아스는 법적 문제를 다루면서 "엘리멜렉과 **기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고(4:9)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한(4:10)" 것을 말할 때 기룐을 먼저 언급한다. ⑤백성과 장로들은 하나님께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4:11)" 해 주시기를 기원할 때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언급한다.

(2) 사람이 언급된 순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Rudolph(60)는 4:9 의 기룐과 말론의 순서는 법적 문서에 알파벳 순서가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②Campbell(14, 151-152)은 1:2, 5(말론과 기룐)와 4:9(기룐과 말론)이 교차대구적 언급이라고 하면서 1:4 에 룻이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두 아들 중 더 나이가 어린 아들과 결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Sasson(150)은 고대 근동의 법적 문서에 이름의 알파벳 순서를 고려한 나열이 없다면서 Rudolph 의 견해를 반박할 뿐만 아니라 Campbell 의 교차대구적 고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그는 하나의 원리, 즉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물을 두 번째 자리에 오게 하는 원리(the principle of placing "in second position the individual of most immediate importance to the subsequent narrative")를 제안했다. Sasson 은 이 원리에 따라 1:4, 14 에서 오르바-룻의 순서로 룻이 두 번째로 언급되고, 4:9 에서 기룐-말론의 순서로 말론이 두 번째로 언급되고, 4:11 에서 라헬-레아의 순서로 레아가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Sasson 에 의하면 1:4, 14 에 두 번째로 언급된 룻은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 그리고 4:9 에 두 번째로 언급된 말론은 그의 아내였던 룻과 보아스의 결합으로 인해 태어날 아들이 4 장의 나머지 이야기의 관심거리가 된다. 그리고 4:11 에 레아가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뒤이어 나오는 세 번째 축복이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과 관계가 있다. ④Bush(238)는 1:2, 5(말론과 기룐)와 4:9(기룐과 말론)에 어떤 교차대구적 고려가 있다고 하기에는 중간에 매우 많은 양의 자료가 존재하므로 Campbell 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Sasson 의 제안을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Bush 의 Campbell 반박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교차대구의 관점에서 볼 때 1 장의 **말론**과 **기룐**(1:2 AB): **오르바**와 **룻**(1:4 BA): **말론**과 **기룐**(1:5 AB): **오르바**와 **룻**(1:14 BA)이 잘 유지되지만 4:9 의 **기룐**과 **말론(BA)**은 (1:5[AB]과 역순으로 연결이 되지만) 흐름상 1:14(BA)과는 역순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룻기에 언급된 두 사람의 순서와 차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대로 레아가 라헬의 언니인 것을 고려하면 두 번째로 언급되었고 하여 반드시 나이가 더 어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Campbell 이 오르바가 먼저 언급되었다고 하여 손윗동서라고 한 주장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언급된 순서만 가지고서는 말론과 기룐 중 누가 형인지, 오르바와 룻 중 누가 손윗동서인지 결론을

③ 저자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였다고 언급하며 그들은 거기서 십 년쯤 살았다고 한다. 10 년의 기간에 대하여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거주 전체 기간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말론과 기룐의 결혼 후 모압 거주 기간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구문론적으로 "**그들이 취했다**"라는 동사(וַיִּשְׂאוּ[바이스후])와 "**그들이 살았다**"라는 동사(וַיֵּשְׁבוּ[바예시부])의 관계에 대하여 전자는 두 동사를 동시적(comtemporaneous: Joüon, 34 [E 33], Bush, 65; Morris, 251)으로 본 것이고 후자는 전후 연속 관계(sequential: Hubbard, 91, n. 2; Campbell, 58; Block, 629)로 본 것이다.[21]

④ 캠벨(58)은 결혼 후 10 년 거주로 보며 모압에서의 룻이 10 년 동안 출산을 못한 것과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곧 출산하게 된 것 사이의 극적인 대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블락(629)은 10 년간의 결혼 생활에 후사가 없는 것을 언약의 저주에 속한 것(신 28:18)으로 보았다. 허버드(91, n. 2, 95)는 두 동사가 전후 관계의 연속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며 결혼 후 10 년 거주한 것으로 해석하고 아브람과 사래가 가나안 땅에 10 년 동안 후사 없이 살다가 후사를 얻으려고 하갈을 첩으로 준 사건(창 16:3)을 근거 삼아 10 년을 후사를 위해 다른 조처를 취하기 전에 주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여기며 4 절의 10 년에 대한 언급이 내러티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⑤ 그러나 부시(65)는 "전반적인 문맥 그리고 특별히 3 절의 3 인칭 여성 단수 동사(וַתִּשָּׁאֵר[바티샤에르]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다**)에서 4 절의 3 인칭 남성 복수 동사(וַיִּשְׂאוּ [바이스후]

내려서는 안 된다. ②이야기 전개에 더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는 인물을 마지막 자리에 두었다는 Sasson 의 주장은 1:14(오르바와 룻); 4:9(기룐과 말론); 4:11(라헬과 레아)에는 잘 적용된다. 그러나 오르바와 룻의 순서를 갖는 두 개의 절 즉 1:4 과 1:14 사이 즉 1:5-13 의 이야기에서 1:4 의 두 번째 자리의 룻이 다음 이야기 전개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Sasson 의 설명은 배경과 위기를 설명하는 서막(1:1-5)에서 제 1 막의 1:13 까지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③그렇다면 배경 설명 부분에 나오는 말론과 기룐(1:2), 오르바와 룻(1:4), 말론과 기룐(1:5) 그리고 오르바와 룻(1:14)의 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첫째로, "말론의 아내 룻"을 언급하는 4:10 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대로 배경에 나오는 말론-기룐(1:2): 오르바-룻(1:4): 말론-기룐(1:5): 오르바-룻(1:14)의 순서는 저자의 교차대구적 배열[A-B: B′-A′: A-B: B′-A′]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Sasson 의 설명을 약간 수정하여 두 사람이 언급된 순서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인물과 관련(1:2, 4, 5)이 있거나 바로 다음 이야기 전개에 직접적으로 관련(1:14; 4:9, 11)이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로, 성경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나 "야곱과 에서"나 "유다와 그 형제"라는 배열이 보여 주는 것처럼 연령에 상관없이 보다 더 잘 알려진 인물이 다른 형제들 앞에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두 형제 중 보다 더 잘 알려진 말론이 기룐보다 먼저 서막에서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결론적으로 말하면, 룻기의 **말론과 기룐의 차서 문제와 룻과 오르바의 손위/손아래 문제는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

[21] Joüon, E 33: "The text does not say that Orpah and Ruth lived ten years in marriage, but that the two sons (and Naomi) resided ten years in Moab."

그들이 취했다)로 바뀐 후 이어서 3 인칭 남성 복수 동사(וַיֵּשְׁבוּ[바예시부] **그들이 살았다**)가 사용된 것은 두 아들들이 결혼 후 10 년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모압에서 10 년쯤 살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아들들(과 나오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부시는 두 동사를 동시적으로 보고 [창 16:3 의 10 년과 달리] 룻 1:4 의 10 년 앞에 대략의 카프(approximative כ)가 붙어 있는 것에 주목하며 10 년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6 장의 사건에 대한 의식적인 반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더 나아가 10 년에 대한 언급이 독자로 후사의 출생을 기대하도록 한다는 허버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한다.[22] 모리스(251)도 10 년의 기간이 모압에서의 전체 거주 기간으로 보면서 결혼은 그 기간의 끝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나 자녀 없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본 주석은 부시와 모리스의 설명이 바른 것으로 보았다.

5. 룻 1:5

1) 원문 문제

וַיָּמוּתוּ גַם־שְׁנֵיהֶם מַחְלוֹן וְכִלְיֹון וַתִּשָּׁאֵר הָאִשָּׁה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 (룻 1:5)

① גַם의 용법은 (1)첨가(addition, 'also' WHS 378) 아니면 (2)강조(emphasis, 'even' WHS 379)인가?

(1)וַתִּתֵּן גַּם־לְאִישָׁהּ עִמָּהּ

창 3:6 그녀가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2)אִם־לֹא יַאֲמִינוּ גַּם לִשְׁנֵי הָאֹתוֹת הָאֵלֶּה

출 4:9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아니하면

②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에 나오는 두 개의 מִן의 용법은(WHS 321; GKC 119w)?

(비교: partitive force — 신 3:11 "Only Og, King of Bashan, was left from the survivors of the Rephaites"; 출 10:5; 수 13:12 ; BDB 에는 룻 1:5 과 같은 מִן의 용법이 실려 있지 않음)

---

[22] Bush, 65-66: "The context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the masculine plural form[וַיֵּשְׁבוּ 1:4] of the verb following upon the change [from the feminine form וַתִּשָּׁאֵר 1:3b] to masculine plural [וַיִּשְׂאוּ 1:3b] in the verb of the previous clause is very strongly in favor of the meaning that it is the two sons (and Naomi) who lived there about ten years (so Joüon, 34), rather than that the two sons were married for ten years. This and the appended approximative כ, "about," makes it unlikely that there is any conscious echo here of Gen 16:3 (contra Sasson, Hubbard). Even less likely is it that "the passage of ten years makes the audience anticipate . . . the birth of children" and hence the text "quietly introduces one of the book's dominant themes, the problem of heirs" (Hubbard, 95)." Bush 의 글 가운데 [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삽입한 것임.

③ 결혼한 아들에 대하여 יֶלֶד가 쓰인 것은 이 곳뿐이다. 이 단어가 선택된 이유를 룻 4:16 과 관련하여 그리고 아들(בֵּן)이란 단어와 비교하여 설명하면(cf. יֶלֶד ⑴창 21:8; 출 2:3; 삼하 12:15 "infant"; ⑵창 37:30; 42:22 "teenager"; ⑶왕상 12:8 = 대하 10:8 "young man (vs. elders)")?

④ 저자가 וַתִּשָּׁאֵר הָאִשָּׁה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에서 나오미를 그 여인(הָאִשָּׁה the woman)으로 지칭한 효과는?

2) 주석

룻 1:5 그러다가 말론과 기룐 그 둘마저 죽으니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다]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① 남편은 죽었으나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이를 통해 나오미는 손자 손녀를 보는 즐거움을 누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희망의 불길이 솟아오르기도 전에 3 절에서처럼 5 절에도 예기하지 않은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만다. 기대와는 달리 후사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더니 설상가상으로 **말론과 기룐 그 둘마저 죽어 버렸다**. 다시 한번 내레이터는 사건을 간결하게 전하며 아무런 해설도 달지 않고 "**그 둘마저—말론과 기룐마저 죽고 말았다**."라고만 말한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독자들은 묻는다. "어떻게, 왜 그들이 죽었는가? 아들들의 죽음은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한 벌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 비극은 여호와의 멋진 승리를 위한 산고에 불과한 것인가?"

② 이러한 질문들에 저자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3 절에서처럼 두 아들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만을 전한다.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다]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첫째, **그 여인**(הָאִשָּׁה[하이샤])은 정체가 상실되었다. 이것은 고유명사 나오미로 언급되지 않고 보통명사 "그 여인"으로 언급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다 잃게 되었다**. 두 자식과 남편 앞에 각각 박탈의 전치사 מִן[민]이 붙어 있다. 그 여인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정체가 상실되어 아내에서 과부(from wife to widow)가 되었고, 어머니에서 생과부/참 과부(from mother to no-mother)가 되었다.[23] 셋째, 그 여인은 **홀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도 3 절에서처럼 두 아들들과 남편과의 사별의 아픔을 묘사하는 동사(שׁאר[샤아르]의 니프알/기본재귀)가 쓰였다.

③ 3 절의 "שְׁנֵי בָנֶיהָ [시네 바네하] 그녀의 두 아들"과 여기 5 절의 "שְׁנֵי יְלָדֶיהָ [시네 열라데하] **그녀의 두 자식**"은 모두 말론과 기룐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 **자식**으로 번역된 יֶלֶד[옐레드]란 단어는 창

[23] 이희승 감수, **옛센스 국어사전**, 1270 에 의하면 생과부(生寡婦)는 "약혼자나 갓 결혼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이다. 개역/개역개정의 딤전 5:3-5, 16 은 자손이나 친척이 없는 과부를 "참 과부"라고 부르고 있다.

21:8; 출 2:3; 삼하 12:15 등에서 아기(infant)를 나타내고, 창 37:30; 42:22 등에서 소년(teenager)을 나타내고, 왕상 12:8, 대하 10:8 등에서 노인과 대조되는 젊은이(young man)를 나타내는데 쓰였다. 여기에서처럼 결혼한 아들에 대하여 יֶלֶד[옐레드]가 쓰인 것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흔히 쓰이는 아들이란 단어 בֵּן[벤]보다 "ילד[얄라드] 낳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יֶלֶד[옐레드]를 쓴 것은 자식을 잃고 후사가 없게 된 아픔을 더 잘 나타내주고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가 후사인 것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책의 끝에서 후사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오미가 그 자식(יֶלֶד[옐레드])을 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4:16)"라고 언급하면서 1:5 에 사용되었던 יֶלֶד[옐레드]가 다시 나온다. 이것은 동일한 단어를 책의 서두와 말미에 사용하여 서두의 문제와 말미의 문제 해결을 연결하는 저자의 멋진 문예적 기교인 주제적 수미쌍관법(thematic inclusio)이다.

④ 모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남편을 따라 생존을 위한 씨앗(양식)을 찾아 갔던 곳이었지만 거기서 정체가 상실된 **그 여인**[הָאִשָּׁה 하이샤],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빼앗긴 그 여인**, 사별의 아픔을 간직하고 **홀로 남게 된 그 여인**에게 모압은 가계를 이어 갈 씨앗(자식)마저 빼앗아 가버린 무대가 되고 말았다. "그 여인"은 이방 땅에서 낯선 자가 되어 죽음의 희생자요 삶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말았다.[24]

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줄 수 있는 보호를 상실한 생과부 나오미는 그 나이와 가난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부가 삶을 해결하던 세 가지 길도 모색할 수 없었다. 첫째, 이야기에서 암시된 세월의 흐름에 비추어 나오미의 부모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따라서 과부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다. 둘째, 나오미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혼, 심지어 신 25:5-10 에 명시된 수혼(=형사취수제도/계대결혼)을 통한 재혼을 할 수도 없었다. 셋째, 고대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존하여 살았듯이 나오미도 그러했고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어떤 기술이나 직업이 없었다. 나오미는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의 말(삼하 14:7)처럼 남아있는 숯불이 꺼져 버려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 둘 수 없게 되어 버린 여인, 사렙다 과부(왕상 17:17-18)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는 여인, 나인성 과부(눅 7:12-13)처럼 울 수밖에 없는 여인, 후사가 없어지고 나이가 든

---

[24] Phyllis Trible, "A Human Comedy" in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vol. 2 (Philadelphia: Fortress, 1978), 167-68: "From wife to widow, from mother to no-mother, this female is stripped of all identity. The security of husband and children, which a male-dominated culture affords its women, is hers no longer. The definition of worth, by which it values the female, applies to her no more. The blessings of old age, which it gives through progeny, are there no longer. Stranger in a foreign land, this woman is a victim of death—and of life."

과부이기에 이스라엘 여인의 운명 중에 가장 나쁜 운명을 맞이한 여인, 부양해 줄 자식도 없고 기운을 소성하게 해 줄 손자 손녀도 하나 없이 노년을 맞이한 여인이 되어 버렸다.

서막(1:1-5) 해설

⑴서막(1:1-5)은 룻기의 시대 배경과 중심 인물 그리고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내레이터의 배경 묘사로 되어 있다. 내레이터는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 출신(1:1),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인 엘리멜렉 일가족** 4 명이 **모압으로 간** 것을 말한다. 엘리멜렉은 가장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이고 그의 두 아들들은 말론과 기룐이었다**(1:2). 여기에 "빵 집, 떡 집"이란 의미를 갖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는 아이러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이러니, 그리고 "떡 집" 베들레헴을 떠나 [발람을 시켜 저주하려 하고(민 22 장)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하고(민 25 장; 민 31:16)] 이스라엘에게 "떡"을 제공하길 거부하였던 모압(신 23:4)으로 피신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나 1:1 에 나오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2 장과 26 장에만 나오는 것을 유념하면 아브람과 이삭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생존하며 복을 받았던 것을 연상하도록 하는 내레이터의 숨은 의도를 보며 하나님의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돌보심의 손길이 결국 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내레이터가 다른 세부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엘리멜렉 일가족의 출신에 대하여 상세하게 두 번이나 언급한 것, 즉 1:1 에서 **유다 베들레헴** 출신임을 언급하고 1:2 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인 것을 언급한 것은 4:17 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삼상 17:12 에 묘사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중 가장 유명한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⑵배경 설명에서 나오미를 엘리멜렉의 아내로 소개했던(1:2) 내레이터는 **엘리멜렉**을 **나오미의 남편**으로 묘사하며(1:3) 모압에서 죽었다고 전하고, 그녀의 남편 뒤에 남게 된 나오미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죽은 아들들을 **그녀의 아들들**로 묘사한다. 이와 같은 칭호를 통하여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중심 인물임을 알도록 해 준다. 나오미가 룻기의 중심 인물이란 사실은 (1:1-2 에서 나오미와 아들들이 엘리멜렉과의 관계로 소개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이 나오미와의 관계를 통하여 언급되는 점에서 확인된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1:3)이고 말론과 기룐은 나오미의 아들/자식(1:3, 5)이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며느리(1:4 cf 4:10 룻 = 말론의 아내)이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족(2:1)이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대로 "우리의 일가붙이, 우리의 기업 무를 자중의 하나(2:20)"이다. 룻과 보아스에게 태어난 아들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4:17)로 언급된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의 시어머니라는 것 이외에 항상 고유 명사로 언급되는 것도 나오미가 중심 인물인 것을 보여준다. [특히 법적 문제를 논의할 때(4:3-12) 룻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4:10)"이라고 언급된 것에 비추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라고 언급될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나오미로만 언급되고 있다.] 나오미와 함께 남은 **그녀의 두 아들들**(말론과 기룐)은 **모압 여자(룻과 오르바)와 결혼**하지만(1:4) 후사를 두지 못하고 **모압에서 죽고 만다**. 모압 거주 **10 여년** 세월에 나오미는 모압이란 이방 땅에 생과부로 홀로 남게 된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이 없어서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들이 없어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이라고 언급된다. "그 여인"이란 칭호는 서막의 핵심 문제가 무엇임을 보여주는 단어이며 두 번의 사별 즉 **남편과 두 자식[엘레드]의 죽음**으로 인해 홀로 **모압 땅에 남게 된 나오미**의 텅빈 삶을 지적하고 있다(1:5).

⑶이렇게 저자는 서막에서 그의 이야기에 대한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배경을 묘사했다. 흉년에 의해 고국 땅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의해 잔인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기고, 나이 든 한 과부가 홀로 이방 땅에 버려진 채로 남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가문이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내레이터는 두 번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며 오직 그 결과로 나오미가 홀로 남게 되어 그녀의 삶이 텅빈 것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내레이터의 의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레이터는 자식이 없는 현재와 희망이 없는 미래에 직면한 생과부 나오미를 어떻게 보도록 하는가? 멸절의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어떻게 보도록 하는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이주해야만 했던 아브람과 이삭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면 텅빈 나오미에게도 그 손길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계속 읽으라는 것은 아닌가? (사실상 저자는 서막에서 가문을 이어갈 자식[엘레드]의 죽음 다음에 홀로 남게 된(1:5) 나오미가 종막에서 가문을 이어갈 자식[엘레드]을 품에 안는(4:16) 것을 묘사할 때 동일한 단어 [엘레드]를 사용하여 서막의 문제와 종막의 문제해결을 연결하는 주제적 수미쌍관법 기교를 통하여 여호와의 은혜로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에브랏 사람 중 제일 유명한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오미 이야기를 계속 읽으라는 것은 아닌가? (사실상 저자는 가문 멸절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주신(4:13)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을 짧은 족보(4:17)와 긴 족보(4:18-22)를 통해 밝힌다.)

⑷내레이터의 배경 묘사가 주는 핵심적인 것, 즉 배경, 중심 인물, 핵심 문제를 떠나서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도 한다.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든 원인이 무엇인가(레 26:16, 19-20; 신 28:22-24)?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가족만 잘 살려고 이방 땅 모압에 갔기 때문은 아닌가? 자식들마저 후사 없이 죽은 것은 그들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은 아닌가(신 23:3-6; 28:15-19)?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저자의 의도였다면 아마도 이야기의 배경묘사를 다르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언약의 저주 조항이나 죄에 대한 징벌이란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엘리멜렉의 죽음과 말론과 기룐의 죽음을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신학적 진단이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한 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벌인지 여쭈었을 때 주님은 그 어느 쪽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가르쳐주셨다(요 9:1-3).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오미의 텅빈 삶의 원인을 찾으며 손가락질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나오미가 당한 슬픔을 심정적으로 함께 나누며 저자가 넌지시 암시한 흉년 때 족장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에게도 있을 것을 기대하고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란 어구가 연상하도록 해주는 다윗과의 연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며 읽어가야 할 것이다(부시, 67).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다사다난한 인생의 여정 길에 만난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우리 이웃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함께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⑸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 하고 부지런히 찾으며 하나님께 잘못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의 고난이 나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 과정은 아닌지 살펴보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 .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67, 71)."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웃의 고난에 대하여는 그 이유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지적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시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셨다(눅 13:2-3).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다시 경고하셨다(눅 13:4-5). 주님의 경고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고난 당한 사람이 불의하여 벌을 받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며 그 고난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는 결론이 틀린 것임을 가르쳐주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정책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참소하던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증인으로 내세워 고난 중에도 죄를 짓지 않은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있는 것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지혜롭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며 이웃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보고 또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욥처럼 인내하며 이겨내야 할 것이다.

⑹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남편을 따라 생존을 위한 씨앗(양식)을 찾아 갔던 모압에서 그녀의 남편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 가계를 이어 갈 씨앗(자식)마저 빼앗긴 "그 여인"이 되어버리는 고난을 당했다. 나오미는 사별의 아픔을 간직하고 홀로 남게 된 "그 여인"이요, 정체가 상실된 "그 여인"이 되어 버렸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어 풍족했던 나오미가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마저 죽어 텅빈 나오미가 되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 약속의 땅과의 유대가 깨어져버릴 뿐만 아니라 이방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의 결속이 파괴되어 버리는 비극을 당했다. 내레이터는 독자들에게 나오미가 당한 고난이 그녀에게 얼마나 극심한 아픔을 주었을까를 깊이 헤아려 보게 하며 심정적으로 그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레이터는 넌지시 나오미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도록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고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비로운 구속사 가운데 어떤 역할(룻의 회심?)을 감당했었음이 분명하다(퍼거슨, 45).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백성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오미의

비참한 상황을 통하여 그가 뜻하신 일을 신비롭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체성이 상실된 "그 여인"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가를 주목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⑺남편과 후사가 없는 생과부가 된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보인 반응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오미는 바른 신관을 가지고 고난의 현실을 넘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반응을 보였는가? 룻과 오르바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미래 지향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애를 실천할 기회로 보는 반응을 보였는가? 칠십인역 전통을 따른 신명기-여호수아-사사기-룻기에 이르는 정경적 배열은 룻기 서막에 묘사된 흉년과 죽음을 언약적 불순종에 대한 형벌과 회개에 대한 경종으로 보게 할지 모르지만, 맛소라 전통의 잠언-룻기-아가라는 정경적 배열은 룻이 잠언 31:10-31 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처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흉년과 죽음을 인애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고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읽어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복만 임하지 않고 고난은 찾아온다. 기대한 대로만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이 땅에서 고난은 필수이지만 행복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반응에 달린 것이므로) 선택 사항이다. 우리는 흉년이 들고 죽음이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주목하며 믿음을 지키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인애를 실천할 기회로 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을 하고 있는가?

⑻엘리멜렉 가정의 모압에서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서막(1:1-5)에서 일어난 일을 담담하게 묘사하며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한 저자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가문 멸절 위기에 처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반응을 전할 때 1 막 1 장(1:6-18)에서 내레이터의 말로 묘사하기보다는 세 여인이 직접 주고받은 대화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 이렇게 1 막 1 장에서 저자가 대화를 통하여 인물을 묘사하고 플롯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그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피려고 할 때 그들이 했던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점을 유의하며 세 여인의 위기에 대한 반응의 단서를 그들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1 막 1 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제 1 막 (1:6-22)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가족이 우거하러 갔던 모압에서 남자들이 다 죽으므로 나오미가 자신을 돌보아줄 남자 없이 홀로 남게 된 것을 묘사하는 서막(1:1-5) 다음에 제 1 막(1:6-22)은 나오미의 텅빈 삶이란 주제를 전개하며 그녀의 베들레헴 귀향에 대하여 다룬다. 1 막은 두 개의 장면을 갖는데 제 1 장면(1:6-18)은 베들레헴 귀향 노상에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를 보여주고 제 2 장면(1:19-22)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을 보여준다.

◇ 1 막 1 장 (1:6-18)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6-18)

(1) 1 막의 제 1 장면(1:6-18)은 서막에서 묘사된 위기에 대하여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묘사한다. 보충 설명과 요약 묘사로 되어 있는 서막과는 달리 1 막 1 장(1:6-18)은 극적 묘사를 통해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1] 저자는 등장 인물이 어떤

---

[1] 내레이터는 이야기를 전할 때 논평, 보충 설명, 요약 묘사, 극적 묘사라는 네 가지 서술방식(4 Modes of Narration)을 사용한다. 논평은 내레이터가 독자들을 위해 무대 중앙에 나서서 이야기 자체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나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예: 창 2:24; 32:32). 보충 설명은 내레이터가 무대 중앙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야기의 진행을 늦추며 배경이나 등장 인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것이다. 보충 설명은 논평보다 덜 해석적이며 내러티브의 어떤 특징을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주와 비슷하다(예: 창 12:4b, 6b; 29:17). 요약 묘사는 내레이터가 독자들에게 사건을 말해 주는 면에 치중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신의 말로 진술하는 것이다(예: 창 50:1-2). 극적 묘사는 내레이터가 등장 인물의 말 혹은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그 주변 맥락을 알리면서 독자들이 연극에서처럼 등장 인물의 말과 대화를 직접 듣도록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극적 묘사는 내레이터가 독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what happened)를 말해주는(telling) 면보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how something happened)를 보여주는(showing) 면에 더욱 치중한다(예: 창 50:4b-5). 구약의 내러티브는 가능한 한 극적묘사를 통해 전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내러티브는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려는(not to tell, but to show) 경향이 농후하다. 라이켄(Ryken, *Words of Delight*, 44)은 내러티브의 네가지 서술 방식을 따라 창 25:29-34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충설명 description of the setting for the event to follow]

(29)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극적 묘사 dramatic narrative]

(30)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논평 commentary]

<u>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u>

[극적 묘사 dramatic narrative]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자신의 말로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대신 등장 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전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대화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등장 인물들의 됨됨이, 생각, 느낌, 의도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독자에게는 그것들을 파악하는 일이 좀 더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저자는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나오미, 오르바, 룻이 살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물처럼 생생하게 독자에게 다가오게 하고 있다. 룻기는 절반 이상(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85 절중에서 55 절)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내러티브에서 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저자의 뛰어난 문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2]

(2)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주고받은 세 번의 대화를 담고 있는 1 막 1 장(1:6-18)의 구조는 세 부분, 즉 1:6-10, 1:11-14, 1:15-18 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1:6-10)에는 간단한 내러티브 해설 그리고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이루라는 첫 번째 권면에 대하여 나오미와 함께

---

(31)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a)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요약 묘사 direct narrative]

(33b)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논평 commentary]

(34b)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네 가지 서술 방식에 대하여 Ryken(*Words of Delight*, 43)과 Pratt(*He Gave Us Stories*, 156)과 Bar-Efrat(*Narrative Art in the Bible*, 34-35, 146-147)이 사용한 용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Ryken	Pratt	Bar-Efrat	
commentary	authorial comments	interpretation / explanation / evaluation / comment	논평 (해설, 해석, 평가)
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 / depiction	보충 설명 (추가 설명, 각주)
direct narrative	straight narration	summary account (extensive report)	요약 묘사 (요약 보고, 간접화법)
dramatic narrative	dramatic depiction	scenic (dramatic/intensive) representation	극적 묘사 (장면 묘사, 직접 화법)

[2] 내레이터가 이야기를 진행할 때 말해주는 것(논평, 보충 설명, 요약 묘사)과 보여주는 것(극적 묘사)의 선택은 이야기의 길이에 달려있지 않고 저자의 의도에 달린 문제이다. 이야기를 보다 극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싶을수록 저자는 자신의 말을 줄이고 등장 인물들이 직접 더 많이 말하도록 한다. 내러티브는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들을 전하려는 다큐멘터리적 동기보다 독자의 상상 가운데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지닌 사건들을 극적으로 제시하려는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더 정확하게 문예적 내러티브라고 부를 수 있다(Ryken, *Words of Delight*, 45;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49-50).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두 며느리의 대답이 들어있다(1:[1+1]). 두 번째 부분(1:11-14)에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이스라엘에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과 삶을 함께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두 번째 권면에 대하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에게 바싹 달라붙는 반응이 들어 있다(1:[1:1). 세 번째 부분(1:15-18)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처럼 그녀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들어 있다(1:[1]).

⑶전환적 구절인 1:6 은 앞의 서막과 함께 구분되기도 하고(Bush, Porten, Sasson, Younger) 뒤의 1 막과 함께 구분되기도 한다(Block, Campbell, Hubbard, Morris, de Waard-Nida).

① 구조적으로 1:1(AB)과 1:6(B'A')은 반의적 병행과 교차대구를 이루고, 내용적으로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지만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모압으로부터 돌아온 것을 언급함으로써 상황과 배경의 결론을 제공한다.

A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B "우거하러 모압으로 갔다."

B' "거기서(모압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A'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② 1:6 은 과거지향적(모압으로부터) 돌아옴을 묘사하고 1:7 은 미래 지향적(베들레헴으로) 돌아옴을 묘사한다.[3] 1:7-19a 은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적 구조를 갖고 있다(Bush, 71-72).

A	7	내러티브 (서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유다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섬
B	8-9a	대화 1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그들을 축복함
C	9b	내러티브 (전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작별인사하고 그들 모두가 옮.
D	10-13	대화 2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가라고 다시 촉구함
C'	14	내러티브 (전환)	그들 모두가 울며 오르바는 작별인사하고 떠나나 룻은 나오미를 붙좇음
B'	15-18	대화 3	나오미는 룻더러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하지만 룻은

[3] Bush, 60: "Note how v. 6 looks backward with "its return . . . from the territory of Moab" while v. 7 looks forward with its "return to the land of Judah." . . . It (=v. 6) also forms, however, a preview and content summary of all that will be revealed in more detail in the following two scenes and such as provides the transition to the story of the return."

			나오미에게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하겠다고 하자 나오미는 더 이상 권하지 않음
A'	19a	내러티브 (결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함께 옴

③ 1:6 은 뒤에 전개될 사건(1:7-21)의 요약적 서론이고 1:22 의 요약 결론과 수미쌍관법을 이룬다(Hubbard, 99). 귀향의 이야기의 전환점을 제공하는 1:6 이 1:22 과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동사와 "모압 지방" 그리고 "양식"과 "보리"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6 은 나오미가 **돌아올**(וַתָּשָׁב[바타쇼브] 단수동사) 채비를 한 것은 **모압 땅**(שְׂדֵה מוֹאָב[스데 모아브])에서 여호와께서 **양식**(לֶחֶם[레헴])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임을 말한다(**ABC**). 1:22 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וַתָּשָׁב[바타쇼브] 단수동사) 때 **모압 땅**(שְׂדֵי מוֹאָב[스데 모아브])에서 돌아온 여자 곧 그녀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있었고 **보리**(שְׂעֹרִים[스오림]) 추수가 시작된 것을 말한다(**A'B'C'**).

④ 벌린(104)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내러티브의 중심 부분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들로 시간 표시 어구들(에 1:3; 욥 1:6; 삿 11:4; 창 4:3)이나 절의 초두 즉 주동사 앞에 와서 주동사의 동작을 안내하는 동사 קוּם[쿰](창 23:3; 출 1:8; 삼상 1:9)등을 들었다. 벌린은 룻 1:6 의 경우 시간 표시 어구는 없지만 창 23:3 과 출 1:8 처럼 등장 인물의 죽음이 언급된 후에 동사 קוּם[쿰]이 주동사 앞에 와서 내러티브의 중심 부분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⑤ 루터(Luter, 45)는 1:6-22 의 다음과 같은 역순대구 구조를 제시하였다.[4]

A 양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모압을 떠남(1:6-7)

B 불가능한 상황 묘사, 하나님의 탓으로 돌림(1:8-13)

C 떠남: 역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1:14a)

C' 재헌신: 초자연적인 돌아옴의 길(1:14b-18)

B' 쓰라림 인정,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춤(1:19-21)

A' 추수 때에 모압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함(1:22)

⑥ 본 주석은 야누스적인 1 장 6 절이 서막이 아니라 1 막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

[4] **A** Leaving Moab to return to Bethlehem for food (1:6-7)

B Describing an impossible situation, blamed on God (1:8-13)

C Leaving: the natural response to adversity (1:14a)

C' Recommitment: the supernatural road to a comeback (1:14b-18)

B' Admitting a bitter attitude, focused on God (1:19-21)

A' Arriving in Bethlehem with a Moabites at harvest-time (1:22)

(1)1 막 1 장 A (1:6-10)

본문

[WLC: 1 רות]

6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מִשְּׂדֵי מוֹאָב כִּי שָׁמְעָה בִּשְׂדֵה מוֹאָב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 לָתֵת לָהֶם לָחֶם׃
7 וַתֵּצֵא מִן־הַמָּקוֹם אֲשֶׁר הָיְתָה־שָׁמָּה וּשְׁתֵּי כַלֹּתֶיהָ עִמָּהּ וַתֵּלַכְנָה בַדֶּרֶךְ לָשׁוּב אֶל־אֶרֶץ יְהוּדָה׃ 8 וַתֹּאמֶר
נָעֳמִי לִשְׁתֵּי כַלֹּתֶיהָ לֵכְנָה שֹׁבְנָה אִשָּׁה לְבֵית אִמָּהּ [כ= יַעֲשֶׂה] [ק= יַעַשׂ] יְהוָה עִמָּכֶם חֶסֶד כַּאֲשֶׁר עֲשִׂיתֶם
עִם־הַמֵּתִים וְעִמָּדִי׃ 9 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מְנוּחָה אִשָּׁה בֵּית אִישָׁהּ וַתִּשַּׁק לָהֶן וַתִּשֶּׂאנָה קוֹלָן וַתִּבְכֶּינָה׃
10 וַתֹּאמַרְנָה־לָּהּ כִּי־אִתָּךְ נָשׁוּב לְעַמֵּךְ׃ 11 וַתֹּאמֶר נָעֳמִי שֹׁבְנָה בְנֹתַי לָמָּה תֵלַכְנָה עִמִּי הַעוֹד־לִי בָנִים
בְּמֵעַי וְהָיוּ לָכֶם לַאֲנָשִׁים׃

[ESV: Ruth 1:6-10] **Ruth's Loyalty to Naomi**

6 Then she arose with her daughters-in-law to return from the country of Moab, for she had heard in the fields of Moab that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and given them food. 7 So she set out from the place where she was with her two daughters-in-law, and they went on the way to return to the land of Judah. 8 But Naomi said to her two daughters-in-law, “Go, return each of you to her mother's house. May the Lord deal kindly with you, as you have dealt with the dead and with me. 9 The Lord grant that you may find rest, each of you in the house of he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10 And they said to her, “No, we will return with you to your people.”

[개역개정: 룻 1:6-10]

6 그 여인이(개역: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번역 (룻 1:6-10)

룻 1:6 [그러던 어느 날] 그녀[=나오미]는 [1]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2]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7 그녀가 머물던 곳을 떠날 [3] 때 (그녀의) 두 며느리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 [셋]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3] 8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어서,[4] 너희는 각각 [친]어머니의 집으로 [5] 돌아가라.[4] 너희가 죽은 자[=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6]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7] 바란다. 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미가 [8] [작별을 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9] 그들이 엉엉 울면서 [10] 10 나오미에게 [8]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과 [11] 함께 [12] 우리가 어머님의 [11]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비평

[1] 원문의 대명사 주어 הִיא[히]는 대명사로서 "그녀"이다. 개역개정은 개역의 "그가"를 "그 여인이"라고 고쳤다. 그러나 이것은 1:5 의 정체성 상실을 드러내는 명사 "[하이샤] 그 여인"과 같은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역처럼 "그가" 혹은 여성을 밝혀 "그녀는"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2] 원문의 주어(הִיא וְכַלֹּתֶיהָ [히 브할로테하] "그녀와 그녀의 며느리들")는 복수이다. 그런데 복수 주어 앞에 오는 동사 וַתָּקָם[바타콤]은 관례대로 단수이지만 복수 주어 뒤에 오는 동사 וַתָּשָׁב[바타쇼브]가 복수가 아니라 (관례에 어긋나는) 단수이다. 이것은 저자가 나오미의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복수 주어이지만 둘 다 주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녀가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둘이란 숫자가 없는] 1:6 의 원문(כַלֹּתֶיהָ[할로테하])을 대부분의 한글 성경(개역/개역개정/공동번역/새번역/우리말성경/쉬운성경)은 수를 넣어 "두 며느리" 혹은 "두 자부"라고 번역하고 있다. 수가 표시된 "שְׁתֵּי כַלֹּתֶיהָ [시테 할로테하] 두 며느리"는 1:6 이 아니라 1:7 부터 나온다.

[3] 첫 번째 동사(וַתֵּצֵא[바테체])는 단수이고 두 번째 동사(וַתֵּלַכְנָה[바텔라흐나])는 복수이다. 원문의 "그녀가 있던 곳에서 나올 때"를 "그녀가 머물던 곳을 떠날 때"로 번역하였다.

[4] "자 어서, 돌아가라"는 번역은 두 동사(לֵכְנָה שֹׁבְנָה [레흐나 쇼브나])가 중언법(hendiadys)으로 쓰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

[5] 성경에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갈 때 대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여기서는 "어머니의 집"으로 묘사되어 있다. 시어머니와 친어머니의 대조에 유의하며 어머니 앞에 [친]을 추가하였다.

[6] 원문을 순서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기를 바란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이다. 원문 עָשָׂה חֶסֶד עִם [아싸 헤쎄드 임]을 "~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다"라고 번역하였다.

[7] *BHS*에 실린 형 יַעֲשֹׂה[야아스]는 크티브의 자음과 크레의 모음이 혼합된 형인 것에 유의하라. 크티브 자음 יעשה[요드-아인-씬-헤]에 모음을 붙이면 יַעֲשֶׂה[야아쎄]로 미완료형(imperfect)이 되고, 크레의 자음 יעשׂ[요드-아인-씬]에 모음을 붙이면 יַעַשׂ[야아스]로 간접명령형(jussive)이 된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ποιήσαι[포이에싸이]는 단순과거 능동태 희구법 3 인칭 단수형으로 크레와 일치하며 벌게이트역도 크레와 일치한다. 크티브 יַעֲשֶׂה[야아쎄]는 보편적인 용법대로 단순미래("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화자의 소원이나 희망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미완료형(GKC 317)으로 보고 크레의 간접명령형("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처럼 번역할 수도 있다.[5] 크티브의 두 가지 가능한 번역에 내재한 모호성은 독자나 해석자의 결정을 요구한다. 그 모호성이 크티브를 더 어려운 독법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문 전승의 어느 시점에서 쉽게 "정정"되어 모호하지 않은 크레에 나타난 형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의 증거는 그 번역자들이 크레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크레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번역자들이 크티브를 문맥에 따라 번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크티브가 크레가 표현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8]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밝혀 번역하였다.

[9] 동사 וַתִּשַּׁק[바티싸크] "그녀가 입맞추었다"는 작별을 위한 것이므로 [ ]안에 "작별을 하려고"를 첨가하였다. 영어 번역은 "she kissed goodbye (to them)"이다.

[10] "엉엉 울었다"는 וַתִּשֶּׂאנָה קוֹלָן וַתִּבְכֶּינָה [바티쎄나 콜란 바티브케나](개역개정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를 중언법으로 보고 첫 동사 부분이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번역한 것이다.

[11] 룻이 나오미를 지칭하면서 사용한 2 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 "당신"을 모두 "어머님"으로 번역하였다.

[12] "어머님과 함께 אִתָּךְ[이타흐]"를 번역문의 첫 자리에 둔 것은 이 단어가 원문에서 강조를 위해 동사(נָשׁוּב[나슈브]) 앞에 나온 것을 고려한 것이다.

---

[5] Bruce K. Waltke and Michael O'Conner,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0), 509-10 은 이 용법을 지시의 미완료(nonperfective of injunction)라고 부른다. 룻 1:17 의 כֹּה יַעֲשֶׂה יְהוָה לִי [코 야아쎄 아도나이 리]라는 절에 들어 있는 미완료형 יַעֲשֶׂה [야아쎄]도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절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각 절 주석 (룻 1:6-10)

6. 룻 1:6

1) 원문 문제

(룻 1:6)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מִשְּׂדֵי מוֹאָב
כִּי שָׁמְעָה בִּשְׂדֵה מוֹאָב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 לָתֵת לָהֶם לָחֶם׃

①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מִשְּׂדֵי מוֹאָב에서 주어와 동사는? 주어가 복합 주어일 때 주어 앞에 오는 동사와 주어 뒤에 오는 동사의 일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참고, 창 31:4)? (GKC 146 f, g; WHS 227, 228, 230; cf. GKC 145s, u)

②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 . . כִּי שָׁמְעָה . . . וַתֵּצֵא (1:7) (1:6)에서 복합주어 뒤에 오는 동사도 단수로 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의도에 따라 복합 주어 부분 הִיא וְכַלֹּתֶיהָ를 번역하면?

③ כִּי שָׁמְעָה בִּשְׂדֵה מוֹאָב에서 접속사 כִּי의 뜻과 완료형의 용법은(GKC 106f)?

④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에서 접속사 כִּי의 뜻과 완료형의 용법은(GKC 106f)?

⑤ לָתֵת לָהֶם לָחֶם에서 (같은 모음: vocalic assonance 와 함께) 세 개의 לל이 나오는 문예적 기교의 이름은? 이 부정사구의 용법은(WHS 195; IBHS 36.2.3.e)?

2) 주석

룻 1:6 [그러던 어느 날] 그녀[=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① 서막(1:1-5)에 이어서 내레이터는 1 막의 전체(1:6-22)및 대화의 무대를 1 막의 처음 두 절(1:6-7)에서 설명한다. 내레이터는 설명하는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여호와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행위는 종속절(1:6b)로 표현하고 나오미의 행위는 주절로 표현하였다. 내레이터는 나오미를 주절들의 주어(1:6a, 1:7)로 삼고 단수 동사를 쓰며 그녀의 며느리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나오미를 전면에 내세운다.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나오미는 (1)**일어섰고**(וַתָּקָם[바타콤] 1:6 단수) 그녀의 며느리와 함께(הִיא וְכַלֹּתֶיהָ[히 브할로테하] 복합 주어: 직역, 그녀와 그녀의 며느리들이) (2)**돌아올 채비를 차렸고**(וַתָּשָׁב [바타쇼브] 단수)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3)**들었었고**(שָׁמְעָה[샴아] 단수) 머물던 곳을 (4)**떠났고**(וַתֵּצֵא [바테체] 1:7 단수) 그 때 두 며느리가 그녀와 함께(명사문שְׁתֵּי כַלֹּתֶיהָ עִמָּהּ [우시테 할로테하 이마흐]) 있었고 그들은 유다로 돌아오려고 길을 (5)**나섰다**(וַתֵּלַכְנָה[바텔라흐나] 복수).

② 둘 이상으로 된 복합 주어 앞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로 나올 수 있지만 복합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는 복수로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6 절의 복수주어 "הִיא וְכַלֹּתֶיהָ [히 브할로테하]

그녀와 그녀의 두 며느리" 앞에 오는 동사 ⑴וַתָּקָם [바타콤]은 관례대로 단수이지만, 복수 주어 뒤에 오는 동사 ⑵וַתָּשָׁב[바타쇼브]는 복수가 아니라 (관례에 어긋나는) 단수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여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복합 주어 הִיא וְכַלֹּתֶיהָ [히 브할로테하]를 공동주어처럼 "그녀와 그녀의 며느리가" 돌아올 채비를 했다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녀가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고 번역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1:7 에서 단수 동사(וַתֵּצֵא[바테체] 1:7 "그녀[=나오미]가 떠났다")를 첫 동사로 놓은 후 두 며느리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명사문(וּשְׁתֵּי כַלֹּתֶיהָ עִמָּהּ [우시테 할로테하 이마흐] "그녀의 두 며느리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어와 동사의 일치 문제에 유의하면 나오미를 가리키는 3 인칭 여성 단수 동사가 6 절 처음부터 7 절 상반절까지 계속 사용되다가 7 절 마지막에서만 나오미와 며느리들을 가리키는 3 인칭 여성 복수 동사(וַתֵּלַכְנָה[바텔라흐나])가 사용된다. 이렇게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나오미의 귀향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며 과연 누가 유다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

③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방 땅 모압에 홀로 남게 된 여인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그것은 **그녀가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문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나오미는 먼저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심을 들었다. 그 후 나오미는 여호와의 긍휼이 임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④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들은 소식은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 [키 파카드 아도나이 에트-아모]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 파카드(פָּקַד)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 언약 준수 조항과 관련하여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Hubbard, 100; Block, 631). 부정적으로는 전치사 עַל[알]과 함께 "벌을 주다"(출 20:5; 레 18:25; 삼상 15:2; 사 13:11; 호 4:14)는 의미로 쓰이고, 긍정적으로는 여기에서처럼 "돌보다, 돕다, 보살피다"(창 50:24, 25; 출 4:31; 렘 15:15; 습 2:7)는 의미로 쓰인다. 슥 10:3(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에는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나란히 쓰였다. 긍정의 의미로 쓰인 구절들을 좀더 살펴보면 시 65:9[MT 65:10]에서 하나님이 땅을 권고하사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신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창 21:1 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사 이삭을 낳게 해 주시고, 삼상 2:21 에서 한나를 권고하사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 주신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⑤ 여호와께서 돌보신 대상을 **그의 백성**(עַמּוֹ[아모])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출 19:5-6).[6]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잊으시거나 거부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 수단으로 언급된 것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었다. 부정사 구문(לָתֵת לָהֶם [**라테트 *라헴* 라헴**] "**주심으로써-그들에게-양식을**")은 세 단어가 같은 자음(ל[라멧])으로 시작하는 두운, 같은 모음을 보이는 모운(아, 에), 같은 자음으로 끝나는 각운(ם[멤])을 갖고 있다. 이 부정사 구문을 히브리어로 듣는 독자는 지명 베들레헴[**베트 레헴**]과 연관지어 언어유희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므로 "떡집"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벗어나 곡식이 다시 가득 차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때에 그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이다.

⑥ 룻기 전체를 통하여 내레이터가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 1:6 과 4:13 두 절 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23 번 나오지만 2 번만 내레이터의 입을 통하여 언급되고 21 번은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하여 언급된다. 배경 묘사에서 제기되었던 흉년과 후사 문제가 내러티브 중심 부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여호와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레이터는 1:6 에서 여호와께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양식을 주신 일을 언급하고 4:13 에서 여호와께서 가문 멸절 위기를 해결할 아들을 주신 일을 언급한다. 허버드(69)는 이것을 여호와 이름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언급함으로써 그 사이에 일어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

[6]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trans. W. Hendriksen (Grand Rapids: Baker, 1977), 106: "The One who appears to Moses is not a new or a strange God, but God of the fathers, the Unchangeable the Immutable One, the Faithful One, the eternally Self-consistent One, the One who never leaves or forsakes his people but ever seeks his own and ever saves them, who is unchangeable in his grace, in his love, in his succor, who will be what he is, since he ever remains himself." 바빙크는 출 3:13-15 을 근거로 **여호와**가 추상적인 의미의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자존성(the One who is - aseity)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what he is and what is his character, that is, he will be what he has been for the patriarchs, what he is now, and what he will be: for his people he will be everything)을 보여주며 은혜에 있어서 불변하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the God who is unchangeable in his grace, the Ever-faithful Covenant God)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베르코프(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th Revised & Enlarg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49)도 **여호와**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그 불변성은 본질적 존재의 불변성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한 하나님이셨듯이 이제 모세 시대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인 것을 볼 수 있는 표지를 세운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이름에 의한 수미쌍관법"(theological inclusio)라고 불렀다.

⑦ 씨앗(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씨앗(아들)을 빼앗긴 무대가 되어 버린 모압 땅에서 슬픔과 고난 중에 있던 나오미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기근([라아브])을 피하려다가 죽음([모트])의 덫에 걸려 남편과 아들들이 사라져 버린 무대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신 은혜로운 일을 전해들은 나오미는 모압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고향으로부터 들려온 좋은 소식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은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올 채비를 하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선물 소식에 나오미가 귀향으로 반응하는 것은 나오미의 여호와에 대한 계속되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나오미의 마음은 여호와의 긍휼이 나타난 곳,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적 자비가 나오미의 귀향의 결과를 낳은 것은 굶주려 죽을 지경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라는 생각을 하며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해 준다(눅 15:17-20). 죄인인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7]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생각이 우리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

⑧ 6 절에 처음 나오는 "**돌아오다**(שׁוּב[슈브])"라는 동사는 제 1 막(1:6-22)의 중심 단어로 12 번 사용되었다. 1 막 1 장(1:6-18)에서 9 번(6, 7, 8, 10, 11, 12, 15, 15, 16) 사용되고 1 막 2 장(1:19-22)에서 3 번(21, 22, 22) 사용되었다. 6 번은 모압(8, 11, 12, 15, 15, 16)으로 오르바와 룻이 돌아가는 것에 쓰였고, 6 번은 나오미와 룻이 유다(6, 7, 10, 21, 22, 22)로 돌아오는 것에 쓰였다.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1:6-7 에서 나오미만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내레이터가 이스라엘 여인, 즉 모압을 떠나 유다로 돌아오고 있는 여인의 눈을 통하여 이 사건을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 룻 1:7

1) 원문 문제

(룻 1:7) וַתֵּצֵא מִן־הַמָּקוֹם אֲשֶׁר הָיְתָה־שָּׁמָּה וּשְׁתֵּי כַלֹּתֶיהָ עִמָּהּ
וַתֵּלַכְנָה בַּדֶּרֶךְ לָשׁוּב אֶל־אֶרֶץ יְהוּדָה׃

[7] Sinclair B. Ferguson, *Faithful God: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uth* (Bryntirion: Bryntirion Press, 2001), 34.

① מִן־הַמָּקוֹם אֲשֶׁר הָיְתָה־שָׁמָּה에서 הָיְתָה(1:2 참조, BDB 226 III. 2)와 שָׁמָּה의 의미는(참고: 사 34:15; 겔 23:3; 32:22-30)?

② 명사문 וּשְׁתֵּי כַלֹּתֶיהָ עִמָּהּ의 역할은(WHS 494)? 6 절의 복합 주어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명사문을 쓴 저자의 의도는?

③ וַתֵּצֵא. . . וַתֵּלַכְנָה에서 보는 것처럼 단수 동사형에서 복수 동사형으로 전환한 저자의 의도는?

④ 부정사구 לָשׁוּב אֶל־אֶרֶץ יְהוּדָה의 용법은?

2) 주석

룻 1:7 그녀가 머물던 곳을 떠날 때 (그녀의) 두 며느리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 [셋]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

①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준비를 한 나오미가 머물던 곳으로부터 나올 때 그녀의 두 며느리들도 함께 했으며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 **그녀가 머물던 곳**(אֲשֶׁר הָיְתָה־שָׁמָּה [아셰르 하이타-샤마])이란 표현은 2 절의 "וַיִּהְיוּ־שָׁם [바이흐유-샴] 그들이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회상하게 해 준다. 여기 방향의 헤를 갖고 있는 שָׁמָּה[샤마]의 의미는 방향의 헤가 붙지 않은 שָׁם[샴]과 똑같다. 6 절을 설명할 때 말한 대로 7 절의 구문이 **나오미**를 주어로 하고 이에 일치하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여 **모압을 떠나**는 것을 묘사하고 **그녀의 두 며느리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명사문을 사용한 것은 6 절부터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초점이 나오미의 귀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레이터는 독자의 마음에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두 며느리의 입장과 의도의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넌지시 제시한다.

② 그러나 **그들 [셋]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고 말하는 7 절의 마지막 절에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받는 복수 대명사 주어와 일치하는 복수 동사가 나온다. 이처럼 나오미와 일치하는 단수 동사(וַתֵּצֵא [바테체])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 일치하는 복수동사(וַתֵּלַכְנָה [바텔라흐나])로 바뀐 것은 길을 나선 세 여인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전달하며 뒤 따라 나오는 이들의 대화(1:8-17)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Hubbard, 101). 그들 셋이 길을 나선 목적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 "가다, 오다, 걷다, 길을 나서다"라는 의미의 동사 הָלַךְ[할라흐]는 1 절에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7 절에서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유다로 돌아오려고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선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1 장에 사용된 왕래발착 동사의 빈도를 살펴보면 "שׁוּב[슈브] 돌아오다"가 12 번 사용되고(6 절 참조), "הָלַךְ [할라흐] 걷다"가 10 번[1, 7, 8, 11, 12, 16, 16, 18, 18, 19, 21 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③1 절에서 목적을 표시하는 부정사(לָגוּר[라구르] 우거하려고)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에브랏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듯이, 7 절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לָשׁוּב[라슈브] **돌아오려고**)도 이 세 과부가 과연 그들의 목적지 유다 땅에 이를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나오미가 돌아오고 그녀와 함께 유다에 이르게 될 며느리가 있을 것인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는 모압 여인 며느리가 있다면 그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신(6 절, cf. 시 65:9) 여호와께서 사라(창 21:1)나 한나(삼상 2:21)를 권고하신 것처럼 모압 여인(들)에게도 후사를 주실 것인가? 뒤이어 나오는 대화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8. 룻 1:8

1) 원문 문제

(룻 1:8) וַתֹּאמֶר נָעֳמִי לִשְׁתֵּי כַלֹּתֶיהָ לֵכְנָה שֹׁבְנָה אִשָּׁה לְבֵית אִמֶּהָ
יַעֲשֹׂה [כ= יַעֲשֶׂה] [ק= יַעַשׂ] יְהוָה עִמָּכֶם חֶסֶד כַּאֲשֶׁר עֲשִׂיתֶם עִם־הַמֵּתִים וְעִמָּדִי׃

①לֵכְנָה שֹׁבְנָה에서 לֵכְנָה의 용법은(BDB p. 234 5f[2], cf. 삼상 9:9; 출 4:19; 왕상 19:15, 20; 왕하 1:6)? (참고, 룻 1:12 에서는 역순(שֹׁבְנָה בְנֹתַי לֵכְנָ)으로 나오는데 두 동사가 각각 그 고유의 의미를 갖는다. Bush, 75: expletive use i.e., an introductory word to gain attention much as English "come, come on." A more colloquial rendering might be "Well!" or "Well now!")

②לֵכְנָה שֹׁבְנָה를 번역하면? 중언법에 쓰이는 동사는 부사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자주 쓰이는 동사들의 완료형은 שָׁב(다시 [하다]), הוֹסִיף(또 [하다]), הוֹאִיל(즐거이 [하다]), מִהַר(빨리 [하다]), הִשְׁכִּים(아침에 일찍 [하다]), הִרְבָּה(많이 [하다]) 등이다.[8]

---

[8] BDB 234 5f[2], cf. 삼상 9:9; 출 4:19; 왕상 19:15, 20; 왕하 1:6. הָלַךְ[할라흐]처럼 중언법의 첫 동사로 쓰이며 부사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동사들의 완료형은 שָׁב[샤브] (다시 [하다]), הוֹסִיף[호씨프] (또 [하다]), הוֹאִיל[호일] (즐거이 [하다]), מִהַר[미하르] (빨리 [하다]), הִשְׁכִּים[히시킴] (아침에 일찍 [하다]), הִרְבָּה[히르바] (많이 [하다]) 등이다. 이와는 달리 룻 1:12 에 역순으로 나오는 שֹׁבְנָה לֵכְנָה [쇼브나 레흐나]는 두 동사가 각각 그 고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돌아들 가거라, 어서 (돌아) 가거라!"로 번역해야 한다. 중언법(verbal hendiadys)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239-240).

- 동사+바브+동사
  창 25:1 וַיֹּסֶף אַבְרָהָם וַיִּקַּח אִשָּׁה 아브라함이 후처를[다시 아내를] 취하였다.
  수 7:7 וְלוּ הוֹאַלְנוּ וַנֵּשֶׁב בְּעֵבֶר הַיַּרְדֵּן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삿 19:7 וַיָּשָׁב וַיָּלֶן שָׁם 그가 다시 거기서 유숙하였다
  창 45:13 וּמַהַרְתֶּם וְהוֹרַדְתֶּם אֶת־אָבִי הֵנָּה 내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창 19:2 וְהִשְׁכַּמְתֶּם וַהֲלַכְתֶּם לְדַרְכְּכֶם 그리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 동사+동사
  창 30:31 אָשׁוּבָה אֶרְעֶה צֹאנְךָ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리이다
  삼상 3:5 שׁוּב שְׁכָב 다시 누우라

③ אִשָּׁה לְבֵית אִמָּהּ에서 אִשָּׁה와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 הָ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은? (BDB p. 61, 4, cf. 출 11:2; 렘 9:20; cf. WHS 131; BDB p. 36, cf. 창 40:5; 출 12:3; 욥 42:11)[9]

④ "아버지의 집"(cf. 과부된 딸은 보통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묘사됨: 창 38:11; 레 22:13; 민 30;17; 신 22:21; 삿 19:2-3)이란 말 대신 "어머니의 집"이 쓰인 이유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인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위로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인가? 모계사회가 존재 했다는 암시인가? 창 24:28; 아 3:4; 8:2 처럼 "어머니의 집"이 언급된 것은 결혼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습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일부다처주의적 가정에서 부인들이 따로 거주하는 장소나 어떤 적절한 경우 가족 거주 장소를 어머니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시(75: Porten, *GCA* 7 [1978]; cf. Trible, 169)가 말한 대로 과부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살려하지 말고 친정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나오미의 바램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인가?

잠 23:35 אוֹסִיף אֲבַקְשֶׁנּוּ עוֹד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호 5:11 כִּי הוֹאִיל הָלַךְ אַחֲרֵי־צָו (에브라임이) 더러운 것을 좇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왕하 5:23 הוֹאֵל קַח כִּכָּרָיִם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삿 9:48 מַהֲרוּ עֲשׂוּ כָמוֹנִי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 동사+전치사 라멧+부정사
  신 30:9 כִּי יָשׁוּב יְהוָה לָשׂוּשׂ עָלֶיךָ לְטוֹב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출 2:21 וַיּוֹאֶל מֹשֶׁה לָשֶׁבֶת אֶת־הָאִישׁ 모세가 그 사람과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다
  창 18:7 וַיְמַהֵר לַעֲשׂוֹת אֹתוֹ 그가 급히 준비(요리)하였다
  삼하 15:14 מַהֲרוּ לָלֶכֶת 빨리 가라
- (동사+전치사 라멧+)부정사+전치사 라멧+부정사
  신 24:4 לֹא־יוּכַל לָשׁוּב לְקַחְתָּהּ לִהְיוֹת לוֹ לְאִשָּׁה 그가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다
- 동사+바브+동사(2 중의 중언법을 이루는 동사)+바브+동사
  수 8:14 וַיְמַהֲרוּ וַיַּשְׁכִּימוּ וַיֵּצְאוּ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급히 나갔다
- 동사(קוּם/הלך) + 동사
  창 27:19 קוּם־נָא שְׁבָה **어서** 앉으십시오. [개역의 "*일어나* 앉으사"는 오역임]
  출 32:1 קוּם עֲשֵׂה־לָנוּ אֱלֹהִים **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개역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오역임]

[9] BDB p. 61, 4, cf. 출 11:2; 렘 9:20; cf. WHS 131; BDB p. 36, cf. 창 40:5; 출 12:3; 욥 42:11.
출 11:2 וְיִשְׁאֲלוּ אִישׁ מֵאֵת רֵעֵהוּ וְאִשָּׁה מֵאֵת רְעוּתָהּ כְּלֵי־כֶסֶף וּכְלֵי זָהָב: 남녀로 각 이웃들에게 은, 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렘 9:20 [MT 19]וְלַמֵּדְנָה בְנוֹתֵיכֶם נֶהִי וְאִשָּׁה רֵעוּתָהּ קִינָה: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창 40:5 וַיַּחַלְמוּ חֲלוֹם שְׁנֵיהֶם אִישׁ חֲלֹמוֹ בְּלַיְלָה אֶחָד אִישׁ כְּפִתְרוֹן חֲלֹמוֹ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출 12:3 וְיִקְחוּ לָהֶם אִישׁ שֶׂה לְבֵית־אָבֹת שֶׂה לַבָּיִת: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욥 42:11 וַיִּתְּנוּ־לוֹ אִישׁ קְשִׂיטָה אֶחָת וְאִישׁ נֶזֶם זָהָב אֶחָד: 그들이 그를 위하여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

⑤ יַעֲשֹׂה יְהוָה에서 Kethiv-Qere 는(GKC 109 a, fn.2; GKC 75hh)?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은 K 를 따랐는가 아니면 Q 를 따랐는가? (Cf. Brotzman, *OT Textual Criticism*, 136-137; 미완료형 K 도 간접명령형 Q 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GKC 107p] 본문 비평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⑥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중에 나오는 עִמָּכֶם 과 עֲשֹׂיתֶם 처럼 접미요소가 두 여인을 가리킬 때 לָהֶן(1:9b)이나 בֹּאָנָה(1:19 2x)나 עֲלֵיהֶן (1:19)처럼 여성형으로 쓰이지 않고 남성형처럼 보이는 형이 룻기에서 총 7 번 사용되었다(עִמָּכֶם, עֲשֹׂיתֶם 1:8; לָכֶם 1:9, 11; מִכֶּם 1:13; שֹׂתֵיהֶם 1:19; 4:11).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Hubbard, 4, n. 12.)?

⑦ עִמָּדִי와 의미가 같은 다른 형은?

2) 주석

룻 1:8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어서, 너희들은 각각 [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① 모압을 떠나 유다로 돌아오던 노상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말문을 연다. 모압에서 낯선 자 곧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된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며느리들이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날 문제와 어려움을 고려한다. 나오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 유다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라고 여긴다. 그래서 나오미는 권면(1:8a)과 축복(1:8b) 그리고 기도(1:9)로 되어 있는 긴 말을 한다.

② 나오미는 먼저 룻과 오르바에게 "**자 어서 각각 [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한다(1:8a). "**자 어서, 돌아가라**!"는 번역은 첫 번째 동사 לֵכְנָה[레흐나]가 두 번째 동사 שֹׁבְנָה[쇼브나]와 중언법(hendiadys)을 이루며 첫 동사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사처럼 쓰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10] "각각"이란 번역은 אִשָּׁה לְבֵית אִמָּהּ [이샤 르베트 이마흐]에서 אִשָּׁה[이샤]와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 הָ[아흐]가 결합하여 나타내는 분배적(distributive)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11] בֵּית אֵם [베트 엠]을 직역하면 "**어머니의 집**"이다. 유다가 과부된 며느리 다말에게 아버지 집(창 38:11)에 가 있으라고 한 것처럼 과부된 딸이 돌아가는 집은 보통 아버지의 집(cf. 레 22:13; 민 30;17; 신 22:21; 삿 19:2-3)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친]어머니의 집**, 즉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

[10] BDB 234, 5f[2], cf. 삼상 9:9; 출 4:19; 왕상 19:15, 20; 왕하 1:6. 이와는 달리 룻 1:12 에 역순으로 나오는 שֹׁבְנָה לֵכְנָה [쇼브나 레흐나]는 두 동사가 각각 그 고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돌아들 가거라, 어서 (돌아) 가거라!"로 번역해야 한다. 중언법의 구체적인 예들은 위의 원문 문제 부분을 참고하라.

[11] BDB 61, 4, cf. 출 11:2; 렘 9:20; cf. WHS 131; BDB 36, cf. 창 40:5; 출 12:3; 욥 42:11. 분배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들은 위의 원문 문제 부분을 참고하라.

③ 어떤 이는 룻과 오르바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위로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모계사회도 존재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캠벨(64)과 허버드(102-3)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창 24:28 과 아 3:4; 8:2 에 근거해서 결혼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여긴다. 블락(632-33)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13] 이에 대하여 부시(75)는 근거가 희박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부시는 창 24:23 의 "아버지의 집, 부친의 집" 대신에 쓰인 창 24:28 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아 3:4; 8:2 의 "어머니의 집"은 일부다처주의적 가정에서 부인들이 따로 거주하는 장소를 갖거나 어떤 적절한 상황에서 가족 거주 장소를 어머니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는 나오미가 제시하기를 원하는 대조, 즉 과부가 친어머니에게로 돌아가야지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 적절히 "어머니의 집"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주석은 부시의 설명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본다.[14] 싸켄펠트(Sakenfeld, 23)와 영거(Younger, 420)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④ 시어머니인 자신과 친정 어머니를 대조하며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있는 더 좋은 길을 택하도록 며느리들더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나오미는 집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은 재난 위에다가 이제 며느리들을 먼저 배려하며 또 하나의 재난을 스스로 더 하려고 한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청산하고 혼자서 돌아오려고 하였던 것이다.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축복(1:8b)을 한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나오미의 죽은 두 아들들을 지칭한다. 블락(634)이 죽은 자들 속에 나오미의 죽은 아들들과 나오미의 죽은 남편도 포함시켜 해석한 것은 무리가 있다. 배경 설명에서 모압 거주 기간을 총 10 년으로 보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 뒤에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것으로 이해하면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만났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보다 먼저 세상 떠난 아들들을 죽은 자들로 부른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그 죽은 자들, 즉 그들의 남편들에게 한결같은

---

[13] Block(632, n. 46)은 Carol M. Meyers, "Returning Home: Ruth 1:8 and the Gendering of the Book of Ruth," in *Feminist Companion to Ruth*, ed. Athalya Brenner, Sheffield, 1993, 99-114 을 들며 그녀의 다섯 가지 관찰 사항을 요약한다.

[14] Bush(75)는 포텐(Porten, "The Scroll of Ruth", *GCA* 7 [1978]: 26)의 주장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과정에서 나오미가 여자들의 상호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표현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한 트리블(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1978], 169)의 주장을 참조하라고 소개한다.

인애를 베풀었고 또한 자신에게도 그랬던 것을 인정한다. 나오미의 말은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나오미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가 헌신적으로 아내와 며느리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넌지시 일러준다.

⑤ 나오미의 말 중에 나오는 "עִמָּכֶם[이마헴] 너희에게"와 "עֲשִׂיתֶם[아씨템] 너희가 베풀었다"라는 단어들처럼 접미요소가 두 여인을 가리킬 때 남성형처럼 보이는 형이 룻기에서 총 7 번[15] 사용되었다.

- 이에 대하여 허버드(4, n. 12)는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Joüon(GBH 149b): 후기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여성어미가 남성어미로 대치된 것

  J. M. Myers(20): 이른 시기의 방언적 특징

  Campbell(65): 이른 시기의 여성 양수 (cf. 삼상 6:7, 10; 출 1:21; 삿 16:3; 19:24)

  G. Rendsburg (JQR 73: 38-48): 공성 양수

  GKC 135o, 144a; Ratner(53-56): 단순한 구어적 표현(simple colloquial speech)

- 이에 대하여 부시(75-76)는 앤더슨, 캠벨, 렌스버그(Andersen, Campbell, Rendsburg) 등이 주장하는 것 같이 남성 복수 접미 요소처럼 -m 을 갖지만 남성 복수와 다른 모음을 가졌던 초기 히브리어 **공성 양수 접미 요소**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보며 지지 근거로 양수 접미 요소를 갖고 있는 아랍어와 우가릿어에서 남성 복수와 다른 모음을 갖는 공성 양수가 있는 것을 지적한다.[16] 부시는 두 여인을 가리킬 때 여성 복수 접미 요소가 לָהֶן([라헨] 1:9b), בֹּאָנָה([보아나] 1:19 2x),

---

[15] עִמָּכֶם [이마헴], עֲשִׂיתֶם [아씨템] 1:8; לָכֶם [라헴]1:9, 11; מִכֶּם [미켐]1:13; שִׂמְתִּיהֶם[시테헴] 1:19; 4:11

[16] Bush(94-95)는 1:22 에서 자립인칭대명사 הֵמָּה[헤마]가 두 여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3 인칭 남성 복수로 보지 않고 이른 시기의 히브리어 3 인칭 공성 양수로 보았다. Cf. Sabatino Moscati,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Wiesbaden: Otto Harrassovitz, 1980), 102, 106. Daniel Sivan, *A Grammar of the Ugaritic Language* (Leiden: Brill, 1997), 49, 51-53.

	자립대명사			접미대명사		
	우가릿어	아랍어	히브리어	우가릿어	아랍어	히브리어
2 m p	'atm ['atummū]	'antum(ū)	'attem	-km [kumū]	-kum(u)	-kem
2 f p	?	'antunna	'atten(ā)	-kn [kinnā]	-kunna	-ken
3 m p	hm [humū]	hum(ū)	hemmā	-hm [humū]	-hum(u)	-(he)m
3 f p	hn [hinnā]	hunna	hen(nā)	-hn [hinnā]	-hunna	-(he)n
2 c d	?	'antumā	?	-km [kumā]	-kumā	?
3 c d	hm [humū]	humā	?	-hm [humā]	-humā	?

עֲלֵיהֶן([알레헨] 1:19)에서처럼 4 번 쓰인 것도 지적하며 이 현상에 대하여 양수가 구어에서 사라지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여성 복수로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⑥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삶을 한결같은 인애의 삶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룻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본 주석에서 **한결같은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חֶסֶד[헤쎄드]는 1:8 과 2:20 그리고 3:10 등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나온다.[17] *NIDOTTE*(2:211 #2874)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46 번 사용되었고 그 절반 이상이 시편에 나온다. 이 단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거나 사람들(신실한 자,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1:3 의 비율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묘사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헤쎄드는 하나님의 자비의 신실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를 나타낸다. 한결같은 인애는 존재하는 관계 안에서 행하여지는 덕목이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가 아니고, 용서를 베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아니며, 불시에/뜻밖에(out of the blue) 주어지는 행위가 아니다(Sakenfeld, 24). 일반적으로 한결같은 인애는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수혜자가 절박한 필요를 채워야 할 입장에 있고 시혜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책임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수혜자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며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을 넘어선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⑦ 나오미가 지적한 룻과 오르바의 한결같은 인애는 모압에 우거하러 왔던 그들의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모압 여인으로서 각별한 헌신을 했던 것을 암시한다. 나오미는 그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들의 필요를 채워 줄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시혜자의 역할을 맡기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실 것을 빈다**. 며느리들을 위해 복을 비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만사가 잘 해결될 것이다. 나오미의 축복대로 여호와께서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베푸실 한결같은 인애의 구체적인 내용은 9 절의 다음 기도에 들어있다.

9. 룻 1:9

1) 원문 문제

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מְנוּחָה אִשָּׁה בֵּית אִישָׁהּ וַתִּשַּׁק לָהֶן וַתִּשֶּׂאנָה קוֹלָן וַתִּבְכֶּינָה׃ (룻 1:9)

---

[17] 개역/개역개정에 חֶסֶד[헤쎄드]가 나오는 구절들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 같은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새번역/쉬운성경/우리말성경도 [헤쎄드]를 하나로 통일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본 주석은 모두 "한결같은 인애"로 번역하였다.

[1:8]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2:20]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3:10]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①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에서 간접명령형(jussive)과 명령형(imperative)이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연결 바브를 가진 명령형이 간접명령형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가(Hubbard cf. GBH 177h; 창 47:6)?, 아니면 연결 바브를 가진 명령형이 간접 명령형의 의도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가(Campbell, cf. GKC 110i; 창 20:7)? 다시 말하면 이 절은 יִתֵּן יְהוָה לָכֶם לִמְצֹא의 의미인가? 아니면 מַשְׂכֹּרֶת וּמְצָאן[reward 2:12] יִתֵּן יְהוָה לָכֶם의 의미인가?

창 47:6 וְאִם־יָדַעְתָּ וְיֶשׁ־בָּם אַנְשֵׁי־חַיִל וְשַׂמְתָּם שָׂרֵי מִקְנֶה עַל־אֲשֶׁר־לִי׃

네가 <u>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u>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창 20:7 וְיִתְפַּלֵּל בַּעַדְךָ וֶחְיֵ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미완료 + 명령형 → 결과]

②אִשָּׁה בֵּית אִישָׁהּ에서 אִשָּׁה와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 הָ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은?

③מְנוּחָה אִשָּׁה בֵּית אִישָׁהּ에서 בֵּית אִישָׁהּ는 מְנוּחָה와 동격인가(Hubbard, 98, n. 13)? 아니면 전치사 없이 부사적으로 사용된 것인가(Sasson, 24; Bush 76; cf. GBH 133c)? בֵּית אִישָׁהּ와 מְנוּחָה가 동격이라면 אִשָּׁה가 그 사이에 있으므로 보통 동격은 앞의 요소 바로 뒤에 오는 사실과 배치되고, 선행 요소 מְנוּחָה는 한정된 명사가 아닌데 동격 בֵּית אִישָׁהּ는 한정된 명명구란 점에서 이상하며, בַּיִת가 "집에서"라는 의미로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도 있고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는(민 30:4 vs. 30:11; 왕하 11:4b vs. 4d) 것을 고려하라.

④וַתִּשַּׁק לָהֶן의 의미는(cf. 창 31:28; 삼하 19:39; 왕상 19:20)?

⑤וַתִּשֶּׂאנָה קוֹלָן וַתִּבְכֶּינָה를 중언법(hendiadys)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2) 주석

룻 1: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미가 [작별을 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엉엉 울면서 (10 나오미에게 말했다.)

①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아무런 인애를 베풀 수 없던 나오미는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인애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도한다. 이 기도에 나오는 두 동사는 간접명령형(jussive) 3 인칭 남성 단수 יִתֵּן[이텐]과 명령형(imperative) 2 인칭 여성 복수 מְצָאן[므체나]이다. 첫 동사 יִתֵּן[이텐]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된 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이텐 아도나이 라헴 움체나]에 대하여 주옹(GBH 177h: 창 47:6; 신 5:26; 31:12; 사 1:19; 에 8:6)은 명령형이 간접명령형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부시(76)도 이를 따른다.[18] 그러나 캠벨(65-

[18] 창 47:6 וְאִם־יָדַעְתָּ וְיֶשׁ־בָּם אַנְשֵׁי־חַיִל וְשַׂמְתָּם שָׂרֵי מִקְנֶה עַל־אֲשֶׁר־לִי׃

66)은 명령형이 간접명령형의 목적어가 되는 예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접명령형 다음에 원래 목적어 מַשְׂכֹּרֶת[마스코레트 "reward, 상" cf. 2:12]가 있었다고 보며 명령형이 간접명령형의 의도된 결과(GKC 110i: 창 20:7; 출 14:16; 왕하 5:10; 욥 11:6; 시 128:5; 룻 4:11)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19] 허버드(98, n. 11)는 GBH(177h: 룻 1:9)와 GKC(110i: 룻 1:9)의 이 절에 대한 이해가 구문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목적어가 없는 맛소라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이텐 아도나이 라헴 움체나]에서 접속사+명령형으로 이루어진 וּמְצָאן[움체나]가 יִתֵּן יְהוָה לָכֶם לִמְצֹא [이텐 아도나이 라헴 림초]처럼 전치사+부정사로 이루어진 לִמְצֹא[림초]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GKC 와 캠벨의 해석대로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에게 (상을) 베푸셔서 그들이 남편 집에서 평안함을 얻든**, GBH 와 부시와 허버드의 해석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남편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해 주시든**, 어느 쪽을 취해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 비는 기도의 결과는 마찬가지다.

② 부계 사회에서 과부가 새 남편의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기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에게 각각 새 남편을 주시고 새 남편의 집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길 기도했다. 8 절에서처럼 אִשָּׁה בֵּית אִישָׁהּ [이샤 베트 이샤흐]에서 אִשָּׁה와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 הָ [아흐]의 결합에 의해 표현되는 것은 "**각각**"이란 분배적(distributive) 의미이고 이 구 전체의 의미는 전치사 없이 사용된 부사구(Sasson, 24; Bush 76; cf. GBH 133c)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이다. 이 구 앞에 나오는 "**평안함**"이란 단어 מְנוּחָה[므누하]에 대하여 허버드(98, n. 13)는 בֵּית אִישָׁהּ[베트 이샤흐]와 동격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격으로 볼 수 없다. 첫째, מְנוּחָה [므누하]와 בֵּית אִישָׁהּ[베트 이샤흐]가 동격이라면 אִשָּׁה[이샤]가 그 사이에 있으므로 보통 동격은 앞의 요소 바로 뒤에 오는 사실과 배치된다. 둘째, 선행 요소인 명사 מְנוּחָה[므누하]는 한정되지 않은 반면 동격의 명명구 בֵּית אִישָׁהּ [베트 이샤흐]는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상하다. 셋째, בַּיִת[바이트]가 "집에서"라는 의미로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도 있고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는(민 30:4 vs. 30:11; 왕하 11:4b vs. 4d)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מְנוּחָה[므누하]는 목적어이고 בֵּית אִישָׁהּ [베트 이샤흐]는 전치사 없이 쓰인 부사구로 보는 것이 바른 구문 해석이다.

③ "어서 각각 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면(1:8a)과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인애 베푸시길" 비는 축복(1:8b)과 "**여호와께서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해 주시길**" 비는 기도(1:9a)의 말을 마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춘 것은**

네가 <u>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u>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19] 창 20:7 וְיִתְפַּלֵּל בַּעַדְךָ וֶחְיֵ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미완료 + 명령형 → 결과]

작별을 위한 것이었다. 룻 1:9 처럼 작별하려고 입맞춤의 제스처를 취한 것은 창 31:28(라반: 딸들과 손자들)과 삼하 19:39(다윗: 바르실래)와 왕상 19:20(엘리사: 부모)에서도 볼 수 있다. 작별의 입맞춤은 나오미, 룻, 오르바 모두를 **엉엉 울게** 만들었다. 여기서 **엉엉 울었다**고 번역한 것은 두 개의 동사 즉 **그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였다**(וַתִּשֶּׂאנָה קוֹלָן [바티쎄나 콜란])는 동사와 **그들이 울었다**(וַתִּבְכֶּינָה[바티브케나])는 동사로 되어 있는 중언법(hendiadys)을 첫 번째 동사는 부사로 번역하고 두 번째 동사는 동사로 번역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20]

10. 룻 1:10

1) 원문 문제

וַתֹּאמַרְנָה־לָּהּ כִּי־אִתָּךְ נָשׁוּב לְעַמֵּךְ׃ (룻 1:10)

① 미완료 נָשׁוּב의 용법은(GBH 113n)? 미완료의 서법(敍法: 말하는 자의 심리적 태도를 서술하는 법)적인 용법들(GBH 113 l-n; WHS 169-172; IBHS 31.4 GKC 107m-x)을 참고하라.

- 능력(potential, WHS 169)

  신 1:12 אֵיכָה אֶשָּׂא לְבַדִּי טָרְחֲכֶם וּמַשַּׂאֲכֶם וְרִיבְכֶם׃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cf. 신 1:9 לֹא־אוּכַל לְבַדִּי שְׂאֵת אֶתְכֶם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 허용(permissive, WHS 170)

  창 2:16 מִכֹּל עֵץ־הַגָּן אָכֹל תֹּאכֵ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창 42:37 אֶת־שְׁנֵי בָנַי תָּמִית אִם־לֹא אֲבִיאֶנּוּ אֵלֶיךָ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 소원, 희망(desiderative, WHS 171)

  창 24:58 הֲתֵלְכִי עִם־הָאִישׁ הַזֶּ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으냐

  삼상 21:9[MT 21:10] אִם־אֹתָהּ תִּקַּח־לְךָ קָח 네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면 가지라

- 의무(obligative, WHS 172)

  창 20:9 מַעֲשִׂים אֲשֶׁר לֹא־יֵעָשׂוּ עָשִׂיתָ עִמָּדִי 네가 행해져서는 안 될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출 4:15 וְהוֹרֵיתִי אֶתְכֶם אֵת אֲשֶׁר תַּעֲשׂוּן 내가 너의 해야 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

[20] 두 개의 동사가 중언법을 이루며 하나는 부사로 하나는 동사로 번역되는 것을 위해 룻 1:8(cf. 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239-240)을 참고하라.

② כִּי는 직접화법의 절을 인도하는 접속사인가(recitative, cf. WHS 452; GKC 157b) 아니면 반의의 접속사인가(adversative, cf. WHS 447, 555; GKC 163a)? לָהּ를 לֹא로 읽어야 하는가(창 18:15; 19:2; 42;12; 수 5:14; 삼상 2:16; 8:19; cf. KB3 3.c; Brockelman, *Syntax* 134a; 창 31:16; 욥 22:2)?

Cf. WHS ## 444-452 접속사 כִּי

- 이유(causal)

  창 3:14 כִּי עָשִׂיתָ זֹאת אָרוּר אַתָּה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을지어다!

- 시간(temporal)

  창 6:1 וַיְהִי כִּי־הֵחֵל הָאָדָם לָרֹב עַל־פְּנֵי הָאֲדָמָה וּבָנוֹת יֻלְּדוּ לָהֶם: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 조건(conditional)

  왕하 4:29 כִּי־תִמְצָא אִישׁ לֹא תְבָרְכֶנּוּ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라

- 반의(adversative 부정어 뒤에, 과 함께)

  창 17:15 שָׂרַי אִשְׁתְּךָ לֹא־תִקְרָא אֶת־שְׁמָהּ שָׂרָי כִּי שָׂרָה שְׁמָהּ: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할 것이다

  창 32:28 לֹא יַעֲקֹב יֵאָמֵר עוֹד שִׁמְךָ כִּי אִם־יִשְׂרָאֵ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 양보(concessive)

  렘 49:16 כִּי־תַגְבִּיהַ כַּנֶּשֶׁר קִנֶּךָ מִשָּׁם אוֹרִידְךָ 네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 단언(asseverative, 맹세문에, 과 함께; '진실로')

  창 42:16 חַי פַּרְעֹה כִּי מְרַגְּלִים אַתֶּם: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왕하 5:20 חַי־יְהוָה כִּי־אִם־רַצְתִּי אַחֲרָיו וְלָקַחְתִּי מֵאִתּוֹ מְאוּמָ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창 43:10 לוּלֵא הִתְמַהְמָהְנוּ כִּי־עַתָּה שַׁבְנוּ זֶה פַּעֲמָיִם: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면 정말로 벌써 두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 결과(resultative)

  삿 8:6 הֲכַף זֶבַח וְצַלְמֻנָּע עַתָּה בְּיָדֶךָ כִּי־נִתֵּן לִצְבָאֲךָ לָחֶם: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 명사절 인도(nominalizing)

  창 1:10 וַיַּרְא אֱלֹהִים כִּי־טוֹב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삼하 9:1 הֲכִי יֵשׁ־עוֹד אֲשֶׁר נוֹתַר לְבֵית שָׁאוּ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삼하 13:28 הֲלוֹא כִּי אָנֹכִי צִוִּיתִי אֶתְכֶם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 직접화법 인도(recitative)

왕하 8:13 וַיֹּאמֶר חֲזָאֵל כִּי מָה עַבְדְּךָ הַכֶּלֶב כִּי יַעֲשֶׂה הַדָּבָר הַגָּדוֹל הַזֶּה 하사엘이 말하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③ כִּי־אִתְּךָ נָשׁוּב לְעַמֶּךָ에서 אִתְּךָ가 동사 נָשׁוּב 앞에 온 이유는?(WHS 575)

Cf. WHS 575: 부사구(전명구)가 강조나 대조를 위해서 그리고 구 자체가 길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주어 앞에 오는 경우가 있다.

- 강조:

창 3:19 בְּזֵעַת אַפֶּיךָ תֹּאכַל לֶחֶם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식물을 먹을 것이다

수 4:22 בַּיַּבָּשָׁה עָבַר יִשְׂרָאֵל אֶת־הַיַּרְדֵּן הַזֶּה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넜다

- 대조:

창 4:4-5 וְאֶל־קַיִן וְאֶל־מִנְחָתוֹ לֹא שָׁעָ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셨다

- 수사학적 전치:

왕하 1:4 הַמִּטָּה אֲשֶׁר־עָלִיתָ שָׁם לֹא־תֵרֵד מִמֶּנָּ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2) 주석

룻 1:10 (1:9 그들이 엉엉 울면서) 나오미에게 말했다.

① 나오미의 작별의 입맞춤으로 야기된 세 여인의 커다란 울음소리는 며느리 둘이 이구동성으로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로 인해 약해진다. **그**[며느리]**들은** 울먹이며 **그녀**[나오미]**에게**(לָהּ[라흐]) **말했다**. "**아닙니다**(כִּי[키]). **어머님과 함께 우리가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② 오르바와 룻이 이구동성으로 한 첫 말은 "**아닙니다**(כִּי[키])"이다. 접속사 כִּי[키]는 대개 부정의 절이 선행하거나(창 17:15) 부정의 절이 선행하고 바로 뒤에 אִם[임]이 따라올 때(창 32:28) 반의적(adversative, WHS 447, 555; GKC 163a) 의미로 사용되고, 부정의 절이 선행하지 않으면 לֹא כִּי [로 키]의 형식으로 반의적 의미를 표현한다(창 18:15; 19:2). 부시(77)는 "그녀에게(לָהּ[라흐])"를 부정어 לֹא[로]로 대치하거나 "그녀에게(לָהּ[라흐])" 바로 다음 즉 כִּי[키] 앞에 לֹא[로]가 있어야 한다는 주옹의 주장을 반박하며, 부정의 절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כִּי[키]가 반의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창 31:36; Brockelman, *Syntax* 134a)고 바르게 설명하였다. 그는 또 루돌프가 주옹을 따르며 부정하는 부사를 써서 번역한 칠십인역과 구라틴역과

페시타역(LXX, OL, Syr)에 근거하여 부정어 לֹא[로]가 앞에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을 반박하면서, 번역본이 반드시 맛소라 본문과 다른 대본에 근거하기보다는 내포된 부정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 의미상 의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접속사 כִּי[키]는 부정의 말이 선행하지 않지만 (나오미의 말대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말이 뒤 따라 오기 때문에 내용상 접속사 앞에 부정의 의미가 먼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첫 말 כִּי[키]를 "**아닙니다**."로 번역할 수 있다.

③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반대로 전치사 "אִתָּךְ[이타흐] **당신[=어머님]과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먼저 내세우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번역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 נָשׁוּב[나슈브]는 미완료형으로 화자의 의지(소원)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다. 두 며느리들의 반응은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이 자기들의 백성을 떠나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④ 이처럼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처음 나눈 대화에서 보듯이 내레이터의 해석이나 배경 설명이 많지 않은 대신 등장 인물의 대화가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내러티브의 특징이다. 대부분의 내러티브는 대화가 그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내러티브들(삼상 29:1-11; 삼하 18:19-32)은 대화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화가 빈번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등장 인물이 대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피전달문의 길이가 아주 긴 것도 아니다. 대화는 대개 두서너 차례 주고받으며, 그 길이는 짧은 편이고, 어떤 경우 좀 길게 말하는 인물과 짧게 말하는 인물이 대화의 길이를 통하여 대조되기도 한다. 다윗과 드고아의 여인 내러티브에서 여인이 8 차례 말하며 다윗이 7 차례 말하는 것 그리고 랍사게의 말이 길게 인용된 것(왕하 18:19-25, 28-25 [총 15 절]) 등은 예외이다. 대화는 두 가지 주요 기능, 즉 플롯 전개의 수단이 되거나 등장 인물의 성격 묘사의 수단이 된다. 대화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초점을 두고 등장 인물의 생각보다는 동작을 다룸으로써 자주 계획, 열망, 혹은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보이며 플롯 전개의 수단이 된다. 대화는 또한 등장 인물의 동기나 의도와 같은 심리적인 특징, 관점, 태도, 반응 등을 보여 줌으로써 등장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수단이 된다.[21]

⑤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처음 주고받은 대화(1:8-10)에서 나오미는 길게 말하고 며느리들은 짧게 말한다. 권면과 축복과 기도로 이루어진 긴 나오미의 말 가운데서 과부된 며느리들을 먼저

---

[21] 내러티브에 나오는 대화에 대한 문예적 분석을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1981), 63-87;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JSOTSup 70(Sheffield: Almond, 1989), 41-45, 64-77, 88-89, 96-98, 147-49, 159-160, 250-251; Adele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1983), 48, 64-72, 96-98, 150-151.

생각하는 나오미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게 되며,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짧게 말한 며느리들의 말에서 고부간의 끈끈했던 정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는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는 며느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에 나오는 두 차례 더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2)1 막 1 장 B (1:11-14)

본문

[WLC: 1 רות]

11 וַתֹּאמֶר נָעֳמִי שֹׁבְנָה בְנֹתַי לָמָּה תֵלַכְנָה עִמִּי הַעוֹד־לִי בָנִים בְּמֵעַי וְהָיוּ לָכֶם לַאֲנָשִׁים׃ 12 שֹׁבְנָה בְנֹתַי
לֵכְנָ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כִּי אָמַרְתִּי יֶשׁ־לִי תִקְוָה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וְגַם יָלַדְתִּי בָנִים׃ 13 הֲלָהֵן
תְּשַׂבֵּרְנָה עַד אֲשֶׁר יִגְדָּלוּ הֲלָהֵן תֵּעָגֵנָה לְבִלְתִּי הֱיוֹת לְאִישׁ אַל בְּנֹתַי כִּי־מַר־לִי מְאֹד מִכֶּם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14 וַתִּשֶּׂנָה קוֹלָן וַתִּבְכֶּינָה עוֹד וַתִּשַּׁק עָרְפָּה לַחֲמוֹתָהּ וְרוּת דָּבְקָה בָּהּ׃

[ESV: Ruth 1:11-14]

11 But Naomi said, "Turn back, my daughters; why will you go with me? Have I yet sons in my womb that they may become your husbands? 12 Turn back, my daughters; go your way, 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If I should say I have hope, even if I should have a husband this night and should bear sons, 13 would you therefore wait till they were grown? Would you therefore refrain from marrying? No, my daughters, for it is exceedingly bitter to me for your sake that the hand of the Lord has gone out against me." 14 Then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but Ruth clung to her.

[개역개정: 룻 1:11-14]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번역 (룻 1:11-14)

룻 1:11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1]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몸[2] 안에 아들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12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가거라.[3]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다.[4] 설령 [5]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정말 [6]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6]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 13 그들을,[7]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들을,[7]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나의 딸들아.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8]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14 그들은 [얼마동안] 계속 엉엉 울었다.[9] [마침내]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며] 입맞추었지만 [10] 룻은 [오히려 더] 그녀[=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본문 비평

[1]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함께 가려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뜻으로 설유하는 것이다.

[2] 여기 "몸"은 여자의 "자궁, 태, 배"를 나타내는 רֶחֶם[레헴]이나 בֶּטֶן[베텐]과 병행어로 쓰이는(cf. 창 25:23; 사 49:1; 시 71:6) 보다 더 일반적인 말 מֵעִים[메임]을 번역한 것이다.

[3] 1:8 에서 중언법(hendiadys)으로 쓰인 두 동사 לֵכְנָה שֹׁבְנָה [레흐나 쇼브나] "자 어서, 돌아가라!"와는 달리 1:12 에 역순으로 나오는 שֹׁבְנָה לֵכְנָה [쇼브나 레흐나]의 경우 두 동사는 각각 그 고유의 의미를 갖는다.

[4] 접속사 כִּי[키]가 "돌아들 가거라, 어서 가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면 "왜냐하면/그것은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가 될 것이다.

[5] "설령 . . . 가정해 보자."라는 번역은 접속사 כִּי[키]가 양보의 부사절(직역: "내가 . . . 라고 말할지라도")을 인도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6] "정말로"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 גַּם[감]과 וְגַם[브감]으로 시작하는 절들은 [키]가 인도하는 양보절과 동격이 되는 부사절이다.

[7] הֲלָהֵן[할라헨]을 הֲלָהֶם[할라헴]으로 고쳐 번역하였고 이 전명구가 강조를 위해 문의 서두에 나오는 것을 유의하여 번역문의 서두에 "그들을"을 놓았다.

[8] כִּי־מַר־לִי מְאֹד מִכֶּם [키-마르-리 므오드 미켐]의 전치사 מִן[민]을 절대 비교의 מִן[민]으로 보고 접속사 כִּי[키]를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NAB, 주옹, 부시의 번역 즉 "For things are too bitter for me for you (to share)."와 비슷하다. 이유의 מִן[민]으로 보면 "For things are very bitter for me <u>because of</u> you.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내 마음이 아프다." 가 되고(RSV, JB, GNB, 개역개정), 상대 비교의 מִן[민]으로 보면 "For things are far more bitter for me <u>than</u> for you. 너희보다 내가 더 비참하다."가

된다(NJPS, NASB, NEB, NIV, Campbell, Hubbard, Sasson). 보다 자세한 논의는 13 절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9] וַתִּשֶּׂנָה קוֹלָן וַתִּבְכֶּינָה עוֹד [바티쎄나 콜란 바티브케나 오드]는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로 직역하지 않고 중언법으로서 첫 동사 부분이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부사 עוֹד [오드]가 울음이 계속되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엉엉 울었다"로 번역하였다.

[10] BHS 1:14 의 비평자료 각주 *a* 는 칠십인역에 καὶ ἐπέστρεψεν εἰς τὸν λαὸν αὐτής [카이 에페스트렙쎈 에이스 톤 라온 아우테스]라는 첨가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 로빈슨에 의하면 이것은 וַתָּשָׁב אֶל־עַמָּהּ [바타쇼브 엘-아마흐]와 같은 의미이다. 첨가된 부분이 있는 칠십인역과 맛소라 본문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MT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지만 룻은 그녀[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

LXX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u>그녀의 백성에게 돌아갔지만</u>
룻은 그녀[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

칠십인역을 택한다면 생략된 어구 바로 앞의 마지막 단어(לַחֲמוֹתָהּ)가 생략된 어구의 마지막 단어(עַמָּהּ)처럼 ה로 끝나기 때문에 유사 결미로 인한 무의식적인 탈락이 맛소라 본문의 전승 과정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맛소라본문을 그대로 택한다면, 칠십인역의 첨가 부분은 맛소라 본문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조건들이 같을 경우 보다 짧은 독법이 원래의 독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맛소라 본문이 선호된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석의에는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필사상의 실수가 인정되더라도 그 중요성은 미미하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11-14)

(1)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주고받은 첫 번째 대화(1:8-10)에서 설득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모두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베푸실 은혜에 힘입어 새 남편 집에서 평안함을 얻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말리며 다시 설득한다. 나오미의 두 번째 말(1:11-13)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 중 가장 긴 말이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에는 강한 명령 혹은 강한 부정의 말 그리고 며느리들에 대한 호격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1 절과 12 절의 나오미의 말은 "[쇼브나 브노타이] 돌아들 가라, 내 딸들아(11 절),"와 "[쇼브나 브노타이 레흐나] 돌아들 가라, 내 딸들아(12 절), 어서 가거라"로 시작하고, 13 절의 나오미 말은 중간에 "[알 브노타이] 아서라, 내 딸들아(13 절하)"를 갖고 있다. 나오미의 두 번째 말의 목적도 며느리들로 하여금 모압으로 돌아가서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오미는 수사학적 질문과 가정법을 통해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며, 또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자신과 삶을 함께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돌아가라고 설득한다. 이 두 번째 권면에 대하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좇는 것으로 반응한다(14 절).

⑵1:12-13 에서 불변화사들이 각각 두번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배열되어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Bush, 73).

12 שֹׁבְנָה בְנֹתַי לֵכְנָ

[키]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키] **כִּי** אָמַרְתִּי יֶשׁ־לִי תִקְוָה

[감]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감(브)] **וְגַם** יָלַדְתִּי בָנִים:

13 [할라헨] הֲלָהֵן תְּשַׂבֵּרְנָה עַד אֲשֶׁר יִגְדָּלוּ

[할라헨] הֲלָהֵן תֵּעָגֵנָה לְבִלְתִּי הֱיוֹת לְאִישׁ

אַל בְּנֹתַי

[키] כִּי־מַר־לִי מְאֹד מִכֶּם

[키]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⑶1:13 은 다음과 같이 단어 첫 자리에 멤(מ)이 3 번 반복되고 단어의 마지막 모음을 이루는 요드(י)가 4 번 반복되어 나온다(Bush, 73).

כִּ י־מַר־לִ י מְאֹד מִכֶּם כִּ י־יָצְאָה בִ י יַד־יְהוָה:

각 절 주석 (룻 1:11-14)

11. 룻 1:11

1) 원문 문제

(룻 1:11) וַתֹּאמֶר נָעֳמִי שֹׁבְנָה בְנֹתַי לָמָּה תֵלַכְנָה עִמִּי הַעוֹד־לִי בָנִים בְּמֵעַי וְהָיוּ לָכֶם לַאֲנָשִׁים:

① 의문문 לָמָּה תֵלַכְנָה עִמִּי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함께 가려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묻는 것인가(= What has made you go with me?)? 아니면 며느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달리 행동하라고 설유(說諭)하는 것인가(You are wrong to go with me; you should go; there is no point to it.)? [※ BDB [a], p. 554 in expostulation; 미완료의 서법적(modal) 용법: GBH 113m; Lambdin, *Introdution to Biblical Hebrew*, p. 100; 참고, 삼하 15:19-21 다윗과 가드사람 잇대와의 대화]

② בְּמֵעַי에 나오는 מֵעִים과 רֶחֶם이나 בֶּטֶן의 차이는? [※ 일반적인 מֵעִים은 룻기를 제외하고 시에서만 사용되며 보다 더 구체적인 בֶּטֶן과 병행구를 이룬다(창 25:23; 사 49:1; 시 71:6).]

③ וְהָיוּ לָכֶם לַאֲנָשִׁים에서 바브 계속법 완료의 용법은(cf. WHS 178, 179, 525)? [※ Bush, 70: In a rather rare use (cf. GBH 119i, n. 2), the pf with waw consec after a nominal clause expresses result here (in Ruth 1:11). See IBHS 32.2.4a.]

2) 주석

룻 1:11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몸 안에 아들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시라고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새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작별의 입맞춤을 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가겠다고 하는 두 며느리들을 다시 말리며 두 번째로 **나오미는 말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라고 부르고 "**돌아들 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며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함께 가려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② "לָמָּה תֵלַכְנָה עִמִּי [라마 텔라흐나 이미] 직역: 왜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라는 첫 번째 수사 의문문은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는 것이냐?"라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돌아들 가지 않고 왜들 이러느냐?"라고 며느리들의 "과분한 친절과 배려를 겉으로는 가볍게 꾸짖으나 속으로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22]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부시(77)가 옳게 설명한 대로 이 의문문은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가려는 생각이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며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설유(說諭)하는 의문문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는 뜻을 갖는다.[23]

③ 허버드(108, n. 18)는 나오미가 말한 첫 번째 수사 의문문이 함께 가려는 잇대에게 다윗이 말한 수사 의문문—삼하 15:19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과 놀랄만한 유사성이 있는 것을 지적한다. 삼하 15:19-23 에서 (베들레헴 출신 이스라엘 사람) 다윗 왕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방인

---

[22] 이 설명은 Bush(77)가 Barr, *JTS* 36 [1985]: 33 에 나오는 "joyful acknowledgement tinged with a slight reproach at the excessive kindness or consideration of another"을 인용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23] BDB(p. 554)는 לָמָּה[라마]가 설유(expostulation)의 의미로 쓰인 구절들로 창 12:18, 19; 29:25; 31:27; 42:1; 43:6; 삼상 21:15; 22:13; 24:10; 시 22:2; 44:24, 25; 74:1, 11 등을 열거하고 있다. 부시(77)는 나오미가 말한 첫 수사 의문문을 "You are wrong to go with me; you should go; there is no point to it."라고 설유적 의미("the critical/corrective sense")로 바꾼 하이만(Hyman, *USQR* 39 [1984]: 190)의 설명을 옳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의문사 מַדּוּעַ[마두아] 대신 לָמָּה[라마]가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설유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하이만의 주장은 지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바르의 글(Barr, *JTS* 36 [1985]: 1-33)을 참고하라고 말한다. 블락(635)도 "Why would you come with me?"라는 수사 의문문을 "It is foolish for you to come with me; you will be much better off in your home country."라고 풀어 설유적으로 설명하였다.

가드 사람) 잇대에게 함께 가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돌아가라"고 명하며 복을 빌었다. 그렇지만 잇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며 따르겠다고 하였을 때 다윗은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룻 1:8-18 에서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복을 빌고 함께 가는 길이 어리석은 선택인 것을 지적하며 돌아가라고 설득하였다. 그렇지만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며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나오미는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룻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허버드는 이러한 유사성을 통하여 작별의 장면에 이러한 공식적 관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으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④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가려는 며느리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또 하나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내 몸 안에 아들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동사가 없는 명사문(הַעוֹד־לִי בָנִים בְּמֵעַי [하오드-리 바님 브메아이] **내 몸 안에 아들들이 또 있느냐**?) 다음에 나오는 바브 계속법 완료([브하유 라헴 라아나심] וְהָיוּ לָכֶם לַאֲנָשִׁים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는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24] 나오미는 "태"를 의미하면서 그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 רֶחֶם([레헴] "자궁 womb") 혹은 בֶּטֶן([베텐] "배 belly")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더 시적이고 보다 덜 사용되고 포괄적으로 신체의 내부 기관을 나타내는 단어 מֵעִים([메임] "배, 내장 abdomen, intestines, inner parts, insides")을 사용하였다. מֵעִים[메임]은 룻기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시에서만 사용되고 "배, 태"를 나타내는 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 בֶּטֶן[베텐]과 병행구를 이룬다(창 25:23; 사 49:1; 시 71:6). 나오미는 자신의 "배" 아니 자신의 "몸의 내부" 어느 곳에도 더 이상 아들들이 없으므로 며느리들을 위한 남편들을 확보해 줄 소망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장래는 재혼하여 남편을 만나 안식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고 이에 대한 밝은 전망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데 있지 않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나오미의 태는 말론과 기룐을 아들로 낳았고 그들이 모압 며느리들의 남편들이 되게 한 것으로 이미 그 임무를 마감하였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되어 줄 아들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나오미의 관심은 며느리들의 재혼을 통한 미래의 행복에 있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그러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 밝히고 있었다.

12. 룻 1:12

1) 원문 문제

שֹׁבְנָה בְנֹתַי לֵכְנָ֗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룻 1:12)

[24] 이렇게 명사문 다음에서 바브 계속법 완료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드문 용법이다(IBHS 32.2.4a; WHS 178, 179, 525; GBH 119i, n. 2).

כִּי אָמַרְתִּי יֶשׁ־לִי תִקְוָה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וְגַם יָלַדְתִּי בָנִים׃

① הָיָה לְאִישׁ의 의미는(KB 7. a; 레 22:12; 민 30:7; 신 24:2; 렘 3:1)?

② 다음 두 문에 나오는 מִן의 용법상 차이점은(WHS 76, 317-318; GKC 133c; IBHS 14.4f)?

- 삼상 9:2 וָמַעְלָה גָּבֹהַּ מִכָּל־הָעָם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 창 36:7 כִּי־הָיָה רְכוּשָׁם רָב מִשֶּׁבֶת יַחְדָּו 그들의 소유가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③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에서 מִן의 용법은?

④ כִּי אָמַרְתִּי יֶשׁ־לִי תִקְוָה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וְגַם יָלַדְתִּי בָנִים에서 כִּי의 용법은 조건(conditional)인가(WHS 511-517; GKC 159 a, b, l. m, aa; GBH 167i; 렘 51:53)? 양보(concessive)인가(WHS 448)? 그리고 ... וְגַם ... גַּם은 כִּי처럼 조건절을 인도하는가(Campbell 67, 시 119:23)? 아니면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며(additive) 양보절을 인도하는가(WHS 382; Hubbard, 107, n. 7-8)? 아니면 강조의 의미를 가지며(intensive: WHS 379, GKC 153) כִּי가 인도하는 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삽입절을 인도하는가(Bush, 78-79)?

2) 주석

룻 1:12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가거라.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

① 미래의 남편들이 될 아들들을 자신의 몸 안에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후 나오미는 다시 며느리들을 "**나의 딸들아**"라고 부르며 "לֵכְנָה שֹׁבְנָה (בְּנֹתַי) [쇼브나 (브노타이) 레흐나] **돌아들 가라**. **[어서] 가거라**."고 명령한다. 여기 두 동사가 1:8 의 לֵכְנָה שֹׁבְנָה "[레흐나 쇼브나] <u>자 어서, 돌아가라!</u>"와는 역순으로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두 동사는 중언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1:8 처럼 첫 번째 동사를 부사("어서")처럼 번역할 수 없다. 따라서 1:12 의 두 동사는 각각 고유의 의미를 갖도록 번역해야 한다. 허버드(110)가 말한 대로 8 절의 명령보다는 12 절의 명령이 "돌아가라"는 권면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한 것을 알아야 한다. 나오미는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가거라**."라고 명령하며 그 이유를 접속사 כִּי[키]를 사용하여 말한다.

②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키 자칸티 미흐요트 르이시] **그것은/왜냐하면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아들을 출산할 목적으로 결혼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오미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가 결혼하여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아들들을 출산하는 것은 그녀가 말한 대로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מִהְיוֹת לְאִישׁ([미흐요트 르이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에는**")에 나오는 전치사 מִן[민]은 "הָאִישׁ חָכָם מִן־הַנַּעַר [하이시 하함 민-하나아르] 그 사람은 그 소년보다 더 지혜롭다."에서처럼 상대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קָשָׁה הָעֲבוֹדָה מִן־הָאִישׁ [카샤 하아보다 민-하이시]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어렵다."에서처럼 절대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나오미는 결혼하여 아들들을 생산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자신에게는 며느리들의 재혼의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들 가라. 내 딸들아, 어서 가거라!"고 처음보다 더 강하게 권면하였던 것이다.

③ 나오미는 자신의 요점을 보강하려고 가상의 경우를 제시한다. "**설령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 12 절 하반절에 나오는 불변화사들(כִּי[키]와 גַּם[감])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원문과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자.

12 שׁוּבְנָה בְנֹתַי לֵכְנָ֗ה
①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② **כִּי** אָמַרְתִּי יֶשׁ־לִי תִקְוָה
③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④ **וְגַם** יָלַדְתִּי בָנִים

Campbell: "Turn back, my daughters, go along;

①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②That I might say: 'I have hope!'

③Why if I were to have this very night a husband

④And if I were to bear sons ... "

Hubbard: "Turn back, my daughters, go!

①For I am too old to marry again.

②Suppose I were to say, 'I still have some hope left'—

③even if tonight I were to marry,

④and, further, were then to bear several sons, "

Bush: "Go back, my daughters! Go!

①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②Even if I said that there was hope for me—

③indeed, if I had a husband this night

④and actually bore sons—"

NIV: "Return home, my daughters;

①I am too old to have another husband.

②Even if I thought there was still hope for me—

③even if I had a husband tonight

④and then gave birth to sons— "

NASB "Return, my daughters! Go,

①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②If I said I have hope,

③if I should even have a husband tonight

④and also bear sons,"

NRSV "Turn back, my daughters, go your way,

①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②Even if I thought there was hope for me,

③even if I should have a husband tonight

④and bear sons,"

④ 위의 번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자들은 12 절의 불변화사①(כִּי[키])에 대하여 모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았다. NIV 는 for 와 같은 접속사를 명시하여 표시하지 않았지만 세미콜론을 통하여 이유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 12 절의 불변화사②(כִּי[키])에 대하여 결과의 that 로 번역한 캠벨을 제외하고 학자들은 조건의 if(WHS 511-517; GKC 159 a, b, l. m, aa; GBH 167i; 렘 51:53)보다는 양보의 if,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even if(WHS 448)로 번역하였다.
- 12 절에 두 번 쓰인 불변화사 ③(גַּם[감])과 ④(וְגַם[브감])에 대하여 캠벨(67)은 시 119:23 에서처럼 둘 다 조건절을 인도하는 כִּי[키]처럼 쓰인 것으로 보았다. 허버드(107, n. 7-8)에 의하면 첫 번째 גַּם[감](=③)은 양보절을 인도하는 גַּם כִּי[감 키]의 줄인 형(cf. WHS 382)이고 두 번째 גַּם[감](=④)은 부가적인 의미(additive, “further”)를 갖고 있다. 부시(78-79)는 첫 번째 גַּם[감](=③)이 양보절을 인도하는 접속사라면 그 앞에 접속사 וְ[브]가 있어야 한다고 바르게 지적하고, 첫 번째 גַּם[감](=③) 앞에 (두 번째 וְגַם[브감](=④)과 달리) 접속사 [브]가 없는 것은 גַּם[감](=③)으로 시작하는 절이 바로 앞의 두 번째 כִּי[키](=②)가 인도하는 양보의 절과 동격을 이루는 삽입절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부시는 두 번 쓰인 גַּם[감]이 접속사가 아니라 바로 앞의 כִּי[키](=②)가 이끄는 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삽입절 앞에 나오는 부사적 불변화사로서 강조의 의미(intensive, “indeed, actually” WHS 379, GKC 153)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본 주석의 "② ***설령***(כִּי[키] even if)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③ ***정말***(גַּם[감] indeed)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④ ***정말***(גַּם[감] indeed)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번역은 부시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⑤ 나오미는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정말 바로 이 밤에, 오늘밤에,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아들들을 낳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한다. 나이가 들어 불가능한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 즉 결혼에 이은 아들들의 출산이란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남편이 되어 줄 수 있는 가상의 아들들이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나오미는 이러한 가상의 상황이 희망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이야기한다.

13. 룻 1:13

1) 원문 문제

הֲלָהֵן תְּשַׂבֵּרְנָה עַד אֲשֶׁר יִגְדָּלוּ הֲלָהֵן תֵּעָגֵנָה לְבִלְתִּי הֱיוֹת לְאִישׁ אַל בְּנֹתַי כִּי־מַר־לִי מְאֹד מִכֶּם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룻 1:13)

① 두 번 나오는 הֲלָהֵן은 הֲ(의문문 표시) + לָהֵן(아람어 therefore: RSV)인가? 아니면 הֲ(의문문 표시) + לְ(전치사) + הֵן(접미대명사 3 인칭 여성 복수, 즉 s6)인가? 만일 후자라면 הֲלָהֵן(s6)을 הֲלָהֶם(s5: LXX, Targum, Peshitta; KJV, NIV)으로 고쳐야 하는가? 아니면 서부 셈족어중 유일하게 남성 양수 자립형 어미 *-ān/-ēn* 을 갖고 있는 모압어의 어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 RSV: "would you therefore wait till they were grown? Would you therefore refrain from marrying?"
- NIV: "would you wait until they grew up? Would you remain unmarried for them?"

② תֵּעָגֵנָה의 어근은? [※ 어근이 עגה라면 תֵּעָגֶינָה(cf. תִּגְלֶינָה)가 기대되고 עגן이라면 תֵּעָגַנָּה(תִּקְטַלְנָה cf. תֵּעָגֵנָּה GKC 51m)가 기대된다. 부시는 히브리어나 동족어들 중에 이 본문에 어떤 적절한 의미를 주는 어근 עג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어근 עגן의 경우 아람어와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등장하며 남편의 행방이 묘연할 때 결혼한 여자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는 "to prevent a woman from contracting a new marriage"(KB[3], III. p. 742)와 같은 너무 전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에 어근 자체와 어근의 뜻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문맥에 따라서 LXX κατέχω 와 OL detineo 처럼 "to hold back, refrain"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③ אַל בְּנֹתַי에서 부사 אַל에 대한 설명은? (WHS 403 = אַל יְהִי כֵן; 요구에 대한 거절 cf. 창 19:18; 33:10; 삿 19:23; 삼하 13:16, 25; 왕하 3:13; 4:16; GKC 152g; GBH 160j)

④ כִּי־מַר־לִי מְאֹד מִכֶּם 에 대한 다음 번역들 중에서 כִּי와 מִן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RSV, JB, GNB: "*For* things are very bitter for me because of you" (causal מִן WHS 319, 515)
- Vriezen, Schoors: " ... *although* it is much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For the hand of Yahweh has smitten me.)"
- NJPS, NASB, NEB, NIV, Campbell, Hubbard, Sasson: "*For* things are far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simple comparative מִן WHS 317)
- NAB, Joüon, Bush: "*For* things are too bitter for me for you (to share)" (absolute comparative, elative מִן WHS 318; comparative of compatibility, IBHS 4.4f)

⑤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에서 כִּי는 앞 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가(causal: for; Bush, 81)? 아니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가(asseverative: indeed, Hubbard, 107, n. 13; Campbell, 61)? 전치사 בּ의 뜻은? [※ 여기에서만 동사 יָצָא가 쓰였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의 구는 הָיְתָה יַד יְהוָה ב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와 하나님이나 사람이 주어로 쓰이는 שָׁלַח יָד ב "to send a hand against"가 있다.]

2) 주석

룻 1:13 그들을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나의 딸들아.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①나오미는 바로 이 밤에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을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고 묻는다. 여기 הֲלָהֵן[할라헨]에 붙어 있는 가상의 아들들을 받는 대명사 הֵן[헨]은 3 인칭 여성 복수형처럼 보인다. הֲלָהֵן[할라헨]에 대하여 RSV 는 הֲ([하] 의문문 표시 불변화사) + לָהֵן([라헨] 아람어 "therefore")의 결합으로 보고 "Would you therefore wait till they were grown? Would you therefore refrain from marrying?"이라고 번역하였다. 성경 아람어 본문 중에서 לָהֵן[라헨]은 단 2:6, 9; 4:21 에만 나오며 문맥상 "그러므로"의 의미로 번역되지만 그렇다고 לָהֵן[라헨]이 "그러므로"의 의미로 쓰이는 독립된 어구인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아람어 לָהֵן[라헨]은 "그러나, but, however"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람어를 잘 알고 있었을 칠십인역이나 타르굼역이나 페시타역의 번역자들은 여기 לָהֵן[라헨]을 "그러므로"로 번역하지 않고 "그들"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칠십인역이나 타르굼역이나 페시타역이 הֲלָהֵן[할라헨]을 הֲ[하](의문문 표시) + לָ[라](전치사) + הֵן[헨](접미대명사)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대 역본들처럼 KJV 는 "Would ye tarry for them till they were grown? Would ye stay for them from having husbands?"라고 번역하고 NIV 는 "Would you wait until they grew up? Would you remain unmarried for them?"이라고 번역하였다. 대부분의 역본들처럼 לָהֵן[라헨]이 전치사와

접미대명사가 결합된 전명구로 보면 לָהֵן[라헨]이 아람어의 영향아래 차용된 어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진다. 부시(30)가 설명한 대로 성경 아람어 본문에서 לָהֵן[라헨]이 "그러므로"라는 뜻을 의미하는 독립된 어휘로서 입지가 약한 것과 아람어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고대 역본의 번역자들이 לָהֵן[라헨]을 전치사+접미대명사로 본 것은 [라헨]이 아람어와 관련 없음을 보여준다.

② 만일 הֵן[헨]이 접미대명사라면 הֲלָהֵן[할라헨]을 3 인칭 여성 복수로 보고 3 인칭 남성 복수인 הֲלָהֵם[할라헴]으로 고쳐야 하는가? 아니면 서부 셈족어중 유일하게 남성 양수 자립형 어미 *-ān/-ēn* 을 갖고 있는 모압어의 어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캠벨, 주옹, 모리스, 루돌프처럼 부시(79)는 전자의 입장 즉 여성형을 남성형으로 고치는 정정의 입장을 취했고, 허버드(111, n. 31)는 후자의 입장, 즉 1:8 에서처럼 "the two of them"을 의미하는 남성 양수형으로 보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③ 문의 서두에 반복되어 나오는 전치사+접미대명사로 된 전명구 לָהֵן[라헨]은 어순상 강조를 나타내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조 어순을 고려해 "***그들을,* 너희가 기다린다고? 그들이 클 때까지 말이냐?**" 혹은 "***그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고?**"라고 번역할 수 있다. 여기 "기다리다"라는 단어 שׁבר[싸바르]가 아람어의 영향 아래 후기 히브리어에 들어와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부시(29)의 설명에 대하여는 서론 부분을 참고하라. 부시(79-80)에 의하면 "너희가 남편 없이 홀로 지낸다."라는 동사 תֵּעָגֵנָה[테아게나]에 대하여 그 어근이 עגה[아가]라면 תִּגְלֶינָה[티갈레나]처럼 תֵּעָגֶינָה[테아게나]가 기대되고 עגן[아간]이라면 강동사 תִּקְטַלְנָה[티카탈나]처럼 תֵּעָגַנְנָה[테아가나](GKC 51m)가 기대된다. 우가릿어 이름들에 근거하여 어근을 עגה[아가]라고 한 캠벨의 주장에 대하여 새슨(25)은 그 이름이 셈족어적 이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반대하였다. 부시(79)와 허버드(112)도 새슨의 반박을 지지하였다. 부시는 어근 עגן[아간]이 아람어와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남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결혼한 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나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이 전문 용어의 법적인 배경과 정확한 뜻은 불분명하며 그것들이 룻기의 이 구절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버드(112)는 동사 תֵּעָגֵנָה[테아게나]의 어근이나 유래 그리고 뜻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차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허버드는 잠정적으로 "deprive oneself"로 번역하였지만 칠십인역의 κατέχω[카테코]를 단서로 삼아 "hold back; restrain"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부시는 아람어나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가 나타내는 전문적인 법적 의미 즉 "prevent a woman from contracting a new marriage(KB3 III, 742)"를 지적하고 게를레만, 루돌프, 주옹(Gerleman, Rudolph, Joüon) 등의 "shut oneself up; withhold oneself from someone; keep oneself continent" 번역을 소개한 후 이

동사에 너무 전문적이고 정밀한 의미를 적용하기보다는 고대 역본들(OL detineo, LXX κατέχω[카테코])처럼 문맥에 따라서 "hold back; refrain"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시(29-30)는 לָהֶן[라헨]처럼 עגן[아간]에 대하여 아람어의 영향을 운운하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나오미의 질문들은 그녀가 설령 바로 이 밤에 결혼하여 아들들을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며느리들의 남편 구실을 하려면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 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이 클 때까지 그들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나오미의 말대로 며느리들이 그들만을 바라보고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하여 결혼해 주고 남편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가 되면 오르바와 룻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이 결혼하여 아들들을 얻게 되는 가상의 상황에서라도 그 아들들이 성장할 때까지의 오랜 기다림의 세월과 그 기다리는 세월이 며느리들에게 가져올 출산의 불가능성 때문에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수사의문문을 통하여 며느리들의 재혼의 가능성이 그들의 고국에는 열려있지만 나오미와 함께 가면 닫혀 있음을 지적하였다.

⑤ 며느리들에게 "**그들을,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던 나오미는 스스로 답을 준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가상의 아들들을 기다리며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동사도 생략하고 "אַל[알] **아서라!**"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며 11 절과 12 절에서처럼 며느리들을 "בְּנֹתַי[브노타이] **나의 딸들아**."라고 불렀다. אַל[알]은 부정하는 부사로 주로 간접명령형(jussive)과 함께 쓰이고(WHS 403 = אַל יְהִי כֵן [알 여히 헨]), 요구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창 19:18; 33:10; 삿 19:23; 삼하 13:16, 25; 왕하 3:13; 4:16; GKC 152g; GBH 160j). 여기에서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부정의 뜻이 강조되고 있다.

⑥ "**아서라, 내 딸들아**(13 절하)"라고 말하고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하며, "כִּי־מַר־לִי מְאֹד מִכֶּם [키-마르-리 므오드 미켐]"이라고 말한다. 이 절을 인도하는 כִּי[키]에 대하여 거의 모든 역본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간주하였다. 이 절에 나오는 מִן[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 가지 용법(원인, 상대 비교, 절대 비교)이 제시되어 왔다.[25]

(1)RSV, JB, GNB: 원인의 מִן[민] (WHS 319, 515)

---

[25] Bush(80-81)는 כִּי[키]를 양보의 접속사로 본 Vriezen("Einige Notizen zur Übersetzung des Bindeswort *ki*," in *Von Ugarit nach Qumran*, ed. J. Hempel and L. Rost, BZAW 77, [Berlin: De Gruyter, 1958], 268-69)의 설명은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For things are very bitter for me because of you"

"개역: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새번역: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⑵NJPS, NASB, NEB, NIV, Campbell, , Sasson: 상대 비교의 מִן[민] (WHS 317)

"For things are far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너희들 처지보다는 내 처지가 훨씬 더 비참하다."

⑶NAB, Joüon, Bush: 절대 비교의 מִן[민] (WHS 318; IBHS 4.4f)

"For things are too bitter for me for you (to share)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⑦ כִּי־מַר־לִי מְאֹד מִכֶּם① [키-마르-리 므오드 미켐]에 나오는 전치사 מִן[민]의 의미를 결정하려면 바로 뒤따르는 절(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② [키-야츠아 비 야드-아도나이])에 나오는 כִּי[키](=②)의 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캠벨(61, 70)과 허버드(107, n. 13)는 이 כִּי[키](=②)를 단언의 כִּי[키](asseverative "indeed")로 보았으나 부시(81)와 블락(637) 그리고 NIV, NASB, NRSV 등은 이유/원인의 כִּי[키](causal "for, because")로 보았다.
- 두 번째 כִּי[키](=②)를 단언의 [키]로 보는 허버드(107)와 원인의 כִּי[키]로 보는 부시(70)의 13 절 하반절에 대한 번역을 먼저 비교해 보자.

Hubbard: Absolutely not, my daughters! ①**For** I am in far more bitter straits than you are. ②**Indeed**, Yahweh's own hand has attacked me!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 딸들아. **왜냐하면** 나의 처지가 너희의 처지보다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여호와의 손이 친히 나를 치셨다.

Bush: No, my daughters! ①**For** my life is much too bitter for you to share, ②**for** Yahweh has stretched out his hand against me. 아니다. 내 딸들아. **왜냐하면** 내 삶이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다. **그것은/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⑧ 이 절들의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나오미가 두 번째로 며느리들을 설득하여 모압으로 돌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유하였고 자신의 몸 안에 남편이 될 아들들이 없음을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재혼하여 아들들을 낳게 되는 가상의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일임을 말하였다. 가상의 상황에서도 절대 불가하다고 말하며 며느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 이유를 말한 것이 바로 " כִּי־מַר־לִי מְאֹד מִכֶּם [키-마르-리 므오드 미켐]"이다.

⑨ 그렇다면 מִן[민]을 원인의 מִן[민]으로 보고 "(개역)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혹은 "(새번역)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혹은 "(RSV, JB, GNB)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는 나오미의 아픈 마음에 대하여 알려주는 면이 없지 않으나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는 나오미의 설득력에 있어서 그 힘이 너무 약한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מִן[민]을 상대 비교의 מִן[민]으로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와 며느리들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NJPS, NASB, NEB, NIV, Campbell, Hubbard, Sasson) 너희들 처지보다는 내 처지가 훨씬 더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럴 경우 나오미는 이전의 이타적인 나오미가 아니라 이기적인 나오미로 며느리들에게 오히려 동정을 구하는 꼴이 되며 며느리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야 남편을 만나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설득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מִן[민]을 절대 비교의 מִן[민]으로 보면 나오미가 "**아서라, 내 딸들아**"라고 말하고 가상 상황의 며느리들의 행동을 반대하고 그 이유를 대며 "(NAB, Joüon, Bush) **나의 삶은 너희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나오미의 배려하는 마음과 돌려보내려는 설득력이 잘 드러난다.

⑩ 그러므로 나오미가 "너희가 함께 나누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 비참한 삶"이라고 말한 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키-야츠아 비 야드-아도나이] (NIV, NASB, NRSV, Bush)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나오미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은 사람과 삶을 함께 하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에 오르바와 룻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나오미에게 기근, 타향살이, 사별, 무자식 등은 비극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녀의 불행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녀를 피해 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이유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⑪ 나오미는 8 절에서 룻과 오르바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인애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13 절에서 자신의 삶을 여호와의 손이 치셨기에 함께 나눌 수 없는 삶으로 묘사하며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인애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나오미는 그녀의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나오미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 아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며느리들에게 비참한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려 하지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찾으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14. 룻 1:14

1) 원문 문제

וַתִּשֶּׂנָה קוֹלָן וַתִּבְכֶּינָה עֹוד וַתִּשַּׁק עָרְפָּה לַחֲמוֹתָהּ וְרוּת דָּבְקָה בָּהּ׃ (룻 1:14)

① וַתִּשֶּׂנָה의 어근은?(GKC 76b)

② עֹוד의 의미는? 다시 울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주는가 아니면 오랫동안/얼마동안 계속 운 것을 나타내는가?(BDB 729, 1 b; cf. 창 46:29) [※ de Waard & Nida, *Ruth*, 16: Though the term again seems necessary in view of the intervening statement by Naomi, the emphasis of the Hebrew word is upon the continuation of the weeping. This meaning may be expressed as "They wept still more."] [창 46:29 וַיִּפֹּל עַל־צַוָּארָיו עֹוד וַיֵּבְךְּ עַל־צַוָּארָיו 그가(=요셉이) 그(=야곱)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③ וְרוּת דָּבְקָה בָּהּ라는 절의 어순이 동시 동작을 나타내면서 의도하는 것은? (WHS 573 (5); GBH 118f)

2) 주석

룻 1:14 그들은 [얼마동안] 계속 엉엉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며] 입맞추었지만 룻은 [오히려 더] 그녀[=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① 고국으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설득하는 나오미의 두 번째 길고, 강력한 호소는 앞서 축복하며 작별의 입맞춤을 했던 것과 똑같은 며느리들의 울음 반응을 낳았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번에도 "וַתִּשֶּׂנָה קוֹלָן וַתִּבְכֶּינָה עֹוד [바티쎄나 콜란 바티브케나 오드] 그들은 [얼마동안] 계속 엉엉 울었다." 어근 נשׂא[나싸]에서 굴절된 동사 וַתִּשֶּׂנָה[바티쎄나]에는 렘 9:17 과 슥 5:7 에서처럼 세 번째 자음 알렙이 생략되어 있다(GKC 76b). 부사 עֹוד[오드]는 며느리들이 다시 울기 시작한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계속 얼마동안 운 것을 나타내고 있다(BDB 729, 1 b). 이것은 창 46:29 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 아버지의 목을 어긋 맞겨 안고 얼마동안 "계속" 울었던 것을 עֹוד[오드]를 통해 나타낸 것과 비슷하다. de Waard & Nida(*Ruth*, 16)도 나오미의 중간의 말 때문에 "다시"라는 말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עֹוד[오드]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울음의 계속에 있으므로 "They wept still more."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② 나오미의 첫 번째 돌아가라는 권면과 두 번째 돌아가라는 권면에 대한 며느리들의 반응의 동일함은 "엉엉 운" 것까지이다. 9 절에서는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어머님과 함께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14 절에서는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에[26] 대한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시어머니의

[26] Block, 638, n. 69: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를 뜻하는 חֲמוֹתָה[하모타]란 명사는 나오미를 지칭하는 데 룻기에 9 번(1:14; 2:11, 18, 19, 23; 3:1, 6[2x], 17) 사용되었고,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뜻하는 חָם[함]은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두 번(창 38: 13, 25) 사용되었다.

두 번째 돌아가라는 호소를 듣고서 "וַתִּשַּׁק עָרְפָּה לַחֲמוֹתָהּ [바티샤크 오르파 라하모타흐]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며]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오르바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וְרוּת דָּבְקָה בָּהּ [브루트 다브카 바흐] **그렇지만 룻은 [오히려 더] 그녀[=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서로 다른 오르바의 행동과 룻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이접적 접속사 바브 다음에 명사 주어 룻이 먼저 오고 완료형 동사가 그 다음에 온 것은 룻의 행동이 오르바의 행동과 동시에 일어났으며 서로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27]

③ 9 절과 14 절을 문예적으로 살펴보면 1:9cd 와 1:14abc 는 X(9c)-Y(9d)-Y'(14a)-X'(14bc)처럼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Bush, 72). 9 절에서는 작별의 입맞춤(X) 다음에 울음(Y)이 있었지만 14 절에서는 울음(Y') 다음에 작별의 입맞춤(X')이 있었다. X(9c)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지만 X'(14b)에서는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였다. 작별의 입맞춤의 역순은 나오미와 오르바, 곧 오르바와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난 것을 나타낸다(Hubbard, 115).

X (1:9c) וַתִּשַּׁק לָהֶן

Y (1:9d) וַתִּשְּׂאנָה קוֹלָן וַתִּבְכֶּינָה׃

Y' (1:14a) וַתִּשְּׂנָה קוֹלָן וַתִּבְכֶּינָה עוֹד

X' (1:14bc) וַתִּשַּׁק *עָרְפָּה* לַחֲמוֹתָהּ *וְרוּת* דָּבְקָה בָּהּ׃

X	9c	그녀[나오미]가 *그들*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Y	9d	그들은 엉엉 울었다.
Y'	14a	그들은 계속 엉엉 울었다.
X'	14bc	*오르바*는 그녀의 시모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지만 *룻*은 그녀[시모]에게 달라붙었다.

④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간(A) 오르바(B)와는 대조적으로 룻(B')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A'). 두 며느리의 상반된 행동을 묘사하는 4 절 하반절(X' 14bc)은 각 절의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동사(A)-주어(B)-주어(B')-동사(A')로서 서로 역순 대구를 이루고 있다(Bush, 73).

X' (1:14b) A וַתִּשַּׁק B *עָרְפָּה* לַחֲמוֹתָהּ

(1:14c) B' *וְרוּת* A' דָּבְקָה בָּהּ

1:14b	A(그러자 입맞추었다)	B(오르바는)	(그녀의 시모에게)
1:14c	B'(그러나 룻은)	A'(달라붙었다)	(그녀에게)

[27] WHS 573 (5); GBH 118f; 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162-165; cf. 창 40:21; 41:54; 삿 7:3; 삼상 15:34.

⑤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다. 그러나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좇았다. 오르바는 자연적인 순리를 따라 행동하였으나 룻은 역류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은 길을 택하였다. 룻이 나오미에게 달라붙은 이 행동을 통하여 룻은 나오미가 차지하고 있던 중앙 무대로 등장하게 된다. 룻은 4:13, 15 를 제외하고 이야기에서 그녀의 대부분의 역할이 끝나는 3:18 까지 나오미와 함께 이 중앙 무대를 차지한다(Hubbard, 115)).

⑥ 오르바와 대조되는 룻의 행동을 묘사하는 "**바싹 [달라]붙다, 붙좇다**"라는 동사(דָּבַק[다바크])는 "버리다"라는 동사(עָזַב[아자브])의 반의어이다.[28] 동사 דָּבַק[다바크]는 흔들림 없는 헌신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결혼(창 2:24 cf. 아람어 단 2:43), 통혼(창 34:3; 수 23:12; 왕상 11:2), 다른 인간적 연합(삼하 20:2; 룻 2:23)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동사 דָּבַק[다바크]는 다른 그룹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한 그룹의 일원에서 떠나는 것(창 2:24 아버지의 집; 수 23:12; 왕상 11:2 언약 백성; cf. 삼하 20:2)을 요구한다. 따라서 룻의 붙좇는 행동은 나오미와 영구히 함께 하기 위해 모압의 뿌리를 버리는 헌신을 알려준다(Hubbard, 115). 나오미에게 달라붙은(דָּבַק[다바크] 1:14) 룻은 동서 오르바처럼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면에 대하여 "나로 어머니를 버리라/떠나라(עָזַב[아자브] 1:16)고 강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

[28] דָּבַק[다바크]는 "사랑하다"는 단어(אָהֵב[아헤브])와 동의어이고 עָזַב[아자브]는 "물러나다"는 단어(סוּר[쑤르])와 동의어이다. 다음 구절들을 참고하라.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עָזַב) 그 아내와 연합하여(דָּבַק)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삼하 20:2]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좇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좇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דָּבַק)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좇으니라

[창 34: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דָּבַק) 그 소녀를 사랑하여(אָהֵב)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왕상 11:2] 여호와께서 일찌기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בָּהֶם דָּבַק שְׁלֹמֹה לְאַהֲבָה)

[잠언 18: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NIV but there i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וְיֵשׁ אֹהֵב דָּבֵק מֵאָח]

[왕하 3:3] 그러나 저[아합의 아들 요람]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בְּחַטֹּאת יָרָבְעָם דָּבֵק) 떠나지 아니하였더라(לֹא־סָר מִמֶּנָּה)

[왕하 18:6-7] 곧 저(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דָּבַק) 떠나지 아니하고(לֹא־סָ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דָּבַק[다바크]는 여호와께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 것(신 4:4) 즉 언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모세는 거듭 거듭 여호와에게 친근히 하고 부종하라고 촉구하였다(신 10:20; 11:22; 13:4[MT 5]; 30:20; cf. 수 23:8). 이와 반대로 עָזַב[아자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언약 파기(렘 1:16; 2:13, 17, 19; 5:7; 16:11; 17:13; 19:4; 22:9; 신 28:20; 호 4:10)를 나타낸다.

⑦ 오르바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오르바가 나오미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내레이터는 오르바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는다(Campbell, 82). 만일 내레이터가 시어머니의 현명한 충고를 받아들인 순종적인 오르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적하였더라면 아마도 나오미가 축복하고 기도하던 대로 여호와께서 오르바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말하였을는지도 모른다. 내레이터는 오르바를 불신앙의 부정적인 모델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오르바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기대되는 것이었다면 룻의 선택은 특이하고 기대되지 않은 것이었던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르바를 룻에 대한 대조인물(foil)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오르바는 룻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물에 불과하다. 오르바의 행동은 룻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과 대범한 믿음이 두드러지도록 해 준다. 룻은 외견상 지각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려는 모험적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다(Hubbard, 116). 오르바와 달리 룻이 자신의 장래 운명을 희생하고 늙고 소망 없는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깊은 애정이었는가?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변함없이 꾸준한 헌신이었는가? 아니면 잘못 인도된 룻의 이상주의이었는가? 아니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들었었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로부터 보다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여호와를 믿게 된 룻의 생동하는 믿음의 행위이었던가? 이해되는 행동을 보이며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와 대조적으로, 기대되는 것을 뛰어 넘어 모방해야 할 행동을 보인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은 다음의 대화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1 막 1 장 C (1:15-18)

본문

[WLC: 1 רות]

15 וַתֹּאמֶר הִנֵּה שָׁבָה יְבִמְתֵּךְ אֶל־עַמָּהּ וְאֶל־אֱלֹהֶיהָ שׁוּבִי אַחֲרֵי יְבִמְתֵּךְ׃ 16 וַתֹּאמֶר רוּת אַל־תִּפְגְּעִי־בִי
לְעָזְבֵךְ לָשׁוּב מֵאַחֲרָיִךְ כִּי אֶל־אֲשֶׁר תֵּלְכִי אֵלֵךְ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17 בַּאֲשֶׁר
תָּמוּתִי אָמוּת וְשָׁם אֶקָּבֵר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18 וַתֵּרֶא
כִּי־מִתְאַמֶּצֶת הִיא לָלֶכֶת אִתָּהּ וַתֶּחְדַּל לְדַבֵּר אֵלֶיהָ׃

[ESV: Ruth 1:15-18]

15 And she said, “See, your sister-in-law has gone back to her people and to her gods; return after your sister-in-law.” 16 But Ruth said, “Do not urge me to leave you or to return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will I be buried. May the Lord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anything but death parts me from you." 18 And when Naomi saw that she was determined to go with her, she said no more.

[개역개정: 룻 1:15-18]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번역 (룻 1:15-18)

룻 1:15 그러자 나오미가 [1] [다시] 타일렀다.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2]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16 그 때 룻이 대답하였다. "저더러 어머님을 [3] 버리며 어머님을 [3] 뒤따르지 말고 [4]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5] 어머님이 [3]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3]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머님의 [3]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3]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6] 17 어머님이 [3]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죽음만이 어머님과 [3] 저(의 사이)를 [7]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8]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9] 18 그러자 나오미는 [1] 룻이 [1]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본문 비평

<u>본문비평</u>

[1] 나오미와 룻을 지칭하는 3 인칭 단수 여성 대명사를 "그녀"로 번역하는 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을 밝혀 번역하였다.

[2] 히브리어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처럼 "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복수형이다. 여러 신을 섬기는 모압을 고려하면 "신들(복수)"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개역개정,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ESV, NIV, NASB) 모압의 대표적인 신 그모스를 지칭한다고 보고 단수로 번역하였다(cf. 개역, 새번역, GNT, HCSB, YLT).

[3] 룻이 나오미를 지칭하면서 사용한 2 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 "당신"을 모두 "어머님"으로 번역하였다.

[4] מֵאַחֲרָיִךְ [메아하라이흐]는 직역하면 "from after you"이며 "from following you"의 뜻을 갖는다.

[5] 블락(Block, *Ruth* ZECOT, 94, n. 68)은 접속사 [키]가 결언(assevertative, "surely")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부시와 허버드처럼 이유(causative, "for")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6]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아메흐 아미 벨로하이흐 엘로하이]에는 be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래로 번역하고 있지만 1:17 에서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저주적 맹세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미 회심한 것을 표현한 것이므로 현재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Block, *Ruth* ZECOT, 94).
[7] 원문은 "저의 사이와 당신[어머님]의 사이"로 되어 있으나 존대법상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8-9] 원문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길 그리고 이렇게 더 하시길.[7] 정말로 죽음만이 저와 당신의 사이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6]"라고 되어 있다. GBH 165a 는 저주의 절을 전제절(protasis)라고 부르고 불변화사 כִּי[키]에 의해 인도되는 절을 귀결절(apodosis)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죽음이 저와 어머님을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라는 번역문에서처럼 번역이나 의미상으로 보면 불변화사가 인도하는 절이 전제절/조건절이 되고 저주의 절이 귀결절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개역/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은 의역을 했다. 우리말성경은 룻을 가리키는 대명사의 존대법을 달리하고("저를"과 "내게")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조건절("그렇지 않으면")을 사용했다. 쉬운성경과 공동번역은 앞에 나오는 부분을 요약하는 것처럼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을 추가하며 원문의 절을 순서대로 번역했다.

개역개정: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u>떠나면</u>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새번역: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u>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u>,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말성경: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u>그렇지 않으면</u>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쉬운성경/공동번역: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ESV: May the LORD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anything but death parts me from you.
NASB: Thus may the LORD do to me, and worse, if anything but death parts you and me.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15-18)

(1)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주고받은 세 번의 대화 즉 1:6-10(나오미: [+오르바 +룻]), 1:11-14(나오미: [-오르바 +룻]), 1:15-18(나오미: 룻) 중 마지막 세 번째 부분(1:15-18)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처럼 그녀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녀의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를 그녀의 하나님으로 삼고 함께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더 설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들어 있다.

⑵ 1:16b-17 은 중앙 부분(X)이 강조되는 교차대구(chisamus)의 기교를 보이고 있다.

A (16b) אַל־תִּפְגְּעִי־בִי לְעָזְבֵךְ לָשׁוּב מֵאַחֲרָיִךְ

B (16cd) כִּי אֶל־אֲשֶׁר תֵּלְכִי אֵלֵךְ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X (16ef)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B’ (17ab) בַּאֲשֶׁר תָּמוּתִי אָמוּת וְשָׁם אֶקָּבֵר

A’ (17cde)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A 1:16b 시작하는 명령문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더러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B 1:16cd 한 쌍의 동사문 (살아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X 1:16ef 한 쌍의 명사문 (민족과 종교의 벽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B' 1:17ab 한 쌍의 동사문 (죽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A' 1:17cde 마감하는 맹세문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죽음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일로 인해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⑶ A(1:16b)에 나오는 동사 הלך[할라흐](가다)와 לין[린](머물다)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 둘을 언급함으로 생전에 나오미가 있는 모든 곳에 룻이 함께 있을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교를 양극포괄법(merismus)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앙 축(X)를 감싸고 있는 B(1:16cd)와 B'(1:17ab)는 둘 다 긍정적인 동사문이며 정반대의 두 상황을 든 것으로 양극포괄법을 이루며 룻이 생사(B-B')간에 나오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29]

---

[29] 다른 예들을 들면 창 1:1 에 나오는 “천지”는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양극포괄법의 어구이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권면이 나오는 신 6:7 의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는 어구도 양극포괄법의 어구이다. 이 어구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모두 포함하여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강론할 것을 권면하였다.

각 절 주석 (룻 1:15-18)

15. 룻 1:15

1) 원문 문제

וַתֹּאמֶר הִנֵּה שָׁבָה יְבִמְתֵּךְ אֶל־עַמָּהּ וְאֶל־אֱלֹהֶיהָ שׁוּבִי אַחֲרֵי יְבִמְתֵּךְ׃ (룻 1:15)

① הִנֵּה의 용법은?

② שָׁבָה는 악센트로 보아 분사인가 완료인가?

③ יְבִמְתֵּךְ의 뜻은? (cf. 신 25:7, 9 vs. 창 38:8, 9 אֵשֶׁת אָח)

④ אֱלֹהֶיהָ는 복수로 번역해야 하는가(LXX, Vg, NJPS, ESV, NASB, NIV, RSV, NRSV, NKJV) 아니면 단수로 번역해야 하는가(GNT, HCSB, YLT)?

2) 주석

룻 1: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①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주고받은 세 번의 대화에서 첫 번째(1:8-10)와 두 번째(1:11-13) 경우는 나오미가 길게 말하고 며느리들이 짧게 말하거나 행동으로 반응하였지만 여기 세 번째 경우(1:15-18)는 나오미가 짧게 말하고 룻이 길게 말한다.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는 오르바와는 대조적으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을 때 **세 번째로 나오미는 룻을 타일렀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고 말했다.

② 나오미는 오르바가 선택한 길을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묘사한다. 여기 사용된 עַם([암] 백성)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용어인 גּוֹי([고이] 국민)와는 달리 "아버지 쪽으로 친척"임을 뜻하는 어근 עמם[아맘]에서 유래한 것으로 따뜻함을 드러내는 관계적 용어이다. **오르바가 그녀의 백성 즉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나오미의 해석은 납득이 간다. 그것은 오르바의 귀향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모압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오르바가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나오미의 해석은 정통 여호와 유일신론의 시각에서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 배경에서 국가의 정체를 밝히는 관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성경에서 국가는 인종/민족(ethnicity), 영토(territory), 왕권(kingship), 언어(language), 그리고 신/신학(theology) 등에 근거하여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Block, 639). "모압의 땅(신 1:5; 삿 11:15; 룻 1:2)"은 영토를, "모압 왕 에글론(삿 3:12-17)"은 왕을, 그리고 "모압어"는 언어를 근거하여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룻 1:6 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여호와의] 백성"으로 지칭한 것이나 렘 49:1 에서 암몬 사람들을 "그[=말감의] 백성"으로 지칭하는 것이나 민 21:29 과 렘 48:46 에서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근거한 국가의 구별이다.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 백성"이라고 지칭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그모스 신만을 유일하게 섬겼다는 것은 아니다. 모압인들이 그모스 이외에도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그모스를 주된 신(민족 신, 왕상 11:7, 33; 왕하 23:13)으로 삼고 그에게 특별히 보호와 번영과 질서를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모스의 백성"으로 지칭된 것이다. 오르바의 행동에 대한 나오미의 해석 중 "**자기의 백성**"은 인종/민족에 근거한 구별이고 "**자기의 신**"은 신/신학에 근거한 구별이다. 입다는 암몬 왕과 외교적 담판을 할 때 "네 신 그모스(כְּמוֹשׁ אֱלֹהֶיךָ)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삿 11:24)."고 말했다. 입다처럼 나오미도 각 민족이 민족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기졌던 것처럼 보인다. 나오미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안전 보장을 비롯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제시하지 않고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서 안전 보장을 찾으라는 것이므로 안전을 우상 숭배와 연결시킨 것이고 제 1 계명을 어긴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30]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사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책략을 가지고 현실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나오미가 족장들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자신을 알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학을 따라 반응을 했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믿으며 며느리들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는 충고를 하였을 것이다.

④ "**네 동서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나오미의 말에 나오는 "신 אֱלֹהִים[엘로힘]"은 구약에서 단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복수로 다른 신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이 모압의 민족신 그모스(단수: 부시, 허버드, cf. 삿 11:24 "네 신 그모스" כְּמוֹשׁ אֱלֹהֶיךָ [크모시 엘로헤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압의 신들(복수: LXX, Vg, RSV, NRSV, NJPS, NIV, ESV, NASB, NKJV)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나오미가 말할 때 모압에서 민족신 그모스에 대한 숭배가 있었던 현실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레이터는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블락(639)은 여기 "신"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나오미의 신관이 여호와 유일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사사기의 묘사된 여러 사람들의 신관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

[30] Dean R. Ulrich, *From Famine To Fullness: The Gospel According to Ruth* (Phillipsburg: P & R, 2007), 32.

⑤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며 나오미가 했던 말들(1:8, 9, 13)은 인사 치레의 형식적인 말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녀가 여호와를 모압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면 지역신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왕하 5:17)."라고 한 말이나 아람 왕의 신복들이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왕상 20:13)."라고 한 말에는 어떤 신과 어떤 지역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부시(82)가 잘 지적한 대로 헌터(Hunter, *STJ* 34 [1981]: 427-35)의 주장 즉 나오미와 룻이 각각 룻의 신과 나오미의 신이 동일하게 실재적인(equally real) 신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며 1:14 과 1:16 에 나오는 אֱלֹהִים [엘로힘]을 모두 다 소문자 "god"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레이터가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더욱이 룻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1:17 에서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저주의 맹세를 한 것을 고려하면 1:16 에서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나오는 אֱלֹהִים[엘로힘]은 God 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1:14 의 אֱלֹהִים[엘로힘]은 나오미가 모압에 민족신 그모스 숭배가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고 소문자 "god"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에 자신의 삶이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비참한 삶인 것을 고려하여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오히려 더 바싹 달라붙은 룻에게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을 하나 더 지적하였다. 나오미는 동서 오르바가 택한 길이 여호와로부터 벌 받은 사람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뿌리인 백성과 신을 바꿀 필요가 없는 길인 것을 지적하였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사실 신을 바꾸는 일은 피부의 색깔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렘 2:5-8)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u>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u>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2:10-12)." 나오미는 그렇게도 힘이 드는 신과 백성을 바꾸는 일을 고려하여 룻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동서처럼 그녀의 백성(모압 백성)과 그녀의 신(모압의 민족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룻의 대답을 들을 차례가 되었다.

16. 룻 1:16

1) 원문 문제

וַתֹּאמֶר רוּת אַל־תִּפְגְּעִי־בִי לְעָזְבֵךְ לָשׁוּב מֵאַחֲרָיִךְ (룻 1:16)
כִּי אֶל־אֲשֶׁר תֵּלְכִי אֵלֵךְ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① אַל־תִּפְגְּעִי־בִי에 나오는 פגע의 뜻은? 룻 2:22 에서의 뜻은?(BDB 803, Qal 3. to encounter with hostility[룻 2:22]; Qal 4. to encounter with request, to entreat[룻 1:16])

② כִּי는 이유를 나타내는가(causative "for", 대부분의 영어 성경, Bush, Hubbard) 아니면 결언을 나타내는가(asseverative "surely", Block, *Ruth* ZECOT)?

③ 이 절에 나오는 הלך와 לין은 반의어이다. 이 둘을 써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 이 문예적 기교의 이름은?

④ 이 절에서 명사문을 찾고 그것이 16-17 절에서 차지하는 위치 면에서의 중요성을 말하면?

⑤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에는 be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현재로 번역해야 하는가(Block, *Ruth* ZECOT) 미래로 번역해야 하는가(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학자들)? 1:17 에서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저주적 맹세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2) 주석

룻 1:16 그 때 룻이 대답하였다. "저더러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①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네 번째 명령(15 절, cf. 8, 11, 12 절)을 들었을 때 룻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서를 바라보며 기로에 서서 대답한다. 여기 룻의 대답(16-17 절)은 오르바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우리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10 절)."라고 한 첫 번째 대답과 달리 룻이 홀로 자신의 입으로 처음 말하는 대답이다. 이 대답은 룻의 두 번째 말이긴 하지만 둘이 아닌 혼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므로 룻의 성품을 잘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룻의 이 말(16-17 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기억되는 구절들 중의 하나이고 빼어난 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뛰어난 용기와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동서처럼 모압 백성과 모압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에 상응되는 대답, 즉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중앙 축(X)으로 삼는 역순대구(A-B-X-B'-A') 구조를 보이고 있다.

② 룻은 먼저 "**저더러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A 1:16b)."라고 명령문을 써서 탄원한다. 부시(139-140)와 블락(641, n. 78)이 설명한 대로 פגע[파가]는 룻 2:22 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만나다, 해치려고 공격하다 to encounter with hostility, to attack physically with the intent to do harm"라는 의미로 쓰였다.[31] 그러나 여기에서 פגע[파가]는 렘 7:16; 27:18; 욥 21:15 에서처럼 "**강권하다** to encounter with request, to entreat, to put pressure on, to confront with words"라는 의미로 쓰였다. 룻이 자신의 고국, 고국 백성, 고국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룻에게 있어서 "**어머님을 버리는**(עזב[아자브])" 일이었다.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었다면 시어머니에게 달라붙는(דבק[다바크] 1:14)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달라붙은 동작과 정반대인 "어머님을 버리는" 일 즉 "**어머님을 뒤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일을 하도록 "**강권하지 마시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③ 그리고 룻은 이유의 접속사 כִּי[키]와 동사문을 사용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B 1:16cd)." 문예적 기교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룻은 "**가다** הלך[할라흐]"와 "**묵다**, 밤을 보내다, 머물다, 유숙하다 לִן[린]"이라는 서로 정반대되는 두 단어의 언급(merismus 양극포괄법)을 통하여 생전(all of life)에 나오미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있을 것임을 천명하였다(Bush, 82). 이렇게 룻은 나오미가 자신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 이유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은 어디든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임을 밝혔던 것이다. 룻은 나오미의 과거의 삶이 여호와의 손이 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오미의 미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나오미의 모든 경험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였다.

④ 더 나아가 룻은 돌아가는 동서를 보고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며 동서처럼 돌아가라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권면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X 1:16ef)." 4 단어로 된 이 말(X 1:16ef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아메흐 아미 벨로하이흐 엘로하이])은 명사문이고 A(16b)-B(16cd)와 B'(17ab)-A'(17cd)의 역순대구(chiasmus)의 중앙에 오면서 면류관에 붙은 보석처럼 빛나며 강조되고 있다. 룻은 어느 누구든 붙들고 있어야 안전이 보장되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모든 근거 즉 그녀의 조국, 그녀의 백성, 심지어 그녀의 신들까지 포기하고 시어머니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헌신하여 나오미와 함께 가려면 당시의 근동의 사람들처럼 나오미가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인 여호와에게도 헌신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

[31] פגע[파가]의 의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2:22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있었다. 룻이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이미 백성을 바꾸고 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는 그녀의 놀라운 회심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 말을 통하여 이미 룻은 모압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소속을 바꾸고, 모압 신 그모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헌신으로 바꾼 것을 확언하고 있었다.

⑤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룻의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익숙한 말이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출 6:7; 레 26:12; cf. 창 17:7-8). 언약적 언어로 룻의 말을 풀어 말하면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도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은 그분의 백성이십니다. 어머님,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머님께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룻의 회심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엿보게 하며 놀라움을 준다.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에게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2:11-12).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거나 보호를 받는 것은 여호와를 언약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이다(Ferguson, 39: 시 17:8; 36:7; 57:1; 61:4; 63:7; 91:4).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살전 1:9)" 것으로 묘사한 것처럼 저자는 룻의 말을 통하여 룻이 그녀의 뿌리인 모압 백성과 모압 신을 버리고 주저함 없이 그리고 절대적 헌신의 자세로 나오미가 속한 백성 이스라엘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회심(surprising conversion)을 보여주고 있다(Ferguson, 39).

17. 룻 1:17

1) 원문 문제

בַּאֲשֶׁר תָּמוּתִי אָמוּת וְשָׁם אֶקָּבֵר (룻 1:17)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①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는 어떤 맹세 형식인가(GKC 149d; GBH 165a)?

②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에서 כִּי앞에 생략된 단어는 무엇이며(GBH 165a, b) כִּי의 용법은(WHS 449; BDB, 1.c, p. 472)?

③ 조건절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맹세에 쓰이는 접속사는(WHS 456)? (삼상 3:17; 25:22; 왕상 20:10; 왕하 6:31 vs. 삼하 19:14)

2) 주석

룻 1:17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죽음만이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① 모압의 여호와가 빠진 모든 것(everything *minus* LORD in Moab)을 택한 오르바와 달리 베들레헴의 여호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쪽(LORD *plus* nothing in Bethlehem)을 택한 것을[32] 중앙 축의 명사문(1:16ef)을 통하여 밝힌 후 룻은 앞 절에서 "가다"와 "머물다"라는 정반대되는 두 동사를 사용한 양극포괄법을 통하여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어디든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B 1:16cd)고 했던 동사문에 상응되는 말을 계속 한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B' 1:17ab)." 살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B)고 말했던 룻은 죽어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B')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이 죽으면 가족의 묘실 중에 먼저 시체를 보관하는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뼈만 남게 되었을 때 뼈만 따로 모아 놓는 곳에 옮겨 놓는 장례 관습이 있었다.[33] 이러한 관습대로 룻은 나오미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어 나오미가 묻힌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고 말하였다. 중앙 축(X)를 감싸고 있는 B 와 B'는 둘 다 긍정적인 동사문이며 정반대의 두 상황을 든 것으로 양극포괄법을 이루며 생사(B-B')간에 나오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룻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② 마지막으로 룻은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A 1:16b)."에 상응되는 저주적 맹세를 한다. 이 맹세문은 룻의 말 전체에 공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맛을 느끼게 해준다. 룻은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코 야아쎄 아도나이 리 브호 요씨프]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길 그리고 이렇게 더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저주의 절은 레위기 26 장이나 신명기 28 장에 나열된 죽음, 재앙, 불, 기근, 칼 등의 저주를 들며 그런 저주를 여호와께서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거나, 오늘날 손으로 목을 가로지르게 하거나 검지로 관자놀이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하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고 더 하시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룻의 맹세는 신들이 사람이 맹세하며 말하는 약속이나 서약의 보증자 역할을 한다는 고대근동의 문화 배경적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께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했기

---

[32] Ferguson, *Faithful God*, 38

[33] Hubbard, *Ruth*, 118, n. 28 은 가족이 죽은 후에도 연합되어 있다는 고대 전통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그의 조상/열조에게로 돌아가다(창 25:8; 35:29; 49:29; 신 32:50; 삿 2:10)" 혹은 "그의 조상/열조와 함께 자다(왕상 2:10; 11:43; 14:31)"라는 어구를 들고 있다.

때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한 서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그녀가 호소해야만 하는 신은 바로 그 땅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보편적 확신도 갖고 있었다.

③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저주적 맹세를 하고 룻은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키 하마베트 야프리드 베니 우베네흐] **정말로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의 사이)을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1:17c)."라고 말했다. 저주의 절 다음에서 단독으로 쓰일 때 כִּי[키]는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라는 의미를 가지며 뒤에 오는 내용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앞에 말한 저주가 임할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오미의 죽음 혹은 룻의 죽음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갈라 놓는 일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일 죽음 이외에 다른 일이 둘을 갈라놓는 경우 룻은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죽음(death) 앞이나 뒤에 "오직, 오로지, -만이 nothing but, only, alone"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지만 "죽음"이란 단어가 동사 앞에 나와 강조되어 있고 또 문맥상 이를 반영하는 어구를 넣는 것이 룻의 마음을 보다 잘 드러내는 번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룻이 마지막으로 저주적 맹세를 하며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한 말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가 된다. 얼핏 보기에 이 저주적 맹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죽어서도 나오미와 함께 묻히겠다."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맹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평생 동안의 헌신(lifelong commitment)에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Bush, 83).

④ 구약 성경에서 저주를 표현하는 절은 룻기에 한 번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11 번, 총 12 번 사용되었다. 저주의 주체로 여호와가 두 번, 신들이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온다. 저주의 대상이 언급될 때 전치사 라멧이 쓰인다. 저주의 절 다음에 오는 절을 인도하는 불변화사로는 룻 1:17 이나 삼상 14:44 에서 보는 것처럼 단언적(asseverative) כִּי[키]가 사용되거나 삼상 3:17 에서 보는 것처럼 결여(缺如)적/부정적(privative) אִם[임]이 사용된다.

- 삼상 14:44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כֹּה־יַעֲשֶׂה אֱלֹהִים וְכֹה יֹוסִף [코-야아쎄 엘로힘 브호 요씨프]

  כִּי־מֹות תָּמוּת יֹונָתָן׃ [키-모트 타무트 요나탄]

- 삼상 3:17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כֹּה יַעֲשֶׂה־לְּךָ אֱלֹהִים וְכֹה יֹוסִיף [코 야아쎄-르하 엘로힘 브호 요씨프]

  אִם־תְּכַחֵד מִמֶּנִּי דָּבָר מִכָּל־הַדָּבָר [임-트하헤드 미메니 다바르 미콜-하다바르]

⑤ 삼상 14:44 에서 보는 것처럼 단언적 כִּי[키]는 총 7 번 쓰였고 맹세의 절(חַי יהוה כִּי [하이 아도나이 키] 혹은 נִשְׁבַּע כִּי [니시바 키])에서 유래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כִּי[키]는 저주의 절 다음에서 단독으로 쓰일 때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라는 의미를 가지며 뒤에 오는 내용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할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삼상 3:17 에서 보는 것처럼 결여적/부정적 אִם[임](4 번 쓰임)은 조건을 표시하며 "—한다면, —라면" 저주의 절의 저주가 임할 것을 표현하므로 אִם[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결어적/부정적 אִם[임]의 부정은 אִם לֹא[임로](1 번 쓰임 삼하 19:13[MT 14])이며 "—하지 않는다면" 저주의 절의 저주가 임할 것을 표시하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표현하므로 결국 כִּי[키]와 같은 의미가 된다. [34]

---

[34] 저주의 절(GKC 149d; GBH 165a; WHS 449, 456)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단수 동사</u>

(1)여호와 + 저주의 대상 [+ כִּי asseverative = נִשְׁבַּע כִּי (for positive statement)]

룻 1:17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삼상 20:13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כֹּה־יַעֲשֶׂה יְהוָה לִיהוֹנָתָן וְכֹה יֹסִיף
כִּי־יֵיטַב אֶל־אָבִי אֶת־הָרָעָה עָלֶיךָ וְגָלִיתִי אֶת־אָזְנֶךָ וְשִׁלַּחְתִּיךָ וְהָלַכְתָּ לְשָׁלוֹם

(2)하나님 [+ כִּי asseverative]

삼상 14:44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כֹּה־יַעֲשֶׂה אֱלֹהִים וְכֹה יוֹסִף כִּי־מוֹת תָּמוּת יוֹנָתָן׃

(3)하나님 + 저주의 대상 [+ כִּי asseverative]

삼하 3: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כֹּה־יַעֲשֶׂה אֱלֹהִים לְאַבְנֵר וְכֹה יֹסִיף לוֹ כִּי כַּאֲשֶׁר נִשְׁבַּע יְהוָה לְדָוִד כִּי־כֵן אֶעֱשֶׂה־לוֹ׃

삼하 3:35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כֹּה יַעֲשֶׂה־לִּי אֱלֹהִים וְכֹה יֹסִיף כִּי אִם־לִפְנֵי בוֹא־הַשֶּׁמֶשׁ אֶטְעַם־לֶחֶם אוֹ כָל־מְאוּמָה׃

왕상 2:23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כֹּה יַעֲשֶׂה־לִּי אֱלֹהִים וְכֹה יוֹסִיף כִּי בְנַפְשׁוֹ דִּבֶּר אֲדֹנִיָּהוּ אֶת־הַדָּבָר הַזֶּה׃

(4)하나님 + 저주의 대상 [+ אִם־לֹא (for positive statement)]

⑥ 부시(87)가 트리블(Phyllis Trible)의 글을 인용하며 밝힌 대로 동서고금을 통해 룻의 나오미에 대한 이 헌신의 말(1:16-17)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룻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도움이 될 아내와 롯과 딸린 식구들 그리고 소유도 있었다. 그러나 룻은 혼자이었고 아무런 소유도 없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축복에 대한 약속도 없었다. 룻을 도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 없는 과부요, 자식 없는 어머니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죽음의 희생물이 되어 남편이나 아들이 줄 안식을 기대할 수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 헌신하기로 선택할 때도 지지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배척이나 죽음의 텅 빔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조차도 룻의 이 결심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더 있다. 룻은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택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성적 헌신을 뒤바꾸어 (남편이 되어 자신을 보호해 줄) 남성이 아니고 여성, 그것도 소망 없는 여성에게 헌신을 다짐했다. 삶이 남성에게 달려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여성(룻)이 다른 여성(나오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

삼하 19:13(MT14)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כֹּה יַעֲשֶׂה־לִּי אֱלֹהִים וְכֹה יֹוסִיף אִם־לֹא שַׂר־צָבָא תִּהְיֶה לְפָנַי כָּל־הַיָּמִים תַּחַת יֹואָב׃

(5)하나님 + 저주의 대상 [+ אִם (for negative statement) WHS 456 privative 결어적]

삼상 3:17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כֹּה יַעֲשֶׂה־לְּךָ אֱלֹהִים וְכֹה יֹוסִיף אִם־תְּכַחֵד מִמֶּנִּי דָּבָר מִכָּל־הַדָּבָר אֲשֶׁר־דִּבֶּר אֵלֶיךָ׃

삼상 25: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כֹּה־יַעֲשֶׂה אֱלֹהִים לְאֹיְבֵי דָוִד וְכֹה יֹסִיף אִם־אַשְׁאִיר מִכָּל־אֲשֶׁר־לֹו עַד־הַבֹּקֶר מַשְׁתִּין בְּקִיר׃

왕하 6:31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כֹּה־יַעֲשֶׂה־לִּי אֱלֹהִים וְכֹה יֹוסִף אִם־יַעֲמֹד רֹאשׁ אֱלִישָׁע בֶּן־שָׁפָט עָלָיו הַיֹּום׃

<u>복수 동사</u>

(6)신들 [+ כִּי asseverative]

왕상 19:2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원문에 없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כֹּה־יַעֲשׂוּן אֱלֹהִים וְכֹה יֹוסִפוּן כִּי־כָעֵת מָחָר אָשִׂים אֶת־נַפְשְׁךָ כְּנֶפֶשׁ אַחַד מֵהֶם׃

(7)신들 + 저주 대상 [+ אִם]

왕상 20:10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좇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כֹּה־יַעֲשׂוּן לִי אֱלֹהִים וְכֹה יֹוסִפוּ אִם־יִשְׁפֹּק עֲפַר שֹׁמְרֹון לִשְׁעָלִים לְכָל־הָעָם אֲשֶׁר בְּרַגְלָי׃

이보다 더 획기적인 헌신은 없다."[35]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내린 결정은 재혼의 가능성을 근거로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했던 나오미를 부끄럽게 만든다. 조상대대로 믿어온 모태 신앙의 나오미보다 소문을 들어 알고 시집 와서 배워 알게 된 초신자 룻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을 내렸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과 정반대로 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라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

⑦ 미래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에게 헌신하며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룻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눅 18:29-30)."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오미의 고난을 통하여 룻이 회심하여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분이 씨뿌리고 추수하시는 것을 나머지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18. 룻 1:18

1) 원문 문제

וַתֵּרֶא כִּי־מִתְאַמֶּצֶת הִיא לָלֶכֶת אִתָּהּ וַתֶּחְדַּל לְדַבֵּר אֵלֶיהָ׃ (룻 1:18)

① מִתְאַמֶּצֶת의 어근의 뜻은(cf. 왕상 12:18 = 대하 10:18; 대하 13:7)?

② 분사 מִתְאַמֶּצֶת의 용법은(WHS 213)?

③ 부정사 לָלֶכֶת의 용법과 לְדַבֵּר의 용법은?

2) 주석

룻 1:18 그러자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

[35] Bush, *Esther, Ruth*, 87: "Phillis Trible observes (173) that in the entire epic of Israel only Abraham himself matched such radical commitment, but he had a call from God and was a man's world with a wife and family for support. On the other hand, Ruth stands alone; she possesses nothing. No God has called her; no deity has promised her blessing; no human being has come to her aid. She lives and chooses without a support group, and she knows that the fruit of her decision may well be the emptiness of rejection, indeed of death. Consequently, not even Abraham's leap of faith surpasses this decision of Ruth's. And there is more. Not only has Ruth broken with family, country, and faith, but she has also reversed sexual allegiance. A young woman has committed herself to the life of an old woman rather than the search for the husband . . . One female has chosen another female in a world where life depends upon men. There is no more radical decision in all the memories of Israel."

① 룻이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고 죽음 이외에는 나오미와 헤어지는 일이 이생에서는 없을 것임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을 다 들은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견고한 것을 알고서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מִתְאַמֶּצֶת[미트아메체트]이다. 이 단어는 어근 אמץ([아메츠] "강하다")의 작위재귀 어간 여성 분사로서 룻의 결심의 지속되는 상태(durative)를 나타낸다.[36]

② 룻의 자기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알고서 자기와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며느리 룻을 더 이상 말리지도 않았고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더 이상 권면하지도 않았다.

1 막 1 장(1:6-18) 해설

(1)서막(1:1-5)은 우거하러 갔던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 홀로 남게 된 나오미의 텅빈 삶을 묘사한다. 1 막 1 장(1:6-18)은 베들레헴 귀향 문제를 놓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주고받은 3 차례의 대화를 소개한다. 이 대화들은 베들레헴 귀향 노상에서 누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젊은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계속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자는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이러한 내용의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간다. 1 막 1 장(1:6-18)에서 "**돌아가다[슈브]**"라는 동사는 9 번 사용되었는데 6 번은 오르바와 룻이 모압(8, 11, 12, 15, 15, 16 절)으로 돌아가는 것에 쓰였고 3 번은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유다(6, 7, 10 절)로 돌아오는 것에 쓰였다. 먼저 3 번

---

[36] 어근 אמץ[아메츠]의 작위재귀(힛파엘) 어간은 룻 1:18 이외에 왕상 12:18=대하 10:18 그리고 대하 13:17 에만 사용되었는데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 뜻이 서로 다르다.

- (왕상 12:18=대하 10:18)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 (대하 13:7) 난봉과 비류가 모여 좇으므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 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 (룻 1:18)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근 אמץ([아메츠] "강하다")의 작위재귀 어간이 이렇게 세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나 서로 뜻이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단어의 뜻을 찾을 때 어근에서 파생된 어떤 의미를 유추하는 것보다 그 단어가 사용된 실제의 문에서 문맥을 고려하며 찾는 것이 바른 것임을 알게 된다. BDB(55)는 룻 1:18 에서는 뒤따르는 부정사를 가지며 "confirm oneself in a purpose, be determined"의 의미를 갖고, 왕상 12:18=대하 10:18 에서는 뒤따르는 부정사를 가지며 "make oneself alert, make haste"의 의미를 갖고, 대하 13:7 에서는 뒤따르는 전치사 עַל[알]을 가지며 공모자들에 대하여 "strengthen oneself"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KB(I 65)는 작위어간이 "prove to be strong"을 나타내는데 룻 1:18 에서는 "persist in something", 왕상 12:18 = 대하 10:18 에서는 "manage to (mount)" 혹은 "(mount) hastily", 대하 13:7 에서는 "be superior"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유다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로, 6 절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라는 진술에 나온다. 이 요약 진술은 22 절의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는 요약 진술과 서로 수미쌍관법을 이룬다. 둘째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선 것을 서술하는 7 절에 나온다. 셋째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첫 번째 권면에 두 며느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10 절에 나온다. 그리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6 번 사용된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돌아가다"라는 동사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권면할 때 4 번(8, 11, 12, 15 절) 사용되었고, 나오미가 오르바의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감을 묘사할 때 1 번(15 절) 사용되었으며, 룻이 나오미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라고 청할 때 1 번(16 절) 사용되었다.

⑵세 여인들의 목적지에 대한 갈등은 8-17 절에 나오는 대화의 무대를 제공하는 6-7 절의 동사 사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나오미는 ①**일어섰고**(1:6 단수), 그녀와 그녀의 며느리들이(복합주어) ②**돌아올 채비를 차렸고**(단수),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③**들었었고**(단수), 머물던 곳을 ④**떠났고**(1:7 단수), 모압을 떠날 때 두 며느리가 그녀와 함께(명사문) 있었고, 그들은 유다로 돌아오려고 길을 ⑤**나섰다**(복수). 이렇게 나오미를 가리키는 3 인칭 여성 단수 동사(①②③④)들이 6 절 처음부터 7 절 상반절까지 계속 사용된다. 처음부터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단수 동사들을 사용하여 나오미의 귀향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두 며느리의 입장과 의도의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7 절 마지막에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을 가리키는 3 인칭 여성 복수 동사(⑤)를 사용한다. 나오미를 받는 단수 동사에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을 받는 복수 동사로 바뀐 것은 길을 나선 세 여인의 똑같은 상황을 전하며 뒤따라 나오는 이들의 대화(1:8-17)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⑶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장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자기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거듭거듭 주장한다. 나오미는 먼저 권면(**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축복(**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기도(**여호와께서 너희로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길 빈다.**)로 된 긴 말(1:8-9a)을 한다. 내레이터의 동사 사용에서 미묘하게 묘사되고 나오미의 말에 드러나 있는 세 여인의 상황의 모호함은 나오미의 입장의 난처함과 복합된 감정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나오미 홀로 남는 것이고 나오미 홀로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며느리들을 위해 여호와께 간절하게 빌었던 것과 정반대로 며느리들에게 삶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 딜렘마에 직면하여 나오미는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났었던 재난 즉 고향을 잃고, 남편을 여의고, 아들들을 먼저 보낸 재난들 위에다가 또 하나의 재난을 자신의 의지로 감내하려고 한다. 나오미는 홀로 쓸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며 **두 며느리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한다**(1:9b). 이 때 **세 여인들은 엉엉 운다**. 나오미의 첫 번째 말 가운데 그녀의 감정과 고통이 들어 있고 작별의 입맞춤에 그녀의 단호한 의지가 들어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별은 나오미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더 아끼는 시어머니의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작별의 입맞춤을 받은 오르바와 룻은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우리가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1:10).

⑷며느리들의 이러한 거절에 대하여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라는 권면을 하려고 그녀의 가장 긴 말(1:11-13)을 한다. 이 말은 세 개의 독립된 말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각각 "**나의 딸들아**"라고 부르는 호격이 들어있다. 첫 번째 말에서 나오미는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라고 권면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1:11)"라는 설유적 수사의문문을 통하여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설유한다. 그리고 수사의문문 "**내 몸 안에 아들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1:11)"에서 "자궁"이란 말 대신 더 일반적인 "몸 안"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불가능성을 더 날카롭게 지적하며 오르바와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보강한다.

⑸두 번째 말에서 나오미는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가거라.**"고 재차 권면하며 자신이 던진 수사의문문의 답으로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다**(1:12)."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오미는 양보절을 사용하여 자신이 부인했던 바로 그 사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실제 현실과 반대되는 조건을 가정하며 "**설령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1:12)."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불가능한 조건이 설사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인 것을 두 개의 수사의문문을 통하여 나타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오미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오직 가정의 세계에서만 얻을 가능성이 있는 아들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그들을")를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의 초두에 두면서 "**그들을,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1:13)"라고 묻는다.

⑹세 번째 말에서 나오미는 강조적인 "**아서라, 나의 딸들아.**"라고 결론지으며 그들이 모압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로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주장에 쓰라린 불평으로 날인한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며느리들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녀를 쳤기 때문**(1:13)"이라고 말한다. 이 쓰라린 불평을 통하여 나오미는 그녀에게 닥친 재난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 자신 즉 그의 손이 그녀를 쳤던 분에게 있음을 밝힌다.

⑺이러한 일련의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수사의문문과 조건문이 들어 있는 나오미의 말의 형식과 논조는 그녀가 논리 정연한 논증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나오미는 사실상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재혼을 통한 장래 행복의 가능성을 기준하여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나오미의 말은 홀로 남게 된 자신의 쓸쓸하고 소망 없는 삶에 함께 길을 나선 며느리들을 끌어들일 수 없으며 홀로 외로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비참한 현실에 압도된 여인의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었던 것이다(부시, 86). 나오미의 이러한 고뇌에 찬 부르짖음의 말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가져온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에 동의하며 **작별의 입맞춤을 하였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바싹 달라붙었다**(1:14). 오르바의 결정은 합리성과 가능성과 실용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순리적이었다. 오르바는 그녀의 원래의 공동체와 원래의 믿음 쪽을 선택하였다. 나오미의 말대로 오르바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다**(1:15)." 내레이터는 오르바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청종함으로써 시어머니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었고 공동체의 삶과 관습이 요구하는 그대로 행동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르바의 행동이 바르고 합리적이고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르바가 나오미의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고 이야기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작별의 입맞춤을 한 오르바가 외롭게 혼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⑻오르바의 작별의 입맞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오히려 더 바싹 달라붙은 것이다. 이렇게 룻은 중심 인물 나오미의 무대의 중앙에 등장하고 있었다. 오르바를 돌려보내는 데 성공한 나오미는 자신에게 달라붙는 룻을 향하여 동서의 모범을 따르라고 다시 권면한다(1:15). 동서 오르바처럼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마지막 권면에 대하여 룻은 나오미의 백성이 그녀의 백성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앙에 들어있는 웅변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한다(1:16-17). 룻은 나오미에게 "**저더러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1:16)"라고 말하며 나오미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하기로 결심한 것을 보인다. 룻은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1:16)"이라면서 그 헌신이 이 세상의 삶 동안 내내 계속될 것일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1:17)"이라면서 그 헌신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룻은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1:16)"라고 말하며 이미 민족의 벽과 종교의 벽조차도 뛰어 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룻은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보증하려고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1:17)"이라는 준엄한 맹세 가운데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생의 삶에서 죽음이 자신과 어머니를 떼어 놓기 전에 어머니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1:17)."라고 말한다.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은 그녀의 장래나 안전보장에 대한

배려를 내려 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동체와 종교의 인연마저 끊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오미는 재혼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향하며 가능성을 근거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하였었다. 그러나 룻은 합리성이나 가능성이나 실용성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았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이 나오미의 말대로 재혼의 가능성이 없어 장래 소망이 없는 길인 줄도 알았다. 또한 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곧 모압인이요, 여자요, 과부인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신 23:3-6)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섬기는 신앙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것이었다. 룻의 나오미에 대한 이 헌신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인애, 자기 희생적인 인애, 곧 한결같은 인애(헤쎄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⑼룻의 헌신의 말을 듣고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1:18). 룻의 헌신의 말은 나오미가 자신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룻에게 닥칠 알려지지 않은 운명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룻을 설득하지 않았다. 내레이터는 룻의 헌신에 대하여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전혀 묘사하지 않는다. 나오미의 따뜻한 포옹이나 감사의 말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의 자기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귀향길의 나오미를 사로잡은 삶의 비참함을 보다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부시, 87). 나오미는 룻의 헌신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묵묵히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 젊은 여인이 한 늙은 여인에게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 늙은 여인은 아직도 그 젊은 여인의 가장 뛰어난 헌신을 절실하게 느낄 수 없었고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 늙은 여인은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⑽기대하지 않았던 모압에서의 비극적 상황(1:1-5)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은 1 막 1 장(1:6-18) 뿐만 아니라 1 막 2 장(1:19-22)에도 나오므로 전체적인 것은 1 막 2 장까지 가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오미의 반응의 핵심적인 것은 1 막 1 장의 나오미의 말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 나오미는 자신에 대한 며느리들의 인애를 인정하면서도(1:8-9)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인애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나오미의 반응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부인하고 있다. 1:13 에서 나오미는 현 상황이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적대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홀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냉대를 체험하지 말라고 말한다. 1:15 에서 나오미는 (1:8 과 달리)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지역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룻도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를 따라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말한다. 나오미의 신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아주 잘 형성되고 통제된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의 배교적 분위기와 모압에서의 다신론 영향으로 인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고국 소식에 귀향을 결심한 것과 귀향 길에서 자신보다 며느리들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고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도록 설득하며 비극적 상황에 처한 여인으로서 자신에게 스스로 또 하나의 고난을 감내하기로 한 것은 어렵지만 바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양식 주심을 통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으로 확인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하심 가운데 나오미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찾아 귀향을 결심한 것은 우리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히 4:6)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처한 비극적 상황 자체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자신의 현재 행복의 수준을 잣대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측량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선하시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이는 말을 한 것(울리치, 29)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20-21 이 암시하는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레 26 장이나 신 28 장의 언약적 저주 조항과 연결시키거나 욥의 친구들처럼 보응의 원리를 잣대 삼아 고난을 범죄의 결과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룻기 본문은 하나님이 나오미에 대하여 진노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오미의 말은 나오미가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울리치, 31). 물론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그녀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한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대로 해 주시는 분이 아니셨다. 나오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비참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며느리들에게 주입시키며 하나님이 주실 안전 보장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 보장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⑾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채워 주시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재는 어리석음에 빠지곤 한다(울리치, 29). 우리에게 상황이 유리할 때는 하나님이 선해 보이시고 우리에게 상황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이 인자하게 보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황보다 항상 크시고 모든 상황의 배후에 계시며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뜻이어야 하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의도하시며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그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합 2:4)."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우리의 상황들이 좋든 나쁘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으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 보장, 만족, 평강, 희락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신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상황을 통하여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뜻을 배웠다(고후 1:8-9).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신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으로부터 젖을 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상황들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고난을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시선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맞추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후 4:17-18).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선 즉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온갖 상황들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으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⑿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려고 갔었던 모압이란 이방 땅에서 두 자식과 남편이 죽어 정체가 상실되고 홀로 남게 된 "그 여인(1:5)"으로서 죽음의 희생자요 삶의 희생자가 된 나오미의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것(1:6, 22)과 며느리 룻의 회심과 헌신(1:16-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룻의 회심과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을 돋보이게 해 주는 대조인물 오르바는 합리적인 길을 따라 사회적 안정을 찾아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오미처럼 후사없이 남편과 사별한 룻은 오르바와 달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달라붙으며 이스라엘이 그녀의 백성이고 여호와가 그녀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일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며 합리성이나 가능성보다 신앙 위주의 선택을 한 룻의 결단과 헌신은 재혼의 가능성을 근거로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했던 나오미를 부끄럽게 만든다. **모태 신앙의 나오미보다 초신자 룻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정신과 정반대로 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신앙적 결단을 내렸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나오미의 삶에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들의 죽음이 들어왔지만 이런 죽음을 통하여 룻의

새로운 영적 삶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목적이 작용하게 되었다. 그렇다. 죽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다(퍼거슨, 45; cf. 고후 4:10-12).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행 7 장)이 허비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의 회심(행 9 장)을 가져온 것으로 묘사하였다. 죽음이 스데반에게 임했지만 새 생명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가족들의 죽음이 나오미에게 임했지만 새 생명이 룻에게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이다. 우리도 언약적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결국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때(골 1:24)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⒀룻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결단은 **참된 믿음**에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가 있음을 보게 해 준다(울리치, 43-47). 첫째,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신 7:7)"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출애굽, 광야 인도, 요단 동쪽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의 정복, 가나안 정복 등)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시집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스라엘 조상들을 위해 베푸셨던 기이한 일들(사라/리브가/라헬의 불임문제 해결, 야곱과 에서의 화해, 유다의 변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등)을 듣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참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그것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하늘에 초월해 계시면서 그의 백성과 늘 가까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알리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해석하시는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셨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아는 지식이 참 믿음의 지적인 요소이다**. 둘째, 룻은 시집오기 전에 들었던 소문과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 와서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참됨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넘어 그 이야기의 진실성에 동의하였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승리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룻은 이것을 부인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참 믿음에는 정적인 요소 즉 성경 계시의 진실성에 대한 동의와 승인이 들어 있다**. 셋째,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이야기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그 이야기의 진실성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룻은 모압과 관련된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란 언약 공동체와 관계를 맺었다. 룻의 지식과 동의는 능동적인 신뢰로 이끌며 그녀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그녀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였다. 룻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그녀의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를 그녀의 신으로 모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참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 즉 성경의 계시가 보여주는 참된 삶의 방식대로 사는 의지적인 실천이 들어 있다.** 룻의 회심이 보아스에게 보였던 것처럼(룻 2:11-12),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향에 대한 변화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이다. 그런데 룻의 삶의 방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녀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 즉 자식 하나 갖지 못하고 남편과 사별한 아픔을 간직하며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시기에 있었던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룻은 나오미의 권면대로 친정으로 돌아가 새 남편의 그늘 아래 평안을 찾거나 오르바처럼 모압 백성과 모압 신 그모스가 줄 사회적 안정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룻은 나오미가 남편될 자식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클 때까지 기다리다간 영영 그녀의 후사를 얻을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녀의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할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로 하였다. 모압 여인이란 주홍글씨가 항상 그녀를 따라다니므로 나오미의 백성이 그녀를 영접해 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룻은 여호와의 명령이나 약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출신에 상관없이 받아주시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헌신하였다. 룻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험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녀의 하나님으로 모신 여호와께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으로 생각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온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결단을 내린 룻의 믿음을 그녀의 의로 여기신 것은 룻기의 나머지 부분과 마태 복음 1 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통하여 확인된다. 룻기의 나머지 부분은 여호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긴 룻에게 새 남편을 만나 평안을 얻도록 빌었던 나오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참 믿음은 일상 생활의 불확실한 일들과 변화무쌍한 일들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천하는 의지의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 계시의 핵심 내용을 지성적으로 알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위대하고 능력있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다. 이에 대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진노를 푸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로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행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헌신을 잘 보여주신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계속 증명해 보이는 무대인 동시에 우리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숙을 위한 무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무대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복잡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에 늘 충분하신 분이심을 가르치고 계신다.

⒁룻은 관습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그녀의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 전지 전능하지 못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하고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녀의 평안과 미래를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를 부끄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룻이 소망없는 나오미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한 것은 보아스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찾았기 때문이다.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기대하며 홀로 된 나오미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자비는 뿌리와 열매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울리치, 50).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라는 교훈을 거듭 거듭 주고 있다(신 15:15; 24:18; 16:12).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신 복을 받은 우리들도 불우한 이웃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을 관대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롬 12:13; 고후 8:9; 9:7-8; 딤전 6:18).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은 처음에 나오미의 냉담한 반응을 받았을 뿐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텅빈 나오미의 운명을 회복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다. 룻의 헌신은 텅 비었던 나오미가 점점 가득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신앙이 회복되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고통스러운 날들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보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⑮룻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선언한 믿음은 나오미에 대한 헌신과 부양의 기초가 되었다. 룻은 그녀의 믿음을 즉시 실천에 옮겼고 이런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룻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 넘는 헌신을 함으로써 나오미의 신앙이 다시 견고해지는 전기를 제공하였다. 룻은 나오미에게 선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화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버리시거나 적대하신 것이 아님은 나오미에게 룻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목적에 대한 확증으로서 곁에 있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며느리 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없었던 나오미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격려와 위로와 부요를 가져다주도록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룻과 다르지 않는가? 룻의 믿음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도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을 훨씬 뛰어 넘는 한결같은 인애를 베푸는 행위가 들어 있는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에 베푼 우리의 한결같은 인애는 즉각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주는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호와의 계시를 알고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룻의 나오미에 대한 관습을 뛰어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을 준비하시는 데 사용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상황을 봉사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사는 한결같은 인애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무대요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룻이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고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애는 우리 인간들의 인애라는 얼굴로 이웃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전달될 수 있다.

◇ 1 막 2 장 (1:19-22)

본문

[WLC: 1 רות]

19 וַתֵּלַכְנָה שְׁתֵּיהֶם עַד־בֹּאָנָה בֵּית לָחֶם וַיְהִי כְּבֹאָנָה בֵּית לָחֶם וַתֵּהֹם כָּל־הָעִיר עֲלֵיהֶן
וַתֹּאמַרְנָה הֲזֹאת נָעֳמִי׃ 20 וַתֹּאמֶר אֲלֵיהֶן אַל־תִּקְרֶאנָה לִי נָעֳמִי קְרֶאן לִי מָרָא כִּי־הֵמַר שַׁדַּי לִי מְאֹד׃
21 אֲנִי מְלֵאָה הָלַכְתִּי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 לָמָּה תִקְרֶאנָה לִי נָעֳמִי וַיהוָה עָנָה בִי וְשַׁדַּי הֵרַע* לִי׃
22 וַתָּשָׁב נָעֳמִי וְרוּת הַמּוֹאֲבִיָּה כַלָּתָהּ עִמָּהּ הַשָּׁבָה מִשְּׂדֵי מוֹאָב וְהֵמָּה בָּאוּ בֵּית לָחֶם בִּתְחִלַּת קְצִיר
שְׂעֹרִים׃

[ESV: Ruth 1:19-22] **Naomi and Ruth Return**

19 So the two of them went on until they came to Bethlehem. And when they came to Bethlehem, the whole town was stirred because of them. And the women said, “Is this Naomi?” 20 She said to them, “Do not call me Naomi;[a] call me Mara,[b] for the Almighty has dealt very bitterly with me. 21 I went away full, and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Why call me Naomi, when the Lord has testified against me and the Almighty has brought calamity upon me?” 22 So Naomi returned, and Ruth the Moabite her daughter-in-law with her, who returned from the country of Moab. And they came to Bethlehem at the beginning of barley harvest.

a. Ruth 1:20 *Naomi* means *pleasant*
b. Ruth 1:20 *Mara* means *bitter*

[개역개정: 룻 1:19-22]

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번역 (룻 1:19-22)

룻 1:19 이에 그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길을 행하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의 여인네들]이 [1] 그들 때문에 떠들썩하였고 (그 여자들이)[2]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3] 말하였다. 20 나오미가 [4]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즐거움]라고 [5] 부르지들 말고 마라[괴로움]라고 [6] 불러 주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7]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8]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9] 말이오."
22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10] 그녀의 며느리,[11]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12] 그녀와 함께 [13] 있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본문 비평

1-2 명사 주어 "온 성읍"보다 먼저 나온 동사("떠들썩하다")는 3 인칭 여성 단수형이지만 뒤에 나오는 동사("말하다")는 3 인칭 여성 복수형이 쓰였다. 괄호에 들어 있는 "그 여자들"은 복수 동사에 들어 있는 주어를 나타낸 것이다. 문맥은 "온 성읍"이 뒤에 나오는 동사의 대명사 주어 "그 여자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체를 통해 부분을 나타내는 것(혹은 그 반대로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제유(synecdoche)라 한다.

3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나오미를 보고 놀라며 기뻐하는 것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을 감탄문처럼 번역하였다.

4 대명사("그녀")가 가리키는 명사("나오미")로 번역하였다.

5-6 나오미는 "Sweetness 즐거움, 달콤함"이란 뜻이고 마라는 "Bitterness 괴로움, 쓰라림, 비참함"이란 뜻이다. 따라서 이 두 이름은 그 뜻을 통한 언어 유희를 보여준다.

7-9 원문의 순서를 따라 번역하였다.

8 위의 번역은 맛소라 본문을 따라 어근 [아나] I 의 파알 어간이 전치사 [브] 를 취할 때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KB, 852: "to testify" 출 20:16; 민 35:30; 삼상 12:3; 삼하 1:16; 미 6:3)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칠십인역(ἐταπείνωσέ με = Brenton: "humbled me")과 벌게이트역(Duay-Rheims: "humbled me")과 페시타역과 구라틴역은 어근 [아나] II 의 피엘 어간(עִנָּה "KB, 853: to oppress, humiliate")으로 읽는 독법을 보인다. NIV 는 "afflicted"로 번역하고 개역/개역개정의 "징벌하셨고"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부시(88)는 피엘(עִנָּה)이 전치사 [브]와 함께 목적어를 취하는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

10-13 원문의 순서에 유의하면 "모압 여인 룻"과 [10] "그녀의 며느리"가 [11] 동격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녀와 함께"라는 전명구가 [13] 나오고, ["모압 여인 룻"과 "그녀의 며느리"와 동격을 이루는]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라는 정관사가 이끄는 관계절이 [12] 다시 한번 나온다. 이토록 길게 3 번이나 룻을 언급한 것은 나오미가 빈 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19-22)

(1)귀향의 이야기의 전환점을 제공하는 1:6 이 1:22 과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동사 "돌아오다", 명사구 "모압 땅", 그리고 "양식"/"보리"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알 수 있다(Bush, 89). 1:6 에서 나오미는

모압 땅(שְׂדֵה מוֹאָב [스데 모아브])에서 양식(לֶחֶם[레헴])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했고(וַתָּשָׁב[바타쇼브]), 1:22 에서 나오미는 보리(שְׂעֹרִים[스오림]) 추수 시작할 때 모압 땅(שְׂדֵי מוֹאָב [스데 모아브])으로부터 돌아왔다(וַתָּשָׁב[바타쇼브]). 6 절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라는 요약적 진술은 22 절의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그녀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즉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온 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요약적 진술이 된다.

6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מִשְּׂדֵי מוֹאָב*
כִּי שָׁמְעָה בִשְׂדֵה מוֹאָב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 לָתֵת לָהֶם **לָחֶם**:

22 **וַתָּשָׁב** נָעֳמִי

וְרוּת הַמּוֹאֲבִיָּה כַלָּתָהּ עִמָּהּ **הַשָּׁבָה** *מִשְּׂדֵי מוֹאָב*
וְהֵמָּה בָּאוּ בֵּית לֶחֶם בִּתְחִלַּת קְצִיר **שְׂעֹרִים**:

(2)시의 각운(rhyme)처럼 1:19 에서 두 개의 부정사(עַד־בֹּאָנָה [아드-보아나 ... 크보아나] ... כְּבֹאָנָה)에 붙은 접미대명사로 ן[눈] 대신 נָה[나]가 사용됨으로써 3 인칭 여성 복수를 나타내는 동사(וַתֵּלַכְנָה [바텔라흐나])의 어미(נָה[나])와 유운(assonance)을 이루고 있다(Sasson, 31).

(3)1:19a 와 1:22c 는 동사 בּוֹא[보]와 지명 베들레헴이 수미쌍관법을 이룬다(Bush, 89).

עַד־בֹּאָנָה בֵּית לָחֶם [아드-보아나 베트 라헴] (1:19a)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וְהֵמָּה בָּאוּ בֵּית לֶחֶם [브헤마 바우 베트 레헴] (1:22c)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4)1:20 과 1:21 은 각각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 이름을 통한 언어유희(W-W')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A)-여호와(B)-여호와(B')-전능자(A')의 순서로 나오며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Bush, 90).

W 언어유희(word play)

20 "나를 **나오미**[즐거움]라고 부르지들 말고 마라[괴로움]라고 불러 주오."

AB 전능자—여호와

20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W' 언어유희(word play)

21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

B'A' 여호와—전능자

21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21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

⑸1:21 의 첫 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를 원문의 순서를 따라 직역하면 "내가(X [아니]) 풍족하게-나갔다(Y [믈레아-할라흐티]). 그렇지만-빈 손으로-나로-돌아오게-하셨다(Y' [브레캄-헤시바니]) 여호와께서(X' [아도나이])."이다. 이 어순은 주어(X)-부사+동사(Y)—부사+동사(Y')-주어(X')라는 교차 대구를 보이고 있다(Block, 646).

אֲנִי מְלֵאָה הָלַכְתִּי	(주어 *부사 동사*)	I full went-away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	(*부사 동사* 주어)	but-empty has-brought-me-back Yahweh

각 절 주석 (룻 1:19-22)

19. 룻 1:19

1) 원문 문제

וַתֵּלַכְנָה שְׁתֵּיהֶם עַד־בֹּאָנָה בֵּית לָחֶם (룻 1:19)
וַיְהִי כְּבֹאָנָה בֵּית לֶחֶם וַתֵּהֹם כָּל־הָעִיר עֲלֵיהֶן וַתֹּאמַרְנָה הֲזֹאת נָעֳמִי׃

① 남성형 어미를 가지고 있는 שְׁתֵּיהֶם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룻 1:8 참조; GBH 149b, GKC 135o; Campbell 65; Bush 75, 84)

② וַתֵּלַכְנָה שְׁתֵּיהֶם עַד־בֹּאָנָה בֵּית לָחֶם에서 בֹּאָן 대신 בֹּאָנָה(GKC 91f)가 사용된 이유를 וַתֵּלַכְנָה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③ וַתֵּהֹם의 어근과 어간은? הוּם/הוֹם(GKC 72h)혹은 המה(Joüon, E 42)의 파알(칼 B)인가? 아니면 הוּם/הוֹם(GKC 72v)이나 המם(GKC 67t)의 니프알(N)인가?

④ כָּל־הָעִיר처럼 전체로 부분(וַתֹּאמַרְנָה)을 나타내거나 이와 반대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문예적 기교는?

⑤ 의문문 הֲזֹאת נָעֳמִי의 성격은? (cf. GBH 161b)

2) 주석

룻 1:19 이에 그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길을 행하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의 여인네들]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하였고 (그 여자들이)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① 내레이터는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장소가 어디인지, 요단 동편인지 요단 서편인지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던지 상관없이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의 나머지는 간단히 "**이에 그 두 사람이 길을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하나의 짧은 문에 요약되어 있다. 이제 독자들의 관심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온 베들레헴이란 새로운 장소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로 빨리 옮겨진다. 1 막 1 장(1:6-18))과 마찬가지로 1 막 2 장(1:19-22)도 주로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말을 건넨 베들레헴 여인들로 인해 대화가 시작되었고

여기에서도 나오미는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해석이 담긴 대답을 길게 하였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1 막 2 장(1:19-22)에서처럼 4 막 2 장에 이어 나오는 종막(4:13-17)에서도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는 합창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② 내레이터는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을 설명할 때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6, 7 절)"라는 어구 대신에 "**그들 두 사람**, the two of them שְׁתֵיהֶם[시테헴]"이란 단어를 주어로 사용한다. 지금 그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것은 이름이 밝혀진 노인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젊은 여인의 종속이 드러나는 고부간계가 아니라 그 두 여인의 공통된 운명이었다(Hubbard, 123). "**그 두 사람** שְׁתֵיהֶם[시테헴]"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 הֶם[헴]은 3 인칭 남성 복수가 아니라 3 인칭 공성 양수 어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1:8 을 참고하라. 부정사 בּוֹא[보]에 3 인칭 여성 복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בֹּאָן[보안] 대신에 בֹּאָנָה[보아나]가 쓰인 것은 동사 וַתֵּלֵכְנָה[바텔라흐나]와 유운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

③ 공통의 운명이 묶고 있는 "**그 두 사람**"은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이르러 받을 대접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내레이터는 그들의 베들레헴 도착이 온 성읍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전한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하였고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명사 주어 "כָּל־הָעִיר [콜 하이르] 온 성읍" 앞에 나오는 동사는 3 인칭 여성 단수 동사(וַתֵּהֹם[바테홈] "떠들썩했다")이지만 뒤에 나오는 동사는 3 인칭 여성 복수 동사(וַתֹּאמַרְנָה[바토마르나] "말했다")이다. 여성 단수 명사 "**온 성읍**"에 대하여 뒤에 오는 동사가 표현하는 주어가 3 인칭 여성 복수 "**그 여자들**"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체(**온 성읍**)를 통해 부분(**성읍의 여자들**)을 나타내는 것(혹은 그 반대로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synecdoche(제유)라 한다.[2]

④ "**떠들썩하다**"라고 번역된 동사 וַתֵּהֹם[바테홈]의 어근과 어간에 대하여 הוּם/הוֹם(GKC 72h) 혹은 המה(Joüon, E 42)의 기본능동(Qal 칼, Pa'al 파알)으로 보거나 הוּם/הוֹם(GKC 72v) 혹은 המם(GKC 67t)의 기본재귀(Nif'al 니프알)로 보는 입장이 있다(Bush, 91). 영어의 murmur 처럼 자음 הם (hm)에서 의성어적으로 유래된 것이므로 어느 쪽으로 보든 의미상 차이는 없다. 블락(645)은 이 단어가 "to hum, groan, be agitated, panic, be in an uproar, make a noise"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동사는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땅이 울리는 것(삼상 4:5)과 솔로몬을

---

[1] 룻 1:19 에서처럼 렘 8:7 에도 בֹּאָנָה[보아나]가 쓰였다. 창 21:29; 42:36; 잠 31:29; 욥 39:2 에서 3 인칭 여성 복수 접미대명사로 ָן[안] 대신 ָנָה[아나]가 쓰인 것은 대부분 휴지(pause)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GKC 91f).

[2] 용골(keel)이나 돛(sail)이 배(ship)를 나타내는데 쓰이거나 피조물(creature)이 사람(man)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것도 제유이다. 성경에 쓰인 제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ullinger, *Figures of Speech Used in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93), 613-656 을 참고하라.

왕으로 삼고 무리가 즐거워할 때 성중이 진동한(왕상 1:45)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다. 나오미가 10 년 전에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간 이래 그녀가 겪은 슬픔에 대하여 친척들이 들었을 것이므로 나오미가 이렇게 갑자기 알리지 않고 베들레헴에 나타난 것은 성읍 여인들의 놀라움, 흥분, 반가움 등의 감정을 자아내게 하였을 것이다.

⑤ 나오미의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는 귀향에 대한 온 성읍 여인들의 놀라움과 반가움은 나오미를 보았을 때 서로 서로에게 하는 질문 즉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 cf. Hubbard: Can this really be Naomi? Bush: Is this really Naomi? NIV: Can this be Naomi?"에 잘 반영되어 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어머, 나오미 아니야?" "아니, 이게 누군가? 어머, 나오미 아닌가?" 이 질문과 여인들의 떠들썩함은 나오미의 상실과 슬픔이 가져온 초췌한 모습에 대한 충격과 염려와 당혹스러움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KD, 476; Morris, 262). 그러나 여인들의 떠들썩함과 질문은 오랜만에 갑자기 나타난 나오미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어울린다.[3] 부시(92)는 종글링(Jongeling, *VT* 28 [1978]: 474-478)을 따르며 "**떠들썩하다**"는 동사가 삼상 4:5 과 왕상 1:45 에서 고조되는 기쁨을 나타낸 것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즉시 여인들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반응한 것은 여인들이 떠들썩하며 서로 서로에게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한 말이 충격과 당혹스러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알아보고 놀라며 기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20. 룻 1:20

1) 원문 문제

וַתֹּאמֶר אֲלֵיהֶן אַל־תִּקְרֶאנָה לִי נָעֳמִי קְרֶאן לִי מָרָא כִּי־הֵמַר שַׁדַּי לִי מְאֹד׃ (룻 1:20)

① מָרָא와 הֵמַר의 어근은? 특이한 מָרָא 대신 여성 단수 자립형으로 보통 쓰이는 형은(GKC 80h)?

② קְרֶאן에 생략된 마지막 자음은(cf. 1:9 וּמְצֶאן; 1:12 לֶכֶן; GKC 46f)?

③ שַׁדַּי의 적절한 번역은?(LXX: παντοκράτωρ; Vg: omnipotens; cf. (축복과 저주) 창 17:1; 28:3; 35:11; 민 24:4, 16; (심판) 사 13:6; 욜 1:15; 욥 5:17; (능력) 겔 1:24; 10:5; 시 68:15; 91:1)

2) 주석

룻 1:20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즐거움]라고 부르지들 말고 마라[괴로움]라고 불러 주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

[3] Hubbard(123, n. 18)는 의문사 הֲ[하]가 감탄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용례를 위해 GBH 161b 과 창 3:11; 민 20:11; 민 20:10; 31:15; 삼상 2:27; 왕상 18:17 등을 지적하였다.

① 놀라며 반가워하는 여인들이 서로 서로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즐거움]라고 부르지들 말고 마라[괴로움]라고 불러 주오."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는 **나오미**로 즐거운 자였지만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죽고 홀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금은 **마라**로 전과 전혀 다른 자요,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괴로운 자요, 비참한 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름의 뜻에 근거한 이러한 언어유희는 나오미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과 쓰라림과 비참함의 강도를 엿보게 해 준다.

② **나오미**(נָעֳמִי[노오미])란 이름은 어근 נעם[나암](“to be pleasant, lovely 즐겁다, 사랑스럽다")에서 유래되었다. 허버드(89, n. 27)는 נָעֳמִי[노오미]의 끝에 붙은 어미 ִי [이 î]에 대하여 ⑴특별한 의미가 없는 초기 가나안어의 여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거나(cf. 사래 Sarai, 창 11:30; Benz, Glanzman), ⑵1 인칭 공성 단수 접미대명사로 보거나(cf. 헵시바 Hephzibah [My delight is in her], 왕상 21:1; Stamm), ⑶작음을 표시하거나 애칭을 나타내는 지소접미사(diminutive)로 보는(Sasson, Stamm) 입장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 어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오미의 뜻이 ⑴"pleasant one" 혹은 ⑵"my pleasant one, my joy, my delight" 혹은 ⑶"the pleasant one; the Pleasant, the Lovely One"일 것이라고 말했다.

③ 나오미가 자신을 부를 대체 이름으로 말한 마라(מָרָא[마라])는 어근 מרר[마라르](“to be bitter 쓰다, 비참하다, 괴롭다")에서 유래한 것이다. מָרָא[마라]의 끝에 있는 자음 א(알렙)에 대하여 허버드(122, n. 9)는 지소접미사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대되는 여성형 מָרָה[마라]의 ה[헤] 대신 א[알렙]을 쓴 것을 서기관의 실수로 보거나(Myers), 히브리어 원문의 מָרָה[마라]를 아람어 철자법을 따라 מָרָא[마라]로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Campbell, Rudolph)고 하였다. 부시(92)도 후기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람어 철자법을 따라 여성 단수 자립형 어미 ה[헤] 대신 א[알렙]을 쓴 것으로 보고 GKC 80h 를 참고하라고 지적하였다. 부시는 주옹이 מָרָא[마라]를 מָרִי[마리]로 고쳐 "my bitter one"으로 해석하고 נָעֳמִי[노오미]와 일치된 어미를 갖도록 한 것은 나오미에 붙은 어미가 1 인칭 공성 단수 접미대명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허버드(122)와 부시(92)는 새슨이 מָרָא[마라]의 어근으로 "to strengthen, bless, 강화하다, 축복하다"를 의미하는 מרר[마라르]를 제시한 것은 "즐거움"과 "비참함"의 대조를 통한 나오미의 언어유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르게 지적하였다.

④ **나오미** 대 **마라**! 애칭에 쓰이는 지소접미사 요드(ִי [이])가 붙어 있는 **나오미** 그리고 아람어 철자법에 따라 헤(ה) 대신 여성 어미 알렙(א)이 붙어 있는 **마라**! 이 두 이름의 뜻은 정반대였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전에는 나오미로서 즐거운 자, 사랑스러운 자로 부름 받았지만 이제는 마라로서 즐거움과 거리가 먼 비참한 자, 기쁨과는 거리가 먼 괴로움을 당한 자"로 부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할 이유를 들며 " כִּי־הֵמַר שַׁדַּי לִי

מְאֹד [키 헤마르 샤다이 리 므오드]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라고 덧붙였다.

⑤ 나오미는 13 절에서 며느리들에게 מַר־לִי מְאֹד מִכֶּם[마르-리 므오드] "나의 삶이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했었다. 20 절에서 나오미는 "전능자"를 주어로 삼고 마라와 어근이 같은 사역능동(Hifil) 어간 동사 הֵמַר([헤마르] "비참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비통하게 하다, to make bitter, to embitter, to cause bitterness, grief")를 써서 "**전능자께서**" 자신을 매우 "**비참하게/비통하게/슬프게/쓰라리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13 절에서 막연하게 여호와의 손이 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나오미는 여기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셨다고 말한다. 구어체 히브리어에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다음에 나오는 보편적인 어순에 비추어 보면 [위의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나오미가 הֵמַר[헤마르]란 동사를 주어 שַׁדַּי([샤다이] "전능자")보다 먼저 말한 것은 동사를 강조하는 것이고 비참함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Bush, 92). 이것은 21 절 마지막 두 절에서 나오미가 주어+동사 순서로 말한 것과 대조된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20 절 לִי מְאֹד: (주어)שַׁדַּי (동사)כִּי־הֵמַר [키 헤마르 샤다이 리 므오드]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21 절 בִּי (동사)עָנָה (주어)יְהוָה [바도나이 아나 비]
לִי: (동사)הֵרַע (주어)וְשַׁדַּי [브샤다이 헤라 리]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⑥ 나오미는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신 주체를 שַׁדַּי[샤다이]로 부르며 여호와와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샤다이]는 칠십인역의 번역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를 따라 벌게이트역에서 omnipotens 그리고 영어역본들에서 the Almighty 로 번역되었고 개역개정에서도 "전능자"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과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허버드(124, n. 24)와 해밀톤(Hamilton, *Genesis 1-17*, 462-46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어원적 설명이 제시된다.

⑴ שַׁדַּי[샤다이]를 관계사 שֶׁ([셰])와 형용사 דַּי([다이] sufficient)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he who is sufficient 자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아퀼라와 심마쿠스 헬라어 역본에 반영되어 ἱκανός[히카노스]로 번역되었다.

⑵ שַׁדַּי[샤다이]를 어근 שׁדד("[샤다드] to destroy, overpower 파괴하다, 제압하다")와 관련지어 "he who destroys, overpowers 파괴하는 자, 제압하는 자"로 해석한 것은 칠십인역에 반영되어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로 번역되었다. 사 13:6("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שׁוֹד מִשַּׁדִּי 쇼드 미샤다이]”)에 나오는 자음 שׁ[신]과 ד[달렛]의 사용을 통한 언어유희는 이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다.

⑶바이퍼트(Weippert, *ZDMG* 111 [1961]: 42-62)와 비팔(Wifall, *ZAW* 92 [1980]: 24-32)은 히브리어 [싸데]와 관련지어 “El of the plain, or the fields, or the steppe 평지/들/초원의 신”라고 해석했다.

⑷워커(Walker, *ZAW* 72 [1960]: 64-66)는 수메르어 SÀ.ZU[싸주]와 관련지어 “all-knowing one, omniscient 전지한 자”로 해석하였다.

⑸베일리(Bailey, *JBL* 87 [1968]: 434-438)와 월레트(Ouellette, *JBL* 88 [1969]: 470-471)는 이른 바벨론 문헌에 아무루(Amurru)신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칭호 bēl sadē[벨 싸데](“Lord of the steppe” 초원의 주)와 관련지어 “El of the steppe 초원의 신”이라고 해석하였다.

⑹올브라이트(Albright, *JBL* 54 [1934]: 180-187)와 크로스(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52-60)는 아카드어 šadu[샤두]와 관련지어 “one of the mountain 산의 신”으로 해석하였고 캠벨(76)과 여러 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⑦블락(645-646)은 원래 “가슴”을 의미하던 셈족어 어근 ṯdw/y[사두]이 우가릿어에서 “산”을 의미하는 것을 지적하며 שַׁדַּי[샤다이]가 올브라이트, 크로스, 캠벨(Albright, Cross, Campbell) 등이 주장하는 대로 “the one of the mountain 산에 거하는 신”을 뜻할 수도 있지만 어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블락은 주전 7 세기 초 데이르 알라(Deir ‘Allā)의 발람 문헌에서 שַׁדַּי[샤다이]의 의미(meaning)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의(significance)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문헌에서 천상회의를 하는 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šdyn*[샤딘]과 *ʾlhyn*[일힌]가 병행구로 서로 교체 사용된 것을 주목하며 šadday*[샤다이]*가 천상회의의 우두머리인 El 의 별칭(epithet)이라고 한 해케트(Hackett)의 주장을 소개하며 신들과 산을 연결한 것은 천상회의가 보통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블락(646)은 “천상회의의 주재로서 샤다이는 그의 섭리적 보살핌과 징계적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인 모든 천군천사들을 다스린다. 나오미의 신관이 이토록 복잡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녀를 불행의 화살의 과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샤다이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⑧**전능자**(שַׁדַּי[샤다이])는 구약 성경에 48 번 사용되었고, 창세기(17:1; 28:3; 35:11; 43:14; 48:3) 그리고 출 6:3 그리고 겔 10:5 에서는 אֵל[엘]과 결합된 אֵל שַׁדַּי [엘 샤다이]로 나오고, 욥기(31 번)를 비롯한 나머지 경우는(창 49:25; 룻 1:20, 21; 겔 1:24; 사 13:6; 욜 1:15; 민 24:4, 16; 시 68:14[MT 15]

등) 단독으로 나온다.[4] 캠벨(77)은 "전능자"란 칭호가 족장 시대와 왕정 이전 시대에 통용되었고 왕정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포로기에 다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며 룻기의 배경 시대가 왕정 이전 시대 즉 사사 시대이므로 "전능자"란 칭호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허버드(125)는 "전능자"가 사사 시대에 통용되던 칭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옛적에 일어난 이야기인 느낌을 주기 위해 이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이 이야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족장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⑨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17:1) 사용되고 나머지 5 번은 야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사용하셨고(35:11),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한 번 사용하였고(28:3), 야곱이 스스로 3 번(43:14; 48:3; 49:25)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를 사용하였다. 창 43:14 을 제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란 칭호는 5 번 모두 번성할 후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이 중 세 번은 "축복하다(28:3; 48:3; 49:25)"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다(Hamilton, 463). 민수기에서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24:4, 16)"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었다. "전능자"는 사 13:6; 욜 1:15; 욥 5:17 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5] 겔 1:24; 10:5; 시 68:15; 91:1 에서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6]

⑩ 허버드(125)는 "전능자"란 이름이 룻기의 문맥에 잘 어울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전능자"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연관지어 사용되었기(민 24:4, 16; 시 68:14[MT 15]; 욥 40:2; cf. 34:12-13)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전능자"는 복을 주시고 장래에 일어날 위대한 운명을 약속하시고(창 17:1; 28:3; 35:11; 43:14; 48:3-4), 의인과 악인에게 임할 운명을 정하신다(욥 27:14; 31:2). 우주의 통치자로서 "전능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며(욥 6:4; 23:16; 27:14-23; cf. 그의 목소리의 두려움, 겔 1:24; 10:5) 공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주관하신다(욥 8:3; 24:1; 27:2). 사람들은 "전능자"에게 변호와 구원을 위한 호소를 드린다(욥 8:5; 13;3; 31:35). 이런 배경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오미가 "전능자"란 용어를 사용하여 여호와를 지칭한 것은 올바르다고

---

[4] Hamilton, *Genesis 1-17*, 462-463; Wenham, *Genesis 16-50*, 20; Campbell, *Ruth*, 76-77.

[5] [사 13:6]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욜 1:15]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욥 5:17]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6] [겔 1:24]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시 68:15]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시 91: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 수 있다. 나오미의 운명은 그 어떤 다른 데서 나올 수 없었고 그녀의 장래의 반전된 운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전능자"는 불평, 원망, 비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는 영광도 얻을 것인가?

21. 룻 1:21

1) 원문 문제

אֲנִי מְלֵאָה הָלַכְתִּי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 (룻 1:21)
לָמָּה תִקְרֶאנָה לִי נָעֳמִי וַיהוָה עָנָה בִי וְשַׁדַּי הֵרַע לִי׃

① אֲנִי מְלֵאָה הָלַכְתִּי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를 어순과 교차대구적(chiastic) 관점에서 강조를 설명하면?

② וַיהוָה עָנָה בִי וְשַׁדַּי הֵרַע לִי에서 접속사 ו의 뜻은? ב의 용법은? הֵרַע לִי의 병행구로서 עָנָה בִי가 갖는 의미는?

2) 주석

룻 1: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

① 나오미는 재빨리 그녀의 비참함을 확대하면서 타향살이 갈 때를 떠올린다. 나오미가 타향살이를 떠날 때는 남편 엘리멜렉도 있었고 아들들 말론과 기룐도 있어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행복하며 "**풍족하였다**." 그녀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 기근이나 타향살이도 그저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 풍족함만 있으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여호와를 원망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던 그녀가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남편 죽고 아들들마저 죽었기에 나갔던 자들 중에서 오직 그녀만이 생존하여 홀로 빈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양식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문제 있어서 나갈 때 풍족한 나오미가 텅 비어 돌아왔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나오미는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한 주체가 여호와라고 지목하며 불평한다. 나오미의 불평에 대한 원문과 직역은 다음과 같다.

אֲנִי מְלֵאָה הָלַכְתִּי [아니 믈레아 할라흐티] (주어 *부사 동사*)
내가(X)—*풍족하게-나갔다*(Y)
I full went-away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 [브레캄 헤시바니 아도나이] (*부사 동사* 주어)
//그렇지만- *빈 손으로 나로-돌아오게 하셨다*(Y')—여호와께서(X')
but-empty has-brought-me-back Yahweh

② 이 두 문의 어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문의 주어와 동사를 보면 첫 번째 문은 주어(X **내가**)-동사(Y **나갔다**)이고 두 번째 문은 동사(Y' **돌아오게 하셨다**)-주어(X' **여호와께서**)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문에서 동사의 굴절형에 주어가 표시되므로 구문적으로 불필요하지만 인칭 대명사 [아니]가 문두의 주어 자리에 온 것은 토픽을 제시하며(to present a Topic) 앞 절의 "전능자"에서 "나"로 주체(agent)가 바뀐 것을 나타낸다.[7] 두 문에서 부사가 동사 앞에 오는 도치 어순은 부사의 강조를 위한 것이다(Block, 646; Bush, 93; Hubbard, 125-26). 이렇게 강조된 두 개의 부사 즉 מְלֵאָה[믈레아](“**풍족하게**”)와 רֵיקָם[레캄](“**텅 빈 채로**”)은 의미면에서도 서로 반대되므로 나오미의 상황과 여호와의 행동을 더욱 분명하게 대조되게 한다. 두 번째 문에서 동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יְהוָה([아도나이] “**여호와**”)는 마지막 자리에 위치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의 주어 אֲנִי([아니] “**나**”=나오미)와 두 번째 문의 주어 יְהוָה([아도나이] “**여호와**”)는 각각 처음과 끝(양극)을 차지하며 서로 대적이 되게 하는 효과를 준다. “**나**”와 “**여호와**”의 대조를 통하여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미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풍족에서 텅빔에로의 극적인 변화를 여호와의 탓으로 돌린다. 즐거운 일이었어야 할 귀향은 나오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녀로부터 빼앗아 가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였다. 그러나 나오미가 우주에 어떤 다른 힘이 없음을 인식하고 어떤 것도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돌린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점이다(Hubbard, 126).

③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라고 불평을 털어 놓은 뒤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처음처럼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라는 수사의문문을 통하여 자신을 나오미로 부를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고 다시 그 이유를 들며 말한다. “וַיהוָה עָנָה בִי וְשַׁדַּי הֵרַע לִי [바도나이 아나 비 브샤다이 헤라 리]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라고 말한다. 이 두 문은 주어+동사+부사구[전명구]라는 구어 히브리어의 정상적인 어순을 보인다. 여호와 앞에 붙어 있는 접속사 וּ[바브]는 이유를 나타내는 כִּי[키] 대신 쓰였다(Hubbard, 126; Campbell, 62 “For”; cf. Bush, 88 “When”).

④ 나오미는 법정에서 고소와 증거가 그녀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법적 행위에 대한 피고인 것처럼 묘사하며 증인으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심판주로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라고 말했다. 캠벨(77)은 주전 7 세기 후반 Yabneh-yam 도편에 쓰인 편지에서 ענה[아나] 다음에 전치사 ב[브]가 오면 증언이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고 ל[르]가 오면 증언이 유리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여기 עָנָה בִי [아나 비]가 법적인 뉘앙스를 가지며 병행구로

---

[7] Robert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98. 첫 번째 문의 주어 אֲנִי[아니]에 대해 Block(*Ruth* ZECOT, 103)도 구문적으로 불필요하다(syntactically necessary)고 말하고 Hubbard(125)도 군더더기(“superfluous”)라고 말한다. 그러나 Bush(93)는 McDonald, *BO* 32 [1975]: 166-167 을 근거로 구어 히브리어의 표준 어순에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동사가 나오므로 첫 번째 문의 주어 אֲנִי([아니] “나”)는 정상적인 것이고 강조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오는 הֵרַע לִי [헤라 리]도 역시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제 9 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출 20:16; 신 5:20)."고 할 때 그리고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민 35:30)."에서 한 증인의 증거를 언급할 때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한 아말렉 소년을 죽일 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삼하 1:16)."라고 말할 때 룻기에서처럼 עָנָה בְ [아나 브]가 사용되었다. 허버드(127)에 의하면 나오미의 말은 나오미가 그녀에 대항하여 제기된 고소와 증거는 모르지만 이미 자신이 죄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다. 그는 나오미가 여호와만이 그러한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셨음이 틀림없고 그분보다 더 확실한 증인은 없기 때문에 반박하고 싶더라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벌을 감내하는 길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⑤ KB(II: 1270)는 הֵרַע[헤라]를 "to do evil, treat badly"라고 풀이하고 הֵרַע לְ[헤라 르]의 의미를 "to do something bad to someone"이라고 풀이하고 룻 1:21 을 비롯하여 창 19:9; 43:6; 출 5:22-23; 민 11:11; 20:15; 수 24:20; 삼상 26:21; 렘 25:6; 슥 8:14; 시 105:15 등을 예로 들었다. 허버드(127)는 어근 רעע[라아]의 사역능동(Hifil) 어간 동사와 전치사 ל[르]가 결합된 어구 הֵרַע לְ[헤라 르]의 주어로 여기서는 전능자가 나왔지만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주어로 12 번 모두 여호와가 나왔다고 설명한다. 룻기의 이 어구는 여호와께서 부당하게 벌을 주셨다고 불평하는 문맥에서 쓰인 구절들(출 5:22; 민 11:11; 왕하 17:20; 시 44:2[MT 3])을 생각나게 해 준다.[8] 이 경우들에 있어서 주어진 명백하게 해로운 일이 나중에 더 크고 더 많은 복의 시작으로 판명되었던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어구가 선택된 것은 나오미의 재난에 대한 여호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오미에 대한 독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어떤 궁극적으로 주어질 어떤 좋은 결과를 암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⑥ 나오미가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했던 말들을 다시 읽어보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의 처지는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다**(13 절)." "**전능자께서**

---

[8] [출 5: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민 11:11]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왕하 17: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시 44:2]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소.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소(20-21 절)." 나오미의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블락(647)의 주장처럼 나오미의 흠이 있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며 나오미가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가 없는 주권, 동정이 없는 전능, 자비가 없는 공평을 말한 것일까? 캠벨(83)의 주장처럼 토라진(petulant) 요나나 진지한(earnest) 예레미야나[9] 일관된(persistent) 욥처럼 절대 주권을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리며 신정론의 문제를 씨름한 것으로 하나님을 재판정에서 심문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 허버드(127)의 말처럼 예레미야나 욥이나 시편기자들처럼 그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순전한 정직의 모델인가?

⑦ 룻기 저자는 나오미가 당한 기근, 타향살이, 남편과의 사별, 아들들과의 사별 등의 원인으로 나오미의 죄나 가족들의 죄나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은 재난이 처벌로 주어진 것이라는 암시 없이 여호와를 재난을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 모세는 여호와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민 11:11)?"라고 말씀드린다.
-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미 4:6-8)."고 말한다.

⑧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오미의 말들은 신비로우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지적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나오미는 여호와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사 45:7 의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cf. 애 3:37-38; 암 3:6-8; 출 4:11)."처럼 그리고 흑인 영가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이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절대주권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

[9] [렘 12:1]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불평을 털어 놓을 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증거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예레미야(12:1)나 자신의 경건함의 순전성을 보이는 변백을 듣고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원했던 욥(31:35)처럼 나오미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다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어(5 절)" 정체성이 상실된 여인의 텅 빈 삶을 괴로워하며 정직함과 솔직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불평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⑨ 그러나 허버드(127)가 "룻이 헌신의 모델이었다면 나오미는 현실의 재난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여호와께 토로한 정직의 모델"이라고 한 것은 너무 긍정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부시(95)가 "그러한 불평은 하나님에 의해 용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의 정당한 자세도 될 수 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돌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신정론의 문제와 부딪칠 수도 있으며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심판대에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때에도 결코 죄가 아니다."[10] 라는 캠벨(83)의 말을 빌려 나오미의 불평을 구약의 "불평의 신학(theology of complaint)"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 것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나오미가 신정론의 문제와 씨름한 것처럼 묘사되지 않은 것과 나오미의 불평이 그녀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쏟아냈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⑩ 나오미가 자신과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하신 일을 말할 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지적받아야 한다.[11] 나오미의 말들은 블락(647)이 설명한 대로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에만 좌우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가 없는 주권, 동정이 없는 전능, 자비가 없는 공평을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오미의 말들은 상황들을 통제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물씬 풍긴다. 나오미에게 상황들은 그녀가 기대한 것과 달리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대로 해 주시는 신이 아니셨다. 나오미의 노골적인 불평은 솔직하긴 했지만 혀로 짓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소유물과 자식들을 잃고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22)."는 평가를 나오미에게는 줄 수 없다.

---

[10] Campbell, 83: "Not only is complaint tolerated by God, but it can even be the *proper* stance of a person who takes God seriously! Anyone who ascribes full sovereignty to a just and merciful God may expect to encounter the problem of theodicy, and to wrestle with that problem is no sin even when it leads to an attempt to put God on trial."

[11] Ulrich, *From Famine To Fullness*, 28-29.

그리고 욥 자신에게 임한 종기로 인한 고통을 보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 2:9)"는 아내에게 욥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 2:10)."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욥 2:10)."고 내린 평가 역시 나오미에게 그대로 줄 수 없다. 욥의 말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주권적으로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오미의 말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욥의 반응(욥 1:21; 2:10)이나 바울의 반응(고후 11:23-28; 12:7-10)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오미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에 입각한 반응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 나오미는 자신의 역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

22. 룻 1:22

1) 원문 문제

וַתָּשָׁב נָעֳמִי וְרוּת הַמּוֹאֲבִיָּה כַלָּתָהּ עִמָּהּ הַשָּׁבָה מִשְּׂדֵי מוֹאָב (룻 1:22)
וְהֵמָּה בָּאוּ בֵּית לֶחֶם בִּתְחִלַּת קְצִיר שְׂעֹרִים׃

① 바브 계속법 וַתָּשָׁב 의 용법은?(GKC 111k; GBH 118i)

② הַשָּׁבָה는 완료형인가 아니면 분사인가? 정관사 ה의 용법은?(GKC 138i, k)

③ וְרוּת הַמּוֹאֲבִיָּה כַלָּתָהּ עִמָּהּ הַשָּׁבָה מִשְּׂדֵי מוֹאָב의 구문적 역할은?

④ GBH 149c 는 자립 인칭 대명사의 경우 남성형이 여성형 대신 쓰이는 예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는 자립 인칭 대명사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 Bush, 94: It seems far more likely that we have here an original third person dual independent pronoun, built on the form of the third person masculine plural (as in Ugaritic and Arabic, where the form is humâ, by coincidence very similar to the form we have in our text).]

2) 주석

룻 1:22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① 내레이터는 7 절 이후 여기에서 처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등장 인물들을 중앙 무대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말을 한다. 내레이터는 22 절에서 6-21 절의 사건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사건을 암시하는 두 부분으로 된 요약 보고를 한다. 먼저, 내레이터는 1 막의 중심 사건을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וַתָּשָׁב נָעֳמִי [바타쇼브 노오미]"라고 요약한다. 이 절에 나오는 바브 계속법 וַתָּשָׁב[바타쇼브]는 보통의 경우처럼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전후 관계를 나타내며 요약 진술(recapitulation)을 표현하고 있다(GKC 111k; GBH 118i). 허버드(128, n. 1)는 창 2:1; 23:20; 수 10:40; 삼상 17:50; 30:3; 31:6;

삼하 24:8 에 나오는 바브 계속법도 요약 진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 경우 접속사 바브를 "and so, in this way; 이렇게, 그리하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6 절의 두 번째 동사로 사용되고 22 절의 첫 번째 동사로 사용된 וַתָּשָׁב [바타쇼브]는 6-7 절에서 언급하였던 일이 22 절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나오미가 돌아왔다.")을 보여준다.

② 내레이터는 두 여인의 귀향에 대하여 독자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전하지 않는다.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서 머물게 되었는지—친척 집인지, 친구 집인지, 엘리멜렉의 옛 집인지—전혀 전하지 않았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전하지 않았다. 다만 내레이터는 베들레헴 여인들과 나오미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18-21 절) 잠시 가려져 있었던 룻을 이야기 속으로 다시 끌어들인다. 나오미가 자기 곁에 바로 룻이 서 있었을지라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하며 했던 말(20-21 절)은 룻으로 하여금 잠시 무대 뒤로 피해 있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했으나 내레이터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통해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헌신을 다짐했던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20-21 절에서 나오미는 자기를 지칭하는 "나"를 9 번, 즉 주격 대명사로 1 번, 동사의 주어로 1 번, 동사의 목적어로 1 번,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6 번 사용한다. 고난에 파묻혀 온통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에는 "나"만 있고 헌신을 다짐했던 며느리 룻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는 명사문을 통하여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룻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 이 명사문의 구조는 나오미가 돌아온 것보다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Bush, 94). 이 명사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에서 제시된 원문은 ①이접적 접속사 바브 다음에 ②주어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바로 뒤에 ③동격 주어 "그녀의 며느리"가 나오며 ④술어로 전명구를 써서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언급한 후 다시 한번 룻을 가리키는 주어로 ⑤"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를 언급한다.

  ③כַּלָּתָהּ ②רוּת הַמּוֹאֲבִיָּה וְ① [브 루트 하모아비야 할라타흐]

  ④עִמָּהּ [이마흐]

  ⑤הַשָّבָה מִשְּׂדֵי מוֹאָב [하샤바 미스데 모아브]

- 서두의 주어 ②"**모압 여인 룻**"과 다시 부연 설명하는 말미의 주어 ⑤"**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는 이방 여인이 조국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놀랄만한 일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 서두의 주어(②"**모압 여인 룻**") 다음에 나오는 동격 주어 ③"**그녀의 며느리**"가 ④"**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은 나오미의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녀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다시 부연 설명하는 말미의 주어인 ⑤"הַשָּׁבָה מִשְּׂדֵי מוֹאָב [하샤바 미스데 모아브]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에서 첫 단어 הַשָּׁבָה[하샤바]는 정관사와 완료 동사가 결합된 형이고 여기 정관사는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GKC 138i, k). 맛소라 학자들이 [종음절에 악센트를 붙여 분사로 해석하지 않고] 전종음절에 악센트 티프하를 붙여 완료동사(הַשָּׁבָה)로 해석한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행위가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인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ampbell, 78; Bush, 94).
- 6-7 절에서는 나오미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두 며느리는 단지 나오미와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 세 여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22 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간 것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돌아감/돌아옴"이지만 룻의 경우 시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베들레헴에 온 것이므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룻을 나오미의 귀향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며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로 말함으로써 분명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룻이 "돌아왔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③ 이렇게 내레이터는 요약 진술의 첫 번째 부분으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6-21 절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내레이터는 다가올 사건을 암시하며 요약 진술의 두 번째 부분으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바브 계속법을 쓰지 않고 이접적 접속사 바브와 대명사 주어 그리고 완료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전후 관계의 연결 고리를 끊으며 에피소드를 마감한다. 저자가 언급한 "**보리 추수**"는 6 절에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 즉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 다음 장면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돕는다.

④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에 나오는 대명사는 여성형 הֵנָּה[헤나]가 아니고 남성형처럼 보이는 הֵמָּה[헤마]이다. 그런데 여기 "**그들**"은 두 여인 즉 나오미와 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형을 대신한 남성형이라고 할 수 없다. GBH 149c 에 의하면 자립 인칭 대명사의 경우 남성형이 여성형 대신 쓰이는 예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는 자립 인칭 대명사 הֵמָּה[헤마]는 우가릿어와 아랍어에서 *humâ* 가 3 인칭 양수 자립대명사인 것처럼 원래의 3 인칭

양수 자립대명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Bush, 94; Hubbard, 129-130). 더 자세한 논의는 1:8 을 참고하라. הֵמָּה[헤마]에 대한 3 인칭 양수 대명사란 해석이 옳다면 저자는 나오미만이 아니라 19 절의 진술("그들 두 사람")처럼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요약 진술함으로써 룻의 현존을 재확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간, 즉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에 대한 언급은 두 여인이 언제 도착했는가를 말해줌으로써 1 막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2 막에 대한 무대를 준비시켜준다. 게제르 달력(*ANET*, 320)에 의하면 보리 추수는 농사 월력의 8 번째 달, 즉 4 월 말이나 5 월 초에 시작된다(Hubbard, 130.).[12] 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었다(레 23:10-11). 밀 추수는 약 2 주 뒤에 시작된다(cf. 룻 2:23). 기근(1:1) 때문에 "떡집, 곡창"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곡식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돌아왔다. 얼마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무렵에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으니 이제 두 과부는 아무리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일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여인의 귀향은 이야기의 하강을 역전시키는 상승의 조짐이 아닌가?

1 막 2 장(1:19-22) 해설

(1)누가 어디로 돌아가고 누가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1 막 1 장(1:6-18)의 문제는 세 여인의 긴 대화를 통해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난다. 1 막 2 장(1:19-22)에서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표현되지 않고 미래의 공동의 운명이 묶는

---

[12] 농사와 관련하여 가나안 지역의 한 해는 건조기(지금의 4-9 월)와 우기(지금의 10-3 월)로 구별되며 이 중에서 파종기(11-12 월)와 추수기(4-6 월; 창 8:22)가 구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사에 관련된 일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리 추수(삼하 21:9; 룻 1:22); 밀 추수(창 30:14; 삿 15:1) — 지금의 3/4 월

맥추의 초실절(earing time, 출 34:21) — 3 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first ripe grapes, 민 13:20) — 담무즈월 (6/7 월)

이른 비 — 9/10 월; 늦은 비 — 3/4 월 (신 11:14 מָטָר[마타르] ; 렘 5:24 גֶּשֶׁם[게셈])

여름 실과 (קַיִץ[카이츠] 암 8:1-2) — 8/9 월 (cf. קַיִץ[카이츠] "여름" 창 8:22)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1908 년에 발견된 것으로 주전 925 경으로 추정되는 한 학동이 돌에 쓴 게제르 달력(Gezer Calendar)이다. 이 달력은 가을부터 시작하는 농사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ANET* 320, translated by Albright).

His two months are (olive) harvest ['sp], His two months are planting (grain), His two months are late planting;
His month is hoeing up of flax, His month is harvest of barley, His month is harvest and feasting;
His two months are vine-tending, His month is summer fruit.

"그 두 사람"으로 표현되며 "**이에 그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길을 행하였다**(1:19)."라고 언급된다. 10 여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여인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시하며 서로 서로에게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1:19)"라고 말한다.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 탄성의 합창 소리에 응답하며 나오미는 자신에 대하여 즐거움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1:20)."고 주문한다. 이름이 성품, 인격, 개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히브리 사고방식에 따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의미를 갖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처해 있는 "괴로움"의 현실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1:21)"라고 반문한다. 이렇게 베들레헴 여인들의 즐거운 합창과 나오미의 고뇌에 찬 탄식은 크게 대조된다. 쓰라린 고통의 심연에 푹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오미로서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술에 자신의 이름이 놀라움과 반가움 가운데 떠올려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두 번이나 자신의 이름의 뜻을 부인하며 베들레헴 여인들의 탄성이 갖는 음조와 내용을 거부하였다.

⑵나오미는 처음에는 명령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문문으로 전에 "즐거움"이라고 명명되던 자신이 이제는 "괴로움"이라고만 명명될 수 있을 뿐임을 단언하고 그 이유를 말한다. 여기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말 즉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너희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다(1:13)."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나지막하게 불평하였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보다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전능자,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한다.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는 명령문의 이유로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시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신**(1:20-21)" 일을 지적한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을 어찌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의문문의 이유로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1:21)" 것을 지적한다.

⑶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운명이나 운이나 어떤 상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소**."라고 말하며 자신의 텅 빈 삶에 대한 책임을 직접 하나님의 발 앞에 놓는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증거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예레미야(12:1)나 자신의 경건함의 순전성을 보이는 변백을 듣고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원했던 욥(31:35)처럼 나오미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다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어(5 절)" 정체성이 상실된 여인의 텅 빈 삶을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솔직하게 불평을 토로하였다.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외로움, 실망, 괴로움, 텅 빈 삶을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며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22)." 혹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욥 2:10)."와 같은 평가를 주지는 않았다. 나오미는 비참한 상황에 좌우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였고 그녀의 위기를 하나님이

일하실 호기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였다(울리치, 32). 나오미의 반응은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기는 했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주권, 동정이 없는 전능, 자비가 없는 공평"을(블락, 647) 지적했던 것이므로 혀로 죄를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오미는 야고보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했어야" 했다.

⑷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절제를 해야 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고후 11:23-28)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고 말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이 변화무쌍한 삶의 도전에 대한 그의 반응을 통제했던 것을 고후 12:7-10 의 말씀을 통해 잘 보여 주었다(울리치, 30-31).

>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7-10)

우리는 역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나오미가 아니라 욥과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에 입각한 반응을 보인 것을 거울로 삼고 필수인 고난을 행복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섭리의 눈을 가지고 결국은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행복할 수 있다.

⑸1 막 2 장은 중심 인물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즉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자신만 혼자 살아남아 (즉 "빈 손으로") 돌아왔다고 불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1:19-21) 두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을 언급하는 내레이터의 진술(1:22)로 끝난다. 이 해설을 통해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빈 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룻이 돌아왔고 그들이 돌아온 것이 보리 추수의 때인 것을 전하며 독자들로 역경을 만난 나오미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라고 말한 그대로 나오미는 정말 "빈털터리로, 텅 빈 채로, 텅텅 비어" 돌아왔는가? 내레이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말이다**."라고 말한다.

번역문이 보여 주는 것처럼 이 진술은 룻의 돌아옴을 나오미의 돌아옴보다 더 부각시킴으로써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결코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간 것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돌아감/돌아옴"이지만 룻의 경우 시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베들레헴에 온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돌아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나오미처럼 룻을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부각시켜 준다.

⑹그런데 내레이터의 룻의 돌아옴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돌아온" 룻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베들레헴 여인들의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는 외침 소리에 응답할 때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재난으로 인한 괴로움과 비참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가려져 있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장래 희망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신들도 버리고 함께 돌아온 룻의 존재가 나오미의 눈과 마음에 전혀 자리 잡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나오미는 그녀의 고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말한 불평 가운데서 자신을 지칭하는 1 인칭 단수로만 이야기하였다.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소.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소.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소.**" 이렇게 고난에 파묻혀 온통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에는 "*나*"만 있고 독자의 귀에 아직도 쟁쟁하게 남아 있는 헌신의 말을 하며 그녀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이 전혀 없었다. 나오미가 비극에 직면하여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다.

⑺"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입니다(16 절)."라는 룻의 말 속에 벌써 죽음과 텅 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의 소리가 들렸다. 이 헌신의 말은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텅 빈" 혼자의 상태로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었다. 라합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룻은 비극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선하신 인도를 의지하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만난 한 늙은 여인 나오미의 삶을 함께 나누겠다고 자처하였다. 비극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보다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훨씬 더 나은 신뢰를 보였다. 늙은 여인 나오미에 대한 젊은 여성 룻의 헌신은 그 어두운 실망의 밤이 지나고 곧 먼동이 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이었다(허버드, 131).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기(6 절) 때문에 백성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있었으므로**(22 절)" 양식이 없는 기근(1 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의 기근은 나오미가 돌아올 때 함께 있었던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의 계속적인 헌신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며느리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과 나오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보리 추수"의 시작은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의 은택이고 섭리였다.

⑺룻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섭리에 대한 교훈을 준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온전한 계획과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 곧 그들의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한다.[13]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곧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여(롬 8:28-29) 결국은 잘 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는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롬 11:36). 나오미가 곤경에 처하여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결국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현실을 보이는 대로 혹은 느껴지는 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을 그저 참아내는 인내에 머물지 않고 결국 선으로 귀착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주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말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주님 대신에 교회를 위하여 고난 당하도록 해 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바울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있고 귀한 일이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살전 2:12)" 일이라고 믿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⑻저자는 룻기 1 장을 시작하는 절(1 절)과 마감하는 절(22 절)에 똑같은 구문 곧 바브 계속법 동사문과 시간 언급 그리고 베들레헴 언급이 있는 구조를 사용한다. 1 장은 기근과 떠남으로 시작하였으나

---

[13]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8

Q. What are God's works of providence? 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인가? **A. God's works of providence are his most holy, wise, and powerful preserving and governing all his creatures; ordering them, and all their actions, to his own glory.**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고하신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주관하시는 것이다(시 103:19, 104:24, 145:17; 사 28:2, 63:14; 히 1:3; 마 10:29-31; 창 14:7; 롬 11:36).

돌아옴과 추수로 마친다. 1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 곧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신앙과 민족과 소망의 요구를 초월한 룻의 결의에 찬 헌신의 목소리(16-17 절)와 여호와의 은혜가 없는 주권을 항의하는 나오미의 괴로워하는 목소리(20-21 절)를 듣는다. 기근과 죽음의 나선적 하강을 상징하는 나오미의 목소리 그리고 풍요와 생명으로 향하는 근소한 상승을 상징하는 룻의 목소리는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긴장하며 이야기를 계속 따라 가게 한다(허버드, 131). 1 장의 중심 문제가 과부들을 위한 양식 공급과 가문을 위한 후사 탄생인데 나오미와 룻의 "돌아옴"은 이야기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여호와는 양식을 주심으로써 백성의 문제를 돌보시고(6 절)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자에게 상을 주시고(8-9 절), 운명을 결정하시는(13, 20-21 절) 분으로 묘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게 숨겨져 있지만 어렴풋이 보인다. 1 장의 대부분은 불확실함과 소망 없음으로 인해 검은 구름이 뒤덮고 있지만 1 장의 마지막 부분은 새롭고 희망찬 것의 시작을 보도록 한다.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즐거운 추수의 밭들과 헌신을 다짐한 이방 여인 룻이 빛을 발한다. 이들 가운데서 독자는 먼 지평선에 떠오르는 여명의 첫 희미한 빛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쓰라린 절망의 현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선을 낳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허버드, 131).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자신의 괴로운 처지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추수의 밭이나 헌신된 신실한 이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주변에 남긴 어떠한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면 결국 잘 되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기뻐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 2 막 (룻 2:1-23)

⑴제 2 막(2:1-23)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중심 장면으로 가지며 그 앞과 뒤에 그 만남의 배경이 되는 장면과 그 만남을 평가하는 장면을 갖고 있다. 제 2 막을 장면들로 나눌 때 2:3 과 2:17 은 학자들에 따라 장면 배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루터, 블락, 허버드, 부시등이 구분한 장면들은 다음과 같다.

① 루터(45)[1]

A 이삭 줍도록 호의를 베풀 사람을 찾아 나섬 (2:1-**3**)

B 여호와의 축복에 대한 아침 선언 (2:**4**)

C 룻의 곡식 해결을 위한 요청 (2:5-7)

D 룻의 질문 (2:8-10)

D' 보아스의 대답 (2:11-13)

C' 보아스의 식사 초대와 볶은 곡식(2:14-16)

B' 넘치는 복의 저녁 확인(2:**17**)

A' 이삭줍기를 통하여 보아스로 받은 호의를 되돌아 봄(2:18-23)

② 블락(649)

⑴장면 1: 새 배경(1:22-2:1)

A ⑵장면 2: 룻의 주도(2:2-**3**)

B ⑶장면 3: 보아스의 호의(2:**4**-16)

a ①보아스와 일꾼들과의 대화(2:4-7)

b ②보아스와 룻의 대화(2:8-14): 보아스(2:8-9)-룻(2:10)-보아스(2:11-12)-룻(2:13)-보아스(2:14)

a' ③보아스와 일꾼들과의 대화(2:15-16)

A ⑷장면 4: 결과(2:**17**-23)

③ 허버드(75)

1. 소개: 보아스에 대한 설명(2:**1**)

---

[1] Luter & Davis, *Ruth & Esther*, 45.

A Looking ahead to "finding favor" from someone through gleaning (2:1-3)

B Morning declaration of the Lord's blessing (2:4)

C Ruth's extraordianry request for provision (2:5-7)

D Boaz's graciousness prompts Ruth to *ask*:
"Why have I found favor?" (2:8-10)

D' Boaz *answers*: Ruth's faithfulness and faith are
the basis for human and divine (2:11-13)

C' Boaz's extraordinary invitation and provision (2:14-16)

B' Evening realization of abundant blessing (2:17)

A' Looking back on favor found from Boaz through gleaning (2:18-23)

2. 사건보고(2:2-23)

a. 보아스와의 만남(2:2-17)

⑴룻의 선언(2:**2**)

⑵만남자체(2:3-17)

ⓐ요약보고(2:**3**)

ⓑ내용(2:4-17)

①두 대화(2:4-13)

(i)(2:**4-7**) 보아스와 사환의 대화

(ii)(2:**8-13**) 보아스와 룻의 대화

②점심시간(2:**14-16**)

③룻이 주운 이삭 분량의 보고(2:**17**)

b. 결언: 룻이 나오미에게 보고함(2:**18-23**)

⑴전이(2:18)

⑵대화(2:19-23)

④ 부시 (99, 110, 131-132)

- ⑴2:1-**3**

A 엘리멜렉의 친족 (2:1a)

B (그의 이름은) 보아스 (2:1b)

C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2:2b)

X 누구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제가 그를 따라서(2:2c)

C' 나가 보아라. ... 나가서 이삭을 주웠다(2d-3c)

B' 보아스(의 밭) (2:3d)

A' 엘리멜렉의 친족 (2:3e)

- ⑵2:**4-17a**

내러티브 서론: 보아스 도착(2:4a)

A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대화(2:4b-7)

B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2:8-13)

B' 보아스와 룻과 관련된 행동(2:14)

A'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대화(2:15-16)

내러티브 결론: 룻이 저녁때까지 이삭을 주움(2:**17a**)

- ⑶2:**17b**-23

내러티브 서론(2:17b-18)

A 나오미의 질문(2:19ab)

B 룻의 대답(2:19cd)

C 나오미의 진술(20ab)

B' 룻의 진술(2:21)
A' 나오미의 동의(2:22)
내러티브 요약(2:23)

⑤ 본 주석은 제 2 막(룻 2:1-23)을 세 장면 즉 ⑴2:**1-3** 과 ⑵2:**4-17** 과 ⑶2:**18-23** 으로 나누었다. **2:3** 을 제 1 장면에 넣은 것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첫째, **2:3** 이 중심 장면에 자세히 묘사될 사건을 미리 요약하고 있지만 2:1-3 은 역순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2:4** 이 וְהִנֵּה([브히네] 이접적 접속사 바브와 불변화사) 다음에 주어+완료 동사로 시작하며 2:3 처럼 바브 계속법 미완료로 시작하지 않고 새로운 장면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다. 더 자세한 논의는 2:3 주석 부분을 보라. 그리고 **2:17** 을 제 2 장면에 넣은 것은 2:17 이 야누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부시처럼 굳이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⑵제 2 막(룻 2:1-23)의 각 장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면(2:1-3)은 이삭 주우러 나선 룻이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 제 2 장면(2:4-17)은 보아스가 룻을 추수 밭에서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을 보여준다. 제 3 장면(2:18-23)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평가하며 보아스를 일가붙이 그리고 기업 무를 자로 언급하는 것을 보여준다. 구조적으로 보면 2 막 1 장(2:1-3)과 2 막 3 장(2:18-23)이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 짧은 장면으로 시작과 마무리라면 그 중앙에 있는 2 막 2 장(2:4-17)은 룻이 이삭 주우면서 보아스를 만나는 긴 장면으로 중심 부분이다. 제 2 막의 세 장면은 샌드위치 구조, 즉 ①집—밭—집, ②룻과 나오미의 대화—룻과 보아스의 대화—룻과 나오미의 대화, ③짧음—김—짧음 등 A-B-A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⑶제 2 막(룻 2:1-23)의 통일성은 등장 인물들이 활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잘 짜여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Bush, 99).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얻은 후 보아스의 밭으로 와서(2-3 절),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보고한 대로 아침부터 보아스가 나타날 때까지(7 절) 계속 이삭을 주웠고, 점심 시간에(14 절) 보아스의 초대를 받고 식사하고, 저녁 때까지(17 절) 이삭을 주운 뒤 집으로 돌아와 그날에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보고한다(18-22 절). 마지막 절은 룻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23 절) 이삭을 주웠다고 말한다.

⑷잘 짜인 내용의 통일성은 또한 추수에 참여한 사람들과 활동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들의 사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Bush, 99). 부시는 추수에 관련되어 언급된 단어들을 장소, 사람, 활동, 산물로 나누어 사용된 횟수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장소: 밭(שָׂדֶה) 7x

사람: 추수하는 자(קֹצְרִים) 6x; 남녀 일꾼(נְעָרִים/נְעָרוֹת) 7x; 감독하는 종(נַעַר הַנִּצָּב עַל) 2x

활동: 추수하다(קצר) 1x; 모으다(אסף) 1x; 줍다(לקט) 12x; 찧다(חבט) 1x

산물: 추수(קָצִיר) 3x; 대(שִׁבֳּלִים) 1x; 다발/묶음(צְבָתִים) 1x; 곡식단(עֳמָרִים) 2x

보리(שְׂעֹרִים) 2x; 밀(חִטִּים) 1x

◇ 2 막 1 장 (2:1-3)

본문

[WLC: 2 רות]

1 וּלְנָעֳמִי [כ= מְיֻדָּע] [ק= מוֹדַע] לְאִישָׁהּ אִישׁ גִּבּוֹר חַיִל מִמִּשְׁפַּחַת אֱלִימֶלֶךְ וּשְׁמוֹ בֹּעַז׃
2 וַתֹּאמֶר רוּת הַמּוֹאֲבִיָּה אֶל־נָעֳמִי אֵלְכָה־נָּא הַשָּׂדֶה וַאֲלַקֳטָה בַשִּׁבֳּלִים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
וַתֹּאמֶר לָהּ לְכִי בִּתִּי׃ 3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בַּשָּׂדֶה אַחֲרֵי הַקֹּצְרִים וַיִּקֶר מִקְרֶהָ חֶלְקַת הַשָּׂדֶה לְבֹעַז
אֲשֶׁר מִמִּשְׁפַּחַת אֱלִימֶלֶךְ׃

[ESV: Ruth 2:1-3] **Ruth Meets Boaz**

1 Now Naomi had a relative of her husband's, a worthy man of the clan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2 And Ruth the Moabite said to Naomi, “Let me go to the field and glean among the ears of grain after him in whose sight I shall find favor.” And she said to her, “Go, my daughter.” 3 So she set out and went and gleaned in the field after the reapers, and she happened to come to the part of the field belonging to Boaz, who was of the clan of Elimelech.

[개역개정: 룻 2:1-3]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번역 (룻 2:1-3)

룻 2:1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지 [1]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덕망있는 사람[=유지(有志)]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2]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2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밭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3]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3]” 그러자 나오미가 [4] 룻에게 [4]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내 딸아.” [5] 3 그리하여 룻이 [4]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웠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였다. [6]

본문 비평

[1] 직역하면 "그녀의 남편의 잘 아는 사람"이다. 크티브는 מְיֻדָּע[므유다]이고 크레는 מֹודַע[모다]이다. 39 개의 중세 사본들과 벌게이트역이 크레와 일치한다. "친지"라는 번역은 크티브를 선택한 번역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1 절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2] 친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מִשְׁפָּחָה[미시파하]인데 한 조상의 후손들인 씨족을 일컫는 말이다.

[3] 두 개의 청유형(cohortative אֵלְכָה־נָּא . . . וְאֲלַקֶּטָה [엘라흐-나 . . . 바알라코타])은 2:7 처럼 허락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청유형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번역하였다. "제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결과)." 대신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도록(목적)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다.

[4] 대명사를 각각 명사로 밝혀 옮긴 것이다.

[5] 여기서 לְכִי[르히]는 시킴의 명령형이라기보다는 허락의 명령형이다.

[6] "보아스의 밭"은 직역하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 부분"이다. 개역개정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은 원문에 "~의 밭—보아스—엘리멜렉의 친족"의 순서로 되어 있다. 2:1 에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순으로 나오는 것이 2:3 에서 역순으로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이라고 번역하였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2:1-3)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나선 룻이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을 보여 주는 2 막 1 장(2:1-3)은 다음과 같이 중앙에 축이 있는 역순대구 구조를 갖고 있다(Bush, 99).

A 엘리멜렉의 친족 מִמִּשְׁפַּחַת אֱלִימֶלֶךְ

B (그의 이름은) 보아스 וּשְׁמוֹ בֹּעַז

C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אֵלְכָה־נָּא הַשָּׂדֶה וַאֲלַקֶּטָה בַשִּׁבֳּלִים

X 누구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를 따라서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

C' 나가 보아라. 나가서 이삭을 주웠다 לְכִי . . .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B' 보아스(의 밭) חֶלְקַת הַשָּׂדֶה לְבֹעַז

A' 엘리멜렉의 친족 מִמִּשְׁפַּחַת אֱלִימֶלֶךְ

각 절 주석 (룻 2:1-3)

23. 룻 2:1

1) 원문 문제

(룻 2:1) וּלְנָעֳמִי [כ= מְיֻדָּע] [ק= מוֹדַע] לְאִישָׁהּ אִישׁ גִּבּוֹר חַיִל מִמִּשְׁפַּחַת אֱלִימֶלֶךְ וּשְׁמוֹ בֹּעַז׃

① וּלְנָעֳמִי에 붙어 있는 바브는 이접(disjunctive) 접속사인가 연결(conjunctive) 접속사 인가? 접속사 바브의 역할은(IBHS, 39.2.3)? [disjunctive-vav: 장면의 변화 혹은 새로운 인물 소개; 에피소드의 중간에서 필요한 정보 소개(룻 4:6-8), 한 에피소드의 시작 표시(룻 2:1 새로운 인물 소개), 에피소드의 마무리 표시(룻 4:18-22 후속 발전의 간략한 소개 혹은 이야기된 에피소드의 큰 맥락에서의 위치 소개)]

② מוֹדַע는 크티브 자음 ( )과 크레 모음(홀람-파타흐)가 붙은 혼성어이다. 크레의 자음을 밝히면 ( )이다. 크티브 자음에 의도되었던 모음을 붙이면 מְיֻדָּע(Dp50)가 되고 "잘 아는 사람, 친지"의 의미를 갖는다. 크레 자음에 크레 모음을 붙이면 ( )가 되며 "혈족, 친족"의 의미를 갖는다.

③ לְאִישָׁהּ로 보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인가 아니면 나오미의 친척인가?

④ גִּבּוֹר חַיִל (אִישׁ) "lit. (man) mighty in חַיִל"의 의미는? 보아스의 재력(룻 2:2-17)과 높은 사회적 지위(룻 4:1-12)를 참고하라.

⑤ וּשְׁמוֹ בֹּעַז는 ( )문이며 ( )절로 삼상 21:7(도엑)과 삼하 4:4(므비보셋)처럼 나중에 전개될 일을 위해 미리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보아스를 소개하며 그 이름을 마지막에 이르러서 밝히는 이유는?

⑥ בֹּעַז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들이다. 보아스의 뜻은?

- 아랍어 baǵiz "lively, spirited, vigorous"; 우가릿어 b'l 'z "Baal is strong"
- בּוֹ עֹז in him is strength
- LXX βοος (hypocoristic 애칭) = בְּעֹז יהוה in the strength of (Yahweh I will rejoice/trust)
- 왕상 7:21-22; 대하 3:17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 중 하나:

  (יָכִין/) בֹּעַז (?) in the strength of Yahweh shall the king rejoice

2) 주석

룻 2:1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덕망있는 사람[=유지(有志)]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① 내레이터는 1 막의 마지막 부분(1:22 하)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른 때가 보리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하였다. 이런 진술 후에 바로 내레이터는 바브 계속법을 사용하여 나오미와

룻이 행한 일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상황절을 사용한다. 이접적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 이 상황절은 새로운 에피소드의 시작을 알리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을 독자에게 소개한다(Hubbard, 132). 여기서 이 인물에 대한 4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묘사된다. 이 인물은 나오미에게 **남편 쪽의 친지**이고 **덕망있는 사람[=유지**(有志)]이고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이 4 가지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등장 인물들이 이름-가족-사회신분-이야기에서의 중요성 등의 순서로 소개되는 관례와 정반대의 순서로 묘사되어 있다. 내레이터는 이 인물의 이름을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밝힌다. 이 4 가지 세부 사항을 차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② 첫째로,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통해 이 인물은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소개된다. **남편 쪽의 친지**라는 표현은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결혼함으로써 친척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그 인물이 나오미와 어떤 혈연관계가 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친지**"라고 번역된 BHS 본문에 실린 מֹיֹדַע는 크티브 자음 מידע[멤-*요드*-달렛-아인]과 크레 모음(홀람-파타흐)가 붙은 혼성어(hybrid)로 그 자체로는 읽을 수 없고 크티브와 크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읽어야 한다. 크레의 자음은 מודע[멤-*바브*-달렛-아인]이다. 크티브와 크레의 어근은 모두 ידע[야다]("알다")이다. 크티브 자음(מידע)에 의도되었던 모음을 붙이면 מְיֻדָּע([므유다] 푸알/작위수동 분사 남성 단수[LaSor Code: Dp50], BDB, 394)가 되고 "잘 아는 사람, 친구, 친지"의 의미를 갖는다. 크레 자음(מודע)에 본문 מֹיֹדַע에 붙은 모음(=크레에 의도된 모음, 즉 홀람과 파타흐)을 붙이면 מוֹדַע([모다], BDB, 396)가 되며 "일가 친척"의 의미를 갖는다.

③ 39 개의 중세 사본들은 크레 מוֹדַע[모다]와 일치한다(Campbell, 88). 문자 바브(ו)와 요드(י)가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모양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2:1 의 사본상의 차이는 문자의 혼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마도 필사자들이 의도적으로 바꾼데서 비롯된 것으로 크레는 2:1 의 본문을 3:2 에 사용된 단어(מֹדַעְתָּנוּ[모다타누])에 맞추어 고친 것처럼 보인다. 이 차이는 석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④ 크티브와 크레 중 어느 독법이 옳은가? 먼저 룻기와 다른 성경의 용례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룻기에서 보아스는 내레이터에 의하여 מידע(2:1)로 소개된 후 나오미에 의하여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קָרוֹב[카로브])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גֹּאֵל[고엘] 2:20)" 그리고 "우리의 일가 친척(מֹדַעְתָּנוּ[모다타누] 3:2)"으로 언급되며 그 후부터 "기업 무를 자(גֹּאֵל[고엘] 3:9, 12)"로 언급된다.

- 다른 성경에서 크티브 מְיֻדָּע[므유다]는 "친구, 아는 사람"이란 뜻으로 왕하 10:11; 시 31:11 [MT 12]; 55:13 [MT 14]; 88:8, 18 [MT 9, 19]; 욥 19:14 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크레 מוֹדַע[모다]는 단 한 번, 즉 잠 7:4 에서 "누이"와 병행어로 나오며 "친척(개역: 친족)"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 룻 2:1 의 מידע가 2:20 에서 קָרוֹב[카로브]로 묘사된 것은 욥 19:14 의 "내 일가붙이들(קְרוֹבָי[크로바이] 개역: 친척들)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들(מְיֻדָּעַי[므유다아이])은 나를 잊었구나."라는 말에서 מְיֻדָּע[므유다]가 קָרוֹב[카로브]의 병행어로 쓰인 것과 같다.
- 그리고 קָרוֹב[카로브]는 "그 벗(רֵעֵהוּ[레에후])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קְרֹבוֹ[크로보])을 훼방치 아니하며"라는 시 15:3 에서 רֵעַ[레아]와 병행어로 나온다. 그리고 קָרוֹב[카로브]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אֹהֲבַי[오하바이])과 나의 친구들(רֵעַי[레아이])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קְרוֹבַי[크로바이])도 멀리 섰나이다."라는 시 38:11[MT 12]에서 אֹהֵב[오헤브]와 רֵעַ[레아]의 병행어로 나온다.

⑤ 캠벨, 새슨, 그리고 허버드는 크티브를 따랐다. 새슨(39)은 2:1 와 2:20 의 [카로브]가 욥 19:14 에서 병행구로 쓰인 것과 시 15:3; 38:11 에서 [카로브]가 "벗/친구, 사랑하는 자"와 병행구로 쓰인 것에 유의하며 "acquaintance 잘 아는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허버드(132)는 "friend 친구"로 번역하였다. 캠벨(87-88)은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르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개역: 그 존귀한 자와) 신뢰받는 자들과(개역: 가까운 친구와, מְיֻדָּעָיו[므유다아브])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는 왕하 10:11 에 나오는 어근 ידע[야다]를 조약/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아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며 룻 2:1 의 [므유다]를 "covenant brother 언약적 형제"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새슨(39)과 부시(100)는 왕하 10:11 에 나오는 מְיֻדָּעָיו[므유다아브]에 대한 캠벨의 조약 관계에 기초한 어근 해석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하였다. 브로츠만(142)은 크레를 따른다면 "나중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מִשְׁפָּחָה[미시파하])으로 언급되므로 크레가 사실상 군더더기 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허버드(132-33)의 주장이 옳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크티브가 원래의 형이라면 저자는 2 장에서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מְיֻדָּע[므유다] "친지")를 사용하고 뒤이어 3 장에서 그를 가리키는 데 특별한 용어(מוֹדַעַת[모다아트] "친척")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3 장에서 보다 특별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절정의 느낌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을 것이다. 크티브를 가지고 읽으면 크레가 원래의 형이었다면 드러나지 않을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⑥ NIV 와 블락(650-651)과 부시(100)는 크레를 따르며 모두 "relative(친척)"로 번역하였다. 부시는 2:20 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קָרוֹב[카로브] 일가붙이, 근족"으로 부르고 또 "גֹּאֵל[고엘] 기업 무를 자"로 부르고 그 이후 보아스가 계속해서 "기업 무를 자(3:9, 12)"로 언급되며 3 장과 4 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도울 의무가 있는 친척"을 의미하는 "기업 무를 자" 역할을 한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부시는 내레이터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보아스의 역할을 미리 내다보며 소개한 것이므로 크티브를 따라 "친구"로 번역하는 것보다 크레를 따라 "친척"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⑦ 그러나 본 주석은 크티브를 더 좋은 독법으로 여기고 크티브를 취하여 번역하였다. 그것은 엘리멜렉이 속한 가문 사람으로 보아스가 앞으로 담당할 역할을 내다보며 소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미가 엘리멜렉과의 결혼을 통하여 알게 된 "친지"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문맥상으로 "**친지**" 다음에 "덕망있는 사람, 엘리멜렉의 친족, (이름) 보아스"의 순으로 소개되는 3 가지 세부 사항이 보아스를 점점 더 밝혀 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되는 중에서 보아스가 일반적인 "**친지**(2:1 내레이터에 의해)"로부터 "가까운 일가붙이"와 "기업 무를 자(2:20 나오미에 의해)"을 거쳐 특별한 "일가 친척(3:2 나오미에 의해)"으로 언급되며 점점 더 기업 무를 일을 실제로 담당할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레이터가 소개하는 인물은 **남편 쪽의 친지**이므로 나오미에게는 결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만약 나오미가 이 인물을 상대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녀에게 잘 알려져 있을 그의 성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Hubbard, 133).

⑧ 둘째로,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지인 이 사람은 **덕망있는 사람** 즉 **유지**(אִישׁ גִּבּוֹר חַיִל [이시 기보르 하일] 직역: "man mighty in חַיִל[하일], 사람-유력한-[하일]에 있어서")였다. 이 어구의 마지막 명사 חַיִל[하일]이 "힘(might), 재력(wealth), 덕망(moral value)"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גִּבּוֹר חַיִל [기보르 하일]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의존하여 찾아야 한다. 군사적인 배경에서 [기보르 하일]은 전투에 있어서 뛰어난 용사(war hero: 수 6:2-3; 삿 6:12[기드온]; 삼하 17:8; 왕하 24:16)를 가리킨다. 또 다른 배경에서 [기보르 하일]은 유능한 사람(capable man: 삼상 9:1; 왕상 11:28; 왕하 5:1; 느 11:14) 혹은 부유한 사람(wealthy man: 왕하 15:20)을 나타내기도 한다. 왕하 24:14 에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기보르 하일] 용사"와 땅에 남은 "빈천한 자"가 대조되어 있다. 룻기에는 군사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기보르 하일]이 재력과 높은 사회적 신분과 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Hubbard, 133). 밭의 추수를 언급하는 장면(2:2-17)은 보아스의 재력을 보여주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는 장면(4:1-3, 9, 11)은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보아스가 멸절 위기에서 한 가족을 구하고 이름을 계속 유지되도록 한 행동(4:10)은 참으로 신앙의 영웅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본 주석은 [이시 기보르 하일]을 **덕망있는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1 장의 남자들과 대조되며 2 장 초두에 소개되는 이 "**덕망있는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은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만 내레이터는 이 **덕망있는 사람**(אִישׁ גִּבּוֹר חַיִל [이시 기보르 하일])이 그의 입으로 룻을 **덕망있는 여인**(אֵשֶׁת חַיִל [에셰트 하일], 개역/개역개정: "현숙한 여인")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전한다(3:11). 여기 2 장 1 절의 **덕망있는 사람**과 3 장 11 절의 **덕망있는 여인(3:11)**에 똑같이 명사 חַיִל[하일]을 사용하며 내레이터는 이 둘이 대등한 인격과 덕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였다. 이렇게 원문의 두 어구에 [하일]이 똑같이 들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고 개역/개역개정은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하고, 새번역은 "재력이 있는 사람"과 "정숙한 여인"으로 번역하고, 쉬운성경은 "유력한 사람"과 "착한 여자"로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은 "큰 부자"와 "정숙한 여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일]이 똑같이 들어 있는 것을 유의하면 "**덕망있는/존귀한 사람/남자**"와 "덕망있는/존귀한 여인/여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⑨ 셋째로, 남편 쪽의 친지이요 덕망있는 사람인 이 인물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조상이 똑같은 **친족**(מִשְׁפָּחָה[미시파하])으로 엘리멜렉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조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 혈연관계가 확대되는 것은 בֵּית אָב [베트 아브] "아버지의 집, 가족" < מִשְׁפָּחָה[미시파하] "친족" < מַטֶּה/שֵׁבֶט[셰베트/마테] "지파" < עַם[암] "백성"의 순이다.

- 혈연관계의 첫 번째 단위인 "בֵּית אָב[베트 아브] 아버지의 집, 가족"은 한 지붕아래 사는 가장, 아내(들), 자녀들을 포함하고 더 확대되어 서로 서로 가까이 사는 결혼한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며 이 단위 내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Block, *Judges*, 32). "아버지의 집"은 핵가족 가장의 아저씨, 아주머니, 사촌들도 포함되는 확대된 가족(extended family)이었다.
- 혈연관계의 두 번째 단위 즉 확대된 가족인 "아버지의 집"과 "지파" 사이에 있는 מִשְׁפָּחָה[미시파하]는 야곱의 손자들 중의 어느 하나를 공통 조상으로 하여 내려온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위이고 "친족, 씨족(clan, subtribe, phratry)" 등으로 번역된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친족, 씨족"은 인지된 혈족관계(recognized kinship)의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동족결혼 단위(basic endogamic unit)를 형성하였고 가장 중요한 단일 그룹(most important single group)을 이루고 있었다(Bush, 101). 허버드(133, n. 13)가 인용한 앤더슨(Andersen, *BT* 20 [1969]: 34-38)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약 60 개의 씨족이 있었으며 각 씨족은 대충 만 여명의 구성원이 있었다. 앤더슨은 מִשְׁפָּחָה[미시파하]를 번역할 때 "친족 clan"이란 용어보다 인류학적 전문 용어 "씨족 phratry"이란 용어가 더 좋다고 말했다. 친족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수 13-17 장)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업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업 무를 자의 의무 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친족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레 25 장).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소개된 이 인물은 나중에 친족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며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 **엘리멜렉의**

친족은 엘리멜렉과 더불어 야곱의 손자 베레스를 공통 조상으로 가진 혈족(kinsman)으로 에브랏 사람(1:2; 4:11-12, 18-22)이었다.

⑩ 넷째로, 남편 쪽의 친지요, 덕망있는 사람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인물에 대하여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밝혀진다. 사람의 이름으로서 **보아스**는 룻기를 제외하고 다른 책에서 족보(대상 2:11-12; 마 1:5; 눅 3:32)에만 나온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운 우편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좌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나 확실하지 않다. 저자가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어떤 언어유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아스의 어원 논의는 룻기의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며 불필요하다(Bush, 101; Block, 651-652.).[2]

⑪ 새슨(42-43)은 만델케른(Mandelkern) 히브리어 성구사전(1193 쪽 שֵׁם[셈])을 통하여 구약에서 "그 이름이 ~이다"라는 이름 공식에 의해 소개된 새 인물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20 여 차례나 되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구체적인 구절들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슨은 예외적인 구절들, 즉 예비적으로 이름이 소개되고 나중에 그 역할이 언급되거나(삼상 21:7 의 도엑; 삼하 4:4 의 므비보셋), 혹은 이름만 소개되고 전혀 역할의 언급이 없는(삼하 9:12 의 므비보셋 아들 미가) 구절들을 명시하였다. 새슨은 그가 지적한 예외 구절과 달리 룻 2:1 의 경우 이름 공식에 의해 보아스가 소개되고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기며 룻이 보아스와 그 밭을 미리 안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시(101-102)는 "룻 2:1 에 보아스가 먼저 소개된 것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게를레만(Gerleman, 25)의 지적을 바르다고 평가하며 여기 보아스의 소개가 새슨이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내레이터는 2:1 에서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며 나중에(즉 2:4 부터) 보아스가 등장하여 담당하는 역할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앞으로 담당할 중요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미리 소개하며 이름 공식을 통하여 그 이름을 밝히는 기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새슨이 예외라고 명시한 도엑과 므비보셋의 경우와 똑같고 아마사의 경우와 비슷하다.[3] 이처럼 내레이터의 인물 소개에 있어서 보아스의 경우와 도엑, 므비보셋, 아마사의 경우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룻이 보아스와 그 밭을 미리 안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보는 새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

[2] 보아스란 이름의 자세한 어원 논의를 보려면 Campbell(90-91), Sasson(41), Hubbard(134-135) 등을 참고하라.

[3] 도엑의 경우 이름 공식을 통하여 삼상 21:7 에 에돔 사람 도엑이 먼저 소개되고 그가 한 역할이 삼상 22:9-10, 18-19 에 언급되어 있다. 므비보셋의 경우 삼하 4:4 에 므비보셋이 먼저 소개되고 그가 한 역할이 삼하 9:1-13 에 언급되어 있다. 아마사의 경우 이름 공식은 없지만 삼하 17:25 에서 아마사가 소개되고 그가 한 역할이 삼하 19:11-14; 20:4-13 에 언급되어 있다.

보아스의 소개는 룻이 보아스와 그의 밭을 미리 알고서 의도적으로 그의 밭으로 간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보아스가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내러티브의 흐름에서 벗어나 미리 새 인물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아스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저자의 문예적 기교는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 인물의 중요성을 넌지시 암시해 준다(Trible, 175).

24. 룻 2:2

1) 원문 문제

וַתֹּאמֶר רוּת הַמֹּואֲבִיָּה אֶל־נָעֳמִי אֵלְכָה־נָּא הַשָּׂדֶה (룻 2:2)
וַאֲלַקֶּטָה בַשִּׁבֳּלִים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 וַתֹּאמֶר לָהּ לְכִי בִּתִּי׃

① "רוּת הַמֹּואֲבִיָּה 모압 여인 룻"은 1:22; 2:2; 2:21; 4:5, 10(총 5 번)에 나온다. 그리고 저자는 다른 곳에서(1:14, 16; 2:8, 22; 4:13) 단순히 "룻"이라고 부르며, 3:9 에서 한번 룻이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1 장 끝과 2 장의 서두와 말미에 이 칭호를 쓴 저자의 이유는 무엇인가?

② 두 개의 청유형(cohortative) אֵלְכָה־נָּא . . . וַאֲלַקֶּטָה 의 의미는 강한 결심의 선언(Campbell, 91; Hubbard, 136; cf. Lambdin, 170-71 נָא; 출 3:3; 사 5:1; cf. GKC 108b)인가? 아니면 2:7 과 같이 허락을 구하는 것(Bush, 102; 출 4:18; 삼하 15:7; 신 3:25; GBH 114d; GKC 108c)인가? 나오미의 대답으로 나오는 명령문(לְכִי)이 허락의 명령문(imperative of permission; a response to a petition in cohortative form)인 것을 참고하라.

③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청유형(אֵלְכָה־נָּא . . . וַאֲלַקֶּטָה)은 2:7 에 나오는 청유형+바브 계속법 완료(אֲלַקֶּטָה־נָּא וְאָסַפְתִּי)와 어떻게 다른가(Lambdin 118-119; WHS 187, 518)?

④ לקט의 작위 능동(Piel, D)은 "이삭을 줍다 to glean"는 의미로 룻기 이외에서 3 번(레 19:9; 23:22; 사 17:5) 쓰였는데 모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다. 룻 2:2 에서만 전치사 בּ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 전치사 בּ는 장소(locative: among ears; LXX)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부분(partitive: some of ears; Hubbard, 136; Morris, 269)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참여(participative: glean at the ears of grain i.e., to participate in gleaning the ears of grain; Joüon, 47 [E 45]; Rudolph, 45-46)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동사구를 이루는 전치사인가?

⑤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에서 אַחַר אֲשֶׁר는 [כַּאֲשֶׁר "as, when"나 עַל אֲשֶׁר "because"처럼] "after, behind"라는 의미의 접속사구인가 아니면 전치사 + (선행사가 일반인이어서 생략되어 선행사가 없는) 관계 대명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behind/after one in whose (eyes I might find favor)"의 의미를 갖는가?

⑥ 레 19:9-10 와 레 23:22 그리고 신 24:19-21 에 의하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호의를 베푸는 친절한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⑦ לְכִי בִתִּי가 지닌 동일한 끝 모음이 이루는 문예적 기교는?

2) 주석

룻 2:2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밭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내 딸아."

① 2 장 1 절에서 예비적으로 보아스를 소개한 내레이터는 2 장 2 절부터 다시 보리 추수 시작할 무렵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1:22)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내레이터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압 여인 룻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묘사한다. 여기에서 룻이 처음으로 중심 행위자(primary actor)로 묘사되고 나오미는 반응자(reactor)로 묘사된다(Block, 652). 내레이터는 1:22 에서처럼 룻을 "רוּת הַמֹּואֲבִיָּה [루트 하모아비야] **모압 여인 룻**"으로 언급한다. 1:4 의 " נָשִׁים מֹאֲבִיּוֹת [나심 모아비요트] 모압 여자들"과 2:6 의 "נַעֲרָה מֹואֲבִיָּה [나아라 모아비야] 모압 소녀"에서 מוֹאֲבִיָּה[모아비야]는 "모압의"라는 뜻의 형용사로 한정 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나 여기 2:2 의 "모압 여인 룻"이라는 성명(full name)에서는 מוֹאֲבִיָּה[모아비야]는 "모압 여인"이란 뜻의 명사로 독립 용법으로 쓰였다.

② "**모압 여인 룻**"이란 성명은 1:22; 2:2; 2:21; 4:5, 10 등 총 5 번 나온다.[4] 4 장 5 절과 10 절에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이란 성명(full name)을 쓴 것은 신분의 법적 정확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저자가 1 장의 끝(22 절)과 2 장의 서두(2 절)와 말미(21 절)에 이 칭호를 쓴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앞에서 살핀 대로 저자는 1:22 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여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룻이 민족적으로 이방인(ethnic outsider)인 것을 보이며 나오미가 돌아온 것보다 "모압 여인 룻"이 돌아온 것을 강조하였다. 저자가 2 장의 첫 부분(2:2)과 끝 부분(2:21)에서 룻을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언급한 것은 일종의 "정체 확인의 수미쌍관법(inclusio of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Hubbard, 182, n. 7). 신 23:3-6 에 묘사된 모압인들과의 교제 금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모압 여인 룻"이란 이름은 독자들에게 룻이 이방 여인이기에 겪을지도 모를 적대감과 위험을 암시하고, 룻과 더 큰 사회 집단 사이의 민족적인 벽이 있음을 느끼도록 해주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룻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 느끼는 것(2:10)과 보아스가 [민족과 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또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갖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을 보호하려는 것(2:8, 15, 16, 22)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도록 해 준다(Hubbard, 137). 2 장 서두에서 "**모압 여인 룻**"이란 이름은

[4] 저자는 다른 곳에서(1:14, 16; 2:8, 22; 4:13) 단순히 "룻"이라고 부른다. 룻은 3:9 에서 한 번 "룻"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으로서 양식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룻의 비범한 행동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Block, 652).

③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 이삭 줍는 일에 대한 허락을 먼저 구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밭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אֵלְכָה־נָּא[엘하-나]).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אֲלַקֶּטָה[알라코타])." 룻은 허락을 구할 때 강조의 불변화사(נָא[나])를 동반한 청유형(אֵלְכָה־נָּא[엘하-나])과 또 하나의 청유형(אֲלַקֶּטָה[알라코타])을 사용한다. 나중에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환이 2:7 에서 룻이 했던 말을 보아스에게 전할 때에도 강조의 불변화사를 동반하는 청유형(אֲלַקֶּטָה־נָּא[알라코타-나])을 사용한다. 룻이 사용한 청유형의 의미를 논하며 캠벨(91-92, 111)과 허버드(136, n. 1)는 램딘(Lambdin, 170)의 불변화사 נָא[나]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룻이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시(102)가 잘 지적한 대로 램딘의 נָא[나]에 대한 논의는 청유형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주로 다루면서 화자가 전에 말한 것이나 일반적인 상황의 논리적인 결과로 화자가 내리는 명령을 받아들이게 하는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룻이 사용한 청유형 다음에 나오는 불변화사 נָא[나]에 주목하고 램딘이 주로 명령형 다음에 나오는 נָא[나]의 의미를 논의한 것을 적용하면서 여기 청유형이 "강한 결심"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캠벨과 허버드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נָא[나]가 화자가 이전에 말한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황의 논리적인 결과로 진술(명령)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5] 말한 램딘의 설명과는 달리, 여기에는 룻이 이전에 말한 것도 없고 또 문맥상 룻이 일반 상황을 살핀 후 자신의 결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④ 그러므로 룻이 사용한 청유형의 의미는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며 정중한 요구를 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청유형은 양식 문제를

---

[5] 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170: "The particle נָא seems rather to denote that the command in question is a logical consequence, either of an immediately preceeding statement or of the general situation in which it is uttered. ..... it would appear to show that the speaker regards his command as consequent upon his former statement or, as we have said, upon the context." Lambdin(171)은 명령형 다음에 불변화사 נָא가 붙어 있는 예문으로 창 16:2 과 삿 19:9 을 들었다.

(창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בֹּא־נָא אֶל־שִׁפְחָתִי)

(삿 19:9)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לִינוּ־נָא)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이방 여인의 "강한 결심"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든 시어머니의 권위 아래 있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을 허락해 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첫째로, 룻의 말에 대한 나오미의 "לְכִי בִתִּי [르히 비티] **그래 나가 보아라**, **내 딸아**."라는 응답은 명령의 명령문이라기보다는 허락의 명령문이다.[6] 룻이 사용한 허락의 청유형에 대하여 나오미는 허락의 명령형으로 답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2:7 에서 추수를 감독하는 사환은 보아스에게 룻에 관해 보고할 때 불변화사를 동반하는 청유형(אֲלַקֶּטָה־נָּא [알라코타-나])을 사용하여 룻이 자기에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말한다. 이 경우 룻이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을 그 사환에게 선언했던 것으로 보면 문맥상 맞지 않는다.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와서 사환에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유형에 불변화사 נָא [나]를 붙이며 정중한 요구를 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2 의 룻의 말도 집에서 밭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에게 청유형을 사용하며 이삭을 주워 올 수 있도록 밭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정중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청유형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화자의 강한 결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7] 2:2 에서처럼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시하며 말할 때 청유형은 정중한 부탁을 나타낸다.[8]

⑤ 2:2 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할 때 불변화사를 동반한 첫 번째 청유형(אֵלְכָה־נָּא [엘하-나])과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된 청유형(וְאֲלַקֶּטָה [*비*알라코타])을 썼는데 2:7 에는 강조의 불변화사를 동반한 첫 번째 청유형(אֲלַקֶּטָה־נָּא [알라코타-나]) 다음에 바브 계속법 완료(וְאָסַפְתִּי [브아싸프티])가 나온다. 2:2 의 청유형+바브+청유형은 두 절이 대등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두 번째 청유형이 종속절로서 목적(purpose)이나 결과(result)를 나타내는 반면 2:7 의 청유형+바브

---

[6] 명령문이 허락을 나타내는 용법에 대하여는 GKC 110b(삼하 18:23; 사 21:12; 45:11)와 GBH 114n(삼하 18:23; [허락의 간접명령형 다음] 왕하 2:17; [허락의 청유형 다음] 창 50:6; 출 4:18; 삼하 15:9; 왕하 6:2; 룻 2:2) 등을 참고하라.

[삼하 18:23] 저가 아무쪼록 달음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רוּץ)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음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창 50:5-6] (5)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אֶעֱלֶה־נָּ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וְאֶקְבְּרָה אֶת־אָבִי) 내가 다시 오리이다(וְאָשׁוּבָה) 하라 하였더니 (6)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עֲלֵה וּקְבֹר)

[7] 출 3:3; 사 5:1; cf. GKC 108b.

[8] GBH 114d: 출 4:18; 삼하 15:7; 렘 40:15; 룻 2:2; 신 3:25; 삿 11:17; 삼하 16:9; 창 50:5; GKC 108c: 신 2:27; 민 20:17; 렘 40:15; 삼하 16:9.

계속법 완료는 두 절이 대등하며 연속되는 동작을 순서(sequence)대로 나타내고 있다(Lambdin, 118-119; WHS 187, 518). 그러므로 2:2 의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두 청유형을 통해 룻이 말한 것은 "이삭을 주워 올 수 있도록 밭으로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밭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는 뜻이다.

⑥ BDB(544)에 의하면 לקט[라카트]의 피엘(작위/강세 능동) 어간 לִקֵּט[리케트]는 룻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7 번, 즉 떨어진 포도 열매(레 19:10), 화살(삼상 20:38), 나무(렘 7:18), 상에서 떨어진 음식(삿 1:7) 등을 "줍다," 그리고 들외(왕하 4:38 [2 번])를 "따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돈(창 47:14)을 "모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보다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이삭을 줍다"라는 의미로 3 번(레 19:9; 23:22; 사 17:5) 사용되었다. "이삭을 줍다"라는 의미로 쓰인 3 번의 경우 모두 목적어가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적어로 레 19:9 와 23:22 에는 동족목적어인 떨어진 이삭(לֶקֶט[레케트])이 나오고 사 17:5 에는 이삭(שִׁבֳּלִים[시볼림])이 나온다. 그런데 룻기 2 장에서는 목적어가 명시되지 않고 2:2 에서만 לִקֵּט[리케트]가 전치사 בְּ[브]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 전치사 בְּ[브]에 대하여 칠십인역은 장소(locative: among ears)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허버드(136)와 모리스(269)는 부분(partitive: some of ears)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주옹(47)과 루돌프(45-46)는 참여(participative: glean at the ears of grain i.e., to participate in gleaning the ears of grain)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부시(102-103)는 동사와 전치사가 동사구(לִקֵּט בְּ [리케트 브])를 이루며 목적어를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BDB(544 쪽 3)는 לִקֵּט[리케트]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בְּ[브]를 장소나 부분의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BDB(88 쪽 I.2.b)는 다른 동사 다음에 오는 בְּ[브]가 부분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제시한다. 전치사 בְּ[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장소의 의미는 이삭 사이에서 줍는 것이 아니고 이삭 자체를 줍는 것을 나타내는 문맥상 불가능하고, 부분의 의미는 주로 מִן[민]으로 나타내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고, 참여의 의미는 억지로 찾아본 의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가장 무난한 것은 부시처럼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동사구(לִקֵּט בְּ [리케트 브])를 이루어 목적어로 שִׁבֳּלִים[시볼림]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⑦ 룻이 나오미에게 말한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 [아하르 아셰르 엠차-헨 브에나브]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라는 절에서 אַחַר אֲשֶׁר[아하르 아셰르]는 כַּאֲשֶׁר[카아셰르] "as, when"나 עַל אֲשֶׁר [알 아셰르] "because"처럼 접속사구로 보고 "after (I might find favor in his eyes)"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전치사 + (선행사가 일반인이어서 생략되어 선행사가 없는) 관계 대명사로 보고 "behind/after one in whose (eyes I might find favor)"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새슨(42-43)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since I shall find favor in his[=Boaz's] eyes 내가 그의 눈에 호의를 입을 것이므로"라고 번역하였다. 그의 번역이 암시하는 것처럼 새슨은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에게 "그의[=보아스의] 눈에 호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해석은 문법적으로 가능하나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 첫째로, 새슨이 예로 드는 장면에는 등장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고 뒤에 나오는 대명사가 그 등장 인물을 가리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기서 보아스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내레이터를 통하여 언급되었을 뿐이다(Hubbard, 138-139, n 13).
- 둘째로, 1 절은 "Now Naomi knew of an acquaintance of her husband"라는 새슨의 번역이 암시하는 대로 나오미의 지식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에 대한 진술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1 절은 나오미와 관련된 사실을 말하는 진술로서 이야기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내레이터가 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 절이 나오미와 룻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는 암시가 전혀 없다(Bush, 103). 따라서 2 절에서 룻과 나오미가 나누는 대화는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나눈 대화라고 볼 수 없다.
- 셋째로, 2 절의 룻과 나오미의 대화에 보아스가 암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19-20 절의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이해하기 어렵고 두 대화는 상반된다. 19 절에 나오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나오미의 질문과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말한 룻의 대답은 독자들로 하여금 보아스란 이름이 나오미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을 느끼도록 해 준다. 그리고 20 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처음으로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주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면 룻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그의 눈에 호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새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⑨ 룻이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삭 주워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허락을 구할 때 "호의를 베푸는 친절한 사람"을 언급한 것이나 추수를 감독하는 사환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삭 줍는 것에 대한 법을 모른 데서 나온 것인가(Morris, 270)? 아니면 이삭 줍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호의를 구하는 것인가(Bush, 104)?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널리 허락되는 일이었다. 모세는 레 19:9-10 과 23:22 그리고 신 24:19-22 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다시 말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떨어진 이삭"과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한 뭇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과일 나무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버려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9] 이렇게 성경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 추수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법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과부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cf. 출 22:22-24; 신 10:18; 14:29; 16:11; 24:17)들이 언급되어 있음에도[10]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 과부의 압제 당함을 책망하는 선지서와 다른 책들의 말씀들(사 1:23; 10:2; 렘 7:6; 말 3:5; 욥 24:3, 21; 시 94:6)은 이와 같은 특권이 흔히 거부당해 온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12]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

[9] [레 19:9-10] (9)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3:22]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24:19-22] (19)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0)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21)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22)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10] [출 22:22-24]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신 10:17-19] (17)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 14:28-29] (28)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16:10-12] (10)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 24:17-18] (17)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2] Ulrich(*From Famine to Fullness*, 57)가 지적한 대로 경제 문제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재는 온도계 역할을 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정의와 자비가 있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악이 끊임없이

부탁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호의를 베풀 친절한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이삭 줍는 것에 대한 사회 관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에게 당연히 허락된 이삭 줍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호의를 먼저 구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는 룻의 말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친절한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는 뜻이다. "X מָצָא חֵן בְּעֵינֵי [마차 헨 브에네 X] **누구에게 호의를 입다**."라는 표현은 원래 왕이나 통치자에게 신하가 말하는 것(창 47:25; 삼상 16:22; 27:5; 삼하 14:22; 왕상 11:19; 에 5:2, 8; cf. 삼상 20:3)이었다. 이 어구는 왕궁에서 신하가 왕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왕의 호의를 입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왕의 호의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청할 때 사용되었다. 나중에 이 어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혹은 윗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에도(창 39:4, 21; 룻 2:10, 13) 사용되었다(Hubbard, 139).

⑩ 시어머니에게 헌신을 다짐했던 모습(1:16-17)과 일관되게 룻이 주도적으로 먼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도록 나오미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나오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였다. 나오미는 각운(rhyme [-이]—[-이])을 보이는 단어 둘을 사용하여 "לְכִי בִתִּי [르히 비티] **나가 보아라**, **내 딸아**."라고 말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말한 불평(1:20-21)과 룻이 주워 가지고 온 곡식을 보고 관심을 보이며 룻에게 묻는 질문(2:19) 사이에 나오미가 한 말은 오직 이 두 단어뿐이다. 첫째 단어 לְכִי[르히]는 파알(Pa'al, Qal, 기본능동) 어간 2 인칭 여성 단수 명령형이고 둘째 단어 בִתִּי[비티]는 호격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여기 쓰인 명령형은 시킴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허락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처럼 허락을 구하는 청유형 다음에 허락을 주는 명령형이 나오는 예를 위해 창 50:6; 출 4:18; 삼하 15:9; 왕하 6:2 를 참고하라.) 나오미는 1 장에서 비통해하며 길게 말하는 언사(cf. 1:11-13, 20-21)와는 사뭇 다르게 룻의 요청을 묵묵히 받아들이며(לְכִי[르히]) 애정을 담아(בִתִּי[비티]) 말하기조차 한다(Hubbard, 139). 여기 2 장 2 절 이후에도 "**내 딸**"이란 호칭은 나오미에 의해(2:22; 3:1, 16, 18) 그리고 보아스에 의해(2:8; 3:10, 11) 계속 사용된다. 이 호칭은 부르는 자들의 애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룻보다 나오미와 보아스가 연령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의 기대와는 달리 나오미는 룻에게 이삭 줍는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사회의 성격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다. 경제는 늘 선교적 전망을 가지며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언약 공동체는 구원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전달하는 통로로 섬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가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강탈되어 고통을 느끼는 불신 공동체는 부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경제를 보이는 언약 공동체의 복을 부러워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에 대한 말도 해 주지 않고 또 이삭 줍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그녀가 알고 있던(2:20) 보아스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3:12)의 밭에 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10 여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나오미가 보아스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생존 여부도 모르고 밭의 정확한 위치도 잊었을른지도 모른다. 나오미가 설사 그들의 밭의 위치를 안다고 해도 룻이 단번에 찾아가기 어려웠을른지도 모른다. 나오미는 둘 중 아무도 친족으로서 과부인 룻과 결혼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예 혹시나 하는 헛된 소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나오미는 친척에 대하여도 침묵하였다. 나오미의 "그래 나가 보아라"는 짧은 반응은 신체적인 세약이나 정서적인 실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룻이 밭에 나갔을 때 그녀에게 호의를 보여줄 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빠른 필치로 그 자신의 관심사인 룻과 밭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을 묘사해 나간다.

25. 룻 2:3

1) 원문 문제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בַּשָּׂדֶה אַחֲרֵי הַקֹּצְרִים (룻 2:3)
וַיִּקֶר מִקְרֶהָ חֶלְקַת הַשָּׂדֶה לְבֹעַז אֲשֶׁר מִמִּשְׁפַּחַת אֱלִימֶלֶךְ׃

① 2:3 은 (1:6 이 1:7-21 의 사건을 요약 소개하고 3:6 이 3:7-13 에 자세히 설명되는 일을 요약 소개한 것처럼) 2:4-17 의 사건을 요약 소개하는 것인가? 아니면 1:22 처럼 앞의 내용을 요약 결론짓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룻이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가?

② 세 동사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lit. and she went and came and gleaned"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③ וַיִּקֶר מִקְרֶהָ는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가(concomitant situation GBH 118k; IBHS 33.2.2) 아니면 시간적으로 후에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는가(temporal sequence GKC 111a)?

④ וַיִּקֶר מִקְרֶהָ["직역: and her chance met/came across"]는 운이 좋았다(by good luck)는 표현인가? 아니면 룻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without any intention to do so) 우연히(as it happened)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인가?

⑤ חֶלְקַת הַשָּׂדֶה לְבֹעַז와 חֶלְקַת שְׂדֵה בֹעַז는 어떻게 다른가(GKC 129d)?

2) 주석

룻 2:3 그리하여 룻이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웠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였다.

① 내레이터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룻이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웠다**고 말한다. 이 절에 나오는 세 동사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바텔레흐 바타보 바틀라케트]를 직역하면 "And she went and came and gleaned."이다. 허버드(140)는 "So she set out, arrived,

and gleaned."로 번역하였고, 부시(104)는 "So she went on her way and gleaned."로 번역하였다. 몇몇 칠십인역 사본과 시리아어역과 라틴어역은 두 번째 동사를 생략하고 있다.

② 허버드(75)는 2:3-17 을 룻과 보아스의 만남 자체를 다루는 부분으로 보고 요약보고(summary report 2:3), 내용(content 2:4-16), 보고(report 2:17)의 셋으로 된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였다. 허버드(140)는 1:6 이 1:7-21 의 사건을 요약 소개한 것처럼 2:3 은 2:4-16 의 사건을 요약 소개하고 있고 3:6 은 3:7-13 에 자세히 설명되는 일을 요약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99, 109, 131)는 2:3 을 2:1-2 와 함께 교차대구를 이루는 것을 지적하며 2:1-3 을 2 막의 첫째 장면으로 보고 2:4-17a 를 2 막의 둘째 장면으로 보고 2:17b-23 을 2 막의 셋째 장면으로 보았다. 부시(109)는 2:4 을 시작할 때 2:3 처럼 바브 계속법 미완료로 시작하지 않고 וְהִנֵּה([브히네] 이접적 접속사 바브와 불변화사) 다음에 주어+완료동사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허버드처럼 2:3 이 1:6 과 3:6 처럼 뒤에 자세히 나오는 사건에 대한 요약 보고라면 2:3 을 2:4-17 과 함께 가도록 구분한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부시(104, 109)처럼 2:3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의 요약 진술이지만 2:1-3 이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고 2:4 이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나타내므로 2:3 을 2:1-2 과 함께 가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좋다.

③ 상세한 사건을 묘사하기 전에 미리 요약 진술하는 절로 간주되는 절들(1:6; 2:3; 3:6)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 [그러던 어느 날] 그녀[=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7** 그녀가 머물던 곳을 떠날 때 (그녀의) 두 며느리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셋]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 **8**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2:3 그리하여 룻이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웠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였다. **4** 그 시점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그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고 인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6 그러고서 룻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하였다.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기분이 좋아서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을 때, 룻은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거기] 누웠다.

④ 허버드(140, n. 4)와 부시(104)는 룻 2:3 처럼 הָלַךְ[할라흐]와 בּוֹא[보]를 써서 요약 진술하는 예로 삼상 22:5; 왕하 4:25; 8:14 을 들고 קוּם[쿰]을 써서 요약 진술하는 예로 삿 19:10; 왕상 14:17 을

들었다.[13]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왕래발착의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기 때문에 룻기에서 왕래발착의 상황(룻의 밭으로 나간 것)을 말하고 다음에 자세히 언급할 사건(룻의 이삭 줍는 것)을 미리 요약 보고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허버드와 부시가 예로 든 구절들과 룻 2:3 이 똑같다면 룻 2:3 은 1:6 과 3:6 처럼 뒤에 자세히 묘사하는 사건(2:4-17)의 요약 진술이 아니고 그들의 주장과 달리 룻 2:3 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은 룻이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레이터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보아스를 여담으로 소개하고(2:1) 이삭 줍는 일에 대한 룻과 나오미의 대화(2:2) 후에 룻이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것(2:3)을 하나의 장면으로 간주하며 2:4-17 의 주요 장면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을 이삭 줍는 시작 장면으로 보면 "**그리하여 룻이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될 것이다. 그러나 허버드와 부시가 예로 든 구절들과 연관짓지 않고 그들의 주장처럼 2:3 을 요약 진술로 보면 "**그리하여 룻이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웠다**."라고 번역될 것이다. 본 주석은 부시가 지적한 2:1-3 의 교차대구 구조를 이 세 절이 함께 하나의 장면을 이루게 하는 단서로 보았고

---

[13] [삼상 22:4-6] (4)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6)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왕하 4:24-26] (24)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아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25)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26)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왕하 8:13-15] (13)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4)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15)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삿 19:8-12] (8)다섯째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찌기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10)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1)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왕상 14:16-18] (16)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17)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18)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 개의 왕래발착 동사와 1 개의 주동사를 가진 2:3 을 뒤에 자세히 묘사할 중심 사건(2:4-17)의 요약 진술로 보았다.

⑤ 내레이터는 룻이 이삭을 주운 일을 요약 진술한 후 "**그런데 우연히**(וַיִּקֶר מִקְרֶהָ [바이케르 미크레하]) **그것은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였다**."라는 매우 중요한 해설을 달고 있다. 내레이터가 먼저 요약 진술을 한 것은 바로 뒤에 오는 이 해설을 주기 위한 것이다. וַיִּקֶר מִקְרֶהָ [바이케르 미크레하]라는 절에 사용된 바브 계속법은 요약 진술에 묘사된 룻의 동작([바텔레흐 바타보 바틀라케트]) 이후에 일어난 것(temporal sequence GKC 111a)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동작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 상황(concomitant circumstance GBH 118k; IBHS 33.2.2)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사 וַיִּקֶר[바이케르]와 명사 מִקְרֶהָ[미크레하]의 어근은 모두 קרה[카라]이다. 동사 קָרָה[카라]와 명사 מִקְרֶה[미크레]는 둘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목적이 없이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⑥ 구약에 27 번 사용된 동사 קָרָה[카라]는 많은 경우에 분명한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NIDOTTE* III: 984, #7936).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여 돌아온 아들들은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창 42:9)을 말하였고, 모르드개(에 4:7)와 하만(에 6:13)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요약하여 말하였다.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것(창 44:29)을 걱정하였고,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자에게 아무런 해가 그녀에게 미치지 않을 것(삼상 28:10)을 확신시켰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피곤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였고(신 25:18), 사울이 죽은 후 다윗에게 온 아말렉 소년은 사울을 보게 되었을 때 우연히 길보아산에 있었다(삼하 1:6)고 말했다. 이렇게 동사 קָרָה[카라]는 일반적인 요약(창 42:29; 49:1; cf. 에 4:7; 6:13; 사 41:22 등)이나 즐거운 사건 진술(민 11:23; 사 41:2)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즐겁지 못한 사건(창 42:4, 38; 44:29; 출 1:10; 신 31:29; 삼상 28:10; 렘 44:23 등)을 묘사하는 데 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다(Hubbard, 141, n. 6).

⑦ 동족 명사 מִקְרֶה[미크레]는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 즉 "되는 대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계획되지 않거나 기대되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14] 이 명사는 구약에 총 10 번 나오는데 룻기에 한 번(2:3), 사무엘상에 두 번(6:9; 20:26), 그리고 전도서에 일곱 번(2:14, 15; 3:19[3 번]; 9:2, 3) 나온다.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소가 벧세메스로 가면 그들이 당한 재앙이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만난 것(삼상 6:9)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사울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윗을 보지 못한 당일에 "그에게 무슨 사고(삼상 20:26)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14] KB I: 629: "what happens to someone not through their own will or actions and without any known instigator"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죽음을 언급하며 "מִקְרֶה אֶחָד [미크레 에하드] 공통 운명, same fate, 2:14; 3:19; 9:2, 3"이라고 하였다.[15]

⑧ 전 2:14-15 와 여기 룻 2:3 에서만 동사와 명사가 함께 나오며 여기 룻 2:3 에서만 명사 다음에 접미대명사가 붙어 있다. וַיִּקֶר מִקְרֶהָ [바이케르 미크레하]는 직역하면 "and her chance met/came across 그녀의 운이 만났다"이다.[16] 허버드(141)는 저자가 명사에 룻을 가리키는 접미대명사를 붙임으로써 그녀와 일어난 일 사이에 보다 더 가까운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고 사건 배후에 어떤 숨겨진 손길이 있음을 넌지시 일러준다고 설명하였다.[17] 얼핏 보면 וַיִּקֶר מִקְרֶהָ [바이케르 미크레하]는 그녀의 운이 좋은 것을 드러내는 표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표현은 룻이 정말 운이 좋아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아니다. 저자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표현한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그의 표현 방식이다(Hals, 12).[18] 저자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며 그 일이 룻 때문에(because of Ruth)가 아니라 그저 룻에게(to Ruth) 일어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Hubbard, 141). וַיִּקֶר מִקְרֶהָ [바이케르 미크레하]는 룻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without any intention to do so) 뜻밖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어구이다(Bush, 104).

---

[15] [전 2:14-15] (14)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שֶׁמִּקְרֶה אֶחָד יִקְרֶה)을 내가 깨닫고 (15)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מִקְרֶה הַכְּסִיל)을 나도 당하리니(יִקְרֵנִי)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전 3:19]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מִקְרֶה אֶחָד)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 9:2-3] (2)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מִקְרֶה אֶחָד)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מִקְרֶה אֶחָד)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16] Hubbard(140)는 "As luck would have it, she happened upon"으로 번역하였고 Bush(98)는 "and as it happened she came upon"으로 번역하였다. Campbell(85)은 "Now her luck brought her to"로 번역하였고 Sasson(38)은 "So it happened that she found herself in"으로 번역하였다. NIV 는 "As it turned out, she found herself working in"으로 번역하였고 NASB 는 "and she happened to come to"로 번역하였다. Ferguson(56)은 원문을 직역하면 "the happenstance that happened to her was . . . "와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 Hubbard(141, n. 7)는 동사 קָרָה[카라]가 나오는 문맥에 여호와가 숨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로 창 42:28; 출 1:10; 민 11:23; 신 31:29; 수 11:20; 사 41:2; 51:17, 20; 렘 13:24-27; 44:22-23; 욥 4:14; 에 4:14; 단 10:14 등을 들었다.

[18] Hals,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uth*, 12: ". . . the author's real meaning in 2:3b is actually the opposite of what he says. The labelling of Ruth's meeting with Boaz as "chance" is nothing more than the author's way of saying that no human intent was involved."

⑨ 저자의 이러한 표현 방식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과 그가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 상반되는 것을 보여준다. 암시적인 교훈을 찾을 때 그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저자는 소극적으로 표현했을 뿐(a kind of underplaying for effect)이다. 룻과 보아스에게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것임을 교묘하게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Hals, 12). 문학적으로 이 어구는 두드러지게 줄잡아 말함(striking understatement)으로써 오히려 그 정반대를 생각하도록 의도한 과장법(hyperbole)이다(Hubbard, 141). 저자는 1 장의 여러 구절(6, 8, 9, 13, 20, 21 절)에서 여호와께서 관여하심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진술을 통하여 이 우연 속에 여호와의 숨은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보도록 의도하고 있다. 얼핏 보면 룻이 우연히, 아니 운이 좋아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이런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룻이 가야할 바로 그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고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어구는 "우연"이라고 보고하지만 그 우연은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암시하는 교묘한 표현이고 인간의 행운 안에 신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19] 나오미는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친척에 대하여 침묵하였지만 저자는 룻과 보아스의 우연적 만남을 강조하였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고려하고 계셨다.

⑩ 룻이 우연히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된 밭은 뜻밖에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라고 번역된 어구는 חֶלְקַת הַשָּׂדֶה לְבֹעַז [헬카트 하싸데 르보아즈]이다. 부시(105)는 IBHS 9.7b 를 반박하고 GKC 129d 를 따르며 보아스 앞에 전치사 라멧을 사용하여 לְבֹעַז[르보아즈]처럼 속격을 표시하는 이유가 "the portion of the fields 밭들의 일부"로 직역되는 바로 앞의 명명구(חֶלְקַת הַשָּׂדֶה [헬카트 하싸데)가 하나의 통일된 개념 즉 "the individual field 개별적인 밭"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20] 왕하 9:25 에 나오는 חֶלְקַת שְׂדֵה נָבוֹת [헬카트 스데 나보트] "나봇의 밭"은 26 절에서 전치사 בְּ[브]와 결합된 בַּחֶלְקָה[바헬카](< הַחֶלְקָה[하헬카] + בְּ[브])의 모양으로 "그

---

[19] Trible, "Two Women," 260: "it is a felicitous expression 'she happened to come,' reporting chance and accident while hinting that chance is caused. Within human luck is divine intentionality."

[20] GKC 129d 는 חֶלְקַת הַשָּׂדֶה לְבֹעַז [헬카트 하싸데 르보아즈]를 "the portion of field belonging to Boaz"로 번역하고 חֶלְקַת שְׂדֵה בֹעַז [헬카트 스데 보아즈]를 "the portion of the field of Boaz"로 번역하였다.

밭"으로 2 번 언급된다.[21] 이것은 세 단어로 된 명명구 חֶלְקַת שְׂדֵה נָבוֹת [헬카트 스데 나보트]가 나봇의 밭의 일부가 아니고 나봇의 밭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세 단어로 된 명명구 חֶלְקַת שְׂדֵה בֹעַז [헬카트 스데 보아즈] 즉 라멧을 쓰지 않고 속격이 표현되었다면 "보아스의 [개별적인] 밭"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the portion of Boaz's field 보아스의 밭의 일부"로도 이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룻기 저자는 "보아스의 밭들 중의 일부"로도 이해될 수 있는 חֶלְקַת שְׂדֵה בֹעַז [헬카트 스데 보아즈] 대신에 חֶלְקַת הַשָּׂדֶה לְבֹעַז [헬카트 하싸데 르보아즈]를 씀으로써 "**보아스의 밭**"을 분명하게 나타냈다.[22]

⑪ 룻이 우연히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된 **밭**의 주인을 **보아스**라고 밝힌 후에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룻은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을 따라서 이삭 주우려고 밭을 찾아 나섰다가 뜻밖에도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이 우연 아닌 우연이 주는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레이터는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2 막 1 장(2:1-3) 해설

(1)룻기의 2 막(2:1-23)은 나오미의 외롭고 괴롭고 텅빈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 즉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묘사한다. 제 2 막은 이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짧고 예비적인 장면(2:1-3)으로 시작한다. 이 예비적 장면에서 내레이터는 먼저 이야기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

[21] [왕하 9:25-26] (25)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בְּחֶלְקַת שְׂדֵה נָבוֹת)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좇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בַּחֶלְקָה הַזֹּאת)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בַּחֶלְקָה) 던질지니라. "토지"와 "밭"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이므로 "토지"는 "밭"으로 고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Hubbard 와 Bush 는 "보아스의 밭"과 관련지어 왕하 9:25-26 을 논의한다. Hubbard(142, n. 10)가 "왕하 9:25 에 חֶלְקַת הַשָּׂדֶה가 나온다"라고 말한 것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왕하 9:25 에는 חֶלְקַת שְׂדֵה가 나오기 때문이다. Bush(105)가 "왕하 9:25 에 חלקת השדה가 나오고 9:26 에 이것을 받는 חלקת가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말한 것도 오류이다. 그것은 왕하 9:25 에는 명명구 חלקת השדה가 아니라 명명구 חֶלְקַת שְׂדֵה가 나오고 왕하 9:26 에는 자립형 חֶלְקָה가 나오기 때문이다.

[22] חֶלְקַת הַשָּׂדֶה [헬카트 하싸데]가 나오는 다른 구절들은 룻 4:3; 창 33:19; 수 24:32; 삼하 23:11; 대상 11:13 이다. חֶלְקַת הַשָּׂדֶה לְבֹעַז [헬카트 하싸데 르보아즈] "보아스의 밭"과 비슷한 표현이 관계사를 사용한 4:3 의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이다. 창 33:19 에는 " חֶלְקַת הַשָּׂדֶה אֲשֶׁר נָטָה־שָׁם אָהֳלוֹ 그가 장막을 친 밭"이 언급되고 수 24:32 에는 "בְּחֶלְקַת הַשָּׂדֶה אֲשֶׁר קָנָה יַעֲקֹב 야곱이 산 땅"이 언급된다. 삼하 23:11 에는 "חֶלְקַת הַשָּׂדֶה מְלֵאָה עֲדָשִׁים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그리고 대상 11:13 에는 "חֶלְקַת הַשָּׂדֶה מְלֵאָה שְׂעֹרִים 보리가 많이 난 밭"이 나온다.

독자들에게 나오미가 남편과의 결혼을 통하여 알게 된 **친지**요, **덕망있는 사람**[=재력과 명망이 있는 유지]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소개한다(2:1).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나오미가 시집온 가문에 속한 사람 즉 친족인 것을 강조하고 맨 나중에 보아스의 이름 밝히는 것을 통하여 청중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호기심은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2:2)**.**"라는 룻의 말에 의해 더욱 고조된다. 보아스의 소개 후에 나오는 룻의 이 말을 통하여 독자들은 호의를 베풀어 줄 친절한 사람이 혹시 보아스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받는다. 이런 암시는 보아스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룻이 "우연히(2:3)" 그의 밭에 이르렀다는 내레이터의 말을 들을 때 기대감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보아스가 다음 장면의 초두에 등장할 때 충족된다(부시, 105).

⑵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아스가 먼저 소개된(2:1) 후, 이야기의 흐름은 본토인 나오미로부터 재개되지 않고 이방인 **모압 여인 룻**으로부터 재개된다.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다. "**제가 밭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2:2)." 이렇게 두 개의 청유형을 써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며 주도적으로 양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그녀가 헌신을 다짐했던 말(1:16-17)과 일치하는 인품에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정중한 요청을 듣고 나오미는 룻에게 "[르히 비티] **그래 나가 보아라**, **내 딸아**(2:2)."라는 두 단어로 된 말로 허락하고 침묵한다. 이 묵인적이고 애정 어린 짧은 대답은 나오미가 텅빈 삶과 쓰라린 고통 가운데 푹 빠져 아직도 실의 가운데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말은 나오미가 귀향해 베들레헴 여인에게 말한 탄식(1:20-21)과 룻이 주워 온 많은 양의 곡식을 보고 말한 탄성(2:19) 사이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이다(부시, 105). 묵인적인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게 된다.

⑶내레이터는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묘사될 사건을 내다보며 요약하는 진술과 이에 대한 중요한 해설로써 2 막 1 장을 마무리한다. 내레이터의 "**그리하여 룻이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웠다**(2:3)."라는 요약 진술은 "**그런데 우연히 그것은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였다**(2:3)."라는 해설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뜻밖에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연히**"라는 어구를 피상적으로 보고서 "운수," "행운," "운명," "우연의 일치" 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신다(부시, 106). 암 3:6 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한다. 애 3:37-38 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다. 사 45:1-8 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 왕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것을 말하고 여호와 자신 이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 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잠언 16:33 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은 룻기에서 저자가 초두와 말미에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며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고(1:6)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4:13)는 두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다. 따라서 "**우연히**"라는 어구는 관계된 자들의 의도나 도움 없이 뜻밖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사건들의 흐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저자의 확신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표면적으로 줄잡아 말하는 것과 이면적으로 크게 말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정반대이다(허버드, 141).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하여 순전히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런 아이러니컬한 진술을 한 것이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을 아예 "우연, 행운"으로 돌리는 듯한 말을 통하여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일어난 모든 일의 의미에 대하여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저자는 "**우연히**"라는 표현을 통하여 "여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다.

⑷룻이 이삭을 줍게 된 밭의 주인을 보아스라고 밝힌 후에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리는 내레이터가 보아스를 여담(2:1)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해설(2:3)에서 또 다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친지요 덕망있는 사람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에게 시집와서 일가친척 관계가 맺어진 인물로 소개되었다(2:1). 룻은 *호의를 베풀 사람*을 기대하며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우려고 했다(2:2). 룻은 이삭 주우려고 밭을 찾아 나섰고 우연히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2:3). 내레이터는 중앙집중적 역순대구 구조, 즉 A *엘리멜렉의 친족*—B *보아스*(2:1)—X *호의를 베풀 사람*(2:2)—B' *보아스*—A' *엘리멜렉의 친족*(2:3)이란 배열을 통하여(부시, 99) 우리로 보아스의 장래 역할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암시적 교훈을 찾게 한다. 룻이 "**누구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기**(2:2)" 위해 찾다가 우연히 이르게 된 밭의 주인이 보아스이고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2:1, 3)으로 나오미와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 우연 아닌 우연이 주는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레이터는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⑸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한 예비적인 장면(2 막 1 장, 2:1-3)에서 내레이터가 이야기의 흐름을 끊으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보아스를 미리 소개하고 룻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나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고 해설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 내러티브를 읽는 관점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영화나 TV 에서 한 화면이 둘로 분할되어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을 본다. 이러한 화면 분할(split screen)의 기교는 한 사건을 두 개의 관점에서 보도록 한다(퍼거슨, 52). 2:1 에서 내레이터가 보아스를 미리 소개하는 것은 읽기보다 듣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청중을 위한 배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레이터는 청중으로 하여금 나오미와 룻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사람 보아스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2:3 에서 내레이터가 룻이 이삭을 줍게 된 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설한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인간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구속사를 이루고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등장 인물의 삶이 분할된 화면 위에 둘로 제시되기라도 한 것처럼 내러티브를 듣거나 읽으면서 세상사의 우연성 혹은 예측 불가성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모든 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도 보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⑹내레이터는 청중들에게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지요, 덕망있는 사람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된 보아스가 바로 며느리의 장래 행복을 위한 나오미의 기도(1:8-9)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므로 보아스를 주목하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룻은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에게 헌신하였다. 이러한 룻에게 빚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금세와 내세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나오미의 비극 가운데서 룻을 그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엡 3:20). 지금 내레이터는 자기가 미리 소개하는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준비하신 인물인 것을 넌지시 일러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도록 인도하고 있다. 내레이터의 예고, 회고, 해설 등은 영화 감독의 화면 분할 기교처럼 인간의 관점(역사적 사건들)과 하나님의 관점(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룻기는 요셉 내러티브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교훈을 주지 않고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 암시적 교훈을 찾도록 하는 책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레이터는 등장 인물들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훨씬 더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밖에 언급하지 않지만(1:6; 4:13) 등장 인물들이 21 번이나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내레이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실제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들이 감추인 채로 남아 있게 묘사한다(퍼거슨, 53). 등장 인물로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알지만 그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떻게 그녀의 기도의 응답이 될지 몰랐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일이 갖는 의미를 전혀 몰랐다. 룻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내러티브 내내 남겨진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흐름도 볼 수 있고 이야기의 결말도 알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내레이터는 결론의 관점에서 사건을 뒤돌아보며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미리 주기도 한다. 내레이터가 보아스를 미리 소개하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해설을 준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면서 나오미에게 헌신하겠다는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단서이고 암시적 교훈을 얻도록 하는 고도의 문예적 기교이다.

⑺룻의 관점에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녀의 발길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여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어떤 일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마 10:29).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의 목적들을 그의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셨다(시 139:16).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주권적 지혜와 목적 아래 일어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롬 8:28-29).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 의해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나무에 달려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낙인 찍혀버린 것 같은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며 그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셨고 그의 아들의 대속적 사역을 만족해하시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극심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개입하시는 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구원적인 행위의 무대이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 이것이 신뢰의 근거이다(울리치, 63).”

⑻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들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시는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1).”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와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완전한 목적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 삶과 너희 시대의 사건들을 보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 굵직한 대문자로 그의 섭리의 원리들을 써 놓으시고

그의 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며 그가 우리 인생길에 그것들을 작은 글씨로 다시 쓰실 때 우리로 그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필체로 써가시며 우리 삶에 대한 동일한 섭리적 보살핌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길을 찾고 있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추적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사 50:10)."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곤경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위해 보아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결국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퍼거슨, 57)."

⑼우리는 구약 시대의 독자들이 등장 인물의 제한된 관점(인간적 관점)과 내레이터의 전지적 관점(신적 관점)을 가지고 구약 내러티브를 읽었던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궁극적인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다(퍼거슨, 54).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관점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구약의 내러티브를 보면 구약의 독자들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우리 한글과 정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히브리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살필 때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는 분할된 화면 위에 제시된 사건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내러티브를 인간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에서 읽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교훈을 얻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결국은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② 2 막 2 장 (2:4-17)

⑴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다루는 2 막(2:1-23) 가운데 제 1 장면(2:1-3)은 이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예비적으로 짧게 설명하고, 제 2 장면(2:4-17)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 아래 룻이 만나게 되는 친절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묘사하며, 제 3 장면(2:18-23)은 이 만남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막에서 제 2 장면(2:4-17)은 제 1 장면과 제 3 장면 사이에 오는 중심 부분으로서 1 막의 핵심 부분인 1 막 1 장(1:6-18)처럼 그 대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2 막 1 장(2:1-3)과 2 막 2 장(2:4-17)과 2 막 3 장(2:18-23)이 샌드위치 구조, 즉 ①집-밭-집, ②룻과 나오미의 대화-룻과 보아스의 대화-룻과 나오미의 대화, ③짧음-김-짧음 등 A-B-A 형태를 보이고 있듯이, 2 막 2 장 자체도 대화의 주체에 치중하여 보면 A-B-A 구조 즉 A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2:4b-7) — B 보아스와 룻(2:8-14) — A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2:15-16)의 구조를 보인다.

⑵부시(110)는 2:4-17a 를 중심 장면으로 보고 내러티브 서론(2:4a)과 결론(2:17a)이란 틀 안에 대화가 주를 이루는 2 개의 에피소드(2:4-13 과 2:14-16)가 들어 있고 두 에피소드는 A-B-B'-A'의 교차대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절	내용	기능
내러티브 서론			4a	보아스의 도착	장면 개시
에피소드 1 (4-13)	A	룻과 그녀의 이삭 줍는 것에 대한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	4b-e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	행동 지연과 긴장조성
			5	보아스의 질문	질문
			6-7	사환의 대답	대답
	B	보아스와 룻의 대화: 보아스가 룻에게 특권을 주고 이유를 설명함	8-9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며 추수하는 자들을 따르며 이삭 주우라고 명령함	명령
			10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 베푸는 이유를 물음	질문
			11-12	보아스가 룻의 헌신을 들어 알고 있다며 축복을 함	대답
			13	룻이 감사의 인사를 함	평가
에피소드 2	B'	보아스와 룻이 관련된 행동: 보아스가 룻에게 점심 먹도록 특권을 베풀어 줌	14a, b	보아스에 룻을 점심 식사에 초대함	명령
			14c	룻이 식사 초대에 응함	시행
			14d	보아스가 많은 볶은 곡식을 줌	진술

(14-16)	A'	룻과 그녀의 이삭 줍는 것에 대한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	15a	룻이 다시 이삭 주우러 감	진술
			15b-16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으로 특혜 누리게 하라고 명령함	명령
내러티브 결론			17a	저녁때까지 이삭을 주움	장면 마감

(3)블락(*Ruth* ZECOT, 125)에 의하면 2:4-16 은 바브 계속법 미완료 [바익톨] 동사형이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보아스와 추수하는 일꾼들과의 대화들(A=2:4-7; A'=2:15-16)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 부분(B=2:8-14)은 직접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 개의 동사 중에서 12 개의 동사가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verbs of speech)이고 9 개의 동사가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이다.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 중 [아마르](“말하다”)는 9 번, [아나](“대답하다”)는 2 번, [치바](“명령하다”)는 1 번 나온다. 2:4-16 에서 보아스가 가장 빈번하게 말하고 아주 길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9 개의 동작 동사(active verbs) 중 오직 2 개만 보아스에게(2:4[바] “그가 왔다”; 2:15[바이츠보트] “그가 건네주었다”) 할애되어 있는 반면 7 개가 룻에게(2:10[바티폴]-[바티시타후] “그녀가 꿇어 엎드려 절했다”; 2:14[바테셰브] “그녀가 앉았다”; 2:14[바토할]-[바티스바]-[바토하르) “그녀가 먹고 베부르고 남겼다”; 2:15[바타콤] ”그녀가 일어섰다”) 할애되어 있다. 이것은 보아스를 말하는 사람(man of words)으로 묘사하는 반면 룻을 행동하는 사람(woman of action)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1) 2 막 2 장 A (2:4-7)

본문

[WLC: 2 רות]

4 וְהִנֵּה־בֹעַז בָּא מִבֵּית לֶחֶם וַיֹּאמֶר לַקּוֹצְרִים יְהוָה עִמָּכֶם וַיֹּאמְרוּ לוֹ יְבָרֶכְךָ יְהוָה׃ 5 וַיֹּאמֶר בֹּעַז
לְנַעֲרוֹ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לְמִי הַנַּעֲרָה הַזֹּאת׃ 6 וַיַּעַן הַנַּעַר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וַיֹּאמַר נַעֲרָה מוֹאֲבִיָּה
הִיא הַשָּׁבָה עִם־נָעֳמִי מִשְּׂדֵה מוֹאָב׃ 7 וַתֹּאמֶר אֲלַקֶּטָה־נָּא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וֹצְרִים וַתָּבוֹא
וַתַּעֲמֹד מֵאָז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ESV: Ruth 2:4-7]

4 And behold, Boaz came from Bethlehem. And he said to the reapers, “The Lord be with you!” And they answered, “The Lord bless you.” 5 Then Boaz said to his young man who was in charge of the reapers, “Whose young woman is this?” 6 And the servant who was in charge of the reapers answered, “She is the young Moabite woman, who came back with Naomi from the country of

Moab. 7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after the reapers.' So she came, and she has continued from early morning until now, except for a short rest."[a]

a. Ruth 2:7 Compare Septuagint, Vulgate;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개역개정: 룻 2:4-7]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번역 (룻 2:4-7)

룻 2:4 그 시점에[1]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그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고 인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5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2] 감독하는 종에게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6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3] 7 그녀가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2]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서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머물[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4] 그녀의 쉼은 잠시뿐이었습니다."[5]

본문 비평

[1] וְהִנֵּה[브히네]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가 독자에게 2:1 에서 소개한 보아스의 등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용례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각 절 주석(2:1) 부분을 참고하라

[2] 추수의 과정에는 밭에서 낫으로 베고 베어진 다발을 두 팔에 가득찰 묶음으로 모으고 모아진 묶음을 단으로 묶어 타작 마당으로 나르는 일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삭 줍기는 추수의 과정이 끝난 후에 허락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부시(114)에 따르면 원어 [코츠림]은 추수 과정에서 "베는 자들(개역/개역개정)"이고 [므아메르]는 묶는 자들이다. BDB 와 KB 와 NASB 와 ESV 는 [코츠림]을 "reapers"로 번역하고 NIV/HCSB/ISV 는 "harvesters"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베는 자들"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공동번역과 쉬운성경은 "일꾼들"로 번역하고, 현대어성경은 "곡식 거두는 일꾼들"로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은 "추수하는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다.

[3] 직역: "모압 여자, 젊은 여자—그녀—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자"

[4] "집"이라는 단어를 "오두막"이라고 번역하였다.

[5] 이 부분은 룻기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본문 전승 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아래 각 절 주석(2:7) 부분을 참고하라.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2:4-7)

(1)보아스와 룻의 만남 자체를 다루는 2 막 2 장(2:4-17) 중에서 2:4-7 은 2:1 에서 소개되었던 보아스가 밭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후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하여 추수를 감독하는 사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2)내레이터가 וְהִנֵּה[브히네] 다음에 사용한 주어 בֹּעַז[보아즈]와 동사 בָּא[바]는 첫 자음이 모두 베트(ב)로 두운을 보인다.

(3)보아스와 추수하는 일꾼들이 주고받은 인사말은 기원을 나타내는 문의 어순을 따른 것이다. 이 두 인사말은 יְהוָה[아도나이] (주어 A) — עִמָּכֶם[이마헴] (술어 B) — יְבָרֶכְךָ[여바레흐하] (술어 B') — יְהוָה[아도나이] (주어 A')라는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기원문에서 여호와란 주어가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고 술어가 가운데 옴으로써 첫 번째 기원문은 여호와로 시작하고 두 번째 기원문은 여호와로 끝나고 있다.

각 절 주석 (룻 2:4-7)

26. 룻 2:4

1) 원문 문제

וְהִנֵּה־בֹעַז בָּא מִבֵּית לֶחֶם וַיֹּאמֶר לַקּוֹצְרִים יְהוָה עִמָּכֶם וַיֹּאמְרוּ לוֹ יְבָרֶכְךָ יְהוָה׃ (룻 2:4)

① וְהִנֵּה־בֹעַז בָּא מִבֵּית לֶחֶם에서 הִנֵּה의 용법은? Just then(NIV)? A while later(Hubbard)? Some time later(TEV)? Wouldn't you know it(Bush)? At that point(Berlin)?

② בָּא는 완료(Bush, 111; Hubbard, 143)인가 아니면 분사(Campbell, 93)인가?

③ יְהוָה עִמָּכֶם은 (동사문, 명사문)이며 정상적인 어순 주어 + (=전명구)을 가진 기원문이고(WHS 551, 580), יְבָרֶכְךָ יְהוָה은 (동사문, 명사문)으로 정상적인 어순 ( ) + 주어로 된 기원문이다(WHS 546).

2) 주석

룻 2:4 그 시점에 [앞서 말한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그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고 인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① 보아스와 룻의 만남 자체를 묘사하는 2 막 2 장은 이접적 접속사 וְ[브]와 불변화사 הִנֵּה[히네]가 결합된 וְהִנֵּה[브히네]로 시작된다.[1] 이 וְהִנֵּה[브히네]에 대하여 NIV 는 "Just then," TEV 는 "some time later," 허버드는 "A while later," 부시는 "Wouldn't you know it! Of Course!"로 번역하였다.

② 벌린(Berlin)은 불변화사 הִנֵּה[히네]의 기본적인 기능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attention-getter)이라고 설명하고 내러티브의 관점과 관련지어 룻기에 나오는 이 불변화사의 용법을 다음과 설명하였다.

⑴등장 인물의 말 가운데 나오는 הִנֵּה[히네]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접화법의 전달문에 나오는 הִנֵּה[히네]는 청자에게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보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2] 룻 1:15 와 3:2 에서 나오미는 룻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히네]를 사용하며 말한다.

- [룻 1: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라**(הִנֵּה),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여기서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동서 오르바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룻이 동서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

- [룻 3:2] "그런데 그의 [추수하던] 젊은 여자들과 함께 네가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הִנֵּה),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여기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일가친척임을 말한 후에 룻으로 하여금 그날 밤 보아스의 특별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⑵내레이터는 간접 화법을 통해 등장 인물(들)이 הִנֵּה[히네]절에 들어있는 것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것을 전함으로써 **그 등장 인물의 관점**을 보여준다.[3] 다시 말하면 내레이터의 이야기 진술 과정에서 הִנֵּה[히네]는 등장 인물에 의하여 사건이나 다른 등장 인물이 보여지는 관점을 나타낸다. 룻 3:8 과 4:1 에서 הִנֵּה[히네]는 등장 인물 보아스의 인식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룻 3:8]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הִנֵּה)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

[1] הִנֵּה[히네]에 대한 자세한 구문적인 논의는 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168-171 을 참고하라.

[2] Berlin, *Poetics*, 95: "1) In direct discourse as an emphatic, registering attention or surprise, and best translated by 'Look!' (1:15; 3:2)"

[3] Berlin, *Poetics*, 95: "2) In narration, as indicator of 'point of view', that of character, i.e., the perspective from which an event or character is viewed, for a character is not perceived by the reader directly, but rather mediated or filtered through telling of the implied author, the narrator, or another character. A character or characters are perceiving what is contained in the *hinneh* clause (3:8; 4:1)."

이 서술에서 보는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보아스이다. 이 구절은 룻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의 보아스의 인식을 보여 준다. 그 때 보아스는 누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 대한 칭호는 "어떤 사람"이 바른 칭호이고 "어떤 사람"과 "**보니까**(הִנֵּה)"는 함께 보아스의 관점을 보여 준다.

-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הִנֵּ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캠벨과 새슨이 4:1 의 הִנֵּה[히네]를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갑작스러움의 표시(as a time reference—a mark of suddenness)로 이해하고 "just then 바로 그 때" 혹은 "no sooner (had Boaz gone up and sat) 보아스가 올라가 앉자마자 바로"라고 번역한 것은 틀린 것이다.

  창 38:27("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And at the time of her giving birth, wehinneh twins were in her womb)에서 הִנֵּה[히네]는 산통과 출산 사이의 시간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파의 인식의 관점에서 쌍둥이라는 놀라움을 독자와 등장 인물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창 38:29("[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wehinneh his brother come out)에서도 הִנֵּה[히네]는 해산의 속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의 순서가 뒤바뀐 것에 대한 놀라움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הִנֵּה[히네]는 사건들의 발생 시간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산파의 인식의 제시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4]

  창 38:27, 29 의 הִנֵּה[히네]처럼 룻 4:1 의 הִנֵּה[히네]도 기업 무를 사람이 곧바로 도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기업 무를 자를 본 것을 보여주고 있다.

(3)이야기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הִנֵּה[히네]는 **독자를 위한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낸다. 내레이터는 전개되는 장면에 새로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그 인물을 주목하도록

---

[4] Berlin, *Poetics*, 92-93: "*Hinneh* clauses are surprise clauses. They express suddenness in the presentation of information to the reader or to a character. But this suddenness has nothing to do with the time lapse between events; it has to do with the abrupt or unexpected way in which the new fact is introduced in the narrative." = "*히네*절은 놀라움을 표시하는 절이다. 이 절들은 독자나 등장 인물에게 정보를 줄 때 놀라움, 갑작스러움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움은 사건 사이에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실이 소개되는 갑작스러운 혹은 기대되지 않은 방식과 관련이 있다."

하기 위해 הִנֵּה[히네]를 사용한다.[5] הִנֵּה[히네]는 룻 2:4 에서 2:1 에 소개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에 도착한 것을 묘사할 때 나온다. 이것은 내레이터가 독자들을 위해 독자가 알고 있는 그 보아스의 출현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룻 2:4] "וְהִנֵּה־בֹעַז בָּא מִבֵּית לָחֶם [브히네-보아즈 바 미베트 레헴] **그 시점에** (독자들이 알고 있는 1 절에서 말하던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였다."

  2:4 의 הִנֵּה[히네]는 룻의 인식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보아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룻은 알지 못했을 것이므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다는 진술은 룻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만일 이삭 줍는 여인 룻의 관점이라면 "[히네] 보아스"가 아니라 "[히네] 밭의 주인"이라고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2:4 의 הִנֵּה[히네]는 독자에게 주는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내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된 장면 묘사 다음에 (2:1 에서 미리 언급되었던) 보아스가 장면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을 도와준다. 이렇게 הִנֵּה[히네]는 어떤 장면 묘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인물이 장면에 등장하는 것을 독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 הִנֵּה[히네]절은 내레이터가 간접 화법으로 서술하는 말의 일부이며 항상 הִנֵּה[히네]로 시작하고 왕래발착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6] 벌린은 시간적인 뉘앙스를 지닌

---

[5] Berlin, *Poetics*, 95: "3) In narration, as indicator of 'point of view', that of the narrator to his reader, a way of introducing a new figure into an ongoing scene, best translated by 'at that point' (2:4)."

[6] Berlin(*Poetics*, 94)은 어떤 장면 묘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인물이 장면에 등장하는 것을 독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내는 הִנֵּה[히네]의 예로 다음과 같은 절들을 들고 있다. [ ]안에 "그 시점에"로 통일하여 번역한 것에 유의하라.

[민 25:5-6] (5)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울었다.** *hinneh* **그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 지라

[삼상 11:4-5] (4)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마침(*hinneh* **[그 시점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왕상 12:33-13:1] (12:33)저(=여로보암)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팔월 십오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벧엘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3:1)때에(*hinneh*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벧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N.B. 개역은 여로보암 앞에 "*마침*"을 써서 번역하였으나 *hinneh* 가 없다.)

[왕상 13:24-25] (24)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25)(*hinneh* **[그 시점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וְהִנֵּה אֲנָשִׁים עֹבְרִים וַיִּרְאוּ**)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N.B. 위의 번역처럼 독자를 위한 내레이터의 관점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캠벨의 “just then"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배제된 “at that point 그 시점에”란 번역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시(112)는 룻기의 문맥이 주는 이 놀랍고 즐거운 확인의 뉘앙스를 주기 위해 הִנֵּה[히네]를 “Wouldn't you know it!” 혹은 “Of course!”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시의 “Wouldn't you know it!”나 “Of Course!”란 번역은 룻기에는 적합하다. 그렇지만 벌린이 진행 중인 장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등장 인물에 대하여 독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은 (그녀가 주장한 대로 just then 과는 달리 시간적인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뉘앙스가 배제된) “at that point 그 시점에”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 본 주석의 번역에서 “**그 시점에**” 다음에 대괄호에 넣은 “**앞서 말한 그**”라는 어구는 2:4 의 뉘앙스를 살려보려는 번역이다.[7]

(4)הִנֵּה[히네]가 기대되는 곳에 나오지 않은 1:19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8]

וַתֵּלַכְנָה שְׁתֵּיהֶם עַד־בֹּאָנָה בֵּית לָחֶם

וַיְהִי כְּבֹאָנָה בֵּית לָחֶם וַתֵּהֹם כָּל־הָעִיר עֲלֵיהֶן וַתֹּאמַרְנָה הֲזֹאת נָעֳמִי׃

- [룻 1:19] 이에 그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길을 행하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의 여인네들]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하였고 (그 여자들이)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Cf. NIV: So the two women went on until they came to

---

곁에 선 사자를 보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등장 인물의 관점대로 개역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라고 번역하려면 원문의 וְהִנֵּה 의 위치가 정형동사 וַיִּרְאוּ 다음으로 이동해야 한다. 즉 원문 וַיִּרְאוּ אֲנָשִׁים עֹבְרִים וְהִנֵּה אֲנָשִׁים עֹבְרִים וַיִּרְאוּ וְהִנֵּה가 אֲנָשִׁים עֹבְרִים וַיִּרְאוּ 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7] 개역개정은 등장 인물의 관점을 나타내는 3:8 의 [히네]를 “본 즉”으로 잘 번역하였으나 3:8 처럼 등장 인물의 관점을 나타내는 4:1 의 [히네]와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내는 2:4 의 [히네]를 모두 “마침”으로 번역하였다.

[룻 3:8]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룻 2: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 영신, 「국어사전」, 720 은 “마침”이 갖는 세 가지 의미를 제시한다. “①막 대문을 나서는데 *마침*(=우연히, 공교롭게) 그가 지나갔다.” “②만나고 싶었는데 *마침*(=어떤 경우나 시기에 꼭 알맞게) 잘 왔다.” “③ *마침*(=그때가 바로) 시험 때라서 가지 못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개역 4:1 의 *마침*은 국어사전 첫 번째 예문의 뜻(①)과 비슷하고 개역 2:4 의 *마침*은 두 번째 예문의 뜻(②)과 엇비슷하다.

본 주석은 등장 인물의 관점을 표시하는 [히네]는 “**보니까**(3:8; 4:1)”라고 번역하고 내레이터의 관점을 표시하는 [히네]는 “**그 시점에**(2:4)”라고 번역하였다. 사건과 등장 인물이 새로 제시될 때 생기는 놀라움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보니까”와 “그 시점에” 다음에 “마침”을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8] Berlin, *Poetics*, 95.

Bethlehem. When they arrived in Bethlehem, the whole town was stirred because of them, and the women exclaimed, “Can this be Naomi?”)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wehinneh the whole town was stirred." 혹은 “they saw that the whole town was stirred.”라고 전하고 있지 않다.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라는 절 앞에 הִנֵּה[히네]가 없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이 나오미의 관점에서나 베들레헴 여인들의 관점에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베들레헴의 도착 사실은 내레이터로부터 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로 제시되며 1:20-21 의 대화를 통하여 장면이 전개된다. 나오미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귀향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고 22 절까지 룻에 대한 언급도 없다. 감정 전달을 억제하는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은 룻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지금까지 소개한 벌린의 הִנֵּה[히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레이터는 2:4 서두에서 **그 시점에**(הִנֵּה[히네]) 1 절에서 소개된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고 서술하며 새로운 인물 보아스가 장면에 출현하는 것을 독자들이 인식하도록 정보를 주었다. 따라서 הִנֵּה[히네]는 독자를 위한 내레이터의 관점을 제시한다. 앞에서 내레이터는 여담으로 보아스를 예비적으로 소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갖게 하였다(1 절).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룻이 말했던 호의를 베풀 사람과 보아스가 혹시 연관되지 않을까하는 독자의 **호기심**을 일으켰다(2 절). 그리고 그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해설을 통하여 독자의 **기대감**을 높여 놓았다(3 절). 그리고 여기서 내레이터는 הִנֵּה[히네]를 사용하여 독자가 관심과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던 일이 놀랍게 일어났음을 확인해 주려고 독자로 하여금 새 인물 보아스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④ “**보아스가 왔다**”에서 “**왔다**”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 בָּא[바]에 대하여 완료형으로 보는 학자(Bush, 111; Hubbard, 143)도 있고 분사형(Campbell, 93)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이것은 중근 바브 동사의 완료 3 인칭 남성 단수형과 분사 남성 단수 자립형이 똑같은 어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בָּא[바]가 분사라면 보아스의 도착 시각이 룻의 도착 시각과 거의 같은 것을 나타내고 완료라면 보아스가 룻보다 늦게 밭에 온 것을 나타낸다.

- 캠벨(93)은 동사 בָּא[바]가 분사라고 보면서도 사환이 룻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보고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흐른 다음 바로 알맞은 때 즉 보아스가 룻보다 좀 늦게 도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새슨(46)은 캠벨의 설명을 유익한 것으로 지적하면서도 캠벨의 약간의 시간의 흐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브히네]가 룻과 보아스의 도착을 몇 초 사이로(“within seconds of each other”)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 드 바르트와 니다(27)는 7 절이 보여 주는 대로 3 절과 4 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4 절은 [저자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고 있는(분사) 보아스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도착한 후 여러 시간 지나서 왔던(완료)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Then after several hours Boaz himself came."라고 번역했다.
- 허버드(143)는 [보아스와 룻이 나눈 대화(8-13 절)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점심에 초대한 것(14 절) 사이의 시간이 짧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보아스가 룻보다 여러 시간 후에 도착하였을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캠벨의 말대로 사환이 룻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흐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알맞은 때에 보아스가 도착하였다(Boaz arrived a short while, if not several hours, after Ruth.)고 설명하며 동사 בָּא[바]를 완료라고 주장하였다.

⑤ 부시(111)는 캠벨이 불변화사 הִנֵּה[브히네]와 분사형이 쓰인 예로 든 구절들이 룻 2:4 과 같은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먼저 삼하 16:1; 18:31; 룻 4:1 등은 וְהִנֵּה[브히네]절에 묘사된 행동 이전에 시간적으로 연속되며 이미 끝난 일련의 사건들이 선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룻 4:1 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룻이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와 만나고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돌아와 나오미와 대화를 나눈 일련의 사건이 끝난 후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있을 때 보아스가 וְהִנֵּה[브히네]절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 즉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는(분사 עֹבֵר[오베르]) 것을 보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창 24:15; 왕상 1:22, 42 등은 "말하고 있는 동안"이나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을 때"라는 어구에 의하여 사건의 동시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룻 2:4 은 창 24:15 와 왕상 1:22, 42 처럼 동시성을 나타내는 어구도 없고, 삼하 16:1 과 삼하 18:31 과 룻 4:1 처럼 일련의 연속된 사건이 끝난 후에 וְהִנֵּה[브히네]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룻 2:4 은 상세히 묘사될 사건을 미리 요약 보고하는 진술(2:3)이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וְהִנֵּה[브히네]에 의해 인도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2:3 이 묘사하는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부시는 동사 בָּא[바]를 완료로 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구문에 룻과 보아스가 각각 밭에 도착한 시점 사이의 차이 문제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⑥ 본 주석은 בָּא[바]를 완료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2:4 의 הִנֵּה[히네]는 독자에게 주는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낸다. 보아스의 예비적인 소개(1 절)로 인한 독자의 관심, 룻의 "호의를 베풀 사람"에 대한 막연한 언급(2 절)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보아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독자의 호기심, 그리고 "뜻밖에도 룻이 이삭을 줍게 된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해설(2:3)로 인한 독자의 기대감은 "**그 시점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는 내레이터의 진술을 통하여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확인된다. 이 불변화사 הִנֵּה[히네]를 통하여 어떤 시간적인 흐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맥상 룻과 보아스가 거의 동시에 밭에 도착하였다는 것과 룻이

밭에 온 지 여러 시간 후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배제된다. 룻이 사환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는 시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환이 이삭 줍는 룻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진 후에 추수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온 보아스와 대화를 나누었다.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눈 후 보아스가 점심 식사에 초대할 때까지 룻은 계속 이삭을 줍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보아스가 룻이 밭에 와서 일정 시간 동안 이삭을 주운 다음 시점에 온 것은 분명하지만 보아스가 밭에 온 시각이 점심 때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룻이 밭에 온 그 시각에 가까운 것인지는 확실히 결정할 수 없다.

⑦ 추수 진행 과정을 살펴보러 밭에 온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고 말하였고 그들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기원을 표현할 때 명사문과 동사문은 그 어순이 서로 다르다(WHS 580). 보아스가 말한 축복 "יְהוָה עִמָּכֶם [아도나이 이마헴]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에는 동사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인 여호와가 먼저 나오고 술어인 전명구(עִמָּכֶם[이마헴])가 나중에 나온다(WHS 551; GBH 163b). 그러나 추수하는 일꾼들이 말한 축복 "יְבָרֶכְךָ יְהוָה [여바레흐하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에는 동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술어(יְבָרֶכְךָ[여바레흐하])가 먼저 나오고 주어인 여호와가 나중에 나온다(WHS 546).

⑧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샬롬 Peace [to you]!"이란 인사를 주고받았다.[9] 허버드(144)는 " יְהוָה עִמָּכֶם [아도나이 이마헴]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는 보아스의 인사가 추수 때만 주고받는 인사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오늘날 원래의 종교적인 함축 없이 쓰이는 영어의 "Goodbye (<God be with ye)"와 같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는 보아스의 인사가 인사와 축복이 들어 있는 "May Yahweh prosper all your efforts with a bountiful harvest!"란 의미를 지니며 인사의 목적이 추수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9] [삿 6:23-24] (23)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שָׁלוֹם לְךָ)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삼상 25:6-7] (6)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וְאַתָּה שָׁלוֹם) 네 집도 **평강하라**(וּבֵיתְךָ שָׁלוֹם)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וְכֹל אֲשֶׁר־לְךָ שָׁלוֹם)

[삼하 18: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שָׁלוֹם)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 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삼상 1:17]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לְכִי שָׁלוֹ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5:34] 예수께서 이르시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ὕπαγε εἰς εἰρήνην)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눅 10:5-6] (5)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Εἰρήνη τῷ οἴκῳ τούτῳ)하라 (6)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는 이 인사 배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10]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확고하고 자주 언급되는 헌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인사를 굳이 추수 때만 특별히 주고받는 인사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작별할 때 등 여러 경우에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는 것은 동양의 관례였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안녕"의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 "평안"을 빌었다(ZPEB IV:220).[11] 이것은 아랍 사람들이 "*allah ma'akum* Allah be with you"와 "*allah yaḥphaḍak* may Allah protect you"의 인사를 주고받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de Waard and Nida, 88, n. 10).

⑨ 룻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 여러 번(1:8-9; 2:4, 12, 19; 3:10; 4:11-12) 기록되어 있고 이 축복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된다. 인사말이라서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거나 추수 때만 주고받는 인사이므로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룻기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나오는 축복의 말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보아스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추수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인사말이고 통상적 인사말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아스의 "יְהוָה עִמָּכֶם [아도나이 이마헴]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는 인사는 등장 인물로서 처음 한 말이기 때문에 그의 인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12]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비는 보아스라면 그가 이삭 줍는 룻에게도 호의를 베풀 사람이 아닐까 하는 독자들의 기대는 더 강화된다.

⑩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는 보아스의 인사에 대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일꾼들의 인사는 제사장의 축복(민 6:24-26)중 맨 처음에 나오는 두 단어와 똑같다. 시 129:5-8 에는 시온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며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 같아서 베는 자의 다발에 차지도 않고 묶는 자의 품에 차지도 않으며 지나가는 자도 그들에게는 " בִּרְכַּת־יְהוָה

---

[10] 창 26:3; 46:4; 출 3:12; 수 1:5; 삿 6:16; 삼하 7:9; 왕상 11:38; 사 41:10; 마 28:20

[11] [마 26:49]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Χαῖρε, ῥαββί. Greetings/Hail, Rabbi!) 하고 입을 맞추니 [막 5: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ὕπαγε εἰς εἰρήνην)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Cf. 예수님은 70 인을 보내시며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고(눅 10:4)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다(마 23:6-7).

[12] Cf.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74: "In any given narrative event, and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any new story, the point at which dialogue first emerges will be worthy of special attention, and in most instances, the initial words spoken by a personage will be revelatory, perhaps more in manner than in matter, constituting an important moment in the exposition of character."

אֲלֵיכֶם בֵּרַכְנוּ אֶתְכֶם בְּשֵׁם יְהוָה [비르카트-아도나이 알레헴 베라흐누 에트헴 비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다. 허버드(144)는 일꾼들의 인사도 관례에 따른 인사 이상으로 여기며 추수 때에 특별히 사용된 인사로서 서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여호와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도록 비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굳이 추수 때에만 특별히 사용하는 인사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축복은 제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늘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복 주시길 비는 것은 개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자주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⑪ "**여호와께서**(A) **함께 하시길**(B)"—"**복주시길**(B') **여호와께서**(A')." 이렇게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마감된 인사의 교환은 이 장면에 여호와가 계심을 넌지시 보여준다. 3 절에서 여호와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사건 위에 계셨다면 4 절에서 여호와는 덕망있는 사람인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입가에 계셨다. 나중에 보아스가 추수하는 남자들에게 이삭 줍는 여인을 건드리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라고 하는 말(2:9, 15-16)이 암시하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복을 비는 인사를 하였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 교환에 사용된 여호와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경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이 불려진 분(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Hubbard, 144). 이 간단한 인사 교환을 전함으로써 내레이터는 "여호와께서 비록 무대 밖에 계시지만 부르면 들리는 곳에 계시는" 것을 독자에게 상기시킨다(Hubbard, 145).

27. 룻 2:5

1) 원문 문제

וַיֹּאמֶר בֹּעַז לְנַעֲרוֹ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לְמִי הַנַּעֲרָה הַזֹּאת׃ (룻 2:5)

① 여기 **נַעַר**의 뜻은(*NIDOTTE* III: 125 # 5853)? Any young person from infancy to just before marriage? Or servant? Or youth?

② **נַעֲרָה**의 뜻은(*NIDOTTE* III: 125 # 5853)? Maidservant? Or newly married woman? Or young woman?

③ **לְמִי הַנַּעֲרָה הַזֹּאת**와 같이 사람이 주어인 경우는 룻 2:6; 창 32:17[MT 32:18]("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לְמִי אַתָּה)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삼상 30:13("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לְמִי אַתָּ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에만 나오는 구문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בַּת־מִי אַתְּ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고 사울은 아브넬에게 다윗에 대하여 "בֶּן־מִי־זֶה הַנַּעַר 그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누구의 딸이냐고 묻는 대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묻는 이유는?

2) 주석

룻 2:5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① 보아스가 그의 밭에 한 낯선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Block, 655). 그 낯선 여인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보아스는 단지 추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의 길을 갔을 것이다. 보아스는 눈에 띈 낯선 여인에 대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הַנִּצָּב עַל־הַקֹּוצְרִים [하나아르 하니차브 알-하코츠림])에게 묻는다. 여기 "종"으로 번역된 "**נַעַר**[나아르]"는 영어의 boy 처럼[13]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유아기부터 결혼 전까지 다양한 연령 범위에 적용되어 사용된다.[14] 젊은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נַעַר**[나아르]는 윗사람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종/사환/하인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다(창 18:7;

---

[13] *NIDOTTE* III:125, #5853 은 boy 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제시한다.

(gender) It is a *boy*.

(age and size) He is a small *boy*.

(family relationship) He is our *boy*.

(soldiers) Our *boys* are over there fighting.

(companions) I am playing golf with the *boys* at office.

[14] *NIDOTTE* III:125 에 의하면 **נַעַר**[나아르]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삿 13:5, 7, 8, 12)로부터 시작하여 갓 태어난 아이(삼상 4:21), 3 달된 아이(출 2:6),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이(삼상 1:22), 막 젖을 뗀 아이(삼상 1:24), 17 세 소년(창 37:2), 30 세 젊은이(창 41:12)까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נַעַר**[나아르]는 반대어 **זָקֵן**[자켄]과 함께 양극포괄법(merism, permerismos)으로 전체 연령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다(창 19:4; 삿 6:21; 에 3:13; 렘 51:22; 출 10:9; 사 20:4; 렘 2:21).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나아르 **נַעַר**]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1:6)."라고 했지만 여호와는 "너는 **아이**[나아르 **נַעַר**]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1:7)."고 말씀하셨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징조로 줄 아이를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대저 이 **아이**[나아르 **נַעַר**]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바 되리라(사 7:1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나아르 **נַעַר**]에게 끌리며(11:6)." Cf. Kaiser(*Hard Sayings of the Bible*, 232-234)는 개역개정에 "아이"라고 번역된 왕하 2:23 의 **נַעַר**[나아르]가 12 살부터 30 세까지의 청소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려던 이삭(아마도 20 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을 언급할 때(창 22:12) 그리고 요셉이 창 37:2 에 17 세의 소년으로 소개될 때 그리고 아합이 벤하닷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지적하신 각도의 고관들의 청년들 232 명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지적한다. 삼상 16:11-12 에 의하면 이새의 일곱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간 후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들이 네 아들들(הַנְּעָרִים) 전부이냐?"라고 물을 때 이새는 "막내(הַקָּטָן)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아들들"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아르]이고 "막내"가 [카탄]이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고 뒤 이어 곧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고려하면 다윗이 어린애가 아니라 청소년인 것을 알 수 있다. Kaiser 는 왕하 2:23 의 נְעָרִים קְטַנִּים[느아림 크타님]을 "young lads 젊은애들" 혹은 "young men 젊은이들"로 번역하는 제일 좋다고 하였다. 왕하 2:23 의 קָטָן[카탄]에 대하여 개역의 "젊은 (아이들)"을 개역개정에서 "작은 (아이들)"로 고친 것은 개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악으로 보인다.

창 22:3, 5, 19; 민 22:22). 20 명의 종을 둔 시바는 삼하 9:9 에서 사울의 사환(נַעַר שָׁאוּל[나아르 샤울])으로 언급되고 삼하 19:17[MT 18]에서 사울 집의 사환(נַעַר בֵּית שָׁאוּל [나아르 베트 샤울])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왕하 5:20-26 에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נַעַר אֱלִישָׁע [나아르 엘리샤])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נַעַר[나아르]는 아합 시대 각도의 방백들의 종(왕상 20:15, 19)과 앗수르 왕의 신복(왕하 19:6)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블락(655)이 말한 대로 여기에서 원래 젊은이를 나타내는 נַעַר[나아르]가 일반적으로 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עֶבֶד[에베드] 대신 쓰인 것은 이 종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15] 이 종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기 위해** 보아스에 의해 **고용된 젊은 종**이었다.

② נַעַר[나아르]가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종"을 나타낼 수 있듯이 נַעֲרָה[나아라]도 "젊은 여인"뿐만 아니라 "여종"을 의미할 수도 있다.[16] 보아스가 추수를 감독하는 종에게 룻에 대하여 물을 때 사용한 נַעֲרָה[나아라]는 "여종"이 아니라 그의 눈에 띈 낯선 "**젊은 여인**"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허버드가 "נַעֲרָה[나아라]가 '결혼할 수 있는 젊은 여인'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레이터가 의도적으로 룻의 결혼 가능성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에 독자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이끌지 않았겠느냐?"라는 설명은[17] 룻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아스가 눈에 뜨인 젊은 여인 룻을 נַעֲרָה[나아라]로

---

[15] Campbell(93)은 2 장에서 저자가 [나아르]란 어근을 자주 사용한 것을 지적한다. 저자는 감독하는 종을 נַעַר[나아르](2:5, 6)로 부르고, 룻을 נַעֲרָה([나아라] 2:5, 6)로 부르고, 추수하는 남녀 일꾼들이나 남자 일꾼들을 נְעָרִים([느아림] 2:9[2 번], 15, 21)으로 부르고, 추수하는 여자 일꾼들을 נְעָרוֹת([느아로트] 2:8, 23)로 불렀다. 3:2 에서 한번 נְעָרוֹת[느아로트]가 사용된 후 멈추었다가 4:12 에서 다시 한번 장로와 백성의 축복의 말 가운데 룻이 נַעֲרָה[나아라]로 언급된다. Campbell(124)은 3:10 에서 נְעָרִים[느아림]대신 사용된 בַּחוּרִים[바후림]이 젊은이들 중 최고의 젊은이들을 나타내며 그들의 매력을 암시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16] *NIDOTTE* III:126, #5853 에 의하면 נַעֲרָה[나아라]는 NIV 에서 "maids (창 24:61)"; "attendants (출 2:5)"; "girl(s) (신 22:19)"; "servant girls (룻 2:8)"; "young woman (룻 4:12)"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접미대명사를 가진 복수형으로 쓰일 때 항상 "여종, 시녀, 하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예로 창 24:61(그녀[=리브가]의 여종들); 출 2:5(바로의 딸의 ~); 룻 2:8, 22; 3:2(보아스의 ~); 삼상 25:42(아비가일의 ~); 에 2:9; 4:16(에스더의 ~); 잠 9:3(지혜의 ~); 잠 31:15(현숙한 여인의 ~) 등을 들 수 있다. נַעֲרָה[나아라]는 창 24:16; 신 22:23, 28; 삿 21:12; 왕상 1:2; 에 2:2 에서처럼 בְּתוּלָה([브툴라] "처녀")라고 설명되기도 하며 창 24:16; 삿 21:12 에서처럼 더 나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것"이 첨가 설명되기도 한다. נַעֲרָה[나아라]는 소녀(왕하 5:2), 결혼할 만한 젊은 여인(창 24:14, 16; 신 22:15, 16; 왕상 1:3, 4; 에 2:4, 7), 젊은 과부(룻 2:6; 4:12), 첩(삿 19:3, 4),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녀가는—"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와 함께 힘없고 이용만 당하는—젊은 여인(암 2:7) 등에 사용되었다.

[17] Hubbard, 146-147: "Since *naʿarâ* can mean "marriageable young woman," did the narrator thereby intend to induce audience speculation on Boaz's interest in Ruth's marriageability?"

지칭한 것은 삼상 17:55-58 에서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젊은 다윗을 נַעַר[나아르]/עֶלֶם[엘렘]으로 지칭한 것과 비슷하다.

③ 보아스가 종에게 물었던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좀 이상한 질문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것은 기대되는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대신 "저 젊은 여인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고 묻는 질문이고 그녀의 정체성(identity)을 묻는 대신 그녀의 주인(owner)을 묻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가족, 친족, 지파, 민족, 거주 마을 등 어느 것이든 모두 개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밝히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질문을 이상한 질문으로 볼 필요가 없다. 특히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 속하여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하여 남편의 권위 아래 살았다.

④ 여기 2 장 6 절에서처럼 לְמִי[르미](“to whom belong?”)를 사용하여 묻는 질문이 창 32:17[MT 18]과 삼상 30:13 에도 나온다. 창 32:17-18[MT 18-19]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줄 예물을 종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먼저 보내면서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u>네가 누구의 사람이며</u>(לְמִי אַתָּה [르미 아타])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삼상 30:13 에서 다윗은 애굽 사람 하나가 떡을 먹고 정신 차렸을 때 “לְמִי אַתָּה [르미 아타] <u>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u>” “어디로서냐?”라고 물었고 그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윗의 질문에 대한 애굽 소년의 대답은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종의 대답(2:7 그녀는 모압 여자입니다)과 비슷하다(Hubbard, 146).

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질문은 “누구의 아들/딸?”이란 형식의 질문이다. 사울은 아브넬에게 다윗에 대하여 “בֶּן־מִי־זֶה הַנַּעַר [벤-미-제 하나아르] 이 소년이 뉘 아들이냐(삼상 17:55)?”라고 질문하였고, 알지 못하는 아브넬에게 “너는 בֶּן־מִי־זֶה הָעֶלֶם [벤-미-제 하알렘]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삼상 17:56)?” 물어보라고 하였고, 아브넬에 의해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בֶּן־מִי אַתָּה הַנַּעַר [벤-미 아타 하나아르]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삼상 17:58)?”라고 물었다. 사울의 질문을 듣고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בַּת־מִי אַתְּ [바트-미 아트] 네가 누구의 딸이냐(창 24:23)?”라고 질문하였고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창 24:24).”라고 대답하였다.

⑥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보아스는 룻이 낯선 여자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내"라고 묻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보다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낯선 **젊은 여인**일 뿐 보아스의 남녀 젊은 일꾼들 사이에 있을 위치가 없었다. 룻은 집에서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나오미는 룻을 자주 "내 딸"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집 밖으로 나온 세상에서 룻은 가난한 이방인 과부로서 별것 아닌 사람(nobody)이었다. 그러나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라는 보아스의 질문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을 보았었던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무관심과 대조를 이루며] 룻이 최초로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눈에 띄는 존재(spectacle)가 된 것을 알려준다(Block, 655). 보아스가 그의 눈에 띈 낯선 젊은 여인에 대하여 인식하고 누구인가를 종에게 묻는 질문은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을 일으킨다.

⑦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덕망있는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와 모압 여인이요 과부인 룻이 소개를 통하여 만남이 주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룻과 추수 진행 상황을 보러 온 보아스가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히 만남을 주선한 후 자신은 빠져버리는 중매 역할을 하신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고 설명할 길이 없다. 우연처럼 보이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있는 메시아 계보의 보존으로 이어질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28. 룻 2:6

1) 원문 문제

(룻 2:6) וַיַּעַן הַנַּעַר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וַיֹּאמֶר
נַעֲרָה מֹואֲבִיָּה הִיא הַשָּׁבָה עִם־נָעֳמִי מִשְּׂדֵה מֹואָב׃

① 명사문 נַעֲרָה מֹואֲבִיָּה הִיא의 어순은 (　　) + (　　)로 되어 있고 술어가 비한정적이다. 이 절은 종류를 밝히는 절(classifying clause, WHS 579)인가 아니면 정체를 밝히는 절(identifying clause WHS, 578)인가?

② הַשָּׁבָה는 악센트 메르하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관사 다음에 오는 어형은 분사가 아니고 (　　)형 동사이다. 이 동사 앞에 오는 정관사의 역할은(GKC 138i, k)?

2) 주석

룻 2:6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① 룻에 대한 보아스의 질문에 대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은 상당히 긴 대답(6-7 절)을 한다. **종**의 긴 대답은 3 절과 4 절 사이에 있었던 일을 독자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룻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룻에 대하여 그 종은 먼저 "**그녀는 모압 여자**"라고 대답하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이렇게 그 종은 보아스에게 룻의 이름을 주지 않고 룻 자신의 민족 그리고 다른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유래된 정체성을 말했다. "**그녀는 모압 여자입니다.**"라는 대답은 어순이 술어(נַעֲרָה מֹואֲבִיָּה [나아라 모아비야] **모압 여자**) +

주어(**הִיא**[히] **그녀는**)로 된 명사문이고 술어가 비한정적(a Moabite young woman)이므로 종류를 밝히는 절(classifying clause, WHS 579)이다.[18] 내레이터가 2:2 와 2:22 에 룻을 모압 여인 룻으로 묘사한 것처럼 종의 입을 통해 룻이 "모압 여자"라고 한 것 역시 룻이 이방 여인이고 이삭을 줍는 일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성을 암시해 준다(Hubbard, 147).

② "**나오미와 함께 모압땅에서 돌아온 여자** הַשָּׁבָה עִם־נָעֳמִי מִשְּׂדֵה מֹואָב [하샤바 임-노오미 미스데 모아브]"라는 부연 설명 부분은 룻에 대한 1:22 의 설명과 거의 비슷하며 여기 הַשָּׁבָה[하샤바]는 1:22 처럼 동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형이다. הַשָּׁבָה[하샤바]의 전종음절에 악센트 메르하가 붙어 있는 것은 [샤바]가 분사가 아니고 정형동사 즉 완료형 동사인 것을준다. 1:22 에서처럼 이 완료 동사 앞에 오는 정관사([하])는 관계 대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who, the one who, GKC 138i, k), 한정성을 상실한다. 1:22 과 거의 비슷한 이 부연 설명 부분은 1 장과 2 장의 사건들을 문학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Hubbard, 147).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그녀의 민족 정체성 이외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돌아옴과 관련지어 잘 알려져 있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인 이스라엘 사람의 입을 통하여 룻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자**로 언급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룻이 돌아왔다. 그러나 룻의 돌아옴이 어떤 의미의 돌아옴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29. 룻 2:7

1) 원문 문제

(룻 2:7) וַתֹּאמֶר אֲלַקֶּטָה־נָּא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וֹצְרִים
וַתָּבוֹא וַתַּעֲמֹוד מֵאָז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① אֲלַקֶּטָה־נָּא וְאָסַפְתִּי는 청유형과 바브 계속법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וְאָסַפְתִּי가 바브 계속법인 것을 알려 주는 것은? 이것이 두 개의 청유형으로 된 2:2 의 אֵלְכָה־נָּא הַשָּׂדֶה וַאֲלַקֶּטָה와 다른 점은(Lambdin, 118-19; WHS 187, 518)?

---

[18] 이 문은 삼상 30:13 의 נַעַר מִצְרִי אָנֹכִי "I am a young man of Egypt/a young Egyptian."와 구조가 비슷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명사문이 정체를 밝히는 절(identifying clause WHS, 578)일 때 주어와 술어가 한정적이어야 하고 주어+술어의 어순을 가져야 한다. 추수를 감독하는 종은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Sasson(38)처럼 "She is the Moabite young woman who . . ."라고 번역할 수 없다. Sasson 의 번역은 술어를 한정적으로 보면서 정체를 밝히는 절로 해석한 것으로 어순과 한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Sasson 의 번역처럼 정체를 밝히는 절이 되려면 נַעֲרָה מֹואֲבִיָּה הִיא [나아라 모아비야 히]가 아니라 הִיא הַנַּעֲרָה הַמֹּואֲבִיָּה [히 하나아라 하모아비야]라고 원문에 쓰여 있어야 한다.

② וְאָסַפְתִּי בָעֳמָרִים의 의미는? gather among sheaves(Hubbard)? gather into bundles(Bush)? 점심 식사 후에 보아스가 종에게 내린 명령 중에 나오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2:15 에 나오는 גַּם בֵּין הָעֳמָרִים תְּלַקֵּט (glean among sheaves)와 같은가?

③ 추수의 과정(Bush, 114)은? 이삭줍기는 언제 허락되는가?

④ וַתַּעֲמֹוד의 의미는? "그녀는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עמד가 신 5:31; 왕하 15:20 에서 שׁוּב(돌아가다)의 반대말; 출 9:28 에서 שׁלח(보내다)의 반대말로 나오는 것을 참고하라.}

⑤ מֵאָז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2) 주석

룻 2:7 그녀가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머물[며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① 보아스의 종은 보아스에게 룻의 출신 민족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밝힌 후 룻이 밭에 이르러 자신에게 한 말을 보고한다. 앞에서 내레이터는 룻이 우연히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된 밭이 뜻밖에도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진술하고(3 절) 곧바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내레이터가 3 절과 4 절 사이에 룻과 종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전달하지 않고 정보를 보류한 것은 3 절과 4 절이 바로 연결되어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문예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Hubbard, 147). 일어난 순서와 다르게 배열하여 이전에 일어난 것을 나중에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레이터가 연대기 저자가 아니며, 청중에게 그가 그들로 알게 하고 싶은 것만을 그리고 그들로 그것을 알게 하고 싶을 때에만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rlin, 96). 이제 내레이터는 종을 통하여 그 이전의 룻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3 절과 4 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의 관점을 통하여 그 종의 룻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② 룻 2:7 은 해석상 논쟁이 많고 본문비평상 마지막 네 단어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בָעֳמָרִים[보오마림]과 וַתָּבוֹא וַתַּעֲמֹוד [바타보 바타아모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각각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제시되며 세 그룹으로 나누인다.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 그룹 1

  개역개정: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u>단 사이에서</u>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u>계속하는</u> 중이니이다

  공동번역: 일꾼들이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u>뒤따르며</u> 줍게 해 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u>앉지도 않고</u>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다가 지금 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말성경: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이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쉬운성경: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NIV: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harvesters." She went into the field and has worked steadily from morning til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

NJPS: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reapers.' She has been on foot [working] ever since she came this morning. She has rested but little in the hut.

- 그룹 2

새번역: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Hubbard: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grain among the sheaves following the reapers." She came and has stood here waiting from early this morning until now. *This field has been her residence; the house has meant little to her.*

Sasson: She requested permission to glean, and to gather grain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reapers. She arrived and has been waiting from daybreak until now; thus, she must have spent little time at home.

Block: "And she said, 'I would like to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harvesters.' Now she has come, and she has stood from then . . . the morning . . . until now. This . . . her sitting . . . the house . . . a little."

- 그룹 3

NAB: She asked leave to gather the gleanings into sheaves after the harvesters; and ever since she came this morning she has remained here until now, with scarcely a moment's rest.

Bush: She asked, "May I glean stalks of grain and gather them in bundles behind the reapers?" So she came and remained here. From morning until just now she has stopped only a moment.

③ 먼저 룻이 종에게 말했던 בָּעֳמָרִים[보오마림]이 나오는 절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אֲלַקֶּטָה־נָּא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וֹצְרִים [알라코타-나 브아싸프티 보오마림(/?바오마림) 아하레 하코츠림] "**제가 추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이 절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청유형(אֲלַקֶּטָה־נָּא[알라코타-나])으로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바브 계속법 완료(וְאָסַפְתִּי[브아싸프티])로서 첫 번째 동사와 같은 청유형의 효력(force)을 갖고서 시간적으로 첫 번째 동작에 연속되는 동작을 묘사한다. 이 절의 첫 번째 부분이 갖는 "제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 가운데 바브 계속법 완료동사(וְאָסַפְתִּי[브아싸프티]) 뒤에 나오는 전명구 בָעֳמָרִים [보오마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④ 문제되는 전명구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추수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19] 추수는 먼저 베는 자(קֹצֵר[코체르])들이 한 손으로 서 있는 곡식(קָמָה[카마])을 잡고(시 129:7 상) 다른 손에 있는 낫으로 벤다(렘 50:16; 사 17:5). 이 한 다발의 베어진 곡식 즉 대가 붙어 있는 곡식(שִׁבֳּלִים[시볼림])은 베는 자 뒤로 놓여진다. 베는 자들의 뒤를 따르며 묶는 자(מְעַמֵּר[므아메르])들은 베어진 여러 다발의 곡식을 두 팔에 가득 차는 묶음(עֳמָרִים[오마림])들로 모은다. 이 모아진 묶음들은 단들(אֲלֻמִּים[알루밈] 혹은 אֲלֻמּוֹת[알루모트] 창 37:7; 시 126:6)로 묶여진다.[20] 밭에서 묶여진 단들은 타작 마당으로 옮겨진다(신 24:19). 일반적으로 이삭줍기가

---

[19] Bush, 114: "In OT times, grain was reaped as follows: The reaper (קֹצֵר) grasped a handful of standing grain (קָמָה) with one hand (Ps 129:7a) and cut it with a sickle (Jer 50:16) held in the other (Isa 17:5). This handful of cut grain (שִׁבֳּלִים the ears with attached stubs of stalk) was laid on the ground behind him. These "handfuls" were in turn gathered into "bundles" (עֳמָרִים) by the "bundlers (מְעַמֵּר) who fills his arms"(Ps 129:7b). These "bundles" were probably then bound into sheaves (אֲלֻמִּים or אֲלֻמּוֹת Gen 37:7; Ps 126:6), although it is also possible that "bundles" (עמרים) and "sheaves" (אלמים) are synonymous. The ordinary privilege of gleaning required that the gleaners work only in that part of the field in which the work of harvesting described above had been completed and the sheaves removed to the threshing floor (Deut 24:19). Most probably, this is what is implied by the expression "to glean behind (someone)," used by Ruth in v 2 and by the narrator in the summary statement of v 3, and by the expression "follow behind the women workers,' used by Boaz in his instruction to Ruth in v 9."

[20] 어떤 경우 묶음(עֳמָרִים[오마림])이나 단(אֲלֻמִּים[알루밈] 혹은 אֲלֻמּוֹת[알루모트])이나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허락되는 것은 이러한 추수과정이 다 끝나고 단들이 타작 마당으로 옮겨진 이후에 가능하다. 이것이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다는 의미이다.

⑤ 룻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한 말 가운데 나오는 עֳמָרִים[오마림]은 묶음 혹은 단을 의미한다. 이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בְּ[브]가 "among 사이에서"라는 의미라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단 사이에서"라는 의미가 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 첫째로, 위의 추수 과정에서 설명한 대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이방 여인인 룻이 낯선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허락되는 것을 넘어선 부탁을 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쉽게 납득할 수 없다.
- 둘째로, "단 사이에서 among sheaves" 이삭을 줍는 것과 추수하는 과정이 끝난 후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behind reapers" 이삭을 줍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된다.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2 장에서 4 번 나온다. 룻은 "누가 호의를 베풀면 그의 뒤를 따라서(2 절)"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나오미에게 말했다. 내레이터는 요약 진술에서 룻이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3 절)" 이삭을 주웠다고 말했다.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7 절)"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보아스는 점심 식사 전에 룻에게 추수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라서(9 절)"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다. 보아스는 점심 식사 후에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감 벤 하오마림] גַּם בֵּין הָעֳמָרִים)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15 절)"고 명령하였다. 2:7 의 בָּעֳמָרִים[보오마림]을 "단 사이에서"라고 해석한다면 종은 단 사이에서 줍는 것을 이미 허락한 반면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 전에는 추수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고 점심 후에야 룻에게 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게 된다.

⑥ 부시(117)는 בָּעֳמָרִים[보오마림]이 "단 사이에서"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하나씩 평가하고 이 전명구를 "in bundles 단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1)어떤 학자(Barthelemy et al.,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2:138)는 "모으다"라는 동사 אָסַף[아싸프]와 전치사 בְּ[브]가 결합되어 동사구를 이루며 명사 עֳמָרִים[오마림]을 목적어로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구약에서 약 80 번 나오는 אָסַף[아싸프]는 자주 추수와 관련하여 사용되고(창 6:21; 출 23:16; 레 23:39; 신 11:14; 16:13; 사 17:5 등) "씨뿌리다 זָרַע[제라]"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출 23:10; 레 25:3, 20; cf. 신 28:38; 욥 39:12). 그러나 אָסַף[아싸프]가 한번도 전치사 בְּ[브]가 지배하는 명사를 목적어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בָּעֳמָרִים[보오마림]이 동사

אָסַף[아싸프]의 목적어로 쓰여 "단을 모으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동사 אָסַף[아싸프]와 전치사 בְּ[브]가 결합되어 명사 עֳמָרִים[오마림]을 목적어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

⑵어떤 학자들(Gerleman, Witzenrath, Dalman)은 시리아어역과 벌게이트역에 근거하여 쉬운 독법을 택하고 וְאָסַפְתִּי בָעֳמָרִים [브아싸프티 보오마림]을 생략해 버렸다. JB 나 TEV 의 "She asked me to let her follow the workers and gather grain."도 이 어구를 생략한 것이다. 맛소라 본문이 더 어려운 본문이지만 굳이 생략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⑶어떤 학자들(Joüon, Rudolph, Haller)은 단을 의미하는 עֳמָרִים[오마림]을 잘려진 대가 있는 곡식(stalks of grain, cut grain)을 의미하는 עֲמִרִים[아미림](=עֲמִיר[아미르]의 불완전 철자법으로 쓰인 복수)으로 고쳤다. עֲמִיר[아미르]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다른 곳(암 2:13; 렘 9:21; 미 4:12; 슥 12:6)에서 집합 단수 명사 עֲמִיר[아미르]가 그대로 복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복수어미가 붙어 있는 것도 유일한 예가 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עֲמִרִים[아미림]으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전치사 בְּ[브]에 대한 문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둔 것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בְּ[브]를 참여(participative)의 의미로 보는 것(Zenger)도 2 절에서처럼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⑷어떤 학자들은 동사 אָסַפְתִּי[아싸프티]를 여성 분사 복수형 אֹסְפוֹת[오스포트] "단을 모으는 여자들"로 고친 후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라는 어구 뒤에 놓거나(Hertzberg, Würthwein),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라는 어구를 주(gloss)로 보고 생략해 버렸다(Gray). 이럴 경우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אֹסְפוֹת עֳמָרִים [오스포트 오마림]에는 전치사 בְּ[브]가 생략되어야 하고 이 어구를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의 뒤로 옮겨 동격이 되게 하든지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란 어구 자체를 없애야 한다.[22]

⑸부시(117)는 룻기에 사용된 "이삭 줍다 לִקֵּט[리케트]"라는 동사의 용법에서 해결의 단서를 찾았다.

ⓐ동사 לִקֵּט[리케트]는 룻기를 제외한 다른 책에서 10 번 사용되었고 주워 모으는 대상이 항상 명시되어 있다. 목적어를 취하고 "to gather, pick up, 모으다, 줍다"라는 의미로 7 번 쓰인[23] 반면 "to glean, 이삭을 줍다"라는 의미로 세 번 쓰였고 세 번 모두 직접목적어를 갖고 있다.[24]

ⓑ그러나 룻기 2 장에서 동사 לִקֵּט[리케트]가 12 번 사용되었고 모두 "to glean, 이삭을 줍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11 번(3, 7, 8, 15[2 번], 16, 17[2 번], 18, 19, 23 절)의 경우 직접 목적어 "이삭

---

[22] de Waard and Nida, 88, n. 17 을 참고하라.

[23] 레 19:10; 삼상 20:38; 렘 7:18; 삿 1:7; 왕하 4:38 [2 번]; 창 47:14

[24] 레 19:9=23:22 목적어= 떨어진 이삭 לֶקֶט; 사 17:5 목적어= 이삭 שִׁבֳּלִים

שִׁבֳּלִים[시볼림]"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삭을 줍는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란 목적어를 생략하여도 문맥적으로 이삭이 목적어인 것은 자명해진다. 사 17:5 처럼 לֵקֶט[리케트]가 쓰일 때마다 11 번 모두 직접 목적어 "이삭"을 명시했다고 가정해 보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문맥적으로 이해되는 목적어 "이삭"을 생략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다만 2:2 에서 동사 לֵקֶט[리케트] 다음에 단 한 번만 전치사+명사로 된 בַּשִּׁבֳּלִים[바시볼림]이 나온다. 이것은 사 17:5 처럼 동사(לֵקֶט[리케트])가 목적어(שִׁבֳּלִים[시볼림])를 바로 취하지 않고 동사와 전치사가 동사구(לֵקֶט בְּ [리케트 브])를 이루어 목적어(שִׁבֳּלִים[시볼림])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 לֵקֶט[리케트] 다음에 בַּשִּׁבֳּלִים[바시볼림]이 나오는 2 절을 제외하고 "이삭"이란 목적어가 암시될 뿐 명시되지 않았다면 7 절의 청유형 אֲלַקֶּטָה[알라코타](줍다) 다음에도 "이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암시된 목적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유형 다음에 연속된 동작을 묘사하는 וְאָסַפְתִּי[브아싸프티](모으다)의 목적어도 첫 번째 동사의 암시된 목적어 "이삭"으로 볼 수가 있다. 문맥상 이해되므로 첫 번째 동사 אֲלַקֶּטָה[알라코타](줍다) 다음에 "이삭"이란 목적어가 생략된 것처럼 두 번째 동사 וְאָסַפְתִּי[브아싸프티](모으다) 다음에도 역시 암시된 목적어 "이삭"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וְאָסַפְתִּי[브아싸프티](모으다)의 암시되는/이해되는 목적어가 "이삭 שִׁבֳּלִים[시볼림]"이라면 전치사+명사로 된 전명구 בָּעֳמָרִים[보오마림]을 "among sheaves 단 사이에서"가 아니라 "in bundles 단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25] 그렇다면 전치사 בְּ[브]는 장소의 בְּ[브](locative)가 아니라 방식(manner) 혹은 상태나 조건을 표현하는 기준(WHS 252, norm, expressing a state or condition)의 בְּ[브]가 된다.

ⓕNAB 는 "She asked leave to gather the gleanings into sheaves after the harvesters"로 번역하였다.

⑹이상의 논의대로 동사 אֲלַקֶּטָה[알라코다](줍다)와 וְאָסַפְתִּי[브아싸프티](모으다)의 암시된 목적어를 שִׁבֳּלִים[시볼림](이삭)으로 보고 בָּעֳמָרִים[보오마림]의 בְּ[브]가 상태나 조건을 표현하는 전치사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룻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부탁한 말은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번역이 된다.

⑦그러나 בָּעֳמָרִים[보오마림]이 "단 사이에서"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새슨과 허버드는 그들의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해 뒤에 나오는 동사들(וְתָבוֹא וְתַעֲמוֹד [바타보 바타아모드])을 종이 허락했기에 "여기에 와서 머물며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지 않고 종이 허락할 수 있는

[25] Block(656)은 이 경우 עֳמָרִים은 16 절에 나오는 צְבָתִים "handfuls"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권위 밖의 일이므로 종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여기에 와서" 단 사이에서 줍는 것을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며 서 있었다*."라고 해석한다. 두 동사 וַתָּבוֹא וַתַּעֲמֹד [바타보 바타아모드]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라고 번역한 새슨과 허버드의 해석을 이제 평가해 보기로 한다.

⑴먼저 새슨의 해석을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새슨(38)은 2 장 7 절을 "She requested permission to glean, and to gather grain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reapers. She arrived and *has been waiting* from daybreak until now; thus, she must have spent little time at home."라고 번역하였다. 새슨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사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룻이 호의를 베풀 사람으로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2 절) 나오미에게 말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3 절) 종이 허락할 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부탁을 함으로써(7 절) 보아스를 만날 구실을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룻과 대화를 나눈 후(8-13 절) 보아스는 일반적인 이삭줍기만을 허락했다. 그러나 오전의 나머지 시간과 점심시간에 룻의 요구를 숙고한 후 보아스는 오후에 단 사이에서(15 절) 줍는 것을 허락했다." 부시(115-116)는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새슨의 설명이 일관된 해석이 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2 장 2 절 주석 부분에서 밝힌 대로 2 절의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 보아스가 암시되었다면 19-20 절의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하여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놀라워하는 나오미의 반응과 룻에게 보아스가 친척이고 기업 무를 자인 것을 알리는 정보와 상반되므로 호의 베풀 사람으로 보아스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 와서 본토 가난한 자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장 3 절에 나오는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웠다."라는 요약 진술은 4 절에 보아스의 도착에 대하여 독자에게 말할 때 이미 룻의 이삭 줍는 일이 진행 중인 것을 암시하여 준다. 새슨(44)은 3 절을 설명할 때 "룻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였다"라고 한 것이 7 절을 설명할 때 "룻이 보아스와 만나 이야기할 때까지 이삭을 줍지 않았다"라는 설명과 맞지 않음을 느끼고 3 절을 "She proceeded to begin gleaning in the field behind the reapers."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도 히브리어 원문과 어울리지 않으며 새슨의 주장대로 룻이 훨씬 나중에까지 이삭줍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새슨(49-50)의 말대로 보아스가 2 장 8-9 절에서 룻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이삭줍기만을 허락했다면 10 절에서 룻이 보인 반응은 그의 설명(51)대로 조그만 호의에 너무 과장된 반응이다. 일반적인 이삭줍기를 넘어서는 요청을 받고 단지 일반적인 이삭줍기만을 허락했다면 룻이 보였던 반응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아스와의 대화 후에 룻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삭줍기를 했다면 내레이터가 여기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을 것인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2 장 8-13 절의 오전 대화로부터 갑자기 14 절의 점심식사 초대로 전환되는 것은 그 중간에 룻의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암시한다.

ⓔ2 장 15 절의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하라"는 보아스의 말은 일꾼들에게 내린 명령이지 룻에게 한 말이 아니며 그것도 룻이 일어나 이삭줍기를 재개한 후에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심사숙고한 후 일꾼에게 명령을 내릴 때 룻이 엿듣고 그 때에 자신이 요청한 것이 허락된 것을 알게 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묘사하는 룻기의 이야기 서술 방식과 상반된다.

⑵다음으로 허버드의 해석을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허버드(142)는 2 장 7 절을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grain *among the sheaves* following the reapers.' She came and *has stood here waiting* from early morning until now. This field has been her residence; the house has meant little to her."라고 번역하였다. 허버드도 새슨처럼 룻이 종에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으나 종이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서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밭의 주인이 와서 그 요청을 허락해 줄 때까지 룻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허버드(138-139, n. 13)는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갔고(2:2) 밭에서 룻이 의도적으로 종에게 그의 권한 밖의 일을 요청함으로써(2:7) 보아스를 만나려고 했다."고 설명하는 새슨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허버드(154, 176)는 새슨과는 달리 8-9 절에서 이미 보아스가 "단 사이에서" 줍는 것을 허락했다고 설명하고, 점심(14 절) 후에 "룻이 이삭 주우러 일어났다(15 절)"라는 진술은 룻이 이삭줍기를 시작한 것을 나타내며(175),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이 "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라(15 절)"고 한 명령은 점심 전에 룻에게 허락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허버드의 설명은 7-16 절이 하나의 길고 연속된 사건으로 본 것이다. 즉 룻의 요청이 보고되고(7 절), 보아스가 그 요청을 허락하고(8-9 절), 룻이 놀라며 감사하며 보아스와 대화하고(10-13), 점심 식사가 이루어지고(14 절), 룻이 이삭줍기를 시작하고(15 절 상), 보아스의 허락이 구체화되고(15 절 하)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16 절) 종들에 대한 지시가 주어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허버드의 해석에 대하여 부시(115-116)가 지적한 문제점들과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 장 7-16 절이 하나의 긴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14 절의 "[점심] 먹을 때가 되어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라는 절은 8-13 절의 대화와 14 절에 일어날 일 사이에 일정한 길이의 시간이 흘렀음을 전제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허버드(171 n. 2, 172) 자신도 보아스와 룻이 오전 중간쯤에 만났고 정오에 점심을 함께 하였을 것이고,

13 절과 새롭고 짧은 장면을 인도하는 14 절 사이에 길이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화를 나눈 시간과 점심시간 사이에 룻이 왜 이삭을 줍지 않고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리로 와서 음식을 먹으시오(14 절)."라는 보아스의 첫 말은 룻이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2 장 8-9 절의 보아스의 말은 "단 사이에서 줍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보아스가 한 말은 룻이 그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부탁의 말이며 허버드(154)의 표현대로 "그가 정식으로 룻에게 그의 밭에 있을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하다.

ⓒ2 장 8-9 절의 보아스의 말이 룻의 요청을 허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허버드(161)의 표현대로의 "놀라고(surprised)" "감격하는(astonished)" 룻의 극적인 반응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을 먹어도 좋다는 배려에 대한 반응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부시가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사항을 더 지적하면, 룻이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밭으로 가서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그 밭에서만 밭주인이 와서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며 서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3)이러한 문제점들은 בָּעֳמָרִים[보오마림]을 "단 사이에서"로 해석하고 וַתָּבוֹא וַתַּעֲמוֹד [바타보 바타아모드]를 "그녀가 와서 이삭을 줍지 않고 기다리며 서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새슨과 허버드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열거한 부시의 번역(She asked, "May I glean stalks of grain and gather them <u>in bundles</u> behind the reapers?")과 NAB 의 번역(She asked leave to gather the gleanings <u>into sheaves</u> after the harvesters)에 반영된 것처럼 동사 אֲלַקֶּטָה[알라코타]와 וְאָסַפְתִּי[브아싸프티] 뒤에 문맥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목적어 "이삭 שִׁבֳּלִים[시볼림]"이 생략이 되고 בָּעֳמָרִים[보오마림]의 בְּ[브]가 상태나 조건을 표현하는 전치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⑧부시의 해석대로 וַתָּבוֹא וַתַּעֲמוֹד [바타보 바타아모드]는 "그녀가 와서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녀가 [여기에] **와서 머물게 된**" 것을 나타낸다. 동사 עָמַד[아마드]는 "to remain, to stay 머물다, 남다"의 의미로 신 5:30-31 과 왕하 15:20 에서 "שׁוּב[슈브] to return 돌아가다"의 반의어로 쓰였고 출 9:28 에서 "שָׁלַח[샬라흐] to send away 보내다"의 반의어로 쓰였다.[26] 여기에서 추수 감독하는 종이 "머물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그가 룻을 다른 밭으로

[26] Cf. BDB, 764 쪽 3.b.

가라고 내보내지 않았으며 룻이 다른 밭으로 돌아가거나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Block, 657). Rudolph(46)가 וַתַּעֲמֹד[바타아모드]의 마지막 자음(달렛)을 레시로 고쳐 וַתַּעֲמֹר[바타아모르](“she gleaned stalks. 그녀가 곡식의 대를 주웠다”)로 읽을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부시(118)는 동사 עָמַר[아마르]가 다른 곳에서 이런 의미로 쓰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고쳐 읽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추수를 감독하는 종이 보아스에게 “וַתָּבוֹא וַתַּעֲמֹד [바타보 바타아모드]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말은 종이 룻에게 주었던 암시된 허락에 따라 그녀가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⑨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종이 보아스에게 보고한 말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방 여인 룻이 밭으로 와서 추수 감독하는 종에게 먼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종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으며 룻은 보아스가 올 때까지 계속 **그의 밭에 머물며** 이삭을 줍고 있었다.

⑩ 맛소라 본문 וַתָּבוֹא וַתַּעֲמֹד מֵאָז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바타보 바타아모드 메아즈 하보케르 브아드-아타]의 악센트 체계에 유의하면 동사 וַתַּעֲמֹד [바타아모드](**머물게 되었다**)에 르비아란 악센트가 붙어 있고 전명구 וְעַד־עַתָּה [브아드-아타]의 끝에 자켑 카톤이란 악센트가 붙어 있다.[27]

[신 5:30-31] (30)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שׁוּבוּ) 이르고 (31)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머물라 עֲמֹד)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왕하 15:20] 그 은을[=므나헴이 은 일천 달란트를]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앗수르 왕[=불]이 돌이키고(וַיָּשָׁב) 그 땅에 머물지(עָמַד) 아니하였더라

[출 9:28]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보내리니(וַאֲשַׁלְּחָה)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וְלֹא תֹסִפוּן לַעֲמֹד)

[27] 분리 악센트의 휴식의 크기의 순서는 씰룩(ֽ) > 아트나흐(֑) > 쓰골타(֒) > 자켑(֔ / ֕) > 르비아(֥)이다. 자켑 카톤(֔)은 씰룩과 아트나흐 사이, 아트나흐와 쓰골타 사이, 그리고 아트나흐와 절초 사이에, 즉 2 분(二分)된 절 사이 혹은 3 분(三分)된 절 사이의 휴식을 표시하고 르비아(֥)는 자켑 카톤 앞의 휴식을 나타낸다. 창 1:2 에서 나오는 분리 악센트는 다음과 같다.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פְּנֵ֖י תְהֹ֑ום
[브하아레츠] 르비아	[바보후] 자켑카톤	[트홈] 아트나흐
	וְרוּחַ אֱלֹהִ֣ים	מְרַחֶ֔פֶת עַל־פְּנֵ֥י הַמָּֽיִם׃
	[엘로힘] 자켑카톤	[하마임] 씰룩

(1)이 전명구의 첫 단어 מֵאָז[메아즈]는 원래 "from then 그 때부터"라는 의미이지만 출 4:10 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어구 다음에 접미대명사를 가진 부정사 의존형이 와서 "from the time of [your speaking to your servant]"란 의미로 쓰인 것에 비추어 מֵאָז הַבֹּקֶר[메아즈 하보케르]는 "from the time of the morning = since the morning 아침부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루돌프(46)가 מֵאָז[메아즈]를 מֵאֹר[메오르]("from the light of")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는데 굳이 그렇게 고칠 필요가 없다(Bush, 118). 캠벨(95)은 "그 때부터"와 "아침부터"라는 두 개의 초기 교정본이 있었는데 이것이 맛소라 본문에서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 4:10 에서처럼 מֵאָז[메아즈]가 "from the time of, since -로부터"란 의미로 전치사 מִן[민]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캠벨의 이러한 혼합의 과정에 대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

(2)그리고 칠십인역은 "지금"이라는 뜻의 עַתָּה[아타]를 "저녁"이라는 עֶרֶב[에레브]로 보고 ἑσπέρας[헤스페라스]라고 번역하였으나 14 절의 점심시간 언급과 17 절의 저녁까지 이삭 주운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Bush, 118).

(3)맛소라 본문의 악센트들은 이 전명구들(מֵאָז הַבֹּקֶר וְעַד־עַתָּה)이 앞에 나오는 동사와 함께 가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 그렇게 번역하였다.

[KJV] so she came, and hath continued <u>even from the morning until now</u>, that she tarried a little in the house.

[NIV] She went into the field and has worked steadily <u>from morning till now</u>,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

[NASB] Thus she came and has remained <u>from the morning until now</u>; she has been sitting in the house for a little while.

[NRSV] So she came, and she has been on her feet <u>from early this morning until now</u>, without resting even for a moment.

[ESV] So she came, and she has continued <u>from early morning until now</u>, except for a short rest.

[NAB] and <u>ever since</u> she came <u>this morning</u> she has remained here <u>until now</u>, with scarcely a moment's rest.

[TEV] She has been working <u>from early morning until now</u>, when she stopped to rest for a while under the shelter.

(4)그러나 드 바르트와 니다(30)는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 체계가 이 어구로 앞에 오는 절이 아니라 뒤에 오는 절과 함께 가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So she came and remained here. <u>From daybreak until now</u> she has hardly rested a moment."로 번역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문맥은 룻이 머문 것에 강조를 두지 않고 룻이 아침부터 보아스와 종이 대화를 나누게 된 때까지 이삭을 주운 것에 강조를 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시(118)도 이 어구가 앞의 절과 함께 가는지 아니면 뒤의 절과 함께 가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룻이 밭에 머문 것보다 쉬지 않고 이삭을 주운 사실에 강조가 있기 때문에 이 어구를 뒤의 절과 함께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So she came and has remained here. From morning until just now she stopped only a moment."로 번역하였다.

⑸드 바르트와 니다 그리고 부시가 룻이 계속 이삭을 주운 사실을 종이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종의 말의 행간을 읽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וַתַּעֲמֹוד [바타아모드] 머물다"라는 동사가 들어 있는 앞 절에 "아침부터 지금까지"라는 전명구를 붙여도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이 밭에) 머물며 계속 이삭을 주웠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지금까지"라는 전명구가 반드시 "쉬다"와 관련 있는 단어(שִׁבְתָּהּ[시브타흐])가 들어 있는 뒤의 절과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드 바르트와 니다가 지적한 것과는 달리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 체계는 르비아가 붙은 "머물다(וַתַּעֲמֹוד [바타아모드])"보다 자켑카톤이 붙은 "아침부터 지금까지(מֵאָז הַבֹּקֶר וְעַד־עַתָּה [메아즈 하보케르 브아드-아타])"에서 더 큰 휴지를 의도했기 때문에 이 전명구가 뒤의 절이 아니라 앞의 절과 함께 가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⑹본 주석의 번역은 이 어구를 앞의 절에 붙여 번역하고 룻이 계속 이삭을 주운 것을 [ ]에 넣어 행간의 의미로 삽입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와서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머물[며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의 말은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바로 지금(이때)까지 그녀는 계속 이삭을 주웠습니다. 그녀는 (저 오두막에서)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⑪룻기에서 2:7 의 마지막 네 단어(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제 시브타흐 하바이트 므아트])는 본문 비평상 가장 어렵고 유일하게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본문이다(Hubbard, 2).

- 칠십인역은 이 부분을 οὐ κατέπαυσεν ἐν τῷ ἀγρῷ [우 카테파우쎈 엔 토 아그로]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은 히브리어로 옮기면 לֹא שָׁבְתָה בַשָּׂדֶה [로 샤브타 바싸데]가 되며 "그녀가 그 밭에서 쉬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는다(Block, 657).
- 주전 2-3 세기의 칠십인역의 대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히브리어 사본의 לֹא שָׁבְתָה בַשָּׂדֶה [로 샤브타 바싸데]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주후 11 세기의 맛소라 본문의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제 시브타흐 하바이트 므아트]로 발전되었을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두 본문의 중간에 오는 단어는 자음만 보면 שׁבתה[신-베트-타브-헤]로 똑같다. 그러나 어떻게 לֹא[로]가 זֶה[제]로 바뀌고 בַשָּׂדֶה[바싸데]가 הַבַּיִת[하바이트]로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Brotzman, 144). 다시 말하면 칠십인역의 대본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독법이 지금

맛소라 본문에 나타나 있는 독법으로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일 적절한 원리를 찾을 수가 없다.

⑫ 그렇다면 현재의 맛소라 본문(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제 시브타흐 하바이트 므아트])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은 가능한가? 이를 직역하면 "이것, 그녀의 앉음/거주함/쉼, 그 집, 조금; This[masc.] her-sitting/dwelling/resting the-house (a)-little."이다.

⑴후르비츠(Hurvitz, "Ruth 2:7—'A Midrashic Gloss'?" *ZAW* 95 [1983]: 121-23)는 맛소라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Her stay in the house was very brief"란 의미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종이 "보아스의 일꾼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house(거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룻에게 허락한 것"에 대하여 주인 보아스가 승인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변명하며 혼란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후르비츠의 번역은 둘째 단어 שִׁבְתָּהּ[시브타흐]의 어근을 יָשַׁב([야샤브] to dwell, to sit)로 본 것이다. 그렇지만 שִׁבְתָּהּ[시브타흐]의 어근을 שָׁבַת([샤바트] to rest, to cease)로도 볼 수 있다. 밭 가운데 오두막(hut, shelter, cabin)같은 거처가 있었다면 14 절 점심 식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나옴직한데 언급이 전혀 없고 구약 성경에 그러한 오두막이 있었다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Bush, 119).

⑵허버드(149-150)는 [룻이 일반적으로 허락되는 이삭 줍는 일을 종에게 부탁하여 종으로부터 허락받은 후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웠다는 전통적인 이해 대신에] 나오미와 자신의 양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용기와 결단력을 보이며 보통 허락되지 않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 달라고 종에게 부탁했으나 이것이 종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허락되지 않았을 때 룻이 밭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며 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단어 זֶה[제]가 남성 대명사인 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의 선행 명사를 2:3 의 "밭"으로 보고 둘째 단어 שִׁבְתָּהּ[시브타흐]의 어근을 יָשַׁב([야샤브] to dwell, to sit)로 보며 마지막 네 단어를 두 개의 독립된 문으로 보고 "this (field) is her residence; the house little."로 번역한 리스(Lys, *VT* [1971]: 497-501)를 따르며 허버드(151)는 "(She came and has stood here waiting from early this morning until now.) This field has been her residence; the house has meant little to her. 이 밭은 그녀의 거처였고 거처이다; (성읍에 있는) 그 집은 그녀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번역했다.

⑶블락(658, n. 39)에 의하면, 로우더(J. A. Loader, *Journal for Semitics* 4 [1992]: 151-59)는 이 네 단어를 두 개의 명사문으로 보고 두 명사문의 주어를 모두 זֶה[제]로 보며 "This is where she stays; this is her home in a sense. 이 곳이 그녀가 머무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곳이 그녀의 집입니다."라고 번역하였다.

⑷캠벨(94-96)은 2:7 가운데 첫 3 단어만 번역하고 나머지 14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다: "She asked, 'May I glean [ ]?'" 그리고 MT 의 문자적 번역과 루돌프의 번역을 대조하며 본문비평상의 문제를 해설하였다.

MT: "She said, 'And I shall gather (or: let me gather) among the sheaves after the reapers.' So she came and stood from then the morning and until now; this is her (sitting/rest) the house a few."

Rudolph: "She said 'And I shall gather blades behind the reapers,' then she went out and has been on her feet from morning until now; only just now has she taken a brief break."

⑸부시(119)는 첫 단어 זֶה[제]가 앞에 나오는 עַתָּה[아타]를 수식하는 것(GKC 136d; BDB 4.h, p. 261)으로 보고, 둘째 단어 שִׁבְתָּהּ[시브타흐]의 모음을 고쳐서 어근 שׁבת([샤바트] to rest, to cease)에서 온 정형 동사 שָׁבְתָה[샤브타](기본능동어간 완료 3 인칭 여성 단수)로 보고, 셋째 단어 הַבַּיִת[하바이트]를 생략하고, 넷째 단어 מְעָט [므아트]를 드물게 쓰이는 "잠시 a little while"(참고: 욥 24:24)라는 시간적 의미로 보았다. 부시는 "(So she came and has remained here.) From morning until *just* now she *has stopped* only a moment.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그녀는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라고 번역하였다. 부시가 세 번째 단어 הַבַּיִת[하바이트]를 생략한 것은 밭 가운데 הַבַּיִת[하바이트]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전례가 없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많은 번역본(JB, NAB, NEB, RSV, TEV)과 여러 학자들(Gerleman, Hertzberg, Joüon, Würthwein)도 이 세 번째 단어를 빼버리고 번역하였다. 부시(119)는 네 단어들(זֶה שִׁבְתָּהּ הַבַּיִת מְעָט)중 둘째 단어의 자음들(שׁבתה)과 셋째 단어의 자음들(הבית)을 비교하여 셋째 단어 הַבַּיִת[하바이트]가 중복오사(dittography)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생략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억지로 끌어낸 판단으로 보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여러 역본들과 학자들처럼 셋째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⑹블락(657, n. 33)에 의하면, 카라시크(M. Carasik, "Ruth 2,7: Why the Overseer Was Embarrassed," *ZAW* 107 [1995]: 493-494)는 다음 절들에 보인 보아스의 룻에 대한 반응에 근거하여 보아스가 밭에 도착했을 때 룻이 실제로 그 밭을 떠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그 때문에 추수를 감독하는 종이 보아스가 도착했을 때 당황해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의 횡설수설한 말 가운데 사용한 이 마지막 네 단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This fellow . . . . she's just going home for a bit."

⑺주옹(49)은 맛소라 본문을 직역하면 "this (is) her resting a little at home."이지만 BHK 가 칠십인역을 따라 "she did not rest in the field a little לֹא שָׁבְתָה בַשָּׂדֶה מְעָט"를 취한 것을

지적하며 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형태론적으로 הַבַּיִת[하바이트]가 בַשָּׂדֶה[바싸데]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הַבַּיִת[하바이트]를 שַׁבָּת[샤바트]로 고쳐서 "she has not taken (even) a little rest. לֹא שָׁבְתָה שַׁבָּת מְעָט"로 읽을 것을 제안했다. 주옹은 동사 + 명사의 결합인 שָׁבַת שַׁבָּת[샤바트 샤바트]의 예로 레 23:32 와 25:2 을 들었다.

(8)본 주석은 종이 일반적인 이삭줍기 요청을 듣고 허락한 상황에서 룻이 보아스가 밭에 도착할 때까지 이삭을 주운 것으로 이해하고 룻이 이삭 주우면서 잠시 쉰 것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부시처럼 지시대명사 זֶה[제]를 바로 앞의 עַתָּה[아타]를 수식한 것으로 보았고 오두막(הַבַּיִת[하바이트])의 존재는 불확실하므로 괄호에 넣어 처리하였고 부시와는 달리 맛소라 본문의 명사 שִׁבְתָּהּ[시브타흐]는 동사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주어로 삼고 מְעָט[므아트]를 술어로 삼고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머물[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2) 2 막 2 장 B (2:8-13)

본문

[WLC: 2 רות]

8 וַיֹּאמֶר בֹּעַז אֶל־רוּת הֲלוֹא שָׁמַעַתְּ בִּתִּי אַל־תֵּלְכִי לִלְקֹט בְּשָׂדֶה אַחֵר וְגַם לֹא תַעֲבוּרִי מִזֶּה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9 עֵינַיִךְ בַּשָּׂדֶה אֲשֶׁר־יִקְצֹרוּן וְהָלַכְתְּ אַחֲרֵיהֶן הֲלוֹא צִוִּיתִי אֶת־הַנְּעָרִים לְבִלְתִּי
נָגְעֵךְ וְצָמֵת וְהָלַכְתְּ אֶל־הַכֵּלִים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 הַנְּעָרִים: 10 וַתִּפֹּל עַל־פָּנֶיהָ וַתִּשְׁתַּחוּ אָרְצָה
וַתֹּאמֶר אֵלָיו מַדּוּעַ מָצָאתִי חֵן בְּעֵינֶיךָ לְהַכִּירֵנִי וְאָנֹכִי נָכְרִיָּה: 11 וַיַּעַן בֹּעַז וַיֹּאמֶר לָהּ הֻגֵּד הֻגַּד לִי
כֹּל אֲשֶׁר־עָשִׂית אֶת־חֲמוֹתֵךְ אַחֲרֵי מוֹת אִישֵׁךְ וַתַּעַזְבִי אָבִיךְ וְאִמֵּךְ וְאֶרֶץ מוֹלַדְתֵּךְ וַתֵּלְכִי אֶל־עַם
אֲשֶׁר לֹא־יָדַעַתְּ תְּמוֹל שִׁלְשׁוֹם: 12 יְשַׁלֵּם יְהוָה פָּעֳלֵךְ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מֵעִם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אֲשֶׁר־בָּאת לַחֲסוֹת תַּחַת־כְּנָפָיו: 13 וַתֹּאמֶר אֶמְצָא־חֵן בְּעֵינֶיךָ אֲדֹנִי כִּי נִחַמְתָּנִי וְכִי דִבַּרְתָּ עַל־לֵב
שִׁפְחָתֶךָ וְאָנֹכִי לֹא אֶהְיֶה כְּאַחַת שִׁפְחֹתֶיךָ:

[ESV: Ruth 2:8-13]

8 Then Boaz said to Ruth, "Now, listen, my daughter, do not go to glean in another field or leave this one, but keep close to my young women. 9 Let your eyes be on the field that they are reaping, and go after them. Have I not charged the young men not to touch you? And when you are thirsty, go to the vessels and drink what the young men have drawn." 10 Then she fell on her face, bowing to the ground, and said to him,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that you should take notice

of me, since I am a foreigner?" 11 But Boaz answered her, "All that you have done for your mother-in-law since the death of your husband has been fully told to me, and how you left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r native land and came to a people that you did not know before. 12 The Lord repay you for what you have done, and a full reward be given you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13 Then she said,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for you have comforted me and spoken kindly to your servant, though I am not one of your servants."

[개역개정: 룻 2:8-13]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번역 (룻 2:8-13)

룻 2:8 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1]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2] 여기로부터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도 말며 [3]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 9 그들[=나의 일꾼들]이 [4]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고 그들[=여자일꾼들]의 [5]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기를 바라오. 내가 지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10 그러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6]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11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7] 곧 당신이 (당신의)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8] 나에게 분명히 들렸소. 12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라오."[9] 13 룻이 대답하였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를 [10] 격려해 주셨습니다."[11]

본문 비평

[1] 부정 의문문 "내 딸이여, 듣고 있지 않소?"를 직역하지 않고 이 의문문이 뜻하는 강한 긍정을 반영하여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라고 번역하였다. 새번역은 원문의 "내 딸이여"라는 호격을 "새댁"으로 번역하고 보아스의 말 가운데 룻을 가리키는 "당신"을 모두 "댁"이라고 번역하였다. 개역/개역개정의 "너" 혹은 "네"라는 평칭보다는 "당신" 혹은 "댁"이란 경칭이 문맥상 더 어울린다.

[2-3] 두 개의 부정문 중에서 첫 번째는 부정어 אַל[알]과 희구형(תֵּלְכִי[텔히])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형(תַּעֲבוֹרִי[타아부리])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더 강한 부정이고 두 번째 부정문 앞에 나오는 부사 גַּם[감]은 강조, 강화를 표현한다.

[4]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은 동사에 들어있는 대명사 주어 즉 남자 일꾼들과 여자 일꾼들을 합해서 가리키는 남성 복수를 밝힌 것이다.

[5]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전치사에 붙어 있는 3 인칭 여성 복수 접미대명사를 밝힌 것이다.

[6] 원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절이지만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양보의 의미를 살려 제일 앞에 놓았다.

[7-8] 이 두 절은 동격을 표시하는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절이 동격인 것을 표현하고자 두 절 사이에 "곧(=다시 말하면)"이란 말을 넣어 번역하였다.

[9] 이 절을 직역하면 "[1] 바라오.- [2] 당신의 상이- [3] 온전하기를- [4]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5] 그분의 날개 아래로 당신이 보호를 받으러 온"이다. 번역문에 원문의 순서를 표시하면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3] 온전한- [2] 상 주시길- [1] 바라오."이다.

[10] "당신의 하녀"이지만 말하는 룻을 바로 지칭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이 하녀"라고 번역했다.

[11] 이 번역의 원문의 순서를 표시하면 "[5]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3] 이 하녀를- [2] 어르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4] 격려해 주시니- [1] 정말 고맙습니다."이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2:4-17)

(1)보아스와 룻의 만남 자체를 다루는 2 막 2 장(2:4-17)은 오전에 있던 에피소드(2:4-13)와 오후에 있던 에피소드(2:14-17)로 나누어지고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가 틀의 바깥(2:4-7; 2:15-17)을 이루고 보아스와 룻의 대화(2:8-13)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행동(2:14)이 틀의 안쪽을 이루며 A-B-B'-A'의 구조를 보인다.

(2)오전 에피소드의 첫 부분 2:4-7 은 2:1 에서 소개되었던 보아스가 밭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후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하여 추수를 감독하는 사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오전 에피소드의 둘째 부분 2:8-13 은 보아스와 룻이 대화 나누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⑶부시가 오전 에피소드에 대하여 설명한 문예적 구조를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 막 2 장 첫 부분 참조).

			절	내용	기능
내러티브 서론			4a	보아스의 도착	장면 개시
에피소드 1 (4-13)	A	룻과 그녀의 이삭줍는 것에 대한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	4b-e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	행동 지연과 긴장조성
			5	보아스의 질문	질문
			6-7	사환의 대답	대답
	B	보아스와 룻의 대화: 보아스가 룻에게 특권을 주고 이유를 설명함	8-9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며 추수하는 자들을 따르며 이삭 주우라고 명령함	명령
			10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 베푸는 이유를 물음	질문
			11-12	보아스가 룻의 헌신을 들어 알고 있다며 축복을 함	대답
			13	룻이 감사의 인사를 함	평가

⑷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눌 때 두 인물은 번갈아가며 말하는데 사회적 위치에 따라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먼저 말을 시작하고 길게 말하며(8-9, 11-12) 이방 여인이요 젊은 여인이요 이삭 줍는 여인으로서 룻은 짧게(10, 13) 말한다. 이 두 번에 걸친 대화는 독자들에게 보아스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보아스의 룻과의 관계의 첫 단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입을 열어 말한 첫 말(2:8-9)부터 마지막 말(4:9-10)까지 그의 어조에는 자비와 은혜와 관대함이 스며 있다. 독자들은 이삭을 줍는 모압 여인 룻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보아스 안에 한결같은 인애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⑸룻에게 말한 보아스의 첫 말(8-9)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부정 의문문의 틀(8b, 9b) 안에 병행되는 두 개의 금지 명령(8c, 8d)과 병행되는 두 개의 긍정 명령(8e, 9a)이 들어 있고 그 틀 다음에 특별한 지시(9c)가 나온다.

וַיֹּאמֶר בֹּעַז אֶל־רוּת (8a)

(8b) הֲלוֹא שָׁמַעַתְּ בִּתִּי (**A** 부정의문문)

(부정어 אַל과 간접명령형 8c) אַל־תֵּלְכִי לְלַקֵּט בְּשָׂדֶה אַחֵר (**X** 금지 명령)

(부정어 לֹא와 미완료형 8d) וְגַם לֹא תַעֲבוֹרִי מִזֶּה (**X'** 금지 명령)

(미완료형 8e)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Y** 긍정 명령)

(명사문 9a) עֵינַיִךְ בַּשָּׂדֶה אֲשֶׁר־יִקְצֹרוּן וְהָלַכְתְּ אַחֲרֵיהֶן (**Y'** 긍정 명령)

(9b) הֲלוֹא צִוִּיתִי אֶת־הַנְּעָרִים לְבִלְתִּי נָגְעֵךְ (**A'** 부정의문문)

(9c) וְצָמֵת וְהָלַכְתְּ אֶל־הַכֵּלִים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 הַנְּעָרִים

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8a).

(A)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8b)**.**

(X)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8c)

(X') 절대로 여기로부터 경계를 넘어가지도 말며(8d)

(Y)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8e).

(Y') 나의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우시오(9a).

(A') 내가 지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9b)**.**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9c)."

(6)룻 2:10 의 לְהַכִּירֵנִי וְאָנֹכִי נָכְרִיָּה [르하키레니 브아노히 노흐리야]에서 3 단어에 모두 들어 있는 자음 נ[눈]과 כ[카프]에 유의하면 소리에 의한 언어유희가 있고, 두 단어 즉 לְהַכִּירֵנִי[르하키레니](to recognize/pay attention to me 나를 알아주다, 나를 보살펴주다)와 נָכְרִיָּה[노흐리야](foreign woman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의 어근이 [나하르]로 똑같은데 의미는 정반대인 것에 유의하면 은유적 언어유희가 있음을 알 수 있다(Sasson, 51; Hubbard, 162).

(7)룻 2:12 의 두 개의 절 ① יְשַׁלֵּם יְהוָה פָּעֳלֵךְ ②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여샬렘 아도나이 포올레흐 우트히 마스쿠르테흐 실레마]에서 첫 단어 [**여샬렘**](“온전하게 하다, 갚다”)과 마지막 단어 [**실레마**](“온전한”)의 어근이 같다. 이 두 절은 어근 [샬람]에 의하여 의미적인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Hubbard, 166).

각 절 주석 (룻 2:8-13)

30. 룻 2:8

1) 원문 문제

(룻 2:8) וַיֹּאמֶר בֹּעַז אֶל־רוּת הֲלוֹא שָׁמַעַתְּ בִּתִּי אַל־תֵּלְכִי לִלְקֹט בְּשָׂדֶה אַחֵר וְגַם לֹא תַעֲבוֹרִי מִזֶּה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① הֲלוֹא שָׁמַעַתְּ בִּתִּי (lit. Have you heard, my daughter?)는 부정 의문문(참고: 2:9; 3:1, 2)의 의미는?

② אַל־תֵּלְכִי에서 동사는 ( )형이고 לֹא תַעֲבוֹרִי에서 동사는 ( )형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가(GKC 107o; WHS 173)?

③ תַעֲבוֹרִי의 어근은 ( )이고 기대되는 형은 תַעֲבְרִי이다. 출 18:26 יִשְׁפּוּטוּ הֵם(그들이 판결하였다)와 잠 14:3 תִּשְׁמוּרֵם(그것들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에도 나오는 간모음 슈룩이 쓰인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GKC 47g; GBH 44c; Bush, 108)?

④ וְגַם לֹא תַעֲבוּרִי מִזֶּה에서 גַם의 용법은(WHS 379)? 삼하 15:32 과 삼하 16:1 의 비교를 통하여 본 עבר מִן의 의미는?

⑤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에서 접속사 וְ는 ( )의 의미를 가지며, 미완료형 תִדְבָּקִין은 강한 ( )을 나타낸다(WHS 173). 이 미완료형 이외에 2:9(보아스의 말); 2:21(룻의 말); 3:4, 18(나오미의 말)의 미완료형에도 붙어 있는 눈(GKC 47o)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룻 1:14; 2:23 처럼 동사 דבק다음에 전치사 בְּ가 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2:8(보아스의 말)과 2:21(룻의 보아스의 말 인용)에서 다음에 עִם이 나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⑥ נַעֲרוֹת(woman workers)는 베어 놓은 곡식을 단으로 묶는 מְעַמְּרוֹת(women bundlers cf. 시 129:7)를 가리키는가?

2) 주석

룻 2:8 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절대로 여기로부터 경계를 넘어가지도 말며 바로 여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

① 추수를 감독하는 종의 룻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아스는** 바로 그의 주의를 그녀에게로 돌리며 **룻에게 말했다**. 문예적 기교 부분에서 살폈듯이 룻에게 말한 보아스의 첫 말(8-9)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부정 의문문이 틀을 이루고 그 틀 안에 병행되는 두 개의 금지 명령과 병행되는 두 개의 긍정 명령이 안에 들어 있다. 틀을 이루는 첫 번째 부정의문문(הֲלוֹא שָׁמַעַתְּ בִּתִּי [할로 샤마아트 비티])은 직역하면 "내 딸이여, 듣고 있지 않소?"이지만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라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의문사+부정어로 된 הֲלוֹא[할로]를 사용한 부정의문문은 2:8 절과 함께 틀을 이루는 2:9 에 다시 나오고 나중에 3:1-2 에도 나온다.[28]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른 것은 나오미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른 것(1:11, 12; 2:2)을 생각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이고 룻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보아스는 아버지가 젊은 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부드러움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룻에게 말하고 있었다. 보아스는

---

[28]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GKC 150e 를 참고하라. 다음 두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부정 의문문은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

[창 27: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왕하 19:25]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녀 사이의 장벽을 헐어 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이 여방여인에게 자신의 보호와 자신의 자원을 주려고 하였다(Block, 659).

②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부터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도 말라**."고 말했다. 여기 "**이삭을 주우러**"라는 부정사는 룻기에서 보통 사용된 작위능동(피엘) 어간 부정사(לְלַקֵּט[를리케트])가 아니고 유일하게 기본능동(칼/파알) 어간 부정사(לִלְקֹט[릴코트])이다.[29] "**경계를 넘어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תַּעֲבוֹרִי[타아부리]는 중근이 갖는 모음 즉 간모음(幹母音)이 기대되는 시바(תַּעְבְּרִי/תַּעַבְרִי [타아브리/타(으)브리]) 대신 장모음 슈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30]

③ 보아스의 두 부정 명령에 대한 개역/개역개정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부정 명령이 첫 번째 부정 명령과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떠나지 말라 = 이 밭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라면 두 명령의 순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보다 일반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구체적인 것이 나중에 나오는 "이 밭을 떠나지 말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역/개역개정에 두 번째 부정 명령 앞에 있는 불변화사 גַּם[감]의 의미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31] 원문의 첫째 부정 명령은 부정어 אַל[알]과 희구형(תֵּלְכִי[텔히] jussive)으로 표현되어 있고 둘째 부정 명령은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형(תַּעֲבוֹרִי[타아부리])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GKC 107o; WHS 173). 그리고 두 번째 부정 명령 앞에 나오는 גַּם[감]은 추가(also)의 의미라기보다는 <u>강조</u>(even, indeed, just)의 의미로 보는 것이

---

[29] Hubbard(154-155, n. 15)는 룻기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 어근 לקט[라카트]의 기본능동 어간이 보통 쓰인 작위능동 어간에 비하여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그저 단순한 문체적 변화(stylistic variation)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30] GKC 47g 는 여기 תַּעֲבוֹרִי מִזֶּה[타아부리 미제]와 비슷한 것으로 잠 14:3 의 תִּשְׁמוֹרֶם[티시무렘]과 출 18:26 의 יִשְׁפּוּטוּ הֵם [이시푸투 헴]을 들고 תַּעֲבוֹרִי[타아부리]와 יִשְׁפּוּטוּ[이시푸투]는 휴지형의 악센트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원래 תַּעֲבוֹרִי[타아보리]와 יִשְׁפּוֹטוּ[이시포투]가 의도되었던 것이고 תִּשְׁמוֹרֶם[티시무렘]은 תִּשְׁמְרוּם[티시므룸](지혜로운 자들의 입술(들)이 그들을 지켜준다)으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GBH 44c 는 슈룩이 간모음으로 쓰인 룻 2:8(תַּעֲבוֹרִי[타아부리])와 출 18:26(יִשְׁפּוּטוּ[이시푸투])과 잠 14:3(תִּשְׁמוֹרֶם[티시무룸])이 옳은 장모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지나 휴지 바로 전에 장모음이 선호된 것을 보여 주며 모두 양순음 다음에 홀람바브(וֹ)대신 슈룩(וּ)이 선호된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Bush(108)는 תַּעֲבוֹרִי[타아부리]가 올바른 형이라면 방언의 대화체에서 전종음절에 악센트가 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1] KJV, NIV, NAB, RSV 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NASB 는 futhermore 로 번역하였다. "Do not go to glean in another field; **furthermore**, do not go on from this one."

자연스럽다(WHS 379; Hubbard, 152, n. 3; Bush, 120).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하려면 삼하 6:1 에서처럼 עָבַר מִן [아바르 민]을 "경계를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보고[32] 두 번째 부정 명령을 "**여기로부터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도 말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밭들의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무심코 그 경계를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아스는 먼저 보다 약한 부정 명령을 나타내는 형식을 써서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형식과 강조의 불변화사 גַּם[감]을 써서 보아스의 밭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조차도 결코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④ 두 부정 명령 후에 보아스는 두 긍정 명령을 내리는데 그의 첫 긍정 명령은 "**바로 여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브호 티드바킨 임-나아로타이]"라는 말이다. 여기 접속사 וְ[브]는 역접의 의미(but, 그러나)를 가지며 כֹּה[호]는 "여기"라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Hubbard, 155, n. 20; cf. 창 31:37; 민 23:15[2 번]; 삼하 18:30). 보아스는 "거기, 다른 밭"이 아니라 "여기, 바로 이 밭"을 가리키는 제스처와 함께 말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밭에서 룻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라고 말한다. 여기 사용된 미완료형 תִדְבָּקִין[티드바킨]은 강한 명령을 나타낸다(WHS 173). 이 미완료형에 붙어 있는 눈은 첨가적 눈(paragogic נ)이라고 하는 눈이다.[33] 첨가적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사 דבק[다바크] 다음에 늘 뒤따라 나오는 전치사 בְּ[브] 대신 עִם[임]이 나오는 것도 특이하다. 룻기에서 דבק[다바크] 다음에 בְּ[브]가 뒤따라 나오는 것은 1:14 과 2:23 이고 עִם[임]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여기 보아스의 말(2:8)과 나중에 룻이 인용한 보아스의 말(2:21) 가운데 나온다. 캠벨(97)은 דבק[다바크] 다음에 עִם[임]이 나오는 것은 구약 책 중 룻기에만 있는 현상임을 지적하고 보아스의 말의 또 하나의 특별한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

[32] 삼하 15:32 의 " דָּוִד בָּא עַד־הָרֹאשׁ [다비드 바 아드-하로시] 다윗이 마루턱에 이르렀고"와 삼하 16:1 의 "וְדָוִד עָבַר מְעַט מֵהָרֹאשׁ [브다비드 아브르 므아트 메하로시]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의 차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3] GBH 44e 에 의하면 첨가적 눈은 구약 책들에 골고루 나오는데 신명기(56 번), 이사야(37 번), 욥(23 번), 시편 104 편(15 번) 등을 포함하여 305 번 사용되었다. 룻기에서 3 인칭 남성 복수에 붙어 있는 첨가적 눈은 보아스의 말 가운데 2 번(יִקְצֹרוּן[이크초룬], יִשְׁאֲבוּן[이시아분] 2:9) 나온다. 룻기에서 2 인칭 여성 단수에 붙어 있는 첨가적 눈은 여기 보아스의 말 가운데 한 번(תִּדְבָּקִין[티드바킨] 2:8), 나중에 보아스의 말을 인용하는 룻의 말 가운데 한 번(תִּדְבָּקִין[티드바킨] 2:21) 그리고 나오미의 말 가운데 두 번(תַּעֲשִׂין[타아씬] 3:4; תֵּדְעִין[테드인] 3:18) 나온다. 여기 תִּדְבָּקִין[티드바킨]처럼 2 인칭 여성 단수 어미와 첨가적 눈을 가진 ין[인]은 וּ[우]대신 쓰인 ון[운]보다 덜 자주 쓰였지만 ון[운]처럼 항상 자체에 악센트를 가지며 주요 휴지에 쓰이고 전종음절이 모음을 보유하는 경우에 쓰였다(GKC 47o).

보았다. 한편 허버드(156)는 이것이 저자의 문체적 변화를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치사 עִם[임]은 "beside 곁에, 가까이에"(WHS 329; BDB 2, p. 768)라는 의미를 갖고 동사 דבק[다바크]는 아주 가까운 신체적인 근접을 뜻하므로[34] דבק עִם [다바크 임]은 "stick close to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영어 성경들은 [다바크]에 [브]가 따라온 것과 [임]이 따라 온 것을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지 않다. 전치사의 구별을 위해 [브]가 뒤따를 때 "바싹 붙다" 그리고 [임]이 뒤따를 때 "가까이에 붙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바크]	NASB	ESV	NIV	YLT	번역
[브] 1:14	cling to	cleave to	cling to	cleave to	바싹 붙다
[임] 2:8	stay . . . with	keep close to	stay . . . with	cleave to	가까이에 붙다
[임] 2:21	stay close to	keep close by	stay with	near . . .cleave	가까이에 붙다
[브] 2:23	stay close by	keep close to	stay close to	cleave to	바싹 붙다

⑤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한 대상은 נַעֲרוֹת־([나아로트] woman workers)인데 이들은 베어 놓은 곡식을 단으로 묶는 일꾼들(מְעַמְּרוֹת[므암로트] women bundlers; cf. 시 129:7 מְעַמֵּר[므아메르] "묶는 자")을 가리킨다(Bush, 121). 9 절에서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을 묘사하는 동사(יִקְצֹרוּן[이크초룬])의 대명사 주어로 남성 복수를 사용하고, 룻이 뒤따를 대상을 묘사할 때 여성 복수 접미대명사(אַחֲרֵיהֶן[아하레헨])를 사용하고,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한 대상을 언급할 때 남성 복수(הַנְּעָרִים[하느아림])를 사용하였다.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말(2:8)을 인용하며 여성 복수를 쓰지 않고 남성 복수(הַנְּעָרִים[하느아림] 2:21)를 썼고 이를 듣고 나오미는 여성 복수(נַעֲרוֹת־[나아로트] 2:22)를 썼으며 내레이터도 여성복수(נַעֲרוֹת־[나아로트] 2:23)를 썼다. 주옹(50)은 여성 복수를 모두 남성 복수로 고쳐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벨(97)의 설명대로 남성 복수형은 꼭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 혼성그룹도 지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을 배려하는 가운데 젊은 남자 일꾼들과 여자 일꾼들을 구별하며 말하였다면 룻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 추수하는 젊은 일꾼들을 가리키며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곡식

[34] Bush(121)는 욥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다(19:20)."라는 말과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31:7)?"라는 말 그리고 다윗의 세 용사 중 하나인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삼하 23:10)."라는 말에 דבק[다바크]가 사용된 것을 통하여 이 동사가 아주 가까운 신체적 근접을 나타낸 것을 설명하였다.

단을 묶는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삭 줍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위치에서(Bush, 121)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1. 룻 2:9

1) 원문 문제

(룻 2:9) עֵינַיִךְ בַּשָּׂדֶה אֲשֶׁר־יִקְצֹרוּן וְהָלַכְתְּ אַחֲרֵיהֶן הֲלוֹא צִוִּיתִי אֶת־הַנְּעָרִים לְבִלְתִּי נָגְעֵךְ וְצָמֵת וְהָלַכְתְּ אֶל־הַכֵּלִים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 הַנְּעָרִים:

① 명사문 עֵינַיִךְ בַּשָּׂדֶה는 접속사 바브 없이 시작되었고 주어(명사) + 술어(전명구)로 되어 있는 것(WHS 551; GBH 163b cf. WHS 582)으로 보아 2:4 의 יְהוָה עִמָּכֶם처럼 ( )을/를 나타내고 있다.

② יִקְצֹרוּן에 있는 눈을 ( )눈이라고 한다(GKC 47m). יִקְצֹרוּן 은 3 인칭 ( )성 복수형이고 전치사 אַחֲרֵיהֶן에는 3 인칭 ( )성 복수 접미대명사가 붙어있다. 동사의 주어와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③ 2:8 의 הֲלוֹא שָׁמַעַתְּ처럼 הֲלוֹא צִוִּיתִי는 부정의 의문문으로써 ( )의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완료 צִוִּיתִי는 (이미 일어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주장과 그것을 완수하는 동작의 동시성을 표현하는 완료: GKC 106i; WHS 164; cf. GBH 112g). 이 완료의 용법은 (동시적/즉석/실행적, 예언적) 완료이다.

④ נָגְעֵךְ의 어근 נגע의 의미는 만지다(to touch 창 3:3), 심하게 때리다/상처입히다(to strike violently, injure 창 32:26), 괴롭히다/방해하다/귀찮게 굴다(to trouble, interfere with, molest 삼하 4:10; 렘 12:14)중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다음에 전치사 ב가 오는 것이 보통인데 ב가 생략된 이유는(GBH 125b)?.

⑤ 미근 알렙 동사 2 인칭 여성 단수형 מָצָאת, מָלֵאת와 미근 헤 동사 2 인칭 여성 단수형 גָּלִית와 비교하며 צָמֵת의 어근과 어형을 설명하면(BDB 854; GKC 75qq; GBH 78g; cf. 1:14 וַתִּשֶּׂנָה < נשׂא)?

⑥ 바브 계속법 완료형 셋(וְצָמֵת וְהָלַכְתְּ וְשָׁתִית)을 나란히 둠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첫 동사는 ( )절을, 뒤의 두 동사는 ( )절을 이루고 있다(WHS 512; GKC 164b[4]).

⑦ 동사 שׁאב(יִשְׁאֲבוּן)은 ( )을 길어오는 것에만 쓰인다(Campbell, 98).

⑧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에서 자음 שׁ이 나란히 오는 소리에 의한 유희의 이름은?

2) 주석

룻 2:9 "그들(=나의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고 그들(=여자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기]를 바라오. 내가 지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① 보아스는 룻에게 여자 일꾼들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하며 이어서 **그의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며 여자 일꾼들을 따르며 이삭을 줍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명사문 עֵינַיִךְ בַּשָּׂדֶה [에나이흐 바싸데]가 접속사 바브 없이 시작된 것은 부사적 상황절(cf. WHS 582)로 쓰이는 명사문(=보통 접속사 바브가 선행하는 명사문)과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명사문의 어순이 2:4 의 יְהוָה עִמָּכֶם [아도나이 이마헴]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처럼 주어(명사) + 술어(전명구)로 되어 있는 것은 희구/기원(desiderative, WHS 551; GBH 154n, 163b)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Bush, 121).

② "그들이 추수한다"라는 뜻의 동사 יִקְצֹרוּן[이크초룬]은 첨가적 눈(GKC 47m)을 가진 3 인칭 남성 복수형이고 "그들을 따라서"라는 뜻의 전명구 אַחֲרֵיהֶן[아하레헨]에는 3 인칭 여성 복수 접미대명사가 들어있다. 동사 יִקְצֹרוּן[이크초룬]의 주어는 추수하는 전 과정에 일하는 남녀 일꾼들을 가리키고 אַחֲרֵיהֶן[아하레헨]의 접미대명사는 추수하는 여자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다(Campbell, 98). 동사와 접미대명사의 성에 유의하여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남녀 일꾼들이 일하는 곳을 유심히 살피고 여자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알 수 있다.

③ 보아스는 2:8 처럼 הֲלוֹא[할로]로 시작하는 부정의문문(직역: "내가 지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소?")을 사용하여 강한 긍정의 의미, 즉 "**내가 지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라고 말한다. 명령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부정사 נָגְעֵךְ[노그에흐]는 어근이 נגע[나가]이고 2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들어있다. 어근 נגע[나가]는 "만지다(to touch 창 3:3)", 혹은 "심하게 때리다/상처입히다(to strike violently, injure 창 32:26)", 혹은 "괴롭히다/귀찮게 굴다/치근거리다/집적이다/집적거리다/건드리다(to trouble, interfere with, molest 삼하 4:10; 렘 12:14)" 등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서는 "**귀찮게 굴다/건드리다**"의 의미로 쓰였다(Bush, 122). נגע[나가] 다음에 전치사 ב[브]가 오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전치사 ב[브]가 생략된 것은 부정사에 접미대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GBH 125b).

④ "**내가 명령하였소.**"라고 번역된 완료 동사 צִוִּיתִי[치비티]는 현재 시점 즉 지금 일어나는 동작과 관련이 있고 "주장과 그것을 완수하는 동작의 동시성을 표현"한다.[35] 이러한 완료는 (대개 근접)

---

[35] Bush, 122: "It is an example of the use of the perfect to express the coincidence of the assertion itself and the accomplishment of the action it express." Bush(202, 238)는 4:3 에 나오는 완료 מָכְרָה[마흐라]와 4:9 에 나오는 완료 קָנִיתִי[카니티]를 논의하면서 동시적/즉석 완료(instantaneous perfect)와 실행적 완료(performative perfec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Bush 는 완료 צִוִּיתִי[치비티]에 대하여 용법을 밝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4:3 과 4:9 에 나오는 완료에 대한 설명과 비슷한 צִוִּיתִי[치비티]의 용법은 실행적 완료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4:3 의 מָכְרָה[마흐라]에 대한 설명 부분을 참고하라.

미래에 속하지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36] 부시(107)는 צִוִּיתִי[치비티]를 "I am herewith ordering . . . ."으로 번역하였고 드 바르트와 니다(32)는 "Now I give orders to . . . ."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37]

⑤ 부정사 נָגְעֶךָ[노그에흐]에 아트나흐라는 악센트가 붙어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아스의 남자 일꾼들에 대한 명령이 룻에게 여자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우라는 부탁과 함께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보아스가 보통 허용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 룻이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서 그들을 따라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후에 바로 룻을 보호하려고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새슨(50)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뒤에 나오는 "목마르면 물 단지로 가서 물을 마셔도 좋다."라고 말한 보아스의 허락대로 룻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쫓아내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내린 사전 명령이 아니다. 허버드(158)는 이 명령이 보아스가 실제로 내린 명령이 아니고 이미 성취된 사실처럼 말함으로써 그의 의도를 룻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의 명령은 15 절에서 나오는 "תִּכְלִימוּהָ[타흘리무하] 나무라지 말라"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허버드가 צִוִּיתִי[치비티]가 "실제로는 곧 시행될 것일지라도 사실상 말하는 순간에 바로 완수될 동작"을 표현하는 완료라고 한 것은 잘 설명한 것이다.[38] 그러나 허버드가 9 절에서 보아스가 실제의 명령을

---

[36] GBH 112g: ". . . . qatal(=perfect) is sometimes used for an action which in fact belongs to the (usually near) future, but which is represented as being performed at the very moment of utterance." GBH 112g 에 의하면 완료형 נָתַתִּי[나타티]("I give")는 "주는 동작"이 즉시(창 23:11) 혹은 거의 즉시(창 23:13) 일어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창 23:11 (에브론의 말)]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창 23:13 (아브라함의 말)]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창 15:18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IBHS 30.5.1d 는 창 23:11, 13(그리고 룻 4:3 과 렘 40:4)의 완료를 동시적/즉석 완료(instantaneous perfective)의 특별 경우인 결심의 완료(perfective of resolve)로 분류하였다. Bush(202)는 결심의 완료를 불확실한 범주로 보고 IBHS 의 결심의 완료의 예문으로 제시된 것들이 동시적/즉석 완료나 실행적 완료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적/즉석 완료에 대한 예는 GKC 106i; WHS 164 에서도 볼 수 있다.

[37] Waarda & Nida, 32: "The Hebrew perfect tense expresses an action which is apparently accomplished at the very moment of the utterance—at least there is no indication of any prior statement by Boaz to the workers—so that in some language one may translate correctly with the present tense: "Now I give orders to ....."

[38] Hubbard, 158: "The perfect verb form pictured the action, though actually done in the near future, as in effect accomplished at the moment of speaking."

한 것이 아니고 15 절에서 실제의 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39] 잘못된 추측이다. 다시 말하면 허버드가 9 절에서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내린 룻을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 15 절의 "나무라지 말라"는 명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시(122)가 잘 지적한 대로 그것은 9 절의 동사(נגע[나가])와 15 절의 동사(כלם[칼람])가 서로 다르며 13 절과 14 절 사이에 흐른 시간과 점심 시간을 합친 시간 차이로 인해 주장과 그것을 완수하는 동작의 동시성을 표현하는 완료 용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⑥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명령은 율법의 어구와 정신에 일치하는 지시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학대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것을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40] 보아스는 이 명령의 자구에 충실하며 그 명령의 정신에 따라 남자 일꾼들에게 이방 여인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⑦ 추수하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한 보아스는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라고 말하며 룻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준다. 바브 계속법 완료형 셋(וְצָמֵת וְהָלַכְתְּ וְשָׁתִית [브차미트 브할라흐트 브샤티트])이 나란히 나오는 이 문의 첫 동사(וְצָמֵת[브차미트)는 조건절—**네가 목이 마르면**—을 이루고[41] 나머지 두 동사(וְהָלַכְתְּ וְשָׁתִית [브할라흐트 브샤티트])는 귀결절—**너는 가서 물을 마실 것이다**—을 이루며 문 전체는 조건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WHS 512; GKC 164b[4]). 동사 יִשְׁאֲבוּן[이시아분]의 어근

---

[39]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Hubbard, 158 의 "Thus, one might assume that the very declaration itself put the command into effect."는 옳은 설명 다음에 나오는 "In my judgment, however, Boaz actually issued the order in v. 15 (cf. *ṣwh* there). Here he assured Ruth of his intent by speaking of it as an already accomplished fact."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40] [출 22:21-23 (MT 22-24)]: "(21)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신 10:17-19]: "(17)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9)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41] צָמֵת([차미트] "**네가 목마르다**")의 어근은 צָמֵא[차메]이다(BDB 854). 미근 알렙 동사 2 인칭 여성 단수형 מָצָאת[마차트]와 מָלֵאת[말레트] 그리고 미근 헤 동사 2 인칭 여성 단수형 גָּלִית[갈리트]와 비교해 볼 때 여기 צָמֵת[차미트]는 룻 1:14 וַתִּשֶּׁנָה[바티쎄나](< נשׂא[나싸])처럼 미근 알렙이 사라지고 미근 헤 동사와 더 비슷한 모음을 취하고 있다(GKC 75qq; GBH 78g).

שׁאב[샤아브]는 물을 길어오는 것에만 쓰이므로(Campbell, 98) 단지에 포도주가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주옹(51)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Bush, 122; Hubbard, 160). 물 긷는 일은 여자들(창 24:11, 13; 삼상 19:11)이나 이방인(신 29:11[MT 10]; 수 9:21-27)의 일이었다. 여기 남성 복수형 הַנְּעָרִים[하느아림]이 젊은 남녀 일꾼들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아스가 말한 물은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것이다. 이 물은 삼하 23:16 에 묘사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길어 온 것인지도 모른다(Hubbard, 160).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하여 물을 긷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위하여 물을 긷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 배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물 긷는 일을 하는 이방 여인에 속한 룻이 보아스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특혜이었다(Block, 660). 보아스가 준 이 특혜는 룻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삭 주우며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이 효과적으로 보다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였다.

32. 룻 2:10

1) 원문 문제

(룻 2:10) וַתִּפֹּל עַל־פָּנֶיהָ וַתִּשְׁתַּחוּ אָרְצָה

וַתֹּאמֶר אֵלָיו מַדּוּעַ מָצָאתִי חֵן בְּעֵינֶיךָ לְהַכִּירֵנִי וְאָנֹכִי נָכְרִיָּה׃

① 동사 וַתִּפֹּל과 וַתִּשְׁתַּחוּ 의 어근과 어간은?

② וַתִּפֹּל עַל־פָּנֶיהָ וַתִּשְׁתַּחוּ אָרְצָה는 (　　)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인사하는 동작을 묘사한다. 주로 신이나 왕에게 절할 때 사용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나 경의를 표할 때도 사용된다(창 23:7; 33:3; 왕하 2:15). 여기서는 창 23:7; 왕삼하 9:6; 하 4:37 처럼 (　　)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③ 부정사 לְהַכִּירֵנִי의 용법은(WHS 198)? 명사문으로 상황절인 וְאָנֹכִי נָכְרִיָּה(WHS 494 cf. GKC 141e; WHS 528)는 부사절로서 (　　)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לְהַכִּירֵנִי וְאָנֹכִי נָכְרִיָּה에서 3 단어에 모두 들어 있는 자음(　　)과 (　　)에 유의하면 소리에 의한 언어유희가 있고 두 단어 לְהַכִּירֵנִי(to recognize/pay attention to me)와 נָכְרִיָּה(foreign woman)의 어근이 (　　)로 똑같은데 의미는 정반대인 것에 유의하면 은유적 언어유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석

룻 2:10 그러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①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와 관대함에 압도된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룻의 이 동작과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녀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아스가 허락하였고 룻이 보아스의 말에 매우 놀라워하며 사실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알게 한다(Bush, 122). 룻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וַתִּפֹּל עַל־פָּנֶיהָ [바티폴 알-파네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וַתִּשְׁתַּחוּ אָרְצָה [바티시타후 아르차]) 동작은 주로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창 24:26; 왕상 1:47; 출 4:31; 33:19; 34:8; 삿 7:15; 삼상 1:19; 삼하 12:20; 대상 29:20; 대하 7:3; 29:28-30; 느 8:6; 9:3; cf. 이방신에게: 삿 2:12, 17, 19) 그리고 왕에게 절할 때(삼하 14:4, 22; 15:5; 대하 24:17) 취하는 모습이다.[42] 이것은 이스라엘 왕 예후가 살만에셀 3 세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Black Obelisk, *ANEP*, fig. 351)이나 회교도들이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동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나 경의를 표할 때도 사용되었다.[43]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것은 그의 관대함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동작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어느 곳에라도 사라를 장사하라고 말하는 헷 족속을 향하여 감사하며 취한 동작(창 23:7)과 같고 므비보셋이 다윗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 감사하며 표시한 동작(삼하 9:6)과 같고 수넴 여인이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인해 엘리사에게 감사하며 표시한 동작(왕하 4:37)과 같다.

②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의 표시를 한 **룻은 보아스에게 말했다**.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십니까?** מַדּוּעַ מָצָאתִי חֵן בְּעֵינֶיךָ [마두아 마차티 헨 브에네하]" 이것을 직역하면 2 절의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처럼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까?"가 된다. 이 절 다음에 나오는 부정사 לְהַכִּירֵנִי([르하키레니] 나를 보살펴

---

[42] חוה, *NIDOTTE* 2:42-44. 므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인도되었을 때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했고(삼하 9:6) 다윗의 베푸는 호의의 말을 듣고 절하며(삼하 9:7)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왕상 18:42)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43] 성경의 예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나그네로 여긴 두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며(창 19:1) 집으로 초청하였다.

(2)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창 23:7) 막벨라 굴을 사게 해 달라고 말했다.

(3)야곱은 20 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에게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창 33:3) 나아갔다.

(4)요셉은 아들 둘을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창 48:12)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5)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삼상 25:23) 용서를 구했다.

(6)나발이 죽은 후 다윗의 사환들이 와서 다윗이 아비가일로 아내 삼고자 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삼상 25:41)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라고 말했다.

(7)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왕하 4:37) 아들을 안고 나갔다.

(8)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하러 온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삼하 1:2).

(9)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면서 엘리사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왕하 2:15).

주는 것)의 의미상 주어는 바로 앞에 나오는 בְּעֵינֶיךָ[브에네하]에 붙어 있는 2 인칭 남성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보아스이다. 이 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부정사(WHS 198)로서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입은 결과로 보아스가 룻을 보살펴 주고 돌보아 준다는 뜻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룻이 호의를 입은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동작의 주체를 보면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입은 것을 표현할 때 룻이 주어인 반면 보아스의 호의를 입은 결과로 룻이 보살핌 받는 것을 표현할 때 보아스가 "보살피다"라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영어는 주절과 종속절을 사용하여 NIV 처럼 "Why have I found such favor in your eyes that you notice me?"처럼 번역하면 두 절의 주어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말의 경우 각각 주어가 다르게 직역하면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호의를 입게 되어 당신이 이토록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가 되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룻을 주어로 하여 "어찌하여 제가 이토록 저를 보살펴주시는 당신의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까?"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보아스를 주어로 하여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③ 이렇게 룻이 의아해 하면서 반문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명사문(וְאָנֹכִי נָכְרִיָּה [브아노히 노흐리야])은 이접적 바브가 인도하고 상황절로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WHS 494 cf. GKC 141e; WHS 528) 역할을 하므로 "**제가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할지라도**"라고 번역된다. 여기에서 룻이 자신을 가리킬 때 1 인칭 단수 대명사로 쓴 אָנֹכִי[아노히]는 룻기에 7 번 나오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אֲנִי[아니]는 2 번 나온다.[44] נָכְרִי[노흐리](“이방인, 외인, 타국인”)는 어떤 사람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말할 때[45] 사용되거나 가족 혹은 친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46]

---

[44] 긴 형 אָנֹכִי[아노히]는 표준 히브리어 시기에 널리 쓰였고 짧은 형 אֲנִי[아니]는 후기 히브리어 시기에 널리 사용되었다. Bush(22)는 Rooker(*BHT*, 72-73)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JE 라는 문서에서 두 형의 비율이 81:48 로 אָנֹכִי[아노히]가 많이 쓰였고, 예레이먀에서 54:37 의 비율로 אֲנִי[아니]가 많이 쓰였고, 그리고 겔, 학, 슥 1-8, 말, 전, 애, 스-느, 단, 대, 에스더서에서는 265:5 의 비율 즉 אֲנִי[아니]가 절대적으로 많이 쓰였고 사해 사본에 אֲנִי[아니]가 거의 독점적으로 쓰였다고 하였다.

[45] [삼하 15:19]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삿 19:12]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왕상 11:1, 8] (1)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 . . (8)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스 10:2, 10] (2)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 . (10)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사용된다(Hubbard, 162). נָכְרִי[노흐리](“이방인”)는 גֵּר[게르](“우거인”, cf. 룻 1:1)보다 더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가졌고, 이방인은 여호와의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신 14:21) 때문에 언약적 특권을 누리지 못했고 이방인은 이자를 물어야 했고(신 23:20[MT 21]) 면제년에도 빚을 갚아야(신 15:3) 했다(Hubbard, 162). 이방인의 종교적 행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왕상 11:1, 7-8; 스 10 장; 느 13:23, 26-27) 이스라엘인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려고(삿 19:12) 했다(Hubbard, 163).

④ 지금까지 설명한 부정사와 명사문에는 소리에 의한 언어유희와 의미에 따른 은유적 언어유희가 있다(Campbell, 98; Sasson, 51; Bush, 123).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 절의 마지막 세 단어 [르하키레니 브아노히 노흐리야]는 모두 자음 נ[눈]과 כ[카프] 그리고 모음 *이*를 가지고 있다. 명사문의 두 단어는 *노흐*와 *이*가 유운을 이룬다. לְהַכִּירֵנִי[르하키레니](나를 보살펴 주는 것)와 נָכְרִיָּה[노흐리야](이방 여인)는 그 어근이 둘 다 נכר[나하르]이지만[47]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은유적 언어유희를 보이고 있다. 이 언어유희는 허버드(163)가 설명한 대로 “You have recognized the unrecognized 당신은 인식되지 못한 자를 인식해 주었다.” 혹은 “You have noticed the unnoticed 당신은 주목되지 않은 자를 주목해 주었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⑤ 비이스라엘인으로서 취약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녀의 생존이 추수하는 이스라엘인들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의 친절과 관대함을 통하여 그녀 자신이 보아스가 고용한 추수하는 이스라엘 일꾼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룻이 기대한 것도 아닌데 보아스는 룻이 그의 고용된 이스라엘 일꾼들과 가까이 있도록 함으로써 이 여방 여인을 환영하며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방 여인임을 아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던 룻은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아스의 무관심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룻은

[느 13:26-27] (26)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27)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46] [창 31: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출 21:7-8] (7)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시 69:8 (MT 9)]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מוּזָר[무자르])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욥 19:15]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זָר[자르])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47] BDB 647-648 은 자음은 같지만 두 개의 다른 어근으로 취급하였고 KB I:699-700 은 어근이 하나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두 사전 모두 동족어로 아카드어 *nakāru* “to be different, hostile”를 지적하고 있다. KB 는 נכר[나하르]의 사역능동(hif’il) 어간의 의미로 to investigate what is unknown(창 31:32), to recognize(창 27:23; 룻 3:14; 2:10, 19), to acknowledge(신 33:9)를 들었다.

보아스에게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라고 말했던 것이다. 룻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방 여인, 아무도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가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룻이 이방 여인이요 낯선 여인인 자신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밭 주인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에게 보인 반응은 상황에 적절한 예의범절을 보이는 행동과 말이었다.

33. 룻 2:11

1) 원문 문제

וַיַּעַן בֹּעַז וַיֹּאמֶר לָהּ הֻגֵּד הֻגַּד לִי כֹּל אֲשֶׁר־עָשִׂית אֶת־חֲמוֹתֵךְ אַחֲרֵי מוֹת אִישֵׁךְ (룻 2:11)
וַתַּעַזְבִי אָבִיךְ וְאִמֵּךְ וְאֶרֶץ מוֹלַדְתֵּךְ וַתֵּלְכִי אֶל־עַם אֲשֶׁר לֹא־יָדַעַתְּ תְּמוֹל שִׁלְשׁוֹם:

① הֻגֵּד הֻגַּד לִי에서 부정사 자립형의 역할은(WHS 205; IBHS 35.3.1-2)?

② עָשִׂית אֶת־חֲמוֹתֵךְ에서 אֶת는 전치사인가 불변화사(직접 목적어 표시)인가? אֶת의 의미는(WHS 341: advantage, 신 1:30; 10:21; 삼상 12:7)?

③ אֶת־חֲמוֹתֵךְ אַחֲרֵי מוֹת אִישֵׁךְ에 들어있는 유운(assonance)은?

④ וַתַּעַזְבִי의 경우 정보를 추가해서 주는 (epexegetical)절에 쓰인 바브 계속법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사를 'and' 대신 LXX πῶς 처럼 ( )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⑤ וַתַּעַזְבִי אָבִיךְ וְאִמֵּךְ처럼 '부모를 떠나'는 것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 )2:24 이다.

⑥ אֶרֶץ מוֹלַדְתֵּךְ의 의미는(창 11:28; 24:7; 31:13; 렘 22:10; 46:16; 겔 23:15)?

⑦ תְּמוֹל שִׁלְשׁוֹם의 문자적인 뜻은 "yesterday, three days ago"이다. 문맥에 따라 번역하면(BDB 1026, 1069-70; 출 5:8 cf. 삼상 4;7; 삼하 3:17; 대상 11:2)?

2) 주석

룻 2:11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 곧(=다시 말하면) 당신이 (당신의)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들렸소."

①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보아스의 넘치는 호의에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보아스는 간접적으로 대답한다. 보아스는 룻을 본 적이 없었지만 룻에 대하여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הֻגֵּד הֻגַּד לִי [후게드 후가드 리] **나에게 분명히 들렸소.**"라는 어구에서

הֻגַּד[후게드]는 부정사 자립형으로 정형동사 הֻגַּד[후가드]를 강조하고 있다.[48] 이 어구는 종이 룻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녀의 민족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들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6 절) 보아스가 종이 말하고 있는 여인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던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② 보아스는 룻에게 " כֹּל אֲשֶׁר־עָשִׂית אֶת־חֲמוֹתֵךְ אַחֲרֵי מוֹת אִישֵׁךְ [콜 아셰르-아씨트 에트-하모테흐 아하레 모트 이셰흐]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이 자신에게 분명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보아스는 룻이 1 장에서 나오미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나중에(3 장에서) "חֶסֶד[헤쎄드] 한결같은 인애(3:10)"라고 언급하였다. 유운(assonance)에 유의하며 אֶת־חֲמוֹתֵךְ אַחֲרֵי מוֹת אִישֵׁךְ [에트 하모테흐 아하레 모트 이셰흐]를 읽으면 "하" "모(트)" "에흐" 등이 반복되고 있는 소리 유희를 느낄 수 있다. 이 절에서 אֶת[에트]는 한정된 목적어를 표시하는 불변화사(=우리말 토씨 ~을/를)가 아니고 전치사이며 그 의미는 자주 쓰이는 동반의 "함께"가 아니고 유익의 "위하여"(WHS 341: advantage, 신 1:30; 10:21; 삼상 12:7)이다. 그러므로 עָשָׂה אֶת־ [아싸 에트]는 1:8 과 2:19 의 עָשָׂה עִם [아싸 임]과 비슷하다(Hubbard, 163). 보아스가 사용한 " אַחֲרֵי מוֹת אִישֵׁךְ[아하레 모트 이셰흐]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라는 어구는 1:5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 이렇게 내레이터는 독자로 하여금 1 장의 사건을 회상하도록 해 주며 보아스의 커다란 호의가 룻에게 주어지는 상과 같은 것임을 넌지시 암시한다(Hubbard, 163-64).

③ 보아스는 룻이 1 장에서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두 가지 단계로 요약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문적으로 말하면 바브로 연결된 וַתַּעַזְבִי [바타아즈비]이하의 절은 앞 절에 연속되는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추가해서 주는 동격(epexegetical)절이다(GBH 118j; 왕상 18:13). 부시(123)는 이런 바브 계속법의 바브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두 절의 관계를 흐려놓는 접속사 "and" 대신 LXX πῶς[포스]처럼 "how"를 써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이 동격절의 내용은 두 가지 사실에 관한 것이다.

④ 첫째로, 보아스는 동격절을 통하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린(1:16)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렸다**."라고 말했다. 룻은 친정 어머니의 집(1:8)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면을 듣지 않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와는 달리 오히려 나오미를 붙좇았으며, 나오미를 버리고 떠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부모를 버리는 것**"은 여기와 창

---

[48] WHS 205; IBHS 35.3.1-2; cf. 수 9:24; 삼상 23:13; 왕상 10:7; 18:13. 이 어구를 직역하면 "being reported it was reported to me"이지만 "Indeed, it has been told to me(Hubbard, 153, n. 6)" 혹은 "I have been in fact told (Hubbard, 163)" 혹은 "I have been fully informed (Bush, 123)" 혹은 "나에게 분명히 들렸소."라고 번역할 수 있다.

2:24 에만 나온다. **고향**(אֶרֶץ מֹולַדְתֵּךְ [에레츠 몰라드테흐])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친족이 함께 모여 사는 땅이다. 이 지리적 용어는 구약의 다른 곳에 6 번(창 11:28; 24:7; 31:13; 렘 22:10; 46:16; 겔 23:15) 더 나온다.[49] "**고향**"**을 버린다**는 것은 개인이 속해 있고 가족의 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떠나 뿌리 없는 삶을 사는 것(렘 22:10; cf. 왕하 8:16; 렘 9:18)을 뜻한다. 이 어구는 아브라함(창 24:7)과 야곱(창 28:13)의 삶을 회상하도록 해주며 아브라함의 이주(창 12:1-4)와 룻의 이주를 비교하도록 해준다(Hubbard, 164). 아브라함처럼 룻은 그녀가 출생한 "고향"이 주는 안전을 버리고 뿌리 없는 삶을 선택하였다. 1:16-17 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결단을 내리며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였다. 보아스가 룻이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린**" 일을 나중에 "한결같은 인애(3:10)"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둘째로, 보아스는 동격절을 통하여 룻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말했다.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룻은 그녀의 뿌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백성에게로 왔다. תְּמוֹל שִׁלְשׁוֹם [트몰 실숌] "**엊그제까지만 해도**"의 문자적인 뜻은 "yesterday, three days ago"이고(BDB 1026, 1069-70; 출 5:8; cf. 삼상 4;7; 삼하 3:17; 대상 11:2) 보통 "before, 전에"라고 번역된다. **당신이 알지 못하던 백성**(עַם אֲשֶׁר לֹא־יָדַעַתְּ [암 아셰르 로-야다아트])은 흔히 쓰이는 어구로서 신 38:33, 36; 삼하 22:44 = 시 18:43[MT 44]; 렘 9:16[MT 15]; 슥 7:14 에도 나온다. 여기 "**백성**"은 보다 폭이 넓은 정치적인 개념의 גּוֹי[고이]가 아니고 혈연적인 개념이고 언약 관계를 암시하는 עַם[암]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Hubbard, 164). 룻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식은 최근의 것이고 미미한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지리적 근접함에 비추어 룻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인과 결혼을 통하여 얻게 된 지식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룻이 그들의 풍속을 완전히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는 백성이었다. 룻의 모압 백성에 대한 친근한 익숙함과 비교할 때 그녀에게 이스라엘은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고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백성이었다. 여기에서 "**왔다**"라는 동사로 1:19, 22 그리고 2:12 에서처럼 בּוֹא[보]가 쓰이지 않고 הלך[할라흐]가 쓰였다. 이처럼 הלך[할라흐]가 בוא[보]의 의미로 쓰인 것은 삼하 13:34; 왕상 13:15; 사 60:14; 렘 36:14 등에서도 볼 수 있다.

⑥ 보아스의 대답을 통하여 룻은 그의 관대함이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뛰어난 헌신에 대한 그의 반응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일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친족인 나오미를 위한 룻의 헌신에 대하여 갚아주고 있다는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다. 룻은 이삭줍기를

---

[49] 이 어구에 대하여 개역개정에서 창 11:28; 24:7(개역: "본토") 그리고 렘 46:16 과 겔 23:15(개역: "고토")은 "고향"으로, 창 31:13 은 "출생지"로 번역되어 있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미로부터 보아스가 친족이고 일가붙이며 기업무를 자라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며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라는 룻의 질문에 대하여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즉 친정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나에게 들렸소."라는 보아스의 대답은 불충분한 대답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대답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Block, 662). 첫째로, 보아스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참 이스라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을 회상하며 모세의 명대로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이것은 2:1 에서 내레이터가 보아스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덕망도 있는 유지라고 소개한 것과 일치한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의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보아스는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에게 격려의 말을 하며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 둘째로, 보아스의 친절 배후에 여호와의 섭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2 절에서 룻이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고 나오미에게 말한 것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룻은 전혀 몰랐지만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온 룻에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섭리이었다.

34. 룻 2:12

1) 원문 문제

יְשַׁלֵּם יְהוָה פָּעֳלֶךְ (룻 2:12)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מֵעִם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אֲשֶׁר־בָּאת לַחֲסוֹת תַּחַת־כְּנָפָיו׃

① יְשַׁלֵּם יְהוָה פָּעֳלֶךְ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의 어근은? 이 부분은 어근 (　　)에 의하여 (　　)을 이룬다. יְשַׁלֵּם יְהוָה פָּעֳלֶךְ와 비슷한 표현은 사람 앞에 전치사 (　　)가 오고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기를 바랄 때 행위 앞에 전치사 (　　)가 온다(Campbell, 99: 삼하 3:39; 렘 25:14; 50:29; cf. 신 7:10; 렘 32:18). 이 기도 배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원리가 있다(렘 25:14; 시 28;4; 욥 34:11; 잠 24:12 cf. 사 1:31; 빌 4:18-19).

② פָּעֳלֶךְ의 내용은 어느 절에 있는가? 명사 פֹּעַל은 고어형이고 주로 시나 고조된 산문(elevated prose)에 쓰였는가(Campbell, 99-100)?

③ מַשְׂכֻּרְתֵּךְ의 מַשְׂכֹּרֶת는 (　　)성 단수이고 집합적인 의미로 쓰였으며 룻 2:12 과 야곱이 라반과 삯에 대해 논하던 창 29:15(라헬), 31:7, 41(양떼)에만 나온다.

④ שְׁלֵמָה의 품사는? 용법은?

⑤ מֵעִם은 (　　)과(　　)이 합쳐진 것이다. 창 41:32; 왕상 12:15; 대상 16:36; 사 8:18; 29:6 에서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의 근원이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⑥ 보아스가 룻이 이스라엘로 온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하여 해석한 부분은? 보아스에 의하면 여호와는 룻에게 상을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룻의 (　　)가 되신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룻은 지금 누구에 의해 환영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⑦ 보아스의 기도에 나오는 룻 2:12 כְּנָפָיו와 룻의 요청에 나오는 룻 3:9 כְּנָפֶךָ는 같은 단어 (　　)에 근거한 저자의 ironic twist 이다.

2) 주석

룻 2:12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라오."

① 룻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감하면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을 위해 개입하시길 바란다. 이 말 가운데 보아스의 고상한 인품과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증거가 밝히 드러난다(Block, 662).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위해 빌었던 것처럼(1:8-9) 보아스도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려고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빈다. 보아스는 한편으로 자신이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룻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보상을 맡기며 그녀를 위해 복을 빈다(Hubbard, 165).

② 보아스의 축복의 첫 번째 절은 " יְשַׁלֵּם יְהוָה פָּעֳלֵךְ [여샬렘 아도나이 포올레흐]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오.**"이다. 이 절에는 전치사도 없고 직접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불변화사도 없다. 이 짧은 형보다 긴 형식은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보응 받을 대상 앞에 전치사 לְ[르]가 오고 보응 받을 행위 즉 대부분 악행 혹은 드물게 선행 앞에 전치사 כְּ[크]가 온다(Campbell, 99; Bush, 123: 삼하 3:39; 렘 50:29; 25:14).[50] 어떤 경우 여기처럼 악행 혹은 행위가 직접목적어로

---

[50] [삼하 3:39]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렘 50:29]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렘 25:14]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개역개정에 ***그들에게***가 번역되지 않음) 갚으리라(שִׁלַּמְתִּי לָהֶם כְּפָעֳלָם וּכְמַעֲשֵׂה יְדֵיהֶם)

나오기도(렘 32:18; 욥 34:11) 하며[51] 전치사 כְּ[크]가 이끄는 구가 없기도 하고(신 7:10) 전치사 לְ[르] 대신 אֶל[엘]이 오기도 한다(렘 32:18).[52]

③ "행위"를 뜻하는 명사 פֹּעַל[포알]은 고어형(Campbell, 99-100)으로 주로 시나 고조된 산문(elevated prose)에 쓰이며 מַעֲשֶׂה[마아쎄]와 동의어이다. 동사 יְשַׁלֵּם[여샬렘]은 명사 שָׁלוֹם([샬롬] "평화, 평강, 온전")처럼 어근이 שׁלם[샬람]이다. 이 단어는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는 모든 행위에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법적 혹은 경제적 맥락에서 "회복하다, 상응하는 것으로 대치하다, 보상하다, 갚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학적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행위대로 보응하심으로써 질서를 유지하시는 원리를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삼하 3:39; 욥 34:11; 시 28:4; 31:24; 62:12; 렘 25:14; cf. 잠 24:12; 렘 17:10; 사 1:31; 빌 4:18-19). 일반적으로 이것은 죄에 대한 벌(사 59:18; 66:6; 렘 16:18; 50:29; 51:24, 56; 시 94:2)을 포함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 준수 사항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응(신 7:10; 23:21[MT 22]; 32:41; 사 65:66)을 포함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여호와께서 선을 행한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것(삼상 24:20; 잠 13:21; 25:22)도 언급한다. 보아스의 룻에 대한 축복의 말은 잠언 19:17 에 표현된 원리—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를 반영하고 있다.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의 행위는 시어머니에게 꾸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기도 하였다(Block, 663). 그 빚이 너무도 커서 여호와만이 온전히 갚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יְשַׁלֵּם יְהוָה פָּעֳלֶךָ [여샬렘 아도나이 포올레흐]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오**."라고 말했다(Hubbard, 166).

④ 보아스의 축복의 두 번째 절은 첫 번째 절의 병행절로서 보응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며 룻이 받을 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보다 구체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라는 첫 번째 절의 내용은 병행되는 두 번째 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라오**."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두 번째 절의 원문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우트히

---

[51] Campbell(99)이 룻 2:12 과 렘 25:14 과 50:29 등 세 경우에서만 악행이나 선행이 아니고 "행위"라는 중립적인 단어 פֹּעַל[포알]이 나온다고 하였지만 욥 34:11 에도 פֹּעַל[포알]이 나온다.

[52] [신 7: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 절에는 전치사 כְּ[크]가 이끄는 구가 없음)

[렘 32:18]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 절에는 כְּ[크]가 없고 악행이 직접목적어로 나오고 대상 앞에 전치사 לְ[르]대신 אֶל[엘]이 옴)

[욥 34:11] <u>사람의 일을 따라</u> 보응하사(פֹּעַל אָדָם יְשַׁלֶּם־לוֹ [포알 아담 여샬렘-로] 개역개정에는 לוֹ[로] <u>*그에게*</u>가 번역되어 있지 않음. Cf. YLT: the work of man he repayeth to him)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마스쿠르테흐 실레마]를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삯이 온전하길 바랍니다."가 된다. "당신의 삯"을 표현할 때 사용된 명사 מַשְׂכֹּרֶת[마스코레트]는 여성 단수로서 집합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 단어는 여기(룻 2:12)와 야곱이 라반과 삯에 대해 논하던 창 29:15(라헬)와 창 31:7, 41(양떼)에만 나온다(Hubbard, 166). 이렇게 룻기에 다시 한번 족장 이야기에 사용된 용어가 등장한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라반이 그를 해치 못하였고(창 31:5, 7) 공수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셨다(창 31:42)고 말했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룻과 여호와의 관계는 아닐 것임이 틀림없다.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룻이 받을 삯이 온전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일을 통하여 얻을 삯,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오미로 인해 룻에게 진 빚이라도 있는 듯 그 빚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갚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진 빚을 자신의 빚으로 여기시는 여호와는 그 빚을 남김없이 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보아스의 축복대로 그러한 온전한 상이 주어질 것을 지켜보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그녀가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시되 그녀가 받을 삯이 온전하게 지불되도록 해 주실 것을 믿었다.[53]

---

[53] 보아스의 룻을 위한 축복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룻에게 정말 빚진 것이 있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한다는 어떤 보상의 원리에 묶여 계시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Ulrich, *From Famine to Fullness*, 81-83 에 잘 다루어져 있다. Ulrich 는 יְשַׁלֵּם יְהוָה פָּעֳלֵךְ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여샬렘 아도나이 포올레흐 우트히 마스쿠르테흐 실레마]에서 첫 단어([여샬렘] "온전하게 하다, 갚다")와 마지막 단어([실레마] "온전한")가 "온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어근 [샬람]에서 유래한 것에 유의하며 "May Yahweh finish your work, and may your wages be complete from Yahweh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seek refuge."라고 번역하였다. 보아스가 단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필요 충족과 내세의 유업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엡 1:7)"으로 불리우는 구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호와와의 바른 관계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보아스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룻 속에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시며(빌 1:6) 룻의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고전 15:58) 것이었다. 룻의 삶에 대한 여호와의 뜻에 있어서 여호와와 룻은 동역자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적으로 성취하셔야 할 약속을 주셨고 룻은 하나님이 그녀가 하도록 예정하신 선한 일을 하였다(엡 2:10). 하나님의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은혜가 룻의 마음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룻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행동한 사실을 에누리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 보아스는 룻에게 구원의 은택들을 상기시켜주었다. 룻은 안전 보장이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더욱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스의 축복을 생각하면 보아스가 룻의 헌신적 행위를 주고 받는 계약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룻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여호와를 믿고 순종한 것이라면 여호와는 그녀의 사랑의 진정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룻의 순종이란 수수료를 받으시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셨던 분이 아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축복을 룻이 곤경가운데 견디며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무언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로 여기며 보상의 원리를 너무 부각시키는 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보아스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곤경 가운데서 룻을 부르시어 그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며

⑤ 이 점을 강조하려는 듯 보아스는 온전히 보상하실 자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מִן[민](from)과 עִם[임](with, beside)이 합쳐진 복합전치사로 출처나 근원을 나타내는 מֵעִם([메임] "으로부터")을 붙인다. מֵעִם[메임]이 창 41:32; 왕상 12:15 = 대하 10:15; 사 8:18; 29:6 에서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54] 이 전치사는 보아스의 말에 극적인 뉘앙스를 주며 여호와께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의 근원이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Hubbard, 167 n. 78). 보아스는 동격의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개인 이름인 "여호와"와 그의 잘 알려진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형식은 왕상 11:13 에 나오는 "아스다롯, 시돈 사람의 여신"과 "그모스, 모압의 신"과 "밀곰, 암몬 자손의 신"과 비슷하고 왕하 1:2, 6, 13 에 나오는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에서도 볼 수 있다.[55] 나오미가 하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분으로 언급했다면(1:20-21) 보아스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다.

⑥ 그리고 보아스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역할에 있어서 룻 속에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시며 룻의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보상자일 뿐만 아니라 룻에게 피난처인 것을 첨가한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온 것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방 여인 룻은 모압에서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과 구원의 은택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4] [창 41:32]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왕상 12:15 = 대하 10: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사 8:18]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 29:6]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뢰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55] 개역개정에서는 모두 동격의 두 번째 설명 부분을 앞에 놓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왕상 11:13)" 그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왕하 1:2, 6, 13)"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번역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삼상 6:2, 8)" 혹은 "이스라엘 신의 궤(삼상 6:3)"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 칭호는 언약궤(대상 15:12, 14) 그리고 성전(왕상 8:17, 20 = 대하 6:7, 10; 스 1:3; 4:1; 대상 22:6)과 관련지어 사용되었고 기도(삿 21:3; 삼상 14:41; 왕상 8:23 = 대하 6:14, 25; 왕하 19:15; 스 9:15), 찬양(수 7:19; 삿 5:3; 사 24:15; 대상 16:4; 대하 20:19), 예배(스 6:21; 대하 11:16; 15:4), 회개(대하 15:13; 36:13), 죄의 고백(수 7:20), 송축(삼상 25:32; 왕상 8:15; 시 41:13[MT 14]; 106:48; 대상 16:36; 대하 2:12), 맹세(왕상 17:1)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Cf. 이 칭호와 관련하여 Hubbard, 167, n. 79 에 인용된 구절들 중 여러 구절이 정확하지 않음에 유의하라.

백성과 종교의 벽을 뛰어 넘으며 모압 백성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으로 선택하고(1:16-17)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일도 행하였다(1:19). 룻의 선택과 행동을 보아스는 그녀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여호와의 완전한 보호 영역인 이스라엘로 온 것으로 보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렇게 보아스는 여호와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펴는 어미 새에 비유하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중의 하나를 택하여 묘사하였다.[56] "여호와의 날개 아래"와 "피하다/보호받다/피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된 삶애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포함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애가들과 곤경에서 구원받은 것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시들에 주로 나온다(시 36:7; 57:1; 61:4; 91:4; 시 17:7-8; 시 18:30; 34:8).[57]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은 시편 91 편의 저자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2 절)"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

[56] [신 32:11-12] (11)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12)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 31:5-6] (5)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6)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마 23:37-38] (37)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57] [시 36:7]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וּבְנֵי אָדָם בְּצֵל כְּנָפֶיךָ יֶחֱסָיוּן).

[시 57:1 (MT 2)]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וּבְצֵל־כְּנָפֶיךָ אֶחְסֶה)

[시 61:4 (MT 5)]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אֶחֱסֶה בְּסֵתֶר כְּנָפֶיךָ)

[시 91: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וְתַחַת־כְּנָפָיו תֶּחְסֶ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시 17:7-9] (7)**주께 피하는 자들을**(חוֹסִים)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בְּצֵל כְּנָפֶיךָ תַּסְתִּירֵנִי) (9)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 18:30]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מָגֵן הוּא לְכֹל הַחֹסִים בּוֹ)

[시 34: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אַשְׁרֵי הַגֶּבֶר יֶחֱסֶה־בּוֹ)

피하리로다(4 절)."라고 말한 것과 같다.[58] 보아스가 룻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고 약한 새가 어미 새의 날개 아래서 약탈하는 식육동물(cf. 시 7:1-2; 57:1-4)이나 악천후(cf. 시 91:1-6)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삶이 주는 것들 중 가장 나쁜 것들의 일부를 받았던 룻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59] 보아스는 여호와가 신실하시고 그러므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고 싶어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틀림없이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⑦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애가를 지은 시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자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다. 죄의 영향으로 적대적인 세상과 자신의 죄성과 씨름해야 하는 인간은 스스로 생명과 안전과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을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룻이 이삭 줍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밭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알았고(2:2)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신 법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었고 자신과 시어머니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해 줄 변수들(밭 주인의 호의, 그녀의 이삭 줍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것을 그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보호를 바라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여기며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보호를 제공하였다. 룻이 보아스에게 왔고 보아스가 그녀에게 보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을 할 때 보아스는 그녀에게 보호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Block, 664).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라는 잠언 14 장 31 절의 말씀처럼 보아스가 궁핍한 룻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60] 나오미의 백성을 그녀의 백성으로 삼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녀의 하나님으로 삼은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하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보아스는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룻을 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8] "날개" 앞에 나오는 단어들에 유의하면 룻 2:12 와 시 91:4 는 חָסָה תַחַת כְּנָפָיִם [하싸 타하트 크나파임]이지만 시 57:1 과 61:4 는 חָסָה בְּצֵל/בְּסֵתֶר כְּנָפַיִם [하싸 브첼/브쎄테르 크나파임]이다.

[59] Ulrich, *From Famine to Fullness*, 84.

[60] Cf. [잠언 17: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⑧ 저자는 보아스가 여호와의 보호를 상징하며 사용한 "날개"라는 단어를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3:9)."라고 말할 때 청혼을 상징하며 사용한 "옷자락"을 나타낼 때 다시 쓴다. 번역에 있어서 여기 2:12 의 "날개"와 3:9 의 "옷자락"은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둘 다 כָּנָף[카나프]로 똑같다. 이 원거리 언어유희는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는 일을 기도한 대로 보아스 자신이 옷자락으로 덮는 일을 하는 남편이 되어 보호해 줄 것을 룻이 요청한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2:12 의 "날개"와 3:9 의 "옷자락"이 똑같은 단어를 통해 표현된 것은 보아스 자신이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라오**."라고 말한 기도의 응답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여 주는 것(ironic twist)이다(Hubbard, 168). 결말에 이르러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보아스가 룻을 위해 빌었던 온전한 상은 룻의 보호를 위한 여호와의 날개(카나프)가 바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옷자락(카나프)으로 나타났을 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보아스는 이웃을 위해 복을 비는 자로만 남는 중보자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이 나서서 복을 제공하는 복의 통로와 같은 중보자 역할을 하였다.

35. 룻 2:13

1) 원문 문제

וַתֹּאמֶר אֶמְצָא־חֵן בְּעֵינֶיךָ אֲדֹנִי כִּי נִחַמְתָּנִי וְכִי דִבַּרְתָּ עַל־לֵב שִׁפְחָתֶךָ (룻 2:13)
וְאָנֹכִי לֹא אֶהְיֶה כְּאַחַת שִׁפְחֹתֶיךָ׃

① וַתֹּאמֶר אֶמְצָא־חֵן בְּעֵינֶיךָ אֲדֹנִי에서 אֶמְצָא는 미완료형(24)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청유형(44)(Hubbard 153, n. 9; cf. GBH 114b, n. 1)인가? 2:10 에 나오는 완료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창 47:25; 삼상 1:18; 삼하 16:4 등을 참고하라.

② כִּי נִחַמְתָּנִי וְכִי דִבַּרְתָּ עַל־לֵב שִׁפְחָתֶךָ에서 두 개의 כִּי의 용법은? נחם의 강세능동(피엘)과 이와 병행되는 표현 דִּבֶּר עַל־לֵב가 주는 의미는?

③ 룻이 자신을 지칭할 때 여기서(2:13)는 שִׁפְחָה라 하고 3:9 에서는 אָמָה라고 하였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Sasson, 53)?

④ וְאָנֹכִי לֹא אֶהְיֶה כְּאַחַת שִׁפְחֹתֶיךָ는 상황절로 ( )의 의미를 갖는다. 대명사 אָנֹכִי의 기능은? 미완료형 אֶהְיֶה가 나타내는 것은?

de Waard and Nida, 34: even though I <u>am</u> not the equal of one of your own servants.

Campbell, 101-102 (an emphatic afterthought); Why, as for me, I <u>am</u> not even as [worthy as] one of your maidservants.

Hubbard, 153: although, in my case, I <u>am</u> not even the equal of one of your maidservants.

Bush, 107: though I myself will never be the equivalent of one of your maidservants.

2) 주석

룻 2:13 룻이 대답하였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①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유를 듣고서 룻은 "אֶמְצָא־חֵן בְּעֵינֶיךָ אֲדֹנִי [엠차-헨 브에네하 아도니]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한다. 여기 정형동사 אֶמְצָא[엠차]는 미완료형과 청유형이 같은 미근 알렙(라멧-알렙)동사이므로(GBH 114b, n. 1) 문맥에 따라 미완료형으로도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청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אֶמְצָא[엠차]가 실질적인 청유형이라면 현재나 미래에 대한 소원을 표시하므로 룻의 대답은 "어르신, 제가 계속 호의를 입기를 바랍니다. (참고: Campbell, 86: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Hubbard, 153: "May I find to please you.")"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의 표현은 이미 호의를 입었다고 말한 10 절과 어울리지 않으며 또 바로 뒤에 이유, 원인의 절이 뒤 따라 오는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אֶמְצָא[엠차]는 청유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다. אֶמְצָא[엠차]가 미완료형이라면 그 정확한 용법은 무엇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선언적 진술인가? 그렇다면 룻의 대답은 "어르신, 제가 지금 호의를 입고 있습니다. (Moffatt: "I am finding favor in your eyes.)"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은 룻이 완료형을 써서 이미 호의를 입었다고 말한 2:10(מָצָאתִי חֵן בְּעֵינֶיךָ [마차티 헨 브에네하])과 맞지 않는다.

②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룻의 대답 "אֶמְצָא־חֵן בְּעֵינֶיךָ אֲדֹנִי [엠차-헨 브에네하 아도니]"가 현재나 장래에 호의를 입기를 바라는 소원(실질적 청유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호의를 입고 있다는 단순한 선언적 진술(미완료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면 어떤 뉘앙스를 가진 표현인가? 부시(124)는 이 표현이 감사를 표시하는 말이라고 한 Ehrlich 의 해석을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평가하고 "You are most gracious, sir."라고 번역하였다. de Waard & Nida(35, 90, n. 39)도 "You are very kind to me, sir."라고 번역하고 이 번역이 "Thank you, sir."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번역은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의 이유를 룻이 알게 된 것과 이 절 다음에 룻이 언급하는 이유의 절들과도 잘 어울린다. 여기에서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비슷한 경우는 창 47:25(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삼상 1:18(한나가 엘리에게); 삼하 16:4(시바가 다윗에게)에서도 볼 수 있다.[61] 여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אֲדֹנִי([아도니] **어르신** cf. 직역: 나의 주, my

[61] [창 47:23-25] (23)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추수의 오분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사분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master/lord)라고 부른 것은 존경과 예의를 나타내며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62]

③ 룻은 보아스에게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 이유를 언급한다. "**어르신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가 완료형인 것은 룻이 일을 뒤돌아보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룻이 사용한 두 개의 이유의 절([키 니함타니 브히 디바르타 알-레브 시프하테하] כִּי נִחַמְתָּנִי וְכִי דִבַּרְתָּ עַל־לֵב שִׁפְחָתֶךָ)은 각각 접속사 כִּי[키]가 인도하며 서로 병행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의 절에 나오는 נִחַם[니함](강세능동/피엘 어간)은 다른 곳에서 유족을 위로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지만(창 37:35 to comfort or console the bereaved), 야곱이 죽은 후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킨 경우처럼(창 50:21 to reassure, relieve the mind)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어르신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준 것을 뜻한다. נִחַם[니함]과 병행되는 דִּבֶּר עַל־לֵב [디베르 알-레브](“직역: 마음에 말하다”)는 다양한 의미, 즉 ⓐ"[애정과 동의를 구하려고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다(창 34:3; 삿 19:3; 호 2;16), to speak tenderly,"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말하다, 위로하다(사 40:2), to speak compassionately,"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다, 확신을 갖도록 말하다(창 50:21, 삼하 19:8; 대하 32:6), to speak reassuringly, encouragingly" 등의 의미로 쓰인다(Bush, 124). 여기에서는 דִּבֶּר עַל־לֵב [디베르 알-레브]가 세 번째 의미 즉 "**어르신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여기처럼 창 50:21 에도 "위로하다, 안심시키다"와 "격려의 말을 하다"가 병행되어 나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셉이 야곱이 죽은 후 두려워하는 형들을 간곡한/따뜻한 말로 안심시켰듯이, 보아스는 친절한/다정한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25)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감사하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삼상 1:17-18] (17)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감사드립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삼하 16:4]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게 하옵소서**]하니라

이 세 구절의 번역에 있어서 개역개정에 감사의 뉘앙스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쳐서 [ ] 안에 감사를 표현하는 어구로 바꾸었다.

[62] Hubbard(169, n. 89)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창 31:35), 야곱이 형 에서에게(창 32:5-6, 19),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창 24:27), 종이 아브라함에게(창 24:27), 개인들이 선지자들에게(엘리야, 왕상 18:7, 13; 엘리사, 왕하 8:12) 말할 때 이 칭호가 사용된 것을 지적하였다.

말로 룻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안심시켰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삭을 주우러 나온 빈곤한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의 친절은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녀의 일이 성공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을 것이다.

④ 룻이 자신을 지칭할 때 "שִׁפְחָתֶךָ[시프하테하 "직역: 당신의 하녀"] **이 하녀**"라고 한다. 그런데 3:9 에서 룻은 שִׁפְחָה[시프하]라 하지 않고 אָמָה[아마]라고 말한다. 두 단어가 동의어로 특별한 뜻의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룻기 2 장과 3 장의 문맥을 고려하면 두 단어에 차이점이 있고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 2:13 의 שִׁפְחָה[시프하]는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의미하고, 3:9 의 אָמָה[아마]는 아내나 첩이 될 수 있는 여종을 뜻한다. 본 주석에서는 두 용어를 구별하기 위하여 2:13 의 שִׁפְחָה[시프하]를 "하녀(=계집종: 남의 종이 된 여자)"로 번역하고 3:9 의 אָמָה[아마]를 "시녀(지체 높은 사람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던 여자)"로 번역하였다.[63] 룻 2-3 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말할 때 자신에 대해 세 가지 칭호 즉 이방 여인(נָכְרִיָּה[노흐리야] 2:10), **하녀**(שִׁפְחָה[시프하] 2:13), 시녀(אָמָה[아마] 3:9)를 사용한다.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관계가 전혀 없는 "이방 여인"이 나오고 다음에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중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의미하는 "**하녀**"가 나오며, 그 다음으로 아내나 첩이 될 수 있는 여종을 의미하는 "시녀"가 나온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룻이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상승되는 변화를 암시한다. "**하녀**"와 "시녀"의 차이는 삼상 25:41 에서 아비가일이 한 말 "내 주의 여종(시녀 אָמָה[아마])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하녀 שִׁפְחָה[시프하])이니이다."에서도 볼 수 있다.[64] 룻이 자신을 שִׁפְחָה([시프하] "**하녀**")라고 부르고 바로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וְאָנֹכִי לֹא אֶהְיֶה כְּאַחַת שִׁפְחֹתֶיךָ [브아노히 로 에흐예 크아하트 시프호테하]"란 양보의

---

[63] Sasson, 53: "I share in the opinion that the terms were quite distinct, with שִׁפְחָה ["maidservant"] originally applied to females belonging to the lowest rungs of the social ladder (Joüon, 1953: 57), while אָמָה ["handmaid"] probably represented women who could become wives or concubines of freeman." 개역은 שִׁפְחָה([시프하] 2:13)와 אָמָה([아마] 3:9) 그리고 "소녀,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נַעֲרָה([나아라] 3:2)가 구별 없이 모두 "시녀"라고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2:13 "[시프하] 하녀", 3:9 "[아마] 여종", 3:2 "[나아라] 하녀"로 번역했다.

[64] Campbell(101)은 두 용어가 동의어로 뜻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삼상 25:24-41(다윗과 아비가일 에피소드)에는 אָמָה[아마]가 주로 사용되었고 삼하 14:6-19(다윗과 드고아 여인 에피소드)에서는 שִׁפְחָה[시프하]가 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용어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일어난 다윗-아비가일 에피소드에서 아비가일은 자신을 "אָמָה[아마] 여종"이라고 칭하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일어난 다윗-드고아 여인의 에피소드에서 드고아 여인이 자신을 "שִׁפְחָה[시프하] 계집종"이라고 칭한 것으로 생각하면 용어 선택은 다윗의 신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Campbell 은 2:13 의 "**하녀** שִׁפְחָה[시프하]"가 2:1, 3 의 "친족 מִשְׁפָּחָה[미사파하]"이란 단어와 음성적 연관이 있어서 언어유희 차원에서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의심스럽다.

상황절을 덧붙인 것을 보면 주옹(54)이 지적한 것처럼 "**하녀**"라는 칭호가 가장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칭호마저도 자신에게는 아직 너무 높다고 느끼는 룻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용어 선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ush, 124).

⑤ 이 양보의 부사절에서 접속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 אָנֹכִי[아노히]는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다(Hubbard, 170). 그리고 미완료형 אֶהְיֶה[에흐예]는 대부분의 번역에서 취하는 현재(Hubbard, 153; de Waard and Nida, 34; Campbell, 101-102; NIV)라기보다는 미래(Bush, 125; Block, 665)를 나타낸다. 부시(124-125)는 만일 לֹא אֶהְיֶה [로 에흐예]가 현재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주옹이 지적한 대로 אֵינֶנִּי[에네니]나 상태 동사의 완료형이 현재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WHS 161; GKC 106g)처럼 לֹא הָיִיתִי [로 하이티]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125)는 양보절의 "be like -와 같다"의 의미가 "be as worthy as -처럼 가치가 있다"(Campbell)라기보다는 "be the equivalent of -와 동등하다" 혹은 "have the same standing as -과 같은 지위를 갖다"(NIV) 혹은 "be the equal of -와 동등이다"(Hubbard, de Waard)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양보절 전체를 "though I myself will never be the equivalent of one of your maidservants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와도 동등하지 못할 것이오나"라고 번역하였다.

⑥ 룻이 10 절에서 보아스의 관대함에 놀라워하며 그 이유를 물었던 것은 민족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룻이 13 절에서 보아스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 이유를 말한 것은 상하 신분을 고려한 것이었다. 10 절에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녀를 돌보아 준 것이 언급되고 13 절에는 룻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하녀들 중 하나와도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지만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룻은 민족이나 신분의 차이가 그녀에 대한 보아스의 자비를 억누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있었다. 세 번의 주고받던 대화에서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의 말(1:16-17)이 나오미로 하여금 더 이상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듯이 두 번의 주고 받은 대화에서 룻의 인상적인 감사의 표현(2:13)이 보아스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Hubbard, 171).

(3) 2 막 2 장 C (2:14-17)

본문

[WLC: 2 רות]

14 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 גֹּשִׁי הֵלֹם וְאָכַלְתְּ מִן־הַלֶּחֶם וְטָבַלְתְּ פִּתֵּךְ בַּחֹמֶץ וַתֵּשֶׁב מִצַּד הַקֹּוצְרִים
וַיִּצְבָּט־לָהּ קָלִי וַתֹּאכַל וַתִּשְׂבַּע וַתֹּתַר׃ 15 וַתָּקָם לְלַקֵּט וַיְצַו בֹּעַז אֶת־נְעָרָיו לֵאמֹר גַּם בֵּין הָעֳמָרִים
תְּלַקֵּט וְלֹא תַכְלִימוּהָ׃ 16 וְגַם שֹׁל־תָּשֹׁלוּ לָהּ מִן־הַצְּבָתִים וַעֲזַבְתֶּם וְלִקְטָה וְלֹא תִגְעֲרוּ־בָהּ׃ 17 וַתְּלַקֵּט
בַּשָּׂדֶה עַד־הָעָרֶב וַתַּחְבֹּט אֵת אֲשֶׁר־לִקֵּטָה וַיְהִי כְּאֵיפָה שְׂעֹרִים׃

[ESV: Ruth 2:14-17]

14 And at mealtime Boaz said to her, “Come here and eat some bread and dip your morsel in the wine.” So she sat beside the reapers, and he passed to her roasted grain. And she ate until she was satisfied, and she had some left over. 15 When she rose to glean, Boaz instructed his young men, saying, “Let her glean even among the sheaves, and do not reproach her. 16 And also pull out some from the bundles for her and leave it for her to glean, and do not rebuke her.” 17 So she gleaned in the field until evening. Then she beat out what she had gleaned, and it was about an ephah[b] of barley.

b. Ruth 2:17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개역개정: 룻 2:14-17]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번역 (룻 2:14-17)

2:14 [점심] 먹으려는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1] 말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당신의)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그래서 그녀는 추수하는 일꾼들 [2] 곁에 앉았다. 보아스는 [1]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고 그녀는 실컷 먹고도 [그것을] 남길 수 있었다. 15 룻이 [1] [식사를 끝내고] 이삭을 줍기 위해 일어서 자리를 뜬 후에 [3] 보아스가 (그의) 젊은 남자 일꾼들 [4] 에게 명령하였다. “곡식단 사이에서도 [5]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게. 16 더 나아가 그녀를

위해 자네들이 반드시 [6]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두어서 그녀가 줍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게."[7] 17 룻이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고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정확히] 한 에바나 [8] 되었다.

본문 비평

[1] 대명사를 명사로 밝혀 번역한 것들이다.

[2] 남성 복수형(הַקּוֹצְרִים[하코츠림])으로 추수하는 남녀 일꾼을 합해 말한 것이다.

[3] 보아스와 일꾼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동안 룻이 먼저 일어나 이삭 주우러 간 후에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지시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4] "(그의) 젊은 남자 일꾼들"은 נְעָרָיו[느아라브]를 번역한 것이다.

[5] 원문에서 강조하기 위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문 앞에 두었다.

[6] 같은 어원의 부정사 의존형 [숄]이 정형동사 [타숄루] 앞에서 강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라는 부사를 사용하였다.

[7] 16 절은 15 절의 보아스의 명령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는 절이다. BHS 각주에 의하면 페시타역은 이 절을 생략하고 있다. 16 절이 15 절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필사자나 번역자가 불필요하다고 삭제하였을지도 모른다. 16 절은 확장된 형(Hubbard, 171, n. 6)이기는 하지만 칠십인역에 들어있다. 16 절에서 중자탈락(haplography)을 통해 사라질 가능성이나 중복오사(dittography)에 의해 맛소라 본문에 삽입될 가능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16 절이 들어있는 본문이 더 우수한 본문으로 생각된다.

[8] 전치사 כְּ[크]가 어림수(approximation cf. WHS 257, 룻 1:4)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kaph veritatis)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또 하루에 주운 양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번역하였다.

각 절 주석 (룻 2:14-17)

36. 룻 2:14

1) 원문 문제

(룻 2:14) 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 גֹּשִׁי הֵלֹם וְאָכַלְתְּ מִן־הַלֶּחֶם וְטָבַלְתְּ פִּתֵּךְ בַּחֹמֶץ
וַתֵּשֶׁב מִצַּד הַקֹּוֹצְרִים וַיִּצְבָּט־לָהּ קָלִי וַתֹּאכַל וַתִּשְׂבַּע וַתֹּתַר׃

① וַיֹּאמֶר לָהּ에서 לָהּ의 ה에 생략된 점은(GKC 103g; GBH 25a; 민 32:42; 슥 5:11)?

② 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 גֹּשִׁי הֵלֹם에서 לְעֵת הָאֹכֶל는 내레이터의 말의 끝부분(וַיֹּאמֶר לָהּ בֹּעַז)에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보아스의 말의 첫 부분(גֹּשִׁי הֵלֹם)에 붙여야 하는가? (Then Boaz said to her at mealtime, "Come over here ..." 라고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Then Boaz said to

her, "At mealtime come over here . . ."라고 번역해야 하는가?) {בֹּעַז에 붙어 있는 악센트 게레시보다 הָאֹכֶל에 붙어 있는 르비아가 더 강한 분리악센트인 것에 유의하라.}

③ גֹּשִׁי הֵלֹם에 나오는 גֹּשִׁי의 어근은? 기대되는 형은(cf. GKC 66c: גֹּשׁוּ[대하 29:31; 수 3:9 + הֵנָּה; 삼상 14:38 + הֵלֹם])? 악센트 역행 현상(nasog 'aḥor GKC 29e)이란? 이 어근에 파생된 2 인칭 남성 복수형은? 2 인칭 단수 명령형들(גַּשׁ, גְּשָׁה, גֶּשׁ־)을 설명하면?

④ גֹּשִׁי הֵלֹם וְאֲכַלְתְּ מִן־הַלֶּחֶם וְטָבַלְתְּ פִּתֵּךְ בַּחֹמֶץ וְאָכַלְתְּ와 וְטָבַלְתְּ의 역할은? מִן의 의미는?

⑤ וַיִּצְבָּט־לָהּ קָלִי에 나오는 동사의 어근 צבט는 구약에서 단 한 번 쓰인 말(hapax legomenon)이다. 이 어근은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그릇, 항아리를 "잡다, 쥐다"라는 의미를 가지며(Jastrow, *Dictionary* 2:1258), 우가릿어에서 젓가락, 손잡이를 "잡다, 쥐다"라는 의미를 가지며(mṣbṭ m UT 19.2139), 이와 관련이 있는 아랍어 어근 ḍbṭ 도 "꽉 잡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문맥에 맞는 의미는?

⑥ קָלִי는 레 2:14; 삼상 17:17; 25:18; 삼하 17:28 에 의하면 볶은 곡식으로 (평민, 귀족)사이에 흔한 음식이었던 것 같다. {19 세기 고고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은 1838 년에 팔레스타인에서 그것은 노동자들 사이에 보편적인 것이어서 시장에서 팔렸다고 하였다.}

⑦ 연속되는 세 개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 동사들인 וַתֹּאכַל וַתִּשְׂבַּע וַתֹּתַר는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길 만큼 많이 준 보아스의 관대함을 잘 보여준다. וַתֹּתַר는 어근이 ( )이며 ( ) 어간으로 삼하 8:4 וַיּוֹתֵר와 비교할 때 וַתֹּתֵר가 기대된다. GKC 53n 과 69v 는 미근이 후음이고 또 휴지형이므로 체레 대신 파타흐를 가진 것으로 설명한다.

2) 주석

룻 2:14 [점심] 먹으려는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당신의)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그래서 그녀는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고 그녀는 실컷 먹고도 [그것을] 남길 수 있었다.

① 보아스가 길게 말하고(2:8-9, 11-12) 룻이 짧게 대답하는(2:10, 13) 형식으로 두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후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아침에 열심히 추수를 한 후에 보아스와 일꾼들은 점심 무렵에 음식을 먹고 원기를 되찾고자 쉬었다. 이 때 **보아스가 그녀(=룻)에게 말했다**(וַיֹּאמֶר לָהּ בֹּעַז [바요메르 라 보아즈]). 여기 לָהּ[라]는 전치사 לְ[르]에 3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הָ[라흐]처럼 활점을 가져야 하는데 활점이 생략되어 있다(GKC 103g; GBH 25a; 민 32:42; 슥 5:11).

② 맛소라 본문과 대부분의 역본들은 "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 [바요메르 라 보아즈 르에트 하오헬]"처럼 לְעֵת הָאֹכֶל([르에트 하오헬] "**[점심] 먹으려는 때에**")이라는 부사적 표현이 앞의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와 함께 가는 것으로 여기며 내레이터의 말의 일부로 보았다. 그러나 칠십인역과 구라틴역은 "לְעֵת הָאֹכֶל גֹּשִׁי הֵלֹם [르에트 하오헬 고시 할롬]"처럼 이 어구가 뒤 따라 오는 "**이리로 오시오**"와 함께 가는 것으로 여기며 보아스의 말의 첫 부분으로 보았다. 만일 이 어구가 보아스의 말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점심 먹을 때에 이리로 와서 음식을 먹으시오. 당신의 빵조각을 찍어 드시오'"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것은 13 절의 룻의 말을 듣고서 바로 이어 14 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앞으로 다가올 점심 먹을 때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초대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8 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 오던 말이 14 절 상반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녀는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라고 재개되는 내러티브의 내용이 4 절부터 시작된 내러티브의 흐름에 어색한 중단을 일으키고 내러티브의 일관성을 잃게 한다. 따라서 לְעֵת הָאֹכֶל([르에트 하오헬]이란 어구를 보아스의 말의 첫 부분이 아니고 보아스가 룻에게 다시 말을 하게 된 시점을 나타내는 내레이터의 말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본 주석은 이 어구를 "**점심 먹으려는 때에**"라고 번역하였다.

③ 이것은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룻의 말(13 절)과 점심 먹으려는 때에 룻을 식사에 초대하는 보아스의 말(14 절) 사이에 길이를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으며 이 나머지 아침 시간에 룻이 이삭을 주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맛소라 본문(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 גְּשִׁי הֵלֹם [바요메르 라 보아즈 르에트 하오헬 고시 할롬])의 악센트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부사구 לְעֵת הָאֹכֶל [르에트 하오헬]의 끝에 붙어 있는 악센트 르비아는 보아스(בֹּעַז[보아즈])에 붙어 있는 악센트 게레시보다 더 강한 분리 악센트이다. 이것은 게레시가 붙은 "보아스"를 지나서 르비아가 붙은 "점심 먹으려는 때"라는 어구까지 읽은 후 휴지 상태에 들어갈 것을 의도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악센트들은 내레이터의 말이 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바요메르 라 보아즈 르에트 하오헬] **[점심] 먹으려는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까지이고 점심 먹으려는 때에 룻에게 한 보아스의 말이 גְּשִׁי הֵלֹם([고시 할롬] **이리로 오시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보아스가 룻에게 "גֹּשִׁי הֵלֹם [고시 할롬] **이리로 오시오**."라고 한 것은 보아스와 룻이 약간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암시하며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도록 초대한 것을 나타낸다. 이방 여인으로서 룻은 사려 깊고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명령형 גֹּשִׁי[고시]의 어근은 נגשׁ[나가시]이고 기대되는 형은 גְּשִׁי[그시]인데 악센트 역행 현상 때문에 גֹּשִׁי[고시]로 나왔다.[65] 명령형 גֹּשִׁי[고시]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바브 계속법 완료 즉

---

[65] 어근 נגשׁ[나가시]의 2 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은 גַּשׁ[가시]이며 뒤에 마켑이 오면 גָּשׁ־[게시]가 되고 강조가 되면 גְּשָׁהּ[그샤]가 된다. 2 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은 גְּשׁוּ[그슈]이고 2 인칭 여성 단수 명령형 גְּשִׁי[그시]이다. 여기에서

וְאָכַלְתְּ[브아할트]와 וְטָבַלְתְּ[브타발트]는 앞의 명령형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이리로 오시오.) 그리고 먹으시오. 그리고 찍으시오."라는 연속된 요청을 나타낸다.

⑤ "וְאָכַלְתְּ מִן־הַלֶּחֶם [브아할트 민-할레헴 cf. 직역: 이 빵을 좀 먹으시오.]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에서 הַלֶּחֶם[할레헴]에 붙어 있는 정관사는 이 음식이 보아스의 일꾼들을 위해 준비되어 가져 온 것임을 나타내고(Block, 666) 전치사 מִן[민]은 부분(partitive)의 의미를 나타낸다. 음식 먹는 것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부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אָכַל לֶחֶם [아할 레헴]처럼 동사와 목적어를 써서 나타낸다(cf. 창 3:19; 37:25; 43:32; 렘 41:1; 52:33; 시 14:4; 암 7:12). 그러나 목적어 앞에 부분의 전치사를 쓰든지 안 쓰든지 뜻에는 별 차이가 없다.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좀 먹으라"고 하면서 보아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וְטָבַלְתְּ פִּתֵּךְ בַּחֹמֶץ [브타발트 피테흐 바호메츠] **(당신의)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פִּתֵּךְ[피테흐]는 명사 פַּת[파트]와 2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결합된 것이고 פַּת[파트]는 빵(לֶחֶם[레헴])의 **조각**을 의미하므로 פַּת לֶחֶם [파트 레헴]의 줄인 형이다.[66] **초**(חֹמֶץ[호메츠])는 상쾌하게 해 주는 신 음료나 초가 들어 있는 소스로서 마른 빵을 먹을 때 찍어 먹는 것을 가리킨다.[67] 바벨론 탈무드(*b. Šabb* 113b)는 **초**가 더위를 이기는 데 좋은 것으로 언급한다(Bush, 125). 관대하고 친절한 보아스는 자신이 식사를 즐기는 것처럼 룻이 마른 빵만 먹도록 하지 않고 초에 찍어 먹도록 배려하였다.

גְּשִׁי[ㄱ시]대신 גֹּשִׁי[ㄱ시]로 나오는 것은 גְּשִׁי[ㄱ시] 다음에 종음절에 악센트를 갖고 있는 단음절어 הָלֹם[할롬]이 오기 때문에 악센트를 가진 강음절이 나란히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센트가 גְּשִׁי[ㄱ시]의 종음절에서 전종음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전종음절의 시바가 온모음 홀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GKC 29e 의 설명처럼 악센트가 종음절에서 전종음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악센트 역행 현상(*nasog 'aḥor*[나쏘그 아호르])이라고 부른다. גֹּשִׁי[ㄱ시]에 메텍이 붙은 것에 유의하라. גֹּשִׁי[ㄱ시]에서 גֹּ는 기멜에 모음 홀람(ֹ)과 편의상 붙인 악센트(ֹ)가 붙은 모습이다. GKC 66c 은 룻 2:14 에서처럼 נגשׁ[나가시]의 명령형의 간모음으로 시바가 오지 않고 홀람이 온 구절로 삼상 14:38; 수 3:9; 대하 29:31 을 열거하고 있다. 삼상 14:38 에서 단음절어 הָלֹם[할롬] 앞과 수 3:9 에서 첫음절에 악센트를 가진 הֵנָּה[헤나]앞에 גֹּשׁוּ[고슈]가 온 것은 악센트 역행 현상 때문이다. 대하 29:31 에서는 단음절어나 첫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말이 뒤 따라 오지 않았음에도 גֹּשׁוּ[고슈]가 쓰였다.

[66] פַּת לֶחֶם [파트 레헴]이 나오는 구절로 창 18:5; 삿 19:5; 삼상 2:36; 28:22; 왕상 17:11; 잠 28:21 등을 보라. פַּת[파트]가 단독으로 음식을 의미하는 구절로 삼하 12:3; 잠 23:8; 욥 31:17 등을 참고하라. 잠 17:1 의 פַּת חֲרֵבָה [파트 하레바]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나타낸다.

[67] Hubbard, 173: "Here presumably it was either a refreshing sour drink or a vinegar-based sauce into which bread was customarily dipped."

Block, 667: "Here חֹמֶץ is best understood as a sour sauce or condiment used to moisten and spice up dry bread."

⑥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측면도 있었지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한 무리가 되었다는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Block, 666). 집 주인은 환대의 표현으로 식사를 제공하였고(창 18:1-8) 특별한 경우에 잔치를 베풀었다(시 23:5; 마 22:1-14; 눅 12:36; 14:8; 15:22-23; 요 2:1-11). 언약의 당사자들은 함께 식사함으로써 언약 비준의 절정에 이르렀고(창 31:54; 출 24:11; 눅 22:14-20), 사회적 실상이 식사하는 자리에 표현되었다(창 43:33-34; 눅 14:7-11; 16:21). 종교적 그룹이 모여 식사를 하였고(출 32:5-6; 고전 10:21; 11:20, 33), 사람들은 그저 좋은 때에 안일하게 먹고 마셨다(사 21:5; 암 6:5-6). 음식 메뉴가 무엇이었던 간에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 룻을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청한 것은 민족과 신분의 차이를 초월한 관대함의 모범이며 보아스가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닮은 자의 모습을 보도록 해 준다.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도 여기지 않았고 가장 낮은 신분의 하녀로도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사람들 중의 하나로 대접하였다. 허버드(173)가 지적한 대로 구약 시대에 보아스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신약 시대에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배운 교훈에 잘 반영되어 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행 10:28)" 알았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행 10:34-35)."

⑦ 보아스의 관대한 식사 초청을 받고 거절할 수 없었던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 "곁에"를 표현하는 מִצַּד[미차드]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와 아브넬이 사울의 곁에 앉았다는 것을 나타낸 삼상 20:25 에서만 사용되었다. 아브넬이 사울 곁에 앉았던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듯이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이 앉게 된 것은 영예로운 일이었다. 보아스의 밭에서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 룻은 호의를 입은 이삭 줍는 이방 여인을 넘어서 그리고 가장 낮은 하녀를 넘어서 보아스의 일꾼들 곁에 앉아 환영 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고 보아스의 사람들 가운데 속할 수가 있었다(Hubbard, 173). 이러한 신분 상승을 확인이라도 해 주듯 룻이 일꾼들 곁에 앉았을 때 **보아스는** 자신이 직접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וַיִּצְבָּט־לָהּ קָלִי [바이츠보트-라흐 칼리]).

⑧ 동사 צבט[차바트]는 구약에서 단 한 번 쓰인 말(hapax legomenon [하팍스 레고메논])이다. 이 어근은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그릇, 항아리의 일부를 "잡다, 쥐다"라는 뜻을 가지며(Jastrow, *Dictionary* 2:1258), 우가릿어에서 젓가락, 손잡이를 뜻하는 *mṣbṭ m*(*UT* 19.2139)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대로 "잡다, 쥐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아랍어(어근 *ḍbṭ*)에서도 "꽉 잡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룻기 문맥에 맞지 않는다. 문맥을 고려하면 "잡다, 쥐다; hold, handle"라는

의미에서 "잡아 건네주다 to hand(over), pass"라는 의미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Bush, 125). 다시 말하면 "손으로 잡다 to seize with the hand"에서 "손으로 주다, 건네주다 to give with the hand, to hand"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Block, 667). 그런데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βουνίζω([부니조] to pile up, heap 쌓다)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본문에 צבט[차바트]가 아니라 צבר[차바르]를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צבט[차바트] 대신 צבר[차바르]로 읽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Hubbard, 174). 캠벨, 주옹, 허버드 등은 칠십인역처럼 이 단어를 "to pile up, heap 쏟아 붓다, 쌓아 주다"라고 번역하였으나 NIV 처럼 "to offer 주다" 혹은 부시처럼 "to hand 건네주다, 내주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⑨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준 음식은 볶은 곡식(קָלִי[칼리])이었다. "볶다 to roast"라는 어근 קָלָה[칼라]에서 유래한 명사 קָלִי[칼리]는 이스라엘 평민사이에 흔한 음식이었던 것 같다(레 2:14; 삼상 17:17; 25:18; 삼하 17:28).[68] 주옹(57)은 19 세기 고고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1838 년에 볶은 곡식이 팔레스타인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보편적인 것이어서 시장에서 팔렸다고 보고한 것을 인용하였다(Bush, 126; Block, 667).

⑩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볶은 곡식의 양은 아주 많아서 **그녀가 실컷 먹고도 남길 수 있었다**. 이것은 스타카토 형식의 짧고 연속되는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 동사들, 즉 וַתֹּאכַל וַתִּשְׂבַּע וַתֹּתַר]([바토할 바티스바 바토타르] "그리고 그녀가 먹었다-그리고 그녀가 만족하였다-그리고 그녀가 남겼다")에

---

[68] 볶은 곡식이 여러 음식과 함께 나오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삼상 17:17-18] (17)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18)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삼상 25:18]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삼하 17:27-29] (27)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래가 (28)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 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소산물을 드리기 전에 볶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레 23:10-14 은 다음과 같다.

(10)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개역: +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개역: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3)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분 일 힌을 쓸 것이며 (14)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의해 표현되어 있다.[69] 두 동사 "먹다"와 "만족하다"의 결합으로 실컷 먹고 배불리 먹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신 6:11; 8:10, 12; 11:15; 14:29; 26:12; 31:20; 욜 2:26; 시 22:26[MT 27]; 37:19; 78:29; 느 9:25; 대하 31:10 등에 나온다. "배불리 먹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여호와가 양식을 주는 분으로 나온다(Hubbard, 175, n. 28). 그리고 두 동사 "먹다"와 "남기다"의 결합으로 풍부한 양식을 암시하는 것은 왕하 4:43-44 에서 볼 수 있다.[70] 보아스는 정말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복이었다. 룻이 실컷 먹은 것 이외에도 보너스로 남길 것이 있었다. 이것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길 만큼 많이 준 보아스의 관대함을 잘 보여준다. 여기처럼 세 동사 "먹다-만족하다-남기다"의 결합으로 실컷 배불리 먹고 남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대하 31:10 에도 나온다.[71]

⑪ 내레이터가 보아스의 초청으로 룻이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긴 것을 언급한 것은 보아스의 한결같은 인애를 보여주고 나오미와 룻의 양식 문제 해결의 시작을 알리며 룻이 이스라엘로 영입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보아스는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을 뛰어 넘어 어려운 자들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인애를 베풀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보아스의 이러한 한결 같은 인애는 모압에서 기근이 끝난 소식을 듣고(1:6)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된 것을 본(1:22) 나오미와 룻의 운명이 반전되도록 해 주고 있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배불리 먹고 남길 수가 있었다. 이것은 불쌍한 두 여인의 양식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적어도 가까운 장래 동안에는 그들이 배고프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보아스의 식사 초청으로 인해 룻이 그의 일꾼들 곁에 앉아서 먹을 때 보아스 자신이 볶은 곡식을 주며 그녀를 섬긴 것은 룻이 이스라엘로 점점 더 가까이 영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룻이 이방 여인이요 가장 낮은 하녀만도 못한 자요 외부자(outsider)로 이삭을 줍는 자이지만 민족과 사회적 벽을 뛰어 넘어 보아스의 일꾼들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그려보라. 룻은

---

[69] 세 번째 동사 וַתֹּתַר[바토타르](그녀가 남겼다)는 어근 יתר[야타르]의 사역어간으로 간모음으로 체레를 가진 וַיּוֹתֵר[바요테르](삼하 8:4)와 비교할 때 וַתֹּתֵר[바토테르]가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GKC 53n 과 69v 는 미근이 후음이고 또 휴지형이므로 체레(ֵ) 대신 파타흐(ַ)를 가진 것으로 설명한다.

[70] [왕하 4:42-44] (42)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이십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71] [대하 31:10]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모압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으로 왔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마치 그녀가 이스라엘의 한 덕망있는 사람인 보아스(2:1)의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앉아 있다. 더 나아가 룻은 보아스의 직접적인 섬김을 받았다. 보아스가 친히 룻을 섬긴 것이 분명하지만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의 곁에 앉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아직도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Hubbard, 175). 이 거리가 곧 좁혀질 것인가? 보아스의 너그러운 식사 초대는 그 자신이 여호와께 룻을 위하여 빌었던 온전한 상(2:12)의 첫 열매가 아니던가? "먹다"와 "만족하다"가 결합되어 "배불리 먹다, 실컷 먹다"를 표현하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여호와가 양식을 제공하는 분으로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보아스의 관대함의 배후에 여호와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호와의 날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할 수도 있는 모압 여인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다(Block, 667).

37. 룻 2:15

1) 원문 문제

וַתָּקָם לְלַקֵּט וַיְצַו בֹּעַז אֶת־נְעָרָיו לֵאמֹר גַּם בֵּין הָעֳמָרִים תְּלַקֵּט וְלֹא תַכְלִימוּהָ׃ (룻 2:15)

① וַתָּקָם לְלַקֵּט וַיְצַו בֹּעַז אֶת־נְעָרָיו לֵאמֹר에서 וַתָּקָם과 וַיְצַו는 동시 동작인가 아니면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가? 룻이 듣는 데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한 것인가? 아니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떠난 후 룻이 없는 데서 명령한 것인가?

② וַתָּקָם לְלַקֵּט에서 부정사의 용법은?

③ גַּם בֵּין הָעֳמָרִים תְּלַקֵּט에서 גַּם의 의미는? בֵּין הָעֳמָרִים이 동사 앞에 온 이유는? תְּלַקֵּט의 의미는?

④ תַכְלִימוּהָ의 어근은? 의미는? (cf. 잠 25:8; 28:7 to put to shame, disgrace // 삼상 25:7 to harm, injure // 욥 11:3; 19:3 to reproach, revoke)

2) 주석

룻 2:15 룻이 [식사를 끝내고] 이삭을 줍기 위해 일어서 자리를 뜬 후에 보아스가 (그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곡식단 사이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게.

① 배부르게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룻은 일어났다**(וַתָּקָם לְלַקֵּט [바타콤 를라케트]). 동사 וַתָּקָם[바타콤]은 룻의 행위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1:6 처럼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Hubbard, 175). 룻이 일어난 후에도 다른 일꾼들과 보아스는 여전히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9 절에서 오전에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던(צִוָּה[치바]) 보아스는 여기 15 절에서 다시 한번 오후 추수를 하려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하였다(צִוָּה[치바]). 이 때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아스가 내린 명령은 15 절 하반절과 16 절에 나오고 다음과 같이 A-B-A'-B' 구조를 이루고 있다.

15 גַּם בֵּין הָעֳמָרִים תְּלַקֵּט [감 벤 하오마림 틀라케트] (A)

וְלֹא תַכְלִימוּהָ [블로 타흘리무하] (B)

(A) **곡식단 사이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B)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게.**

16 וְגַם שֹׁל־תָּשֹׁלוּ לָהּ מִן־הַצְּבָתִים וַעֲזַבְתֶּם וְלִקְטָה

[브감 숄-타숄루 라흐 민-하츠바팀 바아자브템 블리크타] (A')

וְלֹא תִגְעֲרוּ־בָהּ [블로 티그아루-바흐] (B')

(A') **더 나아가 그녀를 위해 자네들이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두어서 그녀가 줍도록 하고**

(B') **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게.**

② 내용적으로 보면 A 와 A'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남자 일꾼들이 도울 일을 말하고 B 와 B'는 남자 일꾼들이 룻에 대해 가질 태도를 말한다. 구문을 자세히 살피면, 보아스의 명령이 매우 강조적임을 알 수 있다. 15 절의 첫 번째 절은 어순을 통하여 동사 앞에 나오는 부사구(전명구 בֵּין הָעֳמָרִים [벤 하오마림])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불변화사 גַּם[감]을 사용하여 이 강조된 부사구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고, 15 절의 두 번째 절은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 תַכְלִימוּהָ[타흘리무하]의 결합을 통하여 강한 금지를 나타내고 있다. 16 절의 첫 번째 절도 추가(혹은 강조)의 גַּם[감]이[72] 다시 나오고 부정사 자립형(שָׁלוֹל[샬롤]) 대신 쓰인 부정사 의존형(שֹׁל[숄])이 정형동사(תָּשֹׁלוּ[타숄루]) 앞에 나와 동사를 강조하고 있고, 16 절의 마지막 절도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 תִגְעֲרוּ[티그아루]의 결합을 통하여 강한 금지를 나타내고 있다.

③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보아스의 룻에 대한 또 하나의 인애를 보도록 해 준다. 아침에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7 절)."라고 부탁하고 종의 허락을 받아 추수하는 일꾼들을 따라서 일반적인 추수의 과정이 끝난 후 떨어진 이삭을 주웠다. 그리고 오전에 보아스의 호의로 룻은 남녀 일꾼들이 일하는 곳을 유심히 살피고 여자일꾼들의 뒤를 바짝 따르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다.

---

[72] Bush(126)은 여기 2:16 의 [감]을 2:8 처럼 강조의 의미("indeed, in fact,")로 보았고[cf. Campbell, 103: "and even" Hubbard(177)은 추가의 의미("and furthermore")로 보았다[cf. Sasson, 56: "but ... also"].

오후부터는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로 룻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다. 보아스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룻에게 이러한 특혜를 베풀도록 명하고서 거기에 לֹא תַכְלִימוּהָ([로 타흘리무하]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는 강한 금지 명령을 덧붙였다. 동사 תַכְלִימוּהָ[타흘리무하]는 어근 כלם[칼람]의 사역능동어간이며 욥 11:3; 19:3 처럼 "나무라다 to reproach, reprove, scold"의 의미로 쓰였다.[73] 이 명령을 통하여 보아스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젊은 남자 일꾼이 말로 퇴짜 놓는 일(verbal rebuff)을 못하도록 하였다(Hubbard, 177). 이것은 일꾼들이 보아스의 곡식을 지키며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갖는 경계적 태도를 룻에게만은 내려놓도록 지시한 것이다. 보아스가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함께 그렇게 할 때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고 하는 보호를 덧붙여 준 것은 율법이 명한 것(신 24:19)을 넘어선 그의 너그러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8. 룻 2:16

1) 원문 문제

(룻 2:16) וְגַם שֹׁל־תָּשֹׁלוּ לָהּ מִן־הַצְּבָתִים וַעֲזַבְתֶּם וְלִקְטָה וְלֹא תִגְעֲרוּ־בָהּ׃

① וְגַם שֹׁל־תָּשֹׁלוּ לָהּ에서 גַם은 추가인가 강조인가(WHS 378-379)? שֹׁל은 부정사 ( )형이고 같은 어근의 정형 동사 앞에서 ( )의 역할을 한다(GKC 113x). 전치사 ל의 의미는(WHS 271)? תָּשֹׁלוּ의 어근과 의미는? "아랍어 어근 *ṯll* 약탈하다(사 10:16; 겔 26:12)"? "아랍어 어근 *sll* (칼을) 뽑다"?

② וְגַם שֹׁל־תָּשֹׁלוּ לָהּ מִן־הַצְּבָתִים 에서 מִן은 목적어가 문맥에서 알 수 있으므로 생략되었다고 보면서 분리(separative)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부분(partitive)을 나타내면서 목적어를 표시하는가? 즉, pull out (some ears of grain) from the handfuls 인가(Campbell, Sasson, Bush)? 아니면 pull out some handfuls 인가(Joüon, 61 [E 58])? 단 한 번 쓰인 단어 הַצְּבָתִים의 뜻은(Bush, 126)?

③ וַעֲזַבְתֶּם וְלִקְטָה에서 연속되는 바브 계속법 완료 중 첫 번째 동사의 힘(force)과 두 번째 동사의 용법은(WHS 525; GBH 119e)? 11 절과 16 절에 사용된 עזב를 연관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Porten, *Scroll*, 36)?

④ וְלֹא תִגְעֲרוּ־בָהּ의 의미는?

2) 주석

룻 2:16 더 나아가 그녀를 위해 자네들이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버려두어서 그녀가 줍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게."

---

[73] Bush(126)는 כלם[칼람]의 사역어간이 다른 곳, 즉 잠 25:8; 28:7 에서 "수치스럽게 하다 to put to shame, disgrace, humiliate" 그리고 삼상 25:7 에서 "해치다 to harm, injure"의 의미로 쓰인 것도 지적하였다.

① 보아스의 배려와 보호는 15 절 하반절에서 끝나지 않고 16 절에도 계속 이어진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젊은 남자 일꾼들이 왼손으로 잡고 낫으로 벤 줌에서 뽑아 흘려 버려둘 것까지 지시하였다. 15 절과 16 절을 연결하는 단어는 접속사 바브와 불변화사가 결합된 וְגַם[브감]이다. 이 וְגַם[브감]에 대하여 새슨(54)은 설명 없이 "but . . . also"로 번역하였고 Campbell(87, 103)은 설명 없이 "and even"으로 번역하였다. (N)KJV 와 ESV 는 "and also"로 번역했고 NIV 는 "even"으로 번역했고 NASB 는 "also . . . purposely"로 번역하였다. 개역과 개역개정과 쉬운성경은 "또"로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숫제"로 번역하고 새번역은 "오히려"로 번역하였다. 허버드(177)는 גַם[감]을 추가의 의미로 보며 "and furthermore"로 번역하였다. 부시(126)는 גַם[감]이 추가가 아니라 강조(WHS 379)의 의미라며 "in fact, indeed"의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부시는 8 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강조의 불변화사 גַם[감]을 써서 보아스의 밭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조차도 결코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것처럼 보아스가 16 절에서 강조의 불변화사 גַם[감]을 쓰며 15 절의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한"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5 절의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것을 줍도록 하는 것과 16 절의 줌에서 뽑아 버려두어서 줍도록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면서 더 많이 줍도록 일부러 줌에서 뽑아 흘려 버려두라고 한 것이므로 וְגַם[브감]은 부시의 설명처럼 동격의 바브와 강조의 [감]이라기보다는 허버드의 설명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라는 순접의 접속사 바브와 추가의 [감]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추가의 바브와 강조의 [감]의 결합으로 "더 나아가 ~하기까지/~조차도"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개역개정의 "또"는 좀 약한 번역이고, 새번역의 "오히려"는 15 절 끝의 "나무라지 말라"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접속사 바브가 순접이지 역접이 아닌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공동 번역의 "숫제"는 부시처럼 "정말로"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아예, 애초부터"라는 의미도 갖기도 하므로 좀 모호하다.

② 보아스의 계속되는 명령 즉 שֹׁל־תָּשֹׁלוּ לָהּ מִן־הַצְּבָתִים [숄 타숄루 라흐 민 하츠바팀] **그녀를 위해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으라**는 명령에서 שֹׁל[숄]은 부정사 의존형으로 자립형처럼 같은 어근의 정형동사 תָּשֹׁלוּ[타숄루] 앞에서 강조의 역할을 하고(GKC 113x), 전치사 לְ[르]는 이해 관계 중 이익(advantage, WHS 271)의 의미로 쓰였다. [타숄루]를 강조하는 [숄]을 반영하는 번역은 부시의 "be sure to pull out"와 NASB 의 "you shall purposely pull out"이다. 본 주석은 "반드시"를 사용하여 강조의 의미를 살렸다. 미완료형 תָּשֹׁלוּ[타숄루]는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힘이 명령형(שֹׁלוּ[숄루])보다 더 강하다. KB(II: 1531)는 여기 תָּשֹׁלוּ[타숄루]의 어근을 아랍어 *ṯalla* 와 우가릿어 *ṯll*과 관련 있는 "약탈하다(사 10:16; 겔 26:12)"를 뜻하는 שלל[샬랄](II)가 아니라 아랍어 *salla* 와 관련 있는 "뽑다"를 뜻하는 שלל[샬랄](I)로 보았다. 전치사 מִן[민] 다음에 나오는

הַצְּבָתִים[하츠바팀]은 구약에서 단 한 번 쓰인 단어이며 Dallman(*Arbeit und Sitte* 3:42)이 말한 대로 낫으로 베어 왼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한 줌의 곡식을 나타낸다(Bush, 126). 주옹(58)은 מִן־הַצְּבָתִים [민 하츠바팀]의 전치사 מִן[민]을 부분(partitive)의 의미로 보고 이 전명구가 동사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것처럼 "pull out some handfuls 줌들을 뽑아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하여 (7 절에서 설명한) 모아진 단들(עֳמָרִים[오마림])가운데서 줌들(צְבָתִים[츠바팀])을 뽑아 주라고 했다는 것은 친절을 넘어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Bush, 127). 따라서 מִן[민]을 분리(separative)의 의미로 보고 목적어가 문맥상 알 수 있으므로 생략된 것으로 보고 "pull out (some ears of grain) from the handfuls 줌에서 (이삭 달린 대를) 뽑아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Hubbard, 177; Bush, 126-127; Campbell, 104).

③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으라**는 보아스의 명령을 표현하는 미완료형 תָּשֹׁלוּ[타숄루]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바브 계속법 완료 동사 중 첫 번째 וְעָזַבְתֶּם[바아자브템]은 앞선 미완료형 תָּשֹׁלוּ[타숄루]와 같은 힘을 가지므로 "(뽑으라) 그리고 버려두라/흘려라"라고 번역된다. 두 번째 바브 계속법 완료 וְלִקְּטָה[블리크타]는 (앞선 미완료와 바브 계속법 완료를 통하여 표현된) 명령의 결과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그녀가 줍도록 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WHS 525; GBH 119e). 11 절에서 보아스는 룻이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תַּעַזְבִי[타아즈비])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보아스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이삭을 뽑아 버려두어서**(עֲזַבְתֶּם[아자브템])" 룻이 줍도록 하라고 명령한다. 동사 עזב[아자브]에 유의하면 11 절에서 룻은 고향을 버렸고 16 절에서 보아스는 곡식을 버리고 있었다(Hubbard, 177, n. 36 에 인용된 Porten, *Scroll*, 36).

④ 이렇게 보아스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위한 특혜를 베풀도록 명하고서 15 절에 묘사된 것("그녀를 나무라지 말라")처럼 לֹא תִגְּאֲרוּ־בָהּ([로 티그아루-바흐] **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라**)라는 강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덧붙여진 금지 명령은 남자 일꾼들이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아 이삭 줍는 룻에게 화를 내고 큰소리치며 그렇게 못하도록 꾸짖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보아스의 단호한 어조를 느끼도록 해 준다.[74] 이렇게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참고: 신 24:19) 보아스의 놀랄 만한 친절과 관대함은 헌신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

[74] Bush(127)는 לֹא תִגְּאֲרוּ־בָהּ[로 티그아루 바흐]의 의미를 Kennedy(*JBL* 106[1987]: 60-64)가 "don't hoot at her or treat her in such a way as to send her away frightened and helpless."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뒤 "don't rebuke her with loud, angry expostulations."이라고 풀이하였다.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듯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 보아스의 이 관대함은 12 절의 축복대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주실 온전한 상의 계약금(down payment)에 불과한지도 모른다(Hubbard, 178). 보아스가 여호와께 룻을 위해 빌었던 복을 생각하면 그 복을 베푸는 도구로서 보아스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보아스와 룻은 잘 모르나 독자들은 알고 그 사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는다.

39. 룻 2:17

1) 원문 문제

וַתְּלַקֶּט בַּשָּׂדֶה עַד־הָעֶרֶב וַתַּחְבֹּט אֵת אֲשֶׁר־לִקָּטָה וַיְהִי כְּאֵיפָה שְׂעֹרִים׃ (룻 2:17)

① לִקָּטָה가 לִקָּטָה가 된 것은 분리 악센트 자켑 카톤 때문이다. לִקָּטָה와 같은 형을 (　　)형이라고 부른다.

② 한 마리의 당나귀(חֲמוֹר)가 질 수 있는 양이 호멜(חֹמֶר)이고 호멜의 십분의 일이 에바(אֵיפָה)이다. 한 에바는 얼마만한 양인가?

③ כְּאֵיפָה에서 전치사 כְּ의 의미는(cf. 룻 1:14 WHS 257)?

2) 주석

룻 2:17 룻이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고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정확히] 한 에바나 되었다.

① 보아스의 명령을 전하고 바로 내레이터는 그 날의 나머지 동안 룻이 이삭을 주웠던 행동에 집중하여 묘사한다.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를 입은 **룻은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동사 לִקָּטָה([리케타] **그녀가 이삭을 주웠다**)는 중근의 모음으로 체레를 갖고 분리 악센트 자켑 카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시바를 갖는 לִקָּטָה[리크타]의 휴지형이다.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한 보아스의 배려와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의 근면은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룻이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정확히 한 에바나 되었다**. 룻은 온종일 주운 이삭을 밭의 근처 보아스의 타작 마당(Block, 670)에서 구부러진 막대기나 나무 방망이(curved stick or wooden hammer or flail; cf. 삿 6:11; 사 28:27)로 때려 껍질을 벗기고 낟알을 숄에 모았을 것으로 짐작된다(Hubbard, 178-179). 그것은 정확히 한 에바나 되는 양이었다.

② 여기 에바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כְּ[크]는 룻 1:4 처럼 어림(approximation, WHS 257)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개역, KJV, NIV, NASB). 그러나 캠벨(104)은 탈몬(S. Talmon, *BASOR* 176 [1964]: 33)이 주전 7 세기 Yabneh-Yam 도편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כ[카프]를 사용하여 그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양을 운반하였다고 말한 것(Gibson, *Syrian Semitic Inscriptions* 1.26-30)을 룻 2:17 에 적용하여 에바 앞에 쓰인 כְּ[크]가 정확의 카프(kaph veritatis[=exactitude])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다. 부시(133)도 이 절의 요점이 룻이 하루 동안에 주운 이삭의 양이 매우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림의 카프가 아니라 정확의 카프로 보는 것이 문맥에 잘 어울린다고 주장하였다. 블락(670, n. 88)은 느 7:2— הוּא כְּאִישׁ אֱמֶת [후 크이시 에메트] he is a honest man precisely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에 정확의 카프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다.[75] 본 주석의 **정확히 한 에바나 되었다**는 번역은 카프를 정확의 카프로 본 것을 반영한다.

③ 룻이 주운 보리 이삭의 양이 **정확히 한 에바**라면 얼마나 되는 양인가? 삼상 17:17 에 의하면 이새는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우는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열 덩이를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삿 6:19 에 의하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 한 마리의 당나귀(חֲמוֹר[하모르])가 질 수 있는 양이 호멜(חֹמֶר[호메르])이고, 호멜의 십분의 일이 에바(אֵיפָה[에파])이고(겔 45:11), 에바의 십분의 일이 오멜(עֹמֶר[오메르])이다(출 16:36). 마른 것을 재는 에바와 액체를 재는 밧(בַּת[바트])은 동일한 용량을 나타낸다(겔 45:11).[76] 에바의 십분의 일인 오멜(omer 출 16:36)과 에바의 십배인 호멜(겔 45:11)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77] 블락(670)과 허버드(179)는 에바가 이집트어 *ypt* 에서 온 차용어로 보았다. 허버드는 에바가 바구니(basket)를 의미하며 이차적으로 바구니에 들어가는 양(basketful)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허버드(179)와 캠벨(104)은 마른 것을 재는 표준 단위인 에바(암 8:5; 미 6:10)가 액체를 재는 단위 밧(겔 45:11, 14)과 같다는 점에서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 계산 체계를 소개하였다. ⑴올브라이트(W. F. Albright)는 주전 8 세기 텔 베이트 미르심(Tell Beit Mirsim)과 라기스(Lachish)에서 발견된 바트라고 표시된 항아리들로부터 22 리터(5.8 갤론)라고 계산한다. 그렇다면 에바는 약 29 파운드 정도가 된다. 그러나 ⑵대부분의 독일계 학자들은 에바를 페르시아 마리스(maris)의 용량에 맞먹는 것으로 보고 36-39 리터로 약

---

[75] Block(670, n. 88)은 성경 이외의 문헌에 정확의 카프가 나오는 예들을 위해 *DNWSI* (=*Dictionary of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482-483 을 참고하라고 지적한다.

[76] [출 16:36]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더라

[겔 45:10-14] (10)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11)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12)세겔은 이십 게라니 이십 세겔과 이십 오 세겔과 십 오 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13)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14)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 (십 밧은 한 호멜이라)

[77] Hubbard, 179 의 "An omer (i.e., ass-load) was one-tenth of an ephah."에서 omer 을 괄호 안에 "ass-load"라고 한 것은 ass-load 인 호멜(homer)과 에바의 십분의 일인 오멜(omer)을 혼동한 것이다.

50 파운드가 된다고 계산한다. 이것은 요세푸스(Ant. 3.8.3 §197)가 밧을 36 리터로 본 것과 일치한다. 캠벨(104)은 29 파운드 쪽을 선호하면서 "룻이 집으로 가지고 간 양은 이삭 줍는 자로서는 인상적이지만 룻의 덕목에 그녀가 소처럼 강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78] 고대 바벨론 시대(주전 19 세기)에 마리에서 일하던 남자 일꾼의 하루 양식이 1-2 파운드가 넘지 않았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Sasson, 57) 룻이 하루에 주운 이삭의 양은 적어도 15 일의 양식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Hubbard, 179).[79]

④ 룻이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명령을 따라 남자 일꾼들이 의도적으로 줌에서 뽑아 흘려 버려둔 이삭을 자유롭게 주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룻은 2:2 에서 밭에 나가 호의를 베푸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허락을 구할 때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호의를 체험하였다. 그녀는 이삭 주울 곳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밭주인의 환영과 과분한 친절도 받았다. 1:22 의 "보리 추수 시작할 무렵"이란 어구가 주는 희망 즉 나오미와 룻에게 기근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소망이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여인은 더 이상 양식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양식은 룻이 받을 온전한 상(2:12)의 계약금(down payment)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2:12 과 2:17 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만난 행운의 배후에 계시며 그녀에게 상을 베풀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Hubbard, 180). 그러나 언제 그리고 어떻게 룻이 온전한 상을 받게 될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 막 2 장(2:4-17) 해설

(1)보아스가 예비적으로 소개되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된 것을 묘사하는 2 막 1 장(2:1-3)에 이어 나오는 2 막 2 장(2:4-17)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 자체를 길게 다루는 장면으로 2 막의 중심 장면이다. 2 막 2 장의 줄거리는 이렇다. 나오미의 허락을 얻은 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이르게 된(2:2-3) 룻은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보고한 대로 그의 허락을 받고 아침부터 보아스가 나타날 때까지(2:7) 계속 이삭을 주웠고, 점심 시간에 보아스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였고(2:14), 그 후 저녁 때까지

---

[78] Campbell, 104: "The amount Ruth carried home was rather impressive for a gleaner, but we are not called upon to add to her list of virtues that she was as strong as an ox."

[79] Younger(448)는 메소포타미아 호멜과 초기 이스라엘의 호멜이 같을 것이라고 보면서 *qû* → *sūtu* → *imēru* :: *omer* → *ephah* → *homer* :: 1 liter → 10 liters → 100 liters 로 계산하고 NIV 의 주에서 에바를 3/5 bushel 즉 약 22 리터로 계산한 것은 좀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Younger 는 하루의 양식을 보리로 계산하는 고대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1 리터였던 것을 고려하여 룻의 한 에바가 되는 보리는 10 내지 20 리터라고 보았을 때 두 여인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추산하였다.

이삭을 주웠는데 그녀가 하루에 주운 이삭은 한 에바나 되는 양이었다(2:17). 2 막 2 장의 첫 절(4 절)은 1 절에서 소개된 보아스가 실제로 나오며 아침에 추수하는 자들과 인사하고 복을 빈 것을 묘사하고, 2 막 2 장의 마지막 절(17 절)은 보아스의 호의로 인해 룻이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을 묘사한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만남 자체를 묘사하는 2 막 2 장은 아침에 선언된 복으로 시작하여 저녁에 확인된 넘치는 복으로 끝난다. 2 막 2 장은 오전에 있던 에피소드(2:4-13)와 오후에 있던 에피소드(2:14-17)로 나누어지고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가 두 에피소드의 바깥 틀(2:4-7; 2:15-17)을 이루고 보아스와 룻의 대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관련된 행동이 틀의 안쪽(2:8-13; 2:14)을 이루며 A-B-B'-A'의 구조를 보인다.

⑵2 막 1 장(2:1-3)에서 어떤 역할이 기대되던 그 보아스가 2 막 2 장의 오전 에피소드의 첫 부분(2:4-7)의 첫 절에 등장한다. 보아스의 예비적인 소개(1 절)로 인한 독자의 관심, 룻의 "호의를 베풀 사람"에 대한 막연한 언급(2 절)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보아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독자의 호기심, 그리고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된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해설(2:3)로 인한 독자의 기대감은 "**그 시점에**([히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2:4)"라는 내레이터의 진술을 통하여 현실로 다가온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히네]는 내레이터의 관점을 나타내며 독자가 관심과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던 일이 놀랍게 일어났음을 깨닫고 새 인물 보아스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아스가 밭에 온 것은 룻이 밭에 와서 일정 시간 동안 이삭을 주운 다음이지만 보아스가 밭에 온 시각이 점심 때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룻이 밭에 온 그 시각에 가까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보아스가 밭에 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고 인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2:4).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마감된 "**여호와께서**(A) **함께 하시길**(B)"—"**복 주시길**(B') **여호와께서**(A')."라는 인사의 교환은 이 장면에 여호와께서 비록 무대 밖에 계시지만 부르면 들리는 곳에 계신 것을 독자에게 넌지시 상기시켜 준다(허버드, 145). 3 절에서 여호와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사건 위에 계셨다면, 4 절에서 여호와는 덕망있는 사람인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입가에 계셨다(포텐, 33 [허버드, 144, n. 19 에 인용]). 룻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 여러 번(1:8-9; 2:4, 12, 19; 3:10; 4:11-12)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축복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인사 교환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빈 보아스가 이삭 줍는 룻에게도 호의를 베풀 사람일지 모른다는 독자들의 기대감을 더 강화시켜 준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고받는 인사로서 보아스와 일꾼들이 주고받았던 이 인사말이 자주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보아스와 추수하는 일꾼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들어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길!"—"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길!"이라고 말하는 인사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신전의식을 분명히 하고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복을 빌었으면 좋겠다.

⑶보아스가 그의 밭에 한 낯선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삭 줍는 일에 있어서 룻이 보인 일관된 근면성은 보아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라고 물었다**(2:5).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은 보아스와 나이 차이가 있는 젊은이로서 보아스에 의해 추수를 감독하도록 고용된 종이었다. 보아스가 종에게 물었던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룻이 낯선 여자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내"라고 묻는 대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보다 일반적인 질문이었다. 사실상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낯선 **젊은 여인**일 뿐 보아스의 남녀 젊은 일꾼들 사이에 있을 위치가 없었으나 이 질문은 룻이 최초로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눈에 띄는 존재(spectacle)가 된 것을 알려주며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을 일으킨다(블락, 655). 보아스의 질문에 종은 룻이 속했던 민족과 그녀가 선택하여 속하게 된 가족을 들어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젊은 모압 여자**(2:6)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은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은 자발적으로 아침에 룻과 나누었던 대화를 전하며 그녀의 이삭 주웠던 모습을 보고한다. 종에 의하면 룻은 먼저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2:7)라고 부탁했었다. 이삭 줍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된 관례(레 19:9-10; 23:22; 신 24:19)이었지만 이삭 줍기 전에 허락을 구한 것은 룻이 예의범절을 지키는 여인인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허락을 받고서 **룻이 아침부터**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여 자기에게 묻고 있는 **바로 지금까지 밭에 머물며 잠시 쉰 것을 제외하고는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었다**(2:7)고 보고하였다. 추수를 감독하는 종의 마음에 일정 기간동안 부지런히 이삭을 줍던 낯선 이방 여인 룻은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종의 말에는 룻의 공손함, 밭에 머무른 일정 기간, 부지런함 등이 강조되어 있다. 종이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한 것은 종 스스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을 따라 실천했을 수도 있지만 보아스라면 그렇게 허락했을 것이라는 그의 밭의 주인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⑷보아스는 먼저 일꾼들과 인사를 주고 받고, 그 다음 감독하는 종과 룻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오전 에피소드의 첫째 부분 2:4-7) 후, 룻과 두 번의 대화를 주고 받는다(오전 에피소드의 둘째 부분 2:8-13). 여기서 사회적 위치에 따라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먼저 말을 시작하고 길게 말하며(8-9, 11-12) 이삭 줍는 젊은 이방 여인으로서 룻은 짧게(10, 13) 말한다. 이 두 번에 걸친 대화는 독자들에게 보아스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보아스의 룻과의 관계의 첫 단계를 설명해 주며, 보아스 안에 한결같은 인애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말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밭의 주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친절과 관대함을 보여 준다.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있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한 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부터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도 말며 바로 여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서**(2:8) **그의**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고 여자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우라(2:9)고 말한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어진 곡식을 단으로 묶는 여인들을 따라 이삭을 주우라고 한 것은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남녀 일꾼들이 일하는 곳을 유심히 살피고 여자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별한 호의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고** 룻에게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2:9) 허락해 주었다.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명령은 율법의 어구와 정신에 일치하는 지시(출 22:21-23[MT 22-24]; 신 10:17-19)이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하여 물을 긷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위하여 물을 긷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 배경에서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특혜이었다(블락, 660). 보아스가 준 이 특혜로 인해 룻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삭을 줍다가 느끼는 갈증을 빨리 해결하며 보다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다.

⑸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매우 놀라워하고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와 관대함에 압도된 **룻은** 사람들이 신이나 왕에게 하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2:10)**?**"라고 말했다. 보아스는 룻이 그의 고용된 이스라엘 일꾼들과 가까이 있도록 함으로써 이 이방 여인을 환영하며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방 여인임을 아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던 룻은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보아스의 관대함을 믿을 수가 없었다. 룻의 행동이 동반된 감사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대답한 말(2:11-12)은 오전 에피소드의 정점을 이룬다. 룻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보아스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잘 알고 있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룻이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2:11)을 분명하게 들었었다. 보아스가 들은 소문은 종이 말한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2:6)"와 룻을 바로 연관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 위해 부모와 고향이 주는 안전을 버리고 뿌리 없는 삶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백성에게로 온 것을 들었었다. 보아스는 룻이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린**" 일을 나중에 "한결같은 인애(3:10)"라고 표현하였다. 보아스는 그의 친절과 관대함이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뛰어난 헌신에 대한 반응임을 보이고서 여호와께서 룻을 위해 개입하시길 바라며 나오미처럼(cf. 1:8-9)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란다**(2:12)고 말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오신 분임을 믿고 체험했던 보아스는 텅 비어 가난하게 된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에게 룻이 베푼 선행이

결국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므로(잠 19:17) 그 선행대로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길 빌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여호와의 완전한 보호 영역인 이스라엘로 시어머니와 함께 온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길 바랐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인 나오미에게 행한 선행에 대하여 룻에게 보상하실 하나님께서 룻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기까지 했으니 그녀에게 더욱 더 충만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보아스의 룻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친절은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헌신한 것에 대하여 갚아 주고자 하는 그의 바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스 자신의 행위들은 이미 그가 여호와께 빌고 있는 복의 실현에 있어서 작지만 의미있는 단계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주실 온전한 상이 룻이 누릴 현실적인 복이 되는 일에 보아스가 맡게 될 보다 더 큰 역할이 기대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⑹보아스로부터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유를 듣고서 룻은 그를 "**어르신**([아도니])"이라고 부르며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존경을 표시하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룻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며 "**어르신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2:13)."라고 말했다. 이 감사의 표현은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처럼 보아스의 다정한 말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이삭을 주우러 나온 빈곤한 이방 여인 룻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2:10),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하녀들 중 하나와도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2:13) 룻은 민족이나 신분의 차이를 뛰어 넘는 보아스의 친절과 자비에 대하여 매우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있었다. 1 장에 나오는 세 번의 주고받던 대화에서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의 말(1:16-17)이 나오미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처럼, 여기 두 번의 주고받는 대화에서 룻의 인상적인 감사의 표현(2:13)이 보아스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허버드, 171).

⑺2 막 2 장(2:4-17)의 오전 에피소드(2:4-13)의 끝과 오후 에피소드(2:14-17)의 시작 사이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오후 에피소드는 **점심 먹으려는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아스는 마치 자신이 룻을 위해 빌었던 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처럼 오전에 베풀었던 관대함을 점심 식사를 하려는 때에 더 확대하고 확장하였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당신의)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2:14)"라고 말하며 룻을 식사에 초대하였다.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한 무리가 되었다는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 룻을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청한 것은 민족과 신분의 차이를 초월한 관대함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닮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도 여기지 않았고 가장 낮은 신분의 하녀로도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람들 중의 하나로 대접하였다. 보아스의 식사 초청을 받고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2:14).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 룻은 호의를 입은 이삭 줍는 이방 여인(2:10)을 넘어서 그리고 가장 낮은 하녀(2:13)를 넘어서 보아스의 일꾼들 곁에 앉게 되었고 보아스의 사람들 가운데 속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신분 상승을 확인이라도 해 주듯이 **보아스는** 자신이 직접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2:14).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볶은 곡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녀는 실컷 먹고도 남길 수 있었다**(2:14). 마음껏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복이었고, 실컷 먹은 것 이외에도 남길 것이 있는 것은 보너스처럼 정말 복된 일이었다. 이러한 보아스의 한결같은 인애([헤쎄드])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의 양식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룻이 이스라엘로 영입되어 가고 있었다. 보아스의 관대함의 배후에 여호와의 손길의 역사가 있었고 여호와의 날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할 수 있는 모압 여인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다(블락, 667).

⑻배부르게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룻은 일어났다**(2:15). 룻이 없는 데서 보아스는 오전에 직접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내린 룻을 건드리지 말라(2:9)는 명령을 훨씬 넘어 오후에 직접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A)**곡식단 사이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B)**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게**(2:15). (A')**더 나아가 그녀를 위해 자네들이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두어서 그녀가 줍도록 하고** (B')**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게**(2:16)."라고 명령하였다. 내용적으로 보면 A 와 A'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남자 일꾼들이 도울 일을 말하고 B 와 B'는 남자 일꾼들이 룻에 대해 가질 태도를 말한다. "**곡식단 사이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2:15)"는 명령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일인 것을 고려하면 보아스의 룻에 대한 또 하나의 인애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아스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젊은 남자 일꾼이 말로 퇴짜 놓는 일을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보아스가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2:15)"는 보호를 덧붙여 준 것은 율법이 명한 것(신 24:19)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보아스의 너그러움을 잘 보여 준다. 보아스의 배려와 보호는 계속 이어진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낫으로 벨 때 왼손으로 잡을 수 있는 **줌에서 반드시 조금씩 뽑아 버려둘 것**을 지시하며 **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라**(2:16)고 하는 강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신 24:19) 보아스의 이러한 놀랄 만한 친절과 관대함은 한결같은 인애의 모범을 제공하고 있다(허버드, 178).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위해 여호와께 빌었던 그 복을 베푸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

⑼보아스의 특별한 호의를 입은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고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정확히 한 에바나 되었다**(2:17). 룻이 하루에 주운 이삭의 양은 적어도 15 일의 양식(22 리터/30 파운드)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남자 일꾼들이

밭 주인 보아스의 명령대로 의도적으로 줌에서 뽑아 버려 둔 이삭을 룻이 자유롭게 주울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룻은 2 절에서 밭에 나가 호의를 베푸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허락을 구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을 경험하였다. 1:22 의 "보리 추수 시작할 무렵"이란 어구가 암시하던 대로 나오미와 룻에게 기근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소망이 실제 현실로 다가왔다. 당분간 두 여인은 더 이상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12 절과 17 절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직접 상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허버드, 180). 하나님은 오늘도 룻처럼 "당신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당신님의 백성은 저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보라. 나는 결코 빚쟁이로 남지 않는다.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텅 비게 하지만, 나는 텅 빈 자들을 좋은 것들로 가득차게 하는 아버지이다. 내가 시작한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⑩룻과 보아스의 만남 자체를 다루는 2 막 2 장(2:4-17)에서 보아스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신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보아스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처신,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가라는 도전을 준다. 보아스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자신의 언행심사가 함께 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언약적 사랑을 보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공동체와 개인들의 삶에 그 모습이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얼굴을 갖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아는 그의 백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보배로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이다(출 19:5-6).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인정하며 그 자신의 여호와 신앙의 맥락에서 룻에게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신실한 보아스를 나오미와 룻의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다. 보아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룻은 밭의 주인 보아스의 분에 넘치는 호의와 친절을 받으며 그녀가 그녀의 신으로 선택한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의 참 모습을 보고서 그의 배후에 계신 여호와를 보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의 섭리의 손길을 느꼈을 것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간적 얼굴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간적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울리치, 67). 예수님은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전역에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게 된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셨다. 그러나 보아스와 달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신령한 음료와 양식으로 제공하셨다.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기념하는 것은 그의 불의한 백성을 위한 의로우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심으로써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토록 복되게 하셨다. 보아스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한 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신자들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훨씬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매일 매일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구별된 모습 곧 하나님의 인애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⑪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 만든 참 신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모압 여인이요 젊은 과부요 가난하여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관대함을 베풀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모험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만나도록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울리치, 68). 하나님을 보호자와 공급자로 믿는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섬길 수 있다. 보아스와 룻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관습적인 지혜를 뛰어 넘어 거룩한 모험을 하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질이요 참된 모습이다(울리치, 69).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요 14:9-11)."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위해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⑫보아스는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의 첫 말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길" 바라는 축복의 말이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추수를 잘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자들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보아스의 바람은 그를 위하여 추수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이었다.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녀의 백성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그녀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룻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다(2:11-12).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룻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다. 보아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에 사로잡혀 있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룻에 대한 그의 본능적 태도와 행동과 처신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시편 1 편) 것을 보여 주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율법과 사랑은 하나였다(퍼거슨, 79).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세부 사항도 보아스가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갈 5:14). 보아스의 손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애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다(퍼거슨, 80).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율법의 어구의 세부사항에 매여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과 달리, 보아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남겨두라는 율법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⒀보아스는 "인애와 성실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잠 3:3-4)" 삶을 보여주었다(퍼거슨, 77-78). 보아스는 남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는 배려심을 가지고 모압 여인 룻을 소중하게 여겼다. 보아스는 성과 민족의 구별이 아니라 신학의 구별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 룻의 현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고 있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그들이 만난 첫 날뿐만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2:8, 21)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이삭 줍는 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는 신변 보호 조치를 내렸다(2:9, 15, 16). 보아스는 룻이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훨씬 넘어선 위치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였고(2:15)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의도적으로 줌에서 조금씩 뽑아 흘리게 하여(2:16) 룻이 정말 많이(하루에 정확히 한 에바가 되는 양을) 주울 수 있게 하였다(2:17).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그의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룻이 목마를 때 물도 마시게 하였고(2:9)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점심 때 함께 식사하며 볶은 곡식을 베풀리 먹고 남길 수 있게 하였다(2:14). 보아스의 룻에 대한 존중, 신변 보호 조치, 물과 음식 제공,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한 배려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룻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룻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2:12) 자신이 직접 이삭 줍는 이방 여인 룻을 먼저 배려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되어 중보 기도의 응답자 역할을 하였다.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옷자락) 아래 피하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라고 여호와께 복을 비는 중보 기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그 중보 기도의 응답이 되는 행동을 직접

실천한 모습은 우리의 중보 기도의 차원을 반성하게 해 준다. 우리가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 위에 남겨 두신 몸(교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인격에 대한 척도는 육체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같은 세속적 기준에 의하여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고후 5:16)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약 2:1), 보아스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가에 있다(퍼거슨, 80-81).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한마디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서 느끼는 그 다른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빌 3:20)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모습이어야 한다.

⒁보아스의 매우 관대한 언행에 대한 룻의 반응은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한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한(벧전 3:4)" 모습을 보게 해 준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지만 자녀를 두지 못한 채 과부가 되는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룻은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들을 체험하였다.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과 어긋나 보이는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다(퍼거슨, 71). 온유는 "주님,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온유를 여호와를 향하여 가졌던 룻은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고 저를 돌보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하여 온유하고 정숙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불평과 원망 대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한다. 룻은 이삭 줍는 일을 허락받고 잠깐 쉰 것을 제외하고 열심히 이삭을 주웠다. 이러한 룻에게서 보아스의 종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는 일관성을 보았고 보아스도 그렇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룻이 열심을 품고 초지일관 하나님이 주신 의무들을 이행한 것은 그녀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모습이었다(퍼거슨, 73). 하나님의 은혜가 낳는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단장하는 모습들 중의 하나이다(퍼거슨, 75).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와 태도와 처신이 은혜를 경험한 것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감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귀한 성품들을 가져다준 것으로 확신한다.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길" 빌 때 룻의 삶의 새로운 원천을 지적하고 있었다. 여호와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출애굽시키시고(출 19:4) 그의 백성에게 안식과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사 63:14).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마 11:28-30). 시편 91 편의 저자처럼 룻이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 안에서 안식을 찾았을 때 여호와는 그녀의 삶에 언약적 신실하심을 다시 보이셨다. 보아스는 여호와를 그녀의 하나님으로 삼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룻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고귀한 성품을 보았던 것이다. 보아스의 축복을 듣고 룻은 보아스를 (어르신을 뜻하는) [아도니]라 부르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에 감사하는 예의 범절도 갖추었다. 룻이 기대를 훨씬 넘어선 보아스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2 막에서 룻이 주도적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선 것(거룩한 모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 것(겸손), 허락받고 열심히 이삭을 주운 것(거룩한 일관성), 이방 여인일지라도 돌보아 주는 보아스의 배려에 엎드려 절하고 하녀만도 못할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보아스의 친절에 예의를 갖추고 감사한 것(겸손, 온유, 정숙)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인품이다(cf. 딛 2:11-14).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인품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⒂이스라엘 사람 보아스가 이방 여인 곧 모압 여인 룻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은 우리로 복음의 포용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질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창 11:31) 다른 신들을 섬기는(수 24:2) 방랑하는 아람인(신 26:5)이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누리는 은택들을 드러내 보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울리치, 76).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수많은 잡족(출 12:38)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수함과 도덕적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신 7:2; 20:17)될 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정탐꾼을 살려준 가나안 여인 라합은 진멸에서 벗어났다(수 2 장; 히 11:31; 약 2:25). 기브온 족속도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려고 한 것이므로 진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왕상 17 장).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여호와께서 값없이 은혜로 나병을 고쳐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나아만이 그의 고국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도록 인도하였다(왕하 5 장).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듣고, 자신을 계시하며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한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았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요엘이 선언한 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욜 2:32)." 하나님의 백성 여부는 민족이나 국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학에 의해 정해진다(울리치, 80).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권리를 얻었다. 보아스는 룻을 민족에 근거하여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룻의 처지가 과부요 이삭을 주워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여인인 것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었다. 사람이 혈통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마 3:9; 눅 3:8; 요 8:39-40, 44; 롬 9:6-7).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중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요 3:3).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단독 사역으로 인해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마련한 구원의 열매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울리치, 78-79).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떠맡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다.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불의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하셨다. 속죄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양면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므로 그 자신을 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믿음은 믿는 주체인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신실함에 의해 좌우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행하게 한다.

(16)언약 공동체는 여호와와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이다. 그 언약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풍족하게 해주며,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울리치, 79).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한결같은 인애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 믿은 룻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룻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는" 의를(롬 3:21-22)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 2:9)."는 경고를 새겨듣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약 2:8)"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도록(약 2:1) 노력해야 한다. 언약 관계에 위협이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오는 것이든 밖에서 오는 것이든 현재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증언을 통하여 들어오게 될 미래의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울리치, 80).

◈ 2 막 3 장 (2:18-23)

본문

[WLC: 2 רות]

18 וַתִּשָּׂא וַתָּבוֹא הָעִיר וַתֵּרֶא חֲמוֹתָהּ אֵת אֲשֶׁר־לִקֵּטָה וַתּוֹצֵא וַתִּתֶּן־לָהּ אֵת אֲשֶׁר־הוֹתִרָה מִשָּׂבְעָהּ׃
19 וַתֹּאמֶר לָהּ חֲמוֹתָהּ אֵיפֹה לִקַּטְתְּ הַיּוֹם וְאָנָה עָשִׂית יְהִי מַכִּירֵךְ בָּרוּךְ וַתַּגֵּד לַחֲמוֹתָהּ אֵת
אֲשֶׁר־עָשְׂתָה עִמּוֹ וַתֹּאמֶר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 20 וַתֹּאמֶר נָעֳמִי לְכַלָּתָהּ בָּרוּךְ הוּא
לַיהוָה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וַתֹּאמֶר לָהּ נָעֳמִי קָרוֹב לָנוּ הָאִישׁ מִגֹּאֲלֵנוּ הוּא׃
21 וַתֹּאמֶר רוּת הַמֹּאֲבִיָּה גַּם כִּי־אָמַר אֵלַי עִם־הַנְּעָרִים אֲשֶׁר־לִי תִּדְבָּקִין עַד אִם־כִּלּוּ אֵת כָּל־הַקָּצִיר
אֲשֶׁר־לִי׃ 22 וַתֹּאמֶר נָעֳמִי אֶל־רוּת כַּלָּתָהּ טוֹב בִּתִּי כִּי תֵצְאִי עִם־נַעֲרוֹתָיו 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
23 וַתִּדְבַּק בְּנַעֲרוֹת בֹּעַז לְלַקֵּט עַד־כְּלוֹת קְצִיר־הַשְּׂעֹרִים וּקְצִיר הַחִטִּים וַתֵּשֶׁב אֶת־חֲמוֹתָהּ׃

[ESV: Ruth 2:18-23]

18 And she took it up and went into the city. Her mother-in-law saw what she had gleaned. She also brought out and gave her what food she had left over after being satisfied. 19 And her mother-in-law said to her, “Where did you glean today? And where have you worked? Blessed be the man who took notice of you.” So she told her mother-in-law with whom she had worked and said, “The man's name with whom I worked today is Boaz.” 20 And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Naomi also said to her, “The man is a close relative of ours, one of our redeemers.” 21 And Ruth the Moabite said, “Besides, he said to me, ‘You shall keep close by my young men until they have finished all my harvest.’” 22 And Naomi said to Ruth, her daughter-in-law, “It is good, my daughter, that you go out with his young women, lest in another field you be assaulted.” 23 So she kept close to the young women of Boaz, gleaning until the end of the barley and wheat harvests. And she lived with her mother-in-law.

[개역개정: 룻 2:18-23]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번역 (룻 2:18-23)

룻 2:18 룻이 [1] [그것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주운 것을 보았다.[2] 룻은 [1] 자기가 실컷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께 [1] 드렸다. 19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보살펴준 분이 복받기를 바란다." 그러자 그녀는[=룻은][3]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5] 해 준 분을 [4]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일하도록 [5] 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20 그 때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6]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1]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7] 중의 한 분이다." 21 그러자 모압 여인 [8] 룻이 말했다. "그분이 저에게 '내게 속한 [9] 젊은 일꾼들 [10]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 내게 속한 [9]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말이오].'라는 [11] 말까지 하였습니다." 22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나가[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12] 좋겠구나!" 23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에게 바싹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웠다. 그 후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13]

본문 비평

[1] 대명사를 명사로 밝혀 번역한 것들이다.

[2] BHS 2:18 의 각주 a 는 맛소라 본문의 וַתֵּרֶא[바테레] 대신 소수 중세 히브리어 사본과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이 וַתַּרְא[바타르]로 읽는 것을 지적한다. ותרא [바브-타브-레시-알렙]을 기본능동어간 동사(וַתֵּרֶא[바테레])로 본 맛소라 본문은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는[=나오미는] 그녀가[=룻이] 주운 것을 보았다"로 번역된다. 그러나 ותרא[바브-타브-레시-알렙]을 사역능동 어간 동사(וַתַּרְא[바타르])로 본 소수 중세 사본들과 페시타역 그리고 벌게이트역은 "그리고 그녀가[=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주운 것을 보여드렸다."로 번역된다. Barthélemy(*Critique Textuelle,* 133)는 두 개의 중세 사본만 이 독법을 보이며 그것들의 권위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룻이 나오미에게 그 주워 온 것을 보인 것으로 번역하였으나 본 주석은 맛소라 본문의 동사의 모음에 따라 나오미가 룻이 주워 온 것을 본 것으로 번역하였다.

[3] 맛소라 본문이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칠십인역은 "그러자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로 번역하였다. 칠십인역에서 대명사를 고유명사로 밝혀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통속적인 본문을 반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4] BHS 2:19 의 각주 a-a 는 히브리어 본문의 네 단어 אֵת אֲשֶׁר־עָשְׂתָה עִמּוֹ [에트 아셰르-아스타 이모]와 칠십인역의 ποῦ ἐποίησεν [푸 에포이쎈]이 대조되는 것을 지적한다. 맛소라 본문은 "그녀가 함께 일한 (사람)"을 뜻하지만 칠십인역은 "그녀가 일한 (곳)"을 의미하고 있다.

[5] 원문의 "일하다"라는 동사 עָשָׂה[아싸]는 "이삭 줍는 일"을 의미한다. 반복되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직역하면 각각 "그녀가 [그와] 함께 일한 분" "제가 [그와] 함께 일한"이 된다. 여기 "일하다"는 이삭을 주운 것을 말하므로 자칫하면 룻이 보아스와 함께 이삭을 주운 듯한 인상을 주기 쉽다. 그래서 보아스의 호의를 반영하기 위해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 "제가 일하도록 해 준"이라고 의역하였다. 새번역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u>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u>를 말하였다. "오늘 <u>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u>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라는 번역은 밭이라는 장소에 치중한 번역이다.

[6] BHS 2:20 의 유일한 각주 a 는 맛소라 본문의 לַיהוָה[라도나이]와 차이가 있는 독법, 즉 전치사 לְ[르]가 없는 한 중세 사본과 페시타역의 독법을 제시한다. 캠벨(88)은 구라틴역도 이 독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이는데 이 정보는 *BHS* 에 실려 있지 않다. 맛소라 본문은 "그[=보아스]가 여호와에 의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이지만 전치사 לְ[르]가 생략되면 "여호와께서 복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단 한 개의 중세 사본, 페시타역, 그리고 구 라틴역은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증거를 뒤엎을 만큼 강한 증거가 아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복 받으시길 원하노라."는 송영의 친숙함은 변경의 방향이 맛소라 본문에서 그 중세 사본으로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지해 준다. 이 축복문은 "그가 여호와에 의해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수동 의미를 갖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라고 능동으로 번역하였다.

[7] 전치사+명사+접미대명사로 이루어진 단어 מִגֹּאֲלֵנוּ[미고알레누]는 원래 מִגֹּאֲלֵינוּ[미고알레누]로 명사가 복수형인데 י[요드]가 생략된 불완전철자법(GKC 91k)으로 쓰인 것이고 전치사 מִן[민]은 부분을 나타낸다.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은 명사를 복수형으로 보고 전치사 מִן[민]을 부분의 의미로 본 것을 반영하는 번역이다.

[8] BHS 2:21 의 각주 a 는 맛소라 본문에 있는 הַמּוֹאֲבִיָּה[하모아비야] "모압 여인"이 칠십인역과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에 생략된 것을 지적하며 그 대신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에 "그녀의 시모에게"(πρὸς τὴν

πενθερὰν αὐτῆς [프로스 텐 펜세란 아우테스])라는 어구가 덧붙어져 있는 것을 제시한다. 룻기의 여러 곳에서 룻은 "모압 여인"으로 언급된다. 이 단어가 유대인 필사자에 의해 언젠가 무심코 첨가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역본의 대본으로부터 혹은 번역자나 개역자 자신에 의해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모압 여인"이란 용어가 2 장에서 룻의 처음 말과 마지막 말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은 "정체 확인의 수미쌍관법(inclusio of identity)"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Hubbard, 182, n. 7).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에 덧붙여진 어구("그녀의 시모에게")는 룻이 그녀의 시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문맥을 고려하면 군더더기 말에 지나지 않으며 암시적인 것을 명시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맛소라 본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9] "내게 속한"이란 번역은 אֲשֶׁר־לִי([아셰르-리] = 관계사 + 전치사 ל+ 접미대명사)를 직역한 것으로 명사에 붙는 접미대명사 "나의"와 같은 의미이다.

[10] "남녀 젊은 일꾼"을 의미하는 남성 복수명사 הַנְּעָרִים[하느아림]을 번역한 것이다.

[11] 원문은 "나의 젊은 일꾼 가까이에"라는 부분이 첫 부분에 오며 강조되어 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 "[1]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2]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라고 번역하고 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사절을 "[3] 내게 속한 모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말이오]."라고 덧붙여 번역하였다.

[12] 히브리어 형용사와 부사는 비교급, 최상급 어형을 따로 갖지 않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최상급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13] BHS 2:23 의 각주 a-a 는 맛소라 본문 וַתֵּשֶׁב אֶת([바테세브 에트]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대신 3-10 개의 중세 사본들과 벌게이트역이 동사에 다른 모음을 부여하고 다른 전치사를 동반한 וַתָּשָׁב אֶל ([바타쇼브 엘]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읽은 것을 지적한다. 두 이문의 두 번째 단어를 비교하면 문자 ת[타브]와 ל[라멧]이 쉽게 혼동되는 쌍이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맛소라 본문은 칠십인역의 지지를 받는다. 중세 사본들과 벌게이트역이 2 장에 묘사된 활동들이 끝날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지만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은 추수가 끝나고 한 동안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상황을 언급한다. 문맥상 두 이문간의 의미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칠십인역의 지지를 받는 맛소라 본문이 원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예비적으로 설명하는 1 장면(2:1-3)과 만남 자체를 다루는 2 장면(2:4-17)에 이어 나오는 3 장면(2:18-23)은 2 막의 마지막 장면으로 그 만남을 평가한다. 2 막 3 장에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평가하며 보아스를 일가붙이요 기업 무를 자라고 언급하고, 내레이터는 룻이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 곁에서 이삭을 주웠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룻이 추수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웠고 그 후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다는 새로운 사실을 언급한다.

⑵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일성을 보이는 2 막(2:1-23)은 1 장면에서 나오미의 허락을 얻은 후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온 것(2-3 절), 2 장면에서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보고한 대로 아침부터 보아스가 나타날 때까지(7 절) 계속 이삭을 줍고, 점심시간에(14 절) 보아스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고, 저녁때까지 이삭을 주운 것(17 절), 그리고 3 장면에서 집으로 돌아와 그날에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보고한 것(18-22 절), 그리고 룻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운 것(23 절)을 언급한다. 추수하는 것과 이삭 줍는 것을 언급하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내용의 통일성을 보이는 2 막에 대한 논의는 2 막 1 장의 문학적 구조 부분을 참조하라. 추수와 이삭줍기에 관련된 어구 이외에도 2 막 3 장에 2 막 2 장의 어구들이 반복되고 있다. 룻이 실컷 먹고 남겼던 것(18 절 cf. 14 절), 보아스의 보살핌(19 절 cf. 10 절),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것(21, 23 절 cf. 8 절) 등이 반복 사용되었다. "보리 추수가 마치기까지(2:23)"라는 어구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 즉 "보리 추수 시작할 때(1:22)"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며 빙 돌아 제자리에 온 느낌이 들게 한다.

⑶2 막 3 장의 내러티브 서론(2:18)과 내러티브 요약(2:23)은 룻과 나오미가 나눈 대화를 둘러싸고 있다. 룻과 나오미의 대화(2:19-22)는 다음과 같이 중앙에 "보아스가 가까운 일가붙이요 기업 무를 자"라는 것을 밝히는 축(X)을 갖는 역순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틀: 내러티브 서론(2:18)

A 나오미의 질문과 축복(2:19a-b): "어디에서? 보살핀 자에게 복이 임하시길!"

B 룻의 대답(2:19c-d): "보아스의 밭에서요!"

X 나오미의 축복과 진술(2:20a-b): "복받기를! 그는 우리의 일가붙이, 기업 무를 자!!"

B' 룻의 진술(2:21): 그가 "추수 끝까지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있으라!"고.

A' 나오미의 평가(2:22): "그래. 젊은 여자 일꾼들과 함께 나가 이삭 주우라!"

틀: 내러티브 결론(2:23)

각 절 주석 (룻 2:18-23)

40. 룻 2:18

1) 원문 문제

וַתִּשָּׂא וַתָּבוֹא הָעִיר וַתֵּרֶא חֲמוֹתָהּ אֵת אֲשֶׁר־לִקֵּטָה (룻 2:18)
וַתּוֹצֵא וַתִּתֶּן־לָהּ אֵת אֲשֶׁר־הוֹתִרָה מִשָּׂבְעָהּ׃

① 맛소라 본문의 וַתֵּרֶא와 וַתִּרְא의 차이는? 두 동사의 주어는?

② 동사들을 같은 어간끼리 모으면?

파알/칼 B:(4)

작위 능동 D:(1)

사역 능동 H:(2)

③ 각각 두 번 나오는 אֵת와 אֲשֶׁר의 기능을 설명하면?

④ מִשָּׂבְעָה의 분해는 B65s1 <שָׂבֵעַ, שָׂבַע인가 아니면 mscs1 < שֹׂבַע인가?

2) 주석

룻 2:18 룻이 [그것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주운 것을 보았다. 룻은 자기가 실컷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다.

① 내레이터는 2 막 3 장의 첫째 절(2:18)을 통하여 장면의 장소와 인물 사이에 전이가 있음을 보인다. 내레이터는 독자들을 밭에서 성으로, 그리고 보아스와 일꾼들로부터 나오미에게로 인도한다. 그는 룻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운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성읍으로 향한 것을 묘사한다. **룻은** 저녁 때까지 주워서 떨어 모은 한 에바나 되는 곡식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룻은 밭을 떠나 나오미에게로 가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간다. 룻은 밭의 위험들로부터 떠나 성읍의 안전함으로 돌아온다. 나오미는 온종일 룻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며 마음 졸이고 있었을 것이다. 룻이 성읍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주운 것을 보았다**. 나오미는 이삭 줍는 자가 보통 줍는 양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양의 곡식을 보았다. 이 진술은 19 절에 나오미가 놀라워하며 묻는 질문들을 기대하게 한다.

② 맛소라 본문의 동사 וַתֵּרֶא[바테레]는 기본능동(Qal, Pa'al) 어간이며 "그녀의 시어머니"가 주어이다. 칠십인역 전통은 일관되게 맛소라 본문을 따른다. (N)KJV, NASB, NRSV 등도 이를 따른다. 그러나 C. H. H. Wright 가 모은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기본능동(Pa'al/Qal) 어간 대신 사역능동(Hif'il) 어간 וַתַּרְא[바타르]를 보이고 케니코트(Kennicott)의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 사본은 "그녀의 시어머니" 앞에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 אֵת[에트]를 갖고 있다(Campbell, 104). 시리아역과 라틴어역은 이를 따른다. 본문의 흐름상 소수의 중세 사본과 두 역본의 독법이 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룻이 이 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일관된 주어이기 때문이다. RSV, JB, TEV, 개역, 공동번역, 새번역 등도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독법을 원래의 독법으로 볼 이유가 있다. 캠벨(105)이 주장한 대로 사본의 권위는 사역능동 어간을 보이는 소수 중세 사본보다는 기본능동 어간을 보이는 절대 다수의 사본에 있고, 빠른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중간에 주어가 바뀌는 것이 다른 구절(2:14-15; 4:13)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 앞에 대격 표시 불변화사([에트])가 없는 것은 {두 개의 대격 중의 첫 번째 것(특히 사람) 앞에 오는 אֵת[에트]의 생략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에(*IBHS,* 441-442) 결정적인 지지를 해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능동 어간을 지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준다. 새슨(58), 허버드(180, n. 3), 부시(133) 등도 기본능동 어간으로 읽는 것을 지지한다.

③ 며느리 룻이 주워 온 많은 양의 보리를 시어머니 나오미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보았다. 그때 나오미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만난다. 왜냐하면 **룻이 자기가 실컷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기** 때문이다. 점심 때 먹다가 남긴 볶은 곡식은 타르굼의 설명처럼 호주머니에서 넣어 두었다가 꺼냈을 것이다(Hubbard, 181). 이것은 분명 14 절의 묘사를 염두에 두고 다시 언급한 것이다. 실컷 먹고 남긴 것을 묘사하는 동사의 순서는 14 절과 18 절이 서로 역순대구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14 절의 וַתִּשְׂבַּע וַתֹּתַר [(A)바티스바-(B)바토타르]와 18 절의 הוֹתִרָה מִשָּׂבְעָהּ [(B')호티라-(A')미싸브아]는 "(A)배불리 먹다-(B)남기다-(B')남기다-(A')배불리 먹다"라는 역순대구 형식으로 나온다(Block, 671, n. 93). 14 절에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만을 언급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온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18 절에서 그것을 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다는 세부 사항을 묘사한 것은 내레이터가 독자와 나오미에게 놀라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오미가 식사를 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음식을 먹은 지 얼마만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볶은 곡식을 대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레이터가 묘사한 이 세부 사항은 룻이 시어머니를 헌신적인 사랑의 자세로 모시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집으로 가져와 시어머니에게 드린 일은 보아스가 11 절에서 룻을 칭찬하던 바로 그 모든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보아스가 11 절에서 나오미를 "당신의 시어머니"라고 부른 것처럼 내레이터가 18 절에서 나오미를 고유명사 나오미로 부르지 않고 "그녀의 시어머니"라고 언급한 것은 나오미와 룻의 가족적인 유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

④ 룻이 주워서 가져온 많은 양의 보리와 더불어 배불리 먹고 남긴 볶은 곡식은 1 장의 기근에 대한 반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가를 보여 준다. 룻이 그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운 것은 분명 놀랄 만한 일이다. 룻이 볶은 곡식을 가지고 온 일은 설명이 요구되는 충격적인 일이다. 사실 이것은 1 장부터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첫 번째로 좋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흥분하며 룻에게 다음 절에 나오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41. 룻 2:19

1) 원문 문제

וַתֹּאמֶר לָהּ חֲמוֹתָהּ אֵיפֹה לִקַּטְתְּ הַיּוֹם וְאָנָה עָשִׂית יְהִי מַכִּירֵךְ בָּרוּךְ (룻 2:19)
וַתַּגֵּד לַחֲמוֹתָהּ אֵת אֲשֶׁר־עָשְׂתָה עִמּוֹ וַתֹּאמֶר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

① אָנָה의 의미는 whither, to where 인가 아니면 where 인가?

② יְהִי מַכִּירֵךְ בָּרוּךְ의 동사+주어+술어(보어) 어순은 정상적인가? 이 문의 동사는 (　　)형이고 (　　)을 표현한다(WHS 184, 546).

③ 관계사가 들어있는 두 절 즉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와 אֲשֶׁר־עָשְׂתָה עִמּוֹ의 차이점은?

④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의 주부는 어디까지인가? 이 절은 정체를 밝히는 절(identifying clause WHS, 578)인가 아니면 종류를 밝히는 절(classifying clause, WHS 579)인가?

⑤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에 반복되는 자음과 모음은(Hubbard, 185, n. 24)?

2) 주석

룻 2:19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보살펴준 분이 복받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일하도록 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① 룻이 주워 온 많은 보리와 배불리 먹고 남긴 볶은 곡식을 보고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놀라며 장황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이 때 나오미가 한 말은 병행되는 두 개의 질문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오미의 첫 번째 질문은 "אֵיפֹה לִקַּטְתְּ הַיּוֹם [에포 리카트트 하욤] **[아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이고 두 번째 질문은 "וְאָנָה עָשִׂית [브아나 아씨트]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이다. 이 두 질문이 룻이 있었던 밭의 위치가 아니라 밭의 주인을 물어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뒤따르는 축복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진다(Bush, 133).[1]

② 첫 번째 질문에 사용된 의문사 אֵיפֹה([에포] "어디서?")는 17 절의 אֵיפָה([에파] "에바")와의 언어적 유희에서 선택되었는지도 모른다(Hubbard, 183).[2] 두 번째 질문에 사용된 의문사 אָנָה[아나]는 방향의 ה[헤]를 갖고 있다. אָנָה[아나]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디로? whither, toward/to where? cf. BDB, [a], p. 33"이지만 여기에서처럼 אָנָה[아나]가 방향의 의미를 갖지 않고 단순히 "어디에서? where? cf. BDB, [b], p. 34, 예: 왕하 6:6; 사 10:3)"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Bush, 130). 이것은 שָׁמָּה[샤마]가 보통 "거기로, 그곳으로, thither, to that place, thence"의 의미로 쓰이지만 어떤 경우(룻 1:7; 창 43:30; 수 2:1; 겔 48:35)에 שָׁם[샴]처럼 "거기에, there"의 의미로 쓰이는 것과 같다. 룻기에서 방향의 헤가 붙어 있는 שָׁמָּה[샤마](1:7)와 אָנָה[아나](2:19)가 이동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방언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Campbell, 105).

③ 드 바르트와 니다(de Waard & Nida, 41)는 첫 번째 질문이 보다 일반적이고 두 번째 질문이 보다 구체적인 영어의 어법에 따라 "Where did you glean today? Whose field have you been working

---

[1] Bush(133)은 주옹(E 60)이 אָנָה[아나]를 אֵת מִי[에트 미]로 고친 것이나 Stinespring(*JNES* [1944]: 101)이 "to what purpose? wherefore?"로 해석한 것이나 새슨(58-59)이 두 번째 질문을 "How did you accomplish it?"로 번역한 것이나 Gerleman 의 "Whither (did you go and) did you work?"나 NAB 의 "Where did you go to work?"란 번역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2] אֵיפֹה[에포]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 즉 창 37:16; 삼상 19:22; 삼하 9:4; 사 49:21; 렘 3:2; 욥 4:7; 38:4 등을 참고하라. אֵיפֹה[에포]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의문사는 אַי [아이](27 번)와 אַיֵּה [아예](45 번)이다.

in?"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많은 양의 곡식에 놀라며 장황하게 말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고려하면 두 질문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지 않고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Bush, 133).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예상 밖의 많은 양의 보리를 보고서 "오늘" "어디에서" 그토록 호의를 베푼 사람을 만나 "이삭을 줍는" "일을 했는지"를 궁금해했던 정황을 잘 파악하는 일이다.

④ 나오미는 "[아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고 묻고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룻이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의 말부터 한 것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며 보살펴 준 사람이 없었다면 그녀가 그토록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יְהִי מַכִּירֵךְ בָּרוּךְ [여히 마키레흐 바루흐] **너를 [이처럼] 보살펴준 분이 복받기를 바란다**." 나오미의 이 축복은 호의를 베푼 사람을 위한 복의 선언인 동시에 그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캠벨(105)과 허버드(184)와 블락(671)이 나오미의 축복에서 "מַכִּירֵךְ[마키레흐] 너를 보살펴준 분"이 강조되어 있고 어순이 비정상적이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Bush, 134). 왜냐하면 희구(간접명령)형 동사를 가질 때 정상적인 어순은 나오미가 말한 축복처럼 동사+주어+보어/목적어이기 때문이다(WHS 184, 546; 삼상 1:23). 이 곳 이외에 היה[하야]의 간접명령형 יְהִי[여히]를 사용한 형식의 축복은 왕상 10:9 과 병행 본문 대하 9:8 그리고 잠 5:18 에만 나온다.[3] 이것이 통계적으로 적게 사용된 형식이라고 해서 특이한 축복의 형식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4] 룻이 10 절에서 보아스에게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자신을 보살펴 주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했던 동사가 나오미가 19 절에서 보아스를 축복할 때 다시 나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절에서 룻이 사용한 부정사 לְהַכִּירֵנִי[르하키레니]와 여기 19 절에서 나오미가 사용한 분사 מַכִּירֵךְ[마키레흐]는 둘 다 נכר[나하르]의 사역능동 어간으로 어근과 어간이 같다. 이 원거리 언어유희는 보아스의 정체를 모르는 가운데 빈 나오미의 축복 가운데 보아스가 은연 중에 암시되고 보아스의 존재가 두 여인의 사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Hubbard, 184). 독자들은 나오미가 축복할 때

---

[3] [왕상 10:9 = 대하 9:8] יְהִי יְהוָה אֱלֹהֶיךָ בָּרוּךְ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잠 5:18] יְהִי־מְקוֹרְךָ בָרוּךְ 네 샘[=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으로 복되게 하라.

Cf. 렘 20:14 **אָרוּר** הַיּוֹם אֲשֶׁר יֻלַּדְתִּי בּוֹ יוֹם אֲשֶׁר־יָלְדַתְנִי אִמִּי **אַל־יְהִי בָרוּךְ** 의 첫 번째 절(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에는 יְהִי[여히]가 없으나 두 번째 절(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은 יְהִי[여히]앞에 부정어 אַל[알]이 붙어 있다.

[4] 사실 이보다 빈번하게 사용된 형식은 창 9:26; 14:19; 신 28:3; 삿 17:2; 룻 2:20; 3:10; 삼상 15:13; 23:21; 삼하 2:5; 시 115:5 등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가 없는 (לַיהוָה X בָּרוּךְ [바루흐 X (라도나이)] 형식이다(WHS 551). 성경 이외의 비문에서도 자주 사용된 이 형식의 예문을 위해서 Block, 672, n. 102 을 참고하라.

보아스의 정체를 모르면서 은연 중에 보아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 우연의 일치를 생각하며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⑤ 나오미의 질문과 축복을 듣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을 이야기하면서**(간접화법) **"오늘 제가 일하도록 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직접화법). 직접화법에 인용된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 [셈 하이시 아셰르 아씨티 이모 하욤 보아즈]에서 마지막 단어만 술어이고 앞의 단어들은 주부(主部)를 이루고 있다.[5] 내레이터가 나오미의 질문에 룻이 직접 대답한 것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먼저 간접화법으로 룻이 대답한 사실을 말하고 직접화법을 통하여 간접화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쓸데없는 반복이 아니고 그의 분명한 의도를 잘 파악하도록 도움을 준다.

⑥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אֲשֶׁר־עָשְׂתָה עִמּוֹ [아셰르 아스타 이모])을 말한 사실을 내레이터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다시 그 간접 화법의 일부 어구를 반복하며 직접화법을 통해 "**오늘 제가 일하도록 해 준**(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아셰르 아씨티 이모 하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전달한 것은 몇 가지 효과가 있다(Hubbard, 184-85). 첫째로, 직접화법에 간접화법의 일부 어구가 반복된 것은 내러티브의 흐름을 늦추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이러한 반복은 주부의 마지막에 부가된 부사어 "**오늘**"과 더불어 정체를 확인하는 절(WHS 578)의 주어를 길어지게 함으로써 한 단어로 된 보어 즉 보아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극적으로 알려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독자들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서 나오미에게 밝혀지기를 기다려온 이름인 보아스가 강조되며 극적으로 밝혀졌다.

⑦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룻의 대답이 나오미의 질문(장소)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축복(사람)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사실 룻의 대답은 그녀가 일했던 장소로부터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에게로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룻의 대답은 독자의 관심을 2 장에서 내레이터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인물에게 기울이게 하였다. 보아스와 룻의 대화 가운데 보아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룻이 보아스란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보아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Block, 671). 내레이터에 의해 독자에게(1 절) 소개되었고 룻이 만났던(8-16 절) 인물 보아스가 극적으로 나오미에게 알려지고(19 절) 나오미의 세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없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며 보아스를 가리킬 때 "הָאִישׁ[하이시] **그 사람, 그 양반**"이라 한 것(2:19, 2:20; 3:16, 18)은 자리에 없으나 사회적 위치가 더 높은 남자를 두 여인이 공손하게 지칭하는 태도를 반영하는지도 모른다(Block,

[5] Hubbard(185, n. 24)가 지적한 것처럼 이 글에 후음, 모음 *a*와 *i*; 자음 신(שׁ)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유의하라.

699; Hubbard, 224). “앞집 양반 어디 가시는 모양이던데.”라는 말에 나오는 “양반”처럼 “나이 먹은 남성을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로[6] 사용된 것과 비슷한 것 같다.

42. 룻 2:20

1) 원문 문제

(룻 2:20) וַתֹּאמֶר נָעֳמִי לְכַלָּתָהּ בָּרוּךְ הוּא לַיהוָה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וַתֹּאמֶר לָהּ נָעֳמִי קָרוֹב לָנוּ הָאִישׁ מִגֹּאֲלֵנוּ הוּא׃

① בָּרוּךְ הוּא לַיהוָה에서 전치사 ל의 의미는? 이 수동 구문에 대한 능동형은 “May LORD bless him.”인가 아니면 “I bless him to Yahweh i.e., I commend him for blessing to Yahweh. (IBHS 11.2.10.d, p. 207)”인가? “Blessed (be) he by LORD → May he be blessed by LORD.”와 “May he be pronounced blessed to Yahweh.”라는 번역 중 어느 것이 옳은가?

②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에서 אֲשֶׁר는 형용사절을 인도하는 관계사인가 아니면 부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인가? אֲשֶׁר의 선행사는 여호와(Block, 673; Morris, 280; de Waard-Nida, 42; Campbell, 106)인가 아니면 보아스(Bush, 136; Hubbard, 186; Rebera, "Yahweh or Boaz," *BT* 36 [1985]: 317-27)인가? 동사 עָזַב의 주어는 אֲשֶׁר의 선행사인가 아니면 חַסְדּוֹ인가? עָזַב의 주어가 결정되면 אֶת가 전치사인지 대격 표시 불변화사인지 결정되는데 그 차이점은?

③ 룻 2:20 과 창 24:27 과 삼하 2:5 를 서로 비교해 보면 둘 중 어느 것이 룻 2:20 과 똑같은 구문인가?

(룻 2:20) בָּרוּךְ הוּא לַיהוָה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창 24:27) בָּרוּךְ יְהוָה אֱלֹהֵי אֲדֹנִי אַבְרָהָם
אֲשֶׁר לֹא־עָזַב חַסְדּוֹ וַאֲמִתּוֹ מֵעִם אֲדֹנִי אָנֹכִי בַּדֶּרֶךְ נָחַנִי יְהוָה בֵּית אֲחֵי אֲדֹנִי
(삼하 2:5) בְּרֻכִים אַתֶּם לַיהוָה
אֲשֶׁר עֲשִׂיתֶם הַחֶסֶד הַזֶּה עִם־אֲדֹנֵיכֶם עִם־שָׁאוּל וַתִּקְבְּרוּ אֹתוֹ

④ 룻과 나오미를 가리키는 “살아 있는 자들”이란 단어가 남성 복수형(הַחַיִּים)인 이유는(cf. חַיָּה 창 8:7; חַיּוֹת 레 14:4)? “죽은 자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란 반대되는 짝을 통하여 엘리멜렉 가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법(a figure of speech)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⑤ עָזַב חֶסֶד의 반대되는 표현은 1:8 에 있는 대로 חֶסֶד ( )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표현하는 구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에서 אֶת는 한정된 직접 목적어 앞에 오는 불변화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 )과 의미가 같다.

---

[6] 남영신, **국어사전**, 1497.

⑥ קָרוֹב לָנוּ הָאִישׁ מִגֹּאֲלֵנוּ הוּא에서 주어와 술어(보어)는? 이 명사문의 어순은(WHS 578-579) 종류를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정체를 밝히는 것인가? מִגֹּאֲלֵנוּ에서 전치사 מִן의 용법과 불완전철자법(GKC 91k)을 고려하여 명사의 수를 말하면?

2) 주석

룻 2:20 그 때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다."

① 룻의 입으로부터 보아스란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보아스를 축복한다. 내레이터가 18-19 절에서 나오미를 "(그녀의) 시어머니"로 부른 것처럼 여기 20 절에서 룻을 "(그녀의) 며느리"로 부른 것은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의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생각하게 해 준다. 나오미의 두 번째 축복 בָּרוּךְ הוּא לַיהוָה [바루흐 후 라도나이]를 구문적으로 설명하면 בָּרוּךְ[바루흐]는 기본능동 어간 수동분사로서 보어이고, 대명사 הוּא[후]는 주어이고 그 선행사는 보아스이며, לַיהוָה[라도나이]의 ל[라멧]은 "to, for, ~에게, ~위하여"의 의미가 아니라 "by, ~에 의하여"의 의미를 가지며 여호와가 수동 구문의 행위자인 것을 나타낸다. 수동 구문이므로 직역하면 "그가 여호와에 의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 May he be blessed by LORD!"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May LORD bless him!"처럼 능동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축복에 대한 IBHS 11.2.10.d(p. 207)의 "May he be pronounced blessed to Yahweh. 여호와께 복되다고 선언되기를"이라는 번역은 "축복하다 bless"를 "칭송하다 praise"의 의미로 보고 우가릿어, 페니키아어, 아람어, 아랏 편지의 히브리어에는 나오는 능동형 "I bless him to Yahweh i.e., I commend him for blessing to Yahweh 내가 그를 여호와께 칭송하다, 내가 그의 복을 여호와께 칭찬하다"의 수동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어에는 "I bless him to Yahweh."와 같은 능동 구문의 축복 형식이 전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IBHS 의 번역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Bush, 136).

② 캠벨(88)은 축복문 "בָּרוּךְ הוּא לַיהוָה [바루흐 후 라도나이]"에 나오는 לַיהוָה[라도나이]의 ל[라멧]이 한 중세 사본(one de Rossi manuscript)과 시리아어역과 구라틴역에 생략되어 있는 것을 지적한다. ל[라멧]이 생략되면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여호와 앞에 ל[라멧]이 생략된 축복 즉 בָּרוּךְ הוּא יְהוָה [바루흐 후 아도나이]의 보다 문자적인 번역은 "그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복 받으시길 원하노라"가 된다. 한 중세 사본처럼 대명사와 동격인 명사가 주어로 나오는 이런 형식의 축복은 맛소라 본문의 어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동격인 두 개의 명사를 사용한 축복 형식은 사 19:25 의 "בָּרוּךְ עַמִּי מִצְרַיִם [바루흐 아미 미츠라임] 나의 백성, 곧 이집트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 받으시길 원하노라"에 대한 보편적인 형식은 창 9:26 에서 보는 것처럼 대명사 הוּא[후]가 없는 בָּרוּךְ יְהוָה [바루흐 아도나이]이다. 본문 비평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단 한 개의 중세 사본, 시리아어역, 그리고 구라틴역은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증거를 뒤엎을 만큼 강한 증거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 받으시길 원하노라"라는 송영의 친숙함은 맛소라 본문을 한 중세 사본처럼 바꾸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ל[라멧]이 생략된 것을 원본으로 볼 이유가 없다.

③ 나오미는 여호와의 복이 보아스에게 임하기를 빌면서 אֲשֶׁר[아셰르] 절을 통하여 축복의 근거와 이유를 말한다.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아셰르 로 아자브 하스도 에트-하하임 브에트-하메팀]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אֲשֶׁר[아셰르]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로 볼 수도 있다.[7] 어느 쪽으로 보든 해석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 절에 나오는 동사 עָזַב[아자브]의 주어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④ 먼저 עָזַב[아자브]의 주어로 חַסְדּוֹ[하스도]를 보는 입장을 살펴보자. 절 전체를 형용사절로 보면 관계 대명사 אֲשֶׁר[아셰르]의 선행사는 여호와이거나 보아스이며 חַסְדּוֹ[하스도]의 접미대명사(וֹ-his)도 여호와나 보아스를 가리킨다. [N]RSV 는 여호와를 선행사로 보고 "Blessed be he by the Lord, <u>whose kindness</u>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그의 친절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버리지 않은 여호와에 의해 그가 복 받기를"이라고 번역하였다. 절 전체를 이유의 부사절로 본다면 "Blessed be he by the Lord, <u>since his kindness</u>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그의 친절이 죽은 자와 산자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에 의해 그가 복을 받기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חַסְדּוֹ([하스도] "그의 한결같은 인애")가 주어라면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에트-하하임 브에트-하메팀] "죽은 자와 산자")에서 אֶת[에트]는 한정된 직접 목적어 앞에 오는 불변화사로 우리말의 토씨 "-을/를"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문맥은 동사 עָזַב([아자브] "버리다, 포기하다")가 사물(impersonal subject, 즉 חַסְדּוֹ[하스도] "한결 같은 인애")보다는 사람/하나님(personal subject, 즉 여호와나 보아스)을 주어로 갖는 것을 지지한다. 보아스나 하나님이 주어라면 אֶת[에트]는 한정된 직접 목적어 앞에 오는 불변화사가 아니고 전치사로 עִם [임]처럼 "함께, 에게"의 의미를 갖는다.

---

[7] GBH 170f 에 의하면 강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יַעַן이 אֲשֶׁר와 함께 32 번, אֲשֶׁר없이 27 번, כִּי와 함께 7 번 쓰였다. GKC 158b 는 יַעַן אֲשֶׁר(32x)나 יַעַן כִּי(7x)가 יַעַן(27x)이나 כִּי나 אֲשֶׁר로 축소되어 이유를 나타낸다고 언급한다.

⑤ 이제 עָזַב[아자브]의 주어가 여호와인지 보아스인지 살펴보자. 형용사절의 관점에서 보면 אֲשֶׁר의 선행사가 주절의 대명사 הוּא(보아스)인지 명사 יְהוָה(여호와)인지 결정해야 하고 부사절의 관점에서 보면 동사의 주어가 주절의 선행사 중에서 보아스를 받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받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 4 가지 경우를 번역을 통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가 여호와에 의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 (형용사절, 선행사 = 보아스)
- 그가 여호와에 의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사절, 주어 = 보아스)

  cf. Bush, 130: May the LORD bless <u>him</u>, for/since <u>he</u> has not neglected to show kindness to the living and the dead!

  cf. 새번역: 그는 틀림없이 주께 복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cf. 개역: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cf. NIV: "The LORD bless him!"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u>He</u> has not stopped showing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he dead."

  부시(136)는 현대 영어 번역본 중에서 NIV 만이 보아스를 관계사의 선행사로 옳게 보았다고 하였으나 NIV 의 번역에서 대명사 He 가 보아스를 받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받는지는 불분명하다. 물론 대명사가 보다 가까운 선행사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어 He 의 선행사를 축복문에서 보아스를 가리키는 him 으로 볼 수 있다.
-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는] 여호와에 의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 (형용사절, 선행사=여호와)

  cf. NASB: May he be blessed of the LORD who has not withdrawn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o the dead.
- 그가 여호와에 의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시는 것을 그치시지 않기 때문이다. (부사절, 주어=여호와)

  cf. 현대인 성경: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cf. 쉬운성경: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⑥ 본 주석의 번역은 אֲשֶׁר[아셰르]가 יַעַן אֲשֶׁר [야안 아셰르]의 축소된 형이고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로 보았다.[8] 그리고 동사 עָזַב[아자브]의 주어를 앞에 있는 주절의 대명사 אוּה[후]가 가리키는 보아스로 보았다. 우선 문맥은 주절과 부사절의 중심 주체가 보아스인 것을 지지한다. 룻으로부터 밭의 주인이 "보아스"란 말을 듣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위해 축복한 것이므로 보아스를 가리키는 대명사 אוּה[후]가 주절의 주어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절의 주어도 보아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뒤에 계속되는 절에도 보아스가 주어로 나오며 여전히 중심 주체 역할을 하는 것도 이를 지지한다.

⑦ 여호와를 선행사로 보는 학자들은 룻 2:20 이 창 24:27 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9] 보아스를 선행사로 보는 학자들은 룻 2:20 이 삼하 2:5 과 구문이 같다고 주장한다.[10] 룻 2:20 과 창 24:27 과 삼하 2:5 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자.

(룻 2:20) בָּרוּךְ הוּא לַיהוָה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그가 여호와에 의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 24:27) בָּרוּךְ יְהוָה אֱלֹהֵי אֲדֹנִי אַבְרָהָם

אֲשֶׁר לֹא־עָזַב חַסְדּוֹ וַאֲמִתּוֹ מֵעִם אֲדֹנִי אָנֹכִי בַּדֶּרֶךְ נָחַנִי יְהוָה בֵּית אֲחֵי אֲדֹנִי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길 원한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인애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신

(삼하 2:5) בְּרֻכִים אַתֶּם לַיהוָה

אֲשֶׁר עֲשִׂיתֶם הַחֶסֶד הַזֶּה עִם־אֲדֹנֵיכֶם עִם־שָׁאוּל וַתִּקְבְּרוּ אֹתוֹ

너희가 여호와에 의해 복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인애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⑧ 창 24:27 은 주절과 형용사절로 이루어졌고 삼하 2:5 은 주절과 부사절로 이루어져 있다. 창 24:27 의 אֲשֶׁר[아셰르]는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יְהוָה[아도나이]를 수식하지만 삼하 2:5 의 אֲשֶׁר[아셰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창 24:27 의 주절은 "<u>여호와 =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u>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한다. 형용사절은 송영의 대상인 여호와를 수식하며

---

[8] GBH 170e: 창 30:18; 31:49; 34:13, 27; 삼상 15:15; 26:23; 왕상 3:19; 창 42:21; 삼상 26:16; 삼하 2:5, 6. cf. GKC 158b: 창 30:18; 31:49; 34:13, 27; 삼상 15:15; <u>20:42</u>; 26:16, 23; 왕상 3:19; <u>왕상 8:33; 호 14:4; 슥 1:15.</u>

[9] Block, 673; Morris, 280; de Waard-Nida, 42; Campbell, 106; Sakenfeld, *The Meaning of Hesed*, 104-107.

[10] Glueck, *Ḥesed in the Bible*, 41-42; Bush, 136; Hubbard, 186; Rebera, "Yahweh or Boaz," *BT* 36 [1985]: 317-27.

"나의 주인에게 그의 인애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신 분"으로 추가 묘사된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에게 그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이에 비하여 삼하 2:5 의 주절은 "여호와에 의하여 너희(=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한다. 부사절의 동사 עֲשִׂיתֶם[아씨템]은 2 인칭 남성 복수형이고 그 주어는 주절의 대명사 אַתֶּם[아템]을 가리키고 있다. 부사절은 축복을 비는 이유로 "너희들이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인애를 베풀어 그들 장사하였기 때문"인 것을 든다. 주절에 두 개의 선행사(הוּא[후]와 יְהוָה[아도나이])가 있고 사람(그=보아스)이 축복의 대상인 룻 2:20 과는 달리 창 24:27 에는 한 개의 선행사(יְהוָה[아도나이])만 있을 뿐이고 여호와가 송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삼하 2:5 은 룻 2:20 과 똑같이 여호와에 의해 사람(너희)들이 복 받기를 바라는 주절과 그 축복의 이유를 밝히는 부사절이 나온다. 따라서 룻 2:20 과 같은 구문을 갖고 있는 것은 창 24:27 이 아니라 삼하 2:5 이다. 다시 말하면 삼하 2:5 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대상 즉 주어 אַתֶּם[아템]과 룻 2:20 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대상 즉 주어 הוּא[후]는 모두 대명사이며 두 구절 모두 대명사 주어 바로 다음에 수동구문의 행위자를 표현하는 לַיהוָה([라도나이] "여호와에 의하여")가 뒤따른다. 삼하 2:5 의 축복의 이유를 밝히는 부사절의 동사 עֲשִׂיתֶם[아씨템]이 주절의 대명사 אַתֶּם[아템]을 선행사로 받듯이 룻 2:20 의 부사절의 동사 עָזַב[아자브]가 선행사로 주절의 대명사 הוּא[후]를 받는다. 따라서 룻 2:20 과 삼하 2:5 은 구문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⑨ 여기 עָזַב חֶסֶד([아자브 헤쎄드] "한결같은 인애를 버리다")의 반대되는 표현은 1:8 에 나오는 עָשָׂה חֶסֶד([아싸 헤쎄드]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다")이다. 19 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서 축복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를 한결같은 인애라고 간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나오미는 그의 행동이 그의 엘리멜렉과의 친족관계로 인해 맺어진 두 여인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한결같은 인애로 보며 다시 한번 축복하였다. 이런 연유에서 나오미의 축복 다음에 보아스가 가까운 일가붙이요 기업 무를 자들 중의 하나라는 설명이 뒤따라 나온다. 이것은 보아스의 행위가 나오미에 의해 아주 적절하게 한결같은 인애로 간주된 것을 드러낸다. 부시(135)는 싸켄펠트(Sakenfeld, *The Meaning of Hesed*, 233-34)가 한결같은 인애가 어떤 행위인지를 명시한 것을 적용하며 다음 4 가지 사항을 통하여 보아스의 행위를 한결같은 인애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⑴나오미는 보아스의 행위가 현존하는 관계 즉 보아스가 친족(2:20)이라는 관계에서 연유된 것을 알고 있다. ⑵보아스의 행위는 가난에 처했으나 아무런 수단이 없어 절실하고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할 두 여인에게 한 것이다. ⑶보아스의 행위는 친족으로서 책임감은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⑷보아스는 소문을 들어 알게 된

룻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그녀를 보통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훨씬 넘어선 친절과 자비로 대하였다.

⑩ 보아스가 이러한 **한결같은 인애를 버리지 않은** 대상으로 언급된 **살아있는 자들**이란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고 **죽은 자들**이란 엘리멜렉, 말론, 기룐을 가리킨다. 캠벨(106)이 "살아있는 자들"이 룻과 나오미를 구체적으로 가리킨다면 남성 복수형 대신 여성 복수형이 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든 여자든 남성 복수형(חַיִּים[하임])만이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 여성형(חַיָּה[하야] 창 8:7; חַיּוֹת[하요트] 레 14:4)은 동물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Bush, 135). 따라서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남성형이지만 나오미와 룻을 가리킬 수 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서로 반대되는 짝을 통하여 엘리멜렉 가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법(a figure of speech)인 양극포괄법(merismus)이다. 이 문예적 기교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1:16cd)"이란 룻의 말이 서로 정반대되는 "הלך[할라흐] 가다"와 "לין[린] 밤을 보내다, 머물다, 묵다"란 두 단어를 사용하여 나오미가 있는 모든 곳에 살아 있는 동안 함께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할 때 한 번 논의한 적이 있다.

⑪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한 것과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을 만큼 많은 볶은 곡식을 준 것이 살아있는 자들 즉 룻과 나오미에게 한결같은 인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죽은 자들 즉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룐에게 한결같은 인애라고 할 수 있는가? 죽은 자들은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계속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Hubbard, 187).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제비뽑아 얻은 땅에서 자자손손 후손들이 보존되며 그 기업을 물려받고 살기를 원하셨다.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된 나오미와 룻이 생존하는 한 죽은 남편들은 살아 있는 셈이 된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양극 포괄법을 이루며 엘리멜렉 가문 전체를 지칭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⑫ 한 걸음 더 나아가 허버드(187)는 나오미의 축복의 말 가운데 1:8 의 기원처럼 보아스가 룻의 잠재적 남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룻 2 장과 창 24 장의 유사함이 나오미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알터(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58-60)가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약혼이라는 전형적인 장면(cf. 창 24:10-61; 29:1-20; 출 2:15b-21)이란 관습에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한 것도 나오미의 말이 결혼을 암시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형적인 장면의 사용이 룻을 족장들과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하며 룻이 미래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가의 할머니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한다는 알터(60)의 관찰은 옳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약혼 장면이란 관점에서 룻기를 본 알터의

문예적 분석은 옳은 것인가? 그리고 나오미의 축복 가운데 룻의 미래의 남편감으로 보아스가 암시되었다는 허버드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 우물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 부부가 되는 전형 장면에 나오는 이삭(을 위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의 경우와 이삭 줍는 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전자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반면 후자는 여자가 남자를 만난다. 전자는 남자가 여자를 이방 땅에 있는 우물에서 만났다면 후자는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남자를 만난다. 알터(58)의 설명대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성과 지리에 있어서 약혼 전형장면들과 180 도 반대 방향이므로 약혼 전형장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허버드의 설명은 기발하지만 전형적인 장면이란 문예적 관습에 룻기를 짜맞추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정말로 나오미가 룻이 주워 온 많은 보리와 남은 볶은 곡식 배후에 있는 관대한 친족 보아스의 존재를 며느리의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미래의 후사를 낳도록 해 줄 룻의 남편감이고 고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 줄 사람인 것을 염두에 두고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것으로 말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나오미의 말에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런 해석보다는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 보통 의무를 넘어선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준 것이 죽었지만 살아 남아있는 식구들을 통해 계속 삶이 이어지게 되는 엘리멜렉(즉 엘리멜렉 가문)을 위한 것임을 나오미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복을 빌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나오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하여 한결같은 인애를 버리지 않은 보아스가 여호와에 의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때 나오미는 보아스 안에 단지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온전하게 기꺼이 이행하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을 내다본 것이다.

⑬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한결같은 인애가 나오미에게 알려졌을 때 나오미가 축복한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ush, 142). 친족으로 룻을 보살피고 도우려고 했던 보아스의 한결같은 인애를 2 막에서 보지 못했다면 3 막에서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룻의 안식을 위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베푼 보아스의 한결같은 인애는 앞으로 나오미가 룻의 안식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의 성공을 좌우하는 기초를 형성한다. 만일 인애를 베푼 주체를 보아스로 보지 않고 여호와로 본다면 1:20-21 에서 여호와를 괴롭히시는 분으로 불평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아무런 교정의 과정도 없이 여호와의 한결같은 인애를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은 플롯을 망치고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반절정(anticlimax)으로 떨어지게 한다(Bush, 142 에 인용된 Rebera, *BT* 36[1985]: 324). 여호와에 대한 찬양은 여기 나오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오미의 불평(1:20-21)을 들었었던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4:14)에 의해 이루어진다.

⑭ 계속해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유를 **룻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קָרוֹב לָנוּ הָאִישׁ [카로브 라누 하이시])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다**(מְגֹאֲלֵנוּ הוּא [미고알레누 후])." 나오미의 말은 각각 술어-주어의 어순을 갖고 있고 종류를 밝히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명사문이다. 첫 번째 절의 술어는 קָרוֹב לָנוּ([카로브 라누]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이고 주어는 הָאִישׁ([하이시] 그 사람)이다. 두 번째 절의 술어는 מְגֹאֲלֵנוּ([미고알레누]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고 주어는 הוּא([후] 그)이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보아스는 2:1 에서 내레이터에 의하여 מידע (크티브 [므유다] 친지)로 소개되었고 여기 2:20 에서 나오미에 의하여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קָרוֹב[카로브])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גֹּאֵל[고엘] 2:20)"으로 언급되고 3:2 에서 또 나오미에 의해 "우리의 친척 מֹדַעְתָּנוּ[모다타누]"이라고 언급된다. 그 이후부터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 גֹּאֵל[고엘] (3:9, 12)"로 언급된다. 이것은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담당할 역할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⑮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절(2:20)에서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혈족(kinship) 관계 용어를 써서 "קָרוֹב לָנוּ הָאִישׁ [카로브 라누 하이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이라고 말했다. קָרוֹב[카로브]는 욥 19:14 에서 מְיֻדָּע[므유다]의 병행어로 나오고, 시 15:3 에서 רֵעַ[레아]와 병행어로 나오며 시 38:11[MT 12]에서 אֹהֵב[오헤브]와 רֵעַ[레아]의 병행어로 나온다.[11] 나오미가 자신과 룻을 처음으로 "**우리**"라고 한 것은 룻의 사회적 모호함이 사라지고 룻이 한 가족으로 모든 혜택을 함께 받아 누리는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Hubbard, 189).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가족을 이룬 것을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여 나오미는 내레이터가 남편 쪽의 친지라고 소개했던 보아스를 **우리의 가까운 일가붙이**라고 언급한다.

⑯ 그리고 더 나아가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 מְגֹאֲלֵנוּ הוּא [미고알레누 후]"이라고 설명한다. גֹּאֵל([고엘] "**기업 무를 자**")이란 단어는 원래 법률 용어로 쓰일

---

[11] [욥 19:14] 내 친척(קְרוֹבָי[크로바이], 개역: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מְיֻדָּעַי[므유다아이])은 나를 잊었구나

[시 15:3] 그 이웃(רֵעֵהוּ[레에후], 개역: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קְרֹבוֹ[크로보])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시 38:11 (MT 12)] 내가 사랑하는 자(אֹהֲבַי[오하바이], 개역: 나의 사랑하는 자들)와 나의 친구들(רֵעַי[레아이])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קְרוֹבַי[크로바이])도 멀리 섰나이다

때 ⑴속건제에 따른 배상을 받음(민 5:5-8; cf. 레 6:1-7[MT 5:20-26]), ⑵피의 보수(민 35:9-28; 신 19:6-13; 수 20:2-9), ⑶재판에서 정의 실현을 도움(욥 19:25; 시 119:154; 렘 50:34), ⑷사람의 무름(레 25:47-55), 그리고 ⑸기업의 무름(레 25:24-25; cf. 렘 32:1-15)과 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관습은 민족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일을 반드시 고쳐져야 할 파괴로 여기며 사람이든 기업이든 무르는 일을 통해 원래의 민족적 온전함이 회복되도록 하는 민족적 유대감(tribal solidarity)에서 비롯된 것이다(Hubbard, 189). 위에 언급한 기업 무를 자의 다섯 가지 법적 책임 중에서 처음 네 가지는 룻기의 사건과 그 사회적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섯 번째의 기업을 무르는 책임이 4 장의 성문에서의 법적 장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기는 하지만 나오미가 여기서 사용한 גֹּאֵל([고엘] "기업 무를 자")은 법률적인 어떤 분야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자라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Bush, 137). 왜냐하면 나오미가 다섯 번째의 법적 책임, 즉 기업 무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보아스나 나오미가 그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며 양식을 위해 룻이 굳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⑰ 동사 גאל[가알]의 일반적인 의미는 "한 때 있었으나 잃어버린 사람이나 사물을 적법하게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גֹּאֵל[고엘]은 친족을 어떤 악한 일, 즉 보다 일반적인 악(창 48:16 모든 환난; 시 107:2 대적; 애 3:53-58 죽음과 스올)과 보다 구체적인 악(시 72:14 압박과 강포; 사 54:4-8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아스가 그의 밭에 온 룻을 환영하고 점심을 배불리 먹도록 하고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룻과 나오미를 빈궁에서 벗어나도록 구해 주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룻도 3:9 에서 보아스를 "기업 무를 분"이라고 불렀다. 4:14 에서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기업 무를 자"로 부른 것은 4:15 의 설명대로 그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⑱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의 가까운 일가붙이, 우리의 기업 무를 자**로 부름으로써 룻이 기업 무를 자의 은덕을 누릴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인 것을 분명히 드러냈고, 기업 무를 자로서의 보아스의 도움을 기대하였으며, 보아스가 마음씨 좋고 덕망있는 사람을 넘어 과부가 된 여인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친족으로서 앞으로 담당할 일들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여인들에게 전능자가 괴롭게 하시고 여호와가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며 비통해 하던(1:20-21) 모습과 여기에서 룻이 가져온 많은 곡식을 보며 밭의 주인이 보아스란 사실을 알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기업 무를 자라고 설명하며 기뻐하는(2:20) 모습의

대조는 나오미의 운명의 반전을 시사한다. 이제 나오미는 양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아 줄 자비로운 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43. 룻 2:21

1) 원문 문제

וַתֹּאמֶר רוּת הַמֹּאֲבִיָּה (룻 2:21)

גַּם כִּי־אָמַר אֵלַי עִם־הַנְּעָרִים אֲשֶׁר־לִי תִּדְבָּקִין עַד אִם־כִּלּוּ אֵת כָּל־הַקָּצִיר אֲשֶׁר־לִי׃

① וַתֹּאמֶר רוּת הַמֹּאֲבִיָּה에서 "הַמֹּאֲבִיָּה 모압 여인"이 생략되고 대신 "그녀의 시모에게"라는 말을 삽입한 번역(칠십인역, 페시타역, 구 라틴역; JB)에 대한 비평은? "רוּת הַמֹּאֲבִיָּה 모압 여인 룻"은 1:22; 2:2; 2:21; 4:5, 10(총 5 번)에 나오고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1:4, 14, 16; 2:8, 22; 3:9; 4:13) 단순히 "룻"이라고 나온다. 여기에서 긴 이름(성명)을 쓴 이유는?

② גַּם כִּי־אָמַר אֵלַי에서 גַּם כִּי의 의미는(WHS 379, 449; IBHS 39.4.4de)?

③ עִם־הַנְּעָרִים אֲשֶׁר־לִי תִּדְבָּקִין에서 어순상 강조되는 것은? הַנְּעָרִים의 성수형은? הַנְּעָרִים은 남자 일꾼들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녀 일꾼들을 표현하는 것인가?

④ 두 번 사용된 אֲשֶׁר־לִי의 역할은(cf. GKC 129h, 135m; GBH 130e)? 중복오사(dittography)인가(Witzenrath, 15, the second is dittography; Joüon, 65 [E 62], the first is dittography)? 강조인가(Rudolph, 51; Hubbard, 190, n. 44)? 단순한 문체의 변형인가(Bush, 139 to give Boaz's speech a stilted, formal style; Campbell, 107 to depict Boaz's turgid speech)?

⑤ עַד אִם־כִּלּוּ에서 עַד אִם의 의미는? 이보다 더 자주 쓰이는 형은 עַד אֲשֶׁר(룻 1:13; 3:18) 혹은 עַד + 부정사(룻 1:19; 2:23; 3:3)이다. WHS 457 의 עַד 다음에 오는 אִם이 의심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명에 대한 평가는(Bush, 139; Hubbard, 190, n. 47)?

2) 주석

룻 2:21 그러자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분이 정말 저에게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 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말이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① 나오미로부터 보아스가 그들의 가까운 일가붙이요 기업 무를 자란 말을 듣고 **모압 여인 룻은** 복된 일들의 목록에 한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려고 **말했다**. 여기서 내레이터는 2:2 에서처럼 룻을 종족을 표시하는 긴 이름 즉 성명(full name)을 사용하여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른다. 서론 부분에서 살핀 대로 "모압 여인 룻"이란 성명은 총 5 번(1:22; 2:2, 21; 4:5, 10) 사용되었다. 부시(138)는 1:22; 4:5, 10 에서 "רוּת הַמֹּאֲבִיָּה [루트 하모아비야] 모압 여인 룻"이란 긴 이름이 사용된 것은 저자의 의도를 보여주지만 2 장 2 절과 21 절에서 성명이 사용된 것은 단지 짧은 이름 대신 긴 이름을 쓴 것뿐이라며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허버드(137)는 5 번 모두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허버드(182, n. 7)는 2:2(서두)와 2:21(말미)에

사용된 긴 이름 "모압 여인 룻"이 정체 확인의 수미쌍관법(inclusio of identity)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허버드(190)는 2:21 에서 "모압 여인 룻"이란 이름은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을 상기시키며 다음 몇 가지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룻의 성명(full name)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므로 룻의 성취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부각시키며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암시한다. 룻의 성명에서 드러나는 이방적인 요소는 그녀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영입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룻의 성명은 룻의 칭찬받을 만한 (정말 이상적인 이스라엘인다운) 행위와 독자들의 모압인들에 대한 혐오 사이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블락(676)은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까운 일가붙이, 기업 무를 분"이라고 말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운 일가붙이(קָרוֹב[카로브])"란 말을 듣고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라"는 보아스의 말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면서 2:21 의 "모압 여인 룻"이란 성명이 문화적인 충돌(clash of cultures)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하였다. 새슨(61)은 저자가 보아스 그리고 그의 가족과의 새로 형성된 룻의 유대에도 불구하고 고국 모압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룻의 유대가 잊혀지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블락과 새슨의 설명보다는 "**모압 여인 룻**"이란 이름이 민족적인 긴장을 상기시키기 위한 성명이라는 허버드의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내레이터가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보아스의 말을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전한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라고 말했었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고할 때 "[감 키-아마르 엘라이] גַּם כִּי־אָמַר אֵלַי **그분이 정말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라는 전달문을 사용하였다. גַּם כִּי [감 키]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6 번(Campbell, 107: 호 8:10; 9:16; 사 1:15; 시 23:4; 잠 22:6; 애 3:8)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모두 양보의 부사절을 인도하고 있다(Bush, 138; WHS 530). 그러나 이 전달문에 나오는 גַּם כִּי [감 키]는 양보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גַּם כִּי[감 키]의 정확한 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캠벨(107)은 칠십인역이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καί γε ὅτι [카이 게 호티]로 번역하고 구라틴역이 아무런 연결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문맥상 적당한 의미로 "There is more!"를 취했다. 허버드(182, n. 6)도 추가의 의미로 보고 "There is one more thing."으로 해석하였다. KJV 의 "also", NASB 의 "furthermore", RSV 의 "besides" 등도 추가의 의미를 취했다. 그러나 부시(138)는 גַּם[감]이 강조 용법(WHS 379 emphatic: even; BDB, 2, p. 169; KB, 5, p. 118)으로 쓰였고 뒤에 오는 כִּי[키]는 גַּם[감]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역할(BDB 1. d, p. 472)을 하므로 גַּם כִּי [감 키]는 강조의 גַּם [감]보다 더 강한 의미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גַּם כִּי [감 키]가 겔 23:40 의 אַף כִּי [아프 키](cf. IBHS 39.3.4de)와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NIV 와 NRSV 의 “even”, 그리고 NEB 의 “and what is more”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번역이다. 룻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와 그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보아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맥은 강조의 의미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③ 룻이 직접화법으로 전하는 보아스의 말(**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은 독자의 관심을 보아스의 정체로부터 보아스의 허락으로 옮겨 가게 한다. 내레이터가 전하는 2:8 의 보아스의 말(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바로 여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에는 이삭을 줍는 장소가 강조되어 있지만 2:21 에서 룻이 전하는 보아스의 말(עִם־הַנְּעָרִים אֲשֶׁר־לִי תִּדְבָּקִין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에는 함께 할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다. 강조를 위해서 2:8 에는 동사 앞에 장소의 부사 כֹּה([호] “바로 여기”)가 나오고 2:21 에는 전명구로 된 부사구 עִם־הַנְּעָרִים אֲשֶׁר־לִי([임-하느아림 아셰르-리]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가 동사 앞에 나와 있다. 8 절의 보아스의 말에는 נַעֲרֹתָי([나아로타이] 여성명사+접미대명사 “나의 젊은 여자일꾼들”)이 나오는 것에 비하여 21 절의 룻의 말에는 הַנְּעָרִים אֲשֶׁר־לִי ([하느아림 아셰르-리] 정관사를 지닌 남성명사+관계사+접미대명사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이 나온다. 남성 복수형은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남녀로 이루어진 경우에 다 쓰이기 때문에 נְעָרִים[느아림]이 남성이라고 하여 남자 일꾼들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고 문맥상 남녀 일꾼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역의 “소년들”이란 번역은 남녀 일꾼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를 표현할 때 접미대명사를 바로 명사에 붙이지 않고 관계사 + 전치사 לְ[르] + 접미대명사로 이루어진 אֲשֶׁר־לִי [아셰르-리]를 두 번 사용한 보아스의 말은 다소 형식적인 뉘앙스(Bush, 139: stilted, formal style, 혹은 Campbell, 107: turgid speech)를 준다.[12]

---

[12] 두 번 사용된 אֲשֶׁר־לִי [아셰르-리]에 대하여 강조로 보는 학자들(Rudolph, 51; Hubbard, 190, n. 44)도 있고 중복오사로 보는 학자들(Witzenrath, 15: the second is dittography; Joüon, 65: the first is dittography)도 있다. GKC 129h, 135m, n. 3 은 명사에 붙는 접미대명사를 אֲשֶׁר־לְ [아셰르-르]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룻 2:21 을 예로 들었고 삼상 17:40 의 בִּכְלִי הָרֹעִים אֲשֶׁר־לוֹ [비흘리 하로임 아셰르-로] (“그의 목자의 제구에”)처럼 특별히 명명구를 수식해야 하는 경우 אֲשֶׁר־לְ [아셰르-르]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GBH 130e 에 의하면 אֲשֶׁר־לְ [아셰르-르]가 הַפִּרְדָּה אֲשֶׁר־לִי [하피르다 아셰르-리] (왕상 1:33 my own mule 나의 노새)처럼 접미대명사보다 보다 정밀함을 주거나 강조를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שִׁיר הַשִּׁירִים אֲשֶׁר לִשְׁלֹמֹה [시르 하시림 아셰르 리실로모] (아 1:1 the Song of songs, of Solomon 솔로몬의 아가 cf. 삼상 21:8; 삼하 2:8)처럼 명명구를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되고 הַצֹּאן אֲשֶׁר־אָבִיהָ [하촌 아셰르 르아비하] (창 29:9 “그녀의 아버지의 양떼” cf. 31:19; 47:4; 삼상 20:40)

④ 보아스는 룻에게 "עַד אִם־כִּלּוּ אֵת כָּל־הַקָּצִיר אֲשֶׁר־לִי [아드 임-킬루 에트 콜-하카치르 아셰르-리] **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까지"를 의미하는 עַד אִם [아드 임]은 룻기 이외에 창 24:19, 33 그리고 사 30:17 에서만 쓰였다. 이보다 더 자주 쓰이는 것은 עַד אֲשֶׁר([아드 아셰르] 룻 1:13; 3:18)와 עַד[아드] + 부정사(룻 1:19; 2:23; 3:3)이다. WHS 457 의 עַד[아드] 다음에 오는 אִם[임]이 의심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명을 허버드(190, n. 47)는 받아들였지만, 부시(139)는 이를 반박하고 거기 인용된 룻 2:21; 창 24:19; 사 30:17 등에 의심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여기 "모든 추수"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가리킨다. 게제르 달력(*ANET*, 320)에 의하면 한 달 동안의 보리 추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한 달 동안의 추수가 언급되는데 이것은 밀 추수일 가능성이 높다(Hubbard, 190).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 줍는 것을 허락받은 것은 나오미와 룻이 가까운 장래에 당분간은 양식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며 룻과 보아스가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독자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기대감 속에 기다릴 것이다.

44. 룻 2:22

1) 원문 문제

וַתֹּאמֶר נָעֳמִי אֶל־רוּת כַּלָּתָהּ (룻 2:22)

טוֹב בִּתִּי כִּי תֵצְאִי עִם־נַעֲרוֹתָיו 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

① טוֹב בִּתִּי כִּי תֵצְאִי עִם־נַעֲרוֹתָיו에서 טוֹב의 의미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 어느 것이 좋은가(GBH 141g)? 접속사 כִּי의 용법은(WHS 451)? 21 절의 הַנְּעָרִים과 2 절의 נַעֲרוֹתָיו를 대조하여 "It is better that you go out with his women workers rather than with his men workers"라는 의미로 나오미가 말했다는 Hubbard(191)의 설명은 옳은 것인가?

② 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에서 동사 יִפְגְּעוּ의 의미는(Hubbard, 191-192)?

③ 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는 목적(RSV, NASB, Hubbard), 결과(Bush), 이유(NIV) 중 어떤 의미가 제일 적절한가?

2) 주석

룻 2:22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나가[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혹은 הַנַּעַר אֲשֶׁר־לוֹ [하나아르 아셰르-로] (삼상 20:40; "그의 종" cf. 삼상 25:7; 삼하 14:31; 왕상 4:2; 룻 2:21)처럼 정관사를 지닌 명사 다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①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추수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2 장에서도 1 장에서처럼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마지막 말을 한다. 21 절에서 모압 여인 룻으로 명명되었으나 22 절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으로 명명된 것은 가족적 유대 관계 속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것을 보여준다. 22 절의 나오미의 충고는 8 절의 보아스의 충고와 비슷하며 젊은 룻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반영한다. 아침에 룻을 보낸 후 하루 종일 초조해하던 나오미가 룻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쉬었을 것을 생각하면 나오미의 다음 충고를 십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טוֹב בִּתִּי כִּי תֵצְאִי [토브 비티 키 테츠이]"의 직역은 "제일 좋겠다. 내 딸아. 네가 나가는 것이. Best is it, my daughter, that you go out."이다. 이 직역은 형용사 בוֹט[토브]를 NEB 처럼 최상급(GBH 141g)으로 보고 כִּי[키]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WHS 451)로 본 것이다. 이와 비슷한 번역을 제시하고서 또 하나의 대안 번역으로 새슨(62)은 "Good, my daughter! Do go out, indeed, with girls."를 제시하였고 캠벨(107)은 "Fine, my daughter; then by all means go out"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 번역들은 בוֹט[토브]를 허사(expletive)로 보고 כִּי[키]를 강조의 불변화사로 본 것이다.

② 나오미는 룻이 함께 나갈 대상으로 21 절에 전달한 보아스의 말 가운데 나오는 남성 복수형 הַנְּעָרִים[하느아림]("젊은 일꾼들")을 사용하지 않고 8 절의 보아스의 말 가운데 나오는 여성 복수형 נַעֲרוֹתָיו[나아로타브]("젊은 여자 일꾼들")을 사용한다. 허버드(191)는 나오미가 룻이 전한 "남자 일꾼들과 함께"를 "여자 일꾼들과 함께"로 대비 정정하여 "It is better that you go out with his women workers rather than with his men workers."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한 것은 21 절의 남성 복수형이 남녀 일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룻의 가장 가깝고 가장 자연스러운 접촉은 베어진 곡식을 단으로 묶는 여자 일꾼들임을 가정하고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나가 이삭을 줍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나오미가 계속해서 한 말 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 [블로 이프그우-바흐 브싸데 아헤르]에서 정형동사 יִפְגְּעוּ[이프그우]의 의미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13] 먼저 동사의 정확한 뜻을

---

[13] Hubbard(191-192)는 어근 פגע[파가]가 4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⑴"만나다 to meet, encounter" (in tribal boundary lists: 삿 16;7; 17:10; 19:11, 27, 34 and in reports of meetings between people: 창 32:2; 출 5:20; 수 2:16; 삼상 10:5 등). ⑵"공격하다 to fall upon, attack (violently)"—"죽이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과 동의어 (15x 출 5:3; 삿 8:21; 15:12; 18:25 등). ⑶"사형을 집행하다 to execute, to put to death" (삼상 22:18; 삼하 1:15; 왕상 2:29, 31). ⑷"간청하다 to intercede for, plead with" (창 23:8; 렘 7:16; 27:18; 룻 1:16). 이 중에서 첫 번째 의미를 취한 Morris(282)는 룻이 다른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이 발견되면 보아스가 룻을 위한 행한 호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룻을 만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KJV 와 NKJV 도 이 동사를 "meet 만나다"로 번역하였다. 두 번째 의미를 취한 것은 Bush(139)와 NIV 의 "harm 해치다", Hubbard(191)의 "abuse 학대하다", RSV 의 "molest 치근거리다", Campbell(88)의 "be rough with 거칠게 대하다" 그리고 de Waard and

논의해 보기로 한다. יִפְגְּעוּ[이프그우]의 어근은 פגע[파가]이다. 이 어근은 룻기에서 1:16 과 여기(2:22)에 사용되었다. 새슨(62)은 이 어근이 2:22 에서 1:16 과 근본적으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새슨은 1:16 을 "Do not press me to desert you. 당신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였고 2:22 을 "(It is best daughter that you join his girls and not) be pressed into another field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고) 강요받아/밀려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단어의 뜻은 문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16 과 2:22 에 나오는 פגע[파가]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1:16 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달라붙은 동작과 정반대인 시어머니를 버리는 일을 하도록 강권하지 마시라고 청한 것을 고려하면 פגע[파가]는 "**강권하다**, to encounter with request, to entreat, to put pressure on, to confront with words"라는 의미로 쓰였다.[14] 2 장에서 보아스는 남자 일꾼들에게 "건드리지(2:9 נגע[나가] to touch, harrass) 말라"고 명령했고 "나무라지(2:15 הַכְּלִים[하흘림 = כלם[칼람]의 사역능동] to shame, embarrass) 말고" "꾸짖지(2:16 גאר[가아르] to rebuke, insult) 말라"고 명령하였다. 2 장 22 절이 룻을 보호하려는 보아스처럼 룻의 안전을 염려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충고라는 것을 유의하면 여기서 פגע[파가]는 "적대감을 가지고 만나다, 해치려고 공격하다, to encounter with hostility, to attack physically with the intent to do harm"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15] 룻기의 문맥에 따라 어근 פגע[파가]의 의미를 정리하면 BDB 가 구별한 대로 1:16 에서는 "to encounter with request 요구를 가지고 만나다 = 강권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2:22 에서는 "to encounter with hostility 적대감을 가지고 만나다 = 해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④ 접속사 바브가 이끄는 절(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 [블로 이프그우-바흐 브싸데 아헤르])은 목적(RSV, NASB, Hubbard), 결과(Bush), 이유(NIV) 중 어느 하나로 번역해도 의미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Nida(45)의 "molest 치근거리다, insult 모욕하다, harm 해치다" 등에서 볼 수 있다. NAB 는 이 동사를 "insult 모욕하다"로 번역하였다. 네 번째 의미를 취하는 것은 Sasson(62)의 "press 강요하다"이다.

[14] BDB 803: to encounter with request 렘 7:16; 27:18; 욥 21:15; 룻 1:16

KB II 910: to go pleading to someone, press someone 렘 7:16; 27:18; 욥 21:15; 룻 1:16

[15] BDB 803: to encounter with hostility, fall upon 수 2:16; 삿 8:21; 15:12; 18:25; 삼상 22:17, 18; 삼하 1:15; 왕상 2:25, 29, 31, 32, 34, 46; 룻 2:22

KB II 910: 2. a. to fall upon (intending to kill someone) 삿 8:21; 15:12; 18:25; 22:18; 삼상 22:17; 삼하 1:15; 왕상 2:25, 29, 31f, 34, 46

b. to confront someone, assault someone 암 5:19

c. to molest 룻 2:22

NIV: It will be good for you, my daughter, to go with his girls, **because** in someone else's field you might be harmed.

RSV: It is well, my daughter, that you go out with his maidens, **lest** in another field you be molested.

NASB: It is good, my daughter, that you go out with his maids, **lest** [others] fall upon you in another field.

Hubbard: It would be better, my daughter, that you go work with his young women **so that** they not abuse you in another field.

Bush: Yes, my daughter, the best thing for you is to go out with his women workers; **then** no one will harm you in some other field.

⑤ 본 주석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내 딸아,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나가[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라고 번역하였다. 동사 פגע[파가]를 사용한 나오미의 마지막 말은 룻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먹구름이 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시어머니로서의 바람을 잘 드러낸다.

45. 룻 2:23

1) 원문 문제

וְתִדְבַּק בְּנַעֲרוֹת בֹּעַז לְלַקֵּט עַד־כְּלוֹת קְצִיר־הַשְּׂעֹרִים וּקְצִיר הַחִטִּים וַתֵּשֶׁב אֶת־חֲמוֹתָהּ׃ (룻 2:23)

① 부정사 לְלַקֵּט의 용법은?

② 보리 추수 시작부터 밀 추수 마치는 기간의 길이는(신 16:9-12; 게제르 달력)? 3 장 2 절의 보리타작과 2 장 23 절의 밀 추수는 상반되는 것인가?

③ וַתֵּשֶׁב אֶת־חֲמוֹתָהּ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가?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 시어머니와 살았다는 의미인가(Sasson, 62; Morris, 282) 아니면 룻이 이삭 줍기를 다 마친 후에 집에서 시어머니와 살았다는 의미(Bush, 140; Hubbard, 139)인가?

2) 주석

룻 2:23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에게 바싹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웠다. 그 후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① 내레이터는 1 장에서처럼 2 장에서도 일어났던 모든 일의 결과를 요약하며 마감한다.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충고한 그대로 룻이 행한 것을 이렇게 말한다. **룻은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에게 바싹 붙어서 이삭을 주웠다**. 룻이 이삭을 주운 기간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였다. 욜

1:11 은 보리와 밀이 추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암시한다.[16] 캠벨(108)은 신 16:9-12 와 게제르 달력(*ANET*, 320)에 근거하여 보리 추수 시작부터 밀 추수 끝까지의 기간이 7 주이고 오순절에 끝나며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4 월 하순에서 6 월 초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시(140)는 2:23 의 밀 추수 마침과 3:2 의 보리타작이 상반된다고 하여 밀 추수 부분을 행간의 해설(gloss)로 보고 생략해야 한다는 궁켈(Gunkel)과 베르톨레트(Bertholet)의 주장이 사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밀 추수가 끝난 뒤에도 보리 타작이 얼마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어구는 독자를 추수의 시작(1:22)에서 추수의 끝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며 이야기의 주요 단계를 구분해 준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시 81:16[MT 17]과 시 147:14 에 비추어 이 어구는 하나님께서 두 과부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부분적으로 상을 베푸신 것을 암시한다(Hubbard, 193).

② 내레이터의 2 장 마지막 말 וַתֵּשֶׁב אֶת־חֲמוֹתָהּ [바테셰브 에트-하모타흐]에 나오는 바브 계속법 미완료에 대하여 새슨(62)과 모리스(282)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 시어머니와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새슨은 이 절이 룻이 나오미와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아스의 가족(familia)으로 영입되지는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룻이 교묘하게 보아스로 하여금 그녀의 신분을 그의 가족으로 여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새슨의 틀린 논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나오미와의 관계와 그녀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녀를 그의 친족의 일원으로 대우하였다. 부시(140)와 허버드(139)는 이 절이 앞 절과 전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룻이 이삭 줍기를 다 마친 후에 집에서 시어머니와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 후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2 장 끝 부분에서 룻과 나오미는 2 장이 시작될 때와 거의 같은 상태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묘사되었다.

③ 내레이터에 의하여 1 장이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는 희망적인 기조로 끝난 것(1:22)과 대조적으로 2 장은 밀 추수의 끝이 언급되며 새로운 기근의 불길한 전망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난다(hubbard, 194; Bush, 142-43). 내레이터는 추수 후에도 룻이 보아스와 계속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룻이 1:16-17 의 헌신을 실천에 옮긴 결과로 시어머니와 함께 일상 생활을 하게 된 것만을 묘사한다. 보아스의 두 과부와의 친족관계 그리고 룻에 대한 과분한 친절은 보아스가 두 과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그럼에도

---

[16] [욜 1:11]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불구하고 그 기대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보아스가 경제적으로는 두 과부를 도왔지만 엘리멜렉 가문의 멸절이라는 위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Block, 677).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는 시간만이 말해 줄 것이다.

2 막 3 장(2:18-23) 해설

⑴2 막 3 장(2:18-23)은 2 막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평가하고 나오미의 삶에 생기가 돌고 그녀의 텅빈 삶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장면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헌신과 섬김에서 나오는 일관된 행동을 보인다. 시어머니와 자신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밭으로 나섰던 **룻은 하루 종일 주운** 한 에바나 되는 **곡식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간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주워 온** 많은 양의 **곡식을 보고** 놀란다. **룻이** 점심때 보아스로부터 받아 **실컷 먹고 남긴** 볶은 **곡식을 꺼내어 드릴 때**(2:18) 시어머니는 더욱 더 놀란다. 하루 동안에 주운 것치고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양의 곡식과 바로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은 아침에 두 단어를 써서 "[르히 비티] 나가보아라, 내 딸아(2:2)"라고 말했던 나오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기운을 차리도록 활력을 주었다. 나오미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하고 궁금해한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고서 (그런 좋은 일이 가능하도록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곧바로 "**너를 [이처럼] 보살펴 준 사람이 복받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한다(2:19).

⑵내레이터는 나오미의 인식의 과정에 궁금증을 더하기라도 하듯이 룻이 대답한 것을 직접화법으로 바로 전하지 않고 먼저 간접화법으로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을 이야기하였다**고 설명한 후에 룻이 나오미에게 직접 했던 말을 인용하며 직접화법으로 "**오늘 제가 일하도록 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말했다**(2:19)고 전한다. 룻은 그날에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모른 채 정말 순진하게 자신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고 돌보아준 사람의 이름을 가장 마지막 자리에 오는 대답을 하며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것을 밝힌다. 여기서 독자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하여 각자가 상대방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음을 인식하며 즐겁고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한다. 룻은 하루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줍도록 해 준 사람,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날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 이와 반대로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듣기 전까지 그녀의 며느리가 온종일 이삭을 주었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몰랐지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⑶룻의 입으로부터 그녀에게 그토록 친절과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그 사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한 일들을 보며 충분히 잘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나오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오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들어 올리며 죽은 자와 방불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새로운 삶의 전기가 된다. 삶의 활력을 되찾은 **나오미는** 기뻐하며 보아스를 위한 칭찬과 축복의 말을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2:20)." 이 축복의 말에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길 빈다. 보아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던 나오미는 그가 룻에게 베푼 특별한 배려가 **살아 있는** 자신과 며느리를 위하고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룐을 위한 **한결같은 인애**이었음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나오미는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로 이루어진 엘리엘렉 가문 전체를 위해 친족으로서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라고 여호와께 빌었다. 나오미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할 때 보아스가 단지 친족을 위해 일하는 의무감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온전하게 기꺼이 이행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인식했다.

⑷그러기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위해 복을 빈 이유를 밝히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다**(2:20)."라고 **룻에게 말한다**. 나오미로부터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일가붙이고 기업 무를 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룻은 그 날 밭에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과분한 배려와 관대한 호의를 베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즉 시어머니의 설명을 통하여 룻은 보아스가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도 돌아보아 주고, 하녀만도 못한데도 위로와 격려를 해 주고, 남자 일꾼들로부터 당할지도 모를 해로부터 보호해 주고,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 주울 특권을 베풀어 준 이유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에 자신에게 그러한 친절과 호의와 관심과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그 때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의 말을 기억하며 나오미에게 추수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이 보아스의 배려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이 저에게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 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말이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2:21)." 이렇게 룻은 모든 추수 곧 약 7 주간 계속되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한 첫 행동이 나오미에게 양식을 준 일(2:18)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마지막 말도 나오미에게 이 양식 공급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게 해 주는 것(2:21)이었다. 보아스가 했던 말을 전해 듣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아스가 전에 했던 말(2:8)과 똑같은 취지로 **말한다**. "**내 딸아, 네가 그의 젊은 여자 일꾼들과 함께 나가[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2:22)!" 이 충고를 통하여 우리는 아침에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보낸 후 하루 종일 초조해하며 기다렸을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쉬며 좋은 일이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하며 이런 일이 무리 없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⑸시어머니의 충고를 그대로 따르며 **룻은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웠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2:23). 이러한 2 막 3 장의 결론은 나오미의 소생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처음의 상황, 즉 텅빈 삶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보아스에 대한 좀 당혹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한결같은 인애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권고하시고 양식을 주신 은혜(1:6)를 나눌 수 있었다. 보아스가 보여 주었던 인애는 그가 베풀 미래의 인애의 예고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가운데 나오미는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고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한 것은 독자들에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두 생과부들이 텅빈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암시해 주었다. 그러나 모든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웠는데 그 후에 룻은 이삭 주우러 나가기 전과 같은 상황에서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동안 나오미와 룻을 위한 경제적인 배려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보아스의 두 생과부를 위한 어떤 인애의 행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⑹보아스가 나오미 남편 쪽의 친지이고 덕망있는 사람이고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내레이터의 소개(2:1)는 2 막의 처음부터 독자들로 하여금 보아스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주웠다는 요약 보고(2:3)는 독자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 룻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푼 것은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켰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며 기업 무를 자라고 말한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친족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독자의 인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런데 2 막의 결론 부분에 와서 내레이터는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지 않고 갑자기 멈추게 한다. 1 막에서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여호와께 불평한 것(1:20-21) 바로 다음에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는 묘사가 주었던 희망(1:22)과 대조적으로, 2 막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호의로 인한 희망과 삶의 활력 회복(2:20) 바로 다음에 이삭 줍기 전의 어둡고 불확실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 듯한 상황 묘사(2:23)로 끝난다. 내레이터는 2 막의 마지막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무런 암시도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끝을 내버린다(Bush, 142). 그래서 독자들은 엘리멜렉 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긴장 가운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2 막의 초두에서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동안 1 막에서 헌신을 다짐했던 룻이 이야기 진전의 물꼬를 튼 것처럼 3 막의 초두에서 2 막 끝부분에서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베푼 보아스의 한결같은 인애에

잠재된 가능성으로 인해 다시 소생한 나오미가 이야기의 진전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⑺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된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며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 신앙의 남은 불씨를 지피며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환영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불평만 털어놓았었다. 나오미는 룻이 동서고금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헌신을 다짐하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위해 베들레헴에 함께 온 것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불행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할 때도 실의에 빠진 모습 가운데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이삭 줍기가 아니라 마치 추수라도 한 것처럼 한 에바나 되는 보리와 먹다가 남긴 볶은 곡식까지 가져와서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도록 특혜를 베푼 장본인이 보아스라고 말했을 때 어렴풋이 여호와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가장 안전한 보호를 찾아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며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는 여호와의 긍휼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 여호와께서 준비한 회복의 손길이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불행한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선한 섭리의 손길로 시선을 옮겼을 때 비로소 그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불우한 이웃의 처지를 배려하여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애를 반영하는 선행을 할 때 고독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이웃은 살아갈 용기를 얻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활력을 얻으며 우리를 그의 곁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우리가 값없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베푸는 사랑을 받는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사랑을 베푸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파급되어 나가도록 하신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무를 자의 일로 여기며 룻에게 베푼 특혜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점점 회복되어 간다. 보아스를 통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을 위해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숙고하며 해야 할 어떤 역할을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④제 3 막 (3:1-18)

⑴제 3 막(3:1-18)은 나오미의 주도적인 역할을 소개하며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3 막도 2 막처럼 장소와 내용과 형식적 특징에 따라 3 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장면(3:1-5)은 집에서 나오미가 룻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밝힐 때 룻이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 2 장면(3:6-15)은 타작 마당에서 룻이 어떻게 나오미의 말대로 실행하였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제 3 장면(3:16-18)은 집에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평가하며 보아스가 약속대로 행동할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여준다. 3 막의 장면들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장소와 내용과 형식적 특징과는 어울리지 않지만[1] 시간의 흐름의 치밀함(closeness)은 3 막의 통일성을 잘 반영해 준다. 3 막 1 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낮에 이루어졌고, 3 막 2 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저녁, 밤중, 새벽에 걸쳐 일어났고, 3 막 3 장에서 룻과 나오미의 대화는 새벽에 이루어졌다.

⑵제 2 막(2:1-23)과 제 3 막(3:1-18)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①둘 모두 세 장면, 즉 2 막의 경우 집—밭—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3 막의 경우 집—타작 마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두 막 모두 제 1 장면과 제 3 장면의 집에서의 나오미와 룻의 짧은 대화(2:2, 18-23; 3:1-5, 16-18) 사이에 제 2 장면의 보아스와 룻의 긴 대화(2:3-17; 3:6-15)가 들어 있다. ③두 막 모두 등장 인물의 성품에 초점이 있으며 2 막은 보아스를 "덕망있는 사람 [이시 기볼 하일] (2:1)"라고 하고 3 막은 룻을 "덕망있는 여인 [에셰트 하일] (3:11)"이라고 묘사한다. ④두 막 모두 첫 장면은 나오미와 룻을 보이고 룻이 출발하는 것을 묘사한다(2:1-3; 3:1-5). ⑤두 막 모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길게 다룬다(2:4-17; 3:6-15). ⑥두 막에서 보아스는 룻의 정체를 묻는 질문을 한다(2:5; 3:9). ⑦두 막에서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연결 고리 역할, 즉 중보자 역할을 한다. ⑧두 막에서 첫 장면의 첫 묘사는 각 막의 전개될 일을 암시하고(2:1 친지, 유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3:1 룻을 위한 남편이 있는 가정 구하는 일),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문(2:23; 3:18)은 다음에 전개될 사건의 전환점이 된다. 나오미의 말은 2 막의 끝과 3 막의 시작에 나오면서 두 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⑨2:21-23 과 3:1-2 이 공유하고 있는 단어들은 "좋은, 젊은 여자 일꾼들, 보리, 그녀의 시어머니, 내 딸" 등이다. 두 막에 차이점이 있다면 2 막에서는 룻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3 막에서는 나오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⑶제 3 막(3:1-18)을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단위로 묶으며 반복되고 있는 중심 단어들이 있다. 타작 마당(גֹּרֶן[고렌] 3:2, 3, 6, 14)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언급된다. "눕다"라는 어근(שׁכב[샤하브] 3:4[3x], 7[2x], 8, 13, 14)과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의 어근(גאל[가알] 3:9, 12[2x], 13[4x])은 플롯의 진행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개념을 드러낸다. "눕다"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1] Block, 680; Bush, 146 (against Gow, *Ruth*, 1992, 63-74 & *BT* 35 [1980]: 309-20).

아니라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상징적인 동작을 묘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눕다"는 가족의 사회적 의무를 말하는 "기업을 무르다"와 관련이 있고 동일한 의미 영역에서 이야기 진행을 돕는다(Bush, 147).

⑷제 3 막(3:1-18)은 전체 이야기의 결정적 전환점을 제공한다. 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극적인 긴장과 서스펜스는 없다(Hubbard, 195). 룻기 2 장이 과부들의 양식 문제의 해결을 보여 주었듯이 룻기 3 장은 룻의 과부 신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보여 준다. 룻은 나오미가 바랐던 "새 남편의 집에서의 평안함(1:9)"에 대한 약속(3:1, 18)을 얻으며 누가 남편이 될 것인지는 룻기 4 장까지 불확실하지만 곧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는다. 룻기 1-3 장에 반복하여 사용된 핵심 단어들은 첫 세 장들을 묶는 역할을 하며 룻기 3 장이 룻기 1-2 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반복된 핵심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①1:9 의 평안함(מְנוּחָה[므누하] 여성명사)과 3:1 의 평안한 보금자리(מָנוֹחַ[마노아흐] 남성명사)

②1:16 과 3:13 의 묵다/유숙하다(לִין[린])

③1:21 과 3:17 의 빈 손(רֵיקָם[레캄])

④1:8 과 2:20 과 3:10 의 한결같은 인애(חֶסֶד[헤쎄드])

⑤2:1 의 친지(מְיֻדָּע[므유다] 남성명사)와 3:2 의 친척(מֹדַעַת[모다아트] 여성 명사)

⑥2:1 과 3:11 의 덕망(חַיִל[하일])

⑦2:12 과 3:9 의 날개/옷자락(כָּנָף[카나프])

⑷제 3 막(3:1-18)은 결정적인 중심 사건이 일몰에서 일출 사이의 단 하루에 일어난 것을 묘사하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내레이터는 신비와 책략이란 짙은 옷을 입힌 채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이전의 사건들과는 달리 칠흑 같은 밤중에 그리고 철통같이 지켜지는 비밀 가운데 사건이 일어난다. 3:6-15 에서만 주변 인물들이 말하거나 바라보는 일과 무관하게 룻기의 중심 인물들이 오직 전적으로 그들만 홀로 있게 된다. 타작 마당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어두움이 모든 배경 장면을 가리고 있다. 여기서 내레이터는 자신의 말로 전할 때나 등장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전할 때나 보아스와 룻을 각각 "그 사람(3:8, 16, 18)"과 "그 여인(3:14)"이라고 부르며 정체성을 가린다(Hubbard, 195).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등장 인물들이 인식되는 것을 막으려는(3:3, 9, 14) 내레이터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룻기 3 장에서 등장 인물들은 독자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의 섭리와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룻기 2 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전형적이고 긴 어구들(2:4, 12, 19-20)이 있으나 3 장에는 복을 빌고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나 문의 길이는 아주 짧다(3:10, 13).

⑸제 3 막(3:1-18)은 주의 깊게 고려된 모호성과 성적인 암시로 점철되어 있다. 내레이터는 "타작 마당"과 "눕다"라는 단어들이 주는 성적인 뉘앙스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날 밤 보아스와 룻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 준다. 그러나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전혀 없다. 이러한 모호성과 성적인 암시는 보아스와 룻이 윤리적 선택이란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도 과연 전처럼

한결같은 인애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독자들을 긴장시킨다(Hubbard, 196).

◇ 3 막 1 장 (3:1-5)

본문

[WLC: 3 רות]

1 וַתֹּאמֶר לָהּ נָעֳמִי חֲמוֹתָהּ בִּתִּי הֲלֹא אֲבַקֶּשׁ־לָךְ מָנוֹחַ אֲשֶׁר יִיטַב־לָךְ׃ 2 וְעַתָּה הֲלֹא בֹעַז מֹדַעְתָּנוּ אֲשֶׁר
הָיִית אֶת־נַעֲרוֹתָיו הִנֵּה־הוּא זֹרֶה אֶת־גֹּרֶן הַשְּׂעֹרִים הַלָּיְלָה׃ 3 וְרָחַצְתְּ וָסַכְתְּ וְשַׂמְתְּ [כ= שִׂמְלֹתַיִךְ] [ק=
שִׂמְלֹתַיִךְ] עָלַיִךְ [כ= וְיָרַדְתִּי] [ק= וְיָרַדְתְּ] הַגֹּרֶן אַל־תִּוָּדְעִי לָאִישׁ עַד כַּלֹּתוֹ לֶאֱכֹל וְלִשְׁתּוֹת׃ 4 וִיהִי
בְשָׁכְבוֹ וָיָדַעַתְּ אֶת־הַמָּקוֹם אֲשֶׁר יִשְׁכַּב־שָׁם וּבָאת וְגִלִּית מַרְגְּלֹתָיו [כ= וְשָׁכָבְתִּי] [ק= וְשָׁכָבְתְּ] וְהוּא
יַגִּיד לָךְ אֵת אֲשֶׁר תַּעֲשִׂין׃ 5 וַתֹּאמֶר אֵלֶיהָ כֹּל אֲשֶׁר־תֹּאמְרִי [כ= זז] [ק= אֵלַי] אֶעֱשֶׂה׃

[ESV: Ruth 3:1-5] **Ruth and Boaz at the Threshing Floor**

1 Then Naomi her mother-in-law said to her, “My daughter, should I not seek rest for you,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2 Is not Boaz our relative, with whose young women you were? See, he is winnowing barley tonight at the threshing floor. 3 Wash therefore and anoint yourself and put on your cloak and go down to the threshing floor, but do not make yourself known to the man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4 But when he lies down, observe the place where he lies. Then go and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and he will tell you what to do.” 5 And she replied, “All that you say I will do.”

[개역개정: 룻 3:1-5]

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5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번역 (룻 3:1-5)

룻 3:1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1]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2]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2 그런데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3] 아니냐? 보라,[4]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3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5]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6]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4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두라. 그리고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 있거라.[7] 그러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5 그러자 룻은 (그녀에게) "어머님이 <저에게>[8]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본문 비평

[1] 이 절의 끝부분에 오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동사("마련해 주다")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보고 번역한 것이다.

[2] "평안한 보금자리 [마노아흐]"는 1:9 의 "평안함 [므누하]"과 같은 어근 [누아흐]에서 온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편이 있고 남편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는 새 가정을 뜻한다.

[3] 룻 2:1 의 "친지"와 같은 어근이지만 두 단어의 모음이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고 번역한 것이다(2:1 참조).

[4] 불변화사 הִנֵּה[히네]를 살리려고 이렇게 번역하였다. 이 불변화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4 을 참고하라.

[5] BHS 3:3 의 각주 a 는 크티브 שִׂמְלָתֵךְ[심라테흐]와 크레 שִׂמְלֹתַיִךְ[심로타이흐]를 다룬다. 칠십인역은 크티브와 일치하여 단수로 읽지만 페시타역, 벌게이트역, 그리고 타르굼역은 크레와 일치하여 복수로 읽는다(Campbell, 120). 크티브(와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는 "[단수] 너의 옷"을 가리키는 반면 크레(와 소수의 중세 사본들)는 "[복수] 너의 옷들"을 가리킨다. 멘델케른(Solomon Mandelkern, *Veteris Testamenti Concodantiae* [Tel Aviv: Schocken, 1971], 1126)은 שִׂמְלָה[씸라]가 단수로 15 번 쓰이고 복수로 13 번 쓰인 것을 보인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의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함을 알게 한다. 이 중에서 룻 3:3 과 삼하 12:20 은 크티브-크레 변형을 반영한다. 두 경우 모두 크티브는 단수이고 크레는 복수이다. 허버드(197, n. 7)는 크티브를 취하지만 그 단수를 집합명사로 간주한다. 어쩌면 크레(복수형)는 룻이 겉옷을 하나만 걸쳤다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선물로 준 곡식을 가지고 오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 유발되었는지도 모른다. 새슨(68)은 룻이 두 개의 겉옷,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3:3 의 שִׂמְלָה([씸라] 주된 겉옷)와 3:15 의 מִטְפַּחַת([미트파하트] 베일이나 밤공기의 차가움을 막기 위해 사용한 보조 겉옷)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שִׂמְלָה[씸라]는 외형상 남녀의 구별(신 22:5)이 있기는 하지만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가리고 다리까지 내려오는 남녀가 입는 외투이다. 이것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을 때 사용한 것(창 9:23)이고 가난한 자가 전당 잡힌 옷이라면 그의 살의 옷이며 밤새 몸을 가릴 유일한 것이므로 해지기 전에 돌려줄 옷이다(출 22:25-27). שִׂמְלָה[씸라]는 대부분의 경우 의복(clothing)을 나타내는 통칭 명사(창 35:2; 45:22; 신 8:4; 10:18; 22:3; 수 7:6; 삼하 12:20; 사 4:1)로 쓰였으며 어떤 문맥에서도 잘 차려 입는 옷 혹은 최고의 옷"dressy/best

clothes"이란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Bush, 151; Campbell, 120).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NKJV, NIV, NASB, RSV, NRSV, NAB, TEV)이 שִׂמְלָה[씸라]를 "best garment/clothes"로 번역한 것은 유감이다. 개역개정은 "의복"으로 잘 번역했으나 새번역은 "고운 옷"으로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과 우리말성경은 "제일 좋은 옷"으로 잘못 번역했다.

[6] BHS 3:3 의 각주 b 도 역시 크티브 וְיָרַדְתִּי[브야라드티]와 크레 וְיָרַדְתְּ[브야라드트]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이 크레와 일치한다. 분명히 크티브는 기본능동(파알/칼) 완료 2 인칭 여성 단수 동사의 고어형이다(GKC §44h; Hubbard, 197, n. 8; Campbell, 120). 기본 문제는 문법적인 관습인데 변경의 방향은 크티브(고어형)에서 크레(정상적인 형)로 바뀐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 같다.

[7] BHS 3:4 의 각주 a 도 크티브 וְשָׁכַבְתִּי[브샤하브티]와 크레 וְשָׁכַבְתְּ[브샤하브트] 문제를 지적한다. BHS 의 비평자료에 분명한 지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의 경우처럼 많은 중세 사본들이 크레를 택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이 크티브-크레에 대한 설명은 3:3 의 각주 b 에 대한 것과 똑같다.

[8] BHS 3:5 의 각주 a 는 한 특별한 범주의 크티브-크레 변형을 지적하고 있다. 관찰력이 예리한 독자는 이 절의 마지막 두 번째 단어가 자음(אלי[알렙 라멧 요드])은 없고 (אֵלַי[엘라이]가 취하는) 모음(ֵ֯ [체레 파타흐])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이 경우에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은 크레를 채택하고 있지만 칠십인역은 전치사와 접미대명사를 생략하고 크티브를 따라 번역했다. 여백에 있는 맛소라 소주는 "אלי: [단어가] 쓰여 있지 않으나 읽어야 하는 10 경우 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다. אֵלַי[엘라이]가 문맥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 원본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맛소라 학자들이 친히 암시적인 것을 명시적인 것으로 만든 것을 나타낸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3:1-5)

⑴블락(680)에 의하면, 3 막 1 장(3:1-5)은 1 절의 첫 네 단어 그리고 5 절의 첫 두 단어를 제외하고 나오미와 룻이 나눈 대화를 전하는 직접화법의 피전달문으로 되어 있다. 1 막에서처럼 나이 든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끈다. 총 55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나오미의 말과 단지 4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룻의 말은 길이에 있어서 크게 대조된다. 나오미의 말은 문제의 진술(3:1), 사실들의 요약(3:2), 진행 절차의 자세한 묘사(3:3-4)로 나눌 수 있다.

⑵부시(146)에 의하면, 3 막 1 장(3:1-5)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제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룻이 나오미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1 절의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다."와 5 절의 "룻이 그녀에게 말했다."라는 내레이터의 전달문이 3:1-5 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 틀 사이에 오는 나오미의 제안은 계기(3:1b-2a Trigger)와 반응(3:2b-4f Response)으로 나누어져 있다. 계기(Trigger)에는 문제(3:1b)를 말하고 해결책(3:2a)을 제시하는 나오미의 주장(3:1b-2a)이 나온다. 나오미의 주장은 한 쌍의 부정 의문문(הֲלֹא[할로])의 형식을 써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병행구조(A-B)로

되어 있다. 계기에 대한 반응(Response)으로 나오는 나오미의 지시(3:2b-4f)는 서술(**X**: 보아스가 할 일 3:2b)—4 가지 명령(**Y**: 바브 계속법 완료 3:3a)—부정명령(**Z** 3:3e)—긍정명령(**Z'** 3:4b)—3 가지 명령(**Y'**: 바브 계속법 완료 3:4c-e)—서술(**X'**: 보아스가 할 일 3:4f) 등의 교차대구로 되어 있다.

⑶부시(146)가 제시한 3 막 1 장(3:1-5)의 구조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다.

형식	절	내용			기능
내러티브	3:1a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소개(introduction)
나오미의 주장	1b	A	문제 제기	בתי הלא אבקש 내가 (네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	계기(trigger)
	2a	B	해결책	ועתה הלא בעז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나오미의 지시	2b	X	서술: 보아스가 할 일	הנה־הוא זרה 그가 까부를 것이다	반응(response)
	3a-d	Y	4 개의 명령 (바브 계속법 완료)	ורחצת וסכת ושמת וירדתי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내려가라	
	3e	Z	부정 명령 (희구법)	אל־תודעי 눈에 띄게 하지 말라	
	4b	Z'	긍정 명령 (바브 계속법 완료)	וידעת 알아 두라	
	4c-e	Y'	3 개의 명령 (바브 계속법 완료)	ובאת וגלית ושכבתי 가서 들치고 누워라	
	4f	X'	서술: 보아스가 할 일	והוא יגיד לך 그가 네게 말할 것이다	
내러티브	5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마감(conclusion)

각 절 주석 (룻 3:1-5)

46. 룻 3:1

1) 원문 문제

וַתֹּאמֶר לָהּ נָעֳמִי חֲמוֹתָהּ בִּתִּי הֲלֹא אֲבַקֶּשׁ־לָךְ מָנוֹחַ אֲשֶׁר יִיטַב־לָךְ׃ (룻 3:1)

① הֲלֹא가 이끄는 부정 의문문과 긍정적인 서술문과의 차이점은? 미완료 אֲבַקֶּשׁ의 용법은(WHS 173; GBH 113m)?

② 룻 1:9 의 מְנוּחָה와 3:1 의 מָנוֹחַ의 어근과 의미는(BDB 629)?

③ אֲשֶׁר יִיטַב־לָךְ는 부사절로서 동사 אֲבַקֵּשׁ를 수식하는가(WHS 465, 527; 466, 523) 아니면 형용사절로서 명사 מָנוֹחַ를 수식하는가(NIV)?

2) 주석

룻 3:1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① 룻기 2 장의 마지막 절들을 고려해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넘치는 호의에 근거하여 그가 밭의 주인과 이삭 줍는 여인의 관계를 넘어서 보다 더 개인적인 관계(궁극적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결혼)에 이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23 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운 후에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라는 내레이터의 말은 보아스가 그 이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을 암시한다. 보아스는 과부로서의 룻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며 룻이 사별의 아픔을 정서적으로 치유 받고 재혼을 고려할 때까지 주제넘게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lock, 680). 이러한 보아스의 불활동(inertia)을 극복하려고 룻기 3 장 초두에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룻을 위해 나서게 된다. 2 막 초두에서 룻이 주도적으로 나오미를 위해 나선 것과 반대로 3 막 초두에서는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룻을 위하여 나선다.

② 룻을 위해 나서는 나오미의 행동을 묘사할 때 내레이터는 2 막처럼 여담으로 시작하거나 간접 화법으로 전달하지 않고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전달한다. 나오미의 말은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말(1:16-17)에 상응하는 말이며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Bush, 154). 1 장에서 룻은 새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성(異性) 대신 동성(同性)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성적인 충절(sexual allegiance)을 바꾸어 나오미에게 헌신하였다. 이제 3 장에서 시어머니로서 나오미는 자신 때문에 룻이 포기했던 새 남편과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오미가 2:20 에서 보아스를 "우리" 즉 나오미와 룻의 "가까운 일가붙이요 기업 무를 자"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룻을 친 딸로 여긴다. 나오미와 룻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 바로 앞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3-4)."는 권면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③ 추수가 끝나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 없어서 룻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맛소라 본문에는 없지만 여기 대괄호 안에 번역된 [**어느 날**]은 2:23 과 3:1 사이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시간의 간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사용한 말 "בִּתִּי[비티] **내 딸**"은 며느리를 위해 일하려는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이 칭호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나오미의 관점에서 두 여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나오미가 제안할 모험적인 계획의 근거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Block, 680). "찾아주다"라는 미완료형 동사 אֲבַקֶּשׁ[아바케시]는 서법적 용법 즉 당위를 나타내는 "해야 한다 must (injunctive force)"의 의미를 넣어 번역하는 것이 좋다(Bush, 145; Hubbard, 197, n. 2; WHS 173; GBH 113m). 그리고 의문사(הֲ[하])와 부정어(לֹא[로])가 결합된 הֲלֹא[할로]가 인도하는 부정 수사의문문은 실제로 같은 의미의 긍정적인 서술문보다 더 강조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내가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마련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평안한 보금자리**"라고 번역된 מָנוֹחַ[마노아흐]는 룻 1:9 의 מְנוּחָה[므누하]처럼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의 어근 נוח[누아흐]에서 온 막탈(maqtal)형 명사이고 BDB(629)는 "resting-place, or condition of rest and security attained by marriage, 결혼을 통하여 남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 안식할 곳, 안식처"라고 풀이한다.[2] 룻 1:9 과 3:1 에 같은 어근(נוח[누아흐])의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이 나오미의 계획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기도(1:8-9)의 결과임을 생각하도록 해 준다(Block, 681).

④ אֲשֶׁר יִיטַב־לָךְ [아셰르 이타브-르하]는 "너에게 좋은 (평안한 보금자리)"처럼 명사 מָנוֹחַ[마노아흐]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보는 것(NIV: "..., where you will be well provided for")보다는 "너에게 좋도록,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처럼 동사 אֲבַקֶּשׁ[아바케시]를 수식하는 부사절로서 목적(WHS 466, 523; Campbell, 116; Hubbard, 197, n. 3; Block, 681, n. 5)이나 결과(WHS 465, 527; Bush, 145)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렘 42:6 에 나오는 비슷한 어구, 즉 לְמַעַן אֲשֶׁר יִיטַב־לָנוּ [르마안 아셰르 이타브-라누]("우리에게 좋을 것이다/우리가 잘 될 것이다")에서 לְמַעַן[르마안]이 생략된 것과 같다. יִיטַב־לְ [이타브-르]는 거의 항상 비인칭 구문(it will/may be good for)에 쓰이며 행복(렘 7:23), 안전(렘 42:6), 장수(창 12:13; 신 4:40; 5:16, 33), 물질적 번영(렘 40:9), 많은 자녀(신 6:3)와 같은 복과 관련하여 쓰인다(Hubbard, 198).

⑤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나오미가 제안하는 결혼은 며느리 룻이 과부의 신분과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도록

---

[2] Hubbard, 198, n. 14: מָנוֹחַ[마노아흐]는 창 8:9; 신 28:65; 사 34:14; 시 116:7; 애 1:3; 대상 6:16 에도 나온다. 사 34:14-15—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מָנוֹחַ[마노아흐])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에 묘사된 이미지는 매우 강렬하다.

해 주기 위한 결혼인가? 아니면 엘리멜렉-말론의 대를 잇는 후사를 위한 계대 결혼으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을 위한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레이터의 말, 즉 시어머니가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서 그 결과로 룻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일 혹은 시어머니가 룻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후사를 잇는 것이 나오미의 주된 관심사라면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할 것(4:5)"이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1:8-9 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나오미는 재혼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고인의 이름을 잇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오직 며느리 룻의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Bush, 154). 1:8-9 에서 "너희가 죽은 자[=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나오미는 여기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도구로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려고 나서는 것은 룻이 좋은 남편을 만나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허버드(199)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판단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 않고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해석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방식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허버드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오미의 행위들 가운데서 행동하신다고 말할 수 있고, 나오미가 행동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고려할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행동함으로써 룻과 보아스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나오미와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그의 삶을 위해 최선의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단호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퍼거슨, 99-100).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성급하게 나선 나오미가 만든 위험천만한 상황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으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와 룻이 바르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47. 룻 3:2

1) 원문 문제

(룻 3:2) וְעַתָּה הֲלֹא בֹעַז מֹדַעְתָּנוּ אֲשֶׁר הָיִית אֶת־נַעֲרֹתָיו
הִנֵּה־הוּא זֹרֶה אֶת־גֹּרֶן הַשְּׂעֹרִים הַלָּיְלָה׃

① 첫 단어 וְעַתָּה의 역할은(BDB 774 2.a)?

② מֹדַעְתָּנוּ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의 모음이 특이한 점은(GBH 94h)? 여성 어미를 지닌 מֹדַעַת, קֹהֶלֶת, מוֹרָה, פֶּחָה 등의 성은(GBH 89b; GKC 122 p, r, s)?

③ בֹּעַז מֹדַעְתָּנוּ אֲשֶׁר הָיִית אֶת־נַעֲרוֹתָיו에서 관계절이 수식하는 선행사는 בֹּעַז인가 아니면 מֹדַעְתָּנוּ인가? 이 문의 어순으로 보아 강조되고 있는 것은 בֹּעַז인가 아니면 מֹדַעְתָּנוּ인가? 룻 2:19 의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와 비교하라.

④ הִנֵּה의 용법은? 룻 2:4 를 참조하라.

⑤ הוּא זֹרֶה אֶת־גֹּרֶן הַשְּׂעֹרִים에서 גֹּרֶן הַשְּׂעֹרִים는 명명구로서 환유(metonymy)라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שְׂעֹרִים(보리들) 대신 שְׂעָרִים(성문들)이라고 모음을 붙인 캠벨(117)의 독법을 비판하면?

⑥ 타작은 오후 2 시경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부는 미풍을 이용하는데 הָעֶרֶב(오늘 저녁)이라 하지 않고 הַלַּיְלָה(오늘 밤)이라고 한 이유는?

2) 주석

룻 3:2 그런데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① 나오미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새 가정을 찾아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한 후 접속사와 불변화사로 된 וְעַתָּה[브아타](“**그런데**, So then, and now”)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결론으로 인도하고 앞으로 전개될 일의 시작을 알린다(Block, 682, n. 7). 불변화사 עַתָּה[아타]는 논증에 있어서 논리적인 단계, 즉 자주 결과나 결론으로 인도한다(BDB 774 2.a). 다시 말하면 이 불변화사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일에 근거하여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위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을 나타낸다(Bush, 148). 이제 나오미는 룻을 위한 평안한 보금자리 마련 문제의 해답으로 보아스를 제시하며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말한다.

② 보아스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그가 그들의 **친척**이라는 것이다. 이 첫째 사실은 1 절에서처럼 긍정 평서문보다 강조적인 부정 수사의문문으로 언급된다. 이 수사의문문은 הֲלֹא[할로]로 시작하며 동사가 들어있지 않는 명사문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이 명사문의 어순은 ⓐ주어+ⓑ술어+ⓒ[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בֹּעַזⓐ מֹדַעְתָּנוּⓑ אֲשֶׁר הָיִית אֶת־נַעֲרוֹתָיוⓒ (룻 3:2)

[ⓐ<u>보아즈</u> ⓑ모다타누 ⓒ<u>아셰르 하이트 에트-나아로타브</u>]

ⓒ**<u>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있었던</u>** ⓐ**<u>보아스는</u>** ⓑ**우리의 친척이다**

이 명사문을 2:19 의 명사문과 비교하면 형용사절의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3:2 의 명사문에서 형용사절은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술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2:19 의 명사문에서 형용사절은 정상적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 바로 뒤에 나온다.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מⓑ בֹּעַזⓒ(룻 2:19)

[ⓐ셈 하이시 ⓑ아셰르 아씨티 이모 하욤 ⓒ보아즈]

ⓑ오늘 제가 함께 일한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지금 살핀 2:19 의 명사문에서처럼 3:2 의 형용사절도 수식하는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올 것이 기대되는데 그렇지 않고 3:2 는 ⓐ주어와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그 사이에 들어 있는 ⓑ술어로 인하여 서로 떨어져 있다. 이러한 어순은 술어 ⓑמֹדַעְתָּנוּ[모다타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Bush, 149).[3]

③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술어 מֹדַעְתָּנוּ[모다타누]에 대하여 대개 "our kinsman(NASB, RSV)/our relative(NKJV, Hubbard)"처럼 소유격+명사로 번역했으나 부시는 명사+of+소유대명사 형식을 써서 "a relative of ours"로 번역하고 NIV 는 "a kinsman of ours"로 번역하였다. 블락(682)은 주어-술어로 된 이 명사문이 정체를 확인하는 절(a verbless clause of identification)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단순히 한 친척(a relative)이 아니라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그 가까운 친족(*the* near kinsman)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NIV 의 번역을 *the* kinsman of ours 로 고쳐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어와 술어가 둘 다 한정적이고(definite) 주어-술어의 어순으로 된 정체를 확인하는 절(WHS 578)의 구조와 일치하는 "בֹּעַז מֹדַעְתָּנוּ [보아스 모다타누]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라는 명사문에서 술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여러 친척들 중의 하나"처럼 비한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바로 그 친척"이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나오미는 2:20 에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일가붙이"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아스를 평안한 보금자리 마련 문제의 해답으로 생각한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2 에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하여 말한 것은 "우리의 *한* 친척"이나 "우리의 *그* 친척"이라기보다는 ("한" 혹은 "바로 그 한"의 뉘앙스는 없지만 한정적인) "우리의 친척"이란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④ "친척"을 뜻하는 מֹדַעַת[모다아트]는 קֹהֶלֶת[코헬레트]처럼 여성어미를 지닌 남성명사이다.[4] 어형적으로 [모다타누]는 접미대명사의 모음이 [에누] 대신 [아누]인데 이것은 의심스러운 욥

---

[3] GKC 141c 는 명사 술어가 주어와 동일한 어떤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나 동사적 술어보다 더 강조를 받는다고 설명한다(cf. 아 1:3; 시 25:10; 겔 38:5; 시 10:5; 19:10; 23:5; 88:19; 잠 3:17; 욥 22:12; 23:2; 26:13).

[4] GKC 122 p, r, s; GBH 89b. 아랍어에서 남성형 *rāwin* 이 일반적인 narrator 를 나타내고 여성형 *rāwiyat* 가 보다 강조적인 뜻의 a great narrator 를 나타내는 것처럼 Joüon(66; GBH 89b)과 Hubbard(199)는 2:1 의 크레 מוֹדָע[모다]와 비교하며 여성어미를 지닌 מֹדַעַת[모다아트]가 보다 강조적인 의미 즉 "close/near relative"로 쓰였다고 해석하였다. Campbell(117)은 여성어미가 집합적인 의미(GKC 122s)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적용하여 מֹדַעַת[모다아트]가 집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래 מִמֹּדַעַת[미모다아트]처럼 이 단어 앞에 부분의 의미(partitive)를 갖는 전치사 מִן[민]이 붙어 있었으나 중자탈락(haplography)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one of our

22:20 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유일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GBH 94h 는 이 단어가 술어로 쓰였고 악센트 자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5]

⑤ 본 주석은 2:1 의 מידע[멤-요드-달렛-아인]을 크레를 따라 מוֹדָע[모다](BDB 396)로 읽지 않고 크티브 מְיֻדָּע[므유다]로 읽었고 3:1 의 여성 어미를 지닌 남성 명사 מֹדַעַת[모다아트]에 여성 어미가 지닐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2:1 의 크레 מוֹדָע[모다]와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 이것은 저자가 2 장에서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מְיֻדָּע([므유다] "친지")를 사용하고 3 장에서 그를 가리키는데 특별한 용어 מֹדַעַת([모다아트] "친척")를 사용하여 보아스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할 역할을 점점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절정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갖게 한 것으로 본 것이다(Brotzman, 142). 보아스의 칭호에 유의하여 보면 내레이터는 2:1 에서 보아스를 나오미가 엘리멜렉과의 결혼을 통하여 알게 된 일반적인 "친지"로 말하고 3 가지 세부 사항 즉 "덕망있는 사람(유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이름을 말하며 더 흥미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보고 활력을 되찾은 나오미가 룻에게 그를 "가까운 일가붙이"와 "기업 무를 자"로 밝히는 것을 전하였다(2:20).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난 후 나오미가 룻의 영구적인 안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레이터는 특별 용어 "친척(3:2)"을 보아스에게 적용하며 룻의 새 가정 문제의 해답의 적임자로 제시하고 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2:1[미시파하])이요 기업을 무를 자(2:20[고엘])인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일가친지(2:1 [므유다])이고 일가붙이(2:20[카로브])이고 일가친척(3:2[모다아트/모다]이다.

⑥ 시어머니 나오미는 첫 번째 사실, 즉 보아스가 그들의 친척인 사실을 말한 후 두 번째 사실을 말하며 불변화사 הִנֵּה[히네]를 사용하여 청자인 룻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나오미가 1:15 에서 룻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동서 오르바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때 [히네]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친척임을 말한 후에 룻으로 하여금 그날 밤 보아스의 특별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때 [히네]를 사용하고 있다. "**보라,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불변화사 다음의 히브리어 본문을 순서대로 직역하면 "그는-까부르고 있다-타작 마당을-그 보리들의-오늘밤에"이다. 여기서 "גֹּרֶן הַשְּׂעֹרִים [고렌 하스오림] 그 보리들의 타작 마당"은 명명구로서 동사 "זֹרֶה[조레] 까부르다"의 목적어이다. 그렇다면 타작

---

covenant circle"의 의미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Bush(148)는 여성어미를 지닌 מֹדַעַת[모다아트]에 대하여 강조적인 의미나 집합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 2:1 의 크레 מוֹדָע[모다]와 성이 다를 뿐 의미는 같다고 주장하였다.

[5] 불변화사들은 대개 נוּ..[에누]대신 נָוּ[아누]를 취하는데 그 예로 כֻּלָּנוּ[쿨라누], בָּנוּ[바누], לָנוּ[라누], אֹתָנוּ[오타누], עִמָּנוּ[이마누], אִתָּנוּ[이타누] 등을 들 수 있다(GBH 103e cf. מִמֶּנוּ[미메누], הִנֵּנוּ[히네누], הִנָּנוּ[히네누], הִנְּנוּ[힌누]).

마당(גֹּרֶן[고렌)은 환유(metonymy)로서 타작 마당의 산물, 즉 타작을 통하여 분리되어야 할 짚과 겨와 낟알로 된 곡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Bush, 149; Block, 682).

⑦ 캠벨(117-118)은 부시와 블락처럼 타작 마당이 타작 마당의 산물을 나타내는 환유임을 인정하지만 타작 마당 다음에 나오는 맛소라 본문의 단어 שְׂעֹרִים([스오림] "보리들")을 שְׂעָרִים ([시아림] "성문들")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보리들의 타작 마당 = 보리들을 타작하는 마당"으로 읽는 대신 "성문들의 타작 마당 = 성문들 근처에 있는 타작 마당"으로 읽는 것을 나타내며 타작 마당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본 것이다. 자음만으로 된 본문에서 씬(שׂ)과 신(שׁ)은 [구별점이 없으므로] 똑같은 모양이고 모음은 문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성 있는 독법이다. 그러나 부시(149-150)는 몇 가지 점에서 이 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첫째,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면 타작 마당의 장소를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굳이 타작 마당이 성문 근처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로 보인다. 둘째로, 도시의 성문이 하나인 것을 두고 복수로 언급한 예는 구약에 나오지 않으며 룻 4:1, 10, 11 에 성문(שַׁעַר[샤아르])이 단수로 쓰인 것과 맞지 않는다. 셋째로, 성읍에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는 것(3:3, 6)"으로 언급되고, 타작 마당에서 성읍으로 "돌아가거나(3:15) 올라가는 것(4:1)"으로 언급된 것은 이 타작 마당이 룻이 이삭을 주웠던 보아스의 밭 근처에 있었고 성읍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므로 성문 근처에 타작 마당이 있는 것처럼 읽는 것이 사실과 맞지 않음을 나타낸다. 룻기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대개 성문 근처에 타작 마당이 있었던 것은 타작하는 동안 곡식을 지키는 데 용이하고 타작 후 성읍으로 옮기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었으며 그런 예는 왕상 22:10 에 나온다.[6]

⑧ 곡식을 타작하여 까부르는 데 필요한 바람은 강풍보다는 미풍이다. 여름철 오후에 지중해에서 서풍이 일어나 강하게 불다가 저녁에 약해지므로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는 데 좋은 바람은 오후 2 시경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미풍이다(Bush, 150). 이런 조건들을 감안하면 הַלָּיְלָה([할라일라] **오늘 밤**)보다는 הָעֶרֶב([하에레브] 오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오늘 밤**이라고 한 것은 독자들을 밤의 어두움 속에서 전개될 사건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Campbell, 119; Hubbard, 201, n. 22).

⑨ 타작하여 까부르는 것은 추수 과정 중에서 즐겁고 기쁜 절정의 순간이었다(cf. 사 41:14-16). 밭에서 베어 묶은 단들은 사람의 손이나 수레(암 2:13)에 의해 타작 마당으로 옮겨지고 날카로운 막대기(toothed sledge[hammer])로 때리거나 짐승의 말굽(animal hooves) 아래 밟히게 하거나(미

---

[6] 왕상 22:10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에서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는 בְּגֹרֶן פֶּתַח שַׁעַר שֹׁמְרוֹן [브고렌 파타흐 샤아르 숌론]을 번역한 것이다. NIV 는 at the threshing floor by the entrance of the gate of Samaria(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 마당에서)라고 번역하였다.

4:3) 수레바퀴(cart wheels)아래 깔리게 하여(사 28:28) 타작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타작된 것을 포크나 삽을 가지고 공중에 던져 까불면 겨와 짚과 껍질이 낟알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렇게 체질을 하여 낟알(kernels)은 더미로 쌓아 모아서 식량으로 삼고 짚(straw, stalks)은 동물의 사료로 삼고 겨(chaff)는 연료로 삼았다(Hubbard, 200).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쳤다는 2:23 과 보리 타작을 말하는 3:2 는 상반된다고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차례로 이루어지므로 추수 후에 각각 바로 바로 타작할 수도 있지만 밀 추수가 끝날 때 보리 타작을 미루었다가 보리 타작과 밀 타작을 할 수도 있고 보리 타작이 밀 추수를 넘어서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Bush, 149).

48. 룻 3:3

1) 원문 문제

(룻 3:3) וְרָחַצְתְּ וָסַכְתְּ וְשַׂמְתְּ [כ= שִׂמְלֹתַיִךְ] [ק= שִׂמְלֹתַיִךְ] עָלַיִךְ [כ= וְיָרַדְתִּי] [ק= וְיָרַדְתְּ] הַגֹּרֶן אַל־תִּוָּדְעִי לָאִישׁ עַד כַּלֹּתוֹ לֶאֱכֹל וְלִשְׁתּוֹת׃

① 바브 계속법 완료 וְרָחַצְתְּ가 나타내는 의미는(GKC 112x aa)?

② וָסַכְתְּ의 어근은? וָסַכְתְּ에 붙어 있는 악센트는? 접속사 바브가 카마츠를 취하는 이유는(GBH 104d; GKC 104g)? 기름 바르는 목적은(신 28:40; 미 6:15; 삼하 12:20; 대하 28:15)?

③ שִׂמְלֹתַיִךְ의 크티브와 크레에 대하여 설명하면? שִׂמְלָה는 일반적인 의복(개역, 쉬운성경)인가 아니면 가장 좋은 옷(NIV, NASB, RSV, NRSV, NKJV,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성경)인가?

④ וְיָרַדְתִּי의 크티브와 크레를 설명하면?

⑤ אַל־תִּוָּדְעִי가 명령으로 갖는 힘은? תִּוָּדְעִי를 예로 들어 북서 셈족어에서 두근 요드/바브에 대하여 설명하면?

2) 주석

룻 3:3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① 보아스가 그들의 친척인 것과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란 두 가지 사실을 말한 후 나오미는 룻이 해야 할 일을 네 개의 바브 계속법 완료를 통하여 명령한다. 그 중 첫 번째 바브 계속법 완료 וְרָחַצְתְּ[브라하츠트]는 선행하는 명령문이 없는데도 명령("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바브 계속법 완료가 명령문 다음에 올 때 계속된 명령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행하는 명령문 없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GKC 112x aa). 이렇게 나오미는 룻을 위한 모험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녀를 준비시키며 먼저 **목욕을 하라**고 명령한다.

② 뒤따라 나오는 3 개의 바브 계속법 완료도 모두 명령("וָסַכְתְּ וְשַׂמְתְּ וְיָרַדְתִּי" [바싸흐트 브쌈트 브야라드티]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 그리고 내려가라**")을 나타내고 있다. **기름을 바르라**는 동사 וָסַכְתְּ[바싸흐트]의 어근 סוּךְ[쑤흐]이다.[7] 날씨가 무더워 땀이 나기 쉬운 기후에서 물이 귀해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위생 상태가 원시적인 수준인 문화에서 향내 나는 기름은 남녀에게 있어서 몸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날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화장[단장]에 필요한 것이었다(신 28:40; 미 6:15; 삼하 12:20; 대하 28:15). 본문 비평 부분에서 지적한 대로 "**의복**"을 나타내는 단어 שִׂמְלֹתֵךְ의 크티브는 단수("너의 옷" שִׂמְלָתֵךְ[씸라테흐])이고 크레는 복수("너의 옷들" שִׂמְלֹתַיִךְ[씸로타이흐])이다. 문맥은 복수로 볼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שִׂמְלָה[씸라]는 대부분의 경우 의복(clothing)을 나타내는 통칭 명사(창 35:2; 45:22; 신 8:4; 10:18; 22:3; 수 7:6; 삼하 12:20; 사 4:1)로 쓰였다. שִׂמְלָה[씸라]는 어떤 문맥에서도 잘 차려 입는 옷 혹은 최고의 옷"dressy/best clothes"이란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Bush, 151; Campbell, 120).

③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명령한 의도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세 가지로 나누인다. 새슨(66-68)은 겔 16:8-13 처럼 신부로서 단장하고 가라는 것으로 해석한다.[8] 허버드(201)는 유딧서(Judith) 10:4 처럼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잘 차려 입으라는 것으로 해석한다.[9] 부시(152)는 삼하 12:20 에서 다윗이 아기가 죽은 후에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

[7] וָסַכְתְּ[바싸흐트]에서 접속사 바브가 모음 카마츠를 갖고 있는 것은 완료형 [싸흐트]에 분리 악센트 르비아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GBH 104d; GKC 104g).

[8] [겔 16:8-13] (8)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10)**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11)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9] [Judith 10:1-4] (1)When Judith had ceased crying out to the God of Israel, and had ended all these words, (2)she rose from where she lay prostrate and called her maid and went down into the house where she lived on sabbaths and on her feast days; (3)and she removed the sackcloth which she had been wearing, and took off her widow's garments, and **bathed** her body with water, and **anointed** herself with precious ointment, and combed her hair and **put on** a tiara, and arrayed herself in her gayest apparel, which she used to wear while her husband Manasseh was living. (4)And she put sandals on her feet, and put on her anklets and bracelets and rings, and her earrings and all her ornaments, and made herself very beautiful, **to entice the eyes of all men who might see her**.

갈아입은 것처럼 룻이 과부의 옷(창 38:14, 19)을 벗고 애곡의 기간을 끝내고 결혼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해석한다.[10]

④ 세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것과 학자들이 지적하는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는 일치하지만 옷을 비롯한 치장의 경우 서로 차이가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에스겔서의 신부는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금과 은으로 장식한 것이 묘사되어 있는데 룻의 옷은 수수한 옷(שִׂמְלָה[씸라])이고 장신구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부 치장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룻이 신부 복장을 하고 타작 마당의 보아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나오미가 의도하였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만큼 뻔뻔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유딧서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멋지게 치장할 때 수수한 옷이 아니고 화려한 옷(gayest apparel)을 입고 여러 장신구(sandals, anklets, bracelets, rings, & all her ornaments)를 착용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도 룻의 수수한 옷과 대조된다. 밤중에 잘 차려 입은 옷이 남자를 유혹하는 데 얼마나 소용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⑤ 그렇다면 룻의 복장과 가장 잘 병행이 되는 것은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알고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갈아입은 의복(שִׂמְלָה[씸라])이다.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 상복(בִּגְדֵי אֵבֶל [비그데 에벨])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삼하 14:2)과 과부가 과부의 복장을 하는 것(창 38:14, 19)에 비추어 나오미의 지시는 룻이 애곡의 기간을 끝내고 과부의 복장을 벗고 정상적인 활동 그리고 결혼을 포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과부가 과부 복장을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삭을 주울 때 룻은 과부의 복장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이 보아스로 하여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은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과부로서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권리를 침범하지 않았고 룻이 준비될 때까지 자신을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lock,

---

[10] [삼하 12:19-20] (19)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שִׂמְלָה[씸라])**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창 38:14, 19] (14)그가 그 과부의 의복(בִּגְדֵי אַלְמְנוּתָהּ [비그데 알므누타흐])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19)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삼하 14:2]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אֵבֶל בִּגְדֵי[비그데 에벨])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라

684). 나오미의 지시에 따른 룻의 외양상의 변화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보아스에게 그녀가 결혼할 수 있으며 그녀의 결혼 의도가 진지한 것을 넌지시 일러주었을 것이다(Bush, 152).

⑥ 나오미는 룻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은 후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성읍에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는 것(3:3, 6)과 타작 마당에서 성문으로 올라가는 것(4:1)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타작 마당이 성읍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밭의 주인과 일꾼들이 아침에 성읍에서 밭으로 나가 일하다가 저녁에 둘러싸인 성벽에 의해 보장되는 안전을 위해 성읍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타작하는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타작 마당에 머물며 도적이나 짐승이 곡식을 약탈하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Block, 684).

⑦ 나오미는 룻이 준비하고 타작 마당으로 가서 유의해야 할 일을 일러주며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 룻이 타작 마당으로 가서 조심할 일은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명령 즉 אַל־תִּוָּדְעִי([알-티바드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부정어와 간접명령형(jussive)으로 된 일시적인 금지 명령이다.[11]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통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가능한 한 보다 더 포용적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치고 기분이 매우 좋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던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식사를 하는 것, 곧 식사를 즐기는 것을 나타낸다(룻 3:7; 출 34:28; 민 23:24; 신 9:9, 18; 삼상 30:12).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언급은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먹고 마시며 취하도록 했던 창 19:30-38 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나 보아스의 마시는 것에 알콜이 들어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취하였다는 언급이 없고 또 그가 취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룻이 롯의 맏딸이 낳은 아들 모압의 후손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모압 사람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의 이상적인 삶 즉 한결같은 인애의 삶을 실천하는 여인(1:8; 3:10-11)으로 묘사되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나오미의 지시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성적인 뉘앙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해 준다.

⑧ 나오미는 자신의 모험적인 계획이 우연에 맡겨지지 않고 호의적인 상황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사려 깊은 계산을 하며 보아스가 식사를 마치고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룻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3:3) 나오미가 보아스를 "그 **사람**"으로 부른 것처럼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각각 "그 사람(3:8, 16, 18)"과 "그 여인(3:14)"으로 언급된 것은 등장 인물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

[11] תִּוָּדְעִי[티바드이]의 어근은 ידע[야다]이다. 북서 셈족어에서 두근 바브가 단어의 첫 자음으로 올 때는 יָדַע[야다]처럼 요드로 나타나지만 그 이외의 자리에서는 여기 תִּוָּדְעִי[티바드이]처럼 바브로 나온다.

함으로써 장면의 어두움을 강화시키고 이 장면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Hubbard, 202).

49. 룻 3:4

1) 원문 문제

וְיִהִי בְּשָׁכְבוֹ וְיָדַעַתְּ אֶת־הַמָּקוֹם אֲשֶׁר יִשְׁכַּב־שָׁם וּבָאת וְגִלִּית מַרְגְּלֹתָיו (룻 3:4)

וְהוּא יַגִּיד לָךְ אֵת אֲשֶׁר תַּעֲשִׂין: [ק= וְשָׁכֶבְתִּ] [כ= וְשָׁכָבְתִּי]

① וְיִהִי בְּשָׁכְבוֹ에서 미래적인 일을 나타낼 때 היה의 바브 계속법 완료형 대신 간접명령형이 쓰인 이유는(Rudolph, 52; cf. GKC 112z)?

② 네 개의 바브 계속법 완료형(וְיָדַעַתְּ ... וּבָאת וְגִלִּית ... וְשָׁכֶבְתִּי)의 용법은?

③ אֲשֶׁר יִשְׁכַּב־שָׁם은 ( )를 수식하는 ( )절이다.

④ 3 절과 4 절이 모두 네 개의 바브 계속법 완료형을 갖고 있고 각 절의 마지막 형을 설명하면?

3 절 (ורחצת וסכת ושמת **וירדתי**)

4 절 (וידעת ובאת וגלית **ושכבתי**)

⑤ וְהוּא יַגִּיד לָךְ אֵת אֲשֶׁר תַּעֲשִׂין에서 הוא의 역할은?

⑥ אֲשֶׁר תַּעֲשִׂין은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다.

⑦ 미완료형 תַּעֲשִׂין의 용법은(WHS 173; GBH 113m; 출 4:15; 민 35:28; 창 20:9; 왕상 22:6)?

⑧ 복수형 מרגלות의 용법은(IBHS 7.1d; 7.4.1c; GKC 124a, b; WHS 11)? מרגלות가 가리키는 신체의 부분은(cf. 단 10:6 זְרֹעוֹת 'arms'; 창 28:11, 18 מְרַאֲשׁוֹת)?

2) 주석

룻 3:4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두라. 그리고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 있거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① 이제 나오미는 타작 마당에서 룻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가 누울 때**"는 미래의 일이므로 וְהָיָה בְּשָׁכְבוֹ [브하야 브쇼흐보](=היה[하야]의 바브 계속법 완료형 + 비분리 전치사 + 부정사)가 기대되는데 וְיִהִי בְּשָׁכְבוֹ [비히 브쇼흐보](=접속사+היה[하야]의 간접명령형 + 비분리 전치사 + 부정사)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처럼 וְיִהִי[비히] 다음에 비분리 전치사+부정사가 오는 구절들은 삼상 10:5; 삼하 5:24(=대상 14:15); 왕상 14:5 이다. GBH 119z 는 룻 3:4 와 삼하 5:24 은 지시 명령(injunction)의 문맥이고 삼상 10:5 와 왕상 14:5 은 지시 명령의 문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주옹(66)은 룻 3:4 의 וְיִהִי[비히]가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GKC 112z 는 왕상 14:5 의 경우 וַיְהִי[바이히]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나머지의 경우 리듬상의 이유로 간접명령형이 예외적으로 바브 계속법 완료형 대신 쓰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허버드(202, n. 28)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문예적 장치로 "Now it is crucial"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룻 3:4 의 경우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룻에게 신적인 지시를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시(152)는 허버드의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고 지시 명령의 문맥이 아니므로 간접명령형(jussive)이 어울리지 않는 삼상 10:5 과 왕상 14:5 의 경우에 더욱더 그렇다고 반박하며 명령의 일이기 때문에 간접명령형 וִיהִי[비히]가 쓰였다고 하는 루돌프(52)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② 접속사+간접명령형+전치사+부정사로 된 절 וִיהִי בְשָׁכְבוֹ ([비히 브쇼흐보] **그가 누울 때에**)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4 개의 정형동사 וְיָדַעַתְּ ... וּבָאת וְגִלִּית ...וְשָׁכַבְתִּי [브야다아트 우바트 브길리트 브샤하브트]는 모두 바브 계속법 완료형으로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벌린(90-91)은 첫 번째 바브 계속법 וְיָדַעַתְּ[브야다아트]를 명령으로 보지 않고 삽입절(And when he is lying down—and you will know where he is lying down—you will come .....)의 의미로 여기며 보아스가 누울 때 즉 보아스가 잠들기 전 기분 좋은 상태일 때 룻으로 하여금 바로 가서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았다. 벌린은 룻이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누워 잠든 후에 가만히 다가가서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운 것(3:8)을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시(162)는 벌린의 해석이 연달아 일어나는 연속 동작을 언급하는 바브 계속법 구문을 무시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③ 3 절과 4 절을 나란히 놓으면 각 절이 모두 네 개의 바브 계속법 완료형을 갖고 있고 각 절의 마지막 단어가 고어형으로 쓰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3 절 (ורחצת וסכת ושמת וירדתי)

4 절 (וידעת ובאת וגלית ושכבתי)

앞에서 설명한 3 절의 וירדתי([바브-요드-레시-달렛-타브-요드] 크티브: וְיָרַדְתִּי[브야라드티] / 크레: וְיָרַדְתְּ[브야라드트])처럼 4 절의 고어형 ושכבתי[바브-신-카프-베트-타브-요드]의 크티브는 וְשָׁכָבְתִּי[브샤하브티]를 나타내고 크레는 וְשָׁכַבְתְּ[브샤하브트]를 나타낸다. 문맥은 크티브가 기본 능동 바브 계속법 완료형으로서 1 인칭 공성 단수 동사와 어형은 같지만 2 인칭 여성 단수 동사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GKC §44h).

④ 룻은 나오미로부터 보아스가 **누울 때** 먼저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두라** 그리고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눕는 곳**은 선행명사 הַמָּקוֹם[하마콤]과 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אֲשֶׁר יִשְׁכַּב־שָׁם [아셰르 이시카브-샴]으로 되어 있다.[12] 나오미의 지시에

[12] 이 형용사절을 직역하면 where he will lie down *there* 가 된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형용사절에는 영어의 there 에 해당하는 שָׁם[샴]이 있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 there 를 생략해야 바른 번역이 된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관계사 אֲשֶׁר[아셰르]가 gap-word 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오는 "**눕다**," "**알다**" "**들어가다**," "발치 **부분을 들치다**" 등의 단어들은 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 ⑴"**눕다** שׁכב[샤하브]"라는 단어는 3:4-14 에서 단순히 "잠자려고 눕다 lie down to sleep"는 의미로 8 번 사용되었지만, 다른 성경책들에서 전치사(עִם[임], אֵת[에트] with)와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을 묘사하기도 한다(BDB 1012; 창 19:32-35; 출 22:16[MT 15]; 레 18:22; 신 22:22; 삼하 2:22; 삼하 11:4).
- ⑵어근 "ידע[야다] **알다**"는 2:1 에서 파생 명사 מְיֻדָּע([므유다] "친지")와 3:2 에서 מֹדַעַת([모다아트] "친척")를 나타내는 데 쓰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로 3:3, 4, 10, 18 에도 나온다. 룻은 3:3 에서 적절한 때까지 보아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3:4 에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두어야 했다. 보아스는 3:11 에서 성읍 사람들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음을 말하고 3:14 에서 룻이 밤에 타작 마당에 왔던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오미는 3:18 에서 룻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알다"에 대한 뉘앙스를 문맥을 통하여 잘 파악하는 독자들이지만 그들 마음에 "알다 ידע[야다]"가 자주 "성관계를 맺다, 동침하다(창 4:1, 17)"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을 떠올렸을는지도 모른다(Campbell, 131).
- ⑶동사 "**들어가다** בוֹא[보] to come toward, to go into"는 3:4, 7, 14 에 나오며 이동의 동작을 나타내지만 4:13 에서는 분명하게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cf. 창 16:4).
- ⑷"**발치 [이불]을 들치다** וְגִלִּית מַרְגְּלֹתָיו [브길리트 마르글로타브]"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גלה[갈라]는 자주 성적인 문맥에서 사용된다.[13] 예를 들면, 레 18:6-19; 20:11, 17-21; 겔 22:10 등에서 גָּלָה עֶרְוַת אָב/אֵם [갈라 에르베트 아브/엠] (누구의 하체를 범하다; to uncover someone's nakedness) 혹은 신 22:30[MT 23:1]; 27:20 등에서 גָּלָה כְּנַף אָבִיו [갈라 크나프 아비브] (누구의 하체를 드러내다; to uncover someone's skirt)처럼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어 מַרְגְּלֹתָיו[마르글로타브]는 3:4, 7 에서 גלה[갈라]의 목적어 즉 룻이 "들칠/들친 부분"을 가리키고 3:8, 14 에서 שׁכב[샤하브]의 부사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즉 룻이 "누워있던 곳"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3:4, 7, 8 에서 완전철자법(מרגלתיו)으로 쓰여 있으나 3:14 에서 접미 대명사에 요드가 빠져 있는 불완전철자법(מרגלתו)으로 쓰여 있다.

---

[13] 예를 들면, 레 18:6-19; 20:11, 17-21; 겔 22:10 등에서 גָּלָה עֶרְוַת אָב/אֵם [갈라 에르베트 아브/엠] (누구의 하체를 범하다; to uncover someone's nakedness) 혹은 신 22:30[MT 23:1]; 27:20 등에서 גָּלָה כְּנַף אָבִיו [갈라 크나프 아비브] (누구의 하체를 드러내다; to uncover someone's skirt)처럼 사용되었다.

⑤ מַרְגְּלוֹת[마르글로트]가 가리키는 신체의 부분을 논의하는 데 단 10:6 의 זְרֹעוֹת[즈로오트]와 창 28:11, 28 의 מְרַאֲשׁוֹת[므라아쇼트]와 복수형의 용법이 거론된다.

-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개체의 숫자적인 복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특징으로 되어 있는 복수적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복수적 성질을 나타내는 복수를 GKC 124 는 확장의 복수(plural of local extension שָׁמַיִם[샤마임] 하늘, פָּנִים[파님] 얼굴), 추상적 복수(abstract plural זְקֵנִים[즈쿠님] 노년, כִּפֻּרִים[키푸림] 속죄), 장엄의 복수(majestic plural אֱלֹהִים[엘로힘] 하나님, אֲדֹנִים[아도님] 주님)로 나누었다. 여성 복수 어미를 갖고 있는 מַרְגְּלוֹת[마르글로트]가 나타내는 것은 숫자적으로 개체가 여러 개인 것을 나타내는 복수가 아니고 지시 대상물이 복합적인 것을 나타내는, 즉 확장의 복수인 것이 분명하다(IBHS 7.1d; 7.4.1c; GKC 124a-b; WHS 11).
- מַרְגְּלוֹת[마르글로트]와 대비되는 단어는 야곱이 한 돌을 취해 머리 아래(under head)두고 베개 삼았던 일을 말할 때 나오는 מְרַאֲשׁוֹת[므라아쇼트](창 28:11, 18; cf. 삼상 19:13, 16; 왕상 19:6)이다. מְרַאֲשׁוֹת[므라아쇼트]가 רֹאשׁ[로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מַרְגְּלוֹת[마르글로트]는 רֶגֶל[레겔]과 관련이 있다. 창 28:11, 18 에서 [므라아쇼트]가 "place of the head, head support, 머리가 있는 곳, 머리 받침"를 나타내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마라글로트]는 "place of the feet, footing, 발이 있는 곳, 발밑/발판"을 나타낸다(Block, 686). 문맥에 따라 רֶגֶל[레겔]은 발뿐만 아니라 다리(삼상 17:6; 신 28:57)도 가리킬 수 있다. רֶגֶל [레겔]은 또한 완곡어법으로 성기(genitalia)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남성] 출 4:25; 삿 3:24; 삼상 24:3[MT 4]; 사 7:20; [여성] 신 28:57; 겔 16:25). 이것은 왕하 18:27(=사 36:12)에 나오는 크티브 שֵׁינֵיהֶם[세얀야헴] "소변"이 맛소라 소주에 크레로서 מֵימֵי רַגְלֵיהֶם [메메 라글레헴] "발의 물"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Block, 685, n. 23). 그렇다면 룻 3:3 에서 רֶגֶל[레겔] 대신 מַרְגְּלוֹת[마르글로트]가 사용된 것은 이중적 의미(double entendre)를 살리며 한편으로는 רֶגֶל[레겔]이 완곡어법으로 성기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를 배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모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Block, 686).[14]
- מַרְגְּלוֹת[마르글로트]는 룻기(3:4, 7, 8, 14)를 제외하고 단 10:6 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다. 단 10:16 에서 מַרְגְּלֹתָיו[마르글로타브]는 זְרֹעֹתָיו[즈로오타브]와 짝을 이루고 있다. 개역개정과

---

[14] Block(*Ruth* ZECOT, 172, n. 36)은 Harm 이 그의 논문("The Function of Double Entendre in Ruth Three," *Journal of Translation and Textlinguistics* 7 [1995]: 19-27)에서 룻기 3 장에서 일련의 이중 의미를 지닌 어구로 יָדַע[야다, "알다"], שָׁכַב[샤하브, "눕다"], בּוֹא[보, "들어가다"], גלה[갈라, "들치다"], מַרְגְּלוֹת[마르글로트, "발치 place of one's feet"], יִיטַב לֵב[이타브 레브, "마음이 즐겁다"], הָלַךְ אַחֲרֵי[할라흐 아하레, "뒤따라 가다"] 등을 살핀 것을 지적한다.

새번역과 우리말성경은 "팔과 발"로 번역하고(NASB/NLT/HCSB/NKJV: arms and feet) 공동번역은 "팔다리"로 번역하고 쉬운성경과 현대어성경은 "팔과 다리"로 번역했다(ESV/NIV/GNT: arms and legs).

⑥ 나오미가 말한 מַרְגְּלוֹת[마르글로트]에 대하여 "발치"로 보는 입장(Hubbard)과 "다리, 아랫도리, 하반신"로 보는 입장(Campbell, Bush, Block)이 있다.

- 캠벨(114-115)은 룻 3:4, 7 에서 "(uncover) his legs"와 3:8, 14 에서 "(lie) next to him"으로 번역하였다. 부시(144, 158)는 "(uncover) his legs"와 "(lie) beside him (lit. at his legs)"으로 번역하고, [마르글로트]가 몸의 하반신(152, "the lower half of Boaz's body")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였다. 블락(686)은 단 10:6 에서 [마르글로트]가 분명히 발보다는 더 넓은 다리 부분("lower limbs," inclusive feet, legs, and thighs)을 가리키므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아랫도리(Boaz's lower limbs, probably exclusive of his genitals)를 들치고 누워 있으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했다.[15]
- 허버드(198, 207, 220)는 룻 3:4, 7 에서 "(uncover) his feet"로 번역하고 3:8, 14 에서도 "(lie at) his feet"로 번역하였고 한글 성경들도 "발치"로 번역하였다. 허버드(203, n. 30)는 다니엘서와 룻기에 사용된 단어가 같더라도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리보다는 발에 의미가 더 가까운 [레겔]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복수 어미가 지역/부분 확장의 복수이며 나중에(3:8, 14) 룻이 누운 장소를 나타내는 데도 쓰이고 מְרַאֲשׁוֹת[므라아쇼트](place of head 머리 두는 곳)와 상응되는 것을 고려하여 "발치(place of feet)"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주석은 מַרְגְּלֹתָיו[마르글로타브]를 "**그의 발치**"로 번역하였다.

⑦ 지금까지 살펴본 "눕다, 알다, 들어가다, 발치를 들치다" 등이 풍기는 성적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창녀처럼 보아스를 유혹하도록 했다는 식의 해석은 이야기에 너무 많은 것을 이입시킨 것이다. 며느리에게 남편과 가정을 찾아주려는 시어머니가 그러한 부도덕한 일을 시켰을 리 만무하다. 만일 룻이 성적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했다면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칭찬하고(3:10) 현숙한 여인으로 특징지어 말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된다.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단어들의 사용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저자의 의도적인 모호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불미스러운 성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룻과 보아스의 고결한 인격을 보게 해 준다.

---

[15] Block, 686: "There[= in Dan 10:6], juxtaposed with זְרֹעוֹת "arms," the word מַרְגְּלוֹת means "lower limbs," inclusive feet, legs, and thighs. Accordingly, it seems Naomi is advising Ruth to uncover Boaz's lower limbs, probably exclusive of his genitals, and go and lie down herself."

⑧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잠들어 누운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서 거기 누워 있으라**고 말한 후 룻이 그 다음에 취할 행동으로 보아스의 지시를 기다릴 것을 말하였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וְהוּא יַגִּיד לָךְ אֵת אֲשֶׁר תַּעֲשִׂין [브후 야기드 라흐 에트 아셰르 타아씬]"에서 접속사 וְ[브]는 (앞의 명령 다음에 오며)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고 הוּא [후]는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구어체에서 정상적인 주어로 쓰인 대명사이고 אֲשֶׁר תַּעֲשִׂין [아셰르 타아씬]은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절이다. 미완료형 תַּעֲשִׂין[타아씬]은 서법적인(modal) 용법으로 쓰였고 "해야 한다, must"의 뜻을 갖는다.[17]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보고 전에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듯이 이제 친척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 그 의미를 알아채고 룻에게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나오미는 룻의 운명에 대한 마지막 말을 보아스에게 맡겼다.

⑨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믿음대로 계획이 추진된다면 보아스는 룻의 상징적인 동작을 통하여 그 의도를 간파하고 친척으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룻에게 평안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모험적인 계획은 위험스럽고 재난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룻의 상징적인 동작을 통한 청혼이 여자가 남자에게,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에게, 밭에서 이삭 줍는 자가 밭의 주인에게, 이방인이 본토인에게 하는 비정상적인 청혼이기 때문이다(Block, 687). 독자들이 지금까지 보아 온 보아스의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몇 가지 가상적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아스가 남자로서 한밤중에 만나게 된 여인을 통하여 성적인 욕구만을 채운 뒤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창녀 취급하며 내쫓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덕망 있는 보아스가 룻이 법적으로 말론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가족적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 간부로 취급하고 꾸중하며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자신의 주제(이방인, 과부, 가난한 여인) 파악도 못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과대망상으로 여기고 조소하며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룻은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었다.

⑩ 그러면 나오미는 왜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했는가? 부모가 자녀의 결혼 문제를 주선하는 것은 관례이지만(창 24 장, 34 장, 38 장; 출 2:21; 삿 14:2-3, 10) 구약 어디에도 나오미가 세운 계획과 같은 방법으로 청혼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결혼을 주선하는 다른 예도 없다(Hubbard, 204-205). 나오미는 왜 룻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직접 보아스나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보아스를 포함한 기업

---

[17] WHS 173; GBH 113m; 출 4:15; 민 35:28; 창 20:9; 왕상 22:6. 미완료형 תַּעֲשִׂין[타아씬]에 붙어있는 첨가적 눈(paragogic נ)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2:8 을 참고하라.

무를 자들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친족의 의무 이행에 나서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보아스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룻과의 결혼 문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선택적 사항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각자 다른 쪽에서 행동하기를 기다리며 보고만 있었을까? 아니면 보아스가 룻과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룻이 이방 여인이기에 결혼하는 것을 서로 꺼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보아스가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나서지 않았던 것인가?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나오미의 계획은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교착 상태에 있는 룻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오미 나름대로의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한 목적은 좋지만 선택한 방법은 비정상적이고 위험스러운 것이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뜻에 맡기지 않고 나오미가 먼저 나선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허버드(205)의 설명처럼 내레이터는 독자들이 나오미가 룻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추진하려는 이 계획을 다말의 계획(창 38 장)과 비교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역사가 반복되며 유다 지파를 위해 비슷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타작 마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섭리만이 이 여인들을 구해 줄 것이다.

50. 룻 3:5

1) 원문 문제

(룻 3:5) וַתֹּאמֶר אֵלֶיהָ כֹּל אֲשֶׁר־תֹּאמְרִי ־ֵי [ק= אֵלַי] אֶעֱשֶׂה׃

① BHS 에 모음 (־ֵי)만 주어진 부분에 들어갈 자음은?

② 맛소라 소주(אלי חד י קר ולא כת)의 의미는?

③ 미완료형 תֹּאמְרִי의 용법은(룻 3:11; 삼하 9:11; GKC 107h)?

④ כֹּל אֲשֶׁר־תֹּאמְרִי ־ֵי (אֵלַי ק) אֶעֱשֶׂה은 목적어가 문두에 오는 어순인데 이것은 강조인가 아니면 구어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순서인가(Mcdonald, *BO* 32 [1975]: 164-65; Bush, 154)?

2) 주석

룻 3:5 그러자 룻은 (그녀에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① 나오미의 말(3:2-4)을 듣고 룻은 반문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하였다. BHS 에 모음(־ֵי[체레 파타흐])만 주어진 부분에 들어갈 자음은 전치사와 접미대명사를 나타내는 אלי[알렙-라멧-요드]이고 이 자음에 모음을 합치면 אֵלַי([엘라이] "**저에게**")가 된다. 맛소라 소주는 " אלי חד י קר ולא כת [단어가] 쓰여 있지 않으나 읽어야 하는 10 경우 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나오미가 방금 끝낸 말을 나타내는 데 미완료형 תֹּאמְרִי

[톰리](“**어머님이 말씀하신**”)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방금 끝난 일에 대하여 완결된 사실로 보고 완료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창 16:8) 이미 끝났지만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미완료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GKC 107h: 욥 1:7; 2:2; 창 32:30; 24:31; 44:7; 출 5:15; 삼하 16:9).[18] 어순상 목적어인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문두에 나오고 있는데 부시(154)는 맥도널드(Mcdonald, *BO* 32 [1975]: 164-65)를 근거하여 이것이 강조가 아니고 구어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어순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홈스테트(156)는 목적어가 앞에 온 것은 집중(Focus)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9]

② 나오미가 말한(תֹּאמְרִי[톰리] <אמר[아마르]) 것을 내레이터가 3:6 에서 명령한(צִוַּתָּה[치바타] <צוה[차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룻은 나오미의 말을 고려해 볼 충고가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룻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대답은 나오미가 제시한 진행 절차를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룻은 다시 한번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표시한다. 1 장에서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권면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신을 다짐했던 룻은 3 장에서 타작 마당으로 가라는 나오미의 지시에 동의하며 헌신을 표시하였다.[20] 나오미가 의도한 대로 보아스가 룻의 상징적인 동작을 보고 해야 할 일을 말해 준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좋지

---

[18] [창 16:8]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완료 אֵי־מִזֶּה בָּאת [에-미제 바트]) 어디로 가느냐(וְאָנָה תֵלֵכִי [브아나 탈히])?

[욥 1:7; 2: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미완료 מֵאַיִן תָּבֹא [메아인 타보])?

Campbell(121)은 Joüon 이 룻기 3:5 의 미완료를 왕하 10:5(아합의 궁내대신들이 예후가 명하는[תֹּאמַר토마르] 것을 다 하겠다는 일반적인 순종의 진술)과 비교한 것 그리고 이와 반대로 Rudolph 가 삼하 9:11(시바가 다윗이 명하는[יְצַוֶּה][여차베] 구체적인 지시대로 따르겠다는 특별한 순종의 진술)과 비교한 것을 들면서 오히려 더 좋은 비교는 룻 3:11(보아스가 룻이 방금 말한[תֹּאמְרִי 톰리]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 진술)이라고 지적하였다. Bush(154)는 3:5 의 미완료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말한 것을 나타내는 왕하 10:5 이나 삼하 9:11 과는 달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한 것을 나타내는) 3:11 의 미완료에 비추어 보면 미래에 관련하여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시나 명령이 일반적이든 구체적이든, 말하는 사람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미완료가 방금 끝난 일이 현재와 관련을 맺으며 지속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19] Holmstedt, *Ruth*, 156: “… the fronted position of the complement indicates that it has been raised for Focus (contra Bush 1996:154).”

[20] Trible(266-267)은 룻과 보아스의 첫 번째 만남(2 장)과 두 번째 만남(3 장) 사이의 커다란 차이점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첫 번째 만남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면 두 번째 만남은 선택에 의한 것이다. 첫 번째 만남의 장소는 밭이고 두 번째 만남의 장소는 타작 마당이다. 첫 번째 만남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만난 공적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둘 만이 만난 사적인 만남이다. 첫 번째 만남이 일(work)이라면 두 번째 만남은 도박(play)이다.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은 낮이고 두번째 만남의 시간은 밤이다. 그러나 둘 모두 생명과 사망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Yet both of them hold the potential for life and for death.).”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과연 시어머니에게 다시 헌신을 표시한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오미의 모험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치되는 것일까 아니면 일치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며느리를 위한 중매장이로 나선 나오미의 계획을 승인하며 복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의 일처럼 거절하며 무효화시키실 것인가? 아무튼 3 막의 제 1 장면은 에스더(4 장)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룻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끝이 난다. 나오미의 계획에 순응하며 룻은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나오미의 손에 맡긴다(Hubbard, 206).

3 막 1 장(3:1-5) 해설

⑴룻은 보아스의 호의에 따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양식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추수가 끝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이렇게 2 막 3 장(2:18-23)은 나오미의 텅빈 삶의 해결의 이야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느낌을 주며 끝났었다. 3 막 1 장(3:1-5)의 서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그에 대한 기다림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막에서 룻의 주도적인 역할과 보아스의 호의로 인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 나오미는 3 막에서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추수가 끝나서 룻이 집에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딸아,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3:1)**?"**고 **룻에게 말하였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텅빈 자신의 삶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여호와께 불평하던 나오미, 동서고금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돌아온 룻의 존재도 망각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착하던 나오미,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저 마지못해 허락하던 나오미—이러한 그녀가 보아스의 한결같은 인애 가운데 며느리 룻이 주워 온 많은 이삭과 볶은 곡식을 본 후 회복되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회복의 손길이 나오미에게 임했다. 회복된 나오미는 룻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인애를 베푸시며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빌었던(1:8-9)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며느리 룻의 헌신(1:16-17)의 말에 상응할 만한 관심을 표명한다. 나오미는 소망 없는 자신에게 헌신하기 위해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했던 며느리를 걱정하며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남편과 가정이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주선하려는 룻의 결혼이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를 얻기 위한 계대결혼적(수혼적) 성격이 본문에는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나오미의 일차적이고 주된 관심은 룻이 결혼을 통하여 누릴 행복, 평안, 안식이었다(부시, 154).

⑵며느리를 위해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그의 젊은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가 그들의 **친척**(3:2)인 사실에 근거하여 며느리에게 남편과 가정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아스에게 있음을 제시한다. 나오미는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가까운 일가붙이와 기업 무를 자(2:20)로서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보아스라면 틀림없이 "**우리의 친척**"으로서 룻을 위한 그의 친족상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확신한다. 나오미는 룻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보라,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3:2)."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될 보아스의 저녁 상황이 며느리의 평안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며느리를 타작 마당으로 보내려는 의도 가운데서 지적되었다.

㈢룻의 새로운 남편과 가정에 대한 해답으로 친척인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며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때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나오미는 룻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한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3:3)." 타작 마당으로 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몸을 청결하게 하고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일이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의복을 입으라고 한 것은 삼하 12:20 에서 다윗이 아기가 죽은 후에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룻이 과부의 옷(창 38:14, 19)을 벗고 결혼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었다(부시, 152). 나오미의 지시대로 룻이 말론의 아내로서의 과부 복장을 벗어버린다면 언제든 청혼을 받고 보아스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일이 된다. 계속해서 나오미는 룻이 목욕하고 기름바르고 옷 갈아입고 타작 마당으로 갔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라**(3:3).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두라. 그리고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 있거라**(3:4)." 룻은 나오미의 모험적인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여야만 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누울 때 그가 누운 곳을 알아 두었다가 가서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 있어야 했다. 여기 사용된 어구들 즉 "눕다, 알다, 발치, 들치다" 등은 성행위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성적인 뉘앙스를 짙게 풍기고 있다.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사 시대가 배경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적인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어구들은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에게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위험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아스를 믿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보내는 나오미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보여준 보아스의 인품,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그대로 나오미의 지시대로 움직일 룻의 성품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저자가 보아스와 룻을 모두 덕망이 있고(2:1; 3:11)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 한결같은 인애를 베푸는 모습(1:8; 2:20; 3:10)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저자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구들을 사용하여 깜깜한 밤에 타작 마당에서 남자와 여자 둘만이 있는 만남 가운데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의도적인 모호성을 주며 긴장과 호기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게 하는 문예적 창작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부시,

156).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이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3:4)"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말은 보아스에게 맡긴다. 나오미는 룻이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있는 동작만 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보아스가 그녀의 상징적인 동작의 의미를 이해할 것으로 믿었다. 다음 장면에서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할 때 그녀의 의도하는 바를 보아스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징적인 동작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 청혼도 하는데(3:9), 보아스는 룻의 상징적인 동작과 말을 모두 청혼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한다(3:10).

⑷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한 평안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청혼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추수할 때 관대함과 친절함을 보인 보아스가 더 이상 나오미와 룻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먼 친척 사이에 친족으로서 의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친족이 있었다.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이러한 자발적인 일에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룻이 말론의 아내로서 과부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보아스의 나이가 룻에 비하여 많았다. (신학적 구별만을 유일한 구분으로 삼았던 보아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사실 즉)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 보아스의 아내와 자식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보아스가 나서지 않고 있을 때 나오미는 젊고 매력적인 룻으로 과부의 옷을 벗고 다른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타작 마당으로 가서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상징적인 동작을 통한 청혼을 하게 함으로써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고 하였다. 나오미가 의도한 대로 보아스가 룻의 동작을 청혼의 상징으로 보고 친족으로서 자발적으로 남편이 되어 평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면 바람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⑸그러나 나오미의 계획에는 위험스러운 요소도 있었다. 사사 시대라는 배경에 비추어 룻이 타작 마당의 보아스에게 이르기 전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고 해도 보아스와 룻의 평판과 인격에 커다란 타격을 줄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 그들 사이에 베들레헴의 스캔들이라도 일어난듯 소문이 퍼질 수 있었다. 2 막에서 내레이터가 보아스의 인물 묘사를 할 때(2:1)와 보아스의 행동과 말을 기록할 때 그가 친절하고 관대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긴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가 의도한 대로 룻의 남편이 되어 가정의 평안함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먼저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요 가난한 자요 사회적으로 보잘 것이 없는 룻이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부유한 자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신에게 청혼을 하였다고 비웃으면서 룻의 청혼을 거절하며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보아스는 룻이 말론의 아내이고 결혼이 주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적 의무에 충실하라고 하거나 심하면 간부로 몰아 부치면서 나오미에게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아스가 밤의 어두움 가운데서 타작 마당으로 온 젊은 여인을

통하여 성적 즐거움을 본 후에 그녀의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창녀 취급하며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⑹이러한 위험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지시하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가정의 상황을 들어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나오미의 계획에 순응하며 룻은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나오미의 손에 맡긴다(허버드, 206). **룻은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3:5). 룻의 이 말은 나오미에 대한 헌신과 신뢰의 철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해 준다. 나오미가 의도한 대로 보아스가 룻의 남편과 가정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오미가 예상하고 확신하는 대로 룻의 상징적인 동작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고 룻이 하여야 할 일을 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독자들이 나오미와 함께 보아스에 대하여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2 막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행동과 말에 일치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베풀어 줄 상들을 주셨던 여호와께서 며느리를 위해 빌었던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며느리를 위해 중매장이로서 나선 나오미의 계획을 승인하며 복을 주실 것인가? 나오미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할 어떤 일을 일러줄 것인가?

◈ 3 막 2 장 (3:6-15)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3:6-15)

⑴3 막 1 장(3:1-5)은 그 무대가 나오미의 집이었고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룻을 위해 남편이 있는 가정을 마련해 주려는 계획을 밝혔을 때 룻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여준다. 3 막 2 장(3:6-15)은 그 무대가 타작 마당이고 룻이 타작 마당에 가서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행하였다는 요약 진술(3:6)로 시작하여 룻의 행동과 말에 대한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전하고서 기업 무르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다(3:15)는 언급으로 끝난다. 이 중심 장면의 시작하는 두 단어(וַתֵּרֶד הַגֹּרֶן [바테레드 하고렌]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갔다")와 마감하는 두 단어(וַיָּבֹא הָעִיר [바야보 하이르] "그가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장소 언급을 통한 수미쌍관법(topographical inclusio)을 이루고 이 틀의 끝은 이야기의 진행을 위한 주도권이 나오미와 룻으로부터 보아스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⑵블락(688)은 3 막 2 장을 시간에 근거하여 균등하지 않은 두 장면 즉 저녁에서 자정 사이에 일어난 일(3:6-13)과 자정에서 아침 사이에 일어난 일(3:14-15)로 나누었다. 그러나 블락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분보다는 아래의 표가 잘 보여 주듯이 장르, 내용, 반복 어구 등을 근거로 에피소드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설명한 부시의 구조 분석(160-161)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⑶부시(160)는 3 막 2 장(3:6-15)을 나오미의 계획을 룻이 행동(3:6-7)과 말(3:8-9)로 옮기는 에피소드 1 과 이에 대하여 보아스가 말(3:10-13)과 행동(3:14-15)으로 반응하는 에피소드 2 로 나누고 두 에피소드가 갖는 교차대구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에피소드 **1** 나오미의 계획에 대한 룻의 실천	행동 A	3:6-7	a	ותרד הגרן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갔다	6a
			b	... וישת ... ויבא ... הערמה ... 그가 마시고 ... 곡식더미 끝으로 ... 그가 갔다	7b, d
			c	ותגל מרגלתיו ותשכב: 그녀가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7f-g
	말 B	3:8-9	d	כי גאל אתה 어르신은 기업 무를 자이기 때문입니다	9d

에피소드 **2** 룻의 언행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	말 B'	3:10-13	d'	גאל אנכי ... גאל קרוב ממני 내가 기업 무를 자이긴 하지만 ...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있다	12a-b
				... יגאלך ... יגאל 그가 네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면 ... 그가 기업 무르는 일을 할 것이다	13c-d
				... לגאלך וגאלתיך 그가 네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거절하면 내가 네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13e-f
	행동 A'	3:14-15	c'	ותשכב מרגלתו עד־הבקר 그녀가 그의 발치에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14a
			b'	... וישת ... ויבא העיר ... 그가 이워주고 ... 그가 성읍으로 갔다	15f
			a'	... כי־באה האשה הגרן ...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왔었다는 것	14c

(4)장르면에서 에피소드 1A(3:6-7)와 에피소드 2A'(3:14-15)는 내러티브이고 에피소드 1B(3:8-9)와 에피소드 2B'(3:10-13)는 대화이므로 교차대구를 이룬다. 내용면에서도 A 와 A'는 요청과 약속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B 와 B'의 요구와 동의에 대한 말을 감싸고 있다. 이와 같은 교차대구는 병행되는 반복적인 어구들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Bush, 160).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갔다."라는 Aa 는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왔었다."라는 A'a'와 병행을 이루고 있고 "그녀가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라는 Ac 는 "그녀가 그의 발치에 아침까지 누웠다"라는 A'c'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 Ab 와 A'b'에는 동일한 단어(וַיָּבֹא[바야보] "그가 갔다")가 들어 있고, 발음과 뜻은 다르지만 자음이 동일한 단어들(וַיִּשְׁתְּ[바예시트] "그가 마셨다"와 וַיָּשֶׁת[바야셰트] "그가 이워 주었다")가 들어있고 비슷한 자음과 소리를 지닌 단어들(הָעֲרֵמָה[하아레마] "곡식더미"와 הָעִיר[하이르] "성읍")도 들어있다. B 와 B'는 "기업 무르다"라는 의미의 어근 גאל[가알]이 사용된 점에서 병행을 이룬다. 이 어근은 B 에서 현재분사 גֹּאֵל([고엘] "기업 무를 자")로 1 번(9 절) 사용되고 B'에서 현재분사 גֹּאֵל([고엘] "기업 무를 자")로 2 번(12 절) 사용되고 동사로 4 번(13 절) 사용되고 있다.

(5)에피소드 2(3:10-13)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4 부분 즉 칭찬(10 절), 칭찬의 첫 번째 결과인 약속(11 절), 칭찬의 두 번째 결과인 갈등 제시(12 절), 그리고 갈등의 해결 제시와 약속의 재확인(13 절)으로 나눌 수 있다(Bush, 160).

ⓐ보아스의 반응의 첫 번째 부분은 성읍의 젊은 남자 대신 자신을 선택한 룻에 대한 칭찬(10 절)이다. 보아스의 반응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이 칭찬에 대한 두 가지 결과(11-12 절)를 언급하는 것으로 둘 다 וְעַתָּה[브아타]로 시작한다.

ⓑ칭찬의 첫 번째 결과(11 절)는 온 성읍 백성이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안다는 것에 근거하여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칭찬의 두 번째 결과(12 절)는 그 약속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주요 갈등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병행구조를 갖는다.

וְעַתָּה [브아타]	그런데
כִּי אָמְנָם כִּי אִם גֹּאֵל אָנֹכִי [키 옴남 키 임 고엘 아노히]	내가 기업 무를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וְגַם יֵשׁ גֹּאֵל קָרוֹב מִמֶּנִּי [브감 예시 고엘 카로브 미메니]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하나 있소

ⓓ보아스의 반응의 네 번째 부분(13 절)은 세 번째 부분에 제기되었던 갈등의 해결을 위한 지시와 약속의 재확인이다. 이 부분은 4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Bush, 161).[1]

X	13a	לִינִי הַלַּיְלָה וְהָיָה בַבֹּקֶר [리니 할라일라 브하야 바보케르]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시오. 그리고 아침에
Y	13b	אִם־יִגְאָלֵךְ [임-이그알레흐]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겠다면,
	13c	טוֹב יִגְאָל [토브 이그알]	좋소, 그로 무르게 합시다.
Y’	13d	וְאִם־לֹא יַחְפֹּץ לְגָאֳלֵךְ [브임-로 야흐포츠 르고올레흐]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13e	וּגְאַלְתִּיךְ אָנֹכִי חַי־יְהוָה [우그알티흐 아노히 하이-아도나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X	13f	שִׁכְבִי עַד־הַבֹּקֶר [시흐비 아드-하보케르]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1] 이 교차 대구적 배열은 Trible(185)의 말처럼 “밤이 아침을, 지금의 상황이 다가올 해결을, 지시가 조건과 약속을 각각 둘러싸고 있음을 보여준다. Night surrounds morning; the immediate situation encircles the coming resolution; instruction encompasses condition and promise.”

(1) 3 막 2 장 A (3:6-9)

본문

[WLC: 3 רות]

6 וַתֵּרֶד הַגֹּרֶן וַתַּעַשׂ כְּכֹל אֲשֶׁר־צִוַּתָּה חֲמוֹתָהּ: 7 וַיֹּאכַל בֹּעַז וַיֵּשְׁתְּ וַיִּיטַב לִבּוֹ וַיָּבֹא לִשְׁכַּב בִּקְצֵה
הָעֲרֵמָה וַתָּבֹא בַלָּט וַתְּגַל מַרְגְּלֹתָיו וַתִּשְׁכָּב: 8 וַיְהִי בַּחֲצִי הַלַּיְלָה וַיֶּחֱרַד הָאִישׁ וַיִּלָּפֵת וְהִנֵּה אִשָּׁה שֹׁכֶבֶת
מַרְגְּלֹתָיו: 9 וַיֹּאמֶר מִי־אָת וַתֹּאמֶר אָנֹכִי רוּת אֲמָתֶךָ וּפָרַשְׂתָּ כְנָפֶךָ עַל־אֲמָתְךָ כִּי גֹאֵל אָתָּה:

[ESV: Ruth 3:6-9]

6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and did just as her mother-in-law had commanded her. 7 And when Boaz had eaten and drunk, and his heart was merry, he went to lie down at the end of the heap of grain. Then she came softly and uncovered his feet and lay down. 8 At midnight the man was startled and turned over, and behold, a woman lay at his feet! 9 He said, "Who are you?" And she answered, "I am Ruth, your servant. Spread your wings[a] over your servant, for you are a redeemer."

a. Ruth 3:9 Compare 2:12; the word for *wings* can also mean *corners of a garment*

[개역개정: 룻 3:6-9]

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번역 (룻 3:6-9)

3:6 그러고서 그녀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1] 행하였다.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2] (그의)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을 때 그녀는 [3]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거기] 누웠다. 8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 [4] 어떤 사람이 [5]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9 그래서 그는 [6] "당신은 [7] 누구요?"라고 물었다. 그 때 그녀가 대답하였다. "저는 룻, 어르신의 시녀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8] 어르신의 시녀를 [9] 덮어주십시오[=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어르신이 기업 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비평

[1] BHS 3:6 각주 a 는 맛소라 본문은 כְּכֹל[크홀]을 갖고 있는데 소수 중세 사본들과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이 대신 כֹּל[콜]로 읽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비평 자료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칠십인역은 맛소라 본문처럼 읽는다. 맛소라 본문이 원본이라고 가정하면 중세 사본들과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의 독법은 중자 탈락(haplography 필사자가 כ[카프]를 두번 베끼지 않고 한 번만 베낀 실수)으로 인해 생겼을 것이다. 반면에 3-10 개의 중세 사본의 독법이 원본이라면 맛소라 본문은 중복 오사(dittography 필사자가 원본에 하나만 있는 כ[카프]를 두 번 베껴 쓴 실수)로 인해 생겼을 것이다. 전치사가 없는 경우 כֹּל[콜] 이하는 동사 וַתַּעַשׂ[바타아스]의 한정된 목적어가 되므로 כֹּל[콜] 앞에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 אֵת[에트]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고려하면 맛소라 본문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2] BHS 3:7 의 각주 a 는 칠십인역에서 동사 וַיֵּשְׁתְּ[바예시트]가 생략된 것을 일러준다. 허버드(206, n. 1)는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이 "불가해하게" 동사("그리고 마셨다")를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어떤 종류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번역자들이 이 동사를 생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 동사가 원래 이 절에 없었는데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룻 3:3 의 나오미 말의 영향아래 첨가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번역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그들이 의도적으로 동사를 생략하였다는 것이 더욱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3] 룻기 3 장에서 내레이터와 등장 인물들이 보아스와 룻을 명시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3:8, 16, 18)"과 "그 여인(3:14)"이라고 정체성을 가리며 불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원문을 따라 이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개역이나 NIV 처럼 대명사를 명사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경우라도 명사로 밝혀 번역하지 않았다.

[4] "보니까"는 불변화사 הִנֵּה[히네]를 살리려는 번역이다. 자세한 것은 2:4 을 참고하라.

[5] 원문의 אִשָּׁה[이샤]는 여성이므로 대부분 "어떤 여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형 [이샤]는 독자가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한 저자의 선택이고 보아스 자신은 그 대상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을 것을 고려하여 "어떤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6] BHS 3:9 의 각주 a 에 의하면 칠십인역의 루시안 교정본이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며 이 절에 αὐτῇ[아우테]를 첨가하고 있는데 로빈슨은 이것이 루시안이 번역한 히브리어 본문의 לָהּ[라흐]에 해당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루시안 교정본은 기대되는 것을 명시한 번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칠십인역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하며 לָהּ[라흐](αὐτῇ[아우테])가 없는 맛소라 본문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

[7] BHS 3:9 의 각주 b 는 레닌그라드 사본의 특이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3:10 의 אַתְּ와 비교와 비교해 보면 레닌그라드 사본의 모음 붙이는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 אֶת의 תּ[타브] 아래 모음 없음을 표시하는 부호

시바(̣)를 붙이는 것을 잊어버린 명백한 실수를 하였다. 이 실수는 다른 초기 히브리어 사본들과 판들을 비교함으로써 정정될 수 있다.

[8] BHS 3:9 의 각주 c 는 특별한 종류의 크티브-크레를 지적한다. 크티브가 두 가지 독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K^{Occ} 로 표시된 서부 혹은 티베리아식 독법이고 다른 하나는 K^{Or} 로 표시되어 있고 크레와도 일치하는 동부 혹은 바벨론식 독법이다. 서부 크티브와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은 כְּנָפֶיךָ [크나페하](“당신의 옷자락들 your wings)”로 읽지만 동부 크티브, 크레, 칠십인역(τὸ πτερύγιόν σου Brooke and McLean, *Old Testament in Greek*, 893) 그리고 페시타역은 כְּנָפְךָ[크나프하](“당신의 옷자락 your wing)”으로 읽는다. 허버드(207)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단수로 읽는 것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옷자락(garment-corner)”으로 번역한다. 본 주석은 단수가 원래의 독법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겔 16:8 에서 보는 것처럼 “펼치다”는 의미의 동사 פרשׂ[파라시]와 “옷자락”을 뜻하는 명사 כָּנָף[카나프]의 단수형의 결합은 “옷자락을 여인 위에 펼치는 것”으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이를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 ]안에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라는 청혼의 의미를 밝혔다.

[9] 2:13 의 שִׁפְחָה[시프하]가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의미하는 반면 3:9 의 אָמָה[아마]가 아내나 첩이 될 수 있는 여종을 뜻하는 것(Sasson, 53)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는 “하녀”로, 후자는 “시녀”로 번역하였다. 더 자세한 것은 2:13 의 본문 비평 부분의 주를 참고하라.

각 절 주석 (룻 3:6-9)

51. 룻 3:6

1) 원문 문제

(룻 3:6) וַתֵּרֶד הַגֹּרֶן וַתַּעַשׂ כְּכֹל אֲשֶׁר־צִוַּתָּה חֲמוֹתָהּ׃

① וַתֵּרֶד הַגֹּרֶן에서 הַגֹּרֶן의 구문적인 역할은?

② כְּכֹל에서 כְּ의 용법은(Waltke and O'Conner, 202-3; WHS 257)? 원래 כֹּל 앞에 כְּ가 없었는데 맛소라본문(/칠십인역)이 כְּכֹל처럼 כ를 하나 더 첨가한 실수라면 이 실수는 (dittography)이고 원래 כ가 두 개 있었는데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이 כֹּל처럼 한 번만 쓴 것으로 번역했다면 이 실수는 (haplography)이다.

③ צִוַּתָּה와 기대되는 צִוַּתָהָ의 차이를 설명하면(GKC 59g; Campbell, 114, n. e-e; Bush, 159, n. 6b)? 자음 타브 가운데 붙은 점은?

2) 주석

룻 3:6 그러고서 그녀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하였다.

① 내레이터는 시어머니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룻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룻이 준비하던 과정들을 생략하고 바로 “**그러고서 그녀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갔다**”라고 전함으로써 독자들을

룻과 함께 새로운 장소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는 1:6 그리고 2:3 에서처럼 나오미의 지시대로 룻이 행한 것에 대한 요약 진술, 즉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한다.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갔다."라는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וַתֵּרֶד הַגֹּרֶן [바테레드 하고렌]"에서 הַגֹּרֶן [하고렌]은 전치사 없이 명사가 부사적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그녀가 그녀에게 시켰다/명령했다"라는 동사 צִוַּתָּה[치바타]는 강세능동 완료 3 인칭 여성 단수에 3 인칭 여성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צִוַּתְּהָ([치바트하] *ṣiwwa**t**+**h**ā* D11s1)에서 접미대명사의 *h* 가 동사의 인칭 어미 *t* 에 역행 동화되고(*ṣiwwa**tt**ā*) 마지막에 모음문자 헤(*h*)가 첨가된 것이다(GKC 59g; Campbell, 114, n. e-e; Bush, 159, n. 6b).

② 나오미에게 약속하는 룻의 말(5 절)과 내레이터가 묘사한 룻의 행동(6 절)에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나오미가 내리는 지시를 나타내는 동사로 5 절에는 "말하다(אמר [아마르])"가 나오고 6 절에는 "명령하다/시키다(צוה[치바])"가 나온다. 이것은 5 절의 "말하다"가 "명령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5 절에서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동사 "행하다"의 목적어로 나오는데 6 절에서는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킨 모든 것**" 앞에 전치사 כְּ[크]가 나온다. 이 전치사는 "~대로 정확하게(exactly as)"라는 의미를 갖는 "진실의 카프(kap veritatis: IBHS 202-3; WHS 257)"로서 룻이 나오미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함으로써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보였고 한결같은 인애의 삶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Hubbard, 206; Block, 689).

52. 룻 3:7

1) 원문 문제

וַיֹּאכַל בֹּעַז וַיֵּשְׁתְּ וַיִּיטַב לִבּוֹ וַיָּבֹא לִשְׁכַּב בִּקְצֵה הָעֲרֵמָה (룻 3:7)
וַתָּבֹא בַלָּט וַתְּגַל מַרְגְּלֹתָיו וַתִּשְׁכָּב׃

① וַיֵּשְׁתְּ가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에서 생략된 이유는?

② וַיִּיטַב לִבּוֹ의 바브 계속법의 용법은?

③ הָעֲרֵמָה에 붙은 정관사의 용법은? 보아스가 "곡식더미 끝에 בִּקְצֵה" 누운 것을 말한 의도는?

④ וַתָּבֹא בַלָּט에서 בַלָּט의 의미는 quietly < *ʼaṭ* "to be gentle" (Joüon, E 68)인가 아니면 secretly < *lûṭ* "to enwrap, envelop" (BDB 532; LXX)인가?

⑤ 벌린(*Poetics*, 90-91)은 룻이 보아스가 잠들기 전에 그에게 접근하라는 나오미의 의도를 오해하고 이렇게 행동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인가?

2) 주석

룻 3: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을 때 그녀는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거기] 누웠다.

① 내레이터는 요약 진술(6 절)에 이어 바로 행동의 보고(7 절)를 한다.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갔다. 내레이터는 보아스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면서 룻이 관찰하고 행동한 것을 전달한다.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룻은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וַיִּיטַב לִבּוֹ [바이타브 리보] "**그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표현은 추수의 기쁨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묘사하는 것으로 기분이 좋은 것, 마음이 흡족한 것, 마음이 흐뭇한 것을 나타낸다. 병행 구절에서 "마음이 즐겁다"라는 표현의 동의어는 "기쁘다 שׂמח[싸마흐] 왕상 8:66; 전 11:9)"이고 반의어는 "עָנִי[아니] 고통당하는, 잠 15:15" 혹은 "כַּעַס[카아스] 슬픔, 전 7:3" 혹은 "כְּאֵב לֵב [크에브 레브] 마음의 고통, 사 65:14"이다(Bush, 161).[2] 먹고 마심과 관련된 마음의 즐거움은 삿 19:6, 9, 22(레위인과 첩의 기사) 그리고 왕상 21:7(아합과 나봇 기사)에도 묘사되어 있다. 본문비평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에 "וַיִּשְׁתְּ[바예시트] **그가 마셨다**"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BHS 각주 a; Hubbard, 206, n. 1)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보아스가 포도주를 마셨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포도주로 인해 보아스가 롯(창 19:33, 35)처럼 인사불성이 되거나 나발(삼상 25:36)과 아하수에로(에 1:10)처럼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암논(삼하 13:28)처럼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마음이 즐거운 것은 포도주로 인해 주흥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 곡식의 풍성함의 복(1:6)을 누리며 포도주가 곁들여진 저녁 식사를 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Block, 689).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 보아스의 먹고 마심(3:3)만을 언급했지만 여기서 내레이터는 먹고 마신 후 **그의 마음이 즐겁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가 룻의 동작이 상징하는 청혼을 잘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② 룻은 또 보아스가 흡족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 자리를 떠나며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눕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기 "**눕는**" 것은 분명히 "잠자리에 들어 자는" 것을 의미한다(cf. 잠 6:22; 창 19:4;

---

[2] [왕상 8:66]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전 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잠 15:15]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전 7:3]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사 65: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28:11; 신 6:7; 삼상 3:5, 6). **곡식더미**(הָעֲרֵמָה[하아레마])는 타작하여 까부른 곡식을 쌓아 놓은 더미로 성읍으로 옮기기 전에 타작 마당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타작 마당의 중앙은 공동 타작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곡식더미는 타작 마당 끝 부분에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허버드(209)는 곡식더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곡식더미가 독자에게 잘 알려진 전문 용어인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누워 잠든 곳을 곡식더미의 "**맨 끝에** בִּקְצֵה[비크체]"라고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개역과 대부분 한글 성경은 대부분 "곁에" 혹은 "옆에"라고 번역하였으나 개역개정과 영어성경들은 원문처럼 모두 "at the end" 혹은 "at the far end (NIV)"로 번역하였다. 룻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고려해 보면 보아스가 누운 곳은 곡식더미의 맞은편 끝(the opposite end)이었기 때문에(Block, 689) 룻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다. 이처럼 "**곡식더미 맨 끝에**" 보아스가 누었다고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일이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독자에게 보여 주려는 내레이터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③ 보아스는 타작 마당에서의 일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만족해하며 저녁 식사를 한 후 마음이 즐거웠기 때문에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을 때 깊은 잠이 들었다. 이때 룻은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거기] 누웠다**. 여기 "**가만히**"로 번역된 בַּלָּט[발라트]에 들어있는 명사 לָאט/לָט[라트](삿 4:21)의 의미에 대하여 주옹(67-68)은 명사 אַט[아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gentleness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BDB(532)와 KB(I:527)는 명사 לָאט/לָט[라트]가 어근 לוּט[루트]("to enwrap, envelop")에서 유래한 것으로 "secrecy 비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칠십인역은 후자의 의미를 반영하며 κρυφή([크뤼페] 몰래, 살그머니, 슬그머니 in secret, secretly)로 번역하였다(Hubbard, 209, n. 23). "조용하게, 가볍게 살짝, quietly, gently" 혹은 "몰래, 살그머니, secretly" 중에서 어느 쪽의 의미를 취하든 별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이 부사구를 써서 나타내려는 것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말 "**가만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다.[3] 공동번역은 "살며시"로 번역했고 쉬운성경은 "조용히"로 번역했고 새번역/현대인의 성경은 "살그머니/슬그머니"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역개정과 현대어성경은 "가만히"로 번역하였다.

④ **가만히 다가가서** 룻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발치를 들치고 [거기] 누웠다**. 이렇게 룻의 행동을 묘사할 때 4 절의 어구가 7 절에 그대로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문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여준다. 허버드(209)는 룻이 보아스와 수직방향으로 누웠는지 수평방향으로

[3] 남 영신, *국어사전*, 18 에 실린 다음 두 예문을 참고하라. (1)"초야에 묻혀 혼자 **가만히**(=남이 몰래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괴롭히나." (2)"사람들이 눈치 채지 않게 **가만히**(=남몰래 살그머니) 나가라."

누웠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8 절이 전자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쨌든 밤에 여인이 남자가 자고 있는 발치를 들치고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미묘한 관능성과 커다란 모험성을 느끼도록 한다. 정말 내레이터는 "**그리고 그녀가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라는 절은 다섯 단어([바타보 발라트 바트갈 마르글로타브 바티시카흐]를 통하여 보아스와 룻이 고립된 타작 마당에서 밤에 단 둘이서 함께 누워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아래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곧 다가올 차례다. 청중/독자들은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하면서도 잘 되겠지 하는 바람을 가지고 불안과 흥분 속에 사태의 추이를 바라보는 입장이다(Hubbard, 210).

53. 룻 3:8

1) 원문 문제

וַיְהִי בַּחֲצִי הַלַּיְלָה וַיֶּחֱרַד הָאִישׁ וַיִּלָּפֶת וְהִנֵּה אִשָּׁה שֹׁכֶבֶת מַרְגְּלֹתָיו׃ (룻 3:8)

① 시간의 부사구 בַּחֲצִי הַלַּיְלָה(한밤중에)가 의미하는 것은(출 11:4; 12:23, 29 죽음의 사자; 창 32:23-32 야곱과 천사; 시 91:4-5 여호와는 피난처, 밤의 놀램; 욥 34:20 갑작스러운 죽음; cf. 삿 16:3 삼손의 도망; 마 25:1-13 신랑의 등장; Sasson, 74-75)?

② 한밤중에 보아스가 한 두 동작은?

③ וַיֶּחֱרַד의 어근 חרד의 의미는 "tremble, be terrified"이다. 보아스는 발치 이불이 들쳐졌기 때문에 추워서 떨었던 것인가(to tremble/shiver from the cold/chill on the feet: Campbell, Hubbard, Trible, Joüon)? 아니면 이유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무서워서 놀랐던 것인가(to wake with a shudder or start: Bush, Gerleman, Hertzberg, Rudolph, Würthwein)?

④ וַיִּלָּפֶת의 어근과 어간은? 이 어근은 아랍어 *lafata* "to turn, twist"와 관련이 있는가(BDB 542; Gerleman, Joüon, Rudolph, Bush, RSV, NIV)? 아니면 아카드어 *lapātu* "to touch, to grasp, to grope"와 관련이 있는가(Loretz, Campbell, KB 1:533)?

⑤ הִנֵּה의 용법은(Berlin, *Poetics*, 91-95)?

⑥ אִשָּׁה의 번역으로 좋은 영어 단어는 woman 인가 someone 인가(Berlin, 152, n. 6)?

2) 주석

룻 3:8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① 타작의 결과로 인한 만족과 식사로 인한 즐거움이 준 깊은 잠과 늦은 봄의 밤의 따뜻함으로 인해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발치 이불을 들치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보아스)은 וַיֶּחֱרַד וַיִּלָּפֶת [바예헤라드 바일라페트]로 묘사된 두 가지 동작을 취한다. 내레이터는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고 그가 식사하고 즐거워 누운 것을 말한(3:7) 후에 "**그 사람**"으로

부르며 사건을 진술한다. 이것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고 그가 친족인 것을 언급(3:2)한 후 룻에게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3:3)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리며 보아스와 룻을 "그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한 것은 그들의 만남이 두 남녀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만남인 것을 잘 드러나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보아스가 취한 동작을 묘사하는 두 동사의 의미에 대하여 상반된 해석이 제기된다. 첫 번째 동사 וַיֶּחֱרַד[바예헤라드]의 의미를 이유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무서워서 놀라 잠이 깬 것(to wake with a shudder or start: Gerleman, Hertzberg, Rudolph, Würthwein)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발치 이불이 들쳐졌기 때문에 추워서 떤 것(to tremble/shiver from the cold/chill on the feet: Campbell, Hubbard, Trible, Joüon, Block)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두 번째 동사 וַיִּלָּפֶת[바일라페트]의 의미를 아랍어 *lafata* 처럼 몸을 돌이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BDB 542; Gerleman, Joüon, Rudolph, Bush, RSV, NIV, NASB), 아카드어 *lapātu* 처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KB 1:533, Loretz, Campbell, Block).

② 보아스가 취한 동작을 묘사하는 첫 번째 동사 וַיֶּחֱרַד[바예헤라드]는 추위 때문에 떤 것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무서워 놀라 잠이 깬 것을 나타내는가? 보아스가 발치가 들쳐져 있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거나 밤의 찬 공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떨었다는 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 문맥에 그러한 암시는 전혀 없다. 추워서 떤 것이 아니고 무서워 놀라 잠이 깨었다는 단서는 시점이 **한밤중**으로 언급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은 **한밤중에**(בַּחֲצִי הַלַּיְלָה [바하치 할라일라]) 일어난 무서운 사건들을 언급한다.[4] 성경에서 한밤중이 자주 매우 위험스러운 때로 묘사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면 보아스의 경우 그 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 근동 문헌은 잠자는 남자들을 공격하는 릴루 혹은 릴리트라 부르는 여자 밤귀신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을 언급한다(Sasson, 74-75; Zenger, 70-71). 이러한 성경과 고대 근동 문헌의 배경에 비추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놀라 잠이 깨는 것을 매우 무섭고 두려운 경험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Bush, 162). 사실 보아스가 놀라 잠이 깬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꿈 혹은 밤의 유령 혹은 릴리트 귀신 출현 등을 놀람의 원인으로 찾는 것은 너무 사변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새슨(78)이 보아스가 그 옆에 여인의 형체를 보고 릴리트 귀신으로 알고 무서워 떤 것으로 해석하고 הִנֵּה[히네] 이하의 절을 두려워 떠는 것을 설명하는 원인의 절로 본 것은 문맥이 귀신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 떨었다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הִנֵּה[히네]의 용법을[5]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Bush, 162).

---

[4] 예: 출 11:4; 12:23, 29 죽음의 사자; 창 32:23-32 야곱과 천사; 욥 34:20 갑작스러운 죽음; 시 91:4-5 밤의 놀램.

[5] 보다 자세한 것은 Berlin, *Poetics*, 91-95 을 따라 논의한 2:4 을 참고하라.

③ 보아스가 취한 동작을 묘사하는 두 번째 동사 וַיִּלָּפֶת[바일라페트]는 어간 לפת[라파트]의 기본재귀(니프알) 어간 바브 계속법 미완료 3 인칭 남성 단수이다. 이 어근은 룻기 이외에 단 두 번 즉 삿 16:19 에서 기본능동 어간으로 그리고 욥 6:18 에서 기본재귀 어간으로 쓰였다. 삿 16:9 에 쓰인 기본능동 어간의 의미는 분명히 "to touch and hold, to take hold of, to grasp 붙잡다"이며 아카드어 *lapātu* "AHw 535a: to touch, to smear on, to grasp, to grope 만지다, 붙들다"와 관련이 있다(Block, 690, n. 35). 욥 6:18 에 쓰인 기본재귀 어간의 의미는 "to turn, to bend 돌이키다, 구부리다"이며 아랍어 *lafata* "to turn, twist 돌이키다, 비틀(어 돌리)다"와 관련이 있다(Block, 690, n. 35). 위에서 살핀 대로 룻 3:8 의 첫 번째 동사 וַיֶּחֱרַד[바예헤라드]가 추위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 놀라서 잠이 깬 것을 묘사하므로 두 번째 동사 וַיִּלָּפֶת[바일라페트]는 추위를 피하려고 덮을 것을 더듬어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놀라 잠이 깨어 몸을 돌이키는 것을 나타낸다(Bush, 163).

④ 지금까지 살펴본 두 동사의 해석을 따라 보아스가 취한 동작에 대한 의견을 질문으로 다시 정리하면 셋으로 나누인다. 이불이 들쳐진 발에 느껴지는 추위 혹은 밤의 찬 공기 때문에 *떨게* 된 보아스가 이불을 *더듬어 붙잡아* 다시 덮으려다가 우연히 룻과 부딪히며 자기 곁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인가(Campbell, 122; Block, 690)? 아니면 추위 때문에 보아스가 *떨며*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졸린 상태에서 *몸을 돌이키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인가(Hubbard, 211)?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놀람* 때문에 잠이 깨어 *몸을 돌이키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인가(Bush, 163)? 이 세 가지 입장은 다음의 번역과 설명에 잘 반영되어 있다.

- Campbell: Around midnight, the man shuddered and groped about; and here was a woman lying next to him!
- Hubbard: Now about midnight, the man shivered, rolled over, and—lo and behold—a woman was lying at his feet. (=In response to the cold, Boaz shivered and drowsily rolled over. What he saw (of all things!) was a woman lying at his feet.)
- Bush: In the middle of night, the man awoke with a shudder, turned over, and here someone was lying beside him. (=Boaz awoke with a start or shudder (cause unknown), rolled over, and became aware that someone lay beside him.)

⑤ 본 주석은 부시의 입장을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였다. 한밤중에 놀라 잠이 깬 보아스는 몸을 돌이켰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레이터는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등장 인물 보아스의 인식의 관점을 보다 회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불변화사 הִנֵּה[히네]를 사용한다.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몸을 돌이켜 본즉 **어떤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묘사할 때 남성형 אִישׁ[이시] 대신 여성형 אִשָּׁה[이샤]를 사용하였다. 히브리어에는 "어떤

사람 someone"을 표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공성(common) 혹은 비인칭(impersonal)의 단어가 없으므로 남성 אִישׁ[이시] 혹은 여성 אִשָּׁה[이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저자는 그 "어떤 사람"이 룻인 것을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인칭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남성형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성형을 선택한 것이다(Berlin, 152, n. 6).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모두 이 אִשָּׁה[이샤]를 "한 여인, [웬] 여인/여자, a woman"으로 번역하였으나 본 주석은 벌린과 부시가 택한 someone 처럼 "어떤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보아스가 보일 반응은 무엇일까? 독자가 아는 "어떤 사람", 즉 여인 룻에게 참 이스라엘인 보아스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가 행하여야만 할 일을 말해 줄 것인가?

54. 룻 3:9

1) 원문 문제

וַיֹּאמֶר מִי־אָתְּ וַתֹּאמֶר אָנֹכִי רוּת אֲמָתֶךָ וּפָרַשְׂתָּ כְנָפֶךָ עַל־אֲמָתְךָ כִּי גֹאֵל אָתָּה׃ (룻 3:9)

① 레닌그라드 사본의 אָתְּ가 특이한 점은?

② 룻이 자신을 [2:10 에서는 נָכְרִיָּה(이방 여인)라고 하였고] 2:13 에서는 שִׁפְחָה라고 하였고 3:9 에서는 אָמָה라고 하였다. 여종을 의미하는 이 두 단어의 차이와 번역은?

③ כְנָפֶךָ를 분해하면? 단수인가 양수/복수인가? 단수라면 כְּנָפְךָ이고 복수/양수라면 כְּנָפֶיךָ이다. כְנָפֶךָ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④ כִּי גֹאֵל אָתָּה에서 כִּי의 용법은? 명사문은 정체를 밝히는 절(identifying clause, WHS 578)인가 아니면 종류를 밝히는 절(classifying clause, WHS 579)인가?

2) 주석

룻 3:9 그래서 그는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었다. 그 때 그녀가 대답하였다. "저는 룻, 어르신의 시녀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어르신이 기업 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

① 보아스의 질문은 둘러싸고 있는 섬뜩한 밤의 적막을 깼다. 여기 보아스의 질문에 "내 딸이여"하는 호칭(cf. 2:8; 3:10)이 없는 것은 아직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 전에 밭에서 보아스가 종에게 물었던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2:5)"라는 질문은 룻이 낯선 여자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내"라고 묻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었고, 이에 대하여 종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2:6)"라고 대답하였었다. 그러나 여기서 보아스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었다.[6] 그 때 룻은 "**저는 어르신의 시녀 룻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여기(3:9)에 룻이 자신을 부를 때 두 번 사용한 **시녀**(אָמָה[아마])는 룻이 2:13 에서 자신을 하녀(שִׁפְחָה[시프하])라고 부른 것과 비교된다. 두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룻기의 문맥은 두 단어에 차이점이 있고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암시한다. 룻 2 장과 3 장에서 룻은 세 가지 칭호 즉 "이방 여인," "하녀," "시녀"를 사용한다. 제일 먼저 관계가 전혀 없는 "נָכְרִיָּה[노흐리야] 이방 여인 2:10)"이 나오고, 다음에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중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의미하는 "שִׁפְחָה[시프하] 하녀 2:13)"가 나오며, 그 다음으로 아내나 첩이 될 수 있는 여종을 의미하는 "אָמָה[아마] **시녀** 3:9)"가 나온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룻이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상승되는 변화를 암시한다.[7]

② 허버드(211)가 설명한 것처럼 "**룻, 어르신의 시녀**"이란 대답을 통하여 룻은 이제 이스라엘 남자 앞의 부복하는 이방 여인(נָכְרִיָּה[노흐리야] 2:10)도 아니고 주인(אֲדֹנִי[아도니]) 앞의 가장 낮은 하녀(שִׁפְחָתֶךָ[시프하테하] 2:13)도 아니며 I-You 의 관계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a person in her own right)인 것을 보인다. 여기에 "모압 여인"이란 칭호가 사용되지 않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모압 여인"이란 칭호는 2:21 에서 사용된 후 4 장에서 법적 문제를 다룰 때 두 번(4:5, 10) 더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았다(Sasson, 80). 청혼을 하려는 룻이 자신을 밭의 주인 앞에서 낮추던 하녀[시프하]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 앞에서 아내가 될 수 있는 시녀[아마]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③ "**룻, 어르신의 시녀**"라고 정체를 밝히고 나서 룻은 나오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나오미의 지시대로(3:4)라면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 순간에 룻은 오히려 보아스에게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다. 룻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관심이 그녀 자신으로부터 보아스에게로 옮겨지게 한다. 그녀가 표현한 대로 룻은 시녀인 반면 보아스는 주인이고, 그녀는 그의 영역에 불청객이고, 그녀는 여자이고 그는 남자이며, 그녀는 가난하고 그는 부유하며, 그녀는 이방인이고 그는 본토인인 점을

---

[6] Hubbard, 211, n. 29: 다른 곳에서도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시각상의 제한(창 27:18, 32; 삼상 26:14)이나 안면 부족(삼하 1:8; 왕하 10:13)으로 인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Who do you think you are?"의 의미를 갖는 수사학적 질문에 두 번(사 51:12; 슥 4:7) 사용되었다.

[사 51:12]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슥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7] "하녀"와 "시녀"의 차이는 삼상 25:41 에서 아비가일이 한 말 "내 주의 여종(시녀 אָמָה[아마])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하녀 שִׁפְחָה[시프하])이니이다"에서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2:13 을 참고하라.

고려하면 룻의 요청은 정말 특이하다(Block, 691). 룻의 요청은 보아스가 물었던 정체성의 질문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보아스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일으키게 한다(Block, 691).

④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결혼"에 대한 요구인가 아니면 ⓑ성관계를 맺자는 요구인가(Beattie, *JSOT* 5 [1978]: 43) 아니면 ⓒ보호를 요구한 것인가(Leggett, *The Levirate*, 193)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순으로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보호에 대한 요구라면 여자가 남자에게 한 요구이므로 결혼에 대한 요구이었을 것이므로 결혼에 대한 상징적인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성관계를 맺자는 요구라면 나오미가 기대했던 것과 보아스가 이해한 것과 상반된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타작 마당에서 한밤중에 젊은 여인이 나이 든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묘사된 두 인물의 성품과 상반된다. 성관계를 맺자고 유혹하는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 네가 베푼 인애 ...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보아스가 했을 리 없다. ⓐ보아스의 반응(3:10-13)은 룻의 말을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성적인 요구로 보지 않고 분명히 룻이 자신에게 청혼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겔 16:8 의 경우 "내 옷으로 너를 덮어(וָאֶפְרֹשׂ כְּנָפַי עָלַיִךְ [바에프로스 크나피 알라이흐])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만 보면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옷자락으로 덮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뒤따라오는 구절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와 연관하여 보면 상징적으로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을 지지한다. 더구나 겔 16:8 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감안하면 "성관계를 맺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시(164)는 겔 16:7-8; 신 22:30[MT 23:1]; 27:20 등을 비교 구절로 삼고 남자의 옷자락(כָּנָף[카나프] 단수)을 덮거나(פָּרַשׂ[파라스]) 혹은 들치는(גִּלָּה[길라]) 것은 결혼의 완성에 대한 완곡어법(euphemism for the consummation of marriage)이라고 설명하였다. 블락(691)은 크루거(P. A. Kruger, *JNSL* 12 [1984]: 86)를 인용하며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그의 옷자락으로 덮는 것은 상징적인 동작으로 "새로운 관계의 수립과 남편이 아내를 미래에 부양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선언"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라는 요구는 룻이 완곡어법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⑤ 본문 비평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옷자락"을 나타내는 자음 כנפך[카프-눈-페-카프]가 복수/양수라면 כְּנָפֶיךָ[크나페하](서부 크티브, 20 개의 중세사본)이고 단수라면 כְּנָפְךָ[크나프하](동부 크티브, 크레, 칠십인역, 페시타역)이다. 허버드(207)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단수로 읽는다고 지적하며 "당신의 옷자락(garment-corner)"으로 번역한다. 부시(164)는 옷자락이 결혼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 구절들 즉 겔 16:7-8; 신 22:30[MT 23:1]; 27:20 에서 단수로 쓰인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서도 결혼에 대한 상징적인 요구이므로 단수가 원래의 독법이라고 설명한다. 본 주석도 단수가 원래의 독법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룻 2:12 의 주석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2:12 의 "날개(복수)"와 3:9 의 "옷자락(단수)"은 똑같이 כָּנָף[카나프]를 사용한다.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기도한 대로 보아스 자신이 그녀를 그의 옷자락(카나프)으로 덮는 일을 하는 남편이 되어 보호해 줄 것을 룻이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은 보아스로 하여금 기도하던 자에서 기도의 응답을 주는 자가 되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빌었던 온전한 상은 룻의 보호를 위한 여호와의 날개(카나프 2:12)가 바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옷자락(카나프 3:9)으로 나타났을 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3:9 의 서부 크티브와 중세 사본들의 복수형 독법은 2:12 의 복수형과 일치시키려는 데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단수가 원래의 독법이라고 설명하는 부시(165)는 맛소라 본문의 모음(복수: 불완전 철자법 כְּנָפֶךָ[크나페하])이 보호 즉 결혼을 통한 보호 요구를 드러내면서 한편으로 단수의 노골적인 성적인 암시를 피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추론하였다.

⑥ 룻은 보아스에게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 달라"는 청혼을 하면서 그 이유로 "[키 고엘 아타] כִּי גֹאֵל אַתָּה **그것은 어르신이 기업 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8] 이 명사문이 술어(גֹאֵל[고엘]) + 주어(אַתָּה[아타])의 어순을 갖는 것은 종류를 밝히는 절(classifying clause, WHS 579)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하여 말할 때 "בֹּעַז מֹדַעְתָּנוּ [보아즈 모다타누]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하며 주어(בֹּעַז[보아즈]) + 술어(מֹדַעְתָּנוּ[모다타누])의 어순을 갖는 정체를 밝히는 절(identifying clause, WHS 578)과 대조를 이룬다. 두 명사문의 차이를 설명하면 나오미의 말은 보아스를 평안한 보금자리를 룻에게 제공할 "우리의 친척"이라고 확신하고 지목한 것이고, 룻의 말은 보아스를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위해 일할 "한 기업 무를 자"로 여긴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룻이 종류를 밝히는 절을 사용하여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로 언급한 것은 나중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있다는 보아스의 말에 의해 옳은 것임이 밝혀진다(Block, 692).

---

[8] Sasson(81-82)은 כִּי[키]를 이유, 원인의 접속사로 보지 않고 확인/확증/강조(corroborative "verily, surely, indeed")의 불변화사로 보고 "you are indeed a redeemer"로 번역하며 룻이 두 가지 사항 즉 결혼과 기업 무르는 일을 동시에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ush(166)는 Sasson 이 근거로 삼은 GKC 159ee, 148d 에 언급된 문들이 모두 감탄문이나 조건문이기 때문에 룻 3:9 의 문들과 구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맥은 כִּי[키]가 이유, 원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Bush 는 설사 강조의 불변화사로 본 Sasson 의 입장이 옳다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결혼 요구와 기업 무를 자의 신분이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절이 첫 번째 절의 결혼 요구의 이유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⑦ 룻이 청혼의 이유를 말하며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로 지칭한 의도가 무엇인가? 나오미는 룻을 위한 남편을 원했는데 룻은 나오미를 위한 후사를 원했는가(Ulrich, 97)? 룻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녀의 행복보다 나오미에게 후사를 갖게 하려는 가족적 의무를 우선시하였는가(Hubbard, 213)?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자신을 "룻, 어르신의 시녀"라고 부르고 보아스가 4:5, 10 에서 한 것처럼 "말론의 아내" 혹은 "고인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말론의 아내 룻, 혹은 고인의 아내 룻"이라고 했다면 룻이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무를 후사를 낳아야 할 과부로 자신을 제시하며 청혼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나오미의 의도 속에 없었던 것이다. 룻이 자신을 "고인의 아내 룻" 혹은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기업 무를 자"에 대하여 2:20 에서 설명한 대로 나오미처럼) 룻이 "기업 무를 자"를 법률적인 어떤 분야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자라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란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나오미가 2:20 에서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로 부르고 3:1-2 에서 친척으로 언급한 것에 암시된 것과는 다른 의미로 **기업 무를 자**란 용어를 룻 자신이 보아스에게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Bush, 169).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떠나 보아스의 말을 기다리기 전에 보아스에게 청혼하며 그 이유로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을 말한 것은 나오미의 지시를 변경하거나 어긴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3:1-2 에서 의도한 것을 단순히 말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2) 3 막 2 장 B (3:10-15)

본문

[WLC: 3 רות]

10 וַיֹּאמֶר בְּרוּכָה אַתְּ לַיהוָה בִּתִּי הֵיטַבְתְּ חַסְדֵּךְ הָאַחֲרוֹן מִן־הָרִאשׁוֹן לְבִלְתִּי־לֶכֶת אַחֲרֵי הַבַּחוּרִים
אִם־דַּל וְאִם־עָשִׁיר׃ 11 וְעַתָּה בִּתִּי אַל־תִּירְאִי כֹּל אֲשֶׁר־תֹּאמְרִי אֶעֱשֶׂה־לָּךְ כִּי יוֹדֵעַ כָּל־שַׁעַר עַמִּי
כִּי אֵשֶׁת חַיִל אָתְּ׃ 12 וְעַתָּה כִּי אָמְנָם כִּי [כ= אִם] [ק= זז] גֹּאֵל אָנֹכִי וְגַם יֵשׁ גֹּאֵל קָרוֹב מִמֶּנִּי׃
13 לִינִי הַלַּיְלָה וְהָיָה בַבֹּקֶר אִם־יִגְאָלֵךְ טוֹב יִגְאָל וְאִם־לֹא יַחְפֹּץ לְגָאֲלֵךְ וּגְאַלְתִּיךְ אָנֹכִי חַי־יְהוָה
שִׁכְבִי עַד־הַבֹּקֶר׃ 14 וַתִּשְׁכַּב [כ= מַרְגְּלֹתוֹ] [ק= מַרְגְּלוֹתָיו*] עַד־הַבֹּקֶר
וַתָּקָם [כ= בִּטְרוֹם] [ק= בְּטֶרֶם] יַכִּיר אִישׁ אֶת־רֵעֵהוּ וַיֹּאמֶר אַל־יִוָּדַע כִּי־בָאָה הָאִשָּׁה הַגֹּרֶן׃
15 וַיֹּאמֶר הָבִי הַמִּטְפַּחַת אֲשֶׁר־עָלַיִךְ וְאֶחֳזִי־בָהּ וַתֹּאחֶז בָּהּ וַיָּמֶד שֵׁשׁ־שְׂעֹרִים וַיָּשֶׁת עָלֶיהָ וַיָּבֹא הָעִיר׃

[ESV: Ruth 3:10-15]

10 And he said, “May you be blessed by the Lord, my daughter. You have made this last kindness greater than the first in that you have not gone after young men, whether poor or rich. 11 And now, my daughter, do not fear. I will do for you all that you ask, for all my fellow townsmen know that you are a worthy woman. 12 And now it is true that I am a redeemer. Yet there is a redeemer nearer than I. 13 Remain tonight, and in the morning, if he will redeem you, good; let him do it. But if he is not willing to redeem you, then, as the Lord lives, I will redeem you. Lie down until the morning.” 14 So she lay at his feet until the morning, but arose before one could recognize another. And he said, “Let it not be known that the woman came to the threshing floor.” 15 And he said, “Bring the garment you are wearing and hold it out.” So she held it, and he measured out six measures of barley and put it on her. Then she went into the city. (Cf. NIV: Then he went back to town.)

[개역개정: 룻 3:10-15]

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4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15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번역 (룻 3:10-15)

룻 3:10 그가 [1] 말했다. “내 딸이여,[2]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라오. 당신은 지난 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당신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11 내 딸이여,[2] 두려워하지 마오. 당신이 <나에게>[3]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 그것은 온 성읍 나의 백성이 당신이 덕망있는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12 그런데 내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4]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한 분 있소. 13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시오.[5] 아침에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겠다면, 좋소, 그로 무르게 합시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14 그래서 그녀는 [1]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6]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7]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8]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9]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10] 15 그가 [1] [그녀/룻에게][11] "걸치고 있는 숄을 내밀고 [펴서] 잡으라."라고 말하자 그녀는 [펴서] 잡았다. 그는 [12]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녀에게 이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본문 비평

[1] 대명사 "그"는 보아스를 가리키고 "그녀"는 룻을 가리키지만 명사로 밝혀 번역하지 않은 것은 내레이터와 등장 인물들이 보아스와 룻을 "그 사람(3:3, 8, 16, 18)"과 "그 여인(3:14)"이라고 정체성을 가리며 부른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 새번역은 "내 딸이여"라는 호격을 "이봐요"라고 번역하고 보아스의 말 가운데 룻을 가리키는 "당신"을 "그대"라고 번역하였다. 새번역이 2 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쓸 뿐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고풍스러운 "댁"을 쓰고 3 장에서 고풍스러운 "그대"를 쓴 것은 개역/개역개정의 평칭 "너" 보다는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본 주석은 모두 "당신"으로 번역하였다. "당신"이란 경칭은 부부 사이에 쓸 때와 책 제목(예: 이기문,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이나 광고문(예: 위험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등에서 불특정인에 쓰일 때 상대를 충분히 높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 쓰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좀더 높여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겨우 "당신"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품을 소지가 있고 대명사 중에서 가장 미묘한, 쓰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은 대명사이다(이익섭, **한국어 문법**, 95)). 그렇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상황에서 "누구보고 당신이라고 하는 거야?"라는 시비에 휘말릴 위험은 없기 때문에 고풍스러운 "댁"과 "그대"라는 경칭보다 "당신"이란 경칭을 택하여 번역하였다.

[3] BHS 3:11 의 각주 a 는 소수(3-10 개의) 중세 사본들, 오리겐 육경의 제 5 난, 페시타역, 타르굼역, 그리고 벌게이트역이 모두 אֵלַי[엘라이]나 이와 비슷한 단어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십중팔구 암시적인 것을 명료하게 하는 변화일 것이다(3:5a 와 3:9a 에 나오는 비슷한 변화를 보라).

[4] BHS 3:12 의 각주 a 는 또 하나의 특별한 종류의 크티브-크레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3:5 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크티브는 자음 אם[알렙 멤]을 가지고 있지만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과 일치하는 크레는 여기에 아무런 모음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읽지 않는다. 룻 3:5 의 크티브-크레는 "쓰여 있지 않으나 읽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여기 룻 3:12 의 크티브-크레는 "쓰여 있으나 읽지 않는" 것이다. 맛소라 소주는 "אם: 단어가 쓰여 있으나 읽지 않는 8 경우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뷔르트바인(Würthwein, *Text of the Old Testament,* 19)는 이 현상이 발견되는 5 구절을 열거하나 예이빈(Yeivin, *Tiberian Masorah,* 58)은 8 가지 경우를 말하는 맛소라 소주의 언급을 받아들인다.

[5] 캠벨(125)과 허버드(208, n. 16)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13 의 첫 단어 לִינִי[리니]의 두 자음 혹은 두 자음 중 하나가 보다 크게 표기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옹(72)은 이것이 본문 상의 결함 즉 잃어버렸으나 필요한 단어 פֹּה[포](cf. 민 22:8; 삿 19:9)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캠벨과 허버드는 동사 לִין/לוּן[룬/린]이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 장소가 언급되지만(창 24:23, 25; 삿 19:4-20[8 번]; 삼하 17:8, 16; 19:8), 장소가 암시될 뿐 명시되지 않은 경우(창 24:54; 삿 19:6)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6] 룻 3:14 은 BHS 의 룻기에서 가장 많은 각주를 갖는 절이다. BHS 3:14 의 첫 번째 각주 a 는 크티브-크레에 관한 것이다. 크티브(מרגלתו[멤-레시-기멜-라멧-타브-바브])는 מַרְגְּלֹתָו[마르글로타브] 혹은 מַרְגְּלָתוֹ[마르글라토]라고 읽을 수 있다. 첫 번째 독법은 불완전 철자법을 가진 복수형으로 본 것이고 두 번째 독법은 단수형으로 본 것이다. 크레(와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의 독법)는 복수 מַרְגְּלֹתָיו[마르글로타브]이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명사는 복수형으로만 쓰였다. 이것은 크티브와 크레의 유일한 차이가 크티브는 불완전 철자법을 보이고 있고 크레는 완전 철자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크티브가 단수형처럼 모음을 갖게 되면 구약 성경에 그 유례가 없다.

[7] BHS 3:14 의 각주 b 는 또 하나의 크티브-크레를 다룬다. 크티브(בִּטְרוֹם[비트롬])가 옳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와 같은 철자법을 보이는 유일한 경우가 된다. טֶרֶם[테렘]과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이 단어는 다른 철자법을 보이는 변형이든지 아니면 무관계한 바브(ו)를 삽입한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BDB, 382; Hubbard, 220, n. 2.).

[8] BHS 3:14 의 각주 c 는 다소 복잡하다.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은 동사 다음에 Βοος(보아스)를 첨가한다. 이것은 아마도 칠십인역이 암시적인 것을 명료하게 하는 또 하나의 예일 것이다. 한편, 페시타역은 맛소라 본문의 וַיֹּאמֶר[바요메르](기본능동 바브 계속법 미완료 3 인칭 남성 단수, "그가 말했다") 대신 וַתֹּאמֶר[바토메르](기본능동 바브 계속법 미완료 3 인칭 여성 단수, "그 여자가 말했다")에 해당하는 말로 번역한다. 페시타역의 독법은 뒤 따르는 두 개의 각주와도 관련이 있다.

[9] BHS 3:14 의 각주 d 는 페시타역이 맛소라 본문의 בָּאָה[바아]("그녀가 왔다") 대신 בָּאתִי[바티]("내가 왔다")에 해당하는 말로 번역하였음을 지적한다.

[10] BHS 3:14 의 마지막 각주 e 는 페시타역에 הָאִשָּׁה[하이샤]가 없는 것과 칠십인역에 관사 없는 אִשָּׁה[이샤]를 가진 한 히브리어 원본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γυνή[귀네]가 있는 것을 지적한다. 페시타역의 이러한 변경들로 인해 생긴 전체적인 결과는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타작 마당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번역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페시타역의 번역은 맛소라 본문과 전혀 다르고 심지어 칠십인역과도 다르다. 허버드(220, n. 3)는 맛소라 본문이 원문임을 주장하며 동사 אמר[아마르]의 용법을 내면적인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는 속으로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기 않게 해야지'라고 말했다."라고 번역했다. 맛소라 본문이 아마 틀림없이 원문일 것이고 페시타역은 의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경으로 보인다.

[11] BHS 3:15 의 각주 a 는 칠십인역이 맛소라 본문의 וַיֹּאמֶר([바요메르] "그가 말했다") 다음에 말한 대상 αὐτῇ([아우테] "그녀에게")를 첨가하고 루시안의 칠십인역 교정본이 이를 τῇ Ρουθ([테 루스] "룻에게")로 바꾼 것을 지적한다. 두 변화는 모두 암시적인 것을 명료하게 하려는 칠십인역의 경향을 반영한다. 설사 칠십인역과 루시안 교정본이 다른 히브리어 원본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석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12] BHS 3:15 의 각주 b 는 "그가[=보아스가] 성으로 갔다"라고 번역되는 맛소라 본문의 וַיָּבֹא[바야보] 대신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과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이 וַתָּבֹא[바타보] 즉 "그 여자가[=룻이] 성으로 갔다"로 읽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맛소라 본문이 더 어려운 본문이며 원문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것은 아래 주석을 참고하라.

각 절 주석 (룻 3:10-15)

55. 룻 3:10

1) 원문 문제

(룻 3:10) וַיֹּאמֶר בְּרוּכָה אַתְּ לַיהוָה בִּתִּי הֵיטַבְתְּ חַסְדֵּךְ הָאַחֲרוֹן מִן־הָרִאשׁוֹן
לְבִלְתִּי־לֶכֶת אַחֲרֵי הַבַּחוּרִים אִם־דַּל וְאִם־עָשִׁיר׃

① 정형동사 없는 명사문 בְּרוּכָה אַתְּ לַיהוָה이 나타내는 의미는(WHS 551; cf. 2:19, 20)?

② 정형동사 הֵיטַבְתְּ의 어간과 의미는?

③ חַסְדֵּךְ הָאַחֲרוֹן ("너의 나중의 한결같은 인애")와 הָרִאשׁוֹן ("처음의 너의 한결같은 인애")가 나타내는 것은?

④ לְבִלְתִּי(cf. GBH 124e)의 역할은? 부정사 לֶכֶת의 용법은(GBH 124o)?

⑤ הָלַךְ אַחֲרֵי의 의미는? "to whore after (Targum)"? "to follow after (Campbell), 창 24:5, 8, 39; 삼상 25:32? "to go looking for (TEV; cf. 신 13:15; 삿 2:12; 잠 7:22; 호 2:7)?

⑥ הַבַּחוּרִים에 붙은 정관사의 용법(cf. WHS 92; GKC 126m)과 이 단어의 뜻은(암 8:13; 렘 31:13; 잠 20:29)?

⑦ 양극(דַּל 가난한—עָשִׁיר 부유한)을 사용하여 전체를 포함하는 기교의 이름은?

2) 주석

룻 3:10 그가 말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라오. 당신은 지난 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당신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① 룻의 말(3:9)을 듣고 보아스는 말(3:10-13)과 행동(3:14-15)으로 반응한다. 보아스의 말은 네 부분 즉 ⓐ룻에 대한 축복과 칭찬(10 절), ⓑ기업 무를 자로서의 약속(11 절), ⓒ약속 실행에 있어서의 주요 갈등 제시(12 절), ⓓ갈등 해결을 위한 지시와 약속의 재확인(13 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아스의 말은 이 장면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내쫓아 보내지 않고 또 룻의 주제 넘는 듯한 청혼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축복을 한다. 보아스가 룻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었으나 "당신의 시녀 룻"이라는 대답을 듣고서는 "**내 딸**"이란 호칭을 사용하며 축복하고 칭찬한다. 이 호칭은 나오미에 의해 자주 사용되고(1:11, 12; 2:2, 22; 3:1, 16, 18), 보아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3:10, 11). 이 호칭은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보다 연령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하고 사용하는 자들의 애정을 나타낸다. 기업 무를 자로서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도와주던 것 이상으로 더 나서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내 딸"이란 칭호가 암시하는 나이 차이인지도 모른다.

② 보아스는 "**내 딸이여**"라고 부르며 בְּרוּכָה אַתְּ לַיהוָה ([브루하 아트 라도나이] "당신이 여호와에 의해 복 받기를 바라오. =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라오**.")라고 축복한다. 이 축복문은 정형동사가 없는 명사문이고 수동 구문이다. 이것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할 때 사용했던 בָּרוּךְ הוּא לַיהוָה ([바루흐 후 라도나이] 2:20 "그가 여호와에 의해 복 받기를 바란다 =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와 똑같다. 이 축복문은 희구형이 들어 있는 יְהִי מַרְכִּירֵךְ בָּרוּךְ ([여히 마키레흐 바루흐] 2:19 너를 보살펴 준 사람이 복 받기를 바란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9]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 에피소드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③ 룻을 축복한 후 보아스는 비교를 통하여 룻의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당신은 **지난 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정형동사 הֵיטַבְתְּ[헤타브트]의 어간은 사역의 의미를 갖는 사역능동(히프일) 어간이다. 보아스가 말한 것을 직역하면 허버드(207, n 11)가 번역한 대로 "You have caused your last kind act to be better than the former one.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 인애를 처음 것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가 된다. 목적어인 인애를 주어로 바꾸어 "당신의 한결같은 인애는 이전 것보다 지금 것이 더 좋소/더 좋은 것이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헤쎄드]를 새번역에서 "갸륵한 마음씨"라고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에서 "아름다운 마음씨"로 번역하고 쉬운성경에서 "성실함"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역개정의 "인애"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

[9] היה[하야]의 간접명령형 יְהִי[여히]를 사용한 형식의 축복은 룻 2:19; 왕상 10:9(=대하 9:8); 잠 5:18 에만 나온다. 이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된 (לַיהוָה X בָּרוּךְ [바루흐 X (라도나이)] 즉 정형동사 없는 기원문 형식은 창 9:26; 14:19; 신 28:3; 삿 17:2; 룻 2:20; 3:10; 삼상 15:13; 23:21; 삼하 2:5; 시 115:5 등에도 나온다(WHS 551).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보아스가 חַסְדֵּךְ הָאַחֲרוֹן ([하스데흐 하아하론] "당신의 나중의 한결같은 인애")이라고 부른 것은 룻이 지금(3:9) 자기에게 청혼하는 것을 가리키고, חַסְדֵּךְ הָרִאשׁוֹן ([하스데흐 하리숀] "당신의 처음의 한결같은 인애")는 룻이 전에(1:16-17; 2:11) 친정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을 가리킨다.

④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이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가 되는 것은 "당신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라는 부정사구문에 의해 부연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לְבִלְתִּי[르빌티](cf. GBH 124e)가 부정사 לֶכֶת[레헤트]를 부정하고 있는 이 부정사 구문은 앞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려고 부연 설명해 주는(epexegetical, explanatory: GBH 124o) 것으로 영어의 동명사 "in doing something"이나 "in that S+V"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Bush, 172; cf. WHS 195; IBHS 36.2.3e). 이 부연 설명의 말은 보아스가 전체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는(deferential) 말이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젊지는 않았지만 낮에 밭에서 젊은 일꾼들과 함께 있었고 온 밤을 타작 마당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 힘이 있었고, 덕망있는 유지로 소개되며 밭과 일꾼들을 갖는 재력도 있었기 때문이다.

⑤ 보아스의 말은 룻이 재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혼 대상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free agent)인 것을 밝혀 준다. 룻은 나이를 고려하고(젊은 남자) 사랑을 찾거나(가난하든) 평안함을 찾아(부유하든) 자신보다 젊고 매력적인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룻이 재혼의 상대로 찾아 갈 수도 있는 "**젊은 남자**"를 표현하는 הַבַּחוּרִים[하바후림]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들을 가리키며,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בְּתוּלָה[브툴라] 사 23:4; 62:5)와 병행을 이루고(암 8:13), 노인(זָקֵן[자켄] 렘 31:13; 잠 20:29)과 대조된다.[10] 전 11:9 은 בָּחוּר[바후르](청년)에게 יַלְדוּת[얄두트](젊은 때)를 즐거워하라고 한다. 캠벨(124)은 הַבַּחוּרִים[하바후림]에 정관사가 붙은 것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남자들을 지칭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2 장에 나오는 젊은 남자

---

[10] [암 8:11-13] (1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렘 31:11-14] (11)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14)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 20:29]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일꾼들[נְעָרִים 느아림]이 여기에서 **젊은 남자들**(בַּחוּרִים 바후림)로 바뀐 것은 후자가 보다 더 매력적인 최고의 남자인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172)는 여기 정관사가 베들레헴에 사는 젊은 남자들을 가리키는 총칭적인 의미로 쓰였다(generic, a class of individuals cf. WHS 92; GKC 126m)고 주장하였다. 부시의 설명이 바른 해석으로 판단된다.

⑥ 성경에서 "**찾다**, **찾아가다** הָלַךְ אַחֲרֵי [할라흐 아하레]"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갖는다. 이 어구는 비유적으로 여호와를 좇거나(신 13:15), 이방신을 좇거나(삿 2:12), 지혜 없는 소년이 음녀를 따르거나(잠 7:22), 부정한 아내가 정부를 따라가는(호 2:7) 것을 나타낸다. 타르굼역은 "to commit fornication with, to whore after ~따라 매춘 행위를 하다"라고 번역하였다. 캠벨(124)은 창 24:5, 8, 39; 삼상 25:32 에 근거하여 청혼 받은 후에 리브가와 아비가일이 각각 사자들을 따른 것처럼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던 젊은이들로부터 룻이 청혼을 받았으나 "follow after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들이 룻기의 문맥과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부시(172)는 TEV 의 "you might have gone looking for 네가 시집가기 위해 찾음직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처럼 이 어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남자를 찾는 것(pursue for the purpose of marriage)을 나타낸다고 바르게 설명하였다.

⑦ 보아스가 룻이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나이 든 자신에게 청혼한 것을 나오미에게 헌신하며 보인 처음의 인애보다 더 큰 인애라고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허버드(215)는 룻이 사랑이나 재물을 보고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대신 보아스와 결혼하려는 것은 정욕이나 탐욕을 따라 재혼을 추구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선호 대신 보아스를 통하여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후사를 얻는 가문의 유익을 위한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3:1 의 주석에서 밝힌 대로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한 결혼을 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3:9 에서 살핀 대로 룻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나오미의 의도를 넘는 결정을 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적절한 답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과 "기업 무를 자"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를 살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⑧ 며느리 룻에게 지시한 나오미나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시어머니의 의도를 말로 옮긴 룻이 구한 것은 결혼을 통하여 얻을 평안한 보금자리였다.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무를 자"로 보아스를 지칭한 것(2:20; 3:9)도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란 의미에서였다. 룻의 청혼은 보아스에게 기업 무를 자로서 가난한 과부와 결혼하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평안함을 줄 남편이 되어달라는 요구이었다. 보아스의 관점에서 젊은 과부가 나이 든 자기에게 청혼해 준 것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 그것을 이전의 인애보다 더 큰 인애라고 했다면 어딘가 좀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인다. 보아스가 룻이 그의 발치에 누운 상징적인 동작과 그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줄 것을 요구한 것을 청혼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어르신은 기업 무를 분"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나오미와 룻이 구한 기업 무를 자의 일반적인 것을 넘어선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일까지 염두에 두고 룻의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나오미와 룻은 일차적으로 새 남편과 가정을 구했지만 보아스 자신은 룻이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엘리멜렉-말론의 후사를 잇기 위해 청혼한 것으로 확대 해석했던 것으로 보인다(Bush, 171). 보아스의 확대 해석에 의하면 룻의 처음 인애는 나오미와 생사간 함께 하는 것이고 룻의 나중 인애는 나오미에게 법적 후사를 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그 기업을 이어갈 후사의 보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의 언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여기며 더 큰 한결같은 인애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 보아스가 "당신과 결혼하겠소."라고 대답하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3:11)."라고 대답한 것은 그가 결혼 이상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음을 보여 준다(Bush, 173). 그리고 보아스가 4 장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법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기업 무르는 일과 그 기업을 이을 후사 얻는 일을 연관지어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6. 룻 3:11

1) 원문 문제

(룻 3:11) וְעַתָּה בִּתִּי אַל־תִּירְאִי כֹּל אֲשֶׁר־תֹּאמְרִי אֶעֱשֶׂה־לָּךְ
כִּי יוֹדֵעַ כָּל־שַׁעַר עַמִּי כִּי אֵשֶׁת חַיִל אָתְּ׃

① 보아스가 앞서 말한 것과 관련하여 첫 단어 **וְעַתָּה**가 보여주는 것?

② 두 번 사용된 **כִּי**의 용법은?

③ 미완료형 **תֹּאמְרִי**의 용법은? (룻 3:5; 삼하 9:11; GKC 107h)

④ **כָּל־שַׁעַר עַמִּי**의 직역과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⑤ 보아스에 대한 **אִישׁ גִּבּוֹר חַיִל** ("덕망있는 사람, 유지")라는 소개와 여기 **אֵשֶׁת חַיִל** ("덕망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란 평판 사이의 관계는? 어떤 정경 배열에 있어서 잠언 다음에 룻이 오는 이유를 설명하면?

2) 주석

룻 3:11 그러니 내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오.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 그것은 온 성읍 나의 백성이 당신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① 보아스는 계속해서 **וְעַתָּה**([브아타] **그러니**)를 사용하여 앞서 말한 축복과 칭찬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으로 인도하며 앞으로 전개될 일의 시작을 알린다. 다시 말하면, 이 불변화사는 룻의 행동과

말에 대한 보아스의 해석으로부터 그것들의 결과로 초점이 옮겨지게 한다.[11] 보아스는 룻이 처음보다 더 나은 한결같은 인애를 보였기 때문에 그녀를 칭찬한 후 그 결과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아스는 그의 칭찬에다 개인적인 안심시킴과 형식적인 동의를 더한다. 보아스는 다시 한번 룻을 "בִּתִּי[비티] **내 딸**"이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같은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보이며 전통적인 위로의 말, 즉 "אַל־תִּירְאִי [알-티르이] **두려워하지 마오**."를 사용하여 그녀의 내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킨다(cf. 창 35:17; 삼상 4:20; 왕하 6:16).

② 룻이 가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절할지도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성읍에서 백성들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는 학자들(Gerleman, 32; de Waard & Nida, 55; Hubbard, 215, n. 46)이 있다. 허버드의 원문의 순서에 따른 "And now, my daughter, do not be afraid. Everything you have said, I will do for you. For the whole town knows that you are a worthy woman."이라는 번역은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에 비하여 드 바르트와 니다(55)가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Now don't worry, Ruth. Everyone in town knows that you are a good woman. I will do everything you ask."라고 번역한 것은 온 성읍 사람들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새슨(85)이 불변화사 עַתָּה[아타]가 앞서 말한 것의 논리적인 결론 혹은 결과로 인도하며 만일 명령문이 뒤 따르면 긴급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를 중심되는 절로 본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는 룻의 평판에 대한 언급이 보아스가 룻의 말대로 시행하겠다는 약속의 이유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따라서 원문의 순서대로 보아스가 축복과 칭찬을 한 후 먼저 청혼의 거절의 가능성으로 인한 룻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룻이 말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로 그녀의 좋은 평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룻을 안심시킨 후에 보아스는 그의 관심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옮기며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 כֹּל אֲשֶׁר־תֹּאמְרִי אֶעֱשֶׂה־לָּךְ [콜 아셰르-톰리 에에쎄-라흐]"라고 약속한다. 허버드(215)가 지적한 것처럼 여기 보아스가 한 말은 3:5 에서 룻이 한 말 즉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אֶעֱשֶׂה [אֵלַי] כֹּל אֲשֶׁר־תֹּאמְרִי [콜 아셰르-톰리 <엘라이> 에에쎄]"를 그대로 반영하며 실제로 보아스의 약속과 나오미의 계획을 연결시키고 있다. 3:5 에서 설명한 대로 미완료형 תֹּאמְרִי[톰리]는 방금 끝난 일에 대하여 완결된 사실로 보고 완료로 나타내는(창 16:8) 대신 이미 끝났으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11] 불변화사 עַתָּה[아타]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3:2 을 참고하라.

미완료로 나타낸 경우에 속한다(GKC 107h: 욥 1:7; 2:2; 창 32:30; 24:31; 44:7; 출 5:15; 삼하 16:9). 룻이 결혼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보아스가 룻이 말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해 줄 것이라고 한 것은 동의의 공식(formula of agreement) 혹은 순종의 공식(formula of obedience)에 나타난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Hubbard, 216, n. 47)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들었을 때 결혼 이상의 일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Bush, 173). 룻이 보아스의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시녀(3:9)"라고 밝히고 청혼하며 청혼의 이유로 그의 기업 무를 의무를 말했을 때 보아스가 그녀가 요구한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마치 보아스가 룻의 시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④ 룻의 요구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주며 보아스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덧붙인다. "**그것은 온 성읍 나의 백성이 당신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이 문에 두 번 나오는 접속사 כִּי[키]의 용법을 말하면 첫 번째 것은 이유의 부사절을 인도하며 두 번째 것은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인도한다. "**온 성읍 나의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들 כָּל־שַׁעַר עַמִּי [콜-샤아르 아미]를 직역하면 "all the gate of my people 나의 백성의 모든 성문"이다.[12] 드 바르트와 니다(56, 96, n. 35)는 여기 "성문"이 "공동체의 사회적 삶의 중심"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며 이 어구에 대한 칠십인역의 πᾶσα φυλὴ λαοῦ μου [파싸 필레 라우 무]가 "the whole body of my people i.e., towns people 성읍 백성"로 번역될 수 있고 벌게이트역의 omnis populus qui habitat intra portas urbis meae ("all the people that dwell within the gates of my city" 나의 성읍 성문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도 칠십인역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부시(173)도 이 어구를 "all the assembly of my people, i.e., all of my people who gather at the gate, everyone in town 성문에 모이는 모든 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13]

---

[12] "שַׁעַר עַמִּי [샤아르 아미] 내 백성의 성문"이 문자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미 1:9 과 옵 13 에 나온다.

[미 1:9]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옵 13a] (개역개정)*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개역) (***그들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내 백성의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새번역)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Cf. ESV: Do not enter the gate of my people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YLT: Nor come into a gate of My people in a day of their calamity,

[13] Campbell(124)은 이 어구가 "the legally responsible body of this town"의 의미를 가지며 성문이 성읍의 법적 집단(legal body of a city or town)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을 신명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명기에서 자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언급될 때 나오는 "within your gates, within one of your gates, 네 성문들 안에, 네 성문들 중의 하나 안에 (신 5:14; 12:12; 14:21, 27-29; 15;7; 16:11, 14, 18; 17:2, 5, 8; 18:6; 23:16[MT 17]; 24:14; 26:12; cf. 잠 31:23, 31)"라는 어구를 RSV 나 NEB 처럼 "within your towns or your settlements"로 번역하지 말고 "under your legal care"로 번역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성문이 법적 혹은

⑤ 내레이터에 의하여 2:1 에서 "אִישׁ גִּבּוֹר חַיִל [이시 기보르 하일] 덕망있는 사람, 유지, 유력한 자"라고 소개된 보아스가 여기서 성읍 모든 사람들의 룻에 대한 좋은 평가를 알리며 그녀를 " אֵשֶׁת חַיִל [에셰트 하일] **덕망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다. 이 어구는 룻 3:11; 잠 12:4; 31:10 에만 나온다.[14]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은 "אֵשֶׁת חַיִל [에셰트 하일] 현숙한 여인"으로 시작하는 잠 31:10-31 에 나오는 알파벳시에 잘 나타나 있다. 잠언 31 장의 현숙한 여인은 신실(11 절), 근면(13-15, 27 절), 지혜로움(16, 18 절), 궁핍한 자를 돌보는 관용(20 절), 그리고 덕행에 있어서 뛰어남(29 절)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한 칭송을 받을 만큼 룻은 나오미에 대하여 신실(룻 1:16-17; 2:11)하였고 근면하였고(2 장)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다(3:10). 레닌드라드 사본과 같은 어떤 히브리어 정경의 배열에 있어서 잠언 다음에 룻이 오는 이유는 잠언의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한 뛰어난 모델로 룻이 제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Block, 589).

⑥ 룻에 대한 좋은 평판은 룻이 점점 이스라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이고 다른 이방인도 룻과 같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남자와 여자, 본토인과 이방인, 늙은이와 젊은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등의 모든 차이는 인간의 됨됨이에 의해 극복된다(Trible, 184). 룻은 몇 주 전만 해도 베들레헴에 온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였고(1 장) 룻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밭주인의 호의를 입어 이삭을 줍고 있었다(2 장). 그러나 성읍 사람들은 룻이 여호와를 그녀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께 헌신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녀의 참된 인간 됨됨이를 알았다. 온 성읍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룻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헌신 때문이었다. 보아스는 룻을 이스라엘의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는 모압의 쓰레기로 취급하거나 창녀/간부(姦婦)의 누명을 씌우며 백성을 호도하지 않고 그 자신의 한결같은 인애를 가지고 룻을 신분과 인품에 있어서 자신과 동일한 여인으로 보았다(Block, 695). 정말 "덕망있는 사람"인 보아스(2:1)와 "덕망있는 여인" 룻(3:11)은 좋은 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룻은 이방 여인(2:10)에서 가장 낮은 하녀(2:13)를 넘어 결혼할 만한 시녀(3:9)를 지나 덕망있는 여인(3:11)으로 덕망있는 보아스와 결혼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읍 주민의 사회적 삶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성문이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제유(synecdoche)로 쓰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 있는 집단의 의미로 한정하는 Campbell 의 주장은 너무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으로 보인다.

[14] 개역/개역개정에서 이 어구는 룻 3:11 과 잠 31:10 에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어 있고 잠 12:4 에 "어진 여인"으로 번역되어 있다.

[잠 12: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상대로 정말 잘 어울리는 데까지 이르렀다(Hubbard, 211). 이렇게 내레이터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암시한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바로 두 번째 [브아타]로 시작하는 보아스의 말(12 절)을 통해 마지막 갈등을 제시한다.

57. 룻 3:12

1) 원문 문제

וְעַתָּה כִּי אָמְנָם כִּי [אִם כ] גֹּאֵל אָנֹכִי וְגַם יֵשׁ גֹּאֵל קָרוֹב מִמֶּנִּי׃ (룻 3:12)

① וְעַתָּה כִּי אָמְנָם에서 כִּי의 역할은 문을 수식하는 부사 עַתָּה와 אָמְנָם으로 시작하는 문을 분리하는 기능사인가(Bush, 174, based on Blau, *Adverbial Construction*, 2:1:4, p. 27; cf. esp. p. 26, n. 15)? 아니면 이유의 접속사인가(Sasson, 89)? 아니면 양보의 접속사인가(almost all modern English Bible translations; cf. Aejmelaeus, *JBL* 105 [1986]: 198-99 on the uncertainty of כי introducing real concessions)?

② BHS 의 אָמְנָם כִּי אם에서 אם에 모음이 붙어 있지 않는 이유는? WLC 에 대괄호에 들어있는 [אִם כ]가 의미하는 것은?

③ אֱמְנָם/אָמְנָם의 의미는(IBHS 39.3.4b)? אָמְנָם כִּי(욥 12:2)와 כִּי־אִם(삼상 21:6)의 의미는?

④ וְגַם의 גַּם은 반의적(adversative)인가 아니면 강조(emphasizing)인가 아니면 추가(additive)인가?

⑤ מִמֶּנִּי에서 מִן의 용법은?

2) 주석

룻 3:12 그런데 내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한 분 있소.

①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 종소리가 곧 울릴 것 같은 기대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 보아스는 예상 밖의 당혹스러운 사실을 폭로한다(Hubbard, 217).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대해 칭찬(10 절)하고 וְעַתָּה[브아타]로 시작하는 첫 번째 논리적 결론(11 절)으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룻의 심장은 한 두 박동을 건너뛰며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곧 이어 וְעַתָּה[브아타]로 시작하는 두 번째 논리적 결론(12 절)으로 언급한 주요 갈등은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Block, 695).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동의하였지만 기업 무를 자로서의 보아스의 신분에 근거한 룻의 청혼에는 나오미나 룻이 전혀 예견하지 못한 필연적인 일들이 들어 있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아스가 룻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그런데 내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한 분 있소.**" 이 말은 "**정말로 나는 기업 무를 자이다**."와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한 분 있다**."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첫 부분 וְעַתָּה ⓐכִּי ⓑאָמְנָם ⓒכִּי ⓓאם גֹּאֵל אָנֹכִי [브아타 ⓐ키 ⓑ**옴**남 ⓒ키 ⓓ<<임>> 고엘 아노히](**정말로 나는 기업 무를 자이다**)에 나오는 두 개의 כִּי[키]의 용법과 אָמְנָם[옴남]의 품사 그리고 (크티브-크레 문제를 보이는, 즉 쓰여 있으나 읽지 말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모음이 없는) אם[임]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다.

- 논의를 위해 먼저 지적할 것은 히브리어에서 "정말로, 진실로"라는 강조(emphatic) 혹은 단언(asseverative)의 의미는 하나의 단어 혹은 결합된 두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진실로"라는 의미는 ⑴ אֱמְנָם/אָמְנָם[옴남/움남](KB, 65; IBHS 39.3.4b), ⑵ כִּי[키](KB, 470, 1.a.b; WHS 449), ⑶ כִּי־אִם [키 임](삼상 21:6; KB, 471, B.1.b[맹세문]), ⑷ אָמְנָם כִּי [옴남 키](욥 12:2) 등에 의해 표현된다. 그리고 욥 36:4 에 나오는 ⑸ כִּי אָמְנָם [키 옴남]도 단언적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부시(174)는 욥 36:4 의 경우 כִּי[키]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설명한다.
- 이제 ⓐ첫 번째 כִּי[키]에 대한 논의를 해 보자. 블라우(Blau, *Adverbial Construction*, 2:1:4, p. 27; cf. esp. p. 26, n. 15)의 설명을 따르며 부시(174)는 첫 번째 כִּי[키]가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수식하는 부사 עַתָּה[아타]와 바로 뒤에 나오는 אָמְנָם[옴남]으로 시작하는 나머지 절을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고 블락(695)도 이에 동의하였다.[15] 부시의 설명대로 분리의 첫 번째 כִּי[키]에 유의하면 함께 가는 어구를 다음과 같이 묶어볼 수 있다.

  { עַתָּה } וְ ⓐכִּי {ⓑאָמְנָם ⓒכִּי ⓓאם גֹּאֵל אָנֹכִי}
  [브 {아타} **키** {**옴**남 키 임 고엘 아노히}]

---

[15] Sasson(88-89)과 Hubbard(208, n. 12)는 첫 번째 כִּי[키]를 이유의 접속사로 보았고 이 첫 번째 כִּי[키]가 이끄는 절{즉 12 절의 첫 단어 וְעַתָּה[브아타]와 13 절의 첫 단어 לִינִי[리니](명령형) 사이에 있는 절}이 삽입절로서 13 절의 그의 명령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Sasson 이 9 절의 룻의 요구를 결혼과 기업 무르는 일의 두 가지로 보고 11 절과 12-13 절이 각각 וְעַתָּה[브아타]로 시작하고 11 절은 결혼 요구에 대한 답이고 12-13 절은 기업 무르는 일의 요구에 대한 답으로 본 데서 나온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9 절에서 룻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11 절에서 וְעַתָּה[브아타] 다음에 기대되는 논리적인 결과/결론 즉 중심 되는 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듯이 12-13 절에서 וְעַתָּה[브아타] 다음에 기대되는 논리적인 결과/결론 즉 중심 되는 절이 13 절의 "여기 묵으라"라는 명령이 아니다. 더 자세한 비판은 Bush(174-175)를 참고하라. 바른 해석은 보아스가 10 절에서 룻을 축복하고 칭찬한 후 11 절에서 논리적인 귀결로 룻의 청혼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였고 12 절과 13 절에서 기업 무를 자로서의 신분에 근거한 청혼이 갖는 일에 포함된 논리적인 결과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리고 이에 따른 사태의 추이를 보자고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다음으로 ⓒ두 번째 כִּי[키]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כִּי[키]는 앞에 나오는 אָמְנָם[옴남]과 결합하여 욥 12:2 의 **אָמְנָם כִּי** [옴남 키]처럼 단언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뒤에 나오는 אם[임]과 결합하여 삼상 21:6 의 **כִּי אִם** [키 임]처럼 단언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אָמְנָם כִּי אם [옴남 키 임]에 대하여 크레는 쓰여 있는 אם[임]을 아예 읽지 않고 **אָמְנָם כִּי** [옴남 키] 즉 ⓑ와 ⓒ만으로 "진실로"의 의미를 나타낸 반면 크티브는 אָמְנָם[옴남] 즉 ⓑ로 "진실로"의 의미를 한번 나타내고 **כִּי אם** [키 임] 즉 ⓒ와 ⓓ으로 다시 한번 "진실로"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읽은 것이다. 크티브가 거듭 거듭 "진실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된 것을 제외하면 크티브나 크레나 별 차이가 없으므로 어느 쪽을 취해도 무방할 것이다.[16]

③ 지금까지 논의한 12 절의 첫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다.

- וְעַתָּה[브아타]는 룻의 청혼이 담고 있는 논리적인 결과를 인도한다.
- 첫 번째 כִּי[키]는 바로 앞의 부사 עַתָּה[아타]와 바로 뒤의 אָמְנָם[옴남]으로 시작하는 나머지 문을 분리한다.
- אָמְנָם כִּי אם [옴남 키 임]은 크레의 경우 אָמְנָם כִּי [옴남 키)로 한 번 "진실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크티브의 경우 אָמְנָם[옴남]과 כִּי אִם [키-임]을 가지고 두 번 "진실로"라는 단언적 의미를 나타낸다.
- 12 절의 첫 부분 전체는 "**정말로 나는 기업 무를 자이다.**"라고 번역된다.

④ 보아스는 첫 번째 부분에서 "**정말로 나는 기업 무를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 "וְגַם יֵשׁ גֹּאֵל קָרוֹב מִמֶּנִּי [브감 예시 고엘 카로브 미메니]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밝힌다. 비분리접속사 바브(וְ)는 역접("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있고 불변화사 גַּם[감]은 강조("참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17] 보아스의 말은 룻이 기업 무를 자로서

---

[16] Hubbard(208, n. 13)는 여기 אם[알렙 멤]이 실수로 삽입된 것이고 3:13 의 אִם[임]이나 3:12 의 אָמְנָם[옴남]의 영향으로 중복오사(dittography)된 것으로 설명한다. Brotzman(154)은 크티브대로 읽어도 의미가 통한다고 전제하고 וְעַתָּה[브아타] 다음에 오는 첫 번째 כִּי[키](BDB, 472)를 강조의 불변화사로 이해하고 אָמְנָם[옴남]을 형용사로 보고 כִּי אם [키 임] 앞에 어구가 생략(GKC 163d)된 것으로 보면서 "And now, it is indeed true. (I can say nothing) except that I am your kinsman. 자, 그것은 정말 사실이다. 내가 너의 기업 무를 자라는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였다.

[17] BDB(169 쪽 5 항)는 גַּם[감]이 상반되는 절을 연결할 때 반의적(adversative)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וְגַם[브감]의 예로 겔 16:28; 20:15; 전 3:13; 6:7; 느 5:8 을 들었다. 그러나 KB(196 쪽 11 항 b)는 느 5:8 의 וְגַם[브감]이 배타적으로 강조(emphasizing exclusively)한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Bush(175)는 BDB 의 역접 용법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KB 의 강조 용법 설명이 바르다고 주장했다. Hubbard(208, n. 14)는 바브를 역접의 의미(but)로 보고 גַּם[감]을 추가의 의미(additive, "also")로 보았다.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무르는 일에 있어서 법적인 우선 순위가 있음을 밝혀 주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돌보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책임과 특권의 위계 질서가 있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청혼을 하였고 보아스는 거기에 동의하였다(3:9-11). 그러나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기업 무를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권리와 책임을 보아스는 존중해야만 했다.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곤경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일을 해야 하면서도 법이 정한 권리와 책임의 우선 순위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를 유추하는 일을 도와주는 두 가지 목록이 있다. 그 하나는 종이 된 형제를 속량하는 일(레 25:48-49)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의 기업을 분배하는 일(민 27:8-11)에 관련된 것이다.[18] 미드라시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 대하여 엘리멜렉의 형제,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삼촌 혹은 보아스의 형이라고 추측한다(Hubbard, 217, n. 53). 그러나 미드라시의 가르침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법을 앞지르는 책략을 쓰기보다는 법 앞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 개인적인 선호가 법에 규정된 다른 친족의 권리에 자리를 내준 셈이었다. 새치기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잘 보여준다.[19]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보아스가 법의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신중함은 이야기에 마지막 긴장을 주며 안도의 숨을 막 쉰 독자들로 이로 인해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

[18] [레 25:48-49] (48)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개역: 사촌]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개역: 근족]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민 27:8-11] (8)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9)딸도 없거든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19]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싶었고 보아스의 마음은 이미 룻의 것이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보아스의 마음은 룻의 것이기 전에 주님의 것이었다. 이러한 보아스의 정신은 카이로의 영국인 선교사 William Henry Temple Gairdner(1873-1928)가 결혼식 전날밤에 기록한 글에 잘 반영되어 있다. Ferguson(124)은 C. E. Padwick, *Temple Gairdner of Cairo* (SPCK, London, 1929), 92 에 나오는 Gairdner 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That I may come near to her, draw me nearer to Thee than to her; that I may know her, make me to know Thee more than her; that I may love her with the perfect love of a perfectly whole heart, cause me to love Thee more than her and most of all, Amen. Amen. 제가 그녀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그녀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녀를 알기 위하여 그녀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녀를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그녀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다.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추수가 끝난 후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나서지 않은 것도 더 가까운 친족의 권리와 책임을 침범하거나 앞지르지 않으려는 그의 사려 깊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보아스는 온전함(integrity)의 모델로서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후손이 태어날 계보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Hubbard, 217). 보아스의 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룻이 앞으로 얻을 어떠한 신분도 합법한 절차를 따라 얻은 것이고 비밀리에 불공정하게 얻은 것이 아님을 드러나게 해 줄 것이었다. 나오미와 룻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동의한 대로 그리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장애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극복되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다면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Hubbard, 218).

⑥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다(1:21)고 불평했던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사람이 보아스 하나가 아니고 하나 더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룻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존재도 모르고 친족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것도 몰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오미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나오미는 룻을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보내지 않고 보아스에게로 보냈는가? 나오미가 친족의 권리와 의무의 우선 순위를 몰랐기 때문인가(Campbell, 124)? 아니면 나오미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보다는 보아스가 그들을 위해 일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가(Morris, 292)? 어쨌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것은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넘치는 친절과 뛰어난 인애를 베푼(2 장) 친척(3:2)이란 사실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Hubbard, 218).

58. 룻 3:13

1) 원문 문제

לִינִי הַלַּיְלָה וְהָיָה בַבֹּקֶר אִם־יִגְאָלֵךְ טוֹב יִגְאָל וְאִם־לֹא יַחְפֹּץ לְגָאֳלֵךְ וּגְאַלְתִּיךְ אָנֹכִי חַי־יְהוָה שִׁכְבִי עַד־הַבֹּקֶר׃ (룻 3:13)

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나타내는 שׁכב 대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לין이 사용된 이유는?

② 동사 גאל이 네 번 사용되고 목적어로 룻을 가리키는 2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3 번 사용되었다. 이 동사의 의미는?

③ יִגְאָלֵךְ에서 미완료의 용법은(GBH 113n)

④ טוֹב의 역할은?

⑤ יִגְאָל은 간접명령형인가 미완료형인가?

⑥ 대명사 אָנֹכִי의 역할은?

2) 주석

룻 3:13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시오. 아침에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겠다면, 좋소, 그로 무르게 합시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① 룻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고 독자의 마음을 긴장하게 한 갈등의 요소를 지적한 후 보아스는 그녀에게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시오.** לִינִי הַלַּיְלָה [리니 할라일라]"라고 말한다. 보아스가 사용한 동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manner)을 묘사하는 שׁכב([샤하브] "눕다")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לין/לון([룬/린] "묵다")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Sasson, 90). "묵다"라는 동사에는 "눕다"라는 동사와 달리 성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다(Campbell, 138). 보아스가 룻에게 "누워 있으시오." 대신 "묵으시오."라고 말한 것은 타작 마당으로 찾아온 젊은 여인 룻을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보임으로써 둘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한 모호함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정욕보다는 정절을 앞세우며 의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허버드(218)는 여기 "묵다"라는 동사가 룻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라고 말할 때 사용된 것에 유의하고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면 그것은 그녀의 헌신에 대한 상으로 주어진 것임을 넌지시 일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와 같은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분명 그녀에게 상이 되지만 룻의 말과 보아스의 말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허버드가 헌신과 상을 연결한 것은 문맥을 벗어난 지나친 단어 연상으로 보인다.

② "הַלַּיְלָה[할라일라] **오늘밤**"은 시간의 대격으로 지속되는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WHS 56)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정 이후 나머지 밤 시간을 가리킨다.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라**고 하면서 타작 마당에서 자정 이후 나머지 밤 시간을 보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허버드(218)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로, 보아스의 말은 한밤중이 젊은 여인이 홀로 밖에 나갈 시간이 아니고 추수를 기뻐하는 취객이나 기회를 엿보는 도둑으로부터 룻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cf. 아 5:7)이다. 둘째로, 보아스의 말은 자신과 룻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타작하는 일은 주로 남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룻이 타작 마당에서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면 창녀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부도덕한 면이 부각되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의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 복잡한 일이 생길 것이므로 보아스는 룻을 자정 이후 나머지 시간을 타작 마당에서 묵으라고 말한 것이다. 부시(175)는 내레이터가 그 이유를 독자의 상상에 맡기며 이야기에 모호함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로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③ 누가 룻의 남편이 되어 그녀에게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일까 아니면 보아스일까? 한 밤만 지나고 아침이 되면 결정될 것이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성적인 방탕에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법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룻을 존중하는 만큼이나 그리고 그가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만큼이나 기꺼이 법적 문제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판단과 결정에 맡겼다(Block, 605). 그렇다고 하여 룻을 위한 그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계속하여 말한다. "**아침에 그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면**(יִגְאָלֵךְ[이그알레흐]), **좋소**, **그로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합시다**(יִגְאָל[이그알]). **그러나 그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לְגָאֳלֵךְ[르고올레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내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오**(וּגְאַלְתִּיךְ[우그알티흐])." 이 말에는 "גָּאַל[가알] 기업 무르다"란 동사가 4 번 사용되고 동사의 목적어로 룻을 가리키는 2 인칭 여성 접미대명사 "ךְ[흐] 당신"이 3 번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보아스가 "**기업 무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3:9 에서 룻이 청혼의 이유를 설명할 때 쓴 것과 같이 "죽은 친척의 과부와 결혼함으로써 기업 무를 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것(to act as a *gōʾēl* by marrying the widow of a deceased relative)"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Bush, 177). 그러나 보아스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중적 의미(double entendre)를 가질 수 있는 모호한(equivocal) 동사 "기업 무르다"를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아스가 "결혼하다"라는 단어 대신 "기업 무르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가 룻의 청혼을 듣고 "기업 무를 자"의 책임 속에 결혼하는 것 이상의 일이 들어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는 암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준다. 그렇다고 룻이 결혼과 기업 무르는 일을 동시에 요구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보아스가 룻의 요구를 결혼과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요구로 보았다는 것도 아니다. 룻이 청혼할 때 기업 무르는 일에 근거하여 결혼을 요구한 것처럼 보아스도 기업 무르는 일에 친족의 과부와 결혼하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룻이 청혼하며 기업 무르는 일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보아스가 거기에 동의하며 기업 무르는 일을 언급할 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족 과부와의 결혼 이상의 일들이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Bush, 177).

④ 접속사 אִם[임]이 이끄는 첫 번째 조건절의 동사(יִגְאָלֵךְ[이그알레흐])와 두 번째 조건절의 동사 부분(לֹא יַחְפֹּץ לְגָאֳלֵךְ[로 야흐포츠 르고올레흐])은 서로 반대되는 일을 표현한다. 두 번째 조건절의 동사 부분이 "그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라는 의미이므로 그 반대되는 첫 번째 조건절의 동사 יִגְאָלֵךְ[이그알레흐]는 "그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건절의 יִגְאָלֵךְ[이그알레흐]라는 동사의 미완료는 "원하다, 기꺼이 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GBH 113n). 그리고

"טוֹב[토브] it is good. **좋소**"는 비인칭대명사 주어가 들어있는 정형동사이다(룻 2:22; 삼상 20:7; 삼하 3:13; 왕상 2:18). 보아스는 그 기업 무를 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그알티흐 아노히 하이-아도나이] חַי־יְהוָה ⓑ אָנֹכִי ⓐ וּגְאַלְתִּיךָ **내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오.**"라고 말할 때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이려고 동사 다음에 ([아노히] **내가**)라는 1 인칭 자립대명사(ⓐ)를 사용하며 그 뒤에 ([하이-아도나이]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오.")라는 맹세(ⓑ)를 덧붙인다.[20] 맹세문은 의도된 행동의 진술 전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룻 3:13)와 삼상 20:21 에서만 맹세문이 진술 다음에 나오고 있다. 맹세문이 보아스의 의도된 행동의 진술 다음에 오는 것은 보아스의 약속에 무게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10 절에서 시작하여 13 절에서 끝나는 보아스의 긴 말이 첫 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고 끝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한 것에 의해 틀을 이루도록 해 준다. 보아스의 말의 틀을 이루는 축복과 맹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하던 것(1:8-9; 2:4, 12, 20)에서처럼 이 문제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기대하도록 해 준다(Hubbard, 219).

⑤ 보아스와 룻이 타작 마당에서 약혼을 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그렇지만 룻이 요구한 대로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 상징적인 동작을 한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식으로 약혼을 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보아스는 룻에게 바로 그 아침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그가 룻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고 결과를 여호와께 맡겼다. 어쩌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한편으로는 독자들을 불안하게 하며 한편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하여 더욱 호기심을 갖게 한다(Hubbard, 219). 이제 룻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라고 말한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은 그날 밤을 타작 마당에 묵으면서 아침까지 누운 자세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선호하는 보아스가 아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남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고는 잠을 방해할 것은 없었다. 그녀의 걱정거리들은 곧 끝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룻이 잠을 깊게 잤을 것 같지는 않다.

---

[20] 이 맹세문의 직역은 "여호와의 사심"이다. Block(696)은 맹세문 חַי־יְהוָה[하이-아도나이]에 대하여 전통을 따른 NIV 의 "As surely as the LORD lives"보다는 "By the life of Yahweh"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의 에스겔 주석 I:207-208 쪽에서 바알이나 다른 신들의 무능과 대조하여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변증적인 문맥에서는 "As Yahweh lives"와 같은 번역이 좋지만 개인적이고 사적인 실제의 맹세에서는 "By the life of Yahweh"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하며 더 자세한 것은 Greenberg(*JBL* 79 [1957]:34-39)의 글을 참고하라고 지적하였다.

59. 룻 3:14

1) 원문 문제

(룻 3:14) וַתִּשְׁכַּב [כ= מַרְגְּלָתוֹ] [ק= מַרְגְּלוֹתָיו*] עַד־הַבֹּקֶר וַתָּקָם [כ= בִּטְרוֹם] [ק= בְּטֶרֶם]
יַכִּיר אִישׁ אֶת־רֵעֵהוּ וַיֹּאמֶר אַל־יִוָּדַע כִּי־בָאָה הָאִשָּׁה הַגֹּרֶן׃

① 룻 3:14 은 BHS 의 룻기에서 가장 많은 각주를 갖는 절이다. 5 개의 각주에 대하여 설명하면?

② וַיֹּאמֶר의 의미는(BDB, 2, p. 56; 창 20:11; 룻 4:4)?

③ 이 절의 하반절에 대한 페시타역의 번역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וַתֹּאמֶר אַל־יִוָּדַע כִּי־בָאתִי הַגֹּרֶן이 되는데 이것의 뜻은?

2) 주석

룻 3:14 그래서 그녀는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① 본문 비평 부분에서 말한 대로 BHS 룻기에서 편집자의 각주가 제일 많은 구절이 바로 3:14 이다. 마지막 두 개의 절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 두 개의 절에 대한 역본들의 번역과 정정을 제안하는 학자들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맛소라 본문: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וַתָּקָם[바타콤]). 그리고 그는 "여인(הָאִשָּׁה[하이샤])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בָאָה[바아])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וַיֹּאמֶר[바요메르]).

ⓑ페시타역: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여인 삭제]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בָּאתִי[바티])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וַתֹּאמֶר [바토메르]).

ⓒ칠십인역: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그러자 보아스는[Βοος 추가] "여인[관사 없음 γυνή]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했다.[21] (벌게이트역도 칠십인역과 일반적으로 일치함.)

ⓓ주옹(73): 그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וַיָּקָם[바야콤]으로 정정). 그리고 그는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21] Cf. 쉬운성경: "그리하여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아직 어두워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때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타작 마당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루돌프(55-56): 그녀는 *그의 명령에 따라*(בִּדְבָרוֹ[비드바로] 추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22]

② 루돌프처럼 룻이 보아스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다고 하거나 주옹처럼 룻이 아니라 보아스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본들과 역본들의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Bush, 177). 칠십인역(그리고 이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벌게이트역)이 마지막 절의 동사 וַיֹּאמֶר[바요메르] 다음에 보아스를 첨가한 것은 번역할 때 암시적인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밝힌 것에 불과하다(Brotzman, 155). 페시타역이 וַיֹּאמֶר[바요메르](그가 말했다) 대신 וַתֹּאמֶר[바토메르](그녀가 말했다)로 바꾸고 בָּאָה[바아]의 명시적인 주어 הָאִשָּׁה[하이샤](여인)를 생략하고 בָּאָה(그녀가 왔다) 대신 בָּאתִי[바티]("내가 왔다")로 바꾼 것은 번역자의 해석이 반영된 변경으로 보인다(Brotzman, 155).

③ 맛소라 본문은 있는 그대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마지막 두 절의 동사가 모두 바브 계속법 미완료이므로 연속하여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룻이 일어났고(וַתָּקָם[바타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보아스가 [속으로] 말했다(וַיֹּאמֶר[바요메르]). 그런데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의 동기를 나타내는 것(Sasson, 72 의 번역; Campbell, 115 의 번역)처럼 보아스가 말(명령)하였기 때문에 룻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두 번째 동사가 첫 번째 동사의 연속으로 일어난 것을 암시하는 바브 계속법에 어긋난다(Bush, 178). 그리고 두 번째 동사 אמר[아마르]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마음으로 בְּלֵב[블레브]"라는 어구와 함께 쓰이지만 이 어구 없이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Bush, 177; Hubbard, 220, n. 3: 룻 4:4; 창 20:11; 42:4; 출 3:3; 12:33; 삼상 20:26; 삼하 5:6; 12:22; 왕하 5:11; 말 1:7;). 본 주석의 번역은 동사 אמר[아마르]가 자신에게 하는 내면적인 말 즉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맛소라 본문 그대로 "룻이 일어났다"—"보아스가 [속으로] 말했다(=생각했다)"처럼 연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맛소라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이 구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

[22] Cf. **새번역:**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공동번역:** "이리하여 룻은 날이 새기까지 그의 발치께에 누워 있다가, 여자가 타작 마당에 왔었다는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보아즈의 말을 따라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일어났다."; **우리말성경:** "이리하여 룻은 날이 새기까지 그의 발치께에 누워 있다가, 여자가 타작 마당에 왔었다는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보아즈의 말을 따라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일어났다."; **현대인성경:**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께에서 눈을 붙이고 아직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낙네가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말한 까닭이다."

④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유의하며 보아스가 충고한 대로 대화가 끝난 후부터 **아침까지** 밤의 나머지 동안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한밤중에 나눈 대화 후에 보아스나 룻이 잠을 많이 잤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보아스의 마음은 아침에 있을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그가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룻의 마음에도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다. 누워 있다가 룻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룻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타작 마당을 떠나려는 의도로 동트기 전에 일어났던 것이다. 룻은 자신에 대한 성읍 사람들의 좋은 평판(3:11)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떠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룻은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 마당에서의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였다(Block, 697). 사람들이 밤 동안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이고 아침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레이터는 어근 נכר[나하르]의 사역능동 어간을 여기에 다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재미있는 반전을 느끼도록 한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알아보고 보살펴 주는(2:10, 19 לְהַכִּירֵנִי[르하키레니] / מַכִּירֵךְ[마키레흐]) 것을 기뻐하였던 룻이 여기에서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알아보는(3:14 יַכִּיר[야키르])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Hubbard, 221). 룻은 임박한 결혼의 즐거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설령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도 최근까지 아랍 지역의 마을에서 동트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아스와 함께 있는 장면만 아니라면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나 떠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⑤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보아스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염려를 룻과 공유하며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룻이 타작 마당에 와서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알려진다면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방 여인은 역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 버린 어쩔 수 없는 노인! 사랑하는 자들의 국경 없는 밀회! 법을 우회하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속이려는 공모!—이 무성하게 퍼졌을 것이다(Hubbard, 221). 이런 소문은 보아스와 룻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것이다. 어쩌면 룻은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결과로 인한 이스라엘 여인으로 편입되는 것이 좌절되고 모압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보아스와 룻의 공모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기업 무를 권한을 포기하기 전에 보아스로부터 정상적인 양보 이상의 것을 요구하였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일이었다.

60. 룻 3:15

1) 원문 문제

וַיֹּאמֶר הָבִי הַמִּטְפַּחַת אֲשֶׁר־עָלַיִךְ וְאֶחֱזִי־בָהּ וַתֹּאחֶז בָּהּ (룻 3:15)
וַיָּמָד שֵׁשׁ־שְׂעֹרִים וַיָּשֶׁת עָלֶיהָ וַיָּבֹא הָעִיר׃

① הָבִי의 어근과 의미(창 11:3, 4, 7; 창 29:21; 30:1) 그리고 기대되는 모음은(GKC 69a)?

② 사 3:22 과 여기에만 사용된 הַמִּטְפַּחַת는 3:3 의 שִׂמְלָה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③ MT אֶחֱזִי와 몇몇 사본에 나오는 אֶחֱזִי와 비교하여 모음을 설명하면(GKC 64c, 68b)?

④ 보리의 양을 측정하는 생략된 단위로 제시되는 에바(איפה 30 혹은 50 파운드), 스아(סאה 에바의 3 분의 1), 오멜(עמר 에바의 10 분의 1) 중 어느 것이 가장 그럴듯한 단위인가?

⑤ 맛소라 본문의 독법은 "그가 [=보아스가] 성으로 갔다."이다.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과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은 "그 여자가 [=룻이] 성으로 갔다."라는 독법을 보인다 . 이 특별한 본문 변형은 흠정역의 역사에 흥미로운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흠정역의 첫 두 판이 이 절을 번역하는 것에 차이를 보였다. 한 판은 맛소라 본문을 따라 번역했기 때문에 "He Bible 그 남자 성경"이라 부른 반면에 다른 판은 벌게이트역을 따라 번역했기 때문에 "She Bible 그 여자 성경"이라 불렀다. 어느 본문이 더 우수한 본문인가?

2) 주석

룻 3:15 그가 [그녀/룻에게] "걸치고 있는 숄을 내밀고 [펴서] 잡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펴서] 잡았다. 그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녀에게 이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① 보아스는 그러한 예방 조치를 바로 실행한다. 그는 룻에게 "**걸치고 있는 숄을 내밀고 [펴서] 잡으라**"고 명령하였다. 명령형 "הָבִי[하비] **내밀라**!"의 어근은 아람어/시리아어, 아랍어, 이디오피아어에서 "주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 יהב[야하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약에서 이 어근은 창 11:3, 4, 7 에서처럼 청유하는 감탄사("자, come, come now!")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창 29:21; 30:1; 47:15-16; 삿 1:15; 삼상 14:41 에서처럼 "제공하다, 이용할 수 있게 하다 to provide, to make available"라는 의미로 대부분 명령형으로 나오고 항상 대화에서만 사용된다(Bush, 178). 여기에서 "הָבִי[하비]"는 숄을 쓸 수 있도록 내밀고 펼치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 명령형의 기대되는 일반적인 모음은 자음 ה[헤] 밑에 하탑 파타흐가 오는 הֲבִי[하비]인데 여기에서는 הָבִי[하비]로 나오고 있다. 이 명령형은 뒤에 오는 "잡으라"는 명령형과 의미상 실제로 중복된다고 간주되어 LXX^{BL} 과 오리겐의 육경(헥사플라)의 다섯째 난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시리아육경(Syro-Hexapla)의 경우 생략되어 있다(Campbell, 127).

② "**숄**"로 번역된 מִטְפַּחַת[미트파하트]는 어근 טפח([타파흐] "펼치다")에서 온 명사로 여기(룻 3:15)와 사 3:22 에서만 사용된 단어이다. 사 3:18-23 에 열거된 여인들의 장신구와 복장(jewelry & attire)은

מִטְפַּחַת[미트파하트]처럼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물품들이 많다.[23] 부시(178)는 사 3:22 에 שִׂמְלָה[씸라], בֶּגֶן[베겐], כֻּתֹּנֶת[쿠토네트]와 같은 일반적인 겉옷/의복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 것에 유의하며 3:3 의 의복을 뜻하는 שִׂמְלָה[씸라]와 숄을 뜻하는 מִטְפַּחַת[미트파하트]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둘을 똑같다고 보는 캠벨(120)과 주옹(74)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허버드(222, n. 15)도 이 둘이 똑같은 겉옷을 지칭한다면 룻이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성읍에 들어가게 하였을 것이므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lock(697)은 מִטְפַּחַת[미트파하트]가 룻의 주된 옷도 아니고 שִׂמְלָה[씸라]도 아니며 룻이 **걸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겉옷의 일종(a piece of outer clothing)이며 곡식 자루로서 사용될 만큼 크고 강한 것으로 영어의 "cape, scarf, shawl"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③ 또 하나의 명령형 "**잡으라** אֶחֲזִי[에호지]"는 특이하게 중근에 하탑 카마츠(모음 오)를 갖고 있는데 루돌프(56)가 지적한 것처럼 몇몇 사본에는 אֶחֲזִי[에헤지]로 나온다.[24] 동사 אחז[아하즈] 다음에 목적표시 불변화사 אֵת[에트]가 오지 않고 여기처럼 전치사 בְּ[브]가 오는 것은 산문과 더 이른 시기의 글에 보다 자주 사용되었다.[25]

④ 보아스가 룻에게 걸치고 있는 숄을 가지고 와서 펴서 잡으라고 할 때 **그녀는 [펴서] 잡았다**. 그러자 보아스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녀에게 이워 주었다**. 여기에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생략되어

---

[23] [사 3:17-24] (17)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18)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개역: 면박)과 (20)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반지(개역: 지환)과 코 고리와 (22)예복(הַמַּחֲלָצוֹת[하마할라초트])과 겉옷(הַמַּעֲטָפוֹת[하마하타포트])과 목도리(숄 הַמִּטְפָּחוֹת[하미트파호트])와 손주머니(הָאֲרִיטִים [하하리팀])와 (23)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24)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개역: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cf. NIV 3:22 the fine robes and the capes and cloaks, the purses;

NASB 3:22: festal robes, outer tunics, cloaks, money purses,

[24] GKC 64c 는 중근 후음 동사의 기본능동 명령형에서 간모음으로 *오*(a)대신 *오*(o)를 갖는 유일한 형들이 נְעֹל[느올](삼하 13:17), אֶחֹז[에호즈](출 4:4; 삼하 2:21), 그리고 אֶחֲזִי[에호지](룻 3:15)라고 설명하고 2 인칭 남성 복수의 경우 휴지형 אֶחֹזוּ[에호주](느 7:3)와 비휴지형 אֶחֲזוּ[에호주](아 2:15)를 비교하고 있다. 중근에 후음을 갖고 있는 동사 אחז[아하즈]의 미완료형은 어떤 경우 두근 알렙 동사(יֹאחֵז[요헤즈])처럼 모음을 갖기도 하고 두근 후음 동사(יֶחֱחֹז[에헤호즈])처럼 모음을 갖기도 한다(GKC 68b).

[25] Campbell(127)은 אחז בְּ[아하즈 브]가 창 25:26(야곱-에서의 발꿈치); 출 4:4(모세-뱀의 꼬리); 삿 16:3(삼손-가사 성문); 20:6(레위인-첩의 시체); 삼하 20:9(요압-아마사의 수염); 왕하 1:51(아도니야-제단 뿔) 등에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다.

있다. 측정 단위가 생략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헌과 성경에 흔히 있는 일이다.[26] 여기에 생략된 단위로 제시되는 것들은 에바(אֵיפָה[에파] 30 혹은 50 파운드), 스아(סְאָה[스아] 에바의 3 분의 1 *IDB* 4:834-35; *NBD* 1234), 오멜(עֹמֶר[오메르] 에바의 10 분의 1) 등이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가? 부시(178)의 지적대로 보리의 양과 무게를 고려할 때 만일 여섯 에바의 보리라면 180 파운드에서 300 파운드 사이의 무게이므로 룻에게 너무 무거운 양이고 여섯 오멜의 보리라면 2:17 의 한 에바의 6/10 즉 18 파운드에서 30 파운드 사이의 무게에 해당하므로 보아스의 관대함에 비추어 너무 적은 양이며 여섯 스아의 보리 즉 60 파운드에서 100 파운드 사이의 무게로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워 줄** 적당한 양으로 추정된다. 허버드(222)도 단위 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며 6 에바이면 175/285 파운드이고 6 스아이면 58/95 파운드이므로 보아스의 관대함과 룻의 운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략된 측정 단위를 스아로 보았다. 새슨(96)은 *NBD*(3 판 1234 쪽)의 Weights & Measures 표에 근거하여 1 리터를 0.6kg 으로 환산하고 다음과 같은 미터법 계산을 제시하였다.

단위	용량(liters)	무게(kg)	보아스의 선물	
호멜	220	132	792 (kg)	1740 (lbs)
에바	22	13.2	79.2	174
스아	7.3	4.38	26.3	57.8
오멜	3.66	2.20	13.2	30

⑤ 양과 무게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제기되는 것은 수와 단위의 결합에 있어서 숫자 3-10 의 남성형은 여성 명사와 결합하고 숫자 3-10 의 여성형은 남성 명사와 결합하는 문법적인 고려이다(GBH 100d).[27] 여기 숫자 "שֵׁשׁ[셰시] 여섯"은 남성형이므로 단위를 밝힐 때 여성명사가 와야 한다. 스아와 오멜 중의 단위 하나를 선택할 경우 남성명사 오멜은 쓸 수가 없고 여성 명사 스아는 쓸 수 있다(Sasson, 97; Hubbard, 222, n. 17). 블락(698)은 에바, 스아, 오멜의 가능성을 놓고 부시와 비슷하게 계산하였지만 룻이 운반할 힘에 맞는 양이라 하더라도 숄이 그만한 양을 담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양손 혹은 가까이에 있던 기구를 사용하여 여섯 번 되어 준 것(six scoops)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다고 하였다. 보리의 양 문제처럼 보아스가 숄에

---

[26] 세겔이 생략된 것은 Morris(294, n. 1)가 지적한 대로 D. J. Wiseman, *The Alalakh Tablets*, 13 그리고 창 20:16; 민 7:68; 신 22:29; 삼하 18:12 등에서 볼 수 있다. GKC 134n 은 단위가 생략된 구절들을 제시하며 세겔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제시하며 룻 3:15 의 경우 번역할 때 단위 에바를 보충하였다. IBHS 15.2.2b 와 GBH 142n 도 참고하라.

[27] 대상 4:27 에 나오는 여섯 딸을 표현하는 בָּנוֹת שֵׁשׁ[바노트 셰시]와 대상 3:4 과 에 2:12 에 나오는 여섯 달을 표현하는 שִׁשָּׁה חֳדָשִׁים [시샤 호다심]을 참고하라.

담은 보리를 룻의 신체 어느 부분에 놓이도록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본 주석의 번역은 보아스가 룻의 머리 위에 **이워 준** 것으로 번역했지만 보아스가 룻의 어깨 위에 걸쳐지게 하거나(Block, 698) 룻의 등에 짊어지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⑥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이워 준 목적은 무엇인가? 보리는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인가? 새슨(97-98)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열거하고 평가한다.

ⓐ험버트는 룻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이 혹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란 변명과 구실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 새슨은 이 제안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추수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서 여인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궁켈은 보아스의 선물이 룻을 위해 일하려는 그의 열심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루돌프는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만나도록 주선해 준 나오미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보았다.

- 새슨은 궁켈과 루돌프의 견해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다.

ⓓ스테이플즈는 보아스를 곡식의 신으로 보고 곡식의 신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곡식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는 성적인 대가로 유다가 다말에게 준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슨은 스테이플즈와 메이의 견해를 자세히 비판하지 않고 적절하게 반박한 캠벨(6-7)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하였다.

ⓕ미드라시 주석들이 약혼하는 데 6 스아의 보리가 최소한 요구되고(Levine) 나오미가 약혼 선물로 주어진 보리의 궁극적인 수혜자(Robertson)라고 한 것은 룻 3:15 에 근거한 것이다.

- 새슨은 과부의 시어머니가 결혼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알려진 것이 없고 6 스아의 보리가 적게는 3 세겔(cf. 왕하 7:1, 16-18) 많게는 9 세겔의 가치인데 레 24:4-7 과 호 3:2(Wolff, 61)에 따른 여인이 30 세겔의 가치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⑦ 블락(700)은 이 보리가 신랑이 신부에게 믿는 가운데 결혼을 준비할 것을 약속하고 그 동안 신부에게 잘 대할 것을 보증하며 주는 선물(מוֹהַר[모하르])의 계약금(down payment)과 같은 것으로 보아스가 룻의 법적 후견인인 나오미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블락은 또 보아스가 룻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일상 삶으로 돌아가 결혼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나이 든 자기에게 와서 청혼하도록 주선한 나오미의 주도적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리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허버드(222)는 새슨과 달리 험버트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룻이 그렇게 무거운 곡식을 들고 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추수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 밤새워 일을 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을 것이라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의심을 잠재웠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⑧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보리를 주었기 때문에 보리를 준 것이 두 사람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아스의 선물에 대한 의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장면에서 밝혀질 것이다. 보리가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15 절은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나 룻이 인용한 보아스의 말이 나오는 3 장 17 절 하반절은 보리가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차적으로 나오미에게 주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⑨ 이 장면은 번역자들을 혼동하게 한 언급(וַיָּבֹא הָעִיר [바야보 하이르])으로 끝난다. 맛소라 본문은 "그가 [=보아스가] 성으로 갔다."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과 페시타역과 벌게이트역은 "그 여자가 [=룻이] 성으로 갔다."라고 읽었고 많은 영어 역본들(ESV, NKJV, NASB, JB, JPSV, RSV, GNB, REB)은 이를 따랐다.[28] 그러나 영어 역본 중 NIV 와 NRSV 는 맛소라 본문을 따라 "그가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번역했다. 맛소라 본문이 벌게이트역과 시리아역의 본문보다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이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더 어려운 맛소라 본문이 원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여기 3:15 에서 וַתָּבֹא[바타보](그녀가 성으로 갔다)처럼 룻이 언급되었다면 3:16 의 첫 동사 וַתָּבוֹא[바타보](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로 갔다)는 쓸데없는 말이 되어 버릴 것이다. וַתָּבֹא[바타보]로 시작하는 매우 짧은 절이 15 절을 마감하고 바로 뒤이어 똑같은 וַתָּבוֹא[바타보]로 16 절을 시작하는 것은 세련되지 않은 반복(inelegant redundancy)일 것이다(Sasson, 98; Bush, 179).

ⓑ둘째, 14 절 하반절에서 15 절 마지막 부분 바로 앞 절까지 즉 앞선 절들에 보아스가 중심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15 절의 마지막 부분도 (16 절에서 룻이 한 행동을 말하기 전에) 보아스가 행동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실 이 15 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행동이 묘사되지 않았다면 뒤따르는 제 4 막을 시작하는 절인 4:1 까지 보아스의 행동에 대하여

---

[28] Brotzman, 156, n. 68-69: "이 특별한 본문 변형은 흠정역(KJV)의 역사에 흥미로운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흠정역의 첫 두 판이 이 절을 번역하는 것에 차이를 보였다. 한 판은 맛소라 본문을 따라 번역했기 때문에 "He Bible 그 남자 성경"이라 부른 반면에 다른 판은 벌게이트역을 따라 번역했기 때문에 "She Bible 그 여자 성경"이라 불렀다. Allen Wikgren, "The English Bible," in *The Interpreter's Bible*, ed. George A. Buttrick (New York: Abingdon, 1952), 1:94 를 참조하라. Barthélemy, C*ritique Textuelle*, 133 은 헬라어 3 인칭 동사들은 성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 역본의 독법을 모호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어떤 헬라어 사본들(l, o, e_2)은 문제가 되는 동사의 명시적 주어가 룻인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적어도 한 사본(w)은 그 동사의 명시적 주어가 보아스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혀 듣지 못하게 된다(Bush, 179). 다시 말하면, 독자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이워 주었을 때 룻이 떠났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보아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보아스가 3 장의 타작 마당으로부터 4 장의 성문에 있게 된 것 사이의 전이를 듣지 못하게 된다(Block, 698)).

ⓒ셋째,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통하여 밤사이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다(Block, 698). 따라서 더 어렵지만 더 좋은 독법을 보이는 맛소라 본문을 따라 15 절의 마지막 절도 보아스의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⑩ 14-15 절의 중심 인물 보아스의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났을 때) 보아스는 그들의 만남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룻에게 숄을 내밀고 잡으라고 말하고 룻이 그렇게 하자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이워주고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읍으로 들어갔다. 보아스의 퇴장은 곧바로 타작 마당이 배경인 장면(3 막 2 장)을 끝나게 한다.

3 막 2 장(3:6-15) 해설

⑴3 막 2 장(3:6-15)은 3 막의 중심 장면으로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에 따른 룻의 행동과 말 그리고 이에 대한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심 장면의 처음과 끝은 나오미의 위험스러운 고안을 실천에 옮기는 룻의 행동(3:6-7)과 룻에게 반응하는 보아스의 행동(3:14-15)을 묘사하는 내러티브로서 룻과 보아스가 주고받은 중앙 부분의 대화(3:8-13)를 감싸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 내러티브 틀의 첫 부분은 요약 진술 즉 **그러고서 그녀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하였다**(3:6)라고 시작한 후 세부적인 묘사 즉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을 때 룻은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3:7)고 되어 있다. 3 막 1 장에서 룻은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말한 후, 3 막 2 장 서두의 요약 진술에 언급된 것처럼 실제로 그대로 행함으로써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하였다.

⑵나오미가 룻에게 한 지시(3:3-4)와 룻의 실제 행동에 대한 내레이터의 세부적인 묘사(3:7)를 비교하면 룻의 행동 묘사에 나오미의 지시에 없던 3 가지 요소가 언급된다. 첫째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나서 "**그의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아스의 기분이 좋아서 룻의 동작이 상징하는 요구를 들어 줄 만한 상태인 것을 암시해 준다. 둘째는 보아스가 가서 누웠을 때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기다리고 있던 룻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아스가 누워 잠이 든 것을 암시한다. 보아스가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워 자게 되었다는 묘사는 텅 빈 삶을 해결하려는 두 여인을 위하여 아주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전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지 않았던가? 룻이 누워 잠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접근하기에 곡식더미 맨 끝보다 더 좋은 타작 마당의 다른 부분이 없지 않은가? 셋째는 룻이 잠자는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 그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만히**"를 첨가한 것은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하나도 어김없이 문자 그대로 실행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지시했던, 즉 가서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우라(3:4)는 내용을 재차 반복하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고 언급한 것은 진술의 속도를 늦추며 독자들의 긴장감을 더 높이려는 것이다. 나오미가 시킨 그대로 룻은 자신을 매우 미묘하고 위험스러운 상황, 즉 타작 마당의 외진 구석에 보아스와 함께 누워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이 자극적이고 관능적인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⑶내레이터는 요약 진술과 세부 묘사를 통하여 나오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룻의 행동을 언급한 후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과 단어만을 사용하여 전개된 일을 전하고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의 대화를 소개한다. 대화를 소개하기 전에 내레이터는 자신의 관점에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켰다**(3:8)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접속사와 불변화사로 이루어진 [브히네]가 이끄는 비연속적이고 이접적인 절을 통하여 보아스의 관점에서 본 장면을 묘사하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3:8)고 전한다. 보아스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놀람 때문에 잠이 깨어 몸을 돌이키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아스는 "**그 사람**"으로 그리고 독자가 알고 있는 여인 룻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밤중에 타작 마당에서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눈 대화가 무엇일까? 내레이터는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주된 관심을 표명하며 대화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시킨다. 한밤중에 놀라 잠이 깬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있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사람에게 한 첫 말은 "**당신은 누구요?**(3:9)"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물을 때 "내 딸"이란 호칭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보아스가 독자들과 달리 그 어떤 사람이 룻인지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아스의 질문에 대하여 룻은 "**저는 룻, 어르신의 시녀입니다**(3:9)."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룻, 어르신의 시녀"라는 동격 형식으로 먼저 자신의 이름(**룻**)을 밝히고 보아스 발치에 누운 자신의 상징적인 동작이 추구하는 입장에 걸맞은 신분임을 보이는 동시에 자신을 낮추고 보아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용어(**시녀**)를 담고 있다. 상징적인 동작을 통하여 청혼을 하려는 룻은 더 이상 본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 여인[노흐리야](2:10)"도 아니고 가장 낮은 여종인 "하녀[시프하](2:13)"도 아니고 이제 본토인과 당당히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녀[아마](3:9)"임을 밝혔다(허버드, 211). 여기서 룻이 자신을 "말론의 아내(4:10)" 혹은 "고인의 아내(4:5)"라고 부르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오미가 대담한 계획을 말할 때 룻의 행복이 주된 관심사인 것을 보였듯이 룻의 상징적인 동작이 뜻하는 것도 후사를 잇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평안한 보금자리이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를 얻을 수 있도록 친족의 의무를 해 달라는 요구를 담는 "고인의 아내" 혹은 말론의 아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결혼할 만한 "시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⑷룻이 "**룻, 어르신의 시녀**"라고 대답한 후에 한 말들을 자세히 살피면 [나오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대답한] 룻의 말(3:5)과 [룻이 나오미가 명령한 그대로 다 행했다고 전달하는] 내레이터의 말(3:6)과는 달리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수정하여 행동한 것처럼 보인다. 나오미는 룻이 그의 발치에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그녀의 동작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고 룻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3:4)이라고 말했었다. 룻은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 있으라(3:4)!"는 나오미의 지시대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 있었다(3:7)." 그러나 룻은 보아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나오미의 계획의 의도를 말로 옮김으로써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말했다. 룻은 보아스에게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3:9)."라고 말했다. 이것은 나오미의 지시를 넘어선 것이지만 룻의 동작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라는 말이 뜻하는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청혼이기 때문에 룻의 동작에 자연스럽고 필요한 보충 역할을 한 것이다. 룻의 동작과 룻의 말이 똑같이 "결혼"에 대한 상징적인 요구이고 보아스가 즉각 그렇게 이해한 것은 그의 말(3:10)에서 드러난다. 내레이터가 룻의 입에 "**당신의 옷자락**[카나프]**으로 당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3:9)**.**"라는 말을 넣은 것은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축복하며 "여호와의 날개[카나프 wing]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2:12)."라는 표현과 언어유희가 되게 만든 것으로 그의 뛰어난 문예적 창작성을 보게 해 준다(부시, 180). 이 언어 유희는 2:12 에서 "(여호와의) 날개"로 번역되고 3:9 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카나프]인 사실에 근거한다. [카나프]를 사용한 룻의 청혼(3:9)은 보아스의 마음에 [카나프]를 사용한 그의 이전 축복(2:12)을 생각나게 해 주었을 것이다. 룻을 위해 기도했던 보아스가 룻에 의하여 이제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우버(Rauber, *JBL* 89 [1970]: 33)가 지적한 대로 여호와의 날개가 백성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것과 젊은이들의 팔이 곡식을 곳간으로 모으는 것과 보아스의 팔이 과부 룻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것이 이미지 면에서 동일하다(부시, 180-181). 여호와의 날개(옷자락/옷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여호와로부터 받을 온전한 상은 그런 축복의 기도를 했던 장본인이 결혼을 통하여 그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을 때 주어질 것이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빌었던 여호와로부터 올 온전한 상은 룻을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의 옷자락/날개(카나프 2:12)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결혼을 통하여 룻을 덮는 보아스의 옷자락(카나프 3:9)으로 나타났을 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⑸룻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청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청혼의 근거 즉 "**그것은 어르신이 기업 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3:9)."라는 말을 하였다. **기업 무를 자**는 가난, 압제, 불의로 인해 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친족을 그 곤경으로부터 구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이다. 이방 여인 룻은 상황의 긴박성 아래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에게 친족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다. 룻에 의해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는 곤경 즉 과부로서 양식도 없고 보호와 평안함을 제공해 줄 남편이 없는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줄 기업 무를 자로 지목되었다. 시간이 밤이고 공간이 타작 마당이고 두 사람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발치 부분을 들치고 누워 있는 동작과 옷자락으로 덮으라는 말이 얼마든지 성적인 것들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룻의 청혼과 그 근거를 밝히는 말들은 단순히 보아스로 성적 쾌락을 즐기도록 초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룻이 발치를 들치고 누워 있는 동작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 줄 것으로 판단한 나오미와는 달리, 룻은 급박한 상황 즉 밤중에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발견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동작에 대한 보아스의 해석에만 맡기지 않았다(부시, 181). 오히려 룻은 자신의 동작이 상징하는 것을 말로 해석하며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고 그 근거로 기업 무르는 관습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룻은 그녀나 나오미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의 가능성을 보아스에게 열어 주었다.

⑹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이 불러일으킨 긴장은 그 계획대로 실행한 룻의 행동과 말의 묘사를 통하여 더 고조되었다가 룻의 청혼에 동의하는 보아스의 말(3:10-11)에 의해 누그러뜨려진다(부시, 181). "**내 딸이여**"라는 호칭이 보여주듯 보아스는 젊은 여인이 늙은 자신에게 청혼하는 것을 기뻐하며 먼저 룻을 위해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라오** (3:10)."라고 축복한 후 칭찬의 말 즉 "당신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당신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3:10)."라는 말을 했다. 보아스와의 결혼을 목표로 하는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과 이에 대한 룻의 헌신적 순종이 친척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 있는 기업 무름에 근거한 것임을 들은 보아스는 그 기업 무름에 결혼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보인다(부시, 181). 보아스의 말처럼 전 남편과 사별한 룻은 사랑을 찾아 가난한 남자든 여유를 찾아 부유한 남자든 나이가 젊은 남자를 찾아 재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룻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아 갈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늙은 보아스를 찾아와 청혼을 하며 기업 무를 책임을 말했다. 보아스가 "당신은 **지난 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라고 말한 것은 젊은 여인 룻이 나이가 많은 자신을 결혼 대상자로 선택해 준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기업 무를 분"이란 룻의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생각했던 결혼에 의한 평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은 친족의 이름을 잇고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일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를 찾아 재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친족 안에서 나이 많은 자신을 찾아와 청혼한 것에 대하여 나오미와 룻처럼 평안한 보금자리를 찾으려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 후사를 위한 것으로까지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칭찬한(3:10) 다음에 룻의 청혼대로 "결혼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룻이 말한 "모든 것을 해 주겠다(3:11)"고 한 말도 이것을 지지해 준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룻이 홀로 된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헌신하였던 **지난 번의 인애보다** 자유인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아**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기업 무름의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나이 들었지만 친척인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번의 인애가 더 값진 것**이라고 말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속담처럼 룻의 청혼을 듣고 결혼이 주는 평안한 보금자리를 넘어서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 친족의 후사까지 염두에 둔 보아스의 해석은 나오미와 룻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보여주는 상서로운 전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⑺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인 자신에게 청혼한 룻을 축복하고 칭찬한 후 두 가지 결과를 언급한다. 첫 번째 결과(3:11)는 온 성읍 백성이 룻이 덕망있는 여인인 것을 안다는 것에 근거하여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3:12-13)는 그 약속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주요 갈등으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소개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는 다시 한번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며 먼저 아버지처럼 "**두려워하지 마오**(3:11)."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내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관심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옮기며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3:11)."라고 약속한다. 3:5 의 룻의 말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 말은 실제로 보아스의 약속과 나오미의 계획을 연결시켜

준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룻이 결혼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보아스가 룻이 말한 모든 것을 룻에게 해 줄 것이라고 한 것은 기업 무름에 근거한 룻의 청혼을 듣고 보아스가 거기에 결혼 이상의 일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을 암시해 준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3:9)"라며 청혼한 것과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3:11)."라고 약속한 것을 비교하면 두 사람의 권위가 역전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블락, 694).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온 성읍 나의 백성이 당신이 덕망있는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3:11)."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덧붙인다. 내레이터에 의하여 2:1 에서 "[이시 기보르 하일] 덕망있는 사람, 유지"라고 소개된 보아스는 여기서 성읍 사람들의 룻에 대한 좋은 평가를 알리며 그녀를 "[에셰트 하일] **덕망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다. 룻은 몇 주 전만 해도 베들레헴에 온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였고(1 장) 룻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밭 주인의 호의를 입어 이삭을 줍고 있었다(2 장). 그러나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 그녀의 헌신을 통하여 성읍 사람들이 그녀의 참된 인간 됨됨이를 알았다. 온 성읍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룻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헌신 때문이었다. 정말 "덕망있는 사람, 유지"인 보아스(2:1)와 "덕망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룻(3:11)은 좋은 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의 결혼은 기정 사실처럼 절차만 밟으면 될 것처럼 보였다(허버드, 216). 이렇게 내레이터는 마지막 갈등이 제시되기 바로 전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암시한다. 룻에 대한 좋은 평판은 룻이 점점 이스라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이고 다른 이방인도 룻과 같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트리블(Trible, 184)의 말대로 남자와 여자, 본토인과 이방인, 늙은이와 젊은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등의 모든 차이는 인간의 됨됨이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8)이와 같은 확신의 말로만 보아스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룻의 청혼에 대한 칭찬의 첫 번째 결과 즉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고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보아스와 룻이 곧 결혼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가 부풀어 오른 바로 이때 보아스는 예상 밖의 당혹스러운 사실을 폭로한다. 보아스는 두 번째 결과(3:12-13)를 말하며 나오미나 룻이 전혀 예견하지 못한 기업 무름에 들어있는 필연적인 일을 룻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한 분 있소**(3:12)." 보아스는 기업 무름에 있어서 법이 정한 질서를 초월하여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제치고 먼저 룻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보아스의 위대한 점이 더욱 밝게 드러난다. 남을 낫게 여기며 먼저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인격의 미성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가치관의 저속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자기의 나라 건설에 연연하는 비전의 전도(轉倒)를 자주 자주 보는 우리들에게 친족 간의 질서를 존중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 기업 무름의 일을 진행하려는 보아스는 우리의 귀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가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려는 신중함은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긴장을 준다(허버드, 217). 그렇지만 보아스의 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룻이 앞으로 얻을 어떠한 신분도 합법한 절차를 따라 얻은 것이고 비밀리에 불공정하게 얻은 것이 아님을 밝혀줄 것이다. 나오미와 룻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동의한 대로 그리고 우선 순위의 갈등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결되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된다면 이것은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 가능하게 된 일로 여겨야 할 것이다(허버드, 218). 그렇게 될 경우 보아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후손이 태어날 계보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고 모든 세대에 온전함의 모델이 될 것이다.

⑼룻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고 독자의 마음을 긴장하게 한 갈등의 요소를 지적한 후 보아스는 그녀에게 성적 뉘앙스가 짙은 "누워 있으시오"라는 말 대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시오**(3:13)."라고 말한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타작 마당으로 찾아온 젊은 여인 룻을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둘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한 모호함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정욕보다는 정절을 앞세우며 의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보아스의 말은 룻이 한밤중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룻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일 것이다(허버드, 218). 아니면 내레이터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며 이야기에 모호함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부시, 175). 보아스는 그가 룻을 존중하는 만큼이나 그리고 그가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만큼이나 기꺼이 법적 문제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판단과 결정에 맡긴다(블락, 605). 그러면서도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 "**아침에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겠다면, 좋소, 그로 무르게 합시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오**(3:13)." 이 말에는 "기업 무르다"란 동사가 4 번 사용되고 동사의 목적어로 룻을 가리키는 2 인칭 여성 접미대명사가 3 번 사용되었다. 동사 "**기업 무르다**"는 3:9 에서 룻이 청혼의 근거로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로 언급한 것처럼 죽은 친척의 과부와 결혼함으로써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아스가 "결혼하다"라는 명시적인 말을 쓰지 않고 "기업 무르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가 룻의 청혼을 듣고 "기업 무를 자"의 책임 속에 룻과 나오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족 과부와의 결혼 이상의 일들이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였다는 암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준다.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우선권을 포기하면 룻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표시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3:13)"라는 맹세 어구를 덧붙인다. 맹세문은 의도된 행동의 진술 전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 맹세문이 보아스의 의도된 행동의 진술 다음 즉 거의 끝부분에 오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로, 맹세문은 보아스의 약속에 강조를 더해 준다.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끝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는 첫 부분과 함께 보아스의 긴 말(3:10-13)의 틀을 이룬다. 보아스의 긴 말의 틀을 이루는 축복과 맹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하던 것(1:8-9; 2:4, 12, 20)처럼 이 문제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기대하게 한다(허버드, 219).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고 결과는 여호와께 맡겼다. 어쩌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독자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을 준다. 이제 룻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라고 말했다. 룻이 선호하는 보아스가 아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남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고는 잠을 방해할 것은 없었지만 깊은 잠을 자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⑽룻과 보아스가 나눈 긴 대화(3:8-13) 다음에 나오는 내러티브(3:14-15)는 첫 부분의 내러티브(3:6-7)와 함께 긴 대화를 감싸는 틀이 된다. 3 막의 중심 장면(3:6-15)의 끝부분 내러티브는 전날 밤의 결혼을 요구하는 룻의 상징적 동작에 상응하는 다음 날 아침의 기업 무름의 약속을 보장하는 보아스의 상징적 동작을 묘사한다. 내레이터는 룻의 동작과 보아스의 생각을 연속해서 일어난 일로 묘사한다.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3:14). 그리고 보아스는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3:14). 이것은 보아스와 룻이 그들의 공동 관심사가 된 일의 해결을 위해 둘 모두 주도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유의하며 보아스가 충고한 대로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타작 마당을 떠나려는 의도로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2 장에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알아보고 보살펴 주는(2:10, 19) 것을 기뻐하였던 룻이 3 장에서 정반대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나(3:14)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을 비교하면 저자가 같은 어근 [나하르]의 사역능동 어간을 사용하며 독자로 재미있는 반전을 느끼도록 하는 언어유희를 볼 수 있다(허버드, 221).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보아스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염려를 룻과 공유하며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룻이 타작 마당에 와서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알려진다면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보아스와 룻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것이다.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⑾보아스는 그러한 예방 조치를 바로 실행한다. 보아스는 룻에게 "**걸치고 있는 숄을 내밀고 펴서 잡으라**!"고 명령하였고 숄을 **그녀가 펴서 잡았을** 때 **그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녀에게 이워 주었다**(3:15).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보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 사람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데 사전에 필요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험버트(Humbert)의 말대로 보아스가 준 보리는 룻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이 혹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란 변명과 구실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룻이 여섯 스아(약 60 파운드)의 무거운 곡식을 들고 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추수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 밤새워 일을 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을 것이다. 허버드(222)가 지적한 대로 새슨이 생각한 것처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잠재웠을 것이다. 보아스가 준 보리는 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쏟아질 수도 있는 의심의 눈초리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나오미와 룻의 곤경을 영구적으로 끝내려고 보아스가 앞으로 행할 행동의 진지함을 보여준다(부시, 183). 이것은 보리가 주어질 대상에 대한 단서가 15 절에는 없지만 그 보리가 일차적으로 나오미에게 주어진 것임을 암시하는 17 절 하반절의 룻이 인용한 보아스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보아스는 룻과 자신의 명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곤경을 벗어나게 해 줄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결심이 진지함을 보여주는 보리를 룻에게 주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읍으로 들어갔다**(3:15). 3 막의 중심 장면 즉 3 막 2 장(3:6-15)을 마무리하는 두 단어로 된 이 마지막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아스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이 중심

장면을 시작하는 두 단어로 된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갔다**(3:6)"라는 말과 함께 장소 언급을 통한 틀(topographical inclusio)을 형성하고 이야기의 진행을 위한 주도권이 나오미와 룻으로부터 보아스로 넘어간 것을 보여준다. 2 막의 서두에 나오미가 실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양식 문제 해결을 위해 룻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2 막의 마지막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인 것을 알고서 삶의 활력을 회복한 나오미가 3 막의 첫 장면에서 룻의 평안한 보금 자리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다. 3 막의 둘째 장면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각각 두 단어로 된 문의 대조 즉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갔다**(3:6)."와 "**그가 성읍으로 들어갔다**(3:15)."의 대조는 룻과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던 문제를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부시, 183).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아 가지고 온 선물을 보았을 때 깨달은 것처럼 독자들은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문제 해결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⑿나오미는 보아스가 추수하는 동안 밭에서 룻에게 베푼 인애를 느끼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며 며느리 룻의 평안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나설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리 타작을 한 후 잠을 잘 보아스가 있는 타작 마당으로 룻을 보냈다. 나오미가 늦게나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민감해진 것은 좋은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것은 너무 민첩한(?) 행동이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퍼거슨, 99). 나오미의 성급한 계획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타작 마당으로 간 룻에게나 타작 마당에서 룻을 만나게 된 보아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추수 때에 타작 마당은 낮보다 밤에 더 위험한 곳이었고(cf. 호 9:1) 나오미의 계획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3:3-4). 룻은 타작 마당에 이르기 전이나 타작 마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평판과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다. 보아스는 룻을 어쩔 수 없는 "모압" 여인 창녀로 간주하거나 성적 유혹에 넘어가 성관계만 즐기고 누명을 씌어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 혹은 말론의 아내라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하거나 둘 사이의 신분의 격차를 고려해 거절하며 룻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 룻과 보아스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었다면 스캔들에 연루되어 두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3:1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룻을 보호하시고 보아스의 언행심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과 나오미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서두르는 성급함을 보였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성급하게 계획하고 행동하기 쉽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항상 온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우리가 잘 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한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결국 잘 되게 하실 섭리를 믿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시 37:4-7).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앞설 이유는 전혀 없다. 신실하신 주님의 지혜와 섭리를 아는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이유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가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이란 확신을 들면 미루지 말고 민첩하게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울리치(96)는 이렇게 말한다. "나오미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나오미나 룻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매우 많았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믿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을 친히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나쁘고 곤란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선이 나오도록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셨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보아스가 처해 있는 타작 마당과 비슷한 죄악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삶의 난처한 상황들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을 경험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을 이기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히 4:15).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상황들을 은혜로 통제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난처함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할 수 있다.

⒀보아스는 성급한 계획을 세워 룻을 자기에게로 보낸 나오미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보아스는 뜨거운 피와 죄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유혹을 기회로 오판할 수도 있었다. 보아스는 그 상황을 이용하고 나오미의 성급함과 룻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변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상적인 일은 보아스가 한밤중에 놀라 잠이 깨었을 때 곧 그가 주의깊게 생각할 시간을 갖기 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이 그의 생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퍼거슨, 108).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심(poise)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 나오미의 초조함과 대조되는 보아스의 평정심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침착함과 담대함을 보인 바울이나(행 27:13-44)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잠을 잔 베드로나(행 12:6-19)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 주님을(막 4:35-41) 생각나게 해 준다. 주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보아스가 보인 평정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빌 4:7). 위기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확신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온다(롬 12:1-2). 이러한 평정심과 함께 보아스에게는 무결성(無缺性 integrity)도 있었다(퍼거슨, 108-109). 보아스는 2 장에서 낮에 그의 밭에서 양식을 위해 이삭을 줍던 룻에게 특혜를 베풀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였듯이, 3 장에서도 밤에 타작 마당에서 평안한 보금자리를 위해 청혼하며 불안해하던 룻을 칭찬하고 안심시키고 축복하며 기업 무를 자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보아스는 타작 마당에 온 룻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도록 해 주고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보아스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애쓴 일은 그 자신의 무결성이 아니라 룻의 무결성을 보존해 주는 것이었다. 보아스는 새로 믿은 룻에게 매우 점잖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룻을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대하였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사 42:3) 것처럼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의 생애와 사역의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데 관심을 쏟으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17:6-11) 심문을 당하시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눅 22:31-32). 보아스의 룻에 대한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소외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하신 말씀과 행동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보아스는 때가 차서 여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비슷하였다.

⒁보아스는 룻을 창녀나 간부처럼 여기며 언짢은 태도와 무시하는 말투로 룻을 내어쫓지 않았다.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을 하셨다. 날카로운 지적(correctness)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grace)에 의해서 일어나며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 성화가 참된 성화이다(퍼거슨, 111). 룻에 대한 보아스의 언행은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부드러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를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표출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도전과 위기와 시련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우리 마음 속 깊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퍼거슨, 111).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끊임없는 표현이다. 보아스가 성경의 원리들을 그의 상황에 적용하고 그의 본분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섭리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퍼거슨, 112).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감지할 때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밖으로 내쉬는 것을 안으로 들여 마신다. 우리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한다(마 5:16).

⒂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에 과부를 돌보고 후사를 낳아 기르고 그 후사로 죽은 친족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을 잘 알고 기꺼이 기업 무르는 일에 필요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였다. 이 땅에서 부유한 보아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룻과 나오미에게 관대하고 그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함으로써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었다(마 6:19-21). 부유한 보아스는 "마음을 높이지 않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었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었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했던(딤전 6:17-19)" 사람이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줄 수 있었다(울리치, 99)). 보아스가 룻에게 그녀가 말한대로 다 행하겠다고 한 약속에는 그가 여호와의 [카나프=] 날개/옷자락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그의 [카나프=] 옷자락으로 덮어 평안한 보금자리를 주고 나오미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엘리멜렉-말론의 기업을 이어 갈 후사를 낳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보증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빈 손으로 나오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보리를 주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보낸 보리 선물은 그가 양식으로 룻과 나오미의 배를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기룐-말론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로 그들의 팔을 채워 그들의 마음이 지속적인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보증이었다(울리치, 100). 보아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기업 무르는 일에 들어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였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예수님 같았고 그들의 남편 같았다. 사실 "떡집,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의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천사들에 의해 베들레헴 밖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이 전해졌던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양식을 주셨고, 그의 몸이 신자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는 보아스처럼 서로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목적을 그의 정하신 때에 이루시고 우리를 반드시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하고 이웃의 필요와 관심을 먼저 배려하고 의의 도구와 구속의 시행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보아스의 타작 마당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내신다(울리치, 100).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서 어떤 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에 선을 이루시기 위해 진흙과 같은 우리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울리치, 101).

(16)룻기 4 장에서 밝혀지는 대로 기업 무를 자([고엘])로서 보아스는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며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구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다시 차지하도록 했고 룻을 통하여 그 땅을 물려받을 후사를 낳게 하였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창 1:1-2:3)이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시 24:1-2; 95:5) 모든 민족이 창조 세계의 몫을 누리도록 그의 뜻대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고(신 32:8)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수 1:4).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과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해 선택되었다(출 19:6).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받아누리는 복된 공동체의 모델로서 이를 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미 4:1-4; 사 2:2-4) 선교의 접촉점이었다(울리치, 108).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보배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접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일으키는 변화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예술 활동과 과학 활동을 하고 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정당한 노동의 산물을 사고 팔며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서로를 돕는 문화를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명령(1:26-28)을 지키게 될 것이었다.

(17)이스라엘이란 언약공동체는 돈이 아래서 위로 흡수되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부익부빈익빈 등의 상의하달식 경제 접근 방식을 부인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법들이 있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라도 타락한 세상이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능력있고 부지런한 노동자도 경제적 위기를 만나 돈을 꾸어야만

하거나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아야만 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울리치, 111).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는 것(무상대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땅의 용익권만 갖는 소작인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산 땅이라도 영구히 자신의 땅이 될 수 없고 언제든 대물려주어야 하는 것(기업 무름), 종살이를 하면서도 품꾼의 대우를 받고 7 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것(안식년), 그리고 모든 빚이 청산되고 모든 기업이 원래대로 되돌려지게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희년), 형의 상속자를 위해 형수와 결혼하는 것(수혼) 등에 관한 규례들은 구성원의 지위가 확보되도록 해주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언약적 몫이 영구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었다. 구성원이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구성원이 공동체 안에서 지위를 보장받고 열방을 향한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울리치, 113). 희년이 모든 구성원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면 그 사이의 49 년은 여호와 신앙을 행위로 보일 기회를 주었다(울리치, 114).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적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무대로서 그 관계가 바른 것이면 모든 구성원에게 복이 되었지만 그 관계가 잘못된 것이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살벌한 곳이 되었다. 구원받은 경험은 이스라엘을 열방과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이웃에게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다 큰 맥락에서 기업 무를 자인 보아스가 이해되어야 한다.

(18)기업 무름은 가족과 친족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 백성은 가족을 통해서만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몫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무름(레 25:25), 종의 속량(레 25:47-48), 피의 보수(레 35:16-21), 친족의 상속자를 두기 위한 친족의 과부와의 수혼적 결혼(cf. 신 25:5) 등은 모두 가족과 친족의 보호와 유대를 위한 조처들이었다(울리치, 115). 이러한 조처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언약적 신실인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영성의 척도는 가족과 친족을 포함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이다(울리치, 115). 언약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이웃을 사랑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난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의 땅 가운데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친족인 엘리멜렉의 과부 나오미와 룻을 위해 모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다. 기업 무를 자로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일반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멸망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흠없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죽음을 맛보셨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업을 확보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가 예비하신 곳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부요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다(고후 8:9).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이 물려지고 상속자가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이루어진 죄로부터의 구속을 가리키고 있다.

(19)기업 무름의 일을 감당한 보아스는 모든 인간들처럼 죽었다. 수혼은 일시적으로 유업을 확보해 줄 뿐이고 죽음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서 유업을 빼앗는다(울리치, 116).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도자의 해 아래서 일어난 일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전도서는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색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 넘어가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말로 끝맺는다. 구약과 더불어 특히 신약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의해 가능해진 썩지 않는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울리치, 117).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수혼과 같은 비상 조치들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죽음이 죄의 삯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라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가나안이 예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빼앗을 수 없다(울리치, 120). 이스라엘에서 과부를 돌보는 것은 죽은 남편의 이름이 그의 유업과 계속 연관되게 하여 결코 잊히지 않게 하는(신 25:6)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름이 끊어진다([마하] "도말하다 to blot out" 신 25:6; cf. 출 32:32; 창 6:7; 7:4)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울리치, 117). 룻기가 족보로 끝나고 신약의 족보들이 예수님으로 마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유업 상속의 성취이시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유업이 자세히 묘사되며 강조되고(수 13-19 장)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신 25:6; 룻 4:10)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갖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한다(울리치, 118). 예수님과 함께 하면 기업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없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요 6:39)"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더 크신 [고엘]("기업 무를 자")이시다.

(20)구약에서 [고엘]이란 단어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주 사용되었다(울리치, 120).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출애굽 cf. 출 6:6; 15:13; 시 106:10) 약속의 땅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도록 벌을 주셨지만 용서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제 2 출애굽 cf. 사 43:14; 48:20; 52:9).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들을 누리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울리치, 122). 예수님은 흠없으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히 9:12)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cf. 롬 6:23)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히 9:15; 마 5:5).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롬 8:16-17)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골 1:12; 벧전 1:3-4).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환난의 날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울리치, 123).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며(시 74:2; 77:15)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시 69:18; 119:154). 기업 무를 자가 구원자로서 타락한 세상에서 곤경에 처한 가족과 친족을 보호하고 부양하였다면 부활하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신자들로 사망의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셨다(욥 19:25; 호 13:14; 롬 8:34; 고전 15:55-57).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구원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서로에게 구원을 베푸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기업 무름을 통해 예표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그의 백성들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처럼 서로 서로에게 동일한 구원 행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다(울리치, 123).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입양에 관한 교리(롬 8 장), 몸의 비유(고전 12 장), 그리고 신약에 "서로 서로"라는 어구가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것을 알려 준다. 기업 무를 자가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 친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혼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피차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신 안전 보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주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울리치, 123).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행동과 불우한 이웃에 대한 자비의 행위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낳은 신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불신자들은 감동을 받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열납되는 언행심사를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유익한 종으로 살아야 한다(사 43:6-12).

◈ 3 막 3 장 (3:16-18)

본문

[WLC: 3 רות]

16 וַתָּבוֹא אֶל־חֲמוֹתָהּ וַתֹּאמֶר מִי־אַתְּ בִּתִּי וַתַּגֶּד־לָהּ אֵת כָּל־אֲשֶׁר עָשָׂה־לָהּ הָאִישׁ׃ 17 וַתֹּאמֶר
שֵׁשׁ־הַשְּׂעֹרִים הָאֵלֶּה נָתַן לִי כִּי אָמַר [כ= זז] [ק= אֵלַי] אַל־תָּבוֹאִי רֵיקָם אֶל־חֲמוֹתֵךְ׃ 18 וַתֹּאמֶר שְׁבִי
בִּתִּי עַד אֲשֶׁר תֵּדְעִין אֵיךְ יִפֹּל דָּבָר כִּי לֹא יִשְׁקֹט הָאִישׁ כִּי־אִם־כִּלָּה הַדָּבָר הַיּוֹם׃

[ESV: Ruth 3:16-18]

16 And when she came to her mother-in-law, she said, “How did you fare, my daughter?” Then she told her all that the man had done for her, 17 saying, “These six measures of barley he gave to me, for he said to me, ‘You must not go back empty-handed to your mother-in-law.’” 18 She replied, “Wait, my daughter, until you learn how the matter turns out, for the man will not rest but will settle the matter today.”

[개역개정: 룻 3:16-18]

16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번역 (룻 3:16-18)

룻 3:16 그녀가[1]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2]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1] 그 사람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17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3] “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4] 그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 그분은 <저에게>[6]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러자 시어머니가[2] 말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기까지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7]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 비평

[1] 대명사 “그녀”는 룻을 가리키지만 명사로 밝혀 번역하지 않은 것은 내레이터와 등장 인물들이 보아스와 룻을 각각 “그 사람(3:3, 8, 16, 18)”과 “그 여인(3:14)”이라고 부른 것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 "그녀는"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명사 주어가 가리키는 "시어머니"를 밝혀 번역한 것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혼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BHS 3:17 의 각주 a 는 칠십인역이 תֹּאמֶר[바토메르] 뒤에 αὐτῇ[아우테]를 첨가한 것을 지적하며 비슷한 일이 언급되어 있는 3:15 의 각주 a 를 참조하라고 한다. 암시적인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αὐτῇ[아우테]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4] 문두에 목적어가 나오고 지시대명사가 함께 있는 것에 유의하면 목적어가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번역에서 목적어를 문 앞에 둔 것은 이러한 강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5]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כִּי[키]를 "왜냐하면 ... 하기 때문에" 대신 "그러면서"라고 번역하였다.

[6] BHS 3:17 의 각주 b 는 3:5 각주 a 와 똑같이 "쓰여 있지 않으나 읽는" 크티브-크레 문제에 관한 것이다. 부정어 אַל[알] 앞에 있는 אֵלַי[엘라이]가 중자탈락(haplography)이란 실수로 인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맛소라 학자들이 친히 암시적인 것을 명시적인 것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문맥에 분명히 암시된 אֵלַי[엘라이]가 없는 것이 원문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3:5 를 참고하라.

[7] 직역: "앉아 있거라"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3:16-18)

(1)제 3 막(3:1-18)의 세 번째 장면인 3 막 3 장(3:16-18)은 마무리 장면으로 룻이 집에서 나오미의 지시를 듣고 순종을 다짐하고(3 막 1 장: 3:1-5)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난(3 막 2 장: 3:6-15) 후에 집으로 돌아와 보고했을 때 나오미가 그들의 만남을 평가하며 보아스가 약속대로 행동할 것을 룻에게 확신시키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3 막 3 장은 3 막 2 장의 "그가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결론적 서술과 대조되는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서술로 시작한다.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이 짧은 세 부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Bush, 184).

절	형식	내용	기능	본문
16b	직접화법	나오미의 질문	계기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
16c	내러티브 서술	룻의 대답	반응	룻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17	직접화법		계기	"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지 말라'면서"
18	직접화법	나오미의 평가	반응	"내 딸아,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온(3:16a) 룻에게 나오미가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3:16b)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룻의 대답(3:16c-17)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나오미의 평가(3:18)로 끝난다. 룻의 대답(3:16c-17)을 전달하는 내레이터의 방식은 보아스가 말하고 행한 것들 중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밤 동안에 있었던 사건의 전 과정은 "룻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라는 간접적인 요약 진술로 간단히 나타냈다. 그러나 관대한 보아스의 보리 선물은 룻의 직접 화법("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그 사람이 주셨습니다.")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 선물을 준 이유에 대한 보아스의 말이 직접 인용되도록("그러면서 그분이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보아스가 많은 보리를 준 것을 룻의 직접적인 말을 통하여 듣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보리 선물에 대한 설명을 보아스의 직접적인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듣게 함으로써 내레이터는 독자들이 이 상징적 행동과 그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였다(Bush, 184).

⑶2:23 에서 룻이 추수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듯이(יֹשֵׁב[야샤브]) 3:18 에서 룻은 나오미의 충고에 따라 법적 문제 해결의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יֹשֵׁב[야샤브])." 이렇게 2 막과 3 막은 모두 이야기가 일시 정지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Campbell, 109, 129). 그러나 1 막과 2 막에 각각 결론적 내러티브 서술(1:22; 2:23)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3 막에는 결론적 내러티브 서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Bush, 184). 다시 말하면, 1 막은 기근과 텅 빔의 종결을 암시하는 "보리 추수의 시작" 언급으로 끝나고, 2 막은 다시 기근과 텅 빔의 돌아옴을 암시하는 "추수가 끝나고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것"을 언급함으로써 끝난다. 그러나 3 막은 그러한 내러티브 결론이 없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확신에 찬 말로 끝난다. 내레이터가 보아스가 보낸 보리 선물과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며 나오미의 확신에 찬 말로 마감하는 전달방식은 보아스의 행동이 임박했고 이야기가 틀림없이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⑷3 막 3 장(3:16-18)과 2 막 3 장(2:18-23)에는 서로 병행되는 다섯 가지 패턴이 들어 있다(Sasson, 99-100). ⓐ룻이 집으로 돌아오나(בּוֹא[보])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2:18; 3:16a). ⓑ그때 시어머니는 룻에게 묻는 질문을 한다(אמר[아마르] 2:19; 3:16b). ⓒ그러면 룻은 행하였던(עשׂה[아싸]) 일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보고한다(הִגִּיד[히키드] 2:19b; 3:16c). ⓓ그러면서 룻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덧붙여 말하며 결론짓는다(אמר[아마르] 2:21; 3:17). ⓔ끝으로 나오미는 룻이 앞으로 취할 행동에 대하여 충고의 말을 한다(אמר[아마르] 2:22; 3:18).

각 절 주석 (룻 3:16-18)

61. 룻 3:16

1) 원문 문제

וַתָּבוֹא אֶל־חֲמוֹתָהּ וַתֹּאמֶר מִי־אַתְּ בִּתִּי וַתַּגֶּד־לָהּ אֵת כָּל־אֲשֶׁר עָשָׂה־לָּהּ הָאִישׁ׃ (룻 3:16)

① 보아스가 3:9 에서 מִי־אָתְּ라고 물은 것과 여기서 나오미가 מִי־אַתְּ בִּתִּי라고 물은 것의 차이는?

② מִי의 격은(cf. BDB, 566; IBHS 18.2d; WHS 123; "מִי יָקוּם יַעֲקֹב In what way/How can Jacob exist? [암 7:2, 5]")?

③ 어근 נגד의 사역능동 어간 הִגִּיד가 2:19; 3:4, 16(cf. 사역수동 2:11)에서 사용되었다. 동사 וַתַּגֶּד와 다음 절의 동사 וַתֹּאמֶר의 차이는(cf. 2:19)?

2) 주석

룻 3:16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① 새벽에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은 각자 약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성읍으로 향했다. 밤 동안 보아스와 룻이 타작 마당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오미도 집에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오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던 장본인으로서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초조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른다. 간헐적으로 자는 것, 일어나 방안을 걷는 것, 자주 자주 위해 기도하는 것, 가끔 문 밖을 내다보는 것 등으로 밤을 보냈을는지도 모른다(Hubbard, 223).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룻이 **돌아왔다**. 이 세 단어로 된 짧은 문은 룻을 타작 마당에서 즉시 나오미에게로 옮겨 준다. 내레이터가 나오미를 여전히 "그녀의 시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지난밤에 보아스의 중요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룻의 가족적 신분이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허버드(223)의 해석은 보아스의 약속이 약혼이 아닌 것을 고려하면 지나친 것이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법적인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므로 결정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내레이터가 나오미를 "그녀의 시어머니"로 부른 것은 오히려 룻을 딸처럼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반가워하며 수수께끼 같은 좀 이상스러운 질문을 하였다. 나오미는 מִי שָׁם/פֹּה([미 샴/포] "Who is there/here? 거기 누구요?") 혹은 מָה עָשָׂה([마 아싸] "What did he do?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 혹은 מַה לָּךְ([마 라흐] "How are you?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등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Block, 699). 룻에게 **시어머니가 물은** 질문은 מִי־אַתְּ בִּתִּי([미-아트 비티] "내 딸아, 너는 누구냐? =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이었다. 나오미의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페시타역은 (룻이 잠겨 있는 문이라도 두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럴 때 나오미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녀에게 '저는 룻입니다.'"라는 대답을 삽입하고 있고, LXX^{B}은 מִי־אַתְּ[미-아트]를 아예 번역하지 않았다(Hubbard, 223, n. 1).

③ 룻을 부를 때 나오미는 2:2, 22; 3:1, 16, 18 에서 "내 딸"이라고 했고, 보아스도 2:8; 3:10, 11 에서 "내 딸"이라고 했다. 보아스가 3:9 에서 מִי־אָתְּ[미-아트](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으며 "내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룻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오미가 3:16 에서 "내 딸"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도착하는 대상을 룻으로 알아본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른 새벽에 나오미가 룻 이외의 누구를 기다렸겠는가? 나오미가 룻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내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מִי־אַתְּ בִּתִּי [미-아트 비티]라고 물은 것은 신원 확인의 차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Bush, 185; Sasson, 100).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Hubbard, 223-224). 첫째, 룻이 3:9 의 보아스의 질문에는 "룻, 당신의 시녀"라고 했지만 3:16 의 나오미의 질문에는 신원을 밝히는 대답을 하지 않고 보아스가 행했던 일을 보고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나오미의 질문이 현재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명사문인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내 딸아, 너는 너구냐?"라고 직역되는 질문은 보아스를 만난 후 룻의 현재의 입장 혹은 상황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④ 그렇다면 나오미의 질문에 나오는 מִי[미]는 조건의 대격(as who?, in what condition or capacity?)이며 부사적으로 사용된 것(BDB, 566; IBHS 18.2d)이다. 부시(185)는 허버드가 명사문에서 מִי[미]가 대격으로 즉 부사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을 반박하고 대격이 얼마든지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cf. WHS 123)고 주장했다.[1] 따라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질문 מִי־אַתְּ [미-아트]는 "In what condition or capacity or state are you? 너는 무슨 조건 혹은 자격 혹은 상태에 있게 되었느냐?"의 의미이다. 이런 의미를 잘 반영하는 번역은 "(Bush, Campbell/NRSV) How do/did things stand with you?" 혹은 "(NIV, NASB/RSV) How did it go/fare?"이다.[2] 우리말로는

---

[1] Hubbard(224, n. 5)는 의문사 מִי[미]가 명사문에서 대격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문맥상 이 질문은 Who [in status, in situation] are you?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며 Bush(185)와 같이 "How do things stand with you?"라고 번역하고 이것이 "Are you his wife or not?" 혹은 "Did the scheme succeed?"와 비슷한 의미라고 풀이했다. Hubbard(224, n. 6)는 나오미와 보아스가 똑같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관습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이라면 이 질문이 약혼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사용된 공식일지 모른다면서 영어의 "Did you tie the knot?"와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보아스의 질문(3:9)과 나오미의 질문(3:16)은 "내 딸아"라는 호칭의 첨가 유무의 차이가 있고 그 성격이 다르다.

[2] Bush(185)가 잘 지적한 대로 나오미의 질문(מִי־אַתְּ בִּתִּי [미 아트 비티])에 대하여 NKJV 의 "Is that you, my daughter? 내 딸아, 너냐?"라는 번역이나 의문사 [미]를 단순한 의문표시 불변화사(pure interrogative particle)로 본 Gerleman(33)의 "Is it really you, my daughter? 내 딸아, 정말로 너냐?"라는 번역은 룻이 나오미에 주었던 것과 다른 대답을 기대하게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Sasson(100)이 명사 다음에 오는 מִי[미]가 속격(GKC 137b)으로 쓰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찌 되었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다. 나오미가 룻에 묻는 מִי־אַתְּ [미-아트]와 비슷한 구문으로 암 7:2, 5 에 나오는 מִי יָקוּם יַעֲקֹב([미 야쿰 야아코브] "In what way/How can Jacob exist? 야곱이 어떻게 서리이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부시(185)가 설명한 대로 삿 18:8 에 나오는 질문 מָה אַתֶּם [마 아템]에서도 מָה[마]가 비인칭 의문사이지만 조건의 대격이며 부사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In what condition are you?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느냐?"라는 의미를 갖는다.[3]

⑤ 룻기 2 장과 3 장에서 룻에게 던져진 세 번의 질문과 답을 비교해 보면 룻이 어떤 지위/신분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다(Hubbard, 224). "저 젊은 여인은 뉘댁 사람인가(2:5)?"—"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2:6)."라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룻이 외부인(outsider)인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요(3:9)?"—"당신의 시녀 룻이니 결혼해 주십시오(3:9)."라는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룻이 결혼할 만한 여인으로서 친족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3:16)?"라는 질문—"보아스의 행동과 말에 대한 보고(3:16)"를 통한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은 룻이 보아스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곧 결혼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⑥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라는 나오미의 질문을 받고 룻이 대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세부 사항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내레이터는 간단한 요약 진술로 룻의 대답을 전한다. 나오미에게 룻은 **그 사람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룻이 보아스를 가리킬 때 "הָאִישׁ[하이시] 그 사람, 그 양반"이라 한 것(cf. 2:19, 2:20; 3:18)은 자리에 없는 남성을 공손하게 지칭하는 태도를 반영하며 주제 넘는 친숙함을 막아주는 인상을 갖게 한다(Block, 699). [나오미의 지시대로 룻이 행동하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3:4)."라는 나오미의 마지막 말과 [룻이 타작 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요약하여] "**그 사람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3:16)."라는 진술을 비교하면 나오미의 말은 룻이 보아스의 지시를 따를 것을 언급한 반면 이 요약 진술은 보아스가 룻의 지시를 따른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 단순한 중개인(intermediary)을 넘어 핵심 연결 고리(keylink)였다(Hubbard, 225).

것처럼 מִי[미]가 단독으로 속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Whose wife are you? 너는 누구의 아내이냐?"로 번역하고 민 22:9 도 이와 비슷하다고 한 것도 역시 지나친 설명이다.

[3] 삿 18:8 에 나오는 질문 מָה אַתֶּם [마 아템]에 대한 몇 가지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 [현대어성경] 그래 사정이 어떻던가?
[쉬운성경]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 [우리말성경] "무엇을 보았느냐?"
[NIV] How did you find things? / [HCSB] What did you find out?
[NASB] What [do] you [report?] / [KJV] What [say] ye? / [(N)RSV/ESV] What do you report?

62. 룻 3:17

1) 원문 문제

וַתֹּאמֶר שֵׁשׁ־הַשְּׂעֹרִים הָאֵלֶּה נָתַן לִי (룻 3:17)

כִּי אָמַר ־ֵ (אֵלַי ק) אַל־תָּבוֹאִי רֵיקָם אֶל־חֲמוֹתֵךְ׃

① שֵׁשׁ־הַשְּׂעֹרִים הָאֵלֶּה라는 어구는 강조된 것인가?

② 모음만 실려있는 ־ֵ의 크레 자음은?

③ כִּי의 용법은?

④ 미완료형 תָּבוֹאִי의 용법은?

2) 주석

룻 3:17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그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① **룻은** 타작 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보아스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보리에 대하여 **덧붙여 말했다**. 이 보리 선물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앞 절에서 룻의 보고를 하나의 짧은 문으로 처리했던 내레이터는 **그녀가 말한** 말을 직접 듣도록 한다. "**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그분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한 측정 단위를 쓰지 않고 여섯+보리라고 말하며 지시 형용사를 덧붙인 것(שֵׁשׁ־הַשְּׂעֹרִים הָאֵלֶּה [셰시-하스오림 하엘레] 직역: **이 여섯 보리** these six of barley)은 보리의 양이 매우 많은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Hubbard, 225). 목적어가 앞에 나온 어순과 목적어를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 강조를 위한 것으로 "**이 여섯 [됫박의] 보리**"는 매우 많은 양의 보리를 준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씨에 감동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연상하도록 해준다(Block, 699).[4]

② 계속해서 룻은 보아스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그 선물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스의 선물에 대한 이유 설명은 선물 자체만큼이나 놀라움을 준다. 내러티브에서 인용된 대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아스가 했던 말과 행동이 요약 진술로 처리된 다음에 보리 선물에 관한 룻의 말이 직접 인용되고 그녀의 말 안에 선물의 이유에 대한 보아스의 말이 직접 인용된 것은 보리 선물과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룻기 저자는 등장 인물이 했던 말을 기대되는 장면에서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장면에 있던 다른 사람의 직접 인용을 통해 전달하는 기교 즉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소급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가끔 취한다(2:7, 21;

---

[4] Bush(185)는 3:17 에서 목적어가 문두에 온 것은 구어 히브리어에서 정상적인 어순이지만 목적어 앞에 지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 강조를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Holmstedt(156)는 3:5 에서 목적어가 앞에 나온 것은 집중(Focus)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두의 목적어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 Bush(154)의 입장을 반대했다.

3:17).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것을 전하는 3:15 에는 보아스의 말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3:17 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전하는 직접 화법에는 보아스의 말이 들어 있다. 이 보아스의 말에 대하여 벌린(98)이 보리를 준 이유에 대한 보아스의 실제의 말이 아니고 룻이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 주장은[5] 인용된 대화의 중요성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떤 등장 인물의 말을 다른 등장 인물이 인용하는 기교가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준 보리 선물 그리고 특별히 그 이유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룻이 전한 말은 보리 선물에 대하여 룻이 받은 인상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보리 선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보아스의 실제의 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Bush, 186).

③룻의 입을 통하여 보아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전달하도록 한 것은 몇 가지 문예적 목적에 이바지한다. ⓐ첫째, 나오미로부터 "**빈 손으로**" 돌아왔다는 불평의 말(1:21)을 들었던 룻의 입에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보아스의 격려의 말을 둔 것(3:17)은 저자의 문예적 섬세함과 민감성을 보여준다. "**빈 손으로**"란 단어를 나오미가 없는 타작 마당에서 룻에게 말한 부자인 보아스의 입에 두지 않고 나오미가 있는 집에서 전에 나오미가 그 단어를 사용하여 비참함을 토로했던 것을 직접 듣고 동정적이었던 룻의 입에 둔 것을 생각해 보라. "빈 손으로"란 단어를 사용하는 원거리 언어유희(1:21; 3:17)는 나오미의 불평 속에 들어있던 절망이 보아스의 격려 속에 들어 있는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Sasson, 102). 다시 말하면, "빈 손으로"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레이터는 나오미의 역경 중 한 부분이 해결된 것을 시사한다(Campbell, 129). ⓑ둘째, 2:7, 21 에서처럼 3:17 에서 등장 인물이 이전 장면에서 했던 말이지만 전달하지 않은 것을 그 이후의 장면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직접화법으로 전달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전개되는 각 장면에 극적인 효과를 더해 준다(Campbell, 129). ⓒ셋째, 보아스의 말을 전달하는 룻의 이 마지막 말은 그녀에게 이야기로부터 나갈 적절한 마지막 출구를 제공해 준다(Hubbard, 225). 룻의 주된 등장 인물로서의 활동은 이 장면으로 끝이 난다. 하나님은 정말 이방인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 이후로 룻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이다(4:5, 10-13, 15). 보아스의 말 속에 들어 있는 "당신의 **시어머니**"는 1:3 부터 이야기가 나오미의 인식의 관점에서 묘사되어 온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1 장에서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묘사되고 2 장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관련지어 언급되었듯이 보리도 결국 나오미를 위한 선물로 묘사된다. ⓓ넷째, 보아스의 말을 인용하는 룻은 퇴장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마감하는

[5] Berlin(98)은 룻의 말을 "He gave me these six measures of barley because he thought that I should not come empty handed to my mother-in-law."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Berlin 은 이것이 보아스의 행동에 대한 룻의 인식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이유는 알 수 없고 다만 룻이 보아스가 왜 자기에게 보리를 주었다고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절정의 장면들에서의 중심 무대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남긴다(4:1-12, 13-17). 룻이 보아스로부터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플롯 전개에 있어서 그녀의 역할은 끝난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죽음을 넘어서까지 헌신을 다짐했고(1:16-17) 보아스와 나오미 사이의 연결 고리(2 장, 3 장) 역할을 했던 룻에게 잘 어울린다(Hubbard, 225). ⓔ다섯째, 룻이 인용한 보아스의 말은 보리 선물의 의의를 극적으로 부각시킨다(Bush, 184; Block, 699). 3:15 에서 설명했던 대로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보리를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데 사전에 필요한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보아스가 준 보리는 룻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이 혹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란 변명과 구실을 틀림없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3:17 에 룻이 인용한 보아스의 말은 친척인 나오미("당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관심을 드러내고 보리 선물이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차적으로 나오미에게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며 보아스가 친족들의 곤경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행동할 것을 암시한다. 그 보리 선물은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하는 증표이며 나오미의 텅 빈 삶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의 상징인 것을 보여준다.

④ 1:21 에서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라고 불평했었다.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던 룻이 그녀 곁에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만 생각하며 "빈 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었다. 절망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며 "빈 손으로" 돌아왔다는 나오미의 절규를 들은(Sasson, 102) 룻이 그때 나오미의 곁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삭줍기를 통하여 텅 빈 삶을 해결해 나갔고 또 여기에서 보리를 주며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보아스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것은 나오미의 텅 빈 삶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는 착각이었으며 그 텅 빈 삶이 확실히 일시적인 것임을 보도록 해 준다(Bush, 187).

⑤ 나오미가 룻을 친척인 보아스에게 보내며 기대한 결혼(과 이로 인한 평안한 보금자리) 그리고 룻이 기업 무를 자인 보아스에게 구한 결혼을 넘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무름 속에 후사를 낳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보아스가 보낸 배를 채우기 위한 씨앗이 자궁을 채울 씨앗 곧 기업을 이을 후사에 대한 약속의 징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Porten, "Scroll," 40; Hubbard, 226). 한편 나오미가 보아스의 보리 선물을 본 후에 며느리의 평안한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이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 갈 씨도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본문에 암시되어 있지 않다. 룻이 인용한 보아스의 말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앞으로 계속 빈 손으로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שׁוּב[슈브]

돌아오다"라는 동사와 "רֵיקָם[레캄] 빈 손으로"라는 부사가 결합되면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나타내는 것(Block, 700, n. 63: 삼하 1:22; 사 55:11; 렘 14:3; 50:9)과 달리 나오미의 지시대로 타작 마당에 다녀온 룻의 임무는 빈 손으로 즉 성공하지 못한 채로 끝나지 않았다. 보아스가 룻의 상징적인 동작과 청혼을 듣고 요구한 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보리를 주며 빈 손으로(רֵיקָם[레캄]) 시어머니에게 가는(בּוֹא[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63. 룻 3:18

1) 원문 문제

וַתֹּאמֶר שְׁבִי בִתִּי עַד אֲשֶׁר תֵּדְעִין אֵיךְ יִפֹּל דָּבָר (룻 3: 18)
כִּי לֹא יִשְׁקֹט הָאִישׁ כִּי־אִם־כִּלָּה הַדָּבָר הַיּוֹם׃

① שְׁבִי의 어근과 의미는?

② תֵּדְעִין의 마지막 눈은 무엇인가?

③ יִפֹּל의 어근과 의미는? (to fall? or to result, to take place?)

④ דָּבָר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이유는?

⑤ כִּי־אִם의 용법은(exceptive: WHS 556; GKC 163c)?

2) 주석

룻 3:18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기까지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① 2 막에서처럼 3 막에서도 나오미가 마지막 말을 한다(Hubbard, 227). 3 막은 룻의 보고를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앞으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충고하는 말로 끝난다. 3 막의 서두에서(3:1-4) 룻에게 대담한 계획을 말했던 나오미는 3 막의 마지막에서(3:18) 룻에게 조용히 기다리라는 조언을 한다. 서두와 말미에 나오는 룻의 행동에 대한 나오미의 지시는 서로 정반대 방향이다(Block, 701). 서두에서 나오미는 룻으로 행동(즉 씻고 기름바르고 옷 갈아 입고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눕고 보아스의 말을 듣는 일)을 하도록 했지만 말미에서 룻이 지시대로 다 하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으로 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며 두고 보라고 하였다. 3 막의 나오미의 첫 말(3:1)과 마지막 말(3:18)은 각각 "**내 딸아**"라는 호격으로 시작한다. 이 칭호는 3 막에서 나오미가 비록 시어머니이지만 친정 어머니 이상으로 룻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룻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나오미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 때까지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고 명령한다.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שְׁבִי[시비]는 יָשַׁב[야사브]의 명령형이며 "가만히 앉아

있다, 묵묵히 기다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6]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성실하게 가꾼 후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룻도 나오미의 지시를 성실하게 그대로 다 이행했으므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다.

③ "אֵיךְ יִפֹּל דָּבָר [에흐 이폴 다바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문에 나오는 주어 דָּבָר[다바르]에는 (이 절의 끝에서 두 번째 단어 הַדָּבָר[하다바르]와 달리)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 새슨(102)과 허버드(227, n. 8)는 GBH 137p 를 참고하며 이것을 의문문에서 정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LXX^{B}(= LXX Vaticanus)는 정관사가 없는 MT 를 따랐으나 LXX^{L}(=Lucianic LXX)는 정관사를 붙여 번역했고 시리아어역은 이 의문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타르굼역은 "Until you know *how it is decreed from heaven and* how (the) matter will be made clear 하늘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일이 분명해지는지를 네가 알 때까지"처럼 확장해서 번역했다(Campbell, 129). יִפֹּל[이폴]의 어근 נפל[나팔]은 일반적으로 "to fall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만 "to result, to turn out 결과로서 일어나다, 판명되다, -로 끝나다"의 의미로 쓰였다(Bush, 186; Hubbard, 227).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는 נפל[나팔]이 사용된 배경에는 두 개의 대안 중의 어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가 땅에 "떨어지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Hubbard, 227, n. 8: KD, 486).

④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절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동시에 내포한다. 확실한 것은 룻이 곧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 불확실한 것은 룻이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 중 누구와 결혼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불확실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하도록 해준다.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절은 2:3 의 "우연히/뜻밖에도"란 어구처럼 일을 행운이나 운수나 우연에 맡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저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2:3)는 진술을 통하여 이 우연 속에 여호와의 숨은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보도록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말을 통하여 사건들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

[6] Bush(186)는 직역하면 "to sit down 앉다"이지만 "to sit still 가만히 앉아 있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to wait 기다리다"로 번역하였고, Campbell(129)과 Block(701)은 관용적으로 "to sit tight 현 위치에 멈춰 서다, 꼼짝하지 않다, 사태를 정관하다; 때를 기다리다"로 번역하였다. Hubbard(227)는 "stay put (=stay home 집에 머물다)"와 "stay calm (=be patient 인내하며 기다리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했고, de Waard & Nida(61)는 머무는 장소보다는 룻이 가져야 할 자세/태도에 강조점이 있으므로 "be patient! 인내하며 기다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혹은 "Do not be concerned!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룻에게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넌지시 일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⑤ 나오미가 룻에게 더 이상 노력을 보탤 필요 없이 안심하며 사건의 진전을 보며 잠잠히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였다. 대화의 자리에 없는 남성에게 존경을 표시하며 부르는 "**그 사람**" 보아스의 인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가 오늘 중으로 룻에게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Block, 701).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결코 쉬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여기 "**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שׁקט[샤카트]는 삿 3:11, 30; 5:31; 8:28; 18:7, 27 에서 내란이나 외란에 의해 괴롭힘을 받지 않고 태평하고 평안한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삿 18:7, 27 에서 "בטח[바타흐] 신뢰하다, 의심하지 않다"와 짝을 이루고 있다(Block, 701, n. 65).[7]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을 먼저 진술하고 כִּי־אִם[키-임]이 인도하는 예외/부정의 조건절(즉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Bush, 186; Block, 701, n. 66; cf. exceptive: WHS 556; GKC 163c; GBH 173b)을 뒤에 오게 하였다.[8] "**마무리 짓다**, 끝마치다"라는 뜻의 כלה[칼라]의 작위능동(=피엘) 어간은 보아스가 자신이 약속한 일을 완벽하게 해결할 것을 나타낸다(Hubbard, 227). כלה[칼라]의 작위능동(=피엘) 어간은 3:3 에서도 사용되었고 כלה[칼라]의 기본능동(=칼, 파알) 어간은 "마치다, 끝나다"는 의미로 2:21, 23 에서 사용되었다. 3:18 의 마지막 단어 "**오늘**"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될 때 곧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바라보게 한다. 시간 표시 어구 "**오늘**"은 3 막을 마감하면서 4 막을 바라보게 한다. 이것은 1:22 의 "보리 추수 시작할 무렵"과 2:23 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어구가 이중적인 역할 즉 각각의 막을 마감하면서 다음 막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같다(Hubbard, 228, n. 13).

⑥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서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가 알고 있는 보아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나오미로부터 보아스는 최대의 칭찬을 받았다. 보아스는 자신이 한

---

[7] [삿 8: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개역: 태평하였더라)

[삿 18:7, 17] (7)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개역: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27)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개역: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불사르되

[8] 개역/개역개정은 "~ 전에는" 그리고 우리말성경/현대어성경은 "~ 때까지"처럼 시간의 부사절로 번역하고 있다. NIV 를 비롯한 많은 영어 성경도 접속사 "until"이 인도하는 부사절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GW/HCSB 는 접속사 "unless"가 인도하는 부사절로 번역하고 있고 YLT 는 "except"가 인도하는 부사절로 번역하고 있다. ESV 는 "for the man will **not** rest **but** will settle the matter today."처럼 대등절로 번역하고 있다.

말/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신자들의 거울이다. 보아스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들을 위하여 변호하는(사 1:17; 렘 7:6; 22:3; 슥 7:10) 신자들의 모범이다(Hubbard, 228). 원문의 어순 곧 "**왜냐하면—그 사람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오늘**"에서 보듯이 "**오늘**"이란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며 나오미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4:14-17)에 등장할 때까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나오미는 그녀의 이전 기도(1:8-9)가 응답되고 그녀 자신의 쓰라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려는 지점에서 잠시 무대를 떠난다. 룻이 보아스의 선물을 준 이유에 대한 말을 인용하며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나오미가 보아스가 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임을 말하며 무대에서 잠시 사라질 때, 이제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Trible, 271). 3 막이 결론적 내러티브 서술이 없이 끝나지만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들으면서 독자들은 사건이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것을 느끼며 법적 질서에 직면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긴장하며 가슴을 졸인다(Hubbard, 228). 법적 질서는 그 결과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지만 독자들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더 바라고 있다. 2 막이 미해결의 절망으로 끝난 반면 3 막은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으로 끝난다.

3 막 3 장(3:16-18) 해설

⑴3 막 3 장(3:16-18)은 타작 마당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주고받은 대화를 묘사한다. 나오미는 그녀의 지시대로 타작 마당으로 갔던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염려와 초조 속에 긴장하며 룻이 돌아오길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라고 물었다**(3:16). 나오미는 결과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침착하게 차근차근 묻지 못하고 숨가쁜 듯이 물었을 것이다. 내레이터는 결과를 알고 싶어 안달하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한 룻의 말을 자신의 요약 진술로서 간단히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3:16)."라고 간접적으로만 전달한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행한 모든 것 중에서 보리를 준 사실에 대해 **"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그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3:17)."라고 룻이 직접 전하는 말로 나타냄으로써 보리 선물에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더욱이 내레이터는 보리를 주며 이유를 설명하던 보아스의 말을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17)."라고 룻이 직접 인용하여 말하도록 함으로써 보리 선물 자체보다 보리 선물을 보내는 이유가 중요한 것을 암시한다(부시, 186).

⑵3 막 1 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세운 대담한 계획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평안한 보금자리를 얻는 것이었다(3:1). 그리고 3 막 2 장에서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따르며 발치를

들치고 눕는 상징적인 동작과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란 사실에 근거하여 "옷자락으로 덮어 달라"는 은유적인 말도 평안한 보금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3:9). 룻의 상징적인 동작과 은유적인 말을 듣고 보아스는 그것을 청혼으로 이해하면서도 기업 무름 속에 결혼 이상의 것이 들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룻의 마지막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 값지다고 칭찬하며 룻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3:10-11).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무름에 있어서 순서를 밝히며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룻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자기가 룻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맹세했었다(3:12-13). 이러한 맥락 가운데 보아스가 많은 양의 보리를 선물로 주면서 룻에게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룻과의 결혼을 넘어선 기업 무를 자로서의 책임을 다 이행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고난에만 시선을 집중하며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1:21)."는 나오미의 불평과 달리 그녀에게는 바로 곁에 헌신적인 룻이 항상 함께 있었고(1:16-17, 23; 2:22) 기업 무를 친족이 둘이나 있었으며(3:12) 룻이 주워온 보리가 있었고(2 장) 보아스가 보낸 보리가 있었다(3:16). 저자는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을 타작 마당에서 [부유한] 보아스의 입으로부터 독자들이 직접 듣도록 하지 않고 "빈 손으로" 돌아왔다고 불평했던 나오미가 있는 집에서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전달할 때 간접적으로 듣도록 하였다(새슨, 102). 이를 통해 나오미가 자기 삶을 텅빈 것으로 평가한 것이 그녀의 착각이었고 그녀의 텅빈 삶이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 밝혀진다(부시, 187). 저자는 나오미가 불평할 때 사용했던(1:21) "**빈 손으로**"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여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말한 것을 3:17 의 룻의 입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나오미의 역경이 곧 극복될 것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보아스가 책임을 다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하는 증표인 보리 선물이 있고, 나오미의 텅빈 삶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보아스의 말이 있는 한, 앞으로 나오미가 빈 손으로 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보아스가 준 보리가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기업 무르는 일 가운데 평안한 보금자리를 주는 결혼을 넘어서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미에게 완전한 풍족한 삶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⑶룻이 전한 보아스의 말을 간접적으로 듣고 나오미가 내린 반응은 보아스의 상징적인 선물의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한 것을 드러낸다. 나오미는 룻에게 충고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기까지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3:18)." 나오미는 룻을 위한 평안한 보금자리의 해결책이 보아스인 것을 믿고 타작 마당으로 룻을 보내며 보아스가 룻의 상징적인 동작을 보면 룻이 할 일을 일러줄 것으로 확신하였던 것처럼(3:5) 집으로 돌아온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듣고 보아스가 오늘 안으로 룻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일 문제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해결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나오미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며 딸의 행복만을 위하는 진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기까지**" 걱정하지 말고 "**앉아 있거라, 곧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고 충고한다. 룻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두고 보는 일만 남겨 두었다. 정말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룻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포기하고 보아스가 그 일을 떠맡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지, 아니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결혼하게 될지 전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3:18)."라는 나오미의 말 속에 보아스의 신실함을 알고 그의 인격을 믿는 확신이 들어 있다(블락, 701). 나오미는 오늘 안에 룻의 결혼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을 확신한다. 저자는 보아스가 제시했던 갈등, 즉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있다(3:12)."는 사실로 인해 독자들이 나오미의 말대로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 성사를 바라며 법적 질서 앞에 어쩔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가슴 졸이며 그 해결을 바라보게 한다.

⑷3 막 3 장에서 룻과 나오미가 나누는 대화는 전체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말들이다. 3 막 3 장 이후에 룻은 무대에서 사라지며 간접적으로만 언급되고 나오미는 사라졌다가 종막(4:13-17)에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의 결말의 문턱에서 나오미와 룻이 중심 무대에서 비켜섬으로써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된다(트리블, 187). 이제 보아스가 중심 무대에 서서 법적 문제의 해결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보아스의 행동이 임박한 사실은 나오미의 말에 의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3 막의 마감 방식이 1-2 막의 마감 방식과 다른 점에서도 밝혀진다. 1 막은 기근과 텅빔의 종결을 암시하는 "보리 추수의 시작" 언급으로 끝나고 2 막은 다시 기근과 텅빔의 돌아옴을 암시하는 "추수가 끝나고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것"을 언급함으로써 끝난다. 그러나 3 막은 그러한 내러티브 결론이 없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확신에 찬 말이 독자들의 귀에 쟁쟁한 가운데 끝난다(부시, 187). 보아스가 준 보리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오미에게 주었다. 이 선물과 그 이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내레이터의 전달 방식은 독자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틀림없이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보아스는 토지와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하며 유업 상실과 가문 멸절 위기에 처한 친족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 기업 무름과 결혼이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전시키는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무름의 순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순리적으로 잘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⑤제 4 막 (4:1-12)

⑴룻기 1 장이 서막(1:1-5)과 제 1 막 1 장(1:6-18)과 제 1 막 2 장(1:19-23)의 셋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룻기 4 장도 제 4 막(4:1-12)과 종막(4:13-17) 그리고 코다(4:18-22)의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으로 이루어진 룻기 1 장과 4 장은 다음과 같이 서로 병행을 이룬다(Bush, 191). 코다(4:18-22)는 서막(1:1-5)과 병행을 이룬다. 우리는 서막에서 죽음으로 얼룩진 모압 거주 10 년의 삶이 코다에서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출생의 10 대 계보의 가득 찬 삶으로 대치된 것을 본다. 종막(4:13-17)은 1 막 2 장(1:19-22)과 병행을 이룬다. 종막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봉양자로 베들레헴 여인에 의해 축하받는 것은 1 막 1 장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퍼부었던 텅 빈 삶이 가득 찬 삶으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 4 막[1 장과 2 장](4:1-12)은 1 막 1 장(1:6-18)과 병행을 이룬다. 1 막 1 장에서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오르바가 사라지듯이 4 막에서 보아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사라진다. 그리고 4 막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권리를 얻었을 때 1 막 1 장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문제이며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하며 포기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 즉 남편이 있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⑵제 4 막(4:1-12)은 보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룻과의 결혼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이야기한다. 4 막은 2 개의 장면을 갖는데 제 1 장면(4:1-8)은 보아스가 법적인 집회를 소집하여(4:1-2) 무명의 기업 무를 자와 합의한 것을 보여주고(4:3-8), 제 2 장면(4:9-12)은 그 법적 집회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 무를 자의 권한을 얻었음을 선언하고(4:9-10) 증인이 된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보여준다(4:11-12). 이처럼 법적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4 막은 의결 정족수의 확보를 위한 보아스의 법적 준비(4:1-2, 에피소드 1), 법적 집회의 회의록(4:3-8, 에피소드 2), 법적 집회의 결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4:9-10, 에피소드 3), 그리고 법적 집회의 결과에 대한 백성과 장로들의 반응(4:11-12, 에피소드 4)으로 이루어져 있다(Block, 703).

⑶내레이터가 4 막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차례로 소개할 때 독자들은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만난다. 엘리멜렉의 밭의 갑작스러운 소개(4:3)에 어리둥절하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밭을 사고 싶다는 동의(4:4)에 불안해하고, 룻과 밭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얻는 보아스의 영리함(4:5-6)에 안도의 숨을 쉰다. 4 막에서 사건은 2 막처럼 우연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인도된다. 그리고 4 막은 3 막처럼 칠흑 같은 밤중에 타작 마당에서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고 밝은 대낮에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지금까지 나오미, 룻, 보아스 사이에 있던 개인적인 문제가 4 막에서 공적인 해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공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서만 룻이 당당히 이스라엘로 영입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녀의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를 그녀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1:16-17)에 대한 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2:11-12). 그리고 이런 공식 절차를 밟을 때만 룻이 다윗의 합법적인 조상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4:17). 4 막도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대화는 법적인 언어로 주고받는 것이어서 보다 형식적인 것이다. 이 법적 절차는 어디까지나 친족의 재산과 과부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기업 무름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이며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다. 장로들은 (법적 문제를 먼저 말함으로써 절차를 주도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으나) 법적 집회에 앉아서 보아스가 무명의 기업 무를 자에게 먼저 말함으로써 시작된 친족간의 기업 무름에 관한 논의가 결론에 이를 때까지 지켜보며 두 사람의 합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증인 역할을 하였다(Hubbard, 230-231).

◇ 4 막 1 장 (4:1-8)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4:1-8)

(1)4 막 1 장(4:1-8)은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만나고 장로 10 인을 불러 법적 집회를 여는 에피소드 1(4:1-2)과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법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에피소드 2(4:3-8)로 나눌 수 있다.

(2)부시(193)는 집회에 필요한 당사자들이 각각 "앉았다"는 결론적 서술로 그들이 참석했음을 보이고 있는 에피소드 1 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막 1 장 에피소드 1 (4:1-2)의 구조				
보아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1a	A	서술
	앉아 있는데(וַיֵּשֶׁב[바예셰브])	1b	C	서술
기업 무를 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1c	A'	서술
	그 때 보아스가 "아무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라고 말하자	1d	B	명령
	그가 와서 앉았다(וַיֵּשֶׁב[바예셰브]).	1e	C'	순응
법적 집회	그리고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중 열 명을 불러 모은 뒤	2a	A''	서술
	"여기 좀 앉으십시오."라고 말하자	2b	B'	명령
	그들이 앉았다(וַיֵּשְׁבוּ[바예셰부]).	2c	C''	순응

(3)부시(194)는 에피소드 2(4:3-8)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막 1 장 에피소드 2(4:3-8)의 구조 B=Boaz(보아스); G=Go'el(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 S=Statement(진술); D=Demand(요구); A=Agreement(동의); R=Renunciation(거절)					
(1) 4:3-4					
전달문	B→G	3a	B 가 G 에게 말했다.	וַיֹּאמֶר לַגֹּאֵל	S
피전달문	진술	3b	"나오미가 밭을 팔려고 한다."	מָכְרָה נָעֳמִי	
	요구	4c	"네가 **사라**."	קְנֵה	DB→G
		4de	"네가 무르려면 **무르라**."	אִם־תִּגְאַל גְּאָל	
		4fg	"네가 **무르지** 않으면"	וְאִם־לֹא יִגְאַל	
			"너 이외에 **무를** 자가 없고 "	כִּי אֵין זוּלָתְךָ לִגְאֹול	
전달문	G→B	4k	G 가 B 에게 말했다.	וַיֹּאמֶר	AG
피전달문	동의	4l	"내가 **무르고 싶다**."	אָנֹכִי אֶגְאָל	
(2) 4:5-8					
전달문	B→G	5a	B 가 말했다.	וַיֹּאמֶר בֹּעַז	S'
피전달문	제안	5b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는** 날"	בְּיֹום־קָנוֹתְךָ	
			"곧 룻에게서 **사서"**	וּמֵאֵת רוּת קָנִיתָי	
			"고인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라."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전달문	G→B	6a	G 가 말했ㅎ다.	וַיֹּאמֶר הַגֹּאֵל	D'G→B
피전달문	역제안	6b	"난 친히 **무를** 수 없다."	לֹא אוּכַל לִגְאָול־	
		6c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פֶּן־אַשְׁחִית אֶת־נַחֲלָתִי	
		6d	"네가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라**."	גְּאַל־לְךָ אַתָּה אֶת־גְּאֻלָּתִי	
		6e	"난 **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כִּי לֹא־אוּכַל לִגְאֹל	
	여담	7a	이것이 ...	וְזֹאת	
		7b	사람이 그 신을 벗어 ... 이것이 ...	שָׁלַף אִישׁ נַעֲלוֹ וְזֹאת	
전달문	G→B	8a	G 가 B 에게 말했다	וַיֹּאמֶר הַגֹּאֵל לְבֹעַז	

피전달문	역제안	8b	"네가 친히 **사라**."	קְנֵה־לְךָ	
서술	행동	8c	그리고 그가 신을 벗었다.	וַיִּשְׁלֹף נַעֲלוֹ	RG

⑷에피소드 2(4:3-8)는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전달문과 직접 화법의 피전달문의 형식으로 말하는데 ⒜보아스의 첫 번째 제의에 기업 무를 자가 동의하는 3-4 절과 ⒝보아스(Boaz=B)의 두 번째 제의에 기업 무를 자(Go'el=G)가 거절하며 보아스에게 역으로 제의하는 5-8 절로 나누어진다(Bush, 193).

- 두 부분 모두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 보아스의 진술(S')은 보아스의 요구(D: B→G)로 이어지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동의(A: G)로 끝난다. 두 번째 부분에서 보아스의 진술(S')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요구(D': G→B)로 이어지고 그 기업 무를 자의 권리 포기를 상징하는 행동(R: G)으로 끝난다.
- 보아스의 진술(S 와 S')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진술 S 는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한 것을 언급하고 진술 S'는 그 기업을 무를 때 룻을 취하여 그 기업을 잇게 해야 한다는 언급한다.
- 요구 D'는 요구 D 에 반의적 병행을 이루고 내용에 있어서 역순 대구를 이룬다. 요구의 방향 면에서 D 는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에게 하지만 D'는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이다. 보아스의 요구는 나오미의 기업을 사라고 하며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라고 하지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요구는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수 없으니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을 무르라고 하는 점에서 역순대구이다.
- 기업 무를 자의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동의 A 와 거절 R 은 첫 부분에서는 기업을 무르겠다고 동의를 하였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 신발을 벗는 행동을 통하여 기업 무를 권리를 포기하는 점에서 서로 반의적 병행을 이룬다.

⑸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4:3-8)는 진술-요구-동의(S-D-A 4:3-4)와 진술-요구-거절(S'-D'-R 4:5-8)의 병행되는 삼분적 구조를 갖는다. 두 번째 부분(4:5-8)의 삼분적 구조(S'-D'-R)는 거래를 확정하는 옛 관습을 설명하는 여담(4:7)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하는 말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전달문(8a)에 의하여 불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Bush, 193).

⑹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단어의 수의 비교, 즉 보아스의 말에 주어진 93 개의 단어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말에 주어진 19 개의 단어의 비교는 협의 과정과 내레이터 마음에 보아스가 중심 역할을 한 것을 반영한다(Block, 708).

⑺캠벨(149)은 4:6-7 의 문예적 기교를 이렇게 지적했다. 첫째, 4:6 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말은 "내가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 לֹא אוּכַל לִגְאָל־ [로 우할 리그올-리]"로 시작해서 "내가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 לֹא־אוּכַל לִגְאֹל [로 우할 리그올]"로 마치는 틀을 가지고 있다. 둘째, 4:7 의

해설도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בְּיִשְׂרָאֵל . . . וְזֹאת[브조트....브이스라엘]"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확정하는 관례였다. בְּיִשְׂרָאֵל . . . וְזֹאת [브조트....브이스라엘]"이란 틀을 가지고 있다. 셋째, 4:7 의 전문 용어 הַגְּאוּלָּה[하그울라]와 הַתְּמוּרָה[하트무라]와 הַתְּעוּדָה[하트우다]는 정관사를 가지고 있고 각운을 가지고 있다.

(1) 4 막 1 장 A (4:1-2)

본문

[WLC: 4 רות]

1 וּבֹעַז עָלָה הַשַּׁעַר וַיֵּשֶׁב שָׁם וְהִנֵּה הַגֹּאֵל עֹבֵר אֲשֶׁר דִּבֶּר־בֹּעַז וַיֹּאמֶר סוּרָה שְׁבָה־פֹּה פְּלֹנִי אַלְמֹנִי
וַיָּסַר וַיֵּשֶׁב: 2 וַיִּקַּח עֲשָׂרָה אֲנָשִׁים מִזִּקְנֵי הָעִיר וַיֹּאמֶר שְׁבוּ־פֹה וַיֵּשֵׁבוּ:

[ESV: Ruth 4:1-2]

1 Now Boaz had gone up to the gate and sat down there. And behold, the redeemer, of whom Boaz had spoken, came by. So Boaz said, "Turn aside, friend; sit down here." And he turned aside and sat down. 2 And he took ten men of the elders of the city and said, "Sit down here." So they sat down.

[개역개정: 룻 4:1-2]

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2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번역 (룻 4:1-2)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1]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때 보아스가 [2] "아무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 [3]"라고 말하자 그가 와서 앉았다. 2 그리고서 보아스가 [2,4] 성읍 장로들 중 열 명을 불러 모은 뒤 "여기 좀 앉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앉았다.

본문 비평

[1] 불변화사 הִנֵּה[히네]가 등장 인물 보아스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을 반영하려고 "보니까"로 번영하였다.

[2]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밝혀 번역한 것이다.

[3] 느낌표를 쓴 것은 명령형이 강세형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BHS 4:2 의 각주 a 는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이 동사의 וַיִּקַּח[바이카흐]의 주어로 Boος(보아스)를 첨가한 것을 나타낸다. 룻 4:1 의 마지막 두 동사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맛소라 본문의 어구에 모호함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러나 문맥은 보아스가 사실상 룻 4:2 에 처음 나오는 동사의 주어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때문에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의 변경은 단지 암시적인 것을 명료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각 절 주석 (룻 4:1-2)

64. 룻 4:1

1) 원문 문제

(룻 4:1) וּבֹעַז עָלָה הַשַּׁעַר וַיֵּשֶׁב שָׁם וְהִנֵּה הַגֹּאֵל עֹבֵר אֲשֶׁר דִּבֶּר־בֹּעַז וַיֹּאמֶר סוּרָה שְׁבָה־פֹּה פְּלֹנִי אַלְמֹנִי וַיָּסַר וַיֵּשֵׁב׃

① 주어가 완료형 동사보다 앞선 것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가? 바브 계속법 미완료를 피하기 위해 완료가 사용될 때 보통의 어순은 무엇인가(GBH 166a; WHS 573[4])? 바브+주어+완료와 그 앞에 나왔던 바브 계속법 미완료(וַתֹּאמֶר 3:18) 사이의 시간 관계는 전후 관계인가, 동시 동작인가, 아니면 원래 알 수 없는 것인가(GBH 118d-f)?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As for Boaz, he had gone up (Campbell, 140)"이나 "Meanwhile Boaz went up (NIV)"의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② 여기 הַשַּׁעַר는 요새나 궁이나 신전의 문인가 아니면 도시의 성문인가?

③ הִנֵּה의 용법은? 직접화법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인가(1:15; 3:20)? 아니면 등장 인물의 인식의 관점을 보이는 것인가(3:8)? 아니면 내레이터가 독자에게 새로운 인물을 그 장면에 소개하며 독자의 인식의 관점을 돕는 것인가(2:4)? (Berlin, 90-95)

④ 분사עֹבֵר의 용법은? (WHS 213)

⑤ 명령형 סוּרָה와 שְׁבָה가 갖고 있는 어미에 대하여 설명하면?

⑥ פְּלֹנִי אַלְמֹנִי는 영어의 hodge-podge, helter-skelter, heebie-jeebies, hocus-pocus 처럼 farrago(잡동사니, 뒤범벅)라는 언어유희의 예이다. 룻기 4:1 외에 삼상 21:2[MT 3]과 왕하 6:8 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장소(such and such a place)를 말하는데 사용되었다. 다른 셈족어에서 פְּלֹנִי와 비슷한 단어들의 의미는? 내레이터가 이름 대신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friend, my friend"(NASB, NIV, RSV, TEV)나 "calling him by name"(NAB, NEB)으로 번역한 것에 대하여 비평하면?

2) 주석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때 보아스가 "아무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와서 앉았다.

① 3 막 3 장의 마지막 절(3:18)은 바브 계속법 미완료(וַתֹּאמֶר[바토메르])를 사용하여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4 막 1 장의 처음 절(4:1)은 바브 계속법 미완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브+주어+완료형(וּבֹעַז עָלָה [우보아즈 알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을 사용한다. 주어가 완료형 동사보다 앞선 것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전 장면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묘사하는 바브 계속법 미완료의 흐름을 끊음으로써 이전 사건과의 시간적 연속성을 표현하지 않고(GBH 166a)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1] 여기 바브+주어+완료(וּבֹעַז עָלָה[우보아즈 알라] 4:1 보아스가 올라갔다)에 나오는 시각과 그 앞에 나왔던 바브 계속법 미완료(וַתֹּאמֶר[바토메르] 3:18 그녀가 말했다)의 시각 사이의 시간 관계는 전후 관계인가, 동시 동작인가 아니면 알 수 없는가?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동작(완료 4:1)은 나오미가 말한 동작(계속적 미완료 3:18)보다 먼저인가(earlier, prior to) 아니면 나중인가(later) 아니면 동시인가(at the same time, contemporary with)?

- 캠벨(139)의 "As for Boaz, he had gone up"이나 NEB 의 "Now Boaz had gone up"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이 나오미가 말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으로 본 번역이다.
- NIV 의 "Meanwhile Boaz went up"은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본 번역으로 보이고, NASB 의 "Now Boaz went up"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본 번역으로 보인다.
- 부시(198)는 바브+주어+완료형 구문이 시간적 연속의 흐름이 끊기고 새로운 장면이 시작된 것을 표시하고 문맥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과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주고받은 것

---

[1] GBH 118d-g 에 의하면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wayyiqtol* [바익톨])은 일차적으로 사건의 연속을 표현하므로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이 더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고 바브 다음에 주어 혹은 다른 단어가 오고 완료형 동사가 오면(*w- … qatal* [브-… 카탈]) 동작이 연속적이지 않거나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바브+다른 단어+완료에서 완료가 나타내는 동작(즉 두 번째 동작)과 그 앞에 나왔던 바브 계속법 미완료가 나타내는 동작(즉 첫 번째 동작)의 시간적인 관계는 4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⑴완료에 의해 표현된 두 번째 동작이 그 앞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의 첫 번째 동작보다 앞선 경우(왕상 22:23; 창 31:33b-34; 삼상 28:3; 삼하 18:18; 왕상 22:31; 왕하 4:31; 25:5). ⑵두 번째 동작이 연속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속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첫 번째 동작과 서로 반대/대조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왕상 2:8; 출 9:23; 10:13; 삼하 10:14; 왕하 19:4; 왕하 5:25; 9:11). ⑶두 번째 동작이 첫 번째 동작과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런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창 1:5; 11:3b; 삿 6:40b; 7:3b; 삼상 15:34; 왕상 13:5; 22:41; 룻 1:14; 대상 14:17; 대하 20:18). ⑷반복 묘사될 때 동작이 뒤따라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바브 계속법 미완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삼하 3:23[22 절 반복); 왕상 20:19[17 절의 반복); 겔 3:41[12 절의 반복]). 이접적 문들(disjunctive sentences)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163-165 를 보라.

사이의 구체적인 시간 관계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후 혹은 동시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 NEB 와 NIV 의 번역을 배제해야 하며 NASB 의 "Now Boaz went"처럼 모호하게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허버드(232)는 3:14 에 사람이 걷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힘들게 하는 어두움과 4:1 에서 보아스가 성문에서 지나가는 자들 중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볼 수 있었던 밝음을 대조하였다. 그리고 허버드(232, n. 5)는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3:15 의 진술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4:1 의 진술은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곧바로 성문으로 간 것이 아니고 타작 마당에서 (성문에서의 멈춤이 없이) 먼저 성안에 있는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성문으로 올라간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 것이 3:16-18(나오미와 룻의 대화) 바로 이후 혹은 3:16-18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른 때일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저자의 관심은 시간적 정확성이 아니라 긴급성과 흥분의 조성(not chronological precision but creation of immediacy and excitement)이었다고 설명했다.

②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브 계속법 미완료를 쓰지 않고 바브+주어+완료를 쓴 것은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집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나누는 것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의 시간적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바로 성문으로 갔는지(Block, 705) 아니면 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갔다가 성문으로 갔는지(Hubbard, 232, n. 5)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③ **성문**(הַשַּׁעַר[하샤아르])은 아주 드물게 요새나 궁이나 신전의 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처럼 대개 도시의 성문을 나타낸다(Bush, 196).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 것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 법적 문제를 해결할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은 밭으로 가거나 타작 마당으로 가거나 다른 도시로 갈 때 성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서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찾아다니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문에서 만나 처리할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Hubbard, 232). 고대 도시들은 좁은 도로들을 따라 아주 빽빽하게 건설되어 있었지만 성문은 바깥쪽과 안쪽에 사람들이 모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는 조그만 방이 있거나 벤치가 놓여 있어서 앉을 수가 있었다.[2] 성문은 시장(marketplace) 역할도 하였고(왕하 7:1) 시민들의 삶의 중심(civic center) 역할을 했다. 성문에서 선지자들은 왕들과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고(왕상 22:10; 렘 17:19-20; 36:10)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였다(느 8:1-3). 가장 중요한 성문의 역할은 법정(courthouse) 역할이다(Hubbard, 233).

[2] Campbell, 110 쪽과 111 쪽 사이에 있는 게제르와 단의 성문에 대한 고고학적 예시를 참고하라.

성문에서 성읍 장로들은 공의를 시행하고(신 21:19; 수 20:4; 암 5:10; 잠 22:22) 법적인 문제 해결을 감독하였다(창 23:10, 18).

④ 성문의 아침 시간은 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붐비며 바쁜 시간이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וְהִנֵּה[브히네])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4:1)에 사용된 불변화사 הִנֵּה[히네](**보니까**)는 등장 인물 보아스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불변화사는 3:8 에서 보아스가 한 여인이 발치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놀라워한 것을 표시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기업 무를 자를 본 것에 대한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הִנֵּה[히네]가 창 38:27 의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혹은 창 38:29 의 "[그 손을 도로 들이는데] (보니)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에서 (산통과 출산 즉 해산의 속도와 관련지어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쌍둥이인 사실과 쌍둥이의 순서가 뒤바뀐 것을 놀라워하는 산파의 관점을 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룻 3:8; 4:1; 창 38:27, 29 의 הִנֵּה[히네]는 사건들의 발생 시간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보아스/산파의 인식의 제시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캠벨과 새슨이 הִנֵּה[히네]를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갑작스러움의 표시로 이해하고 "just then 바로 그 때" 혹은 "no sooner (had Boaz gone up) 보아스가 올라가서 앉자마자 바로"라고 번역한 것은 틀린 것이다(Berlin, 90-95).[3]

⑤ "וְהִנֵּה הַגֹּאֵל עֹבֵר אֲשֶׁר דִּבֶּר־בֹּעַז [브히네 하고엘 오베르 아셰르 디베르-보아즈]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에서 분사 עֹבֵר[오베르](**지나가고 있었다**)는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durative, WHS 213)을 표현하고 있다. 주어인 명사 [하고엘](**הַגֹּאֵל 그 기업 무를 자**)은 관계사가 이끄는 형용사절(**אֲשֶׁר דִּבֶּר־בֹּעַז** [아셰르 디베르-보아즈] **보아스가 말하던**)의 선행사이지만 중간에 강조를 위해 온 분사 [오베르]로 인해 형용사절과 떨어져 있다. 이것은 3:2 의 **בֹּעַז מֹדַעְתָּנוּ אֲשֶׁר הָיִית אֶת־נַעֲרֹתָיו**[보아즈 모다타누 아셰르 하이트 에트-나아로타브]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라는

---

[3] Hubbard(232, n. 2)는 הִנֵּה[히네]가 보아스의 인식의 갑작스러움뿐만 아니라 사건의 갑작스러움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것이 내레이터의 보고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인식의 관점이 아니지만 보아스가 지나가는 기업 무를 자를 본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4 장 1 절이 내레이터의 말인 것은 자명하지만 여기서 내레이터는 보아스의 인식의 관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허버드의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Block(705)은 "No sooner had he sat down than the gōʾēl 'just happened' to pass by."라는 의미로 보고 [히네]가 두 가지 기능, 즉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출현에 대한 보아스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독자의 주의를 새로운 인물에게 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락이 말한 첫 번째 기능은 벌린의 3:8; 4:1 에 대한 설명(등장 인물의 인식의 관점)과 비슷하지만 두 번째 기능은 2:4 에 대한 벌린의 설명(독자의 인식의 관점)과 다르다. הִנֵּה[히네]의 다른 용법, 즉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룻 1:15; 3:20)이나 내레이터가 독자에게 새로운 인물을 그 장면에 소개하며 독자의 인식의 관점을 돕는 것(룻 2:4)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4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명사문에서 주어와 형용사절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오는 술어(מֹדַעְתָּנוּ[모다타누])가 강조된 것과 비슷하다. 정상적인 어순인 선행사+형용사절의 예는 2:19 의 [셈 하이시 아셰르 아씨티 이모 하욤 보아즈]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 "오늘 제가 함께 일한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는 명사문에서 볼 수 있다.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는 성읍에서 성문을 지나 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보아스는 **"아무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 סוּרָה שְׁבָה־פֹּה פְּלֹנִי אַלְמֹנִי [쑤라 시바-포 플로니 알모니]**"라고 말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를 부를 때 사용한 "פְּלֹנִי אַלְמֹנִי [플로니 알모니] **아무여**"는 잡동사니/뒤범벅/뒤죽박죽(farrago)으로 알려진 언어 유희로서 영어의 "hodge-podge = hotchpotch 뒤범벅," "helter-skelter 당황, 혼란," "heebie-jeebies 안절부절, 강한 혐오감," "hocus-pocus 요술, 주문" 등과 비슷하다(블락, 706). [플로니 알모니]는 *오니*라는 각운(rhyme)을 가지고 있다.

- [플로니]와 [알모니]의 개별적 의미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허버드(233)가 지적한 대로 고대 역본들은 이 어구를 정확하게 번역하기보다는 해석한 것처럼 보인다. 캠벨(141-143)은 이 어구에 대한 번역들이 두 가지 방향 즉 익명성(a certain one) 아니면 은익성(a secret one)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익명성을 드러내는 것들은 여러 ⑴칠십인역 사본들의 ὁ δεῖνα[호데이나]("such a one, a certain man, somebody, so-and-so" cf. 마 26:18)와 ⑵OL 에 quicumque es("whoever you are")가 첨가된 것 그리고 ⑶탈무드에서 첫 번째 요소 [플로니]가 항상 "someone, a certain one"의 의미로 쓰인 것 그리고 ⑷동족어 단어 ①시리아어 *plny/pila-nu* 와 ②아랍어 *fulān* "What's-your-name?" > cf. ③스페인어 *fulano* "John Doe" 등이다. 한편 은익성/비밀성을 드러내는 것들은 ⑴LXX^{B}(& Lucianic manuscripts & non-hexaplaric minuscules)의 κρύφιε[크뤼피에]("O secret one, hidden one")와 ⑵LXX^{A}(& two minuscules)의 κρύφη[크뤼페]("secretly")와 ⑶OL 의 "and he said, 'Turn aside, sit here.' And he (=the near redeemer) said, 'quid secreti = What separate/secret?'"와 ⑷Targum 의 "O man whose paths are humble/reserved/hidden" 등이다. Campbell(143)은 주전 100 년에서 주후 100 년 사이 칠십인역이 개정되는 동안 [플로니 알모니]가 두 가지 뉘앙스를 가졌고 이 중 어느 하나가 역본들에 반영되었으며 여러 칠십인역 사본들이 κρύφιε[크뤼피에]("O secret one, hidden one")와 ὁ δεῖνα[호데이나](such a one)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구라틴역에 quicumque es "whoever you are"가 보충되어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 블락(706)은 פְּלֹנִי[플로니]가 פלה([팔라] "to be different, distinct 다르다, 구별되다" BDB, p. 811-12)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의미 결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플로니]와

관련 있는 단어들을 동족어들에서 살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플로니]와 관련 있는 동족어 단어들은 *plny/pila-nu*(아람어), *fulān*(아랍어 "What's-your-name?" > cf. 스페인어 *fulano* "John Doe"), fellān(티그레어 = 현대 이디오피아어) 등인데 이 단어들은 "someone, a certain one"의 의미를 가지며 고유명사를 밝힐 수 없거나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런 동족어 단어들은 히브리어 פְּלֹנִי[플로니]가 영어의 "so and so"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게 해 준다.

- 블락(706)은 אַלְמֹנִי[알모니]가 אַל־מוֹנָה[알-모네]("세어지지 않은, 명명되지 않은 not counted, not named")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 입장(예: Bauer-Neander, 34a)에 대하여 부정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사 מוֹנָה[모네] 앞에 부정어 אַל[알]이 아니라 לֹא[로]가 와야 한다고 주장한 루돌프(59)의 반박을 바르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אַלְמֹנִי[알모니]가 어근 אלם[알람]("to be silent, dumb 침묵하다, 잠자코 있다")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고 "quiet one 조용한 자, 말수가 없는 자"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였다.
- 여기 룻 4:1 을 제외하고 [플로니 알모니]란 어구는 단 8:13 에서 축약된 형 פַּלְמוֹנִי[팔모니](KB, 934, "so-and-so, someone")로 개인을 가리키는 데 한 번 사용되었다. 그리고 삼상 21:2(MT 3)과 왕하 6:8 에서 [플로니 알모니]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장소(such and such a place)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5]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플로니 알모니]는 고어적인 어구로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하려고 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⑦ 캠벨(141-142)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익명성(why his anonymity?)에 대한 4 가지 답을 제시하고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인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함께 살며 친족의 권리에 있어서 자기보다 앞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이름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 ⓑ저자가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인가? 족보(1:2-4; 4:17-22)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자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이름을 몰랐을 것 같지 않다. 호칭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었고 "my brother, my kin, 형님" 등의 적절한 호칭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것을 선전하는 것처럼 "아무개 씨, 무명씨"라고 제시한 것은 저자의 무지의 탓은 아닌 것 같다.
- ⓒ헤르츠버그(Hertzberg)가 설명한 대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후손들이 그가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개탄하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하여 한탄할 것을

---

[5] Block(706, n. 6)은 Targum 에 삼상 21:3 과 왕하 6:8 의 פְּלֹנִי אַלְמוֹנִי [플로니 알모니]가 כְּסִי וְתִמִיר [크씨 바트미르](hidden and concealed)로 번역된 것을 언급한다.

염두에 두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인가? 룻기의 문맥은 명시적으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또 너무 현대적인 발상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 ⓓ저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예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추수를 감독하는 종(2:5-7)의 경우처럼 가능한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전체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 오르바가 담당했던 것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⑧ 4:1 의 문의 구조는 반드시 어떤 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레이터가 아래 3 절 이하의 보아스의 말을 전달할 때 기업 무를 자나 장로들에 대한 호격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호격 없이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아스가 이름을 부르는 대신 어떤 호칭을 썼다면 삿 4:18 에서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할 때처럼 "나의 주여 אֲדֹנִי[아도니]"라는 보편적이고 공손한 호격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회의 소집의 첫 단계이지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아무여**, 아무개씨"라고 부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플로니 알모니]란 말은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내레이터의 인위적 창작으로 보인다. 내레이터 자신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아스가 불렀던 실제 이름 대신에 [플로니 알모니]라고 대신 쓴 것 같이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레이터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 저자는 역사적이라기보다는 문예적 목적을 가지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이름 없음을 통해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4:5, 10) 자식을 낳는 일을 거절한 자가 이야기에서 무명씨로 처리될 만하다는 그의 판단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Hubbard, 234-235).
- 저자는 다른 인물들의 이름을 아주 주의 깊게 밝히는 내러티브(cf. 1:2, 4; 2:1)에서 이 인물의 이름 없음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비우호적인 인상을 갖도록 해 주었다(Bush, 197).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밝혀지는 대로 그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는 일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명씨가 되었고, 이름 없음은 평가절하를 내포한다(Trible, 190; Bush, 246).
-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이름 없음은 룻기 마지막의 긴 족보에 7 번째 자리를 차지한 보아스란 이름의 영광스러움과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오르바가 룻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인물(foil)이었듯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를 돋보이게 하는 보조인물(foil)이었다(Block, 707).

⑨ 저자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무명씨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플로니 알모니]에 대하여 친절한(homely) 미국인이 낯선 사람을 Mac(<McDonald)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거나 보아스가 "friend, my friend 친구여(NASB, NIV, RSV, TEV); 내 친구여(우리말성경)"라고 부른 것처럼 번역하거나 "vocans eum nomine suo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며(Vg)" 혹은 "calling him

by name 그를 이름으로 부르며(NAB, NEB)"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자의 평가절하를 놓쳐 버리는 것이다(Bush, 197). 그리고 공동번역의 "여보게"와 새번역과 쉬운성경의 "여보시오"는 영어의 "Hey, you!"와 같은 것이므로 이름 없는 무명씨의 뉘앙스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플로니 알모니]를 "아무여(개역), 아무개여(개역개정), [Mr.] So-and-So(Bush, Hubbard, NJPS, Sasson, Joüon)"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 대한 저자의 평가절하적인 뉘앙스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⑩ 보아스가 아무개 씨에게 한 명령은 "סוּרָה שְׁבָה־פֹּה [쑤라 시바-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이다. 보아스의 말에 나오는 סוּרָה[쑤라]와 שְׁבָה[시바]는 명령형이며 둘 모두 강조하는 어미 הָ[아]를 가지고 있다. "סוּרָה[쑤라] **이리로 오라**."라고 한 것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가려고 의도한 길에서 벗어나/돌이켜(cf. 출 3:3-4; 삿 14:8) 보아스가 앉아 있는 곳으로 오도록 요청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보아스의 목소리에 권위와 결단력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Hubbard, 233).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주저하지 않고 보아스의 말대로 돌이켜 **와서 앉았다**.

65. 룻 4:2

1) 원문 문제

(룻 4:2) וַיִּקַּח עֲשָׂרָה אֲנָשִׁים מִזִּקְנֵי הָעִיר וַיֹּאמֶר שְׁבוּ־פֹה וַיֵּשֵׁבוּ׃

① עֲשָׂרָה אֲנָשִׁים에 사용된 수사와 명사의 형태론적 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② מִזִּקְנֵי הָעִיר에서 전치사 מִן의 용법은? (WHS 324)

③ 동사 לקח가 "to have someone brought"(cf. 삼상 17:31; 렘 37:17)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장로들의 경우 1 절과는 달리 "סוּרוּ"라는 명령형 없이 바로 שְׁבוּ가 쓰인 것을 고려하여 보아스는 장로들을 모은 방법을 설명하면?

2) 주석

룻 4:2 그리고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중 열 명을 불러 모은 뒤 "여기 좀 앉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앉았다.

① 지나가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의 말을 듣고 돌이켜 와서 앉은 후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 중 열 명을 불러 모았다**. 성읍 장로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아침에 성문을 통하여 일하러 지나가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는 견해(Hubbard)가 있고 보아스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불러 모았다는 견해가 있다(Bush, Block, Younger). 후자의 입장이 옳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보아스가 한 동작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동사 וַיִּקַּח[바이카흐]의 어근 לקח[라카흐]는 부시(197)의 지적대로 다른 곳에서(삼상 17:31; 렘 37:17 cf. KB 534) 데려오는

것(have someone brought)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6] 둘째,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에게 한 말 "שְׁבוּ־פֹה [시부-포] **여기 좀 앉으십시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한 말 " סוּרָה שְׁבָה־פֹה[쑤라 시바-포] [가던 길을 돌이켜]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를 비교해 보면 장로들에게 한 말에는 "돌이키다"라는 동사가 없다. 셋째,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며 10 명의 장로들을 모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함께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직접 가서 장로들을 데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성읍 장로들 중의 10 명**(עֲשָׂרָה אֲנָשִׁים מִזִּקְנֵי הָעִיר [아싸라 아나심 미지크네 하이르])이란 표현에 들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전치사 מִן[민]은 베들레헴에 장로들이 10 명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7] 여기 **10 명의 장로들**은 보아스가 소집한 법적 집회의 증인으로서 대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8]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적 권위는 법적 집회에 있었고 이 집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결혼, 제사, 전쟁, 법의 집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남자 주민들이 될 수 있었다(Bush, 198). 장로들 혹은 방백들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한 남자들이 법적인 집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창 23:10, 18; 34:24; 왕하 21:13; 렘 26:11, 12, 16; 32:12). 이 법적 집회 안에 장로들로 알려진 집단이 존재했으며 "성읍의 장로, 땅의 장로, 백성의 장로"처럼 수식어가 붙어 사용될 때 장로는 어떤 특정 연령 집단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직책을 갖고 있는 자(holder of an office)를 지칭하였다. 장로들의 모략/교도/지혜는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겔 7:26; 왕상 12:6-11; 렘 26:7). 장로들의 권위는 살인 문제를 다루고(신 19:12; 21:1-9; 수 20:4), 처녀성 문제를 다루고(신 22:15), 도피성 거주 문제(신 19:11-12; 수 20:1-6), 수혼 문제(신 25:5-10)를 다루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장로들은 도시나 지방을

---

[6] [삼상 17:31]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וַיִּקָּחֵהוּ)
[렘 37:17]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 내고(וַיִּקָּחֵהוּ)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7] 숙곳에 77 인의 장로들이 있었고(삿 8:14) 70 명의 장로에 대한 언급하는 구절들(삿 24:1; 민 11:16, 24; 겔 8:11)이 있다.

[8] Hubbard(236, n. 20)는 구약에서 10 이란 숫자가 최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그룹을 나타내는 어림수로 사용된 것을 지적한다. 10 사람은 가장 작은 단위의 싸우는 부대를 형성하였다(삿 6:27 기드온의 종 10 명; 왕하 25:25/렘 41:1 이스마엘과 십인; cf. 삼하 18:5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10 명). 허버드는 또 숫자 10 이 더 큰 집단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열 마디 말씀(십계명)은 하나님의 전체 뜻을 상징하고(출 20:1-17; 신 5:6-21),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상징하고(출 7-12 장), 이스라엘의 열 번의 불순종은 전체 불순종을 상징하고(민 14:22), 다윗이 나발에게 보낸 열명의 사자는 그의 전 군대를 상징하고(삼상 25:13), 다윗이 도망할 때 열명의 첩을 궁에 남겨둔 것은 왕궁에 대한 그의 합법적 주장을 가시화한 것이다(삼하 15:16; 16:22).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지역의 방백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집단으로 나오고 또 법적 집회의 일부로서 나온다. 보아스로 인해 소집된 법적 집회에도 10 명의 소환된 장로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법적 논의에 대한 증인 역할에 대하여 보아스가 말한 대상과 보아스에게 대답한 대상이 각각 장로들과 모든 백성(4:9) 그리고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4:11)로 언급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③ 법적 집회는 필요에 따라 즉 법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호소가 있을 때 열렸으며 호소와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처럼 대개 성문이었다.[9] 캠벨(154-155)은 게제르와 단의 성문에 대한 고고학적 구조에 비추어 룻기 4 장의 법적 집회가 이루어진 곳은 작은 방보다는 성문 안쪽 광장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4 막 1 장 B (4:3-8)

본문

[WLC: 4 רות]

---

[9] [사 29:21]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암 5: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욥 5:4-5] (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신 21:19-20] (19)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신 22:15-17] (15)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16)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신 25:7-10] (7)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3 וַיֹּאמֶר לַגֹּאֵל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 מָכְרָה נָעֳמִי הַשָּׁבָה מִשְּׂדֵה מוֹאָב: 4 וַאֲנִי אָמַרְתִּי
אֶגְלֶה אָזְנְךָ לֵאמֹר קְנֵה נֶגֶד הַיֹּשְׁבִים* וְנֶגֶד זִקְנֵי עַמִּי אִם־תִּגְאַל גְּאָל וְאִם־לֹא יִגְאַל הַגִּידָה לִּי [כ=
וְאֵדַע] [ק= וְאֵדְעָה] כִּי אֵין זוּלָתְךָ לִגְאֹול וְאָנֹכִי אַחֲרֶיךָ וַיֹּאמֶר אָנֹכִי אֶגְאָל: 5 וַיֹּאמֶר בֹּעַז בְּיֹום־קְנֹותְךָ
הַשָּׂדֶה מִיַּד נָעֳמִי וּמֵאֵת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כ= קָנִיתִי] [ק= קָנִיתָ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6 וַיֹּאמֶר הַגֹּאֵל לֹא אוּכַל [כ= לִגְאֹול] [ק= לִגְאָל]־לִי פֶּן־אַשְׁחִית אֶת־נַחֲלָתִי גְּאַל־לְךָ אַתָּה
אֶת־גְּאֻלָּתִי כִּי לֹא־אוּכַל לִגְאֹל: 7 וְזֹאת לְפָנִים בְּיִשְׂרָאֵל עַל־הַגְּאוּלָּה וְעַל־הַתְּמוּרָה
לְקַיֵּם כָּל־דָּבָר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 וְזֹאת הַתְּעוּדָה בְּיִשְׂרָאֵל: 8 וַיֹּאמֶר הַגֹּאֵל לְבֹעַז קְנֵה־לְךָ
וַיִּשְׁלֹף נַעֲלוֹ:

[ESV: Ruth 4:3-8]

3 Then he said to the redeemer, "Naomi, who has come back from the country of Moab, is selling the parcel of land that belonged to our relative Elimelech. 4 So I thought I would tell you of it and say, 'Buy it in the presence of those sitting here and in the presence of the elders of my people.' If you will redeem it, redeem it. But if you[a] will not, tell me, that I may know, for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o redeem it, and I come after you." And he said, "I will redeem it." 5 Then Boaz said, "The day you buy the field from the hand of Naomi, you also acquire Ruth[b] the Moabite, the widow of the dead, in order to perpetuate the name of the dead in his inheritance." 6 Then the redeemer said, "I cannot redeem it for myself, lest I impair my own inheritance. Take my right of redemption yourself, for I cannot redeem it." 7 Now this was the custom in former times in Israel concerning redeeming and exchanging: to confirm a transaction, the one drew off his sandal and gave it to the other, and this was the manner of attesting in Israel. 8 So when the redeemer said to Boaz, "Buy it for yourself," he drew off his sandal.

a. Ruth 4:4 Hebrew *he*
b. Ruth 4:5 Masoretic Text *you also buy it from Ruth*

[개역개정: 룻 4:3-8]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4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5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7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번역 (룻 4:3-8)

룻 4:3 그 때 그가 [1]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내놓았소.[2] 4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취하시오. 당신이 무르고 싶으면 무르시오. 그러나 당신이 [3] 무르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내가 알 수 있도록 [4] 하시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곤 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 그러자 그는 "내가 무르고 싶소."라고 대답했다. 5 보아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그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날에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5] 당신이 [6] 취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7] 해야 할 것이오." 6 그러자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친히 [8] 무를 수 없겠소. 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친히 [8] 나의 무를 것을 무르시오.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 7 옛적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9]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10] (이런 일 즉)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는 일이 있었는데 [11]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확정하는 관례이었다. 8 그래서 [12]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8] 취하시오."라고 [13] 말하며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14]

본문 비평

[1]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한글 개역처럼 동사에 들어 있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주어를 밝혀 "보아스가"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장면에서 대화의 당사자를 묘사할 때 보아스와 기업 무를 자를 동시에 명사로 밝혀 표현한 것은 4:8 에만 나오므로 이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원문대로 "그가"라고 번역했다.

[2] BHS 4:3 의 각주 a-a 는 두 단어 מָכְרָה נָעֳמִי [마흐라 노오미]를 가리킨다. 이 두 단어에 대한 칠십인역의 독법은 ἣ δέδοται Νωεμὶν [헤 데도타이 노에민]("나오미에게 주어졌던")이고 이 부분까지 보아스의 말을 번역하면 "the part of the field that belongs to our brother Elimelech's, which was given Naomi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에게 속하고 나오미에게 주어졌던 밭의 일부"가 된다. 허버드(236, n. 3)가 지적한 대로 칠십인역의 번역은 완전한 문이 아니고 맛소라 본문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Brenton(*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 353)의 번역을 보면 주어와 동사를 보충하여 완전한 문을 만들고 *the matter regards* the portion of the field which was our brother Elimelech's which was given Noemin("*문제는*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에게 속하고 나오미에게 주어졌던 밭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으로 되어 있다. 맛소라 본문은 "나오미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밭을 내놓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문 그대로 의미가 잘 통한다.

[3] BHS 4:4 의 각주 a 는 맛소라 본문 יִגְאַל[이그알]에 대하여 많은 중세 사본들, 대부분의 번역들이 תִּגְאַל[티그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쉬운 독법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אִם־תִּגְאַל[임-티그알] 당신이 무른다면"과 상응되며 문맥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맛소라 본문의 독법이 더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차이가 나는 두 자음 즉 ת[타브]와 י[요드]의 혼동에 대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허버드(237, n. 6)는 יִגְאַל[이그알]을 "너무 갑작스러운" 것으로 특징짓고 תִּגְאַל[티그알]로 고쳐 읽는다. 루돌프(59)는 יִגְאַל[이그알]을 여백의 주로 간주하지만 필사자가 틀린 인칭의 동사를 여백의 주로 기입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맛소라 본문을 의미가 통하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NEB 는 "but if not, someone must do it."라고 번역했으나 맛소라 본문은 이렇게 번역될 수가 없다. 새슨(118)은 문제의 구가 무르는 일이 (그들 면전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장로들에게 거의 삽입구적으로 말하여졌다고 제안하고 "당신이 무르려면 무르라—[장로들에게 귀엣말로] 그리고 그가 무르지 않는다면—[다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다시 말하며] 나에게 말하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도일 뿐 확실하지 않다. 본 주석의 번역은 יִגְאַל[이그알] 대신 תִּגְאַל[티그알]로 고쳐 읽은 것을 반영한다.

[4] BHS 4:4 의 각주 b 는 크티브 וְאֵדַע[브에다]와 크레(와 많은 중세 사본들의 독법) וְאֵדְעָה[브에드아]에 관한 것이다. 크티브는 접속사 바브를 가진 기본능동 미완료형이고 크레는 접속사 바브를 가진 기본능동 청유형이다. 앞에 나오는 הַגִּידָה[하기다]란 명령형이 강조 어미 ה[헤]를 갖고 있으므로 청유형 וְאֵדְעָה[브에드아]가 더 선호된다. 그러나 미완료형도 청유형처럼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하라"는 번역이 가능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IBHS, 39.2.2a; 34.5.2b).

[5] BHS 4:5 의 두 개의 각주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맛소라 본문의 주된 문제점은 동사 קָנִיתִי[카니타]가 직접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이다. 로빈슨은 각주 a 에서 벌게이트역이 "also, too"를 뜻하는 *quoque* 로 읽은 것을 지적하고 칠십인역의 지지를 받는 맛소라 본문의 וּמֵאֵת[우메에트]를 גַּם אֶת־[감 에트]로 정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6] BHS 4:5 의 각주 *b* 는 크티브 קָנִיתִי[카니티]와 크레 קָנִיתָה[카니타]의 문제를 다룬다. 크티브는 기본능동 완료 1 인칭 공성 단수 동사형으로 "내가 얻었다 (혹은 얻는다)"로 번역되지만 크레는 기본능동 완료 2 인칭 남성 단수 동사형으로 "네가 얻었다 (혹은 얻는다)"로 번역된다. 크티브는 베아티(Beattie, *VT* 21 [1971]: 490-494)나 새슨(103, 122-131)에 의해 선호되지만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Hubbard, 237, n. 9).

로빈슨은 역본들에 근거하여 히브리어 본문이 기본능동 명령형 קְנֵה[크네](네가 사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로빈슨의 제안은 적어도 칠십인역이 명령형을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절의 의미를 따라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1 인칭 단수("내가 얻었다")로 읽는 크티브의 독법은 더 어려운 독법으로 너무 어려운 경우들 중의 하나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처럼 2 인칭 단수("네가 얻었다")로 읽는 크레를 최선의 독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7] 직역: "고인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도록"

[8] 동사의 주어와 인칭이 일치되는 접미대명사를 가진 라멧(לֹ)이 윤리적 여격(ethical dative)으로서 행위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강조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접, 몸소, 손수" 등의 의미를 갖는 것을 보이려고 "친히" 라고 번역하였다. 개역과 개역개정의 "나를 위하여(6)"와 "너를 위하여(8)"는 윤리적 여격을 이해의 여격으로 본 것처럼 번역하고 있고 두 번역 모두 6 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 윤리적 여격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일관되게 번역했다면 개역은 "나의 무를 권리를 (너를 위하여) 취하라."가 되고 개역개정은 "내가 무를 것을 (너를 위하여) 무르라."가 될 것이다. 손익계산에 빨랐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기업 무르는 일에 자신은 물러서고 보아스로 하여금 나서도록 할 때 이렇게 윤리적 여격을 자신에게 1 번(4:6) 그리고 보아스에게 2 번(4:6, 8)이나 사용하며 기업 무를 주체를 강조하고 있다.

[9] "기업 무르는 일에 관하여 그리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를 중언법으로 보고(Bush, 191)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일에 관하여"라고 번역하였다.

[10] BHS 4:7 의 각주 a 는 맛소라 본문 וְזֹאת לְפָנִים בְּיִשְׂרָאֵל[브조트 르파님 브이스라엘]에 대하여 칠십인역이 페시타역, 타르굼역, 그리고 벌게이트역과 일치하며 τὸ δικαίωμα([토 디카이오마] = הַמִּשְׁפָּט[하미시파트])를 첨가하여 이 절을 보다 명확하게 "그런데 이것이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기업 무르는 권리를 양도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라고 번역한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הַמִּשְׁפָּט[하미시파트]가 떨어져 나간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맛소라 본문의 암시적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칠십인역(과 다른 역본들)이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11] BHS 4:7 의 각주 b 는 칠십인역과 타르굼역이 동사 שָׁלַף[샬라프] 앞에 접속사를 두고 있는 것을 언급한다. 부시(233)의 설명대로 대명사 זֹאת[조트]가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접속사를 둘 이유가 없다.

[12] 내레이터의 독자를 위한 해설인 4:7 이 4:6 과 4:8 의 연속적인 흐름을 끊고 있으므로 4:8 을 4:6 의 연속으로 보면 접속사 바브를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지만 4:7 을 읽고 관습을 이해한 입장에서 4:8 을 읽으면 "그래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13] 직역: "친히 사시오." 여기 8 절의 명령형에는 윤리적 여격은 붙어 있으나 6 절처럼 윤리적 여격 다음에 왔던 보아스를 가리키는 자립 주격 대명사는 없다.

[14] BHS 4:8 의 맛소라 본문 어구는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네가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고서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되어 있어 다소 간결하다. 칠십인역은 맛소라 본문의 마지막 단어 다음에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ῷ([카이 에도켄 아우토]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라는 구를 첨가하였다. 이것은 칠십인역이 4:7 에 명시된 것을 따라 암시적인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각 절 주석 (룻 4:3-8)

66. 룻 4:3

1) 원문 문제

וַיֹּאמֶר לַגֹּאֵל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 מָכְרָה נָעֳמִי הַשָּׁבָה מִשְּׂדֵה מוֹאָב׃ (룻 4:3)

①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가 문의 ( )로서 동사 מָכְרָה앞에 온 것은 히브리어 구어에서 정상적인 어순(Bush, 199: cf. 3:5, 11, 17)인가 아니면 강조(Holmstedt, 185: "Focus-fronted accusative complement")인가?

② 기업의 소유 관념에 비추어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는 "the field which belonged to Elimelech"처럼 과거형을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the field of Elimelech"처럼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GKC 129d)? 왕하 9:25-26, 룻 2:3 을 참조하라.

③ לְאָחִינוּ와 לֶאֱלִימֶלֶךְ의 관계는? לְאָחִינוּ에 쓰인 אָח의 의미는 여기서 "brother"인가 아니면 "cousin"인가 아니면 "male relative"인가(cf. 왕하 10:13)?

④ 완료형 מָכְרָה는 과거(past tense)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동시적/즉석 완료(instantaneous perfect)인가(IBHS 30.5.1d; WHS 164; GKC 106d)? 아니면 실행적 완료(performative perfect)인가(IBHS 30.5.1d)? 아니면 결심의 완료(perfect of resolve)인가(IBHS 30.5.1d)?

⑤ מָכְרָה의 의미는? sell? transfer, assign? dispose of? surrender the right to?

⑥ הַשָּׁבָה는 분사인가 완료형인가? 정관사의 용법은(GKC 138 i, k)?

2) 주석

룻 4:3 그 때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내놓았소.

① 법적 논의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와 장로 10 명을 소집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문제의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 때 그(=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문의 어순은 목적어+동사+주어로서 목적어가 강조되어 있다(Holmstedt, 185).[10]여기 히브리어 문의 서두에 온 목적어는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 [헬카트 하싸데 아셰르

[10] 이 어순은 3:5, 11, 17 에도 발견된다. Bush(199)는 한글과 영어와는 달리 구어 히브리어에서 목적어가 문두에 오는 것은 강조가 아니고 정상적인 어순으로 보았다. 더 자세한 것은 3:5 과 4:10 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르아히누 레엘리멜레흐]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이다. 룻 2:3 에도 관계사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명명구+전치사 라멧+소유자로 된 חֶלְקַת הַשָּׂדֶה לְבֹעַז [헬카트 하싸데 르보아즈] "보아스의 밭"이 나온다. GKC 129d(contra *IBHS* 9.7b)에 의하면 לְבֹעַז [르보아즈]처럼 전치사 라멧을 사용하여 속격을 표시하는 것은 바로 앞의 명명구 חֶלְקַת הַשָּׂדֶה [헬카트 하싸데]가 직역을 하면 "the portion of the field 밭의 일부"이지만 하나의 통일된 개념 "the individual field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룻 2:3 그리고 4:3 에서 명명구 חֶלְקַת הַשָּׂדֶה[헬카트 하싸데]가 나타내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밭들의 일부로서 개인들이 각각 소유로 갖고 있는 밭이란 단일 개념이다. 따라서 חֶלְקַת הַשָּׂדֶה לְבֹעַז [헬카트 하싸데 르보아즈]는 "보아스의 밭의 일부"가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다. 마찬가지로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헬카트 하싸데 레엘리말레흐]는 "엘리멜렉의 밭의 일부"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밭"이다. 부시(199-200)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처럼 과거형 "belonged 속했다"를 사용하여 "the field which belonged to Elimelech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밭"이라고 번역하면 그 밭이 지금은 더 이상 엘리멜렉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격 표시 전치사 "of"를 사용하여 기업과 가문의 뗄 수 없는 연대성의 개념이 더 잘 반영되도록 "the field of Elimelech 엘리멜렉의 밭"처럼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11]

② 관계사(אֲשֶׁר[아셰르]) 다음에 나오는 라멧을 사용한 두 개의 속격 즉 לְאָחִינוּ[르아히누]와 לֶאֱלִימֶלֶךְ[레엘리말레흐]는 동격이다. "**문중 형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אָח[아흐]는 친형제를 나타낼 때뿐만 아니라 조카(창 14:16; 29:15)를 나타낼 때 그리고 같은 지파의 구성원(민 16:10; 25:6; 삿 14:3)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다. 탈무드(T. B. *B. Bat.* 91a)는 보아스, 살몬, 플로니-알모니(고유명사취급), 그리고 나오미의 아버지가 형제들이었다고 말한다. 허버드(239)는 리핀스키(Lipiński, *VT* 26 [1978]: 126-27)가 엘리멜렉, 보아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친형제지간으로 여기는 것을 반대하고 주옹처럼 이들이 사촌지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부시(199)의 지적대로 이들의 정확한 촌수 문제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튼 엘리멜렉, 보아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관계는 신 25 장의 수혼이 의무적으로

---

[11] 룻기(2:3; 4:3)에 나오는 חֶלְקַת הַשָּׂדֶה [헬카트 하싸데]란 명명구는 창 33:19; 수 24:32; 삼하 23:11; 대상 11:13 에서도 발견된다.

창 33:19 "그가 장막을 친 밭" חֶלְקַת הַשָּׂדֶה אֲשֶׁר נָטָה־שָּׁם אָהֳלֹו

수 24:32 "야곱이 산 땅" בְּחֶלְקַת הַשָּׂדֶה אֲשֶׁר קָנָה יַעֲקֹב

삼하 23:11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חֶלְקַת הַשָּׂדֶה מְלֵאָה עֲדָשִׁים

대상 11:13 "보리가 많이 난 밭" חֶלְקַת הַשָּׂדֶה מְלֵאָה שְׂעֹרִים

적용되는 친형제지간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사촌지간인지 그보다 더 먼 친척인지는 불분명하나 친족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친족임을 나타내는 אָח[아흐]를 "문중 형제"라고 번역하였다.

③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문의 주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돌아온**(הַשָּׁבָה מִשְּׂדֵה מֹואָב [하샤바 미스데 모아브])이란 수식어를 갖고 있다. 여기 הַשָּׁבָה는 완료형 שָׁבָה[샤바]과 정관사(הַ[하])가 결합된 것으로 정관사는 관계사(אֲשֶׁר[아셰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벌린(89)은 칭호와 관련하여 룻과 나오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젊은 여인(2:5)'—'내 딸(2:8)'—'현숙한 여인(3:11)'으로 언급한 것을 통하여 룻이 낮은 신분에서 보아스와 동등한 신분으로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22 과 2:6 에서 룻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모압 땅에서 돌아온**'이란 수식어가 4:3 에서 나오미를 묘사할 때도 사용된 것을 통하여 두 여인 사이에 신분의 동등성, 즉 돌아온 자들로서의 동등함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성읍 백성들이 4:11 에서 룻을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아내*'라고 언급한 것을 통하여 내레이터가 부른 '모압 여인'과 룻 자신이 부른 '이방 여인'과 보아스가 부른 '젊은 여인'이 극복되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벌린이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 돌아온**"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 마치 저자나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와 동등한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문예적 해석으로 보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 위해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므로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에서 돌아온"이란 수식어는 나오미의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벌린이 4:11 을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아내*"라고 번역하고 "모압 여인-이방 여인-젊은 여인"으로부터 "*아내*"로 신분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4:11)"과 틀을 이루는 4:12 의 "이 젊은 여인"이 보아스가 사용한 2:5 의 "젊은 여인"과 똑같은 단어 [나아라]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과 해석으로서 문맥에서 벗어난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12]

④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문의 정형 동사는 완료형 מָכְרָה[마흐라]이다. 이 동사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 정확한 의미와 완료형의 용법 그리고 나오미의 사법적 권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동사의 의미와 번역 문제를 살펴보자(Bush, 200-202).

- ⓐ동사 מכר[마하르]는 일반적으로 값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는 것 즉 파는 것을 나타내는 데 목적어로 일반적인 물품(느 10:32; 13:20), 고기(신 14:21), 기름(왕하 4:7), 옷(잠 31:24) 등이

[12] 4:11 은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4:11 의 אִשָּׁה[이샤]를 "아내" 아니면 "여인"으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4:11 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나오며 노예로 팔리는 사람(창 37:27, 28, 36; 신 21:14)이 나오기도 한다. 이 경우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은 팔린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졌다.

- ⓑ그러나 토지가 목적어로 나올 때 토지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용익권만을 파는 것이므로 토지를 산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 토지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cf. 레 25:14-16). 그것은 여호수아 당시에 제비 뽑아 받고서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토지, 즉 가문의 땅은 영영히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레 25:23; cf. 왕상 2:3). 미가(2:1-2, 8-9)와 이사야(5:8)는 토지를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취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팔려고 내놓은 토지를 친족이 사는 일, 즉 사전에 무르는 일(preemption, 렘 32:6-10)이나 이미 팔린 토지를 친족이나 원 소유주 자신이 되무르는 일(redemption, 레 25:24-27)이나 희년에 원 소유자에게 되돌리는 일(레 25:28) 등은 모두 토지의 용익권에 대한 양도를 반영하고 있다. 희년까지 기업이 타인에게 팔려(מכר[마하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레 25:23-29; 27:20-24)가 진정한 상업적 매매가 아닌 것은 빚진 자가 6 년(신 15:12; 렘 34:14) 혹은 다음 희년까지(레 25:39-54) "자신을 팔았거나 팔렸다"라고 표현하거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표현할 때(삿 3:8; 4:2-3; 10:7-8) מכר[마하르]를 쓴 것과 비슷한 데서 볼 수 있다.
- ⓒ토지의 용익권이 아니라 토지를 물건처럼 완전히 팔고 사는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의 매입과 아합의 나봇 포도원에 대한 매입 제의의 경우, 동사 מכר[마하르]가 아니라 נתן[나탄]이 사용된 것(창 23:4, 9, 13; 왕상 21:2, 3, 6)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유권과 처분권을 완전히 양도하며 파는 경우 מכר בְּכֶסֶף [마하르 브헤쎄프](“돈/은을 받고 팔다” 신 21:4; 암 2:6)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엘리멜렉의 밭을 파는 일이 용익권 양도에 대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절이 엘리멜렉의 밭을 무르는 권리에 대한 논의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부시(202)는 여기 מכר[마하르]를 번역하는 데 보통 제시되는 "to sell 팔다"는 너무 많은 것을 암시하는 한편 리핀스키(Lipiński)가 제의한 번역 "übertragen, übergeben, to transfer, assign, 양도하다"는 너무 적은 것을 암시하고 루돌프가 제의한 "veraussern, to dispose of 처분하다"도 "to sell"의 의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to surrender the right to ~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시의 제안을 따르며 본 주석은 "[용익권을] **내놓았다**"라고 번역하였다.

⑤ 완료형 מָכְרָה[마흐라]의 용법은 무엇인가?

- ⓐמָכְרָה[마흐라]가 과거(past tense)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 "그녀가 팔았다. she sold; she has sold"로 번역된다. 그러나 모압 거주 10 년 기간 동안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의 남편의 밭을 "팔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와

룻의 이삭줍기를 통하여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남편의 밭을 팔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완료형 מָכְרָה[마흐라]의 과거적 번역은 이야기의 신빙성과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과거가 아닌 다른 시점의 번역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루돌프(64)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완료형 מָכְרָה[마흐라]를 여성 단수 분사 מֹכְרָה[모흐라]로 고쳐 "is selling, is about to sell"의 의미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다.
- ⓒ그러나 캠벨(144)은 이 어근이 여성 단수 분사로 쓰인 것은 오직 나훔 3:4 의 מֹכֶרֶת[모헤레트]뿐인 것을 지적하며 룻 4:9(I here buy) 그리고 창 23:11(I hereby give)처럼 형식적이고 법적인 행동(formal, legal acts)을 반영하는 의미를 지닌 완료(she hereby offers for sale)로 번역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의 번역은 곧 살펴보려고 하는 월트키-오코너(Waltke-O'Connor)의 용어를 적용하여 말하면 מָכְרָה[마흐라]를 실행적 완료로 간주한 것처럼 보인다.
- ⓓ월트키-오코너는 완료의 용법으로 현재의 시점(present-time reference)과 관련된 것으로 선언과 동작의 시행의 동시성을 표현하는 동시적/즉석 완료(instantaneous perfective)를 지적하고 주로 담화 동사(verba dicendi, "verbs of speaking", swearing, declaring, advising, etc)나 말과 연관된 제스처에 사용되며 다른 동사의 경우에도 된다고 하였다.[13] 월트키-오코너는 동시적/즉석완료(instantaneous perfective)의 범주에 속한 특별한 경우로 3 가지 즉 메시지를 받는 자의 관점에서 보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서신적 완료(epistolary perfective),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시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실행적 완료(performative perfective), 그리고 화자의 결의를 나타내는 결심의 완료(perfective of resolve)를 다루었다. 월트키와 오코너는 서신적 완료의 예로서 왕하 15:19 과 대하 2:12 을 들었고, 실행적 완료의 예로서 즉석 완료의

---

[13] Waltke-O'Connor, *IBHS* 30.5.1d

담화 동사나 말과 연관련 제스처를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신 26:3] I declare today 내가 아뢰나이다(הִגַּדְתִּי[히가드티])

[삼하 17:11] I advise you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יָעַצְתִּי[야아츠티])

[삼하 19:29(MT 30)] I order that you and Ziba to divide the fields

내가 이르노니(אָמַרְתִּי[아마르티])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창 14:22] I lift up my hand to YHWH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הֲרִימֹתִי[하리모티])

[시 143:6] I spread out my hands to you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나이다(פֵּרַשְׂתִּי[페라시티])

다른 종류의 동사의 경우:

[룻 4:9] I acquire (here and now) 내가 (여기서 그리고 지금) 얻었다(קָנִיתִי[카니티])

[삼하 16:4] I humbly bow 내가 절하나이다(הִשְׁתַּחֲוִיתִי[히시타하베티])

[삼하 24:22-23] Arauna said, ... "Arauna gives all ... to the king."

아라우나가 말했다.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נָתַן[나탄])"

예로 든 것들 가운데서 삼하 19:29(MT 30); 룻 4:9; 삼하 24:22-23 를 들었고, 결심의 완료의 예로서 룻 4:3; 창 23:10-11, 13; 렘 40:4 을 들었다.[14]

- ⓔ부시(202)는 월트키-오코너가 제시한 결심의 완료의 예들이 동시적/즉석 완료나 실행적 완료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심의 완료와 같은 불확실한 범주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룻 4:3 의 주어가 3 인칭 나오미인 것을 고려하며 월트키-오코너가 제시한 실행적 완료의 모든 예들이 1 인칭이므로 실행적 완료가 룻 4:3 에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월트키-오코너가 실행적 완료의 예로 든 것 중 삼하 19:29(MT 30)과 룻 4:9 은 1 인칭 주어를 갖고 있지만 삼하 24:22-23 은 3 인칭 주어를 갖고 있으므로 부시가 모든 예들이 1 인칭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15] 삼하 24:22-23 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할 때 자신을 지칭하는 1 인칭 대명사("내가")를 사용하지 않고 3 인칭 고유명사인 자신의 이름("아라우나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것과 드리는 것이 동시적이고 동일하므로 삼하 19:29(MT 30)과 룻 4:9 처럼 1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비하여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말할 때 룻 4:3 의 완료

---

[14] *IBHS* 30.5.1d

서신적 완료:

[왕상 15:19] I am sending a gift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보냈으니(שָׁלַחְתִּי[샬라흐티])

[대하 2:13(MT 12)] I am sending a craftsman 내가 재주있는 사람을 보내오니(שָׁלַחְתִּי[샬라흐티])

실행적 완료:

[삼하 19:29(MT 30)] I order that you and Ziba to divide the fields

내가 이르노니(אָמַרְתִּי[아마르티])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룻 4:9] I acquire (here and now) 내가 (여기서 그리고 지금) 얻었다(קָנִיתִי[카니티])

[삼하 24:22-23] Arauna said, ... "Arauna gives all ... to the king."

아라우나가 말했다.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נָתַן[나탄])"

결심의 완료:

[룻 4:3] Naomi is going to sell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다(מָכְרָה[마흐라])

[창 23:11, 13] (Ephron) "I will give you the field...." 내가 당신에게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נָתַתִּי[나타티])

(Abraham) "I will pay the price of the field."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נָתַתִּי[나타티])

[렘 40:4] I will release you from your chains today.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겠다

(פִּתַּחְתִּיךָ[피타흐티하])

[15]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Bush(202)의 ["performative perfect," in which "not only are speaking and acting simultaneous, they are identical"(*IBHS* §30.5.1d), often rendered unambiguously in English by use of "hereby, herewith" (Campbell, 143-44, so understands our passage) 다음에 나오는] "It seems less likely that this is applicable here since all the examples that have been cited for Hebrew are first(!) person."이란 문은 "인칭"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아니므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מָכְרָה[마흐라]의 주어는 3 인칭 나오미이므로 인용문의 3 인칭 주어와 말하는 보아스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말하는 아라우나와 인용문의 3 인칭 주어 아라우나가 동일 인물인 삼하 24:22-23 의 경우와 룻 4:3 의 경우는 다르다. 4:3 의 완료 מָכְרָה[마흐라]가 1 인칭이 아니므로 실행적 완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מָכְרָה[마흐라]를 "she is hereby surrendering her right"라고 번역했다. 이 번역은 그가 실행적 완료라고 보는 4:9 의 완료 קָנִיתִי[카니티]에 대한 "I am hereby acquiring"이라는 번역과 비슷하고 그가 인용한 캠벨의 מָכְרָה[마흐라]에 대한 "she hereby offers for sale"이라는 번역과 비슷하다.

-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시적이고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실행적 완료라면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동일인이어야 가능하므로 4:3 의 מָכְרָה[마흐라]는 실행적 완료라는 좁은 범주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언과 동작의 시행의 동시성을 표현하는 동시적/즉석 완료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6]

⑥ 나오미의 사법적 권한은 무엇인가?

-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문—"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내놓았소"—은 아들이 없는 과부로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는 과부가 남편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과부는 레위인과 나그네/객/이방인과 고아와 함께 공동체가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어 있다(신 14:29; 16:11, 14; 26:12-13; 출 22:12; 신 24:17-21; 27:19; 욥 31:16-17; 사 9:17; 10:2; 렘 22:3; 슥 7:10).
- ⓑ유산에 관한 사례법으로 나오는 것은 미움 받는 아내의 소생인 장자의 권리가 보장된 것(신 21:15-17)과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고 5 명(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의 딸만 있었을 때 딸들이 지파내의 친족의 남자들과 결혼하여 기업이 친족 밖으로 가지 않도록 한 것(민 27:1-7; 신 36:6-9)이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문제 해결책을 주신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은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을 받을 순서이다. 그 순서는 그 죽은 자의 "딸-형제-아비의 형제-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되어 있고(민 27:8-11) 과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그런데 과부가 재산과 토지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다(예: 삿 17:2-4 미가의 어머니; 삼하 15:5-11 두 아들을 둔 과부; 왕하 8:1-6 아들을 둔 수넴 여인). 그러나

---

[16] GKC 106i 는 동시적/즉석완료(instantaneous perfect)에 대하여 "In direct narration to express actions which, although really only in process of accomplishment, are nevertheless meant to be represented as already accomplished in the connection of the speaker"라고 설명하고 창 14:22; 렘 22:5; 신 8:19; 삼하 17:11, 삼하 19:30; 욥 9:22; 32:10 을 그 예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둔 경우이다. 잠 15:25 의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라는 언급도 여호와께서 과부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 ⓓ유산 문제에 대하여 과부가 갖는 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구약에 기록된 사례법들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례법들에 근거하여 과부가 남편의 유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구약의 유산 제도에 의하면 토지가 원래 제비뽑아 분배 받았던 친족 안에서 보존되어야 하고 토지에 대한 권한은 친족 안에 있었다. 토지 유산은 일차적으로 아들(들)이 물려받았고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물려받지만 그 경우 친족 안의 남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기업은 친족 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경우 과부가 남편의 토지 용익권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과부가 재혼하거나 죽으면 남편의 토지가 친족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부 재산의 귀속의 순서는 남편의 형제-남편의 아버지의 형제-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문을 통하여 우리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딸도 없는 과부로서 남편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갖게 된 나오미가 그 용익권을 양도하려고 내 놓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⑦ 나오미의 기업 무름은 사전 기업 무름(preemption)인가 아니면 사후 기업 무름(redemption)인가?

- ⓐ나오미가 갖게 된 남편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밭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용익권을 내놓고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무르라고 한 것은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무르라고 한 렘 32 장의 경우처럼 사전 기업 무름(선매 preemption)과 같은 일일 것이다. 기근이 끝나면 돌아올 목적으로 모압으로 간 것(Sasson, 113) 그리고 기근 시에 기업 무를 자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Rudolph, 66-67)은 엘리멜렉이 밭을 팔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밭이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란 점에서 밭주인이 없는 동안 10 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엘리멜렉이 친족이나 친구에게 관리를 맡겼거나(Sasson, 113), 아니면 수넴 여인(왕하 4:8-27; 8:1-6)의 경우처럼 엘리멜렉이 내버리고 갔으나 누군가 내버려 둔 것을 경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Campbell, 157; Rudolph, 66; cf. Hubbard, 53). 그러나 사전 기업 무름은 이야기의 일관성 면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삭줍기를 통하여 삶을 꾸려 간 것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증인들 앞에서 은 17 세겔을 달아주고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교할 때 룻기의 경우에 당사자 나오미도 없고 가격에 대한 언급도 없고 매매증서 작성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 그리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마음을 바꾼 것도 사전 기업 무름(선매)으로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Bush, 214-15).

- ⓑ그렇다면 과부로서 나오미가 갖게 된 남편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이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으로 레 25:25 처럼 사후 기업 무름(redemption)을 통하여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Gordis, "Love, Marriage, and Business, 252-59; Bush, 213, 215". 이것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나오미의 절규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기에 남편의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룻이 이삭을 주운 것과 일치하므로 이야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을 내놓았다."라는 보아스의 말은 나오미가 여인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신분도 없고 되찾아 올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밭의 용익권을 친족으로서 기업 무름을 통하여 되찾는 일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7. 룻 4:4

1) 원문 문제

(룻 4:4) וַאֲנִי אָמַרְתִּי אֶגְלֶה אָזְנְךָ לֵאמֹר קְנֵה נֶגֶד הַיֹּשְׁבִים וְנֶגֶד זִקְנֵי עַמִּי אִם־תִּגְאַל גְּאָל
וְאִם־לֹא יִגְאַל הַגִּידָה לִּי [כ= וְאֵדַע] [ק= וְאֵדְעָה] כִּי אֵין זוּלָתְךָ לִגְאוֹל וְאָנֹכִי אַחֲרֶיךָ
וַיֹּאמֶר אָנֹכִי אֶגְאָל׃

① 대명사 אֲנִי는 강조인가(Campbell, Sasson) 아니면 구어에서 정상적인 것인가(McDonald, *BO* 32 [1975]: 166-167; Bush, 206)?

② אָמַרְתִּי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말하다"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말하다, 생각하다"인가? 완료 אָמַרְתִּי의 용법은 과거인가 아니면 즉석 완료로서 현재인가?

③ אֶגְלֶה는 미완료형(B24)인가 청유형(B44)인가(GKC 751)? אֶגְלֶה אָזְנְךָ(to uncover the ear)의 의미는 "알리다"인가 아니면 "명령하다"인가? אֶגְלֶה אָזְנְךָ의 목적어는 삼상 20:2, 12, 13; 22:17 처럼 앞선 문의 내용(4:3)인가 아니면 삼상 9:15; 삼하 7:27 처럼 לֵאמֹר다음에 오는 내용(4:4)인가?

④ לֵאמֹר의 역할은? אֶגְלֶה אָזְנְךָ의 내용을 인용하는 인용부호 같은 것인가? 아니면 אֶגְלֶה אָזְנְךָ의 결과나 목적을 소개하는 것인가?

⑤ קְנֵה의 의미는 "사다(buy)"인가? 아니면 "얻다, 취하다(acquire)인가? קְנֵה의 생략된 목적어는(WHS 588; GBH 146i[2])?

⑥ נֶגֶד הַיֹּשְׁבִים וְנֶגֶד זִקְנֵי עַמִּי에서 וְ는 다른 두 그룹을 연결하는 접속사인가? 아니면 앞의 그룹을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인가?

⑦ עִמִּי의 접미대명사(1 인칭 공성 단수)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배제한 보아스만을 지칭하기 위한 것인가? 3:18 에서 나오미가 "우리가 알기까지"라고 하지 않고 "네가 알기까지"라고 한 것과 비교하라.

⑧ אִם־תִּגְאַל에 나오는 미완료형의 용법은? (cf. WHS 171; GBH 113n)

⑨ וְאִם־לֹא יִגְאַל에서 문맥상 3 인칭 יִגְאַל은 2 인칭 (　　)로 고쳐야한다.

⑩ וְאֵדְעָ의 K 는 (　　B24)이고 Q 는 (　　B44)이다.

⑪ הַגִּידָה לִּי וְאֵדְעָ에서 명령형+청유형을 연결하는 접속사 바브의 역할은?

⑫ כִּי의 용법은?

⑬ כִּי אֵין זוּלָתְךָ לִגְאֹול וְאָנֹכִי אַחֲרֶיךָ는 한 전치사가 둘 이상의 목적어를 취할 때 전치사를 반복하여 כִּי אֵין לִגְאֹול זוּלָתְךָ וְזוּלָתִי אַחֲרֶיךָ처럼 쓰일 것이 도치됨으로써 (　　)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זוּלָתִי(전치사와 접미대명사)로 표현하는 대신 자립대명사를 씀으로써 (　　)를 강조하고 있다.

⑭ אָנֹכִי אֶגְאָל에서 대명사는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인가(McDonald, *BO* 32 [1975]: 166-67)?

2) 주석

룻 4:4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취하시오. 당신이 무르고 싶으면 무르시오. 그러나 당신이 무르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시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곤 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 그러자 그는 "내가 무르고 싶소."라고 대답했다.

① 나오미가 그녀의 남편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양도하려고 내 놓았다는 것을 말한 후 보아스는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엘리멜렉 밭의 **용익권을 취하라**는 제의를 하였다. 명령형(קְנֵה[크네])으로 시작되는 보아스의 제의 앞에 나오는 절의 구문과 의미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וַאֲנִי אָמַרְתִּי אֶגְלֶה אָזְנְךָ לֵאמֹר קְנֵה [바아니 아마르티 에글레 오즈느하 레모르 크네]에 대한 몇 가지 번역을 들면 다음과 같다.

NKJV: And I thought to inform you, saying, 'Buy

NASB: So I thought to inform you, saying, 'Buy [it]

RSV/NRSV: So I thought I would tell you of it, and say, Buy

NIV: I thought I should bring the matter to your attention and suggest that you buy

Campbell: Then I, for my part, said I would inform you, to this effect: Buy

Sasson: For my part, I am declaring: Let me publically enjoin you to purchase

Hubbard: Now for my part, I hereby say, let me inform you as follows: Buy

Bush: And I thought I should inform you of it and say, 'Acquire

②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4:4 에서 동사의 굴절형에 주어가 표시되므로 구문적으로 반드시 쓸 필요가 없지만 인칭 대명사 [아니]가 문두의 주어 자리에 온 것은 토픽을 제시하며(to present a Topic) 보아스가 자신을 기업 무름의 문제에 포함시킨 것을 드러내고 있다(Holmstedt, 187).[17] ⓑ동사 אָמַרְתִּי[아마르티]는 "상대방에게 말하다(Campbell, Sasson, Hubbard)"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다, 생각하다(대부분의 영어 번역, Bush)"라는 의미로 쓰였고 완료형이다. ⓒ이 완료형 동사 אָמַרְתִּי[아마르티]는 앞에 나온 מָכְרָה[마흐라]처럼 즉석/실행 완료(Sasson, Hubbard)로서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과거(대부분의 영어 번역, Bush)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동사의 의미와 완료용법은 나오미가 남편의 밭의 용익권을 양도하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보아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완료형과 청유형의 형태가 같은 미근 헤 동사인 אֶגְלֶה[에글레]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서법적인 미완료형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역본과 학자들의 번역처럼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청유형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GKC 751). ⓔ구약에서 동사 גלה[갈라]는 명사 אֹזֶן[오젠]을 목적어로 취하여 "to open someone's ears 귀를 열다" 즉 "to inform someone 알리다"는 의미로 쓰였다.[18] 알리는 내용은 삼상 20:2, 12, 13; 22:17 처럼 문맥상 암시되는 경우도 있고[19] 삼상 9:15; 삼하 7:27 처럼 명시적으로 לֵאמֹר[레모르]

---

[17] Holmstedt 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문두에 주어로 나오는 인칭대명사가 토픽 혹은 포커스(Topic, or Focus)를 위한 것이지만 여기 4:4 의 [아니]는 토픽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Campbell(144)도 주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Hubbard(239)는 문두의 [아니]를 강조를 위한 것으로 보고 나오미와 밭으로부터 두 친척에게로 관심이 옮겨진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보아스의 역할에 대하여 대중이 가질 수도 있는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Bush(206)은 McDonald, *BO* 32 (1975): 166-67 에 근거하여 문두의 [아니]는 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어에서 정상적으로 주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Block(*Ruth* ZECOT, 210, n. 44)은 룻 4:4 의 주어-동사의 어순(אֲנִי אָמַרְתִּי)이 보다 더 흔한 동사-주어의 어순(אָמַרְתִּי אֲנִי בְּלִבִּי 전 2:1; 3:17, 18)과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18] *KB* 191 은 사람과 하나님이 각각 주어로 나오는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주어: 사람] 삼상 20:2, 12-13; 22:8, 17

[주어: 하나님] 삼상 9:15; 삼하 7:27; 욥 33:16; 36:10, 15; 대상 17:25

[19] [삼상 20:2, 12-13] (2)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u>내게 알리지</u>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u>네게 알리지</u> 않겠느냐 (13)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u>네게 알려</u>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음에 언급되기도 한다.[20] ⓕ룻 4:4 의 경우 삼상 9:15 와 삼하 7:27 처럼 אֶגְלֶה אָזְנְךָ[에글레 오즈느하] 다음에 לֵאמֹר[레모르]가 온다. 그런데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알리는 내용은 문맥상 룻 4:3 에서 밝힌 나오미가 밭의 용익권을 양도하려고 내놓은 것을 가리키며 לֵאמֹר[레모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보아스가 제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룻 4:4 이 삼상 9:15 이나 삼하 7:27 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לֵאמֹר[레모르]는 삼상 9:15 이나 삼하 7:27 처럼 알리는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 영어의 콜론이나 인용부호와 같지만 룻 4:4 의 경우 목적이나 결과의 부사적 부정사로 보는 것이 옳다(Bush, 206). 본 주석의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 . . ([그것을] 취하시오.)**"라는 번역은 לֵאמֹר[레모르]를 결과의 부사적 부정사로 본 것을 반영한다.

③ 보아스가 제안한 것은 명령형(קְנֵה[크네])으로 시작하는데 이 명령형 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목적어가 생략된 것은 문맥상 암시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며(WHS 588; GBH 146i[2]) 생략된 목적어는 나오미가 양도하려는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이므로 전절의 מָכְרָה[마흐라]를 "팔다" 대신 "내놓았다"로 번역한 것처럼 여기 קְנֵה[크네]도 "사시오." 대신 "**취하시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Bush, 206-207).

④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나오미가 내 놓은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일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נֶגֶד הַיֹּשְׁבִים וְנֶגֶד זִקְנֵי עַמִּי [네게드 하요시빔 브네게드 지크네 아미]) 하라고 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 먼저 문맥을 살펴보자. 3:18-4:2 의 문맥에서 [야샤브]("앉다, to sit")라는 동사는 법적 집회의 당사자들이 적절히 앉아 있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3:18 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법적 집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앉아 있으라고 하고, 4:1 에서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법적 집회를 열기 위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보고 불러 앉게 하고 4:2 에서 보아스는 10 명의 장로를 불러 앉게 했다.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나오미와 관련된 친족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삼상 22:17]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20] [삼상 9:15-16] (15)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삼하 7: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개역: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당사자이고 10 명의 장로들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증인들이다. 이런 문맥에서 4:4 의 "앉아 있는 사람들"은 법적 집회를 보기 위해 모인 백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불러 앉게 한 10 명의 장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Campbell, 145).

- 다음으로 구문을 살펴보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은 모두 앞에 전치사 [네게드]를 갖고 있고 접속사 וְ[브]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Joüon(E 78)은 첫 번째 전명구 "In front of those who are seated"가 두 번째 전명구 "in front of the elders of my people"에 의하여 명확해지고 제한되는("is made precise or limited by") 것으로 보며 접속사 [브]를 동격의 접속사로 보았다. NEB 는 "In the presence of those who sit here, in the presence of the elders of my people"라고 접속사 "and" 없이 번역함으로써 두 전명구가 동격임을 보이고 있다. Holmstedt(188)는 두 전명구(PP) 사이에 있는 접속사 [브]를 동격의 접속사로 보고 전명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네게드 하요시빔]"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네게드 지크네 아미]가 동격이고 장소의 부사구(locative adjunct) 역할을 하며 두 번째 구에 들어있는 명사(NP) "내 백성의 장로들 [지크네 아미]"는 첫 번째 구의 명사 "앉아 있는 사람들[하요시빔]"을 더 분명히 정의하고("further defines") 있다고 설명한다.[21]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보아스가 불러온 10 명의 장로들이다.[22] 보아스가 장로들을

---

[21] Holmstedt, 188: "The appositional PPs נֶגֶד הַיֹּשְׁבִים and נֶגֶד זִקְנֵי עַמִּי are locative adjuncts. The NP זִקְנֵי עַמִּי inside the second PP further defines the first NP הַיֹּשְׁבִים." 대상 5:26(וַיָּעַר אֱלֹהֵי יִשְׂרָאֵל **אֶת־רוּחַ ו פּוּל** מֶלֶךְ־אַשּׁוּר **וְאֶת־רוּחַ תִּלְגַּת פִּלְנֶסֶר** מֶלֶךְ אַשּׁוּר)에서 직접목적어를 표시하는 불변화사 [에트]가 반복되고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된 동격을 볼 수 있다(ESV: "So the God of Israel stirred up **the spirit of Pul** king of Assyria, **the spirit of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NASB: "So the God of Israel stirred up **the spirit of Pul**, king of Assyria, **that is, the spirit of Tilgath-pilneser** king of Assyria"; GNT: "So God caused Emperor Pul of Assyria (**also known as** Tiglath Pileser)"; NIV: "So the God of Israel stirred up the spirit of Pul king of Assyria (**that is,**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동격의 구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바브에 대하여 GKC 154a, n. 1[b]와 WHS 434 와 IBHS 39.2.4 을 참고하라.

[22] Campbell(145)은 전치사 [네게드]가 반복된 것에 주목하며 두 그룹을 다르게 보고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아스가 불러온 장로 10 인이고 **(내) 백성의 장로들**은 10 명의 앉아 있는 장로들이 대표하는 베들레헴 성 전체의 장로들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용익권 취득의 문제가 성문에 열린 법적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을 감안하면 **내 백성의 장로들**이 이 법적 모임 자리에 없는 성 전체의 장로들이라고 확장시켜 해석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Sasson(117)은 Brichto(*The Problem of Curse in the Hebrew Bible*, 160-161)를 따르며 왕상 21:8, 11 에 근거하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행정 장관(magistrates)"으로 번역하였다. Sasson 은 타르굼이 "산헤드린 법정의 문에 앉아 있는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Bush(207)는 룻 4:4 의 문맥이 Gottwald(*Tribes of Israel*, 512-32)가 여러 문맥에서 정한 "지배자, 행정 당국자(rulers, authorities)"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Rudolph(59)처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문에 열린 법적 집회를 보고 모여 든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며 4:9, 11 에 "장로"와 함께 언급되는 "모든 백성"과

지칭할 때 "우리"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한 것은 3:18 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대신 "**네**가 알기까지"라고 한 것과 비슷하다. 나오미가 일의 결과를 아는 일에 대하여 자신을 배제할 의도 없이 말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Joüon, 82 [E 79]; Bush, 207).

⑤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나오미가 내놓은 밭의 용익권을 취하라고 제안하고서 기업을 무르는 일과 관련된 용어를 써서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첫 번째 안은 אִם־תִּגְאַל גְּאָל[임-티그알 그알] "**당신이 무르고 싶으면**, **무르시오**."이다. 여기 미완료형 תִּגְאַל[티그알]은 희구법을 표현하고 있다(WHS 171; GBH 113n; Bush, 207). 이것을 3:13 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 즉 אִם־יִגְאָלֵךְ טוֹב יִגְאָל[임-이그알레흐 토브 이그알] "그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겠다면, 좋소, 그로 당신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도록 합시다."와 비교하면 3:13 에서 "기업 무르다"란 동사의 목적어는 룻이었는데 4:4 에서 동사의 암시된 목적어는 밭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기업 무를 대상을 사람에서 밭으로 바꾸어 말한 것을 통하여 독자는 보아스가 어떤 기묘한 책략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Hubbard, 241).

⑥ 두 번째 안은 וְאִם־לֹא יִגְאַל הַגִּידָה לִּי וְאֵדָעָ [브임-로 이그알 하기다 리 브에다] "**그러나 당신이 무르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시오**."이다. 여기(4:4) 두 번째 안의 어구들과 3:13 의 보아스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과 같다.

[브임-로 이그알 . . . 브아노히]	וְאִם־לֹא יִגְאַל . . . וְאָנֹכִי (4:4)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3:18-4:2 의 법적 집회의 문맥에서 당사자들이 앉은 것을 말한 후 4:4 에서 갑자기 방청객 백성을 소개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Hubbard(241)는 [네게드] ... [브네게드]가 나오는 삼상 12:3("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과 삼상 15:3("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과 삼하 12:12("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cf. NIV: "in broad daylight before all Israel"; ESV: "before all Israel and before the sun.")이 법적 선언의 맥락에 주어지고 전치사가 지배하는 대상이 다른 것처럼 룻 4:4 에 나오는 "앉아 있는 자들"과 "장로들"이 다른 두 대상으로 간주하고 첫 번째 구의 [하요시빔]이 법적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앉아 지켜보는 사람들("onlookers")로 4:9, 11 에 나오는 "[콜 하암] 모든 백성"과 동일한 대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룻 4:4 과 다른 성경 구절들의 [네게드] ... [브네게드]가 나오는 것은 같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의 경우 두 대상이 다르다고 하여 룻 4:4 도 다른 대상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전치사나 불변화사가 반복되고 접속사 바브로 연결된 경우 동격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문법과 어긋난 설명이 될 수 있다. 물론 같은 전치사의 반복 여부와 접속사 바브의 사용 여부는 동격 구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전치사가 여러 대상을 지배할 때 전치사를 반복하여 쓰기도 하고 한 번만 쓰기도 하며(WHS 238) 접속사 바브에 의하여 연결되지 않은 동격의 구들에 전치사가 자주 반복되기도 한다(GKC 131h; GBH 132g).

당신이 무르고 싶지 않으면 . . .

내가

[브임-로 야흐포츠 르고올레흐 우그알티흐 아노히] וְאִם־לֹא יַחְפֹּץ לְגָאֳלֵךְ וּגְאַלְתִּיךְ אָנֹכִי (3:13)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⑦ 위의 두 구절을 비교하면 두 번째 안(4:4)이 3:13 에서 보아스가 했던 약속을 반영하며 보아스가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본문비평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조건절에 나오는 יִגְאַל[이그알]은 미완료 3 인칭 남성 단수로 너무 어려운 독법을 보이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과 일치하는 2 인칭 단수 תִּגְאַל[티그알]로 고쳐 읽는 것이 좋으며 이 미완료형도 역시 희구법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동사 הַגִּידָה[하기다]는 명령형으로 강조하는 어미 ָה [아]가 붙어 있다. 마지막 동사 אֵדְעָ[에드아]는 크티브 자음 אדע[알렙 달렛 아인]에 크레 אֵדְעָה[에드아]의 모음이 결합된 혼성어이다. 크티브는 모음을 붙이면 אֵדַע[에다]로서 미완료형이고 크레 אֵדְעָה[에드아]는 청유형이다.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된 명령형과 청유형 즉 הַגִּידָה וְאֵדְעָ [하기다 브에드아]는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가지며 두 번째 절이 목적이나 결과를 표시하는 부사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הַגִּידָה וְאֵדְעָ [하기다 브에드아]는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알게 될 것이오." 혹은 "내가 알 수 있도록 말하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보아스가 첫 번째 안과 같이 두 번째 안에서도 동사의 목적어로 룻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첫 번째처럼 두 번째도 기업 무르는 일이 오직 밭과 관련된 일로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⑧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라고 말하고서 כִּי[키]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곤 기업 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 이 부사절을 통하여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을 내 놓은 나오미를 위하여 기업 무르는 책임을 이행할 사람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 자신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 אֵין זוּלָתְךָ לִגְאוֹל וְאָנֹכִי אַחֲרֶיךָ [엔 줄라트하 리그올 브아노히 아하레하]는 אֵין לִגְאוֹל זוּלָתְךָ וְזוּלָתִי אַחֲרֶיךָ [엔 리그올 줄라트하 브줄라티 아하레하]처럼 전치사를 반복하여 쓰지 않았다. 이 절은 두 가지 강조 표현을 갖고 있다(Bush, 210). ⓐ부정사 לִגְאוֹל[리그올] 앞에 접미대명사를 지닌 전치사 זוּלָתְךָ[줄라트하]를 놓음으로써 도치를 통해 전치사를 강조하고, ⓑ전치사+접미대명사로 된 זוּלָתְךָ[줄라트하] 다음에 올 것으로 기대되는 전치사+접미대명사로 된 זוּלָתִי[줄라티]를 쓰지 않고 자립대명사 אָנֹכִי[아노히]를 씀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보아스의 말은 "**당신이외에는** 기업 무를 자가 없음"을 먼저 인식시키고 만일 그가 물러설 경우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면 기업 무를 자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 중 어느 누가 나오미를 위하여 기업 무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미는 기업 무를 사람이 없게 되고 친족 엘리멜렉의 밭은 친족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손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었다. 보아스의 말은 보아스 자신이 기업 무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암시함으로써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이끌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경쟁심을 자극하였을지도 모른다(Hubbard, 242).

⑨ 보아스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 대하여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אָנֹכִי אֶגְאָל [아노히 에그알] **내가 무르고 싶소**."라고 첫 번째 안을 선택하는 말을 하였다. 부시(210)은 맥도널드(McDonald, *BO* 32 [1975]: 166-67)을 따르며 정상적인 구어체 히브리어에서 인칭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한 것이므로 강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모리스(303)와 허버드(242)는 אָנֹכִי אֶגְאָל [아노히 에그알]에서 대명사 אָנֹכִי[아노히]가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홀름스테트(189)도 "포커스(Focus)"를 위해 인칭 대명사 [아노히]를 사용하며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가 아니라 자신이 무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완료형 גָּאַלְתִּי[가알티]를 써서 즉석/실행 완료 즉 "내가 지금 무르겠소(I hereby exercise my right)."처럼 현재 실행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나타내지 않고 소원이나 의향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אֶגְאָל[에그알]을 써서 보아스의 어떤 다른 제안들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Bush, 210).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은 "**내가 무르고 싶소.**"라는 번역에서 보듯이 실제로 일어나는 기업 무름이 아니라 그의 기업 무를 의향을 보이고 있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횡재하는 기분이 들어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다. 사실상 이 기업 무름에는 손해 볼 것이 없었다. 친족 엘리멜렉의 밭을 무르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투자가 되는 셈이었다. 늙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밭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풍부한 소출이 나올 것이며 설사 희년(레 25:13-17)이 되어도 그의 소유로 계속 남아 그의 상속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서도 친족으로서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했다는 좋은 평판을 얻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이처럼 좋은 횡재를 생각하며 미소를 짓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가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는가?

⑩ 법적 회의 진행이 이처럼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독자들은 아마도 어리둥절하였을 것이다. 룻의 결혼 문제는 언제쯤 다루어질 것인가? 보아스가 3:13 의 약속을 반영하는 어구를 사용하며 말하는 두 가지 안을 들으며 독자들은 기업 무를 자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보아스가 사실상 룻의 결혼 문제를 교묘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이고, 동시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긍정적인 반응은 독자들에게 불길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Hubbard, 242). 그 사람이 밭의 용익권을 취하면 룻도 역시 취할 것이 아닌가? 바보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만일 그가 밭의 용익권도 취하고 룻도 취하면 이야기는 무의미한 행복, 아니 허울만의 행복(hollow

happiness)으로 끝나 버리며 연애(romance)가 규정(regulation)에 굴복하고 사랑이 적법성(legality)에 항복하고 말았을 것이다(Hubbard, 243). 정말 보아스의 마음에 기민한 계획이 없었다면 말이다.

68. 룻 4:5

1) 원문 문제

(룻 4:5) וַיֹּאמֶר בֹּעַז בְּיֹום־קָנֹותְךָ הַשָּׂדֶה מִיַּד נָעֳמִי
וּמֵאֵת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כ= קָנִיתִי] [ק= קָנִיתָ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① מִיַּד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복합전치사 מֵעִם(삼상 24:21)과 מֵאֵת(레 27:24)처럼 단순 전치사 מִן과 의미가 같은가(cf. 레 25:44, 45)?

② וּמֵאֵת רוּת는 מִיַּד נָעֳמִי와 병행하는 구인가(칠십인역)? 아니면 וּמֵאֵת는 גַּם אֵת(Vulgate; BHS Ruth editor Robinson; Rudolph, 59)나 וְגַם אֵת(Hubbard, 237, n. 8; Sasson, 122; Joüon, 83 [E 79]) 혹은 וְאֵת(Gray, C. H. Gordon)로 정정해야 하는가? וּמֵאֵת는 접속사 וְ+ enclitic mem(전접사 m) + 직접목적어를 표시하는 불변화사 אֵת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가(Bush, 217; Campbell, 146; cf. Andersen, *Hebrew Verbless Clause*, 48, 124, n. 13; Gordon, "*WM*- 'and' in Eblaite and Hebrew," 29; Rensburg, "Eblaite *Ù-MA* and Hebrew *WM*," 33-34)?

③ קָנִיתִי는 K를 따라 קָנִיתִי로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Q를 따라 קָנִיתָ로 읽어야 하는가? 이 동사의 목적어는 (암시되므로 생략된) 밭인가 아니면 룻인가? 룻이 목적어라면 이 동사의 의미는?

④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의 문법적인 관계를 설명하면?

⑤ לְהָקִים שֵׁם־הַמֵּת의 의미는(참고, 신 25:5-10; 창 38:8)?

2) 주석

룻 4:5 보아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그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날에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이 취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할 것이오."

① 횡재하는 듯한 기분으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기업 무르는 책임을 이행하고 싶다고 말할 때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룻과의 결혼 문제를 꺼내며 다시 **말했다**. 보아스의 말의 첫 부분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그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날에** בְּיֹום־קָנֹותְךָ הַשָּׂדֶה מִיַּד נָעֳמִי[브욤-크노트하 하싸데 미야드 노오미]"에서 מִיַּד[미야드](직역: ~의 손으로부터)는 복합전치사 מֵעִם[메임](삼상 24:21)과 מֵאֵת[메에트](레 27:24)처럼 단순 전치사 מִן[민]과 의미가 똑같다(cf. 레 25:44, 45). 다시 말하면, מִיַּד[미야드]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바로 다음에 나오는 "וּמֵאֵת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כ= קָנִיתִי] [ק= קָנִיתָה]" [우메에트 루트 하모아비야 에셰트-하메트 카니타]"라는 절의 첫 단어 וּמֵאֵת[우메에트]와 끝 단어 קָנִיתָי[카니타]에 대하여 구문적 논의가 분분하다. 먼저 칠십인역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첫 두 단어 וּמֵאֵת רוּת[우메에트 루트]를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칠십인역의 "καὶ παρὰ Ῥούθ [카이 파라 루스] 그리고 룻으로부터"라는 번역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앞의 מִיַּד נָעֳמִי [미야드 노오미] "나오미(의 손으로)부터"와 병행하는 구로 볼 수 있다. 이 독법의 주된 문제점은 동사 קָנִיתָי[카니타]의 직접목적어가 없다는 점이다.
- 칠십인역은 크티브 קָנִיתִי([카니티] 1 인칭주어)보다는 크레를 지지하는 것처럼 קָנִיתָה[카니타](=완료 2 인칭 남성 단수, 즉 앞에 나오는 룻을 목적어로 삼고 읽는 독법) 혹은 קָנִיתָהּ[카니타흐](=완료 2 인칭 남성 단수 + 룻을 가리키는 3 인칭 여성 접미대명사, 즉 "그녀"(=룻)를 목적어로 명시한 독법)처럼 번역하였다.
- 브렌톤(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 353-354)에 의하면, 칠십인역이 וּמֵאֵת[우메에트]에 상응하는 καὶ παρὰ (Ῥούθ) [카이 파라 (루스)]를 갖고 있고 קָנִיתָהּ[카니타흐]에 상응하는 καὶ αὐτὴν κτήσασθαί σε δεῖ [카이 아우텐 크데싸스사이 쎄 데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융합된 독법을 보이는 칠십인역은 "In the day of thy buying the field of the land of Noemin <u>and of Ruth</u> . . ., thou must also buy <u>her</u> . . . 네가 나오미와 *룻으로부터* 밭을 살 때 . . . 너는 *또한 그 여자를[=룻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번역된다. 따라서 칠십인역은 맛소라 본문의 독법과 로빈슨(Robinson)이 *BHS* 에 제안한 독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③ BHS 의 룻기 편집자 로빈슨은 각주 *a* 에서 벌게이트역이 "also, too"를 뜻하는 *quoque* 로 읽은 것을 지적하고 동사 קָנִיתָי[카니타]의 목적어가 룻이라고 여기며 칠십인역의 지지를 받는 וּמֵאֵת[우메에트]를 גַּם אֶת־ [감 에트]로 정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허버드(237, n. 8)는 로빈슨처럼 גַּם אֶת־ [감 에트]로 고쳐 읽은 루돌프(59)의 입장을 반대하며 그 이유로 절의 후반부가 접속사 바브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고 וּמֵאֵת[우메에트]를 접속사를 가진 וְגַם אֶת־ [브감 에트]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새슨(122)도 허버드처럼 וּמֵאֵת[우메에트]를 וְגַם אֶת־ [브감 에트]로 정정하여 읽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고 룻 4:10 에 나오는 וְגַם אֶת־ [브감 에트]와 잘 조화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새슨은 그레이(Gray)와 고든(C. H. Gordon)이 자음 מ[멤]을 실수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고 וּמֵאֵת[우메에트]를 וְאֵת[브에트]로 읽은 것을 소개하며 וְגַם אֶת־[브감 에트] 다음으로 선호하는 제안으로 여겼다.

- 캠벨(146)은 많은 학자들이 וְגַם אֶת־[브감 에트]를 선호하지만 정정하지 않고 וּמֵאֵת[우메에트]를 접속사 바브+전접사 멤(enclitic mem)+직접목적어 표시 불변화사의 결합으로 보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린다고 하였다. 그는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바브 다음에 오는 전접사 멤은 이론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앤더슨(F. I. Andersen,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48 and 124, n. 13)의 연구를 지적하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부시(217)는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바브와 전접사 멤의 결합 가능성에 대하여 에블라어의 증거(Gordon, "*WM*- 'and' in Eblaite and Hebrew," 29; Rensburg, "Eblaite *ù-MA* and Hebrew *WM*," 33-34)를 지적하였다.

④ 이제 맛소라 본문 וּמֵאֵת[우메에트]에 들어 있는 접속사 바브의 유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자.

- וּמֵאֵת[우메에트]를 גַּם אֶת־[감 에트]로 정정할 것을 제안하는 벌게이트역과 로빈슨 그리고 루돌프는 접속사 바브가 없는 독법을 지지한다.
- 그러나 וּמֵאֵת[우메에트]를 וְגַם אֶת־[브감 에트]로 정정하기를 제안하는 허버드와 새슨 그리고 וּמֵאֵת[우메에트]를 있는 그대로 접속사 바브와 전접사 멤과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캠벨과 부시 등은 접속사 바브가 있는 독법을 지지한다.
- 지금 논의하고 있는 4:5 의 전반부 בְּיוֹם־קְנוֹתְךָ הַשָּׂדֶה מִיַּד נָעֳמִי[브욤-크노트하 하싸데 미야드 노오미]가 부정사 구문의 부사구이므로 וְגַם אֶת־ [브감 에트]나 접속사+전접사+불변화사로 된 וּמֵאֶת[우메에트]처럼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면 비정상적인 구문이 된다. (참고로 말하면 4:5 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구문적으로 대조되는 4:9 과 4:10 은 각각 똑같은 정형동사 קָנִיתִי[카니티] 그리고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 אֶת־와 목적어를 갖는 두 개의 절이 접속사 바브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 접속사 바브가 필요 없는 4:5 의 구문은 원래의 독법을 찾는 데 있어서 바브가 있는 וּמֵאֵת[우메에트]나 וְגַם אֶת־[브감 에트]를 지지하지 않고 גַּם אֶת־[감 에트]를 지지한다. 이것은 원래 גמאת[기멜-멤-알렙-타브]로 되어 있는 자음을 ומאת[바브-멤-알렙-타브]로 읽은 데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본문 비평에서 바브(ו)와 기멜(ג)의 혼동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실수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로빈슨, 루돌프, 벌게이트역처럼 וּמֵאֵת[우메에트]를 גַּם אֶת־[감 에트]로 정정하여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⑤ 논의해 오고 있는 절의 끝 단어 קָנִיתָי[카니타]는 크티브 자음 קניתי에 크레 קָנִיתָ(네[=기업무를 자]가 취하다)의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혼성어이다. 크티브 자음대로 읽으면 기본능동 완료 1 인칭 공성 단수 동사 קָנִיתִי[카니티](내[=보아스]가 취하다)로 읽어야 한다.

- 베아티(D. R. G. Beattie, "Kethibh and Qere in Ruth iv 5," *Vetus Testamentum* 21 [1971]: 490-94; *VT* 24 [1974], 261-64)와 새슨(122-31)이 크티브를 선호하지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Bush, 228).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나오미가 내놓은 밭의 용익권을 취하라고 했을 때

그가 취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나오미로부터 그것을 취할 때 밭과 별도로 크티브처럼 보아스 자신이 룻을 아내로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읽는 것은 기업과 기업의 후사를 얻기 위한 결혼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 칠십인역이나 벌게이트역이 명사 룻이나 룻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목적어로 삼고 크티브처럼 1 인칭 주어로 읽지 않고 크레처럼 2 인칭 주어로 읽은 것은 로빈슨이 제안한 것처럼 기본능동 명령형 קָנֵה[크네]가 원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절의 의미를 따라 번역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크레 자음이 קניתה이라면 קָנִיתָה[카니타](3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를 목적어로 갖지 않는 2 인칭 남성 단수: "네가 취하다")나 קָנִיתָהּ[카니타흐](3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를 목적어로 가진 2 인칭 남성 단수: "네가 그녀를 취하다")로 읽을 수 있다.
- 만일 קָנִיתָהּ[카니타흐]로 읽는다면 밭은 남성이고 룻은 여성이므로 קָנִיתָהּ[카니타흐]에 붙어 있는 3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는 룻이 목적어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독법이다. 이것은 칠십인역처럼 וּמֵאֵת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우메에트 루트 모아비야 에셰트 하메트]를 מִיַּד נָעֳמִי[미야드 노오미]와 함께 가는 병행구로 보고 동사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만 목적어로 보는 것이다.

קניתי = קָנִיתָהּ	הַמֵּת	אֵשֶׁת־	הַמּוֹאֲבִיָּה	רוּת	וּמֵאֵת	נָעֳמִי	מִיַּד	הַשָּׂדֶה	קָנִיתָהּ	בְּיוֹם־
V+ S+O	병행구 2 전명구					병행구 1 전명구		부정사의 목적어	부정사 +주어	전명구
동사문	부정사구 = 부사구									

- 만일 קָנִיתָה[카니타](“네가 취하다”)로 읽으며 וּמֵאֵת를 גַּם אֶת־로 정정하여 읽으면 "밭"은 부정사 구문의 목적어가 되고 "룻"은 동사문의 목적어가 되어 4:9 그리고 4:10 에 명시된 내용과 같게 된다. 이것이 제일 좋은 독법으로 보인다.

קניתי	הַמֵּת	אֵשֶׁת־	הַמּוֹאֲבִיָּה	רוּת	*ומאת*		נָעֳמִי	מִיַּד	הַשָּׂדֶה	קָנִיתָהּ	בְּיוֹם־
קָנִיתָה	הַמֵּת	אֵשֶׁת־	הַמּוֹאֲבִיָּה	רוּת	אֶת־	גַּם	נָעֳמִי	מִיַּד	הַשָּׂדֶה	קָנִיתָהּ	בְּיוֹם־
동사-주어	목적어					부사	전명구		목적어	부정사-주어	전명구
동사문						부사	부정사구 = 부사구				

- 기업 무르는 일에 있어서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일을 나타낼 때 쓰인 동사 קנה[카나]는 룻을 목적어로 삼을 경우 뒤 따르는 구절이 설명하는 대로 기업을 이를 후사를 얻을 수 있도록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허버드(243)는 이 동사들을 결정적인 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법적 완료(legal perfect)로 보며 문맥상 현재(you thereby purchase)로 번역할 것을 주장하였다. 허버드가 말한 법적 완료는 부시의 즉석 완료와 비슷한 점이 있다. 4:3 의 מָכְרָה[마흐라]처럼 여기 קָנִיתִי[카니타]도 현재를 나타내는 즉석 완료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지금까지 논의한 וּמֵאֵת[우메에트]와 קָנִיתִי[카니타] 사이에 오는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루트 하모아비야 에셰트-하메트]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서 **모압 여인 룻**과 **고인의 아내**는 서로 동격을 이루고 있다. 보아스는 법적 회의의 과정에서 룻을 언급할 때 이방 여인이므로 출신 민족과 이름을 밝히는 공식적인 성명(full name)을 사용하였다.

- **고인의 아내**에서 **고인**은 4:10 의 동격 어구 즉 "모압 여인 룻, 말론의 아내"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 말론을 지칭한다(KD, 488; Rudolph, 67; de Waard & Nida, 99, n. 20).
- 허버드(243)는 엘리멜렉이 언급되는 4:3 에 비추어 **고인이** 엘리멜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고인의 아내**란 동격 어구가 사실상 룻을 엘리멜렉의 과부 즉 기업의 후사를 낳을 목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용납될 만한 나오미의 대리가 된 것(cf. Joüon, 83 [E 79]; Witzenrath, 265-266)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아들을 뜻하는 בֵּן[벤]이 대하 22:9(여호사밧-여호람[+아달랴]-아하시야-요아스의 계보에서 보듯이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의 손자인데 개역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번역함)나 창 31:55(MT 32:1 라반의 손자들) 등에서 보듯이 손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고인**이 엘리멜렉이라면 아내를 뜻하는 אֵשֶׁת[에셰트]는 "며느리"의 의미로 쓰인 셈인데 그런 예는 구약에 없다. 창 38 장은 다말을 유다의 며느리로 언급할 때 כַּלָּה[칼라]를 사용하고 있다.
- "הַמֵּת[하메트] **죽은 자** = **고인**"이란 용어가 룻기에서 1:8; 2:20; 4:5; 4:10 에 나오는 것을 고려해보면 4:5 의 "**고인**"이 가까이에 언급된 4:3 의 엘리멜렉을 가리킨다고 볼 필요가 없고 4:10 에 비추어 말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업을 이을 후사를 낳는 일에 있어서 연령상 나오미는 불가능하고 룻은 가능한 상황에서 후사를 잇게 하려면 그 기업 무를 자가 **고인의 아내** (즉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취하여야 할 것임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⑦ 보아스는 그 기업 무를 자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야 할 목적이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기 위한**(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르하킴 셈-하메트 알-나할라토]: (직역)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어구는 여기와 룻 4:10 에만 나오며 몇몇 한글과 영어 역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개역: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개역개정: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새번역: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쉬운성경: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우리말성경: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KJV: to raise up the name of the dead upon his inheritance

NKJV: to perpetuate the name of the dead through his inheritance

NASB: in order to raise up the name of the deceased on his inheritance

RSV: in order to restore the name of the dead to his inheritance

NRSV: to maintain the dead man's name on his inheritance

NIV: in order to maintain the name of the dead with his property

⑧ 이 어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이와 의미가 매우 흡사한 병행어구들, 즉 신 25:5-10 과 창 38:6-26 에 나오는 3 가지 어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 25:5-10 은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로 형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수혼/계대결혼(嫂婚/繼代結婚 levirate marriage)에 대한 규례이고, 창 38:6-26 은 수혼 문제와 관련된 다말과 유다의 내러티브이다. 신 25:5-10 와 창 38:8 의 한글 개역은 다음과 같다.

[신 25:5-10] (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יָקוּם עַל־שֵׁם אָחִיו הַמֵּת [야쿰 알-셈 아히브 하메트] 직역: <u>그 죽은 형의 이름 위에 서게 하여</u>)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직역: <u>서게 하기를, 세우기를</u> לְהָקִים לְאָחִיו שֵׁם בְּיִשְׂרָאֵל [르하킴 르아히브 셈 브이스라엘])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לֹא־יִבְנֶה אֶת־בֵּית אָחִיו [로-이브네 에트-베트 아히브])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10)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개역: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창 38: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וְהָקֵם זֶרַע לְאָחִיךָ [브하켐 제라 르아히하])

⑨ 부시(220)는 히브리어 שֵׁם[셈](“이름”)이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민 1:2; 26:53; 사 66:22) 실질적으로 “자손, 후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지적한다(BDB, 1028, 2c). 따라서 그는 신 25:6 의 יָקוּם עַל־שֵׁם [야쿰 알-셈](~의 이름 위에 서다 “to stand for the ‘name’ of”)이 “to represent the person of ~를 대표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신 25:7 의 לְהָקִים שֵׁם [르하킴 셈](이름을 일으키다 “to raise up a name”)이 “to produce descendants 후손을 낳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신 25:7 의 לְהָקִים שֵׁם [르하킴 셈]의 병행어구인 신 25:9 의 יִבְנֶה אֶת־בֵּית [이브네 에트-베트](“to build up the house of” ~의 집을 세우다)와 창 38:8 의 הָקֵם זֶרַע [하켐 제라](“to raise up descendants” ~의 후손을 일으키다)를 통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신 25:6 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과 룻 4:10 의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 비슷한 것에 비추어 룻 4:5 와 4:10 의 לְהָקִים שֵׁם הַמֵּת [르하킴 셈-하메트](“고인의 이름을 세우는 것, 이름이 서게 하는 것, 이름을 잇는 것 to raise up the name of the deceased”)는 “to produce descendants for the deceased 고인의 후사를 낳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주석은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르하킴 셈-하메트 알-나할라토]를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기 위하여**”라고 번역하였다.

⑩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제안한 룻과의 결혼의 목적이 수혼(嫂婚)의 목적과 비슷하다면 룻기의 관습을 수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신 25 장과 창 38 장에 의하면 수혼은 법적인 의무로서 죽은 자의 친동생(들)에게만 부과된다. 시동생이 불이행할 경우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따른다. 죽은 형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서는 안 되는 수절의 의무를 부여받으나 시동생이 거절할 경우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시동생에게 치욕을 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수혼의 목적은 죽은 형의 법적 후사를 낳는 것과 죽은 형의 법적 후사가 형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과 과부인 형수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혼은 친형제가 살아 있는 경우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을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라며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레 18:16; 20:21)과 대조되는 제도이다. 수혼을 통하여 태어난 첫 아들 즉 죽은 형의 법적인 후사가 죽은 형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기업이 가족의 계보 안에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슬로브핫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 기업이 친족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친족 안의 남자와 결혼하여 기업을 친족 안에 보존되도록 하는 것(민 27:1-11)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⑪ 이러한 수혼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수혼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룻기에 제시되어 있는 관습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보아스와 같은 모범적인 사람이 법적 회의 때까지 나오미나 룻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과부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거절당할 경우 공개적인 법적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이 이삭줍기에 의존하며 살았다. 나오미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당당히 결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밤에 룻을 타작 마당으로 보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더욱이 과부가 된 형수는 수절하고 타인에게 시집가지 않고 시동생과 결혼하여 후사를 얻어야 하는데(창 38:11; 신 25:5) 룻의 청혼을 듣고 보아스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칭찬한 것은 룻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자유스러운 입장에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수혼처럼 결혼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면 기업 무를 자가 기업 무를 책임 이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4:4) 할 수 없다고 갑자기 번복하는 일(4:6)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 둘째, 신 25 장과 창 38 장은 수혼의 의무가 죽은 형의 친동생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인 것을 명시할 뿐 친동생이 거절할 경우 좀 더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친동생 대신에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 신 25 장의 수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25] 유다가 창녀로 알았던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것을 안 후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하지 않았던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여 그것이 용인되는 사건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 그리고 엘리멜렉 가족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제의할 때 명사 יָבָם[야밤](“죽은 형의 동생” 신 25:5, 7 cf. 룻 1:15 오르바 = יְבִמְתֵּךְ[여빔테흐] 네 동서) 혹은 동사 יִבֵּם[이벰](작위능동어간 “시동생의 본분을 다하다” 창 38:8; 신 25:5, 7)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엘리멜렉과 보아스 그리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친 형제지간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

---

[25] Mathewson, “Exegetical Study of Genesis 38,” *BSac* (Oct.-Dec. 1989) 378, n. 32 는 중기 앗시리아 법 33 과 히타이트법 193 이 계대결혼의 의무에 시아버지도 포함시키는 것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는 유다-다말 이야기가 현존하는 이 고대 근동의 법들보다 몇 백 년 앞선 것이지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후사를 얻으려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비슷한 관습을 따른 것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ANET*(182, 196)에 의하면 이 법들은 다음과 같다.

[Middle Assyrian Law 33] “[If], while a woman is still living in her father's house, her husband died and she has sons, [she shall live where she chooses in] a house of theirs. [If] she has no [son, her father-in-law shall marry her to the son] of his choice ... or if he wishes, <u>he may give her in marriage to her father-in-law</u>. If her husband and her father-in-law are both dead and she has no son, she becomes a widow; she may go where she wishes.”

[Hittite Law 378] “If a man has a wife and then the man dies, his brother shall take his wife, then <u>his father shall take her</u>. If in turn also his father dies, one of his brothers's sons shall take the wife whom he had. There shall be no punishment.”

- 셋째, 신 25 장과 창 38 장에서 죽은 형의 친동생은 법적 제재가 따르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절했을 경우 공적인 치욕을 당하는데 룻과의 결혼을 거절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그러한 오명의 낙인이 찍힌 일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

⑫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이 수혼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룻기에 묘사된 결혼의 목적 즉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는** 것은 수혼의 목적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죽은 엘리멜렉이나 말론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의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친족으로서 **고인의 아내**를 취하여 **고인**의 법적 후사를 낳아 **고인**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려는 것은 수혼을 통하여 죽은 형의 법적 후사를 낳아 죽은 형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룻기의 관습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이행 여부에 따라 어떤 법적인 제제가 따르지는 않지만 친형제가 아니라도 가까운 친족에게 멸절위기에 처한 다른 친족을 위해 이행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에게 법적으로는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법적 후사를 낳을 책임이 없었으나 관습적으로는 친족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제안한 결혼은 "redeemer's marriage 기업 무를 자의 결혼, 기업 무름을 위한 결혼"이고, 기업 무를 자가 친족으로서 갖는 책임은 "levirate-type responsibility 수혼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Bush, 227).

⑬ 나오미의 밭을 무르고 싶다고 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의 말대로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 아들을 낳도록** 룻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서막인 1:1-5 의 배경 설명으로부터 시작된 주제 즉 엘리멜렉 가문의 멸절 위기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의 새로운 조건도 받아들여 나오미의 밭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는 일까지 떠맡아 죽은 친족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 아들을 낳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둘 다 포기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다음 순번의(4:4) 보아스에게 기업 무름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가 둘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법적 논의가 끝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가 나오미의 밭 문제는 자신이 처리하겠지만 룻의 문제는 보아스에게 맡아 달라고 할 것인가? 만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밭 문제와 룻 문제를 따로 떼어 맡자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로 평가될 것이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얻은 밭이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Bush, 252). 만일 그가 두 문제를 연관지어 다 하겠다고 약속한 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동체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따라서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두 문제를 나누어 맡는 것이나 그가 둘 모두 떠맡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싶다고 일단 관심을 표명한 그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차지할 후사를 낳는 일까지 한다면 그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모두 이행한 기업 무를 친족으로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Block, 716).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과 룻과 관련된 기업 무름의 문제를 기업 무를 자에게 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공적인 법정에서 다루어지도록 한 것은 율법의 문구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에까지 충실한 친족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과연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엘리멜렉의 기업도 무르고 그 기업을 차지할 후사도 낳게 하는 일을 떠맡을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에게 넘길 것인가?

69. 룻 4:6

1) 원문 문제

(룻 4:6) וַיֹּאמֶר הַגֹּאֵל לֹא אוּכַל [כ= לִגְאוֹל] [ק= לִגְאָל]־לִי פֶּן־אַשְׁחִית אֶת־נַחֲלָתִי גְּאַל־לְךָ אַתָּה אֶת־גְּאֻלָּתִי כִּי לֹא־אוּכַל לִגְאֹל׃

① לִגְאָל־לִי [ק= לִגְאוֹל] [כ= לִגְאוֹל] לֹא אוּכַל와 גְּאַל־לְךָ에서 לִי와 לְךָ는 ethical ( )이다. 접미대명사의 인칭은 동사의 인칭과 일치한다. 이것의 용도는 "to give emphasis to the significance of the occurrence in question for a particular subject"(GKC 119s)이다.

② לִגְאָל에 대한 맛소라 소주는 한 크티브-크레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크티브는 4:4 처럼 완전철자법으로 쓰인 לִגְאוֹל이고 크레는 보다 정상적인 לִגְאָל־이다. 맛소라 소주는 "이것은 불필요한 바브이다. 이것은 완전 철자법으로 쓰여진 두 경우 중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한다. 바브가 불필요한 이유?

③ לִגְאָל의 생략된 목적어는? (의무적인) 밭? (자발적인) 룻? 밭과 룻?

④ 자립 대명사 אַתָּה의 기능은?

⑤ גְּאַל과 어근이 같은 목적어 גְּאֻלָּתִי는 ( ) 목적어라 부른다. 이러한 구문에서 동사의 의미는 "to perform, to excercise (object noun)"이다(비교, 민 25:11).

2) 주석

룻 4:6 그러자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친히 무를 수 없겠소. 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시오.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

① 보아스가 친족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 기업을 차지할 후사를 위한 룻과의 결혼 문제를 꺼내며 수혼적 책임을 제안하자 **그 기업 무를 자는** 밭과 관련된 기업 무름을 하고 싶다는 이전의 입장에서 물러나며 "**[그렇다면] 나는 친히 무를 수 없겠소**."라고 **말했다**. 처음(4:4)에 "무르고 싶다"는 소원 표시의 미완료형을 쓴 것처럼 여기(4:6)서도 부정어와 미완료형을 써서 אָנֹכִי לֹא אֶגְאַל[아노히 로 에그알]이라고 하지 않고 לֹא אוּכַל לִגְאָל־לִי [로 우할 리그올-리]()라고 말했다. 전치사와 접미대명사가 결합된 לִי[리]는 윤리적 여격(ethical dative)으로 사건의 의미에 강조를 더하고 있다(GKC 119s). 그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다("I cannot

redeem for myself → Then I for my part cannot redeem it”).”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지 않다("I am not willing to redeem it.”)”는 것이 아니다(Bush, 190). 그러나 이 말 다음에 붙어 있는 부정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소**.”)의 의미를 살피면 그의 입으로 무의지보다 무능력을 말한 것은 과장이다. “**내 기업에 손해만 있다.**”라고 번역된 것을 직역하면 “내가 내 기업을 파괴한다/망친다/망쳐놓는다(ruin, destroy).”이다.[26] 그는 그의 기업을 망치게 될까 염려하며 무르고 싶지 않은 것을 무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다.

② 이렇게 보아스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 앞에서 그 기업 무를 자는 그의 진심을 드러내 보였다. 그의 처음 계산으로는 늙은 나오미로부터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기업 무름에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늙은 나오미가 죽으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밭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풍부한 소출이 나올 것이며 설사 희년(레 25:13-17)이 되어도 그의 소유로 계속 남으며 후에 그의 상속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하여 수혼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의 새로운 계산은 횡재가 아니라 오히려 막심한 손해가 난다. 다시 말하면 밭의 용익권을 살 때 들어간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친족을 위한 기부금이 되어 버린다. 룻과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이 엘리멜렉-기룐-말론에 속한 밭을 상속할 것이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기업 무를 자의 기업을 기존의 다른 아들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고, 나오미와 룻과 그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도 상당한 경비가 지출될 것이다(Hubbard, 245). 이렇게 손해만 보며 그의 기업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그 자신이 친히 나서서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③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개인적인 바람보다 법적인 질서를 앞세운 것(3:11-13)과 대조적으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법적이고 도덕적 책임보다 자신의 기업에 대한 득실 계산을 앞세웠다. 그는 손해 볼 것이 없을 때는 나서지만 손해 볼 것이 분명할 때는 물러서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 기업 무를 자는 친족의 밭을 무르는 법적 책임과 친족의 후사를 세우는 도덕적 책임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시오.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친족의 기업 무름에 관한 우선 순위에 있어서 더 가까운 그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다음 순번의 친족 보아스에게 떠넘겼다. 보아스에게 맡아달라고 하며 그가 말한 명령문 גְּאַל־לְךָ אַתָּה אֶת־גְּאֻלָּתִי[그알-르하 아타 에트-그울라티]는 매우 강조적이다(Bush, 233; Hubbard, 246; Block, 717). 첫째로, 그의 첫 번째 말에 나오는 לִי

---

[26] Hubbard(245)는 어근 שׁחת[사하트]의 사역능동 어간이 강한 어감을 지니며 전쟁(대하 34:11), 토지 소산을 멸하는 해충(말 3:11), 질투의 남편의 복수(잠 6:32)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삼상 26:9; 사 65:8; 렘 49:9 등도 참고하라고 한다.

[리]처럼 여기 לְךָ[르하](“for yourself”)도 윤리적 여격(ethical dative)으로 사건의 의미에 강조를 더하고 있다(GKC 119s). 둘째로, 자립 주격대명사 אַתָּה[아타]는 접미대명사와 동격이며 명령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하면 윤리적 여격과 함께 더욱 더 큰 강조를 위해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GKC 135d-g; WHS 107). 셋째로, 명사 גְּאֻלָּה[그울라]는 동사 גְּאַל[그알]과 어근이 같고 동족목적어로서 렘 32:8 에서처럼 “기업 무를 권한 곧 기업 무를 권리와 책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27] 이처럼 강하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시오**.”라고 말한 후 그는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라는 이유의 부사절을 덧붙인다. 이 부사절(כִּי לֹא־אוּכַל לִגְאֹל)에는 윤리적 여격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보아스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 앞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간단히 줄이면 “나는 *직접/친히* 무를 수 없소(내 기업 망치면서까지). *당신이 직접/친히* 무르시오(나는 무를 수 없으니).”가 된다. 친족의 후사 문제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나는 친히 무를 수 없소”로 시작하여 “나는 무를 수 없소”로 말을 마치는 그 기업 무를 자는 내레이터가 묘사하는 그의 상징적인 동작을 하며(4:8) 무대에서 사라진다.

70. 룻 4:7

1) 원문 문제

(룻 4:7) וְזֹאת לְפָנִים בְּיִשְׂרָאֵל עַל־הַגְּאוּלָּה וְעַל־הַתְּמוּרָה לְקַיֵּם כָּל־דָּבָר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 וְזֹאת הַתְּעוּדָה בְּיִשְׂרָאֵל׃

① וְזֹאת처럼 바브+(대명사)주어로 시작하는 구문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접적(disjunctive)/삽입적(parenthetical)인가(참고, IBHS 39.2.3c)?.

② 첫 번째와 두 번째의 זֹאת가 가리키는 문은?

③ 부정사구 לְקַיֵּם כָּל־דָּבָר의 끝에 붙어 있는 악센트의 이름은? 이 부정사구는 앞 부분과 함께 가는 것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뒷 부분과 함께 가는 것을 나타내는가?

④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에서 두 완료형 동사의 용법은? 첫 번째 동사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יִשְׁלֹף로 고쳐야 한다는 제안이나 두 번째 동사로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 וַיִּתֵּן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고려하라.

⑤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라는 표현에서 문맥상 서로 신발을 벗어 주는 상호적인 의미가 가능한가?

---

[27] Hubbard(246, n. 53)는 명사 גְּאֻלָּה[그울라]가 레 25:25-30, 47-49; 렘 32:6-5; 룻 4:6-7 에만 사용된 것을 지적한다. Bush(233)는 다른 어근의 동족 동사와 동족 명사의 예로 민 25:11 을 든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בְּקַנְאוֹ אֶת־קִנְאָתִי [브카노 에트-킨아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⑥ הַתְּעוּדָה의 어근은 עוּד인가(KB, BDB, Bush, Tucker) 아니면 יעד인가(Dombrowski, cf. Sasson)?

2) 주석

룻 4:7 옛적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런 일 즉)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확정하는 관례이었다.

① 저자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권리 양도에 관한 말(4:6)과 이를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동작(4:8)의 묘사 사이에 간격을 두며 독자들을 위하여 그 상징적인 동작의 이해를 돕는 해설을 싣는다. 그러기 위해 바브 계속법을 사용하지 않고 וְזֹאת[브조트](접속사 바브 + 대명사 주어)로 시작하는 이접적(disjunctive)이고 삽입적(parenthetical)인 절을 사용한다(cf. IBHS 39.2.3c). 대명사 זֹאת[조트]는 여성형이지만 중성적으로 행동, 사건, 혹은 발표 등을 언급하는 뒤에 오는 절을 가리키는 데(BDB, 260, [1a]; KB 264, [4]; 민 8:24; 욥 10:13) 사용된다. 여기서 זֹאת([조트] "**이런 일**")는 뒤에 좀 멀리 떨어져 나오는 절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샬라프 이시 나알로 브나탄 르레에후]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곤 했다**")를 가리키고 있다.

② 첫 세 단어 וְזֹאת לְפָנִים בְּיִשְׂרָאֵל [브조트 르파님 브이스라엘]을 번역하면 "그런데 이런 일이 옛적에 이스라엘에 있었다."가 된다. 칠십인역은 페시타역, 타르굼역, 그리고 벌게이트역과 일치하며 맛소라 본문의 첫째 단어와 둘째 단어 사이에 הַמִּשְׁפָּט[하미시파트]가 있는 것처럼 τὸ δικαίωμα [토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일 칠십인역의 대본이 원문이라면 וְזֶה הַמִּשְׁפָּט לְפָנִים בְּיִשְׂרָאֵל [브제 하미시파트 르파님 브이스라엘]이 되고 그 의미는 "그런데 이것이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기업 무르는 권한을 양도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가 된다. 그러나 원문으로부터 הַמִּשְׁפָּט[하미시파트]가 떨어져 나간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고 대명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것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맛소라 본문의 암시적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칠십인역(과 다른 역본들)에 단어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옛적에**, 옛날에, 전에"라는 의미를 갖는 두 번째 단어 לְפָנִים[르파님]은 저자의 시대와 사건이 일어난 사사 시대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적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다. 캠벨(147-148)은 이 단어가 욥 42:11 과 삿 3:2 그리고 느 13:5 에서 한 세대 이전, 그리고 대상 9:20 에서 아주 긴 이전의 시간(700 년 전), 그리고 시 102:25[MT 26]에서 태고(천지창조의 때)를 가리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신 2:10, 12, 20; 대상 4:40; 삿 1:10, 11, 23; 수 14:15; 15:15 등에서 시간의 간격은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부시(233)의 설명대로 여기서 "옛적에"라는 단어는 저자와 독자의 시대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신발 벗는 상징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의미가 잊혀진 시대인 것을 보여준다.

④ 4:4 의 전치사 נֶגֶד[네게드]처럼 지배하는 명사 앞에 반복하여 나오는 전치사 עַל[알]은 "~에 관하여 concerning, with respect to"라는 의미로 쓰였다(BDB, 754, [1.f]; KB 826, [3]). 전치사 עַל[알]이 지배하는 첫 번째 명사 גְּאוּלָּה[그울라]는 "기업 무름, 기업 무름의 책임 혹은 권리"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עַל[알]이 지배하는 두 번째 명사 תְּמוּרָה[트무라]는 어근 מוּר[무르]에서 파생된 것으로 룻기 이외의 책들에서 5 번 더 사용되었다(KB, 1747, 레 27:10, 33; 욥 15:31; 20:18; 28:17).[28] תְּמוּרָה[트무라]는 레 27:10, 33 과 욥 28:17 에서 교환되는 대체물을 가리키고 욥 15:31 에서 보상, 보응을 나타내고 욥 20:18 에서 교환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룻기에서 기업 무르는 책임과 권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단어는 기업 무를 책임과 권리의 양도를 가리킨다(Bush, 234).

⑤ עַל[알]의 지배를 받는 두 개의 명사 즉 גְּאוּלָּה[그울라]와 תְּמוּרָה[트무라]의 결합에 대하여 중언법(hendiadys)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양극포괄법(merismus)로 보는 입장이 있다. 새슨(142)과 허버드(249)는 기업 무름이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들을 가리키고 교환하는 것이 상업적인 거래를 가리키므로 두 명사가 양극포괄법을 이루며 "모든 형태의 거래(all forms of transactions)"를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Bush(234)는 브리히토(Brichto, *HUCA* 44 [1973]: 18)의 논증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기며 기업 무를 권한과 교환이란 두 명사가 중언법을 이루며 "기업 무를 권한의 양도(the transfer of the right of redemption)"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형태의 거래에 신발 벗는 일이 있었다면 저자의 시대와 사사 시대가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상 생활에서 자주 보는 일이었을 것이며 4:7 처럼 일부러 해설을 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것은 돈이 오고 가는 거래가 아니었으므로 굳이 상업적 거래를 뜻한다고 하는 두 번째 명사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무름(의 권한 곧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그리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라는 두 개의 전명구는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하나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

---

[28] [레 27:10, 33] (10)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NIV: both it and the substitute[הַתְּמוּרָה] become holy) ... (33)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lit: both it and its substitute[תְּמוּרָתוֹ] become holy) 무르지 못하리라

[욥 15:31] 그는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lit: nothing will be his recompense/return[תְּמוּרָתוֹ])

[욥 20: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 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NIV: he will not enjoy the prophet from his trading[תְּמוּרָתוֹ])

[욥 28:17]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NIV: nor can it be had [lit: its having [תְּמוּרָתָהּ] for jewels of gold)

⑥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구 לְקַיֵּם כָּל־דָּבָר[르카옘 콜-다바르]의 끝에 붙어 있는 악센트 자켑 카톤은 이 어구가 앞부분과 함께 가는 것을 일러준다(Sasson, 142). 처음부터 이 부정사 어구까지를 번역하면 "그런데 이런 일이 옛적 이스라엘에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있었다."가 된다. קַיֵּם[카옘]은 어근 קוּם[쿰]의 작위능동(강세능동, piel) 어간 부정사이다. 4:5, 10 에 나오는 הָקִים[하킴]은 어근 קוּם[쿰]의 사역능동(hifil) 부정사이다. 부시(27)는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 왕상 2:4 에는 사역능동 어간 미완료형 יָקִים[야킴]이 쓰이고 겔 13:6 과 룻 4:7 에는 작위능동 어간 קַיֵּם[카옘]이 쓰인 것을 지적하고 세 경우 모두 "to effect 실행하다, 완수하다, 성취하다"로 번역한다.[29] 부시는 작위능동 어간 קִיֵּם[키옘]이 후기 히브리어(에 7x, 겔 1x, 시 119 2x)에만 나오고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קִיֵּם[키옘]을 제외하고 어근 קוּם[쿰]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아람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룻기에 사역능동 어간 부정사 הָקִים[하킴](4:5, 10)과 작위능동 어간 부정사 קַיֵּם[카옘](4:7)이 나오는 것을 표준 히브리어 시기에서 후기 히브리어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현상으로 해석한다.

⑦ 그러나 룻기에 קוּם[쿰]의 사역능동 어간 부정사와 작위능동 어간 부정사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왕상 2:4 과 겔 13:6 의 경우처럼 교체해서 쓸 수 있는지 문맥을 살펴야 한다. 룻기에서 4:5, 10 의 הָקִים[하킴]은 "일으키다, 세우다"의 의미로 쓰였고 4:7 의 קַיֵּם[카옘]은 "확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부시가 왕상 2:4(사역능동)과 겔 13:6/룻 4:7(작위능동)을 번역할 때 제시한 동사 "to effect 실행하다, 완수하다, 성취하다"는 룻 4:5, 10 의 הָקִים[하킴](사역능동)을 번역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⑧ 캠벨(148)과 허버드(249)가 קַיֵּם[카옘]을 아람어 영향으로 보고 늦은 시기의 저작으로 보는 입장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

[29] Bush 가 세 경우 모두 "to effect 실행하다, 완수하다, 성취하다"로 번역하였으나 목적어로 나오는 명사 דָּבָר[다바르]가 왕상 2:4 과 겔 13:6 에서 "말"이란 뜻으로 쓰였고 룻 4:7 에서 "일"이라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개역 번역을 비교하라.

[왕상 2: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יָקִים[야킴]).

[겔 13: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לְקַיֵּם[르카옘])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룻 4:7]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לְקַיֵּם[르카옘])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 첫째, קַיֵּם[카옘] 대신 기대되는 작위능동 부정사 קוֹמֵם[코멤]이 사 44:26; 58:12; 61:4 에 사용되었으나 그 의미가 "to raise up, lift; to rebuild (ruins) 세우다, 들다, 재건하다"이므로 룻 4:7 의 קַיֵּם[카옘]("to confirm, ratify 확정하다, 비준하다")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 둘째, 작위능동 어간 קַיֵּם[카옘]이 "to confirm, ratify 확정하다, 비준하다"(시 119:28; 룻 4:7); "to make happen, make come true 일어나게 하다, 실현되게 하다"(겔 13:6); "to institute, regulate 제정하다, 규정하다"(에 9:21-32) 등의 다양한 뉘앙스가 있는 것에 유념하면 그러한 의미가 발전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아람어 영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른 시기의 영향아래 생긴 형으로 보아야 한다.
- 셋째, 중근바브/요드 동사의 중근 바브와 요드가 중복되는 형이 이른 시기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30]
- 넷째, קַיֵּם[카옘]이 고대 히브리어 방언의 한 어형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⑨ 앞에서 말한 대로 삽입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 주어 זֹאת([조트] "이런 일")가 가리키는 절은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샬라프 이시 나알로 브나탄 르레에후]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곤 하였다**)이다. 이 절에 사용된 동사 שָׁלַף[샬라프]와 נָתַן[나탄]은 완료형이며 반복이나 습관(iterative, habitual, frequentative)을 나타내고 있다. 완료형이 반복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접속사 바브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완료형이 그 앞에 접속사 없이도 반복이나 습관을 나타내는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31]

---

[30] Hubbard, 249, n. 19: 수 9:12 הִצְטַיָּדְנוּ < ציד we packed; 수 9:4 וַיִּצְטַיָּרוּ < ציר they acted as delegation. Campbell(148)이 어근 *ṣyd* 의 작위재귀어간(Hithpael)의 예로 "Judg 9:12"을 든 것은 오류이며 "Josh(ua) 9:12"로 고쳐야 한다.

[31] Bush(236)는 GKC 112dd; Brockelmann, *Syntax* 41a 를 참조하라고 하고 삼상 9:9 이 룻 4:7 처럼 해설로서 반복적 완료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삼상 9: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אָמַר[아마르])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Hubbard(250, n. 21)는 GKC 112h 를 참조하라고 하며 창 37:3; 민 11:8; 에 2:13-14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창 37: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אָהַב[아하브])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וְעָשָׂה לוֹ [브아싸 로])

[민 11:8] 백성이 두루 다니며(שָׁטוּ[샤투]) 그것을 거두어(וְלָקְטוּ[브라크투]) 맷돌에 갈기도(וְטָחֲנוּ[브타하누]) 하며 절구에 찧기도(אוֹ דָכוּ[다후]) 하고 가마에 삶기도(וּבִשְּׁלוּ[우비실루])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וְעָשׂוּ[브아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וְהָיָה[브하야])

- 완료형이 습관/반복을 나타내는 특이한 용법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캠벨(148)은 שָׁלוֹף[샬로프] 즉 부정사 자립형으로 모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칠십인역과 구라틴역의 지지를 받고 있는 וְשָׁלַף[브샬라프] 즉 (미완료가 나타낼 수 있는 습관적 동작을 표현하는) 바브 계속법 완료로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
- 부시(236)는 캠벨처럼 부정사 자립형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 루돌프(60)의 견해를 반박하며 부정사 자립형이 정형동사 대신에 사용되는 예들(cf. GKC 113y-ff)과 부정사 자립형이 여기처럼 반복적 완료형 대신에 사용된 것은 그 용례들과 성격이 다른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미완료형 יִשְׁלֹף[이실로프]로 정정하여 읽을 것을 제안한 주옹의 견해에 대하여 가장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 브로츠만(161)은 바브가 있는 וְשָׁלַף[샬라프]가 보다 더 정상적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특이한 맛소라 본문의 바브가 없는 שָׁלַף[샬라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⑩ 부시(27-28)는 4:7 이 보이는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위에서 언급한 작위능동 부정사 לְקַיֵּם[르카옘] 이외에 완료형 다음에 기대되는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 וַיִּתֵּן[바이텐] 대신 וְנָתַן[브나탄]이 쓰인 것도 지적한다. 부시는 왕하 23:6(וַיָּדֶק[바야데크])과 병행되는 대하 34:4(וְהֵדַק[브헤다크])의 비교를 언급한 루터(Rooter, *BHT*, 101)를 따르며 이것이 바브 계속법이 없는 아람어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부시는 후기 히브리어에서 바브 계속법의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사해 사본에도 계속 감소되었으며 미시나 히브리어에는 바브 계속법의 사용이 중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GKC 112h 에 의하면 완료형 다음에 완료형이 오며 반복/습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후기 히브리어에서 바브 계속법의 사용 빈도의 감소와 상관없이 표준히브리어 시기에도 사용되었다. GKC 112h 는 완료형 다음에 오는 완료형이 반복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로 창 37:3; 창 31:7; 민 11:8; 삼상 16:14; 왕하 3:4; 시 22:6; 삼상 26:9; 시 80:13; 욥 1:1, 4; 룻 4:7 을 든다.[32]

⑪ 부시(28)는 4:7 의 세 번째 후기 히브리어 특징으로 신발(נַעַל[나알])을 벗는 것을 표현할 때 동사 שָׁלַף[샬라프]를 사용한 것을 든다. 부시는 שָׁלַף[샬라프]와 נַעַל[나알]의 결합을 신조어(neologism)로 짐작한 주옹([2013] 17) 그리고 언어적 변화에 대한 기준들 즉 표준 히브리어

[에 2:13-14] (13)처녀가 왕에게 나아갈(בָּאָה)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4)저녁이면 갔다가(בָּאָה)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שָׁבָה)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32] [창 31: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הֵתֵל[헤텔] < תלל) 품삯을 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וְהֶחֱלִף [브헤헬리프] < חלף)

시기의 용례와의 비교 그리고 언어적 분포와 집중을 고려하여 두 단어의 결합을 아람어 영향으로 인한 신조어로 평가한 후르비츠(Hurvitz, *Shnaton* [1975]: 45-59)의 견해를 따른다. 후르비츠는 먼저 שָׁלַף[샬라프]가 칼(חֶרֶב[헤레브])을 "빼다"는 의미로만 15 번 사용되고 신발(נַעַר[나알])을 벗는 것에는 사용되지 않고 신발을 벗는 일에는 חָלַץ[할라츠](신 25:9, 10; 사 20:2)나 נָשַׁל[나샬](출 3:5; 수 5:15)이 사용된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 타르굼 출 3:5; 신 25:9; 사 20:2 에서 아람어 동사 שִׁלַף[실라프]가 히브리어 חָלַץ[할라츠]와 נָשַׁל[나샬]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것을 지적하였다.

⑫ 캠벨(148)은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샬라프 이시 나알로 브나탄 르레에후]가 문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절은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서로에게 신발을 벗어 주는 상호적인(reciprocal, cf. 창 11:3, 7; 43:33; 삿 6:29; 10:18; 삼상 10:11; 20:41; 삼하 2:16; 욘 1:7; 룻 3:14)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신을 벗어주는 일방적인(unilateral, cf. 출 21:14, 18, 35; 22:6, 9, 13; 신 4:42; 19:4-5; 22:24, 26; 겔 18:6, 11, 15)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캠벨(150)은 4:7 이 두 가지 종류의 거래에 사용되는 신 벗는 일을 간결하게 묘사하는 것으로서 상호 교환의 거래일 때 두 당사자가 신을 벗어 주는 것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기업 무를 권리의 양도일 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사람에게 신을 벗어 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허버드(250, n. 24)와 새슨(142)과 부시(235)는 문맥 그리고 4:8 에 비추어 4:7 이 상호적인 행위 묘사가 아니고 한 쪽이 다른 한쪽에게 신발을 벗어 주는 단독적인 행위 묘사라고 주장하였다. 문법적으로는 캠벨이 주장하는 것처럼 쌍방적인 행위의 묘사나 일방적인 행위의 묘사로 볼 수 있지만 문맥은 일방적인 행위의 묘사로 보는 것을 지지한다.

⑬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신을 벗어 주었는가?

- 캠벨(149-150)은 역본들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칠십인역은 일방적인 행위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며 4:7 에 **다른 한쪽 사람**과 동격이 되는 "기업 무를 책임을 떠맡는 사람; 그의 기업 무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란 어구를 첨가한다.[33] 칠십인역의 소수 루시안 개정본들의 독법은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아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 기업 무를 자가 신발을 벗은 사람으로 명시한다. 벌게이트역(the critical Benedictine *Sacra Biblia* [Ruth published in 1939]:)은 4:8 을 "Therefore the kinsman said to Boaz, 'Take up the shoe!' which he had just loosened from his foot" 그래서 기업 무를 자는 그의 발로부터 막 벗은 그 '신을

[33] τῷ ἀγχιστεύοντι τὴν ἀγχιστείαν αὐτοῦ [토 앙키스튜온티 텐 앙키스테이안 아우투]를 Brenton(354)은 "that redeemed his right"로 번역하고, Campbell(148)은 "to the one taking up the redemption-responsibility"로 번역하고 Hubbard(250, n. 23)는 "to the one performing his right of redemption"으로 번역하였다.

취하라'고 보아스에게 말했다"라고 번역한다(Campbell, 149-50).[34] 타르굼역은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신을 벗겼다고 풀이한다. 이 모든 경우에 벗겨진 신발은 그 기업 무를 자의 것이다. ⒷⒷ그러나 룻기 미드라시(*Midrash [Ruth] Rabbah* VII:11)는 반대 방향으로 말하고 있다.[35] 스파이저(E. A. Speiser)도 신발은 보아스가 룻을 취할 권리를 사는 데 들인 값이므로 신발은 보아스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36]

-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하며 캠벨(150)은 4:7 이 상호교환과 양도의 두 가지 면을 간략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4:8 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 주며 권리의 양도를 상징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 4:7 을 일방적인 행위 묘사로 보는 부시(235-236)는 4:8 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가 명시적으로 언급되므로 신발을 벗는 동작의 주체가 기업 무를 자인지 보아스인지 모호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4:8 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주어로서 보아스에게 권리를 취하라고 말한 주체이므로 바로 뒤따라오는 바브 계속법의 동사의 주어로서 신발을 벗는 상징적인 동작의 주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 허버드(250)도 4:8 에 비추어 4:7 의 **한쪽 사람**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이고 **다른 한쪽 사람**이 보아스인 것이 분명하며 권리를 취하라고 말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신발을 벗었고 신발을 벗는 것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권리가 양도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본 주석은 4:8 의 "말하다"와 "벗다"의 두 동사가 동일한 사람의 연속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며 첫 번째 절의 명시적인 주어 즉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말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절의 벗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구문론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본다.

⑭ 신발을 벗는 동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핀 대로 룻기 미드라시는 신발이 사는 사람 쪽에서 지불하는 값이나 담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스파이저는 해석이 매우 어려운 누지(Nuzi) 문서에서 신발이나 옷이 정상적인 거래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며 특정 거래를 유효하게 하는 징표로서 주는 값이라고 설명한다. 라헤만(Lachemann, *JBL* 56 [1937]: 53-54)은 누지

---

[34] Cf. *Biblia Sacra Vulgata* (Württembergishce Bibelanstalt: Stuttgart) Ruth 4:8: "dixit ergo propinquus Booz tolle calciamentum quod statim solvit de pede suo." = Douay-Rheims Bible 의 룻 4:8 은 "So Booz said to his kinsman: Put off thy shoe. And immediately he took it off from his foot."로 나온다.

[35] Campbell, 150: *Ruth Rabbah VII*. 11: "Whose shoe? Rab and Lev disagreed. One said the shoe of Boaz, while the other said the shoe of the kinsman. It is more probable that he who says the shoe of Boaz is correct, for it is usual for the purchaser to give the pledge."

[36] Campbell(150)은 Speiser 의 글의 문헌으로 *BASOR* 77 (February 1940): 15-20 을 지적하였고, Sasson(144)은 Campbell 이 지적한 Speiser 의 글이 *Oriental Studies and Biblical Studies*, 151-156 과 똑같은 것을 지적하였다.

문서에서 한 사람이 그의 발을 그의 땅으로부터 들어 올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그 안에 놓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유물의 양도를 유효하게 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스파이저의 누지 문서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신발이나 옷이 실질적인 지불의 값 혹은 선물 혹은 담보인 것을 고려하면 누지 문서의 상황은 상징적인 동작인 것을 보여주는 룻기의 상황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Cf. Thompson and Thompson, *VT* 18 [1968]: 90-93; Bush, 235; Sasson, 144). 마찬가지로 라헤만이 룻기와 병행된다고 보는 누지문서의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상징적인 동작도 땅의 소유권 양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룻기에 적용될 수 없다(Bush, 235; Sasson, 144). 다시 말하면 스파이저나 라헤만이 누지 문서에 근거하여 룻기의 신발을 벗는 행위가 상징하는 것을 논한 것은 두 문헌에서 다루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병행 본문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캠벨이 상호 교환과 양도의 두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을 교환하는 것은 상업 거래를 유효하게 하고 신발을 새로운 기업 무를 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권리의 양도를 유효하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맥은 브리히토(Brichto, *HUCA* 44 [1973]: 18-20)와 부시(235-236)가 설명한 대로 신발을 벗어 주는 것이 기업 무를 권한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신발은 권한과 관련이 있고 신발을 벗는 것은 그 권한의 양도를 구체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37]

⑮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곤 하는 일—וְזֹאת הַתְּעוּדָה בְּיִשְׂרָאֵל [브조트 하트우다 브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일을 확정하는 관례이었다**. 이 마지막 절의 첫 두 단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인다. 첫째, 대명사 זֹאת[조트]가 앞에 나오는 신발을 벗어주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보아스가 선언한 것이나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명사 תְּעוּדָה[트우다]의 의미가 "확정, 확인"인지 아니면 "증거, 증명"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

[37] Hubbard(251)가 설명하였듯이 구약에서 "발"과 "신"은 힘, 소유, 그리고 지배를 상징하였다(수 10:24; 시 8:6[MT 7]; 60:8[MT 10]=108:10).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주님 되심을 인정했고(출 3:5; cf. 수 5:15), 다윗이 맨발로 걸었을 때 그는 힘없음과 비하를 보였다(삼하 15:30; 사 20:2-4; 겔 24:17, 23). 땅에 발을 딛는 것은 그것의 소유와 관련이 있었다(신 1:36; 11:24; 수 1:3; 14:9). Sasson(145-146)과 Bush(236)가 지적한 대로 신 25:9 은 과부된 형수가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형의 후사 잇기를 거부한 시동생에게는 수치를 주고 형수에게는 죽은 남편의 기업에 대한 권리와 재가할 자유를 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Cf. Sasson(146)은 룻기 4 장과 신명기 25 장에서 신발 벗는 행위는 법적 선언을 유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산의 매입이나 양도(תְּמוּרָה[트무라])를 상징하기보다는 사회적 의무(גְּאוּלָה[그울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 25 장에서 과부된 형수가 신발을 벗기는 것은 시동생이 수혼을 꺼리며 형의 후사 잇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지만 룻 4 장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신발을 벗은 것은 그가 스스로 기업 무를 책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서로 연관이 있다. 대명사 זֹאת[조트]의 선행사가 무엇인가? 학자들의 견해와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에벤 쇼샨(Even Shoshan)은 וְזֹאת[브조트]가 나오는 구절들을 두 구룹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출 25:3; 레 6:7; 7:1, 11; 15:3; 민 4:31; 6:13; 신 4:44; 6:1; 33:1; 삼하 7:19; 왕상 3:22, 23, 26; 사 14:26; 28:12; 슥 5:7; 14:12; 룻 4:7(두 번째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창 49:28; 민 4:19; 신 33:7; 렘 44:29; 말 2:13; 룻 4:7(첫 번째 것)이다.
- ⒝새슨(147)은 만델케른(Mandelkern)의 히브리어 성구사전에서 וְזֹאת[브조트]로 해설을 시작하는 여섯 경우를 참고하며 4 경우(창 49:28; 신 4:44; 6:1; 사 14:26)에 וְזֹאת[브조트]가 해설을 요구하는 관습을 설명하는 말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한편 룻 4:7 의 첫 번째 וְזֹאת[브조트]가 관습의 설명 전에 나오는 한 경우임을 지적한다. 그는 룻 4:7 의 두 번째 וְזֹאת[브조트]의 경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터커(Tucke, ("Witness and 'Dates' In Israelite Contracts," *CBQ* 28 [1966]: 43-45)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보아 앞에 나오는 신발 벗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증인이 되겠다고 인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것 같다.
- ⒞허버드(252, n. 31)는 새슨(147)을 따르며 어떤 관습을 설명하는 해설의 결론을 וְזֹאת[브조트]로 시작하는 예들로 창 49:28; 신 4:44; 6:1; 사 14:26 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허버드(252)는 4:7 의 두 번째 대명사 זֹאת[조트]가 뒤에 나오는 증인이 되겠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앞에 나오는 신발 벗어 주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 ⒟대명사의 선행사를 생각하면 에벤 쇼샨이 וְזֹאת[브조트]를 두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불분명하다. 에벤 쇼샨이 지적한 다른 구절들은 모호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뒤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새슨과 허버드가 지적한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창 49:28 과 사 14:26 은 대명사가 앞의 내용을 가리키며 결론 부분에 וְזֹאת[브조트]가 나오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룻 4:7 의 첫 번째 וְזֹאת[브조트]의 경우는 뒤에 나오는 관습을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다. 신 4:44 과 6:1 의 경우 결론 부분에 וְזֹאת[브조트]가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 ⒡룻 4:7 의 두 번째 וְזֹאת[브조트]의 경우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면 신발 벗는 관습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면 4:8 의 실제로 신발을 벗어 주는 것이나 4:9-11 의 증인 되어 달라는 요구와 증인 되겠다는 응답을 가리킨다. 4:7 이 독자를 위해 오래 전에 사라진 신발 벗어 주는 관습을 해설하는 구절이고 그 처음 절과 그 마지막 절에 וְזֹאת[브조트]가 틀을 이루며 내러티브의 흐름에서 벗어난 하나의 독립된 삽입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첫 번째 זֹאת[조트]도 (뒤에 나오는) 중앙의 신발 벗어 주는 관습을 가리키고 두 번째 זֹאת[조트]도 (앞에 나오는) 중앙의

신발 벗어 주는 관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룻 4:7 의 첫 번째 וְזֹאת[브조트]는 에벤 쇼샨의 대부분의 것처럼 뒤에 오는 것을 가리키고 룻 4:7 의 두 번째 וְזֹאת[브조트]는 창 49:28 과 사 14:26 처럼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⑯ 명사 תְּעוּדָה[트우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 ⒜BDB(730)는 명사 עֵד[에드](증거)에서 파생된 עוּד[우드]를 어근으로 보고 사 8:16, 20 에서 "תּוֹרָה[토라] 교훈"과 병행되며 "testimony, injunction, 증거, 명령"의 의미로 쓰였고 룻 4:7 에서 "attestation 인증> fixed usage 고정된 관례"의 의미로 쓰였다고 풀이한다.
- ⒝KB(II: 1768)는 사 8:16, 20 에서 "attestation through the word of the prophet(선지자의 말을 통한 인증)"의 뜻으로 쓰였고 룻 4:7 에서 לְקַיֵּם[르카옘](to confirm 확정하다)과 일치하는 "confirmation 확정, corroboration 확증"의 뜻으로 쓰였다고 풀이한다.
- ⒞새슨(147)은 터커(Tucker, "Witness and 'Dates' In Israelite Contracts," *CBQ* 28 [1966]: 43-45)가 4:7 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고대 관습 즉 "확정하는 것"과 "인증하는 것"에 관한 관습을 묘사하며 תְּעוּדָה[트우다]가 어근 עוּד[우드]에서 파생된 것으로 구두 계약에서 증언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 새슨은 터커의 제안 가운데 히브리어 본문의 문들의 순서가 뒤섞여 있다고 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터커와 새슨은 4:7 의 두 번째 대명사 זֹאת[조트]가 앞에 나오는 신발 벗는 관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4:9-11 의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인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 ⒟허버드(252)는 4:7 의 두 번째 대명사 זֹאת[조트]가 뒤에 나오는 증인이 되겠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앞에 나오는 신발 벗어 주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면서도 "attestation 인증"이라고 번역하였다.
- ⒠영어 역본들 중에서 NKJV 는 "and this was a *confirmation* in Israel."이라고 번역했고 (N)RSV 는 "and this was the manner of *attesting* in Israel."이라고 번역했고 NASB 는"and this was the [manner of] *attestation* in Israel."이라고 번역했고 NIV 는 "This was the method of *legalizing transactions* in Israel."이라고 번역했다.
- ⒡위에서 설명한 대로 4:7 의 두 번째 대명사 זֹאת[조트]의 선행사가 앞에 나온 신발을 벗어 주는 관습을 가리키므로 תְּעוּדָה[트우다]의 뜻은 뒤 따라오는 보아스의 말(4:9-10)이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4:11-12)과 관련지어 "attestation 증거, 증명, 인증(Tucker, Sasson)"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해설 자체(4:7)와 관련지어 "confirmation, corroboration 확증, 확정(KB, NKJV)" 혹은 "validation, ratification 추인, 확인, 비준(Bush)"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알맞다. 그래서 본 주석은 תְּעוּדָה[트우다]를 "**일을 확정하는 관례**"라고 번역하였다.

71. 룻 4:8

1) 원문 문제

(룻 4:8) וַיֹּאמֶר הַגֹּאֵל לְבֹעַז קְנֵה־לָךְ וַיִּשְׁלֹף נַעֲלוֹ׃

① קְנֵה־לָךְ에서 לָךְ를 문법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קְנֵה의 의미는?

② וַיִּשְׁלֹף의 주어는 기업 무를 자인가? 보아스인가? 아니면 둘 모두인가?

2) 주석

룻 4:8 그래서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라고 말하며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① 저자는 독자를 위해 신발 벗는 행위의 상징에 관한 해설(7 절)을 준 다음 독자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6 절에서처럼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8 절에 기업 무를 자를 주어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청자인 보아스를 대명사로 쓰지 않고 고유명사를 써서 밝힌다. 이처럼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협의의 당사자 두 사람을 각각 일반명사(기업 무를 자)와 고유명사(보아스)로 동시에 언급하는 8 절은 독자에게 이 장면의 절정, 즉 기업 무를 권한의 공식적인 양도의 행위를 보도록 해 준다(Hubbard, 252).[38]

② 7 절의 해설처럼 일을 확정하는 관례대로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라고 말하며 자기의 신을 벗었다**. 기업 무를 자의 말은 명령형이고 강조를 위한 윤리적 여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만 기업 무를 자는 기대되는 גְּאַל[그알] 대신 קְנֵה[크네]를 사용한다. 렘 32:8 의 하나멜의 말의 처음과 끝에 קנה[카나]를 사용한 것처럼 여기에 어근 גאל[가알] 대신 קנה[카나]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고정된 형식 때문인지도 모른다(Bush, 237; Hubbard, 252).

③ 기업 무를 자가 사용한 6 절의 גְּאַל[그알]과 8 절의 קְנֵה[크네]가 다른 것에 유의하면 8 절이 7 절의 해설 삽입 다음에 6 절을 다시 요약하여 내레이터가 말한 것으로 설명하는 캠벨(149)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운 무를 자가 신을 벗는 상징적인 동작과 함께 직접 말한 것으로 설명하는 부시(237)의 입장이 옳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매매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무를 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קְנֵה[크네]는 "사시오."가 아니라 "**(~에 대한 권한을) 취하시오**."라는 의미를 갖는다. 4 절에서처럼 이 명령형 동사의 목적어도 문맥으로부터 이해된다. 칠십인역이

---

[38] 이 장면의 대화의 당사자들은 내레이터가 사용하는 전달문에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

4:3 **그**(=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4:4 **그**(=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4:5 **보아스가** 말했다

4:6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4:8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다

אֶת־גְּאֻלָּתִי[에트-그울라티]에 해당하는 "τὴν ἀγχιστείαν μου [텐 앙키스테이안 무] 나의 기업 무를 권한"을 첨가한 것은 암시적인 목적어를 명시적인 목적어로 밝혀 번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7 절을 논의할 때 설명한 대로 8 절의 두 개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 즉 וַיֹּאמֶר[바요메르]와 וַיִּשְׁלֹף[바이실로프]의 주어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구문적으로 가장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동사 וַיֹּאמֶר[바요메르]의 주어로 명시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두 번째 동사 וַיִּשְׁלֹף[바이실로프]의 주어이고 신을 벗은 사람이다. 이를 반영하며 8 절을 번역하면 "**그래서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라고 말하고 [그 기업 무를 자는] 자기의 신을 벗었다**."가 된다. 칠십인역은 마지막에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ῷ([카이 에도켄 아우토]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라는 어구를 첨가한다. 이러한 어구의 첨가는 원본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7 절에 명시된 것을 따르며 8 절에 암시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번역상의 첨가로 보인다. 본 주석은 문맥을 반영하며 "**벗었다**"라는 직역 대신 "**벗어 주었다**"라는 의역을 택하였다.

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자기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아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6 절)고 공적으로 밝힌 것을 확정하려고 그의 기업 무를 권한을 보아스에게 "**친히 취하라**"고 말하며 그의 **신발을 벗어** 주고서(8 절)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리하여 보아스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 기업 무를 자의 신발을 그의 손에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엘리멜렉의 밭과 후사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업 무를 권한을 갖게 되었다.

⑥ 나오미에 대한 헌신의 문제를 놓고 오르바와 룻이 서로 대조되듯이 친족의 후사를 세우기 위한 룻과의 결혼 문제를 놓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가 서로 대조된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으나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좇았듯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죽은 친족의 후사를 잇는 일을 위해 룻과의 결혼을 거절하였으나 보아스는 기꺼이 룻과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경제적인 손해 앞에서 물러서는 기업 무를 자에게는 한결같은 인애가 없었으나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며 친족을 위해 나서는 보아스에게는 한결같은 인애가 있었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그 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삿 17:6; 21:25)"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청지기 의식이 없었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그의 죽은 친족의 이름을 이을 후사를 세우는 일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무명씨, 아무개 씨라는 불명예 즉 이름에 의해 기억되지 못하는 수치를 가지고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친족을 위해 기업을 무를 권한을 행사할 무대가 이제 활짝 열린다.

4 막 1 장(4:1-8) 해설

⑴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에 따라 룻이 타작 마당에 와서 청혼하는 것을 듣고서 보아스는 멸절 위기에 처한 친족 엘리멜렉을 위한 기업 무름까지 고려하며 제 4 막에서 나오미와 룻이 직면한 자원의 고갈과

가문 멸절 위기를 해결해 주려고 주도적으로 나선다.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3:13) 그리고 빈 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3:17)과 함께 준 보리선물(3:15)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보증에 일치하는 행동을 즉시 취한다. 내레이터는 제 3 막을 제 1-2 막과 달리 내러티브 결론이 없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다(3:18)"라고 하는 중심 인물 나오미의 확신에 찬 말로 끝낸 것을 정당화하듯이 말의 낭비 없이(부시, 243) 곧바로 나오미와 룻을 위한 법적인 문제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논의하기 위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4:1) 것을 묘사한다. 성문은 모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었다. 성문은 시장(marketplace) 역할도 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중심(civic center)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성문은 법정 역할을 하며 형사적인 문제의 판결을 내리고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공증 역할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였다(허버드, 233). 성문의 아침 시간은 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바쁜 시간이었다.

⑵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던 보아스가 **보니까 그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4:1). **그 때 보아스가 "아무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와서 앉았다**(4:1). 이렇게 보아스는 법적 문제의 한 당사자를 앉게 하여 기다리게 한 후 법적 집회의 증인으로서 대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성읍 장로들 중 열 명을** 데리러 가서 **불러 모은 뒤 "여기 좀 앉으십시오."라고 말하며 그들을 앉게 하였다**(4:2). 법적 집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 것은 "앉다"라는 동사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다. 성문에 보아스가 앉았고(1b),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앉았고(1e), 열명의 장로들이 앉았다(2c).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호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칭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그를 "[플로니 알모니], 아무여, Mr. So-and-So"라고 묘사한다. 내레이터가 다른 인물들의 이름을 아주 주의 깊게 밝힌 것(1:2, 4; 2:1; 4:17; 4:18-22)과 4:1 의 명령문에 굳이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저자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비우호적인 인상을 주고 독자들로 이 인물이 곧 있게 될 법적 회의에서 담당할 역할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부시, 197).

⑶법적 논의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와 장로 10 명을 소집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기업 무를 자에게 말하며 곧바로 법적 협상에 들어간다. 보아스가 그에게 준 첫 번째 진술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내놓았다**(4:3)."라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진술은 아들이 없는 과부로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용익권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으로 레 25:25 처럼 사후 기업 무름(redemption)을 통하여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을 내놓았다."라는 보아스의 진술은 나오미가 여인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신분도 없고 되찾아 올 수단도 없기 때문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밭의 용익권을 친족으로서 기업 무름을 통하여 되찾는 일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사실을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 용익권을 **취하라**고 제의하였다(4:4). 여기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 백성의 장로들**"과 동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보아스가 불러 모은 10 명의 장로들이다(주옹, 78; 홈스테트, 188).

⑷그 기업 무를 자에게 나오미가 내놓은 밭의 용익권을 취하라고 제안하고서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일과 관련된 용어를 쓰며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보아스는 **그가 무르고 싶으면 무르든지, 아니면 무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4:4). 그리고 보아스는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곤 기업 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4:4)"이라는 부사절을 덧붙인다. 이 이유의 부사절은 "*당신이외에는* 기업 무를 자가 없음"을 먼저 인식시키고 만일 그가 물러설 경우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면 기업 무를 자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은 밭의 용익권을 내 놓은 나오미를 위하여 기업 무르는 책임을 이행할 사람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 자신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밝히며 두 사람 중 어느 누가 나오미를 위하여 기업 무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미는 기업 무를 사람이 없게 되고 그 밭은 그들 친족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손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⑸그러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 자신의 기업 무르고 싶어 하는 열망을 보고 경쟁심을 자극받은 것처럼 "**내가 무르고 싶소**."라고 대답한다(4:4). 이것은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그의 공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내가 기업을 무르고 싶다."라는 그의 의향을 표현한 것이다(부시, 210). 실상 이 기업 무름에는 친족 엘리멜렉 가문에 남자들이 하나도 없고 늙은 과부 나오미가 죽으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밭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풍부한 소출이 나올 것이며 설사 희년(레 25:13-17)이 되어도 그의 소유로 계속 남아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므로 손해볼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친족으로서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했다는 좋은 평판을 얻고 존경받을 수도 있었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그에게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이득을 주는 기업 무를 행위를 하도록 보아스가 굳이 이렇게 법적 회의까지 열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기업 무를 의향만 표시하면 모든 협상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이처럼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 후사를 잇는 문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며 나오미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취하는 일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횡재라고 생각하고 미소를 짓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독자들은 어리둥절하며 실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가 3:13 의 약속을 반영하는 어구를 사용하며 말하는 두

가지 안을 들었던 독자들은 기업 무를 자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보아스가 사실상 룻의 결혼 문제를 교묘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이다. 정말 보아스의 마음에 기민한 계획이 없었다면 연애가 규정에 굴복하고 사랑이 적법성에 항복하고 말았을 것이다(허버드, 242-243). 무르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한 상황에서 과연 룻의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⑹보아스는 독자들의 초조함 속에 친족의 후사를 잇기 위한 룻과의 결혼이란 문제를 다룰 협상의 후반부로 들어간다. 여기서 보아스는 새로운 정보와 상황을 내 보이는 으뜸패를 제시한다.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에게 공적으로 친족의 후사를 잇기 위한 룻과의 결혼이란 자발적인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한다. 보아스는 그에게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그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날에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이 취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할 것이오**(4:5)."라고 말한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수혼이 아니다. 그렇지만 친족으로서 고인의 아내를 취하여 고인의 법적 후사를 낳아 고인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려는 이 결혼은 죽은 형의 법적 후사를 낳아 죽은 형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려는 수혼의 목적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룻기의 관습은 친형제가 아니므로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이행 여부에 따라 어떤 법적인 제제가 없는 것이지만 가까운 친족이 멸절 위기에 처한 다른 친족을 위해 이행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에게 법적으로는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법적 후사를 낳을 책임이 없었으나 관습적으로는 친족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제안한 결혼은 "기업 무름을 위한 결혼"이고, 기업 무를 자가 친족으로서 갖는 책임은 "수혼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부시, 227).

⑺보아스가 나오미의 밭과 룻과 관련된 기업 무름의 문제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공적인 법정에서 다루어지도록 한 것은 그가 율법의 문구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에까지 충실한 친족임을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보아스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 앞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나오미의 밭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는 일까지 떠맡아 죽은 친족의 이름을 이어서 기업을 차지할 아들을 낳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는 둘 다 포기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다음 순번의(4:4) 보아스에게 기업 무름을 넘길 것인가? 보아스의 새로운 조건 제시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딜렘마에 빠지게 하였다. 그는 이미 공개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 무름에 대한 법적 요구를 받아들여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싶다고 선언하였다. 만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밭 문제와 룻 문제를 따로 떼어 맡자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로 평가될 것이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얻은 밭이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두 문제를 연관지어 다 하겠다고 약속한 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동체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두 문제를 나누어 맡자고 하거나 그가 둘 모두 떠맡겠다고 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일과 후사를 잇는 두 문제를 모두 맡든지 아니면 두 문제를 보아스에게 넘기든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싶다고 일단 관심을 표명한 그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차지할 후사를 낳는 일까지 한다면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고 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모두 이행한 기업 무를 친족으로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블락, 716).

⑻지금까지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줄 인물이 바로 관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보아스라고 제시해 온 이야기를 따라온 독자들은 그 기업 무를 자의 선택을 기다리며 긴장하며 초조해 한다. 그러나 기업 무를 자가 두 문제를 떠맡을 가능성 때문에 독자들이 가졌던 긴장과 초조는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사라진다. 기업 무를 자로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해야 할 딜렘마에 빠져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한 맨 첫마디의 말은 "**나는 친히 기업 무를 수 없겠소. 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소**."라는 대답이었다(4:6). 이러한 반응은 그에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족을 위해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럴 인품도 전혀 없음을 드러나게 한다. 그의 표현은 능력이 안 되어서 "내가 친히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의향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소."라는 부사절은 그의 입으로 말한 무능력이 과장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 보아스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 앞에서 그 기업 무를 자는 그의 진심을 드러내며 그 자신의 기업을 망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친히 이행할 수 없다."고 표현하며 물러섰던 것이다. 그의 처음 계산으로는 늙은 나오미로부터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기업 무름에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래서 무르고 싶다고 했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하여 수혼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막심한 손해가 난다. 우선 기업 무름에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이 엘리멜렉-기룐-말론에 속한 밭을 상속할 것이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기업 무를 자의 기업을 기존의 다른 아들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허버드, 245). 이렇게 손해만 보며 그의 기업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그 자신이 나서서 기업을 무를 수 없다고 물러섰다. 그 기업 무를 자는 자기의 기업과 자신의 이해 관계에만 집착하였고 룻과 친족 엘리멜렉의 후사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라**"고 하며 "**나는 기업을 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인다(4:6). 그리고 그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기업 무를 권한을] **취하시오."라고 말하며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4:8). 저자는 신을 벗어 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주 오래된 관습이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그 의미를 풀이하는 해설을 주어야만 했다. "**옛적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런 일 즉)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확정하는 관례이었다(4:7)." 이 해설은 신발을 벗어주는 것이 기업 무를 권한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신발은 기업 무를 권한과 관련이 있고 신발을 벗는 것은 그 권한의 양도를 구체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을 상징한다.

(9)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의 말에 나오는 "**친히**"는 원문의 윤리적 여격이 드러내는 강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손해만 있을 것 같아 **내가 친히** 무를 수 없다(4:6a)."고 할 때 자신에게 이 여격을 사용했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대신] 무르라(4:6b)."고 할 때 보아스를 가리키는 자립대명사와 이 여격을 통해 매우 강한 어조로 기업 무를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그 이유를 대며 "나는 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4:6c)."고 할 때는 이 여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기업 무를 책임을 회피하며 권한을 넘기며 "(당신이) **친히** 취하라(4:8)."고 할 때 보아스에게 적용되는 이 여격을 사용하였다. 윤리적 여격 사용에 치중하여 정리하여 말하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가 제시한 룻과의 결혼 조건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친히** 무를 수 없겠소. 내 기업 망치면서까지 말이오.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대신 무르시오.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라고 말하고(4:6) 다시 한번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어주고 무대에서 사라진다(4:8). 이렇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를 부각시키는 대조적 인물로서 그의 역할을 끝마치고 처음 소개될 때처럼 이름 없이 사라진다(블락, 707). 나오미에 대한 헌신의 문제를 놓고 오르바와 룻이 서로 대조되듯이, 친족의 후사를 세우기 위한 룻과의 결혼 문제를 놓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가 서로 대조된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으나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좇았듯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죽은 친족의 후사를 잇는 일을 위해 룻과의 결혼을 거절하였으나 보아스는 기꺼이 룻과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foil)로서 오르바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르바는 그녀의 민족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이야기에서 사라지지만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그의 기업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이야기에서 사라진다. 오르바가 이방 여인으로 그녀의 이름과 말이 소개되는 것과 달리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경우 그의 말은 소개되나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다. 그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친족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무를 자로서 이스라엘 남자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손해 앞에서 물러서는 그 기업 무를 자에게는 한결같은 인애가 없었다. 이제 우리는 내레이터가 보아스로 하여금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아무여"라고 부른 것처럼 평가절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으로 남게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룻을 취하여 죽은 친족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는 일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무명씨라는 수치, 아무개씨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사라지고 말았다. 그의 익명은 그에 대한 비난을 암시한다(트리블, 190). 그 아무개는 친족으로서 곤경에 처한 친족을 위해 해야 할 일보다는 자신의 기업에 대한 이해 타산에만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고, 손해볼 것이 없을 때는 나서지만 손해볼 것이 분명할 때는 물러서는 보통

사람에 불과하였다. 이 무명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사사 시대의 인물상을 대표하고 있다. 그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사 2:10)” 다른 세대 사람들에 속했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사 17:6; 21:25)” 시대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이 무명씨와 달리 보아스는 개인적인 선호나 이해 관계보다 법적인 질서를 앞세웠고(3:11-13) 법적 집회의 적절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순번이 빨랐던 그 기업 무를 자로부터 얻은(4:3-8) 기업 무를 권한을 가지고 친족의 밭을 무르는 법적 책임과 친족의 후사를 세우는 도덕적 책임을 떠맡아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었다.

⑩긴 족보(룻 4:18-22)의 가장 영광스러운 7 대 자리에서 그 이름이 빛나고 있는 보아스를 부각시켜 주는 대조 인물 무명씨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도록 해준다. 언약적 사랑을 보이지 못했던 그 아무개 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들의 기록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저자가 무명씨로 처리해 버린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마음에는 자신만 있을 뿐 그의 친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그에게는 받은 은혜이든 주는 은혜이든 은혜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었다(울리치, 131). 그는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무익한 종과 같았다(마 25:24-30).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법을 사용했고 두 과부를 곤경에 남아 있도록 버려두고 친족(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약속의 땅에 있는 유업과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과 성경의 부활 교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자였다. 그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상속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약속의 땅이 예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확신을 보여주는 증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울리치, 131). 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라질 보물을 이 땅에 쌓아 두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마 6:19-20). 청지기 의식이 전혀 없었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자신의 욕망과 이해 관계에만 집착하다가 좋은 이름을 포함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지만 그의 율법 준수에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은 율법의 문구를 주의깊게 지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 사랑은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의 행복을 증진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애를 베푸는 것을 포함한다(울리치, 132). 친족을 위해 수혼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 무름을 위한 결혼을 하는 것은 율법의 문구에 얽매인 율법주의나 강요된 사랑에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결같은 인애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로 가득찬 마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의 정신을 진정으로 따르는 기업 무를 자라면 율법에 명시된 규정을 넘어 자발적으로 친족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의 진전과 성취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만 했다(울리치, 132).

기업 무를 자가 최우선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타락 세상에 대한 구원적 관심의 증진이어야만 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표현하면 기업 무를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모든 것을 내놓는 것, 곧 하나님이 쓰시도록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다(울리치, 132). 우리 모두는 무명씨로 사라진 기업 무를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다.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며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와 관심사를 보호하려고 행동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해 주시기로 약속한 "이 모든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염려한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만 전력을 다하는 자로 살면 이름없이 잊혀질 것이다(울리치, 133). 보아스는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고 순번에 있어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업 무름의 기회도 없어지고 더 안타깝게도 룻과의 결혼의 기회도 사라질 가능성까지 받아들이며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 율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논의하였다. 그가 그의 기업에 손해만 있게 될 것을 염려하며 물러섰을 때 보아스는 커다란 희생을 무릅쓰고 기업 무름과 친족의 이름 보존을 위한 결혼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합법적인 기업 무를 자가 되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다. 우리의 이기심을 포함한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울리치, 134).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관심사를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복종시키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만든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웃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는 배려를 하며 불우한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무대가 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신실함을 통하여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신실한 행동을 사용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울리치, 134).

◇ 4 막 2 장 (4:9-12)

본문

[WLC: 4 רות]

9 וַיֹּאמֶר בֹּעַז לַזְּקֵנִים וְכָל־הָעָם עֵדִים אַתֶּם הַיּוֹם כִּי קָנִיתִי אֶת־כָּל־אֲשֶׁר לֶאֱלִימֶלֶךְ וְאֵת כָּל־אֲשֶׁר
לְכִלְיוֹן וּמַחְלוֹן מִיַּד נָעֳמִי׃ 10 וְגַם אֶת־רוּת הַמֹּאֲבִיָּה אֵשֶׁת מַחְלוֹן קָנִיתִי לִי לְאִשָּׁ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וְלֹא־יִכָּרֵת שֵׁם־הַמֵּת מֵעִם אֶחָיו וּמִשַּׁעַר מְקוֹמוֹ עֵדִים אַתֶּם הַיּוֹם׃ 11 וַיֹּאמְרוּ כָּל־הָעָם
אֲשֶׁר־בַּשַּׁעַר וְהַזְּקֵנִים עֵדִים יִתֵּן יְהוָה אֶת־הָאִשָּׁה הַבָּאָה אֶל־בֵּיתֶךָ כְּרָחֵל וּכְלֵאָה אֲשֶׁר בָּנוּ שְׁתֵּיהֶם
אֶת־בֵּית יִשְׂרָאֵל וַעֲשֵׂה־חַיִל בְּאֶפְרָתָה וּקְרָא־שֵׁם בְּבֵית לָחֶם׃ 12 וִיהִי בֵיתְךָ כְּבֵית פֶּרֶץ אֲשֶׁר־יָלְדָה
תָּמָר לִיהוּדָה מִן־הַזֶּרַע אֲשֶׁר יִתֵּן יְהוָה לְךָ מִן־הַנַּעֲרָה הַזֹּאת׃

[ESV: Ruth 4:9-12]

9 Then Boaz said to the elders and all the people, “You are witnesses this day that I have bought from the hand of Naomi all that belonged to Elimelech and all that belonged to Chilion and to Mahlon. 10 Also Ruth the Moabite, the widow of Mahlon, I have bought to be my wife, to perpetuate the name of the dead in his inheritance, that the name of the dead may not be cut off from among his brothers and from the gate of his native place. You are witnesses this day.” 11 Then all the people who were at the gate and the elders said, “We are witnesses. May the Lord make the woman, who is coming into your house, like Rachel and Leah, who together built up the house of Israel. May you act worthily in Ephrathah and be renowned in Bethlehem, 12 and may your house be like the house of Perez, whom Tamar bore to Judah, because of the offspring that the Lord will give you by this young woman.”

[개역개정: 룻 4:9-12]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번역 (룻 4:9-12)

룻 4:9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제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나오미로부터 얻었습니다.[1] 10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2] 저의 아내로 취할 권한을 제가 얻었습니다.[1]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3]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11 그 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4]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5]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6]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12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 [8]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7]"

본문 비평

[1] "얻었습니다."는 매매 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동사 קנה[카나]가 "사다" 대신에 "~에 대한 권한을 얻다, ~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취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리고 또"는 접속사와 불변화사로 된 וְגַם[브감]을 번역한 것이고 목적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주어인 "제가" 앞에다 둔 것은 4:9 과 대조적으로 목적어가 문두에 나온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어의 원문의 순서는 "룻-모압여인-의 아내-말론, 즉 모압 여인 룻 말론의 아내"이다.

[3] BHS 4:10 의 a-a 에 의해 표시된 וּמִשַּׁעַר מְקוֹמוֹ[우미샤아르 므코모]는 "그의 고장/성읍의 성문으로부터"라는 뜻이지만 칠십인역은 καὶ ἐκ τῆς φυλῆς λαού αὐτοῦ [카이 테스 필레스 라우 아우투] 즉 "그의 백성의 지파(tribe)로부터"라고 번역하였다. BHS 룻기 편집자 로빈슨은 칠십인역이 מֵעַמּוֹ[메아모]라는 변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브로츠만(162)은 칠십인역이 대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면 וּמִשְּׁפַחַת עַמּוֹ[우미시파하트 아모] 즉 "그의 백성의 씨족(clan)으로부터"라는 변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칠십인역이 맛소라 본문의 의미를 풀어서 의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캠벨(124)이 지적한 것처럼 칠십인역에서 룻 3:11 과 4:10 의 שַׁעַר[샤아르]는 혈연 관계에 의해 맺어진 사람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φυλή[필레](“지파, tribe; 백성, nation, people”)로 번역되고, 4:1, 11 의 שַׁעַר[샤아르]는 성읍의 문을 나타내는 πύλη[필레](“성문, gate”)로 번역되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주석 부분을 보라.

[4] BHS 4:11 에 문자 a-a 에 의해 표시된 단 한 개의 각주는 맛소라 본문의 וְהַזְּקֵנִים עֵדִים [브하즈케님 에딤]이 칠십인역에서 Μάρτυρες. καὶ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εἴποσαν [마르튀레스. 카이 호이 프레스뷔테로이 에이포싼]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עֵדִים וַיֹּאמְרוּ הַזְּקֵנִים[에딤 바욤루 브하즈케님]이 되는 것을 일러준다. 다시 말하면 맛소라 본문은 "그 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대답하고 그들이 복을 빈 것으로 읽지만, 칠십인역은 "그때 성문에 있던 백성"이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대답하고 "장로들이" 복을 빈 것으로 읽는다. 만일 칠십인역이 원본을 반영하고 있다면 맛소라 본문의 독법은 이 원본에서 וַיֹּאמְרוּ[바욤루]가 떨어져 나갔고 두 단어 הַזְּקֵנִים[하즈케님]과 עֵדִים[에딤]의 자리가 바뀌었고 הַזְּקֵנִים[하즈케님]에 바브가 첨가되는 3 가지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들을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칠십인역이 여러 곳에서 상당히 자유스럽게 의역한 것을 유의하면 더 짧은 독법을 보이는 맛소라 본문이 원문일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5] 분사가 근접 미래를 나타내는 것을 밝히기 위해 "곧 들어갈"이라고 번역하였다.

[6] 원문의 "라헬처럼 그리고 레아처럼, 그들 둘"을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라고 번역하였다.

[7-8]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7] 라는 축복문이 먼저 나오고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 [8] 라는 구가 뒤따라 나오는 원문의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 윗첨자의 순서를 바꾸어 표시했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4 막 1 장(4:1-8)이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만나 장로 10 인을 불러 모아 법적 집회를 열고 그와 협의하여 기업 무를 권한을 획득한 절차를 보여주었다면 4 막 2 장(4:9-12)은 보아스가 그 법적 집회의 결과를 공식 선언하고(4:9-10) 백성과 장로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보아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보여준다(4:11-12). 이렇게 4 막 2 장은 보아스가 법적 집회의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로 되어 있다.

(2)부시(195)는 4:9a-11b 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전달문	9a	וַיֹּאמֶר 보아스가 백성과 장로에게 *말했다.*	
피전달문	9b	עֵדִים אַתֶּם הַיּוֹם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A
	9c	קָנִיתִי 제가 *얻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B
	9d	기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로부터	
	10a	קָנִיתִי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제가 저의 아내로 취할 권한을	B'

		얻었습니다.	
	10b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10c	그 이름이 그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10d	עֵדִים אַתֶּם הַיּוֹם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A'
전달문	11a	וַיֹּאמְרוּ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말했다.*	
피전달문	11b	עֵדִים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법적 집회의 결과에 대한 보아스의 공식 선언(4:9-10)은 전달문(4:9a)과 피전달문(4:9b-10d)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아스가 백성과 장로들에게 직접 말한 것을 인용하는 피전달문은 "오늘 여러분은 증인들입니다."라고 한 말에 의하여 틀(A/A' 9b/10d)이 형성되고 이 틀 사이에 나오미로부터 기업의 용익권을 얻고(B 9cd)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고인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할(B' 10abc) 권한을 얻었다는 보아스의 공식 선언이 나온다. 이 공식 선언(4:9c-10c)에는 4 막 1 장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S, S')의 내용처럼 ⒜기업을 사고 ⒝룻을 아내로 취하고 ⒸⒸ고인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집회에 참석한 백성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증인이 된 것을 보아스에게 말하고(11ab) 보아스를 축복한다(11cde-12).

⑶부시(195)는 4:11c-12 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막 2 장 4:11c-12 의 구조				
축복	11c	יִתֵּן יְהוָה אֶת־הָאִשָּׁה הַבָּאָה **여호와**께서 **곧 들어갈 여인으로**	간접명령형	A
		당신의 집(אֶל־בֵּיתֶךָ)으로, 이스라엘의 집(בֵּית יִשְׂרָאֵל)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 주시길.		B
	11d	וַעֲשֵׂה־חַיִל בְּאֶפְרָתָה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명령형	X
	11e	וּקְרָא־שֵׁם בְּבֵית לָחֶם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명령형	
	12	וִיהִי 당신의 집(בֵּיתְךָ)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בֵּית פֶּרֶץ)과 같게 하시기를	간접명령형	B'
		מִן־הַזֶּרַע	(미완료형)	A'

		אֲשֶׁר יִתֵּן יְהוָה לְךָ מִן־הַנַּעֲרָה הַזֹּאת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		

위의 표에서 보듯이 백성과 장로들이 빈 축복은 ABXB'A' 형식의 중앙집중식 교차대구로 되어 있는데 AB-B'는 희구형(간접명령형)을 사용하고 중앙 C 에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 외곽 틀에는 여호와께서 신부가 될 여인(A "당신의 집으로 들어갈 여인" // A' "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집(בֵּיתֶךָ)을 이스라엘의 집(B בֵּית יִשְׂרָאֵל)과 베레스의 집(B' בֵּית פֶּרֶץ)과 같이 세우도록 해 주실 것을 비는 축복이 나온다. 구조상 외곽 틀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중앙 부분(X)에는 보아스 자신에 대한 축복이 들어 있다. 이 축복문은 신부가 될 여인으로 시작하고 마감되지만 여기서 룻은 고유 명사로 나오지 않으며 후사를 생산할 수단으로만 여겨진다. 이것은 법적 회의에서 룻이 "고인의 아내"로 언급되고 법적 회의 결과의 공식 선언에서 "말론의 아내"로 언급되었던 것과 비슷하다. 위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에 유의하면 여호와께서 주심(A, A'), 신부가 될 여인(A, A'), 집(B, B') 등이 다음과 같이 서로 교차 대구를 이룬다.

A	יִתֵּן יְהוָה אֶת־הָאִשָּׁה הַבָּאָה	[이텐 아도나이 에트-하이샤 하바아]
B	בֵּיתֶךָ . . . בֵּית יִשְׂרָאֵל	[베테하 ... 베트 이스라엘]
B'	בֵּיתֶךָ . . . בֵּית פֶּרֶץ	[베트하 ... 베트 페레츠]
A'	יִתֵּן יְהוָה לְךָ מִן־הַנַּעֲרָה הַזֹּאת	[이텐 아도나이 르하 민-하나아라 하조트]

각 절 주석 (룻 4:9-12)

72. 룻 4:9

1) 원문 문제

וַיֹּאמֶר בֹּעַז לַזְּקֵנִים וְכָל־הָעָם עֵדִים אַתֶּם הַיּוֹם (룻 4:9)
כִּי קָנִיתִי אֶת־כָּל־אֲשֶׁר לֶאֱלִימֶלֶךְ וְאֵת כָּל־אֲשֶׁר לְכִלְיוֹן וּמַחְלוֹן מִיַּד נָעֳמִי׃

① 4:9-10 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의 서두와 끝에 עֵדִים אַתֶּם הַיּוֹם이 있는 문예적 기교는?

② 명사문 עֵדִים אַתֶּם הַיּוֹם은 classifying clause 인가 아니면 identifying clasuse 인가(WHS 579)?

③ 접속사 כִּי의 용법은?

④ 완료형 קָנִיתִי의 용법은?

⑤ 지배하는 것 앞에 אֵת가 각각 놓여 있는 것과 비교하며 לַזְּקֵנִים וְכָל־הָעָם에서 전치사 ל이 지배하는 것을 찾으면?

⑥ 말론과 기룐(1:2, 5)의 순서가 아니라 기룐과 말론의 순서로 나온 이유는?

2) 주석

룻 4:9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제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나오미로부터 얻었습니다.

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어 주는 법적 행동은 법적 집회의 공식적인 의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한 무를 권리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취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기업 무를 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말하지 않고 법적 집회에 참석한 증인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목격한 사건의 의의를 설명한다. **보아스가** 증인들인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한 이 말(4:9-10)은 룻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여기 **장로들**은 그가 데리러 가서 모셔왔던 10 명의 장로들이고(4:2, 4) **모든 백성**은 성문에 앉아 법적 회의를 지켜보았던 성읍 사람들이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은 그와 가까운 기업 무를 자 사이에 있었던 거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하고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엉뚱한 요구들을 가로막기 위해 법적 집회의 공식적인 결과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진지하고 정확하고 매우 자세하다(Hubbard, 254).

② 앞의 문학적 구조 부분에서 밝힌 대로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의 처음(9b)과 끝(10d)은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보아스의 말의 처음과 끝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 "**오늘**"이란 단어는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리라(3:13)"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나오미가 룻에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아니하리라[3:18]."고 한 확신에 찬 말처럼) 신속하게 움직인 것을 일러준다(Block, 719). 보아스가 장로들과 앉아 있던 백성들을 "**증인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법적 회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나 법적 회의를 보고 돌아가면 끝나버리는 방청객이 아니라 법적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거래의 공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시대는 법적 회의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놓은 문서를 통하여 공증을 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회의에 참석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법적 회의의 결과를 마음에 새겨 놓고 장래에 어떤 법적 논쟁이 생길 때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인들**이었다. 신발과 증인들의 공증은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기업 무를 권한을 얻은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증거이다. 장래에 보아스가 얻은 엘리멜렉의 밭과 룻에 대한 기업 무를 권한을 얻은 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로부터 받은 신발과 함께 그가 법적 회의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얻은 것을 본 증인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라는 틀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법적 회의의 결과로 보아스가 얻은 기업 무를 권한과 책임에 대한 요약과 그 기업 무를 일에 내포된 목적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보아스는 법적 회의의 결과에 대한 요약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한다. 첫 번째 사실은 엘리멜렉의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9 절) 두 번째 사실은 룻에 초점을 두고 있다(10 절). 보아스는 첫 번째 사실에 대하여 "**제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나오미로부터 얻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에서 서막(1:2)이후에 처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한 가족의 남자 구성원 전부가 다시 한번 언급된다. 완료형 קָנִיתִי[카니티]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시적이고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실행적 완료로 사용되었다.[1] 보아스는 4:3 의 "엘리멜렉의 밭"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아들들의 이름이 추가된 것은 유산 상속에 대한 암시를 내포한다. 보아스는 "처음에는 엘리멜렉에 속하였으나 그 후 상속에 의하여 기룐과 말론에 속하였던 모든 것(de Waard & Nida, 72; Hubbard, 255, n. 19)"에 대한 용익권을 갖게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법적인 정확성과 최종성을 천명하였다. 엘리멜렉의 아들들의 이름은 1:2, 5 처럼 말론-기룐의 순서로 나오지 않고 **기룐-말론**의 순서로 나온다. 부시(238)가 평가한 것처럼 법적인 목적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언급한 것이라고 한 루돌프(60)의 주장이나 1:2, 5 와 4:9 이 역순대구를 이루기 위해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한 캠벨(151)의 주장보다는 다음 내러티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을 두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이라고 한 새슨(150)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2]

73. 룻 4:10

1) 원문 문제

(룻 4:10) וְגַם אֶת־רוּת הַמֹּאֲבִיָּה אֵשֶׁת מַחְלוֹן קָנִיתִי לִי לְאִשָּׁ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וְלֹא־יִכָּרֵת שֵׁם־הַמֵּת מֵעִם אֶחָיו וּמִשַּׁעַר מְקוֹמוֹ עֵדִים אַתֶּם הַיּוֹם׃

① גַם의 용법(WHS 378-79)은 강조인가(Hubbard, Campbell) 아니면 추가인가(Sasson, Bush)?

② וְגַם אֶת־רוּת הַמֹּאֲבִיָּה אֵשֶׁת מַחְלוֹן קָנִיתִי의 어순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순이 주는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면?

③ רוּת הַמֹּאֲבִיָּה אֵשֶׁת מַחְלוֹן이란 이름에 대하여 설명하면?

④ קָנִיתִי לִי לְאִשָּׁה에서 전치사 ל의 용법은?

⑤ 부정사 לְהָקִים의 용법은?

---

[1] 실행적 완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4:3 의 완료형 מָכְרָה[마흐라]에 대해 설명하는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2] Sasson(150)이 룻 1:4, 14 에서 룻이 두 번째로 놓인 것 그리고 4:11 에서 레아가 두 번째로 놓인 것도 4:9 과 같은 원리라고 했으나 룻 1:4 은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와 관련된 1:4 의 각주를 참고하라.

⑥ 부정사에 이어서 나오는 접속사+정형동사(GKC 114r)로 된 וְלֹא־יִכָּרֵת는 부정사와 병행을 이루며 목적을 표시하는가 아니면 부정사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확장하며 그 결과를 표시하는가(Bush, 239; Hubbard, 253 n. 7)?

⑦ וּמִשַּׁעַר מְקוֹמוֹ에서 מָקוֹם과 שַׁעַר의 의미는?

2) 주석

룻 4:10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저의 아내로 취할 권한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①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기룐과 말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로부터 얻었다고 하는 첫 번째 사실을 말하고 두 번째 사실로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제가 저의 아내로 취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라는 번역은 접속사와 불변화사로 된 וְגַם[브감]을 추가의 의미로 본 것이다. 불변화사 גַם[감]에 대한 캠벨(151)의 번역 "more important" 혹은 허버드(255)의 번역 "more importantly 더욱 중요하게도"는 강조의 의미로 본 것이다. 새슨(150)은 보아스가 자신의 취하는 행위 묘사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만 했는지 반문하며 룻을 취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인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부시(238)는 두 번째 진술에서 강조를 표현하는 것은 불변화사 גַם[감]이 아니라 동사 [카니티] 앞에 목적어가 온 어순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부시가 일관되게 맥도널드(McDonald, *BO* 32 [1975]: 164-165)에 근거하여 3:5, 11, 17; 4:3 에서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것이 구어 히브리어의 정상적인 어순인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과 상반된다.[3] 아무튼 어순에 유의하면 4:9 의 동사 [카니티] + 목적어(=밭)의 어순과 4:10 의 [브+감] + 목적어(=룻) + 동사 [카니티]라는 어순은 A-B-B'-A'의 역순대구적 구조를 보인다. 본 주석은 [브]는 대등 접속사이고 [감]은 추가의 의미를 갖는 불변화사이고 목적어가 문두에 온 것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② 4:5 의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여기서 "직역: 룻-모압 여인–~의 아내-말론 →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으로 보다 분명하게 밝혀졌다. 법적 회의라는 공적인 배경에서 룻이 완전한 성명으로 언급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적절한 일이다. **모압 여인 룻**은 백성 사이에서 그녀의 성명을

---

[3] Bush(238)가 두 번째 진술(4:10)에서 문두에 온 목적어가 강조된 것으로 말했지만 그가 일관되게 구어 히브리어에서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어순이 정상적이라고 말했으므로 4:10 의 경우 어순이 아니라 불변화사 [감]이 강조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Bush(238)는 [감]을 "또, also"라고 번역하였다. 아니면 Bush 는 4:10 의 경우 3:5, 11, 17; 4:3 의 경우처럼 목적어+동사로 정상적이지만 4:9 의 동사+목적어의 어순과 대조되는 것이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나타내고 **말론의 아내**는 과부임을 나타낸다(Hubbard, 255)). 보아스의 진술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하려는 상황에서 그의 의무가 가능한 한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다(Bush, 238). 보아스가 실행적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형 קָנִיתִי[카니티]를 써서 두 번째 사실을 진술한 내용은 룻을 아내로 취할 **권한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혼의 실제는 4:13 에서 묘사된다.

③ 허버드(256)가 지적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진술은 여러 가지 느슨한 주제들의 목적을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룻의 청혼(3:9)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여 주고 나오미가 룻을 위해 기도하며 마련해 주고자 했던 안식(1:8-9; 3:1)과 보아스가 간구하였던 상(2:12)이 주어진 것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나오미에게 헌신하기 위해 민족의 벽을 뛰어 넘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녀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던(1:16)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이란 언약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 것을 보여준다. 보아스의 공식 선언에 이어서 나오는 장로들과 백성의 축복(4:11-12)은 룻의 이 새로운 신분을 확인해 준다.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룻에게 축복함으로써 룻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신을 섬기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였고 룻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리고 유다의 집을 세운 다말과 명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룻의 이스라엘 백성에로의 영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다. 여호와께서는 룻이 여호와를 그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요구되는 신실함을 보인 그녀를 환영하시며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보아스가 룻을 돌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룻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구속하시고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마 28:18-20; 행 1:8).

④ 보아스는 법적 회의의 결과로 엘리멜렉-기룐-말론의 모든 것과 룻에 관한 기업 무를 권한을 얻은 것을 선언하는 요약에 이어서 그 기업 무르는 일이 추구하는 목적과 결과를 설명한다. 보아스는 4:5 의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하기 위해/낳게 할 것입니다"를 보다 확장하며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다. 부정사구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르하킴 셈-하메트 알-나할라토]는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기 위한** (목적)/**세우는** (결과) **→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하기 위한** (목적)/**세우는** (결과)"를 나타낸다.[5] 전치사를 가진 이 부정사 구문에 이어서 나오는

[5] 이 부정사 구문의 뜻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5 을 참고하라. de Waard and Nida(72)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 오직 고인의 가족에 기업이 남아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목적보다는 다음과 같이 결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In addition, Ruth the Moabite, Mahlon's widow, becomes my

접속사+부정어+미완료형 동사 וְלֹא יִכָּרֵת [블로-이카레트]로 시작하는 절(**고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하는** [결과])에 나오는 동사는 앞선 부정사를 지배하는 전치사와 기능이 같은 접속사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GKC 114r). 새슨(134-35)은 두 번째 병행 동사문이 보아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 25:6 과 같은 성문법이나 구두 전승법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부시(238-239)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두 번째 동사문이 첫 번째 병행 부정사 구문처럼 두 번째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허버드(253, n. 7)는 새슨처럼 인용되었을 가능성을 받아들면서도(257, n. 25) 두 번째 동사문을 부정사 구문에 표현된 목적과 병행되는, 부정적 측면에서 진술된 또 하나의 목적을 나타내는 절이라기 보다는 부정사 구문에 표현된 목적이 이루어질 때 수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절로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고 설명한다.

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 낳은 자식은 엘리멜렉-말론-기룐의 기업을 차지하며 그들의 이름을 잇게 할 후사가 된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의 탄생은 추가적인 행복의 결과를 가져온다. 탄생될 그 후사는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않게** 할 것이다.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 48:19 와 사 56:5 에도 나오며, 신 25:6; 수 7:9; 삼상 24:21[MT 22]; 사 14:22 에서 보는 것처럼 이름을 멸하는 것이나 끊는 것은 후손을 잇지 못하여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낸다.[6] 그 후사는 고인의 기업을 차지하여

---

wife. This will keep the property in the dead man's family → and as a result the property will remain in the dead man's family or in the family of Mahlon."

[6] [사 48: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사 56: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신 25: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수 7: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삼상 24:21(MT22)]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 14:2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Cf. [삼하 14:7]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공동체 안에서 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존하며 고인의 존재가 첫째로 מֵעִם אֶחָיו [메임 에하브] **그의 문중 형제들** 즉 확대된 가족 안에서, 둘째로 וּמִשַּׁעַר מְקוֹמוֹ[우미샤아르 므코모] **그의 고장 성문에서** 즉 그의 성읍의 집회 가운데서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창 18:24, 26; 20:11; 신 21:19; 왕하 18:25 등에서처럼 "장소"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מָקוֹם[마콤]이 "도시, 성읍"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Campbell, 151; Bush, 239; Hubbard, 257, n. 27). 여기에서도 **고장**으로 번역된 מָקוֹם[마콤]이란 단어는 성읍 즉 베들레헴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문**으로 번역된 שַׁעַר[샤아르]란 단어는 환유로서 성문에서 모이는 집회를 가리킨다(Block, 720).

⑥ שַׁעַר מְקוֹמוֹ [샤아르 므코모] "**그의 고장 성문**"을 부시(190)는 "the gate of his town 그의 성읍의 문"으로 번역하였고 드 바르트와 니다(de Waard & Nida, 73)는 "his hometown 그의 고장"으로 번역하였고 캠벨(151)과 허버드(257)는 "the assembly of his town 그의 성읍의 집회"로 번역하였다. 캠벨(152)은 "그의 고장 성문에서 = *그의 성읍 집회에서*"라는 표현이 법적 집회의 회원 자격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 즉 목적의 부정사 구문에 나오는 "그의 기업"과 일치되도록 엘리멜렉이 그 구성원이었을 그 집회에서 보호해 주는 그의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허버드(257)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성읍 집회*"가 지역의 법적 권위이며 장로들의 모임으로 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주며 엘리멜렉 자신이 한 때 그 구성원 중의 하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성읍 집회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나 성읍 집회가 장로들로만 된 모임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엘리멜렉이 장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주석은 שַׁעַר מְקוֹמוֹ[샤아르 므코모]를 "**그의 고장 성문**"으로 직역하였고 블락(720)의 설명대로 성문에서 모이는 집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캠벨의 설명대로 장로들과 남자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기업과 관련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집회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았다.

⑦ 이처럼 법적회의에서 있었던 거래와 목적의 진술이 자세하고 길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로부터 양도받은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할 권한을 얻은 것에 대한 합법성과 최종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법적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역할을 밝히며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복은 보아스의 마지막 말의 틀을 제공하며 문예적으로 수미쌍관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말이 엄숙하고 강조적이었음을 보게 해 준다. "**오늘**"이란 단어는 증인들의 법적 성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들의 공증인 역할을 인정하자마자 그 거래가 최종성을 가지고 오늘과 그 이후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9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이란 단어는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무를 약속(3:13)을 이행하려고 나오미의 예고—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아니하리라(3:18)—대로 신속하게 움직인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예고의 수사학적

메아리로서 "오늘"이란 단어는 참으로 보아스가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말해 주는 역할을 한다(Hubbard, 257).

74. 룻 4:11

1) 원문 문제

וַיֹּאמְרוּ כָּל־הָעָם אֲשֶׁר־בַּשַּׁעַר וְהַזְּקֵנִים עֵדִים (룻 4:11)
יִתֵּן יְהוָה אֶת־הָאִשָּׁה הַבָּאָה אֶל־בֵּיתֶךָ כְּרָחֵל וּכְלֵאָה אֲשֶׁר בָּנוּ שְׁתֵּיהֶם אֶת־בֵּית יִשְׂרָאֵל
וַעֲשֵׂה־חַיִל בְּאֶפְרָתָה וּקְרָא־שֵׁם בְּבֵית לָחֶם׃

① וַיֹּאמְרוּ의 주어는?

② עֵדִים의 주어는? 대명사 주어가 생략된 이유는(GBH 156h; cf. 창 18:9)?

③ יִתֵּן은 직설법인가? 아니면 희구법인가?

④ אֶת־הָאִשָּׁה הַבָּאָה אֶל־בֵּיתֶךָ에서 הָאִשָּׁה는 "여인"과 "아내"중 어느 것이 문맥에 맞는 번역인가?

⑤ הַבָּאָה에 붙은 악센트의 이름은? 악센트의 위치로 보아 완료형인가? 아니면 분사인가?

⑥ שְׁתֵּיהֶם에 붙은 접미대명사의 선행사는? 접미대명사는 양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참고, 1:8)?

⑦ יִתֵּן다음에 오는 바브+명령형(וּקְרָא/וַעֲשֵׂה)이 나타내는 것은(GKC 110i; GBH 116f, 120; WHS 519)?

⑧ עֲשֵׂה־חַיִל과 קְרָא־שֵׁם의 적절한 의미는?

2) 주석

룻 4:11 그 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① 보아스가 법적회의의 결과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듣고 그 선언의 서두와 말미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증인들입니다."라는 공증인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내레이터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순서 면에서 9 절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과 정반대이다. 여기서 내레이터가 백성을 "**성문에 있던**" 백성으로 언급한 것은 성문이 법적 회의의 법정 역할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협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Hubbard, 258).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할 때 자기들을 가리키는 대명사 주어 "우리들"을 생략하였는데 이것은 대답할 때 흔히 있는 일이다(GBH 146h; cf. 창 18:9).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대답을 할 때 질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간단히 대답하는 경우와 비슷하다(GKC 150n: 창 29:6; 37:32f; 삼상 23:11; 26:17; 렘 37:17). 부시(239)가 지적한 대로

성경 히브리어에는 "Yes, 예"와 같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때 중요한 단어나 어구를 반복해서 응답한다.[7]

② 본문 비평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맛소라 본문은 "그 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들이] 증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들이 모두 복을 빈 것으로 되어 있지만 칠십인역은 "그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이 "[우리들이] 증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장로들이" 복을 빈 것으로 되어 있다.[8] JB 와 NJB 도 칠십인역을 따른다. 주옹(86)도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매우 시적이고 라헬과 레아 그리고 베레스와 다말과 아주 잘 연관지어 말한 축복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백성이 "증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장로들이 축복을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부시(239)가 주옹을 반박한 것처럼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대표로 어느 한 사람이 축복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기꺼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4 절에서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을 취하라고 제의했고 내레이터가 보고한 9 절의 전달문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공증인의 요구를 한 것을 고려하면 11 절의 전달문에 역순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모두 공증인의 역할을 받아들이며 "**증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들이 모두 보아스를 축복하는 일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9 절과 11 절에 언급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법적회의에 참여한 동일한 대상이며 9 절과 11 절의 내러티브 서론 사이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고(9a)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말했다(11a)고 함으로써 역순대구를 이루며[9] 공증 역할에 대한 문제를 보아스가 부탁하고 두 그룹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11 절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역할을 따로 분리한 칠십인역이나 JB/NJB 그리고 주옹의 번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브로츠만(162)이 지적한 것처럼 칠십인역이 원본을 반영한다면 이 원본에서 וַיֹּאמְרוּ[바욤루]가 사라지고 두 단어 הַזְּקֵנִים[하즈케님]과 עֵדִים[에딤]의 자리가 바뀌고 הַזְּקֵנִים[하즈케님]에 바브가 첨가되는 등의 3 가지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더 짧은 독법을 보이는 맛소라 본문이 원문이고 칠십인역이 의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7] Block(721, n. 51)은 수 2:4 에서 כֵּן[켄]과 창 20:6 과 왕상 2:3 에서 גַּם[감]이 영어 성경에서 "Yes"로 번역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이 불변화사들이 엄밀히 말하면 영어의 yes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8]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 354: "And all the people who were in the gate said, [We are] witnesses: and the elders said, ..."

[9] NIV 의 "Then the elders and all those at the gate said"라는 번역은 원문의 순서를 잘 반영하고 않고 원문과 반대로 되어 있어 역순대구를 보지 못하게 한다.

③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법적인 임무를 완수하고 법적회의의 합법성을 보장하였으나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공증인의 임무를 완수하며 그들은 보아스에게 그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장식하고 있었다. 위의 문학적 구조 부분에서 살핀 대로 이 축복문은 매우 아름다운 시로서 "행위-주체-통로 즉 주실 것([이텐])-여호와([아도나이])-신부될 여인([이샤/하나아라])"에 대한 언급이 틀을 형성하고 그 중앙에 오는 보아스 자신에게 일어날 복이 강조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축복문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된 일의 목적/결과, 즉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는 것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문이다.

④ 이 축복문은 신부의 다산(多産)을 비는 기도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먼저 신부가 될 여인을 위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복을 빈다. 여기서 룻은 그의 완전한 이름(모압 여인 룻)으로 언급되지 않고 "**당신**[=보아스]**의 집에 곧 들어갈 여인**"으로 언급된다. 이것은 결혼식 후에 신부가 신랑의 집을 향하여 가서 이르게 되었을 때 신랑이 공식적으로 신부를 그의 집으로 인도하며 맞아들이는 결혼 풍습에서 나온 표현이다(Block, 721: cf. 창 24:67; 신 20:7). "**곧 들어갈** (여인)"이란 번역은 악센트가 종음절에 있는 분사 הַבָּאָה[하바아]가 근접 미래를 나타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cf. GKC 116d; GBH 121i). 여기 "**여인**"으로 히브리어 "הָאִשָּׁה[하이샤]"는 문맥에 따라 "여인" 혹은 "아내"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γυνή[귀네]도 "여인" 혹은 "아내"를 나타낼 수 있다.

- 새슨(153)은 "한편으로 칠십인역처럼 룻을 아내로 부르는 것은 너무 빠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축복이 보아스의 미래의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에게 향한 것이라면 무의미한 축복이 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 허버드(258)는 칠십인역과 새슨이 "아내"로 번역한 것으로 여겼고 벌린(89)의 설명을 따르며 4:3 에서 룻이 나오미와 동등한 여인이 되었고[10] 여기서 더 이상 내레이터가 말한 모압 여인(1:22)도 아니고 룻 자신이 말한 이방 여인(2:10)도 아니고 보아스가 말한 젊은 여인(2:5)도 아니라 "아내"로 언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4:11 의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과 틀을 이루는 4:12 의 "이 젊은 여인"이 보아스가 사용한 2:5 의 "젊은 여인"과 똑같은 단어[나아라]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10] 1:22 과 2:6 에서 룻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모압 땅에서 돌아온**"이란 수식어가 4:3 에서 나오미를 묘사할 때 사용된 것을 근거로 마치 저자나 보아스가 두 여인 사이에 신분의 동등성 즉 돌아온 자들로서 동등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Berlin(89)과 Hubbard(239, n. 21)의 입장은 지나친 문예적 해석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것은 4:3 을 보라.

- 부시(239)가 지적한 것처럼 보아스가 룻과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 절의 "הָאִשָּׁה[하이샤]"를 "woman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것은 틀을 이루며 병행되고 있는 세 번째 축복문(12 절)의 "הַנַּעֲרָה[하나아라]"가 "젊은 아내"로 번역될 수 없고 "젊은 여인"으로 번역되는 것과도 잘 어울린다.

⑤ 첫 번째 축복문에서 보아스의 집으로 곧 들어가게 될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비교된다.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2 아들을 낳고 라헬이 2 아들을 낳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2 아들을 낳음으로써(창 35:22 하-26)[11]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 "בָּנָה אֶת־הַבַּיִת [바나 에트-하바이트]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수혼을 언급하는 신 25:9 에서처럼 전문적인 법적 용어로 "자손을 낳다 to have progeny, 가족을 이루다 to establish a family, 가문을 영속시키다, to establish (and perpetuate) a family"라는 뜻을 갖는다(Block, 722; Hubbard, 259, n. 35). 이 표현은 보아스의 룻과의 결혼이 자발적이지만 수혼과 비슷한 책임을 이행하려는 기업 무름인 것을 보도록 해 준다.[12]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룻에게 다산의 복을 주시도록 비는 축복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 127:1 상)"라는 솔로몬의 고백과 일맥상통한다.[13]

---

[11] 레아(창 29:31-34; 30:14-21):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그리고 잇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 라헬의 여종 빌하(창 30:1-8):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창 30:9-13): 갓과 아셀; 라헬(창 30:22-24; 35:16-18): 요셉과 베냐민

[12]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제사장 가문 혹은 왕조를 세우는(삼상 2:35; 삼하 7:27; 왕하 11:38; 대상 17:10, 25) 일에도 사용되었다(Hubbard, 259, n. 35). 병행 본문을 대조하면 삼하 7 장은 왕조를 세우는 일을 언급할 때 11 절에서 동사 עשׂה[아싸]를 쓰고 27 절에서 בנה[바나]를 썼는데 대상 17 장은 10 절과 25 절에서 동사 בנה[바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창 16:2 과 30:3 에서 "[집이] 세워지다"라는 기본재귀(nifal) 어간이 "자식을 얻다, 자녀를 생산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3] Block(722, n. 58)은 룻기에서 신부될 여인의 다산을 바라며 보아스에게 축복을 한 것과 주전 12 세기 우가릿 문헌 케렛 이야기에서 케렛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D. Pardee(*The Context of the Scriptures*, I: 337-338)가 번역한 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Ilu blessed [noble] Kirta,
[Pronounced the benediction] upon the godly lad of 'Ilu;
The woman you take, Kirta,
the woman you take to enter your house,
the girl who enters your courts,
She shall bear you seven sons,
even eight shall she produce for you.
.....

- בֵּית יִשְׂרָאֵל [베트 이스라엘]은 영어 성경에서 대개 “the house of Israel”로 번역되고[14] 한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번역되어 있다. 새슨(154)은 12 절에서 유다와 베레스와 관련지어 집이 언급된 것과 타르굼이 **이스라엘** 다음에 “우리의 조상 our father”이란 동격을 덧붙인 것을 지적하며 여기 11 절의 **이스라엘**이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새 언약적 이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영어 성경 중 새슨처럼 이스라엘을 개인 야곱으로 여기며 번역하는 역본들도 있다.[15] 영어 성경 중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여기며 번역하는 역본들도 있다.[16] 여기 **이스라엘**이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지만[17] “야곱” 대신에 쓰인 이름으로 보는 것이 근접 문맥(12 절)에 비추어 더 바른 해석으로 보인다.
-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라고 번역된 원문([크라헬 우흘레아 … 시테헴] שְׁתֵּיהֶם . . . כְּרָחֵל וּכְלֵאָה)을 직역하면 “라헬처럼 그리고 레아처럼, 그들 둘”이다.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이지만 출생 순을 따르지 않고 라헬과 레아로 언급된 것은 새슨(154)의 설명대로 레아가 이야기 전개에 더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레아가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뒤이어 나오는 세 번째 축복이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 유다와

Greatly uplifted is Kirta,
amongst the Shades of the earth,
in the gathering of the assembly of Ditānu.

룻기와 케렛이야기에서 아내될 여인의 다산과 남편될 사람의 집회(assembly)에서의 지위가 나란히 언급된다. 그러나 케렛 이야기에서 케렛이 내세에서 케렛이 속한 부족의 조상 Ditānu 처럼 신격화될 것을 언급한 것은 보아스가 이 세상에서 차지할 지위를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14] Cf. NIV/MSG: the family of Israel; AMP(C): the household of Israel; NCV: the people of Israel; NOG: our family of Israel

[15] TEV: May the Lord make this woman, who is coming to your home, to be like Rachel and Leah, who bore may children to **Jacob**(← who built up the house of Israel); CEV: And we pray that the Lord will give your wife many children, just as he did Leah and Rachel, the wives of **Jacob**; GNT: May the Lord make your wife become like Rachel and Leah, who bore many children to **Jacob**; .

[16] NLT: May the Lord make this woman who is coming into your home like Rachel and Leah, from whom **all the nation of Israel** descended!; VOICE: May the Eternal take this woman who is becoming a part of your family *today* and make her like Rachel and Leah, the two women responsible for building **the nation of Israel** *with their children*.

[17] Hubbard(259, n. 35)는 여기 “בֵּית יִשְׂרָאֵל [베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이란 표현이 삼상 7:2-3; 삼하 1:12; 6:5, 15; 12:8; 16:3 에도 나오는 것을 지적한다. 개역개정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베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번역하고 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20] 이것은 위의 9 절의 기룐-말론의 순서로 언급되고 바로 뒤 이어 10 절에 말론의 아내 룻이 언급된 것과 비슷하다.

- 여기 "שְׁתֵיהֶם[시테헴] 그들 둘"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어형에 있어서 3 인칭 남성복수 접미대명사와 똑같으나 남성복수가 아니고 1:8 의 עִמָּכֶם[이마헴]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처럼 양수/쌍수 접미대명사이다.[21] 브리히토(Brichto, *HUCA* [1973]: 22-23, n. 33)를 따르며 허버드(258, n. 34)와 새슨(154)이 "שְׁתֵיהֶם[시테헴] 그들 둘"이 언급된 것은 야곱처럼 보아스에게 두 계보(family line)가 생기는 것 즉 이야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첫 아들이 말론의 후사가 되고 이야기의 나중에 나오는 오벳으로 알려진 둘째 아들이 보아스 자신의 후사가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첫째 아들은 언급되지 않고 둘째 아들인 오벳이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이야기 전개의 문맥과 맞지 않는다.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할 차지할 자식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룻기에서 말론의 후사로 간주될 첫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태어난 오벳이 첫째 아들이며 법적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받을 말론의 후사이고 혈통으로 보아스의 후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룻의 다산을 바라는 축복이므로 룻으로부터 한 아들의 출생만을 고려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여인 라헬과 레아가 언급된 것은 야곱의 두 계보를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을 부각하고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보아스의 집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증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한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을 그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며 룻이 이스라엘인들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룻이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12 지파를 세운 것처럼 사사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기도했다. 이 축복의 기도는 모압의 피를 가진 모압 여인을 위한 정말 대단한 기도였고 룻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딸이 된 것을 보여준다(Ulrich, 135-36).

⑥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의 다산을 위한 복을 희구형(간접명령형)을 통하여 빌고 나서 바로 이어 두 개의 명령형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의 다산의 결과로 즐길 행복한 결과들을 언급한다. 다시 한번 구문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축복문의 희구형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축복문의 명령형들이 결과를

---

[20] 인물이 언급되는 순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4 을 참고하라.

[21] 두 여인을 가리키는 접미대명사가 붙은 שְׁתֵיהֶם[시테헴]은 1:19 에도 나온다. 여기 4:11 과 1:19 의 שְׁתֵיהֶם[시테헴], 1:8 의 עִמָּכֶם[이마헴]과 עֲשִׂיתֶם[아씨템], 1:9, 11 의 לָכֶם[라헴], 1:13 의 מִכֶּם[미켐]에 붙은 공성 양수 어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8 을 참고하라.

나타내고 있다(GKC 110i; GBH 116f, 120; WHS 519). 두 명령문은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라고 번역된다. 시의 병행법에 따라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이 병행되는 것에 비추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볼 수 있다.[22] 여기 "**번창하다**"로 번역된 עָשָׂה חַיִל[아싸 하일]과 "**유명해지다**"로 번역된 קָרָא שֵׁם[카라 셈]에 대하여 학자들은 라부샤니아(C. J. Labuschange, "the Crux in Ruth 4 11," *ZAW* 79 [1967]: 364-367)의 해석을 언급하며 찬반 의견을 드러낸다.

- 라부샤니아는 신부의 생산 능력에 대한 축복처럼 신부보다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신랑될 보아스의 경우에도 생산 능력에 대한 축복일 것이므로 욥 21:7-8; 욜 2:22; 잠 31:3 에서처럼 חַיִל[하일]이 생식 능력(procreative power)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라부샤니아는 עָשָׂה חַיִל [아싸 하일]을 "engender procreative power 생식 능력을 일으키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다"로 번역하고 뒤이어 병행구로 나오는 קָרָא שֵׁם[카라 셈]을 "act as name-giver 이름을 짓는 자로 행동하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다"로 번역하였다.
- 캠벨(153-154)은 라부샤니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May you show fertility in Ephrathah / And (then) bestow a name in Bethlehem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다산을 보여주길 바라오 / 그리고 (그리하여)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지어주길 바라오."라고 번역하였다.
- 새슨(103, 155-156)은 "so that you may prosper in Ephrathah, and maintain a reputation in Bethlehem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명성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번역하며 첫 번째 콜론의 경우 라부샤니아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나 내용상 보아스의 나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 콜론의 경우 라부샤니아의 주장이 지나친 병행법 적용에서 온 것으로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⑦ 블락(723)과 허버드(259-260)와 부시(240-242)는 라부샤니아의 해석을 거부한다.

- 블락은 עָשָׂה חַיִל [아싸 하일]이 생식 능력을 갖는 것에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관심이 구약에서 드러난 적이 없고 불임 문제는 주로 여성의 문제로 간주된 것을 고려하면 חַיִל[하일]을 생식 능력으로 본 라부샤니아의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

[22] 창 35:16-19; 48:7 에서도 에브랏/에브라다는 베들레헴과 동일시되는데 그 가는 길에 라헬이 죽어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 132:6 에서 에브라다는 שְׂדֵי־יָעַר [스데-야아르] 즉 기랏여아림(Kiriath-Jearim)과 병행어로 나온다. שְׂדֵי־יָעַר[스데-야아르]에 대하여 (N)KJV 는 "the fields of the woods"로 번역하고 개역과 개역 개정도 "나무 밭"으로 번역하지만 NASB/(N)RSV/NIV 는 "the fields of Jaar [NIV 각주 = Kiriath Jearim]"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공동번역도 "야알의 들"로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기랏여아림으로 번역한다. Bush(64-65)는 지명으로서 에브랏/에브라다가 원래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한 마을을 지칭했던 이름으로 보며 갈렙과의 관련(대상 2:19, 24, 50-51; 4:4)을 근거로 드고아 방향 남동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주장하였다. 블락은 עָשָׂה חַיִל [아싸 하일]이 "to act valiantly 용감하게 행동하다, to perform honorably 명예롭게 이행하다, to show great power 큰 힘을 보이다"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결혼과 관련된 축복의 문맥에서 "to make wealth, that is, to prosper 부를 이루다, 번창하다"란 의미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설명하였다.

- 허버드도 룻의 다산으로 대가족이 되면 생산성이 커지고 부강하게 될 것이므로 עָשָׂה חַיִל [아싸 하일]이 "to acquire wealth 부를 얻다"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 부시는 라부샤니아가 사용한 근거 구절들을 살피며 חַיִל[하일]이 잠 31:3 에서 "sexual capability 성적 능력, prowess 무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the ability to produce offspring 후손 생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욥 2:22 과 욥 21:7 에서 생식 능력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하였다.[23]
- 부시(240)는 명사 חַיִל[하일]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עָשָׂה חַיִל[아싸 하일]이란 어구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חַיִל[하일]을 "능력, 힘, power, strength"로 보면 עָשָׂה חַיִל [아싸 하일]은 "to perform valiantly 용감하게 이행하다; to exercise power, might 힘을 발휘하다; do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하다(JB, NEB, Gerleman, Hertzberg, Rudolph; cf. 민 24:18; 삼상 14:48; 시 60:12;)"라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חַיִל[하일]을 "가치, 재능, worth, ability"로 보면 עָשָׂה חַיִל [아싸 하일]은 "to do worthily 훌륭하게 행동하다(KJV, ASV, NAB, NEB; cf. 잠 31:29)"라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חַיִל[하일]을 "부, 소유 wealth, possessions"로 보면 עָשָׂה חַיִל[아싸 하일]은 "to achieve wealth, gain riches 부를 얻다, 부유해지다(NASV, NJPS, RSV, Joüon, Moffat, Smith-Goodspeed; cf. 신 8:17-18)"라는 의미를 갖는다.[24] 부시는 עָשָׂה חַיִל [아싸 하일]의 의미에 대하여 이 어구가 신부의 다산에 따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고 또 어구 자체가

---

[23] [잠 31:3]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욥 2:22]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욥 21: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24] de Waard & Nida(74)도 חַיִל[하일]의 세 가지 요소 즉 힘(might), 덕망(moral value), 재력(wealth)을 언급하며 번역자들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세 번째 요소에 치중하는 번역을 한다고 지적하고 "may you become rich in the clan of Ephrath"으로 번역하였다. de Waard & Nida(100, nn. 36-38)은 Bible de Jérusalem 의 번역 "Deviens puissant en Ephrata"와 Gerleman, Haller, Hertzberg 등이 힘의 요소을 강조하는 번역을 택하고, Vulgate 의 번역 "exemplum virtutis [she may be an example of virtue]"와 Gesenius-Buhl, BDB, NEB 등이 도덕적 가치의 요소를 강조하는 번역을 택하고, Baumgartener 의 "zu Reichtum kommen"과 RSV, NAB, Smith-Goodspeed, Dhorme 등이 부의 요소를 강조하는 번역을 택한 것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력, 명예,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to flourish 번창/번성/번영하다"라는 번역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 더 나아가 부시(241)는 라부샤니아가 첫 번째 축복문과 세 번째 축복문이 룻의 다산과 자손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는 전제 자체를 의문시하며 두 번째 축복문이 보아스 자신의 생산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축복문의 구문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부시는 축복문의 구문에 대하여 첫 번째 축복문(4:11c)은 신부 룻의 다산을 바라며 보아스의 번영을 빈 것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축복문은 룻의 다산의 결과로 보아스가 즐길 결과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바르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문(4:11de)은 신랑 보아스가 누릴 재력, 지위, 번창을 바라며 축복하고 세 번째 축복문(4:12)은 보아스의 가문이 명예롭고 중요한 가문이 될 것을 바라고 축복한 것이다.

⑧ עָשָׂה חַיִל[아싸 하일]과 병행을 이루는 קָרָא שֵׁם [카라 셈]은 직역을 하면 "이름을 부르다"이지만 여기에서처럼 전치사 בְּ[브](“in”) + 장소 이름으로 된 전명구가 따라 나오는 예는 다른 성경책에 없다.

- KB(II: 1129)에 의하면 קרא[카라]가 "부르다, 이름 짓다, 이름을 주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 ⒜사 60:18; 창 26:33; 민 32:41 처럼 동사 קָרָא[카라]와 두 개의 대격(XY)을 사용하거나("X 를 Y 라고 부르다"), ⒝창 2:20; 26:18; 사 65:15; 시 147:4 처럼 X+לְ קָרָא שֵׁם [카라 셈 르 X]를 사용하거나("X 에게 이름을 주다"), ⒞창 1:5, 8, 10; 2:19; 30:20; 35:18 처럼 Y X+לְ קָרָא שֵׁם [카라 셈 르+X Y]를 사용하거나("X 에게 Y 라는 이름을 주다, X 를 Y 라고 부르다"), ⒟창 3:20; 4:25-26; 5:3, 29; 5:2; 11:9; 26:21f; 출 15:23; 삿 1:26; 창 5:2 처럼 동사 קרא[카라] 다음에 접미대명사나 의존형 명사로 된 속격(X)이 따라오는 שֵׁם[셈]과 실제 이름(Y)으로 된 표현을 사용한다("X 의 이름을 Y 라고 부르다").[25]
- 이러한 용례들과 달리 전치사 בְּ[브](“in”) + 장소 이름이 뒤따라 나오는 겨우 קָרָא שֵׁם[카라 셈]에서 שֵׁם[셈]은 "이름 name"의 뜻이 아니라 "fame, reputation 명성, 명예, 평판"의 뜻으로

---

[25] [사 60:18] וְקָרָאת יְשׁוּעָה חֹומֹתַיִךְ וּשְׁעָרַיִךְ תְּהִלָּה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창 2:20] וַיִּקְרָא הָאָדָם שֵׁמֹות לְכָל־הַבְּהֵמָה וּלְעוֹף הַשָּׁמַיִם וּלְכֹל חַיַּת הַשָּׂדֶה 아담이 모든 가축(개역: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창 1:5] וַיִּקְרָא אֱלֹהִים ו לָאֹור יֹום וְלַחֹשֶׁךְ קָרָא לָיְלָ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 3:20] וַיִּקְרָא הָאָדָם שֵׁם אִשְׁתּוֹ חַוָּ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창 4:25-26]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וַתִּקְרָא אֶת־שְׁמֹו שֵׁת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וַיִּקְרָא אֶת־שְׁמֹו אֱנֹוש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용된다. 허버드(260)는 창 11:4; 12:2; 삼하 7:9; 겔 16:14 에서처럼 여기서 שֵׁם[셈]이 "reputation, renown 명성, 명예"의 뜻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여기 קָרָא שֵׁם[카라 셈]이 עָשָׂה שֵׁם[아싸 셈]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 부시(242-43)도 "to make a name, gain fame for oneself 이름을 내다, 명성을 얻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עָשָׂה שֵׁם לְ[아싸 셈 르]나 שִׂים שֵׁם לְ[씸 셈 르]를 사용한다고 지적하며 여기 קָרָא שֵׁם[카라 셈]이 עָשָׂה שֵׁם[아싸 셈] 혹은 שִׂים שֵׁם[씸 셈]과 동의어로서 "to acquire a name, gain fame, 명성을 얻다, 유명해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וּקְרָא־שֵׁם. . . וְעָשֵׂה־חַיִל[브아쎄-하일 . . . 우크라-셈]을 나란히 두고 보면 알 수 있듯이 עָשָׂה שֵׁם[아싸 셈] 대신קָרָא שֵׁם[카라 셈]이 선택된 것은 עָשָׂה[아싸]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Bush, 243; cf. Joüon, 91[E 87]).[26]

⑨ 블락(723, n. 62)은 기본재귀 어간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기본능동 어간이 비인칭적으로 "one will call a name"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본다면 "and a name will be called"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블락(728, n. 77)은 4:11 과 4:14 의 구문이 병행되는 것으로 보고 4:14 의 וְיִקָּרֵא שְׁמוֹ בְּיִשְׂרָאֵל([브이카레 시모 브이스라엘], 직역: And may his name be called in Israel.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불려지길!)이 4:11 의 וּקְרָא־שֵׁם בְּבֵית לָחֶם([우크라-셈 브베트 라헴], 직역: And may one call a name in Bethlehem.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부르길!)의 수동 형식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블락(723, 728)은 사 14:20 을 들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죽은 후에 언급되지 않을 때 그가 존재하는 것을 그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지적하며 죽은 후에 어떤

---

[26] Bush(242-243)에 의하면, 학자들은 קָרָא שֵׁם[카라 셈]처럼 기본능동 어간을 사용하는 대신 기본재귀 어간을 사용하여 "may your name/fame be proclaimed 당신의 이름/명성이 선포되기를!"의 의미를 나타내는 וְנִקְרָא שְׁמֶךָ[브니크라 시메흐](BHK; Gray, *NCBC*, 379) 혹은 וְיִקָּרֵא שְׁמֶךָ[브이카레 시메흐](Rudolph, 60)로 정정하기도 한다. 루돌프가 정정의 근거로 든 것은 4:14 에 기본재귀 어간이 사용된 것과 שְׁמֶךָ[시메흐]에서 어미형 카프가 사라진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전치사 בְּ[브]와 혼동되었다는 가정이다. 리히터(Richter, *ZAW* 95 [1983]: 123-124)는 וְעָשֵׂה[바아쎄]와 וּקְרָא[우크라]의 동사 앞에 붙어 있는 접속사 바브가 요드와 혼동된 것으로 보며 "May an increase be made in Ephrathah! May a name continue to be mentioned in Bethlehem! 에브라다에서 증식이 이루어지길!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길!"이라고 번역하였다. 부시는 이러한 정정들에 대하여 사본이나 역본의 지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들어 반대하였고 리히터의 정정의 경우 세 개의 희구형 즉 יִתֵּן[이텐]과 יַעֲשֶׂה[예아쎄]와 יִקָּרֵא[이카레]가 접속사 없이 나란히 오게 되므로 구문적으로 비정상적이 되는 것도 지적하며 반대하였다. 그리고 새슨(156)은 וּקְרָא[우크라](and proclaim 선포하라)를 וּקְנֵה[우크네](and acquire 얻으라)로 정정할 것을 제안하는 주옹(90-91, [E 87-88])의 주장에 대하여 철자상의 변경 설명이 어렵고 히브리어에 알려지지 않은 어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Bush(242)가 Joüon(90-91 [E 87-88])이 "קנה를 עשה"로 정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언급한 것은 실수이므로 "קנה를 קרא"로 정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고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Joüon 이 정정 제안을 한 것은 עשה가 아니라 קרא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명성이 살아 있도록 유지하게 하는 것("to keep the name/the reputation/the fame alive")이고 그 사람이 언급된 장소에 거주하는 그의 후손들 안에 살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to perceive the person as living on in his descendants in the place named")이라고 설명하였다.

⑩ 허버드(260)는 קָרָא שֵׁם [카라 셈]이 룻기를 마감하는 절들(14b, 17a, 17b)에서도 중심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주목하며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위대한 일들을 위해 운명지어진 것을 암시한다고 풀이하였다. 드 바르트와 니다(74)는 오늘날에도 중동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번창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75. 룻 4:12

1) 원문 문제

וִיהִי בֵיתְךָ כְּבֵית פֶּרֶץ אֲשֶׁר־יָלְדָה תָּמָר לִיהוּדָה (룻 4:12)
מִן־הַזֶּרַע אֲשֶׁר יִתֵּן יְהוָה לְךָ מִן־הַנַּעֲרָה הַזֹּאת׃

① וִיהִי의 어형을 설명하면? 문맥상 접속사 바브는 대등절을 인도하는가(예: 창 20:7; 시 27:4) 아니면 종속절을 인도하는가(창 20:3; 왕하 6:17; cf. GKC 109f, 165a[j]; GBH 116d; IBH 107[c])?

② 두 번 쓰인 מִן의 용법은?

③ 미완료형 יִתֵּן의 용법은?

2) 주석

룻 4:12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① 희구형(간접명령형)을 써서 신부될 룻의 다산을 비는 첫 번째 축복문(4:11c)과 두 개의 명령형을 써서 그 결과로 누릴 보아스의 번창과 명성을 비는 두 번째 축복문(4:11de)에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축복문(4:12)은 접속사+희구형(간접명령형)으로 시작된다. 명령형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희구형(간접명령형)은 대등절을 인도하기도 하고[28]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을 인도하기도 한다.[29] 명령형+접속사+간접명령형의 구문이 대등절+대등절인지 아니면

---

[28] [시 27:14]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קַוֵּה) 강하고(חֲזַק) 담대하며(וְיַאֲמֵץ) 여호와를 바랄지어다(וְקַוֵּה)
[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הָשֵׁ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וְיִתְפַּלֵּל) 네가 살려니와(וְחֵיֵה) 네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29] *GKC* 109f, 165a[j]; *GBH* 116d; Lambdin, *IBH* 107[c]. Bush(243)가 근거 구절로 왕하 6:17 과 함께 창 20:3 을 든 것은 창 30:3 로 고쳐야 한다. 다음 예문을 보라.
[왕하 6:17]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פְּקַח) 보게 하옵소서(וְיִרְאֶה)

주절+종속절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문맥이며 창 24:51; 31:37 처럼 어떤 구문은 모호해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법적으로 세 번째 축복문은 두 번째 축복문과 대등한 절일수도 있고(Bush, 243) 두 번째 축복문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일 수도 있다(Parker, *JBL* 95 [1976]: 24, 목적의 종속절). 여기 문맥은 대등절로 보는 것을 지지한다. Bush 가 잘 지적한 대로 세 번째 축복문에 들어있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절은 다산을 비는 첫 번째 축복문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허버드(254, n. 13)의 설명대로 12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를 이접적 바브로 보면 11 절과 12 절은 분리되며 12 절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11 절의 다산을 비는 첫 번째 축복문(희구형)의 결과로 누리는 축복의 내용이 11 절의 두 번째 축복문(두 개의 명령형)에 표현된 것처럼 12 절에 표현된 다산의 결과로 인해 누리는 축복의 내용이 12 절의 세 번째 축복문(희구형)에 표현된 것이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룻의 다산(11c, 희구형: 축복문 1)

→ 보아스의 번창과 명성(11de, 두 개의 명령형: 축복문 2)

보아스의 집의 명성(12a, 희구형: 축복문 3)

←룻의 다산(12b, 전명구+관계절)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세 번째 축복문은 첫 번째 축복문의 더 확대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축복문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도 아니며, 두 번째 축복문과 나란히 가는 대등한 절이다.

②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에 있는 동사 יִתֵּן[이텐]은 미완료형으로 희구/소원을 나타내는 서법적인 용법으로 쓰였고 두 번 나오는 전치사 מִן[민]의 경우 번역에서 보듯이 첫 번째(**자손으로 말미암아**) [민]은 이유/원인을 나타내고 두 번째(**이 젊은 여인을 통해**) [민]은 도구/출처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신부가 될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자손을 낳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비는 이 어구는 첫 번째 축복문이 룻의 다산을 비는 것처럼 복의 시혜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보아스가 재산 손실을 무릅쓰고 기업을 무르는 일에 나서고 더 나아가 친족의 후사를 잇기 위해 룻과 결혼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룻이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통하여 보아스에게 주어질 자손들은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룻이 말론과의 결혼 생활(1:4-5; 4:10)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보아스와의 결혼에서 룻이 자녀 출산을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일은 정말 필요불가결한

[창 30:3]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בֹּא) 그가 아들을 낳아(וְתֵלֵד)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וְאִבָּנֶה)

일이었다(Hubbard, 262).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זֶרַע[제라]는 "씨"를 의미하는 집합명사로서 족장들(창 12:17; 13:15, 16; 26:3, 4, 24; 32:13)과 다윗(삼하 7:12; 시 18:50[MT 51]=삼하 22:51)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처럼 자손들/후손들을 가리킨다.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 "보리"를 주었었는데(3:15, 17) 여기서 여호와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씨"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받으셨다. 여기서 룻이 "**젊은 여인**"으로 언급된 것에 대하여 캠벨(154)은 2:5, 6; 3:10 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의 나이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30] 새슨(157)은 캠벨의 설명을 반박하며 11 절의 "[이샤], 여인"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와 비교될 때 적합하고 12 절의 "[나아라], 젊은 여인"은 남편 없고 무시받았던 다말과 비교될 때 적합한 것을 고려한 문맥상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허버드(262)는 새슨의 설명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2:5 에서 보아스가 언급한 "הַנַּעֲרָה הַזֹּאת [하나아라 하조트], 저[/이] 젊은 여인"과 4:12 에서 백성과 장로들이 언급한 "הַנַּעֲרָה הַזֹּאת [하나아라 하조트], [저/]이 젊은 여인"이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를 둘러싼 수미쌍관법, 곧 "저[/이] 젊은 여인"에 대하여 물었던(2:5) 보아스가 "[저/이/] 그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집으로 데려오는(4:13) 주제적 수미쌍관법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31]

③ 백성들과 장로들은 여호와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 줄 자손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빌었다. 창 38 장에 의하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하여 장자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는다(2-5 절).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장자 엘은 죽임을 당한다(6-7 절). 차자 오난은 수혼을 통하여 형의 씨를 잇게 하라는 아버지 유다의 말대로 수혼은 했으나 형의 씨를 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8-10 절). 그 후 다말은 유다의 말대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며 아버지의 집에서 수절하고 있었다.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그녀로 인해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았다. 다말은 씨를 잇게 하려는 목적으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가장하여(11-15 절)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된다(16-18 절). 유다는 석 달쯤 후에 다말의 임신 소식들 듣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말의 임신이 자신에 의한 임신인 것임을 알고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반성하고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

[30] 보아스가 밭에서 종에게 룻의 신원을 모른 상황에서 그의 눈에 띈 여인 즉 "저 젊은 여인이 뉘 댁 사람이냐(2:5)"라고 사환에게 물었던 것과 룻의 신원을 알고 "내 딸(2:8; 3:10)"이라고 불렀던 것은 보아스와 룻이 나이 차이가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31] Hubbard(262)는 이 일이 또한 나오미가 언급했던 "(새) 남편"에 대한 주제(1:8-13)의 결론을 이루고 나오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그 후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하지 않는다(24-26 절). 다말은 해산할 때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도로 들인 세라와 먼저 터치고 나온 베레스를 낳는다(27-30 절). 이렇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 준다**. 유다는 (두 번째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변화된다. 형제들의 자연적 리더(natural leader)였던 유다는 은잔을 훔쳤다고 의심받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먼저 생각하며 베냐민 대신 종이 되는 벌을 자청함으로써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섬기는 리더(servant leader)의 모습을 보여준다(Ulrich, 137). 야곱은 섬기는 리더십을 보인 유다에게 그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복을 선언한다. 유다는 이스라엘 왕들이 고대근동의 왕들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잘 보여 주었다. 보아스도 유다처럼 섬기는 리더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고 룻기 저자는 마지막 긴 족보에서 보아스를 다윗의 왕적 계보의 연결고리로 제시한다.

④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에서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낳게 될 아들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와 비교되고 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전시킬 만한 후보자로 생각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시도해서라도 후손을 이으려고 했던 가나안 여인 다말을 사용하여 유다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상하며 백성들과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개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모든 것을 포기한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여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후사에 무관심한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은 그의 두 아들을 죽게 하였고 셋째 아들마저 죽게 할지도 모르는 재수 없는 여인에 불과하였다. 다말처럼 룻은 말론과 결혼하였지만(1:4-5; 4:10) 후사를 갖지 못한 채 과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전시킬 후보 자격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방 여인이었다. 그러나 다말처럼 하나님이 쓰기시만 하면 룻도 얼마든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증인들은 변화된 유다의 섬기는 리더십을 그대로 실천한 보아스와 다말처럼 후사를 잇게 할 룻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그의 목적을 성취해 가기를 바랐다(Ulrich, 138). 증인들의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종막(4:13-17)에서 다루어진다.

4 막 2 장(4:9-12) 해설

⑴4 막 1 장(4:1-8)이 법적 집회에서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주고받은 협의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4 막 2 장은 보아스가 기업 무를 권한 얻은 것을 선언하며 증인 역할을 부탁할 때(4:9-10) 백성과 장로들이 부탁받은 대로 증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며 축복하는(4:11-12) 것을 보여준다. 법적 집회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로부터 기업 무를 권한을 얻게 된 **보아스는** 그가 모셔왔던

장로들과 성문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4:9a). 룻기에서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이 말의 서두(4:9b)와 말미(4:10d)에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은 법적 집회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기업 무를 권한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공증인의 역할이었다. 법적 집회 결과를 문서로 남겨 공증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겼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장래에 어떤 법적 논쟁이 생길 때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었다. 만일 미래에 기업 무를 권한을 얻은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로부터 받은 신발을 증거로 제시하고 법적 집회에서 보고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 삼아 호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이란 단어는 증인들의 법적 성격 즉 그들이 공증인 역할을 인정하면 바로 그 거래가 최종성을 가지고 오늘과 그 이후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오늘"이란 단어는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무를 약속(3:13)을 한 그대로 이행하려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나오미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아니하리라(3:18)."고 예고한 대로 기업 무름에 관한 일을 잘 마무리한 것을 드러나게 한다(허버드, 257).

⑵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증언해 줄 기업 무를 권한 이전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보아스는 "**여러분들은 오늘 증인들입니다**(4:9b, 10d)**.**"라는 틀 안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그에게 넘긴 두 가지 의무 사항을 매우 정확하고 자세한 형식을 갖추어 공적으로 반복 진술한다. 보아스는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에 초점을 두고 "**제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나오미로부터 얻었습니다**(4:9cd)."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보아스는 4:3a 의 "엘리멜렉의 밭"을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4:9c)" 즉 "처음에는 엘리멜렉에 속하였으나 그 후 상속에 의하여 기룐과 말론에 속하였던 모든 것(드 바르트와 니다, 72)"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유산 상속에 대한 암시를 내포하는 엘리멜렉 다음에 기룐과 말론의 이름이 추가된 것은 법적인 정확성과 최종성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보아스는 룻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저의 아내로 취할 권한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4:10a-c)**.**"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룻은 4:5c 의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보다 더 공식적인 성명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4:10a)"으로 언급되어 있다. 룻이 더 공식적인 완전한 성명으로 언급되는 것은 보아스의 진술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하려는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할 권한을 얻었다고 선언한 것은 나오미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안식(1:8-9; 3:1)이 주어지고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온전한 상(2:12)이 주어지고 룻이 요구한대로 결혼(3:9)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아스의 룻과의 결혼 목적/결과도 4:5e 의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이란 어구보다 더 자세하게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4:10b)" 다음에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4:10c)"이라고 함으로써 목적이 이루어질 때 수반될 결과까지 추가로 진술하고 있다(허버드, 253, n. 7).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 낳은 자식은 엘리멜렉-말론-기룐의 기업을 차지하며 그들의 이름을 잇게 할 후사가 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죽은 조상들의 법적 권리를

보존하며 죽은 조상들의 존재가 그들의 문중 형제들 (즉 확대된 가족) 안에서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고장 성문에서 (즉 그들의 성문에서 장로들과 남자들이 모이는 성읍 집회 가운데서)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⑶내레이터는 보아스에게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아담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받았던 에덴 동산(창 2 장)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켰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한 가지 좋지 않은 것 즉 독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위해서, 보아스의 갈비뼈가 아니라 모압으로부터 그리고 보아스의 육체적인 옆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덕망있는[에셰트 하일] 룻을 데려오시고 덕망있는[이시 기보르 하일] 보아스에게 주셨다(퍼거슨, 127).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그의 종을 먼 나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데려온 것보다 더 극적인 첫 결혼(즉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재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압이란 먼 나라에 가셔서 그의 아들 보아스를 위한 신부 룻을 데려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노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이란 먼 나라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먼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을 자기의 피로 사시어 교회 곧 자기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퍼거슨 128).

⑷법적 회의의 결과에 대한 공적 선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라는 보아스의 공증인 요구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우리말의 "예"와 같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나 어구를 반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4:11ab). 여기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9 절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과 역순 대구를 이루고 있고 백성을 수식하는 "**성문에 있던**"이란 형용사절은 성문이 법정 역할을 했고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협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밝혀 준다(허버드, 258).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증인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법적회의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그들의 법적인 임무를 완수하고 보아스에게 그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장식하였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대표로 어느 한 사람이 축복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기꺼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부시, 239). 이 축복문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된 일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문이다. 이 축복문은 룻을 서두와 말미에서 각각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과 "이 젊은 여인"으로 언급하며 후사를 생산할 수단으로 여기고 보아스 자신에게 집중된 세 개의 축복을 진술한다. 첫 번째 축복문(4:11c)은 신부 룻의 다산을 빌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축복문은 룻의 다산의 결과로 보아스가 즐길 결과들을 언급하는데 두 번째 축복문(4:11de)은 신랑 보아스가 누릴 재력, 지위, 번창을 빌고 세 번째 축복문(4:12)은 보아스의 가문이 명예롭고 중요한 가문이 되기를 빈다.

⑸희구형(간접명령형)으로 된 첫 번째 축복문에서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신부가 될 여인의 다산(多産)을 바라며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 주시길 바란다(4:11c)고 말한다. 여기서 룻은 신랑이 결혼식 후 그의 집을 향하여 오는 신부를 집으로 인도하며 맞아들이는 것에 비추어 "**당신**[=보아스]**의 집에 곧 들어갈 여인**"으로 언급되며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비교된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2 아들을 낳고 라헬이 2 아들을 낳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2 아들을 낳음으로써 형성되었다. 야곱의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아처럼 룻이 보아스의 집을 세우기를 바라는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 127:1 상)."라는 솔로몬의 고백과 일맥상통한다. 수혼을 언급하는 신 25:9 에서 유래한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자손을 낳다, 가족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며 보아스의 룻과의 결혼이 자발적이지만 수혼과 비슷한 책임을 이행하려는 기업 무름인 것을 보여준다(블락, 722).

⑹두 개의 명령형으로 된 두 번째 축복문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룻의 다산의 결과로 보아스가 누릴 복의 결과를 내다보며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란다**(4:11de)고 말한다.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이 병행되는 것에 비추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보인다. **번창하고 유명해지라**고 비는 것은 신부의 다산에 따른 결과로 보아스가 얻을 재력, 명예, 높은 지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에도 중동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번창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드 바르트와 니다, 74).

⑺두 번째 축복문과 나란히 가는 대등절이며 희구형(간접 명령형)으로 된 세 번째 축복문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당신에게 자손을 주셔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란다**(4:12)고 말한다. 첫 번째 축복문처럼 세 번째 축복문도 복의 시혜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여호와께서 젊은 여인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빈다. 말론과의 결혼(1:4-5; 4:10)에서 자녀가 없었던 룻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와의 결혼에서 자녀를 출산하도록 해 주시는 일은 정말 필요불가결한 일이었다(허버드, 262). 백성과 장로들은 계속하여 여호와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 줄 자손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빌었다.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을 잃고 셀라마저 잃을까봐 며느리를 속이며 자손 보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불의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으려고 했던 다말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에게 세라와 베레스를 주셨다.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 줄 자손은 나오미에게 속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보아스에게도 속하여 보아스의 집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해 줄 것이다.

⑻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하기 위하여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기업 무를 책임을 떠맡은 보아스의 증인이 되기를 승낙한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이 여호와의 은혜로운 개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나오미와 룻을 괴롭히고 있던 죽음과 텅 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음에 살필 종막은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죽음과 텅 빔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여준다.

⑼다말은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1:1-17)에 여인으로서 제일 먼저 언급되며(3 절), 여호와를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이스라엘 정탐군을 살려주고 진멸에서 구원받은 가나안 여인 라합(5 절)과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시기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쓰임을 받은 모압 여인 룻(5 절)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낳게 되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밧세바 6 절)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16 절)와 함께 나온다.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인들과 접촉하여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울리치, 138).

⑥종막 (4:13-17)

본문

[WLC: 4 רות]

13 וַיִּקַּח בֹּעַז אֶת־רוּת וַתְּהִי־לוֹ לְאִשָּׁה וַיָּבֹא אֵלֶיהָ וַיִּתֵּן יְהוָה לָהּ הֵרָיוֹן וַתֵּלֶד בֵּן׃ 14 וַתֹּאמַרְנָה הַנָּשִׁים
אֶל־נָעֳמִי בָּרוּךְ יְהוָה אֲשֶׁר לֹא הִשְׁבִּית לָךְ גֹּאֵל הַיּוֹם וְיִקָּרֵא שְׁמוֹ בְּיִשְׂרָאֵל׃ 15 וְהָיָה לָךְ לְמֵשִׁיב נֶפֶשׁ
וּלְכַלְכֵּל אֶת־שֵׂיבָתֵךְ כִּי כַלָּתֵךְ אֲשֶׁר־אֲהֵבַתֶּךְ יְלָדַתּוּ אֲשֶׁר־הִיא טוֹבָה לָךְ מִשִּׁבְעָה בָנִים׃
16 וַתִּקַּח נָעֳמִי אֶת־הַיֶּלֶד וַתְּשִׁתֵהוּ בְחֵיקָהּ וַתְּהִי־לוֹ לְאֹמֶנֶת׃ 17 וַתִּקְרֶאנָה לוֹ הַשְּׁכֵנוֹת שֵׁם לֵאמֹר
יֻלַּד־בֵּן לְנָעֳמִי וַתִּקְרֶאנָה שְׁמוֹ עוֹבֵד הוּא אֲבִי־יִשַׁי אֲבִי דָוִד׃

[ESV: Ruth 4:13-17] **Ruth and Boaz Marry**

13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And he went in to her, and the Lord gave her conception, and she bore a son. 14 Then the women said to Naomi, “Blessed be the Lord, who has not left you this day without a redeemer, and may his name be renowned in Israel! 15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who is more to you than seven sons, has given birth to him.” 16 Then Naomi took the child and laid him on her lap and became his nurse. 17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gave him a name, saying,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개역개정: 룻 4:13-17]

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번역 (룻 4:13-17)

룻 4:13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1]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14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2]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아이]의 이름이 [3]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 이제 그가 당신에게 [2] 생명의 회복자요 당신의 [2]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2] [그토록] 사랑하는 [4] (당신의)[2] 며느리, [아니] (당신에게)[2]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16 그 때 나오미가 그 자식을 [5] 취하여 (그녀의) 품에 안았고 [6]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17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었다.[7]

본문 비평

[1] 위의 직역은 첫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의 주어 보아스를 두 번째 절의 주어인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녀와 동침하였다."라는 의역으로 바꿀 수 있다. NIV 의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Then he went to her, and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and she gave birth to a son."이란 번역은 세 번째 절의 마지막 단어에 절을 2 등분하는 악센트 아트나흐가 붙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고 세 번째 절이 네 번째 절과 다섯 번째 절과 함께 가는 것처럼 옮긴 것이다. 이것은 ESV 도 NIV 와 비슷하다.

[2] 나오미를 가리키는 2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당신")가 14-15 절에 6 번 사용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개역의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란 번역은 "생명"이란 명사에 접미대명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접미대명사가 전치사에 붙어 있고 "생명"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려고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요"라고 번역하였다. 캠벨(164)은 앤더슨의 제안을 따르며 뒤에 나오는 "노년"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가 앞에 나온 "생명"도 지배하는 2 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3] BHS 4:14 의 각주 a 는 MT שְׁמוֹ([시모] '그의 이름') 대신 칠십인역은 τὸ ὄνομά σου(=שְׁמֶךָ[시메흐]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라틴역(OL)도 "당신의 이름"으로 읽었다. 나오미를 가리키는 2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읽은 칠십인역과 구라틴역의 독법은 여인들이 룻 4:14-15 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유의하면 맛소라 본문의 "그의 이름"이란 독법보다 열등하다. 맛소라 본문의 3 인칭 남성 단수 접미대명사의 선행사는 여호와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이이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4] BHS 4:15 의 각주 a 는 레닌그라드 사본의 특이한 점 한 가지를 지적한다.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인쇄판들과 20 개 이상의 중세 사본들에 발견되며 기대되는 형인 אֲהֵבָתֶךָ[아헤바테흐](세 번째 자음 베트의 모음이 카마츠) 대신에 레닌그라드 사본은 אֲהֵבַתֶךָ[아헤바테흐](세 번째 자음 베트의 모음이 파타흐)를 가지고 있다.

[5] 여기서 룻이 낳은 아들을 언급할 때 יֶלֶד[옐레드]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1:5 에서 나오미의 아들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1:5 과 4:16 에 똑같은 단어 יֶלֶד[옐레드]가 사용된 것을 밝히기 위해 개역의 "1:5 아들"과 "4:16 아기"처럼 다르게 번역하지 않고 두 구절 모두 통일하여 "자식"으로 번역하였다.

[6] BHS 4:16 의 각주 a-a 는 페시타역이 וּתְשִׁתֵהוּ בְחֵיקָהּ[바트시테후 브헤카흐]를 생략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생략된 첫 단어 וּתְשִׁתֵהוּ[바트시테후]가 바로 다음에 오는 וּתְהִי[바트히]와 동일한 두 개의 자음과 모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두탈락(haplography)이란 필사자의 실수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역이 맛소라 본문과 일치하고 있는 사실은 맛소라 본문이 원문인 것을 확인해 준다.

[7] 직역: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1)종막(4:13-17)은 중심 인물 나오미의 문제 해결, 즉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그녀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아들이 태어나 텅 비었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1 막 2 장(1:19-22)과 종막(4:13-17)은 병행을 이루고 있다. 1 막 2 장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비참했던 삶을 토로했던 대상이 베들레헴 여인들이었듯이, 종막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울 후사인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여인들이다. 종막은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13e)"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17b)."라는 문을 통하여 수미상응구조를 보이고 있다.

(2)부시(251)는 다음과 같이 종막(4:13-17)의 구조를 분석하였다.[1]

룻 4:13-17 의 구조							
내러티브 서술 (A)	13a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데려왔고(וַיִּקַּח)	**Aa**				
	13b	וַתְּהִי־לוֹ לְאִשָּׁה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Ab**				

[1] Bush(251)의 표의 표제 "The Structure of Ruth 13-17"은 그의 다른 부분의 경우와 일관되게 "The Structure of Ruth 4:13-17"(Cf. Bush, 110) 혹은 "The Structure of vv 13-17"(Cf. Bush, 90, 132, 146, 194-195)로 고쳐야 할 것이다. 표의 오른편에 나오는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는 Bush 가 도해를 통하여 표시한 두 에피소드의 동의적 병행을 보여주기 위해 편의상 붙인 것이다. 소문자는 병행 요소가 나오는 것에 유의하여 일치되도록 붙였기 때문에 A 에는 c 가 없고 B 에는 d 가 없다. 수직으로 같은 칸에 있는 것들은 동의적 병행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13c-d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13e	וַתֵּלֶד בֵּן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Ad**	
여인들의 말 (B)	14a	그러자 여인들(הַנָּשִׁים)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Ba**			
	14b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גֹּאֵל)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Bb**			
	14c	וְיִקָּרֵא שְׁמוֹ בְּיִשְׂרָאֵל 그[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Bc**		**Be**
	15a	이제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이며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15b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며느리, [아니] (당신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 서술 (A')	16a	그 때 나오미가 그 자식을 취하여(וַתִּקַּח)	**A'a'**				
	16b	(그녀의) 품에 안았고					
	16c	וַתְּהִי־לוֹ לְאֹמֶנֶת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A'b'**				
여인들의 행동 (B')	17a	וַתִּקְרֶאנָה לוֹ שֵׁם 그 이웃 여인들(הַשְּׁכֵנוֹת)이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B'a'**	**B'c'**		
	17b	יֻלַּד־בֵּן לְנָעֳמִי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B'd'**	
	17c	וַתִּקְרֶאנָה שְׁמוֹ 그 이름을 오벳(עוֹבֵד)이라고 불렀다.		**B'b'**	**B'c''**		
	17d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었다.					**B'e'**

⑶부시의 표가 잘 보여 주는 것처럼 종막은 각각 내러티브 서술(A, 13a-e; A', 16a-c)과 이에 대한 베들레헴 여인들의 반응(B, 14a-15b 덕담; B', 17a-c 작명)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인다. 두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이 동의적 병행을 이루고 있다.

①두 에피소드의 내러티브 서술 부분은 각각 짧고 시간적으로 연속된 사건을 묘사하는 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 "לקח[라카흐] 취하다(A, 13a; A', 16a)[=**Aa/A'a'**]"라는 동사로 시작하며 "וַתְּהִי־לוֹ[바트히-로 르] 그녀가 그에게 ···이 되었다(A, 13b; A', 16c)[=**Ab/A'b'**]"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

②베들레헴 여인들[**Ba/B'a'**]은 [하나심](“여인들” B, 14a)과 [하시헤노트](B', 17a “이웃 여인들”)로 언급된다. 여인들의 말은 둘 모두 새로 태어난 아이(B, 14b "גֹּאֵל[고엘] 기업 무를 자"; B', 17b-c

"עוֹבֵד/בֵּן[오베드/벤] 아들, 오벳")와 나오미(B, 14a; B', 17b)와의 관계에 전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각각 "קרא שֵׁם[카라 셈] 이름을 부르다(B, 14c; B', 17ac)"[**Bc/B'c'/B'c''**]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

③오벳에 대한 확장된 동격—"17d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다"—은 14c 에 나왔던 여인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빌었던 기도의 응답인 것을 보여 준다[**Be/B'e'**].[2]

⑷종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길게 확장되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여인들의 첫 번째 말(B, 14a-15b)이다. 이 부분은 나오미를 지칭하는 2 인칭 여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6 번 나오며 나오미의 다시 채워질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나오미의 회복의 진전을 밝히 드러내는 자음 שׁ/שׂ[신/씬]과 ב[베트] 그리고 모음 *i* 를 포함한 비슷한 소리에 의한 4 중의 언어유희(14b הִשְׁבִּית[히시비트]; 15a לְמַשִּׁיב[르메시브]; 15a שֵׁיבָתֵךְ[쎄바테흐]; 15b מִשִּׁבְעָה[미시브아])가 들어 있고 또 자음 כ[카프]와 ל[라멧]을 사용한 유사음 언어유희(15a וּלְכַלְכֵּל[울할켈]; 15b כַּלָּתֵךְ[할라테흐])가 들어 있다(Porten, *GCA* 7 [1978]: 47; Bush, 251-52).

각 절 주석 (룻 4:13-17)

76. 룻 4:13

1) 원문 문제

וַיִּקַּח בֹּעַז אֶת־רוּת וַתְּהִי־לוֹ לְאִשָּׁה וַיָּבֹא אֵלֶיהָ וַיִּתֵּן יְהוָה לָהּ הֵרָיוֹן וַתֵּלֶד בֵּן׃ (룻 4:13)

①וַתְּהִי־לוֹ לְאִשָּׁה에서 라멧의 용법은?

②וַיָּבֹא אֵלֶיהָ란 표현의 배경과 의미는?

③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어근 ( )의 기본능동형(וַתֵּלֶד)이 쓰였고 4:18-22 의 족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사역능동형(הוֹלִיד)이 쓰였다.

2) 주석

룻 4:13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

[2] Bush(251)의 분석에 두 에피소드가 동의적 병행을 이루고 있는 측면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에서 17d 가 베들레헴 여인들의 행동 속에 포함되었으나 17d 는 여인들의 말이 아니다. Bush 는 17 절을 abcd 로 나누고 Block 은 17 절을 abc 으로 나누었는데 Bush 의 17d 는 Block 의 17c 이다. Block(725)은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었다**"라는 17c[=Bush 의 17d]를 내러티브의 결론으로 보았다. Block 이 4:13-17 을 5 부분 즉 내러티브 보고(13),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14-15), 내러티브 보고(16),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17ab), 내러티브 결론(17c)으로 나눈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① 법적 장면을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으로 마무리한 내레이터는 빠른 필치로 열 달 사이에 보아스와 룻에게 일어난 일을 진술한다. 악센트 아트나흐에 의해 2 등분된 전반부 세 개의 절은 법적 장면 이후에 있었던 보아스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축복을 받은 **보아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얻은 기업 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표현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였다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반영하고 있고 또 4:11 의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이란 축복을 반영하고 있다. 신 20:7 이 암시하는 대로 결혼식의 일부 과정으로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풍속이 있다(Block, 725). 보아스가 집으로 데려온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표현은 룻의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완결된 것을 보여 준다(Block, 725; Hubbard, 267). 룻은 더 이상 본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 여인[노흐리야](2:10)"도 아니고 가장 낮은 여종인 "하녀[시프하](2:13)"도 아니고 본토인과 당당히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녀[아마](3:9)"를 넘어서 "여인[이샤](4:11)"으로서 당당히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의 **아내**[이샤](4:13)가 되었다. 이렇게 룻은 나오미의 원래의 소원대로(1:9) 그리고 나오미의 위험천만하였지만 대담한 계획대로(3:1)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히브리어 표현 וַיָּבֹא אֵלֶיהָ [바야보 엘레하](**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는 남편이 성관계를 맺기 위해 아내의 천막 혹은 방으로 들어가는 풍속을 반영하는 것이고(창 30:3-4; 39:14, 17; 삿 15:1; 삼하 12:24; 잠 2:19)[3]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완곡 표현이다(창 16:2; 29:21, 23; 삼하 16:21). "보아스가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직역한 개역개정보다 "보아스가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의역했던 개역이 더 좋은 번역으로 생각된다.[4]

② 후반부 두 개의 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이로 인한 결과를 묘사한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룻기에서 내레이터의 진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는 두 번밖에 없다. 그 첫 번째 경우는 1:6 이고 여기 4:13 이 그 두 번째 경우이다. 내레이터가 이야기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신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진술을 한 것은 처음 부분부터 끝 부분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포괄하는 수미쌍관법(theological inclusio)이다(Hubbard, 69).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진술은 내레이터의 입으로 직접 여호와께서

---

[3] 성관계를 맺기 위해 여자가 남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창 19:34; 삼하 11:4)에도 "~에게 들어가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4] Bush(253)는 NIV 의 "He went to her"라는 직역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함축을 갖지 않고 NASB 와 RSV 와 Moffatt 의 "He went in to her"라는 번역이 성관계 자체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they came together"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하였다.

행하신 기이한 일을 두 번 말한 것 중의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진술임에 틀림없다. "הֵרָיוֹן[헤라욘] 임신, 잉태"라는 단어는 여기 이외에 창 3:16 과 호 9:11 에서만 사용되었다. 여기 "주셨다"라는 단어 וַיִּתֵּן[바이텐]은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 가운데 나오는 단어 יִתֵּן[이텐]("주시길" 4:11)을 반영하며 축복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룻에게 선물을 주신 것임을 암시한다. 말론의 아내로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임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기적이며 은혜로운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임신하도록 해 주셨다**"는 표현은 내레이터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Block, 726). 모압 거주 10 년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후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로 그녀가 텅 비었다가 다시 채움을 받는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룻으로 임신하도록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출산할 수 있었던 사라(창 21:1-2), 리브가(창 25:21), 레아(창 29:31, 30:17), 라헬(30:22, 23)의 경우를 생각하도록 해 준다. 족장의 부인들과 룻의 비슷한 경험은 특히 축복에 언급된 라헬과 레아처럼 룻이 가문을 세우는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Hubbard, 268).

③ 여호와께서 임신하도록 해 주신 은혜를 받은 룻은 임신 기간동안 감당할 역할을 잘 수행하며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5] 딸도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지만(민 27:1-11; 36:1-12) 딸보다 아들이 가계를 이어가는데 더 선호되는 사회에서 아들의 출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곧 이어지는 베들레헴 여인의 말과 나오미의 행동에 대한 보고(4:14-16)에서 드러나듯이 태어난 아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후사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것이었다.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민족의 벽과 종교의 벽을 뛰어 넘으며(1:16-17) 시어머니에게 헌신하였던 룻에게(2:11; 3:10) 보아스의 기도(2:12)의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고, 성문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며 드린 기원(4:11-12)의 성취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Hubbard, 267-68).

77. 룻 4:14

1) 원문 문제

(룻 4:14) וַתֹּאמַרְנָה הַנָּשִׁים אֶל־נָעֳמִי בָּרוּךְ יְהוָה אֲשֶׁר לֹא הִשְׁבִּית לָךְ גֹּאֵל הַיּוֹם
וְיִקָּרֵא שְׁמוֹ בְּיִשְׂרָאֵל׃

① 기원을 나타내는 명사문 בָּרוּךְ יְהוָה의 어순에 대하여 설명하면(WHS 580)?

② גֹּאֵל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아스인가 아니면 태어난 아이인가?

---

[5] Block(726, n 70)은 룻기에서 "낳다"라는 의미의 어근 ילד[얄라드]가 여자가 주어일 때 기본능동[=칼, 파알] 어간으로 쓰이고(4:13) 남자가 주어일 때 사역능동[=히프일] 어간으로 쓰이는 것을 지적한다(4:18-22). 족보 공식에 나오는 동사와 명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4:18 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라.

③ וַיִּקְרָא שְׁמוֹ에서 שְׁמוֹ에 붙은 접미대명사의 선행 명사는? 여호와인가 아니면 태어난 아이인가? 그리고 이 절의 의미는?

2) 주석

룻 4:14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①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탄생한 것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호의를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어린 아이와 그의 할머니를 위해 복을 빈다. 이러한 베들레헴 여인들의 등장은 종막(4:13-17)과 1 막 2 장(1:19-22)이 병행을 이루게 한다. 종막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복을 빈 것은 1 막 2 장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자신의 비참했던 삶을 토로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대조하며 이해하는 것이 좋다. 1:20-21 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한다. 여인들의 합창에는 여호와에 의하여 그녀의 삶이 텅 비게 되었다고 토로했던 나오미가 이제 여호와에 의하여 채워진 것을 맛보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다.

②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인들이 사용한 기원문 בָּרוּךְ יְהוָה [바루흐 아도나이]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Blessed be the LORD! May the LORD be blessed! Blessed be Yahweh(Bush, 249)!"이지만, 창 24:27; 시 31:22; 66:20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므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Praise be to the LORD(NIV)! Praise the LORD(Hubbard, 268)!"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6] 어근 ברך[바라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거 복을 주실 때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나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창 14:19-20; 시 134:2-3; 115:12-18; 삼상 25:32-33; 대하 31:8). 기원문에서 축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수동분사 בָּרוּךְ[바루흐]가 "blessed, 복 받기를"이라고 번역되고, 축복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בָּרוּךְ[바루흐]가 "praise be to (the Lord); praised 찬양받으시길"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같은 어근이 사용된 것을 인식하지

---

[6] [창 24:27]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시 31:21 (MT 22)]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시 66: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못하도록 하는 결점이 있지만 의미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בָּרוּךְ יְהוָה [바루흐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기원문 다음에 나오는 절은 여호와[아도나이]를 선행사로 갖는 관계사 אֲשֶׁר[아셰르]가 이끌며 찬양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이 관계절을 통하여 여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근거와 이유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여인들은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기서 여호와의 섭리는 예방적(preventative)인 것으로 룻기에 부각되었던 비참한 노년의 비극과 가문 멸절의 위기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Sasson, 163; Hubbard, 270). 나오미의 운명의 극적인 반전은 여호와의 섭리 아래 일어난 것이었다. 13 절의 여호와께서 룻으로 임신하도록 해 주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내레이터의 진술과 14 절의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오늘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는 여인들의 말에 여호와가 주어로 나오며 두 진술 모두 여호와께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③ 여호와께서 나오미 가문의 멸절 위기를 막고 나오미의 운명을 반전시키기 위해 마련하신 수단은 **기업 무를 자**(גֹּאֵל[고엘])이다. 보아스가 2:20 에서 기업 무를 자로 지칭되었지만 여기 4:14 의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이다. 블락(727)이 설명한 대로 여기 14 절의 "**오늘**"이란 부사와 다음 15 절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언급은 여인들이 기업 무를 자로 태어난 아이를 염두에 둔 것임을 분명하게 해 준다. 구약에서 여기(룻 4:14)를 제외하고 어른 이외에 아이가 기업 무를 자로 지칭된 적이 없다. 여인들이 나오미와 관련지어 태어난 아이를 **기업 무를 자**로 본 것을 고려하면 **기업 무를 자**란 용어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Bush, 253). 기업 무를 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이다. 15 절이 보여 주는 것처럼 태어난 아이는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여인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잃어버린 기업을 엘리멜렉 가문으로 되돌리는 것이나 말론을 위한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평안함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아이의 탄생은 나오미 가문의 법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의 불안정에 대한 해결로 보였다(Block, 727). 그래서 여인들은 나오미를 불안정으로부터 구해 줄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이렇게 여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달 사이에 나오미에게 일어난 복된 변화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④ 여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한 후에 나오미에게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4:11 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치사 בְּ[브](“in”) + 장소 이름이 뒤따라 나오는 קָרָא שֵׁם[카라 셈]에서 שֵׁם[셈]은 "이름 name"의 뜻이 아니라 "fame, reputation 명성, 명예, 평판"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블락(728, n 77)은 4:14 의 וְיִקָּרֵא שְׁמוֹ בְּיִשְׂרָאֵל [브이카레 시모

브이스라엘](“And may his name be called in Israel.”)과 4:11 의 וּקְרָא־שֵׁם בְּבֵית לָחֶם [우크라-셈 브베트 라헴](“And may one call a name in Bethlehem.”)이 병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שְׁמוֹ[시모]에 붙어 있는 3 인칭 남성 단수 접미대명사의 선행사는 문법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앞 절의 주어인 여호와일 수도 있고 좀 더 가까이에 두 단어 앞서 나온 기업 무를 자일 수도 있다.[7] 여호와가 선행사라면 여인들이 한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찬양받으시길 May his name be praised(NJB)!”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애 3:55; 시 99:6; 렘 44:26) 찬양과 축하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신 32:3)하는 능동 형식이 여기에서 수동 형식으로 나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5 절은 14 절처럼 계속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며 태어난 아이를 동사([하야])의 주어로 삼고 있다(Campbell, 163). 14 절의 마지막 동사가 미완료 וְיִקָּרֵא[브이카레]이고 15 절의 첫 동사가 바브 계속법 완료 וְהָיָה[브하야]인 것을 유의하면 14 절의 미완료 동사의 주어 שְׁמוֹ[시모]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의 선행사와 15 절의 바브 계속법 완료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같아야 그 흐름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5 절의 וְהָיָה[브하야]의 의미상 주어가 태어난 아이이므로 שְׁמוֹ[시모](“그의 이름”)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라고 해야 흐름이 자연스럽다(Bush, 256). 여인들의 말은 여호와께서(사역능동 הִשְׁבִּית[히시비트]의 제 1 주어)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가(사역능동 הִשְׁבִּית[히시비트]의 제 2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셨고 그(=기업 무를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며 그(=기업 무를 자)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을 바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문맥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여호와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기업 무를 자를 שְׁמוֹ[시모]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의 선행사로 보는 것을 지지한다. 11 절에서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 것처럼 여기에서 여인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가 베들레헴을 넘어온 나라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랐다. 이처럼 태어난 아이의 운명이 지역적인 지평(11 절 베들레헴)에서 국가적인 지평(14 절 이스라엘)으로 확장된 것은 저자가 17 절 하반절에서 밝힌 오벳-이새-다윗이란 짧은 족보가 주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맛보도록 준비시켜 준다(Hubbard, 271).

78. 룻 4:15

1) 원문 문제

---

[7] Bush(256)가 14a 와 15a 의 주어가 두 경우 모두 새로 태어난 아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표(251)에서 표시한 것을 따라 주어를 말하면 14a 의 주어는 나오미에게 말한 “여인들”이고 14b 의 주어는 “여호와”이고 14c 는 “그의 이름”이고 15a 의 주어는 동사에 들어 있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룻 4:15) וְהָיָה לָךְ לְמֵשִׁיב נֶפֶשׁ וּלְכַלְכֵּל אֶת־שֵׂיבָתֶךָ
כִּי כַלָּתֵךְ אֲשֶׁר־אֲהֵבַתֶךְ יְלָדַתּוּ אֲשֶׁר־הִיא טוֹבָה לָךְ מִשִּׁבְעָה בָנִים׃

① 바브 계속법 완료 וְהָיָה의 용법은?

② 1:21 의 나오미의 말에 나오는 הֶשִׁיבַנִי와 여기 4:15 에 쓰인 לְמֵשִׁיב의 어근은 ( )이고 inclusio 를 이룬다.

③ וּלְכַלְכֵּל의 어형을 설명하면? 기대되는 분사형은(BDB, 465)?

④ אֲהֵבַתֶךָ의 모음(근개음절의 모음)을 바르게 표기한다면?

⑤ יְלָדַתּוּ를 분해하고 여기에 나타난 동화를 설명하면(GKC 59g; cf. 룻 3:6 צִוַּתָּה)?

⑥ אֲשֶׁר־הִיא טוֹבָה에서 אֲשֶׁר의 용법은?

⑦ 비슷한 소리에 의한 언어유희를 볼 수 있는 단어들은?

2) 주석

룻 4:15 이제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요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며느리, [아니] (당신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① 여호와를 찬양하고 태어난 기업 무를 자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길 바라는 말을 한 후 여인들은 그 아이로부터 나오미가 받아 누릴 은택들을 언급한다. 여인들은 태어난 기업 무를 자가 나오미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 태어난 아이, 기업 무를 자는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역할을 하고 나오미의 **노년**을 돌보는 **봉양자**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명사 "נֶפֶשׁ[네페시] **생명**"에는 접미대명사가 없으나 두 번째 명사 "שֵׂיבָתֶךָ[쎄바테흐] **당신의 노년**"에는 접미대명사가 붙어 있는 것은 시에서 자주 두 번째 명사에 붙은 접미대명사가 첫 번째 명사도 지배하는 이중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이해하면 된다(Campbell, 164). "생명의 회복자 a restorer of life"라고 번역된 명명구 מֵשִׁיב נֶפֶשׁ [메시브 네페시]는 어근 שׁוּב[슈브](to return 돌아오다)의 사역능동 분사 의존형 מֵשִׁיב[메시브]와 자립형 여성 명사 נֶפֶשׁ[네페시]가 결합된 것으로 직역하면 "one who causes life to return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מֵשִׁיב נֶפֶשׁ[메시브 네페시]는 문자적인 의미로 쓰인 것(욥 33:30; cf. 왕상 17:21-22 기본어간)이[8]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것(애 1:11, 19; 1:16; 잠 25:13; 시 19:9; cf. 23:3

---

[8] [욥 33:30]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개역: 끌어 돌이키고 לְהָשִׁיב נַפְשׁוֹ)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Cf. [왕상 17:21 하-22]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תָּשֶׁב נָא נֶפֶשׁ־הַיֶּלֶד 기본능동 어간)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וַתָּשָׁב נֶפֶשׁ־הַיֶּלֶד 기본능동 어간) 살아난지라

강세/폴렐어간)이다(Bush, 257).[9]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 은혜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을 확신하였다. 그 태어난 아이는 나오미가 삶의 풍성함으로 회복되도록 해 줄 것이며 나오미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었다. (여기 사역능동 어간 분사 מֵשִׁיב[메시브]의 어근) בוּשׁ[슈브]는 1 막(1:6-22)의 핵심 단어로 쓰였고 1 막에서 사역능동 어간으로는 나오미의 불평 가운데 단 한 번(1:21)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근과 어간이 똑같은 1:21 의 הֶשִׁיבַנִי[헤시바니]와 4:15 의 מֵשִׁיב[메시브]가 수미쌍관법을 이루도록 하는 저자가 의도적인 배열인 것을 알려 준다(Campbell, 164, 168).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1:21)."라고 했던 나오미의 잠재해 있던 불평이 여기에서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새로 태어난 그 기업 무를 자는 나오미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회복을 위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멸절 위기에 있었던 그녀의 계보가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끊기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 아이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태어난 아이에 의해 서막에서 제기되었던 후사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의기소침해 있던 나오미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다(Hubbard, 272)).

② 새로 태어난 아이는 또한 보다 더 먼 미래에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וּלְכַלְכֵּל אֶת־שֵׂיבָתֵךְ [울할켈 에트-쎄바테흐]에서 כַלְכֵּל[할켈]은 어근 כּוּל[쿨](to contain 담다)의 필펠어간 부정사이다. 여기서 구문적으로 מֵשִׁיב[메시브]와 병행되는 *분사* מְכַלְכֵּל[므할켈]이 기대되지만 *부정사* כַלְכֵּל[할켈]이 사용된 것은 특이하다.[10] כּוּל[쿨]의 필펠 어간은 "to sustain, support, nourish, provide the necessities for 떠받치다, 부양하다, 양식을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שֵׂיבָתֵךְ[쎄바테흐]는 직역하면 "your gray hairs 당신의 백발"인데 이는 "your old age

---

[9] [애 1:11, 19]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개역: 소성시키려고 לְהָשִׁיב נֶפֶשׁ) 보물로 먹을 것들을(개역: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개역: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כִּי־בִקְשׁוּ אֹכֶל לָמוֹ וְיָשִׁיבוּ אֶת־נַפְשָׁם)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애 1:16]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개역: 내 영을 소성시킬 자 מֵשִׁיב נַפְשִׁי)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잠 25: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וְנֶפֶשׁ אֲדֹנָיו יָשִׁיב)

[10] Block(728, n 79)은 분사와 병행되는 부정사가 나오는 다른 유일한 예로 렘 44:19 을 지적한다. Bush(257)는 이러한 예들을 고려하며 너무 성급하게 본문을 정정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Sasson(157)은 이 병행되는 절을 "He shall become a comforter for you, and is to sustain you in your old age."라고 번역하고 있다. Sasson(167)은 Joüon(93 [E 90])이 부정사 לְכַלְכֵּל를 동사 וְהָיָה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he will sustain your gray hair = he supports.") 것을 들고, GKC 114h 가 동사 [하야]와 부정사 의존형의 결합을 통해 정해진 목적(definite purpose)을 나타낸다는 설명을 지적한다.

당신의 노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따라서 [울할켈 에트-쎄바테흐]는 직역하면 "to sustain/feed your gray hairs 당신의 백발에 양식을 제공하다"가 되며 앞의 병행구와 관련지어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어구는 이전에 심한 기근에 의해 쪼들렸던 나오미의 삶이 장래에 그 기업무를 자에 의해 매일의 양식을 제공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죽더라도 새로 태어난 기업 무를 자가 서막과 1 막에 제기되었던 양식 문제의 해결자가 될 것이다(Hubbard, 272).[11]

③ 여인들의 합창은 그 아이가 지금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장래에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을 확신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끝난다.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나오미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마음에 기쁨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또 노년에 봉양을 잘 받을 것이 틀림없는 이유는 나오미에게 그 기업 무를 자를 낳아 준 며느리 룻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들을 잃고 텅 비게 되었다고 절규했었던 나오미에게 그녀가 아들들을 잃었지만 정말로 현숙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말하며 그 아이의 어머니를 곧바로 가리켰다. 1 막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만 골몰할 때 룻이 모든 것을 버리고 소망 없는 시어머니에게만 헌신하며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한 것처럼 보였다. 이와 대조해 들어보라는 듯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유를 밝히는 부사절에서 접속사 כִּי[키] 다음에 바로 כַּלָּתֵךְ[할라테흐] **당신의 며느리**를 주어로 내세우며 강조하고 있다. 룻은 나오미에게 정말 좋은 현숙한 며느리였다.

④ 여인들의 룻에 대한 평가는 **당신의 며느리** 다음에 나오는 수식하는 두 개의 형용사절을 통하여 밝혀진다. 첫 번째 형용사절 אֲשֶׁר־אֲהֵבַתֶּךָ יְלָדָתּוּ [아셰르-아헤바테흐]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며느리**인 것을 밝힌다. 사랑이 감정적인 용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과 달리 여기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룻이 지금까지 나오미에게 했던 모든 행위를 총괄하여 요약하는 것이며 언약 관계 속에서 행하는 온전한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블락(729, n 81)은 대하 19:2 에서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라는 말 가운데 "돕다"라는 동사와 "사랑하다"는 동사가 병행어로 나오는 것을 근거로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말라마트(Malamat)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사랑은 일차적으로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먼저 배려하는 한결같은 인애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룻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신 6:5)."는 말씀과

---

[11] Hubbard(272)는 (1 장에서 양식과 후사의 문제가 제시되고) 2 장에서 양식 문제가 부각되고 3-4 장에서 후사 문제가 부각된 것을 고려하며 4:15a 에서 역순으로 생명의 회복자(후사)와 노년의 봉양자(양식)로 나온 것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한다. Block(728)은 새로 태어난 아들로 인해 나오미가 생명에 대한 희망을 찾고 영이 소생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의하여 노년에 봉양을 받는 것은 더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설명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타국인/거류민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 19:34)."고 준 명령에 비추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준 사람이 바로 모압에서 온 타국인/거류민 룻이다(Block, 729).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는 언약적 헌신을 보이는 사랑으로 특징지어졌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미 7:6)."라는 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은 엘리멜렉 친족들이 나오미에게 보인 무관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⑤ 두 번째 형용사절 אֲשֶׁר־הִיא טוֹבָה לָךְ מִשִּׁבְעָה בָנִים [아셰르-히 토바 라흐 미시브아 바님]은 나오미에게 룻이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인 것을 밝힌다. 삼상 1:8 과 아주 비슷한 구문을 갖고 있는 이 형용사절은 동사가 없는 명사문이므로 NEB/TEV 처럼 과거로 번역할 수 있고 NIV 처럼 현재로 번역할 수 있다. 부시(257)가 지적한 대로 문맥은 현재를 지지한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일곱 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구 טוֹב לְ [토브 르]는 "to be/do good to/for -에게 좋다"라는 뜻을 지닌다.[12] 이 어구 다음에 비교의 전치사 מִן[민]이 나오기 때문에 טוֹבָה לָךְ [토바 라흐]는 비유적으로 "she is worth more to you, she means more to you, 당신에게 더욱 가치가 있다. 당신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의 "she is better to you, 당신에게 더 낫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Bush, 257). 룻과 비교되는 "일곱 아들"에 대한 언급은 관용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일곱 아들들이 있는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보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일곱"이란 숫자는 아들들의 이상적인 숫자이다(삼상 2:5; 욥 1:2; 42:13; 행 19:14-17).[13] 일곱 아들은 한 가문이 지속되는 것과 노년의 과부가 보살핌을 받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그 이상적인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이다. 아들 후사를 얻는 일에 관심이 쏠려있는 룻기에서 한 여인이 일곱 아들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은 것은 최고의 칭찬이요 찬사의 극치이다(Campbell, 168). 이것은 룻의 인품에 대한 극찬이다. 하나님께 긴 불평을 털어놓을 때 나오미가 룻을 복덩어리로 보지 못했던 것을 질책이라도 하는 듯 여인들은 룻이 당연히 들어 마땅한 칭찬을 하고 있었다.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현숙하고 덕망있는 여인인

---

[12] Campbell(164)는 어근 טוֹב/יטב[토브/야타브]가 룻기에서 다른 핵심 단어들만큼 분명하지 않지만 2:22; 3:1, 7, 10, 13; 4:15 등에 나오며 거의 핵심 단어처럼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13] Bush(257)는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삼상 1:8)?"라고 하며 "열 아들"을 말한 것은 관용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것을 알고 있었지만(3:11)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의 가치를 일곱 아들 위에 두었다. 이것은 나오미의 잃었던 두 아들들에 대한 얼마나 뛰어난 보상인가(Block, 729)!

⑥ 나오미를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요**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이 그를**[=그 기업 무를 자]**를 낳았다**. 여기 동사 יְלָדַתּוּ[열라다투]는 기본능동 완료 3 인칭 여성 단수 동사 יָלְדָה[얄다]의 접미형 יְלָדַת[열라다트]와 3 인칭 남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הוּ[후]가 결합되며 접미대명사의 ה[헤]가 접미형 동사의 ת[타브]에 역행 동화된 결과로 생긴 형이다.[14] 룻이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를 낳아 준 것은 보통의 일 같지만 말론과의 결혼을 통하여 출산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굉장한 일이다. 회임하지 못하던 여인이 수태하여 출산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헌신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니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이 **낳은** 기업 무를 자이므로 그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 며느리 룻의 아들 출산 덕분에 나오미는 가문 멸절 위기에서 벗어나 단순히 할머니가 되는 것을 넘어 4:17 에서 밝혀지는 대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가의 영예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Hubbard, 274).

79. 룻 4:16

1) 원문 문제

וַתִּקַּח נָעֳמִי אֶת־הַיֶּלֶד וַתְּשִׁתֵהוּ בְחֵיקָהּ וַתְּהִי־לוֹ לְאֹמֶנֶת׃ (룻 4:16)

① 나오미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룐을 가리키는 1:5 의 יְלָדֶיהָ와 룻이 낳은 아들을 지칭하는 הַיֶּלֶד를 관련지어 설명하면?

② וַתְּשִׁתֵהוּ בְחֵיקָהּ는 나오미가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을 나타내는가?

③ אֹמֶנֶת는 (삼하 4:4 에 비추어) 유모라고 할 수 있는가?

2) 주석

룻 4:16 그 때 나오미가 그 자식을 취하여 품에 안았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① 이제 내레이터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한 아들의 출생과 여인들의 축복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을 3 개의 동사문으로 전달한다. 매우 복된 소식의 수혜자인 나오미는 이야기의 처음처럼 중심 인물로서 행동한다. 이야기가 완전히 되돌아왔다. 나오미의 소원대로 룻은 남편과 아들을 갖게 되었다. 이제 텅 비었던 나오미가 온전히 가득 참을 누려야 할 차례가 되었다. 기뻐하는 여인들의 손으로부터(Hubbard, 274) **나오미는 그 자식을 취하였다**. 얼마나 기쁜 순간인가! 드디어 나오미는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후사를 그녀의 손으로 취할 수 있었다. "**자식**"으로 번역된 יֶלֶד[예레드]가 "남편을 먼저 여의고 두 자식마저 잃고" 정체성이 상실되었던 "그 여인(1:5)" 그리고 "그 자식을

[14] 이러한 역행 동화는 룻 3:6 의 צִוַּתָּה[치바타] < צִוַּת[치바트] + הָ[하]에서도 볼 수 있다. Cf. GKC 59g

취한 나오미(4:16)"를 묘사할 때 흔히 쓰이는 "아들(בֵּן[벤])" 대신 사용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이것은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가 후사임을 드러내 주고 이야기의 서두에 가계를 이어갈 자식들이 끊어진 문제가 이야기의 끝에서 해결된 것을 보여주며 정말 아름다운 주제적 수미쌍관법(a lovely thematic inclusio)을 보여준다(Hubbard, 274; Campbell, 164). 이 문예적 기교는 나오미가 취한 그 아이(הַיֶּלֶד[하옐레드] = 오벳)가 모압에서 나오미가 잃은 두 아들들(שְׁנֵי יְלָדֶיהָ [시네 열라데하] =기룐과 말론)을 대신하게 된 것을 밝혀준다. יֶלֶד[옐레드]의 어근은 "to give birth, bear 낳다"라는 뜻의 ילד[얄라드]이다. 이 어근은 룻기에서 명사 יֶלֶד[옐레드](1:5; 4:16 "자식")와 תּוֹלְדוֹת[톨도트](4:18 "계보, 족보, 후예")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할 때 기본능동 어간으로 두 번(4:13, 15) 사용되고 남자가 주어로 나오는 족보(4:18-22)에서 사역능동 어간으로 9 번 사용되었다.[16]

② 나오미가 그 자식을 취하여 **안은 그녀의 품**을 표현하는 단어 חֵיק[헤크]는 어린아이를 안고 붙들거나(민 11:12) 배우자나 연인을 껴안는 신체의 앞부분, 즉 가슴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남성(신 28:54; 왕상 1:2; 렘 32:18; 미 7:5; 전 7:9)이나 여성(신 28:56; 잠 5:2; 애 2:12)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의 가슴을 가리키는 데는 사용된 적이 없다(Block, 730). 이 단어가 가슴/품을 의미할 때 נשׂא ב[나싸브 브](to carry on/in) 혹은 שׁכב/השׁכיב ב[샤하브/히시키브 브](to lay/lie on)와 함께 쓰이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서만 שׁית ב[시트 브](to place in/on)와 함께 사용되었다.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긴 것은 나오미의 삶이 죽음과 텅 빔에서 생명과 가득 참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그녀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기업 무를 자를 품에 안는 애정과 사랑의 행동은 생명과 풍요에로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Bush, 258). 신 28:56 의 "אִישׁ חֵיקָהּ[이시 헤카흐] 그녀 품의 남편"이란 표현대로 말한다면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 텅 빈 나오미의 품에 죽은 남편과 자식들을 대신할 새로 태어난 자식이 안긴 것이다.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 둘 수 없게 되고 나이가 든 과부로서 이스라엘 여인의 운명 중에 가장 나쁜 운명을 맞이했던 나오미의 품에 그녀의 기운을 소성하게 해 주고 노년을 돌보아 줄 자식이 안기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의 회복을 위한 복이었던 것이다.

---

[15] יֶלֶד[옐레드]란 단어는 창 21:8; 출 2:3; 삼하 12:15 등에서 아기(infant)를 나타내고, 창 37:30; 42:22 등에서 소년(teenager)을 나타내고, 왕상 12:8, 대하 10:8 등에서 노인과 대조되는 젊은이(young man)을 나타내는데 쓰였지만 룻 1:5 에서처럼 결혼한 아들을 나타내는 데 쓰인 것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는 없는 일이다.

[16] Block(730)은 4:16 에서 בֵּן[벤]대신 יֶלֶד[옐레드]가 선택된 것은 이 마지막 문단들에서 어근 ילד[얄라드]가 핵심 단어로 사용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③ 부시(258)는 나오미가 아이를 그녀의 품에 안은 것을 양자 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학자들(Gerleman, 37-38; Würthwein, 23; Köhler, *ZAW* [1909]: 312-314; Leggart, *The Levirate*, 260-263)에 대하여 입양이 구약에 알려지거나 실행된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며 입양 자체에 대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부시는 또한 드 보(de Vaux, *Ancient Israel*, 51-52)가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은 것과 창 30:3(라헬의 무릎과 빌하가 낳을 아들); 48:12(야곱 무릎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50:23(요셉의 무릎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에서 아이를 무릎에 두는 것을 비교하여 가족 안에서 그리고 직접 계보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것들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양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을 지적하였다. 부시는 창세기의 "무릎에 둔" 행위와 룻기의 "품에 안은" 행위는 "무릎"과 "품"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쾰러(Köhler, *ZAW* 29 [1909]: 312)처럼 창세기의 무릎 사이에 두는 행위들을 입양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나오미의 경우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첫 아들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계보를 잇고 기업을 차지할 후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입양하는 법적 행위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나오미가 아이를 안은 행위는 "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이다(Rudolph, 71; Bush, 258).

④ 보아스와 결혼하여 룻이 낳은 그 자식을 여인들로부터 취하여 품에 안은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양육자(אֹמֶנֶת[오메네트])가 되었다는 것은 나오미 나이를 고려할 때 젖을 먹이는 유모(מֵינֶקֶת[메네케트] wet-nurse, cf. 삼하 4:4; 창 24:59; 35:8)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에스더를 돌본 모르드개(에 2:7, 20)나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왕하 10:1, 5)처럼 나오미가 온 정성을 쏟으며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이를 젖먹이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할머니가 손자에게 지극한 보살핌을 주는 애정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양육자(אֹמֶנֶת[오메네트])는 어린 손자가 애정을 가지고 할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내니](nanny = an affectionate diminutive expression for Grandma)와 같다고 할 수 있다(Block, 730, n. 85).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를 체험한 나오미는 기쁜 마음으로 미래에 자신을 돌보아 줄 그 기업 무를 자를 돌보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았다. 나오미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본을 보여 주었다(Hubbard, 275).

80. 룻 4:17

1) 원문 문제

(룻 4:17) וַתִּקְרֶאנָה לּוֹ הַשְּׁכֵנוֹת שֵׁם לֵאמֹר יֻלַּד־בֵּן לְנָעֳמִי
וַתִּקְרֶאנָה שְׁמוֹ עוֹבֵד הוּא אֲבִי־יִשַׁי אֲבִי דָוִד׃

① הַשְּׁכֵנוֹת의 어형과 그 의미를 설명하면?

② וַתִּקְרֶאנָה לוֹ הַשְּׁכֵנוֹת שֵׁם은 이름을 짓는 일을 묘사하는 것인가?

③ יֶלֶד의 어형을 설명하면(GKC 53u; GBH 58a-c)?

④ עוֹבֵד의 어형에 대하여 설명하면?

⑤ 1:1 의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과 관련지어 הוּא אֲבִי־יִשַׁי אֲבִי דָוִד을 시간의 틀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2) 주석

룻 4:17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름을 주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었다.

① 내레이터의 진술 다음에 종막을 열었던(14 절) **그 이웃 여인들**은 종막을 닫는 역할을 한다. 그 이웃 여인들의 말은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된 나오미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 "**그 이웃 여인들**"이라고 번역된 הַשְּׁכֵנוֹת[하시헤노트]는 "거주하다"는 뜻의 어근 שׁכן[샤한]의 기본능동 분사 여성 복수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형이다. 기본능동 남성 분사는 "거주자" 혹은 "이웃"을 나타낸다(사 33:24; 호 10:5). 새로 태어난 아이와 나오미에 대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문맥을 고려하면 [하시헤노트]는 일반적으로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여인들(female-inhabitants; women living there[NIV])이라기보다는 이웃 여인들(female-neighbors)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Bush, 259). 여기를 제외하고 어근 [샤한]의 기본능동 분사 여성형이 출 3:22 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이웃 여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종막을 닫으며 그 이웃 여인들이 한 역할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준 일에 대한 설명(17ab)과 실제로 이름 자체를 준 사실(17c)로 묘사되어 있다. 17a-c 의 구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Cf. Bush, 260; Hubbard, 275).

17a 이름을 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generic statement of name-giving)

וַתִּקְרֶאנָה לוֹ הַשְּׁכֵנוֹת שֵׁם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

17b 출생 선언 공식 인용 (birth announcement formula)

לֵאמֹר יֻלַּד־בֵּן לְנָעֳמִי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17c 실제로 이름을 주는 일 (name-giving itself)

וַתִּקְרֶאנָה שְׁמוֹ עוֹבֵד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② 17a 의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gave him a name(Bush, 249); And the neighbors [i.e., women] called for him a name(Block, 731)]는 설명은 이름을 준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창 2:20; 26:18; 사 65:15 에도 나온다.[17] 부시(260)가

[17] [창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매우 잘 지적한 것처럼 קרא ל שם [카라 르 셈]은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주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무엇이 빠진 것처럼 간주하고 정정하는 일은 불필요하다.[18] 이와 반대로 NIV 에서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The women living there said, ("Naomi has a son.")"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의 구문을 무시해버린 오역이다.

③ 17b 의 יֶלֶד־בֵּן לְנָעֳמִי [율라드-벤 르노오미]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출생 선언 공식은 사 9:6[MT 5]와 렘 20:15 에도 나온다.[19] 여기 יֻלַּד[율라드]는 작위수동(푸알) 어간 완료 혹은 사역수동(호프알) 어간 미완료와 같은 모음을 갖고 있지만 기본수동(passive Qal)의 의미를 갖는다.[20] 일반적으로 출생 선언은 분만실 밖에서 아이의 안전한 출생 소식에 대한 산파의 말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저자는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기쁨의 출생 선언 공식을 나오미에게 적용하여 그녀에게 기업 무를 자의 탄생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출생 선언에서 강조점은 **나오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Bush, 261). 기업 무를 자가 절실히 필요한 나오미 가문에 이 아이가 아들이란 사실은 여인들과 나오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멸절 위기에 있었던 나오미 가문에 기업 무를 자가 태어난 것이 나오미의 충만한 삶의 회복에 주는 의미를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표현했던 여인들의 합창(14-15 절)이 다시 한번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출생 공식을 인용하는 합창으로 이어진 것이다.

④ 17c 의 וַתִּקְרֶאנָה שְׁמוֹ עוֹבֵד [바티크레나 시모 오베드]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처럼 동사 קרא[카라] 다음에 접미대명사나 의존형 명사로 된 속격(X)이

[창 26:18]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 이삭이 그것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과 같은 이름들을 주었더라]

[사 65:15]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 그가 그의 종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리라]

[18] 이름을 준 일반적인 사실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Hubbard, 269: "Then the neighbor women proclaimed his significance. 그 이웃 여인들이 그의 중요함을 선언하였다." 2) Campbell, 162: "Then the neighborhood women rejoiced over him. 그 이웃 여인들이 그로 인해 기뻐하였다." 3) Sasson, 158: "Female neighbors established his reputation. 이웃 여인들이 그의 명성을 세웠다."

[19] [사 9:6(MT 5)]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to us a child is born)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렘 20:15]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a child is born to you—a son!)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Bush(262)와 Block(731, n. 93)은 우가릿 문헌 Aqhat 이야기(*KTU* 1.17, II. 14-15)에도 성경 본문과 비슷한 *kyld bn ly* (*ANET,* 150: For a son's born to me)라는 본문이 나오는 것을 지적한다.

[20] Cf. GKC 53u; GBH 58a-c.

따라오는 שֵׁם[셈]과 실제 이름(Y)으로 된 표현은 창 3:20; 4:25-26; 5:2-3, 29; 11:9; 26:21f; 출 15:23; 삿 1:26 등에도 나온다. עוֹבֵד[오베드]라는 이름은 "섬기다"라는 뜻의 어근 עבד[아바드]의 기본능동어간 남성 분사로 "섬기는 자 servant"란 의미를 갖고 있다.[21] **오벳**은 여호와나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 압디엘(עַבְדִּיאֵל[아브디엘] "하나님의 종") 혹은 오바댜(עוֹבַדְיָה[오바드야], עוֹבַדְיָהוּ[오바드야후] "여호와의 종")의 줄인 형으로 보인다.[22] 신적 요소가 빠진 **오벳**이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나오미를 섬기는 자인지 모호하다. 허버드(277, n. 47)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de Waard-Nida, 80, n 54) 혹은 그의 조상들을 섬기는 자(Humbert, Crook) 혹은 [룻의 봉사를 되살리는] 나오미의 종(Hertzberg, Schildenberger) 혹은 땅의 경작자(Astour) 등의 뜻풀이도 있지만 여인들의 말(4:14-15)대로 나오미 가문의 멸절 위기를 구하고 그녀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보장하며 나오미를 섬기는 종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부시(261)가 설명한 것처럼 "**나오미에게 생긴/태어난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로서 나오미를 섬기는 자 즉 **오벳으로 불린** 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의미에 근거에 하여 풀이한 언어유희에 속한다. 그러나 블락(732)은 오벳을 여호와의 종으로도 볼 수 있고 나오미의 종으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여호와의 종이라면 오벳은 나오미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오미가 1:20-21 에서 하나님께서 부과하였다고 불평한 비참함을 제거하고 그녀의 남편의 기업을 이어 갈 자임을 나타내고,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면 오벳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녀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우고 그녀의 노년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낸다. 오벳이 나오미를 섬기면서 결국 나오미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오벳은 여호와의 종이요 나오미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여인들이 설명을 하고 이름을 준 것은 창 29:33, 34, 35; 30:6, 8, 11, 13, 18, 20 와 비슷하다.[23] 이와 반대로 이름을 주고 설명한 것은 창 3:20; 4:25; 29:32; 30:24; 출 2:10 등에서 볼 수 있다.[24]

---

[21] *ABD* 5:5 에서 K. A. Mathews 는 룻기의 인물 오벳 이외에도 5 명(①대상 2:37-38; ②대상 11:47; ③대상 26:6-7; ④대하 23:1, 14-15; ⑤외경 에스드라 1 서 8:32 = 스 8:6 에벳)을 더 열거하고 설명한다.

[22] עַבְדִּיאֵל[아브디엘] (대상 5:15); עוֹבַדְיָה[오바드야] (옵 1:1; 스 8:9; 느 10:6; 12:25; 대상 3:21; 12:9[MT 10]; 7:3; 8:38; 9:44; 9:16; 대하 17:7); עוֹבַדְיָהוּ[오바드야후] (왕상 18:3, 4, 5, 6, 7, 16; 대상 27:19). *ABD* 5:1-2 에서 J. M. Kennedy 는 오바댜란 이름을 가진 인물로 ①소선지서를 기록한 오바댜(옵 1:1)와 ②아합의 궁내대신 오바댜(왕상 18:1-16) 그리고 다른 10 명(③대상 3:21; ④대상 7:3; ⑤대상 8:38; 9:44; ⑥대상 9:16; ⑦대상 12:9; ⑧대상 27:19; ⑨대하 17:7; ⑩대하 34:12; ⑪스 8:9 = 외경 에스드라 1 서 8:35; ⑫느 12:25)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23] [창 29: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u>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u> 하고 그의 이름을 <u>시므온</u>이라 하였으며

[24] [창 3: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u>하와</u>라 불렀으니 <u>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u>

일반적으로 설명+작명 혹은 작명+설명이 나오는 구절들에서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름을 주었다.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이름을 주었다는 기록은 별로 없다. 여기에서처럼 이웃 여인들이 설명을 하고 이름을 준 것과 유사한 상황은 산파가 베레스의 이름을 준 창 38:27-30 에서 볼 수 있다.[25]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주지 않고 이웃 여인들이나 산파가 이름을 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볼 수 있는가? 부시(261)는 제삼자가 이름을 준 경우에 대하여 내레이터가 "창작적 자유 poetic licence"를 사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내레이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여인들이 실제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믿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부모가 이름을 주는 보편적인 사실과 아주 상반된 일이지만 여인들이 이름을 주었다고 내레이터가 말한 뜻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그들의 기쁜 외침을 통하여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다.[26]

[창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 29: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25] [창 38:27-30] (27)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28)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29)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Bush(261)는 창 38:29 을 룻기와 비교하여 설명하며 "There, as the infant is born, the midwife exclaims, 'What a breach you have made!'(v 27c), and the narrator then relates that *the child was named Perez, "breach"*(v 27d). If it had been literally appropriate in this setting, the narrator could just as well have said, "**The midwife gave him a name, saying 'What a breach you have made,'**" for it is this statement that provides the explanation for the name."라고 풀이했다. Bush 가 괄호 안에 "27c"와 "27d"라고 한 것은 창세기 38 장의 절 참고의 실수이므로 29c 와 29d 로 고쳐야 할 것이다. Bush 는 첫 부분 즉 창 38:29c(וַתֹּאמֶר מַה־פָּרַצְתָּ עָלֶיךָ פָּרֶץ [바토메르 마-파라츠타 파레츠])에 대해서만 룻기처럼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것(저자가 밑줄과 볼드체를 첨가한 부분)을 언급하였고 둘째 부분(저자가 이탤릭체를 첨가한 부분) 즉 창 28:29d 에 대해서는 룻기처럼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창 38:29d וַיִּקְרָא שְׁמוֹ פָּרֶץ [바이크라 시모 파레츠]는 비인칭 구문이므로 수동으로 번역할 수 있다. Bush 의 설명(261)에 "*the child was named Perez*"로 되어 있고 NIV 에 "And he was named Perez"라고 번역되고 NASB 에 "So he was named Perez."라고 번역되고 ESV 에 "Therefore his name was called Perez."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것을 룻기처럼 바꾸어 말한다면 "and she called his name Perez"가 될 것이다.

[26] Bush, 261: Here our narrator uses his "poetic licence." He does not expect us to take him literally and to believe that it was these neighbor-women who actually formally named the child. What he means by his blatant statement "they [female pl] named him," so utterly in conflict with the fact known to all that the parents (usually mother) named the child, is that these women "named" him by providing the explanation for his name with their glad cry "A son is born to Naomi."

⑥ 독자들이 여인들의 합창을 들으며 나오미의 삶의 풍성한 회복을 즐기고 있을 때 내레이터는 전면에 불쑥 나와서 한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을 전한다. 그것은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해설이다. 내레이터의 이 해설은 일종의 마지막 감탄 부호와 같은 이야기의 절정적인 결론이다(Hubbard, 277). **오벳-이새-다윗**의 3 대를 밝히는 이 짧은 족보는 독자들을 이야기의 배경 시대이었던 먼 사사 시대(1:1)로부터 최근 시대 즉 다윗이 잘 알려진 더 가까운 시대로 돌아오게 한다(Berlin, 109). 나오미에게 생긴 아들 오벳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내레이터의 설명은 오벳의 탄생의 역사적 의의를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이 처한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해 준 것을 훨씬 뛰어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기여한 것에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해설은 삶의 위기에 처한 두 과부의 이야기가 더 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직물을 짜는 하나의 밝게 빛나는 실이 된 것을 보게 한다. 나오미를 섬기는 일이 결국 여호와의 더 큰 목적을 섬기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라는 오벳의 이름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종이란 뉘앙스도 줄 수 있게 되었다(Hubbard, 277).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 기도한(4:11) 그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보아스는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졌다. 나오미의 집에서 여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축복한 대로(4:14) 다윗으로 인하여 오벳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었다. 정말 룻과 보아스와 오벳은 다윗 왕가의 유명한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가 읽히며 보아스의 이름과 오벳의 이름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불려지는 유명한 이름들이다(Block, 732).

⑦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주요 등장 인물들의 참된 경건은 보상되었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다. 이방 여인 룻이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은 모압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자기의 백성과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온전한 상이었다. 허버드(278)는 다음과 같이 묻고 감탄한다. “누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주해 온 모압 여인에게 이러한 운명이 주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여호와는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이처럼 개인들의 역사가 갖는 새로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갖는 새로운 의미이다. 여호와께서 두 과부를 은혜롭게 돌보신 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그의 인도하심이었다(Hubbard, 278). 독자들은 이제 사사 시대(1:1)의 위험천만한 무질서와 영광스러운 다윗 제국을 함께 엮는 어렴풋이 보이는 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룻기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을 지닌 엘리멜렉의 비극적인 운명을 반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어구는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제기되었던 쓰라린 아이러니 즉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왕으로서 백성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아이러니를 제거해 주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정말로 다스리는 신이셨다. 이 짧은 족보는 책의 목적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룻기는 다윗의 통치가 그의 영민한 정치나 기민한 책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Hubbard, 278).

종막(4:13-17) 해설

⑴법적 집회에서 지혜로운 협상을 통하여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권리와 책임을 양도받고 공적으로 자세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여 그 기업을 이를 후사를 잇게 할 권리와 책임을 선언한 보아스는 증인들이 된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을 받았다. 법적 집회 장면(4 막 2 장)을 보아스가 축복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내레이터는 서막에서부터 드리어져 있던 죽음과 궁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보여주는 종막(4:13-17)으로 나아간다. 종막은 5 개의 절을 통하여 열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는 내레이터의 진술로 시작한다. 이 진술은 여담적인 보아스의 소개(2:1)로부터 보아스를 축복하는(4:11-12) 것으로 마무리 짓는 법적 집회에 이르는 일련의 장면들에서 제기된 기대와 계획과 약속의 성취를 간략하게 말한다. 내레이터의 3 개의 절을 통한 전반부 진술은 보아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던 일을 묘사한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4:13a-c). 보아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얻은 기업 무를 권리와 책임에 따라 룻과 결혼을 하였고 부부의 정을 나누었다. 보아스의 룻과의 결혼은 나오미가 룻을 위한 남편과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던 대담한 계획(3:1-4)이 잘 이루어졌고,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룻에게 준 약속(3:11)이 이루어졌고, 보아스가가 성문에서 열린 법적 집회에서 밝힌 공적 선언(4:10)이 실현된 것을 보여준다. 내레이터의 2 개의 절을 통한 후반부 진술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한 결과를 묘사한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4:13de). 말론과의 결혼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에서 즉시로 임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기적이며 은혜로운 선물이었다. 모압 거주 10 년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던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후사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로서 그녀가 텅 비었다가 다시 채움을 받는 놀라운 일이었다(블락, 726). 룻기에서 내레이터의 진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는 1:6 과 4:13 의 두 번밖에 없다. 내레이터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의 서두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진술과 이야기의 말미에 또 "여호와께서 임신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진술을 한 것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물론이고 그 안의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수미쌍관법(theological inclusio)이다(허버드, 69). 시어머니를

위해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룻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2:11-12) 그리고 성문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며 드린 소원대로(4:11-12)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다. 룻의 임신과 아들 출산은 평한한 보금자리 곧 남편과 집과 더불어 그녀가 받은 온전한 상이었다. 남자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던 부계 사회에서 헌신할 성을 바꾸어 남편(남성)을 찾는 대신 늙은 시어머니(여성)를 끝까지 모셨던 젊은 여인은 그녀가 포기하였던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트리블, 173; 부시, 263).

⑵법적 집회 이후 열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한 내레이터는 사건들 자체보다 그것들이 나오미의 삶에 주는 의미와 의의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이전 장면들과 마찬가지로 등장 인물의 말을 통하여 묘사한다. 1 막 2 장에서처럼 다시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하여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에 주는 의미와 의의를 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말할 때(4:14a) 먼저 은혜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근거를 말하며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4:14b)고 말했다. 여인들은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삶에 주는 의미와 의의를 밝혀 주기 위해 그 아이를 "기업 무를 자"라고 부른다. 여인들이 기업 무를 자로 태어난 아이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는 것은 14 절의 "**오늘**"이란 부사와 15 절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언급이다. 어른 이외에 아이를 기업 무를 자로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아이가 기업 무를 자로 지칭되고 있다. 여인들이 나오미와 관련지어 태어난 아이를 **기업 무를 자**로 부른 것으로 보아 이 용어가 법적 회의에서 전문적인 의미로 쓰인 4:1-12 에서와 달리 나머지 다른 곳에서처럼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부시, 253). 이러한 기업 무를 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이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을 말하는 15 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불평한 것과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라고 찬양한 것을 비교해 보면 죽음과 궁핍이 풍족함과 생명에게 자리를 내주며 이야기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오미의 운명의 극적인 반전은 그녀의 비참한 노년의 비극과 가문 멸절의 위기를 막는 여호와의 예방적 섭리의 손길 때문이었다(새슨, 163).

⑵여호와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룻이 아들을 낳은 사건(4:13)의 의의가 여인들의 합창(4:14-15)에서 나오미의 삶과 풍부에로의 회복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지만 그 아이와 룻이 침묵 속에 간과되어 버리지는 않았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4:14c)고 말한다. 11 절에서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 축복보다 훨씬

지평을 확장하여 여인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가 "온 나라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랐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로 지평이 확장된 것은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밝힌 17 절의 짧은 족보가 주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대비하게 한다. 여인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기업 무를 자로서 지금 나오미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마음의 기쁨과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회복자요** 앞으로 매일 매일의 양식을 제공할 **노년의 봉양자가 될**(4:15a) 것을 확신하는 이유 가운데 나오는 룻에 대한 평가는 정말 감동적이고 매우 인상적이다. 룻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말한(1:16-17) 그대로 행동함으로써(2:11)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위와 진실함으로 **나오미를 사랑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하였다"라는 단어는 룻이 지금까지 나오미에게 했던 모든 행위를 총괄하여 요약하는 것이며 언약 관계 속에서 행하는 온전한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토록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은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4:15b)라는 칭찬을 받았다.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덕망있는 여인인 것을 알고 있던(3:11) 것을 넘어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의 가치를 일곱 아들 위에 두었다. 이스라엘에서 일곱 아들들이 있는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으로 간주되었다. 일곱 아들은 한 가문의 지속과 노년의 부모 봉양을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아들 후사를 얻는 일에 관심이 쏠려있는 배경에서 룻이 일곱 아들보다 낫다고 평가받은 것은 그녀의 인품에 대한 극찬이다(캠벨, 168). 시어머니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먼저 배려하며 한결같은 인애의 행동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니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이 **낳은** 기업 무를 자이므로 그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며느리 룻의 아들 출산 덕분에 나오미는 가문의 멸절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4:17 에서 밝혀지는 대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가의 영예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⑷그녀를 사랑하고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을 통하여 주신 기업 무를 자식의 출생이란 복을 통하여 후사와 양식의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된 나오미는 이야기의 처음처럼 중심 인물로서 행동한다. **그 때 나오미는**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후사인 **그 자식을** 기뻐하는 여인들의 손으로부터 **취하여**(4:16a) 텅 비어 있던 **그녀의 품에 안았다**(4:16b). 이야기의 서두(1:5)와 말미(4:16)에 사용된 자식([옐레드])이라는 단어에 유의하면 후사에 대한 위기와 해결이란 주제적 수미쌍관법을 보게 된다. 이 문예적 기교를 따라 말하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그녀의 두 [옐레드](=두 자식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을 대신하게 된 그 [옐레드](=자식 =아이, 오벳)을 취하여 그녀의 품에 안았다.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을까!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 텅 빈 나오미의 품에 그들을 대신하는 새로 태어난 자식이 안기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품에 기업 무를 자식 즉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아기가 안긴 것은 나오미의 삶이 죽음과 궁핍에서 생명과 풍요로 회복된 것을 보여준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첫 아들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계보를 잇고 기업을 차지할 후사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이를 안은 행위는 입양하는 법적 행위가 아니고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보이는 사랑의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루돌프, 71; 부시, 258). 하나님께서 주신

가문의 후사가 될 자식을 안은 나오미는 온 정성을 쏟으며 지극한 보살핌을 주는 **양육자가 되었다**(4:15b).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를 체험한 나오미는 기쁜 마음으로 미래에 자신을 돌보아 줄 그 기업 무를 자를 돌보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았다. 서막의 나오미의 텅 빈 상황과 종막의 나오미의 가득 찬 상황의 묘사를 통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무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나오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미래에 주어질 좋은 것을 기다리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⑸획기적으로 변화된 나오미의 상황을 잘 보여주었던 일 즉 나오미가 태어난 기업 무를 자식을 취하여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된 것은 그 이웃 여인들로부터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름을 주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4:17a-c). 저자는 "창작적 자유(poetic licence)"를 사용하여 그 이웃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것처럼 묘사하며 태어난 아이와 나오미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요약한다(부시, 261). 저자는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기쁨의 출생 선언 공식을 나오미에게 적용하여 그녀에게 기업 무를 자의 탄생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이웃 여인들의 외침 속에 드러나 있는 그 아이의 정체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로서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는 이름 오벳 사이에 의미적 언어유희를 찾아볼 수 있다. 내레이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여인들이 실제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믿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부모가 이름을 주는 보편적인 사실과 아주 상반된 일이지만 여인들이 이름을 주었다고 한 것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그들의 기쁜 외침을 통하여 오벳이란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⑹이전 법적 집회 장면에서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관심사를 협의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장면은 여인들과 그녀들의 관심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3 에서부터 중심 인물로 나선 나오미가 여기에서도 중심 인물인 것과 연관이 있다. 여인들이 합창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엘리멜렉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곤경에 처한 **나오미에게** 그녀를 돌볼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기**(4:14) 때문이다. 여인들의 합창은 태어난 아이의 의미와 의의를 그의 정체 즉 엘리멜렉과 그의 기업에 대한 후사에서 찾지 않고 그의 역할 즉 **노년의 나오미를 봉양하며 생명을 회복시키는**(4:15) 일에서 찾고 있다. 여인들은 태어난 아이의 정체를 엘리멜렉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외침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4:17)는 외침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는 여인들의 합창을 들으며 나오미의 삶의 풍성한 회복을 즐기고 있던 독자들에게 새로 태어난 이 아이가 그 자신의 남성 세계에서 갖는 의의를 언급하기 위해 오벳이란 이름 다음에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4:17d)라는 마지막 해설을 통하여 여인들과 그녀들의 관심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종막을 마감한다. 오벳이 그의 남성 세계에서 갖는 중요성은 그의 업적이나 고귀한 인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벳-이새-다윗**이란 이 짧은 족보가 보여주는 그의 놀라운 정체에 있다. 저자가 서막에서 "유다 베들레헴(1:1)"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1:2)"이란 어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삼상 17:12)과의 연관을 암시한 것을 고려하면 오벳-이새-다윗이란 족보가 주는 놀라운 정체는 일종의 마지막 감탄 부호와 같은 이야기의 절정적인 결론으로 한층 더 기쁨을 준다(부시, 265). 나오미에게 생긴 아들 오벳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해설은 오벳의 탄생의 역사적 의의를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이 처한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해 준 것을 훨씬 뛰어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기여한 것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 기도한(4:11) 그대로 보아스는 다윗으로 인하여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졌다. 나오미의 집에서 여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축복한 대로(4:14) 오벳의 이름은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었다. 정말 룻과 보아스와 오벳은 다윗 왕가의 유명한 조상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질서에서 구할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두 과부를 은혜롭게 돌보신 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그의 인도하심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는 신이셨다. 이 짧은 족보를 통하여 저자는 다윗의 통치가 그의 영민한 정치나 기민한 책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었다(허버드, 278).

⑺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룐으로 시작된 룻기는 세 남자가 각각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나오미, 룻, 보아스가 차례로 중심 무대를 차지하여 역할을 감당하다가 거꾸로 보아스, 룻, 나오미의 순서로 사라지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등장 인물의 역순 구조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의 목적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질서정연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그리고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시작하셨던 선한 일을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완성하셨고 결국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아스, 룻, 그리고 나오미의 결국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룻기의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들의 일시적인 성취로서 최종적인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려는 최종적인 목적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다른 모든 것과 고립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 추진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동시대에 그리고 동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이나 다른 신자들의 삶과 고립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섭리하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엡 3:10)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⑻보아스는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가 약속하셨던 복을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퍼거슨, 134). 하나님의 언약적 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교훈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즐길 수 있다(시 1 편).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는(잠 3:8) 하나님의 지혜대로 경건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고 모든 노인보다 낫다(시 119:99-100).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서 중생의 표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안에 두고 그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한(렘 31:33)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선언하였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롬 8:3-4)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를 즐기며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을 가르친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모습은 시편 119 편의 걸어다니는 예(a walking illustration of Psalm 119)이고(퍼거슨, 134) 잠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걸어다니고 숨쉬고 행동하는 모델(a walking, breathing, working model of God’s wisdom in the book of Proverbs)이다(퍼거슨, 136).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것을 권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 3:1-7).”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대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 준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룻에게 복이 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되었다.

⑼룻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게 속하기 위하여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재혼을 통하여 남편이 줄 평안한 보금자리도 포기하고 아내와 어머니가 될 여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본능까지도 내어버렸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남편과 자식이 없는 삶을 요구할 수도 있다. 룻은 결혼과 가정이 모든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결코 쉽지 않은 신앙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다. 나오미가 기도한대로 하나님은 룻에게 인애를 베푸셨고, 보아스가 기도한 대로 온전한 상을 주셨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한 대로 보아스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세울 상속자를 주셨다. 룻이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가정과 가족을 다시 주셨다. 룻이 남편과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시고 잉태할 힘을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국을 세울 후손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베푸신 풍성한 복은 그림자로서 사도 바울이 엡 2:4-7 에 묘사한 복을 미리 보여주었다(퍼거슨, 138).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선뜻 나서지 못하며 주저한다. 그러나 룻기가 보여 주는 것처럼 주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분으로 계시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을 택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밖의 모든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다.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전 보장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다.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을 주시려는 관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퍼거슨, 139).

⑩보아스의 인애는 룻과의 결혼으로 나아가게 했고 룻의 인애는 보아스의 사랑과 그들의 자식으로 보답받았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게 되었지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온 나오미는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인애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인하여 다시 풍족해질 수 있었다. 나오미는 먼저 양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고 기업을 이어 갈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굶주림을 면할 씨(양식) 뿐만 아니라 가문 멸절의 위기에 벗어날 씨(후사, 상속자)를 나오미에게 주셨다. 나오미는 후사 문제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라, 리브가, 다말, 한나 그리고 엘리사벳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었다.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다말에게 세라와 베레스를 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주셨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바라보게 한다(퍼거슨, 142).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전 1:27-29).

⑪보아스와 룻이 중앙 무대에서 물러날 때 나오미와 그녀의 손자 오벳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관심과 기도의 초점이 된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이 낳은 오벳이 나오미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에 의한 나오미의 회복 사건이 그녀의 생애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내다보았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오미가 텅빈 삶에서 가득찬 삶으로 회복된 것에 그치지 않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됨으로써 다윗 왕국이 준비되는 것에 있었다. 룻기가 족보로 끝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모압 이주가 없었다면 룻의 돌아옴이 없었을 것이고 룻이 없었다면 보아스와의 결혼이 없었을 것이고 보아스와의 결혼이 없었으면 오벳이 없었을 것이고 오벳이 없었으면 이새가 없었을 것이고 이새가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을 것이다.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의 처절했던 경험과 룻의 희생적 헌신과 보아스의 인애의 배후에 계시며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 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 다윗 왕의 준비는 수백년 후에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다윗 왕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주 그리스도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고난으로부터 캐내신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할 독생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이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 룻과 유대인

나오미에게 문자적인 떡을 제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하여 부서질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셨다(퍼거슨, 14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텅 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 왕국의 상속자요 결코 망하지 않을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삼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 가신다. 이 사실은 우리로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에 기여할 기회이고 거룩한 순간임을 깨닫게 해 준다(울리치, 145). 하나님은 매일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의 온 몸과 온 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봉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이다.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도 우리 생애 동안 우리로부터 감추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의 후대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알려질 때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우리 자신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날을 바라보며(히 11:1) 살게 해 준다. 우리는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하며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대를 이어 전해지게 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며 그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일을 최우선 순위의 일로 삼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그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신앙 유산 물려주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⑿룻기는 하나님의 기묘막측하고 영광스러운 섭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치 달이 해를 반사하며 빛을 비추듯이 그분의 인애를 반영하며 이웃에게 한결 같은 인애를 베푸는 삶을 통하여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구속사를 진행하신다. 얼핏 보기에 세속적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그의 아들의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안목을 주고 우리로 하나님의 인애를 반영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갖도록 해 준다.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온전한 계획과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어 결국은 그들이 잘되도록 하시는 일을 통해 나오미도 잘 되었고 룻도 잘 되었고 보아스도 잘 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양식 없고, 고향 없고, 남편 없고, 큰 아들 없고, 작은 아들 없고, 이름도 없고("그 여인"), 즐거움도 없던 나오미가 모든 것이 텅 빈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긍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여호와를 찾아 다시 돌아왔을 때 여호와는 나오미에게 모든 것이 다시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양식도 있고, 이름(나오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상속자도 있고, 기업도 있고, 보존이 확실시되는 가문도 있게 되었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고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여호와의 날개가 있는 곳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대로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은 덕망있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셨다. 모든 좋은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친족의 기업을 되찾아 주고 친족의 후사를 잇는 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친족의 과부들에게 여호와의 인애를 반사하며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덕망있는 룻의 남편이 되고 다윗 왕국과 메시아 왕국의 혈통적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룻처럼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는 사람, 그리고 보아스처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반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며 그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나오미와 룻처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그들처럼 절박하든 안 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가?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요 10:1; 요일 3:16)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고 구원받을(마 10:39; 16:25; 막 8:35; 눅 9:24)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가?

7코다 (4:18-22)

일빈적으로 코다는 내러티브가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야기를 마감하는 부분으로 내러티브의 사건 자체의 해결 시점과 독자들이 사는 현재 시점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Berlin, 107).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10 대를 추적하는 족보를 제시하는 코다(4:18-22)는 모압 거주 10 년을 설명하는 서막과 두드러진 병행을 이룬다(Bush, 267). 승리와 연관된 이름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 다윗으로 끝나는 코다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룐 등 비극과 연관된 이름들로 시작하는 서막과 두드러진 대조를 보인다.

본문

[WLC: 4 רות]

18 וְאֵלֶּה תּוֹלְדוֹת פֶּרֶץ פֶּרֶץ הוֹלִיד אֶת־חֶצְרוֹן׃ 19 וְחֶצְרוֹן הוֹלִיד אֶת־רָם וְרָם הוֹלִיד אֶת־עַמִּינָדָב׃
20 וְעַמִּינָדָב הוֹלִיד אֶת־נַחְשׁוֹן וְנַחְשׁוֹן הוֹלִיד אֶת־שַׂלְמָה׃ 21 וְשַׂלְמוֹן הוֹלִיד אֶת־בֹּעַז וּבֹעַז הוֹלִיד
אֶת־עוֹבֵד׃ 22 וְעוֹבֵד הוֹלִיד אֶת־יִשָׁי וְיִשַׁי הוֹלִיד אֶת־דָּוִד׃

[ESV: Ruth 4:18-22] **The Genealogy of David**

18 Now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Perez: Perez fathered Hezron, 19 Hezron fathered Ram, Ram fathered Amminadab, 20 Amminadab fathered Nahshon, Nahshon fathered Salmon, 21 Salmon fathered Boaz, Boaz fathered Obed, 22 Obed fathered Jesse, and Jesse fathered David.

[개역개정: 룻 4:18-22]

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개역: 낳았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개역: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번역 (룻 4:18-22)

룻 4:18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1] 베레스는 헤스론을[2] 낳았고 19 헤스론은[2] 람을[3] 낳았고 람은[3]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쌀마]을[4] 낳았고 21 살몬[쌀몬]은[5]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6] 낳았다.

본문 비평

[1] BHS 4:18 의 첫 단어 앞에만 붙어 있고 다시 반복되지 않은 문자 a 는 4:18 전체—사실상 4:18-22 전체—에 대한 각주 표시로서 병행 구절인 대상 2:5, 9-15 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것들과 비교해 볼 것을 제시한다. 직역: 그리고 이것(들)이 베레스의 계보(후손들)이다.

[2] חֶצְרוֹן[헤츠론]은 칠십인역 바티칸 사본과 루시안 사본을 포함한 소수 소문자 사본 그리고 마 1:3 과 눅 3:33 에 마지막 자음 [눈](n)이 그대로 음역되었으나 대부분의 칠십인역 사본과 구 라틴역과 벌게이트역에서 마지막 자음이 *-n* 이 아니라 *-m* 으로 나온다.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어미 *-ōm/-ōn* 혹은 *-ām/-ān* 의 변화를 보이는 게르솜([불완전철자] 대상 6:1, 28; [완전철자] 대상 6:2, 5, 47, 56)/게르손(대상 5:27; 23:6) 그리고 세담(대상 23:8; 26:22)/세단(대상 7:10) 등과 비교할 때 헤스롬/헤스론은 *-ōm/-ōn* 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Campbell, 170; Bush, 266).

[3] BHS 4:19 에 두 번 나오는 단어 רָם[람]은 단어 끝에 각각 똑같은 문자 a 가 붙어 있다. 이 각주는 맛소라 본문의 רָם[람]이 알렉산드리아 칠십인역 사본과 바티칸 칠십인역 사본(LXX_{AB})에서 Αρραν[아란]으로 나오고 나머지 다른 칠십인역 사본들에서 Αραμ[아람]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룻기 편집자 로빈슨은 본문의 단어를 신약 성경 마 1:3-4 에서 발견되는 형 Ἀράμ[아람]과 비슷한 אֲרָם[아람]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정리하면 맛소라 본문에서는 [아]가 없는 [람]이지만 모든 번역본들에서는 알렙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아]로 시작하며 그 이후 철자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맛소라 본문에서만 [람]으로 나오고, 칠십인역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아란]으로 나오고, 나머지 칠십인역 사본과 벌게이트역과 페시타역과 마 1:3-4 에서 [아람]으로 나오고, 구 라틴역에서 [아란]으로 나오고, 눅 3:33 에서 [아르니]로 나온다(Hubbard, 280, n. 2; Campbell, 171). 몇몇 누가 복음 사본은 [암미나답]과 람/아람/아란을 반영하는 [아르니] 사이에 [아드민](Admin)을 갖고 있다. 룻기와 병행 본문인 대상 2:9-10 의 맛소라 본문도 룻기와 똑같이 רָם[람]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본들은 대상 2:9-10 의 경우도 맛소라 본문과 크게 다르다. 대상 2:9 에서 맛소라 본문은 헤스론의 아들들로 3 명 즉 יְרַחְמְאֵל [여라흐므엘]과 רָם[람]과 כְּלוּבָי[클루바이]를 들고 있다. 대상 2:9 의 번역본들을 보면 바티칸 칠십인역 사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칠십인역 사본들은 헤스론의 아들들로 4 명 즉 [이라메엘](Irameel), [람](Ram), [카벨](Chabel), 그리고 [아람](Aram)을 들고 있지만, 소수의 다른 사본들은 4 명을 유지하나 네 번째 [아람] 대신 [아란](Aran)을 갖고 있고, 두 개의 소문자 칠십인역 사본은 두 번째 자리 [람]을 [아람]으로 읽고 네 번째 자리 [아람]을 생략하므로 3 명만 들고 있다. 칠십인역 전승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상 2:10 의 경우 맛소라 본문은 [람]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칠십인역은 대상 2:9 의 네 번째 마지막 이름으로 나오는 [아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바티칸 칠십인역 사본(=룻 4:19 의 히브리어 [람]과 대상 2:23 의 히브리어 [아람]이 [아란]으로 나오고 대상 2:9 에 [아람]을 갖는 사본)

그리고 소수의 다른 사본들(=대상 2:9 에서 헤스론의 아들 4 명을 유지하나 끝 네 번째 자리에 [아람] 대신 [아란]을 갖는 사본들)은 [아란]으로 시작한다. 칠십인역의 역대상은 람과 아람을 둘 다 헤스론의 아들들로 나타내는 융합된 본문인 것처럼 보인다(Brotzman, 164).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이나 역본들에서 같은 이름이 철자상 다르게 표기되는 것이 꽤 흔한 일이라면 가능한 해결책은 두 이름이 동일인의 이름인데 다르게 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4] BHS 4:20 의 각주 a 는 שַׁלְמָה[쌀마]가 칠십인역 바티칸 사본에서 Σαλμαν[쌀만]으로 나오고 나머지 칠십인역 사본들에서 Σαλμων[쌀몬]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4:20 의 שַׁלְמָה[쌀마]와 4:21 의 שַׁלְמוֹן[쌀몬]은 철자는 다르지만 족보의 문맥상 동일인임이 틀림없다. 대부분의 칠십인역 사본들에 나오는 형 Σαλμων[쌀몬]은 아마도 룻 4:21 의 형에 동화되어 생겼을 것이다. 마 1:4-5 에 나오는 형도 Σαλμών[쌀몬]이다.

[5] BHS 4:21 의 각주 a 는 שַׁלְמוֹן[쌀몬]이 소수 중세 사본에서 4:20 처럼 שַׁלְמָה[쌀마]로 나오고 칠십인역 바티칸 사본에서 Σαλμαν[쌀만]으로 나오지만 나머지 칠십인역 사본들에서 맛소라 본문과 일치하는 Σαλμων[쌀몬]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한다. 중세 사본들의 독법(שַׁלְמָה[쌀마])은 앞 절에 사용된 이름의 기대된 형으로 조정한 데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맛소라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4:20 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שַׁלְמָה[쌀마]와 4:21 에 처음으로 언급된 שַׁלְמוֹן[쌀몬]은 동일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사람의 이름이 적어도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고 사실상 룻기 저자가 두 절에서 두 가지 형을 하나씩 차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שַׁלְמָה[쌀마]와 שַׁלְמוֹן[쌀몬]으로 나오는 룻 4:20-21 과 달리 대상 2:11 은 두 번 모두 똑같이 שַׁלְמָא[쌀마]로 표기되어 있다. שַׁלְמוֹן/שַׁלְמָה/שַׁלְמָא[쌀몬/쌀마/쌀마]는 각각 다른 애칭적 어미가 붙은 동일인에 대한 세 가지 변형된 이름들이다(Sasson, 189-90). 이렇게 한 개인이 세 가지 철자를 갖는 경우에 비추어 보면 룻 4:19 와 대상 2:9-10 에 나오는 람/아람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 모두 똑같이 [쌀마]로 표기된 대상 2:11 의 번역본들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칠십인역 바티칸 사본에서 [쌀만](Salman)으로 나오고, 대부분의 칠십인역 사본과 마 1:4-5 그리고 눅 3:32 의 일부 사본에서 [쌀몬](Salmon)으로 나오고, 벌게이트역에서 [쌀마](Salma)로 나오고, 구 라틴역에서 [쌀람](Salam)으로 나오고, 눅 3:32 에서 [쌀라](Sala)로 나온다. 캠벨(172)은 창 38:5ff 의 유다의 셋째 아들(שֵׁלָה 셀라)과 맞추려 했을지도 모르는 *š*/로 나온다고 하였다. 허버드(283, n. 15)가 페시타역에서 *s*/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 것은 실수이다.

[6] 칠십인역 알렉산드리아 사본, 페시타역, 아르메니아역, 그리고 마 1:6 은 다윗 다음에 "왕"을 덧붙이고 있고, 구 라틴역은 다윗 다음에 "왕"을 덧붙이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는 절을 첨가하고 있다(Campbell, 170).

문학적 구조, 문예적 기교

⑴벌린(109)이 지적한 대로 룻기는 3 중 마감(three endings)을 보인다. 첫 번째 마감은 오벳의 탄생으로 이야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결말(4:14-17c)이다. 두 번째 마감은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을 밝히는 짧은 족보(4:17d)이다. 세 번째 마감은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10 대를 추적하는 긴 족보(4:18-22)이다. 가문 멸절 위기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여주는 오벳의 탄생을 다루는 결말부분은 내러티브나 내러티브의 어떤 부분을 마감하는 전형적인 결말들(예: 창 38:27-30[베레스]; 삼상 4:19-22[이가봇]; 삼하 12:24-25[솔로몬]; 삼하 6:23[미갈—무자식])처럼 이야기 자체를 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마감으로 오벳-이새-다윗으로 이어지는 짧은 족보(4:17d)가 나온다. 이 짧은 족보에서처럼 "X הוּא אֲבִי [후 아비 X]"의 형식으로 조상을 밝히는 것은 창 4:20-21[야발과 유발 היה 동사 사용]; 36:43[에서]; 19:37-38[모압, 암몬]; 대상 2:42; 4:11; 7:31 등에도 나온다. 이러한 예들은 새슨(178)이 지적한 대로 룻기의 짧은 족보가 뒤에 있는 긴 족보의 서론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결말 부분과 함께 가는 것으로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벌린(109; 154, n. 19)의 말대로 이러한 형식의 족보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의 마감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룻기의 경우 이 짧은 족보는 이야기의 시대 배경인 사사 시대와 다윗이 잘 알려진 독자의 시대를 연결하고 청중을 이야기의 시간에서 그들의 실제 시간으로 돌아오게 해 주기 때문에 이야기의 좋은 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마감으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긴 족보가 나온다. 이것은 코다로서 룻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잘 알려진 내러티브 전통의 적절한 맥락에 놓으며 룻기의 잘 알려져 않은 등장 인물들이 그 내러티브 전통에 나오는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⑵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긴 족보는 족보 공식(4:18a)과 족보 자체(4:18b-22)로 이루어져 있다.[1] אֵלֶּה תּוֹלְדוֹת פֶּרֶץ[엘레 톨(레)도트 파레츠]라는 족보 공식은 베레스의 후손들을 열거하는 내림 족보를 소개하는 공식이다. 족보 자체는 어근 ילד[얄라드]의 사역능동 어간 완료형 동사 הוֹלִיד[홀리드](X caused

[1] 족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 글들을 참고하라. J. J. Finkelstein, "The Genealogy of the Hammurapi Dynasty,"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JCS)* 20 (1966) 95-118; A. Malamat, "King Lists of the Old Babylonian Period and Biblical Genealogie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JAOS)* 88 (1968) 163-73; idem, "Tribal Societies: Biblical Genealogies and African Lineage Systems," *Archiv européenes de sociologie* 14 (1973) 126-36; M. D. Johnson,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Monograph Series (SNTSMS)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69); R. R. Wilson, "Old Testament Genealogies in Recent Researc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JBL)* 94 (1975) 169-89; idem,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Yale Near Eastern Researches 7 (New Haven: Yale University, 1977); J. M. Sasson, "A Genealogical 'Convention' in Biblical Chronography," *ZAW* 90 (1978) 171-85; idem. "Generation, Seventh," *IDBS*, pp. 354-56; P. E. Satterthwaite, "Genealogy in the Old Testament," *NIDOTTE* 4:654-63.

Y to be born, X fathered Y)를 9 번 사용하여 10 대를 열거한다. 허버드는 모세를 분기점 삼아 이 10 대를 베레스-모세(베레스-나손)와 모세-다윗(살몬-다윗)로 양분하기도 하고(21-22), 모세 이전(pre-Mosaic era) 즉 베레스-나손의 5 대와 모세 이후(post-Mosaic) 즉 살몬-다윗의 5 대로 양분하기도 했다(280). 새슨(184)은 입애굽(eisodus)과 출애굽(exodus)사이의 시대에 해당하는 베레스-나손의 5 대와 가나안 정착에서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에 해당하는 살몬-다윗의 5 대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⑶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는 깊이를 고려하여 세로로 배열된 종적 족보(deep genealogy)이고 세로로만 배열된 직계 족보(linear genealogy)이고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내려오는 내림/하향 족보(descending genealogy)이다.[2] 직계 족보는 보통 4-6 대 정도를 다루며 역대기의 경우 여러 족보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10-12 대를 다루는 것도 있다. 직계 족보는 대개 족보의 마지막 인물을 정당화하고 적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경과 고대 근동의 왕들의 족보가 여기 속하며 모세와 아론의 족보(출 6:14-26)도 이에 해당한다. 룻기의 긴 족보에서 10 번째 마지막 인물 다윗이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시기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왕인 것이 밝혀지며 룻기의 남자 주인공인 보아스가 7 번째 자리 즉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다.[3]

---

[2] Braun, *1 Chronicles* WBC, 1-2: 족보는 너비(breadth)와 깊이(depth)를 고려하여 가로로 배열되기도 하고 세로로 배열되기도 한다. 너비를 고려하여 가로로 배열된 족보는 횡적 족보(broad genealogy, 대상 2:1-2)이고 깊이를 고려하여 세로로 배열된 족보는 종적 족보(deep genealogy, 대상 3:10-14)이다. 족보가 세로로만 배열된 종적 족보일 때 직계 족보(linear genealogy, 대상 3:10-14)이고 족보가 가로와 세로로 배열된 종횡 족보일 때 구획/분할/직방계/혼합 족보(segmented/mixed genealogy, 대상 3:15-24)이다. 족보가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내려오면 내림/하향 족보(descending genealogy, 대상 9:39-44)이고 자손으로부터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림/상향 족보(ascending genealogy, 대상 9:14-16)이다.

[3] 족보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cf. M. D. Johnson,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77-82).

⑴족보는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과의 친근[촌수]관계(degree of kinship and distinction)를 조명하여 준다. 성경 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위치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늘 조명하였다. 롯(창 19:36-38), 나홀(창 22:20-24), 그두라(창 25:1-6), 이스마엘(25:12-16), 에서(창 36 장)의 족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⑵족보는 원래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계보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모습을 보게 한다. 창세기에는 톨레도트(תּוֹלְדוֹת)란 단어를 사용하는 10 개의 계보가 들어 있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존재하던 여러 계보들을 하나로 묶어 아담부터 요셉까지를 정리하여 이스라엘의 기원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여 준다.

⑶족보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이야기 진행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창 5 장의 아담 자손의 계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긴 세월을 빨리 정리하고 아담-아벨-셋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로 바로 계속되게 한다.

⑷족보는 이야기의 등장 인물과 사건이 실제임을 보게 하고 연대감각을 형성하게 한다. 창 5 장의 족보는 홍수의 연대를 보게 하고 창 11 장의 족보는 아브람의 연대를 보게 해 준다. 대상 6:1-15 의 대제사장 족보는 포로 이전

⑷모두 10 대로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 5 장의 아담의 족보(5:1-32), 창세기 11 장의 셈의 족보(11:10-26), 룻기 4 장의 베레스의 족보(4:18-22)를 제 7 대와 제 10 대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열 번째 자리에 오는 것에 유의하면 다윗은 노아와 아브람처럼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고 그들과 똑같은 존경과 영예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리에 오는 것에 유의하면 베레스-다윗의 족보에서 보아스는 아담-노아의 족보에서 에녹과 같다. 창세기 저자는 홍수 전에 "살다가 죽은" 다른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없는" 에녹(창 5:21-24)을 7 번째 자리에 놓았다. 룻기 저자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무를 책임과 권한을 포기했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달리 두 과부를 위해 손해를 보며 자신을 희생했던 보아스를 영예로운 7 번째 자리에 놓았다. 에녹과 보아스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한결같은 인애로 유명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진술(창 5:22a, 24)이 아담의 족보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룻기에 묘사된 보아스의 이야기가 베레스의 족보에 대하여 갖는 관계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저자가 에녹의 뛰어난 경건을 한 문장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했다면

시대를 출애굽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아론-아사랴: 15 대 ①아론-②엘르아살-③비느하스-④아비수아-⑤북기-⑥웃시-⑦스라히야-⑧므라욧-⑨아마랴-⑩아히둡-⑪사독-⑫아히마아스-⑬아사랴-⑭요하난-⑮아사랴)와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포로까지(아사랴-여호사닥: 9 대 ⑮아사랴-⑯아마랴-⑰아히둡-⑱사독-⑲살룸-⑳힐기야-㉑아사랴-㉒스라야-㉓여호사닥)의 둘로 나눈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11)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 · · (15)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는 설명을 준다. 이렇게 족보는 제한된 연대기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족보에는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열거되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정확한 연대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창 5 장 족보를 통하여 Ussher 처럼 아담의 출생을 주전 4004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⑸족보는 민 26 장에서 보는 것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데 사용된다. 군인을 계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 것을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보도록 해 준다.

⑹족보는 한 개인을 정당화하거나 한 개인의 지위를 높여준다(습 1:1). 출 6:14-16 의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룻 4:18-22 의 족보에서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7 번째 자리 즉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다.

⑺족보는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립하고 보존한다(스 7 장).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족보들은 종족의 뿌리를 찾아 정리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과 자아의식을 일깨워준다.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족보는 "누가 왕족의 혈통에 속하는가? 누가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⑻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속에서도 보존되어 온 것을 보여 준다(대상 3:17-24). 역대기의 족보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족보는 바벨론 유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이 건재하고 계속되어 온 것을 보여준다.

⑼족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경로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에 3:1, 10: 하만 =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룻기 저자는 보아스의 뛰어난 경건을 하나의 이야기에 자세히 묘사하며 "의로운 보아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한다(Block, 619).

⑸룻기의 족보도 다른 족보들처럼 작성 목적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인물을 취사선택하였다.[4] 모세 오경에 의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12 지파를 이루게 한 조상이고(창 29-30 장; cf. 룻 4:11) 유다는 오실 메시아 계보의 조상으로 선택된 반면(창 49:8-10) 베레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유다가 낳은 아들로 간단히 묘사되어 있다(창 38 장; cf. 룻 4:12). 그러면 룻기의 족보가 보다 더 잘 알려진 야곱이나 유다로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허버드(281)는 베레스가 족보의 첫 자리에 온 것이 백성과 장로들의 보아스에 대한 축복(4:12)에서 암시된 것처럼 베레스 족속이 유다 지파와 베들레헴 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족보는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주며 축복(4:11-12)과 족보(4:18-22)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새슨(184)은 베레스로 시작한 것이 족보의 7 번째 영광스러운 조상의 자리에 보아스를 두고 10 번째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의 자리에 다윗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어쩌면 다윗 계보의 시작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하였다.[5] 블락(734)은 베레스로 시작한 것은 창 5 장과 11 장의 족보처럼 10 대로 제한할 필요

---

[4] 족보의 선택성(selectivity)은 다음 몇 가지 비교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⑴대상 7:23-27 에 의하면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까지는 10 대(에브라임-브리아-레셉-델라-다한-라단-암미훗-엘리사마-눈-여호수아)가 언급되어 있는 반면 출 6:14-26 에 의하면 야곱에서 모세까지는 5 대(이스라엘-레위-고핫-아므람-모세)가 언급되어 있다.

⑵대상 6:33-37 은 다윗이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한 헤만에서 (레위의 아들) 그핫까지 21 대(헤만-요엘-사무엘-엘가나-여로함-엘리엘-도아-숩-엘가나-마핫-아마새-엘가나-요엘-아사랴-스바냐-다핫-앗실-에비아삽-고라-이스할-그핫[-레위-이스라엘])를 언급하는 반면 룻 4:18-22 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 다윗까지는 10 대(베레스-헤스론-람-암미나답-나손-살몬-보아스-오벳-이새-다윗)를 언급하고 있다.

⑶마 1:8 에 나오는 아사-여호사밧-요람-웃시야(아사랴)의 계보와 대상 3:11-12 에 나오는 요람-아하시야-요아스-아마샤-아사랴(웃시야)의 계보를 비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요람과 웃시야(아사랴) 사이에 세 왕 아하시야-요아스-아마샤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족보를 만드는 사람이 작성 목적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인물을 취사선택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출애굽기의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출애굽의 임무를 감당한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윗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자음이 나타내는 숫자를 합하면 ד(4)+ו(6)+ד(4)=14 가 되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 대(마 1:17)"를 만들기 위해 세 명의 왕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5] Sasson, 184: Because he wished to place Boaz in the seventh slot, because he wished to place David in the tenth, and possibly because he wished to retroject the beginnings of David's line into the Eisodus, the narrator of *Ruth* found it to begin his royal lineage with Judah's son, rather than with the latter's father or grandfather.

때문이거나 오벳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르는 룻기와 베레스와 세라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르는 창 38 장 사이에 수혼적 책임이란 주제의 연관성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⑹룻기의 긴 족보에도 중간에 이름들이 생략되는 단축/중첩현상(loss of names, telescoping)이 있었음을 짐작하도록 해 주는 사항들이 있다(Bush, 15). 우선 족보 서두의 베레스-헤스론은 유다 지파의 중요한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창 46:12; 민 26:21) 직계로 보인다. 그리고 족보 말미의 보아스-오벳-이새-다윗은 독자들과 가까운 최근 세대들로 보아스-오벳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직계인 것이 분명하고 이새-다윗은 다른 성경 부분(삼상 16:1-23; 17:12; 22:9; 25:10; 왕상 12:16)에도 잘 알려진 직계이다. 그리고 암미나답-나손도 모세 시대에 잘 알려진 직계이다(출 6:23). 그렇다면 중간에 이름들이 생략된 부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름은 람과 살몬이다. 본문 비평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두 이름은 모든 번역본에서 어형과 철자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살몬의 경우 맛소라 본문에서조차 두 가지 즉 [쌀마]와 [쌀몬]으로 나온다. 람은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이고 살몬은 모세 시대와 최근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몇몇 누가 복음 사본이 [암미나답]과 람/아람/아란을 반영하는 [아르니] 사이에 [아드민](Admin)을 갖고 있는 것은 빠진 고리에 대한 증거인지도 모른다(Hubbard, 284, n. 22). 각 사람이 30 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베레스-나손의 처음 5 대의 총 150 년은 베레스의 애굽 이주(창 46:12)로부터 나손의 출애굽(출 6:23; 민 1:7)이 적어도 400 년(창 15:13)이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짧다. 연결고리가 빠지는 단축/중첩 현상은 헤스론과 람 사이 혹은 람과 암미나답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살몬-다윗의 5 대의 가정된 총 150 년도 주전 1450 년경의 출애굽과 주전 1000 년경의 다윗 통치 사이의 적어도 약 450 년 되는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6] 나손과 살몬 사이 혹은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생략된 이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 출애굽의 이른 연대는 주전 1450 년경으로 보고 늦은 연대는 주전 1250 년경으로 본다. 늦은 연대를 택하여도 출애굽과 다윗 통치 사이의 기간은 약 250 년이 된다. 출애굽의 연대 결정은 아직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출애굽의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라. John J. Bimson, *Redating the Exodus and Conquest*, (JSOTSup 5; Sheffield: JSOT, 1978); John J. Bimson and David Livingston, "Saving the Biblical Chronology," *BAR* 13.5 (1987): 40-53, 66-68;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20-24; Kenneth A. Kitche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London: Tyndale, 1976), 57-75; idem, "Exodus, the," *ABD* 2.700-708; William H. Shea, *ISBE* 2, s.v. "Exodus, Date of the.";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66-75; B. K. Waltke, "The Date of the Conquest," *WTJ* 52 (1990): 181-200; J. H. Walton, "Exodus, Date of," in ed. T. D. Alexander and D. W. Baker,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2003), 258-272; Hebert Wolf,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Chicago: Moody, 1991), 141-48.

각 절 주석 (룻 4:18-22)

81. 룻 4:18

1) 원문 문제

וְאֵלֶּה תּוֹלְדוֹת פֶּרֶץ פֶּרֶץ הוֹלִיד אֶת־חֶצְרוֹן׃ (룻 4:18)

① תּוֹלְדוֹת의 어근은? 창세기의 각 부분의 제목으로 이 단어가 11 번 사용된 것과 본문을 연결지어 설명하면?

② הוֹלִיד의 어간과 주어는?

③ פֶּרֶץ에 대하여 창세기 38 장이 알려 주는 것은?

④ חֶצְרוֹן에 대하여 창 46:12, 민 26:21 이 설명하는 것은?

2) 주석

룻 4:18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① 코다(4:18-22)는 족보 공식(4:18a)과 족보(14:18b-22)로 이루어져 있다.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라는 족보 공식은 모세 오경에서 내림 족보를 소개하는 표준 공식이다. X אֵלֶּה תּוֹלְדוֹת [엘레 톨(레)도트 X] ("이것이 X 의 계보이다")라는 공식은 창세기의 각 부분의 제목으로 11 번(창 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2) 사용되었고 민 3:1 에도 나온다.[7]

---

[7] 히브리어 단어 תּוֹלְדוֹת[톨(레)도트]가 칠십인역에서 γένεσις[게네씨스]로, 벌게이트역에서 generationes 로, KJV 에서 generations 로, NIV 에서 account 로 일관되게 번역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개역에서 대략(창 2:4; 36:1, 9;), 계보(5:1); 사적(6:9), 후예(10:1; 11:10; 11:27; 25:12; 25:19), 그리고 약전(37:2)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개역 개정이 2:4 을 "내력"으로, 5:1 을 "계보"로, 나머지(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9; 37:2)를 모두 "족보"로 번역한 것도 완전한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톨(레)도트]를 모든 경우에 "계보" 혹은 "족보"를 선택하여 통일하고 창 5:1 의 경우 [톨(레)도트] 앞에 [쎄페르]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계보/족보의 책"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통일된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한다면 저자 자신이 10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동일한 공식을 사용하여 제목을 붙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어의 중요성은 칠십인역이 [톨(레)도트]를 번역한 γένεσις[게네씨스]로 창세기 책명을 삼았고 영어 성경들이 이 γένεσις[게네씨스]를 음역한 Genesis 를 창세기 책명으로 삼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민 3:1 을 "아론과 모세의(개역)/가(개역개정)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고 번역한 것도 아쉽다. 창세기처럼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이러합니다(쉬운성경)." 혹은 "아론과 모세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f. 새번역: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공동번역: "아론과 모세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식들이 있었다"; 우리말성경: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R. K. Harrison, *Introduction*, 543-548 은 창세기의 족보 공식이 뒤따르는 부분을 소개하는 제목이 아니라 고대 설형문자 토판들의 끝 장식 부분(colophone)처럼 앞에 나온 부분의 요약 진술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창세기가 11 개의 토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가정 아래 주장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Hubbard(281)는 창 2:4a 를 앞부분(1:1-2:3)의 결론으로 보고 창세기 나머지 경우는 제목으로 보았다. 그러나 "אֵלֶּה תּוֹלְדוֹת [엘레 톨(레)도트] 이것이 ~의

② 족보는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고 한다. 이 족보에서 친자 관계를 나타날 때 יָלַד[얄라드]의 사역능동 어간 완료형 동사(הוֹלִיד[홀리드] "X caused Y to be born, X fathered Y, 낳았다")가 사용되었다. 룻기에서 **베레스**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4:12)."라고 말할 때 언급된다. 창 38 장에 의하면 **베레스**는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을 잃고 셀라마저 잃을까봐 며느리를 속이며 자손을 얻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불의한 시아버지 유다와의 근친상간을 시도해서라도 후손을 이으려고 했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쌍둥이 아들 중 하나로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도로 들인 세라보다 먼저 터치고 나온 아들이다. 베레스는 헤스론과 하물의 아버지이고(창 46:12; 민 26:21; 대상 2:5), 베레스의 후손들은 베레스 종족(פַּרְצִי[파르치] Perezites, 민 26:20)이라고 하였다. 베레스는 칠십인역에서 *Phares*[파레스]로 음역되고 KJV 의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진 반면 KJV 의 구약에서 대상 27:3; 느 11:4, 6 를 제외하고 *Pharez* 로 음역되었으나 다른 영어 역본들에서 *Perez* 로 음역되었다(*NBD*, 900).

③ 본문 비평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헤스론**은 (칠십인역 바티칸 사본과 루시안 사본을 포함한 소수 소문자 사본 그리고 마 1:3 과 눅 3:33 과는 달리) 대부분의 칠십인역 사본과 구 라틴역과 벌게이트역에서 [헤스롬]으로 나오지만 헤스론/헤스롬은 동일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Campbell, 170).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가족 명단에

계보이다"라는 절이 다른 곳에서 9 번(5:1;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9; 37:2)이나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표제로 쓰인 것에 비추어 2:4 의 경우도 일관되게 새로운 단락의 표제로 보는 것이 좋다. Wenham(*Genesis 1-15*, 5, 46)은 ⑴ 창 1:1 과 창 2:1-3 사이의 역순대구적 수미쌍관법(chiastic inclusio)은 창 1:1-2:3 이 통일성을 이루는 한 단위임을 보여주고 ⑵ 창 2:4 은 그 자체로 정교한 역순대구적 구조(elaborate chiasmus)를 보이므로 창 2:4a 를 창 2:4-4:26 의 제목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창 1:1 의 "천지"는 창 2:1-3 의 "천지"와 수미쌍관법을 이루는 것이고 창 2:4 의 "천지"와 수미쌍관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창 2:4 의 "천지(ab)"는 같은 절의 끝 부분에 나오는 "지천(b'a')"과 역순적 수미쌍관법을 이루는 것이다.

⑴창 1:1 과 창 2:1-3 의 역순대구적 수미쌍관법

1:1	창조하시다(A)	—	하나님(B)	— 천지(C)
2:1	천지(C)	— 2:2	하나님(B)	— 2:3 창조하시다(A)

⑵창 2:4 의 역순대구적 구조

These are the generations 대략이 이러하니라

a of the heavens **천**

b and the earth **지**의

c when they were created **창조**된

c'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에

b' the earth **지**를

a' and the heavens. **천**

포함되어 있다(창 46:12). 헤스론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는지(Hubbard, 281) 아니면 이집트에서 태어났는지(KD, 493; cf. Sasson, 183-184)에 대한 문제는 결론을 내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은 룻 4:18-19 이외에도 창 46:12; 민 26:21; 대상 2:5, 9, 18, 21, 24, 25; 마 1:3; 눅 3:33 에 언급되어 있다.[9] 헤스론의 후손들은 헤스론 종족(חֶצְרֹנִי[헤츠로니] Hezronites)이라고 불린다(민 26:21). 헤스론의 후손들은 대상 2:9-41 에 실려 있다.

82. 룻 4:19

1) 원문 문제

וְחֶצְרוֹן הוֹלִיד אֶת־רָם וְרָם הוֹלִיד אֶת־עַמִּינָדָב׃ (룻 4:19)

① רָם의 어근은?

② עַמִּינָדָב의 어원적 뜻은? 출 6:23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 주석

룻 4: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① **람**은 대상 2:9 에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된다. 람은 헤스론과 암미나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② **암미나답**은 그의 딸 엘리세바와 결혼한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 어른으로서 그리고 모세 시대에 유다 지파의 유명한 족장 나손의 아버지로서만 기억되는 인물이다. 이 암미나답은 룻 4:19-20 이외에 출 6:23; 민 1:7; 2:3; 7:12, 17; 10:14 에도 나온다.[11]

---

[9] 대상 4:1 에서 헤스론은 유다의 아들로 베레스와 갈미와 훌과 소발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Campbell(170-171)과 역대상 주석들을 참고하라. 헤스론은 또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두 지역을 언급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수 15:3, 25), 르우벤의 아들을 언급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창 46:9; 출 6:14; 민 26:6; 대상 5:3). 헤스론이 르우벤의 아들로 나오는 구절들을 언급할 때 Campbell(170)에 실린 Gen 36:9 은 실수이므로 Gen 46:9 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11] Campbell(171)은 암미나답(my [divine] Kinsman is noble)에서 "암미"가 신의 이름(divine title)이며 암미나답이 룻기 족보에서 개인적인 종교적 관계를 족장적 스타일로 표현하는 유일한 이름으로서 아비나답(my father is noble)이나 아히나답(my brother is noble)과 비교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였다. Hubbard(282)도 암미나답이 여기서 유일하게 족장들의 이름에 전형적인 패턴, 즉 문으로 된 이름(sentence name)이라고 지적한다. BDB(770)는 עַמִּינָדָב[아미나다브](“my kinsman is noble”)처럼 “kinsman”이란 의미를 갖는 עַם(II)[암]을 사용하여 만든 이름들 중에 עַמִּיאֵל[아미엘] “my kinsman is God” (①삼하 9:4-5; 17:27; ②민 13:12; ③대상 3:5; ④대상 26:5); עַמִּיהוּד[아미후드] “my kinsman is majesty” (①삼하 13:17; ②민 1:10; 2:18; 7:48, 53; 대상 7:26; ③민 34:20; ④민 34:28; ⑤대상 9:4); עַמִּיזָבָד[아미자바드] “my kinsman has bestowed” (1 Chron 27:6); עַמִּישַׁדַּי[아미샤다이] “my kinsman is Shaddai” (Num 1:12; 2:25; 7:66, 71; 10:25) 등을 싣고 있다. Cf. 대상 6:7; 15:10-11 에 나오는 암미나답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83. 룻 4:20

1) 원문 문제

וְעַמִּינָדָב הוֹלִיד אֶת־נַחְשׁוֹן וְנַחְשׁוֹן הוֹלִיד אֶת־שַׂלְמָה׃ (룻 4:20)

① נַחְשׁוֹן이 지닌 어미는? 출 6:23; 민 1:7; 7:12, 17; 10:14: 대상 2:10 을 통해 נַחְשׁוֹן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② 4:20 의 שַׂלְמָה와 4:21 의 שַׂלְמוֹן은 동일인물인가?

2) 주석

룻 4: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쌀마]을 낳았고

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그의 누이 엘리세바와 결혼한 아론의 처남이요(출 6:23) 광야 여정 가운데 유다 지파를 인도하는 유명한 족장/지휘관/방백(נָשִׂיא[나씨] 민 2:3; 대상 2:10)이었다. **나손**은 광야에서 20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진영별로 계수할 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모세와 아론을 도왔다(민 1:7). 나손은 성막을 봉헌하며 하루 한 사람 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 때 첫째 날에 유다 지파의 봉헌물을 드렸다(민 7:12, 17). 나손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할 때 유다 군대를 이끌었다(민 10:14). 나손은 마 1:4; 눅 3:33 에도 나온다. 고대 근동의 족보에서 일곱 번째 자리와 열 번째 자리보다는 못하지만 다섯 번째 자리에 특별한 영예를 받을 만한 사람을 두었던 것에 비추어 나손이 이 족보에서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12]

② **살몬**은 족보에서 나손과 보아스를 연결하는 인물로만 나온다(룻 4:20-21; 대상 2:11). 마 1:5 에 의하면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본문 비평 부분에서 살핀 대로 살몬의 이름이 룻 4:20 에서 שַׂלְמָה[쌀마]로 한 번, 룻 4:21 에서 שַׂלְמוֹן[쌀몬]으로 한 번, 그리고 대상 2:11 에서 שַׂלְמָא[쌀마]로 두 번 나온다. 새슨(189-190)이 지적한 것처럼 이 세 이름은 각각 다른 애칭적 어미가 붙은 동일인의 변형된 이름으로 보인다. 부시(267)는 람의 경우처럼 살몬에 대한 다양한 표기가 족보의 중간에 나오는 이름들에게 일어나는 단축/중첩(telescoping)현상으로 알려진 특징이 보여주는 유동성(fluidity)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

[12] J. M. Sasson, "A Genealogical 'Convention' in Biblical Chronograph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ZAW)* 90 (1978): 171-85; idem, "Generation, Seventh," *IDBS*, 354-56.

84. 룻 4:21

1) 원문 문제

וְשַׁלְמֹון הוֹלִיד אֶת־בֹּעַז וּבֹעַז הוֹלִיד אֶת־עוֹבֵד׃ (룻 4:21)

① שַׁלְמֹון이 갖고 있는 어미를 지니고 있는 이 족보상의 다른 이름들은?

② בֹּעַז가 족보상에 차지하는 순서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2) 주석

룻 4:21 살몬[쌀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① **살몬**[쌀마/쌀몬]이 낳은 **보아스**는 룻기의 주요 등장 인물이다(2:1-4:21). 보아스는 다른 곳에서 족보에만 나온다(대상 2:11-12; 마 1:5; 눅 3:32).[13] 룻기의 족보에서 보아스는 (가장 존경받는 자리인 10 번째 자리 다음으로) 특별한 영예와 존경을 받는 자리인 7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아스가 차지한 7 번째 자리는 룻기의 주인공으로서의 보아스와 다윗의 존경받는 조상으로서의 보아스 사이의 주제적 연결을 암시한다. 사실 이 자리 매김은 멸절 위기에 처한 한 가문을 구한 것에 대하여 보아스에게 특별한 명예를 주는 것이다(Hubbard, 284). 10 대로 이루어진 족보의 7 번째 자리에 놓인 보아스가 다윗의 영광스러운 조상으로 그 이름이 빛나는 것과 기업을 무르는 데 있어서 순위가 더 앞섰으나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러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무명씨로 사라진 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친족을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희생하며 친족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보였던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상은 룻과 같은 현숙한 젊은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 중에 가장 명예로운 7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보아스가 차지한 7 번째 자리는 창 5 장에서 에녹이 차지한 7 번째 자리와 비교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으며 오랫동안 살았던 아담의 자손들이 결국 죽었다는 것을 전하는 아담 자손의 계보에서 10 번째 자리에 놓인 노아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인물이며 7 번째 자리에 놓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다. 창 5 장에서 들리는 죽음의 장송곡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탄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보여주고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인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5 장에서 7 번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며 간단히 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에녹의 삶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에녹처럼 7 번째 자리를 차지한 보아스의 구체적인 삶(룻 2:1-4:13)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아는 아담의

[13] 보아스의 다양한 어원적 설명에 대하여 Campbell(90-91), Sasson(41), Hubbard(134-135), 그리고 KB(I: 142) 등을 참고하라.

10 대(창 5 장: 아담-노아)이고, 아브라함은 아담의 20 대(창 11:10-26, 셈-아브람)이고, 보아스는 아담의 30 대(룻 4:18-22, [이삭-야곱-유다-] 베레스-보아스)이다. 아담은 홍수 전 인류의 시조이고, 노아는 홍수 후 인류의 시조이고, 아브라함은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 선택된 계보의 시조이고, 보아스는 다윗 왕조 더 나아가 메시아 왕국의 시조이다(cf. 마 1:1-17).

②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 **오벳**은 혈통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요 법통으로는 엘리멜렉의 손자요 말론의 아들이다. 오벳은 룻기 4:17, 21, 22 을 제외하고 대상 2:12, 마 1:5, 눅 3:32 에만 나온다. 4:17 주석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오벳**(עוֹבֵד[오베드])은 "섬기는 자 servant"란 의미를 가지며 신적 요소를 갖고 있는 압디엘(עַבְדִּיאֵל[아브디엘] "하나님의 종") 혹은 오바댜(עוֹבַדְיָה[오바드야], עוֹבַדְיָהוּ [오바드야후] "여호와의 종")의 줄인 형이다.[14]

85. 룻 4:22

1) 원문 문제

וְעֹבֵד הוֹלִיד אֶת־יִשָׁי וְיִשַׁי הוֹלִיד אֶת־דָּוִד׃ (룻 4:22)

① יִשָׁי에 대하여 삼상 16-17; 22:3-4; 사 11:1, 10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② 룻기의 마지막 단어인 דָּוִד가 족보상에서 차지한 순서와 중요성은?

2) 주석

룻 4: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① **오벳**의 아들 **이새**는 보통 "베들레헴 사람(삼상 16:1, 18)"이라고 언급되며 한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삼상 17:12)"이라고 언급된다. **이새**는 룻 4:22 과 대상 2:12 에서 불완전철자법을 보이는 יִשָׁי[이샤이]로 나오나 대상 2:13 에서 완전철자법을 보이는 אִישַׁי[이샤이]로 나온다.[15] 삼상 16:10-11 에서 **이새**는 막내 다윗을 포함한 8 아들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대상 2:13-15 에는 7 아들의 이름들 즉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랏대, 오셈, 다윗만이 언급된다. 대상 27:18 에 유다의 지도자로 언급되는 다윗의 형 엘리후가 장자 엘리압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이새의 8 아들 중 한 아들의 이름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16] **이새**에게는 두 딸 즉 스루야와 아비가일도

---

[14] 섬기는 자로서의 오벳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4:17 주석 부분을 참조하라.

[15] Sasson(190)은 대상 2:13 의 אִישַׁי에 대하여 אִישׁ יְ(הוה)_"man of the LORD"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름 יִשַׁי 앞에 prothetic 알렙이 붙어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 이새의 어원에 대한 다른 제안들에 대해서는 Sasson(190)과 Hubbard(284, n. 23)를 참고하라.

[16] M. A. MacLeod, "Jesse," *NBD*, 563.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잇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라는 대상 27:18 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Hubbard(285, n. 24)의 "1 Chr. 27:18 lists 8 sons. 대상 27 장 18 절은 8 아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말은 설명없이 이새의 아들을 8 명으로 본 것처럼 보인다.

있었다(대상 2:16-17).[17] **이새**에 관한 에피소드들도 더러 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 가서 그의 아들들 중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삼았다(삼상 16:1-13). 후에 **이새**는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 타는 자로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낸다(삼상 16:14-23). 그리고 **이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간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열덩이를 보내고 그들의 천부장에게 치즈 열덩이를 주도록 다윗을 보내며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도록 한다(삼상 17:12-18). 내러티브에서 **이새**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인도 아래 안전을 위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던 사건이다(삼상 22:1-4).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11:1) ...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11:10)."는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였다(cf. 롬 15:12).

② 이새의 아들 **다윗**은 4:17 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불완전철자법을 보이는 דָוִד[다비드]로 나온다.[18] **다윗**의 성명(full name)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삼상 17:12).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명명된 것은 삼상 20:27, 30-31; 22:7-9, 13; 25:10; 왕상 12:16; 대상 10:14; 29:26; 행 13:22 등에 나온다. 다윗은 베레스 계보의 절정이요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다. 다윗은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에도 평범한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다. 구약에서 다윗은 모세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다윗에 관한 내러티브는 삼상 16 장—왕하 2 장 그리고 병행 본문인 대상 2-29 장에 나온다.[19]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삼상 17:12-54)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21:11; 29:5)."라고 노래한 것처럼 군사적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다윗은 남아 있던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고(삼하 5:6-8) 강력한

---

[17] 삼상 17:25 에는 스루야의 동생으로 아비갈이 나오는데 아비갈과 아비가일은 동일인의 변형된 이름으로 보인다.

[18] Bush(23-24)는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수치를 제시한다.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등의 표준 히브리어 시기의 책들에서 불완전철자법을 보이는 דָוִד[다비드]로 780 번 나오고 완전철자법을 보이는 דָוִיד[다비드]로 4 번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등의 후기 히브리어 시기의 책들에서 불완전철자법을 보이는 דָוִד[다비드]는 나오지 않고 완전철자법을 보이는 דָוִיד[다비드]로만 271 번 나온다. 히브리어 전환기에 해당하는 에스겔서에서 3 번 불완전철자법으로 나오고 1 번 완전철자법으로 나온다.

[19] Block(735, n. 11)은 사무엘-열왕기의 총 102 장 가운데 42 장, 즉 약 41%가 이스라엘 역사의 9%에 불과한 다윗의 40 년 통치에 할애된 것을 지적한다. 다윗에 대한 간편한 요약을 위해 D. M. Howard, Jr., "David," *ABD* II: 41-49 와 D. F. Payne, "David," *ISBE* I: 870-76 을 참고하라. 역사, 전통, 그리고 예언 가운데 나오는 다윗에 대하여 R. P. Gordon, "David," *NIDOTTE* IV: 505-512 를 참고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였다(삼하 5:20-25).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삼상 13:14) 최초의 합법적인 왕(cf. 창 17:6, 16; 35:11; 49:10; 민 24:7, 17; 신 17:14-20)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 400 여년이나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장 긴 다윗 왕조의 창시자였다(삼하 7:9-16; 시 132:11-12).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고(삼하 22:1; 23:1; 시 18; 대상 16:7), 많은 예언들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범으로 언급되었다(렘 30:9; 겔 34:24-25; 37:24, 25; 호 3:5; cf. 막 11:10).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다(롬 1:3).[20]

코다(4:18-22) 해설

⑴룻기는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엘리멜렉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다윗으로 끝난다(Hubbard, 285, n. 28). 룻기의 마지막 긴 족보(4:18-22)는 책의 지평을 넓히며 베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다윗까지 내려온다.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결국 다윗 왕에게로 이어지도록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 다윗의 탄생은 약속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유다의 무관심(창 38 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의 혼란(사사기), 엘리멜렉 가문의 멸절 위기(룻 1:1-5) 등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섭리의 승리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Hubbard, 285).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마태복음 초두에 나오는 족보는 여호와의 손이 모든 역사 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구속의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세대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⑵룻기는 오벳의 탄생으로 이야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결말(4:14-17c)로 끝나지 않고 오벳-이새-다윗이란 짧은 족보(4:17d)와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10 대를 추적하는 긴 족보(4:18-22)로 끝난다. 룻기가 이야기의 결말(4:17c)이나 결말과 함께 가는 짧은 족보(4:17d)로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긴 족보(4:18-22)로 끝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결말-짧은 족보-긴 족보로 끝낸 것인가 아니면 후대의 편집자가 짧은 족보-긴 족보를 첨가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본문 이전의 어떤 자료나 문서를 찾는 일에 몰두하는 학자들은 족보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어진 본문을 있는 그대로 두고 문예적인 분석에 치중하는 학자들은 족보가 원래 저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⑶족보를 후대의 첨가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

[20] 다윗은 예수님께 주어진 "다윗의 아들"이란 칭호를 포함하여 신약에 57 번 언급된다. "다윗의 아들"이란 칭호를 위해 마 1:1; 9:27; 12:23; 15:22; 20:30-31; 21:9, 15; 막 10:47-48; 12:35; 눅 3:31; 18:38-39; 20:41 등을 보라.

①아이스펠트(Eissfeldt, *Introduction*, 479-80)는 긴 족보가 원래 룻기에 없었는데 대상 2:5-15 에 근거하여 후대에 첨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시(261-262)는 긴 족보가 덧붙여지는 계기를 준 룻 4:17a-c 가 이름을 짓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스펠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4:17a-c 가 아주 적절하게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1]

②루돌프(Rudolf, 71)와 뷔르트바인(Würthwein, 24)은 오벳을 엘리멜렉-말론의 후사로 보는 이야기와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보는 족보가 내용에 있어서 서로 상치되는 점을 지적하며 긴 족보가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오벳에 대하여 이야기와 족보가 서로 내용상 상치된다는 주장은 오벳이 기업 상속 면에서 말론의 아들이고 혈통 면에서 보아스의 아들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시각에서 족보를 본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허버드(19-20)와 부시(16)가 잘 지적한 대로 고대에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족보가 작성되었고(참고: Wilson, *Genealogy and History*, 46-47)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수혼이 아니고 기업 무르는 관습에 근거한 것이다.[22] 따라서 이야기와 족보가 내용상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다.

③주옹(Joüon, E 93)은 긴 족보가 전체 이야기의 아름다운 문예적 창작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시(14)가 지적한 것처럼 족보가 문예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현대적 평가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새슨(Sasson, 181)이 말한 것처럼 고대에 유명한 조상들의 이름을 암송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청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고대에서 족보는 족보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문예성을 가지고 있었다.

④캠벨(Campbell, 15)은 없어도 완벽한 이야기에 긴 족보가 첨가된 것이므로 점강법(漸降法 anticlimax)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룻기에서 긴 족보가 담당하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을 고려하면 족보를 이야기의 하강으로 볼 이유가 없다. 족보의 역할과 목적은 처음부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이야기 뒤에 놓은 것이라는 견해들을 살필 때 더욱 밝히 드러날 것이다.

⑷족보를 원래 저자의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모리스(Morris, 317)는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긴 족보가 중심 이야기에 처음부터 부록으로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족보가 담당하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들은 덧붙여진 부록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자의 의도적인 마감 부분으로 보도록 해 준다.

---

[21] 더 자세한 논의는 위의 4:17 주석 부분과 Bush, "Ruth 4:17, A Semantic Word Play," in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FS D. W. Young, ed., J. Coleson and V. Matthew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3-14 을 보라.

[22] Bush, 16: In the sphere of family inheritance, Obed would be regarded as the heir of the Elimelech-Mahlon line "in order to express his right to the usufruct of the land," while in the political sphere, he would be reckoned as the descendant of Boaz "in order to express David's right to excercise royal leadership."

②허버드(15-23)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다윗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룻기에서 긴 족보가 중심 이야기와 문학적인 연속성을 보이며 여러 가지 주제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버드에 의하면 긴 족보는 책 서두의 불안정과 공허를 사라지게 하는 안정과 풍성을 보여주고, 룻과 보아스를 위해 빌었던 백성들의 축복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짧은 족보를 통하여 암시한 사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선물임을 더욱 강조하고,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이름들만 간단히 나열함으로써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돌보신 여호와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고, 다윗을 유명한 조상들과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다윗의 정치적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룻이 위대한 왕의 존경받는 조상임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녀의 헌신에 대한 상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보아스가 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열 번째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곱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상을 받은 것을 밝힘으로써 이야기를 보충하고 있다.

③벌린(Berlin, 109-110)은 긴 족보(4:18-22)가 원래 이야기를 세 번째로 마감하는 코다이며 이스라엘 내러티브 전통의 대변자로서 내레이터가 룻의 이야기를 그 전통의 적절한 맥락에 놓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벌린에 의하면 이 코다는 청중을 이야기의 시점에서 청중 자신의 시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의 등장 인물들을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잘 알려진 내러티브 전통에 나오는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보아스와 다른 등장 인물들은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자료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 룻기의 등장 인물들이 창세기-열왕기 내러티브의 흐름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은 족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보아스를 7 번째 자리에 놓고 영예를 줌으로써 대답되고 있다.

④블락(735-37)은 처음부터 내러티브에 붙어 있는 긴 족보가 에필로그로서 1:1-5 의 프롤로그에 적절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왕통 보존과 상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블락에 의하면 다윗이 왕조의 창시자로서 마태복음 1 장의 족보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르는 구절들(마 1:1; 9:27; 12:23; 15:22; 20:30-31; 21:9, 15; 22:45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직계 족보에서 족보를 시작하는 인물은 대개 결정적인 지위나 중대한 직분의 창시자인데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받은 유다(창 49:8-10)가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계보의 창시자로 볼 수 없는 베레스로 시작하는 것에 유의하면 긴 족보는 마지막 인물 다윗이 첫 인물 베레스와의 혈통적 연결로 인해 그의 왕위와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긴 족보가 베레스의 집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질문에 부분적인 대답을 주지만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없다. 긴 족보의 목적은 족보 앞에 나오는 내러티브에서 찾을 수 있고, 긴 족보는 에필로그로서 1:1-5 의 프롤로그에 상응하는 결론이고 그 이상이다. 족보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한결같은 인애를 보이는 인물들의 경건과 그러한 경건한 인물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우러져 일어난 오벳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고 오벳의 탄생이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전기가 된 것을 일러준다. 룻기의 내러티브와 족보는 어두운 사사 시대에 선택된 계보가 구원자나 왕에 의해 보존된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착한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 보존된 것을 보여준다. 등장 인물들은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긴 범위의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아는 내레이터는 이 족보를 통하여 혼란의 사사 시대에 왕통을 이어갈 가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의 백성의 참된 경건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 족보를 통하여 보아스와 오벳의 이름이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끝까지 알려진다.

⑤부시(15-16, 267-268)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긴 족보가 이야기 전체의 에필로그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먼저 에필로그로서 긴 족보는 프롤로그와 균형을 이룬다. 모압 거주 10 년의 죽음을 언급하는 프롤로그와 10 대의 탄생을 언급하는 에필로그는 병행된다. 프롤로그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는 묘사를 통한 다윗에 대한 미묘한 암시는 다윗의 혈통을 분명하게 밝히는 족보에서 밝히 드러난다. 그리고 긴 족보는 이야기와 상충되는 이차적인 첨가가 아니라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의 결말(4:13-17)과 아주 잘 어울리는 에필로그를 제공한다. 첫째,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는 법적집회에서 보아스에게 집중된 축복(4:11-12)대로 그 집의 크기가 이스라엘(야곱)의 집같이 되고 그 집의 중요성이 베레스의 집처럼 되어 베들레헴에서 번성하고 유명해진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둘째, 족보는 나오미의 풍성한 삶에로의 회복이란 이야기의 결말에 현저한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적절한 에필로그를 제공한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뛰어난 병행이 암시하는 것과 이야기의 결말(4:13-17)이 암시하는 것은 베레스-다윗의 족보가 다윗의 혈통적 자격이 있음을 밝혀 줌으로써 그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야기의 결말의 중요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결말에서 묘사된 오벳 탄생의 역사적 의의는 등장 인물들이 처한 개인적인 위기 해결을 훨씬 뛰어 넘어 두 세대 후에 다윗과 연결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도 이바지한 것이다. 민족과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한결같은 인애와 순종, 자기의 유익을 뛰어 넘은 보아스의 나오미와 룻에 대한 신실함과 영민함, 며느리를 위해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나오미의 배려와 관심, 그리고 양식과 자식을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로우심, 이 모든 것들이 룻에게 집과 남편을 주었고, 나오미에게 풍성한 삶의 회복을 주었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택을 주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태어난 오벳은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었고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긴 족보는 한 가족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것을 넘어 나오미에게 생긴 아들 안에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심으로써 한 민족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지평을 넓힌다.

⑸결론적으로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긴 족보(4:18-2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①룻기의 긴 족보는 대상 2:5-15 에 근거하여 후대에 첨가한 것도 아니고, 내러티브 부분과 내용상 상치되는 것도 아니고, 내러티브의 문학적 창작성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러티브의 하강을 보이는 군더더기도 아니고, 내러티브에 붙인 원래의 부록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②룻기의 긴 족보는 앞선 내러티브와 문예적으로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저자의 의도적인 마감 부분으로 원래부터 있었다. 벌린이 설명한 것처럼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긴 족보(4:18-22)는 오벳의 탄생으로 이야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결말을 보이는 첫 번째 마감(4:14-17c)과 청중을 이야기의 시점에서 청중 자신의 시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을 밝히는 짧은 족보를 통한 두 번째 마감(4:17d)과 더불어 코다로서 룻기의 등장 인물들을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잘 알려진 내러티브 전통에 나오는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는 세 번째 마감이다.

③룻기의 긴 족보는 베레스로부터 이름들이 거듭되고 9 번 "낳았다"란 동사를 사용하며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족속의 한 가문이 모압 거주 10 년 동안 당한 불안정과 텅 빔의 위기(1:1-5)에서 벗어나 10 대의 끊기지 않는 이름들이 보여주는 안정과 가득 참이 주어진 것을 보여준다.

④룻기의 긴 족보는 백성과 장로들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한 룻과 그의 친족에게 헌신한 보아스를 위해 간구한 축복(4:11-12)대로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우고 보아스가 유명해지고 룻을 통해 보아스의 집이 다말을 통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된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⑤룻기의 긴 족보는 결말(4:13-17c)의 오벳 탄생이 등장 인물들의 개인적인 위기 해결을 훨씬 뛰어 넘어 짧은 족보(4:17d)에서 암시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크게 이바지한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⑥룻기의 긴 족보가 4:12 에 언급된 베레스로 시작하고 1:2 에 암시되고 4:17 에 언급된 다윗으로 끝나는 것은 10 대를 확보하며 가장 유명한 다윗을 마지막 열 번째 자리에 오도록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곱 번째 자리에 보아스가 오도록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다. 룻기의 긴 족보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청지기 의식이 없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무명씨로 사라진 것과 달리 친족을 위해 한결같은 인애를 베푼 보아스가 일곱 번째 자리에서 빛나는 영예를 받고 있는 상을 보여줌으로써 내러티브를 보충해 주고 있다.

⑦룻기의 긴 족보가 열 번째 자리에 오는 다윗의 혈통을 밝힘으로써 다윗 왕을 정당화해 주는 것으로 여기고 족보를 절정으로 보는 것은 룻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이 족보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유다(창 49:8-10)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직계 족보에서 마지막 인물이 그가 지닌 현재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그가 제사장적 혹은 왕적 직분의 창시자인 족보의 첫 인물과의 혈통적 연결을 가지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서 마지막 인물 다윗이 첫 인물 베레스와의 혈통적 연결로 인해 그의 왕위와 왕권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룻기가 서막(1:2)에서 암시되고 종막(4:17d)과 코다(4:22)에서 명시된 다윗과 분명한 연관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왕통 보존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하여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족보 자체가 다윗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러티브 다음에 나온 것은 아니다. 룻기의 내러티브와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종교적 배교와 윤리적 타락이 만연한 사사 시대에 왕조를 이룰 선택된 계보가 구원자나 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헌신하는 평범한 착한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온전한 상을 주시며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 보존된 일이다.

⑧룻기의 긴 족보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준다.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기 위해 모압 백성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모스 대신 여호와를 택하며 민족과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모압 여인 룻의 한결같은 인애와 순종,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친족을 위해 헌신한 보아스의 친절과 지혜로운 일 처리,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평안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나오미의 배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고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자식을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 등이 한 데 어우러진 결과로 룻은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찾았고 나오미는 풍성한 삶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오벳-이새-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보존되며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

⑨룻기의 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마 1:1-17; 눅 3:23-38)의 일부가 된다.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태어난 오벳이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었고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룻기가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애의 삶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평범한 우리도 반복되는 일상 생활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하여 손익 계산에 빨랐던 무명씨의 삶이 아니라 친족을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관대하게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고 고난이 연속되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한결같은 인애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에 오른 것을 기뻐하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⑹하나님은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의 가문이 룻의 하나님 중심적 헌신과 보아스의 희생적 친족 사랑을 통하여 멸절 위기에서 극복되도록 섭리하셨다. 하나님은 한 가문의 위기 극복을 통하여 왕적 계보를 이어갈 씨를 보호하셨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룻에게 하셨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며 그가 의도하신 대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어려운 현실을 넘어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교회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리스도와 천상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완성을 향하여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며 사탄의 핍박을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국가가 멸망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성전에 계시며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설령 삶에 필수적인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가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민감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민첩하게 실천함으로써 불신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믿는 이웃을 견고하게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보아스가 베푼 인애는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을 보도록 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인애가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처럼 인애의 화신으로 살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사는 것을 도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할 것이다.

⑺마 1:1-17 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악명높은 자들이 많다. 그들 중에 속이는 자의 대명사 야곱,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유다, 멸시받는 이방 여인들 곧 가나안 출신 다말과 모압 출신의 룻과 여리고의 창녀 라합, 우리아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다윗, 우상 숭배를 택한 솔로몬,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므낫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예수님(마 1:21)은 이러한 악명 높은 죄인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이셨고(마 11:19; 눅 7:34), 죽으실 때도 두 강도 사이에 계셨다(마 27:38).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눅 19:10)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부르짖으며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셨고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요 15:13).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 룻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신앙을 중심으로 모압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와서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섬겼다. 그러나 룻의 사랑이 어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해만 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행해야 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백성 대신 끔찍하지만 숭고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롬 4:25) 룻기의 무명씨와 달리 그리고 일곱 번째 자리에서 영예를 얻은 보아스와 비교도 안 되게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빌 2:5).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고난의 종은 수많은 씨 곧 영적인 후손들을 갖게 되었고(사 53:10)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 백성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두구이드, 190).

⑻당신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죄인들의 친구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외부자들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선행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가는 표를 살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공로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외부자들에게만 열려 있다(두구이드, 190).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는 구원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외부자들에게만 오늘도 역사한다. 감동적인 헌신의 말(1:16-17)과 실제적인 헌신(2:11)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조차도 자신의 불행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인색한 상황에 있던 이방 여인(룻 2:10) 룻은 종인 하녀(2:13)와 결혼할 만한 시녀(3:9)를 거쳐 이스라엘의 유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4:13)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4:15)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룻은 그녀가 아직 외부자로 있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보아스로부터 환영받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룻과 같은 외부자들이 이와 비슷한 환영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곳인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나중이고 가장 작다고 여기는 잃어버린 자들이 멸시받지 않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곳인가? 우리의 교회는 공동체에서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질시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안전한 곳인가? 외부인들이 교회 문을 통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를 만지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언가 느낀다고 가정해 보라. 그 외부인들이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가? 죄인들의 친구이신 주님처럼 우리는 그들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일지라도 그들로 특별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란 생각을 갖게 하는가?

⑼이것이 바로 룻이 나오미를 위해 한 일이다. 나오미가 가장 힘들어 하는 때 룻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생사간에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것도 자신을 나오미와 떼어 놓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이다. 보아스는 룻이 모압 출신 과부일지라도 공적으로 룻이 가치있는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세 사람 각자에게 하신 일이다(두구이드, 191). 주님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간 편의 기업 무를 자 배후에 계신 기업 무를 자이시다. 이는 텅 비어 베들레헴에 돌아온 쓰디쓴 마라를 기업을 이어갈 오벳을 안고 베들레헴 여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나오미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 확인된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일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구원 이야기의 각각의 배후에 있는 기업 무를 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우리 각자를 찾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치있도록 만드셨다. 룻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윗 왕조 건설이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판명되는 것은 룻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두구이드, 19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은 각기 결국은 잘 되어 즐겁게 마무리되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빈털털이로 방황하며 하나님을 향해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분의 집에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죄인들의 친구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아직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엡 2:12)" 외부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중심으로 환영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이야기를 계속 꾸며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uth: Commentaries and Major Studies

Atkinson, David. *The Wings of Refuge: The Message of Ruth*. The Bible Speaks Toda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83.

Barber, Cyril J. *Ruth*.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3.

Block, Daniel I.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1999.

Brenner, A., ed. *A Feminist Companion to Ruth*. The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3. Sheffield: JSOT Press, 1993.

Bush, Frederic W. *Ruth, Esther*. WBC 9. Dallas: Word, 1996.

Campbell, Edward F. *Ruth*. AB 7.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5.

Caspi, M. M and R. S. Havrelock. *Women on the Biblical Road: Ruth, Naomi, and the Female Journe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6.

Chisholm, Robert B. Jr. *A Commentary on Judges and Ruth*. Grand Rapids: Kregel, 2013.

Cundall, Arthur, and Leon Morris. *Judges and Ruth*.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68.

Duguid, Iain M. *Esther and Ruth*. Reformed Expository Commentary. Phillipsburg: P & R, 2005.

Evans, Mary J. *Judges and Ruth*. TOTC.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2017.

Ferguson, Sinclair B. *Faithful God: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uth*. Bryntirion: Bryntirion Press, 2001.

Fewell, Danna Nolan, and David Miller Gunn. *Compromising Redemption: Relating Characters in the Book of Ruth*. Literary Currents in Biblical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onx, 1990.

Gow, Murray D. *The Book of Ruth: Its Structure, Theme, and Purpose*. Apollos, 1992.

Gray, John. *Joshua, Judges, Ruth*.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6.

Groslinga, C. J.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Tr. R. Togtman. Grand Rapids: Zondervan, 1986.

Hals, Ronald 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uth*. Facet Books, Biblical Series, 23. Philadelphia: Fortress, 1969.

Robert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Hubbard, Robert L. *The Book of Ruth*.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Joüon, Paul. *Ruth: A Philolog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Tr. Homer Heater, Jr. Editrice Pontificio Biblico: Roma, 2013.

Kates, J. A., and G. T. Reimer, eds. *Reading Ruth: Contemporary Women Reclaim a Sacred Story*. New York: Ballentine, 1994.

Levine, E. *The Aramaic Version of Ruth*. Analecta Biblica 58.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3.

Linafelt, Tod & Timothy K. Beal. *Ruth and Esther*. Berit Olam. Collegeville: Liturgical, 1999.

Luter, A. Boyd & Barry C. Davis. *Ruth & Esther*. Grand Rapids: Baker, 1995.

Matthews, Victor H. *Judges & Ruth*. NCB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McKeown, James. *Ruth*. THOTC. Grand Rapids: Eerdmans, 2015.

Nielsen, Kirsten. *Ruth*. Old Testament Library. Westminster John Knox, 1997.

Sakenfeld, Katharine Doob. *Ruth*.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9.

Sasson, Jack M. *Ruth*.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Ulrich, Dean R. *From Famine To Fullness: The Gospel According to Ruth*. Phillipsburg: P & R, 2007.

Waard, J. de, and Nida, E. 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Book of Ruth*. Helps for Translations 15.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3.

Younger, K. Lawson, Jr. *Judges/Ruth*.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2.

Ruth: Shorter Studies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Pp. 58-60.

Bauckham, R. "The Book of Ruth and the Possibility of a Feminist Canonical Hermeneutic." *BibInt* 5 (1997): 29-45.

Beatttie, D. R. G. "The Book of Ruth as Evidence for Israelite Legal Practice." *VT* 24 (1974): 251-267.

------. "Ruth III." *JSOT* 5 (1978): 39-48.

------. "Redemption in Ruth, and Related Matters: A Response to Jack M. Sasson." *JSOT* 5 (1978): 65-68.

Berlin, Adele.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1983. Pp. 83-110.

------. "Ruth." In *Harper's Bible Commentary*. Ed. J. L. May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Pp. 262-267.

Bernstein, M. "Two Multivalent Readings in the Ruth Narrative." *JSOT* 50 (1991): 15-26.

Berquest, J. L. *Reclaiming Her Story*. The Witness of Women in the Old Testament. St. Louis: Chalice. Pp. 141-53.

------. "Role Dedifferentiation in the Book of Ruth." *JSOT* 57 (1993): 23-37.

Bertman, S. "Symmetrical Design in the Book of Ruth." *JBL* 84 (1965): 165-68.

Bos, J. W. "Out of the Shadows: Genesis 38; Judges 4:17-22; Ruth 3." *Semeia* 42 (1988): 58-64.

Brenner, A. "Naomi and Ruth." *VT* 33 (1983): 385-97.

Brenner, G. 1990. "Readers Responding: An Interview with Biblical Ruth." *Soundings* 73 (1990): 233-55.

Brin, G. *Studies in Biblical Law from the Hebrew Bible to the Dead Sea Scrolls*. JSOT Supplement 176. Trans. J. Chipman. Sheffield: JSOT Press, 1994.

Carmichael, C. M. "'Treading' in the Book of Ruth." *ZAW* 92 (1980): 248-66.

Childs, Brevard.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Pp. 560-68.

Coxon, P. W. "Was Naomi a Scold?" A Response to Fewell and Gunn." *JSOT* 45 (1989): 25-27.

Feeley-Harnik, Gillian. "Naomi and Ruth: Building Up the House of David." In *Text and Tradition: The Hebrew Bible and Folklore*, edited by S. Nidith, 163-84. Atalanta: Scholars Press, 1990.

Fewell, Danna Nolan, and David Miller Gunn. *Compromising Redemption: Relating Characters in the Book of Ruth*. Literary Currents in Biblical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onx, 1990.

Glueck, Nelson. *Ḥesed in the Bible*.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1967.

Gow, Murray D.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Structure for the Translation of the Book of Ruth." *Bible Translator* 35 (1984): 309-20.

-----. "Ruth Quoque--A Coquette? (Ruth IV 15)." *BT* 41 (1990) 302-11.

Green, B. "The Plot of the Biblical Story of Ruth." *JSOT* 23 (1982): 55-68.

Howard, David M., Jr. "The Case for Kingship in Deuteronomy and the Former Prophets." *WTJ* 52 (1990): 101-15.

------.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Chicago: Moody, 1993.

Kates, J. A., and G. T. Reimer, eds. *Reading Ruth: Contemporary Women Reclaim a Sacred Story*. New York: Ballentine, 1994.

Leggett, Donald A. *The Levirate and Goel Institutions in the Old Testamen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Book of Ruth*. Cherry Hill, N.J.,: Mack, 1974.

Levine, E. *The Aramaic Version of Ruth*. Analecta Biblica 58.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3.

Loretz, Oswald. "The Theme of Ruth Story." *CBQ* 22 (1960):391-99.

Merrill, Eugene H. "The Book of Ruth: Narration and Shared Themes." *Bib Sac* 142 (1985) 130-41.

Rauber, D. F. "Literary Values in the Bible: The Book of Ruth." *JBL* 89 (1970): 27-37.

Rossow, F. C. "Literary Artistry in the Book of Ruth and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Concordia Journal 17 (1991): 12-19.

Ryken, L. "Ruth." In *A Dictionary of Biblical Tradition in English Literature*, ed. D. L. Jeffrey (Grand Rapids: Eerdmans, 1992): 669-70.

Sakenfeld, Katherine D. *The Meaning of Hesed in the Hebrew Bible: A New Inquiry*. HSM 17. Missoula, Mont.:Scholars Press, 1978.

Tischler, N. M. "Ruth." In *A Complet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ed. L. Ryken and T. Longman III (Grand Rapids: Zondervan, 1993): 151-64.

Trible, Phyllis. "A Human Comedy." In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vol. 2. Philadelphia: Fortress, 1978.

------. "Two Women in a Man's World: A Reading of the Book of Ruth." *Soundings* 59: 251-79. New Haven, 1976.

Wolfensen, L. B. "Implications of the Place of the Book of Ruth in Editions, Manuscripts, and Canon of the Old Testament." *Hebrew Union Annual* 1 (1924): 151-78.

General Resources

ABD: David Noel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Garden City, N.Y.: Doubleday, 1992.

ANEH: William W. Hallo and William Kelly Simpson. *The Ancient Near East: A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ich, 1971.

ANEP. J. B. Pritchard, ed. *The Ancient Near East in Picture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N.Y.: Princeton Univ., 1954

ANET: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d ed. Princeton, N.Y.: Princeton Univ., 1969.

CS: Hallo, William W. and K. Lawson Younger, Jr. (eds.). *The Context of Scripture. Volume 1.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Brill, 1997. *Volume 2.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Brill, 2000. *Volume 3. Archival Documents from the Biblical World*. Brill, 2002.

ISBE: G. W. Bromiley,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Rev. ed. 4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9-88.

ZPEB: M. C. Tenney, ed. *Zondervan Pictorial Bible Encyclopedia*.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75.

Introduction to OT

Archer, G. L.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Chicago: Moody, 1964 (3rd. 1994).

Baker, David W. and Bill T. Arnold 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Baker, 1999.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Craigie, P. C. *The Old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s.* Nashville: Abingdon, 1986.

Dillard, R. B., and T.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박 철현 역.「최신 구약개론」.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Eissfeldt, O.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ranslated by Ackroyd.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2001.

Harrison, R.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Hill, A. E., and J. H. Walton. *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up-to-date comprehensive evangelical. (=유 선명, 정 종성, 엄 성옥 역.「구약개론」. 은성)

Howard, David M., Jr. *An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Moody: Chicago, 1993.

LaSor, W. S., D. A. Hubbard, and F. W. Bush. *Old Testament Survey*. Grand Rapids: Eerdmans, 1982.

Unger, M. F., Introductory Guide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51.

Young, E. J.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9 (rev. 1984). standard conservative. (=홍 반식, 오 병세 역.「구약총론」.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정 규남.「구약개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홍 반식.「구약총론」. 부산: 성암사, 1978.

Introduction to Historical Narrative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1981.

Bar-Efrat, Shimon. *Narrative Art in the Bible*. JSOTSup 70. Sheffield: Almond, 1989.

Barton, Joh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Berlin, Adele.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1983.

Holman, C. Hugh. *A Handbook to Literature*. 3d ed.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2.

Long, V. Philips. *The Art of Biblical History*. Grand Rapid: Zondervan, 1994.

Longman, Tremper,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7.

Pratt, Richard L. Jr. *He Gave Us Stories*. New Jersey: P&R, 1990.

Sailhamer, John H. "The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as a Text." In *A Tribute to Gleason Arc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edited by W. C. Kaiser, Jr. and R. F. Youngblood, 279-96. Chicago: Moody, 1986.

Sternberg, Meir.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2d ed. Atlanta: John Knox, 1985.

--------. "Biblical Poetics and Sexual Politics: From Reading to ConterReading." *JBL* 111 (1992): 463-88

Walton, John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89.

Wenham, Gordon. "History and the Old Testament." In *History, Criticism, and Faith*, edited by Colin Brown, 13-75.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6.

Biblical Interpretation

Berkhof, L.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52.

= 윤 종호, 송 종섭 역. **성경 해석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9.

Berlin, Adele.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1983.

Broyles, Craig C. ed.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A Guide for Exegesis*. Baker, 2001.

Carson, D. A.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Baker, 1984.

=박 대영 역. **성경해석의 오류**.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Carson, D. A., and John Woodbridge.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Grand Rapids: Zondervan, 1986.

-------. *Scripture and Truth*. Grand Rapids: Baker, 1994.

Conn, H. M., ed. *Inerrancy and Hermeneutic*. Grand Rapids: Baker, 1988.

정 광욱 역. **성경 무오와 해석학**. 서울: 엠마오, 1991.

Conyers, A.J. *How to Read the Bibl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86.

Cotterell, P., and M. Turn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89.

Chisholm, Jr., Robert B. *From Exegesis to Exposition: A Practical Guide to Using Biblical Hebrew*. Baker, 1998.

Fee, Gordon,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Grand Rapids: Zondervan, 1982. = 오 광만 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1.

Goldingay, John. *Approaches to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81.

Goldingay, John. *Theological Diversity and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김 영철 역.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룬, 1998. An excellent treatment of how to incorporate the results of hermeneutically sound exegesis into good sermons.

-----.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Toronto: Wedge, 1970. = 권 수경 역.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서울: 학생신앙운동, 1997.

-----.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김 진섭, 류 호영, 류 호준 역.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이레서원, 2005.

Kaiser, Walter C. Jr. *Toward Exegetical Theology: Biblical Principles for Preach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Baker, 1981. = 김 의원 역. **새로운 주경신학 연구: 구문론적 분석**. 서울: 엠마오, 1992.

Kaiser, Walter C. Jr. and Moisés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강 창현 역. **성경해석학 개론**. 서울: 은성, 1996.

Klein, W., Craig L. Blomberg, and Robert L.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Word, 1993.

=류 호영 역. **성경해석학 총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Longman, Tremper,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7.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2002. =이 승진 역.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McCartney, Dan, and Charles Clayton. *Let the Reader Understand*. Wheaton: Victor, 1994. =김 동수 역. **성경해석학**, 서울: IVP, 2000.

McQuilkin, J. Robertso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Bible*. Chicago: Moody Press, 1983.

Mickelsen, A. B. *Interpreting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63.

=김 인환 역. **성경 해석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

Osborne, Grant.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91.

Poythress, Vern. S. *Science and Hermeneutics: Implications of Scientific Metho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8.

------. *God-centered Biblical Interpretation*, Phillipsburg: P&R, 1999.

Ramm, B.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3rd ed. Grand Rapids: Baker, 1970.

=정 득실 역. **성경해석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Ryken, Leland. *The Literature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74.

------. *Words of Delight: A Literary Introduction to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92.

------. *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Grand Rapids: Zondervan, 1984.

Rogerson, John. *Beginning Old Testament Stud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2.

Sandy, D. Brent, and Ronald L. Giese, eds.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5.

Silva, Moisés. ed. *Foundations of Contemporary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Moisés Silva,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Tremper Longman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Moisés Silva, *God, Language and Scripture*; V. Philips Long, *The Art of Biblical History*; Vern S. Poythress, *Science and Hermeneutics*; Richard A. Muller, *The Study of Theology*]

Silva, M.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Grand Rapids: Zondervan, 1983.

=김 정우, 차 영규 역. **성경 어휘와 그 의미**. 서울: 성광문화사, 1990.

Stuart, Douglas. *Old Testament Exegesis. A Handbook for Students and Pastors. 3rd edition.* Westminster John Knox, 2001 Important principles and a guide to other studies for interpreting the Hebrew text and applying it to sermons.

=김 의원 역. **성경 해석 방법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7.

Thiselton, A. C.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forming Biblical Read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2.

권 성수. **성경 해석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8.

박 형용. **성경 해석의 원리**.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Biblical Hebrew Grammar

Davidson, A. B. *Hebrew Syntax*. 3d ed. Edinburgh: T. & T. Clark, 1901.

Gesenius, W.--E. Kautzsch. *Gesenius' Hebrew Grammar*. Translated by A. E. Cowley. Oxford: Clarendon, 1910. =**GKC**

Joüon, P.-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2 vol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1. =**GBH**

Lambdin, T. O.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New Work: Scribner, 1971.

Waltke, B. K.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IBHS**

Williams, R. J. 1976. revised & expanded by John C. Beckam. 2007. *Willimams' Hebrew Syntax*. 3r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WHS**

Text and Textual Criticism

Elliger, K., and W. Rudolph.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84. =**BHS**

Kohlenberger, J. R., III. *The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87.

Brotzman, E. R.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Baker, 1994.

=이 창배 역. 2002. **구약 본문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Klein, Ralph W.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74.

McCarter, P. Kyle, Jr. *Textu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1986.

Scott, W. R. *A Simplified Guide to BHS*. Berkeley: Bibal, 1987.

Tov Em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nd edition.* Fortress, 2001.

Wonneberger, R. *Understanding BHS: A Manual for the Users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trans. Dwight R. Daniels, 2d e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0.

Würthwein, Ernst.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2nd edition. Eerdmans, 1995.

OT Canon

Barton, John. *Holy Writings, Sacred Text. The Canon in Early Christianity.* Westminster John Knox, 1997.

Beckwith, R.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London: SPCK, 1985.

Bruce, F. F. *The Books and the Parchments*. 3d ed. Old Tappan, N.J.: Revell, 1963.

Bruce, F. F. *History of the Bible in English*. 3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Ewert, David. *A General Introduction in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90.

Fisher, M. C. " The Canon of the Old Testament." *EBC*. Grand Rapids: Zondervan, 1979. 1:385-94.

Geisler, Norman L., and W. E. Nix.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Bible*. Chicago: Moody Press, 1968.

Harris, R. Laird.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57.

Harrison, R. K. "The Old Testament Text and Canon." I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260-88.

Jobes, Karen H. and MoisÈ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Baker, 2000.

Kaiser, Walter C. Jr. *The Old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 Relevant?* Downers Grove, Ill: IVP. 2001.

Kline, Meredith G.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Eerdmans, 1972.

Lewis, J. P. *The English Bible: From KJV to NIV*. Grand Rapids: Baker 1981.

Metzger, Bruce M.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Metzger, Bruce M, ed. *The Oxford Annotated Apocryph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Tov, Emmanuel.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Revised edition. Jerusalem Biblical Studies volume 8. Simor, 1997.

Concordances

Even-Shoshan, A. *A New Concordance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89.

Lisowsky, G. *Konkordanz zum hebra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1958.

Mendelkern, S. *Veteris Testamenti Concordantiae hebraicae atque chaldaicae.* Leipzig, 1896.

Lexicon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7. =**BDB**

Clines, Davi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8 vols.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Five volumes have appeared.

Holladay. W.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ased upon the Lexical Work of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Grand Rapids: Eerdmans, 1971. =손 석태, 이 병덕 역.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e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rd ed. 5 vols. Brill, 1994-2001; Study edition, 2 vols. Brill, 2001. =**KB**(HALOT)

Theological Dictionary

Botterweck, G. J., H. Ringgren, H.-J.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erdmans, 1977-. Fourteen volumes have appeared.

Jenni, E. and C.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s. Hendrickson, 1997.

Harris, R. L.,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2 vols. Chicago: Moody, 1980. =**TWOT**

VanGemeren, W. A.,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NICOTTE**

Old Testament Theology

Anderson, Bernard W. *Contours of Old Testament Theology*. Fortress, 1999.

Barr, James. *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SCM, 1999.

Brown, M. L. *Israel's Divine Heale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Brueggemann, Walt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Fortress, 1997.

Childs, Brevard 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Fortress, 1986.

Clements, R. E. *Old Testament Theology*. London: John Knox, 1976.

=김찬국 역. **구약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9.

De Graaf, S. G. *Promise and Deliverance*. vols 1-2.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7-81. =박 권섭 역. **약속 그리고 구원**.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5.

Dumbrell, J. *Covenant and Cre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최 우성 역. **언약과 창조**. 서울: 크리스챤 서적, 1990.

Dyrness, W.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9. =김 지찬 역. **주제별로 본 구약 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 1984.

Eichrodt, W.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67. =박 문재 역. **구약 성서 신학 I, II**.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Goldingay, John. *Old Testament Theology. Volume One. Israel's Gospel*. InterVarsity Press, 2003.

Hasel,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Eerdmans, 1995.

=김 정우 역. **구약 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서울: 엠마오, 1993.

Hengstenberg, E. W.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Kregel, 1970.

=원 광연 역. **구약의 기독론**.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7.

Hess, R. S., and G. Wenham, eds. *Zion, City of Our God*. Eerdmans, 1999.

Hess, R. S., and M. Daniel Carroll R., eds. *Israel's Messiah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Baker, 2003.

Hess, Richard S., and M. Daniel Carroll R., eds. *Family in the Bible: Exploring Customs, Culture, and Context.* Baker, 2003.

House, Paul R. *Old Testament Theology*. IVP, 1998.

=장 세훈 역. **구약 성경 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1.

Kaiser, W.C.,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Zondervan, 1978.

=최 종진 역. **구약 성경 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5.

Laurin, R. B., ed. *Contemporary Old Testament Theology*. Judson, 1970.

Leman, C. K. *Biblical Theology*. 2 vols. Scottdale, Pa.: Herald, 1971-2.

=김 인환 역. **성경신학 I, II**.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Longman,T, III and D. G. Reid. *God as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Martens, Elmer. *God's Design*. Grand Rapids: Baker, 1981.

Martens, Elmer A. ed. *Old Testament Theology*. Bibliographies No. 13. Baker, 1997.

McComiskey, T. *The Covenants of Promise*. Grand Rapids: Baker, 1985.

=김 의원 역. **계약 신학과 약속**.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7.

McConville, J. G. *Grace in the End*. Grand Rapids: Zondervan, 1993.

Niehaus, J. J. *God at Sinai*. Grand Rapids: Zondervan, 1995.

Ollenburger, Ben C., Elmer A. Marten, and Gerhard F. Hasel, eds.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Eisenbrauns, 1992.

Payne, J. B.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62.

-----. *A Contemporary Old Testament Studies*. =교회문제 연구소 역. **현대적 구약 연구**. 서울: 엠마오, 1992.

Preuss, H. 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OTL. Westminster/John Knox, 1995-6. Focus on Yahweh.

Robertson, O. P.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1. =김 의원 역.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Sailhammer, John H.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pproach*. Zondervan, 1995.

Satterthwaite, Philip E., Richard S. Hess, and Gordon 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and Paternoster, 1995.

Smith, Ralph L.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Broadman & Holman, 1993.

Van Gemeren, W.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8.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Harper and Row, 1962-65.

=허 혁 역. **구약 성서 신학 I, II, III**. 서울: 분도, 1976-7.

Vos, G.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이 승구 역. **성경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Vriezen, T. C.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Oxford: Basil Blackwell, 1958.

=노 향규 역. **구약 신학 개요**.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5.

Waltke, Bruce K., and Charles Yu. *An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Young, E. J.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Westwood, N. J.: Revell, 1958. =김 정훈 역. **구약 신학 입문**. 서울: 바울, 1994.

Youngblood, R.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차 학순 역. **9 가지 구약 핵심 주제**. 서울: 예루살렘, 1995.

Zimmerli, Walther.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John Knox, 1978.

Zuck, Roy B.,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oody, 1991.

부록

룻기 원문(http://biblehub.com/ruth/1.htm)

Ruth 1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וַיְהִי רָעָב בָּאָרֶץ וַיֵּלֶךְ אִישׁ מִבֵּית לֶחֶם יְהוּדָה לָגוּר בִּשְׂדֵי מוֹאָב הוּא
וְאִשְׁתּוֹ וּשְׁנֵי בָנָיו: 2 וְשֵׁם הָאִישׁ אֱלִימֶלֶךְ וְשֵׁם אִשְׁתּוֹ נָעֳמִי וְשֵׁם שְׁנֵי־בָנָיו מַחְלוֹן וְכִלְיוֹן אֶפְרָתִים
מִבֵּית לֶחֶם יְהוּדָה וַיָּבֹאוּ שְׂדֵי־מוֹאָב וַיִּהְיוּ־שָׁם: 3 וַיָּמָת אֱלִימֶלֶךְ אִישׁ נָעֳמִי וַתִּשָּׁאֵר הִיא וּשְׁנֵי בָנֶיהָ:
4 וַיִּשְׂאוּ לָהֶם נָשִׁים מֹאֲבִיּוֹת שֵׁם הָאַחַת עָרְפָּה וְשֵׁם הַשֵּׁנִית רוּת וַיֵּשְׁבוּ שָׁם כְּעֶשֶׂר שָׁנִים: 5 וַיָּמוּתוּ
גַם־שְׁנֵיהֶם מַחְלוֹן וְכִלְיוֹן וַתִּשָּׁאֵר הָאִשָּׁה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
6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מִשְּׂדֵי מוֹאָב כִּי שָׁמְעָה בִּשְׂדֵה מוֹאָב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 לָתֵת לָהֶם
לָחֶם: 7 וַתֵּצֵא מִן־הַמָּקוֹם אֲשֶׁר הָיְתָה־שָׁמָּה וּשְׁתֵּי כַלֹּתֶיהָ עִמָּהּ וַתֵּלַכְנָה בַדֶּרֶךְ לָשׁוּב אֶל־אֶרֶץ יְהוּדָה:
8 וַתֹּאמֶר נָעֳמִי לִשְׁתֵּי כַלֹּתֶיהָ לֵכְנָה שֹׁבְנָה אִשָּׁה לְבֵית אִמָּהּ [כ= יַעֲשֶׂה] [ק= יַעַשׂ] יְהוָה עִמָּכֶם חֶסֶד
כַּאֲשֶׁר עֲשִׂיתֶם עִם־הַמֵּתִים וְעִמָּדִי: 9 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מְנוּחָה אִשָּׁה בֵּית אִישָׁהּ וַתִּשַּׁק לָהֶן
וַתִּשֶּׂאנָה קוֹלָן וַתִּבְכֶּינָה: 10 וַתֹּאמַרְנָה־לָּהּ כִּי־אִתָּךְ נָשׁוּב לְעַמֵּךְ: 11 וַתֹּאמֶר נָעֳמִי שֹׁבְנָה בְנֹתַי לָמָּה
תֵלַכְנָה עִמִּי הַעוֹד־לִי בָנִים בְּמֵעַי וְהָיוּ לָכֶם לַאֲנָשִׁים: 12 שֹׁבְנָה בְנֹתַי לֵכְן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כִּי
אָמַרְתִּי יֶשׁ־לִי תִקְוָה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וְגַם יָלַדְתִּי בָנִים: 13 הֲלָהֵן תְּשַׂבֵּרְנָה עַד אֲשֶׁר יִגְדָּלוּ
הֲלָהֵן תֵּעָגֵנָה לְבִלְתִּי הֱיוֹת לְאִישׁ אַל בְּנֹתַי כִּי־מַר־לִי מְאֹד מִכֶּם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14 וַתִּשֶּׂנָה קוֹלָן וַתִּבְכֶּינָה עוֹד וַתִּשַּׁק עָרְפָּה לַחֲמוֹתָהּ וְרוּת דָּבְקָה בָּהּ:
15 וַתֹּאמֶר הִנֵּה שָׁבָה יְבִמְתֵּךְ אֶל־עַמָּהּ וְאֶל־אֱלֹהֶיהָ שׁוּבִי אַחֲרֵי יְבִמְתֵּךְ: 16 וַתֹּאמֶר רוּת אַל־תִּפְגְּעִי־בִי
לְעָזְבֵךְ לָשׁוּב מֵאַחֲרָיִךְ כִּי אֶל־אֲשֶׁר תֵּלְכִי אֵלֵךְ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17 בַּאֲשֶׁר
תָּמוּתִי אָמוּת וְשָׁם אֶקָּבֵר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18 וַתֵּרֶא
כִּי־מִתְאַמֶּצֶת הִיא לָלֶכֶת אִתָּהּ וַתֶּחְדַּל לְדַבֵּר אֵלֶיהָ:
19 וַתֵּלַכְנָה שְׁתֵּיהֶם עַד־בֹּאָנָה בֵּית לָחֶם וַיְהִי כְּבֹאָנָה בֵּית לָחֶם וַתֵּהֹם כָּל־הָעִיר עֲלֵיהֶן וַתֹּאמַרְנָה הֲזֹאת
נָעֳמִי: 20 וַתֹּאמֶר אֲלֵיהֶן אַל־תִּקְרֶאנָה לִי נָעֳמִי קְרֶאן לִי מָרָא כִּי־הֵמַר שַׁדַּי לִי מְאֹד: 21 אֲנִי מְלֵאָה
הָלַכְתִּי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 לָמָּה תִקְרֶאנָה לִי נָעֳמִי וַיהוָה עָנָה בִי וְשַׁדַּי הֵרַע* לִי:
22 וַתָּשָׁב נָעֳמִי וְרוּת הַמּוֹאֲבִיָּה כַלָּתָהּ עִמָּהּ הַשָּׁבָה מִשְּׂדֵי מוֹאָב וְהֵמָּה בָּאוּ בֵּית לֶחֶם בִּתְחִלַּת קְצִיר
שְׂעֹרִים:

Ruth 2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לְנָעֳמִי [כ= מְיֻדָּע] [ק= מֹודַע] לְאִישָׁהּ אִישׁ גִּבּוֹר חַיִל מִמִּשְׁפַּחַת אֱלִימֶלֶךְ וּשְׁמוֹ בֹּעַז: 2 וַתֹּאמֶר רוּת
הַמֹּואֲבִיָּה אֶל־נָעֳמִי אֵלְכָה־נָּא הַשָּׂדֶה וַאֲלַקֳּטָה בַשִּׁבֳּלִים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 וַתֹּאמֶר לָהּ לְכִי
בִתִּי: 3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בַּשָּׂדֶה אַחֲרֵי הַקֹּצְרִים וַיִּקֶר מִקְרֶהָ חֶלְקַת הַשָּׂדֶה לְבֹעַז אֲשֶׁר מִמִּשְׁפַּחַת
אֱלִימֶלֶךְ: 4 וְהִנֵּה־בֹעַז בָּא מִבֵּית לֶחֶם וַיֹּאמֶר לַקֹּוצְרִים יְהוָה עִמָּכֶם וַיֹּאמְרוּ לוֹ יְבָרֶכְךָ יְהוָה: 5 וַיֹּאמֶר
בֹּעַז לְנַעֲרוֹ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לְמִי הַנַּעֲרָה הַזֹּאת: 6 וַיַּעַן הַנַּעַר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וַיֹּאמַר נַעֲרָה
מֹואֲבִיָּה הִיא הַשָּׁבָה עִם־נָעֳמִי מִשְּׂדֵה מֹואָב: 7 וַתֹּאמֶר אֲלַקֶּטָה־נָּא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וצְרִים
וַתָּבֹוא וַתַּעֲמֹוד מֵאָז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8 וַיֹּאמֶר בֹּעַז אֶל־רוּת הֲלוֹא שָׁמַעַתְּ בִּתִּי אַל־תֵּלְכִי לִלְקֹט בְּשָׂדֶה אַחֵר וְגַם לֹא תַעֲבוּרִי מִזֶּה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9 עֵינַיִךְ בַּשָּׂדֶה אֲשֶׁר־יִקְצֹרוּן וְהָלַכְתְּ אַחֲרֵיהֶן הֲלוֹא צִוִּיתִי אֶת־הַנְּעָרִים לְבִלְתִּי
נָגְעֵךְ וְצָמֵת וְהָלַכְתְּ אֶל־הַכֵּלִים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 הַנְּעָרִים: 10 וַתִּפֹּל עַל־פָּנֶיהָ וַתִּשְׁתַּחוּ אָרְצָה
וַתֹּאמֶר אֵלָיו מַדּוּעַ מָצָאתִי חֵן בְּעֵינֶיךָ לְהַכִּירֵנִי וְאָנֹכִי נָכְרִיָּה: 11 וַיַּעַן בֹּעַז וַיֹּאמֶר לָהּ הֻגֵּד הֻגַּד לִי כֹּל
אֲשֶׁר־עָשִׂית אֶת־חֲמוֹתֵךְ אַחֲרֵי מוֹת אִישֵׁךְ וַתַּעַזְבִי אָבִיךְ וְאִמֵּךְ וְאֶרֶץ מֹולַדְתֵּךְ וַתֵּלְכִי אֶל־עַם אֲשֶׁר
לֹא־יָדַעַתְּ תְּמוֹל שִׁלְשֹׁום: 12 יְשַׁלֵּם יְהוָה פָּעֳלֵךְ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מֵעִם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אֲשֶׁר־בָּאת לַחֲסֹות תַּחַת־כְּנָפָיו: 13 וַתֹּאמֶר אֶמְצָא־חֵן בְּעֵינֶיךָ אֲדֹנִי כִּי נִחַמְתָּנִי וְכִי דִבַּרְתָּ עַל־לֵב
שִׁפְחָתֶךָ וְאָנֹכִי לֹא אֶהְיֶה כְּאַחַת שִׁפְחֹתֶיךָ:
14 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 גֹּשִׁי הֵלֹם וְאָכַלְתְּ מִן־הַלֶּחֶם וְטָבַלְתְּ פִּתֵּךְ בַּחֹמֶץ וַתֵּשֶׁב מִצַּד הַקֹּוצְרִים
וַיִּצְבָּט־לָהּ קָלִי וַתֹּאכַל וַתִּשְׂבַּע וַתֹּתַר: 15 וַתָּקָם לְלַקֵּט וַיְצַו בֹּעַז אֶת־נְעָרָיו לֵאמֹר גַּם בֵּין הָעֳמָרִים
תְּלַקֵּט וְלֹא תַכְלִימוּהָ: 16 וְגַם שֹׁל־תָּשֹׁלּוּ לָהּ מִן־הַצְּבָתִים וַעֲזַבְתֶּם וְלִקְטָה וְלֹא תִגְעֲרוּ־בָהּ:
17 וַתְּלַקֵּט בַּשָּׂדֶה עַד־הָעָרֶב וַתַּחְבֹּט אֵת אֲשֶׁר־לִקֵּטָה וַיְהִי כְּאֵיפָה שְׂעֹרִים: 18 וַתִּשָּׂא וַתָּבֹוא הָעִיר
וַתֵּרֶא חֲמֹותָהּ אֵת אֲשֶׁר־לִקֵּטָה וַתֹּוצֵא וַתִּתֶּן־לָהּ אֵת אֲשֶׁר־הוֹתִרָה מִשָּׂבְעָהּ: 19 וַתֹּאמֶר לָהּ חֲמֹותָהּ
אֵיפֹה לִקַּטְתְּ הַיֹּום וְאָנָה עָשִׂית יְהִי מַכִּירֵךְ בָּרוּךְ וַתַּגֵּד לַחֲמֹותָהּ אֵת אֲשֶׁר־עָשְׂתָה עִמֹּו וַתֹּאמֶר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 20 וַתֹּאמֶר נָעֳמִי לְכַלָּתָהּ בָּרוּךְ הוּא לַיהוָה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וַתֹּאמֶר לָהּ נָעֳמִי קָרוֹב לָנוּ הָאִישׁ מִגֹּאֲלֵנוּ הוּא: 21 וַתֹּאמֶר רוּת הַמֹּואֲבִיָּה גַּם
כִּי־אָמַר אֵלַי עִם־הַנְּעָרִים אֲשֶׁר־לִי תִּדְבָּקִין עַד אִם־כִּלּוּ אֵת כָּל־הַקָּצִיר אֲשֶׁר־לִי: 22 וַתֹּאמֶר נָעֳמִי
אֶל־רוּת כַּלָּתָהּ טוֹב בִּתִּי כִּי תֵצְאִי עִם־נַעֲרוֹתָיו 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 23 וַתִּדְבַּק בְּנַעֲרוֹת בֹּעַז
לְלַקֵּט עַד־כְּלוֹת קְצִיר־הַשְּׂעֹרִים וּקְצִיר הַחִטִּים וַתֵּשֶׁב אֶת־חֲמֹותָהּ:

Ruth 3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תֹּאמֶר לָהּ נָעֳמִי חֲמוֹתָהּ בִּתִּי הֲלֹא אֲבַקֶּשׁ־לָךְ מָנוֹחַ אֲשֶׁר יִיטַב־לָךְ: 2 וְעַתָּה הֲלֹא בֹעַז מֹדַעְתָּנוּ אֲשֶׁר
הָיִית אֶת־נַעֲרוֹתָיו הִנֵּה־הוּא זֹרֶה אֶת־גֹּרֶן הַשְּׂעֹרִים הַלָּיְלָה: 3 וְרָחַצְתְּ וָסַכְתְּ וְשַׂמְתְּ [כ= שִׂמְלֹתַיִךְ] [ק=
שִׂמְלֹתַיִךְ] עָלַיִךְ [כ= וְיָרַדְתִּי] [ק= וְיָרַדְתְּ] הַגֹּרֶן אַל־תִּוָּדְעִי לָאִישׁ עַד כַּלּוֹתוֹ לֶאֱכֹל וְלִשְׁתּוֹת: 4 וִיהִי
בְשָׁכְבוֹ וָיָדַעַתְּ אֶת־הַמָּקוֹם אֲשֶׁר יִשְׁכַּב־שָׁם וּבָאת וְגִלִּית מַרְגְּלֹתָיו [כ= וְשָׁכָבְתִּי] [ק= וְשָׁכָבְתְּ] וְהוּא
יַגִּיד לָךְ אֵת אֲשֶׁר תַּעֲשִׂין: 5 וַתֹּאמֶר אֵלֶיהָ כֹּל אֲשֶׁר־תֹּאמְרִי [כ= זז] [ק= אֵלַי] אֶעֱשֶׂה:
6 וַתֵּרֶד הַגֹּרֶן וַתַּעַשׂ כְּכֹל אֲשֶׁר־צִוַּתָּה חֲמוֹתָהּ: 7 וַיֹּאכַל בֹּעַז וַיֵּשְׁתְּ וַיִּיטַב לִבּוֹ וַיָּבֹא לִשְׁכַּב בִּקְצֵה
הָעֲרֵמָה וַתָּבֹא בַלָּט וַתְּגַל מַרְגְּלֹתָיו וַתִּשְׁכָּב: 8 וַיְהִי בַּחֲצִי הַלַּיְלָה וַיֶּחֱרַד הָאִישׁ וַיִּלָּפֵת וְהִנֵּה אִשָּׁה שֹׁכֶבֶת
מַרְגְּלֹתָיו: 9 וַיֹּאמֶר מִי־אָת וַתֹּאמֶר אָנֹכִי רוּת אֲמָתֶךָ וּפָרַשְׂתָּ כְנָפֶךָ עַל־אֲמָתְךָ כִּי גֹאֵל אָתָּה: 10 וַיֹּאמֶר
בְּרוּכָה אַתְּ לַיהוָה בִּתִּי הֵיטַבְתְּ חַסְדֵּךְ הָאַחֲרוֹן מִן־הָרִאשׁוֹן לְבִלְתִּי־לֶכֶת אַחֲרֵי הַבַּחוּרִים אִם־דַּל
וְאִם־עָשִׁיר: 11 וְעַתָּה בִּתִּי אַל־תִּירְאִי כֹּל אֲשֶׁר־תֹּאמְרִי אֶעֱשֶׂה־לָּךְ כִּי יוֹדֵעַ כָּל־שַׁעַר עַמִּי כִּי אֵשֶׁת חַיִל
אָתְּ: 12 וְעַתָּה כִּי אָמְנָם כִּי [כ= אם] [ק= זז] גֹאֵל אָנֹכִי וְגַם יֵשׁ גֹּאֵל קָרוֹב מִמֶּנִּי: 13 לִינִי הַלַּיְלָה וְהָיָה
בַבֹּקֶר אִם־יִגְאָלֵךְ טוֹב יִגְאָל וְאִם־לֹא יַחְפֹּץ לְגָאֳלֵךְ וּגְאַלְתִּיךְ אָנֹכִי חַי־יְהוָה שִׁכְבִי עַד־הַבֹּקֶר:
14 וַתִּשְׁכַּב [כ= מַרְגְּלָתוֹ] [ק= מַרְגְּלוֹתָיו*] עַד־הַבֹּקֶר וַתָּקָם [כ= בִּטְרוֹם] [ק= בְּטֶרֶם] יַכִּיר אִישׁ
אֶת־רֵעֵהוּ וַיֹּאמֶר אַל־יִוָּדַע כִּי־בָאָה הָאִשָּׁה הַגֹּרֶן: 15 וַיֹּאמֶר הָבִי הַמִּטְפַּחַת אֲשֶׁר־עָלַיִךְ וְאֶחֲזִי־בָהּ
וַתֹּאחֶז בָּהּ וַיָּמָד שֵׁשׁ־שְׂעֹרִים וַיָּשֶׁת עָלֶיהָ וַיָּבֹא הָעִיר: 16 וַתָּבוֹא אֶל־חֲמוֹתָהּ וַתֹּאמֶר מִי־אַתְּ בִּתִּי
וַתַּגֶּד־לָהּ אֵת כָּל־אֲשֶׁר עָשָׂה־לָּהּ הָאִישׁ: 17 וַתֹּאמֶר שֵׁשׁ־הַשְּׂעֹרִים הָאֵלֶּה נָתַן לִי כִּי אָמַר [כ= זז] [ק=
אֵלַי] אַל־תָּבוֹאִי רֵיקָם אֶל־חֲמוֹתֵךְ: 18 וַתֹּאמֶר שְׁבִי בִתִּי עַד אֲשֶׁר תֵּדְעִין אֵיךְ יִפֹּל דָּבָר כִּי לֹא יִשְׁקֹט
הָאִישׁ כִּי־אִם־כִּלָּה הַדָּבָר הַיּוֹם:

Ruth 4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בֹעַז עָלָה הַשַּׁעַר וַיֵּשֶׁב שָׁם וְהִנֵּה הַגֹּאֵל עֹבֵר אֲשֶׁר דִּבֶּר־בֹּעַז וַיֹּאמֶר סוּרָה שְׁבָה־פֹּה פְּלֹנִי אַלְמֹנִי
וַיָּסַר וַיֵּשֶׁב: 2 וַיִּקַּח עֲשָׂרָה אֲנָשִׁים מִזִּקְנֵי הָעִיר וַיֹּאמֶר שְׁבוּ־פֹה וַיֵּשֵׁבוּ: 3 וַיֹּאמֶר לַגֹּאֵל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 מָכְרָה נָעֳמִי הַשָּׁבָה מִשְּׂדֵה מוֹאָב: 4 וַאֲנִי אָמַרְתִּי אֶגְלֶה אָזְנְךָ לֵאמֹר קְנֵה נֶגֶד
הַיֹּשְׁבִים* וְנֶגֶד זִקְנֵי עַמִּי אִם־תִּגְאַל גְּאָל וְאִם־לֹא יִגְאַל הַגִּידָה לִּי [כ= וְאֵדַע] [ק= וְאֵדְעָה] כִּי אֵין
זוּלָתְךָ לִגְאוֹל וְאָנֹכִי אַחֲרֶיךָ וַיֹּאמֶר אָנֹכִי אֶגְאָל: 5 וַיֹּאמֶר בֹּעַז בְּיוֹם־קְנוֹתְךָ הַשָّדֶה מִיַּד נָעֳמִי וּמֵאֵת רוּת
הַמֹּואֲבִיָּה אֵשֶׁת־הַמֵּת [כ= קָנִיתִי] [ק= קָנִיתָ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6 וַיֹּאמֶר הַגֹּאֵל לֹא אוּכַל
[כ= לִגְאוֹל] [ק= לִגְאָל]־לִי פֶּן־אַשְׁחִית אֶת־נַחֲלָתִי גְּאַל־לְךָ אַתָּה אֶת־גְּאֻלָּתִי כִּי לֹא־אוּכַל לִגְאֹל:
7 וְזֹאת לְפָנִים בְּיִשְׂרָאֵל עַל־הַגְּאוּלָּה וְעַל־הַתְּמוּרָה לְקַיֵּם כָּל־דָּבָר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 וְזֹאת

הַתְּעוּדָה בְּיִשְׂרָאֵל׃ 8 וַיֹּאמֶר הַגֹּאֵל לְבֹעַז קְנֵה־לְךָ וַיִּשְׁלֹף נַעֲלוֹ׃ 9 וַיֹּאמֶר בֹּעַז לַזְּקֵנִים וְכָל־הָעָם עֵדִים
אַתֶּם הַיּוֹם כִּי קָנִיתִי אֶת־כָּל־אֲשֶׁר לֶאֱלִימֶלֶךְ וְאֵת כָּל־אֲשֶׁר לְכִלְיוֹן וּמַחְלוֹן מִיַּד נָעֳמִי׃ 10 וְגַם אֶת־רוּת
הַמֹּאֲבִיָּה אֵשֶׁת מַחְלוֹן קָנִיתִי לִי לְאִשָּׁ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וְלֹא־יִכָּרֵת שֵׁם־הַמֵּת מֵעִם אֶחָיו
וּמִשַּׁעַר מְקוֹמוֹ עֵדִים אַתֶּם הַיּוֹם׃ 11 וַיֹּאמְרוּ כָּל־הָעָם אֲשֶׁר־בַּשַּׁעַר וְהַזְּקֵנִים עֵדִים יִתֵּן יְהוָה
אֶת־הָאִשָּׁה הַבָּאָה אֶל־בֵּיתֶךָ כְּרָחֵל וּכְלֵאָה אֲשֶׁר בָּנוּ שְׁתֵּיהֶם אֶת־בֵּית יִשְׂרָאֵל וַעֲשֵׂה־חַיִל בְּאֶפְרָתָה
וּקְרָא־שֵׁם בְּבֵית לָחֶם׃ 12 וִיהִי בֵיתְךָ כְּבֵית פֶּרֶץ אֲשֶׁר־יָלְדָה תָמָר לִיהוּדָה מִן־הַזֶּרַע אֲשֶׁר יִתֵּן יְהוָה
לְךָ מִן־הַנַּעֲרָה הַזֹּאת׃
13 וַיִּקַּח בֹּעַז אֶת־רוּת וַתְּהִי־לוֹ לְאִשָּׁה וַיָּבֹא אֵלֶיהָ וַיִּתֵּן יְהוָה לָהּ הֵרָיוֹן וַתֵּלֶד בֵּן׃ 14 וַתֹּאמַרְנָה הַנָּשִׁים
אֶל־נָעֳמִי בָּרוּךְ יְהוָה אֲשֶׁר לֹא הִשְׁבִּית לָךְ גֹּאֵל הַיּוֹם וְיִקָּרֵא שְׁמוֹ בְּיִשְׂרָאֵל׃ 15 וְהָיָה לָךְ לְמֵשִׁיב נֶפֶשׁ
וּלְכַלְכֵּל אֶת־שֵׂיבָתֵךְ כִּי כַלָּתֵךְ אֲשֶׁר־אֲהֵבַתֶּךְ יְלָדַתּוּ אֲשֶׁר־הִיא טוֹבָה לָךְ מִשִּׁבְעָה בָנִים׃
16 וַתִּקַּח נָעֳמִי אֶת־הַיֶּלֶד וַתְּשִׁתֵהוּ בְחֵיקָהּ וַתְּהִי־לוֹ לְאֹמֶנֶת׃ 17 וַתִּקְרֶאנָה לוֹ הַשְּׁכֵנוֹת שֵׁם לֵאמֹר
יֶלֶד־בֵּן לְנָעֳמִי וַתִּקְרֶאנָה שְׁמוֹ עוֹבֵד הוּא אֲבִי־יִשַׁי אֲבִי דָוִד׃ ף
18 וְאֵלֶּה תּוֹלְדוֹת פֶּרֶץ פֶּרֶץ הוֹלִיד אֶת־חֶצְרוֹן׃ 19 וְחֶצְרוֹן הוֹלִיד אֶת־רָם וְרָם הוֹלִיד אֶת־עַמִּינָדָב׃
20 וְעַמִּינָדָב הוֹלִיד אֶת־נַחְשׁוֹן וְנַחְשׁוֹן הוֹלִיד אֶת־שַׂלְמָה׃ 21 וְשַׂלְמוֹן הוֹלִיד אֶת־בֹּעַז וּבֹעַז הוֹלִיד
אֶת־עוֹבֵד׃ 22 וְעוֹבֵד הוֹלִיד אֶת־יִשָׁי וְיִשַׁי הוֹלִיד אֶת־דָּוִד׃

룻기 원문 음역

(단어 초두의 요드가 시바를 가질 때 [여]로 음역한 것을 제외하고 단순시바는 모두 무음시바로 간주하였고 자음 카프에 홑점이 없을 때 Buch 의 ch 처럼 [X 흐]로 음역하였음)

1:1 바이히 비메 시포트 하쇼프팀 바이히 라아브 바아레츠
바옐레흐 이시 미베트 레헴 여후다 라구르 비스데 모아브 후 브이시토 우시네 바나브
2 브셈 하이시 엘리멜레흐 브셈 이시토 노오미 브셈 시네-바나브
마흘론 브힐욘 에프라팀 미베트 레헴 여후다 바야보우 스데-모아브 바이흐유-샴
3 바야**모**트 엘리멜레흐 이시 노오미 바티샤에르 히 우시네 바네하
4 바이스우 라헴 나심 모아비요트 셈 하아하트 **오**르파
브셈 하셰니트 루트 바예시부 샴 크에쎄르 샤님
5 바야무투 감-시네헴 마흘론 브힐욘
바티샤에르 하이샤 미시네 열라데하 우메이샤흐
6 바타**콤** 히 브할로테하 바타**쇼**브 미스데 모아브
키 샴아 비스데 모아브 키-파카드 아도나이 에트-아모 라테트 라헴 라헴
7 바테체 민-하마콤 아셰르 하이타-샤마 우시테 할로테하 이마흐
바텔라흐나 바데레흐 라슈브 엘-에레츠 여후다
8 바토메르 노오미 리시테 할로테하 레흐나 쇼브나 이샤 르베트 이마흐
야아스 아도나이 이마헴 헤쎄드 카아셰르 아씨템 임-하메팀 브이마디
9 이텐 아도나이 라헴 움체나 므누하 이샤 베트 이샤흐
바티샤크 라헨 바티쎄나 콜란 바티브케나
10 바토마르나-라흐 키-이타흐 나슈브 르아메흐
11 바토메르 노오미 쇼브나 브노타이 라마 텔라흐나 이미
하오드-리 바님 브메아이 브하유 라헴 라아나심
12 쇼브나 브노타이 레흐나 키 자칸티 미흐요트 르이시
키 아마르티 예시-리 티크바 감 하이티 할라일라 르이시 브감 얄라드티 바님
13 할라헨 트싸베르나 아드 아셰르 이그달루 할라헨 테아게나 르빌티 헤요트 르이시
알 브노타이 키-마르-리 므오드 미켐 키-야츠아 비 야드-아도나이
14 바티쎄나 콜란 바티브케나 오드 바티샤크 **오**르파 라하모타흐 브루트 다브카 바흐
15 바토메르 히네 샤바 여빔테흐 엘-아마흐 브엘-엘로헤하 슈비 아하레 여빔테흐
16 바토메르 루트 알-티프그이-비 르**오**즈베흐 라슈브 메아하라이흐
키 엘-아셰르 텔히 엘레흐 우바아셰르 탈리니 알린 아메흐 아미 벨로하이흐 엘로하이
17 바아셰르 타무티 아무트 브샴 에카베르 코 야아쎄 아도나이 리 브요씨프
키 하마베트 야프리드 베니 우베네흐
18 바테레 키-미트아메체트 히 랄레헤트 이타흐 바테흐달 르다베르 엘레하
19 바텔라흐나 시테헴 아드-보아나 베트 라헴 바이히 크보아나 베트 레헴

바테홈 콜-하이르 알레헨 바토마르나 아조트 노오미
20 바토메르 알레헨 알-티크레나 리 노오미 크레나 리 마라 키 헤마르 샤다이 리 므오드
21 아니 믈레아 할라흐티 브레캄 헤시바니 아도나이
라마 티크레나 리 노오미 바도나이 아나 비 브샤다이 헤라 리
22 바타**쇼**브 노오미 브루트 하모아비야 할라타흐 이마흐 하샤바 미스데 모아브
브헤마 바우 베트 레헴 비트힐라트 크치르 스오림
2:1 울노오미 모다 르이샤흐 이시 기보르 하일 미미시파하트 엘리멜레흐 우시모 보아즈
2 바토메르 루트 하모아비야 엘-노오미 엘하-나 하싸데 바알라코타 바시볼림
아하르 아셰르 엠차-헨 브에나브 바토메르 라흐 르히 비티
3 바텔레흐 바타보 바틀라케트 바싸데 아하레 하코츠림
바이케르 미크레하 헬카트 하싸데 르보아즈 아셰르 미미시파하트 엘리멜레흐
4 브히네-보아즈 바 미베트 레헴 바요메르 라코츠림 아도나이 이마헴
바욤루 로 여바레흐하 아도나이
5 바요메르 보아즈 르나아로 하니차브 알-하코츠림 르미 하나아라 하조트
6 바야안 하나아르 하니차브 알-하코츠림 바요마르
나아라 모아비야 히 하샤바 임-노오미 미스데 모아브
7 바토메르 알라코타-나 브아싸프티 **보**오마림(/바오마림) 아하레 하코츠림
바타보 바타아모드 메아즈 하보케르 브아드-아타 제 시브타흐 하바이트 므아트
8 바요메르 보아즈 엘-루트 할로 샤마아트 비티 알-텔히 릴코트
브싸데 아헤르 브감 로 타아부리 미제 브호 티드바킨 임-나아로타이
9 에나이흐 바싸데 아셰르-이크초룬 브할라흐트 아하레헨
할로 치비티 에트-한아림 르빌티 **노**그에흐
브차미트 브할라흐트 엘-하켈림 브샤티트 메아셰르 이시아분 한아림
10 바티폴 알-파네하 바티시타후 아르차 바토메르 엘라브
마두아 마차티 헨 브에네하 르하키레니 브아노히 **노**흐리야
11 바야안 보아즈 바요메르 라흐 후게드 후가드 리
콜 아셰르-아씨트 에트-하모테흐 아하레 모트 이셰흐
바타아즈비 아비흐 브이메흐 브에레츠 몰라드테흐
바텔히 엘-암 아셰르 로-야다아트 트몰 실숌
12 여샬렘 아도나이 **포**올레흐 우트히 마스쿠르테흐 실레마
메임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아셰르-바트 라하쏘트 타하트-크나파브
13 바토메르 엠차-헨 브에네흐 아도니
키 니함타니 브히 디바르타 알-레브 시프하테하
브아노히 로 에흐예 크아하트 시프호테하
14 바요메르 라 보아즈 르에트 하오헬

고시 할롬 브아할트 민-할레헴 브타발트 피테흐 바호메츠
바테셰브 미차드 하코츠림 바이츠**보**트-라흐 칼리 바토할 바티스바 바토타르
15 바타**콤** 를라케트 바이차브 보아즈 에트-느아라브 레모르
감 벤 하오마림 틀라케트 블로 타흘리무하
16 브감 숄-타숄루 라흐 민-하츠바팀 바아자브템 블리크타 블로 티그아루-바흐
17 바틀라케트 바싸데 아드-하아레브 바타흐보트 에트 아셰르-리케타
바이히 크에파 스오림
18 바티싸 바타보 하이르 바테레 하모타흐 에트 아셰르-리케타
바토체 바티텐-라흐 에트 아셰르-호티라 미싸브아흐
19 바토메르 라흐 하모타흐 에포 리카트트 하욤 브아나 아씨트
여히 마키레흐 바루흐 바타게드 라하모타흐 에트 아셰르-아스타 이모
바토메르 셈 하이시 아셰르 아씨티 이모 하욤 보아즈
20 바토메르 노오미 르할라타흐
바루흐 후 라도나이 아셰르 로-아자브 하스도 에트-하하임 브에트-하메팀
바토메르 라흐 노오미 카로브 라누 하이시 미고알레누 후
21 바토메르 루트 하모아비야 감 키-아마르 엘라이 임-한아림 아셰르-리 티드바킨
아드 임-킬루 에트 콜-하카치르 아셰르-리
22 바토메르 노오미 엘-루트 칼라타흐
토브 비티 키 테츠이 임-나아로타브 블로 이프그우-바흐 브싸데 아헤르
23 바티드바크 브나아로트 보아즈 를라케트
아드-클로트 크치르-하스오림 우크치르 하히팀 바테셰브 에트-하모타흐
3:1 바토메르 라흐 노오미 하모타흐 비티 할로 아바케시-라흐 마노아흐 아셰르 이타브-라흐
2 브아타 할로 보아즈 모다(으)타누 아셰르 하이트 에트-나아로타브
히네-후 조레 에트-고렌 하스오림 할라일라
3 브라하츠트 바싸흐트 브쌈트 씸로타이흐 알라이흐 브야라드트 하고렌
알-티바드이 라이시 아드 칼로토 레에홀 블리시토트
4 비히 브**쇼**흐보 브야다아트 에트-하마콤 아셰르 이시카브-샴
우바트 브길리트 마르글로타브 브샤하브트 브후 야기드 라흐 에트 아셰르 타아씬
5 바토메르 엘레하 콜 아셰르-톰리 <엘라이> 에에쎄
6 바테레드 하고렌 바타아스 크홀 아셰르-치바타 하모타흐
7 바요할 보아즈 바예시트 바이타브 리보 바야보 리시카브 비크체 하아레마
바타보 발라트 바트갈 마르글로타브 바티스카브
8 바이히 바하치 할라일라 바예헤라드 하이시 바일라페트
브히네 이샤 쇼헤베트 마르글로타브
9 바요메르 미-아트 바토메르 아노히 루트 아마테하

우파라스타 흐나페하 알-아마트하 키 고엘 아타
10 바요메르 브루하 아트 라도나이 비티 헤타브트 하스데흐 하아하론 민-하리숀
르빌티-레헤트 아하레 하바후림 임-달 브임-아시르
11 브아타 비티 알-티르이 콜 아셰르-톰리 에에쎄-라흐
키 요데아 콜-샤아르 아미 키 에셰트 하일 아트
12 브아타 키 **옴**남 키 <<임>> 고엘 아노히 브감 예시 고엘 카로브 미메니
13 리니 할라일라 브하야 바보케르 임-이그알레흐 토브 이그알
브임-로 야흐포츠 르**고**올레흐 우그알티흐 아노히 하이-아도나이 시흐비 아드-하보케르
14 바티시카브 마르글로타브 아드-하보케르 바타**콤** 브테렘 야키르 이시 에트-레에후
바요메르 알-이바다 키-바아 하이샤 하고렌
15 바요메르 하비 하미트파하트 아셰르-알라이흐 브에호지-바흐 바토헤즈 바흐
바야**모**드 셰시-스오림 바야셰트 알레하 바야보 하이르
16 바타보 엘-하모타흐 바토메르 미-아트 비티
바타게드-라흐 에트 콜-아셰르 아싸-라흐 하이시
17 바토메르 셰시-하스오림 하엘레 나탄 리
키 아마르 <엘라이> 알-타보이 레캄 엘-하모테흐
18 바토메르 시비 비티 아드 아셰르 테드인 에흐 이폴 다바르
키 로 이시코트 하이시 키-임-킬라 하다바르 하욤
4:1 우보아즈 알라 하샤아르 바예셰브 샴 브히네 하고엘 오베르 아셰르 디베르-보아즈
바요메르 쑤라 시바-포 플로니 알모니 바야싸르 바예셰브
2 바이카흐 아싸라 아나심 미지크네 하이르 바요메르 시부-포 바예셰부
3 바요메르 라고엘
헬카트 하싸데 아셰르 르아히누 레엘리멜레흐 마흐라 노오미 하샤바 미스데 모아브
4 바아니 아마르티 에글레 **오**즈느하 레모르 크네 네게드 하요시빔 브네게드 지크네 아미
임-티그알 그알 브임-로 이그알 하기다 리 브에드아
키 엔 줄라트하 리그올 브아노히 아하레하 바요메르 아노히 에그알
5 바요메르 보아즈 브욤-크노트하 하싸데 미야드 노오미
우메에트 루트 하모아비야 에셰트-하메트 카니타 르하킴 셈-하메트 알-나할라토
6 바요메르 하고엘 로 우할 리그**올**-리 펜-아시히트 에트-나할라티
그알-르하 아타 에트-그울라티 키 로-우할 리그올
7 브조트 르파님 브이스라엘 알-하그울라 브알-하트무라 르카옘
콜-다바르 샬라프 이시 나알로 브나탄 르레에후 브조트 하트우다 브이스라엘
8 바요메르 하고엘 르보아즈 크네-라흐 바이실로프 나알로
9 바요메르 보아즈 라즈케님 브홀-하암 에딤 아템 하욤
키 카니티 에트-콜 아셰르 레올리멜레흐 브에트 콜-아셰르 르힐욘 우마흘론

미야드 노오미
10 브감 에트-루트 하모아비야 에셰트 마흘론 카니티 리 르이샤
르하킴 셈-하메트 알-나할라토 블로-이카레트 셈-하메트
메임 에하브 우미샤아르 므코모 에딤 아템 하욤
11 바욤루 콜-하암 아셰르-바샤아르 브하즈케님 에딤
이텐 아도나이 에트-하이샤 하바아 엘-베테하
크라헬 우흘레아 아셰르 바누 시티헴 에트-베트 이스라엘
바아쎄-하일 브에프라타 우크라-셈 브베트 라헴
12 비히 베트하 크베트 페레츠 아셰르-얄다 타마르 리후다
민-하제라 아셰르 이텐 아도나이 르하 민-하나아라 하조트
13 바이카흐 보아즈 에트-루트 바트히-로 르이샤 바야보 엘레하
바이텐 아도나이 라흐 헤라욘 바텔레드 벤
14 바토마르나 하나심 엘-노오미 바루흐 아도나이 아셰르 로 히시비트 라흐 고엘 하욤
브이카레 시모 브이스라엘
15 브하야 라흐 르메시브 네페시 울할켈 에트-쎄바테흐
키 할라테흐 아셰르-아헤바테흐 열라다투 아셰르-히 토바 라흐 미시브아 바님
16 바티카흐 노오미 에트-하옐레드 바트시테후 브헤카흐 바트히-로 르오메네트
17 바티크레나 로 하시헤노트 셈 레모르 율라드-벤 르노오미
바티크레나 시모 오베드 후 아비-이샤이 아비 다비드
18 브엘레 톨도트 파레츠 페레츠 홀리드 에트-헤츠론
19 브헤츠론 홀리드 에트-람 브람 홀리드 에트-아미나다브
20 브아미나다브 홀리드 에트-나흐숀 브나흐숀 홀리드 에트-쌀마
21 브쌀몬 홀리드 에트-보아즈 우보아즈 홀리드 에트-오베드
22 브오베드 홀리드 에트-이샤이 브이샤이 홀리드 에트-다비드

룻기 원문 번역

룻 1:1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갔다.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며,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 **3**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고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되었다. **4**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십 년쯤 살았다. **5** 그러다가 말론과 기룐 그 둘마저 죽으니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다]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6** [그러던 어느 날] 그녀[=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7** 그녀가 머물던 곳을 떠날 때 (그녀의) 두 며느리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 [셋]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 **8**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어서, 너희들은 각각 [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미가 [작별을 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엉엉 울면서 **10** 나오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우리가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11**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몸 안에 아들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12**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가거라. 그것은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설령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 **13** 그들을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나의 딸들아.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14** 그들은 [얼마동안] 계속 엉엉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며] 입맞추었지만 룻은 [오히려 더] 그녀[=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 **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16** 그 때 룻이 대답하였다. "저더러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7**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죽음만이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18** 그러자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9** 이에 그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길을 행하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의 여인네들]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하였고 (그 여자들이)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즐거움]라고 부르지들 말고 마라[괴로움]라고 불러 주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 **22**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룻 2:1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덕망있는 사람[=유지(有志)]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2**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밭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누구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내 딸아." **3**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웠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였다. **4** 그 시점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그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라고 인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5**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6**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7** 그녀가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머물[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8** 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부터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도 말며 바로 여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 **9** 그들(=나의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고 그들(=여자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기를 바라오. 내가 지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10** 그러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11**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 곧 당신이 (당신의)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들렸소. **12**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라오." **13** 룻이 대답하였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14** [점심] 먹으려는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당신의)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그래서 그녀는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고 그녀는 실컷 먹고도 [그것을] 남길 수 있었다. **15** 룻이 [식사를 끝내고] 이삭을 줍기 위해 일어서 자리를 뜬 후에 보아스가 (그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곡식단 사이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게. **16** 더 나아가 그녀를 위해 자네들이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두어서 그녀가 줍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게." **17** 룻이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고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정확히] 한 에바나 되었다. **18** 룻이 [그것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주운 것을 보았다. 룻은 자기가 실컷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다. **19**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보살펴준 분이 복받기를 바란다." 그러자 그녀는[=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일하도록 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20** 그 때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다." **21** 그러자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분이 저에게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 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말이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22**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나가[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23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에게 바싹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웠다. 그 후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룻 3:1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2** 그런데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3**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4**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두라. 그리고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 있거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5** 그러자 룻은 (그녀에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6** 그러고서 그녀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하였다.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을 때 룻은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다. **8**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9** 그래서 그는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었다. 그 때 그녀가 대답하였다. "저는 룻, 어르신의 시녀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어르신이 기업 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 **10** 그가 말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라오. 당신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당신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11** 그러니 내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오.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 그것은 온 성읍 나의 백성이 당신이 덕망있는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12** 그런데 내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한 분 있소. **13**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시오. 아침에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겠다면, 좋소, 그로 무르게 합시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14** 그래서 그녀는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15** 그가 [그녀/룻에게] "걸치고 있는 숄을 내밀고 잡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펴서] 잡았다. 그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녀에게 이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16**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17**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그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기까지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때 보아스가 "아무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와서 앉았다. **2** 그리고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중 열 명을 불러 모은 뒤 "여기 좀 앉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앉았다. **3** 그 때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내놓았소. **4**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취하시오. 당신이 무르고 싶으면 무르시오. 그러나 당신이 무르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시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곤 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 그러자 그는 "내가 무르고 싶소."라고 대답했다. **5** 보아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그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날에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이 취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할 것이오." **6** 그러자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친히 무를 수 없겠소. 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시오.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 **7** 옛적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런 일 즉)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확정하는 관례이었다. **8** 그래서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라고 말하며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9**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제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나오미로부터 취했습니다. **10**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저의 아내로 취할 권한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11** 그 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12**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당신에게 자손을 주셔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13**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14**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 이제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요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며느리, [아니] (당신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16** 그 때 나오미가 그 자식을 취하여 (그녀의) 품에 안았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17**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었다. **18**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히브리어 음역 유의사항

1) 단어 초두의 요드(י)가 단순시바를 가질 때만 단순시바를 [어]로 발음하기로 하고(①②) 나머지 모든 경우에 단순시바는 무음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단어 중간에 시바를 가진 요드(י)는 앞의 모음과 이중모음을 이루는 것처럼 [이]로 발음한다(③④).

   ① יְהוּדָה [여후-다]　　② יְדַבֵּר [여다-베르]

   ③ מִצְרַיִם [미츠-라이-마]　　④ וַיְדַבֵּר [바이-다-베르]

2) 요드(י)가 모음 아를 가질 때 [야], 모음 에를 가질 때 [예], 모음 이를 가질 때 [이], 모음 우를 가질 때 [유], 모음 오를 가질 때 [요]로 음역한다(①-⑤).

   ①יַעֲקֹב [야-아코브]　② יֵהוּא [예-후]　③ יִשְׂרָאֵל [이스-라-엘]

   ④ יוּבָל [유-발]　⑤ יוֹסֵף [요-쎄프]

3) 요드(י)는 I 급의 모음 i 나 e 의 뒤에 올 때 순장모음(이ִי ; 에 ֶי/ ֵי)을 이루지만 A 급과 U 급 모음 뒤에 오면 이중모음(아이 ָי/ ַי ; 오이 וֹי; 우이 ּוי)으로 발음한다. 복수명사에 붙는 3 인칭 남성 단수 어미 ָיו는 요드가 묵음이 되어 [아이브]가 아니라 [아브]로 발음한다.

   ① בְּנִי [브니]　בְּנֵי [브네]　בָּנֶיהָ [바-네-하] (순장모음)

   ② בָּנַי [바-나이]　אֲדֹנָי [아도-나이]　גּוֹי [고이]　בָּנוּי [바-누이] (이중모음)

   ③ אֶחָיו [에-하브]

4) 단어 끝에 오는 헤(ה)는 활점을 가질 때 자음 음가(ח)를 갖는다(①). 그러나 활점이 없는 단어 끝의 헤(ה)는 선행 모음이 무엇이든 발음하지 않는다(②-⑨).

   ① לָהּ [라흐]　② לָמָה [라-마]　③ אַתָּה [아-타]

   ④ מֹשֶׁה [모-셰]　⑤ זֶה [제]　⑥ גִּלֶּה [글레]

   ⑦ בֹּנֶה [보-네]　⑧ פַּרְעֹה [파르-오]　⑨ מֹשֶׁל [실로-모]

5) 신(שׂ)이 모음 아를 가질 때 [샤], 모음 에를 가질 때 [셰], 모음 이를 가질 때 [시], 모음 우를 가질 때 [슈], 모음 오를 가질 때 [쇼]로 음역한다(①-⑤). 신(שׂ)이 모음을 갖고 있지 않거나 모음 없다는 표시의 단순시바를 가질 때 (모음 이를 가진 것처럼) [시]로 음역한다(⑥-⑧).

   ① שָׂם [샴]　② שֵׂם [셈]　③ שִׁיר [시르]

   ④ שׂוּב [슈브]　⑤ שׂוֹר [쇼르]　⑥ שְׁכֶם [시헴]

   ⑦ שֵׂשׂ [셰시]　⑧ יִשְׂמָעֵאל [이시-마-엘]

6) 씬(שׂ)과 싸멕(ס)은 영어의 s 처럼 모음을 가지면 쌍시옷처럼 "ㅆ" 음가를 갖고 모음이 없다는 표시의 단순시바를 가지면 "스"로 음역한다.

   ① שָׂרָה [싸-라] "사라"　② אָסָא [아-싸] "아사"

   ③ יִשְׂרָאֵל [이스-라-엘] "이스라엘"　④ אֶסְתֵּר [에스-테르] "에스더"

7) 라멧(ל)과 멤(מ)과 눈(נ)은 모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종성의 받침으로 음역하고 나머지 자음의 경우 모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편의상 "ㅡ"를 넣어 음역한다. 단어 중간에 모음이 없는 자음 둘이 단순시바를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자음은 앞 음절과 함께 음절을 이루고 두 번째 자음은 뒷 음절과

음절을 이루므로 두 번째 자음으로 단순시바를 가진 라멧과 멤과 눈은 단순시바를 가진 첫 번째 자음의 종성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① בָּ/בֵל [바-벨] (x 바베르) "바벨론"
② בִּל/עָם [빌-암] (x 비르암, 빌르암) "발람"
③ לָ/בָן [라-반] (x 라바느) "라반"
④ אַב/נֵר [아브-네르] (x 아브넬) "아브넬"
⑤ גָּד [가드] (x 갇) "갓"
⑥ רְחַב/עָם [르하브-암] (x 르합암) "르호보암"
⑦ אַח/אָב [아흐아브] (x 아흐압) "아합"
⑧ יַ/עֲקֹב [야-아코브] (x 야아콥) "야곱"
⑨ יִר/מְיָה [이르-므야] (x 이름야) "예레미야"
⑩ יִשְׁ/מְעֵא/לִי [이시-므엘-리] "이스마엘 사람"

8) 라멧(ל)과 레시(ר)의 차이는 영어의 L 과 R 의 차이와 똑같다.

① bereave 가 [비리브]로 음역되는 것과 달리 believe 가 [빌리브]로 음역되는 것처럼 라멧(ל)이 선행모음도 있고 또 자신의 모음도 있을 때 자신의 모음과 함께 음절을 이루지만 발음에 있어서는 마치 선행모음의 종성도 되고 자신의 모음의 초성이 되는 것처럼 "ㄹㄹ"로 음역해야 한다.

- עֲמָ/לֵק [아말-레크] (x 아마레크) "아말렉"
- אֱלִי/שָׁה [엘리-샤] (x 에리샤) "엘리샤"
- יִשְׁ/מְעֵא/לִי [이시-므엘-리] (x 이시므에리) "이스마엘 사람"

② free 가 [프리]로 음역되는 것과 달리 flee 가 [플리]로 음역되는 것처럼 라멧(ל) 앞에 단순시바를 가진 자음이 있고 라멧 자신이 모음을 갖고 있을 때에도 "ㄹㄹ"로 음역해야 한다.

- שְׁל/מֹה [실로-모] (x 시로모) "솔로몬"
- פְּלֶ/שֶׁת [플레-셰트] (x 프레셰트) "블레셋"

③ 그러나 라멧이 모음을 갖지 않고 종성으로 끝날 때는 받침 "ㄹ"로 한번만 음역해야 한다.

- בִּל/עָם [빌-암] (x 빌르암) "발람"
- גִּל/עָד [길-아드] (x 길르아드) "길르앗"
- אֶל/עָ/זָר [엘-아-자르] (x 엘르아자르) "엘르아살"

④ 음절을 시작하는 단순시바를 가진 라멧은 [르]라고 한번만 음역해야 한다.

- לְבָ/נוֹן [르바-논] "레바논"

9) 점있는 카프가 'ㅋ"으로 음역되는 것과 달리 점없는 카프는 헤트처럼 "ㅎ"으로 음역하고 발음은 다르지만 모음을 갖고 있는 헤도 "ㅎ"으로 음역한다.

① כֹּל [콜]
② כֹּל [홀]
③ חַ/גַּי [하-가이]
④ הָ/לַךְ [할-라흐]

히브리어 알파벳과 모음

1)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

영어 자역(→)	발음	명칭 (의미)	정방형 문자 (←)
’	ø	알렙 (ox 소)	א
b v (ḇ , bh)	[b] [v]	베트 (house 집)	בּ ב
g / (ḡ, gh)	[g]	기멜 (stick 지팡이)	ג / גּ
d / (ḏ, dh)	[d]	달렛 (door 문)	ד / דּ
h	[h]	헤 (lo! 보라)	ה
v (w)	[v]	바브 (와우, peg 말뚝)	ו
z	[z]	자인 (weapon 무기)	ז
ḥ	[x]	헤트 (fence, barrier 담)	ח
ṭ	[t]	테트 (winding(?) 감은 것)	ט
y	[j]	요드 (arm 팔)	י
k ḵ (kh)	[k] [x]	카프 (palm 손바닥)	כּ ך כ ך
l	[l]	라멧 (goad 막대기)	ל
m	[m]	멤 (water 물)	מ ם
n	[n]	눈 (snake 뱀)	נ ן
s	[s]	싸멕 (fish 물고기)	ס
ʿ	ø	아인 (eye 눈)	ע
p f (p̄, ph)	[p] [f]	페 (mouth 입)	פּ פ ף
ṣ (ts)	[ts]	차데 (cricket 귀뚜라미)	צ ץ
q (ḳ)	[k]	코프 (monkey 원숭이)	ק
r	[r]	레시 (head 머리)	ר
ś	[s]	씬 (tooth 이)	שׂ
š (sh)	[ʃ]	신	שׁ
t / (ṯ, th)	[t]	타브 (타우, cross sign 십자가)	ת / תּ

2) 맛소라 모음부호 (Tiberian Vowel Signs)

<table>
<tr><th rowspan="2">급</th><th colspan="3">온모음</th><th colspan="2">반(半)모음 (시바)</th></tr>
<tr><th>단(短)</th><th>순장(純長)</th><th>억양장(抑揚長)</th><th>합성(合成)</th><th>단순(單純)</th></tr>
<tr><td>A</td><td>아 ַ
파타흐</td><td>아 ָה
카마츠 헤</td><td>아 ָ
카마츠</td><td>아 ֲ
하탑파타흐</td><td rowspan="5">Φ ְ
[*어/에]
시바</td></tr>
<tr><td rowspan="2">I</td><td>에 ֶ
세골</td><td>에 ֵי/ ֶי
체레/세골 요드</td><td rowspan="2">에 ֵ
체레</td><td rowspan="2">에 ֱ
하탑세골</td></tr>
<tr><td>이 ִ
히릭</td><td>이 ִי
히릭 요드</td></tr>
<tr><td rowspan="2">U</td><td>오 ֹ
코모츠</td><td>오 וֹ-
홀람 바브</td><td rowspan="2">오 ◌ֹ
홀람</td><td rowspan="2">오 ֳ
하탑코모츠</td></tr>
<tr><td>우 ֻ
쿠부츠</td><td>우 וּ-
슈룩</td></tr>
<tr><td colspan="6">*** 위의 ㅇ나 -는 자음의 위치를 표시한다</td></tr>
</table>

히브리어 문법을 위한 노래들

1) 히브리어 알파벳: 달맞이 (윤 석중 작사, 홍 난파 작곡)

아	-	가	야	나	오	너	라	달	맞	이	가	자	앵	두	따	다	실	에	꿰	어
알	**렙**	**베**	**트**	**기**	**멜**	**달**	**렛**	**헤**	**바**	**브**	**자**	**인**	**헤**	**트**	**테**	**트**	**요**	**드**	**카**	**프**
א		ב		ג		ד		ה	ו		ז		ח		ט		י		כ	

목	에	다	-	걸	-	고	검	-	둥	개	야	너	도	가	자	냇	가	로	가	자
라	**멧**	**멤**	**눈**	**싸**	-	**멕**	**아**	**인**	**페**	**차**	**데**	**코**	**프**	**레**	**시**	**씬**	**신**	**타**	-	**브**
ל		מ	נ	ס		ע		פ	צ		ק		ר		שׂ	שׁ	ת			

2) 모음부호 이름: 어린 음악대 (김 성도 작사 작곡)

따따따	따따따	주먹 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붑니다
단(短)모음	**파타흐(ָ)**	**세골(ְ) 히-릭(ִ)**	**쿠부츠(ֻ)**	**코모츠(ֹ)**	**아 에이 우오**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	동내 안에	제일 가지요
변화(變化)하는	**억양 장(抑揚長)모음**	**카마츠(ָ) 체레(ֶ)**	**홀람(ֹ) 아에오**

쿵짝짝	쿵짝짝	둥근 차돌로	쿵 짝짝	쿵 짝짝	북을 칩니다
무변화 (無變化)	**순 장모음 (純 長)**	**카마츠 헤(ָה)와**	**체-레요드(ֶי)**	**세-골요드(ְי)**	**히릭 요드(ִי)와**

구경꾼은	모여 드 는데	어른들은	하나 없지요
홀람바브(וֹ)	**슈룩(וּ)은 모두**	**모음문자(母音文字)**	**갖고 있지요**

따따따	따따따	주먹 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붑니다
자음밑	**무(無)모음**	**단순 시바(ְ)로**	**후음(喉音) 밑**	**반(半)모음**	합성 시바**로**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	동내 안에	제일 가지요
단+시=합성(合成)	**하탑 파타흐(ַ)**	**하탑 세골(ֲ)**	**하탑 코모츠(ָ)**

- 코모츠는 이름에 모음 **오**를 넣어 카마츠가 *아*가 아니라 **오**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이름이다. 코모츠는 보통 카마츠 카탄, 카마츠 하툽, 카메츠 하툽, 오 카마츠라고 부른다.
- 하탑 코모츠도 **오**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이름이다. 하탑 코모츠는 보통 하탑 카마츠, 하텝 카메츠라고 부른다.
- **단+시=합성**은 단모음과 단순시바가 결합되어 합성시바가 되는 것을 간단히 줄여 표현한 것이다.

3) 모음부호 발음 연습: 학교종 (이 일래 작사 작곡)

학	교	종	이	땡		땡	땡	어	서	모	이	자
아	**하**	**하**	**아**	**노**		**아**	**흐**	**체**	**테**	**셰**	**테**	**헤**
אַ	הָ	הָ	עָה	נֹ		־	הִ	צֶ	טֶ	שֵׁי	תֶי	הֶ
(←)אַהֲהָעָה (후음문자)				(←)נֹחַ (선입 파타흐)				(←)צֶטֶשֵׁיתֶיהֶ (치환, 치찰음)				
선	생	님	이	우		리	를	기	다	리	신	다
미	**피**	**쿠**	**무**	**로**	**홀**	**노**	**오**	**미**	**헤**	**에**	**만**	**티**	**브**
מִ	פִּי	קֻ	מוּ	לוֹ	כֹל	נָ	עָ	מִי	הֶ	אֶ	מַן	תִי	וְ
(←)מִפִּי קֻמוּ (눈의 동화, 완전철자법)				(←) לוֹ כֹל (대, 점 x [x],)		(←)נָעָמִי (코모츠)		(←)הֶאֱמַנְתִּיו (약자음/어형 형성 자음)				

- 이 노래의 가사 암기를 위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아하하아** 우습다. 빈대떡 신사. **Noah** 처럼 수치스럽게. **체**력감**퇴**는 **쇠퇴해**서 일어난 현상.
- **[미피]** 내 입으로 말하노니 **[쿠무]** 일어나라! **[로]** 그분에게 속한 **[홀]** 모든 홀로 되어 버린 **노오미**들이여. [**헤에만티브**] 나는 그분을 믿었다. 나처럼 그 분을 믿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노오미의 즐거움이 계속 되리라!

4) 명사에 붙는 접미대명사: 탄일종 (함 처식 작사, 장 수철 작곡)

탄	일	종이	땡	땡	땡	은	은	하게	들린	다
(단)	**오**	**아흐**	**으*하***	**에*흐***	**이**	**암**	**안**	**으*헴***	**으*헨***	**에누**
s	0	1	2	3	4	5	6	7	8	9
—	his	her	your	your	my	their	their	your	your	our
—	וֹ	הָ	ךָ	ךְ	ִי	ָם	ָן	כֶם	כֶן	נוּ
저	깊고	깊은	산골	오 막	살이	에도	탄일	종이	울린	다
(복)	**아브**	**에하**	**에*하***	**아이*흐***	**아이**	**에헴**	**에헨**	**에*헴***	**에*헨***	**에누**
s	0	1	2	3	4	5	6	7	8	9
—	his	her	your	your	my	their	their	your	your	our
—	יו	יהָ	יךָ	יךְ	ַי	יהֶם	יהֶן	יכֶם	יכֶן	ינוּ

- 접미대명사는 두 종류 즉 단수 명사에 붙는 것과 복수 명사에 붙는 것이 있다.
- 노래에 붙인 접미대명사 음역들 앞에 나오는 (단)은 단수명사에 붙는 것이고 (복)은 복수명사에 붙는 것을 나타낸다. 이탤릭체로 된 ּ(히웅)은 홑점이 없는카프를 음역한 것이다.
- s 는 pronominal suffix(접미대명사)의 약자이다.
- 아라비아 숫자 0-9 와 영어의 대명사를 맞추어 보면 0-9 가 대명사의 인칭과 성과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별을 위해 붙여 쓴 your 는 단수를 나타내고 띄어 쓴 y o u r 는 복수를 나타낸다.

5) 라솔 분해코드 I: 바둑이 방울 (김 규환 작사 작곡)

①동사 7 어간 (영어 대문자)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동사	**어간 (語幹)**	**이름**	**파알 Paˁal(Qal)**	**니프알 Nifˁal**	**피엘 Piˁel**	**푸--알 Puˁal**	**힛파엘 Hitpaˁel**	**히프일 Hifˁil**	**호프알 Hofˁal**

학교 길에	마 중	나 와서	반 갑 다고	꼬리치며	따라온다
영어 약자 (英語 略字)	**B N (비엔)**	**D Dp (디 디피)**	**HtD (에이치티디)**	**H 와 (에이치)와**	**Hp (에이치피)**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바둑 이	방울	잘도	울린다
기본	**능동**	**재귀**	**작위**	**능-수**	**재귀**	**사역 능-**	**수동**	**모두**	**7 어간**

②6 요형 (십의 자리수)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완*료** (pf)	***미*완료** (impf)	***명*령** (imp)	***희*구** (vol)	***분*사** (ptc)	***부*정사** (inf)	**정형넷**	**10 완료**	**20**	**미완료**

학교	길에	마중	나와서	반갑다고	꼬리치며	따라온다
30	**명령**	**40**	**희구법**	**준 동 사 둘**	**50 분사**	**60 부정사**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완* 1**	***미* 2**	***명* 3**	***희* 4**	***분* 5**	***부* 6**	**십단위**	**1-6 은**	**동사**	**6 요형**

Pf=perfect, impf=imperfect, imp=imperative, vol=volitive, ptc=participle, inf=infinitive

정형동사 = 정동사 = finite verb; 준동사 = verbal

③인칭 성 수 (일의 자리수)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인칭	**성수**	**PGN**	**단수**	**0-1**	**그-그녀**	**2-3 은**	**너-너**	**4 는**	**죽을 나**

대문	삐걱	열어	주면은	제가 먼저	달음질쳐	따라온다
복수	**5-6**	**그들**	**그녀들**	**7-8 너희**	**너희여자**	**9 는 우리**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일의	**자리**	**0-9 는**	**접미**	**대명**	**사와**	**정동사**	**주어의**	**PGN**	**인(칭)성수**

PGN = Person(인칭), Gender(성), Number(수)

6) 라솔 분해코드 II: 내 동생 (주 운파 작사, 최 종혁 작곡)

④ 동사 7 어간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7 stem	**B N D Dp**	**HtD**	**H Hp**	**기본엔**	**능동재귀**	**파알과 Pa'al(Qal)**	**니프알 Nif'al**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작위엔	**능동 수동**	**재귀태**	**이 셋은**	**피엘 푸알 Pi'el Pu'al**	**힛파엘 Hitpa'el**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몰라
시키는	**사역 에는**	**능-수동**	**히프 일 Hif'il**	**호-프알 Hof'al**	**모두 일곱 어간**

⑤ 6 요형(십의 자리수)과 인칭 성 수(일의 자리수)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6 요형	**10 은 완료**	**20 미완료**	**30 명령**	**40 희구**	**50 분사**	**60 은**	**부정사**

잘 먹고	건강하게	꿀돼지	착하고	복스럽게	두꺼비
일 단위	**0 에서 9**	**0 은 그**	**1 그녀**	**23 너너**	**4 는 나**
용감하고	슬기롭게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몰라
5 는 그들	**6 그녀들**	**7- 너희**	**8 - 은**	**너희여자**	**9 는 우-리-들**

룻기_원문_개역개정_번역 대조

서막 (룻 1:1-5)

Ruth 1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וַיְהִי רָעָב בָּאָרֶץ וַיֵּלֶךְ אִישׁ מִבֵּית לֶחֶם יְהוּדָה לָגוּר בִּשְׂדֵי מוֹאָב הוּא
וְאִשְׁתּוֹ וּשְׁנֵי בָנָיו׃ 2 וְשֵׁם הָאִישׁ אֱלִימֶלֶךְ וְשֵׁם אִשְׁתּוֹ נָעֳמִי וְשֵׁם שְׁנֵי־בָנָיו מַחְלוֹן וְכִלְיוֹן אֶפְרָתִים
מִבֵּית לֶחֶם יְהוּדָה וַיָּבֹאוּ שְׂדֵי־מוֹאָב וַיִּהְיוּ־שָׁם׃ 3 וַיָּמָת אֱלִימֶלֶךְ אִישׁ נָעֳמִי וַתִּשָּׁאֵר הִיא וּשְׁנֵי בָנֶיהָ׃
4 וַיִּשְׂאוּ לָהֶם נָשִׁים מֹאֲבִיּוֹת שֵׁם הָאַחַת עָרְפָּה וְשֵׁם הַשֵּׁנִית רוּת וַיֵּשְׁבוּ שָׁם כְּעֶשֶׂר שָׁנִים׃ 5 וַיָּמוּתוּ
גַם־שְׁנֵיהֶם מַחְלוֹן וְכִלְיוֹן וַתִּשָּׁאֵר הָאִשָּׁה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

개역개정	번역
1: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1: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1:5** 말론과 기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 1:1**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갔다. **1: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며,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 **1:3**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고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되었다. **1:4**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십 년쯤 살았다. **1:5** 그러다가 말론과 기룐 **그 둘마저** 죽으니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자식**과 (그녀의) 남편을 [다]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1 막 1 장 (룻 1:6-18)

Ruth 1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6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מִשְּׂדֵי מוֹאָב כִּי שָׁמְעָה בִשְׂדֵה מוֹאָב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 לָתֵת לָהֶם
לָחֶם׃ 7 וַתֵּצֵא מִן־הַמָּקוֹם אֲשֶׁר הָיְתָה־שָּׁמָּה וּשְׁתֵּי כַלֹּתֶיהָ עִמָּהּ וַתֵּלַכְנָה בַדֶּרֶךְ לָשׁוּב אֶל־אֶרֶץ יְהוּדָה׃
8 וַתֹּאמֶר נָעֳמִי לִשְׁתֵּי כַלֹּתֶיהָ לֵכְנָה שֹּׁבְנָה אִשָּׁה לְבֵית אִמָּהּ [כ= יַעֲשֶׂה] [ק= יַעַשׂ] יְהוָה עִמָּכֶם חֶסֶד
כַּאֲשֶׁר עֲשִׂיתֶם עִם־הַמֵּתִים וְעִמָּדִי׃ 9 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מְנוּחָה אִשָּׁה בֵּית אִישָׁהּ וַתִּשַּׁק לָהֶן

וַתִּשֶּׂאנָה קוֹלָן וַתִּבְכֶּינָה׃ 10 וַתֹּאמַרְנָה־לָּהּ כִּי־אִתְּךְ נָשׁוּב לְעַמֵּךְ׃ 11 וַתֹּאמֶר נָעֳמִי שֹׁבְנָה בְנֹתַי לָמָּה
תֵלַכְנָה עִמִּי הַעוֹד־לִי בָנִים בְּמֵעַי וְהָיוּ לָכֶם לַאֲנָשִׁים׃ 12 שֹׁבְנָה בְנֹתַי לֵכְן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כִּי
אָמַרְתִּי יֶשׁ־לִי תִקְוָה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וְגַם יָלַדְתִּי בָנִים׃ 13 הֲלָהֵן תְּשַׂבֵּרְנָה עַד אֲשֶׁר יִגְדָּלוּ
הֲלָהֵן תֵּעָגֵנָה לְבִלְתִּי הֱיוֹת לְאִישׁ אַל בְּנֹתַי כִּי־מַר־לִי מְאֹד מִכֶּם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14 וַתִּשֶּׂנָה קוֹלָן וַתִּבְכֶּינָה עוֹד וַתִּשַּׁק עָרְפָּה לַחֲמוֹתָהּ וְרוּת דָּבְקָה בָּהּ׃
15 וַתֹּאמֶר הִנֵּה שָׁבָה יְבִמְתֵּךְ אֶל־עַמָּהּ וְאֶל־אֱלֹהֶיהָ שׁוּבִי אַחֲרֵי יְבִמְתֵּךְ׃ 16 וַתֹּאמֶר רוּת אַל־תִּפְגְּעִי־בִי
לְעָזְבֵךְ לָשׁוּב מֵאַחֲרָיִךְ כִּי אֶל־אֲשֶׁר תֵּלְכִי אֵלֵךְ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17 בַּאֲשֶׁר
תָּמוּתִי אָמוּת וְשָׁם אֶקָּבֵר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כִּי הַמָּוֶת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18 וַתֵּרֶא
כִּי־מִתְאַמֶּצֶת הִיא לָלֶכֶת אִתָּהּ וַתֶּחְדַּל לְדַבֵּר אֵלֶיהָ׃

개역개정	번역
1: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1:6** [그러던 어느 날] 그녀[=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1:7** 그녀가 머물던 곳을 떠날 때 (그녀의) 두 며느리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 [셋]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 **1:8**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어서**, 너희들은 각각 [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1: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미가 [작별을 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엉엉** 울면서 **1:10** 나오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우리가**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1:11**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몸 안에 아들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1:12**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가거라. 그것은 내가 한 남자의**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1: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설령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 **1:13** **그들을**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나의 딸들아.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1:14** 그들은 [얼마동안] **계속** 엉엉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며] 입맞추었지만 룻은 [오히려 더] 그녀[=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1: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1:16** 그 때 룻이 대답하였다. "저더러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17**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죽음만이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1:18** 그러자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 막2 장(룻 1:19-22)

Ruth 1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9 וַתֵּלַכְנָה שְׁתֵּיהֶם עַד־בֹּאָנָה בֵּית לָחֶם וַיְהִי כְּבֹאָנָה בֵּית לֶחֶם וַתֵּהֹם כָּל־הָעִיר עֲלֵיהֶן וַתֹּאמַרְנָה הֲזֹאת
נָעֳמִי׃ 20 וַתֹּאמֶר אֲלֵיהֶן אַל־תִּקְרֶאנָה לִי נָעֳמִי קְרֶאן לִי מָרָא כִּי־הֵמַר שַׁדַּי לִי מְאֹד׃ 21 אֲנִי מְלֵאָה
הָלַכְתִּי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 לָמָּה תִקְרֶאנָה לִי נָעֳמִי וַיהוָה עָנָה בִי וְשַׁדַּי הֵרַע* לִי׃
22 וַתָּשָׁב נָעֳמִי וְרוּת הַמֹּאֲבִיָּה כַלָּתָהּ עִמָּהּ הַשָּׁבָה מִשְּׂדֵי מוֹאָב וְהֵמָּה בָּאוּ בֵּית לֶחֶם בִּתְחִלַּת קְצִיר

שְׂעֹרִים׃

개역개정	번역
1: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1: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19** 이에 그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길을 행하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의 여인네들]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하였고 (그 여자들이)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1:20**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즐거움]라고 부르지들 말고 마라[괴로움]라고 불러 주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1: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 **1:22**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2 막1 장(룻2:1-3)

Ruth 2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לְנָעֳמִי [כ= מְיֻדָּע] [ק= מוֹדַע] לְאִישָׁהּ אִישׁ גִּבּוֹר חַיִל מִמִּשְׁפַּחַת אֱלִימֶלֶךְ וּשְׁמוֹ בֹּעַז׃ 2 וַתֹּאמֶר רוּת
הַמּוֹאֲבִיָּה אֶל־נָעֳמִי אֵלְכָה־נָּא הַשָּׂדֶה וַאֲלַקֳטָה בַשִּׁבֳּלִים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 וַתֹּאמֶר לָהּ לְכִי
בִתִּי׃ 3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בַּשָּׂדֶה אַחֲרֵי הַקֹּצְרִים וַיִּקֶר מִקְרֶהָ חֶלְקַת הַשָּׂדֶה לְבֹעַז אֲשֶׁר מִמִּשְׁפַּחַת
אֱלִימֶלֶךְ׃

개역개정	번역
2: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A)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B)더라 **2: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X) 은혜를 입으면 그를	**2:1**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덕망있는 사람**[=유지(有志)]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A)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B)였다. **2:2**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밭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삭을 주워*(C)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C)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2: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C′)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A′) 보아스(B′)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겠습니다. [혹시] *누구*(X)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의 뒤를 따라서요."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나가 보아라, 내 딸아." **2:3**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웠다*(C′).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보아스*(B′) 곧 *엘리멜렉의 친족*(A′)의 밭에서였다.

2 막2 장(룻2:4-17)

Ruth 2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4 וְהִנֵּה־בֹעַז בָּא מִבֵּית לֶחֶם וַיֹּאמֶר לַקּוֹצְרִים יְהוָה עִמָּכֶם וַיֹּאמְרוּ לוֹ יְבָרֶכְךָ יְהוָה׃ 5 וַיֹּאמֶר בֹּעַז לְנַעֲרוֹ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לְמִי הַנַּעֲרָה הַזֹּאת׃ 6 וַיַּעַן הַנַּעַר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וַיֹּאמַר נַעֲרָה מוֹאֲבִיָּה הִיא
הַשָּׁבָה עִם־נָעֳמִי מִשְּׂדֵה מוֹאָב׃ 7 וַתֹּאמֶר אֲלַקֶּטָה־נָּא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וֹצְרִים וַתָּבוֹא וַתַּעֲמֹד
מֵאָז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8 וַיֹּאמֶר בֹּעַז אֶל־רוּת הֲלוֹא שָׁמַעַתְּ בִּתִּי אַל־תֵּלְכִי לִלְקֹט בְּשָׂדֶה אַחֵר וְגַם לֹא תַעֲבוּרִי מִזֶּה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9 עֵינַיִךְ בַּשָּׂדֶה אֲשֶׁר־יִקְצֹרוּן וְהָלַכְתְּ אַחֲרֵיהֶן הֲלוֹא צִוִּיתִי אֶת־הַנְּעָרִים לְבִלְתִּי
נָגְעֵךְ וְצָמֵת וְהָלַכְתְּ אֶל־הַכֵּלִים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 הַנְּעָרִים׃ 10 וַתִּפֹּל עַל־פָּנֶיהָ וַתִּשְׁתַּחוּ אָרְצָה
וַתֹּאמֶר אֵלָיו מַדּוּעַ מָצָאתִי חֵן בְּעֵינֶיךָ לְהַכִּירֵנִי וְאָנֹכִי נָכְרִיָּה׃ 11 וַיַּעַן בֹּעַז וַיֹּאמֶר לָהּ הֻגֵּד הֻגַּד לִי כֹּל
אֲשֶׁר־עָשִׂית אֶת־חֲמוֹתֵךְ אַחֲרֵי מוֹת אִישֵׁךְ וַתַּעַזְבִי אָבִיךְ וְאִמֵּךְ וְאֶרֶץ מוֹלַדְתֵּךְ וַתֵּלְכִי אֶל־עַם אֲשֶׁר
לֹא־יָדַעַתְּ תְּמוֹל שִׁלְשׁוֹם׃ 12 יְשַׁלֵּם יְהוָה פָּעֳלֵךְ וּתְהִי מַשְׂכֻּרְתֵּךְ שְׁלֵמָה מֵעִם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אֲשֶׁר־בָּאת לַחֲסוֹת תַּחַת־כְּנָפָיו׃ 13 וַתֹּאמֶר אֶמְצָא־חֵן בְּעֵינֶיךָ אֲדֹנִי כִּי נִחַמְתָּנִי וְכִי דִבַּרְתָּ עַל־לֵב
שִׁפְחָתֶךָ וְאָנֹכִי לֹא אֶהְיֶה כְּאַחַת שִׁפְחֹתֶיךָ׃
14 וַיֹּאמֶר לָהּ בֹּעַז לְעֵת הָאֹכֶל גֹּשִׁי הֵלֹם וְאָכַלְתְּ מִן־הַלֶּחֶם וְטָבַלְתְּ פִּתֵּךְ בַּחֹמֶץ וַתֵּשֶׁב מִצַּד הַקּוֹצְרִים
וַיִּצְבָּט־לָהּ קָלִי וַתֹּאכַל וַתִּשְׂבַּע וַתֹּתַר׃ 15 וַתָּקָם לְלַקֵּט וַיְצַו בֹּעַז אֶת־נְעָרָיו לֵאמֹר גַּם בֵּין הָעֳמָרִים
תְּלַקֵּט וְלֹא תַכְלִימוּהָ׃ 16 וְגַם שֹׁל־תָּשֹׁלוּ לָהּ מִן־הַצְּבָתִים וַעֲזַבְתֶּם וְלִקְּטָה וְלֹא תִגְעֲרוּ־בָהּ׃
17 וַתְּלַקֵּט בַּשָּׂדֶה עַד־הָעָרֶב וַתַּחְבֹּט אֵת אֲשֶׁר־לִקֵּטָה וַיְהִי כְּאֵיפָה שְׂעֹרִים׃

개역개정	번역
2: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2:4** **그 시점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그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2: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2: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2: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2: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2: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2: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2: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2: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2:13**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비네."라고 인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5**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저 젊은 여인은 뉘댁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2:6**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2:7** 그녀가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머물[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2:8** 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부터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도 말며 바로 여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 **2:9** 그들(=나의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고 그들(=여자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기를 바라오. 내가 지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2:10** 그러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2:11**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 곧 당신이 (당신의)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들렸소. **2:12**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라오." **2:13** 룻이 대답하였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2:14** [점심] 먹으려는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당신의)

하셨나이다 하니라 **2: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2: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2: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2: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그래서 그녀는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고 그녀는 실컷 먹고도 [그것을] 남길 수 있었다. **2:15** 룻이 [식사를 끝내고] 이삭을 줍기 위해 일어서 자리를 뜬 후에 보아스가 (그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곡식단 사이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게. **2:16** 더 나아가 그녀를 위해 자네들이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버려두어서 그녀가 줍도록 하고 결코 그녀를 꾸짖지 말게." **2:17** 룻이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고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정확히] 한 에바나** 되었다.

2 막3 장(룻2:18-23)

Ruth 2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8 וַתִּשָּׂא וַתָּבוֹא הָעִיר וַתֵּרֶא חֲמוֹתָהּ אֵת אֲשֶׁר־לִקֵּטָה וַתּוֹצֵא וַתִּתֶּן־לָהּ אֵת אֲשֶׁר־הוֹתִרָה מִשָּׂבְעָהּ׃
19 וַתֹּאמֶר לָהּ חֲמוֹתָהּ אֵיפֹה לִקַּטְתְּ הַיּוֹם וְאָנָה עָשִׂית יְהִי מַכִּירֵךְ בָּרוּךְ וַתַּגֵּד לַחֲמוֹתָהּ אֵת
אֲשֶׁר־עָשְׂתָה עִמּוֹ וַתֹּאמֶר שֵׁם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בֹּעַז׃ 20 וַתֹּאמֶר נָעֳמִי לְכַלָּתָהּ בָּרוּךְ הוּא
לַיהוָה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וַתֹּאמֶר לָהּ נָעֳמִי קָרוֹב לָנוּ הָאִישׁ מִגֹּאֲלֵנוּ הוּא׃
21 וַתֹּאמֶר רוּת הַמֹּאֲבִיָּה גַּם כִּי־אָמַר אֵלַי עִם־הַנְּעָרִים אֲשֶׁר־לִי תִּדְבָּקִין עַד אִם־כִּלּוּ אֵת כָּל־הַקָּצִיר
אֲשֶׁר־לִי׃ 22 וַתֹּאמֶר נָעֳמִי אֶל־רוּת כַּלָּתָהּ טוֹב בִּתִּי כִּי תֵצְאִי עִם־נַעֲרוֹתָיו וְלֹא יִפְגְּעוּ־בָךְ בְּשָׂדֶה אַחֵר׃
23 וַתִּדְבַּק בְּנַעֲרוֹת בֹּעַז לְלַקֵּט עַד־כְּלוֹת קְצִיר־הַשְּׂעֹרִים וּקְצִיר הַחִטִּים וַתֵּשֶׁב אֶת־חֲמוֹתָהּ׃

개역개정	번역
2: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2: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2:18 룻이 [그것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주운 것을 **보았다**. 룻은 자기가 실컷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다. 2:19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보살펴준 분이 복 받기를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2: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2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바란다." 그러자 그녀는[=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일하도록 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2:20 그 때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다." 2:21 그러자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분이 저에게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 내게 속한 모든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말이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2:22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나가[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2:23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젊은 여자 일꾼들에게 바싹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웠다. 그 후**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3 막1 장(룻3:1-5)

Ruth 3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תֹּאמֶר לָהּ נָעֳמִי חֲמוֹתָהּ בִּתִּי הֲלֹא אֲבַקֵּשׁ־לָךְ מָנוֹחַ אֲשֶׁר יִיטַב־לָךְ׃ 2 וְעַתָּה הֲלֹא בֹעַז מֹדַעְתָּנוּ אֲשֶׁר
הָיִית אֶת־נַעֲרוֹתָיו הִנֵּה־הוּא זֹרֶה אֶת־גֹּרֶן הַשְּׂעֹרִים הַלָּיְלָה׃ 3 וְרָחַצְתְּ וָסַכְתְּ וְשַׂמְתְּ [כ= שִׂמְלֹתַיִךְ] [ק=
שִׂמְלֹתַיִךְ] עָלַיִךְ [כ= וְיָרַדְתִּי] [ק= וְיָרַדְתְּ] הַגֹּרֶן אַל־תִּוָּדְעִי לָאִישׁ עַד כַּלֹּתוֹ לֶאֱכֹל וְלִשְׁתּוֹת׃ 4 וִיהִי

בְּשָׁכְבוֹ וְיָדַעַתְּ אֶת־הַמָּקוֹם אֲשֶׁר יִשְׁכַּב־שָׁם וּבָאת וְגִלִּית מַרְגְּלֹתָיו [כ= וְשָׁכָבְתִּי] [ק= וְשָׁכָבְתְּ] וְהוּא
יַגִּיד לָךְ אֵת אֲשֶׁר תַּעֲשִׂין: 5 וַתֹּאמֶר אֵלֶיהָ כֹּל אֲשֶׁר־תֹּאמְרִי [כ= זז] [ק= אֵלַי] אֶעֱשֶׂה:

개역개정	번역
3: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3:2**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3: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3:5**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3:1**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3:2** 그런데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3:3**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3:4**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두라. 그리고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 있거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3:5** 그러자 룻은 (그녀에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막2 장(룻3:6-15)

Ruth 3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6 וַתֵּרֶד הַגֹּרֶן וַתַּעַשׂ כְּכֹל אֲשֶׁר־צִוַּתָּה חֲמוֹתָהּ: 7 וַיֹּאכַל בֹּעַז וַיֵּשְׁתְּ וַיִּיטַב לִבּוֹ וַיָּבֹא לִשְׁכַּב בִּקְצֵה
הָעֲרֵמָה וַתָּבֹא בַלָּט וַתְּגַל מַרְגְּלֹתָיו וַתִּשְׁכָּב: 8 וַיְהִי בַּחֲצִי הַלַּיְלָה וַיֶּחֱרַד הָאִישׁ וַיִּלָּפֵת וְהִנֵּה אִשָּׁה שֹׁכֶבֶת
מַרְגְּלֹתָיו: 9 וַיֹּאמֶר מִי־אָת וַתֹּאמֶר אָנֹכִי רוּת אֲמָתֶךָ וּפָרַשְׂתָּ כְנָפֶךָ עַל־אֲמָתְךָ כִּי גֹאֵל אָתָּה: 10 וַיֹּאמֶר
בְּרוּכָה אַתְּ לַיהוָה בִּתִּי הֵיטַבְתְּ חַסְדֵּךְ הָאַחֲרוֹן מִן־הָרִאשׁוֹן לְבִלְתִּי־לֶכֶת אַחֲרֵי הַבַּחוּרִים אִם־דַּל
וְאִם־עָשִׁיר: 11 וְעַתָּה בִּתִּי אַל־תִּירְאִי כֹּל אֲשֶׁר־תֹּאמְרִי אֶעֱשֶׂה־לָּךְ כִּי יוֹדֵעַ כָּל־שַׁעַר עַמִּי כִּי אֵשֶׁת חַיִל
אָתְּ: 12 וְעַתָּה כִּי אָמְנָם כִּי [כ= אם] [ק= זז] גֹאֵל אָנֹכִי וְגַם יֵשׁ גֹּאֵל קָרוֹב מִמֶּנִּי: 13 לִינִי הַלַּיְלָה וְהָיָה
בַבֹּקֶר אִם־יִגְאָלֵךְ טוֹב יִגְאָל וְאִם־לֹא יַחְפֹּץ לְגָאֳלֵךְ וּגְאַלְתִּיךְ אָנֹכִי חַי־יְהוָה שִׁכְבִי עַד־הַבֹּקֶר:

14 וַתִּשְׁכַּב [כ= מַרְגְּלֹתָו] [ק= מַרְגְּלֹתָיו*] עַד־הַבֹּקֶר וַתָּקָם [כ= בִּטְרֹום] [ק= בְּטֶרֶם] יַכִּיר אִישׁ
אֶת־רֵעֵהוּ וַיֹּאמֶר אַל־יִוָּדַע כִּי־בָאָה הָאִשָּׁה הַגֹּרֶן: 15 וַיֹּאמֶר הָבִי הַמִּטְפַּחַת אֲשֶׁר־עָלַיִךְ וְאֶחֱזִי־בָהּ
וַתֹּאחֶז בָּהּ וַיָּמָד שֵׁשׁ־שְׂעֹרִים וַיָּשֶׁת עָלֶיהָ וַיָּבֹא הָעִיר:

개역개정	번역
3: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3: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3:8**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3: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3: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3: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3:12**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3: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3:14**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3:6** 그러고서 그녀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행하였다. **3: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더미 맨 끝에 누웠을 때, 룻은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다. **3:8**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3:9** 그래서 그는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었다. 그 때 그녀가 대답하였다. "저는 룻, 어르신의 시녀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어르신이 기업 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 **3:10** 그가 말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라오. 당신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당신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3:11** 그러니 내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 그것은 온 성읍 나의 백성이 당신이 **덕망있는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3:12** 그런데 내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사람이 한 분 있소. **3:13**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시오**. 아침에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겠다면, 좋소, 그로 무르게 합시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3:14** 그래서 그녀는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3:15**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3:15** 그가 [그녀/룻에게] "걸치고 있는 숄을 내밀고 잡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펴서] 잡았다. 그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녀에게 이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3 막3 장(룻3:16-18)

Ruth 3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6 וַתָּבוֹא אֶל־חֲמוֹתָהּ וַתֹּאמֶר מִי־אַתְּ בִּתִּי וַתַּגֶּד־לָהּ אֵת כָּל־אֲשֶׁר עָשָׂה־לָהּ הָאִישׁ׃ 17 וַתֹּאמֶר
שֵׁשׁ־הַשְּׂעֹרִים הָאֵלֶּה נָתַן לִי כִּי אָמַר [כ= זז] [ק= אֵלַי] אַל־תָּבוֹאִי רֵיקָם אֶל־חֲמוֹתֵךְ׃ 18 וַתֹּאמֶר שְׁבִי
בִתִּי עַד אֲשֶׁר תֵּדְעִין אֵיךְ יִפֹּל דָּבָר כִּי לֹא יִשְׁקֹט הָאִישׁ כִּי־אִם־כִּלָּה הַדָּבָר הַיּוֹם׃

개역개정	번역
3:16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3:17**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3:18**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16**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 딸아,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3:17**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 여섯 [됫박의] 보리를 그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8**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기까지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막1 장(룻4:1-2)

Ruth 4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 וּבֹעַז עָלָה הַשַּׁעַר וַיֵּשֶׁב שָׁם וְהִנֵּה הַגֹּאֵל עֹבֵר אֲשֶׁר דִּבֶּר־בֹּעַז וַיֹּאמֶר סוּרָה שְׁבָה־פֹּה פְּלֹנִי אַלְמֹנִי
וַיָּסַר וַיֵּשֶׁב׃ 2 וַיִּקַּח עֲשָׂרָה אֲנָשִׁים מִזִּקְנֵי הָעִיר וַיֹּאמֶר שְׁבוּ־פֹה וַיֵּשֵׁבוּ׃

개역개정	번역
4: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4:2**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 때 보아스가 "아무여,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와서 앉았다. **4:2** 그리고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중 열 명을 불러 모은 뒤 "여기 좀 앉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앉았다.

4 막2 장(룻4:3-12)

Ruth 4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3 וַיֹּאמֶר לַגֹּאֵל חֶלְקַת הַשָּׂדֶה אֲשֶׁר לְאָחִינוּ לֶאֱלִימֶלֶךְ מָכְרָה נָעֳמִי הַשָּׁבָה מִשְּׂדֵה מוֹאָב׃ 4 וַאֲנִי אָמַרְתִּי
אֶגְלֶה אָזְנְךָ לֵאמֹר קְנֵה נֶגֶד הַיֹּשְׁבִים* וְנֶגֶד זִקְנֵי עַמִּי אִם־תִּגְאַל גְּאָל וְאִם־לֹא יִגְאַל הַגִּידָה לִּי [כ=
וְאֵדַע] [ק= וְאֵדְעָה] כִּי אֵין זוּלָתְךָ לִגְאוֹל וְאָנֹכִי אַחֲרֶיךָ וַיֹּאמֶר אָנֹכִי אֶגְאָל׃ 5 וַיֹּאמֶר בֹּעַז בְּיוֹם־קְנוֹתְךָ
הַשָּׂדֶה מִיַּד נָעֳמִי וּמֵאֵת רוּת הַמֹּאֲבִיָּה אֵשֶׁת־הַמֵּת [כ= קָנִיתִי] [ק= קָנִיתָ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6 וַיֹּאמֶר הַגֹּאֵל לֹא אוּכַל [כ= לִגְאוֹל] [ק= לִגְאָל]־לִי פֶּן־אַשְׁחִית אֶת־נַחֲלָתִי גְּאַל־לְךָ אַתָּה
אֶת־גְּאֻלָּתִי כִּי לֹא־אוּכַל לִגְאֹל׃
7 וְזֹאת לְפָנִים בְּיִשְׂרָאֵל עַל־הַגְּאוּלָּה וְעַל־הַתְּמוּרָה לְקַיֵּם כָּל־דָּבָר שָׁלַף אִישׁ נַעֲלוֹ וְנָתַן לְרֵעֵהוּ וְזֹאת
הַתְּעוּדָה בְּיִשְׂרָאֵל׃ 8 וַיֹּאמֶר הַגֹּאֵל לְבֹעַז קְנֵה־לְךָ וַיִּשְׁלֹף נַעֲלוֹ׃ 9 וַיֹּאמֶר בֹּעַז לַזְּקֵנִים וְכָל־הָעָם עֵדִים
אַתֶּם הַיּוֹם כִּי קָנִיתִי אֶת־כָּל־אֲשֶׁר לֶאֱלִימֶלֶךְ וְאֵת כָּל־אֲשֶׁר לְכִלְיוֹן וּמַחְלוֹן מִיַּד נָעֳמִי׃ 10 וְגַם אֶת־רוּת
הַמֹּאֲבִיָּה אֵשֶׁת מַחְלוֹן קָנִיתִי לִי לְאִשָּׁה לְהָקִים שֵׁם־הַמֵּת עַל־נַחֲלָתוֹ וְלֹא־יִכָּרֵת שֵׁם־הַמֵּת מֵעִם אֶחָיו
וּמִשַּׁעַר מְקוֹמוֹ עֵדִים אַתֶּם הַיּוֹם׃ 11 וַיֹּאמְרוּ כָּל־הָעָם אֲשֶׁר־בַּשַּׁעַר וְהַזְּקֵנִים עֵדִים יִתֵּן יְהוָה
אֶת־הָאִשָּׁה הַבָּאָה אֶל־בֵּיתֶךָ כְּרָחֵל וּכְלֵאָה אֲשֶׁר בָּנוּ שְׁתֵּיהֶם אֶת־בֵּית יִשְׂרָאֵל וַעֲשֵׂה־חַיִל בְּאֶפְרָתָה
וּקְרָא־שֵׁם בְּבֵית לָחֶם׃ 12 וִיהִי בֵיתְךָ כְּבֵית פֶּרֶץ אֲשֶׁר־יָלְדָה תָמָר לִיהוּדָה מִן־הַזֶּרַע אֲשֶׁר יִתֵּן יְהוָה
לְךָ מִן־הַנַּעֲרָה הַזֹּאת׃

개역개정	번역
4: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4:4**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4:3** 그 때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문중 형제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내놓았소. **4:4**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취하시오. 당신이 무르고 싶으면 무르시오. 그러나 당신이 무르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내가 알 수 있도록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4:5**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4:6**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4:7**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4: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4: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4: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4: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4:1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시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다음인 나를 제외하곤 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 그러자 그는 "**내가 무르고 싶소**."라고 대답했다. **4:5** 보아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그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날에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이 취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할 것이오." **4:6** 그러자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친히 무를 수 없겠소**. 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만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시오**.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 **4:7** 옛적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런 일 즉)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확정하는 관례이었다. **4:8** 그래서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라고 말하며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4:9**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제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나오미로부터 취했습니다. **4:10**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저의 아내로 취할 권한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인들입니다**." **4:11** 그 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4:12**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막 (룻 4:13-17)

Ruth 4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3 וַיִּקַּח בֹּעַז אֶת־רוּת וַתְּהִי־לוֹ לְאִשָּׁה וַיָּבֹא אֵלֶיהָ וַיִּתֵּן יְהוָה לָהּ הֵרָיוֹן וַתֵּלֶד בֵּן׃ 14 וַתֹּאמַרְנָה הַנָּשִׁים
אֶל־נָעֳמִי בָּרוּךְ יְהוָה אֲשֶׁר לֹא הִשְׁבִּית לָךְ גֹּאֵל הַיּוֹם וְיִקָּרֵא שְׁמוֹ בְּיִשְׂרָאֵל׃ 15 וְהָיָה לָךְ לְמֵשִׁיב נֶפֶשׁ
וּלְכַלְכֵּל אֶת־שֵׂיבָתֵךְ כִּי כַלָּתֵךְ אֲשֶׁר־אֲהֵבַתֶּךְ יְלָדַתּוּ אֲשֶׁר־הִיא טוֹבָה לָךְ מִשִּׁבְעָה בָנִים׃
16 וַתִּקַּח נָעֳמִי אֶת־הַיֶּלֶד וַתְּשִׁתֵהוּ בְחֵיקָהּ וַתְּהִי־לוֹ לְאֹמֶנֶת׃ 17 וַתִּקְרֶאנָה לוֹ הַשְּׁכֵנוֹת שֵׁם לֵאמֹר
יֶלֶד־בֵּן לְנָעֳמִי וַתִּקְרֶאנָה שְׁמוֹ עוֹבֵד הוּא אֲבִי־יִשַׁי אֲבִי דָוִד׃ ף

개역개정	번역
4: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4: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4: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4: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4: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4:13**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4:14**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15** 이제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요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며느리, [아니] (당신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4:16** 그 때 나오미가 그 **자식**을 취하여 (그녀의) 품에 안았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4:17**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었다.

코다 (룻 4:18-22)

Ruth 4 Hebrew OT: WLC (Consonants and Vowels)

18 וְאֵלֶּה תּוֹלְדוֹת פֶּרֶץ פֶּרֶץ הוֹלִיד אֶת־חֶצְרוֹן׃ 19 וְחֶצְרוֹן הוֹלִיד אֶת־רָם וְרָם הוֹלִיד אֶת־עַמִּינָדָב׃
20 וַעַמִּינָדָב הוֹלִיד אֶת־נַחְשׁוֹן וְנַחְשׁוֹן הוֹלִיד אֶת־שַׂלְמָה׃ 21 וְשַׂלְמוֹן הוֹלִיד אֶת־בֹּעַז וּבֹעַז הוֹלִיד
אֶת־עוֹבֵד׃ 22 וְעוֹבֵד הוֹלִיד אֶת־יִשָׁי וְיִשַׁי הוֹלִיד אֶת־דָּוִד׃

개역개정	번역
4: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4: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4: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4: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4: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4:18**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4: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4: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4: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4: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 정독을 위한 문제

Version I

룻 1:1-5 (서막)

1. 내용
   1) 서막에 나오는 한 가족의 구성원들(4)의 이름은?
   2) 1:2 와 1:3, 5 에서 아들들이 부모중 누구와 관련하여 언급되는가? [개역개정은 5 절에 소유격을 밝히지 않았음; 새번역은 세 절 모두 소유격을 밝히지 않았음]
      ① 개역개정: (1:2) **그의** 두 아들 [개역/우리말성경: **그** 두 아들]
      ② 개역개정: (1:3) **그의** 두 아들 [개역/우리말성경: **그** 두 아들]
      ③ 개역개정: (1:5) < > 두 아들 [개역/우리말성경도 소유격없음]
   3) 오르바와 룻 중 누가 손윗 동서인가?
   4) 문예적 기교 이름? 1:3 남편—B 두 아들—1:5 B'두 자식—A' 남편
2. 어구 설명 [암시적 교훈]
   1) "사사 시대(1:1 cf. 삿 17:6; 21:25)"와 "다윗(4:17, 22)"
   2)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1:1 cf. 창 12:10; 26:1)
   3) "유다 베들레헴"(1:1)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1:2 cf. 삼상 17:12)
   4) "십년 쯤"(1:4)—모압에 거주한 총 햇수? 결혼하여 산 총 햇수?
   5) "그 여인(1:5)"
   6) 언어유희: "두 아들(1:5)"과 "아기(4:16)": [옐레드]
   7) "남았다(1:3, 5)"
3. 오르바와 룻이 각각 누구의 아내인지(cf. 4:10) 밝히지 않은 이유
4. 나오미가 룻기의 중심 인물이란 단서
5. 인식의 관점과 흥미의 관점
6. 서막(1:1-5)과 코다(4:18-22)의 관계
7. 서막의 의도
8. 하나님의 섭리: 죽음과 생명의 연관성(cf. 스데반과 사울)
9. 이웃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룻 1:6-18 (1 막 1 장)

1. 내용

1) theological inclusio (룻 1:6 과 룻 4:13)

① 개역개정 1:6 그 여인이[! cf. 개역: 그가; 번역: 그녀는; 원문: 대명사[히] cf. 1:5 명사 [하이샤] "그 여인"] 모압 지방에서 ( )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② 4: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 )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2) 세 차례 주고받은 대화와 등장 인물

① 1:2 = 나오미: (+)

② 1:(1+1) = 나오미: (:)

③ 1:1 = 나오미: ( )

3) 나오미가 주는 세 번의 권면에 동일하게 나오는 어구(1:8-9, 11-13, 15)

4) 나오미의 첫째 권면(1:8-9)의 구조: 명령+축복+기도

① 명령:

② 축복:

③ 기도:

5) 나오미의 둘째 권면(1:11-13)의 구조

① "돌아들 가라, 내 딸들아(11 절)," + 내용:

② "돌아들 가라, 내 딸들아(12 절)," + 내용:

③ "아서라, 내 딸들아(13 절하)" + 내용:

6) 나오미의 셋째 권면(1:15)과 룻의 대답(1:16-17)의 "장군!—멍군!" 같은 상응 부분

① 나오미:

② 룻:

2. 어구 설명

1) 1:8 "선대하다" (개역개정) [번역: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다]

2) [헤쎄드] 번역 (1:8[아싸+헤쎄드]; 2:20[로-아자브 + 헤쎄드]; 3:10[헤티브+헤쎄드])

① 개역/개역개정: 선대하다(1:8)—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2:20)—(베푼) 인애가 더하다(3:10)

- [1:8]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u>선대한</u>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u>선대하시기</u>를 원하며
- [2:20]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u>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u>
- [3:10] 너의 베푼 <u>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u>

② 새번역: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다(1:8)—한결같이 자비를 베풀다(2:20)—(보여준) 갸륵한 마음씨가 더욱더 값지다 (3:10)

- [1:8]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 [2:20]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 [3:10] 지금 그대가 보여 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 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③ 우리말성경: 잘해 주다(1:8)—친절을 베풀더니 그칠 줄 모르다(2:20)—아름다운 마음씨가 더 크다(3:10)

- [1:8]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 [2:20]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 [3:10]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 준 것보다 더 크오.

④ 번역: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다(1:8)—한결같은 인애를 버리지 않다(2:20)—한결같은 인애가 더 좋다(3:10)

- [1:8]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 [2:20]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하여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직역: 한결같은 인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3:10] 당신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직역: 당신은 당신의 나중의 한결같은 인애를 처음 것보다 더 좋게/낫게 하였소. → 당신의 한결같은 인애는 이전 것보다 지금 것이 더 좋소/더 좋은 것이오.)

3) 1:8 "어머니의 집" (cf. "아버지의 집")

4) 1:11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번역: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5) (개역개정) 1:8 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와 1:11 의 "내 딸들아 돌아가라"와 1:12 의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번역: 1:8 [레흐나 쇼브나] "**자 어서,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11 [쇼브나 브노타이]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1:12 [쇼브나 브노타이 레흐나]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돌아] 가거라.**"]

6) 1:12 (개역개정)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번역: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7) 1:13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כִּ֤י־מַר־לִי מְאֹד֙ מִכֶּ֔ם [키-마르-리 므오드 미켐 키-야츠아 비 야드-아도나이]

① RSV, JB, GNB: "*For* things are very bitter for me because of you" (causal מִן WHS 319, 515)

- 개역개정: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 새번역: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 우리말성경: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② NJPS, NASB, NEB, NIV, Campbell, Hubbard, Sasson: "*For* things are far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상대비교 simple comparative מִן WHS 317): 왜냐하면 처지가 너희의 경우보다 나의 경우가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나의 처지가 너희 처지보다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③ NAB, Joüon, Bush: "*For* things are too bitter for me for you (to share)" (절대비교 absolute comparative, elative מִן WHS 318; comparative of compatibility, IBHS 4.4f) 왜냐하면 처지가 나의 경우에 있어서 너희가 나누기에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나의 처지가 너희들이 나누기에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

- 번역: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8) 1:15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신은 누구인가?

9) 룻의 고백

[개역개정] 1: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① 룻의 말 가운데 양극포괄법(merismus)을 보이는 것은?

② 룻의 말을 축이 있는 역순대구구조(chiasmus A-B-X-B'-A')를 보이게 배열하면?

③ 룻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결단(창 12:1-9)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④ 룻의 이 말을 결혼식에서 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가?

⑤ 룻이 참으로 여호와를 믿은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10) 1: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 장례의 관습을 간단히 설명하면?

3. 내러티브에서 대화의 중요성

4. 고난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과 룻의 반응
5. 나오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들
6. 룻과 오르바의 대조를 통해 저자가 주려는 메시지는?
7. 룻(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일을 통해 저자가 주고자하는 메시지는?
8. 룻의 믿음에 들어 있는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와 참된 믿음의 세 요소는?
9. 우리의 현재의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는?

룻 1:19-22 (1 막 2 장)

1. 내용

1) 1:6 과 1:22 이 수미쌍관법(inclusion)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어구에 밑줄을 그으면?

1:6 **[그러던 어느 날] 그녀[=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1:22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2) 나오미의 말(1:20-21)

20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고 마라라고 불러 주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

[Cf. 개역개정 1:20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① 언어유희(Word Play: W-W')와 하나님 이름(AB-B'A') 그리고 병행법을 고려하여 나오미 말(1:20-21)을 [원문의 순서를 반영한 번역을 따라] 배열하면?

② 나오미의 이름을 통한 언어유희의 의미는?

③ 하나님의 이름의 배열 순서가 보여주는 기교는?

3) 내레이터가 나오미가 빈 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암시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두 가지 사항(1:22)

2. 어구 설명

1) 1:19 "그 두 사람 [시테헴]"

2) 1:19 “온 성읍 [콜-하이르]”이 의미하는 것은?

3) 1:20 “나오미”와 “마라”

4) 1:20-21 “전능자”

5) 1:20-21 “여호와”에 대한 히브리어 표기, 영어 성경 표기

6) 1:21 나오미가 말한 “풍족”과 “텅빔”

7) 1:22 번역의 강조점

① [개역개정]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② [직역]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 [번역]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때]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 [곧]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3. 나오미의 말(1:20-21)에 대한 평가(cf. 욥 1:21-22; 2:10)

4.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의 은택의 표징(1:22)

5. 나오미의 시각과 내레이터의 시각

6. 하나님의 섭리

1) 정의

2) 근거와 목적

3)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주는 교훈

룻 2:1-3 (2 막 1 장)

1. 내용

1) 보아스를 미리 소개하는 4 가지 사항의 순서 (2:1)

① 개역개정: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② 새번역: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③ 우리말성경: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④ NIV: Now Naomi had a relative on her husband's side, <u>from the clan of Elimelech, a man of standing,</u> whose name was Boaz.

⑤ **NASB**: Now Naomi had a kinsman of her husband, <u>a man of great wealth, of the family of Elimelech,</u> whose name was Boaz.

⑥ **ESV**: Now Naomi had a relative of her husband's, a worthy man of the clan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⑦ **ISV**: Naomi had a close relative of her late husband, a man of considerable wealth from the family of Elimelech. His name was Boaz.

⑧ **번역**: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덕망있는 사람[=유지(有志)]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2)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 (2:2)

3)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2:2)

4) 내레이터의 요약 진술과 해설 (2:3)

2. 어구 설명

1) 2:1 "덕망있는 사람, 유지, 유력한 자" (cf. 3:11 "덕망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2) 2:1 "친족 [미시파하]"

3) 2:3 "우연히, 뜻밖에도"

3. 내러티브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관점들과 화면 분할 기교의 비교

4. 룻 2:3 의 해설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

5. 2:1-3 의 중앙집중적 역순대구 즉 엘리멜렉의 친족(A)-보아스(B)-이삭줍다(C)-누구의 호의(X)-이삭줍다(C')-보아스(B')-엘리멜렉의 친족(A')의 순으로 나오는 구조가 보여주는 암시적 교훈

룻 2:4-17 (2 막 2 장)

1. 내용

1)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과의 인사말 (2:4 아침에 선언된 복)

2) 보아스와 추수감독하는 종과의 대화 (2:5-7)

3) 보아스가 오전에 룻에게 베푼 호의들 (2:8-9)

4) 이에 대한 룻의 반응 (2:10)

5) 룻의 신앙적 결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보아스의 격려의 말 (2:11-12)

6) 이에 대한 룻의 대답 (2:13)

7) 점심 식사 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들 (2:14)

8) 보아스가 오후에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내린 지시 (2:15-16)

9)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특혜의 결과 (2:17 저녁에 확인되는 넘치는 복)

2. 어구 설명

1) 2:4 [히네] ("개역개정: **마침** 보아스가"; 번역: "**그 시점에 [앞서 말한 그]** 보아스가")

① "보라!"

- [룻 1: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라**(הִנֵּה),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 [룻 3:2] "그런데 그의 [추수하던] 젊은 여자들과 함께 네가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הִנֵּה),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② "보니까, 본즉"

- [룻 3:8]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הִנֵּה)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הִנֵּ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③ "그 시점에"

- [룻 2:4] "**그 시점에**(הִנֵּה) (독자들이 알고 있는 1 절에서 말하던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였다."

2) 축복과 성취의 관점에서 본 축복의 중요성(1:8-9; 2:4, 12, 19; 3:10; 4:11-12)

3) 추수의 절차와 이삭 줍기 허용의 시점을 고려하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줍게 하소서(2:7)"란 룻의 요청은 이삭 줍는 관례와 어긋나고,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2:15)"는 보아스의 허락은 오후에 있었다. 2:7 의 "단 사이에서"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① 개역개정: 나로 베는 자를 따라 <u>단 사이에서</u> 이삭을 줍게 하소서

② 새번역: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u>곡식단 사이에서</u>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

③ 우리말성경: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번역 없음> 이삭을 줍게 해 달라

④ 번역: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u>단으로</u> 만들게 해 주십시오

4) 2:7 의 다음 두 번역은 보아스가 올 때까지 룻이 했던 행동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 "단 사이에서"라는 번역의 문제 해결책은?

① 개역개정: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② 새번역: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5) 본문 비평 (2:7)

① MT: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제 시브타흐 하바이트 므아트])

② LXX: οὐ κατέπαυσεν ἐν τῷ ἀγρῷ [우 카테파우쎈 엔 토 아그로] = לֹא שָׁבְתָה בַשָּׂדֶה[로 샤브타 바싸데]

③ [NIV]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

④ [NASB] she has been sitting in the house for a little while.

⑤ [NRSV] without resting even for a moment.

⑥ [ESV] except for a short rest.

⑦ Bush: “she has stopped only a moment’

⑧ Joüon: “she has not taken (even) a little rest.”

⑨ Hurvitz: "Her stay in the house was very brief."

⑩ Hubbard: “This field has been her residence; the house has meant little to her.”

⑪ Loader: “This is where she stays; this is her home in a sense.”

⑫ Carasik : "This fellow . . . . she's just going home for a bit."

⑬ 번역: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6) 2:8 의 번역 비교

① 개역개정: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② 번역: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부터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도 말며”

7) “건드리지 말라(2:9)” “책망하지 말라(2:15)” “꾸짖지 말라(2:16)”

8) 2:10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드리는 동작인가?

9) 2:10 언어유희: “이방 여인[노흐리야]”과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르하키레니]”: 어근 [나하르]

10) 2:11 과 2:16 에 나오는 [아자브](“버리다”): 룻이 버린 것과 보아스가 버린 것

11) 여호와의 날개(2:12)와 보아스의 옷자락(3:9): 언어 유희 [카나프]

12) [시프하](2:13)의 번역

① 개역개정: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 . . **이 시녀** . . .”

② 번역: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 . . .”

③ 비교:

- 개역: 시녀(시프하 2:13)-시녀(나아라 3:2)-시녀(아마 3:9)
- 개역개정: 하녀(시프하 2:13)-하녀(나아라 3:2)-여종(아마 3:9)
- 번역: 하녀(시프하 2:13)-젊은 여자 일꾼(나아라 3:2)-시녀(아마 3:9)
- 참고: (삼상 25:41 아비가일) “내 주의 **여종(아마)**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시프하)**이니이다”

13) 2:13 번역

① 개역개정: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② 새번역: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③ 공동번역: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주십시오”

④ 번역: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14) “볶은 곡식”(2:14)

15) “에바”의 양 계산(2:17):

16) 2:17 번역 비교

① 개역개정: “한 에바쯤”

② 번역: vs “정확히 한 에바”

17) 2:12 과 2:17 을 나란히 두고 보면? 온전한 상 vs. 한 에바나 되는 양식

3.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인사말([아도나이 이마헴]—[여바레흐하 아도나이])을 응용하여 사용하는 문제

4. 양식의 관점에서 본 보아스 : 룻 = 그리스도 : 신자

5. 보아스의 룻에 대한 한결같은 인애[헤쎄드]: 보아스가 보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1) 보아스의 언행에서 볼 수 있는 율법과 사랑과의 관계

2) 보아스의 언행에서 드러난 성품들

3) 보아스 : 룻 = 하나님 : 하나님의 백성이란 등식의 관점에서 보아스의 언행심사 평가

4) 보아스의 언행심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5) 중보 기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자로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6. 룻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룻의 성품들”

1) 종의 보고에서 드러난 성품들

2)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난 성품들

7. 보아스가 룻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 복음의 포용성

룻 2:18-23 (2 막 3 장)

1. 내용

1)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본 것과 받은 것 (2:18 내러티브 **틀**)

2) 나오미의 질문과 축복 (2:19 **A**)

3) 내레이터가 나오미의 질문에 대한 룻의 대답을 전하는 과정의 간접화법과 직접화법 (2:19 **B**)

4)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한 말과 보아스에 대한 설명 (2:20 **X**)

5) 룻이 보아스로부터 들었었던 말 중에서 나오미에게 그대로 전한 것 (2:21 **B’**)

6) 나오미의 룻에 대한 지시 (2:22 **A’**)

7) 내레이터의 마지막 진술 (2:23 내러티브 **틀**)

8) 보아스에 대하여 룻과 나오미가 서로 더 잘 알고 있었던 사실

2. 어구 설명

1) 2:11 부정사 לְהַכִּירֵנִי[르하키레니]와 2:19 분사 מַכִּירֵךְ[마키레흐]: 어근 נכר[나하르]

2) 2:20 "<u>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u>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다" (개역: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다; 개역개정: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다)

3) 2:20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 (개역: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 개역개정: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

4) 2:8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2:21"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2:22"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개역개정: 2:8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2:21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2:22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보아스와 나오미는 여성 명사를 사용했으나 룻은 남성명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설명

5) 칭호: "그녀의 시어머니"(2:18, 19, 19, 23)와 "그녀의 며느리"(2:20, 22) vs. "우리"(2:20, 20)

6) 2:20 "[고엘] 기업무를 자"

7) 번역비교

בָּרוּךְ הוּא לַיהוָה (룻 2:20)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① [N]RSV: "Blessed be he by the Lord,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그의 친절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버리지 않은 여호와에 의해 그가 복 받기를"

② NASB: May he be blessed of the LORD **who** has not withdrawn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o the dead. // 현대인 성경: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 쉬운성경: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③ 새번역: 그는 틀림없이 주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 개역: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 개역개정: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u>그가</u>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 NIV: "The LORD bless him!"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He** has not stopped showing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he dead."

④ 참고

בָּרוּךְ יְהוָה אֱלֹהֵי אֲדֹנִי אַבְרָהָם (창 24:27)

אֲשֶׁר לֹא־עָזַב חַסְדּוֹ וַאֲמִתּוֹ מֵעִם אֲדֹנִי אָנֹכִי בַּדֶּרֶךְ נָחַנִי יְהוָה בֵּית אֲחֵי אֲדֹנִי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길 원한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인애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신

בְּרֻכִים אַתֶּם לַיהוָה (삼하 2:5)

אֲשֶׁר עֲשִׂיתֶם הַחֶסֶד הַזֶּה עִם־אֲדֹנֵיכֶם עִם־שָׁאוּל וַתִּקְבְּרוּ אֹתוֹ

너희가 여호와에 의해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인애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3. 칭호 사용이 암시하는 것
   1) 내레이터가 룻에 대하여: 모압 여인 룻 (2:2; 2:21) [cf. 종: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 그녀의 며느리 룻(2:22), 룻(2:23)
   2) 룻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방 여인(2:10 [노흐리야]), 하녀(2 번 2:13 [시프하])
   3) 내레이터와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하여: 시어머니/시모(2:11 vs. 2:18, 19, 20, 20, 23)
   4)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내 딸" (2:2, 8, 22)
   5)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 대하여: "הָאִישׁ[하이시] 그 사람, 그 양반"(2:19, 2:20; 3:16, 18)
4.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평가하는 2 막 3 장에서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이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5.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가 나오미에게 주었던 영향
6. 1 막의 끝(1:22)과 2 막의 끝(2:23)의 차이점

룻 3:1-5 (3 막 1 장)

1. 내용
   1) 내러티브의 틀 (3:1 vs. 3:5):
   2) 룻의 재혼을 위한 나오미의 주장(3:1-2)
      ① 문제(3:1):
      ② 해결책(3:2a):
   3) 나오미의 지시(3:2-4)
      ① 보아스의 할 일 서술 (3:2):
      ② 룻에게 내린 명령(3:3-4)
         - 4 가지 명령(바브 계속법):
         - 부정 명령(희구법):
         - 긍정 명령 (바브 계속법):
         - 3 가지 명령(바브 계속법):
      ③ 보아스의 할 일 서술 (3:4):

4) 룻의 반응(3:5)

2. 어구 설명

1) 3:1 평안한 보금자리 (개역개정: 안식할 곳; 새번역: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 쉬운성경: 알맞은 가정; 우리말성경: 안식처; 공동번역: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

2) 3:3 "목욕하고 기름바르고 의복입으라"는 의미는?

① 겔 16:8-13 처럼 신부로서 단장하고 가라

② 유딧서(Judith) 10:4 처럼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잘 차려 입으라

③ 삼하 12:20 에서 다윗이 아기가 죽은 후에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룻이 과부의 옷(창 38:14, 19)을 벗고 애곡의 기간을 끝내고 결혼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3) 3:4 "눕다, 알다, 발치, 들치다"

① 성적 뉘앙스:

② 저자의 문예적 창작성:

③ 룻의 동작이 암시하는 것:

3.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들

4.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의 위험천만한 요소들

5. 룻의 대답이 보여주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룻 3:6-15 (3 막 2 장)

1. 내용

1) 구조

① 장소적 수미쌍관법(topological inclusio)

- 3:6 룻: ( )으로 내려갔다.
- 3:15 보아스: ( )으로 들어갔다.

② 룻의 행동과 말 그리고 보아스의 말과 행동 (괄호에 절 표시)

- A 내러티브 서술: 룻의 행동(3:)
- X 룻과 보아스의 대화(3:)
  - B 대화: 룻의 말(3:)
  - B' 대화: 틀이 있는 보아스의 말(3:)
- A' 내러티브 서술: 보아스의 행동(3:)

2) 나오미의 지시(3:3-4)와 내레이터의 행동 묘사(3:7)에서 차이가 있는 3 가지 사항

3) 룻의 요구

① 나오미의 지시(3:4)에 없었으나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3:9)

② 룻이 제시한 청혼의 이유(3:9)

4) 보아스의 동의

① 틀: 축복(3:10)

② 보아스가 한 축복과 칭찬(3:10)

③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며 기업무를 자로서 약속한 말(3:11)

④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와 관련하여 한 말(3:12-13)

⑤ 틀: 맹세(3:13)

5) 새벽에 룻이 취한 행동과 보아스의 생각(3:14)

6)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보내기 전에 한 일(3:15)

2. 어구 설명

1) [3:7-8, 11] 2 중적 의미의 단어: 눕다, 발치, 들치다, 알다

2) 3:8 보아스의 놀람의 원인

3) 3:9 "당신의 시녀[아마]": (개역: 시녀; 개역개정: 여종; 새번역/쉬운성경: 종; 공동번역: 비녀) (cf. "이방 여인" [노흐리야] (2:10); "하녀" [시프하] (2:13); "고인의 아내(4:5), "말론의 아내(4:10)")

4) 3:9 "옷자락으로 덮다"의 의미 (?? 쉬운성경: 이불로 덥다)

5) 언어유희: 2:12 여호와의 날개—3:9 보아스의 옷자락: [카나프]

6) 3:10 덕망있는 여인 (개역/개역개정: 현숙한 여자; 새번역/우리말성경: 정숙한 여인; 쉬운성경: 착한 여자) (cf. 2:1 덕망있는 사람 보아스)

7) 3:12-13 기업 무름

8) 3:13 "묵다"(개역/개역개정: 머무르다; 새번역/쉬운성경: 지내다; 우리말성경: 있다)와 "눕다"의 차이

9) 3:15 숄 (개역/개역개정/새번역/우리말성경/쉬운성경: 겉옷)

10) 3:15 여섯 번 되어 준 보리(여섯 됫박의 보리, 여섯 스아)

3. 타작 마당에서 성적 불륜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 주는 내레이터의 암시들

4.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헤쎄드(한결같은 인애)

5. 3 장에서 기업무름과 관련한 나오미와 룻의 의도와 보아스의 해석

6. 타작 마당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1)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나선 때와 하나님의 때

2) 나오미와 룻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3) 하나님의 보호 조치들

7. 기업무를 자로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말과 행동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8. 보아스가 룻을 통해 보낸 보리 선물의 의미

9. 언약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들이 주는 교훈

10. 기업무름과 수혼의 제도의 한계와 더 큰 기업 무를 자로서 그리스도

11.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져야 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구원 받은] 신자에 대한 태도

룻 3:16-18 (3 막 3 장)

1. 내용
   1) 나오미가 집에 돌아온 룻에게 던진 질문(3:16)
   2) 룻의 대답을 전하는 내레이터의 서술 방식
      ① 간접화법 = 말해 주는 것 = 요약 묘사(3:16):
      ② 직접화법 = 보여 주는 것 = 극적 묘사(3:17)
         - 룻의 말(극적 묘사):
         - 룻이 전하는 보아스의 말(극적 묘사 중의 극적 묘사):
   3) 나오미의 지시(3:18)
2. 어구 설명
   1) 3:16 “너는 어찌되었느냐? (직역: 너는 누구냐?)”
   2) 3:16, 18 “그 사람” (= “그 양반”)
   3) 3:18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4) 3:18 “오늘”
3. 룻의 정체와 관련된 질문과 답의 비교를 통한 룻의 지위/신분 상승
   1) 2:5-6 보아스: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 — 종: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여자입니다.”
   2) 3:9 보아스: “당신은 누구요?” — 룻: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으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3) 3:16 나오미: “내 딸아, 너는 어찌되었느냐? (직역: 너는 누구냐?)” — 룻: 보아스의 행동 묘사와 보아스의 말 전달
4. 보리 선물 자체보다 보리 선물을 보내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것
5.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들
6.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확신의 이유
7. 1-2 막의 마감 방식과 3 막의 마감 방식의 차이

룻 4:1-8 (4 막 1 장)

1. 내용
   1) 보아스가 장로들을 모은 방법(4:1)
   2)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게 제시한 기업 무름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일(4:3-4)과 두 번째 일(4:5)
   3)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두 가지 일에 대한 반응(4:4; 4:6)
2. 어구 설명
   1) 성문(4:1)
   2)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아무개씨에게)"와 "여기 좀 앉으시오(장로들에게)"의 차이(4:1)
   3) "아무여 [플로니 알모니]"(4:1)
   4) "[마흐라] 그녀가 팔았다(용익권을 내놓았다)."(4:3)와 "[크네] 사시오(취하시오)."(4:4)
   5) "앉아 있는 사람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4:4)—장로들과 모든 백성(4:9)
   6) 비교
      ① 개역개정: "내가 무르리라" vs. 번역: "**내가 무르고 싶소**" (4:4
      ② 개역개정: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 . .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vs. 번역: ""[그렇다면] 나는 **친히** 무를 **수 없겠소**. . . .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
   7) "**당신이 친히** 무르시오(4:6)."와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4:8)."
   8) 신발 벗는 관습: 쌍방 행위? 일방 행위? 신발 벗는 것이 상징하는 것?(4:7)
   9) 전달문에 나오는 대화 당사자들(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의 묘사에 있어서 4:3-6 과 4:8 의 차이
3. 보아스의 재치있는 접근으로 인한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가 직면한 딜렘마
4. 기업 무를 자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유
5.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차이
6. 룻과의 결혼(기업 무름을 위한 결혼, 수혼적 책임)
7. 성문에 앉아 있는 백성과 장로들의 역할
8. 대조인물인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의 대조
9. 희생과 타인에 대한 관심의 관점에서 보는 보아스와 그리스도

룻 4:9-12 (4 막 2 장)

1. 내용
   1) 보아스의 말(4:9-10)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동일한 문:

2) 보아스가 넘겨 받은 두 가지 의무 사항을 언급할 때 정확성과 세밀성과 최종성을 천명하기 위해 추가한 것들(4:3, 5 vs. 4:9-10)

3)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문(4:11-12)

① 룻의 다산을 비는 축복문

② 보아스가 누릴 복을 비는 축복문 1

③ 보아스가 누릴 복을 비는 축복문 2

2. 어구 설명

1) 엘리멜렉과 기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4:9)

2) "내가 샀다[카니티]" (4:9, 10)

3) 그의 문중 형제들과 그의 고장 성문에서 (개역개정: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4:10)

4) 집을 세우다(4:11)

5) 번창하다(개역개정: 유력하다) (4:11)

6) 다말

7) 베레스

3. 아담/하와 그리고 이삭/리브가의 결혼에 비추어 보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4. 축복문(4:11-12)과 긴 족보(4:18-22)와의 연관성

5. 후사 문제에 대한 유다와 다말의 태도(창 38 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룻 4:13-17 (종막)

1. 내용

1) 내레이터의 말로 묘사된 하나님의 사역(4:13)

2) 베들레헴 여인들의 합창(4:14-15)

① 찬양:

② 근거:

③ 아이에 대한 축복과 이유:

④ 룻에 대한 칭찬:

3) 나오미가 아기에 대하여 취한 행동(4:16)

4) 베들레헴 여인들의 작명(4:17)

5) 짧은 족보(4:17)

2. 어구 설명

1) 여호와를 찬양합니다(4:14)

2) 보아스에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길”(4:11) vs. 오벳에게: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길(4:14)

3) “두 아들” (1:5)과 “아기” (4:16) [번역: “두 자식” “자식”]

4) 네 생명의 회복자(4:15)

5) 네 노년의 봉양자(4:15)

6) 네 사랑하는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4:15)

3. 1 장과 4 장에서 베들레헴 여인들과 나오미

4. 나오미가 그 자식을 안은 행동에 대한 적절한 해석

5. 오벳이란 이름의 뜻

6. 오벳 탄생의 의의

7. 짧은 족보의 의의

8. 룻이 받은 온전한 상

9. 시편과 잠언에 비추어 본 보아스의 삶

10. 복의 통로로서 보아스

11.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결같은 인애의 중요성

12. 룻기와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

룻 4:18-22 (코다)

1. 내용

1) 족보의 전체 대수(代數 4:18-22):

2) 1 대 인물:

3) 7 대 인물:

4) 10 대 인물:

2. 간단한 인물 설명

1) 베레스(4:18)

2) 암미나답(4:20 cf. 출 6:23)

3) 나손(4:20 cf. 민 2:3; 7:12, 17; 10:14; 대상 2:10)

3. 룻기의 3 중 마감(4:13-17c; 4:17d; 4:18-22)

4. 긴 족보(4:18-22)는 룻기에 원래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후대에 첨가되었는가?

5. 족보(4:18-22)와 내러티브(1:1-4:17)의 밀접한 연관성

6. 10 대로 이루어진 긴 족보(4:18-22)에서 7 대와 10 대의 중요성

7. 창세기 5 장의 족보와 룻 4:18-22 의 족보에 대한 간단한 비교

8. 긴 족보(4:18-22)의 목적

9. 긴 족보(4:18-22)가 하나님에 관하여 주는 교훈들

10. 룻 4:18-22 과 마 1:1-17

기말고사 문제

총론

1. 눅 24:44 과 TaNaK 의 세분(細分)

2. 룻기의 정경상의 위치

3. 룻기의 저자

4. 룻기의 저작 목적과 저작 시기

5. 룻기의 장르

6. 룻기의 줄거리

7. 룻기의 역사성

8. 핵심 단어들을 통한 룻기의 주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애) 설명

   1) [옐레드] 1:5 자식 (개역: "아들") — 4:16 자식 (개역: "아기")

   2) [아도나이] 1:6 양식 주신 여호와 — 4:13 아들 주신 여호와

   3) [카나프] 2:12 여호와의 날개 — 3:9 보아스의 옷자락

9. (내레이터, 등장 인물 자신, 그리고 다른 등장 인물이 사용한) 등장 인물의 칭호들

   1) 나오미

   2) 룻

   3) 보아스

10.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기업무를 자([고엘]로서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 비교)

11. 룻기와 [헤쎄드]

12. 룻기의 하나님

13. 기독교: 예수님=기독님

본문비평

14. 룻 4:18-22 은 원 저자의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첨가한 것인가?

15. 룻 2:7

문예적 기교 (설명과 예 제시)

16. 수미쌍관법(inclusio)

1) thematic inclusion (룻 1:5 "두 아들"과 4:16 "아기")

2) theological inclusio (룻 1:6 과 룻 4:13)

17. 역순대구법(chiasmus)
18. 양극포괄법(merismus)
19. 제유(synecdoche)
20. 각운(rhyme), 두운(alliteration), 유운(assonance)
21. 룻 2:3 "우연히"와 룻 3:18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내러티브 해석 원리

22. 내러티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흔히 범하는 오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5 장 설화)
23. 내러티브의 해석 원리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5 장 설화)
24. 내러티브에서 대화의 중요성
25. 내레이터의 묘사 방식: 말해 주는 것(telling)과 보여 주는 것(showing) // 논평(comment), 보충설명(description), 요약묘사(말해 주는 것 telling; straight narration), 극적묘사(보여 주는 것 showing; dramatic depiction)
26. 화면 분할(split screen) 기교와 관점의 비교
27. [히네]와 관점
28. 장면 구분: 룻기의 장면들
29. 내러티브와 시간 (narration time 전달시간=내레이터의 진술의 소요 시간 vs. narrated time 피전달시간= 사건의 실제 소요 시간)

1) 내레이터의 사건 전달 순서의 자유

2) 내레이터의 사건 내용 진술의 선별

3) 내레이터의 사건 전달 속도의 조절

30. 중심 인물로서 나오미와 주인공으로서 룻에 대한 인물묘사(Berlin)

내러티브의 암시적 교훈

31. 룻이 참으로 여호와를 믿은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32. 룻(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일을 통해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33. 신입 교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은?
34. 베들레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35. 룻 2:3 "우연히"와 룻 3:18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라는 어구가 주는 교훈
36. 하나님께서 [헤쎄드]를 실천한 보아스에게 주신 상은?

37. 축복 기도대로 된 일들은?

38. 두 쌍의 인물, 즉 룻과 오르바, 그리고 무명의 기업무를 자와 보아스의 대조를 통해 저자가 주려는 메시지는?

주해

39. 이웃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40. 고난에 대한 나오미와 룻의 반응의 대조

41. 오르바와 룻의 차이

42. 룻 1:15-18(개역)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룻 1:15)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 룻의 말 가운데 양극 포괄법(merismus)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시오.

2) 룻의 말은 축이 있는 교차대구(chiasmus)를 이루고 있다. 이 기교를 알아보기 쉽게 배열하고 설명하시오.

3) 룻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결단(창 12:1-9)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 룻의 이 말을 결혼식에서 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가?

43. 나오미의 불평(1:20-21)과 내레이터의 요약 묘사(1:22)의 대조

44. 룻 2:3 의 해설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

45. 보아스의 룻에 대한 한결같은 인애[헤쎄드]: 보아스가 보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46. 룻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룻의 성품들"

47.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평가하는 2 막 3 장에서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48.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가 나오미에게 주었던 영향

49.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의 위험천만한 요소들

50. 타작 마당에서 성적 불륜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 주는 내레이터의 암시들

51.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헤쎄드(한결같은 인애)

52. 3 장에서 기업무름과 관련한 나오미와 룻의 의도와 보아스의 해석
53. 기업 무를 자로서 보아스와 그리스도의 비교
54. 보아스의 재치있는 접근으로 인한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가 직면한 딜렘마
55.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차이
56. 성문(장소)과 당사자들과 증인(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이스라엘 재판 과정
57. 1 장과 4 장에서 베들레헴 여인들과 나오미
58. 족보와 내러티브의 밀접한 연관성
59. 긴 족보가 하나님에 관하여 주는 교훈들: Narrative 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라는 사실과 밑줄 친 단어에 보다 유의하면서, 룻 4:18-22 를 간단히 주해(석의 + 강해)하시오.

(룻 4:18-22) 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BEST (Bible Exposition Spirit Transformation)

룻기 강좌를 수강하며 배운 것과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

Version II

룻 1:1-5 (서막)

퀴즈와 본문(1:1-5)의 의미

1. 내용

1) 사사 시대(삿 1:1; 2:8-10; 17:6; 21:25; 18:1; 19:1; 삼하 7:11; 왕하 23:22; 대상 17:6, 10; 행 13:20-21)

① [왕하 23:22] ( )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② [삿 1:1] ( )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삿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 )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삿 1:1-3:6 ( )가 없는 시대
- 삿 3:7-16:31 ( )가 있는 시대
- 삿 17:1-21:25 ( )이 없는 시대

③ [행 13:20-21] 그 후에 선지자 (　　)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　　)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④ 사사 시대는 (　　) 죽음 이후부터 (　　)왕 등극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2) 사사기 개관

① 사사기는 이중 서론(1:1-2:5; 2:6-3:6)과 이중 결론(17:1-18:31; 19:1-21:25) 사이에 본론(3:7-16:31)이 들어 있는 3 부 구조로 되어 있다. 사사기의 틀은 [　　]의 없음(1:1 A)과 [　　]이 없음(21:25 A'), 그리고 [　　] 지파의 외전 선두(1:1-2 A)와 [　　] 지파의 내전 선두(20:28 A')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② 서론와 결론의 결과는 서로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 (　　)가 없는 결과로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못하고(1:1-2:5 A)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배교가 일어나며(2:6-3:6 B) (　　)이 없는 결과로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는 배교가 일어나고(17:1-18:31 B') 지파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19:1-21:15 A').

③ 본론(3:7-16:31)은 서론의 첫째 부분(1:1-2:5)처럼 언급된 지파의 순서와 남에서 북으로의 이동 면에서 유다로 시작하고 단으로 마친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학적 관점을 언급하는 서론의 둘째 부분(2:6-3:6)은 본론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범죄-진노-압제-부르짖음-구원-재범죄"라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본론은 기드온 내러티브를 축으로 하는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

A. 옷니엘 (3:7-11): 유다 지파
B. 에훗 (+ 삼갈 3:12-31): (　　)지파
C. 드보라, [바락, 야엘] (4:1-5:31): (　　)지파
X. 기드온 (6:1-8:32): 전환점, 축: (　　)지파
C'. 아비멜렉 (+ 돌라, 야일 8:33-10:5)
B'. 입다 (+ 입산, 엘론, 압돈 10:6-12:15): (　　) 지파
A'. 삼손 (13:1-16:31): 단 지파

④ 결론에는 "그 때에 (　　)이 없었다."는 주제 공식이 4 번 등장하고 첫째 부분(17:1-18:31)과 둘째 부분(19:1-21:25) 사이에 민족 전체에 영향을 준 두 (　　)지파 사람이 나오고 실로가 언급되는 공통점이 있다.

3) 모압인

① 모압인들은 태생에 있어서 (　　)과 그의 큰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후예들이다(창 19:30-38).

② 모압인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했었다(민 22-24 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　　)이 모압왕 발락에게 준 꾀로 인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고 바알 브올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염병으로 이만 사천 명이 죽었다(민 25:1-9; 민 31:16).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　　)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시므온 지파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 수령 수르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 풍요를 위한 음행을 할 때 창으로 그 남녀의 배를 뚫어 죽였을때 염병이 그쳤다.

③ 모세는 모압 사람들이 (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총회에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였다(신 23:3-6).

④ 사사 시대에 모압 왕 (　　)이 18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삿 3:15-20).

4) 칭호와 소유격 사용에 유의하면 내레이터는 가장의 이름이 (　　)임을 말하고 이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인 것을 밝히고(1:2)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　　)과 (　　)임을 밝힌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이 가장의 죽음을 전할 때 그를 "나오미의 남편"으로 묘사하고(1:3), 그 이후 두 아들을 묘사할 때 "(택일 문제: [아버지와 관련하여] **그의(=그 남자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그의(=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부른다(1:3, 5). [참고: 2 절과 3 절에 개역 개정은 "그의"를 사용했고, 개역과 우리말성경은 "그"를 사용했다. 5 절에 개역/개역개정/우리말성경은 소유격을 밝히지 않았다. 새번역은 세 절 모두 소유격을 밝히지 않았다.] 내레이터는 두 자식 잃고 남편 여읜 나오미를 이름 대신 (　　)이라고 부른다(1:5).

5) 4:10 에 의하면 룻은 (　　)의 아내이다. 오르바와 룻 중 누가 손윗 동서인가?

6) (1:3) A "남편"—B "두 아들"—(1:5) B' "두 자식"—A' "남편"으로 배열된 문예적 기교는 (　　)이다.

2. 어구 설명 [암시적 교훈]

1) "사사 시대(룻 1:1 cf. 삿 17:6; 21:25)"와 "다윗(룻 4:17, 22)"과의 연결하여 보는 룻기의 관점은?

2)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1:1 cf. 창 12:10; 26:1)는 표현에서 보는 창세기와의 연관성은?

3) "유다 베들레헴"(1:1)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1:2 cf. 삼상 17:12)이 거듭 언급된 의도는?

4) "십년 쯤"(1:4)—모압에 거주한 총 햇수인가? 결혼하여 산 총 햇수인가?

5) 아들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인 [벤](두 아들 [바네하]) 대신 [옐레드]를 사용하여 1:5 에서 "두 아들(1:5 **자식** [열라데하])"과 4:6 에서 "아기(4:16 **자식** [하-옐레드])"를 표현하는 언어유희는 (　　)이다.

1:1-2 [바나브] 그의 아들들

1:3 [바네하] 그녀의 아들들

1:5 [열라데하] 그녀의 자식들(개역개정: "두 아들") = (　　)과 (　　)의 죽음: 가문 멸절 위기

cf. 4:16 [하옐레드] 그 자식(개역개정: 그 아기) = (　　)의 탄생: 가문 멸절 위기 극복

6) "그 여인(1:5)"이란 칭호가 주는 의미는?

7) "남았다(1:3, 5)"는 동사가 주는 느낌은?

3. 오르바와 룻이 각각 누구의 아내인지(cf. 4:10) 밝히지 않은 이유

4. 나오미가 룻기의 중심 인물이란 단서들

5. 인식의 관점과 흥미의 관점

6. 서막(1:1-5)과 코다(4:18-22)의 관계

본문(1:1-5)의 교훈

1. 서막의 의도
2. 하나님의 섭리: 죽음과 생명의 연관성(cf. 스데반과 사울)
3. 이웃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룻 1:6-18 (1 막 1 장)

퀴즈와 본문(1:6-18)의 의미

1. 줄거리(1:6-18)
   1)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고향에 (　　)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선다(1:6-7). 노상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기 (　　)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그들이 죽은 자와 자기에게 한결같은 (　　)를 베푼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길 빌면서 좋은 (　　)을 만나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기도한 후 작별 인사를 하지만 두 며느리는 울며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　　)"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1:8-10).
   2) 나오미는 다시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수혼을 통한 재혼의 소망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　　)이 치신 그녀의 삶은 함께 나누기에 너무 (　　)한 것이니 돌아가라고 설득한다(1:10-13). 이에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바싹 달라붙는다(1:14).
   3) 이 때 다시 나오미는 룻에게 그녀의 백성과 (　　)에게로 돌아가는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권면한다(1:15).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더러 떠나라는 말씀하지 말라고 하며(A) 살아서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고(B) "당신의 백성이 나의 (　　)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　　)"이고(X) 죽어서도 나오미와 함께 장사될 것이고(B') 죽음이외에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A') (　　)의 이름으로 맹세한다(1:16-17).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1:18) 룻과 함께 (　　)으로 돌아온다(1:19a).
2. 나오미의 세 번의 권면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1:8-9, 11-12, 15)는 동사 (　　)이다. 세 차례 주고받은 대화로 인한 세 여인의 관계의 변화를 살피면 첫 대화의 결과는 1:2(1+1) 즉 나오미의 권면을 이구동성으로 거절한 두 며느리의 연합을 보이고, 두 번째 대화의 결과는 1:(1:1) 즉 (　　)는 시모를 떠나고 (　　)은 시모에게 남는 동작[며느리들의 분리]을 보이고, 세 번째 대화의 결과는 2(1+1):1 곧 (　　)와 (　　)의 연합과 떠난 며느리의 대조를 보인다.
3. 나오미의 첫 번째 권면(1:8-9)의 구조: 명령+축복+기도
   1) 명령: **자 어서, 너희들은 각각 (　　)의 집으로 돌아가라.**

-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　　)의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 시어머니인 자신과 친정 어머니를 비교하며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임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2) 축복: **너희가 죽은 자[=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　　)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　　)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3) 기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새] (　　)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4) 참고: [헤쎄드] 번역 (1:8[아싸+헤쎄드]; 2:20[로-아자브 + 헤쎄드]; 3:10[헤티브+헤쎄드])

① 개역/개역개정: 선대하다(1:8)—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2:20)—(베푼) 인애가 더하다(3:10)

- [1:8]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 [2:20]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 [3:10]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② 새번역: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다(1:8)—한결같이 자비를 베풀다(2:20)—(보여준) 갸륵한 마음씨가 더욱더 값지다 (3:10)

- [1:8]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 [2:20]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 [3:10] 지금 그대가 보여 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 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③ 우리말성경: 잘해 주다(1:8)—친절을 베풀더니 그칠 줄 모르다(2:20)—아름다운 마음씨가 더 크다(3:10)

- [1:8]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 [2:20]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 [3:10]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 준 것보다 더 크오.

④ 번역: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다(1:8)—한결같은 인애를 버리지 않다(2:20)—한결같은 인애가 더 좋다(3:10)

- [1:8]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
- [2:20]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하여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직역: 한결같은 인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3:10] 당신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었소. (직역: 당신은 당신의 나중의 한결같은 인애를 처음 것보다 더 좋게/낫게 하였소. → 당신의 한결같은 인애는 이전 것보다 지금 것이 더 좋소/더 좋은 것이오.)

5) 참고, [헤쎄드]의 의미: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삶을 한결같은 인애의 삶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룻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한결같은 인애"로 통일하여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חֶסֶד[헤쎄드]는 1:8 과 2:20 그리고 3:10 등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나온다. *NIDOTTE*(2:211 #2874)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46 번 사용되었고 그 절반 이상이 시편에 나온다. 이 단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거나 사람들(신실한 자,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는데 1:3 의 비율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묘사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한결같은 인애는 존재하는 관계 안에서 행하여지는 덕목이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가 아니고, 용서를 베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아니며, 불시에/뜻밖에(out of the blue) 주어지는 행위가 아니다(Sakenfeld, 24). 일반적으로 한결같은 인애는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수혜자가 절박한 필요를 채워야 할 입장에 있고 시혜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책임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수혜자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며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을 넘어선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4.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1:11-13)의 구조

1) "**돌아들 가라, 내 딸들아**(11 절)," + 내용: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몸 안에 아들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　　)들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① 개역개정의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는 가려는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는 설유의 뜻을 갖는다.

② 나오미가 자신의 몸 안에 아들들이 없어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신명기 25 장에 나오는 (　　)을 염두에 둔 말이다.

2) "**돌아들 가라, 내 딸들아**(12 절)," + 내용: **어서 가거라. 그것은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　　)었기 때문이다. 설령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오늘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아들들을 낳는다고 가정해 보자. 1:13 (　　)을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　　)을 너희가 바라보며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① (개역개정) "나는 (　　)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는 말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　　)었다"는 뜻이다.

② (개역개정) 1:8 의 "**돌아가라**"와 [1:11 의 "내 딸들아 돌아가라"와] 1:12 의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와 1:8 의 [레흐나 쇼브나]에 대한 중언법을 반영한 "**자 어서, 돌아가라.**"와 [1:11 [쇼브나

브노타이]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와 1:12 의 중언법이 아닌 [쇼브나 브노타이 레흐나] "**돌아들 가라, 나의 딸들아. [어서 돌아] 가거라.**" 를 잘 비교해 보라.

3) "**아서라, 내 딸들아**(13 절하)" + 내용: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　　)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　　)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참고: 1:13 (כִּי־מַר־לִי מְאֹד מִכֶּם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키-마르-리 므오드 미켐 키-야츠아 비야드-아도나이]

① RSV, JB, GNB: "*For* things are very bitter for me because of you" (causal מִן WHS 319, 515)

- 개역개정: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 새번역: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 우리말성경: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② NJPS, NASB, NEB, NIV, Campbell, Hubbard, Sasson: "*For* things are far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상대비교 simple comparative מִן WHS 317): 왜냐하면 처지가 너희의 경우보다 나의 경우가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나의 처지가 너희 처지보다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③ NAB, Joüon, Bush: "*For* things are too bitter for me for you (to share)" (절대비교 absolute comparative, elative מִן WHS 318; comparative of compatibility, IBHS 4.4f) 왜냐하면 처지가 나의 경우에 있어서 너희가 나누기에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나의 처지가 너희들이 나누기에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

- 번역: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5. 나오미의 세 번째 권면(1:15)과 룻의 대답(1:16-17)의 "장군!—멍군!"과 같은 상응 부분

1) 나오미: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　　)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2) 룻: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　　)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　　)이십니다**

3) 나오미가 언급한 신의 이름은 (　　)이고 룻이 언급한 어머님의 하나님의 이름은 (　　)이다.

6. 룻의 고백(1:16-17): 축이 있는 역순대구구조(chiasmus A-B-X-B′-A′)

A　1:16b　시작하는 명령문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더러 어머님을 버리며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B　1:16cd　한 쌍의 동사문 (살아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묵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X 1:16ef 한 쌍의 명사문 (민족과 종교의 벽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 )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 )이십니다.

B' 1:17ab 한 쌍의 동사문 (죽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A' 1:17cde 마감하는 맹세문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 )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죽음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일로 인해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1) 룻의 말 가운데 양극포괄법(merismus)을 보이는 것은?

2) 룻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결단(창 12:1-9)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3) 룻의 이 말을 결혼식에서 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가?

4) 룻이 참으로 여호와를 믿은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5)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그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라는 말이 보여주는 배경으로서 장례의 관습을 설명하면?

본문(1:6-18)의 교훈

1. 하나님의 이름 언급에 의한 수미쌍관법(theological inclusio: 룻 1:6 과 룻 4:13)
   - **1:6 그러던 어느 날 그녀[=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 )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올 채비를 차렸다.**
   - **4:13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랬더니 ( )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2. 내러티브에서 대화의 중요성
3. 고난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과 룻의 반응
4. 나오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들
5. 룻과 오르바의 대조를 통해 저자가 주려는 메시지는?
6. 룻(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일을 통해 저자가 주고자하는 메시지는?
7. 룻의 믿음에 들어 있는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와 참된 믿음의 세 요소는?

8. 우리의 현재의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는?

룻 1:19-22 (1 막 2 장)

퀴즈와 본문(1:19-22)의 의미

1. 내레이터의 요약 묘사(1:19a): **이에 그 두 사람은 ( )에 이를 때까지 길을 행하였다.**
   내레이터가 나오미와 룻의 ( ) 도착을 설명할 때 고부 관계가 드러나는 1:6-7 에서 [이름이 밝혀진] "나오미"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녀의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 두 사람** [시테헴]"이라고 부른 것은 그 두 여인이 이제 공통된 운명에 묶여 있음을 암시한다.

2. 고향 여인들의 반응(1:19b-f): **그들이 ( )에 이르렀을 때에 온 ( )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하며(여성 단수) 말하였다(여성 복수).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1) 룻을 동반한 나오미의 갑작스러운 귀향에 대하여 온 ( )이 놀람과 기쁨으로 인해 떠들석했고(여성 단수),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여성 복수). 전체(온 성읍)를 통해 부분(성읍의 여자들)을 나타내는 것 혹은 그 반대로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제유(synecdoche)라고 부른다.

   2) 동사 "떠들썩하다"는 ( )가 진에 들어 올 때 땅이 울리는 것(삼상 4:5)과 ( )을 왕으로 삼고 무리가 즐거워할 때 성중이 진동한(왕상 1:45)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다. 나오미가 10 년 전에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간 이래 그녀가 겪은 슬픔에 대하여 친척들이 들었을 것이므로 나오미가 이렇게 갑자기 알리지 않고 ( )에 나타난 것은 성읍 여인들의 놀라움, 흥분, 반가움 등의 감정을 자아내게 하였을 것이다. 나오미의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는 귀향에 대한 고향 여인들의 놀라움과 반가움은 나오미를 보았을 때 서로 서로에게 하는 질문 즉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에 잘 반영되어 있다.

3. 나오미의 말(1:20-21):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고 ( )라고 불러 주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 )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 )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

   1) 1:20 과 1:21 은 각각 ( )을 뜻하는 나오미란 이름을 통한 언어유희(W-W')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 )대구를 이루고 있다.

      W 언어유희(word play)

      20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고 ( )라고 불러 주오."

      AB 전능자—( )

20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　　)께서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W' 언어유희(word play)

21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

B'A' 여호와—(　　)

21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21 (　　)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

2) 여호와=언약의 하나님

① [출 3:14] [개역개정]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새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칠십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② [출 6:2-4]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　　)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　　)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　　)을 기억하노라

3) "전능자" 혹은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 (　　)의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① **전능자**([샤다이])는 구약 성경에 48 번 사용되었다. 창세기(17:1; 28:3; 35:11; 43:14; 48:3) 그리고 출 6:3 그리고 겔 10:5 에서는 [엘 샤다이]로 나오고, 욥기(31 번)를 비롯한 나머지 경우는(창 49:25; 룻 1:20, 21; 겔 1:24; 사 13:6; 욜 1:15; 민 24:4, 16; 시 68:14[MT 15] 등) 단독으로 나온다.

②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전능자"는 복을 주시고 장래에 일어날 위대한 운명을 약속하시고(창 17:1; 28:3; 35:11; 43:14; 48:3-4), 의인과 악인에게 임할 운명을 정하신다(욥 27:14; 31:2). (　　)의 통치자로서 "전능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며(욥 6:4; 23:16; 27:14-23; cf. 그의 목소리의 두려움, 겔 1:24; 10:5) 공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주관하신다(욥 8:3; 24:1; 27:2). 사람들은 "전능자"에게 변호와 구원을 위한 호소를 드린다(욥 8:5; 13;3; 31:35).

③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　　)에게 말씀하실 때 한번(17:1) 사용되고 나머지 5 번은 야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사용하셨고(35:11),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한 번 사용하였고(28:3), 야곱이 스스로 3 번(43:14; 48:3; 49:25)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를 사용하였다. 창 43:14 을 제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란 칭호는 5 번 모두 번성할 (　　)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이 중 세 번은 "축복하다(28:3; 48:3;

49:25)"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다(Hamilton, 463). 민수기에서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24:4, 16)"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었다. "전능자"는 사 13:6; 욜 1:15; 욥 5:17 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겔 1:24; 10:5; 시 68:15; 91:1 에서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4) 나오미는 13 절에서 며느리들에게 "[마르-리 므오드] 나의 삶이 너희들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했었다. 20 절에서 나오미는 "전능자"를 주어로 삼고 [나오미 대신 사용하라던] ( )와 어근이 같은 사역 능동 어간 동사 "[헤마르] 비참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비통하게 하다"를 써서 "**전능자께서**" 자신을 매우 "**비참하게/비통하게/슬프게/쓰라리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13 절에서 막연하게 "여호와의 손이 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나오미는 여기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전능자께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한다.

5) 나오미는 재빨리 그녀의 비참함을 확대하면서 타향살이 갈 때를 떠올린다. 나오미가 타향살이를 떠날 때는 남편 엘리멜렉도 있었고 아들들 말론과 기룐도 있어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행복하며 "**풍족하였다**." 기근이나 타향살이도 그저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 풍족함만 있으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여호와를 원망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던 그녀가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남편 죽고 아들들마저 죽었기에 나갔던 자들 중에서 오직 그녀만이 생존하여 홀로 **( )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양식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문제 있어서 나갈 때 풍족한 나오미가 텅 비어 돌아왔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나오미의 말을 원문의 순서대로 "내가(X [아니]) 풍족하게-나갔다(Y [믈레아-할라흐티]). 그렇지만-( )으로-나로-돌아오게-하셨다(Y' [브레캄-헤시바니]) 여호와께서(X' [아도나이])."이다. 이 어순은 주어(X)-부사+동사(Y)—부사+동사(Y')-주어(X')라는 교차 대구를 보이고 있다. 첫째 문의 주어 [아니] ("**나**"=나오미)와 둘째 문의 주어 [아도나이]("**여호와**")는 각각 처음과 끝(양극)을 차지하며 서로 대적이 되게 하는 효과를 준다. "**나**"와 "**여호와**"의 대조를 통하여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미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풍족에서 텅빔에로의 극적인 변화를 여호와의 탓으로 돌린다. 즐거운 일이었어야 할 귀향은 나오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녀로부터 빼앗아 가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였다. 그러나 나오미가 우주에 어떤 다른 힘이 없음을 인식하고 어떤 것도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돌린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점이다(Hubbard, 126).

6) 나오미는 다시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소**?"라는 수사의문문을 통하여 자신을 나오미로 부를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하며 그 이유를 말한다.

① 나오미는 법정에서 고소와 증거가 그녀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법적 행위에 대한 피고인 것처럼 묘사하며 증인으로서 "[바도나이 아나 비]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심판주로서 "[브샤다이 헤라 리] ( )**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말이오**."라고 말했다. 제 9

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출 20:16; 신 5:20)"고 할 때 그리고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민 35:30)"에서 한 증인의 증거를 언급할 때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한 아말렉 소년을 죽일 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라고 말할 때 룻기에서처럼 [아나 브]가 사용되었다.

② KB(II: 1270)는 הֲרַע[헤라]를 "to do evil, treat badly"라고 풀이하고 הֲרַע לְ[헤라 르]의 의미를 "to do something bad to someone"이라고 풀이하고 룻 1:21 을 비롯하여 창 19:9; 43:6; 출 5:22-23; 민 11:11; 20:15; 수 24:20; 삼상 26:21; 렘 25:6; 슥 8:14; 시 105:15 등을 예로 들었다. 허버드(127)는 어근 רעע[라아]의 사역능동(Hifil)어간 동사와 전치사 ל[르]가 결합된 어구 הֲרַע לְ[헤라 르]의 주어로 여기서는 전능자가 나왔지만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주어로 12 번 모두 여호와가 나왔다고 설명한다. 룻기의 이 어구는 여호와께서 부당하게 벌을 주셨다고 불평하는 문맥에서 쓰인 구절들(출 5:22; 민 11:11; 왕하 17:20; 시 44:2[MT 3])을 생각나게 해 준다.

4. 내레이터의 해설(1:22):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 때] ( ) 여인 룻, 그녀의 ( )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면] ( ) 땅에서 돌아온 여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때는 ( )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1) 1:22 은 1:6 과 세 단어[두 단어는 똑같고 한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관련이 있음]를 통해 수미쌍관법을 이루는데 첫 번째 단어는 "돌아오다"이고 두 번째 단어는 "모압 땅"이고 세 번째 단어는 1:6 의 ( )과 1:22 의 보리이다.

2) 내레이터의 설명(1:22)은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이 ( ) 여인 룻이고, 그녀의 ( )이고, ( ) 땅에서 돌아온 여자라고 [세 번 동격을 사용하여] 말함으로써 (나오미, 룻)의 돌아옴을 강조함으로써 룻이 함께 하는 한 나오미가 빈 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을 "[개역개정]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과 비교해 보라.

본문(1:19-22)의 교훈

1. 나오미의 말(1:20-21)에 대한 평가(cf. 욥 1:21-22; 2:10)
2. 나오미의 시각과 내레이터의 시각
3.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의 은택의 표징(1:22)
4. 하나님의 섭리
   1) 정의
   2) 근거와 목적

3)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주는 교훈

룻 2:1-3 (2 막 1 장)

퀴즈와 본문(2:1-3)의 의미

1. 룻기 2 장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보리와 ( ) 추수를 마치는 것으로 끝난다.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2 장은 보아스를 소개하는 설명(2:1)과 룻이 처음으로 보아스를 만난 것을 포함한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한 ( )의 해석(2:20-22)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2. 제 2 막(룻 2:1-23)의 각 장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 장면(2:1-3)은 이삭 주우러 나선 룻이 (의도적으로, 뜻밖에도=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 )인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
   2) 제 2 장면(2:4-17)은 보아스가 룻을 밭에서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을 보여준다.
   3) 제 3 장면(2:18-23)은 ( )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평가하며 보아스를 일가붙이 그리고 기업 무를 자로 언급하는 것을 보여준다.
   4) 구조적으로 보면 2 막 1 장(2:1-3)과 2 막 3 장(2:18-23)이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 짧은 장면으로 시작과 마무리라면 그 중앙에 있는 2 막 2 장(2:4-17)은 룻이 이삭 주우면서 보아스를 만나는 긴 장면으로 중심 부분이다.
   5) 제 2 막의 세 장면은 샌드위치구조, 즉 집—( )—집; 룻과 나오미의 대화—룻과 ( )의 대화—룻과 나오미의 대화; 짧음—김—짧음 등의 A-B-A'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룻 2:1-3 의 문학적 구조

   A 엘리멜렉의 ( )

   B (그의 이름은) **보아스**

   C <u>가서</u> ( )을 주워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X ( )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를 따라서

   C' <u>가거라</u>. <u>가서</u> ( )을 주웠다

   B' **보아스**(의 밭)

   A' 엘리멜렉의 ( )
4. 내레이터의 새로운 인물 소개**(2:1)** :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그는 1)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지([므유다] 2:1, cf. 3:2)요, 2)덕망있는 사람([이시 기보르 하일] cf. 3:10)이요, 3)엘리멜렉의 ( )이요, 4)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1) 다음 역본의 순서와 원문의 순서를 비교해 보라.

① 개역개정: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② 새번역: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③ 우리말성경: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④ NIV: Now Naomi had a relative on her husband's side, from the clan of Elimelech, a man of standing, whose name was Boaz.

⑤ **NASB**: Now Naomi had a kinsman of her husband, a man of great wealth, of the family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⑥ **ESV**: Now Naomi had a relative of her husband's, a worthy man of the clan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⑦ **ISV**: Naomi had a close relative of her late husband, a man of considerable wealth from the family of Elimelech. His name was Boaz.

2) **[이시 기보르 하일]:** 보아스는 개역개정 2:1 에서 "(　　)한 자[이시 기보르 하일])"라고 번역되어 있고 룻은 3:11 에서 " (　　)한 여인"[에셰트 하일] "으로 번역되어 있다. 보아스와 룻에게 똑같이 사용된 원어 [하일]은 "힘(might), 재력(wealth), 덕망(moral value)" 등을 나타낸다. 군사적인 배경이 없는 룻기에서 밭의 추수를 언급하는 장면(2:2-17)은 보아스의 재력을 보여주고 법적 논의를 묘사하는 장면(4:1-12)은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온 성읍 사람들의 룻에 대한 평가(3:1)는 룻이 고상한 인품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두 주인공을 묘사할 때 통일하여 "(　　)있는/존귀한" 사람(남자/여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미시파하]:**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같은 (　　)에 속했다. 이것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 혈연관계가 확대되는 것은 **[베트 아브]** "아버지의 집, 가족" **< [미시파하]** "(　　)" **< [셰베트/마테]** "지파" **< [암]** "백성"의 순서에서 보듯이 두 번째로 제일 가까운 단위이다. 이 단위는 이스라엘에 약 60 개가 있었고 각각 대충 만 여명의 구성원이 있었다. 이 단위는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수 13-17 장)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업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업 무를 자의 의무 중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 단위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레 25 장).

5. 룻과 나오미의 대화(2:2): **[어느 날] (　　)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　　)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　　)을 주워 오겠습니다. [혹시] (　　)에게 호의를 입게 되면 그의 뒤를 따라서요."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르히 비티] 그래 나가 보아라, (　　)아."**

6. 내레이터의 요약 진술과 해설(2:3):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　　)을 주웠다. 그런데 그것은 (　　)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　　)의 밭에서였다**.

1) 원문은 “보아스 곧 엘리멜렉의 (　　)”의 순서이지만 개역개정은 “엘리멜렉의 (　　) 보아스”의 순서로 나온다. 2:1-3 의 문학 구조를 살필 때 2:1 과 2:3 의 원문의 순서는 역순 대구를 보여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저자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을 “(　　)” 일어난 일로 표현한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그의 표현 방식이다(Hals, 12). 저자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며 그 일이 룻 때문에(because of Ruth)가 아니라 그저 룻에게(to Ruth) 일어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Hubbard, 141). 룻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without any intention to do so) 뜻밖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어구이다(Bush, 104).

7.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
1) [레 19:9-10]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　　)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　　)도 줍지 말며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　　)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cf. 레 23:22)
2) [신 24:19-22]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　　)와 (　　)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　　)와 (　　)를 위하여 남겨두며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　　)와 (　　)를 위하여 남겨두라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3) [신 10:17-19]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 (　　)와 (　　)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cf. 출 22:22-24; 신 24:17-18)
4) [신 14:28-29]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　　)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　　)와 (　　)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cf. 신 16:10-12)
5) 경제 문제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재는 온도계 역할을 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정의와 자비가 있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악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사회의 성격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다. 경제는 늘 선교적 전망을 가지며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언약 공동체는 구원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전달하는 통로로 섬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가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강탈되어 고통을 느끼는 불신 공동체는 부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경제를 보이는 언약 공동체의 복을 부러워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8. 룻에 대한 호칭

내레이터는 2:2(서두) 그리고 2:21(말미)에 룻을 ( ) 여인 룻이라고 부른다. 이 칭호는 독자들에게 룻이 이방 여인이기에 겪을지도 모를 적대감과 위험을 암시하고, 룻과 더 큰 사회 집단 사이의 민족적인 벽이 있음을 느끼도록 해주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룻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 느끼는 것(2:10)과 보아스가 [민족과 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또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갖지 않고] 룻을 보호하려는 것(2:8, 15, 16, 22)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도록 해 준다(허버드, 137). 2 장 서두에서 이 칭호는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으로서 양식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룻의 비범한 행동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블락, 652). (참고: 2:6)

본문(2:1-3)의 교훈

1. 2:1-3 의 중앙집중적 역순대구 즉 엘리멜렉의 친족(A)-보아스(B)-이삭줍다(C)-누구의 호의(X)-이삭줍다(C')-보아스(B')-엘리멜렉의 친족(A')의 순으로 나오는 구조가 보여주는 암시적 교훈
2. 내러티브를 읽을 때 화면 분할의 기교처럼 볼 수 있는 관점의 비교(등장 인물의 제한된 관점과 내레이터의 전지적 관점)
3. 룻 2:3 의 해설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인간 편의 우연은 하나님 편의 필연
   2)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
   3)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삶의 자세

룻 2:4-17 (2 막 2 장)

퀴즈와 본문(2:4-17)의 의미

1. 2 막 2 장(룻 2:4-17)의 내용
   1)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과의 인사말(2:4): **아침에** 선언된 ( )
   2) 보아스와 추수를 감독하는 종과의 대화 (2:5-7)
   3) 보아스가 **( )에** 룻에게 베푼 호의들 (2:8-9)
   4) 이에 대한 룻의 반응 (2:10)
   5) 룻의 ( )적 결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보아스의 격려의 말 (2:11-12)
   6) 이에 대한 룻의 대답 (2:13)
   7) **( ) 식사 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들 (2:14)
   8) 보아스가 **( )에**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내린 지시 (2:15-16)
   9)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특혜의 결과 (2:17): **저녁에** 확인되는 넘치는 ( )

2. 2 막 2 장(룻 2:4-17)은 대화의 주체에 치중하여 보면 A-B-A 구조, 즉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대화(2:4b-7) —보아스와 ( )의 대화 (2:8-14) —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대화(2:15-16)로 이루어져 있다.

3.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의 인사(2:4): **그 시점에[히네] 보아스가 ( )으로부터 왔다. 그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 ) 하시길 비네."라고 인사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 )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 [히네]의 관점을 설명하면?

① "보라!"

- [룻 1: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라**(הִנֵּה),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 [룻 3:2] "그런데 그의 [추수하던] 젊은 여자들과 함께 네가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הִנֵּה), 바로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② "보니까, 본즉"

- [룻 3:8]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הִנֵּה) 어떤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הִנֵּ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③ "그 시점에"

- [룻 2:4] "**그 시점에**(הִנֵּה) (독자들이 알고 있는 1 절에서 말하던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였다."

2) 2:4 [히네] ("개역개정: **마침** 보아스가"; 번역: "**그 시점에 [앞서 말한 그]** 보아스가")

① 2:4 의 첫 단어 [브히네]는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접속사 [브]와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사 [히네]로 이루어져 있다. 내레이터는 전개되는 장면에 새로 등장하는 ( )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그 인물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히네]를 사용한다(참고: 민 25:5-6; 삼상 11:4-5; 왕상 12:33-13:1; 왕상 13:24-25).

② 룻 2:4 에서 [히네]는 2:1 에 소개한 보아스가 ( )에서 추수하는 밭에 도착한 것을 묘사할 때 나온다. 이것은 내레이터가 독자들을 위해 독자가 알고 있는 그 보아스의 출현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내레이터는 "[히네] 그 시점에 앞서 말한 그"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였다고 묘사했다.

3)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여 추수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 ) 하시길 비네.**"라고 인사할 때 추수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 )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했다. 보아스의 인사는 등장 인물로서 처음 한 말이기 때문에 그의 인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비는 보아스라면 그가 이삭 줍는 룻에게도 호의를 베풀 사람이 아닐까 하는 독자들의 기대는 더 강화된다.

4) 제사장 축복문(민 6:24-26)

민 6: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 )하여 이르되

24 여호와는 네게 ( )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 )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 )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 )을 주리라

5) 룻기는 축복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1:8-9; 2:4, 12, 19; 3:10; 4:11-12)을 보여 주며 축복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인사말([**아도나이 이마헴{/임하/이마흐}**]—[**여바레흐하{/여바레흐헴} 아도나이**])이 우리의 인사말로 널리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4. 보아스와 추수를 감독하는 종과의 대화 (2:5-7): **5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저 ( )은 뉘 댁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6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 ) 땅에서 돌아온 ( ) 여자입니다. 7 그녀가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머물[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1) 보아스는 룻이 낯선 여자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내"라고 묻지 않고(참고, 창 24:23)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보다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참고, 창 32:17; 삼상 30:13). 사실상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낯선 ( )일 뿐 보아스의 남녀 젊은 일꾼들 사이에 있을 위치가 없었다. 그러나 "**저 ( )은 뉘 댁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룻이 최초로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눈에 띄는 존재가 된 것을 알려준다. 보아스가 그의 눈에 띈 낯선 젊은 여인에 대하여 인식하고 누구인가를 종에게 묻는 질문은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을 일으킨다.

2) 보아스의 룻에 대한 질문에 추수를 감독하는 종은 보아스에게 룻을 "**( )** 출신의 젊은 **여자**([나아라 모아비야]) **곧 나오미와 함께 ( ) 땅에서 돌아온 자**(2:6)"라고 불렀다.

① 사환의 대답은 1:22 의 내레이터가 한 말 "그녀의 며느리, ( )여인 룻, 곧 ( ) 땅에서 돌아온 여자"를 생각나게 한다. 1:22 과 거의 비슷한 이 부연 설명 부분은 1 장과 2 장의 사건들을 문학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그녀의 민족 정체성 이외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돌아옴과 관련지어 잘 알려져 있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인 이스라엘 사람의 입을 통하여 룻은 ( )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자**로 언급된다.

3) 추수의 과정: 추수는 먼저 ( ) 자([코체르])들이 한 손으로 서 있는 곡식([카마])을 잡고(시 129:7 상) 다른 손에 있는 낫으로 벤다(렘 50:16; 사 17:5). 이 한 다발의 베어진 곡식, 즉 대가 붙어 있는 곡식([시볼림])은 ( ) 자들의 뒤로 놓여진다. 이들의 뒤를 따르며 ( ) 자([므아메르])들은 베어진 여러 다발의 곡식을 두 팔에 가득 차는 묶음([오마림])들로 모은다. 이 모아진 묶음들은 단들([알루밈] 혹은 [알루모트] 창 37:7; 시 126:6)로 묶여진다. 어떤 경우 묶음들[오마림]과 단들[알루밈/알루모트]은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밭에서 묶여진 단들은 타작 마당으로 옮겨진다(신 24:19). 일반적으로 이삭줍기가 허락되는 것은 이러한 추수과정이 다 끝나고 단들이 타작 마당으로 옮겨진 이후에 가능하다. 이것이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다는 의미이다(부시, 114).

4) 추수의 절차와 이삭 줍기 허용의 시점을 고려하면 룻이 종에게 먼저 이삭 줍는 일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 개역개정의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줍게 하소서(2:7)"라고 번역된 룻의 요청은 이삭 줍는 관례와 어긋난다. 그리고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2:15)"는 보아스의 허락은 오후에 있었다. 2:7 의 [보오마림]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① 개역개정: 나로 베는 자를 따라 <u>단 사이에서</u> 이삭을 줍게 하소서

② 새번역: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u>곡식단 사이에서</u>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

③ 우리말성경: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번역 없음> 이삭을 줍게 해 달라

④ 번역: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u>단으로</u> 만들게 해 주십시오

5) 2:7 의 다음 두 번역은 보아스가 올 때까지 룻이 했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 [바타보 바타아모드]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단 사이에서"라는 번역의 문제 해결책은?

① 개역개정: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참고: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성경, 쉬운성경, NIV)

② 새번역: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참고: 허버드, 새슨)

③ 번역: 그녀가 '(제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 모아 **단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머물[며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 뿐이었습니다."(참고: NAB; Bush)

6) 본문 비평 (2:7)

① MT: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제 시브타흐 하바이트 므아트])

② LXX: οὐ κατέπαυσεν ἐν τῷ ἀγρῷ [우 카테파우쎈 엔 토 아그로] = לֹא שָׁבְתָה בַשָּׂדֶה[로 샤브타 바싸데]

③ [NIV]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

④ [NASB] she has been sitting in the house for a little while.

⑤ [NRSV] without resting even for a moment.

⑥ [ESV] except for a short rest.

⑦ Bush: "she has stopped only a moment'

⑧ Joüon: "she has not taken (even) a little rest."

⑨ Hurvitz: "Her stay in the house was very brief."

⑩ Hubbard: "This field has been her residence; the house has meant little to her."

⑪ Loader: "This is where she stays; this is her home in a sense."

⑫ Carasik : "This fellow . . . . she's just going home for a bit."

⑬ 번역: (저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쉼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5.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말(2:8-9)

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8a).

(A) "내 딸이여, 내 말 잘 들으시오(8b 부정의문문[=강한 긍정])**.**

(X) 이삭을 주우러 (　　) 밭으로 가지 말고(8c 금지 명령)

(X') 절대로 여기로부터 (　　)를 넘어가지도 말며(8d 강한 금지 명령)

(Y) 나의 젊은 (　　)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8e 긍정 명령).

(Y') 그들이 추수하는 밭에 눈길을 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우시오(9a 긍정명령).

(A') 내가 지금 젊은 (　　)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9b 부정의문문)**.**

목이 마르면 물 단지 있는 데로 가서 젊은 (　　)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9c)."

1)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말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밭의 주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친절과 관대함을 보여 준다. 보아스의 두 부정 명령에 대한 개역/개역개정의 "이삭을 주우러 (　　)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보아스는 먼저 보다 약한 부정 명령을 나타내는 형식을 써서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　　)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형식과 강조의 불변화사

[감]을 써서 [밭들의 (　　)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의 (　　)를 결코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2)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을 배려하는 가운데 젊은 남자 일꾼[느아림]들과 여자 일꾼들[느아로트]을 구별하며 말하였다면 룻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 추수하는 젊은 일꾼들[느아림]을 가리키며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스는 보통 허용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 룻이 (　　)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서 그들을 따라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후에 바로 룻을 보호하려고 추수하는 (　　) 일꾼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3) 보아스가 (　　)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명령은 율법의 어구와 정신에 일치하는 지시(출 22:21-23[MT 22-24]; 신 10:17-19)이다.

① [출 22:21-23]: "(21)너는 이방 (　　)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너는 (　　)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② [신 10:17-19]: "(17)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고아와 (　　)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　　)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9)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4) (　　)들이 남자들을 위하여 물을 긷고 (　　)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위하여 물을 긷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 배경에서 보면 (　　)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특혜이었다.

6. 룻의 반응과 대답(2:10): 그러자 룻은 엎드려 (　　)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　　)에 불과한데 어르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1) 룻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바티폴 알-파네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바티시타후 아르차]) 동작은 주로 (　　)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창 24:26; 왕상 1:47; 출 4:31; 33:19; 34:8; 삿 7:15; 삼상 1:19; 삼하 12:20; 대상 29:20; 대하 7:3; 29:28-30; 느 8:6; 9:3; cf. 이방신에게: 삿 2:12, 17, 19) 그리고 (　　)에게 절할 때(삼하 14:4, 22; 15:5; 대하 24:17) 취하는 모습이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동작은 아랫사람이 (　　)사람에게 인사할 때나 경의를 표할 때도 사용되었다(창 19:1; 23:7; 33:3; 48:12; 삼상 25:23; 25:41).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것은 그의 관대함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동작이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룻이 이방 여인이요 낯선 여인인 자신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밭 주인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에게 보인 반응은 상황에 적절한 예의범절을 보이는 행동과 말이었다.

2) [노흐리](“이방인, 외인, 타국인”)

① [삿 19:12]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 )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② [신 23:20]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 )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 )를 받지 말라

③ [신 15:3] ( )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④ [신 14:21]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 )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3) 언어유희: 10 절의 마지막 세 단어 [르하키레니 브아노히 노흐리야]에서 [르하키레니](나를 보살펴 주는 것)와 [노흐리야](이방 여인)는 그 어근이 둘 다 [나하르]이지만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은유적 언어유희를 보이고 있다. 이 언어유희는 허버드(163)가 설명한 대로 “당신은 인식되지 못한 자를 인식해 주었다.” 혹은 “당신은 주목되지 않은 자를 주목해 주었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7. 보아스의 두 번째 말(2:11-12):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 )를 위해 행한 모든 일, 곧 당신이 친정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하던 ( )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들렸소.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며 (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 )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라오.”**

1)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 )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2) 보아스는 룻이 텅 비어 ( )하게 된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에게 베푼 선행이 결국 ( )께 꾸어 드리는 것이므로 그 선행대로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길 빌었다.

3) 여호와가 ( )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그의 ( ) 아래 보호해 오신 분임을 믿고 체험했던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여호와의 완전한 보호 영역인 이스라엘로 시어머니와 함께 온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길 바랐다.

8. 룻의 대답(2:13): “**<u>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u>**. 어르신께서는 저를 ( )해 주시고 제가 결코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1) 2:13 번역

① 개역개정: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② 새번역: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③ 공동번역: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주십시오”

④ 번역: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2) [시프하](2:13)의 번역

① 개역개정: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 . . **이 시녀** . . ."

② 번역: "**어르신의 하녀들** 중의 하나만도 못할 것이오나 **이 하녀** . . ."

③ [시프하-나아라-아마]의 번역 비교

- 개역: 시녀(시프하 2:13)-시녀(나아라 3:2)-시녀(아마 3:9)
- 개역개정: 하녀(시프하 2:13)-하녀(나아라 3:2)-여종(아마 3:9)
- 번역: 하녀(시프하 2:13)-젊은 여자 일꾼(나아라 3:2)-시녀(아마 3:9)
- 참고: (삼상 25:41 아비가일) "내 주의 **여종(아마)**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시프하)**이니이다"

3)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처럼 보아스의 다정한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이삭을 주우러 나온 빈곤한 이방 여인 룻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다. (　　)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2:10),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　　)들 중 하나와도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2:13) 룻은 민족이나 신분의 차이를 뛰어 넘는 보아스의 친절과 자비에 대하여 매우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있었다.

9. 점심 식사 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2:14)

1) 점심 식사 때 보아스가 빵 조각을 (　　)에 찍어 먹도록 초대받은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고 그 때 보아스는 친히 룻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을 (　　) 곡식을 주었다.

2) 이삭 줍는 여인 룻을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청한 것은 보아스가 항상 (　　)와 고아와 (　　)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닮은 자의 모습을 보도록 해 준다.

3) 삼상 20:25 에서 아브넬이 영광스럽게 사울 곁에 앉았듯이 룻은 영광스럽게 보아스의 일꾼들 곁에 앉아 환영 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고 보아스의 사람들 가운데 속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신분 상승을 확인이라도 해 주듯 룻이 일꾼들 곁에 앉았을 때 보아스는 자신이 직접 그녀에게 (　　) 곡식을 내주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　　) 곡식의 양은 아주 많아서 그녀가 실컷 먹고도 남길 수 있었다. 룻이 이방 여인이요 가장 낮은 하녀만도 못한 자요 외부자(outsider)로 이삭을 줍는 자이지만 민족과 사회적 벽을 뛰어 넘어 보아스의 일꾼들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그려보라. 룻은 모압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으로 왔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마치 그녀가 이스라엘의 한 덕망있는 사람인 보아스(2:1)의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앉아 있다. 더 나아가 룻은 보아스의 직접적인 섬김을 받았다.

4) 보아스의 너그러운 식사 초대는 그 자신이 여호와께 룻을 위하여 빌었던 온전한 상(2:12)의 첫 열매가 아니던가? "먹다"와 "만족하다"가 결합되어 "배불리 먹다, 실컷 먹다"를 표현하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여호와가 양식을 제공하는 분으로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보아스의 관대함의 배후에

(　　)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호와의 날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하는 모압 여인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10. 보아스가 오후에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내린 지시(2:15-16):

15 (A) **곡식단 (　　)에서도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어순 도치와 불변화사 감]**

(B)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게[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16 (A') **더 나아가 그녀를 위해 자네들이 반드시 줌에서 조금씩 뽑아 (　　)두어서 그녀가 줍도록 하고[불변화사 감 그리고 부정사+정형동사]**

(B') **결코 그녀를 (　　)지 말게[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1) 내용적으로 보면 A 와 A'는 남자일꾼들이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울 일을 말하고 B 와 B'는 남자 일꾼들이 룻에 대해 가질 태도를 말한다. 구문을 자세히 살피면 보아스의 명령이 매우 강조적임을 알 수 있다. 9 절에서 오전에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던([치바]) 보아스는 여기 15 절에서 다시 한번 오후 추수를 하려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하였다([치바]).

2) 이 때 보아스는 자신이 직접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아스가 룻이 "**곡식단 (　　)에서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함께 그렇게 할 때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고 하는 보호를 덧붙여 준 것은 율법이 명한 것(신 24:19)을 넘어선 그의 너그러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젊은 남자 일꾼들이 왼손으로 잡고 낫으로 벤 **줌에서 반드시 뽑아 흘려 (　　)둘** 것까지 지시하였다. 동사 [아자브]에 유의하면 11 절에서 룻은 부모와 고향을 버렸고 16 절에서 보아스는 곡식을 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위한 특혜를 베풀도록 명하고서 15 절에 묘사된 것("그녀를 나무라지 말라")처럼 **결코 그녀를 (　　)지 말라**는 강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덧붙여진 금지 명령은 남자 일꾼들이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아 이삭 줍는 룻에게 화를 내고 큰소리치며 그렇게 못하도록 꾸짖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보아스의 단호한 어조를 느끼도록 해 준다.

11.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특혜의 결과 (2:17): 저녁에 확인되는 넘치는 복: "**룻이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고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정확히 한 (　　)나 되었다.**

1) 이 절의 요점이 룻이 하루 동안에 주운 이삭의 양이 매우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림의 카프가 아니라 (　　)의 카프로 보는 것이 문맥에 잘 어울린다(Bush, 133).

2) 한 마리의 당나귀([하모르])가 질 수 있는 양이 호멜([호메르])이고, 호멜의 십분의 일이 에바([에파])이고(겔 45:11), 에바의 십분의 일이 오멜([오메르])이다(출 16:36). 고대 바벨론 시대(주전 19 세기)에 마리에서 일하던 남자 일꾼의 하루 양식이 1-2 파운드가 넘지 않았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새슨, 57) 룻이 하루에 주운 이삭의 양(에바= 약 22 리터, 29 파운드)은 적어도 15 일의 양식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허버드, 179).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듯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12 절과 17 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 )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만난 행운의 배후에 계시며 그녀에게 상을 베풀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보아스가 여호와께 룻을 위해 빌었던 복을 생각하면 그 복을 베푸는 도구로서 보아스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보아스와 룻은 잘 모르나 독자들은 알고 그 사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는다(허버드, 178)

본문(2:4-17)의 교훈

1. 양식의 관점에서 본 보아스 : 룻 = 그리스도 : 신자
2. 보아스의 룻에 대한 한결같은 인애[헤쎄드]: 보아스가 보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1) 보아스의 언행에서 볼 수 있는 율법과 사랑과의 관계
   2) 보아스의 언행에서 드러난 성품들
   3) 보아스 : 룻 = 하나님 : 하나님의 백성이란 등식의 관점에서 보아스의 언행심사 평가
   4) 보아스의 언행심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5) 중보 기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자로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3. 룻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룻의 성품들"
   1) 종의 보고에서 드러난 성품들
   2)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난 성품들
4. 보아스가 룻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 복음의 포용성

룻 2:18-23 (2 막 3 장)

퀴즈와 본문(2:18-23)의 의미

1.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본 것과 받은 것 (2:18 내러티브 **틀**)
   1)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 ) 것을 보았다
   2)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실컷 먹고 남긴 것 곧 ( )을 드렸다.
2. 나오미의 질문과 축복 (2:19 **A**)
   1) 시어머니는 "오늘 어디서 ( )을 주웠느냐? 어디서 ( )을 했느냐?"고 물었다.
   2) 시어머니는 "너를 ( ) 분이 복받기를 바란다"고 축복한다.
3. 내레이터가 나오미의 질문에 대한 룻의 대답을 전하는 과정의 간접화법과 직접화법 (2:19 **B**)
   1)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예

- 직접화법: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
- 간접화법: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

2) ( ) 화법: **그러자 그녀는[=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하도록 해 준 분을 이야기했다.**

3) ( ) 화법: **그리고 그녀는 "오늘 제가 일하도록 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말했다.**

4) 내레이터는 나오미의 인식의 과정에 궁금증을 더하기라도 하듯이 먼저 ( )화법으로 간단히 설명한 후에 룻의 말을 인용하며 ( )화법으로 전한다. 룻은 그날에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모른 채 정말 순진하게 자신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고 돌보아준 사람의 이름을 가장 마지막 자리에 오는 대답을 하며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것을 밝힌다.

5) 여기서 독자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하여 각자가 상대방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음을 인식하며 즐겁고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한다. 룻은 하루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줍도록 해 준 사람, 다시 말하면 그녀가 <u>그날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u>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 이와 반대로 <u>나오미는</u> 룻으로부터 듣기 전까지 그녀의 며느리가 온종일 이삭을 주었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몰랐지만 <u>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u>

4.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한 말과 보아스에 대한 설명 (2:20 **X**)

1) "( )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그[=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과 ( ) 자들에게 한결같은 인애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붙이며 우리의 ( ) 사람들 중의 한 분이다."

3) 번역 비교

בָּרוּךְ הוּא לַיהוָה (룻 2:20)

אֲשֶׁר לֹא־עָזַב חַסְדּוֹ אֶת־הַחַיִּים וְאֶת־הַמֵּתִים

- [N]RSV: "Blessed be he by the Lord,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그의 친절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버리지 않은 여호와에 의해 그가 복 받기를"
- NASB: May he be blessed of the LORD **who** has not withdrawn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o the dead. // **현대인 성경:**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 **쉬운성경:**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 **새번역:** 그는 틀림없이 주께 복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 **개역:**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

NIV: “The LORD bless him!”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He** has not stopped showing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he dead.”

- 참고

בָּרוּךְ יְהוָה אֱלֹהֵי אֲדֹנִי אַבְרָהָם (창 24:27)

אֲשֶׁר לֹא־עָזַב חַסְדּוֹ וַאֲמִתּוֹ מֵעִם אֲדֹנִי אָנֹכִי בַּדֶּרֶךְ נָחַנִי יְהוָה בֵּית אֲחֵי אֲדֹנִי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길 원한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인애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신

בְּרֻכִים אַתֶּם לַיהוָה (삼하 2:5)

אֲשֶׁר עֲשִׂיתֶם הַחֶסֶד הַזֶּה עִם־אֲדֹנֵיכֶם עִם־שָׁאוּל וַתִּקְבְּרוּ אֹתוֹ

너희가 여호와에 의해 복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인애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4)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한 것과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을 만큼 많은 볶은 곡식을 준 것이 살아있는 자들 즉 룻과 나오미에게 한결같은 인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죽은 자들 즉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룐에게 한결같은 인애라고 할 수 있는가?

① 죽은 자들은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계속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제비뽑아 얻은 땅에서 자자손손 후손들이 보존되며 그 기업을 물려받고 살기를 원하셨다.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된 나오미와 룻이 생존하는 한 죽은 남편들은 살아 있는 셈이 된다.

②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 )법을 이루며 엘리멜렉 가문 전체를 지칭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5) 칭호들

① “[하이시] ( ) 2:19, 2:20; 3:16, 18”: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 대해 사용한 칭호로서 자리에 없는 남성을 공손하게 지칭하는 태도를 반영하며 주제 넘는 친숙함을 막아주는 인상을 갖게 한다(Block, 699).

② [고엘] “**기업 무를 자**”

- [고엘]은 원래 법률 용어로 쓰일 때 ⑴속건제에 따른 배상을 받음(민 5:5-8; cf. 레 6:1-7[MT 5:20-26]), ⑵피의 보수(민 35:9-28; 신 19:6-13; 수 20:2-9), ⑶재판에서 정의 실현을 도움(욥 19:25; 시 119:154; 렘 50:34), ⑷사람의 무름(레 25:47-55), 그리고 ⑸기업의 무름(레 25:24-25; cf. 렘 32:1-15)과 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관습은 민족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일을 반드시 고쳐져야 할 파괴로 여기며 사람이든 기업이든 무르는 일을 통해 원래의

민족적 온전함이 회복되도록 하는 민족적 유대감(tribal solidarity)에서 비롯된 것이다(Hubbard, 189).

- 위에 언급한 기업 무를 자의 다섯 가지 법적 책임 중에서 처음 네 가지는 룻기의 사건과 그 사회적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섯 번째의 기업을 무르는 책임이 4 장의 성문에서의 법적 장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기는 하지만 나오미가 여기서 사용한 ([고엘] "기업 무를 자")은 법률적인 어떤 분야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자라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Bush, 137). 왜냐하면 나오미가 다섯번째의 법적 책임 즉 기업 무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보아스나 나오미가 그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며 양식을 위해 룻이 굳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동사 [가알]의 일반적인 의미는 "한 때 있었으나 잃어버린 사람이나 사물을 적법하게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엘]은 친족을 어떤 악한 일 즉 보다 일반적인 악(창 48:16 모든 환난; 시 107:2 대적; 애 3:53-58 죽음과 스올)과 보다 구체적인 악(시 72:14 압박과 강포; 사 54:4-8 수치와 치욕)으로부터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보아스가 그의 밭에 온 룻을 환영하고 점심을 배불리 먹도록 하고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룻과 나오미를 빈궁에서 벗어나도록 구해 주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무를 사람들 중의 한 분**"이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룻도 3:9 에서 보아스를 "기업 무를 분"이라고 불렀다. 4:14 에서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기업 무를 자"로 부른 것은 4:15 의 설명대로 그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③ 칭호: "그녀의 시어머니"(2:18, 19, 19, 23)와 "그녀의 며느리"(2:20, 22) vs. "우리"(2:20, 20)

- 내레이터가 18-19 절에서 나오미를 "(그녀의) 시어머니"로 부른 것처럼 여기 20 절에서 룻을 "(그녀의) 며느리"로 부른 것은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의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생각하게 해 준다.
- 나오미가 자신과 룻을 처음으로 "**우리**"라고 한 것은 룻의 사회적 모호함이 사라지고 룻이 한 가족으로 모든 혜택을 함께 받아 누리는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가족을 이룬 것을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여 나오미는 내레이터가 남편 쪽의 친지라고 소개했던 보아스를 **우리의 가까운 일가붙이**라고 언급한다.

5. 룻이 보아스로부터 들었었던 말 중에서 나오미에게 그대로 전한 것 (2:21 **B'**)

1) 그러자 (　　) 여인 룻이 말했다.

2) "그분이 저에게 '내게 속한 (　　)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 내게 속한 (　　)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말이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3) 2:8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2:21"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2:22"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개역개정: 2:8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2:21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2:22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 내레이터가 전하는 2:8 의 보아스의 말(*바로 여기* 나의 젊은 여자 일꾼들 가까이에 붙어 있으시오)에는 이삭을 줍는 장소가 강조되어 있지만 2:21 에서 룻이 전하는 보아스의 말(*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 가까이에* 당신은 붙어 있으시오)에는 함께 할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다. 8 절의 보아스의 말에는 "나의 젊은 여자일꾼들"이 나오는 것에 비하여 21 절의 룻의 말에는 "내게 속한 젊은 일꾼들"이 나온다.
- 남성 복수형은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남녀로 이루어진 경우에 다 쓰이기 때문에 [느아림]이 남성이라고 하여 남자일꾼들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고 문맥상 남녀 일꾼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역의 "소년들"이란 번역은 남녀일꾼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 나오미의 룻에 대한 지시 (2:22 **A'**)

1)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녀의 (　　) 룻에게 말했다.

2) "내 딸아, 네가 그의 (　　)과 함께 나가[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3) 이 말은 룻을 보호하려 했던 보아스가 여자 일꾼들을 언급한 것처럼 룻의 안전을 염려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충고라는 것을 고려하면, 나오미는 룻이 사용한 21 절의 남성 복수형이 남녀일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룻의 가장 가깝고 가장 자연스러운 접촉은 베어진 곡식을 단으로 묶는 여자 일꾼들임을 가정하고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나가 이삭을 줍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7. 내레이터의 마지막 진술 (2:23 내러티브 **틀**)

1)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　　)에게 바싹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웠다.

2) 그 후 그녀는 그녀의(　　)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8. 1 막의 끝(1:22)과 2 막의 끝(2:23)의 차이점

본문의 교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가 나오미에게 주었던 영향

룻 3:1-5 (3 막 1 장)

퀴즈와 본문(3:1-5)의 의미

1. 내러티브의 틀(3:1 과 3:5 의 전달문)
   1) 3:1: **[어느 날] 그녀의 ( )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2) 3:5: **그러자 그녀(=룻)는 그녀(= 나오미)에게 말(=대답)하였다.**
2. 룻의 재혼을 위한 나오미의 주장(3:1-2)
   1) 문제(3:1): **"내 딸아,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평안한 보금자리(개역개정: 안식할 곳)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2) 해결책(3:2a): **"그런데 네가 그의 젊은 여자일꾼들과 함께 있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 )이 아니냐?"**
3. 나오미의 지시(3:2-4)
   1) 보아스의 할 일 서술(3:2): **"보라, 바로 오늘 밤에 그가 ( )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2) 룻에게 내린 명령(3:3-4)
      ① 4 가지 명령(바브 계속법):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 )으로 내려가거라."**
      ② 부정 명령(희구법): **"그러나 그가 ( )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③ 긍정 명령(바브 계속법):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 ) 두라."**
      ④ 3 가지 명령(바브 계속법): **"그리고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 )."**
   3) 보아스의 할 일 서술(3:4): **"그러면 그가 너에게 ( )가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4. 룻의 반응(3:5):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 )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5. 어구 설명
   1) 3:1 "평안한 보금자리(개역개정: 안식할 곳; 새번역: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 쉬운성경: 알맞은 가정; 우리말성경: 안식처; 공동번역: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의 의미는?
   2) 3:3 "목욕하고 기름바르고 의복입으라"는 의미는 다음 중 어느 것과 비슷한가?
      ① 겔 16:8-13 처럼 신부로서 단장하고 가라
      ② 유딧서(Judith) 10:4 처럼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잘 차려 입으라
      ③ 삼하 12:20 에서 다윗이 아기가 죽은 후에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룻이 과부의 옷(창 38:14, 19)을 벗고 애곡의 기간을 끝내고 결혼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3) 3:4 "눕다, 알다, 발치, 들치다"

① 성적 뉘앙스: "눕다, 알다, 발치, 들치다" 등은 성행위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성적인 뉘앙스를 짙게 풍기고 있다.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사 시대가 배경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적인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어구들은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에게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위험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아스를 믿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보내는 (　　)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보여준 (　　)의 인품,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그대로 나오미의 지시대로 움직일 (　　)의 성품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저자가 보아스와 룻을 덕망이 있고(2:1; 3:11) 한결같은 인애의 삶을 사는 인물(1:8; 2:20; 3:10)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② 저자의 문예적 창작성: 우리는 저자가 (　　)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구들을 사용하여 깜깜한 밤에 타작 마당에서 남자와 여자 둘만이 있는 만남 가운데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의도적인 (　　)을 주며 긴장과 호기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게 하는 문예적 창작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룻의 동작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6.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들

1)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먼 친척 사이에 친족으로서 의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　　)인 것이었다.

2)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　　) 기업 무를 친족이 있었다. 보아스는 더 (　　) 기업 무를 자가 이러한 자발적인 일에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3) 룻이 말론의 아내로서 (　　)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4) (신학적 구별만을 유일한 구분으로 삼았던 보아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사실 즉) 룻은 (　　) 여인이었다.

5) 보아스의 나이가 룻에 비하여 많았다.

6) 보아스의 아내와 자식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른다.

7.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의 위험천만한 요소들

1) 사사 시대라는 배경에 비추어 룻이 보아스의 (　　)에 이르기 전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2) 그리고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고 해도 보아스와 룻의 평판과 인격에 커다란 타격을 줄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 그들 사이에 베들레헴의 스캔들이라도 일어난 듯 좋지 않은 (　　)이 퍼질 수 있었다.

3) 2 막에서 내레이터가 보아스의 인물 묘사를 할 때(2:1)와 보아스의 행동과 말을 기록할 때 그가 친절하고 관대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긴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가 의도한 대로 룻의 남편이 되어 가정의 평안함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① 먼저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요 가난한 자요 사회적으로 보잘 것이 없는 룻이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부유한 자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신에게 청혼을 하였다고 비웃으면서 룻의 청혼을 ( )하며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었다.

② 아니면 보아스는 룻이 말론의 아내이고 결혼이 주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적 의무에 충실하라고 하거나 심하면 간부로 몰아 부치면서 시어머니 ( )에게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

③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아스가 밤의 어두움 가운데서 타작 마당으로 온 ( ) 여인을 통하여 성적 즐거움을 본 후에 그녀의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창녀 취급하며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본문(3:1-5)의 교훈

룻의 대답이 보여주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암시는?

룻 3:6-15 (3 막 2 장)

퀴즈와 본문(3:6-15)의 의미

1. 장소 언급을 통한 수미쌍관법(topological inclusio): 3 막 2 장(3:6-15)은 "룻이 ( )으로 내려가서(3:6)"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는 요약 진술로 시작하여 룻의 행동과 말에 대한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전하고서 기업 무르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보아스가 ( )으로 들어갔다(3:15)"는 언급으로 끝난다. 이 틀의 끝은 이야기의 진행을 위한 주도권이 나오미와 룻으로부터 ( )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2. 교차 대구 구조: 3 막 2 장(3:6-15)은 나오미의 계획을 룻이 행동(3:6-7)과 말(3:8-9)로 옮기는 에피소드 1 과 이에 대하여 보아스가 말(3:10-13)과 행동(3:14-15)으로 반응하는 에피소드 2 로 나눌 수 있고 두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은 교차 대구 구조를 갖고 있다(Bush, 160).

에피소드 1	행동 A	3:6-7	a	그녀가 ( )으로 갔다	6a
			b	... 그가 마시고 ... ( ) 맨 끝으로 ... 그가 갔다	7b, d
			c	그녀가 그의 ( )를 들치고 누웠다	7f-g
	말 B	3:8-9	d	어르신은 ( ) 자이기 때문입니다	9d

에피소드 2	말 B'	3:10-13	d'	내가 기업 무를 자이긴 하지만 ... 나보다 더 (　　) 기업 무를 자가 있다	12a-b
				그가 네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면 ... 그가 기업 무르는 일을 할 것이다	13c-d
				그가 네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거절하면 내가 네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13e-f
	행동 A'	3:14-15	c'	그녀가 그의 (　　)에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14a
			b'	... 그가 (　　)를 이워주고 ... 그가 성읍으로 갔다	15f
			a'	... 그 여인이 (　　)에 왔었다는 것	14c

3. 내레이터의 행동 묘사(3:7)에서 나오미의 지시(3:3-4)와 차이가 있는 3 가지 사항
   1) 첫째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나서 "**그의 (　　)이 즐거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아스의 기분이 좋아서 룻의 동작이 상징하는 요구를 들어 줄만한 상태인 것을 암시해 준다.
   2) 둘째는 보아스가 가서 누웠을 때 "**곡식더미 (　　)에**" 누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룻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아스가 누워 잠이 든 것을 암시한다.
   3) 셋째는 룻이 잠자는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 그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　　)"**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하나도 어김없이 문자 그대로 실행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4. 보아스가 취한 동작(3:8): **"(　　)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개역개정: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1) 이불이 들쳐진 발에 느껴지는 추위 혹은 밤의 찬 공기 때문에 *떨게* 된 보아스가 이불을 *더듬어 붙잡아* 다시 덮으려다가 우연히 룻과 부딪히며 자기 곁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인가(Campbell, 122; Block, 690)?
   2) 추위 때문에 보아스가 *떨며*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졸린 상태에서 *몸을 돌이키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인가(Hubbard, 211)?
   3)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놀람* 때문에 잠이 깨어 *몸을 돌이키다가*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인가(Bush, 163)?
      - ✓ 참고: 내레이터는 보아스가 몸을 돌이켜 본즉 **어떤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묘사할 때 남성형 [이시] 대신 여성형 [이샤]를 사용하였다. 히브리어에는 "어떤 사람 someone"을 표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공성(common) 혹은 비인칭(impersonal)의 단어가 없으므로 남성 [이시] 혹은 여성 [이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저자는 그 "어떤

사람"이 룻인 것을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인칭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남성형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성형을 선택한 것이다(Berlin, 152, n. 6).

5. 보아스의 질문과 룻의 요청(3:9):

1) 보아스의 질문

① 한밤중에 놀라 잠이 깬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있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사람에게 한 첫 말은 "**당신은 누구요?**(3:9)"라는 (　　)을 묻는 질문이었다.

② 이렇게 물을 때 "내 딸"이란 호칭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보아스가 독자들과 달리 그 어떤 사람이 룻인지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룻의 대답: **그 때 그녀가 대답하였다. "저는 룻, 어르신의 시녀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u>시녀</u>를 덮어주십시오. 그것은 어르신이 기업 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

① 나오미의 지시(3:4)에 없었으나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3:9)이 나오는 부분은?

② 룻 2 장과 3 장에서 룻은 세 가지 칭호 즉 "이방 여인," "하녀," "시녀"를 사용한다. 제일 먼저 관계가 전혀 없는 "[노흐리야] 이방 여인 2:10)"이 나오고, 다음에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중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의미하는 "[시프하] 하녀 2:13)"가 나오며, 그 다음으로 아내나 첩이 될 수 있는 여종을 의미하는 "[아마] 시녀 3:9)"가 나온다. 청혼을 하려는 룻이 자신을 밭의 주인 앞에서 낮추던 하녀[시프하]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 앞에서 아내가 될 수 있는 시녀[아마]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상 25:41 에서 "내 주의 여종(시녀 [아마])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하녀 [시프하])이니이다"라고 말한 여인은 전에 나발의 아내였던 (　　)이다.

③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그의 옷자락으로 덮는 것은 상징적인 동작으로 "새로운 관계의 수립과 남편이 아내를 미래에 부양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어르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라는 것은 룻이 완곡어법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　　)을 하고 있는 것이다. 룻은 시녀인 반면 보아스는 주인이고, 그녀는 그의 영역에 불청객이고, 그녀는 여자이고 그는 남자이며, 그녀는 가난하고 그는 부유하며, 그녀는 이방인이고 그는 본토인인 점을 고려하면 룻의 요청은 정말 특이하다.

④ [카나프]를 통한 언어 유희: 보아스는 2:12 에서 여호와의 (　　)[카나프]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기서(3:9) 룻은 보아스에게 그의 옷자락[카나프]으로 그녀를 덮는 일을 하는 남편이 되어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요청은 보아스로 하여금 기도하던 자에서 기도의 응답을 주는 자가 되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빌었던 온전한 상은 룻의 보호를 위한 여호와의 (　　)가 바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타났을 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⑤ 3:9 에서 룻은 청혼의 이유를 말하며 보아스를 "(　　) 자"로 불렀다. 이렇게 지칭한 의도는 무엇인가? 나오미는 룻을 위한 남편을 원했는데 룻은 나오미를 위한 후사를 원했는가(Ulrich, 97)? 룻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녀의 행복보다 나오미에게 후사를 갖게 하려는 가족적 의무를 우선시하였는가(Hubbard, 213)?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자신을 "룻, 어르신의 시녀"라고 부르고 보아스가 4:5, 10 에서 한 것처럼 "말론의 아내" 혹은 "고인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말론의 아내 룻, 혹은 고인의 아내 룻"이라고 했다면 룻이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무를 후사를 낳아야 할 과부로 자신을 제시하며 청혼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나오미의 의도 속에 없었던 것이다. 룻이 자신을 "고인의 아내 룻" 혹은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기업 무를 자"에 대하여 2:20 에서 설명한 대로 나오미처럼) 룻이 "기업 무를 자"를 법률적인 어떤 분야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자라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 즉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란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나오미가 2:20 에서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로 부르고 3:1-2 에서 친척으로 언급한 것에 암시된 것과는 다른 의미로 기업 무를 자란 용어를 룻 자신이 보아스에게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떠나 보아스의 말을 기다리기 전에 보아스에게 청혼하며 그 이유로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을 말한 것은 나오미의 지시를 변경하거나 어긴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3:1-2 에서 의도한 것을 단순히 말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Bush, 169).

6. 보아스의 말(3:10-13)

룻의 말(3:9)을 듣고 보아스는 말(3:10-13)과 행동(3:14-15)으로 반응한다. 보아스의 말은 네 부분 즉 ⓐ룻에 대한 축복과 칭찬(10 절), ⓑ기업 무를 자로서의 약속(11 절), ⓒ약속 실행에 있어서의 주요 갈등 제시(12 절), ⓓ갈등 해결을 위한 지시와 맹세를 통한 약속의 재확인(13 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보아스의 말의 틀(3:10, 13)

① 틀: 축복(3:10): **내 딸이여, (　　)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라오.**

② 틀: 맹세(3:13): (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③ (　　)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는(3:10) 첫 부분은 (　　)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3:13) 끝부분과 함께 보아스의 긴 말(3:10-13)의 틀을 이룬다. 보아스의 긴 말의 틀을 이루는 축복과 맹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하던 것(1:8-9; 2:4, 12, 20)처럼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기대하게 한다.

2) 보아스의 칭찬(3:10): **당신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값진 (　　)를 베풀었소. 당신은 [재혼을 위해] 가난하든 부유하든 (　　)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① 보아스가 룻이 그의 발치에 누운 상징적인 동작과 그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 )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어르신은 기업 무를 분"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나오미와 룻이 구한 기업 무를 자의 일반적인 것을 넘어선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일까지 염두에 두고 룻의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② 나오미와 룻은 일차적으로 새 남편과 가정을 구했지만 보아스 자신은 룻이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엘리멜렉-말론의 후사를 잇기 위해 ( )한 것으로 확대 해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보아스의 확대 해석에 의하면 룻의 ( ) 인애는 나오미와 생사간 함께 하는 것이고 룻의 ( ) 인애는 나오미에게 법적 후사를 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보아스는 룻의 ( )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그 기업을 이어갈 후사의 보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의 언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여기며 더 큰 한결같은 인애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다음 절에서 보아스가 "당신과 결혼하겠소"라고 대답하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3:11)."라고 대답한 것은 그가 결혼 이상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보아스가 4 장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법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기업 무르는 일과 그 기업을 이을 후사 얻는 일을 연관지어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며 기업무를 자로서 약속한 말(3:11): **그러니 내 딸이여, ( ) 하지 마오.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이오. 그것은 온 성읍 나의 백성이 당신이 ([에셰트 하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① 원문의 순서는 보아스가 축복과 칭찬을 한(3:10) 후 먼저 청혼의 거절의 가능성으로 인한 룻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3:11a) 룻이 말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3:11b) 그 이유로 그녀의 좋은 평판을 언급한(3:11c) 것을 보여준다.

② 룻이 결혼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보아스가 룻이 말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해 줄 것이라고 한 것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들었을 때 결혼 이상의 일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을 암시한다(Bush, 173).

③ **( ) 여인**에 대한 칭송은 [에셰트 하일]로 시작하는 잠 31:10-31 에 나오는 알파벳시에 잘 나타나 있다. 잠언 31 장의 ( ) 여인은 신실(11 절), 근면(13-15, 27 절), 지혜로움(16, 18 절), 궁핍한 자를 돌보는 관용(20 절), 그리고 덕행에 있어서 뛰어남(29 절)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한 칭송을 받을 만큼 룻은 나오미에 대하여 신실(룻 1:16-17; 2:11)하였고 근면하였고(2 장)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다(3:10). 어떤 히브리어 정경 배열에 있어서 잠언 다음에 룻이 오는 이유는 잠언의 마지막 "(　　) 여인"에 대한 뛰어난 모델로 룻이 제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④ 룻은 이방 여인(2:10 [노흐리야])에서 가장 낮은 하녀(2:13 [시프하])를 넘어 결혼할 만한 시녀(3:9 [아마])를 지나 덕망있는 여인(3:11 [에셰트 하일])으로 덕망있는 보아스와 결혼 상대로 정말 잘 어울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정말 "덕망있는 사람"인 보아스(2:1 [이시 기보르 하일])와 "덕망있는 여인" 룻(3:11 [에셰트 하일])은 좋은 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룻에 대한 좋은 평판은 룻이 점점 이스라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이고 다른 이방인도 룻과 같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남자와 여자, 본토인과 이방인, 늙은이와 젊은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등의 모든 차이는 인간의 됨됨이에 의해 극복된다(트리블, 184).

4)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관련하여 룻에게 한 말(3:12-13):

① 3:12 그런데 내가 기업 무를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　　) 사람이 한 분 있소.

- 3:12 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은 룻이 기업 무를 자로서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무르는 일에 있어서 법적인 (　　) 순위가 있음을 밝혀 주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돌보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책임과 특권의 위계질서가 있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청혼을 하였고 보아스는 거기에 동의하였다(3:9-11). 그러나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기업 무를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 더 가까운 (　　) 자의 권리와 책임을 보아스는 존중해야만 했다.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곤경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일을 해야 하면서도 법이 정한 권리와 책임의 (　　) 순위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 친족 관계에 있어서의 순위를 유추하는 일을 도와주는 두 가지 목록이 있다. 그 하나는 종이 된 형제를 속량하는 일(레 25:48-49)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의 기업을 분배하는 일(민 27:8-11)에 관련된 것이다.
-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법을 앞지르는 책략을 쓰기보다는 법 앞에서 (　　)를 지키고 있었다. 보아스는 기업 무름에 있어서 법이 정한 (　　)를 초월하여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제치고 먼저 룻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보아스의 위대한 점이 더욱 밝게 드러난다. 남을 먼저 낫게 여기며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인격의 미성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가치관의 저속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자기의 나라 건설에 연연하는 비전의 전도(轉倒)를 자주 자주 보는 우리들에게 친족 간의 (　　)를 존중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 기업 무름의 일을 진행하려는 보아스는 우리의 귀감이다.

-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가 (　　)를 정확하게 지키려는 신중함은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큰 긴장을 준다. 그렇지만 보아스의 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룻이 앞으로 얻을 어떠한 신분도 합법한 절차를 따라 얻은 것이고 비밀리에 불공정하게 얻은 것이 아님을 밝혀 줄 것이다. 나오미와 룻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동의한 대로 그리고 우선 순위의 갈등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결되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된다면 이것은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 가능하게 된 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보아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후손이 태어날 계보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고 모든 세대에 온전함의 모델이 될 것이다.

② **3:13 [오늘밤은 여기서 (　　)]. 아침에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겠다면, 좋소, 그로 무르게 합시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를 것이오(+ 맹세: 위 문제 2 번 참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아침까지 여기에 (　　) 있으시오]."**

- 룻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고 독자의 마음을 긴장하게 한 갈등의 요소를 지적한 후 보아스는 그녀에게 성적 뉘앙스가 짙은 "누워 있으시오"라는 말 대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오늘밤은 여기서 (　　)**([리니<린] 3:13; cf. 1:16)."라고 말한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타작 마당으로 찾아온 젊은 여인 룻을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둘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한 모호함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정욕보다는 정절을 앞세우며 의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보아스의 말은 한밤중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내레이터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며 이야기에 (　　)함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보아스는 그가 룻을 존중하는 만큼이나 그리고 그가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만큼이나 기꺼이 법적 문제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판단과 결정에 맡긴다.
- 보아스의 기업 무름에 대한 말이 끝나고 이제 룻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여기에] (　) 있으시오**([시흐비<샤하브] 3:13)."라고 말했다.
- 3:13 의 동사 "**기업 무르다**"는 3:9 에서 룻이 청혼의 근거로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로 언급한 것처럼 죽은 친척의 과부와 결혼함으로써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아스가 "결혼하다"라는 명시적인 말을 쓰지 않고 "기업 무르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가 룻의 청혼을 듣고 "기업 무를 자"의 책임 속에 룻과 나오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족 과부와의 결혼 이상의 일들이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였다는 암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준다.

③ 틀: 맹세(3:13): (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 맹세문은 의도된 행동의 진술 전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 맹세문이 보아스의 의도된 행동의 진술 다음, 즉 거의 끝부분에 오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로, 맹세문은 보아스의 (　　)에 강조를 더해 준다. 둘째로, (　　)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끝부분은 (　　)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는 첫 부분과 함께 보아스의 긴 말(3:10-13)의 틀을 이룬다.
- 보아스의 긴 말의 틀을 이루는 (　　)과 (　　)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하던 것(1:8-9; 2:4, 12, 20)처럼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기대하게 한다.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

5) 새벽에 룻이 취한 행동과 보아스의 생각(3:14):

①그래서 그녀는 아침까지 그의 (　　)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　　)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다.

②그리고 그는 "여인이 (　　)에 와서 있었다는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u>생각하였다</u>.

- 룻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타작 마당을 떠나려는 의도로 동트기 전에 일어났던 것이다. 룻은 자신에 대한 성읍 사람들의 좋은 평판(3:11)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　　)을 알아보기 전에 떠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룻은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 마당에서의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사람들이 밤 동안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이고 아침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되었을 것이다.
- 내레이터는 어근 [나하르]의 사역능동 어간을 여기에 다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재미있는 반전을 느끼도록 한다(Hubbard, 221).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　　)보고 보살펴 주는(2:10, 19 [르하키레니]/ [마키레흐])" 것을 기뻐하였던 룻이 여기에서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　　)보는(3:14 [야키르])"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 룻이 타작 마당에 와서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알려진다면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방 여인은 역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 버린 어쩔 수 없는 노인! 사랑하는 자들의 국경 없는 밀회! 법을 우회하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속이려는 공모!—이 무성하게 퍼졌을 것이다.
- 이런 소문은 보아스와 룻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것이다. 어쩌면 룻은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결과로 인한 이스라엘 여인으로 편입되는 것이 좌절되고 모압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보아스와 룻의 공모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기업 무를 권한을 포기하기 전에 보아스로부터 정상적인 양보

이상의 것을 요구하였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일이었다.

6)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보내기 전에 한 일(3:15): **그가 [그녀/룻에게] "걸치고 있는 숄을 내밀고 잡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펴서] 잡았다. 그는 (　　)를 여섯 번 되어서 그녀에게 이워 주고 (　　)으로 들어갔다.**

① 룻이 동트기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　　)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 사람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데 사전에 필요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흄버트의 말대로 보아스가 준 (　　)는 룻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이 혹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란 변명과 구실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룻이 여섯 스아(약 60 혹은 100 파운드)의 무거운 곡식을 들고 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추수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 밤새워 일을 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을 것이다. 허버드(222)가 지적한 대로 새슨이 생각한 것처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잠재웠을 것이다.

② 보아스가 준 (　　)는 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쏟아질 수도 있는 의심의 눈초리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나오미와 룻의 곤경을 영구적으로 끝내려고 보아스가 앞으로 행할 행동의 진지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　　)가 주어질 대상에 대한 단서가 15 절에는 없지만 그 (　　)가 일차적으로 나오미에게 주어진 것임을 암시하는 17 절 하반절의 룻이 인용한 보아스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보아스는 룻과 자신의 명예를 지켜 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곤경을 벗어나게 해 줄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결심이 진지함을 보여주는 (　　)를 룻에게 주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　　)으로 들어갔다(3:15).

7. 타작 마당에서 성적 불륜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 주는 내레이터의 암시들
8.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헤쎄드(한결같은 인애)
9. 룻기 3 장에서 기업 무름과 관련한 나오미와 룻의 의도와 보아스의 해석
10. 타작 마당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1)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나선 때와 하나님의 때
   2) 나오미와 룻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3) 하나님의 보호 조치들

본문(3:6-15)의 교훈

1. 기업 무를 자로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말과 행동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2. 보아스가 룻을 통해 보낸 보리 선물의 의미

3.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들이 주는 교훈

4. 기업 무름과 수혼의 제도의 한계와 더 큰 기업 무를 자로서 그리스도

5. 구원 받은 신자들이 가져야 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구원 받은] 신자에 대한 태도

룻 3:16-18 (3 막 3 장)

퀴즈와 본문(3:16-18)의 의미

1. 3 막 3 장(3:16-18)의 이야기 전달 방식과 내용

1) 3 막 3 장을 시작하는 요약묘사(3:16): **그녀가(=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돌아왔다.**

2) 나오미가 집에 돌아온 룻에게 던진 질문(3:16): **그녀(=시어머니)는 물었다. "내 ( )아, 어찌 되었느냐?"**(= 직역: "너는 누구냐?")

3) 룻의 대답을 전하는 내레이터의 서술 방식

① 간접화법 = 말해 주는 것 = 요약 묘사(3:16): **그래서 그녀는 ( )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② 직접화법 = 보여 주는 것 = 극적 묘사(3:17)

- 룻의 말(극적 묘사):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 여섯 [됫박의] ( )를 그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 룻이 전하는 보아스의 말(극적 묘사 중의 극적 묘사):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 )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나오미의 지시(3:18): 극적 묘사: **그러자 그녀(=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 )아,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알기까지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 )이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타작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온**(3:16a) 룻에게 나오미가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 직역: "너는 누구냐?(3:16b)"**라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룻의 대답(3:16c-17)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나오미의 평가(3:18)로 끝난다. 룻의 대답(3:16c-17)을 전달하는 내레이터의 방식은 보아스가 말하고 행한 것들 중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밤 동안에 있었던 사건의 전 과정은 "**그래서 그녀**(=룻)**는 (=보아스의 칭호)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나오미)**에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간접적인 요약 묘사로 간단히 나타냈다. 그러나 관대한 보아스의 선물은 룻의 직접화법(**"이 여섯 됫박의 ( )를 그 사람이 주셨습니다."**)으로 극적 묘사하고, 그 안에 선물을 준 이유에 대한 보아스의 말이 직접 인용되도록(**"그러면서 그분이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 )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극적 묘사 중의 극적묘사로 나타냈다.

① 이렇게 보아스가 많은 (　　)를 준 것은 룻의 직접적인 말을 통하여 듣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선물에 대한 설명은 (　　)의 직접적인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듣게 함으로써 내레이터는 독자들이 이 상징적 행동과 그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내레이터의 이야기 서술 방식은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보내는 (　　)가 더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② 보아스가 책임을 다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하는 증표인 (　　) 선물이 있고, 나오미의 텅 빈 삶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어머니에게 (　　)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보아스의 말이 있는 한, 앞으로 나오미가 텅 빈 상태로 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보아스가 준 선물이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기업 무르는 일 가운데 평안한 보금자리를 주는 결혼을 넘어서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미에게 완전한 풍족한 삶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2. 어구 설명

1) 3:16 "너는 어찌되었느냐? (직역: 너는 누구냐?)"

2) 3:16, 18 "그 사람" (= "그 양반")

3) 3:18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4) 3:18 "오늘"

3. 내용

1) 룻의 정체와 관련된 질문과 답의 비교를 통한 룻의 지위/신분 상승

① 2:5-6 보아스: "저 젊은 여인은 뉘 댁 사람인가?" — 종: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　　) 여자입니다."

② 3:9 보아스: "당신은 누구요?" — 룻: "당신의 (　　) 룻입니다. 당신으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③ 3:16 나오미: "내 딸아, 너는 어찌되었느냐? (직역: 너는 누구냐?)" — 룻: 보아스의 행동에 대한 요약 묘사와 "(　　)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한 보아스의 말 전달

2) 보리 선물 자체보다 보리 선물을 보내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것

3)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확신의 이유

4) 2 막의 끝(2:23)과 3 막의 끝(3:18)과의 차이점

5) 1-2 막의 마감 방식과 3 막의 마감 방식의 차이

본문(3:16-18)의 교훈

1.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들을 지적하면?

2.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룻 4:1-8 (4 막 1 장)

퀴즈와 본문(4:1-8)의 의미

1. 법적 집회에 필요한 당사자들(4:1-2): 1 **보아스가 (　　)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때 보아스가 "아무여, 이리로 (　　) 여기 좀 앉으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와서 앉았다.** 2 **그리고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중 (　　) 명을 불러 모은 뒤 "여기 좀 앉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앉았다.**

1) (　　): 이곳은 시장(marketplace) 역할도 하였고(왕하 7:1) 시민들의 삶의 중심(civic center)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선지자들은 왕들과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고(왕상 22:10; 렘 17:19-20; 36:10)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였다(느 8:1-3). 이곳은 법정(courthouse) 역할도 하였다. 이곳에서 성읍 장로들은 공의를 시행하고(신 21:19; 수 20:4; 암 5:10; 잠 22:22) 법적인 문제 해결을 감독하였다(창 23:10, 18). 보아스가 이곳으로 간 것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 법적 문제를 해결할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은 밭으로 가거나 타작마당으로 가거나 다른 도시로 갈 때 이곳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서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찾아다니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곳에서 만나 처리할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2) "[플로니 알모니] **아무개여, 아무여,** Mr. So-and-so":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에게 말을 할 때 호칭을 아예 생략하거나 "형님" 혹은 "이름+형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앉아 있는 데로 와서 앉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저자는 그의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것처럼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플로니 알모니] 아무개여, 아무여, Mr. So-and-so"로 처리했다. 다른 인물들의 이름을 아주 주의 깊게 밝히는 내러티브(cf. 1:2, 4; 2:1)에서 이 인물의 이름 없음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비우호적인 인상을 갖도록 해 주며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밝혀지는 대로 고인의 이름을 이어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는 일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명씨가 된 것을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Bush, 246).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이름 없음은 평가절하를 내포하며 룻기 마지막의 긴 족보에 7 번째 자리를 차지한 보아스란 이름의 영광스러움과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3) (　　) 명의 장로: 보아스가 소집한 법적 집회의 (　　)으로서 대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역할

2. 법적 집회

1) 보아스의 진술과 요구 그리고 아무개씨의 동의(4:3-4): **3 그 때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문중 (　　)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내놓았소. 4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곧 내 백성의 (　　)들 앞에서 그것을 취하시오. 당신이 *무르고 싶으면* 무르시오. 그러나 당신이**

***무르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시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다음인 ( )를 제외하곤 무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 그러자 <u>그는</u> "*내가 무르고 싶소.*"라고 대답했다.**

① 생과부 나오미의 토지에 대한 권리: 구약의 유산 제도에 의하면 토지가 원래 제비뽑아 분배 받았던 ( ) 안에서 보존되어야 하고 토지에 대한 권한은 ( ) 안에 있었다. 토지 유산은 일차적으로 아들(들)이 물려받았다.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물려받지만 그 경우 딸(들)은 ( ) 안의 남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기업은 ( ) 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경우 과부가 남편의 토지 용익권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과부가 재혼하거나 죽으면 남편의 토지가 친족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부 재산의 귀속의 순서는 남편의 형제-남편의 아버지의 형제-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문을 통하여 우리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딸도 없는 과부로서 남편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용익권을 갖게 된 나오미가 그 용익권을 양도하려고 내 놓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② 나오미의 기업 무름은 사전 기업 무름(preemption)이 아닌 사후 기업 무름(redemption): 과부로서 나오미가 갖게 된 남편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이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으로 레 25:25 처럼 사후 기업무름(redemption)을 통하여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풍족하게 나갔다가 ( ) 돌아오게 되었다는 나오미의 절규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기에 남편의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룻이 ( )을 주운 것과 일치하므로 이야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의 용익권을 내놓았다"라는 보아스의 말은 나오미가 여인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신분도 없고 되찾아 올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밭의 용익권을 친족으로서 기업 무름을 통하여 되찾는 일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보아스의 책략: 3:13 의 [임-이그알레흐 토브 이그알] "그가 당신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겠다면, 좋소, 그로 당신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하도록 합시다."에서 "기업 무르다"란 동사의 목적어는 룻이었는데 4:4 의 [임-티그알 그알] "당신이 무르고 싶으면, 무르시오."에서 동사의 암시된 목적어는 ( )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기업 무를 대상을 사람에서 ( )으로 바꾸어 말한 것을 통하여 독자는 보아스가 어떤 기묘한 책략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Hubbard, 241).

④ 투자의 기회로 본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동의: <u>완료형 [가알티]</u>를 써서 즉석/실행 완료 즉 <u>"지금 내가 무르겠소."</u>처럼 현재 실행하는 <u>공식적인 선언</u>을 나타내지 않고 소원이나 ( )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에그알]**을 써서 보아스의 어떤 다른 제안들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Bush, 210).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은 "**내가 무르고 싶소**."라는 번역에서 보듯이 실제로 일어나는 기업 무름이 아니라 **그의 기업 무를 (　　)**을 보이고 있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횡재하는 기분이 들어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다.

- 사실상 이 기업 무름에는 손해 볼 것이 없었다. 친족 엘리멜렉의 밭을 무르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투자가 되는 셈이었다. 늙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밭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풍부한 소출이 나올 것이며 설사 희년(레 25:13-17)이 되어도 그의 소유로 계속 남아 그의 상속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서도 친족으로서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했다는 좋은 평판을 얻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2) 보아스의 진술과 요구 그리고 아무개씨의 거절+신발벗는 행위(4:5-8): **5 보아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그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날에 (　　)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이 취하여 (　　)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할 것이오." 6 그러자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친히 무를 수 없겠소*. 그랬다가는 내 기업에 (　　)만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친히* 나의 무를 것을 *무르시오. 나는 무를 수 없으니* 말이오." 7 옛적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런 일 즉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　　)을 벗어 주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확정하는 관례이었다. 8 그래서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히 취하시오*."라고 말하며 자기의 (　　)을 벗어 주었다.**

① 룻과의 결혼의 성격: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친형제일 경우 의무적인 수혼이 아니다. 룻과의 결혼의 목적 즉 (　　)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는 것은 수혼의 목적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죽은 엘리멜렉이나 말론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의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친족으로서 (　　)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법적 후사를 낳아 그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려는 것은 수혼을 통하여 죽은 형의 법적 후사를 낳아 죽은 형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룻기의 관습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이행 여부에 따라 어떤 법적인 제제가 따르지는 않지만 친형제가 아니라도 가까운 친족에게 멸절위기에 처한 다른 친족을 위해 이행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나 보아스에게 법적으로는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법적 후사를 낳을 책임이 없었으나 관습적으로는 친족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제안한 결혼은 "redeemer's marriage 기업 무를 자의 결혼, 기업 무름을 위한 결혼"이고, 기업 무를 자가 친족으로서 갖는 책임은 "levirate-type responsibility 수혼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Bush, 227).

② "**무르고 싶소**."에서 "**나는 친히 무를 수 없소.**"로 바꾼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의 손익 계산: 보아스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 앞에서 그 기업 무를 자는 그의 진심을 드러내 보였다. 그의 처음 계산으로는 늙은 나오미로부터 밭의 용익권을 취하는 기업 무름에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늙은 나오미가 죽으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밭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해 동안 풍부한 소출이 나올 것이며 설사 희년(레 25:13-17)이 되어도 그의 소유로 계속 남으며 후에 그의 상속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하여 수혼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의 새로운 계산은 횡재가 아니라 오히려 막심한 손해가 난다. 다시 말하면 밭의 용익권을 살 때 들어간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친족을 위한 기부금이 되어 버린다. 룻과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이 엘리멜렉-기룐-말론에 속한 밭을 상속할 것이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기업 무를 자의 기업을 기존의 다른 아들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나오미와 룻과 그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도 상당한 경비가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손해만 보며 그의 기업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는 그 자신이 친히 나서서 기업 무를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보아스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 앞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간단히 줄이면 "**나는 *직접/친히* 무를 수 없소(내 기업 망치면서까지). *당신이 직접/친히* 무르시오(나는 무를 수 없으니).**"가 된다. 친족의 후사 문제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나는 친히 무를 수 없소"로 시작하여 "나는 무를 수 없소"로 말을 마치는 그 기업 무를 자는 내레이터가 묘사하는 그의 상징적인 동작을 하며(4:8) 무대에서 사라진다.

③ 관습: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　　)을 벗어 주곤 하는 일**(4:7)"이 쌍방 행위가 아니라 일방 행위라는 점은 4:8 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주어로서 보아스에게 권리를 취하라고 말한 주체이므로 바로 뒤따라오는 바브 계속법의 동사의 주어로서 (　　)을 벗는 상징적인 동작의 주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독자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6 절에서처럼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8 절은 기업 무를 자를 주어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청자인 보아스를 대명사로 쓰지 않고 고유명사를 써서 밝힌다. 이처럼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협의의 당사자 두 사람을 각각 일반명사(기업 무를 자)와 고유명사(보아스)로 동시에 언급하는 8 절은 독자에게 이 장면의 절정 즉 기업 무를 권한의 공식적인 양도의 행위를 보도록 해 준다(허버드, 252).

3. 보아스의 재치있는 접근으로 인한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가 직면한 딜렘마
4. 기업 무를 자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유
5.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차이
6. 룻과의 결혼(기업 무름을 위한 결혼, 수혼적 책임)

7. 성문에 앉아 있는 백성과 장로들의 역할

본문(4:1-8)의 교훈

1. 대조 인물인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보아스의 대조
2. 희생과 타인에 대한 관심의 관점에서 보는 보아스와 그리스도

룻 4:9-12 (4 막 2 장)

퀴즈와 본문(4:9-12)의 의미

1. 4 막 2 장의 개요(4:9-12):
   1) 4 막 1 장(4:1-8)은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만나서 ( )명의 장로들과 함께 법적 집회를 열고 기업 무를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적법한 절차를 보여주었다. 4 막 2 장(4:9-12)은 보아스가 그 법적 집회의 결과를 공식 선언하고(4:9-10) 백성과 장로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보아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보여준다(4:11-12).
   2) 보아스의 말(4:9-10)은 "**여러분은 오늘 ( )들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난다.
   3) 보아스의 말을 감싸는 이 시작과 끝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백성과 장로들은(4:11-12)은 [우리들이 그 일의] "**( )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룻의 다산을 빌고 이로 인해 보아스가 누릴 복을 빈다.
      ① 백성과 장로들의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을 할 때 질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 )함으로써 간단히 대답하는 경우와 비슷하다(GKC 150n: 창 29:6; 37:32f; 삼상 23:11; 26:17; 왕상 21:10; 렘 37:17).
      ② 성경 히브리어는 "Yes, 예"와 같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때 중요한 단어나 어구를 ( )해서 응답한다(부시, 239).
2. 보아스의 법적 회의의 결과에 대한 요약(4:9-10): 보아스는 두 가지 사실 곧 엘리멜렉의 기업(4:9)과 룻(4:10)에 대한 사실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한다. 법적 회의에서 논의할 때 주고 받은 말(4:3, 5)과 비교할 때 여기 보아스의 말(4:9-10)은 정확성과 세밀성과 최종성을 천명하기 위한 추가 사항을 담고 있다.
   1) **[4:9]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 )들입니다[틀]. **제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 )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나오미로부터 얻었습니다.**
      ① 4:9 에서 4:3 의 "*엘리멜렉의 밭*"보다 자세하게 묘사된 것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 )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다.

② 엘리멜렉의 아들들의 이름이 추가된 것은 유산 상속에 대한 암시를 내포한다. 보아스는 "처음에는 엘리멜렉에 속하였으나 그 후 상속에 의하여 (　　)과 말론에 속하였던 모든 것"에 대한 용익권을 갖게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법적인 정확성과 최종성을 천명하였다.

2) **[4:10] 그리고 또 (　　)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저의 아내로 취할 권한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　　)들과 그의 고장 (　　)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　　)들입니다[틀]**."**

① 4:5 의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여기서 "**(　　)의 아내 모압 여인 룻**"으로 보다 분명하게 밝혀졌다. 법적 회의라는 공적인 배경에서 룻이 완전한 성명으로 언급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적절한 일이다. 보아스의 진술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하려는 상황에서 그의 의무가 가능한 한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다.

② 보아스는 4:5 의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도록*"을 보다 확장하며 "**이 일은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문중 (　　)들과 그의 고장 (　　)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 낳은 자식은 엘리멜렉-말론-기룐의 기업을 차지하며 그들의 이름을 잇게 할 후사가 된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기업을 차지할 자식의 탄생은 추가적인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 [샤아르 므코모]는 "**그의 고장 (　　)**"으로 직역되는 것으로 블락의 설명대로 (　　)에서 모이는 집회를 뜻하며 캠벨의 설명대로 장로들과 남자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기업과 관련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집회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③ 법적회의에서 있었던 거래와 목적의 진술이 자세하고 길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로부터 양도받은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할 권한을 얻은 것에 대한 합법성과 최종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법적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역할을 밝히며 "**여러분은 오늘 (　　)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복은 보아스의 마지막 말의 틀을 제공하며 문예적으로 수미쌍관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말이 엄숙하고 강조적이었음을 보게 해 준다. "**오늘**"이란 단어는 증인들의 법적 성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들의 공증인 역할을 인정하자마자 그 거래가 최종성을 가지고 오늘과 그 이후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3.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4:11-12)

1) **[4:11ab] 그 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이 그 일의] **(　　)들**입니다**."**

내레이터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순서 면에서 9 절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과 정반대이다. 여기서 내레이터가 백성을 "**성문에 있던**" 백성으로 언급한 것은 성문이 법적 회의의

법정 역할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의 협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4:11c** 간접명령형, 룻의 다산**]**: 첫 번째 축복문: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곧 들어갈 여인으로 (　　)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　　)와 같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4:11de** 두 개의 명령형, 룻의 다산의 결과 1**]** 두 번째 축복문: "**그래서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아쎄 하일] (　　)에서 유명해지길[크라 셈]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문(4:11de)은 신랑 보아스가 누릴 재력, 지위, 번창 그리고 명성을 바라며 축복한 것이다.

4) [**4:12** 간접명령형: 룻의 다산의 결과 2**] 그리고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　　)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실 자손[제라, 씨]으로 말미암아."**

① 4:11-12 의 축복문 배열

룻의 **다산**(11c, 희구형: 축복문 1)

→ **보아스의 번창과 명성**(11de, 두 개의 명령형: 축복문 2)

보아스의 집의 명성(12, 희구형: 축복문 3)

←룻의 **다산**(12 절 전명구+관계절)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세 번째 축복문은 첫 번째 축복문의 더 확대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축복문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도 아니며, 두 번째 축복문과 나란히 가는 대등한 절이다.

②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는 "씨"를 의미하는 집합명사로서 족장들(창 12:17; 13:15, 16; 26:3, 4, 24; 32:13)과 다윗(삼하 7:12; 시 18:50[MT 51]=삼하 22:51)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처럼 자손들/후손들을 가리킨다.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 "(　　)"를 주었었는데(3:15, 17) 여기서 여호와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씨"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받으셨다. 룻이 "**젊은 여인**"으로 언급된 것은 보아스가 밭에서 종에게 룻의 신원을 모른 상황에서 그의 눈에 띈 여인 즉 "저 (　　) 여인이 뉘 댁 사람이냐(2:5)"라고 사환에게 물었던 것과 룻의 신원을 알고 "내 딸(2:8; 3:10)"이라고 불렀던 사실이 보여주는 대로 보아스와 나이 차이가 나는 룻의 젊음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본문(4:9-12)의 교훈

1. 아담/하와 그리고 이삭/리브가의 결혼에 비추어 보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2. 축복문(4:11-12)과 긴 족보(4:18-22)와의 연관성
3. 후사 문제에 대한 유다와 다말의 태도(창 38 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룻 4:13-17 (종막)

퀴즈와 본문(4:13-17)의 의미

1. 내러티브 보고(4:13 요약묘사와 논평/보충설명): 룻의 결혼과 출산: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 )가 되었고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랬더니 ([참고, 1:6])께서 그녀로 임신하도록 해 주셨고 그녀는 ( )을 낳았다.**
   1) 하나님의 이름 언급에 의한 수미쌍관법(theological inclusio): 룻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23 번 나온다. 내레이터의 입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1:6 과 여기 4:13 즉 두 번뿐이다. 내레이터가 이야기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자신의 입으로 "( )께서 양식을 주시고" "( )께서 임신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진술을 한 것은 처음 부분과 끝 부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도 포괄하는 수미쌍관법이다.
   2) 아들 출산: ( )의 아내로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임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기적이며 은혜로운 선물이었다. 모압 거주 ( )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후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로 그녀가 텅 비었다가 다시 채움을 받는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룻으로 임신하도록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출산할 수 있었던 사라(창 21:1-2), 리브가(창 25:21), 레아(창 29:31, 30:17), 라헬(30:22, 23)의 경우를 생각하도록 해 준다. 룻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은 것은 민족과 ( )의 벽을 뛰어 넘으며(1:16-17) 시어머니에게 헌신하였던 그녀에게(2:11; 3:10) 보아스의 기도(2:12)의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 )이고 성문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며 드린 소원(4:11-12)의 성취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2.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4:14-15 극적 묘사):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 )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아이]의 이름이 ( )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당신에게 ( )의 회복자요 당신의 ( )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토록 ( )하는 당신의 며느리, 아니 당신에게 ( )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1) 종막과 1 막 2 장의 병행: 1:20-21(1 막 2 장)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참하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 )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 )께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셨고 ( )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여기 종막(4:13-17)에 다시 등장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은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탄생한 것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호의를 인하여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며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의미를 설명하며 룻을 칭찬한다.

2) 찬양의 근거(4:14b): 베들레헴 여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악으로부터 친족이나 동족을 구하는 자이고 나오미 가문의 법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의 불안정에 대한 해결자[15 절: 아이의 역할 참조] 곧 나오미를 불안정으로부터 구해 줄 ( )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3) 아이에 대한 축복(4:14c): 베들레헴 여인들은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 )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4:11) 것을 넘어서 새로 태어난 아이가 온 나라 ( )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랐다(4:14). 이처럼 태어난 아이의 운명이 지역적인 지평에서 국가적인 지평으로 확장된 것은 저자가 17 절 하반절에서 밝힌 오벳-( )-다윗이란 짧은 족보가 주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맛보도록 준비시켜 준다.

4) 회복자로서 아이(4:15a): 베들레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 은혜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을 확신하였다. 그 태어난 아이는 나오미가 삶의 풍성함으로 회복되도록 해 줄 것이며 나오미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었다. (여기 사역능동 어간 분사 [메시브]의 어근 인) [슈브]는 1 막(1:6-22)의 핵심 단어로 쓰였고 1 막에서 사역능동 어간으로는 나오미의 불평 가운데 단 한번(1:21)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근과 어간이 똑같은 1:21 의 [헤시바니]와 4:15 의 [메시브]가 수미쌍관법을 이루도록 하는 저자가 의도적인 배열인 것을 알려 준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 )으로 돌아오게 하셨소(1:21)."라고 했던 나오미의 잠재해 있던 불평이 여기에서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새로 태어난 그 기업 무를 자는 나오미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회복을 위한 일을 하는 ( )의 회복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멸절 위기에 있었던 그녀의 계보가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끊기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 아이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태어난 아이에 의해 서막에서 제기되었던 후사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의기소침해 있던 나오미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을 것이다.

5) 봉양자로서 아이(4:15a): [울할켈 에트-쎄바테흐]는 직역하면 "당신의 백발에 양식을 제공하다"가 되며 앞의 병행구와 관련지어 "당신의 ( )의 봉양자"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어구는 이전에 심한 기근에 의해 쪼들렸던 나오미의 삶이 장래에 그 기업 무를 자에 의해 매일의 양식을 제공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죽더라도 새로 태어난 기업 무를 자가 서막과 1 막에 제기되었던 양식 문제의 해결자가 될 것이다.

6) 룻에 대한 칭찬(4:15b): 여인들의 합창은 그 아이가 지금 나오미의 ( )**의 회복자**요 장래에 나오미의 ( )**의 봉양자**가 될 것을 확신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끝난다.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나오미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마음에 기쁨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또 노년에 봉양을 잘 받을 것이 틀림없는 이유는 나오미에게 그 기업 무를 자를 낳아 준 며느리 룻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여인들에 의하면 룻은 나오미를 (　　)하는 며느리이고 나오미에게 (　　)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였다.

① 사랑이 감정적인 용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과 달리 여기 "(　　)하다"라는 동사는 룻이 지금까지 나오미에게 했던 모든 행위를 총괄하여 요약하는 것이며 언약 관계 속에서 행하는 온전한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②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숫자 (　　) 아들들이 있는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으로 간주되었다(삼상 2:5; 욥 1:2; 42:13; 행 19:14-17). 그 아들들은 한 가문이 지속되는 것과 노년의 과부가 보살핌을 받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그 이상적인 (　　)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이다. 아들 후사를 얻는 일에 관심이 쏠려있는 룻기에서 한 여인이 (　　) 아들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은 것은 최고의 칭찬이요 찬사의 극치이다. 이것은 룻의 인품에 대한 극찬이다. 하나님께 긴 불평을 털어놓을 때 나오미가 룻을 복덩어리로 보지 못했던 것을 질책이라도 하는 듯 여인들은 룻이 당연히 들어 마땅한 칭찬을 하고 있었다.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3:11)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의 가치를 (　　) 아들 위에 두었다. 이것은 나오미의 잃었던 두 아들들에 대한 얼마나 뛰어난 보상인가!

3. 내러티브 보고(4:16 요약묘사): 나오미의 반응: **그 때 나오미가 그 (아기[옐레드, 참고 1:5] → 　　)을 취하여 그녀의 품에 안았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1) 나오미의 첫 번째 반응(4:16a): 이제 내레이터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한 아들의 출생과 여인들의 축복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을 3 개의 동사문으로 전달한다. 매우 복된 소식의 수혜자인 나오미는 이야기의 처음처럼 중심 인물로서 행동한다. 기뻐하는 여인들의 손으로부터 **나오미는 그 (　　)을 취하였다**. 얼마나 기쁜 순간인가! 드디어 나오미는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후사를 그녀의 손으로 취할 수 있었다.

① 저자는 "**남편을 먼저 여의고 두 (　　)마저 잃고**" 정체성이 상실되었던 "그 여인(1:5)" 그리고 "**그 (　　)을 취한**" "나오미(4:16)"를 묘사할 때 흔히 쓰이는 "아들(בֵּן[벤])" 대신 [옐레드]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가 후사임을 드러내 주고 이야기의 서두에서 가계를 이어갈 후사가 끊어진 문제가 이야기의 끝에서 해결된 것을 보여주며 정말 아름다운 주제적 수미쌍관법(a lovely thematic inclusio)을 보여준다(Hubbard, 274; Campbell, 164). 이 문예적 기교는 나오미가 취한 그 아이([하옐레드], 4:16)가 모압에서 나오미가 잃은 두 아들들 [시네 열라데하] = 기룐과 말론, 1:5)을 대신하게 된 것을 밝혀준다.

② [옐레드]의 어근은 "낳다"라는 뜻의 [얄라드]이다. 이 어근은 룻기에서 명사 [옐레드](1:5; 4:16 "(　　)")와 [톨레도트](4:18 "계보, 족보, 후예")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할 때 기본능동 어간으로 두 번(4:13, 15) 사용되고 남자가 주어로 나오는 족보(4:18-22)에서 사역능동 어간으로 9 번 사용되었다.

2) 나오미의 두 번째 반응(4:16b): **나오미는 그 아이를 취하여 그녀의 품에 안았다.**

①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은 것과 창 30:3(라헬의 무릎과 빌하가 낳을 아들); 48:12(야곱 무릎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50:23(요셉의 무릎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에서 아이를 무릎에 두는 것과 비교된다. 창세기의 무릎 사이에 두는 행위들은 (　　)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다.

② 나오미의 경우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첫 아들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계보를 잇고 기업을 차지할 후사이기 때문에 입양을 위한 법의 행위가 필요없다. 따라서 나오미가 아이를 안은 행위는 법의 행위가 아니라 (　　)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오미의 세 번째 반응(4:16c): 보아스와 결혼하여 룻이 낳은 그 아이를 여인들로부터 취하여 품에 안은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것은 아이를 젖먹이는 유모가 된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할머니가 (　　)에게 지극한 보살핌을 주는 애정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를 체험한 나오미는 기쁜 마음으로 미래에 자신을 돌보아 줄 그 기업 무를 자를 돌보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았다. 허버드(275)가 설명한 것처럼 나오미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본을 보여 주었다.

4.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4:17ab 극적묘사): **그 이웃 여인들이 "(　　)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1) 출생 공식 인용: 내레이터의 진술 다음에 종막을 열었던(14 절) **그 이웃 여인들**이 종막을 닫는 역할을 한다. 그 이웃 여인들의 말은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된 나오미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출생 선언은 분만실 밖에서 아이의 안전한 출생 소식에 대한 산파의 말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저자는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기쁨의 출생 선언 공식을 나오미에게 적용하여 그녀에게 기업 무를 자의 탄생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　　)**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출생 선언에서 강조점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Bush, 261). 기업 무를 자가 절실히 필요한 나오미 가문에 이 아이가 (　　)이란 사실은 여인들과 나오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멸절 위기에 있었던 나오미 가문에 기업 무를 자가 태어난 것이 나오미의 충만한 삶의 회복에 주는 의미를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표현했던 여인들의 합창(14-15 절)이 다시 한번 "(　　)**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출생 공식을 인용하는 합창으로 이어진 것이다.

2) 제삼자의 작명: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이름을 주었다는 기록은 별로 없다. 여기에서처럼 이웃 여인들이 설명을 하고 이름을 준 것과 유사한 상황은 산파가 (　　)의 이름을 준 창 38:27-30 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주지 않고 이웃 여인들이나 산파가 이름을 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볼 수 있는가? 부시(261)는 제삼자가 이름을 준 경우에 대하여 내레이터가 "창작적 자유"를 사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내레이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여인들이 실제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믿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부모가 이름을 주는 보편적인 사실과 아주 상반된 일이지만 여인들이 이름을 주었다고 내레이터가 말한 뜻은 여인들이 "( )**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그들의 기쁜 외침을 통하여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다.

3) 오벳: [오베드]라는 이름은 "섬기다"라는 뜻의 어근 [아바드]의 기본능동 어간 남성 분사로 "섬기는 자"란 의미를 갖고 있다. 오벳은 여호와나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 압디엘([아브디엘] "하나님의 종") 혹은 오바댜([오바드야], [오바드야후] "여호와의 종")의 줄인 형으로 보인다. 신적 요소가 빠진 오벳이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나오미를 섬기는 자인지 모호하다. 여호와의 종이라면 오벳은 나오미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오미가 1:20-21 에서 하나님께서 부과하였다고 불평한 비참함을 제거하고 그녀의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자임을 나타내고,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면 오벳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녀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우고 그녀의 노년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낸다. 오벳이 나오미를 섬기면서 결국 나오미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오벳은 ( )의 종이요 ( )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261)가 설명한 것처럼 "나오미에게 생긴/태어난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 )요 노년의 ( )로서 나오미를 섬기는 자 즉 오벳으로 불리운 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의미에 근거하여 풀이한 언어 유희에 속한다.

5. 내러티브 결론(4:17c 보충설명): **그가 바로 ( )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었다.**

1) 오벳 탄생의 의의: 독자들이 여인들의 합창을 들으며 나오미의 삶의 풍성한 회복을 즐기고 있을 때 내레이터는 전면에 불쑥 나와서 한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을 전한다. 그것은 **그가 바로 ( )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해설이다. 내레이터의 이 해설은 일종의 마지막 감탄 부호와 같은 이야기의 절정적인 결론이다. 나오미에게 생긴 아들 오벳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내레이터의 설명은 오벳의 탄생의 역사적 의의를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이 처한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해 준 것을 훨씬 뛰어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기여한 것에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해설은 삶의 위기에 처한 두 과부의 이야기가 더 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직물을 짜는 하나의 밝게 빛나는 실이 된 것을 보게 한다. 나오미를 섬기는 일이 결국 여호와의 더 큰 목적을 섬기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 ) 자라는 뜻의 오벳의 이름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종이란 뉘앙스도 줄 수 있게 되었다(Hubbard, 277).

2) 짧은 족보의 의의: **오벳-(　　)-다윗**의 3 대를 밝히는 이 짧은 족보는 독자들을 이야기의 배경 시대이었던 먼 사사 시대(1:1)로부터 최근 시대, 즉 다윗이 잘 알려진 더 가까운 시대로 돌아오게 한다.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 기도한(4:11) 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보아스는 에브라다에서 번창하고 (　　)에서 유명해졌다. 나오미의 집에서 여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축복한(4:14) 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오벳의 이름은 (　　) 중에서 유명하게 되었다. 정말 룻과 보아스와 오벳은 다윗 왕가의 유명한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가 읽혀지며 보아스의 이름과 오벳의 이름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불려지는 유명한 이름들이다.

본문(4:13-17)의 교훈

1. 시편과 잠언에 비추어 본 보아스의 삶
2. 복의 통로로서 보아스
3.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결같은 인애의 중요성
4. 룻기와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

룻 4:18-22 (코다)

퀴즈와 본문(4:18-22)의 의미

1. 내용
   1) 룻 4:18-22 은 족보 공식과 족보 자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족보 공식은 (　　)이고 족보 자체는 총 (　)대가 열거되어 있다.
   2) [엘레 톨(레)도트 X] ("이것이 X 의 계보이다")라는 말은 (　　)의 각 부분의 제목으로 11 번(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2) 사용되었고 민 3:1(아론과 모세의 계보)에도 나온다.
   3) 룻기 원문의 맨 마지막 단어는 다윗이다. 다윗은 이 족보에서 (　　)번째 자리에 온다.
   4) 이 족보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인물 베레스의 아버지는 (　　)이고 어머니는 (　　)이다(창 38 장).
   5) 이 족보에서 일곱 번째 자리에 오는 인물은 [룻기에서 이름없이 사라진 더 가까운 기업무를 자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주인공] (　　)이다.
   6) [출 6:23] (　　)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7) [민 10:14] 선두로 (　　)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　　)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cf. 민 2:3; 7:12, 17; 대상 2:10)

8)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 **오벳**은 혈통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요 법통으로는 (　　)의 손자요 (　　)의 아들이다.

9) 이사야는 "(　　)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11:1) . . . 그날에 (　　)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11:10)"는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　　)의 줄기, (　　)의 뿌리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였다(cf. 롬 15:12).

10) [마 1:3, 5, 16] 3 유다는 (　　)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 . . 5 살몬은 (　　)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　　)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　　)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 .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　　)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 룻기의 3 중 마감(4:13-17c; 4:17d; 4:18-22)
3. 긴 족보(4:18-22)는 룻기에 원래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후대에 첨가되었는가?
4. 족보(4:18-22)와 내러티브(1:1-4:17)의 밀접한 연관성

본문(4:18-22)의 교훈

1. 10 대로 이루어진 긴 족보(4:18-22)에서 7 대와 10 대의 중요성
2. 창세기 5 장의 족보와 룻 4:18-22 의 족보에 대한 간단한 비교
3. 긴 족보(4:18-22)의 목적
4. 긴 족보(4:18-22)가 하나님에 관하여 주는 교훈들
5. 룻 4:18-22 과 마 1:1-17